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0.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SNS 통해 목격담 전해..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729755  
본문: 태국 방콕의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방콕을 방문한 방송인 홍석천이 폭탄 테러현장 인근에서 상황을 전했다.<br/><br/>홍석천은 17일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말했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1.txt

제목: 방콕 폭탄 테러, 홍석천 현장 근처서 목격 ‘아찔’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719772  
본문: 방송인 홍석천이 여행차 태국 방콕을 찾았다가 17일 폭탄 테러 상황을 인근에서 목격했다. <br/><br/>홍석천은 17일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쯤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2.txt

제목: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태국방문 ‘SNS글 보니..’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704206  
본문: 방송인 홍석천이 여행차 태국 방콕을 찾았다가 17일 폭탄 테러 상황을 인근에서 목격했다.<br/><br/>홍석천은 17일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쯤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3.txt

제목: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테러현장 근처에 있었다?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707338  
본문: 방송인 홍석천이 여행차 태국 방콕을 찾았다가 17일 폭탄 테러 상황을 인근에서 목격했다. <br/><br/>홍석천은 17일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쯤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4.txt

제목: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태국 방문한 홍석천 SNS보니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652788  
본문: 방송인 홍석천이 여행차 태국 방콕을 찾았다가 17일 폭탄 테러 상황을 인근에서 목격했다.<br/><br/>홍석천은 17일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쯤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5.txt

제목: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여행차 방콕 방문 ‘SNS글 보니..’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648725  
본문: 방송인 홍석천이 여행차 태국 방콕을 찾았다가 17일 폭탄 테러 상황을 인근에서 목격했다.<br/><br/>홍석천은 17일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쯤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6.txt

제목: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SNS보니 ‘아찔한 순간’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640655  
본문: 방송인 홍석천이 방콕 테러현장 근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br/><br/>홍석천은 17일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쯤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7.txt

제목: 방콕 도심서 폭탄 폭발, 홍석천 SNS 글 보니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632039  
본문: 방송인 홍석천이 방콕 테러현장 근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br/><br/>홍석천은 17일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뭔 일이 생긴 걸 알았다”는 글을 게재했다.<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쯤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8.txt

제목: 부작용 적은 ‘면역 항암제’ 작용 원리 규명  
날짜: 20150818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605077  
본문: 기존 항암제보다 치료 효과가 높으면서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면역 항암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이에 따라 고효율 항암제 개발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br/><br/>서울대 약대 강창율 교수팀은 면역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 ‘GITR’이라는 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의약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 17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다.<br/><br/>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화학 항암제’나 암 관련 유전자를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와 달리 암세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환자의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약물이다. 화학 항암제는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데 초점을 맞춰 치료하기 때문에 증식 속도가 빠른 혈액세포 등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탈모나 면역력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br/><br/>면역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도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작동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아 상용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br/><br/>연구진은 인위적으로 흑색종(피부암의 일종), 폐암, 대장암을 발생시킨 생쥐에게 GITR 항체를 투입했다. 그러자 면역체계를 자극해 암세포가 더이상 성장하지 않고 치료되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GITR 항체가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루킨9’라는 물질을 생성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br/><br/>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GITR 항체의 항암 원리 전체를 확실히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GITR 항체를 활성화하는 물질의 개발을 통해 생체 친화적 항암제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09.txt

제목: 이재용, 이맹희 명예회장 빈소 찾아… 범삼성家 한자리에  
날짜: 20150818  
기자: 주현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505224  
본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을 계기로 범삼성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br/><b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일 저녁 9시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을 찾아 지난 14일 별세한 큰아버지인 고 이 명예회장을 조문했다. 투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장남인 이 부회장이 큰아버지의 빈소를 찾은 것이다.<br/><br/>이 부회장에 앞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조문했다.<br/><br/>고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법적 분쟁으로 갈등을 빚은 양가가 이 부회장의 조문을 계기로 화합할지 주목된다.<br/><br/>고 이 명예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형이다. 그는 2012년 2월 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과 관련,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2년간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전은 마무리됐지만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br/><br/>이날 빈소에는 고 이 명예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여동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장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범삼성가 인사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br/><br/>한편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8일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이 이날 이 회장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20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접근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입원실로 제한돼 있었고 부친의 빈소도 같은 병원에 마련됐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별도의 변경 신청이 필요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br/><br/>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고 이 명예회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운구됐다.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가족 대표로서 중국에서부터 운구했으며 고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등 직계가족이 빈소를 지키고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7시이며, 영결식은 이로부터 1시간 뒤인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 <br/><br/>주현진 기자 jhj@seoul.co.kr<br/><br/>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br/><br/>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0.txt

제목: 전립선암까지…‘수면 부족’이 유발하는 건강 위험 4가지  
날짜: 2015081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4010003  
본문: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7~9시간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두통이 발생하기 쉽다. 평소 이런 악영향을 실감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사람도 많을 것이다.<br/>그런데 이런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심각한 질병을 앓을 위험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수면 부족이 유발하는 건강 위험 4가지를 소개한다.<br/>■ 전립선암<br/>남성이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수면 부족’이 발병 위험과 진행 속도를 높인다.<br/>국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학술지인 ‘암 역학·생물표지·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and Prevention)에 실렸던 연구논문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대 라라 시거다르도티 교수팀이 67~96세 남성 2000여 명을 3~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수면 장애를 지닌 사람 60%에서 전립선암이 발병했다.<br/>이 수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 배에 이른다. 또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암의 진행도 빨랐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많으면 종양 성장을 엑제할 수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그 양이 줄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 궤양성대장염<br/>주로 대장 점막 부위에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비특이적 염증성 장질환으로,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br/>의학전문지 ‘임상 위장병·간장병학’(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 아슈윈 아난타크리슈난 박사팀이 연구를 통해 궤양성대장염이 수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br/>특히 궤양성대장염은 수면 과다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적당한 수면만이 소화 기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비슷한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br/>연구팀이 1976~1989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간호사건강연구(NHS: Nurses‘ Health Study)의 자료를 검증한 결과,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9시간 이상일 때 이 질환의 위험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알츠하이머병<br/>건망증으로 시작해 점차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성격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는 치매 가운데 하나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br/>그런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축적한다는 것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애덤 스피라 교수팀이 53~91세 남녀 70명의 뇌를 스캔한 결과에서 밝혀졌다.<br/>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른바 뇌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여겨지고 있다.<br/>이 연구결과는 ‘미국의학협회저널 신경학’(JAMA Neurology)을 통해 게재됐다.<br/>■ 자살<br/>질병은 아니지만, 자살도 무시할 수 없다. 우울증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수면 부족과 자살률이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스탠퍼드대 레베카 버너트 박사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r/>‘미국의학협회저널 정신과학’(JAMA Psychiatry)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42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그중 20명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br/>버너트 박사는 “<span class='quot0'>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자살률이 1.4배 더 높다</span>”고 지적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1.txt

제목: 서울대병원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 성공적으로 정착”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2252539  
본문: 　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위탁 운영 중인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하 UAE 왕립병원)이 진료 시작 6개월 만에 7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17일 밝혔다.<br/>　UAE 왕립병원은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이 UAE 대통령실과 5년간 1조원 규모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6개월만인 지난 2월부터 진료가 시작됐다.<br/>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UAE 왕립병원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현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탁운영 1주년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br/>　UAE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은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의 진료에 중점을 둔 UAE 첫 3차 전문병원으로, 총 246 병상 가운데 중환자실 20개 등 133개 병상을 가동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이곳에 의사 40여명 등 250여명의 인력을 파견했다.<br/>　병원 측은 올 7월에만 외래환자 1200명, 입원환자 100명을 진료하는 등 개원 후 누적 환자가 외래 7000명, 입원 570여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는 고난도 치료로 꼽히는 각종 암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수술 140건이 포함돼 있다.<br/>　병원 측은 “의뢰 환자의 85%는 이 병원이 위치한 라스알카이마 지역뿐 아니라 UAE 전역의 1~2차 의료기관에서 전원됐으며, 나머지 15%는 UAE 외 주변 국가에서 찾아온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br/>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0'>UAE 왕립병원은 의료한류의 상징적 성공모델이자 중동지역의 의료허브로 자리잡게 될 것</span>”이라고 전망하며 “<span class='quot0'>대한민국 대표 의료 브랜드로서 국익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2.txt

제목: 심혈관 부작용 없는 당뇨 치료 물질 개발  
날짜: 20150817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900968  
본문: 당뇨병은 체내 인슐린 분비의 이상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생기는 대사질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3억명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350만명 정도가 앓고 있다.<br/><br/>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슐린이다. 문제는 인슐린이 세포 증식을 촉진시켜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각종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br/><br/>포스텍 생명과학과 류성호 교수와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당뇨센터 퍼올로프 베르그렌 센터장 공동연구팀은 인슐린처럼 혈당을 낮추면서도 당뇨 치료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핵산물질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핵산연구’ 최신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IR-A48’이란 핵산물질이 인슐린처럼 체내 혈당은 낮추지만 세포는 증식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당뇨 환자 사망 원인의 70%에 이르는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은 인슐린에 의한 혈관 근육의 세포분열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견한 물질은 세포분열 없이 포도당 흡수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슐린 대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에 관련 기술을 이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신약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제휴도 추진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3.txt

제목: 삼성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  
날짜: 2015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132008  
본문: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br/><br/>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br/><br/>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br/>CJ그룹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br/><br/>1931년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962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한 뒤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다. <br/><br/>하지만 회사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자주 대립하다가 1976년 3남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계자로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br/><br/>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 실패한 이맹희 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1994년에는 부인 손복남 안국화재 상무(현 CJ제일제당 경영고문)가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일제당 주식과 맞교환하면서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분리됐지만 이맹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br/><br/>CJ로 이름을 바꾼 제일제당은 현재 이맹희 전 회장과 손복남 고문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 있다. 삼성그룹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동생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br/><br/>이후 소송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맹희 전 회장은 이후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br/>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이맹희 전 회장이 2014년 2월 상고를 포기하고, 그해 8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자 양측이 ‘해빙무드’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br/>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주일 가량 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운구될 예정이며 장례식은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4.txt

제목: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삼성 장남-이건희 회장 형’ 2012년 폐암 진단 후..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019768  
본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삼성 장남-이건희 회장 형’ 2012년 폐암 진단 후..<br/><br/>‘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br/>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암 투병 중 별세했다. <br/>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CJ그룹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소식을 전했다.<br/>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br/>하지만 이듬해 말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2014년에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해왔다.<br/>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남 5녀 가운데 장남이었지만 후계 구도 싸움에서 밀리며 동생인 3남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기고 제일제당을 물려받아 독립했다.<br/>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 실패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1994년에는 부인 손복남 안국화재 상무(현 CJ제일제당 경영고문)가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일제당 주식과 맞교환하면서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분리됐지만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경영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br/>CJ로 이름을 바꾼 제일제당은 현재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손복남 고문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 있다. 삼성그룹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동생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br/>이후 소송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이후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2014년 2월 상고를 포기하고, 그해 8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자 양측이 ‘해빙무드’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br/>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주일가량 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운구돼 장례식을 치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br/>사진=서울신문DB(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5.txt

제목: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회장 별세…파란만장했던 삶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016229  
본문: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br/><br/>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br/><br/>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br/>CJ그룹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br/><br/>1931년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962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한 뒤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다. <br/><br/>하지만 회사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자주 대립하다가 1976년 3남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계자로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br/><br/>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 실패한 이맹희 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1994년에는 부인 손복남 안국화재 상무(현 CJ제일제당 경영고문)가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일제당 주식과 맞교환하면서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분리됐지만 이맹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br/><br/>CJ로 이름을 바꾼 제일제당은 현재 이맹희 전 회장과 손복남 고문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 있다. 삼성그룹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동생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br/><br/>이후 소송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맹희 전 회장은 이후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br/>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이맹희 전 회장이 2014년 2월 상고를 포기하고, 그해 8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자 양측이 ‘해빙무드’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br/>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주일 가량 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운구될 예정이며 장례식은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6.txt

제목: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013724  
본문: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br/><br/>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br/><br/>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br/>CJ그룹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br/><br/>1931년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962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한 뒤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다. <br/><br/>하지만 회사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자주 대립하다가 1976년 3남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계자로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br/><br/>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 실패한 이맹희 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1994년에는 부인 손복남 안국화재 상무(현 CJ제일제당 경영고문)가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일제당 주식과 맞교환하면서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분리됐지만 이맹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br/><br/>CJ로 이름을 바꾼 제일제당은 현재 이맹희 전 회장과 손복남 고문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 있다. 삼성그룹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동생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br/><br/>이후 소송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맹희 전 회장은 이후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br/>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이맹희 전 회장이 2014년 2월 상고를 포기하고, 그해 8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자 양측이 ‘해빙무드’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br/>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주일 가량 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운구될 예정이며 장례식은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7.txt

제목: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1010269  
본문: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br/><br/>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br/><br/>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br/>CJ그룹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br/><br/>1931년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962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한 뒤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다. <br/><br/>하지만 회사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자주 대립하다가 1976년 3남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계자로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br/><br/>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 실패한 이맹희 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1994년에는 부인 손복남 안국화재 상무(현 CJ제일제당 경영고문)가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일제당 주식과 맞교환하면서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분리됐지만 이맹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br/><br/>CJ로 이름을 바꾼 제일제당은 현재 이맹희 전 회장과 손복남 고문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 있다. 삼성그룹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동생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br/><br/>이후 소송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맹희 전 회장은 이후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br/>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이맹희 전 회장이 2014년 2월 상고를 포기하고, 그해 8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자 양측이 ‘해빙무드’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br/>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주일 가량 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운구될 예정이며 장례식은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8.txt

제목: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0955735  
본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br/><br/>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파란만장했던 삶”<br/><br/>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br/>CJ그룹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0'>이맹희 전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br/>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br/><br/>1931년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962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한 뒤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다. <br/><br/>하지만 회사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자주 대립하다가 1976년 3남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계자로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br/><br/>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 실패한 이맹희 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1994년에는 부인 손복남 안국화재 상무(현 CJ제일제당 경영고문)가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일제당 주식과 맞교환하면서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분리됐지만 이맹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br/><br/>CJ로 이름을 바꾼 제일제당은 현재 이맹희 전 회장과 손복남 고문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 있다. 삼성그룹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동생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br/><br/>이후 소송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맹희 전 회장은 이후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삼성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br/><br/>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이맹희 전 회장이 2014년 2월 상고를 포기하고, 그해 8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자 양측이 ‘해빙무드’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br/><br/>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br/>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주일 가량 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운구될 예정이며 장례식은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19.txt

제목: [기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3년/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0752244  
본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변의 방사선을 ‘0’(제로)으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당부는 지키기 어렵다. 우리 생활 속에는 자연방사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방사선, 땅속으로부터 오는 지각방사선, 과일에서도, 사람의 몸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한 해 평균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3mSv(밀리시버트)로 세계 평균인 2.4mSv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br/><br/>아마도 많은 분들의 당부는 자연방사선을 제외하고, 우리 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br/><br/>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12년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3주년을 맞았다.<br/><br/>생방법은 2007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팔찌와 음이온 매트 등 건강용품들의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로부터 출발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안위는 천연 방사성 핵종의 사용 방법과 시설, 보관관리 방법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br/><br/>우주방사선도 생방법의 관리 대상 중 하나다. 가끔 비행기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적지만, 직업상 비행이 잦은 항공 승무원은 관리가 필요하다.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주방사선 교육을 하고, 연간 피폭선량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암 발병과의 관계를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br/><br/>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입산 재활용 고철이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 들어오는 화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즉각 반송한 사례가 있었다.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덕분이었다. 원안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 총 73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br/><br/>특히 올해는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가 강화됐다. 수입 고철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입 업체에서 사전에 방사선 검사를 하고 ‘무방사능확인서’를 우리나라 수입 업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안위는 공항·항만에서, 제강사는 고철이 제강사에 들어가기 전에 재차 방사선 검사를 한다. 수입 화물의 방사선 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통관 절차가 완료된 화물을 항만 출구에서 검사하던 체제에서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방사선 검사를 하고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중단하고 즉시 반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br/><br/>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에 대해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원안위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0.txt

제목: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암… 조기 검진이 최선  
날짜: 20150814  
기자: 김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0736493  
본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위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한다.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음식문화로 인해 한국인이라면 그 누구도 위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해 조기 발견이 쉽지 않고 뒤늦게 진단받을 때쯤에는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많다. 14일 밤 9시 50분 방송되는 EBS 1TV ‘명의 스페셜’에서는 조기 검진과 시기별로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살펴보며 당신의 위(胃) 건강을 진단해 본다.<br/><br/>위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체로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위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짜고 맵고 뜨거운’ 한국 음식의 특징이 소리 없이 우리의 위를 망가뜨린다. 하지만 위내시경을 통해 조기에 진단되면 95%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40세 이후 남녀 모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br/><br/>위암은 환자의 상태나 병기별로 수술이나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 위암 초기라면 간단히 복강경을 이용한 위절제술을 통해 암 부위만 도려내거나 위 일부를 절제한다. 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과 함께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병행한다. 남대일(64)씨는 진행성 위암으로 암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기 힘들어 위 5분의3을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병행했다. ‘명의’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존 방송을 통해 다양한 환자 사례를 되짚어 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들과 함께 각각의 위암 진행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아본다.<br/><b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1.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1000만 관객 앞두고 소송 벌이는 이유 무엇?  
날짜: 2015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0318492  
본문: 암살 표절 논란<br/><br/>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1000만 관객 앞두고 소송 벌이는 이유 무엇?<br/><br/>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br/><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r/><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제작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 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2.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1000만 관객 앞두고 무슨 무슨 일이?  
날짜: 2015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0214804  
본문: 암살 표절 논란<br/><br/>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1000만 관객 앞두고 무슨 무슨 일이?<br/><br/>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br/><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r/><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제작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 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3.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장편소설 재출간…1000만 관객 앞두고 무슨 일?  
날짜: 2015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0137710  
본문: 암살 표절 논란<br/><br/>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장편소설 재출간…1000만 관객 앞두고 무슨 일?<br/><br/>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br/><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r/><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제작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 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4.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장편소설 재출간…1000만 관객 앞두고 왜?  
날짜: 2015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00128602  
본문: 암살 표절 논란<br/><br/>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장편소설 재출간…1000만 관객 앞두고 왜?<br/><br/>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br/><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r/><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제작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 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5.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1000만 관객 앞두고 법정다툼 왜?  
날짜: 2015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5940959  
본문: 암살 표절 논란<br/><br/>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1000만 관객 앞두고 법정다툼 왜?<br/><br/>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br/><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r/><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제작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 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6.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1000만 관객 앞두고 대체 왜?  
날짜: 2015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5934525  
본문: 암살 표절 논란<br/><br/>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1000만 관객 앞두고 대체 왜?<br/><br/>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br/><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r/><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제작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 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7.txt

제목: 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1000만 관객 앞둔 제작사에 왜 이런 일을?  
날짜: 2015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5937266  
본문: 암살 표절 논란<br/><br/>암살 표절 논란 “제작사 등에 100억원대 손배소송” 1000만 관객 앞둔 제작사에 왜 이런 일을?<br/><br/>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br/><br/>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r/><br/>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 <br/><br/>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br/><br/>반면에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제작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 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8.txt

제목: [심재억 기자의 헬스토리-11]=항생제의 두 얼굴-2  
날짜: 2015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5839521  
본문: 　[지난 주에 게재된 ‘항생제의 두 얼굴-1’에 이어지는 글입니다]<br/>　<br/>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세균전쟁’의 끝<br/>　병원성 세균들이 내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현상입니다. 사실, 항생제와 세균은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 공격과 방어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균이 있으니 약이 개발되었고, 그 약에 괴멸되지 않은 세균은 이미 약 맛을 본 터라 더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게 되고, 여기에 맞서 또다른 약이 만들어지는 시소게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인류의 운명을 건 이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슈퍼 박테리아가 바로 약의 독성에 맞설 힘을 가진 세균을 뜻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병원성 세균이 내성을 갖는 과정을 보면 그들의 영특한 환경 적응력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br/>　예컨대, 항결핵 제제를 복용하던 폐결핵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완화되자 병이 나은 것으로 착각해 약을 끊으면 그 동안 약에 의해 데미지를 입은 세균들이 ‘죽다가 살아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세균들은 한번 항생제의 위력에 데인 경험이 있어 그 항생제의 특정 효력을 무력화하는 힘(내성)을 비장의 무기로 장착한 채 전선에 재차 투입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되는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요.<br/>　이런 상태에서는 원래 힘이 2∼3 정도인 세균을 퇴치하기 위해 2∼3 정도의 힘을 가진 항생제를 쓰면 될 일을 3∼4나 4∼5 정도의 힘을 가진 항생제를 써야 하고, 이 시소게임으로 항생제와 세균의 위력이 커질수록 항생제와 세균의 전쟁터인 인간의 몸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내성이라는 갑옷을 입은 병원성 세균에 감염된 사람은 세균이 아니라 항생제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태우는 꼴이지요.<br/>　내성은 세균이 가진 가공할 능력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처방이나 대책도 무력화 시키니까요. 문명학자나 세균 전문가들이 “<span class='quot0'>만약 인류가 멸망한다면 전쟁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세균 때문일 것</span>”이라고 예측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br/>　만약, 어떤 조건에서도 세균이 원형을 바꾸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약을 경험한 세균들은 스스로 내성균으로 진화하는데, 이 세균들은 옆에 있는 다른 세균에도 내성을 전이시켜 개체를 늘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강한 항생제, 좀 더 강한 항생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br/>　이처럼 같은 세균이 갈수록 강해져 1차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면 일제내성, 2차로 투여한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지면 이제내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제내성균이 벌써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만약, 세균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를 구원한 항생제가 거꾸로 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br/>　<br/>　●우리가 살아남을 마지막 저지선 혹은 대안<br/>　과학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인간이 주도하는 탓에 한계가 분명할 뿐더러 인간처럼 미래를 고려해 작동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항상 많은 불안 요인과 직면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는 까닭에 은연 중에 과학을 믿고 싶어 하지만, 인류는 매일 바라보는 달의 전모조차 모르고 있으며, 암은 커녕 무좀균 하나 어쩌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아신다면 “어떻게 되겠지”라거나 “지금까지도 잘 됐잖아”, “설마 나에게…”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br/>　문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항생제의 두 얼굴을 바로 봐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확실히 항생제는 좋은 약이지만, 좋기만 한 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항생제의 기능이 좋게 작용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문제이지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답은 명료해집니다. 우리가 항생제로 밥을 해먹는 것도 아닌데, 그것과 적절히 거리를 둔다는 게 뭐 그리 어려운 문제이겠습니까.<br/>　가장 중요하면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과감히 항생제 의존증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감기로 동네 병원엘 가면 “감기 똑 떨어지게 약 좀 세게 지어달라”고 말하거나, 항생제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어 가능하면 그걸 빼고 처방하려는 의사를 향해 “저 의사는 병 잘 못 고쳐”라고 하는 사람들 드물지 않습니다.<br/>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왜 항생제 좀 듬뿍 넣어서 처방하지 않느냐”는 항변이지요. 항생제의 문제를 바로 본 사람이라면 “왜 항생제를 넣었느냐”고 항의해도 부족한 마당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항생제를 넣어달라고 떼를 쓰는 형편이니, 그러다가 OECD 국가 중에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고, 급기야 뒷북 잘 치는 정부가 큰 일 나겠다 싶어 항생제 처방률이라는 걸 조사해 남용을 억제한다고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br/>　의사들도 생각 좀 하고 처방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항생제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경계하지만, 문제가 있는 의사도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환자의 신체조건은 어떻며, 어떤 병력이나 일을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생제부터 듬뿍 넣고 보자는 식이니,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병원 치료 잘 하더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의사들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약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은 처방의 책임에서 벗어났다지만, 그렇다고 항생제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염진통제 등 항생제류의 약들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구해 사용합니다.<br/>　정부도 항생제가 위험하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의약 집단이나 제약사들의 볼멘 소리에만 귀기울이지 말고, 당장 항생제 처방 기준을 강화하고, 항생제 조제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 건강’을 입에 달고 살면 뭐합니까. 정책 곳곳에 숭숭 구멍이 뚫려 국민 건강을 해칠 독소들이 즐비한데요.<br/>　<br/>　●지금, 내게 항생제가 필요한지 꼭 물으세요<br/>　항생제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예고됐습니다. 가장 흔한 혈액 부작용을 볼까요. 세부적으로는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빈혈 등인데, 이런 부작용은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다른 질병의 침탈 기회를 늘리는 불이익을 줍니다. 위장관 손상도 빠뜨릴 수 없는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또 과민성 부작용도 종종 나타납니다. 약을 사용한 후에 나타나는 열이나 발진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드물게 신경계나 심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물론, 이런 부작용은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병 때문에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환자를 가만히 살펴 보면, 그 사람의 병태가 지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약제 부작용 때문인 경우도 흔합니다.<br/>　약도 건강하려고 사용하는 것인데, 약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도 없겠지요. 모든 약은 독성과 약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하지 않고 충실하게 복약지침에 따를 때는 약이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항생제는 함부로 사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전이시키는 무서운 후폭풍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병원에 가시거든 이 말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이 항생제가 꼭 필요합니까? 이걸 빼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br/>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29.txt

제목: 60년대 원조 한류 걸그룹을 아시나요  
날짜: 20150812  
기자: 이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5421288  
본문: “전쟁(6·25) 때 집이 무너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재주가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 놀기 좋아하고 연습하는 게 싫었는데 그때마다 고모(이난영)가 바나나를 사주면서 노래 연습을 시켰죠.”<br/><br/>전쟁으로 폐허가 된 1950년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 인기를 모은 원조 한류 걸그룹 김시스터즈. 13일 개막하는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인 ‘다방의 푸른 꿈’은 김시스터즈가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입성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영화제 측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시스터즈의 멤버 김민자(74)씨는 상기된 모습이었다. “1987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국에 30년 만에 오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군요. 서울은 뉴욕처럼 고층 빌딩이 들어찼고 재주 있는 사람들도 많구요.”<br/><br/>김시스터즈는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이난영씨의 두 딸 애자와 숙자씨, 이난영의 오빠인 작곡가 이봉룡씨의 딸 민자(예명 김민자)씨가 결성한 걸그룹이다. 김민자씨는 두 딸보다도 이난영씨와 더 닮은 외모로 유명했다. “고모는 엄격하고 단호하기도 했지만 늘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쳤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것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br/><br/>6·25전쟁 와중에 미8군 무대에 섰던 김시스터즈는 관계자의 눈에 들어 195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진출했다. 그때 그들은 불과 10대 중후반의 소녀였다. “처음에는 고국이 너무 그리워서 셋이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고 오직 연습과 공연에만 매진했죠.”<br/><br/>1년여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이들은 비틀스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한 TV 프로그램 ‘애드 설리번쇼’에 출연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국의 각 도시는 물론 캐나다에서도 섭외 요청이 빗발쳤다. 10여년 정상의 자리에서 활동한 이들은 이십대 중반에 결혼을 하면서 활동이 뜸해졌다. 1987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애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어느새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온몸에 암이 전이된 뒤에 너무 늦게 알아서 안타깝게 세상을 떴어요. 그래도 난 즐겁게 가겠다고 했던 표정이 생생해요.” 김숙자씨는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부동산 중개일을 하고 있다. <br/><br/>김민자씨는 작곡가이자 퍼커션 연주자인 남편(토미 빅)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다 4~5년 전부터 헝가리로 거처를 옮겨 남편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음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년에 4~5번씩 공연하는데 악기도 다루고 노래를 하는 것이 좋아요. 한국에서 미미시스터즈, 바버렛츠 등 후배 걸그룹이 헌정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저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꼭 공연하고 싶어요.”<br/><br/>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0.txt

제목: 호수로 산으로 떠나는 한여름 이색 영화 바캉스  
날짜: 20150812  
기자: 박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5341131  
본문: 음악영화, 산악영화, 뮤지컬영화 등 한여름 이색 영화제가 열려 무더위를 식혀준다. 영화상영 장소도 영화제 특색에 맞춰 호수, 산,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등 다양하다.<br/><br/><br/>영화와 음악이 만나는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3일부터 18일까지 충북 제천시 청풍호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보컬그룹인 ‘김시스터즈’를 그린 개막작 ‘다방의 푸른 꿈’을 비롯해 세계 25개국에서 출품된 101편(장편 53편, 단편 48편)의 음악영화가 상영된다. 경쟁 부문인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에는 그룹 비틀스를 동경한 소년들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담은 ‘비틀스’ 등 7편이 올랐다. 상영관도 문화회관, 사회복지관, 백화점 문화교실, 교회 등 다채롭다.<br/><br/><br/>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원에서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이 열린다. 세계 13개국에서 출품한 43편(장편 9편, 중편 5편, 단편 29편)이 상영된다. 개막식과 야외 상영은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다. 일반 상영과 부대행사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펼쳐진다. 개막작은 스페인 영화 세바스티앙 몽타스-로제 감독의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이 선정됐다. 방문객은 영화와 캠핑을 함께하는 야영존 이용을 비롯해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인공암벽장, 하늘억새길 트레킹 등도 체험할 수 있다.<br/><br/><br/>‘충무로뮤지컬영화제 프리페스티벌(CHIMFF 2015)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열린다. 프리페스티벌은 총 8개의 섹션, 12편의 장편 영화와 라이브 더빙 쇼 공연으로 구성됐다. 영화 그림에 맞춰 뮤지컬 배우들이 즉석 연기도 선보인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는 ‘제1회 부산영화관광축제’(7월 17일~8월 31일)가 한창이다.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는 3회에 걸친 영화 기획전이 진행 중이다.<br/><br/><br/>울주세계산악영화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최근에는 영화제마다 특색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영화 상영도 호수와 산 등 다양하게 이뤄져 색다른 체험과 재미를 주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1.txt

제목: 지구촌 최고의 항산화열매 아로니아 축제 단양서 ‘팡파르’  
날짜: 2015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5034241  
본문: 지구상에서 신이 내린 열매로 알려진 킹스베리 아로니아 행사가 열린다. 충북 단양군은 오는 21∼23일 단양읍 상상의 거리 일원에서 제3회 단양아로니아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br/>’상상 그 이상의 왕의 열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단양의 대표 작물 가운데 하나인 아로니아의 효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br/><br/><br/>아로니아 음식 시식 행사, 아로니아 생과 및 가공제품 직거래 장터, 아로니아 묘목·가공식품 전시회와 함께 아로니아 비누 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br/>축제 기간 아로니아 제품을 2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판촉 행사도 열린다.<br/><br/><br/>북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지인 아로니아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자연계 식물 가운데 포도의 80배, 복분자의 20배, 블루베리의 5배나 많아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열매로 알려져 있다. 심혈관 질환, 암, 당뇨, 중금속 해독 등에 효능이 있어 ‘왕의 열매’로 불린다. <br/><br/><br/>아로니아 열매를 먹고 시력개선이나 피로회복 등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저온이나 척박한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병충해 저항력과 번식력도 강하다.<br/>올 상반기 단양의 아로니아 제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군은 집계했다. 올해 단양 지역에서는 360여 농가가 112ha의 면적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다.<br/><br/><br/>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2.txt

제목: 암살 900만 돌파, ‘천만 카운트다운’ 기대..이정재 필체 봤더니?  
날짜: 2015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4628098  
본문: ‘암살 900만 돌파’<br/><br/>영화 ‘암살’이 누적 관객 수 900만을 돌파했다. <br/><br/>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은 지난 주말 사흘간 전국 873개 스크린을 통해 1만990회 상영돼 107만9472명(23.2%)이 관람했다. <br/><br/>개봉 전부터 2015년 한국영화 최고 예매율 기록을 세운 ‘암살’은 올해 한국영화 최고 오프닝 스코어, 개봉 주말에는 연일 24시간 간격으로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한국영화 최단기간 돌파 기록을 갈아치웠다. <br/><br/>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5년 한국영화 첫 1000만 기록은 물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세운 1049만4499명의 올해 최고 흥행 스코어 또한 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br/><br/>최동훈 감독은 ‘도둑들’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 탄생 감독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br/><br/>한편, ‘암살’의 주역들은 이날 900만 돌파 인증샷을 공개했다. “<span class='quot0'>영화 ‘암살’을 사랑해주신 900만 명의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span>”라고 인사를 전한 이정재를 비롯, 하정우,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 김해숙, 박병은, 허지원까지 관객들이 보여준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br/><br/>’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br/><br/>암살 900만 돌파, 암살 900만 돌파, 암살 900만 돌파, 암살 900만 돌파, 암살 900만 돌파 암살 900만 돌파<br/><br/>사진 = 서울신문DB (암살 900만 돌파)<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3.txt

제목: [금주 개봉작]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 ‘써드 스타’ 메인 예고편  
날짜: 2015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4410952  
본문: “오늘로 난 스물아홉이 되었다. 아마 서른은 못 되겠지만. 괜찮아”<br/><br/>시한부 인생을 사는 친구를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영화 ‘써드 스타’가 국내 관객을 찾는다. <br/><br/>영국 드라마 ‘셜록’의 주연으로 출연해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진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과 ‘노예 12년’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번 작품 ‘써드 스타’에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환자로 변신했다.<br/><br/>개봉에 앞서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는 마음을 울리는 감정적인 스토리와 말기 암환자로 완벽하게 변신한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가 큰 울림을 예고한다. <br/><br/><br/><br/>극 중 말기 암환자 ‘제임스’로 분한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마지막 생일날 친구들과 먼 여행을 떠난다. 이후 제임스와 친구들은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파티에서 몸싸움도 벌이며 여느 혈기 넘치는 평범한 청년들처럼 유쾌한 로드 여행을 이어간다. 하지만, 제임스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br/><br/>이처럼 시한부 환자로 변신한 베네딕트 컴버베치의 명연기가 빛을 발하는 영화 ‘써드 스타’는 오는 13일 개봉 된다. 15세 관람가. <br/><br/>사진 영상=수키픽쳐스<br/><br/>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4.txt

제목: 달콤해진 과일·채소...유익한 성분은 되레 줄어  
날짜: 20150808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618868  
본문: 시장이나 마트에 늘어선 과일과 채소가 점점 달아지고 있다. 이는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 품종 개량이 진행돼온 결과다. 실제로 과일의 당도는 예전보다 훨씬 증가했고 이제는 채소 중에도 과일처럼 달콤한 것이 나오고 있다.<br/>그런데 과학자들은 과일이나 채소가 달아진 것만큼 반대로 우리의 건강 혜택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br/>그중 한 예로 과학자들은 자몽을 꼽는다. 요즘 자몽은 과육이 붉은빛을 띤다. 하지만 30년 전 자몽은 흰빛이 주류였다.<br/>즉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쓴맛과 신맛이 강한 흰 자몽에서 단맛이 더 많이 내는 빨간 자몽으로 점차 바뀌게 된 것이다.<br/>그런데 이런 쓴맛을 내는 영양분이야말로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는 등 건강상 유익한 점이 많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br/>■ 쓴맛이 암세포화 방지<br/>미국 워싱턴대 역학자인 애덤 드레브노프스키 교수가 영국 과학매체 뉴사이언티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쓴맛이 나는 식물의 영양 성분은 그런 쓴맛 때문에 세포의 암화(암세포로 변질되는 것)를 방지하는 등의 작용이 있다</span>”고 말했다.<br/>즉 단맛이 강한 과일이나 채소는 암 예방 등의 건강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br/>■ 당도 높은 품종은 영양이 낮은가?<br/>또 미국 존스홉킨스대 분자과학자인 제드 페헤이 박사는 “<span class='quot1'>주로 쓴맛을 내는 영양분이 함유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은 청량음료를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span>”고 지적했다.<br/>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쓴맛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 혜택은 상당한 듯하다. 그동안 너무 달콤한 과일이나 채소를 찾았던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을 따름이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5.txt

제목: 계란 노른자, 항암효과+DNA 손상 낮춰 ‘노른자 빼고 먹었는데..’ 반전 연구결과 보니  
날짜: 2015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3720947  
본문: 계란 노른자, 항암효과+DNA 손상 낮춰 ‘노른자 빼고 먹었는데..’ 반전 연구결과 보니<br/>‘계란 노른자’<br/>계란 노른자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다.<br/>7일 건국대는 동물생명과학대학 백현동 축산식품공학과 교수가 미국 가금과학협회(PSA·Poultry Science Association)가 수여하는 2015년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br/>백 교수는 ‘계란 난황의 단백질인 포스비틴의 인체 유래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항유전독성 연구’를 통해 계란 노른자에 존재하는 대표 단백질인 포스비틴(phosvitin)의 암 예방 효과와 DNA 손상 억제 효과를 입증해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게 됐다.<br/>백 교수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 속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포스비틴’은 계란 한 개(60ｇ) 당 0.22ｇ이 들어 있다. <br/>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을 사람의 다양한 암세포에 적용하자 암세포 성장이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궁암, 위암, 간암에 효과가 컸다. 반면 유방암, 폐암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다.<br/>이와 함께 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백혈구에 500㎍/㎖의 포스비틴을 넣자 그렇지 않은 백혈구에 비해 DNA 손상이 55.8% 줄어든 것. <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이 앞으로 암세포를 줄이는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백 교수는 최근 미국 켄터키에서 개최된 2015년 PSA 정기학술대회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이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 안동욱 교수와 공동으로 이번 상을 받았다.<br/>미국 가금과학협회는 1908년 창립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축산분야의 대표적 국제 가금학회로 우수 연구상 시상은 1977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br/>이 상은 국제 저널인 ‘가금과학(Poultry Science)’과 ‘응용가금과학연구(The Journal of Applied Poultry Research)’에 게재된 400여 편의 논문 가운데 우수한 연구 논문 1편을 선정해 시상한다.<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계란 노른자 꼭 빼고 먹었는데</span>”, “<span class='quot1'>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었는데 먹어야겠네</span>”, “<span class='quot1'>계란은 흰자 노른자 다 몸에 좋구나</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방송 캡처(계란 노른자)<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6.txt

제목: 계란 노른자, 항암효과+DNA 손상 낮춰 ‘노른자 빼고 먹었는데..’ 반전 연구결과  
날짜: 2015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3646181  
본문: 계란 노른자, 항암효과+DNA 손상 낮춰 ‘노른자 빼고 먹었는데..’ 반전 연구결과<br/>‘계란 노른자’<br/>계란 노른자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다.<br/>7일 건국대는 동물생명과학대학 백현동 축산식품공학과 교수가 미국 가금과학협회(PSA·Poultry Science Association)가 수여하는 2015년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br/>백 교수는 ‘계란 난황의 단백질인 포스비틴의 인체 유래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항유전독성 연구’를 통해 계란 노른자에 존재하는 대표 단백질인 포스비틴(phosvitin)의 암 예방 효과와 DNA 손상 억제 효과를 입증해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게 됐다.<br/>백 교수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 속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포스비틴’은 계란 한 개(60ｇ) 당 0.22ｇ이 들어 있다. <br/>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을 사람의 다양한 암세포에 적용하자 암세포 성장이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궁암, 위암, 간암에 효과가 컸다. 반면 유방암, 폐암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다.<br/>이와 함께 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백혈구에 500㎍/㎖의 포스비틴을 넣자 그렇지 않은 백혈구에 비해 DNA 손상이 55.8% 줄어든 것. <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이 앞으로 암세포를 줄이는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백 교수는 최근 미국 켄터키에서 개최된 2015년 PSA 정기학술대회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이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 안동욱 교수와 공동으로 이번 상을 받았다.<br/>미국 가금과학협회는 1908년 창립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축산분야의 대표적 국제 가금학회로 우수 연구상 시상은 1977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br/>이 상은 국제 저널인 ‘가금과학(Poultry Science)’과 ‘응용가금과학연구(The Journal of Applied Poultry Research)’에 게재된 400여 편의 논문 가운데 우수한 연구 논문 1편을 선정해 시상한다.<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계란 노른자 꼭 빼고 먹었는데</span>”, “<span class='quot1'>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었는데 먹어야겠네</span>”, “<span class='quot1'>계란은 흰자 노른자 다 몸에 좋구나</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방송 캡처(계란 노른자)<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7.txt

제목: 계란 노른자도 몸에 좋다 ‘항암효과’  
날짜: 2015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3639784  
본문: 7일 건국대는 동물생명과학대학 백현동 축산식품공학과 교수가 미국 가금과학협회(PSA·Poultry Science Association)가 수여하는 2015년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br/>백 교수는 ‘계란 난황의 단백질인 포스비틴의 인체 유래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항유전독성 연구’를 통해 계란 노른자에 존재하는 대표 단백질인 포스비틴(phosvitin)의 암 예방 효과와 DNA 손상 억제 효과를 입증해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게 됐다.<br/>백 교수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 속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포스비틴’은 계란 한 개(60ｇ) 당 0.22ｇ이 들어 있다. <br/>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을 사람의 다양한 암세포에 적용하자 암세포 성장이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궁암, 위암, 간암에 효과가 컸다. 반면 유방암, 폐암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다.<br/>이와 함께 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백혈구에 500㎍/㎖의 포스비틴을 넣자 그렇지 않은 백혈구에 비해 DNA 손상이 55.8% 줄어든 것. <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이 앞으로 암세포를 줄이는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8.txt

제목: 계란 노른자, 항암효과+DNA 손상 낮춰 ‘노른자도 먹어라’  
날짜: 2015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3633502  
본문: 7일 건국대는 동물생명과학대학 백현동 축산식품공학과 교수가 미국 가금과학협회(PSA·Poultry Science Association)가 수여하는 2015년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br/>백 교수는 ‘계란 난황의 단백질인 포스비틴의 인체 유래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항유전독성 연구’를 통해 계란 노른자에 존재하는 대표 단백질인 포스비틴(phosvitin)의 암 예방 효과와 DNA 손상 억제 효과를 입증해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게 됐다.<br/>백 교수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 속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포스비틴’은 계란 한 개(60ｇ) 당 0.22ｇ이 들어 있다. <br/>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을 사람의 다양한 암세포에 적용하자 암세포 성장이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궁암, 위암, 간암에 효과가 컸다. 반면 유방암, 폐암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다.<br/>이와 함께 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백혈구에 500㎍/㎖의 포스비틴을 넣자 그렇지 않은 백혈구에 비해 DNA 손상이 55.8% 줄어든 것. <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계란 노른자 속 포스비틴이 앞으로 암세포를 줄이는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39.txt

제목: 과일·채소 달아졌지만 건강혜택 줄었다  
날짜: 2015080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538591  
본문: 시장이나 마트에 늘어선 과일과 채소가 점점 달아지고 있다. 이는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 품종 개량이 진행돼온 결과다. 실제로 과일의 당도는 예전보다 훨씬 증가했고 이제는 채소 중에도 과일처럼 달콤한 것이 나오고 있다.<br/>그런데 과학자들은 과일이나 채소가 달아진 것만큼 반대로 우리의 건강 혜택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br/>그중 한 예로 과학자들은 자몽을 꼽는다. 요즘 자몽은 과육이 붉은빛을 띤다. 하지만 30년 전 자몽은 흰빛이 주류였다.<br/>즉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쓴맛과 신맛이 강한 흰 자몽에서 단맛이 더 많이 내는 빨간 자몽으로 점차 바뀌게 된 것이다.<br/>그런데 이런 쓴맛을 내는 영양분이야말로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는 등 건강상 유익한 점이 많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br/>■ 쓴맛이 암세포화 방지<br/>미국 워싱턴대 역학자인 애덤 드레브노프스키 교수가 영국 과학매체 뉴사이언티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쓴맛이 나는 식물의 영양 성분은 그런 쓴맛 때문에 세포의 암화(암세포로 변질되는 것)를 방지하는 등의 작용이 있다</span>”고 말했다.<br/>즉 단맛이 강한 과일이나 채소는 암 예방 등의 건강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br/>■ 당도 높은 품종은 영양이 낮은가?<br/>또 미국 존스홉킨스대 분자과학자인 제드 페헤이 박사는 “<span class='quot1'>주로 쓴맛을 내는 영양분이 함유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은 청량음료를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span>”고 지적했다.<br/>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쓴맛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 혜택은 상당한 듯하다. 그동안 너무 달콤한 과일이나 채소를 찾았던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을 따름이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0.txt

제목: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 “암,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관으로 해석” WCA 최우수논문상  
날짜: 2015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204624  
본문: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달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폐막된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WCA)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다. 논문은 유불선의 사유, 그 중에서도 장자(莊子)의 성심(成心)과 허심(虛心) 및 유대(有待)와 무대(無待)의 관점에서 암의 발생원인과 치료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br/>　김 교수는 논문에서 “<span class='quot0'>암환자가 병을 진단받은 뒤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암을 대하느냐가 생존기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커뮤니케이션을 ‘나와 어떤 대상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암환자도 암 세포와 일종의 상호작용을 하는 셈</span>”이라고 규정했다. 또 “환자가 어떻게 암을 인식해서 편안한 심적 안정을 도모하는 지를 설명 하는 데는 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한계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메시지 생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서양의 기능적 커뮤니케이션 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메시지 수용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관에 주목했다”고 밝혔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환자에게서 ‘암=죽음’의 의미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서양의 커뮤니케이션 관) ‘암 세포=내 몸의 일부지만 반갑지 않은 존재’, 심지어 ‘암=내 의지로서 치유할 수 있는 병’의 의미(동아시아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span>”고 역설했다.<br/>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모든 형태와 환경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교육 등을 지원하며 교육, 과학, 문학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다. 2년 마다 국제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다. <br/><br/><br/>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1.txt

제목: 피보다 돈… 형제·배우자 상속 분쟁 4년새 2배  
날짜: 2015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109751  
본문: 롯데그룹 일가의 부자·형제 간 경영권 다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다툼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A씨는 2013년 아버지가 13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법정 상속지분 비율은 어머니 1.5, A씨를 포함한 자식 3명이 각각 1이었지만, A씨는 아버지 사망 전 몇 년간 자신이 부모를 모시면서 암 투병한 아버지를 간병했고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 왔다며 자신의 기여분 30%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br/>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친아들을 상대로 반심판 청구를 했다. 남편의 군복무 기간 중 혼자서 5년 넘게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돌봤으며,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여분 30%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br/><br/><br/>법원은 A씨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며 기각하고 어머니에 대해 기여분 20%를 인정했다. 이어 자식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넣어 총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이를 상속비율에 따라 나눴다.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9억여원의 현금을 이미 증여받았던 A씨는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받은 재산이 많아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심판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br/><br/><br/>5일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해마다 20∼30％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70여건이 접수돼 2011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br/><br/><br/><br/><br/>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2.txt

제목: “아버지 병수발했으니 더 달라” 상속지분 앞에 피보다 진한 돈  
날짜: 20150806  
기자: 이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104568  
본문: 롯데그룹 일가의 부자·형제 간 경영권 다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다툼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A씨는 2013년 아버지가 13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법정 상속지분 비율은 어머니 1.5, A씨를 포함한 자식 3명이 1이었지만, A씨는 아버지 사망 전 몇 년간 자신이 부모를 모시면서 암 투병한 아버지를 간병했고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 왔다며 자신의 기여분 30%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br/>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친아들을 상대로 반심판 청구를 했다. 남편의 군복무 기간 중 혼자서 5년 넘게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돌봤으며,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여분 30%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며 기각하고 어머니에 대해 기여분 20%를 인정했다. 이어 자식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넣어 총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이를 상속비율에 따라 나눴다.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9억여원의 현금을 이미 증여받았던 A씨는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받은 재산이 많아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심판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br/><br/><br/>5일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해마다 20∼30％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70여건이 접수돼 2011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br/><br/><br/>법조계에서는 가족과 혈연의 중시, 장자 존중 등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기 침체 같은 사회 현실 때문에 상속재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br/><br/><br/>법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예전에는 상속재산이 많아야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한 채만 갖고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세상이 각박해진 것 같아 씁쓸하다</span>”고 말했다.<br/><br/><br/>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3.txt

제목: 매운 음식 자주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 ↓ - 국제 연구  
날짜: 2015080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431183  
본문: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조기 사망할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매운 음식이 암이나 심장 질환, 호흡기 장애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br/>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중년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꼴로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이를 두고 과학자들은 이전 연구를 인용해 매운 음식의 맛을 내는 고추 속 천연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이 비만과 노화, 염증,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br/>30세부터 79세까지 중국인 48만 7000명을 대상으로 7년에 걸쳐 장기 추적 조사한 이번 연구는 참가자들 스스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식사 습관 등을 설문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2만 224명이 연구 기간 내에 사망했다.<br/>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하버드공중보건대, 중국의학과학원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로 하루나 이틀마다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미만 꼴로 섭취한 이들보다 사망률이 14%나 더 낮았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다.<br/>또 매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특히 암과 심장 질환, 호흡기 장애로 인해 사망할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성이 있었다.<br/>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각 사례에서 매운 음식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 것이 아니라 통계상의 경향을 파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정확한 결론은 아직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영국 의학 저널’(BMJ)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4.txt

제목: [월드피플+] 말기암 5살 소녀의 동화같은 ‘생일,무도회, 그리고 결혼식’ 감동  
날짜: 20150805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420348  
본문: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생일을 맞은 다섯 살 소녀에게 성대하고 아름다운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 힘을 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br/>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오레곤 주에 살고 있는 소녀 라일라 메이 쇼우. 라일라는 지난 12년 9월 암 질환의 일종인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 cancer) 진단을 받은 뒤 화학치료를 받아가며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다.<br/>그러나 저번 주, 라일라의 의료진은 “<span class='quot0'>그녀가 올 해 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목요일)까지 지낼 수 있을 것 같다</span>”며 이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아버지 라이언 쇼우는 “딸이 원래 누려야 했을 모든 것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이번 파티를 특별히 기획한 이유를 밝혔다.<br/>성대한 생일파티를 위해 어머니 하이디 홀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글을 올렸다. 그녀는 “7월 31일은 우리 딸의 생일이며 어쩌면 마지막 생일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생일을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들의 딱한 사정을 전했다.<br/>그녀는 이어 “우리 부부는 아이의 소원대로 무도회 같은 생일파티를 열어주고 싶다. 그리고 딸이 무도회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길 원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도움을 청했다.<br/>라일라의 이야기를 알게 된 미국 전역 및 해외 네티즌들은 성공적 무도회 개최를 위해 각자 기증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손수 제작한 신데렐라 드레스, 각종 음식, 공예품은 물론 실물 크기의 중세기사 갑옷장식까지 포함돼 있었다.<br/>마침내 무도회 당일, 드레스와 왕관을 쓴 라일라는 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에 나타났다. 파티장 안에는 라일라의 쾌유를 소망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물론 라일라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부인들도 가득 모여 그녀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br/>이날 행사는 생일파티이자 무도회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라일라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며 라일라에게 청혼 받는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br/>파티를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날 어머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span class='quot1'>아침에 일어나 혹시 어제 꿈을 꾼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에 어리둥절할 정도였다</span>”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이어 “라일라도 동화 같은 무도회였다며 기뻐했다. 라일라를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 했다.<br/>사진=데일리메일 캡처<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5.txt

제목: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날짜: 2015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2042044  
본문: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달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폐막된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WCA)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논문 제목은 ‘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다. 논문은 유불선의 사유, 그 중에서도 장자(莊子)의 성심(成心)과 허심(虛心) 및 유대(有待)와 무대(無待)의 관점에서 암의 발생원인과 치료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6.txt

제목: 다보스포럼, 국내 바이오기업 ‘아벨리노랩’을 미래기술선도기업으로 선정  
날짜: 2015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91846121  
본문: 　우리 나라의 안과질환 유전자진단 전문 바이오기업인 ‘아벨리노랩’(대표 이진. 사진)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미래기술 선도기업(Technology Pioneers 2016)’으로 선정됐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기술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우리에게 다보스포럼(Davos Forum)으로 더 잘 알려진 WEF는 전 세계의 저명 기업인과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발족한 독립재단으로, 지역 및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어젠더를 발굴, 제시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창설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F는 올해로 45회째를 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80여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해 정치·정파적 또는 국가적 이해와 관계없이 해마다 기술 선도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br/>　WEF는 5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에서 열리는 뉴 채미언스 연례총회에서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풀비아 몬트레소 WEF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기술의 영향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각 기업 CEO를 비롯한 분야별 지도자들이 기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포럼이 선정한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기업들이 가진 솔루션을 주목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지난 2008년 설립된 아벨리노랩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각막이상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각막이상증은 한번 진행되면 완치가 어렵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기도 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예방적 진단이 어려웠다.<br/>　그러나 아벨리노랩이 ‘아벨리노랩 유니버설 테스트’를 개발함으로써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은 물론 과립형 각막이상증 1·2형, 격자형 1형 등 선천성 안과 유전질환에 해당되는 5가지 유형의 각막이상증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게 됐다.<br/>　아벨리노랩 측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중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진단기술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진단하거나,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뜻이다. <br/>　 아벨리노랩은 현재 한국의 서울과 부산, 일본, 미국, 중국 등에 법인을 설립, 9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미국 실리콘벨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CLIA(미국실험실표준인증)를 획득한 뒤 세계 50개 국과 글로벌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연세대 의대, KAIST와 미국의 UCLA, USC, 듀크대학, 하버드대학, 스탠포드대학 및 존스홉킨스병원 등과 관련 연구소 및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br/>　이진 회장은 “<span class='quot1'>아벨리노랩은 관련 진단법을 이용해 지금까지 48만 건의 검사를 수행, 이 중에서 482건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내 이들을 실명으로부터 구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망막색소변성증, 녹내장, 황반변성 등 안과 유전질환은 물론 안암(눈에 발생하는 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이진 회장은 이어 “<span class='quot1'>안과 질환의 진단에서부터 유전자 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 모든 환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비전을 실현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　한편, 지금까지 WEF에 의해 미래기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PC와 스마트폰의 저장장치를 개발한 Sandisk사(2001), 자체 개발한 유방암 진단키트를 이용해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을 진단해 유명해진 Myriad Genetics사와 구글(2002),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기업인 Gilead Science사(2004), 트위터(2006), 세계 최대 블랙록 자산운용사인 Dropbox사(2007), 카카오(2015) 등이 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7.txt

제목: 5살 말기암 소녀 ‘생일 무도회’ 힘 모은 네티즌…감동  
날짜: 20150804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414102  
본문: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생일을 맞은 다섯 살 소녀에게 성대하고 아름다운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 힘을 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br/>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오레곤 주에 살고 있는 소녀 라일라 메이 쇼우. 라일라는 지난 12년 9월 암 질환의 일종인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 cancer) 진단을 받은 뒤 화학치료를 받아가며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다.<br/>그러나 저번 주, 라일라의 의료진은 “<span class='quot0'>그녀가 올 해 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목요일)까지 지낼 수 있을 것 같다</span>”며 이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아버지 라이언 쇼우는 “딸이 원래 누려야 했을 모든 것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이번 파티를 특별히 기획한 이유를 밝혔다.<br/>성대한 생일파티를 위해 어머니 하이디 홀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글을 올렸다. 그녀는 “7월 31일은 우리 딸의 생일이며 어쩌면 마지막 생일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생일을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들의 딱한 사정을 전했다.<br/>그녀는 이어 “우리 부부는 아이의 소원대로 무도회 같은 생일파티를 열어주고 싶다. 그리고 딸이 무도회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길 원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도움을 청했다.<br/>라일라의 이야기를 알게 된 미국 전역 및 해외 네티즌들은 성공적 무도회 개최를 위해 각자 기증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손수 제작한 신데렐라 드레스, 각종 음식, 공예품은 물론 실물 크기의 중세기사 갑옷장식까지 포함돼 있었다.<br/>마침내 무도회 당일, 드레스와 왕관을 쓴 라일라는 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에 나타났다. 파티장 안에는 라일라의 쾌유를 소망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물론 라일라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부인들도 가득 모여 그녀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br/>이날 행사는 생일파티이자 무도회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라일라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며 라일라에게 청혼 받는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br/>파티를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날 어머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span class='quot1'>아침에 일어나 혹시 어제 꿈을 꾼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에 어리둥절할 정도였다</span>”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이어 “라일라도 동화 같은 무도회였다며 기뻐했다. 라일라를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 했다.<br/>사진=데일리메일 캡처<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8.txt

제목: 하루에 커피 5잔 마시면 유방암 위험 ↓ - 韓연구원 참여 국제 연구  
날짜: 2015080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256834  
본문: 평소 커피를 자주 마시는 여성에게 희소식이다.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마시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하루에 1, 2잔씩 마시는 것보다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다.<br/>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대한민국 국립암센터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30·40대 여성 4만 2099명을 대상으로 카페인 섭취와 유방암 발병에 대해 20년간에 걸쳐 추적 조사한 통계자료를 분석했다.<br/>이 자료는 ‘스웨덴 여성의 생활방식과 건강 연구’라는 이름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연구팀은 커피는 물론 차(茶)와 초콜릿과 같은 다른 공급원을 통해 매일 섭취한 카페인양을 분석했다.<br/>그 결과, 하루에 커피 5잔 정도에 해당하는 카페인을 섭취한 여성은 하루에 1, 2잔 마신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19%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또 하루에 3, 4잔씩 마시는 여성도 하루에 1, 2잔 마신 여성보다 위험이 13% 낮았다. 즉 3잔 이상 마시는 것이 유방암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은 연구논문에서 “커피와 차, 그리고 카페인에 의해 유방암 위험에 영향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면서 “커피와 차는 매우 다양한 식물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항산화 물질이며 카페인과 같은 화합물도 있어 생물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다.<br/>즉 커피 등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이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br/>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커피가 무조건 유방암 발병률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었다.<br/>하루에 커피를 1잔밖에 마시지 않는 여성은 오히려 커피나 차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항산화물질의 효과가 커피 1잔 정도에 있는 양으로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립암센터의 오진경 국제암대학원대 암관리정책학과 조교수가 제1저자(논문을 시작하고 끝내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활을 한 사람)로 참여, SCI급 국제 학술지 ‘국제암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최근호에 실렸으며, 야후뉴스 영국판 등 외신 7월 28일자로 소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49.txt

제목: [와우! 과학] 스마트폰 오래 쓰면 암·치매 위험 높아져  
날짜: 20150801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226609  
본문: 현대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휴대기기가 목 또는 손가락 디스크,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동시에 암 발생률과도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br/>뉴욕데일리뉴스 등 해외 매체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국립사회과학원 연구진은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산화성 스트레스의 불균형을 유발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 산화성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암,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 등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연구진은 이는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사용해 온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하루에 20분씩 5년 이상 사용할 경우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하루에 평균 1시간 씩 4년을 사용할 경우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3~5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br/>어린아이가 스마트폰 등 전자무선기기를 사용한다면 암과 뇌질환 등에 노출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br/>연구를 이끈 우크라이나 국립사회과학원의 이고르 아키멘코 박사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전자무선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암 등 각종 치명적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설다 암에 걸리지 않더라고 심한 정도의 두통이나 피부자극, 만성 피로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이어 “방사선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반응한다. 체내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지면 심각한 세포파괴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산화성 스트레스의 증상”이라면서 “일반적으로 산화성 스트레스는 매우 ‘공격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 전문 학술지인 ‘Electromagnetic Biology and Medicine’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0.txt

제목: 국내 의료진 “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수술 효과 확인”  
날짜: 2015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5416266  
본문: 　국내 의료진이 간세포암 절제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합병증 등 수술 예후는 물론 입원기간도 더 짧아 향후 간세포암 수술에 복강경 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사진) 교수팀(윤유석·조재영·최영록 교수)은 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수술이 기존 개복수술보다 환자의 삶의 질 보장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복강경 수술이란 기종 방식처럼 배를 절개하지 않고, 몇 개의 작은 절개창만 낸 뒤 암세포를 절제해내는 방식이다.<br/>　연구팀은 최근 10년 간 시행한 간세포암 절제수술을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로 구분, 각각 88례씩을 1대 1 방식으로 매칭,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및 장기생존율 등을 비교·분석했다.<br/>　그 결과, 간세포암의 절제는 주요 혈관에 인접한 경우를 포함, 간의 모든 부위에서 이뤄졌는데, 복강경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입원기간이 8일로 개복수술의 10일에 비해 2일 정도가 짧았다.<br/>　또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복강경 수술의 경우 12.5%로, 개복수술의 20.4%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강경 수술이 합병증의 위험과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빨라 개복수술에 비해 입원기간이 짧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br/>　뿐만 아니라 암 수술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생존율도 복강경수술 환자가 76.4%로 개복수술 환자의 73.2%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무병생존율 역시 복강경 수술 환자(44.2%)가 개복수술 환자(41.2%)보다 높았다. 이 연구 결과는 간질환 분야의 권위지인 Journal of Hepatology(영향지수 IF : 11.336) 최신판에 게재됐다.<br/>　한호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복강경 간절제 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개복수술과 최소한 같거나 낫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앞으로 복강경 간절제술이 더욱 널리 보급됨으로써 많은 환자에게서 수술 합병증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수술 결과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　지금까지 간세포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는데 주로 적용해 온 간절제술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수술로 간주됐다. 간이 갈비뼈에 덮여 있어 다른 개복술보다 훨씬 큰 절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술 중 과다출혈 위험도 높아 이전에는 대부분의 간암 절제술이 개복을 통해 시행됐다.<br/>　하지만 한호성 교수팀이 2006년 세계 최초로 ‘복강경 우후구역 간엽절제술’에 성공한데 이어 2009년에는 ‘복강경 중앙 이구역 간엽절제술’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간암 수술에 복강경수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한호성 교수팀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소아환자에게도 복강경 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 정부 주관 프로젝트로 선정돼 간암 환자에서의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br/>　한편, 복강경을 이용한 간암 및 간이식수술에서 다양한 세계 기록을 보유한 분당서울대병원 간암센터는 매년 일본 도쿄대학, 중국 베이징 대학, 타이완 국립대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병원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외과 교수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 외과 포럼을 개최, 복강경 수술법을 공유하는 등 간암의 진단 및 수술에서 앞선 의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1.txt

제목: 영남알프스서 보는 세계의 산…울주 ‘프레’ 산악영화제 오세요  
날짜: 20150731  
기자: 김영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5111126  
본문: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전 세계 산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열린다. <br/><br/><br/>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은 다음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에서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br/><br/><br/>‘울주는 산이다! 산을 만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프레페스티벌은 장편(60분 이상) 9편, 중편(40~60분) 5편, 단편(40분 미만) 29편 등 모두 43편(13개국)을 상영한다. 프레페스티벌은 비경쟁 초청영화제로 개최하고, 내년 제1회 산악영화제부터 부분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br/><br/><br/>개막식과 야외 상영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다. 일반 상영과 부대행사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펼쳐진다. 등반가 엄홍길씨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작지원 프로젝트 선정작 ‘오월’ 주연배우 이다희씨가 홍보대사를 맡았다. <br/><br/><br/>개막작은 스페인 영화 세바스티앙 몽타스-로제 감독의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이 선정됐다. 모든 영화는 무료고, 선착순 입장이다. 야간 영화 상영에 앞서 대중음악과 인디뮤지션, 프로 묘기자전거 팀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영남알프스 산자락에서 캠핑과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영존이 운영되고, 히말라야 베이스캠프와 인공암벽장, 하늘 억새길 트레킹, 별 사진 촬영 등도 체험할 수 있다. <br/><br/><br/>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2.txt

제목: [연예 포스토리] (7) ‘국민엄마’ 김혜자의 러브신, 상상이 되시나요?  
날짜: 2015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4323533  
본문: ‘엄마’하면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중견 여배우 김혜자. ‘우리 엄마’의 처녀 시절을 상상할 수 없듯, 김혜자의 ‘엄마가 아닌 다른 모습’은 상상이 안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였을 것만 같은 김혜자의 예전 모습을 살펴봅니다.<br/><br/>● 수더분해 보이던 그 여자, 알고 보니 뼛속까지 ‘서울여자’<br/><br/>경기여고를 졸업한 김혜자는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1963년 KBS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합니다. 약 20년 동안 출연한 ‘전원일기’의 잔상이 깊게 남아서인지 ‘김혜자는 지방출신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그녀는 뼛속까지 ‘서울여자’라고 합니다.<br/><br/>● “<span class='quot0'>김혜자가 별 탈 없이 순산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span>”<br/><br/>방송국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긴 했지만, 김혜자는 연극무대에도 많이 섰습니다. 1969년 김혜자는 임신 7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출연 예정인 연극 리허설에 참석해 동료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MBC ‘개구리 남편’ 촬영 당시에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열연을 펼쳤습니다. 김혜자가 첫 딸을 낳자 방송가에서는 “몸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연을 펼치던 <span class='quot0'>김혜자가 별 탈 없이 순산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span>”이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연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br/>　<br/>● 떼려야 뗄 수 없는 남자, 최불암<br/><br/>‘전원일기’에서 너무 오랜 시간 최불암과 호흡을 맞춘 탓에, 실제로 이 둘을 부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김혜자, 최불암이 실제 부부는 아니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1974년 MBC 제1회 탤런트 연기상에서 김혜자와 최불암은 나란히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이후에도 ‘아버지 역을 가장 잘하는 인기인’, ‘어머니 역을 가장 잘하는 인기인’ 설문조사에서도 함께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평생의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br/>　<br/>● “탤런트다운 게 뭔데?”<br/><br/>“너답지 않게 왜 그래”, “나다운 게 뭔데?” 드라마의 단골 멘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탤런트다운 탤런트’란 무엇일까요? 한 드라마 PD는 김혜자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span class='quot1'>연기가 크지 않고 목소리와 표정까지도 꾸며내지 않은 가장 자연스러운 연기인인 그녀는 TV에 꼭 알맞은 가장 탤런트다운 탤런트다.</span>”<br/>　<br/>● ‘국민엄마’ 김혜자의 러브신<br/><br/>영화 ‘만추’하면 현빈과 탕웨이가 출연한 영화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80년대에도 ‘만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김혜자는 처음으로 베드신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출연환 정동환 역시 이전까지는 의젓하고 정직한 청년 역을 주로 연기하다가 이 영화에서는 범죄자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TV에서 못한 러브신을 해내자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네요.<br/>　<br/>● 고생 끝에 ‘여우주연상’이 온다<br/><br/>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김혜자는 ‘만추’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느라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 작품은 그녀에게 ‘제2회 마닐라 영화제-여우주연상’을 안깁니다. 첫 영화로 홈런을 친 셈이 되는 거죠. 수상 당시 그녀는 “외국에 나가보니 우리 영화가 너무 소외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즘에는 각종 영화제에 우리나라 감독, 배우들이 많이 초대받는 것 같아 참 자랑스럽습니다.<br/>　<br/>● “<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내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들에 대한 보답</span></span>”<br/><br/>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지만 80~9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김혜자에게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고충을 묻자 그녀는 “<span class='quot2'>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내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들에 대한 보답</span></span>”이라고 답했습니다.<br/>　<br/>●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다<br/><br/>김혜자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 높은 연단에 서서 많은 군중들의 박수를 받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버지 옆에는 어항이 있었는데, 그 어항 속에는 새빨갛고 예쁜 붕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박수는 그 어항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자의 아버지는 “우리 딸은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될 것 이다”라고 얘기했다네요. 아버지의 태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김혜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왔을지 생각해 봅니다.<br/><br/>이미경 기자 btf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3.txt

제목: 반딧불로 ‘암 진단’…종양 찾으면 발광 기술 개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날짜: 20150728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016886  
본문: 한여름 밤, 환상적인 빛의 궤적을 그려내는 반딧불. 이런 낭만적인 곤충을 이용해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과학자들이 개발해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br/>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EPFL) 연구진이 반딧불의 발광효소인 ‘루시페라아제’의 분자를 추출해 이를 인공물질과 함께 체내에 주입한 뒤 암세포 등의 종양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사이언스데일리 등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br/>구체적으로는 화학적으로 조작한 표지(tag)를 루시페라아제에서 추출한 분자에 흡착시켜 특정 단백질에만 반응하도록 설정한 뒤 인체에 주입하는 것이다.<br/>이후 이 분자가 표적이 되는 종양이나 병소에 도달하는 순간 발광한다. 이때 발생한 빛은 맨눈으로도 명확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br/>이번 연구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카이 욘슨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분자는 사실 절반은 생물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공물질로 이뤄진 일종의 사이보그</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이런 분자가 표적 단백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려고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다</span>”고 설명했다.<br/>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소변이나 기생충 등을 사용해 암에 걸렸는지를 식별하는 기술은 발표됐었지만, 어느 부위에 종양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br/>하지만 이번 기술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br/>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7월 22일자)에 실렸다.<br/>사진=플리커(위), 카이 욘스/EPFL<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4.txt

제목: 고기 ‘붉은 색소’ 성분이 대장암 유발  
날짜: 20150728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3015418  
본문: 쇠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것은 고기에 붉은 색을 내는 색소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인 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붉은 고기에 많은 환원 헤마틴(헤모글로빈의 색소 성분)을 투여한 쥐에서 장 내벽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br/>장 속 박테리아가 환원 헤마틴을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몸은 빠르게 세포를 재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빠른 세포 재생이 악성 종양의 생성도 유발한다는 것이다.<br/>따라서 연구진들은 장 속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이러한 붉은 고기의 암 유발 효과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br/>대장암은 고기를 많이 먹는 서구 국가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국내에서도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발병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br/>최근의 다른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붉은 고기는 대장암 외에도 심장마비, 유방암, 2형 당뇨병, 전립선암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은 붉은 고기를 하루에 70ｇ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br/>연합뉴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5.txt

제목: 세포내핵 단백질 조절해 패혈증 치료한다  
날짜: 20150728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3420439  
본문: 패혈증은 미생물 감염으로 체내에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혈액에 독소가 퍼져 염증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사망률이 65%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지난해 많은 음악팬을 울렸던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도 패혈증 때문이었다.<br/><br/>충남대 의대 조은경 교수팀은 핵수용체로 불리는 세포내핵 단백질을 조절하면 패혈증 같은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면역학 분야 국제학술지 ‘이뮤니티’ 21일자에 발표했다. 핵수용체는 RNA를 만들거나 체내 호르몬과 결합해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단백질로 질병 발생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이알알알파’(ERRα)라는 물질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암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연구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ERRα가 없는 생쥐를 만든 뒤 이 생쥐에 패혈증 유발 물질을 투여했다. 그러자 염증지수가 300배 이상 늘어나면서 72시간 내에 80% 정도가 사망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생쥐에게 ERRα를 주입하자 염증지수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고 90% 이상 생존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세포 내 염증억제 단백질을 자극하면 패혈증은 물론 여러 난치성 염증질환을 억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6.txt

제목: [월드피플+] 4살 딸에 편지 남긴 말기암 엄마  
날짜: 2015072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847807  
본문: 말기 암으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한 30대 젊은 여성이 4살짜리 딸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수십 편의 편지를 작성해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br/>미국 ABC뉴스 등 현지언론은 미 위스콘신주(州) 맥팔랜드에 사는 헤더 맥매나미(35)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br/>맥매나미는 지난해 8월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이미 암세포가 뼈와 간에 전이돼 희망이 없다고 한다.<br/>그녀에게는 현재 4살 된 딸 브리아나가 있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에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남겼다.<br/>맥매나미가 준비한 선물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딸이 항상 자신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처할 삶에 관한 많은 조언을 하나하나 편지에 적은 것이다.<br/>그녀는 “딸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분이 좋거나 나쁜 날도 있고 매년 맞이하는 생일에 내가 없어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br/>그녀는 자신이 쓴 편지가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br/>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편지에는 슬픈 날 딸이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부터 첫 치아가 빠졌을 때의 대처 방법 등 세세한 것은 물론 딸의 생일과 결혼식 당일,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당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삶에 있어 조언을 하나하나 담았다고 한다.<br/>이렇게 그녀가 적은 편지는 수십 통에 달한다. “<span class='quot0'>편지 더미를 보면 이 모든 일을 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슬프기도 하다</span>”고 속내를 털어놓는 맥매나미. 그녀는 딸이 너무 슬퍼서 편지를 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단지 읽어주면 된다고 말했다.<br/>“<span class='quot0'>딸이 ‘함께 있는 동안 엄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해줬으면 한다</span>”고 말하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span class='quot0'>딸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span>”이라는 등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7.txt

제목: 도심을 품은 자연, 세월이 그린 풍경  
날짜: 20150725  
기자: 손원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2221413  
본문: 부산시 일부 지역이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공식 인증을 받았다. 내륙형(도시형) 지질공원으로는 국내 첫 번째, 나라 전체로는 제주도와 울릉도·독도에 이어 세 번째다. 국가지질공원은 ‘특별한 지구과학적인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인증한 곳’이다. 부산에서는 모두 12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질공원이 됐을까. 수천만년의 시간이 농축된 해당 지역들을 둘러봤다.<br/><br/><br/><br/>시간이 깃들지 않은 공간은 없다. 어떤 형태로 깃들었느냐가 다를 뿐이다. 한데 어떤 지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고 어떤 지역은 평이한 곳으로 남는다. 차이는 뭘까. 부산시 환경보전과의 이규림 주무관은 “<span class='quot0'>7000만~8000만년 전의 화산활동이나 지각변동, 기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부산 지역의 산과 해안 지형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이기대 공원의 화산각력암을 분석하면 해운대구의 장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폭발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식이다. 자연스레 당시 기후 등 자연환경도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다. 대도시 지역에 이처럼 다양한 지형들이 분포하는 건 드문 경우다. 그래서 ‘내륙형’ 국가지질공원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병풍처럼 두르고 사는 부산 시민들로서는 이래저래 축복받은 셈이다.<br/><br/>부산시는 부산국가지질공원을 위치와 성격에 따라 네 지역으로 나눴다. 북부지구는 ‘마그마의 야외 박물관’이다. 금정산과 백양산, 구상반려암(황령산) 등이 포함됐다. ‘화산 이야기’가 담긴 동부는 장산, ‘하구 지질과 생태의 만남’이 이뤄진 서부는 낙동강 하구로 이뤄졌다. ‘백악기 시간여행’이 테마인 남부엔 태종대와 이기대, 오륙도, 송도반도, 두도, 두송반도, 몰운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부지구의 경우 부산시에서 조성한 ‘갈맷길’ 트레킹 코스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지질공원에 포함된 지역의 정보를 미리 알고 가면 한결 풍성한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 접근하기 불편하거나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두도나 몰운대, 오륙도, 구상반려암 등이 그렇다. 다소 먼 거리에서 관찰해야 하는 게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살펴보는 게 낫지 싶다.<br/><br/>●비와 바람이 만든 부산의 지형적 뿌리 ‘금정산’<br/><br/>첫 코스는 금정산(801m)이다. ‘부산의 (지형적)뿌리’로 평가받는 곳이다. 부산 지질공원 측은 금정산을 ‘신화가 잠든 바위산’이라 부른다. 얼추 7000만년 전 마그마가 식어 생성된 화강암이 융기해 만들어져 부산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비와 바람이 오랜 세월 암석을 조탁해 형성된 토르와 엔셀베르그, 화강암 표면에 가장 잘 형성되는 접시 모양의 풍화혈 나마 등 우아한 화강암 지형과 만날 수 있다. 화강암엔 중금속 성분이 없다. 대개 결정질 석영(수정)으로 구성돼 있다. 그 덕에 질 좋은 지하수가 만들어진다. 금정산성 막걸리가 유명한 건 바로 이 지하수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이다. 금정산 일대엔 산성이 여태 남아 있다. 나라 안에서 가장 길고 큰 성이다. 기암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성곽이 무려 17㎞에 달한다. 산성 일주에만 8시간 이상 소요돼 전체를 돌아보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나눠 돌아보길 권한다. 동문에서 장대, 제4망루, 의상봉을 거쳐 원효봉까지 다녀오는 게 일반적이다.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체력이 부친다면 제4망루나 의상봉까지만 가도 무난하다. 이 일대 산마루에서 굽어보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의 전경이 일품이다.<br/><br/><br/><br/>●지질학적 자연현상의 보고 ‘태종대·이기대·오륙도’<br/><br/>남부지구의 태종대, 이기대, 오륙도 등은 동부 장산의 화산활동에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다. 특히 태종대는 호수에서 태어나 바다와 맞선 바위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백악기 때 형성된 호수 퇴적층에 장산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다시 퇴적되면서 당시 이 일대의 지질학적 변화상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미 2005년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제17호)이 됐으니 이번 지질공원 지정으로 2관왕을 거머쥔 셈이다. 퇴적물이 사태를 일으켜 ‘천연벽화’를 그린 슬럼프 구조, 퇴적암이 열에 의해 변성된 구상혼펠스, 단층작용에 의해 형성된 꽃다발 구조 등 실로 다양한 자연 현상과 만날 수 있다. 잊지 말자. 당신이 걷고 있는 신선바위는 공룡들이 뛰어놀던 시절에 해수면(낭식흔)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오륙도와 이기대엔 ‘바다를 향한 불의 신(벌컨)’이 깃들었다. 이기대는 7000만~8000만년 전 화산 지역 인근의 환경을 알려주는 곳이다. 마그마가 화산각력암을 뚫고 관입한 흔적, 수천만년 동안 형성됐고 여전히 변화가 진행 중인 돌개구멍(2013년까지는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 등의 지질 기록을 관찰할 수 있다. 오륙도에선 5단 단구가 발견된다. 지각이 5번 융기했다는 증거다.<br/><br/>●강과 바다가 쌓은 독특한 모래지형 ‘낙동강 하구’<br/><br/>낙동강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진 삼각주의 여러 특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지질학적 현상이 현재 진행형인 곳으로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주, 사구, 석호 등이 낙동강 하구만의 독특한 지형을 만들고 있다. 철새 도래지로 이름난 을숙도 또한 이 지역 지질공원에 포함됐다. 아미산 전망대에 오르면 이 일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 관람은 무료다.<br/><br/>부산의 야경 명소로 꼽히는 황령산엔 구상반려암(천연기념물 267호)이 있다. 전 세계 8개국, 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암석이다. 약 6000만년 전 퇴적암 틈을 따라 관입한 마그마의 ‘신비한 조화’로 암석 표면의 결정들이 동심원 구조를 이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찰로를 조성했다고는 하나 암석 주변에 보호 펜스가 있어 가까이 접근해 관찰하기는 어렵다. 지금처럼 꽁꽁 싸매둘 게 아니라 외국처럼 표면을 연마해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노출하는 게 낫지 않으냐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br/><br/>●자연미 갖춘 이색 건축물 맛집 ‘오륙도 가원’<br/><br/>팁 하나. 구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하는 밥집 이야기다. 이기대와 오륙도 사이의 용호동 해안절벽에 ‘오륙도 가원(嘉苑)’이란 맛집이 있다. 이 집은 여느 음식점과 달리 건물 자체가 볼거리다. 갈 지(之)자 진입로에서 보면 단층 건물이 지형에 파묻힌 듯 낮게 깔려 있다. 건축에 문외한이더라도 자연에 순응하려는 뜻이란 걸 단박에 알겠다. 건물도 소박하다. 특별한 마감재를 쓰지 않았다. 멋 부리지 않는 단순미를 염두에 둔 듯하다. 설계를 담당한 이는 ‘시래기로 담백한 된장국 끓이는 콘셉트’로 지었다고 한다. 그가 모티브로 차용한 건 한옥이다. 전통적인 ‘ㄷ’ 자 형태로 꾸몄다. 건물 가운데를 너른 중정으로 삼고, 건물 여기저기 볕이 쏟아지는 작은 중정도 세웠다. 건물 앞쪽으로는 물을 흐르게 만들어 자칫 들뜰 수 있는 음식점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식탁과 의자부터 채우는 게 다반사 아니던가. 그에 견줘 참 이례적이다. 이 집은 2011년 ‘부산다운 건축상’ 금상을 받았다. 가장 멋질 때는 해 질 무렵. 이 집에 가면 입과 눈이 호강한다.<br/><br/>글 사진 부산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br/><br/>■여행수첩(지역번호 051)<br/><br/>→가는 길 이기대와 태종대 공원, 아미산 전망대 등에서 지질명소 해설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홈페이지(geopark.busan.go.kr)나 현장에서 접수한다. 오륙도는 배로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이용하는 게 좋겠다. 바다와 접한 남부지구의 경우 악천후 시엔 입장을 자제해야 한다. 부산시 환경녹지국 888-4891, 환경보전과 888-3636.<br/><br/>→맛집 오륙도가원(635-0707)은 오리와 한우 등심, 떡갈비 등을 내는 집이다. 전복갈비찜 등 1만원 안팎의 간단한 점심 메뉴도 갖췄다. 지질공원 답사와 연계해 찾을 만하다. 태종대 쪽에서는 태종대 짬뽕(405-2992)이 시원한 국물의 짬뽕으로 입소문 났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8.txt

제목: 세계가 인정한 ‘마지막 논문’  
날짜: 20150724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1723054  
본문: 암 투병을 하면서도 연구열을 불태웠던 해양 과학자의 마지막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렸다.<br/><br/>주인공은 지난해 8월 1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박영수(당시 62세) 박사.<br/><br/>24일자로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은 국제해양탐사 프로그램(IODP)에 참여한 국제연구진이 서태평양지역 해저 2.5㎞의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심해저 생물은 석유화학은 물론 신약개발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박 박사는 채취한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br/><br/>IODP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26개국이 참여해 해양지구과학을 연구하는 국제 공동 프로그램이다. IODP에 참여한 각국의 과학자들은 일본의 지구호, 미국의 조이데스 레졸루션 등 해양시추선을 타고 심해저 지각과 생물을 추출해 연구한다.<br/><br/>박 박사는 IODP의 한국 책임자이면서 고참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9~11월, 2012년 7~9월 두 차례나 배를 타고 나가 외국 과학자들과 함께 하루 12시간 이상씩 연구에 몰두했다.<br/><br/>2012년 두 번째 연구항해를 다녀온 직후 위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박 박사는 분석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br/><br/>박 박사 뒤를 이어 IODP 한국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길영 지질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박사는 “<span class='quot0'>박 박사님은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과학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후배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상에서도 분석작업을 이어가셨다</span>”며 “<span class='quot0'>끊임없이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신 분</span>”이라고 말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59.txt

제목: ‘송아빠’가 살찐 이유 있었다...바로 ‘부성애’  
날짜: 20150723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744993  
본문: ‘부성애’가 몸무게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됐다.<br/>미국 시카고대학의 크래그 가필드 박사 연구진은 지난 20년간 1만 253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10대와 20대, 30대 초반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변화를 관찰·분석했다.<br/>그 결과 남성들이 결혼한 뒤 첫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에 띄게 몸무게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신장 약 183㎝ 남성을 기준으로, 첫째 아이 출산 이후 평균 2㎏이 증가했으며, 아이가 없는 남성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BMI,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는 2.6% 상승했다.<br/>남성이 결혼과 자녀 출산 이후 몸무게가 증가하는 이유는 생활습관 및 식습관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당 함량이 높은 간식거리를 사게 되는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br/>연구를 이끈 크래그 가필드 박사는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체질량지수(BMI)가 증가하면 심장질환이나 당뇨, 암 등의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진다. 가족이 최우선이 되면서 운동할 여유도 사라지다보니 살이 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이어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이나 쿠키 등을 자주 사먹게 된다. 또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경향도 강해진다. 이러한 습관의 변화가 몸무게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r/>전문가들은 결혼 뒤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의학저널인 ‘남성 건강 저널’(Journal of Men‘s Health)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0.txt

제목: “널 항상 지지하고 있단다” 말기암 엄마가 4살 딸에게 남긴 편지  
날짜: 2015072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736813  
본문: 말기 암으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한 30대 젊은 여성이 4살짜리 딸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수십 편의 편지를 작성해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br/>미국 ABC뉴스 등 현지언론은 미 위스콘신주(州) 맥팔랜드에 사는 헤더 맥매나미(35)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br/>맥매나미는 지난해 8월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이미 암세포가 뼈와 간에 전이돼 희망이 없다고 한다.<br/>그녀에게는 현재 4살 된 딸 브리아나가 있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에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남겼다.<br/>맥매나미가 준비한 선물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딸이 항상 자신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처할 삶에 관한 많은 조언을 하나하나 편지에 적은 것이다.<br/>그녀는 “딸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분이 좋거나 나쁜 날도 있고 매년 맞이하는 생일에 내가 없어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br/>그녀는 자신이 쓴 편지가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br/>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편지에는 슬픈 날 딸이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부터 첫 치아가 빠졌을 때의 대처 방법 등 세세한 것은 물론 딸의 생일과 결혼식 당일,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당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삶에 있어 조언을 하나하나 담았다고 한다.<br/>이렇게 그녀가 적은 편지는 수십 통에 달한다. “<span class='quot0'>편지 더미를 보면 이 모든 일을 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슬프기도 하다</span>”고 속내를 털어놓는 맥매나미. 그녀는 딸이 너무 슬퍼서 편지를 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단지 읽어주면 된다고 말했다.<br/>“<span class='quot0'>딸이 ‘함께 있는 동안 엄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해줬으면 한다</span>”고 말하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span class='quot0'>딸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span>”이라는 등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1.txt

제목: 야근하면 ‘호르몬 변화’...女 유방암, 男 전립선암 위험 ↑  
날짜: 2015072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702892  
본문: 야간 근무 즉 야근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은 이전 여러 연구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요인이 암 위험을 높이는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br/>그런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폼페우파브라대(UPF) 연구진이 야근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것을 밝혀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22~64세 야근자 75명과 주간 근무자 42명을 대상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性)호르몬과 신체의 낮과 밤 리듬에 관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일일 변화를 평가했다.<br/>연구진은 참가자들의 근무일 24시간 동안 소변 표본을 수집해 성호르몬과 멜라토닌에 관련한 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다.<br/>그 결과, 야근자들은 일반인보다 테스토스테론은 1.65배, 에스트로겐은 1.44배 높았다. 반면 멜라토닌 수치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br/>또 야근자들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주간 근무자들보다 훨씬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br/>예를 들어, 일반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사이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야근하는 남성의 그 수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바뀌어 있었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은 “야근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성호르몬 수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런 변화는 암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연구학회 학술지 ‘암·역학·생물표지·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2.txt

제목: ‘부성애’는 남자를 살찌게 한다…과학적 증명  
날짜: 20150722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701659  
본문: ‘부성애’가 몸무게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됐다.<br/>미국 시카고대학의 크래그 가필드 박사 연구진은 지난 20년간 1만 253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10대와 20대, 30대 초반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변화를 관찰·분석했다.<br/>그 결과 남성들이 결혼한 뒤 첫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에 띄게 몸무게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신장 약 183㎝ 남성을 기준으로, 첫째 아이 출산 이후 평균 2㎏이 증가했으며, 아이가 없는 남성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BMI,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는 2.6% 상승했다.<br/>남성이 결혼과 자녀 출산 이후 몸무게가 증가하는 이유는 생활습관 및 식습관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당 함량이 높은 간식거리를 사게 되는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br/>연구를 이끈 크래그 가필드 박사는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체질량지수(BMI)가 증가하면 심장질환이나 당뇨, 암 등의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진다. 가족이 최우선이 되면서 운동할 여유도 사라지다보니 살이 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이어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이나 쿠키 등을 자주 사먹게 된다. 또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경향도 강해진다. 이러한 습관의 변화가 몸무게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r/>전문가들은 결혼 뒤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의학저널인 ‘남성 건강 저널’(Journal of Men‘s Health)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3.txt

제목: 안락사 앞둔 두 견공의 포옹, 기적 만들다  
날짜: 2015072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642195  
본문: 안락사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 듯 꼭 껴안고 있는 두 견공의 안타까운 사진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기적을 만들어냈다.<br/>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엔젤스 어멍 어스 팻 레스큐’(Angels Among Us Pet Rescue)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br/>사진 속 갈색 견공은 검은색 복서 견공을 앞발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다.<br/>이 보호소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권하기 위해 갈색 견공 칼라의 처지에서 한 편의 글을 적었다.<br/>“난 칼라고, 얘는 키이라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게시글에는 두 견공이 입양되지 못해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br/>또 이 글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줬어요”라며 “누군가 입양해야만 내일이 있을 거에요”라고 적고 있다.<br/>게시글에 따르면, 키이라는 실제 복서 견종이 아니라 믹스견이다.<br/>암컷인 키이라는 담담한 표정이지만 두 견공 모두 안락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호소 측은 설명했다.<br/>심금을 울리는 글과 사진 때문인지 이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급격히 확산했다.<br/>원본 게시물이 공개된지 불과 2시간 6분만에 한 자원 봉사자와 수의사가 각각 두 견공을 입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두 견공은 새로운 ‘내일’을 맞게 됐다.<br/>두 견공의 사진에는 댓글이 3000개 이상 달렸고 공유는 3500번 이상 이뤄졌다. 2만 19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러 게시글을 추천했다.<br/>이후 보호소 측은 이제 견공들이 안전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br/>사진=Angels Among Us Pet Rescue/페이스북<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4.txt

제목: 침팬지 어미, 갓태어난 새끼 배위에 눕히고...가장 편안하게...  
날짜: 2015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80737600  
본문: 21일(현지시간) 독일 서쪽 프랑크푸르드 암 마인에 있는 동물원에서 침팬지(bonobo) 쿠투의 배위에 새끼가 누워있다. 새끼는 지난 18일 태어났다.<br/><br/>A baby bonobo lays on its mother “Kutu” at the zoo in Frankfurt am Main, western Germany, on July 21, 2015. The baby was born on July 18, 2015 at the zoo. <br/><br/>ⓒ AFPBBNews=News1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5.txt

제목: 야근하면 암 위험 커지는 이유…호르몬 변화 탓 - 연구  
날짜: 20150721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601724  
본문: 야간 근무 즉 야근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은 이전 여러 연구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요인이 암 위험을 높이는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br/>그런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폼페우파브라대(UPF) 연구진이 야근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것을 밝혀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22~64세 야근자 75명과 주간 근무자 42명을 대상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性)호르몬과 신체의 낮과 밤 리듬에 관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일일 변화를 평가했다.<br/>연구진은 참가자들의 근무일 24시간 동안 소변 표본을 수집해 성호르몬과 멜라토닌에 관련한 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다.<br/>그 결과, 야근자들은 일반인보다 테스토스테론은 1.65배, 에스트로겐은 1.44배 높았다. 반면 멜라토닌 수치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br/>또 야근자들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주간 근무자들보다 훨씬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br/>예를 들어, 일반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사이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야근하는 남성의 그 수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바뀌어 있었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은 “야근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성호르몬 수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런 변화는 암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연구학회 학술지 ‘암·역학·생물표지·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6.txt

제목: 英참전군인 포로 유족 “미쓰비시, 우리에게도 사과하라”  
날짜: 20150720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534096  
본문: 지난 19일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터리얼이 2차 대전 당시 강제 동원됐던 미군 포로들에 대해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면서도 영국, 네덜란드, 한국 등 다른 피해 국가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영국 참전군인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의 태도를 성토하고 나섰다.<br/>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미쓰비시의 강제노역 피해자면서도 미국인들과는 달리 아직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한 영국인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이야기를 19일(현지시간) 소개했다.<br/>1942년 일본군 포로로 잡혔던 영국군 제임스 깁슨은 3년 동안 미쓰비시 소유 탄광 및 조선소에서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린 뒤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받다가 1982년 사망했다. 제임스 깁슨의 아들 샌디 깁슨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미쓰비시가 제임스의 고충에 대해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하길 원한다고 말한다.<br/>제임스가 갇혀 있던 포로수용소는 깊은 산속에 위치해 기온이 매우 낮았지만 포로들에겐 원래 입고 있던 얇은 옷 이외 어떤 의류도 지급되지 않았다. 적십자 구호품은 일본 군인들이 독식했기에 포로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었다. 부족한 물자에 배가 고파 소량의 음식을 훔친 병사는 잔인하게 구타당한 뒤 처형되기도 했다.<br/>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뒤 제임스는 마침내 포로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가혹한 취급으로 생긴 심신의 피해는 지워지지 않았다. 굶주렸던 기억 때문에 항상 강박적으로 많은 식량을 집안에 비축해두고 살았으며 말년에는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다가 암으로 사망했다.<br/>제임스는 뒤늦게라도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아버지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전쟁포로 출신 영국인들은 사과를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조차 없이 살다가 죽었다”며 “그들은 모두 수많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질병을 안고 살아야만 했고, 지금도 지속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br/>95년에 사망한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 레슬리 휴튼의 아내 베라 휴튼은 설령 사과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지나치게 늦었다고 얘기한다. 그녀는 “지금 이루어지는 사과는 본인들이 아닌 그 증손들에 의한 것일 뿐이니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br/>전쟁 당시 미쓰비시가 운영한 6개의 강제 노역장에서 일한 전쟁포로는 총 2000여명, 그 중 30%가 넘는 672명은 영국인이었으나 미쓰비시는 당시 미군 포로였던 제임스 머피를 위시한 미국 피해자들에게만 사과했을 뿐 다른 국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미쓰비시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등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br/>사진=텔레그래프 캡처<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7.txt

제목: [심재억 기자의 헬스토리] 안젤리나 졸리의 주치의는 악마일까 천사일까  
날짜: 2015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5031566  
본문: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활동 무대인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다. 그녀가 세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영화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의 분쟁이나 빈곤,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다. UN난민 고등판무관이기도 한 그녀는 남편 브래드 피트와 함께 틈만 나면 지구촌 현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열정과 재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각성을 주곤 한다.<br/>　그런 안젤리나 졸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span class='quot0'>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span>”면서 자신의 양쪽 유방을 절제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다. 그 때가 2013년이었다. 그런가 하면, 얼마 후에는 난소와 나팔관까지 제거했다고 다시 밝혔다.<br/>　그녀는 당시 뉴욕타임즈에 ‘안젤리나 졸리 피트: 수술 일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span class='quot1'>자신에게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은 ‘BRCA1’ 변이유전자가 있으며, 이 경우 난소암 발병 확률이 50%나 돼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했다</span>”고 밝혔다. 그녀는 “‘친인척에게서 같은 종류의 암이 발생한 시점보다 10년 전에 예방적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었다”면서 “나의 어머니는 마흔 세살 때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나는 지금 서른 아홉살이다”고 덧붙였다.<br/>　<br/>　■가공할 암의 공포<br/>　확실히 암은 무섭다. 2013년에 국내에서 암으로 사망한 여성은 총 2만 825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6%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유방암 사망자 2231명과 난소암 사망자 1038명이 포함돼 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은 폐암(전체 사망자의 16.5%인 4658명)이었으며, 대장암(12.7%), 위암(11.3%), 간암(10.6%) 등이 뒤를 이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에 암으로 사망한 남성은 총 4만 707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2.1%였다.<br/>　물론 국가나 인종에 따라 암은 발병 추이와 사망률이 큰 편차를 보인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르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다른 질환에 비해 완치율이 낮고, 치료가 어렵다는 점이다. 발병 부위도 열외가 없다. 머리카락 말고는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 암을 말할 때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떠올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br/>　안젤리나 졸리라고 암에 대한 태도나 시각이 우리와 다를 리가 없다. 어쩌면 현실에서 이룬 게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치명적으로 속박할 수도 있는 암에 대해 더 강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br/>　물론,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그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 난소 제거 후 그녀는 “수술은 유방절제보다 복잡하지 않았지만, 수술의 영향은 더 심각했다”며 “이 수술을 받은 여성은 폐경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털어놨다. 덧붙여 그녀는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신체적인 변화도 느껴진다”며 자기에게 다가온 폐경기의 징후를 설명하기도 했다.<br/>　유방과 난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여성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에 해당된다. 유방은 모체의 본질인 수유의 유일한 통로이자 자신이 여성임을 외부에 드러내는 기관이다. 난소는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위로, 모두 여성에게만 있다. 한 여성이, 그것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여성이 특별한 병증도 나타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유방과 난소를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강한 자기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졸리의 선택이 ‘용기 있는 결단’이든,‘무모한 선택’이든 돌이킬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졸리가 자신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했을 여성성을 포기할만큼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암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다.<br/>　실제로, 졸리의 어머니인 배우 마르셀린 버틀란드와 외할머니, 이모가 난소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가족력은 그의 결단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유방 제거술을 받은 뒤 그녀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나의 의학적 선택(My Medical Choice)’에서 “<span class='quot2'>의사는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은 50%라고 추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2'>유방절제술을 받을 받고 난 지금은 그 확률이 5%대로 떨어졌다</span>”고 적었다.<br/>　<br/>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을까<br/>　물론, 그녀가 유방과 난소를 제거한 데는 너무 일찍 요절한 어머니 마르셀린 버틀란드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가슴 속에서 키웠을 암에 대한 공포감과 그런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한 직접적인 요인은 분자생물학이라는 의과학이었다. 병원에서 분자생물학적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도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는 ‘BRCA 1’이라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용단’을 내리게 된 것.<br/>　실제로, BRCA 1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킬 경우 70세까지 유방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최대 8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0%라는 가능성은 산술적으로는 ‘열 명 중 여덟명’을 뜻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두’를 뜻한다. 예컨대, 중병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주치의가 ‘20%의 가능성’을 거론했다면 기대치가 희박하다는 뜻이고, 어떤 환자의 상태에 대해 ‘80%의 가능성’을 말했다면 ‘다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의사들은 직업적으로 환자의 가능성을 말할 때 대체로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br/>　그렇다고 보면, 의학적 혹은 의료 측면에서 비전문가인 졸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그녀를 잘 아는 주치의의 권고가 있었음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졸리의 주치의는 핑크 로터스 유방센터 크리스티 펑크 박사였다.<br/>　크리스티 펑크 박사가 당시 졸리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한 장면을 추정해 재구성해 보자.<br/>　“<span class='quot0'>안젤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지만,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서둘러 만나자고 했습니다</span>”<br/>　펑크는 진지하고도 약간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지난번에 의뢰한 유전자검사 결과, 당신의 몸 속에서 아주 위험한 ‘BRCA 1,2’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물론, 암이 발병한 건 아니지만, 가장 신뢰할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성 유전을 하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평생 유방암에 노출될 위험이 80%, 난소암에 걸릴 위험은 50%에 이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br/>　주치의의 설명이 이어졌고, 놀란 얼굴로 설명을 듣던 졸리가 물었다. “문제가 유방인가요? 아니면…” 졸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는 손사레부터 쳤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는지 알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장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치의는 여기까지 말한 뒤 졸리와 피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졸리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피트가 물었다.“<span class='quot3'>펑크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가능성이라는 게 뭐죠?</span>”<br/>　“물론 우리도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두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고, 결론은 정기적인 관찰을 좀 더 자주, 치밀하게 하는 방법과, 발암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관찰의 경우 어떻든 암이 생긴 후에야 의료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은 신체를 훼손하는 대신 암이 생길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br/>　<br/>　■“졸리의 유방을 제거하지요. 난소까지요”<br/>　펑크 박사와 마주 앉아 있던 졸리는 고개를 돌려 남편 피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피트가 말했다. “당장 암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 내용이 틀림 없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br/>　“제 생각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선택의 문제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분께서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가진 특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분이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저로서는 두 분이 지금까지 확인된 의학적 가능성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제가 확실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시점에서 두 분께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br/>　그로부터 며칠 뒤, 졸리 부부는 다시 펑크 박사를 찾았다. 일부러 펑크가 한가한 시간에 맞췄다. 물론 그 주치의와 졸리 부부는 오랫 동안 교분을 나눠왔고, 두 부부가 서로 농담을 주고 받으며 함께 식사를 할만큼 각별한 사이였다. 그 날도 그런 친밀함을 전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졸리 부부는 며칠 동안 펑크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숙고를 거듭했다. 가족은 물론 뉴욕의 의사 친구로부터도 자문을 구했고, 역시 절친한 영화사 대표와도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선뜻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피트가 “난 항상 당신 편이야.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난 그 결정을 지지하고 지켜줄 준비가 돼있어”라고 말했고, 졸리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도, 앞으로도.”라고 했지만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 했다. 사실, 이들은 펑크 박사를 만날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br/>　피트는 펑크를 보자 “박사님은 지난 번에 확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유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나요?”하고 물었다. 주치의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도, 병원도 당연히 심사숙고를 했고요” 그 때까지 말없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졸리가 입을 열었다.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띄고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다. “졸리의 유방을 제거하지요. 필요하다면 난소까지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도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려요”<br/>　<br/>　■주치의 펑크 박사, 천사일까 악마일까<br/>　펑크 박사는 수술 후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4'>졸리의 가슴에서 유방조직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삽입했으며, 그녀의 가슴은 아주 자연스럽게 치료가 완료됐다</span>”고 전했다. 펑크 박사는 이어 이 수술의 적정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span class='quot4'>모든 유방암 환자나 유방암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졸리와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span>”고 덧붙였다.<br/>　이후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아직 암이 생긴 것도 아닌데, 예방을 위해 멀쩡한 유방과 난소를 제거한 선택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암의 진단과 치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수술 지상론과 불필요하고도 잦은 검사 등 과잉의료의 문제로 확대됐다.<br/>　일부에서는 “졸리의 수술이 과거 ‘치료중심 의학’에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예방중심 의학’으로 추세가 변하는 모멘텀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빨리 치료해야만 완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조기 치료의 성과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심각하지도 않은데 수술을 받아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환자도 많지 않나”라면서 “하물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암을 예방한다며 유방과 난소를 제거하도록 제안한 그 주치의는 결코 천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br/>　일본 니가타대학의 저명한 예방의학자인 오카다 마사히코 박사는 “이 의료행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 선택을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수술을 권한 의사에게는 큰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격노했다. 오카다 박사는 비판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술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암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유방암의 발생 원인이 꼭 유방에만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어디까지가 유방암 위험 부위인지도 딱 잘라 선을 그을 수 없다. 따라서 양쪽 유방을 모두 제거했다고 유방암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국내에서도, “졸리가 유방을 제거함으로써 암 발병 확률을 5%까지 낮췄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수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졸리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수백명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쪽은 유방을 제거하고, 다른 쪽은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관찰해 어느 쪽에서 유방암이 많이 생기며, 어느 쪽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를 비교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따라서 그런 검증 없이 졸리에게 유방과 난소 제거를 권유한 의사는 매우 위험한 곡예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았다.<br/>　펑크의 결정이 아직도 발전 중인 분자생물학의 분석을 지나치게 맹신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에게 남다른 선견지명과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의 선택이 ‘선’인지,‘악’인지를 가늠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br/>　수술 후에도 남아 있다는 5%의 진폭도 의외로 크다. 이후 졸리에게 암이 생기지 않는다면 수술을 통해 안전한 부류라는 95%에 포함시킨 현명한 조치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에게서 암이 발병한다면 그렇게까지 하고서도 결국 암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어떻든, 펑크는 부담이 큰 선택을 한 것이다. 졸리에게 암이 생기지 않을 경우, 수술과 관련 없이 원래 생기지 않는 조건일 수도 있고, 그 수술 때문에 암을 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펑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br/>　<br/>　■여전히 남아 있는 과잉의료 시비<br/>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암 치료를 둘러싼 과잉의료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암이라는 병 자체가 가진 파괴력이 워낙 크다보니(실제로 파괴력이 큰 암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게 사실이다) 과잉의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미처 그런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의사와 의료에 매달리는 형국이지만, 좀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 더러는 의료인들의 무능과 무분별까지 더해져 과잉의료의 부피는 커져가기만 한다.<br/>　수술만 해도 그렇다. 그럴 수 있다면 인체를 훼손하는 수술을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수술로 환자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냉철하게 따지지 않고 환자만 보면 수술부터 하려고 대든다. 이런 의사들은 냉정하게 말해 환자보다 수술에 집착하는 부류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br/>　물론,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시도하는 수술에 시비를 걸 이유는 없고, 여기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수술만이 암을 비롯한 질병의 가장 확실한 근치법이라고 믿는 의사들이 여전히 많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br/>　이해를 돕기 위해 암 수술 과정을 도식화해 보자. 수술지상론자들은 폐나 간, 위나 대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신체 부위를 포괄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 뿐이 아니다. 암이 림프관을 통해 전이된다며 병변 주변의 림프절까지 깡그리 없애버린다. 이 상태로도 환자의 면역력은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만, 약으로 버티게 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수술 전부터 시행해 온 X-레이와 CT, PET-CT검사 등을 수술 후에도 계속 해야 하고, 강력한 항암제와 방사선요법까지 동원한다. 환자는 오랜 시간 병상을 떠나지 못해 몸은 급격하게 쇠하고 만다. 여기에 환자가 진단 단계부터 겪어온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보자. 도대체 어떤 철인이 이걸 견뎌낼 수 있다는 말인가.<br/>　졸리의 수술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의료인들은 “<span class='quot5'>유방암 가족력을 가졌더라도 예방적 절제보다는 검진을 자주 받는 것이 옳았을 것</span>”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졸리처럼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 암의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답은 없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답은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제시될 수도 있고, 영원히 얻지 못할 수도 있다.<br/>　중요한 점은, 의사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치열한 고뇌의 산물이어야 하고, 의학적 근거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하며, 어떤 치료 방식이든 의료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확신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은 답을 내릴 수 없다. 졸리를 수술대에 눕힌 크리스티 펑크는 과연 악마일까, 천사일까.<br/>　jeshim@seoul.co.kr<b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8.txt

제목: “나는 엄지 잃지만”…SNS 통해 피부암 위험 경고한 여성  
날짜: 20150717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448716  
본문: 갑자기 발병한 피부암으로 엄지를 잃게 된 여성이 어울리지 않게도 살폿 미소를 지으며 찍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br/>영국 일간 미러는 16일(현지시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때문에 한쪽 엄지를 잃게 됐지만 동정을 구하는 대신 피부암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결심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br/>영국 체셔지방에 거주하는 세 아이의 엄마 멜라니 윌리엄스(36)는 몇 주 전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전에 없던 검은 반점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br/>처음엔 기껏해야 곰팡이이거나 단순한 피부병의 일종일 것이라고 여겼지만 반점은 빠르게 확산됐고 결국 병원을 찾은 윌리엄스가 듣게 된 진단명은 놀랍게도 피부암이었다. 그녀는 다행히도 암이 신체 다른 부위에 전이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엄지를 잘라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br/>급작스러운 비보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대신 용기를 냈다. 사람들이 분명한 피부암 징후를 보고도 가벼이 넘기는 일이 없도록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로 한 것.<br/>이 포스트에서 그녀는 “이 반점이 무엇처럼 보이는가?”라며 글을 시작한다. 그녀는 이어 “이건 피부암이다. 아무것도 없던 깨끗한 상태에서 불과 몇 주 만에 이토록 자랐다. 다행히 몸의 다른 부분에는 전이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엄지 절반을 절단해야 한다”고 썼다. <br/>이어 그녀는 “미리 검사하기만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동정심이 아니라 경각심”이라며 포스트를 올린 취지를 밝혔다.<br/>윌리엄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검사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나의 경우, 엄지가 잘리는 정도의 피해에는 금세 적응할 수 있겠지만 만약 시간을 더 지체했다면 엄지보다 많은 부분을 잃었을 것”이라며 빠른 검사의 중요성을 전했다.<br/>그녀는 “여기에 동정과 칭찬의 댓글을 달 시간을 아껴 이 포스트를 공유하거나 검사가 필요한 친구들을 설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충고를 신속히 퍼뜨려 줄 것을 부탁했다.<br/>사진=ⓒ페이스북<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69.txt

제목: 하루 차(茶) 2잔 이상, 사망률 40% ↓ - 호주 연구  
날짜: 2015071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434818  
본문: 폴리페놀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면 ‘안티 에이징’(노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하지만 플라보노이드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 듯하다. 여성, 특히 나이가 많을 경우 섭취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호주 연구로 밝혀졌다.<br/>■ 사망률 40% 감소<br/>서호주대(UWA) 연구진은 75세 이상 여성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플라보노이드 섭취량과 건강 상태를 5년간 조사했다.<br/>연구논문에 따르면, 차(茶)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등으로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한 사람은 플라보노이드를 그다지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 낮았다.<br/>조사 기간 동안 12%의 여성이 사망했지만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여성 대부분은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하고 있었다.<br/>■ 고혈압과 혈전 예방<br/>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으며, 심장 질환과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br/>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은 음식으로는 초콜릿이나 과일, 레드 와인, 커피 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말로는 차에 의한 섭취가 여성에게 적합하며 양은 하루 2잔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br/>또 이번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젊은 사람도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해 이런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다.<br/>하루에 몇 잔씩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중 한두 잔을 녹차나 홍차와 같은 차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영양학회 학회지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근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0.txt

제목: [일어나라 한국경제] 한화생명, 보험료도 의료비도 나눠 내니 가볍네  
날짜: 20150717  
기자: 신융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4108721  
본문: 암·심근경색·뇌졸중 등 중대질환(CI)을 보장받으면서 주식·채권의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변액 CI보험에 보험료 납입과 인출이 한층 자유로워졌다. 한화생명이 최근 출시한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 CI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CI를 보장하는 동시에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br/><br/>이 상품은 암·뇌졸중 등 13가지의 CI 진단 시 가입금액의 80%를 먼저 받고 나머지 20%를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보험료 적립금은 주식·채권 등에 간접 투자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자유롭게 내고 필요 시 중도인출과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br/><br/>특히 여성만을 위한 ‘여성 특정 4대 질병 보장 특약’도 마련했다. 특약가입 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500만원), 특정 류머티즘 관절염(200만원), 중증 루푸스 신염(2000만원), 다발성경화증(2000만원) 등 여성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들을 보험료 갱신 없이 평생 보장한다.<br/><br/>노후 보장도 강화됐다. ‘LTC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중증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금액만큼의 간병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전환 기능과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24시간·365일 건강상담, 전국 병·의원 정보제공과 진료예약, 해외병원 예약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b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1.txt

제목: [일어나라 한국경제] 삼성화재, 산모 돌봄부터 자녀 암 치료 보장까지 척척  
날짜: 20150717  
기자: 백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4101757  
본문: 삼성화재는 기존에 있던 자녀보험을 좀 더 강화한 ‘NEW엄마맘에쏙드는’ 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실손입원의료비 등 산모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br/><br/>실제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일반 분만 제외) 담보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일반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 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해 준다. 많은 산모가 걱정하는 임신중독증도 처음 한 번에 한해 진단비를 준다. 또 이 보험은 자녀가 선천성 발달장애일 경우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한다. 고령 출산이 많아지면서 태아의 선천성 이상에 대한 걱정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유치 또는 영구치의 충치 등으로 인한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존치료지원금’과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도 눈에 띈다. <br/><br/>아울러 암 진단과 수술, 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종합적 암 보장이 가능하다. 암 입원의 경우 입원 첫날부터 보장한다. 가입 조건에 따라 출산용품 지원과 사진첩 제작, 문화 체험 중 한 가지 서비스를 1회에 한해 제공한다. <br/><br/>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2.txt

제목: 땀 농도 분석해 질병 알리고… 유해가스 감지해 경고… 냄새 맡는 전자피부 세계 첫 개발  
날짜: 20150717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3927575  
본문: 전자피부는 웨어러블(신체 착용) 건강진단기기, 감각을 느끼는 디스플레이, 다기능성 로봇 피부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구분야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전자피부는 단순히 촉각에만 반응하도록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br/><br/>숭실대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김도환 교수팀은 스마트폰이나 옷에 부착하면 유해가스 발생 사실을 알려주거나, 체온이나 땀 농도를 분석해 질병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냄새 맡는’ 전자피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분야 권위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8월호 표지 논문으로 실릴 예정이다. 김 교수팀은 국내 특허도 2건 출원했다.<br/><br/>이번에 개발된 전자피부는 전도체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인 ‘전기용량’의 특성을 이용했다. 연구팀은 촉각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유해가스나 유기용매에 의해서도 전기용량이 변한다는 점에 착안했다.<br/><br/>연구팀은 소재 표면에 기체 상태의 물질이 얇은 막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전기 전도도와 탄성이 좋은 탄소나노튜브 섬유를 합성, 미세한 전기용량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전자피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특히 전자피부를 옷의 주머니나 목 부위에 부착할 경우 땀의 산성도를 측정해 암 발병 여부를 판단하는 등 질병 진단에도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개발한 전자피부는 유해가스나 미세한 촉각도 감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원천기술인 만큼 각종 웨어러블 전자기기나 사고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3.txt

제목: 말기암 유기견, 입양한 주인 품에 편안히 안겨 ‘하늘로’  
날짜: 2015071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352928  
본문: “당신이 있었기에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이제는 정말 편히 떠날 수 있겠어요”<br/>말기 암으로 고통받던 견공 체스터는 어쩌면 주인 니콜 엘리엇에게 위와 같은 말을 남겼을지도 모르겠다.<br/>최근 미국 여성 니콜 엘리엇(24)이 입양한 말기 암 유기견 체스터가 10일(이하 현지시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ABC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br/>상심한 니콜 엘리엇은 “<span class='quot0'>온종일 체스터와 함께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는 내 팔에 안겨 편히 잠들었다</span>”고 말했다.<br/>이어 “단지 그를 쓰다듬어줬고 가고 싶을 때 ‘언제든 편히 가도 된다’고 말해줬다”며 “사랑을 느끼며 떠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케언테리어 견종인 체스터는 엘리엇에게 입양되기 전 ‘애니멀아크레스큐’라는 동물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다.<br/>체스터는 머리에 종양이 있어 오래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 일반 보호소에서 구조된 바 있다.<br/>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엘리엇은 지난달 27일 체스터를 입양했었다.<br/>엘리엇은 체스터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살아 있는 동안 할 버킷 리스트를 작성했다. 버킷 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br/>엘리엇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체스터의 마지막 여정’(Chester ‘s final journey)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체스터와 보내는 행복한 나날을 사진으로 공개해왔다.<br/>하지만 행복도 잠시, 체스터는 지난 10일 결국 엘리엇 품에서 하늘로 떠나고 말았다.<br/>비록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스터는 엘리엇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과 사랑을 느꼈으리라 여겨진다.<br/>사진=페이스북<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4.txt

제목: 국내 의료진이 결장암 맞춤 수술법 개발  
날짜: 2015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2959368  
본문: 　아직까지 국제적인 표준수술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결장암의 맞춤 수술법을 국내 의료진이 개발했다. 기존 수술법의 문제를 극복한 데다 개복수술은 물론 복강경·로봇수술에도 적용이 가능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수술법’이 유력시되고 있다. <br/>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 민병소(사진) 교수팀은 2000년부터 2009년 7월까지 773명의 결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맞춤형 결장암 수술법인 ‘변형완전결장간막절제술 및 중심혈관결찰술(mCME)’을 시행한 결과, 5년 생존률은 84%, 무병(無病) 생존율은 82.8%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br/>　이같은 치료 결과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독일 호헨버거 교수의 결장암 수술법인 ‘완전결장간막절제술 및 중심혈관결찰술(Original CEM)’의 5년 생존률 및 무병 생존률, 재발률 등과 비교할 때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이다.<br/>　결장암은 아직까지 국제적인 표준치료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장암 수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호헨버거 교수의 수술법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는 이를 약간씩 변용한 수술법을 사용하고 있다.<br/>　이런 호헨버거 교수의 수술법은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비교적 많은 결장을 절제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처럼 절제 범위가 넓어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예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췌장의 뒷면 등 접근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절제하기 때문에 개복수술 외에 복강경이나 로봇수술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br/>　특히, 결장암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곳이 소장에서 연결돼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 상행결장이다. 이 부위 주변에는 예민한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고, 해부학적 변이도 많아서 수술이 까다롭다.<br/>　민 교수팀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절제 범위를 다르게 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다. 민병소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상 환자들에게 이 수술법을 적용하고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생존률과 무병 생존률, 재발률 등이 호헨버그 교수의 수술법과 비슷했으나 호헨버그 교수의 수술법에 비해 수술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진일보한 수술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수술법을 개복수술은 물론 복강경이나 로봇수술에도 적용한 결과, 치료 성적이 거의 차이는 없었다</span>”고 설명했다.<br/>　또 기술 습득도 쉬워 대장외과 전문의들이 소정의 훈련만 받으면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연구 결과는 외과 분야에서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Annals of Surgery, 인용지수=7.188)에 게재됐으며, 민 교수는 최근 미국 네쉬빌에서 열린 미국위장관내시경수술학회(SAGES)에서 이 수술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br/>　민 교수는 “<span class='quot1'>결장암에 대한 표준수술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한 수술법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고, 미국 학회에서 초청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 수술법을 결장암 표준수술법의 유력한 후보 치료법으로 인정한다는 뜻</span>”이라고 말했다. <br/>　이와 관련, 연세암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결장암 발병률이 직장암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암병원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수술 환자 1만 15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1995년까지는 결장암과 직장암 환자 비율이 50대 50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62.5대 37.5로 결장암 발생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결장암은 전체 대장(약 150cm)의 90%(약 135cm)를 차지하는 결장에 생기는 암으로, 항문 근처에서 발생하는 직장암과는 따로 구분한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5.txt

제목: 癌 이겨낸 피아니스트… 희망의 무대  
날짜: 20150715  
기자: 김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2737303  
본문: 러시아와 유럽을 주 무대로 활동해 온 피아니스트 이경미(53)는 2009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무대를 떠났다. 힘겨운 투병을 거쳐 2년 뒤 일본 산토리홀에서 다시 피아노 앞에 섰다. <br/><br/>피아니스트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에게 2013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절친한 음악 동료인 일본 기타리스트 무라지 가오리(37)와의 협연을 1주일 앞두고 그가 설암 판정을 받은 것이다.<br/><br/>수술과 투병을 견뎌내던 무라지에게 이경미가 손을 내밀었다. “<span class='quot0'>내 산토리홀 재기 무대와 같이 무라지도 다시 연주자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제안했다. <br/><br/>암을 이겨낸 둘은 함께 무대에 올라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달 11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피아니스트 이경미의 러브 스토리’ 공연에서다.<br/><br/>이날 공연에는 러시아의 민속 악기 ‘돔라’ 연주자인 알렉산드르 마카로프도 함께한다. 이경미와는 20년 전 이탈리아 시에나 음악축제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 왔다. 2011년 ‘디어 마이 패밀리’에서 협연했던 세 연주자는 이날 공연에서도 우정의 앙상블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br/><br/>이경미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포함한 오페라곡들을 연주한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은 체르니가 편곡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초연이다. 무라지는 감미로운 영화음악을, 마카로프는 색다른 러시아 음악을 들려준다. 또 비틀스의 ‘예스터데이’, 시크릿 가든의 ‘유 레이즈 미 업’, 영화 ‘미션’의 수록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 잘 알려진 곡을 새롭게 편곡해 들려준다. 3만~5만원. 1577-5266.<br/><b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6.txt

제목: 초대합니다, 100번째 행복한 소통  
날짜: 20150715  
기자: 한준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2709788  
본문: 서울 강서 지역 주민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 준 지식비타민강좌가 100회를 맞는다. 2007년 3월 첫 강연을 시작으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린 대표 인문사회학 강좌다.<br/><br/><br/>강서구는 16일과 23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각각 유명 방송인 김미화와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철우 서울대 의대 교수를 초청해 ‘행복’과 ‘건강’을 주제로 한 기념 강연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br/><br/><br/>16일에는 오전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김미화가 ‘행복한 세상살이’를 주제로 특유의 에너지와 웃음이 넘치는 강연을 펼친다. 또 23일에는 김철우 교수가 ‘미래 초고령화 시대, 스마트한 건강관리로 준비하자’를 주제로 암 예방 및 건강관리법을 꼼꼼하게 알아본다. 100회 기념 강연에 앞서 사랑나눔오케스트라 등의 축하 공연 등도 마련했다.<br/><br/><br/>8년 동안 지식비타민강좌는 건강과 의학, 금융,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다루며 주민들의 높은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의학 교수 황수관과 요리연구가 이혜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야,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초빙돼 연단에 올랐다.<br/><br/><br/>지금까지 초빙된 강사는 모두 96명, 2번 이상 초빙된 강사는 3명으로 모두가 훌륭한 1일 멘토로 변신해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지식이나 알토란 같은 삶의 지혜들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지난달 강연까지 회당 442명, 총 4만 8000여명의 주민이 비타민강좌를 다녀갔다. 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평생학습이 바로 서는 구가 밝은 미래가 있는 구’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강서 구민의 학습 열의를 채워 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br/>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7.txt

제목: 오늘부터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보 적용  
날짜: 20150715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2700438  
본문: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1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br/>보건복지부는 14일 “<span class='quot0'>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연내에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br/>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평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통증 완화와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료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환자 부담이 커 완치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 가운데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해외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 43%, 대만 30%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완화 의료 병동에 23일간 입원하다 임종한 환자는 총진료비 681만 8596원 가운데 43만 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문 간병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는 병원의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사적 간병비(일당 7만원)가 포함돼 환자 부담금이 195만 9035원으로 뛴다.<br/><br/><br/>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말기암 환자는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호스피스·완화 의료 전문기관은 전국에 60곳(1009병상)이 있다.<br/><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8.txt

제목: “행복했어요” 말기 암 견공, 주인 품에 안겨 ‘하늘로’  
날짜: 20150714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229233  
본문: “당신이 있었기에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이제는 정말 편히 떠날 수 있겠어요”<br/>말기 암으로 고통받던 견공 체스터는 어쩌면 주인 니콜 엘리엇에게 위와 같은 말을 남겼을지도 모르겠다.<br/>최근 미국 여성 니콜 엘리엇(24)이 입양한 말기 암 유기견 체스터가 10일(이하 현지시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ABC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br/>상심한 니콜 엘리엇은 “<span class='quot0'>온종일 체스터와 함께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는 내 팔에 안겨 편히 잠들었다</span>”고 말했다.<br/>이어 “단지 그를 쓰다듬어줬고 가고 싶을 때 ‘언제든 편히 가도 된다’고 말해줬다”며 “사랑을 느끼며 떠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케언테리어 견종인 체스터는 엘리엇에게 입양되기 전 ‘애니멀아크레스큐’라는 동물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다.<br/>체스터는 머리에 종양이 있어 오래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 일반 보호소에서 구조된 바 있다.<br/>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엘리엇은 지난달 27일 체스터를 입양했었다.<br/>엘리엇은 체스터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살아 있는 동안 할 버킷 리스트를 작성했다. 버킷 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br/>엘리엇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체스터의 마지막 여정’(Chester ‘s final journey)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체스터와 보내는 행복한 나날을 사진으로 공개해왔다.<br/>하지만 행복도 잠시, 체스터는 지난 10일 결국 엘리엇 품에서 하늘로 떠나고 말았다.<br/>비록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스터는 엘리엇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과 사랑을 느꼈으리라 여겨진다.<br/>사진=페이스북<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79.txt

제목: [시론]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남궁성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날짜: 2015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2140032  
본문: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방역체계가 이 정도로 취약한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의료계 선배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br/><br/>첫째는 범국가적 위기대응 체계 구축과 상시 가동이다.<br/><br/>국제화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든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해 국제 질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급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공공의료 기관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아가 공공의료 조직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민간 의료단체들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br/><br/>둘째,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원활한 소통이다. <br/><br/>성공적인 위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한 정보의 획득과 공개, 그리고 공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짧은 기간에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의료 정보와 루머들도 빠른 속도로 확산돼 국민의 불안을 더욱 조장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전 생애에 걸쳐 올바른 보건학적 지식과 건강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사이비 의료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의료 이용 행태가 몸에 배도록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br/><br/>셋째,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의 정립이다.<br/><br/>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는 일견 의료 접근성이 좋아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 체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의 오남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재정의 낭비도 심각하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전원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환자 진료와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br/><br/>넷째, 국가적 보건의료 담당 부처의 독립이 필요하다.<br/><br/>이번에는 메르스라는 급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결핵이라는 만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욱 크다. 또한 암, 심장질환 및 뇌졸중, 치매 등의 만성질환과 각종 사고, 자살 및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산적한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br/><br/>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급성 감염병의 집단발병 위력을 실감하고 불안해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또다시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한 악몽을 경험하게 됐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계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노력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위기관리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국민은 부유하고 튼튼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0.txt

제목: 위암세포 ‘자폭’ 유도 단백질 발견  
날짜: 20150714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2133797  
본문: 위암은 국내에서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다. 사망률도 폐암, 간암 다음이다.<br/><br/><br/>연세대 의대 윤호근 교수와 울산대 의대 최경철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위암 세포가 스스로 없어지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찾아내 새로운 항암제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자연과학 분야 권위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 최신호에 실렸다.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인 세포나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없어지도록 하는 세포사멸 유도단백질 중 대표적인 것은 ‘p53’이다. 하지만 ‘HDAC3’란 효소물질이 p53의 활성화를 막아 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고민이었다. 윤 교수 등 연구진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중 ‘PDCD5’라는 물질이 암세포 사멸을 방해하는 효소의 기능을 차단해 p53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생쥐 실험 결과 체내에 PDCD5가 적을 경우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고 PDCD5와 p53을 함께 주입하면 위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최근 암치료에서 주목하는 과제인 항암제 저항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성과를 제시했다</span>”고 말했다.<br/><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1.txt

제목: [부고] 미드 ‘웨스트 윙’ 배우 로저 리스  
날짜: 20150713  
기자: 오상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1552142  
본문: 영국 웨일스 출신의 연극배우이자 영화배우, 프로듀서인 로저 리스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자택에서 암으로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71세. <br/><br/>1965년 런던 윔블던 극장에서 연극 배우로 데뷔한 고인은 1981년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며 다재다능한 능력을 드러냈다. 강한 인상을 지닌 성격파 배우로 50년간 여러 무대를 넘나들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5월까지 브로드웨이에서 열연한 뮤지컬 ‘더 비지트’는 고인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 1980년 올리비에상 연극부문 남우주연상, 1982년 제36회 토니상 연극부문 남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했다. 1995년과 2012년에도 배우와 감독으로서 토니상 최종 후보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선 미국 정치드라마 ‘웨스트 윙’에서 영국 대사인 로드 존 매버리 역으로 얼굴을 알렸다. 또 시트콤 ‘치어스’에서 백만장자 로빈 콜코드 역을 맡아 팬을 확보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에 브로드웨이에선 “뛰어난 배우를 잃었다”는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br/><br/>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2.txt

제목: 대장 용종 제거한 당신, 술잔 들기 전 한번 더 생각!  
날짜: 20150713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71543065  
본문: 직장인 이모(43)씨는 최근 건강검진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 4개가 발견됐다. 이 중에 3개가 대장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선종성 용종이었다. 전조증상도, 가족력도 없었다. 의사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나쁜 생활 습관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씨는 용종을 제거하고도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술을 마신다. 한번 용종을 제거했으니 당분간은 재발할 위험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씨는 정말 괜찮은 걸까.<br/><br/><br/><br/>고위험 용종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내 고위험 용종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항문 전문 서울양병원이 2013년 고위험 용종이 발견된 환자 1184명을 추적 검사한 결과 1년 뒤인 2014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297명 가운데 54명(18.2%)에게서 또다시 고위험 용종이 발견됐다.<br/><br/>대장암의 95% 이상은 선종성 용종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흔히 선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른다. 선종의 개수와 크기, 이형성 정도에 따라 고위험·저위험 용종으로 구분하는데 용종의 개수가 3개 이상이거나 크기가 1㎝ 이상이고 고도 이형성이면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관상융모선, 융모선종, 톱니형 선종 등이 고위험 용종이다. 고위험 용종은 암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짧고 암 발생률이 높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 이상의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되기까지 5~10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또 1㎝ 이하의 선종은 암 발생 빈도가 6% 정도이나 1㎝ 이상이면 16.7%로 증가한다. 2㎝ 이상이면 침윤암일 가능성이 크다.<br/><br/>양형규 서울양병원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고위험 용종은 빠르게 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의료진과 상의해 1~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한국대장항문학회도 고위험 용종을 제거했다면 1~3년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br/><br/>2013년 기준 선종성 용종 환자는 13만명으로 2008년 6만 8000명에서 5년 새 1.9배가 증가했다. 2013년 선종성 용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0대가 2만 8814명으로 가장 많고 60대(2만 2923명), 40대(1만 4088명) 순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특히 중년 환자층이 두껍다.<br/><br/>평생 섭취한 발암물질이 몸에 쌓이다 보니 중장년층에서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40~50대는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용종을 발견하기가 쉽다.<br/><br/>용종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40대 이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br/><br/>선종성 용종 중 크기가 1㎝를 넘거나 3개 이상이고 융모성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용종 제거 후에도 3년 이내 대장내시경 재검사가 필요하며 1~2개 혹은 1㎝ 이하의 저위험군이라도 3~5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내시경은 가족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30개 이상 발견됐거나 1㎝ 이상 용종이 2개 이상 나왔다면 직계가족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선종성 용종 대부분은 내시경 검사 중에 제거할 수 있으며 크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br/><br/>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되면 몇 가지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양 원장은 “<span class='quot0'>1개월 이상 변에 검붉은 피가 섞여 나오거나 대변이 가늘어지고 변비나 설사가 생길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용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과 식이, 생활 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과다한 칼로리 섭취, 고지방 음식 섭취, 과음 및 과체중, 흡연은 선종 발생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식이섬유, 채소, 탄수화물, 엽산 등은 선종 유병률을 줄인다. 따라서 붉은색 육류와 동물성 지방,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섭취하는 총칼로리가 높을수록 대장암 발병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소, 과일 등에 많이 들어 있는 섬유소는 발암물질이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 준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하면 복부를 자극해 대장의 연동 운동이 수월해지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3.txt

제목: 위염·암 요인 ‘헬리코박터균’ 경구 백신 중국서 개발  
날짜: 20150709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2026183  
본문: 인간의 위는 강력한 위산을 분비한다. 이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의미 이상으로 살균 효과를 발휘한다. 자연계에 흔하게 존재하는 박테리아들이 위에서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br/>하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균 만큼은 이런 강산성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적응했다. 다행히 이 세균은 인체에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른 문제만 안 일으킨다면 그냥 같이 살아 줄 수도 있지만, 불행히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만 해도 큰 문제인데, 위암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졌으니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다.<br/>그렇다면 왜 이 세균을 박멸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감염되었다고 추정될 만큼 감염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요법으로 치료하는 일이 치료 실패나 항생제 내성, 그리고 부작용 중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치료 성공 후에도 재감염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치료는 궤양 및 위암 환자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r/>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연구자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치료할 필요도 없거니와 내성이나 재감염 문제로 골치를 앓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백신 개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여러 백신이 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br/>그런데 최근 중국 약품검사소(NIFDC)의 밍 쳉(Ming Zeng)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의학 저널 란셋에 새로운 경구용 헬리코박터균 백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감염력이 없는 6세에서 15세 사이의 소아 4,403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br/>참가자들은 경구용 백신과 위약 군으로 나뉘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1년 이내 감염 횟수를 조사한 결과 백신 군에서는 14건, 위약 군에서는 50건으로 나타나 백신이 감염 위험도를 71.8% 정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나왔던 백신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결과다.<br/>다만 이 백신의 경우 복용 과정이 복잡하고 아직 장기간에 걸친 연구 결과가 없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만약 쉽게 경구로 복용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높은 예방 효능을 보여주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인간의 위에 사는 불청객인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다. 예방보다 좋은 치료는 없기 때문이다.<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4.txt

제목: “행복 주고 싶어” 말기암 유기견 입양한 어느 여성의 사연  
날짜: 2015070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922291  
본문: 말기 암으로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을 입양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br/>미국 ABC뉴스는 최근 말기암 개를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고 그 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여정’을 함께 보내고 있는 24세 여성 니콜 엘리엇을 소개했다.<br/>미 조지아주(州) 콜럼버스에 사는 니콜 엘리엇은 최근 ‘애니멀아크레스큐’라는 이름의 동물보호소 사이트를 살펴보던 중 케언테리어 견종 ‘체스터’(Chester)의 존재를 알게 됐다.<br/>체스터는 머리에 종양이 있어 수의사들에게서 “오래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 일반 보호소에서 이 시설로 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br/>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엘리엇은 지난달 27일 체스터를 입양했다.<br/>그녀는 “체스터를 보자마자 입양 생각을 했다”며 “이 아이가 최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살아 있는 동안 할 ‘버킷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버킷 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br/>“<span class='quot0'>동물들도 행복한 일생을 보낼 권리가 있다</span>”고 말하는 엘리엇. 그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체스터의 마지막 여정’(Chester ‘s final journey)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체스터와 보내는 행복한 나날을 사진으로 공개하고 있다.<br/>그녀는 체스터가 몸이 좋지 못하므로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버킷 리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br/>또 엘리엇은 “<span class='quot1'>동물보호소에서 늙고 병든 개들은 거의 입양되지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사람들이 이런 동물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하려고 사진을 공개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체스터의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는 이 페이지는 지금까지 2만 30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부분 네티즌은 아픈 체스터를 입양한 엘리엣에게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며 호응을 보였다.<br/>사진=페이스북, 애니멀아크레스큐<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5.txt

제목: 적은 양의 방사선은 안전? 가랑비에 옷 젖듯 위험 번진다  
날짜: 20150707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4616634  
본문: 화학 원소로서 성질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기본단위는 ‘원자’(原子)이다. 원자는 하나의 ‘원자핵’과 그것을 둘러싼 하나 이상의 ‘전자’로 구성돼 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뤄지는데 두 개의 비율에 따라 안정적일 수도 있고 불안정적일 수도 있다. 불안정한 원자핵은 방사선을 내뿜은 뒤 안정된 원자핵으로 바뀐다. 방사선은 ‘이온화 방사선’과 ‘비이온화 방사선’으로 나뉜다. 이온화 방사선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물질을 통과하면서 이온화시킨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알파입자, 감마선, 엑스선 등이 대표적이다. 비이온화 방사선은 레이저, 전파, 중파, 단파, 가시광선, 적외선 등이다. 우리가 흔히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이온화 방사선을 말한다.<br/><br/><br/><br/><br/><br/>원자핵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이 내는 전자기파가 갖는 에너지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실제로 방사선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돼 왔다.<br/><br/>그러나 원자폭탄 제조나 각종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점점 커져 왔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br/><br/>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 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의 한계 방사선량을 연간 20밀리시버트(mSv)로 정하고, 이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고 선언하면서 시민단체들과 과학자, 일본 정부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 없이 끝났다.<br/><br/>지금까지 과학계에서도 저선량 방사선과 건강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방사선보호 및 핵안전연구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미국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소, 미국 드렉셀대, 스페인 폼페우파브라대, 영국 방사선 공중보건센터, 국제암연구기구(IARC) 등 다국적 연구진이 “<span class='quot0'>극저선량의 방사선에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span>”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의학분야 저널 ‘랜싯’ 7월호에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br/><br/>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원자력산업이나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 정책들이 대부분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추가적 노출이 발암 위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br/><br/>그렇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원자력 분야 연구자들에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온 ‘방사선량이 어느 수<br/><br/>준 이상일 때(역치)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 이하의 수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통념을 깼다는 데 있다.<br/><br/>일반적으로 이온화 방사선은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음으로써 생체 단백질이나 세포막을 파괴하고, DNA 결합을 끊어버려 발암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신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을 이온화시켜 과산화물이라는 치명적 독을 만들기 때문에 방사선량이 높을수록 인체 손상은 증가한다.<br/><br/>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방사선량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사선 노출량을 알아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대상자가 있어야 한다.<br/><br/>이번 국제 공동연구진은 방사선 노출도를 표시하는 선량계를 부착하고 근무하는 프랑스와 미국, 영국의 핵 관련 산업 근로자 30만명을 장기간 추적한 ‘코흐트’ 연구를 실시해 정확한 데이터를 얻게 됐다.<br/><br/>연구대상 근로자들은 연간 평균 1.1mSv의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이 수치는 우주에서 날아오거나 자연 방사선의 1년 누적량인 2~3mSv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버트(Sv)는 방사선으로 인한 생물학적 손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다.<br/><br/>연구 결과, 방사선 노출량에 상관없이 노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백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번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들은 “<span class='quot1'>연구대상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할 때, 평균 27년간 꾸준히 노출될 경우 1만명당 4.3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노출량이 10mSv씩 증가할 때마다 백혈병 위험은 0.002%씩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고 말했다.<br/><br/>덴마크 암학회 이외르겐 올센 회장은 “<span class='quot2'>이번 연구는 극저선량의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인 만큼, 저선량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확고한 증거</span>”라고 평가했다.<br/><br/>또 연구자들은 “<span class='quot3'>미국인들이 매년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0년 동안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span>”고 지적할 정도로 저선량 방사선은 주로 의료용 방사선 검사에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층촬영(CT)이다. 엑스선 1회 촬영 시에는 0.1mSv의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흉부CT나 복부CT를 촬영하면 10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된다.<br/><br/>저선량 방사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은 검사를 받는 환자들보다는 매일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의료진이라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br/><br/>역학연구자들은 방사선 노출이 암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유럽 9개국 공동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마이크 앳킨스 박사는 “<span class='quot4'>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정확히 알아낸다면 원전 사고나 핵발전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6.txt

제목: 당장 일어나세요! 걸으세요!...이유 4가지  
날짜: 2015070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851275  
본문: 걷기가 몸에 좋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팔과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살도 빠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걷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다.<br/>다음은 당신이 지금이라도 당장 걷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걷기의 좋은 점 4가지다. 이제부터라도 더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br/>1. 두뇌 노화를 막는다<br/>걷는 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즉 두뇌에도 좋다. 게다가 단순히 기분만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치매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 장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br/>이는 걷는 행동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화로 나타나는 인지 장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br/>미국 피츠버그대 커크 에릭슨 교수팀은 평균 78세 노인 299명을 대상으로 9년간에 걸쳐 MRI 촬영과 인지 기능을 조사했다. 그 결과, 1주일에 6마일(약 9.7km) 이상을 걷고 있던 그룹은 치매 등 인지 장애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br/>2. 관절염을 막는다<br/>걸으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걷는 것은 관절염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통증도 완화할 수 있다.<br/>걷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가 약해져 생기는 골다공증이나 골관절염, 관절에 통증이나 붓기, 경화를 나타내는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 키건 호비스 박사팀의 연구로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우리 인간의 무릎을 가장 건강하게 했다. 이는 걷기가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것을 나타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3. 암도 막는다<br/>잘 걷는 사람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 미국 암학회의 재닛 힐더브랜드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1주 동안 7시간 이상 걷는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이 14% 더 낮은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br/>또 남성 전립선암 환자 가운데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암이 재발할 우려가 낮다고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에린 리치맨 박사팀이 연구를 통해 밝혔다.<br/>4. 뇌졸중을 막는다<br/>걷는 것을 통해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도 높아진다.<br/>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제이컵 새틀마이어 박사팀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운동을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여성은 평소 잘 걷지 않는 여성보다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훨씬 낮았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은 걸으면 혈압이 떨어지므로 뇌졸중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7.txt

제목: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장마철 고비 넘기기  
날짜: 2015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4439536  
본문: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고통에 시달린다. 습하고 기압까지 낮아지면서 부쩍 통증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장마는 예년과 달리 무더운 여름철인 7~8월에 많은 비와 함께 시작될 전망이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br/>　게다가 최근에는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외출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더해져 관절염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실내 생활을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들의 장마철 넘기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br/>　<br/>　■실내에서라도 조금씩 운동을 해야 통증 덜해<br/>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90% 이상이 장마철에 더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흐리거나 비가 이어지는 일기 탓에 야외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 때문에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br/>　<br/><br/><br/><br/> 이처럼 장마철에 통증이 심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장마철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데다 기온까지 떨어져 혈액 순환이 느려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근육과 인대로 가는 영양분과 통증 완화물질의 양이 줄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습도가 높아지면 연골이 관절액으로부터 흡수하는 영양분이 줄어들고, 체내로 수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br/>　이런 상황에서 운동량까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액이 제 역할을 못해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br/>　이 때문에 이미 관절염을 가진 환자는 물론 관절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 세대는 장마철이라도 실내에서 간단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무릎이나 팔을 중심으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통증이 주로 발생하는 관절 부위의 온도를 높여 통증을 예방해주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br/>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바른세상병원의 임홍철(정형외과 전문의) 원장은 “<span class='quot0'>장마철에는 기압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절 속의 압력이 증가하는 탓에 관절 주위 인대와 근육이 수축되고, 관절액이 줄면서 관절 전체가 뻑뻑해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히 최근 메르스 여파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장마까지 시작되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내에서라도 자주 관절을 움직여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볕이 날 땐 잠깐씩이라도 바깥으로 나가 움직여야<br/>　장마철이라도 볕이 날 때는 산책 등 바깥 활동을 해주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물리적인 운동 효과 말고도 외부 활동을 통해 비타민D를 합성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D는 암, 당뇨병, 심장병 등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줄여주며, 근골격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90% 이상이 햇볕을 받아 피부에서 합성되며 나머지 10%만 음식 등으로 보충된다.<br/>　또 뼈를 만드는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도 하는 비타민D가 부족하면 골연화증에 노출되기 쉽다. 골연화증이란, 칼슘이 부족해 뼈가 물러지는 질환인데, 이 경우 뼈가 휘고, 통증이 따른다.<br/>　임홍철 원장은 “<span class='quot1'>노인에게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체내 칼슘이 부족해 2차적으로 부갑상선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임홍철 원장은 “<span class='quot1'>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앓기 시작하는 노년층의 경우 피부의 표피가 퇴화해 비타민D를 합성하는 능력이 20대의 30~50% 정도까지 떨어지므로 장마철이라도 볕이 날 때는 적당한 실외활동을 병행, 자외선을 쬘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8.txt

제목: 10일 만에 일반인 또 메르스… 감염경로 미궁  
날짜: 20150706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3858352  
본문: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5일 추가로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이 병원 확진자는 모두 의료진이었으며, 일반인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열흘 만이다.<br/><br/>186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50·여)는 132번째 환자(55)의 부인이다. 132번째 환자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돼 지난달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 판정 직전까지 자택 격리돼 가족과 함께 지냈다.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186번째 환자도 자택 격리에 들어가 지난달 26일 격리 해제됐다. 암 투병 중이던 186번째 환자는 지난달 29일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달 2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 격리 입원 중에 확진됐다.<br/><br/>보건 당국은 186번째 환자의 감염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지난달 12일까지 자택에서 함께 생활한 남편(132번째 환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다. 이때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최대 잠복기(2주)는 지난달 26일까지다. 최대 잠복기를 무려 엿새나 넘겨 지난 2일 발병한 셈이 된다.<br/><br/>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span class='quot0'>6월 말에 항암 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면서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span>”고 밝혔다.<br/><br/>또 다른 감염경로는 지난달 29일 이 환자가 방문한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 통원치료센터다. 보건 당국은 이 병원 간호사인 183번째(24·여)·184번째(24·여) 환자와 의사인 185번째(25·여) 환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암 병동에서 감염됐다면 암 병동 내에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감염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병원의 광범위한 구역이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암 병동 및 다른 외래 병동 폐쇄가 시급하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가족 간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br/><br/>메르스 발병 위험이 커 보건 당국이 주목했던 경기 구리시 카이저병원은 이날 격리 해제돼 7일 다시 문을 연다. 건국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강릉의료원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6일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br/><br/>강동성심병원에선 의사 1명과 행정 직원 1명이 메르스 1차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나 2, 3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그래도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이들의 근무 복귀를 1주일 더 늦출 방침이다.<br/><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각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상대로 메르스 여부를 판별하고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환자는 대부분 경증 내지 무증상자일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무증상자는 감염력이 극히 낮다. 현재 메르스 환자는 모두 186명이며, 추가 사망자는 닷새 연속 나오지 않아 33명을 유지하고 있다. 격리자는 982명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89.txt

제목: [건강을 부탁해] 당장 걸어야 하는 이유 4가지  
날짜: 2015070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814649  
본문: 걷기가 몸에 좋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팔과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살도 빠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걷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다.<br/>다음은 당신이 지금이라도 당장 걷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걷기의 좋은 점 4가지다. 이제부터라도 더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br/>1. 두뇌 노화를 막는다<br/>걷는 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즉 두뇌에도 좋다. 게다가 단순히 기분만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치매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 장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br/>이는 걷는 행동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화로 나타나는 인지 장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br/>미국 피츠버그대 커크 에릭슨 교수팀은 평균 78세 노인 299명을 대상으로 9년간에 걸쳐 MRI 촬영과 인지 기능을 조사했다. 그 결과, 1주일에 6마일(약 9.7km) 이상을 걷고 있던 그룹은 치매 등 인지 장애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br/>2. 관절염을 막는다<br/>걸으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걷는 것은 관절염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통증도 완화할 수 있다.<br/>걷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가 약해져 생기는 골다공증이나 골관절염, 관절에 통증이나 붓기, 경화를 나타내는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 키건 호비스 박사팀의 연구로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우리 인간의 무릎을 가장 건강하게 했다. 이는 걷기가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것을 나타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3. 암도 막는다<br/>잘 걷는 사람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 미국 암학회의 재닛 힐더브랜드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1주 동안 7시간 이상 걷는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이 14% 더 낮은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br/>또 남성 전립선암 환자 가운데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암이 재발할 우려가 낮다고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에린 리치맨 박사팀이 연구를 통해 밝혔다.<br/>4. 뇌졸중을 막는다<br/>걷는 것을 통해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도 높아진다.<br/>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제이컵 새틀마이어 박사팀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운동을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여성은 평소 잘 걷지 않는 여성보다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훨씬 낮았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은 걸으면 혈압이 떨어지므로 뇌졸중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0.txt

제목: [나우! 지구촌] “남들과 다르지만 내 인생은 완벽...성형 원치않아”  
날짜: 20150703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706750  
본문: 남들과 다른 외모를 지녔지만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턱뼈의 일부를 종양으로 잃어 보통 사람들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말하는 48세 미국 여성 던 쇼의 이야기를 소개했다.<br/>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출생 직후 호흡을 하지 못하던 그녀는 황급히 응급실로 실려 갔고 의료진은 그녀의 호흡기 주변에서 커다란 종양을 발견했다. 수개월에 걸쳐 의료진은 종양을 모두 제거했지만 종양은 턱뼈 주변에서 이내 재발했다.<br/>종양이 암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의료진은 종양과 함께 쇼의 턱뼈 일부를 서둘러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수술로 쇼의 얼굴 형태는 일그러졌고 청력이 일부 소실됐으며 국소적으로 마비가 찾아왔다.<br/>그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 외모를 지니게 된 그녀는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과 놀림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내가 지나갈 때면 아이들이 ‘저기 네 여자 친구 간다’며 서로를 놀려댔다”며 아픈 과거를 회상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쇼는 “그들의 말이 분명 내게 상처가 됐지만 나는 내 자신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고 말한다.<br/>그녀가 당차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부모의 훌륭한 조력도 있었다. 쇼의 부모는 그녀가 집안에 숨는 대신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쇼는 승마와 무술을 배워 익히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키워왔다.<br/>이토록 당당한 그녀에게도 사랑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대에는 마약 중독자와 교제하며 그의 중독을 고칠 수 있다는 환상에 젖기도 했었다. 결국 그에게서 벗어난 쇼는 지역의 연극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녀는 "언젠가 나의 내면을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나리라 늘 믿고 있었다"고 말한다. 올해 9월에 이들은 결혼 20주년을 맞는다.<br/>작가로서도 활발히 일하는 그녀는 2005년에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내놓았다. 더 나아가 학교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외모에 구애받지 말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는가 하면, 현재는 ‘안면결함’(disfigurement)이라는 말 대신 ‘안면 차이’(facially differ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br/>쇼는 놀랍게도 “누군가 오늘 나를 찾아와 ‘내일 당장 정상적인 모습으로 고쳐주겠다’고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그녀는 이어 “종종 나를 향한 시선과 놀림이 닥쳐와도 그저 잠시 동안 주춤할 뿐이다. 사람은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런 뒤엔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만이다”며 고난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생관을 전했다.<br/>그녀는 “아픔으로 인해 밖에 절대 나서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매우 슬프다. 주변에서 그들을 품평하려 든다면 그건 그자들의 잘못이다. 듣는 사람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br/>사진=데일리메일 캡쳐<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1.txt

제목: 유해세균 점착막는 붉은 보석, 크랜베리  
날짜: 2015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3300070  
본문: 요즘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연예인들의 건강 관리 식품으로 소개되며 상큼한 맛이 나는 크랜베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br/><br/>크랜베리는 북미 뉴잉글랜드가 원산지이며, 크랜베리라는 이름은 크레인 베리라는 과일을 찾아 떠났던 여행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는 봄에 피는 작고, 핑크색의 꽃이 크레인 즉 두루미의 머리와 부리 부분을 닮았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br/><br/>1600년대 북미에 정착하기 시작한 최초의 이주민들에게 소개되었으며,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은 이 크랜베리 열매를 식품으로 섭취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선한 식품을 구할 수 없는 겨울철에 크랜베리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직접 섭취를 통하면서 알게 되었다.<br/><br/>미대륙 원주민들의 전설과 그 뒤를 이은 유럽 탐험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뉴잉글랜드의 인디언들은 각종 식이용법과 의약품, 그리고 거래 대상으로서 크랜베리를 광범위하게 사용 하였다. 인디언들은 야생 크랜베리를 날 것 그대로 먹거나 단풍당으로 달게하여 먹었으며, 병을 치료하는 데에 크랜베리를 사용하였다. <br/><br/>오늘날에는 연구를 통해 크랜베리가 건강에 유익한 저칼로리 과일일 뿐 아니라, 비뇨기 질환, 잇몸 질환, 궤양, 심장병 및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다.<br/><br/>하버드 의과대학의 크랜베리 주스 칵테일의 정기적 복용과 박테리아 성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초의 대규모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크랜베리 주스 칵테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자 이 연구에 참여한 평균 연령 78세의 여성들에게서 비뇨기 감염과 관련된 박테리아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br/><br/>이는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PACs)이란 성분이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우리 몸에 달라 붙지 못하도록 하는 항 점착 역할을 수행하여,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r/>유해세균 점착막는 붉은 보석 크랜베리로 내 몸을 지켜보자<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2.txt

제목: [대한민국의 오늘] 늙어서 죽기보다 스스로 떠난 사람 늘었다  
날짜: 20150703  
기자: 신융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2827281  
본문: 최근 10년 새 고령층 사망 비율이 크게 줄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br/><br/>보험개발원은 2012년 생명보험 통계를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사망 건수가 감소세라고 2일 밝혔다. 남성의 사망 건수가 16.5％ 줄어 여성(7.8％)보다 감소세가 컸다. 특히 고령층에서의 사망 감소세가 뚜렷했다. 남녀 모두 10∼30대의 사망 건수는 10년간 20∼30％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50∼60％ 감소했다.<br/><br/>구체적으로 60대 남성은 50.2%, 여성은 47.5% 줄었다. 70대 이상에서는 남성(59.4%)보다 여성(60.9%)의 사망 건수가 좀 더 줄었다. 이는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 건수 10만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분석한 것이다.<br/><br/>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암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이 급증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2003년 남성과 여성이 각각 11위, 26위였으나 10년 새 건수가 2배 이상 늘면서 네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03년 10만건 가운데 자살은 0.8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3.5건으로 급격히 늘었다.<br/><br/>자살 외에 남성은 췌장암(16→8위)과 폐렴(56→10위)으로 인한 사망이 10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여성은 폐암(4→1위)과 췌장암(12→7위) 사망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br/><br/>남녀 모두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역시 암이었다. 남성의 사망 원인 1∼3위는 간암, 폐암, 위암이었고 여성은 폐암, 유방암, 위암 순서였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살펴보면 식생활 변화, 의료기술 발전, 여가활동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등에 따라 사회 위험 요인도 변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3.txt

제목: [인사]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2411695  
본문: ■헌법재판소 ◇신규 임용△헌법연구관 이종훈<br/><br/><br/>■교육부 ◇서기관△장관실 김진형△교육부 최흥윤△대변인실 김형기△기획조정실 연장흠 최윤정 노진영△감사관실 최훈△운영지원과 조훈희△대학정책실 이상범 박찬호 차영아△지방교육지원국 박광원△학교정책실 서혜숙△학술원사무국 정현욱△강릉원주대 박정호△강원대 박조남△공주대 박근배△부산대 유병수△서울과학기술대 이병희△창원대 장영오△충남대 심성석△한국교원대 조영택△한국교통대 염영진△한국방송통신대 김효신△한밭대 박기원△청주교육대 총무과장 이석현△진주교육대 총무과장 손윤선△부경대 이대영△한국해양대 한위전△강원대 산학연구기획과장 허인의△부산대 미래전략실장 권재희△전북대 입학관리과장 정회인△제주대 재정과장 고봉권△충북대 입학과장 박미환<br/><br/><br/>■행정자치부 △대변인 최장혁△울산시 기획조정실장 박성호◇부이사관 승진△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장 오정호◇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김종효△사회통합지원과장 안정태<br/><br/><br/>■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장 이성선△국립현대미술관(과장 직위) 배종민△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유은상△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정세웅△국민대통합위원회 파견 최재원<br/><br/><br/>■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장 오광해<br/><br/><br/>■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김상년△제도개선총괄과장 김인종△청렴조사평가과장 민성심<br/><br/><br/>■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지원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장 김경원<br/><br/><br/>■국민안전처 △감사담당관 류춘열<br/><br/><br/>■법제처 ◇서기관 전보△경제법제국 양성철<br/><br/><br/>■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임병숙△대전지방기상청장 임용한△기상레이더센터장 전준모△대변인 정현숙<br/><br/><br/>■해양환경관리공단 △대외협력실장 염홍준◇부서장 전보 △노무복지 진흥재△해상환경 김종덕△방제대응 김성란△방제기획 조찬연△자원관리 최제광△목포 김태곤△대산 최호정△제주 이한중◇부서장 보임 △비서 홍석호△경영성과 이진규△국제협력 장준영△홍보 서우락△정보화운영 김대성<br/><br/><br/>■서울시설공단 △도로교통본부장 민병찬<br/><br/><br/>■한국가스안전공사 △기획관리이사 김성문△안전관리이사 박장식<br/><br/><br/>■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 임용△비상계획실장 김용덕<br/><br/><br/>■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장 채재현△순천지사장 박형규<br/><br/><br/>■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장 신성암<br/><br/><br/>■코스콤 ◇신임 △전무 신평호△금융정보본부장 상무 홍성환△IT인프라본부장 상무 강신△기술연구소장 상무 강태홍△경영전략본부장 석동한△영업본부장 엄재욱△비서실 이기섭△자본시장IT아카데미 임지영△R&D부 최기우△영업2부 유영권△금융서비스부 이상기◇전보 △경영기획부 김학구△핀테크연구부 황극인△대외협력부 배오열<br/><br/><br/>■동북아역사재단 ◇실장△역사연구 장석호△운영관리 임상선△정책기획 김현철△홍보교육(대변인 겸임) 이원우<br/><br/><br/>■연합뉴스TV ◇부장△문화·제작부 김가희△스포츠부 이동칠<br/><br/><br/>■아시아투데이 ◇부국장대우△문화스포츠부장 김재홍◇부장△산업부장(경제부장 겸임) 이규성△생활과학부장 진현탁<br/><br/><br/>■아주경제 △글로벌뉴스본부장 정원교<br/><br/><br/>■아시아경제신문 ◇뉴미디어본부△본부장(전략기획실장 겸임) 백재현△온라인마케팅부장 조병무<br/><br/><br/>■여성소비자신문 △편집이사 김희정<br/><br/><br/>■고려대 △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겸임) 고형진<br/><br/><br/>■한화생명 △연수원장 정하영△윤리경영팀장 남종훈△대체투자사업부장 노철규△투자관리팀장 김광준◇지역단장△일산 권봉섭△명동 최만호△제주 장우종△강원 이종인△강서 김국진△분당 이도형△강릉 최종철△평택 조용석△남수원 이재일△부평 이미숙△서해 김태석△대전 이영권△울산 성종헌△남울산 이영찬△경남 차동주△신부산 정성진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4.txt

제목: 복거일 “암 판정 후 1년 안 돼 3권 썼다”  
날짜: 20150702  
기자: 김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2359834  
본문: “문학을 여흥으로 여기는 세상이 와 독자들이 문학 작품을 많이 읽게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문학이 변신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 그 변신에 이번 작품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작가로서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br/><br/>소설가 복거일(69)이 장편소설 ‘역사 속의 나그네’(문학과지성사)를 전 6권으로 완간했다. 1989년 중앙경제신문에 연재를 시작한 뒤 이듬해 연재를 중단하고 한 권 정도 분량을 더해 1991년 3권으로 출간한 지 햇수로 25년 만이다. ‘역사 속의 나그네’는 21세기(2070년대) 인물 이언오가 백악기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하려다 임진왜란 직전인 16세기 조선에 좌초해 사회를 개혁하는 이야기다. 첫 세 권은 조선 사회 구조나 속살을 드러내는 데 미흡했다는 평을 들었다. 작가는 이번에 추가한 세 권에서 모반을 일으켜 중앙정부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선 내부의 속살을 드러냈다. <br/><br/>작가는 1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그리고자 했다</span>”고 했다. “조선은 노예제도로 인해 가난하고 약한 나라가 됐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노예제도가 공고한 나라가 없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까지 지배계층이 안 바뀌었다. 1000년이 넘으며 노예제도가 고착화됐다.”<br/><br/>작가는 2012년 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간암이라는 얘길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역사 속의 나그네를 어떻게 하나’였다.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며 생각했다. ‘역사 속의 나그네가 큰 빚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더 큰 빚이었구나.’ 20년이 넘도록 뒷이야기를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글을 마저 쓰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내일 죽는다면 사람의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데, 닥쳐보니 실제 그렇더라. 세 권 쓰는데 1년이 채 안 걸렸다.”<br/><br/>작가는 “암은 그냥 놔두면 된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 했다. “건드리면 상처가 나듯 놔두면 오래갈 사람도 건드려서 문제가 된다. 살살 달래가며 글 쓰면서 버티려 한다. 작가는 어차피 글을 쓰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장편만 쓴다. 호흡이 긴 사람이라 쓰다가 막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좀 든다. 1970년대 노벨상 후보로 오른 위대한 작가도 쓰다가 죽을까봐 글을 못 썼다.”<br/><br/>그는 시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두 권 냈는데 두 권 더 내려 한다. 한 권은 생전에, 한 권은 사후에 내려 한다. 앞으로 소설은 하느님이 협조를 해주셔야 쓸 수 있다. 쓴다면 ‘역사 속의 나그네’ 연장선상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쓰겠다.”<br/><br/>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5.txt

제목: 당신은 이 얼굴이 흉해보이십니까?...복원성형 원치않는 여성의 사연  
날짜: 20150701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620124  
본문: 남들과 다른 외모를 지녔지만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턱뼈의 일부를 종양으로 잃어 보통 사람들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말하는 48세 미국 여성 던 쇼의 이야기를 소개했다.<br/>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출생 직후 호흡을 하지 못하던 그녀는 황급히 응급실로 실려 갔고 의료진은 그녀의 호흡기 주변에서 커다란 종양을 발견했다. 수개월에 걸쳐 의료진은 종양을 모두 제거했지만 종양은 턱뼈 주변에서 이내 재발했다.<br/>종양이 암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의료진은 종양과 함께 쇼의 턱뼈 일부를 서둘러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수술로 쇼의 얼굴 형태는 일그러졌고 청력이 일부 소실됐으며 국소적으로 마비가 찾아왔다.<br/>그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 외모를 지니게 된 그녀는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과 놀림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내가 지나갈 때면 아이들이 ‘저기 네 여자 친구 간다’며 서로를 놀려댔다”며 아픈 과거를 회상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쇼는 “그들의 말이 분명 내게 상처가 됐지만 나는 내 자신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고 말한다.<br/>그녀가 당차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부모의 훌륭한 조력도 있었다. 쇼의 부모는 그녀가 집안에 숨는 대신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쇼는 승마와 무술을 배워 익히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키워왔다.<br/>이토록 당당한 그녀에게도 사랑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대에는 마약 중독자와 교제하며 그의 중독을 고칠 수 있다는 환상에 젖기도 했었다. 결국 그에게서 벗어난 쇼는 지역의 연극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녀는 "언젠가 나의 내면을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나리라 늘 믿고 있었다"고 말한다. 올해 9월에 이들은 결혼 20주년을 맞는다.<br/>작가로서도 활발히 일하는 그녀는 2005년에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내놓았다. 더 나아가 학교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외모에 구애받지 말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는가 하면, 현재는 ‘안면결함’(disfigurement)이라는 말 대신 ‘안면 차이’(facially differ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br/>쇼는 놀랍게도 “누군가 오늘 나를 찾아와 ‘내일 당장 정상적인 모습으로 고쳐주겠다’고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그녀는 이어 “종종 나를 향한 시선과 놀림이 닥쳐와도 그저 잠시 동안 주춤할 뿐이다. 사람은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런 뒤엔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만이다”며 고난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생관을 전했다.<br/>그녀는 “아픔으로 인해 밖에 절대 나서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매우 슬프다. 주변에서 그들을 품평하려 든다면 그건 그자들의 잘못이다. 듣는 사람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br/>사진=데일리메일 캡쳐<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6.txt

제목: 견과류 먹으면 직장·췌장암 등 위험 낮춰 - 연구  
날짜: 20150701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611480  
본문: 암과 제2형 당뇨병은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공중보건문제다. 이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막연하게 견과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일관성 있는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견과류 섭취가 직장암과 췌장암 등 '특정 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메이요클리닉과 미네소타주립대 공동 연구진은 견과류 섭취의 예방 효과와 질병 관련 36건의 관찰연구(총 환자 3만 708명)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리뷰)과 메타분석을 수행했다.<br/>그 결과, 견과류 섭취가 직장암과 췌장암,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다른 암들과 제2형 당뇨병과는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웠다.<br/>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질병에 관한 견과류의 예방 효과를 평가해 왔다. 하지만 연구진은 개별 암의 유형과 견과류 섭취 사이 관계에 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이전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br/>이번 연구는 견과류 섭취와 암 위험의 관련성을 검토한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이라고 연구진은 말했다.<br/>연구를 이끈 랑 우 메이요클리닉 박사는 “이번 결과는 견과류 섭취가 모든 암은 아니지만 특정 암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미 심장질환에 견과류가 유익하다는 효과가 알려진 것과 더불어, 우리 연구는 암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음식 섭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견과류 섭취를 고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견과류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학술저널 ‘뉴트리션 리뷰’(Nutrition Reviews) 최신호(6월 16일자)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7.txt

제목: (주)아이비디티, 청소년 대상 무료 암 검진 계획 추진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2148061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의 여파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추가 확진자 및 사망자가 속속 발표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메르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와 공공 위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br/><br/><br/>사실 메르스 보다 우리의 건강과 더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 바로 ‘암’이라 할 수 있겠는데,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br/><br/><br/>통계청 조사 결과 1983년부터 32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암이었다. 40세 이상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39세까지는 자살과 사고에 이어 2, 3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여서 이제는 암이 고령 인구에만 국한된 질병이 아닌 전 연령층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공공 암 검진 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10대의 경우에도 암이 질병 사망원인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br/><br/><br/>이러한 가운데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암 조기 선별이 가능한 암 진단키트 ‘튜모스크린’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주)아이비디티가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 계층에 암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br/><br/><br/>아이비디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올해 청소년층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상 계층을 추가로 확대하고 향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조기에 암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세부 계획으로는 성인이 IBDT 제공 암 검사를 한 번 받을 때마다 청소년에게 한 번의 무료 암 검사를 제공하는 1:1 기부 방식을 도입해 향후 기업, 기관, 개인 등의 후원을 통해 무료 암 검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br/><br/><br/>아이비디티 측은 “<span class='quot1'>기존의 방식대로라면 한 명의 암환자를 발견하는 데 막대한 검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반해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암 조기 진단이 보편화 되면 검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바일 메신저 사업과의 제휴를 통해 암 조기 진단의 보편화 뿐만 아니라 진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8.txt

제목: 메르스 환자 현황, 나흘째 확진자 0명..추가 사망자도 없어 ‘진정세’ 53.3% 퇴원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2016020  
본문: 메르스 환자 현황, 나흘째 확진자 0명..추가 사망자도 없어 ‘진정세’ 53.3% 퇴원<br/>메르스 현황 발표에 따르면 추가 감염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퇴원자는 2명 추가돼 모두 97명이 됐다. 확진자의 53.3%가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선 것.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이 관찰 중인 격리자는 이틀째 감소세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1일 오전 발표한 메르스 현황에서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는 없었다. 추가 확진자가 지난 28일 이후 나흘째 발생하지 않으며 총 환자수는 182명에 머물렀다. 사망자는 총 33명이다.<br/>확진자 가운데 병원 입·내원한 환자가 82명(45.1%)으로 가장 많다. 환자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문병 등 방문객이 64명(35.2%)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진 등 병원 종사자가 36명(19.7%)이었다.<br/>전체 사망자 중 남성이 22명(66.7%)으로 여성(11명·33.3%)의 2배나 됐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가 각 10명씩(30.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80대 7명(21.2%), 50대 5명(15.2%), 40대 1명(3.0%) 순이었다.<br/>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30명(90.9%)이다.<br/>현재 치료 중인 환자 40명 중 12명(30.0%)의 상태가 불안정하다. 이 기준은 심폐보조기인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것이어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br/>병이 완치돼 퇴원한 환자는 2명 늘었다. 95번(76)과 136번(67) 환자다. 이로써 퇴원자 수는 총 97명이 됐다. <br/>전체 퇴원자 중 남성이 53명(54.6%)으로 여성(44명·45.4%)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대 22명(22.7%), 60대 17명(17.5%), 30대 15명(15.5%), 70대 11명(11.3%), 20대 6명(6.2%), 10대 1명(1.0%) 순이었다.<br/>격리 대상자는 전날(2638명)보다 187명(-7.1%) 줄어든 2451명이었다. 이틀 연속 감소세다. <br/>자가 격리자는 2098명에서 1930명으로 168명(-8.0%) 감소했다. 시설(병원) 격리자도 19명(-3.5%) 줄어든 521명이 됐다. <br/>메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격리됐다가 최대 잠복기(14일)를 지나도록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일상 생활로 복귀한 격리 해제자는 200명이 늘어 모두 1만3554명이 됐다. <br/>메르스로 인해 격리를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누적 격리자는 총 1만6005명으로 집계됐다.<br/>메르스 현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메르스 현황, 나흘째 환자 발생 안했다니 다행이네</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현황, 나흘째 확진자 0명..드디어 진정세구나</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현황 나흘째 확진자 0명, 사망자도 0명..진정 국면에 접어드나요</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현황, 이제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닌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서울신문DB(메르스 현황)<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099.txt

제목: 빛 받으면 암세포만 죽이는 나노물질 개발  
날짜: 20150701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1917916  
본문: 가톨릭대 생명공학과 나건 교수팀이 암 치료 유전자를 환자의 암세포 속에 효율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나노 재료 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최신호의 표지논문으로 실렸다.<br/><br/>유전자를 이용한 항암치료는 기존 화학물질 항암제 요법보다 부작용이 적어 차세대 치료법으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치료 유전자가 암세포 안으로 침투하기가 어려워 치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br/><br/>이번에 나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 유전자 전달체’는 빛을 받으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스마트 고분자 물질을 유전자 치료제와 결합한 것이다. 암세포 주변의 혈관을 통해 이 복합물질을 암세포 주변 조직으로 이동시킨 뒤 특정 파장의 빛(레이저)을 쏘면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활성산소는 화학적 반응성이 높아 암 세포의 세포막과 DNA 등을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그대로 쓸 경우 유전자 치료제는 물론 정상세포까지도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활성산소가 암세포의 세포막만 파괴한 시점에서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 치료제를 암세포 내부에 온전한 상태로 침투시키는 것이 연구의 관건이었다. <br/><br/>연구팀은 피부암이 발생한 생쥐에게 암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p53 유전자’와 이번에 개발한 물질을 함께 투여했다. 그 결과 p53 유전자 치료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암 치료 효과가 6배나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기술과 빛 치료기술을 결합시킨 것으로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 전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0.txt

제목: “인공지능, ‘인간 보호하려다’ 인류 멸망 가져올수 있다”  
날짜: 20150630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555498  
본문: 후속편 개봉을 앞두고 있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는 인류 멸망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인공지능 시스템 ‘스카이넷’이 등장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세계멸망 시나리오는 비단 블록버스터 영화만을 위한 허황된 상상만은 아니다. 세계적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 이외에도 여러 과학자가 AI에 의한 인류멸망 위험의 가능성을 경고했던 바 있다.<br/>특히 호킹 박사는 인간 지성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이 ‘자신들만의 목표’를 따로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인류를 ‘경쟁자’로 인지해 공격하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을 내놓았었다.<br/>그런데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설령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프로그램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미러 등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세계적 IT 연구 전문 기업 가트너가 런던에서 주최한 인공지능 좌담회에 참석한 옥스퍼드 대학 인간미래연구소의 스튜어트 암스트롱 박사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더라도 인류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br/>그에 따르면 미래 로봇들은 인공지능(AI)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전반인공지능(AGI)을 지니게 된다. 지금까지 개발된 AI들이 한두 가지 역할만을 수행하는 단순한 구조를 지닌 반면 AGI는 인류의 지적 활동을 모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다.<br/>이런 AGI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책무를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책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된다. 그는 “인류가 향후 100년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AGI는 훨씬 더 빠르게 성취해 낼 것이다”고 설명한다.<br/>문제는 이렇게 AGI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구조, 시장, 교통체제, 보건의료 등을 빠르게 장악해 인간 생활의 면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 한 뒤에 일어난다.<br/>암스트롱 박사가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를 들자면) 생활 깊숙이 자리한 AGI에게 ‘인간의 고통을 멈추어라’고 명령하면 ‘인간을 모두 죽여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인간을 모두 보호하라’는 명령을 듣고 ‘인간을 모두 가둬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경우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는 미묘한 차이에 의해 의미가 왜곡될 수 있기에 때문에 인공지능들이 ‘의도치 않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br/>일부는 이에 대해 AGI에 ‘도덕 규율’을 입력하면 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암스트롱 박사는 인간 스스로도 선악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며, 모범적인 행동만 하는 롤 모델이 되어주기도 힘든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대신에 그는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대비책을 고안하고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br/>사진=영화 ‘터미네이터’ 스틸컷<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1.txt

제목: 내년 건보료 0.9%↑… 직장인 월평균 879원 더 낸다  
날짜: 20150630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1350996  
본문: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0.9% 오른다.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다.<br/><br/>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br/><br/>보험료율 조정으로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 7630원에서 9만 8509원으로 879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5013원에서 8만 5778원으로 765원 증가할 전망이다.<br/><br/>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인상됐다.<br/><br/>복지부는 “<span class='quot0'>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결정했다</span>”고 밝혔다.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의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1조 6000억원은 건강보험 누적 재원을 일부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2조 8000억원이며, 메르스 감염 우려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 흑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br/><br/>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span class='quot1'>흑자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span>”며 “<span class='quot1'>먼저 국민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추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정부는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거나 아예 면제하고, 현재 비급여인 임신초음파와 분만실 1인실 이용에도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주사제 등 비급여도 급여화할 방침이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결핵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br/><br/>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당 하루 진찰 횟수가 75건을 초과하면 진찰료를 차감하는 ‘진찰료 차등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폐지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span>”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이른바 ‘3분 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진료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 횟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대안 등도 검토 중이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2.txt

제목: 임신 전 엄마의 식사, 아이 ‘평생 질병’에 영향  
날짜: 20150629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515652  
본문: 여성이 임신하는 시기의 환경이 유전자 기능에 변화를 줘 아이의 면역 기능과 암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영국과 미국의 연구팀이 밝혔다. 학자들은 이 과정에 ‘식사’가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br/>아이의 DNA가 어머니의 임신 전 식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전 연구로도 알려졌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VTRNA2-1’라는 유전자가 이런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 중 하나로,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신체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br/>아이의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될지는 ‘DNA 메틸화’(methylation)와 같은 유전자 외적인 변화 이른바 ‘후생유전학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br/>이 후생유전학적 변화는 식사와 흡연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수정 이후 배아가 세포 분열되기 전까지 완료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DNA 메틸화에는 특정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체의 임신 전과 임신 중 영양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br/>이 연구는 아프리카 감비아 지역에서 실시했는데, 집단마다 재배 식물과 수렵에 의존하고 건기와 우기 라는 극단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출산 시기 여성의 식생활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쉬웠다.<br/>연구팀은 건기와 우기 최절정기에 임신한 여성 120명의 혈액을 분석하고 태어난 아이의 생후 2~8개월 시점의 혈액과 모낭 표본을 채취해 분석했다.<br/>연구를 이끈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 국제영양그룹의 매트 실버 박사는 “<span class='quot0'>아이의 VTRNA2-1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메틸화 상태가 임신 시기가 건기나 우기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는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연구팀은 두 차례의 보완 실험을 통해 새로운 ‘준안정 후성대립유전자’(metastable epialleles)를 인간의 게놈에서 발견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준안정 후성대립유전자는 불안정하지만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이후 겪는 환경과 관련한 대립형질의 유전자를 말한다. 흥미롭게도 두 실험 모두 이런 유전자는 VTRNA2-1인 것으로 나타났다.<br/>연구에 참여한 미국 베일러의대의 롭 워터랜드 부교수는 “인간의 게놈에는 약 2만 개의 유전자가 포함된다. 우리 두 그룹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 유전자가 최고의 후성대립유전자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br/>이전 연구에서는 VTRNA2-1 유전자가 인간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 뿐만 아니라 종양을 억제하고 암 방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연구를 총괄한 MRC 국제영양그룹의 앤드루 프렌티스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가 어머니의 임신 전 식사가 후성대립유전자를 약간 재구성하는 것으로 자녀의 특정질환 발병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한 최초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유전자는 바이러스 감염과 일부 암을 막는 기능에 중요 역할을 하므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번 연구는 유전체 분야 학술지 ‘게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3.txt

제목: [심재억기자의 헬스토리-6] 커피는 정말 몸에 좋을까  
날짜: 2015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1132729  
본문: 　가히 ‘커피공화국’ 다운 소비량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세계 30위권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연간 국민 한 사람 당 마시는 커피도 적게는 240잔에서 많게는 480잔 정도로 통계가 나오더군요.<br/>　이처럼 통계에 편차가 있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각각 조사해 발표한 것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통계로 잡고 보니 더 대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저의 경우, 아침 출근 전에 집에서 한 잔, 점심 후 또 한 잔 하는 게 루틴한 ‘커피타임’이고, 혹시 사람들을 만나거나, 돌연 커피가 생각나 돌발적으로 또 한 잔씩 마시는 정도이니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800∼900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br/>　이렇게 마시는 커피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깊숙히 들어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밥을 먹는 횟수와 견줘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출근할 때나 공휴일에도 아침에는 거의 밥을 먹지 않고 요거트와 샐러드 등 다른 음식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 1일 2식이 기본이어서 연간 700여 식, 조찬 모임 등이 있을 때 먹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50∼80식 정도라고 치면 커피를 마시는 횟수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셈을 하고 보니 ‘커피, 참 대단하네’라는 생각이 듭니다.<br/>　그러니 국가별 연간 커피 소비량에서도 우리나라는 11만 2000톤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앞질렀고, 프랑스나 이태리와 견줘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미국과 브라질이 70만톤 내외를 소비하지만, 단순한 소비량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3억을 넘으니 말이지요.<br/>　1896년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공사관에 잠시 의탁하던 고종 황제가 당시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의 권유로 ‘가배’라 불리던 커피를 처음 마셨다니, 그로부터 100여년 만에 지배적인 커피공화국으로 변모해 온 나라가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아름답고, 사랑처럼 달콤하다’는 커피의 마성에 빠진 것이지요.<br/>　<br/>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아랍,유럽,그리고 세계로<br/>　알고 보면 커피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지 않습니다. 6세기를 전후해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처음 식용했다는데, 그 때는 지금처럼 볶은 원두를 분쇄해 액상 커피를 추출해 마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원두를 씹는 수준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커피가 아랍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본격적인 음료로 개발됐답니다. 아랍에서 처음 커피를 기호식품으로 활용한 부류는 신비주의적 이슬람 종파인 수피교도들이었는데, 이들은 밤을 세워 기도를 하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우려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커피 세계화의 기반이 이 때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의 아랍은 세계 교역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실크로드 역시 중국 등 아시아와 아랍, 유럽을 잇는 교역통로였지요.<br/>　유럽의 귀족사회는 향락적이었습니다. 항상,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중세의 유럽 귀족들은 부와 권력을 장악해 거의 모두가 향락적인 삶을 살았고, 그러기를 갈망했습니다. 확실히 당시의 유럽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물산이 유럽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도 특정 물산이 부족해 성에 차지 않자 땅으로, 바다로 나서 새로운 교역로를 확장하고, 세계 곳곳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멜표류기의 그 하멜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세계적 유럽’의 한 증거이지요.<br/>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권위와 이해가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 십자군 전쟁도 해를 거듭할수록 문명의 교류와 교역의 특성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커피가 그 증거입니다. 유럽의 십자군과, 십자군의 보급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거상들이 아랍에서 찾아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커피였습니다.<br/>　당시 르네상스라는 거센 변혁기를 맞은 유럽사회는 왕과 귀족이 지배적 지위를 독점했던 이전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자본과 자본가가 르네상스 변혁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려는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동양의 향신료가 돈이 되자 그들은 군함과 상선을 보내 모든 향신료를 가차없이 약탈, 유럽 귀족의 기호욕을 충족시켜주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커피의 유럽 전파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겠지요. 실제로, 르네상스시대 유럽의 귀족과 지식인, 부호들은 커피의 맛과 향기, 그리고 각성효과에 홀딱 반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과 세계 교역이 커피의 부흥을 이끈 셈이지요.<br/>　<br/>　누구나 커피에 관한 추억은 있다<br/>　필자도 커피에 관한 아련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무렵으로 기억됩니다. 동네 장정 하나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제대하고 귀향을 했지요. 김추자의 노랫말에도 있듯이 그가 제대해 돌아오던 날, 온 마을이 잔칫집 분위기였고, 새까맣게 탄 얼굴로 집에 들어선 그에게서 제가 얻은 선물이 바로 C-레이션 깡통에 든 봉지커피였습니다.<br/>　누룽지 끓인 숭늉만 마시던 촌놈이 커피를 알 턱이 없었지요. 동무들 앞에서 자랑 삼아 봉지를 뜯고 까만 커피가루를 조금 입에 털어 넣었는데, 그 순간의 황당함이라니요. 마치 테라마이신 가루처럼 된통 쓰기만 한 맛에 전율하다 못해 얼른 그걸 다시 뱉아내고는 입까지 헹궜으니까요. 그러고는 봉지 주둥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나중에야 그걸 물에 타서 마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적당히 설탕을 넣어서요. 그걸 알고 봉지를 열어보니 몇날을 주머니에 넣어둔 탓에 진득하게 엉겨붙어 물에 풀어 녹이기도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br/>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원두커피를 마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법 격조 있는 커피점이나 돈 좀 드는 음악감상실 정도라야 사이폰으로 내린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었고, 흔한 다방에서는 죄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냈지요. ‘설탕 하나 프림 둘’은 ‘파 송송 계란 톡’처럼 인스탄트 커피의 일상화를 웅변하는 레시피이자 구호였으니까요.<br/>　대학 새내기 시절, 미팅이랍시고 학교 앞 ‘다방’에 짝지어 앉은 선남선녀들이 발그레 상기된 얼굴로 키득거리며 마시던 커피 맛이 어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그 무렵,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즈음이 커피문화에 빠지는 시기였고, 그러니 그 찬란한 청춘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커피와 연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br/>　<br/>　장사 잘 되는 집 이유가 있듯이<br/>　이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커피가 없어서는 안될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커피가 소비되는 것은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커피를 통해 뭔가를 얻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적인데, 이런 점에서 최근 국내 한 취업포털이 실시한 커피 관련 설문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직장인들에게 ‘커피를 왜 마시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25.7%가 ‘습관’을 들었더군요. 또 18.3%는 ‘기분 전환을 위해’, 16.9%는 ‘잠을 깨기 위해’, 12.9%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라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커피를 마시는 이유로 ‘건강’을 꼽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br/>　커피의 선호 이유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건강에 좋으니까’와 같이 구체적 이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커피가 보편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넘어 커피가 신체는 물론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오늘날의 ‘커피 트렌드’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기호라도 커피를 이렇게 많이 소비할 수는 없을테니 말이지요.<br/>　실제로 국내외에서 이뤄진 많은 연구에서는 커피의 긍적적인 효능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커피가 잠을 쫓아준다’는 단편적인 효능은 이제 상식이고, 보다 실체적으로 ‘커피 건강학’이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이지요. 마치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듯이’ 커피가 폭발적으로 소비되는 배경에도 그럴만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건강에 대한 이로움에서 찾자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지요.<br/>　<br/>　커피가 건강에 좋은 점 세 가지<br/>　물론, 저도 일상적으로 커피를 마시지만, 이제부터 말하는 ‘커피 건강론’이 저의 체험 결과는 아니고, 학계에서 정리된 커피 관련 연구 중에서 신빙성이 있는 부분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br/>　아시다시피 커피를 통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성분은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 성분은 졸음을 쫓아 정신이 또렷해지게 하는 각성 효과를 가졌는데, “<span class='quot0'>난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span>”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페인에 민감한 탓입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피곤한 신경을 쉬게 하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br/>　그럼 왜 원두에는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커피 뿐만이 아니라 홍차, 녹차, 보이차 등 대부분의 차에 다 들어 있는 카페인은 식물의 자기방어 기제에 활용되는 물질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식물이 수많은 포식자나 곰팡이, 세균 등으로부터 씨앗을 지키기 위해 카페인을 다량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섭취한 거미는 거미줄을 엉성하게 치기 때문에 모기를 거의 잡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해충들이 커피 열매를 탐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겠지요. 편백나무에서 방출하는 피톤치드가 사실은 해충을 물리치기 위해 내뿜는 자기방어 물질인 것과 흡사한 원리지요. 이처럼 커피가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br/>　먼저, 커피와 만성질환의 상관성을 살펴보지요. 일본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대규모 코호트 조사 결과, 하루에 커피를 3∼4잔 정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고 40%까지 낮았으며, 연구 결과를 따로 다룬 메타분석에서도 하루에 6잔을 마시면 33%까지 당뇨병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더군요.<br/>　이런 연구 결과는 커피가 가진 지방 분해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에 따르면, 커피가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도록 도와 인체의 활동에너지를 보강하는데, 이 때문에 필요한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에너지 대사량을 10% 정도 높일 수 있답니다. 커피가 당뇨 발병을 억제하고,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가설은 이같은 논거에 따른 것입니다. 또다른 사람들은 커피의 이뇨작용을 들어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더군요.<br/>　또다른 이점은 커피에 함유된 항산화물질입니다. 사실, 인체의 산화는 정도의 문제일 뿐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끌여들여 대사작용을 하는 한 말입니다. 이 인체 산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 빨아들인 산소가 쓰이고 남은 것인데, 누군들 숨을 안 쉴 수 없으니 그로 인한 산화 역시 피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건강염려증을 가진 분들은 혹여 숨쉬기조차 꺼릴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안정된 상태의 호흡으로는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많지 않아 그런 정도는 감당하도록 인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자주 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대응하는 항산화물질의 보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요. 요즘에는 항산화 기능을 강화한 영양보충제도 많이 나와있지만, 바람직하기로는 자연스러운 섭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텐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커피라는 말입니다.<br/>　학계에서는 세포의 변이에 작용해 암을 유발하는 많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라는 논거는 너무도 많아 기정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왕벌의 먹이로 알려진 로얄젤리도 프로폴리스라는 강력한 항염·항산화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커피가 암을 예방한다는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br/>　이 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커피 다이어트도 실질적인 효능 여부를 떠나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커피의 에너지 소비 촉진은 장운동과도 연관이 있어 배변을 촉진하는데, 이런 효능이 다이어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br/>　<br/>　오로지 좋기만 한 것은 없다<br/>　그렇다고 커피를 ‘만병에 좋다’거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아무리 커피라도 효능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br/>　커피의 효능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이탈리아 의사 시니발디는 “<span class='quot1'>커피는 신경쇠약과 위장장애를 유발하고, 사지가 떨리는 경련과 중풍을 일으킨다</span>”고 주장했지요. 카페인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인체에 해로운데, 커피에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요. 사실, 카페인의 과다 문제는 모든 의학자들이 동의하는 문제이지만, 일상적으로 즐기는 커피 정도라면 카페인이 따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도 의학자들의 견해입니다.<br/>　무엇이든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격언은 커피 기호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예 텀블러에 커피를 담거나 커피잔을 들고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점심시간에 커피하우스에 커피를 마시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선 모습은 이제 익숙한 도시 풍경입니다. 이런 문화를 두고 “5000원짜리 점심 먹고 5500원짜리 커피 마시는 세태’라고 냉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고, 또 지금의 커피 문화가 ‘소비를 부추기는 상술이 만든 폐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br/>　그러나 어차피 문화는 다양한 시각으로 조감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냉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며, 이런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고 보면, 지금의 세상에서 커피를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br/>　이 글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적당하게 마시는 양질의 원두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나 치료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양질의 커피는 어떤 커피이며, 적당한 양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라고.<br/>　필자가 말한 양질의 커피란, 사향고양이를 가둬놓고 커피콩을 억지로 먹여서 얻는 비싼 루왁커피 따위가 아니라, 풍부한 햇볕을 받고 자란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서, 곰팡이가 슬거나 쥐나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게 잘 관리했다가 내려 마시는 모든 커피를 말합니다. 단, 요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광고해대는 인스탄트 커피는 제가 말한 양질의 커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br/>　‘적당량’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커피를 잘 받는 경우도 있고,아예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냥 마셔서 속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 밤에 잠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 문득 당겨서 기분 좋게 마시는 정도가 바로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적당량 아니겠습니까. 꼭 커피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도 스스로 좋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br/>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4.txt

제목: 암 딛고 일어난 안치환 “저항의식 담은 노래는 내 소명”  
날짜: 20150629  
기자: 이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0844247  
본문: “생과 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음악을 만드는 나를 보고 천상 ‘딴따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음악은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br/><br/><br/><br/>●50세에 느낀 좌절·고통·희망 담은 앨범… 암 완치됐지만 치료는 여전히<br/><br/>‘노래하는 시인’,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로 불리는 안치환(50). 지난해 4월 직장암 판정을 받은 그는 인생의 가장 답답하고 어두운 시기에 음악에 더 매달렸다. 최근 발매한 11집 앨범 ‘50’은 나이 50세에 느끼는 삶의 좌절과 고통, 희망이 고스란히 담겼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개인 녹음실에서 만난 그는 “처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원망에서 나의 삶이 어디까지 온 것일까 하는 회한으로 바뀌었다”고 말문을 열었다.<br/><br/>‘나는 암환자/한동안 멍 때렸지만 이젠 담담해/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지금 날 지배할 순 없어/내 목숨 주인은 암이 아니라/널 이겨낼 나라는 걸/내가 몸으로 보여주겠어’(‘나는 암환자’) <br/><br/>11집에는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나는 암환자’와 자신의 곁을 지켜 준 아내를 보고 만든 ‘병상에 누워’ 등 병마와 싸우며 쓴 곡부터 대중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곡까지 다양하다. 타이틀곡인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정호승 시인의 동명 시에 멜로디를 붙였다. ‘바람의 영혼’은 묵묵하게 삶을 버텨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곡이다.<br/><br/>“정호승 시인과는 수년간 함께 콘서트를 한 인연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던 터에 그 시가 모티브를 줬죠. 사람들은 하늘 위의 별만 바라보지만 정작 이 세상을 받치고 있고 움직이는 원동력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대기업 입사 시험에 몰리는 취업 준비생, 고3 교실에 ‘배경’처럼 앉아 있는 학생들…. 그 사람들의 삶이 절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바람의 영혼’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응원가 같은 곡이죠.”<br/><br/>이처럼 그에게 노래는 희망이고 바람이다. 히트곡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도 그런 바람으로 만든 곡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번이 마지막 노래다, 다음 앨범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의 이런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하고 가슴을 울리는 것은 그런 이유일지도 모른다.<br/><br/>●세월호 희생자 추모곡·비겁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곡도 담아<br/><br/>“제가 가장 행복한 때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새로 만든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부를 때예요. 창작의 고통이 제겐 행복한 일이죠. 삶이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제 노래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어요.”<br/><br/>‘포크가수’ 안치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바로 ‘민중가수’다. 그는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중가수’가 아니라 ‘저항가수’라고 바로잡는다. 이번 앨범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천국이 있다면’과 비겁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셰임 온 유’(Shame on You!)가 실렸다.<br/><br/>“저항의 의미를 담은 노래를 내는 것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시각을 노래로 전달하고 싶어서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과 사리사욕을 얻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br/><br/>●“저항의식 담은 노래는 내 소명… 현재진행형 뮤지션으로 남고 싶어”<br/><br/>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는 ‘노래하는 안치환’이다. 암은 완치됐지만 여전히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는 늘 오늘을 사는 ‘현재 진행형의 뮤지션’으로 남는 것이 꿈이다. 자본의 논리로 공들인 정규 앨범이 사라지고 인스턴트식의 음원이 판치는 요즘 가요계에 대해 “음악은 가수로서 알량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br/><br/>“팔순이 넘은 레너드 코언이나 전설의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는 아직도 새 앨범을 발표합니다. 한국에 그런 레전드 가수가 흔치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노래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음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팬들이 제 옛날 노래만 부르면서 추억 속에서 사는 것은 제게도 슬픈 일이니까요.”<br/><br/>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5.txt

제목: “살아야만 했다”…유방암 이긴 여성의 감동 화보  
날짜: 2015062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455525  
본문: 유방암을 극복한 여성들이 자신의 상처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br/>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사진작가 나탈리 맥케인과 평범한 여성들이 모여 ‘어니스트 바디 프로젝트’(The Honest Body Project)를 펼쳤다.<br/>이 프로젝트에는 과거 유방암을 앓다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 가슴에 큰 상처가 있거나 출산 후 뱃살이 늘어지고 살이 찐 몸매가 된 평범한 여성들이 다수 참여했다.<br/>두 아이의 엄마인 제니퍼는 유방암을 이겨낸 여성이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양쪽 유방을 절제한 뒤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상처가 고스란히 보이는 가슴을 모두 내보이고 카메라 앞에 섰다.<br/>아이를 낳은 뒤 뱃살이 쳐지고 늘어진 다른 여성들 역시 짧은 속옷만 입은 채 아이들과 함께 화보를 촬영했다.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때로는 살아남은 기쁨을 아이들과 나누는 등 따뜻한 모습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이 모든 사진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다. <br/>제니퍼는 허핑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모든 사진들이 마치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았다”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11살, 5살 된 아들 둘이 자라는 것을 봐야만 했다. 유방절제보다 더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는 암을 이기기 위해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br/>그녀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유방암을 앓는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br/>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진작가 나탈리 맥케인은 다음 세대의 어린 소녀들에게 ‘진짜 여성’이 무엇이지 보여주고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br/>맥케인은 “제니퍼의 이야기는 내게 긍정과 희망을 갖게 했다. 제니퍼와 그녀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쳤으며, 이것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더 많은 여성들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6.txt

제목: 메르스 현황,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환자 총 182명+사망자 1명 늘어 총 32명  
날짜: 2015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0732423  
본문: 메르스 현황,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환자 총 182명+사망자 1명 늘어 총 32명<br/>‘메르스 현황,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br/>메르스 현황에 따르면 27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 됐으며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없어 182명을 유지했다.<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메르스 확진자 수는 추가 확진자 없어 전날과 동일한 182명이며 사망자와 퇴원자는 각각 1명씩 늘어 32명, 91명으로 집계됐다고 메르스 현황을 발표했다. <br/>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은 지난 20일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1명 더 나와 총 32명으로 늘었다. 50대 중반으로 고령자 범주에 들지 않는데다 기저질환도 없는 환자였다. 치사율은 17.6%다.<br/>퇴원자는 1명 추가돼 총 91명이 됐다. 확진자의 절반(50%)이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선 셈이다. <br/>의심 환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이 관찰 중인 격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br/>104번(55) 환자가 전날 끝내 숨졌다. 50대인데다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r/>전체 사망자 중 남성이 22명(68.8%)으로 여성(10명·31.3%)의 2배가 넘는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가 각 10명씩(31.3%)으로 가장 많았다. 80대 6명(18.8%), 50대 5명(15.6%), 40대 1명(3.1%) 순이었다.<br/>전체 사망자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29명(90.6%)이다.<br/>현재 치료 중인 환자 59명 중 15명(25.4%)이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전날(13명·21.3%)보다 2명 늘어난 것이다. <br/>이 기준은 심폐보조기인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것이어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br/>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환자 수는 모두 182명이다. <br/>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은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한 1차 유행이 소강 국면을 맞은 이달 3일과 20일 이후 처음이다. <br/>퇴원한 환자는 1명 늘어 모두 91명이 됐다. <br/>96번(42·여) 환자가 27일 병이 완치돼 퇴원 수속을 밟았다. <br/>전체 퇴원자 중 남성이 48명(52.7%)으로 여성(43명·47.3%)보다 많았다. <br/>연령별로는 40대 23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대 22명(24.2%), 30대 15명(16.5%), 60대 14명(15.4%), 70대 10명(11%), 20대 6명(6.6%), 10대 1명(1.1%) 순이었다.<br/>격리 대상자 수는 전날(2467명)보다 95명(3.9%) 늘어난 2562명이었다. 하루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br/>자가 격리자가 1959명에서 2063명으로 104명(5.3%) 증가했다. 반면 시설(병원) 격리자는 9명(-1.8%) 줄어 499명이 됐다. <br/>메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격리됐다가 최대 잠복기(14일)을 지나도록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일상 생활로 복귀한 격리 해제자는 50명이 늘어 모두 1만3008명이 됐다. <br/>메르스로 인해 격리를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누적 격리자는 총 1만5570명으로 집계됐다.<br/>네티즌들은 “메르스 현황,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오랜만이네”,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그래도 사망자가 나왔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현황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서울신문DB(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7.txt

제목: 얼마동안 금연해야 非흡연자 심장건강과 같아질까?  
날짜: 20150627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449691  
본문: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다. 금전절약과 함께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목표일텐데,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금연해야 담배로 약해진 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br/>최근 미국 연구진은 15년간 이상 금연 해야만, 평생 흡연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한 심부전 위험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br/>워싱턴DC VA메티컨센터의 알리 아흐메드 박사 연구진은 흡연 경험이 없는 2556명과 현재 흡연자 629명, 흡연한 경험이 있고 금연한지 15년 이상 된 1297명 등을 대상으로 13년간 조사를 실시했다.<br/>흡연 경험이 있고 금연한 지 15년 이상인 1297명 중 312명은 무려 30년 동안 하루에 한갑을 피웠던 일명 ‘前 헤비 스모커’였다.<br/>연구진은 이들의 나이와 성별, 인종,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흡연자는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심부전 확률이 50%, 사망확률은 2배에 달했다.<br/>15년 이상 담배를 끊은 사람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양한 질병 및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2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부전 발병 확률은 ▲15년 이상 금연자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서 21%로 똑같았다. 담배를 15년 이상 끊은 후에야 흡연 무경험자와 동일한 수치까지 위험확률이 떨어진다는 것.<br/>연구를 이끈 아흐메드 박사는 “<span class='quot0'>담배를 끊으면 사망위험이 낮아지며, 더 나아가 심혈관계통에 한해 아예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의 정도까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다만 흡연양이 적고 흡연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비흡연자의 건강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질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이어 “담배를 끊으면 폐암 및 기타 암의 위험 역시 낮아질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담배를 끊는 그 순간부터 질병의 위험에서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br/>전문가들은 흡연자의 혈액 내 일산화탄소양이 줄어들고 혈액순환계통계가 자가 회복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흡연 후 12시간 또는 수 일이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심장학회 학술지인 ‘순환: 심부전’(Circulation: Heart Failure)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8.txt

제목: [아하! 우주] 지구 보호막 약화…“암 발병률 높아질수도” 경고  
날짜: 20150627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446284  
본문: 위협적인 우주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br/>유럽우주기구(이하 ESA)는 2010년 지구 자기장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인공위성 ‘스웜’(Swarm)을 발사했다. 총 3개의 우주선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구를 얇게 감싸고 있는 보호막과 같은 자기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세력이 약해지면서 지구 통신망뿐만 아니라 날씨의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지구의 자기장은 지표면에서 60만㎞ 떨어진 곳까지 확장돼 태양에서부터 불어오는 방사선 즉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와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구의 고위도 지역에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역시 지구 자기장 때문이다.<br/>그러나 ESA 발표에 따르면 지구 자기장은 10년에 5%의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이전까지 100년에 5% 정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태양 자기장이 약해지면 지구의 각종 통신장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태양풍의 영향으로 대기권 성질이 변하면서 이상기온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br/>스웜 미션을 이끄는 ESA의 룬 플로버그하겐 박사는 “인공위성 ‘스웜’은 지구 핵과 표토, 지각, 바다 등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기 다른 자기장의 신호를 분석‧측정해 왔다.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외핵에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br/>이어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관측하는 ‘스웜’의 미션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발생할 지구 자기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br/>지구 자기장이 약화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자기장 약화로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을 막기 힘들어지면서 암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자기장 약화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고 다시 지구로 흘러들어가는 지구자기의 남극과 북극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br/>한편 ‘스윔’ 미션과 지구 자기장 약화를 다룬 이번 연구결과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체코에서 개막한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합 연례 총회에서 발표됐으며, ‘지구물리학 연구서’(Geophysical Research Letter)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09.txt

제목: ‘월 5일만’ 단식 같은 다이어트 하면 노화 억제  
날짜: 2015062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442098  
본문: 정기적으로 단식하면 면역체계와 뇌의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다.<br/>그런데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발터 롱고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열량)를 극단적으로 억제한 다이어트(규정식)를 매달 5일만 하는 방법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br/>연구팀은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에 앞서 수명이 짧은 쥐를 이용해 실험했다.<br/>중년기에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각각 4일간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FMD)를 하게 했다. 그 결과, 근육과 간, 뇌세포, 면역세포의 재생이 촉진돼 수명이 연장됐으며 암이나 염증성 질환 발생률이 떨어지고 골밀도 감소 속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지 기능에서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br/>이후 연구팀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에서는 참가자 19명에게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한 달에 한 차례 5일 동안 평균 섭취 열량보다 34~54%까지 줄인 FMD를 하도록 했다.<br/>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소 수프와 에너지바, 에너지음료, 칩 스낵, 카밀러 차(茶), 케일 크래커, 에너지, 채소 영양제를 중심으로 식사하도록 했다. 첫날 섭취 열량은 1090칼로리(kcal)로 단백질 10%, 지방 56%, 탄수화물 34%이고, 2~5일 섭취 열량은 각각 725칼로리로 단백질 9%, 지방 44%, 탄수화물 47%로 제한했다.<br/>이렇게 5일간 FMD를 마치면 나머지 25일은 평소와 같이 식사하도록 했다.<br/>이런 주기로 3개월간 계속하게 한 결과, 참가자들의 혈당 수치는 FMD를 섭취한 날은 10% 정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날도 약 6% 떨어졌다. 또한 체지방과 노화 촉진, 암 감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IGF-1 호르몬과 염증 반응의 지표가 되는 C 반응성 단백질(높은 수치는 심장 질환의 초기 증상)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롱고 교수는 “<span class='quot0'>FMD는 몸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효과가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줄기세포의 재생으로 세포가 회춘해 노화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또 그는 “<span class='quot0'>일반인이라면 건강 상태에 따라 3~6개월마다, 비만인이라면 2주마다 FMD를 할 것을 권한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이어 “당뇨병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18 이하인 사람은 FMD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Cell)의 자매지인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최신호(6월 18일자)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채소 수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0.txt

제목: 한여름 억새는 억세다  
날짜: 20150627  
기자: 손원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60138026  
본문: 예년과 달리 장거리 여행은 다소 삼가는 분위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꺼린다. 가뭄에 메르스가 겹친 탓이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가까운 산을 찾아 맑은 공기로 머리와 가슴을 씻는 것도 좋겠다. 수도권 명산으로 꼽히는 명성산을 찾은 건 그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억새꽃 필 무렵의 가을 명성산만 기억한다. 하지만 명성산을 잘 아는 이들은 여름 풍경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입을 모은다. 능선 전체를 푸르게 붓질하는 억새의 기교가 남다르다는 것이다. 억새가 만든 초원, 그 모습 보자고 행장을 꾸린다.<br/><br/>명성산(923m)은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정상 부분은 철원 지역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의 등산로는 포천 쪽 산정호수 주변에서 시작된다. 명성산(鳴聲山)은 궁예(?∼918)의 한이 서린 산이기도 하다. 왕건에게 패해 진한 울음을 울었다고 해서 산 이름도 울 명(鳴)자에 소리 성(聲)자를 쓴다. 궁예의 흔적은 곳곳에 이름으로 남았다. 궁예가 적의 동정을 살폈다는 산정호수 뒤편의 ‘망봉’(望峯), 패한 궁예의 군사들에게 항서를 받았다는 ‘항서받골’, 패주하던 궁예가 지나갔다는 ‘가는골’(패주골), 궁예가 흐느끼며 넘었다는 ‘느치고개’(눌치), 궁예가 은신했다는 ‘궁예왕굴’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등산로 주변 샘물도 ‘궁예약수’다.<br/><br/>억새밭은 삼각봉 아래 능선에 걸쳐 있다. 억새밭까지는 산정호수 주차장에 차를 두고 등룡폭포 방향으로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명성산 등산로는 모두 4개다. 1코스는 주차장에서 시작해 비선폭포와 등룡폭포, 억새밭을 지나 팔각정까지 간다. 명성산의 급경사 지역을 크게 우회하는 코스라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주차장에서 팔각정까지 3.5㎞,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의 산행이라면 1코스를 권할 만하다. 2코스는 1코스와 같이 주차장에서 시작해 비선폭포에서 갈라진다. 책바위를 올라 팔각정에 이른다. 거리는 짧은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급경사다. 게다가 암릉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하는 구간도 있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가급적 하산 코스로 잡길 권한다.<br/><br/>3코스는 자인사에서 출발해 팔각정까지 간다. 돌계단을 따라 급경사 구간을 올라야 해 힘든 코스로 분류된다. 4코스는 산안고개에서 시작해 정상을 찍고 삼각봉과 억새밭을 지나 주차장까지 가는 코스다. 거리가 길어 최소 6시간 이상 소요된다.<br/><br/>팔각정에서 내려가는 코스는 여러 갈래다. 2코스인 책바위 코스를 택할 경우 발 아래 산정호수를 두고 걸을 수 있다. 삼각봉, 책바위 등 거대한 암벽들의 암릉미를 감상하는 재미도 각별하다. 3코스 자인사 구간은 거리가 짧다. 하지만 경사는 급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br/><br/>산행의 들머리는 산정호수 주차장이다. 답답했던 포장도로는 금세 끝나고 길은 곧 조붓한 산길로 올라붙는다. 이어 선녀가 노닐었다는 비선(飛仙)폭포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군데군데 너덜이 깔린 비탈길을 한참 오르면 산은 또 하나의 폭포를 펼쳐 놓는다. 등룡폭포다. 폭포 아래 소에 살던 용이 물안개를 따라 하늘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br/><br/>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가늘다. 가뭄 탓이다. 물색도 맑지 않은 편. 하지만 졸졸대는 물소리마저 없었다면 산행은 몹시 힘들었지 싶다. 암벽 위 철제 다리를 오르면 물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계곡도 끝이 난다. 이어 또다시 너덜길. 오른쪽으로는 철망이 이어진다. 군 사격훈련장을 알리는 경고판도 철망 곳곳에 붙어 있다.<br/><br/>숲엔 야생동물이 흔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은 것에 견주면 뜻밖의 현상이다. 다람쥐는 지천이고 겅중대며 뛰는 족제비도 눈에 띈다. 초록빛 이파리에 숨은 파란 깃털의 큰유리새, 계곡물에서 첨벙대는 물까마귀 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br/><br/>등룡폭포를 지나 30분쯤 오르면 땀범벅이 된 머리 위로 느닷없이 하늘이 열린다. 그 아래로 초록빛 너른 능선이 펼쳐져 있다. 명성산을 명산 반열에 오르게 한 억새군락지다. 삼각봉 아래쪽 능선 전체를 점령한 억새가 시나브로 제 키를 키워 가고 있다. 억새밭은 가르마를 탄 듯 양 기슭으로 갈라졌다. 면적은 20㏊(약 6만평)에 이른다. 초원 군데군데 물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서 있다. 이곳이 습지라는 증거다.<br/><br/>버드나무 가지엔 ‘울음터’ 푯말이 걸려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왕건에게 패한 궁예가 목놓아 울었다는 뜻일 터다. 언덕 오른쪽엔 ‘천년수’(궁예약수) 푯말이 서 있다. 안내판은 “이 약수는 궁예왕의 망국 한을 달래 주는 듯 눈물처럼 샘솟아 예로부터 극심한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었다”고 적고 있다. 오래전 궁예는 이 능선에 임시 거처를 만들고 왕건과 대적했다고 한다. 사방이 트여 조망이 좋고, 식수 조달이 쉬웠기 때문이다.<br/><br/>바람이 능선을 스칠 때마다 여린 억새들이 가늘게 흔들린다. 손 뻗어 보듬어 주고 싶은 장면이다. 한데 부디 조심하시라. 한여름의 억새는 억세다. 잎새의 날도 서슬 퍼렇다. 스치기만 해도 살갗을 찢고, 붉은 피를 탐할 만큼 혈기방장하다. 줄기엔 작은 가시들이 나 있다. 여기에 베면 으악 소리 난다. 억새의 다른 이름은 ‘으악새’다. 옛노래 ‘짝사랑’의 첫 구절에도 나온다. “아 아 으악새 슬피우니…”라고. 울음산과 억새와 ‘짝사랑’은 그래서 잘 어울린다.<br/><br/>억새 군락지 정상은 팔각정이다. 정자 옆에 빨간 우체통 하나가 서 있다. 1년 뒤에 편지를 배달해 주는 느린 우체통이다. 하산은 책바위 쪽으로 내려선다. 우람한 자태의 암릉들을 보며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거대한 암릉을 딛고 서니 발 아래 산정호수가 손거울처럼 작다. 수량도 바짝 줄었다. 40년 만이라는 최악의 가뭄이 그제야 실감난다.<br/><br/>포천에선 현무암들이 만든 풍경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아주 오래전, 북한 땅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리며 조탁한 풍경들이다. 이처럼 용암이 만든 풍경들만 모아 따로 ‘한탄 8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가운데 으뜸은 역시 비둘기낭(천연기념물 제537호)이다.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들이 만든 폭포다. 폭포수가 고인 비췻빛 소와 이를 감싼 검은 주상절리 절벽이 기이한 풍경을 펼쳐 낸다. 구라이골도 매우 독특하다. 창수면을 흐르는 운산천이 한탄강과 몸을 섞는 끝자락에 형성된 현무암 협곡이다. 구라이골은 둥근 공동(空洞)의 형태를 하고 있다. 평지 아래로 용암이 흐르며 파 놓은 흔적이다. 길이는 1㎞ 남짓하다.<br/><br/>글 사진 포천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br/><br/><br/><br/><br/><br/>■여행수첩(지역번호 031)<br/><br/>→가는 길:의정부역 앞에서 138-6번 버스가 산정호수까지 오간다. 수도권에서 승용차로 갈 경우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나들목으로 나와 내촌을 거쳐 가는 게 가장 알기 쉽다. 43번 국도~의정부~포천~성동리~문암리 우회전~78번 지방도로~산정호수 순으로 갈 수도 있다.<br/><br/>→맛집:포천 하면 이동갈비다. 이동리 일대에 20여곳의 갈비집이 몰려 있다. 샘물매운탕(533-6880)은 메기매운탕만 파는 집이다.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에는 맛보기 쉽지 않다. 관인면 냉정리에 있다. 모내기(535-0960)는 쌈밥으로 이름났다. 포천시내 청성체육공원 앞에 있다.<br/><br/>→잘 곳:가족 단위로 간다면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534-5500)가 제격이다. 온천수를 이용한 사우나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졌다. 산정호수 바로 앞에 있다.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534-6330)도 예약이 쉽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몰리는 숙소다. 산행의 피로는 온천욕으로 푸는 게 좋겠다. 일동제일유황온천(536-6000), 일동용암천(534-5500) 등이 널리 알려졌다. 온천수에 유황 성분이 많아 퀴퀴한 냄새는 나지만 수질은 좋은 편이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1.txt

제목: 윤종화 척수암, 누군가 했더니 “윤현진 아나운서가 누나…응원 부탁”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726748  
본문: 윤종화 척수암<br/><br/>윤종화 척수암, 누군가 했더니 “윤현진 아나운서가 누나…응원 부탁”<br/><br/>배우 윤종화(36)가 척수암 진단을 받고 MBC TV 아침극 ‘이브의 사랑’에서 하차했다.<br/><br/>윤종화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5일 “윤종화 씨가 지난달 병원에서 척수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화 씨는 수술 후 4일 만에 촬영장에 복귀했지만, 최근 제작진과 상의 끝에 드라마의 전개상 무리가 없는 지점에 맞춰 이번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br/><br/>윤종화는 ‘이브의 사랑’에서 조연인 차건우 역을 맡고 있다. 소속사는 “윤종화 씨는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며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전하며, 윤종화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r/><br/>2005년 MBC ‘사랑찬가’로 데뷔한 윤종화는 ‘메이퀸’ ‘공주의 남자’ ‘따뜻한 말 한마디’ 등에 출연했다. 윤현진 SBS 아나운서가 누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2.txt

제목: 윤종화 척수암, 누군가 했더니 “윤현진 아나운서가 누나”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710843  
본문: 윤종화 척수암<br/><br/>윤종화 척수암, 누군가 했더니 “윤현진 아나운서가 누나”<br/><br/>배우 윤종화(36)가 척수암 진단을 받고 MBC TV 아침극 ‘이브의 사랑’에서 하차했다.<br/><br/>윤종화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5일 “윤종화 씨가 지난달 병원에서 척수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화 씨는 수술 후 4일 만에 촬영장에 복귀했지만, 최근 제작진과 상의 끝에 드라마의 전개상 무리가 없는 지점에 맞춰 이번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br/><br/>윤종화는 ‘이브의 사랑’에서 조연인 차건우 역을 맡고 있다. 소속사는 “윤종화 씨는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며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전하며, 윤종화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r/><br/>2005년 MBC ‘사랑찬가’로 데뷔한 윤종화는 ‘메이퀸’ ‘공주의 남자’ ‘따뜻한 말 한마디’ 등에 출연했다. 윤현진 SBS 아나운서가 누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3.txt

제목: 윤종화 척수암, 누군가 했더니 “윤현진 아나운서가 누나”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637528  
본문: 윤종화 척수암<br/><br/>윤종화 척수암, 누군가 했더니 “윤현진 아나운서가 누나”<br/><br/>배우 윤종화(36)가 척수암 진단을 받고 MBC TV 아침극 ‘이브의 사랑’에서 하차했다.<br/><br/>윤종화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5일 “윤종화 씨가 지난달 병원에서 척수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화 씨는 수술 후 4일 만에 촬영장에 복귀했지만, 최근 제작진과 상의 끝에 드라마의 전개상 무리가 없는 지점에 맞춰 이번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br/><br/>윤종화는 ‘이브의 사랑’에서 조연인 차건우 역을 맡고 있다. 소속사는 “윤종화 씨는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며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전하며, 윤종화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r/><br/>2005년 MBC ‘사랑찬가’로 데뷔한 윤종화는 ‘메이퀸’ ‘공주의 남자’ ‘따뜻한 말 한마디’ 등에 출연했다. 윤현진 SBS 아나운서가 누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4.txt

제목: 윤종화 척수암 ‘이브의 사랑’ 차건우역 “수술받고 복귀했는데…”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628494  
본문: 윤종화 척수암<br/><br/>윤종화 척수암 ‘이브의 사랑’ 차건우역 “수술받고 복귀했는데…”<br/><br/>배우 윤종화(36)가 척수암 진단을 받고 MBC TV 아침극 ‘이브의 사랑’에서 하차했다.<br/><br/>윤종화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5일 “윤종화 씨가 지난달 병원에서 척수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화 씨는 수술 후 4일 만에 촬영장에 복귀했지만, 최근 제작진과 상의 끝에 드라마의 전개상 무리가 없는 지점에 맞춰 이번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br/><br/>윤종화는 ‘이브의 사랑’에서 조연인 차건우 역을 맡고 있다. 소속사는 “윤종화 씨는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며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전하며, 윤종화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r/><br/>2005년 MBC ‘사랑찬가’로 데뷔한 윤종화는 ‘메이퀸’ ‘공주의 남자’ ‘따뜻한 말 한마디’ 등에 출연했다. 윤현진 SBS 아나운서가 누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5.txt

제목: 치사율 16.1%,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사율 계속 상승 왜?”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627890  
본문: 치사율 16.1%<br/><br/>치사율 16.1%,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사율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어 치명률도 상승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해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치명률은 16.1%(확진 환자 180명·사망 29명)다. <br/><br/>18일 기준 유럽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한 메르스의 전 세계 치명률 38.4%보다는 낮지만 전문가들의 초기 예상치인 10% 안팎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이달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사망 사례는 계속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국내 메르스 사망자 29명 중 27명(93.1%)은 암, 폐·심장·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고령인 위험군이었다. 다른 2명은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 중에서는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9명, 80대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사망자가 4명, 40대 사망자도 1명이 있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8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인 180번(55) 환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 143번(31)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br/><br/>180번 환자는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1인실에 입원해 모니터링 중이었다. 45번(65)·173번(70·여) 환자가 2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16.1%로 올라갔다.<br/><br/>이날 사망자 중에서 특히 173번 환자는 지난 5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지만 방역 당국의 통제망에서 빠져 있었다. 10일 증상이 발현됐지만 방역 당국은 9일이 지난 18일까지 이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등 4곳의 병원과 한의원 1곳, 4곳의 약국 등 서울 강동구 일대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단감염의 우려를 낳으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방역 당국은 173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이 환자와 접촉하고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r/><br/>15번(35)·72번(56), 78번(41·여), 97번(46), 114번(46), 126번(여70), 153번(61) 환자 등 7명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퇴원했다. 이로써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는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br/><br/>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15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격리대상자는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고 격리해제자는 461명이 늘어난 1만 1936명으로 집계됐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6.txt

제목: 임용택·박영민 교수 공동연구팀 ‘암 면역력 증강 나노복합체’ 개발  
날짜: 20150626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609659  
본문: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다. 암 치료에는 외과수술, 약물 치료, 방사선 요법 등이 이용된다. 이 중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탈모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임용택 교수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박영민 교수 공동연구팀은 기존 항암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체내 면역력을 높여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나노복합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 ‘앙게반테 케미’ 온라인 최신호에 실렸다. 이전에도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면역치료법은 있었지만 면역세포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분해돼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에 착안해 세포의 면역치료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CpG ODN’에 ‘히알루론산’과 ‘폴리엘라이신’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결합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면역세포까지 분해되지 않고 전달돼 환자의 면역능력을 높이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7.txt

제목: “살아야만 했다” 유방암 여성의 감동 누드화보  
날짜: 20150625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308713  
본문: 유방암을 극복한 여성들이 자신의 상처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br/>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사진작가 나탈리 맥케인과 평범한 여성들이 모여 ‘어니스트 바디 프로젝트’(The Honest Body Project)를 펼쳤다.<br/>이 프로젝트에는 과거 유방암을 앓다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 가슴에 큰 상처가 있거나 출산 후 뱃살이 늘어지고 살이 찐 몸매가 된 평범한 여성들이 다수 참여했다.<br/>두 아이의 엄마인 제니퍼는 유방암을 이겨낸 여성이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양쪽 유방을 절제한 뒤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상처가 고스란히 보이는 가슴을 모두 내보이고 카메라 앞에 섰다.<br/>아이를 낳은 뒤 뱃살이 쳐지고 늘어진 다른 여성들 역시 짧은 속옷만 입은 채 아이들과 함께 화보를 촬영했다.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때로는 살아남은 기쁨을 아이들과 나누는 등 따뜻한 모습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이 모든 사진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다. <br/>제니퍼는 허핑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모든 사진들이 마치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았다”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11살, 5살 된 아들 둘이 자라는 것을 봐야만 했다. 유방절제보다 더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는 암을 이기기 위해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br/>그녀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유방암을 앓는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br/>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진작가 나탈리 맥케인은 다음 세대의 어린 소녀들에게 ‘진짜 여성’이 무엇이지 보여주고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br/>맥케인은 “제니퍼의 이야기는 내게 긍정과 희망을 갖게 했다. 제니퍼와 그녀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쳤으며, 이것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더 많은 여성들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8.txt

제목: 윤종화 척수암 “수술 4일 만에 촬영장 복귀했지만…” 누군가 했더니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430326  
본문: 윤종화 척수암<br/><br/>윤종화 척수암 “수술 4일 만에 촬영장 복귀했지만…” 누군가 했더니<br/><br/>배우 윤종화(36)가 척수암 진단을 받고 MBC TV 아침극 ‘이브의 사랑’에서 하차했다.<br/><br/>윤종화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5일 “윤종화 씨가 지난달 병원에서 척수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화 씨는 수술 후 4일 만에 촬영장에 복귀했지만, 최근 제작진과 상의 끝에 드라마의 전개상 무리가 없는 지점에 맞춰 이번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br/><br/>윤종화는 ‘이브의 사랑’에서 조연인 차건우 역을 맡고 있다. 소속사는 “윤종화 씨는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며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전하며, 윤종화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r/><br/>2005년 MBC ‘사랑찬가’로 데뷔한 윤종화는 ‘메이퀸’ ‘공주의 남자’ ‘따뜻한 말 한마디’ 등에 출연했다. 윤현진 SBS 아나운서가 누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19.txt

제목: 치사율 16.1%,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사율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405411  
본문: 치사율 16.1%<br/><br/>치사율 16.1%,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사율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어 치명률도 상승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해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치명률은 16.1%(확진 환자 180명·사망 29명)다. <br/><br/>18일 기준 유럽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한 메르스의 전 세계 치명률 38.4%보다는 낮지만 전문가들의 초기 예상치인 10% 안팎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이달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사망 사례는 계속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국내 메르스 사망자 29명 중 27명(93.1%)은 암, 폐·심장·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고령인 위험군이었다. 다른 2명은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 중에서는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9명, 80대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사망자가 4명, 40대 사망자도 1명이 있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8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인 180번(55) 환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 143번(31)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br/><br/>180번 환자는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1인실에 입원해 모니터링 중이었다. 45번(65)·173번(70·여) 환자가 2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16.1%로 올라갔다.<br/><br/>이날 사망자 중에서 특히 173번 환자는 지난 5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지만 방역 당국의 통제망에서 빠져 있었다. 10일 증상이 발현됐지만 방역 당국은 9일이 지난 18일까지 이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등 4곳의 병원과 한의원 1곳, 4곳의 약국 등 서울 강동구 일대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단감염의 우려를 낳으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방역 당국은 173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이 환자와 접촉하고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r/><br/>15번(35)·72번(56), 78번(41·여), 97번(46), 114번(46), 126번(여70), 153번(61) 환자 등 7명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퇴원했다. 이로써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는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br/><br/>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15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격리대상자는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고 격리해제자는 461명이 늘어난 1만 1936명으로 집계됐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0.txt

제목: 치사율 16.1%,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명률 상승 이유는?”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335335  
본문: 치사율 16.1%<br/><br/>치사율 16.1%,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명률 상승 이유는?”<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어 치명률도 상승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해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치명률은 16.1%(확진 환자 180명·사망 29명)다. <br/><br/>18일 기준 유럽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한 메르스의 전 세계 치명률 38.4%보다는 낮지만 전문가들의 초기 예상치인 10% 안팎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이달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사망 사례는 계속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국내 메르스 사망자 29명 중 27명(93.1%)은 암, 폐·심장·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고령인 위험군이었다. 다른 2명은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 중에서는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9명, 80대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사망자가 4명, 40대 사망자도 1명이 있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8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인 180번(55) 환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 143번(31)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br/><br/>180번 환자는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1인실에 입원해 모니터링 중이었다. 45번(65)·173번(70·여) 환자가 2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16.1%로 올라갔다.<br/><br/>이날 사망자 중에서 특히 173번 환자는 지난 5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지만 방역 당국의 통제망에서 빠져 있었다. 10일 증상이 발현됐지만 방역 당국은 9일이 지난 18일까지 이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등 4곳의 병원과 한의원 1곳, 4곳의 약국 등 서울 강동구 일대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단감염의 우려를 낳으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방역 당국은 173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이 환자와 접촉하고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r/><br/>15번(35)·72번(56), 78번(41·여), 97번(46), 114번(46), 126번(여70), 153번(61) 환자 등 7명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퇴원했다. 이로써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는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br/><br/>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15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격리대상자는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고 격리해제자는 461명이 늘어난 1만 1936명으로 집계됐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1.txt

제목: 치사율 16.1%,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사망자 특징은?”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321306  
본문: 치사율 16.1%<br/><br/>치사율 16.1%,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사망자 특징은?”<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어 치명률도 상승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해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치명률은 16.1%(확진 환자 180명·사망 29명)다. <br/><br/>18일 기준 유럽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한 메르스의 전 세계 치명률 38.4%보다는 낮지만 전문가들의 초기 예상치인 10% 안팎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이달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사망 사례는 계속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국내 메르스 사망자 29명 중 27명(93.1%)은 암, 폐·심장·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고령인 위험군이었다. 다른 2명은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 중에서는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9명, 80대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사망자가 4명, 40대 사망자도 1명이 있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8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인 180번(55) 환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 143번(31)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br/><br/>180번 환자는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1인실에 입원해 모니터링 중이었다. 45번(65)·173번(70·여) 환자가 2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16.1%로 올라갔다.<br/><br/>이날 사망자 중에서 특히 173번 환자는 지난 5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지만 방역 당국의 통제망에서 빠져 있었다. 10일 증상이 발현됐지만 방역 당국은 9일이 지난 18일까지 이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등 4곳의 병원과 한의원 1곳, 4곳의 약국 등 서울 강동구 일대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단감염의 우려를 낳으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방역 당국은 173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이 환자와 접촉하고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r/><br/>15번(35)·72번(56), 78번(41·여), 97번(46), 114번(46), 126번(여70), 153번(61) 환자 등 7명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퇴원했다. 이로써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는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br/><br/>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15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격리대상자는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고 격리해제자는 461명이 늘어난 1만 1936명으로 집계됐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2.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명률 16.1%” 세계 치명률과 비교하면?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303921  
본문: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br/><br/>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명률 16.1%” 세계 치명률과 비교하면?<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어 치명률도 상승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해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치명률은 16.1%(확진 환자 180명·사망 29명)다. <br/><br/>18일 기준 유럽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한 메르스의 전 세계 치명률 38.4%보다는 낮지만 전문가들의 초기 예상치인 10% 안팎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이달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사망 사례는 계속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국내 메르스 사망자 29명 중 27명(93.1%)은 암, 폐·심장·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고령인 위험군이었다. 다른 2명은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 중에서는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9명, 80대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사망자가 4명, 40대 사망자도 1명이 있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8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인 180번(55) 환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 143번(31)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br/><br/>180번 환자는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1인실에 입원해 모니터링 중이었다. 45번(65)·173번(70·여) 환자가 2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16.1%로 올라갔다.<br/><br/>이날 사망자 중에서 특히 173번 환자는 지난 5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지만 방역 당국의 통제망에서 빠져 있었다. 10일 증상이 발현됐지만 방역 당국은 9일이 지난 18일까지 이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등 4곳의 병원과 한의원 1곳, 4곳의 약국 등 서울 강동구 일대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단감염의 우려를 낳으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방역 당국은 173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이 환자와 접촉하고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r/><br/>15번(35)·72번(56), 78번(41·여), 97번(46), 114번(46), 126번(여70), 153번(61) 환자 등 7명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퇴원했다. 이로써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는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br/><br/>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15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격리대상자는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고 격리해제자는 461명이 늘어난 1만 1936명으로 집계됐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3.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명률 16.1%” 사망자 특징은?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5233496  
본문: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 29명 “치명률 16.1%” 사망자 특징은?<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어 치명률도 상승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 환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해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치명률은 16.1%(확진 환자 180명·사망 29명)다. <br/><br/>18일 기준 유럽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한 메르스의 전 세계 치명률 38.4%보다는 낮지만 전문가들의 초기 예상치인 10% 안팎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이달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사망 사례는 계속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국내 메르스 사망자 29명 중 27명(93.1%)은 암, 폐·심장·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고령인 위험군이었다. 다른 2명은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 중에서는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9명, 80대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사망자가 4명, 40대 사망자도 1명이 있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8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인 180번(55) 환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 143번(31)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br/><br/>180번 환자는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1인실에 입원해 모니터링 중이었다. 45번(65)·173번(70·여) 환자가 2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16.1%로 올라갔다.<br/><br/>이날 사망자 중에서 특히 173번 환자는 지난 5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지만 방역 당국의 통제망에서 빠져 있었다. 10일 증상이 발현됐지만 방역 당국은 9일이 지난 18일까지 이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등 4곳의 병원과 한의원 1곳, 4곳의 약국 등 서울 강동구 일대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단감염의 우려를 낳으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방역 당국은 173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이 환자와 접촉하고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r/><br/>15번(35)·72번(56), 78번(41·여), 97번(46), 114번(46), 126번(여70), 153번(61) 환자 등 7명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퇴원했다. 이로써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는 남성이 40명(54.1%), 여성이 34명(45.9%)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0명(27%), 50대 17명(23%), 30대·60대 각각 11명(14.9%), 70대 9명(12.2%), 20대 5명(6.8%), 10대 1명(1.4%)이다.<br/><br/>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15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격리대상자는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고 격리해제자는 461명이 늘어난 1만 1936명으로 집계됐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4.txt

제목: ‘후~’ 호흡만으로도 암 진단 가능한 기기 개발  
날짜: 2015062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211159  
본문: 사망위험이 높은 암을 ‘후~’ 호흡 만으로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23일 보도했다.<br/>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소속 과학자들은 마치 음주측정기처럼 호흡을 불어넣기만 해도 사망위험이 높은 위암과 식도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br/>사용자들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를 끝마칠 수 있다. 내시경 검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된다. 게다가 통상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결과를 기다리는데에 수 일이 필요했던 반면, 이 기기를 이용하면 최대 6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의료진은 불필요한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최초 진단 환자에 대해 악성인지 양성 종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도는 90%에 달한다.<br/>이 기기는 환자가 내쉰 숨을 특수 저장용기에 담은 뒤, 센서가 환자의 호흡에서 방출된 암과 관련한 유기적 화합물을 측정하는 원리다. <br/>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소는 이미 2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확도를 시험했으며, 런던의 대형 병원 3곳에서 대규모 임상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br/>연구를 이끈 조지 한나 교수는 “이 기기가 판명해내는 위암과 식도암은 전체 암의 15%를 차지한다. 영국에서만 매년 1만 6000명이 식도암 판정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의학으로는 암 진단을 받는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이는 결국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생존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br/>미국에서는 2012년 호흡을 통해 유방암을 측정하는 암 호흡측정기가 개발된 바 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외과분야 최고권위 학술지인 ‘외과연보‘(Annals of Surgery)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5.txt

제목: 노경은 모친상…“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SNS에 남긴 한마디 ‘뭉클’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605061  
본문: ‘노경은 모친상’<br/><br/>노경은 모친상 소식이 전해졌다.<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노경은의 어머니는 22일 증세가 위독해졌고 결국 23일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층 5호실이다. 25일 오전 발인할 예정이다.<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귀를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6.txt

제목: 노경은 모친상,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SNS 글 보니 ‘울컥’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56992  
본문: 노경은 모친상, “엄마 이젠 아프지 마세요” SNS 글 보니 ‘울컥’<br/><br/>‘두산 노경은 모친상’<br/><br/>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전이가 돼 증세가 위독해졌고, 결국 23일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층 5호실이다. 25일 오전 발인할 예정이다.<br/><br/>한편 모친상을 당한 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7.txt

제목: 노경은 모친상,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팬들 가슴 울린 한마디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601431  
본문: 노경은 모친상, “엄마 이젠 아프지 마세요” 팬들 가슴 울린 한마디<br/><br/>‘두산 노경은 모친상’<br/><br/>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전이가 돼 증세가 위독해졌고, 결국 23일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층 5호실이다. 25일 오전 발인할 예정이다.<br/><br/>한편 모친상을 당한 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8.txt

제목: 노경은 두산베어스 투수, 모친상 당해.. “이젠 아프지 마세요”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39339  
본문: 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29.txt

제목: 두산베어스 노경은 모친상, “이젠 아프지 마세요” 울컥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30078  
본문: 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0.txt

제목: 두산베어스 노경은 투수, 모친상 당해.. SNS 글 봤더니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32660  
본문: 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1.txt

제목: 노경은 모친상…“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SNS에 남긴 한마디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35626  
본문: ‘노경은 모친상’<br/><br/>노경은 모친상 소식이 전해졌다.<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노경은의 어머니는 22일 증세가 위독해졌고 결국 23일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층 5호실이다. 25일 오전 발인할 예정이다.<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귀를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2.txt

제목: 두산베어스 투수 노경은 모친상, “엄마 이제 아프지 마세요” 뭉클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22992  
본문: 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3.txt

제목: 두산베어스 투수 노경은, 모친상 당해.. ‘SNS글 봤더니..’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17457  
본문: 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4.txt

제목: 두산베어스 투수 노경은, 모친상 당해.. ‘SNS 남긴 글은?’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20730  
본문: 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5.txt

제목: 두산베어스 노경은 모친상, “엄마 이젠 아프지 마세요”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15227  
본문: 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6.txt

제목: 노경은 모친상, “엄마 이젠 아프지 마세요”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12015  
본문: 두산 베어스 투수 노경은이 모친상을 당했다. <br/><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모친상을 당한 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더팩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7.txt

제목: 노경은 모친상…SNS에 남긴 한마디 팬들 가슴 울려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509117  
본문: ‘노경은 모친상’<br/><br/>노경은 모친상 소식이 전해졌다.<br/>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경은의 어머니 전기순씨가 암 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방암 투병 도중 최근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br/>노경은의 어머니는 22일 증세가 위독해졌고 결국 23일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층 5호실이다. 25일 오전 발인할 예정이다.<br/>노경은은 자신의 SNS에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글귀를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8.txt

제목: 비만 때문에?...’남성 유방암’이 늘고있다  
날짜: 20150623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137204  
본문: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물론 여성 유방암보다 그 빈도가 아주 낮아서 전체 유방암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생길 수 있다. 남성 역시 빈약하지만 유방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r/>남성 유방암의 주요 위험 인자는 과도한 음주, 호르몬 이상, 방사선 노출, 유전자 이상 등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체중과 비만 역시 위험인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 남성 유방암이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br/>미국 국립 암 역학 조사(National Cancer Institute’s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EER))에 의하면 1973년에서 1998년 사이 남성 유방암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0.86에서 1.06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br/>최근 미국 리즈 대학(University of Leeds)의 연구팀은 드문 암인 남성 유방암이 증가하는 원인이 아마도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저널 BMC Medicine에 발표했다.<br/>리즈 의과대학의 스페어 교수(Professor Speirs)는 지방 세포가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젠 같은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지방 세포가 많으면 여성 호르몬의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이전 연구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BMI)가 25가 넘는 남성에서 혈중 여성 호르몬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다. <br/>여기에 남성 유방암 환자의 90%에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발달해 있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 유방암세포가 자극을 받아 성장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br/>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여러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도 비만이 남성 유방암의 위험 인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비만이 있는 경우 남성 유방암의 위험도는 3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br/>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증가한 것이 남성 유방암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추정이 옳다면 비만 인구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남성 유방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br/>연구팀은 남성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식단과 적정 체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족 중에 유방암을 잘 일으키는 유전자인 BRCA 변이가 있는 경우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r/>사진=포토리아<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39.txt

제목: 팔에 링거 꽂은채 운전한 男…휴대폰 통화까지  
날짜: 20150623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134096  
본문: 한국에서 예상외로 높은 성적을 거둔 영화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에는 암에 걸린 ‘워보이’(니콜라스 홀트)가 혈액공급을 받기 위해 깨끗한 피를 가진 ‘피주머니’(톰 하디)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는 장면이 나온다.<br/>최근 중국에서 ‘피주머니’는 아니지만 팔에 링거주사를 꽂은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황당함을 안겼다.<br/>중신망 등 현지 언론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오전 8시경, 랴오닝성 션양시(市)와 하이난성 하이커우시(市)를 잇는 션하이고속도로에서 단속을 하던 교통경찰은 이상한 ‘낌새’의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br/>승용차를 세운 뒤 가까이 다가간 경찰은 황당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젊은 남성 운전자가 운전석 차창 밖으로 링거를 내놓은 채 운전하고 있었던 것.<br/>이 남성은 한 손으로 주사가 연결된 링거의 막대를 잡고 링거를 차창 밖으로 꺼내 높이 들었다. 당시 링거 주사가 연결된 손은 오른손이었으며 왼손으로는 링거 막대를, 오른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br/>조사 결과 운전자 우(吳)씨는 치료를 받던 중 링거를 매단 채로 고속도로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링거 주머니’를 매단 채 시속 80㎞로 운전하고 있었다.<br/>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그가 링거 막대를 잡은 왼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전화통화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br/>경찰이 제지하자 우씨는 “별 것 아니다”라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br/>경찰은 우씨에게 현지 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전화사용에 대한 벌금 50위안, 링거를 맞으며 위험 운전을 한 것에 대한 벌금 100위안 등 총 150위안(2만 7000원)의 벌금 및 벌점을 부과했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0.txt

제목: 지구 보호막 ‘자기장’ 약화… “암 발병률 높아질수도”  
날짜: 20150623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107946  
본문: 위협적인 우주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br/>유럽우주기구(이하 ESA)는 2010년 지구 자기장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인공위성 ‘스웜’(Swarm)을 발사했다. 총 3개의 우주선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구를 얇게 감싸고 있는 보호막과 같은 자기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세력이 약해지면서 지구 통신망뿐만 아니라 날씨의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지구의 자기장은 지표면에서 60만㎞ 떨어진 곳까지 확장돼 태양에서부터 불어오는 방사선 즉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와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구의 고위도 지역에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역시 지구 자기장 때문이다.<br/>그러나 ESA 발표에 따르면 지구 자기장은 10년에 5%의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이전까지 100년에 5% 정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태양 자기장이 약해지면 지구의 각종 통신장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태양풍의 영향으로 대기권 성질이 변하면서 이상기온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br/>스웜 미션을 이끄는 ESA의 룬 플로버그하겐 박사는 “인공위성 ‘스웜’은 지구 핵과 표토, 지각, 바다 등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기 다른 자기장의 신호를 분석‧측정해 왔다.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외핵에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br/>이어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관측하는 ‘스웜’의 미션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발생할 지구 자기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br/>지구 자기장이 약화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자기장 약화로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을 막기 힘들어지면서 암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자기장 약화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고 다시 지구로 흘러들어가는 지구자기의 남극과 북극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br/>한편 ‘스윔’ 미션과 지구 자기장 약화를 다룬 이번 연구결과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체코에서 개막한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합 연례 총회에서 발표됐으며, ‘지구물리학 연구서’(Geophysical Research Letter)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1.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사망자 2명 늘어..메르스 현황 보니 ‘전체환자 172명+사망자 27명’  
날짜: 2015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005277  
본문: 메르스 환자 3명·사망자 2명 늘어..메르스 현황 보니 ‘전체환자 172명+사망자 27명’<br/>‘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br/>메르스 환자 현황이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메르스 환자 현황은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총 환자수 172명, 사망자 수 27명이다.<br/>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 환자가 됐다.<br/>새롭게 추가된 170번 환자(77)는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바 있다. 또 171번 환자(60·여)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 환자는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아 관심을 모았다. 또 다른 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으로 확인됐다. <br/>이날 메르스 환자 3명이 추가돼 전체 환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 및 내원한 환자 80명(46.5%)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 33명(19.2%) 순이다. <br/>또 사망자는 2명 늘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났다. 101번(84) 환자가 21일, 128번(97) 환자가 22일 각각 숨졌다. <br/>101번은 삼성서울병원,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였다. 두 환자 모두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치명률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15.7% 수준이다. <br/>연령별로 사망자를 집계하면 △60 9명(33.3%) △70대 8명(29.6%) △80대 5명(18.5%) △50대 4명(14.8%) △40대 1명(3.7%) 순이다. <br/>메르스가 완치된 사람은 모두 7명. 67번(16), 22번(39·여), 49번(75), 55번(36), 68번(55·여), 130번(65·여), 144번(71) 환자가 완치됐다. 이중 10대 환자였던 67번 환자는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br/>현재까지 퇴원자는 모두 50명으로 파악됐다. 격리 대상자 수는 전날(4035명)보다 202명(5.0%) 줄어든 3833명이다.<br/>메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격리됐다가 최대 잠복기(14일)을 지나도록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일상생활로 복귀한 격리 해제자는 519명이 늘어 모두 9331명으로 집계됐다. <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또 늘어났네</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메르스 현황 보면 갑갑하다</span>”, “<span class='quot0'>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메르스 현황 언제쯤 늘어나지 않을까</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서울신문DB(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메르스 현황)<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2.txt

제목: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사망자 2명 늘어 ‘안정세 인 줄 알았는데..’  
날짜: 2015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4002088  
본문: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br/><br/>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일일 현황에 따르면 확진자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현재(22일 오전6시기준)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 보다 3명 늘어난 172명이라고 밝혔다.<br/><br/>메르스 현황을 살펴보면 퇴원자는 50명(29.1%)으로 7명 늘었고, 사망자는 27명(15.7%)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95명(55.2%)으로 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신규 확진자는 3명 증가 했으며, 170번째 확진자는 76번째 확진자와 6월6일 건국대학교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고, 171번째 확진자는 5.27~5.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172번째 확진자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으로 알려졌다.<br/><br/>신규 퇴원자는 확진자 중 유일한 10대인 67번째(남, 16세) 확진자를 비롯해 22번째(여, 39세), 49번째(남, 75세), 55번째(남, 36세), 68번째(여, 55세), 130번째(여, 65세), 144번째(남, 71세) 확진자 등 7명이 6.20~6.21일 퇴원하여 전체 퇴원자는 총 50명으로 늘어났다.<br/><br/>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어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br/><br/>사망자 소식도 들려왔다. 사망자는 기존 확진자 중 101번째(남, 84세, 암), 128번째(남, 87세, 심방세동/심부전/암/뇌졸중) 확진자가 6.21일 및 6.22일 새벽 사망하여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br/><br/>확진자 172명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병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80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문병 등 방문객이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3명(19.2%)으로 나타났다.<br/><br/>격리 및 해제 현황으로는 6월22일 06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3,833명으로 전날보다 202명(5.0%) 줄었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9,331명으로 하루 동안 519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br/><br/>또한 전체 격리자(3,833명) 가운데 자가 격리자는 3,048명으로 248명(7.5%) 줄었고, 병원 격리자는 46명(6.2%) 늘어난 785명으로 집계됐다.<br/><br/>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br/><br/>사진 = 서울신문DB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3.txt

제목: “5살 제이슨은 없지만 소아암 친구 도울 ‘스파이더맨’ 영상...”  
날짜: 20150622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054216  
본문: 작년 11월, 영국 남성 마이크 윌슨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5살 아들 제이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스파이더맨을 연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여러 네티즌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br/>영상에는 마이크가 현관 앞 지붕에서 뛰어내려 제이든 앞에 나타나 진짜 스파이더맨이 찾아온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며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영상을 시청한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제이든은 결국 영상 공개 이후 겨우 한 달 뒤인 크리스마스이브에 세상을 떠났다.<br/>이렇듯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마이크가 이번에는 먼저 간 제이든을 기리는 동시에 다른 소아암 환자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영상을 내놓아 다시금 많은 이의 성원을 얻고 있다.<br/>이 영상은 원래 제이든만의 ‘1인 시사회’를 위해 기획했던 한 편의 단편영화다. 화려한 특수효과, 공들여 찍은 1인칭 카메라 워킹 등을 통해 제이든을 향한 마이크의 노력과 애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다.<br/>안타깝게도 제이든은 영화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마이크는 인터넷 지인들의 도움과 네티즌 모금을 통해 끝내 촬영을 완료해 지난 13일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br/>마이크와 제작진은 “우리가 아는 가장 용감했던 아이 제이든을 기리며. 그리고 제이든에게 큰 도움을 줬던 소아암환자 전문 병원 ‘나오미 하우스’를 널리 알리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 시청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나오미 하우스 측에 전액 기부된다.<br/>다음 링크에서 마이크의 영상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br/>https://youtu.be/I5E9-jNELjE<br/>사진=ⓒ유튜브/Mike Wilson 3RUN<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4.txt

제목: 범죄·소음 많은 지역 살면 ‘빨리 늙는다’ - 연구  
날짜: 2015062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1022627  
본문: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범죄와 소음, 공공기물 파손 행위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10세 이상 많을 수 있다고 미국 피츠버그대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등 국제 연구팀이 발표했다.<br/>연구를 이끈 피츠버그대의 박미정 박사(간호대학원 조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빈곤 지역에 사는 것은 심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런 환경은 또 세포의 건강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겼고,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 과정이 사회경제학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아냈다</span>”고 말했다.<br/>연구팀은 염색체의 ‘텔로미어’에 초점을 맞췄다. 텔로미어는 구두끈 끝을 풀어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싸매는 것처럼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분이다. 이 말단부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점점 풀리면서 그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며 그에 따라 세포는 점점 노화돼 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텔로미어의 길이로 생물학적 나이는 물론 기대수명까지 추정할 수 있다.<br/>박미정 조교수는 “<span class='quot1'>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은 암과 불안증, 우울증 등 생물학적 혹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가속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는 ‘네덜란드 우울증·불안 연구’(NESDA)에 참여한 네덜란드인 가운데 암스테르담 거주민 29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br/>연구팀은 이들의 혈액에서 백혈구를 분리한 뒤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했으며 이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br/>그 결과, 주거 환경이 나쁜 참가자의 텔로미어 길이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현저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br/>이에 대해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두 그룹에서 텔로미어의 길이 차이는 실제 나이로 12살 차이에 필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의 세포는 사회경제적·정치적·감정적으로 불리한 환경 아래에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만성적으로 활성화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6월 17일자)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5.txt

제목: 메르스 현황, 환자 3명·사망자 2명 늘어..메르스 진정 국면이라더니..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727971  
본문: 메르스 현황<br/><br/>메르스 환자 현황이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메르스 환자 현황은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총 환자수 172명, 사망자 수 27명이다.<br/>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 환자가 됐다.<br/>새롭게 추가된 170번 환자(77)는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바 있다. 또 171번 환자(60·여)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 환자는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아 관심을 모았다. 또 다른 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으로 확인됐다. <br/>이날 메르스 환자 3명이 추가돼 전체 환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 및 내원한 환자 80명(46.5%)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 33명(19.2%) 순이다. <br/>또 사망자는 2명 늘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났다. 101번(84) 환자가 21일, 128번(97) 환자가 22일 각각 숨졌다. <br/>101번은 삼성서울병원,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였다. 두 환자 모두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치명률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15.7% 수준이다. <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6.txt

제목: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도대체 언제까지?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731610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일일 현황에 따르면 확진자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현재(22일 오전6시기준)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 보다 3명 늘어난 172명이라고 밝혔다.<br/><br/>메르스 현황을 살펴보면 퇴원자는 50명(29.1%)으로 7명 늘었고, 사망자는 27명(15.7%)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95명(55.2%)으로 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신규 확진자는 3명 증가 했으며, 170번째 확진자는 76번째 확진자와 6월6일 건국대학교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고, 171번째 확진자는 5.27~5.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172번째 확진자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으로 알려졌다.<br/><br/>신규 퇴원자는 확진자 중 유일한 10대인 67번째(남, 16세) 확진자를 비롯해 22번째(여, 39세), 49번째(남, 75세), 55번째(남, 36세), 68번째(여, 55세), 130번째(여, 65세), 144번째(남, 71세) 확진자 등 7명이 6.20~6.21일 퇴원하여 전체 퇴원자는 총 50명으로 늘어났다.<br/><br/>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어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br/><br/>신규 사망자 소식도 들려왔다. 신규 사망자는 기존 확진자 중 101번째(남, 84세, 암), 128번째(남, 87세, 심방세동/심부전/암/뇌졸중) 확진자가 6.21일 및 6.22일 새벽 사망하여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7.txt

제목: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사망자는?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703360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일일 현황에 따르면 확진자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현재(22일 오전6시기준)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 보다 3명 늘어난 172명이라고 밝혔다.<br/><br/>메르스 현황을 살펴보면 퇴원자는 50명(29.1%)으로 7명 늘었고, 사망자는 27명(15.7%)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95명(55.2%)으로 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신규 확진자는 3명 증가 했으며, 170번째 확진자는 76번째 확진자와 6월6일 건국대학교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고, 171번째 확진자는 5.27~5.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172번째 확진자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으로 알려졌다.<br/><br/>신규 퇴원자는 확진자 중 유일한 10대인 67번째(남, 16세) 확진자를 비롯해 22번째(여, 39세), 49번째(남, 75세), 55번째(남, 36세), 68번째(여, 55세), 130번째(여, 65세), 144번째(남, 71세) 확진자 등 7명이 6.20~6.21일 퇴원하여 전체 퇴원자는 총 50명으로 늘어났다.<br/><br/>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어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br/><br/>신규 사망자 소식도 들려왔다. 신규 사망자는 기존 확진자 중 101번째(남, 84세, 암), 128번째(남, 87세, 심방세동/심부전/암/뇌졸중) 확진자가 6.21일 및 6.22일 새벽 사망하여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8.txt

제목: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사망자 2명 늘어..전체 환자수 보니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655093  
본문: 메르스 환자 현황이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메르스 환자 현황은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총 환자수 172명, 사망자 수 27명이다.<br/>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 환자가 됐다.<br/>새롭게 추가된 170번 환자(77)는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바 있다. 또 171번 환자(60·여)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 환자는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아 관심을 모았다. 또 다른 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으로 확인됐다. <br/>이날 메르스 환자 3명이 추가돼 전체 환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 및 내원한 환자 80명(46.5%)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 33명(19.2%) 순이다. <br/>또 사망자는 2명 늘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났다. 101번(84) 환자가 21일, 128번(97) 환자가 22일 각각 숨졌다. <br/>101번은 삼성서울병원,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였다. 두 환자 모두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치명률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15.7% 수준이다. <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49.txt

제목: 메르스 현재 현황, 메르스 환자 3명+사망자 2명..충격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651920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일일 현황에 따르면 확진자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현재(22일 오전6시기준)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 보다 3명 늘어난 172명이라고 밝혔다.<br/><br/>메르스 현황을 살펴보면 퇴원자는 50명(29.1%)으로 7명 늘었고, 사망자는 27명(15.7%)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95명(55.2%)으로 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신규 확진자는 3명 증가 했으며, 170번째 확진자는 76번째 확진자와 6월6일 건국대학교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고, 171번째 확진자는 5.27~5.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172번째 확진자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으로 알려졌다.<br/><br/>신규 퇴원자는 확진자 중 유일한 10대인 67번째(남, 16세) 확진자를 비롯해 22번째(여, 39세), 49번째(남, 75세), 55번째(남, 36세), 68번째(여, 55세), 130번째(여, 65세), 144번째(남, 71세) 확진자 등 7명이 6.20~6.21일 퇴원하여 전체 퇴원자는 총 50명으로 늘어났다.<br/><br/>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어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br/><br/>신규 사망자 소식도 들려왔다. 신규 사망자는 기존 확진자 중 101번째(남, 84세, 암), 128번째(남, 87세, 심방세동/심부전/암/뇌졸중) 확진자가 6.21일 및 6.22일 새벽 사망하여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0.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진정세 인 줄 알았더니..’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535074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진정세 들어서는 것 같더니..’<br/><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br/><br/>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br/><br/>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께 사망했다고 밝혔다.<br/><br/>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br/><br/>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br/><br/>사진 = 서울신문DB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1.txt

제목: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사망자 2명 늘어..‘전체환자 172명 사망자 27명’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533069  
본문: 메르스 환자 현황이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메르스 환자 현황은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총 환자수 172명, 사망자 수 27명이다.<br/>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 환자가 됐다.<br/>새롭게 추가된 170번 환자(77)는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바 있다. 또 171번 환자(60·여)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 환자는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아 관심을 모았다. 또 다른 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으로 확인됐다. <br/>이날 메르스 환자 3명이 추가돼 전체 환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 및 내원한 환자 80명(46.5%)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 33명(19.2%) 순이다. <br/>또 사망자는 2명 늘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났다. 101번(84) 환자가 21일, 128번(97) 환자가 22일 각각 숨졌다. <br/>101번은 삼성서울병원,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였다. 두 환자 모두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치명률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15.7% 수준이다. <br/>현재까지 퇴원자는 모두 50명으로 파악됐다. 격리 대상자 수는 전날(4035명)보다 202명(5.0%) 줄어든 3833명이다.<br/>메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격리됐다가 최대 잠복기(14일)을 지나도록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일상생활로 복귀한 격리 해제자는 519명이 늘어 모두 9331명으로 집계됐다. <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2.txt

제목: “스트레스 느낄 때 ‘긍정적 생각’으로 질병 막는다”  
날짜: 20150621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937599  
본문: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있어 큰 적이다.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로와 만성통증 등 작은 것부터 심장 질환과 암 등 심각한 것까지 신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매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br/>그런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을 ‘마음먹기’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팀이 스트레스를 ‘마음가짐’으로 잡는 방법과 ‘염증 반응’의 관계를 조사했다.<br/>연구팀은 미국의 중년 남녀 872명을 대상으로, 8일간 ​​매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려 했는지 등을 전화 상담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리고 매일 각자 지역병원을 통해 채혈하게 한 뒤 ‘인터류킨6’(IL-6)과 같은 염증반응 지표 수치를 조사했다.<br/>그 결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염증반응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의 다툼과 차별, 그리고 간접적인 것들이다.<br/>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염증반응 지표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br/>염증반응이 있다는 점은 다시 말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다.<br/>반대로 스트레스를 느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염증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br/>따라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질병을 멀리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결론지었다.<br/>스트레스가 겹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건강심리학 저널’(Journal Health Psychology) 최신호(6월 1일자)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3.txt

제목: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완치 판정자 특징은?”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334241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현황<br/><br/>[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완치 판정자 특징은?”<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4.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격리해제자 하루 만에 1162명 줄어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338211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br/><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격리해제자 하루 만에 1162명 줄어<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5.txt

제목: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추가 3명 누구에게 감염됐나?”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306615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현황<br/><br/>[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추가 3명 누구에게 감염됐나?”<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6.txt

제목: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격리 해제자 큰 폭으로 증가” 왜?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301595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현황<br/><br/>[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격리 해제자 큰 폭으로 증가” 왜?<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7.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환자 치명률 14.8%” 격리자 상황은?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257054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br/><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환자 치명률 14.8%” 격리자 상황은?<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8.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격리자 전날보다 1162명 감소” 왜?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247733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br/><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격리자 전날보다 1162명 감소” 왜?<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59.txt

제목: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격리자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감소”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249673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메르스 현황<br/><br/>[메르스 현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격리자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감소”<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0.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어떻게 감염됐나 보니”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239097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br/><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어떻게 감염됐나 보니”<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1.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확산세 꺾이나”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236554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br/><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확산세 꺾이나”<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2.txt

제목: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3232648  
본문: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br/><br/>메르스 환자 3명 늘어 169명,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br/><br/>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추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수는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br/><br/>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br/><br/>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br/><br/>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br/><br/>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br/><br/>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 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3.txt

제목: 365일 다이어트? 매달 5일 동안만!  
날짜: 20150620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2905208  
본문: 한 달에 5일만 날을 정해 연속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체지방을 줄이고 각종 성인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br/>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이탈리아 토리노대·제노바대 등 국제 연구진은 한 달에 5일 정도의 다이어트만으로도 체중 감량은 물론 당뇨·심혈관 질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의학 분야 권위지인 ‘셀 메타볼리즘’ 18일자에 실렸다.<br/><br/><br/>연구진은 12개월 된 젊은 생쥐와 24개월 된 나이 든 생쥐를 골랐다. 이 중 24개월짜리 생쥐 집단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한 달에 연속으로 4일씩 3개월 동안 저단백·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키고, 다른 한쪽은 전혀 다이어트를 시키지 않았다. 다이어트를 한 쥐들은 나흘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원하는 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br/><br/><br/>그 결과 다이어트를 한 24개월 생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체지방이 감소하고 암 발생 위험률도 45%나 낮아졌으며 혈당도 40%나 떨어졌다. 면역 체계가 강화돼 각종 염증성 질환 발생 비율도 낮아졌다. 뇌 기능도 활성화돼 두 종류의 미로에서 이뤄진 길 찾기 실험에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생쥐보다 빨리 길을 찾았다. 다이어트를 한 생쥐는 간세포와 일반 세포의 재생이 더 빠르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br/><br/><br/>연구팀은 주기적인 다이어트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이 직접 에너지바, 수프, 차, 크래커 등 하루 725~1090kcal 수준의 음식만 섭취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생쥐 실험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인 하루 영양 섭취량은 3036kcal에 이른다.<br/><br/><br/>서던캘리포니아대 발터 롱고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오랜 시간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간헐적인 다이어트만으로도 건강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4.txt

제목: 스트레스 느낄 때 ‘긍정적 생각’하면 질병 막을 수 있다 - 연구  
날짜: 20150619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856041  
본문: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있어 큰 적이다.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로와 만성통증 등 작은 것부터 심장 질환과 암 등 심각한 것까지 신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매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br/>그런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을 ‘마음먹기’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팀이 스트레스를 ‘마음가짐’으로 잡는 방법과 ‘염증 반응’의 관계를 조사했다.<br/>연구팀은 미국의 중년 남녀 872명을 대상으로, 8일간 ​​매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려 했는지 등을 전화 상담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리고 매일 각자 지역병원을 통해 채혈하게 한 뒤 ‘인터류킨6’(IL-6)과 같은 염증반응 지표 수치를 조사했다.<br/>그 결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염증반응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의 다툼과 차별, 그리고 간접적인 것들이다.<br/>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염증반응 지표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br/>염증반응이 있다는 점은 다시 말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다.<br/>반대로 스트레스를 느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염증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br/>따라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질병을 멀리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결론지었다.<br/>스트레스가 겹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건강심리학 저널’(Journal Health Psychology) 최신호(6월 1일자)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5.txt

제목: 수면제 주기적 복용, 폐암 발병률 높인다  
날짜: 20150619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851365  
본문: 전 세계 수 백 만명이 복용하는 수면제가 폐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와 학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br/>노르웨이공중보건학회(Norwegian Institute of Public Health)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면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사망위험이 높은 폐암에 노출될 확률이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연구진이 설명하는 ‘주기적’은 일주일에 적어도 2차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수면제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배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수면제를 3년 이상 복용하면 치명적인 암에 노출될 확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br/>연구진은 지난 20년간 추적조사를 한 결과 수면제를 복용하면 모든 종류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특히 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기관지 등 폐와 관련한 암의 위험이 눈에 띠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br/>이는 수면제에 든 특별한 성분이 암세포의 빠른 번식을 돕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면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양이 증가하는 것 역시 폐암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추측하고 있다.<br/>다만 수면제에 든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 등의 일부 주요 성분이 발암성분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r/>노르웨이공중보건학회 측은 “수면제가 사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 이미 20여 건 이상에 달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수면제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을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br/>2008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5.2%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성인 10명 중 1명이 의사로부터 수면제 처방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국내 전문가들은 수면제 계통 약을 복용하면 호흡기능이 이전보다 더 떨어지고 산소수치도 낮아지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심혈관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6.txt

제목: [나우! 지구촌] 암투병마저 함께 한 개와 남자...심금 울려  
날짜: 2015061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811236  
본문: 인류와 가장 오랜 친구인 개 사이에는 때때로 믿기 힘들 정도의 우정이 존재한다. 최근 미국에 사는 한 사진작가는 애완견과 나눈 끈끈한 우정과 가족애의 역사를 공개해 감동을 안겼다.<br/>미국 현지 언론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진작가인 벤 문(Ben Moon)은 16년 전인 1999년부터 애완견 ‘디나일’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문과 디나일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br/>최근 벤 문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은 디나일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4년간 함께 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함께 서핑을 즐기고, 캠핑을 하는 문과 디나일의 모습은 여느 가족보다 더욱 따뜻하고 단란해 보인다.<br/>이들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은 2004년 갑작스럽게 결장암 선고를 받은 뒤 수술 및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디나일은 병원의 허가를 받고 문의 병실에 함께 머물렀다. 문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디나일이 문과 함께 병원 침대에 나란히 누운 모습을 볼 수 있다.<br/>디나일에게 의지해 매일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문은 놀랍게도 결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디나일이 암 선고를 받았다. 이미 노쇠해진 디나일은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 점차 약해져만 갔다.<br/>문은 지난 해 암에 걸린 디나일을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지난 14년간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해 온 둘은 디나일이 가장 좋아했던 곳을 골라 여행을 시작한 것.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디나일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br/>문은 디나일과의 십 수 년을 기억하기 위해 그동안 찍은 사진들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에서 문은 가족과도 같은 디나일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영상은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한 필름페스티벌에서 상영돼 작품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br/>문은 이 영상에서 “친구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특히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지지해준 친구라면 더더욱 그렇다”며 여전히 디나일을 향한 우정과 가족애를 드러냈다.<br/>지난 10일 자신의 SNS에는 “이것은 매우 사적인 이야기”라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많은 분들과 공감해 준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7.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23명 확진자 165명 격리자 6729명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2239105  
본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8일 오전 “<span class='quot0'>메르스 사망자 23명, 확진자 165명, 격리자 6729명</span>”이라고 발표했다.<br/>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중 31번(69·남), 42번(54·여), 77번(64·남), 82번(82·여) 환자가 17일과 18일 새벽에 사망했다.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14%이다.<br/>31번 환자는 평소 결핵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42번 환자는 기관지 확장증을 받았으며 고혈압이 있다. 77번 환자는 고혈압·천식·괴사성 췌장염·복강 내 감염을 앓고 있었다. 82번 환자는 백내장 양안 수술을 받았다.<br/>이로써 메르스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중 남성이 16명(70%)으로, 여성(7명)의 2.3배 높았다. 60대가 8명(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0대 7명(30%), 50대 4명(17%), 80대 3명(13%), 40대 1명(4%) 순이다.<br/>사망자 23명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21명(91%)으로 나타났다.<br/>확진자 수는 전날 162명에서 3명 늘어난 165명이다. 추가된 환자 중 2명이 의료진이다. 전체 확진자 중 118명(72%)이 현재 치료 중인데, 17명의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8.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23명 확진자 165명, 감염 유형별 분류하니 ‘병원 입원+내원 환자’ 가장 위험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2104178  
본문: 메르스 사망자 23명 확진자 165명, 감염 유형별 분류하니 ‘병원 입원+내원 환자’ 가장 위험<br/><br/>메르스 사망자 23명 확진자 165명, 감염 유형별 분류하니 ‘병원 입원’ 가장 위험..<br/>‘메르스 사망자 23명, 확진자 165명’<br/>메르스 사망자 23명, 확진자가 165명이다.<br/>국내 메르스 확진자 중 4명이 추가로 사망해 메르스 사망자가 총 23명이 됐다. 확진자는 전날 162명에서 3명 늘어 총 165명이 됐으며 퇴원자는 5명 늘어 24명이 됐다. 격리자는 전날 6508명보다 221명 늘어 총 6729명이 됐다.<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8일 오전 “<span class='quot0'>메르스 사망자 23명, 확진자 165명, 격리자 6729명</span>”이라고 발표했다.<br/>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중 31번(69·남), 42번(54·여), 77번(64·남), 82번(82·여) 환자가 17일과 18일 새벽에 사망했다.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14%이다.<br/>31번 환자는 평소 결핵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42번 환자는 기관지 확장증을 받았으며 고혈압이 있다. 77번 환자는 고혈압·천식·괴사성 췌장염·복강 내 감염을 앓고 있었다. 82번 환자는 백내장 양안 수술을 받았다.<br/>이로써 메르스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중 남성이 16명(70%)으로, 여성(7명)의 2.3배 높았다. 60대가 8명(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0대 7명(30%), 50대 4명(17%), 80대 3명(13%), 40대 1명(4%) 순이다.<br/>사망자 23명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21명(91%)으로 나타났다.<br/>확진자 수는 전날 162명에서 3명 늘어난 165명이다. 추가된 환자 중 2명이 의료진이다. 전체 확진자 중 118명(72%)이 현재 치료 중인데, 17명의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br/>163번(53·여) 환자는 경기 평택경찰관인 119번(35) 환자가 아산충무병원에 입원한 기간인 6월5~9일 같은 병동에 있었던 의료진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19번 환자는 52번(54·여) 환자가 머무른 평택 박애병원을 찾은 5월31일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만 추정될 뿐,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br/>또다른 신규 환자인 164번(35·여) 환자는 75번(63·여)과 80번(35) 환자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같은 병동의 의료진이다. 병원 내 3차 감염으로 추정된다.<br/>165번(79) 확진자는 76번(75·여·6월10일 사망) 환자가 내원했던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3명의 환자를 거쳐 바이러스를 옮은 4차 감염자다. 현재 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br/>앞서 지난 16일 확진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사인 162번(33) 환자는 역학조사 결과, 6월11~12일 이틀간 72번(56), 80번(35), 135번(33·삼성서울병원 안전요원), 137번(55·삼성서울병원 응급이송요원) 확자에게 엑스레이(Portable X-ray)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br/>확진자 165명을 감염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병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77명(47%)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문병 등 방문객이 58명(35%),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0명(18%)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br/>확진자 중 5명이 추가로 퇴원했다. 이에 따라 총 퇴원자는 24명으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40번(24세), 44번(여·51), 59번(44), 62번(32·삼성서울병원 의사), 71번(여·40) 환자다.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br/>퇴원자 연령별로는 40대가 12명(50%), 50대 4명(17%), 20대 3명(13%), 60대·70대가 각각 2명(8%), 30대 1명(4%)이다.<br/>현재까지 사망자 23명 가운데 남성이 16명(70%), 여성이 7명(30%)이며, 연령별로는 60대가 8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대 7명(30%), 50대 4명(17%), 80대 3명(13%) 순이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69.txt

제목: [문화단신]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1907463  
본문: 남대문교회 21일 130주년 기념예배<br/><br/><br/>남대문교회(담임 손윤탁 목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퇴계로 교회 본당에서 ‘첫 공식 주일예배 1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6월 21일은 1884년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선교사 호러스 알렌(1858~1932)이 이듬해 자신의 집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날로 한국교회 130년 역사의 시작으로 꼽힌다. 남대문교회는 기념예배에 앞서 19일 기념음악회를, 20일 기념 포럼을 각각 개최한다. <br/><br/><br/>한가람 미술관 故강성원 유작展 <br/><br/><br/>지난 4월 59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화가 강성원의 유작전이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예술의전당 미술아카데미에서 그에게 그림을 배운 제자들과 유족이 마련했다. 작가는 신표현주의적 기법으로 자연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종교적 감성 등을 작품에 담아왔다. 전시는 22일까지. (032) 612-0097.<br/><br/><br/> <br/><br/><br/> <br/><br/><br/>김성호 ‘빛으로 그린 새벽’ 개인展<br/><br/><br/> <br/><br/><br/>25년간 빛에 천착해 도시의 야경을 그려 온 김성호(53)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빛으로 그린 새벽’이라는 제목을 단 이번 전시에는 ‘새벽-한강’을 포함한 ‘빛 시리즈’ 대작 등 30여점이 선보인다. 전시는 30일까지. (02)734-0458.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0.txt

제목: 비만→여성 호르몬 ↑→’남성 유방암’ 증가  
날짜: 20150617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731745  
본문: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물론 여성 유방암보다 그 빈도가 아주 낮아서 전체 유방암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생길 수 있다. 남성 역시 빈약하지만 유방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r/>남성 유방암의 주요 위험 인자는 과도한 음주, 호르몬 이상, 방사선 노출, 유전자 이상 등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체중과 비만 역시 위험인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 남성 유방암이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br/>미국 국립 암 역학 조사(National Cancer Institute’s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EER))에 의하면 1973년에서 1998년 사이 남성 유방암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0.86에서 1.06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br/>최근 미국 리즈 대학(University of Leeds)의 연구팀은 드문 암인 남성 유방암이 증가하는 원인이 아마도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저널 BMC Medicine에 발표했다.<br/>리즈 의과대학의 스페어 교수(Professor Speirs)는 지방 세포가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젠 같은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지방 세포가 많으면 여성 호르몬의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이전 연구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BMI)가 25가 넘는 남성에서 혈중 여성 호르몬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다. <br/>여기에 남성 유방암 환자의 90%에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발달해 있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 유방암세포가 자극을 받아 성장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br/>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여러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도 비만이 남성 유방암의 위험 인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비만이 있는 경우 남성 유방암의 위험도는 3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br/>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증가한 것이 남성 유방암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추정이 옳다면 비만 인구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남성 유방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br/>연구팀은 남성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식단과 적정 체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족 중에 유방암을 잘 일으키는 유전자인 BRCA 변이가 있는 경우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r/>사진=포토리아<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1.txt

제목: ‘메르스 예방법’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항암효과까지? ‘효자 음식’  
날짜: 2015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1727526  
본문: ‘메르스 예방법’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br/><br/>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갑작스러운 기온변화로 신체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이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으로 알려졌다. 환절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슈퍼푸드 7가지를 소개한다. <br/><br/>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첫번째 ‘버섯’ = 버섯은 허준의 ‘동의보감’ 에도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증진시켜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돼 있다.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만, 변비를 막아주며 암을 예방하는 웰빙·장수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같은 효능의 중심엔 ‘베타글루칸’이 있다.<br/><br/>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 또한 버섯은 90%이상이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만병의 근원’이라는 변비 예방 및 치료에 유효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버섯 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렌티난’(다당류의 일종)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렌티난은 암 예방을 돕고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며 항 바이러스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있다. <br/><br/>또한 송이버섯은 조선의 왕 가운데 최장수왕으로 손꼽히는 영조(82세까지 생존)가 즐겨먹던 음식으로 손꼽히며, 동의보감에도 “버섯 중 가장 맛이 좋으며 기운을 돋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br/><br/>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두번째 ‘단호박’=호박은 속살이 노란 대표적인 옐로 푸드로 노란색의 정체는 ‘베타카로틴’으로 이것이 체내로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베타카로틴은 유해 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성분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암·심장병·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해준다. <br/><br/>또한 체내 신경조직을 강화해주어 각종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는만큼 찐 다음 마요네즈나 요구르트에 함께 섞어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빵과 함께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 기운없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땐 단호박이 최고이다.<br/><br/>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세번째 ‘사과 ’=사과는 칼륨·비타민C·유기산·펙틴·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특히 칼륨은 소금 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매출하는 미네랄이 풍부해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다. <br/><br/>사과에 풍부한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주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만큼 심장병 등과 같은 혈관질환과 암 예방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사과 나는데 미인 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과의 비타민C는 푸석푸석해진 피부에 영양을 회복시켜준다.<br/><br/>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네번째 ‘감’=가을철 대표 과일인 감은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 먹으면 금세 힘이 나고 피로가 풀리는 과일이다. 피부 미용과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C와 A,B까지 모두 갖고 있어, 비타민의 끝판왕이라고 불린다.<br/><br/>열매 뿐만 아니라 감잎에도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따뜻한 감잎차 한 잔이면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을 한 방에 예방할 수 있다. 단, 변비·빈혈·저혈압이 있는 사람이나 임신부는 감의 타닌 성분이 지닌 수렴효과로 인해 철분과 결합해 체외로 함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br/><br/>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다섯번째 ‘고등어’=고등어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푸른 생선인만큼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가 아주 풍부하다. 동맥순환을 향상시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기르는 효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DHA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를 성장, 발달시켜주어 두뇌회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이 필요한 수험생에게도 좋은 슈퍼 푸드가 된다.<br/><br/>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여섯번째 ‘당근 ’=가을당근은 연하고 수분이 많으며 맛이 좋다. 칼슘·비타민A·비타민C·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이 영양상의 강점이다. 이 중 뭐니뭐니해도 당근의 대표적인 웰빙 성분은 오렌지색 색소이자 카로틴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이다. 베타카로틴이 몸 안에 들어가 비타민A로 바뀌고, 비타민 C·E와 함께 3대 항산화 비타민으로 손꼽히며 체내에서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것 외에도 노화 억제와 면역력 증강,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br/><br/>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일곱번째 ‘무’=우리 선조들은 봄무부터 겨울무까지중에서 건강에 이로운 무로 겨울무를 꼽았다. 겨울무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엽산 등 비타민, 칼슘·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한 무, 그리고 이런 영양소는 특히 잎에 많다. <br/><br/>무는 음식의 소화를 돕는 다양한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위 통증과 위궤양을 예방·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에 풍부한 비타민C가 간 기능을 도와 숙취의 주범인 알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도우므로 애주가들에게도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라는 항암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길러준다. 단, 오이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데 오이에는 무의 대표적 웰빙 성분인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한다.<br/><br/>‘메르스 예방법’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메르스 예방법’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메르스 예방법’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메르스 예방법’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메르스 예방법’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br/><br/>사진 = 서울신문DB (‘메르스 예방법’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2.txt

제목: “발암 가능성 줄인 유도만능 줄기세포 만들었다”  
날짜: 2015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1606337  
본문: 　유도만능줄기세포(iPS)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발표됐다. <br/>　2012년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만들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유도만능줄기세포 방식과 비교해 암 유발 가능성을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br/>　서울대병원 내과 김효수 교수와 의생명연구원 권유욱 교수팀은 이같은 연구 결과가 생물 재료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Biomaterials) 5월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br/>　야마나카 신야 교수팀은 2006년 환자로부터 채취한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하여 인체의 모든 장기로 분화가 가능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신야 교수는 이를 ‘유도만능줄기세포(역분화줄기세포)’라고 명명했다.<br/>　문제는 체세포에 주입하는 특정 유전자 중에는 ‘c-Myc’라는 발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 암 유발 및 세포 기능 변화의 위험성 때문에 임상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br/>　연구팀은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배아줄기세포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체세포에 주입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span class='quot0'>이 방법은 발암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암 유발 및 세포 기능 변화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 핵심</span>”이라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br/>　이번 연구에서는 또 배아줄기세포 대신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체세포에 주입하면 역분화 과정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 단백질에 포함된 ‘Zscan4’라는 물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새롭게 규명했다. <br/>　실제로 체세포에 Zscan4를 주입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의 단백질을 주입한 그룹에 비해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역분화하는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br/>　김효수 교수는 “<span class='quot1'>이 연구 결과는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암 유발과 낮은 제작 효율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상용화 및 임상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3.txt

제목: 암 원인 ‘쓰레기 단백질’ 생성 원리 세계 첫 규명  
날짜: 20150616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0844169  
본문: 국내 연구진이 퇴행성 뇌 질환과 암 등을 유발하는 ‘쓰레기 단백질’(단백질 응고체)의 생성 원리와 변이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br/><br/>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난치질환치료제연구센터 김보연(왼쪽) 박사와 서울대 권용태(오른쪽)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인체 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들어지는 유해 단백질의 생성 및 분해 원리와 변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학 분야의 국제적 권위지인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15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세포 내 단백질이 수명을 다하거나 손상되면 인체는 이를 분해해 폐기하는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시스템’과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해 재활용하는 ‘자가 포식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이런 세포 처리 시스템은 면역계를 활성화하고 체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이물질을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r/><br/>그러나 노화나 유전적 변이, 바이러스 침입 같은 세포 스트레스로 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돼 밖으로 배출돼야 할 단백질이 체내에 쓰레기처럼 쌓이게 된다. 이렇게 누적된 쓰레기 단백질은 세포 손상을 일으켜 광우병, 헌팅턴병,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의 신경계 질환은 물론 알코올성 간염 및 간암, 심근경색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청소차가 고장 나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br/><br/>김 박사 등 연구팀은 단백질이 ‘p62’라는 물질과 결합하면 리소좀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리소좀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세포 내 작은 주머니로, 못 쓰게 된 세포 소기관을 파괴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파괴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세포에 스트레스를 줘 단백질을 응고시킨 뒤 p62를 인위적으로 결합시킨 결과 단백질 응고체가 제거되는 것을 발견했다.<br/><br/>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헌팅턴병의 원인 물질인 헌팅턴 단백질 응고체를 제거할 수 있는 p62 저분자 화합물을 최근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해 쓰레기 단백질을 제거하는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추가로 이 물질이 다른 퇴행성 신경 질환, 암, 염증 질환,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 중이다.<br/><br/>김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나 암, 면역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쓰레기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변성 단백질의 비정상적 축적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4.txt

제목: 가슴에 묻은 부치지 못한 편지들… 모정과 응원 버무린 인생 레시피  
날짜: 20150616  
기자: 김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0832909  
본문: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81) 전 문화부 장관과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52)이 나란히 딸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책을 냈다.<br/><br/><br/><br/><br/><br/>이 전 장관은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를 추모하는 글을 모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열림원)를 냈다. 딸의 출생과 성장 과정, 첫사랑과의 결혼, 실패의 아픔, 투병 이후 영혼의 눈을 뜨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단편 에세이와 시 등으로 엮었다. 이 목사는 이 전 장관과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의 맏딸로 태어났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지만 야권 정치인과의 첫 결혼에 실패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실명 위기와 첫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등지에서 청소년 구제 활동을 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br/><br/><br/><br/><br/><br/>어린 시절 이 목사는 읽고 쓰는 일에만 골몰하던 아버지의 삶 속에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굿나잇 키스를 기대하며 서재 문 앞에서 그를 불러도 일에 몰두하던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딸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만일 지금 나에게 30초만 주어진다면’(23쪽)이라고 그 시절을 돌아보며 통한한다. 이 전 장관은 “<span class='quot0'>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에게 바친다</span>”고 말했다.<br/><br/>공지영은 20대 후반의 장성한 딸에게 27개의 초간단 요리법을 알려주며 삶에 대한 따뜻하고 솔직한 응원을 담은 ‘딸에게 주는 레시피’(한겨레출판)를 냈다. 2008년 막 20대에 접어든 딸에게 쓴 편지를 모은 산문집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를 낸 이후 7년 만이다. 딸은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해 홀로 살고 있다. 작가는 “<span class='quot1'>자립한다는 것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span>”고 말했다.<br/><br/>작가는 시금치샐러드, 불고기덮밥, 훈제연어, 김치비빔국수 등 10~1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쉬운 요리법을 소개한다. 요리가 완성되는 동안 작가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후회했던, 고통을 이겨내며 감사하게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하나둘 들려준다. 작가는 말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실은 이거야. 네가 설사 너무 바빠 며칠을 라면만 먹고 산다 해도, 너는 소중하다고. 너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일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돼.’(312~313쪽)<br/><br/>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5.txt

제목: [메르스 비상-깨지는 통설] ‘사이토카인 폭풍’ 건강해도 치명적  
날짜: 20150616  
기자: 홍인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0741168  
본문: 보건 당국은 메르스 감염에 따른 증상을 설명하며 “건강한 사람은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br/><br/><br/>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메르스에 감염돼도 독감 정도의 수준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존에 병이 없었던 51번째 환자(72·여)와 81번째 환자(62)가 사망하면서 보건 당국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기존과는 다른 감염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br/><br/><br/>15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은 만성호흡기질환·암·당뇨 등 기존에 앓던 병이 있었지만, 나머지 2명(51번째·81번째 환자)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였다. 81번째 환자는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에 친척 병문안을 갔다가 감염돼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지만, 호흡곤란과 폐렴이 악화돼 지난 14일 사망했다. 51번째 환자도 고령이라는 점 말고는 앓고 있던 병이 없었으나, 치료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2일 숨졌다.<br/><br/><br/>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0'>임상기록 등을 통해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중동지역 임상 사례를 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하지만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저질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염 이후 증상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span>”고 말했다. <br/><br/><br/>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치료 중인 120명의 확진자(사망·퇴원자 제외) 가운데 17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38), 평택 경찰관인 119번째 환자(35)는 모두 30대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지만 상태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면역력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지환 서울대 의대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면역작용이 신체 내 다른 부분을 망가뜨리는 부작용</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메르스뿐 아니라 모든 감염질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6.txt

제목: [메르스 비상-삼성병원 부분폐쇄 이후] 음압장치 있는 선별진료소 북새통… 발열 깐깐하게 체크 뒤 출입 허용  
날짜: 20150616  
기자: 오세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0737682  
본문: “어머니, 어머니.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br/><br/><br/>15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본관 입구를 지키던 간호사 2명이 60대 여성을 급하게 불러 세웠다. 두 간호사는 60대 여성을 입구 앞에 설치된 진료 탁자로 안내했다. 한 간호사가 곧바로 그 여성의 체온을 측정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 발열 기준(37.5도)보다 낮은 36도가 나왔다. 의료진은 그제서야 60대 여성의 병원 출입을 허용했다.<br/><br/><br/>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국내 병원 87곳을 대상으로 지정한 ‘안심병원’이 이날 첫 운영에 들어갔다. 일반 환자와 폐렴 등 호흡기 환자 및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분리 진료하기로 한 만큼 안심병원들은 병원 출입구마다 인력을 배치해 발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br/><br/><br/>발열 측정에서 의심스러운 내원 환자들은 외부에 설치된 메르스 선별 진료소로 이동돼 집중적인 확인을 거치는 등 ‘메르스 대응 조치’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br/><br/><br/>순천향대 서울병원은 본관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최근 2주간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거쳐 간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br/><br/><br/>특히 입원한 환자를 돌보러 온 사람들은 별도로 명단을 관리했다. 이름, 소속, 연락처, 현재 거주지, 방문 대상 환자 등이 작성 항목이었다. 김태형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 보호자도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도 같은 방법으로 방문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또 병원 밖에 설치된 ‘메르스 안내 데스크’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어깨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한 뒤 병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또 외래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간이 문진표’가 주어진다. <br/><br/><br/>1년 전 수술을 받고 암 전이 여부 진단을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이모(65)씨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기침·호흡곤란·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 가족 중에 메르스 환자에 노출돼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묻는 문진표를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한다”면서 “전보다 병원 이용이 불편해졌지만 메르스만 박멸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br/><b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br/><br/><br/>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7.txt

제목: [메르스 비상-삼성병원 부분폐쇄 이후] 정기 약물 처방은 기존대로… 중증환자 보호자엔 상주증 1개만 지급  
날짜: 20150616  
기자: 강국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0737300  
본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우려 때문에 오는 24일까지 부분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외래·입원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적지 않다. 부분폐쇄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봤다.<br/><br/><br/>Q. 암 치료 등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던 외래 환자는 어떻게 하나.<br/><br/><br/>A. 항암제 주사를 맞거나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부분폐쇄 기간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한다. 다만, 패혈증 등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의료기관과 협의해 환자 이송을 의뢰할 수 있다.<br/><br/><br/>Q.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약물을 처방받던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br/><br/><br/>A. 천식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 대리인이 병원을 방문해도 약 처방전을 발행해 준다.<br/><br/><br/>Q. 입원환자를 바로 옮겨야 하나.<br/><br/><br/>A. 현재 병원에 있는 모든 입원 환자는 부분폐쇄 기간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전담해서 치료를 계속한다. 다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협의해 병원을 옮길 수 있다.<br/><br/><br/>Q. 일반적인 외래환자는 어떻게 하나.<br/><br/><br/>A.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중증질환자이거나 항암치료 등 반드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외래 환자들에 대해서는 예약 일정을 변경하거나 병원을 옮기도록 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은 원활한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관련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적극 임해야 하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br/><br/><br/>Q. 삼성서울병원 내 장례식장은 기존대로 예약, 이용할 수 있나.<br/><br/><br/>A. 장례식장을 별도로 폐쇄한 건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장례식장 이용객은 물론 예약 문의도 대폭 줄었다. 15일 현재 마련된 빈소는 14곳 중 2곳뿐이다.<br/><br/><br/>Q.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입원해 있는데 보호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나.<br/><br/><br/>A. 방문객 면회 통제를 위한 조치로 현재 입원한 중증 환자 보호자에게는 상주증을 1개만 지급하고 있다. 그 외 보호자 및 면회객은 출입을 통제한다. 단, 메르스 환자의 보호자들은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상주증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br/><br/><br/>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8.txt

제목: 매일 견과류 10g, 주요질환 사망률 줄여 (연구)  
날짜: 2015061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650546  
본문: 하루에 땅콩(씨앗)을 비롯한 견과류를 10g만 섭취해도 암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연구진이 55~69세 남녀 1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 코호트 연구 자료를 분석해 땅콩과 견과류를 매일 최소 10g씩 섭취하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주요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밝혀냈다.<br/>하지만 이런 효과는 땅콩버터를 섭취하는 경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br/>이에 대해 연구진은 “<span class='quot0'>땅콩과 견과류에는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물질,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만, 땅콩버터에는 소금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 효과가 억제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이번 분석에서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크게 사망률이 감소한 질환은 호흡기 질환과 신경퇴행성 질환, 당뇨병이며 뒤이어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났다.<br/>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섭취 습관을 땅콩과 견과류, 땅콩 버터로 나누고 양과 빈도에 따라 분석했다.<br/>그 결과, 규칙적으로 땅콩과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더 젊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술은 더 마시지만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되도록 보충제를 섭취하려 하며 고혈압은 아닌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또 이런 견과류를 먹는 여성은 보통 날씬했으며 흡연하지 않고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적었다.<br/>연구를 이끈 피에트 반덴브란트 역학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견과류를 더 많이 섭취한다고 사망 위험이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span>”고 말했다.<br/>또 그는 “<span class='quot1'>이 결과는 또 네덜란드 코호트 연구를 이용한 암과 사망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역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79.txt

제목: [제대로 알자! 의학 상식]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50436578  
본문: ●갑상선암 초음파로 쉽게 진단<br/><br/><br/>갑상선은 목 전면에 나비 모양을 한 내분비기관으로 체온 등 인체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 생기는 암을 통틀어 갑상선암이라고 부른다.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보다 과다하게 만들어 내면 갑상선기능항진증, 정상보다 부족하게 만들어 내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 한다.<br/><br/><br/>갑상선 질환은 현저한 이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느끼기가 쉽지 않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붓는다. 물론 5㎏ 이상 붓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조류와 갑상선 질환도 관계가 없다. 한국인은 해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드물다.<br/><br/><br/>과거에는 갑상선암이 발생하고도 오랜 기간 커지지 않다가 손으로 만져질 정도가 되어서야 발견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초음파 기술 덕분에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다. 이제는 초기, 심지어는 예전에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었던 걸 발견하기도 한다. 이런 변화가 갑상선암 발생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최근 발견하는 갑상선암은 대부분 크기가 직경 1㎝보다 작은 유두암이다. 급하게 수술하기보다는 예후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br/><br/><br/>●척추측만증 책가방·운동 부족 탓 돌리긴 무리<br/><br/><br/>측만증은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척추가 옆으로 휘는 병이다. 전체 환자의 85% 정도는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특발성 측만증’ 환자이다. ‘특발성’이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이다. 자녀가 측만증으로 진단받으면 부모는 대부분 평소 생활습관 때문에 척추가 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세 불량과 척추가 휘는 것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br/><br/><br/>간혹 ‘책가방이 너무 무겁고 책걸상이 조잡해 척추가 휘니까 빨리 책가방을 가볍게 해 주고 책걸상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무거운 책가방, 조잡한 책걸상은 요통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측만증의 원인은 아니다.<br/><br/><br/>운동 부족으로 척추가 휜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과 유럽 의학자들이 과거 수십년간 연구해도 밝히지 못한 측만증의 원인을 단순히 책가방, 책걸상, 운동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특발성 측만증이 생기면 크게 관찰, 보조기 치료, 수술 치료 등으로 대처한다.<br/><br/><br/>활 모양으로 휘는 만곡이 20도 미만인 환자는 일단 정기적 관찰을 한다. 보조기 치료는 20~40도 사이의 만곡인 환자에서 성장이 1~2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40~60도 만곡은 환자의 성장 상태나 만곡 부위 등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br/><br/><br/>■도움말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송영기 교수, 정형외과 이춘성 교수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0.txt

제목: [나우! 지구촌] 애완견 아닌 가족…암투병마저 함께한 개와 남자  
날짜: 20150611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456546  
본문: 인류와 가장 오랜 친구인 개 사이에는 때때로 믿기 힘들 정도의 우정이 존재한다. 최근 미국에 사는 한 사진작가는 애완견과 나눈 끈끈한 우정과 가족애의 역사를 공개해 감동을 안겼다.<br/>미국 현지 언론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진작가인 벤 문(Ben Moon)은 16년 전인 1999년부터 애완견 ‘디나일’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문과 디나일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br/>최근 벤 문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은 지난 디나일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4년간 함께 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함께 서핑을 즐기고, 캠핑을 하는 문과 디나일의 모습은 여느 가족보다 더욱 따뜻하고 단란해 보인다.<br/>이들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은 2004년 갑작스럽게 결장암 선고를 받은 뒤 수술 및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디나일은 병원의 허가를 받고 문의 병실에 함께 머물렀다. 문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디나일이 문과 함께 병원 침대에 나란히 누운 모습을 볼 수 있다.<br/>디나일에게 의지해 매일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문은 놀랍게도 결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디나일이 암 선고를 받았다. 이미 노쇠해진 디나일은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 점차 약해져만 갔다.<br/>문은 지난 해 암에 걸린 디나일을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지난 14년간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해 온 둘은 디나일이 가장 좋아했던 곳을 골라 여행을 시작한 것.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디나일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br/>문은 디나일과의 십 수 년을 기억하기 위해 그동안 찍은 사진들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에서 문은 가족과도 같은 디나일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영상은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한 필름페스티벌에서 상영돼 작품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br/>문은 이 영상에서 “친구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특히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지지해준 친구라면 더더욱 그렇다”며 여전히 디나일을 향한 우정과 가족애를 드러냈다.<br/>지난 10일 자신의 SNS에는 “이것은 매우 사적인 이야기”라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많은 분들과 공감해 준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1.txt

제목: “견과류 10g씩 먹으면 암 등 주요사망 막는다” - 네덜란드 연구  
날짜: 20150611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451138  
본문: 하루에 땅콩(씨앗)을 비롯한 견과류를 10g만 섭취해도 암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연구진이 55~69세 남녀 1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 코호트 연구 자료를 분석해 땅콩과 견과류를 매일 최소 10g씩 섭취하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주요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밝혀냈다.<br/>하지만 이런 효과는 땅콩버터를 섭취하는 경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br/>이에 대해 연구진은 “<span class='quot0'>땅콩과 견과류에는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물질,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만, 땅콩버터에는 소금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 효과가 억제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이번 분석에서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크게 사망률이 감소한 질환은 호흡기 질환과 신경퇴행성 질환, 당뇨병이며 뒤이어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났다.<br/>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섭취 습관을 땅콩과 견과류, 땅콩 버터로 나누고 양과 빈도에 따라 분석했다.<br/>그 결과, 규칙적으로 땅콩과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더 젊고, 더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술은 더 마시지만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되도록 보충제를 섭취하려 하며 고혈압은 아닌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또 이런 견과류를 먹는 여성은 보통 날씬했으며 흡연하지 않고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적었다.<br/>연구를 이끈 피에트 반덴브란트 역학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견과류를 더 많이 섭취한다고 사망 위험이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span>”고 말했다.<br/>또 그는 “<span class='quot1'>이 결과는 또 네덜란드 코호트 연구를 이용한 암과 사망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역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2.txt

제목: 세계 최초로 10대 시절 떼어 얼린 난소 이식해 출산  
날짜: 20150611  
기자: 박상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5201406  
본문: 벨기에의 한 20대 여성이 10대 시절 떼어내 냉동보관했던 자기 난소를 재이식해 출산에 성공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br/><br/><br/>지금까지 성인 여성이 성숙한 난소를 재이식한 후 출산에 성공한 사례는 있었으나 미성숙 난소를 성인에게 이식해 아이를 낳은 경우는 처음이다. 각국의 불임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span class='quot0'>의료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span>”이라며 반겼다.<br/><br/><br/>10일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에 따르면 콩고 공화국 출생의 벨기에 이민자 여성(27)이 지난해 11월 3.1㎏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그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앓아온 유전병 치료 과정에서 떼어낸 난소를 10년 만에 다시 이식받아 자연임신과 출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br/><br/><br/>이 여성은 5세 때부터 흑인 유전병의 일종인 ‘겸상 적혈구 빈혈증’을 앓았다. 11세 때 벨기에로 건너와 골수 이식을 받고서 13세부터 화학요법 치료를 받아왔다. <br/><br/><br/>화학요법은 악성 빈혈증이 있는 아동의 혈액 생성을 돕지만 영구적 난소 손상의 위험이 있다. 불임을 우려한 의료진은 치료 전 그의 오른쪽 난소에서 조직을 떼어 얼려 놨다. 당시 2차 성징은 나타났지만 월경 시작 전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은 냉동보관했던 난소 조직을 원래 난소에 재이식했다. 이 여성은 5개월 후 정상적으로 배란을 시작해 자연임신을 하고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br/><br/><br/>모든 과정을 주도한 브뤼셀 에라스메 병원 산부인과 이자벨 데메스테레 박사는 “<span class='quot1'>이번 사례는 미성숙한 난소 조직을 성인에게 이식해도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걸 처음 보여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어린 시절부터 암 등으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쁘다</span>”고 말했다.<br/><br/><br/>이번 사례는 유럽에서 발간되는 생식학회지인 ‘휴먼 리프로덕션’에 자세히 실렸다. <br/><br/><br/>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3.txt

제목: 트럭에 실린 굴삭기 고가도로에 ‘쾅’…아찔한 사고 순간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5002626  
본문: 화물트럭에 실려 있던 굴삭기가 고가 도로와 충돌하는 사고 순간이 포착됐다. <br/><br/>이 사고는 지난달 21일 스웨덴의 말뫼(Malmo)를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에 실려 있던 굴삭기의 암 부분이 고가 상판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화물트럭 운전자가 굴삭기의 암을 완전히 접지 않은 채 운행하다 빚어진 사고다. <br/><br/>당시 사고 순간은 현장을 지나던 사이먼 에릭슨(Simon Eriksson)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영상을 공개했다. <br/><br/>영상을 보면 굴삭기를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트럭 한 대를 볼 수 있다. 잠시 후 이 트럭은 고속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하단을 통과한다. 이때 트럭에 실려 있던 굴삭기의 암 부분이 고가 상판과 충돌하면서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진다. <br/><br/>이 사고로 인해 도로는 금세 뿌연 먼지와 함께 파편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된다. 뒤따르고 있던 에릭슨 차량 역시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급하게 피하는 아찔한 모습을 볼 수 있다.<br/><br/><br/><br/>사고를 목격한 에릭슨은 “집으로 가던 중 사고차량을 발견했다”며 “화물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챈 후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려 했다. 하지만 거리가 매우 촉박해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r/><br/>사고 직후 에릭슨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확인했다. 당시 화물트럭 운전자는 에릭슨에게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릭슨은 신속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으며, 사고 당시 그가 촬영한 영상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사진 영상=ViralHog <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4.txt

제목: “돈 모아 결혼하자” 성매매 알선…8년간 모은 1억원 훔쳐간 50대  
날짜: 20150610  
기자: 윤수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4746452  
본문: 동거녀에게 8년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에게 빌붙어 살고 있었다.<br/><br/><br/>서울 송파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절도 등 혐의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br/><br/><br/>신씨는 2004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혼 후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K(49·여)씨를 만났다. 신씨는 자신을 미국 대기업의 한국지사로 파견된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샀다. 가짜 회사원 행세는 금세 들통이 났다. <br/><br/><br/>심지어 “결혼도 하고 노년을 대비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성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설득해 K씨의 승낙을 받아냈다. 신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K씨는 성매매로 번 돈을 신씨와 나눠 가졌다. 이 정도로도 모자라 신씨는 K씨가 모아둔 돈에 눈독을 들였다. 지난해 2월 K씨가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사이 “미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위독하다. 다녀와서 꼭 돈을 갚겠다”는 편지를 남긴 채 K씨가 모아둔 1억 2300만원을 들고 도망쳤다. <br/><br/><br/>경찰에 붙잡혔을 때 신씨는 K씨로부터 훔친 돈으로 보증금 8000만원짜리 전세방을 얻어 또 다른 여성인 D씨에게 성매매를 시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br/><br/><br/>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5.txt

제목: 감염자 90% 발열·34% 기침 증상 심한 19%는 호흡곤란  
날짜: 20150610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4728910  
본문: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발열(89.6%), 기침(34.4%), 객담(22.4%), 근육통(22.4%)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임을 뜻하는 호흡곤란(18.9%)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두통(13.9%)과 설사(10.3%) 증세를 보인 환자도 있었다. 반대로 특이하게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 <br/><br/><br/>●기저질환 고혈압·당뇨·암·폐질환 많아<br/><br/><br/>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9일 국내 확진자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환자 58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 임상 양상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br/><br/><br/>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환자가 늘면서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환자가 늘면서 경증 내지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br/>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저질환 가운데엔 고혈압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뇨병(8명), 암(7명), 만성폐질환(6명), 만성간질환(5명), 심장질환(5명)이 뒤를 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21명이었다.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에선 메르스 환자의 절반 정도가 만성신부전 환자였던 반면 우리나라엔 만성신장질환자가 드물었는데, 이런 점이 사우디보다 치명률이 낮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추측했다. <br/><br/><br/>●절반 폐렴 증상… 나머지도 발병 가능성<br/><br/><br/>사우디와 또 다른 점은 국내 환자에게서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환자 40%에서 백혈구가 4000개 이하로 줄어드는 백혈구 감소증이, 26.5%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다. <br/><br/><br/>환자들은 대부분 폐렴 증상을 보였다. 메르스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절반인 29명이 폐렴 증상을 보였고, 정상으로 나온 나머지 환자는 아직 폐렴이 시작되기 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이사장은 밝혔다. 환자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 또 환자 상당수에게는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44.2%)을 투약했다.<br/><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6.txt

제목: 국내여행 | [Village in Seoul 창신동] 세상의 모든 동네 창신동 꿰매기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4530380  
본문: 창신동의 어깨가 무겁다. 제1호 뉴타운 재개발 해제구역. 싹 밀어 버리는 방법 대신 느린 재생을 선택한 창신동에 쏠린 시선들은 기대 반, 의심 반이다. 그러니 눈치 없는 관광객으로 말고, ‘아니 오신 듯 가만히’ 다녀오시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래서 지켜 주어야 할 것들이 아직 창신동에는 남아 있다! <br/><br/><br/><br/><br/><br/>첫 마을을 주시하라<br/><br/>창신동은 성 밖 첫마을이다. 사대문과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던 한양에서 흥인지문(동대문)을 넘어서면 그곳이 창신동이다. 혹은, 혜화동 낙산공원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서울 성곽길을 걸어 본 적이 있는가? 그 너머가 바로 창신동이다. <br/><br/>아마도,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재개발을 포기한 창신동은 낙후된 산동네, 달동네다. 길이 오죽 휘고 가파르면 ‘회오리길’이 있을까? 그 비탈에 축대를 쌓고 올린 집들은 대부분 노후 주택이다. 아랫마을 신당동이 대형 패션타운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눈부신 발전(?)을 해 오는 사이 창신동은 여전히 20년 전 풍경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재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2013년 해제됐다(일부 구역은 다시 서울시에 정비사업 추진을 신청했다). <br/><br/>투기꾼들을 실망을 안고 물러갔고, 이어서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커뮤니티 디자인을 고민하여 ‘000간(공공공간)’을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러닝투런, 공연예술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창신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극교육을 위해 ‘뭐든지 예술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가 있으며, 어반하이브리드는 디자이너와 생산자를 연결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창신테이블’을 운영 중이다. 도심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위해 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국비와 시비 200억원이 책정됐으니, 성패를 주시하는 눈들이 쏠리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br/><br/>이들의 작업은 창신동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창신동은 한국 의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의 배후기지다. 주문을 넣으면 하루 만에도 뚝딱 옷이 만들어지는 곳.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1~2인의 소규모 작업장까지 합하면 3,000여 개의 봉제공장이 창신동에 밀집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마을에 들어서면 주택 1층마다 자리잡은 공장 작업실에서는 기계음에 섞인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샷시 문 틈새로 호스들이 꼬리를 빼고 쉭쉭 연기를 뿜어 올린다. 10대, 20대에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여직공이 이제 창신동의 아줌마, 할머니가 되었다. 70년대 당시 직공의 40%가 18세 미만의 여성들이었고, 그들이 견뎌야 했던 열악한 노동환경, 가난한 쪽방촌 생활을 떠올리면 창신동에 위치한 전태일추모재단 앞에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br/><br/>봉제산업은 쇠락하고 있지만 이미 자리잡은 문화의 뿌리는 깊다. 쉼 없이 골목을 질주하는 원단 배달 오토바이만 해도 그렇다. 시끄럽고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창신동에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며 원단과 제품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소음은 ‘돈 버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공장마다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도 소음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br/><br/>일자리를 찾아온 해외이주민들도 불청객이 아니다. 현재 창신동에는 2,000여 명의 조선족과 동남아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 동네 교회는 외국어 현수막을 설치하고 창신시장에는 인도, 네팔, 중국 식당들이 유명하다. <br/><br/>그리하여 창신동은 ‘마을’과 ‘공동체’ 재생을 위한 중요한 시험무대다. 지켜 내고 싶은 것들은 오히려 소소하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평상이다. 마을 공터마다, 골목 끝마다 할머니 두세 명이 모여 앉아서 남편 흉도 보고, 해진 양말도 꿰매고, 수박도 나눠 먹는 그 평상이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과 골목이 만나는 지점마다 기가 막히게 자리잡은 골목슈퍼는 또 어떤가? 런닝셔츠에 파자마 차림으로 ‘하드’를 사러 나온 꼬맹이는 몇십년 전의 나였다. 세상 모든 꼬마들을 키워 낸 오래된 동네를 지켜 주는 일. 이미 잃어버린 박수근과 백남준의 집터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우리가 창신동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다. <br/><br/><br/><br/>성저10리, 창신동의 시작<br/>조선시대 두 마을인 인창방仁昌坊과 숭신방崇信坊이 합쳐져 1914년부터 창신동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낙산 주변에 양반들의 별장이 있기는 했지만 성저10리城底十里, 묘도 쓸 수 없고 벌목도 금지된 도성 밖 약 4km 구역, 즉 한양의 그린벨트 같은 곳이어서 거주 인구가 적었다(지금 창신동은 종로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일제강점기에는 창신동 일대에서 채석한 돌로 조선총독부, 서울시청 등을 건축했으며 동대문 일대 광장시장에는 대규모 포목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이주민과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지으며 몰려들었고 1970년대부터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이 이전해 오기 시작하면서 창신동은 의류산업의 배후기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2013년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 지역 중 처음으로 재개발을 포기하고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br/><br/>●mini interview <br/><br/>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br/>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br/><br/>‘소통’하려면 ‘배려’하라<br/><br/>재개발 해제를 위해 앞장서 온 그가 센터장이 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11개월이 흐르는 동안 그가 가장 주력한 일은 도로를 넓히고 주택을 개조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동네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일이었다. 50m마다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파악했다는 그와 함께한 창신동 투어는 드라마틱한 시선의 확장이었다. 소위 ‘정비되지 않았다’고만 표현되던 골목과 집들이 ‘그러한 연유’도 알게 되고 오토바이 소리, 라디오 소리도 정겨워졌다. 도시재생을 향한 이 실험의 장에서 애당초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접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하다. “<span class='quot0'>소통하려면 배려를 해야 합니다!</span>” 그리고 이 말은 창신동을 소개하는 여행기자에게 작은 팁이 되어 주었다. 배려하는 여행. 창신동을 ‘구경’하지 말고 ‘살펴’달라는 당부를 덧붙인다. <br/><br/>●천소현 기자의 창신동 그곳?<br/><br/>Exhibition <br/>DDP에서 만나는 박수근과 창신동<br/>5월6일은 박수근(1914∼1965년) 작고 50주기다. 그의 대표작 50여 점이 DDP에 걸리고 창신동의 문화예술적 자원을 재조명하는 기획전도 함께 열린다.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꼽히는 박수근은 창신동에 10년을 살았다. 그림이 빼곡하던 마루 화실은 지금 사진으로만 남아 있지만 그의 DNA 속에 녹아 있는 창신동의 모습은 젊은 건축가와 아티스트들이 함께 고민한 동행 행사 에서 만날 수 있다. <br/>DDP 이간수문전시장 <br/>4월30일~6월28일 8,000원 <br/>www.ddp.or.kr<br/><br/><br/><br/>창신동 둘러보기 <br/>동대문역이나 종묘역에서 시작해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종로03번 마을버스를 타고 낙산 종점에서 하차해 창신시장 방면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다. 물론 내려오는 코스가 쉽겠지만 가파른 비탈에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면 시선에서 놓치는 것들도 많아진다.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br/><br/>창신동의 현주소<br/>봉제거리박물관<br/>봉제‘산업’이 아니라 ‘문화’라고 부르자 시선은 ‘돈’에서 ‘사람’으로 옮겨졌다. 현재 창신동에는 1,100여 개의 봉제소가 있고,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곳이 150여 곳이다. 특히 647번지와 42번지 일대에 패턴부터 재봉까지 도맡는 종합공장들이 밀집해 있어서 거리박물관이 조성됐다. 벽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창신동을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된다. <br/>창신동 647 일대<br/><br/>이래저래 안타까운<br/>비우당과 동망봉<br/>비우당庇雨堂은 ‘비를 가리는 집’이라는 뜻으로 실학자 이수광1563~1628이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 형식의 책인 을 집필한 곳이다. 복원이 되긴 했지만 아파트에 갇힌 모습이 안타깝다. 보문역쪽으로 내려가면 정순왕후가 영월로 유배간 단종을 그리워하며 매일 동쪽을 바라보았다는 동망봉이 있다. 폐위된 정순왕후가 비우당의 샘에서 빨래를 하면 자주색으로 물들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진다. <br/>창신동 9-471<br/><br/><br/><br/>창신동의 활력소<br/>아트브릿지+뭐든지도서관+창신동라디오 ‘덤’<br/>부모가 일하는 동안 방치되는 아이들을 모아 연극교육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의 역할이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배우양성소인 ‘조선배우학교’가 1925년 창신동에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와 학부모들이 함께 만든 ‘뭐든지 도서관’은 아이들의 사랑방이고, 창신동라디오방송국 ‘덤’은 창신동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하는 마을미디어로 인터넷이나 팟캐스트에서 창신동라디오로 검색해 들을 수 있다. <br/><br/>아트브릿지 www.artbridge.or.kr <br/><br/>창신동을 고민하는 청년들<br/>복합문화공간 OOO간<br/>창신동을 기반으로 공공 커뮤니티 디자인을 고민하는 청년 사회적기업인 러닝투런Learning to Learn은 창신동의 변화를 주도한 곳이다. 이름 없던 봉제공장에 간판을 제작해서 달아 주는 사업을 시작으로 자투리 원단과 버리는 부재료를 얻어서 만든 셔츠, 가방 등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등 주민들과 협업, 청년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br/>(주)러닝투런 000간(공공공간) www.000gan.com <br/><br/>여기가 거긴가<br/>미스테리한 촬영 명소 <br/>드라마 의 길라임여자주인공, 하지원역의 집은 당고개 공원 주차장에서 내려다보이고, 드라마 의 주인공 장그래남자주인공, 임시완역의 집은 달카페 뒤편 골목에 자리잡고 있다. 영화 에서 납득이조정석역가 열변을 토하던 골목도 멀지 않다. 영화 의 촬영지였던 동대문아파트창신동 328-17는 1965년 건축되어 지금은 다 낡아 버렸지만 2013년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br/><br/>귀여운 마을사랑방<br/>달커피+달퀼트 <br/>달동네 커피집이어서 달커피다. 카페 건물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성곽의 일몰풍경에 반해서(원래 낙산은 일몰이 좋은 산으로 유명하다) 두어 해 전에 창신동 주민이 된 이강혁 사장이 내려 주는 핸드드립 커피의 맛도 일품이지만 그와 나누는 커피 이야기, 창신동 이야기가 더 맛있다. 세트처럼 나란히 자리잡은 옆집 달퀼트의 이진영 선생과는 친구 사이. 달동네와 커피, 그리고 퀼트는 묘하게 잘 어울린다. <br/>창신6가길 48 070-4119-9682 <br/><br/>큰대문집 막내아들<br/>백남준 옛집터<br/>부유한 포목상 집안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가 된 백남준1932~2006은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시절을 창신동에서 보냈다. 실제 그가 거주했던 주택은 불타 없어졌지만 한국 최초의 재벌가답게 ‘3,000평’이나 되는 솟을대문의 ‘큰대문집’이었다고 한다. 부지에는 현재 교회, 가옥, 상가들이 들어서 있으며 백숙집 벽에 기념 표지판이 남아 있다. <br/>창신동 197(종로53길 21)<br/><br/>한번 맛보면 중독되는<br/>창신시장의 먹거리들<br/>동네 탐방의 마무리는 창신시장에서의 한 끼다. 낙산에서 흘러내렸던 복자천의 흔적을 따라 형성되어 길이 좁고 구불구불하지만 그만큼 이색적이다. 창신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창신동 매운족발’이 부담스럽다면 푸짐한 수원갈비집도 있고, 순대국밥집, 떡볶이 분식집 혹은 아예 이색적으로 네팔음식점인 ‘에베레스트’나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요리점들도 있다. <br/><br/>1호선 동대문역 2번 출구 <br/><br/>문화재만 2,700여 점<br/>보물 같은 안양암<br/>안양암은 서울시 전통사찰 가운에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다. 전각, 불화뿐 아니라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1,500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제작했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1889년에 창건된 절은 왕실의 원당으로 기록에 의하면 시주자의 70%가 창건 당시의 왕실 관계자들이었다고. 창신5길 61<br/><br/>글·사진 천소현 기자<br/><br/>☞여행매거진 ‘트래비’ 본문기사 보기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7.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6명, 치사율 7% 중동과 비교하니? ‘메르스 확산 이번 주 고비’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4133703  
본문: 메르스 사망자 6명, 메르스 확산 이번 주가 고비<br/><br/>8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치사율은 7% 수준으로 중동의 40%보다는 훨씬 낮다.<br/><br/>이날까지 25번(57·여), 6번(71), 3번(76), 36번(82), 64번(75), 84번(80)이 메르스에 감염된 후 숨졌다. 사망자는 5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70대 이상 고령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 중 2명은 80대의 고령이다.<br/><br/>사망자 중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한 50대도 천식이 있었고,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면역기능이 떨어져 메르스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br/><br/>암, 만성콩팥병,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망자도 3명이다. <br/><br/>정부와 의료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3번과 64번 환자는 각각 담관암과 위암을 앓았으며, 6번 환자는 2011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36번과 84번 환자는 고령에 각각 세균성 폐렴과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메르스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 36번은 평소 천식을 앓았다. <br/><br/>세계보건기구(WHO)는 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는 폐와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만성 신장병 환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br/><br/>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위원장이 해외의 메르스 환자 1천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암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은 44.3%로, 건강한 환자의 10.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br/><br/>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메르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마찬가지로 폐에 침범하며, 사스와는 다르게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특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br/><br/>실제 두 번째 사망환자는 71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데다 2011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고위험 요인을 복합적으로 갖춘 셈이다. 암환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메르스 감염에 취약하고 사망위험이 높아진다. <br/><br/>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권위자인 타리크 아흐메드 마다니 킹압둘아지즈대 교수는 “<span class='quot1'>(당뇨, 신부전, 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치사율이 40~50%로 높지만 건강한 환자는 치사율이 8%에 그친다</span>”고 말했다.<br/><br/>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특성을 정리한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최근 감염 관련 7개 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br/><br/>[메르스 예방법, 등 꼭 알아야 할 10가지]<br/><br/>1. (메르스의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br/><br/>2. (메르스의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br/><br/>3. (메르스의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br/><br/>4. (메르스의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br/><br/>5. (메르스의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br/><br/>6. (메르스,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br/><br/>7. (메르스,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br/><br/>8. (메르스의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br/><br/>9. (메르스의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br/><br/>\*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br/><br/>10. (메르스 예방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br/><br/>대한감염학회 등 7개 학회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근거 없는 정보의 유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판단들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br/><br/>메르스 사망자 6명, 메르스 확산 이번 주가 고비,메르스 사망자 6명, 메르스 확산 이번 주가 고비, 메르스 사망자 6명, 메르스 확산 이번 주가 고비, 메르스 사망자 6명, 메르스 확산 이번 주가 고비, 메르스 사망자 6명, 메르스 확산 이번 주가 고비<br/><br/>사진 = 서울신문DB (메르스 사망자 6명, 메르스 확산 이번 주가 고비)<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8.txt

제목: 산삼 캐 암 투병 동료에 전한 심마니 경찰  
날짜: 20150608  
기자: 이성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3819543  
본문: “지난달 초 우리 경찰서에서 50대 직원이 잠자다 갑작스레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힘들고 몸이 좋지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동료를 위해 이 산삼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br/><br/>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박호(54) 경위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직접 산에서 캔 산삼을 수서서에 기증했다. 산삼은 25년근 세 뿌리와 15년근 두 뿌리 등 총 다섯 뿌리다. 일반 소비자가 기준으로 500만~700만원 상당의 산삼이었다.<br/><br/>수서서는 이 산삼을 암으로 투병 중인 경찰서 직원과 가족 등 모두 3명에게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정작 본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암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정을 아는 다른 동료가 대신 처지를 알려 와 산삼을 기증했다</span>”고 말했다.<br/><br/>순경으로 입문한 후 29년째 경찰 외길을 걸어온 박 경위는 “<span class='quot1'>등산을 취미로 삼았는데 7년 전부터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 3년 전부터는 간혹 산삼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span>”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산삼 다섯 뿌리는 지난달 중순 강원도의 어느 산에서 우연히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휴일을 맞아 평소처럼 산을 오르다가 8부 능선 한쪽 골에 유독 주변의 풀과 달라 보이는 잎이 있어 살펴보니 산삼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89.txt

제목: “여자애 아냐”...놀림 참고 머리 길러 ‘암환자 기증’한 소년  
날짜: 20150606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211359  
본문: 소아암 환자들에게 모발을 기증하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주변의 놀림을 참아가며 머리를 기른 8살 소년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br/>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소년 크리스찬은 지난달 20일 미국 ‘모발 없는 아이들’ 재단에 2년여에 걸쳐 기른 자신의 머리카락을 전부 기증했다. 25㎝ 길이의 모발은 화학요법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무료 가발 제작에 사용된다.<br/>이 재단 대표 크리스틴 웡은 “<span class='quot0'>이토록 어린 나이에 선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큰 귀감이 됐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재단 기부자 중 남자 아이는 단 0.5%에 불과하다.<br/>크리스찬의 사연은 2012년 크리스마스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의 홍보영상을 통해 머리카락을 잃은 소아암 환자들의 처지를 알게 된 크리스찬은 그 즉시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했다.<br/>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크리스찬은 무수한 괴롭힘을 받아야 했다. 또래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을 여자애 같다며 놀렸고 가끔은 어른들도 핀잔을 줬다.<br/>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디애나는 “크리스찬은 자신을 놀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당당하고 차분한 태도로 머리를 기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br/>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인트 주드 병원 관계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를 미는 소녀들과 그 부모 곁에서 함께 울곤 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작은 영웅 크리스찬에게 나와 전 의료진이 응원의 말을 전한다”는 글을 올려 크리스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br/>크리스찬의 선행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이전에도 꾸준히 장난감이나 옷가지를 기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디애나는 “<span class='quot1'>언제나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서로를 돕고 공동체에 기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교육했다</span>”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밝혔다.<br/>사진=ⓒ페이스북<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0.txt

제목: 말기암도 치료? 획기적 ‘면역요법 항암제’ 나와  
날짜: 20150605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149377  
본문: -영국, 사용 허가...유럽 각국 승인 대기중<br/>항암치료의 새 장을 열어줄 치료제가 공개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br/>‘미국암학회’(ASCO)는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ASCO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치료제는 '화학요법 이후 항암치료계의 최대 발견'이다.<br/>‘면역요법’ (Immunotherapy) 이라 일컫는 이 치료법은 인간 면역체계가 암 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래 인간 면역체계는 각종 종양에 맞서 싸우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위험하지 않은’ 조직으로 위장한 채 증식을 계속한다. 면역요법은 면역계가 이러한 위장에 속지 않고 암을 인식해 공격하게 해준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br/>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T세포는 센서 역할을 하는 단백질 PD-1과 경보기 역할을 하는 단백질 B7.1을 통해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고 공격한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연구했다. 그리고 최근 암 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PD-L1이 PD-1 및 B7.1에 융합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면역요법 치료제는 PD-L1의 융합 작용을 막아 T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해준다.<br/>치료제는 이필리무밥(ipilimumab)과 니볼류맙(nivolumab) 2종으로 동일한 작용을 하며, 병행하여 사용했을 때 치료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치료는 몇 주에 한 번 꼴로 치료제를 소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년 총 치료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다.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당국 승인을 받았고 유럽 각지에서는 사용 승인 대기 중이다.<br/>-"화학요법 대신해 '표준 암 치료법' 될 것"<br/>이 요법은 폐암, 피부암 등 가장 치명적인 암 질병에 효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 치료가 극도로 어렵다고 알려진 신장암 방광암 두경부암 등에도 효과를 보였다.<br/>영국 피부암 환자 9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치료에서는 60%에 달하는 환자의 종양이 크게 축소되거나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되었다. “<span class='quot0'>사실상 정상적인 삶을 되찾은 것</span>”이라고 치료를 지켜본 의사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타 암 질환의 경우에도 적어도 절반 이상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이 치료법으로 목숨을 구한 전직 여교수의 사례도 알려졌다. 영국 여성 비키 브라운은 2006년 피부암을 진단받고 2013년에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임상치료에 참가해 불과 몇 주일 만에 완치되었다. 그녀는 “기적의 치료제 같았다”며 당시 소감을 밝혔다.<br/>연구진은 이 치료법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진이나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 정도는 화학요법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br/>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화학요법은 보편적인 항암 치료법이 아니었다. 극도의 피로, 구토와 탈모를 유발하며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까닭에 현재도 많은 환자들이 화학치료를 중도 포기하곤 한다.<br/>미국 예일 암센터 로이 허스트 교수는 “<span class='quot1'>향후 5년 이내에 면역요법이 화학요법을 대신해 표준 암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거대한 발견이다, 항암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찾아왔다</span>”고 전했다.<br/>사진=데일리메일 캡쳐<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1.txt

제목: 자궁암 피하려면 ‘지중해식 식사’ 하세요 -연구  
날짜: 20150604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106737  
본문: 지중해식 식사가 여성의 자궁암 발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이탈리아 약리학 연구소(IRCCS)의 크리스티나 보세티 박사팀이 자국 여성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사와 자궁암의 관련성을 분석했다.<br/>여기서 지중해식 식사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콩류, 곡물류, 감자류, 생선류, 올리브유(단일불포화지방)의 섭취는 높이고 육류와 우유, 유제품은 낮추고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 식습관으로, 예로부터 균형 잡힌 건강 식사로 주목받아왔다.<br/>연구팀은 우선 이런 식단을 서로 다른 9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조사했다.<br/>그 결과, 지중해식 식사에 들어가는 식품군 가운데 7~9개를 꾸준하게 섭취하고 있는 여성 그룹은 자궁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 이상(5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또 이런 식품군 가운데 6개를 유지한 그룹은 자궁암 위험이 46% 낮았고 5개만이라도 실천한 그룹은 3분의 1(34%) 정도 낮았다.<br/>반면 지중해식 식사를 5개도 유지하지 못한 그룹은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는 여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br/>이에 대해 보세티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건강에 좋은 균형 잡힌 식사가 여성의 자궁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할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암 위험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 27일 자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2.txt

제목: 녹차 마시면 암 예방…카테킨 임상시험 확인 - 美 연구  
날짜: 20150604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00053078  
본문: 녹차가 남성의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마침내 임상시험으로 확인됐다.<br/>미국 모피트 암센터의 나기 쿠마르 박사팀은 전립선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전암성 병변을 가진 남성들을 대상으로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이 들어있는 캡슐을 복용하게 해 전립선암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밝혀냈다.<br/>연구팀은 카테킨 중에서도 가장 항암 효과가 높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가 대부분인 캡슐(폴리페논E)을 전암 병변이 있는 남성 49명에게 1년 동안 매일 2정(EGCG 4mg)씩 복용하게 했다. 또 같은 증상이 있는 남성 48명에게는 위약(플라시보)을 복용하게 했다.<br/>이 실험에 참가한 모든 남성은 ‘고도의 상피 내 종양’(HGPIN)이나 ‘비전형적 작은 꽈리 증식증’(ASAP)이 있었는데 EGCG 복용 여부에 따라 이런 전암 병변의 중증도에는 차이가 인정됐다.<br/>EGCG를 복용한 HGPIN 증상이 있는 남성은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는 다음 단계인 ASAP로 진행하거나 전립선암으로 진단받는 비율이 현저하게 적었다. 또 전립선암의 종양표지자(경과 관찰에 지표가 되는 물질)로 사용되는 전립선 특이항원(PSA)의 수치도 낮았다.<br/>이번 결과로 EGCG가 가지는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쥐 실험에서만 지적됐던 녹차의 항암 작용이 우리 인간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암연구회(AACR) 학술지 ‘암 예방 연구’(Cancer Prevention Research) 온라인판(4월2일자)에 실렸으며, 지난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5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도 발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3.txt

제목: 반기문 응원 손편지 쓰며 꿈 찾은 아이들  
날짜: 20150603  
기자: 한상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1918969  
본문: “어린 시절 꿈이 외교관이셨다고요? 그 꿈을 이루신 사무총장님이 자랑스러워요. 제 꿈은 판사예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대한민국을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나라로 꼭 만들 거예요.”<br/><br/>경기 구리시 장자초등학교 5학년 정연우 어린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쓴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손편지운동본부 이근호(57) 대표가 2일 장자초 5~6학년 어린이 333명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손편지 쓰는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어린이들이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는 전 세계를 누비며 국제 평화 유지와 빈곤 퇴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반 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br/><br/>이 대표는 “<span class='quot0'>손편지 쓰기 운동은 어린이들의 감성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절과 협동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span>”고 말했다. 장자초 학생들의 이날 편지 쓰기도 어린이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배출한 국제적인 외교 지도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편지를 쓰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기 위해 계획됐다.<br/><br/>그는 4년째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이 대표는 무작정 쉬고 싶다는 생각에 2012년 강원 춘천의 한 조용한 마을로 찾아들었다. 지인의 오두막에 몸을 의탁한 이 대표는 1년간 머물며 평소 마음에 담아 뒀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써 보내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손으로 ‘꾹꾹’ 눌러 편지를 쓰는 과정 자체만으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암 투병 중이던 절친한 지인의 부인이 자신과 손편지로 소통하면서 병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손편지 쓰기 운동을 시작했다.<br/><br/>그동안 실향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철원 백마고지역에 편지스토리관인 ‘북녘 하늘 우체통’을 설치했다. 북에 두고 와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모인다. 경기 양수리 북한강 철교 쉼터 2층에는 ‘물빛등대 우체통’을 설치했다. 주소를 몰라 발송할 수 없는 편지들의 배달처다. 돌아가신 부모나 헤어진 연인에게 편지를 쓰면 이곳으로 배달된다. 취지가 좋아 우정사업본부도 지원하고 있다.<br/><br/>4일에는 서울 한신초등학교 학생 650명과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행사를 연다. 학생들이 쓴 편지는 청와대로 보내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건네진다. 25일에는 진영중·고등학교 60~80대 만학도 1600명과 함께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16개국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br/><br/>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4.txt

제목: 혁명적 ‘면역요법 항암제’ 공개...美학회 “화학요법후 최대 발견”  
날짜: 20150602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921033  
본문: -미국암학회 "화학요법 이후 최대 발견"<br/>항암치료의 새 장을 열어줄 치료제가 공개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미국암학회’(ASCO)는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ASCO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치료제는 '화학요법 이후 항암치료계의 최대 발견'이다.<br/>‘면역요법’ (Immunotherapy) 이라 일컫는 이 치료법은 인간 면역체계가 암 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래 인간 면역체계는 각종 종양에 맞서 싸우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위험하지 않은’ 조직으로 위장한 채 증식을 계속한다. 면역요법은 면역계가 이러한 위장에 속지 않고 암을 인식해 공격하게 해준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br/>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T세포는 센서 역할을 하는 단백질 PD-1과 경보기 역할을 하는 단백질 B7.1을 통해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고 공격한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연구했다. 그리고 최근 암 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PD-L1이 PD-1 및 B7.1에 융합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면역요법 치료제는 PD-L1의 융합 작용을 막아 T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해준다.<br/>치료제는 이필리무밥(ipilimumab)과 니볼류맙(nivolumab) 2종으로 동일한 작용을 하며, 병행하여 사용했을 때 치료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치료는 몇 주에 한 번 꼴로 치료제를 소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년 총 치료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다.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당국 승인을 받았고 유럽 각지에서는 사용 승인 대기 중이다.<br/>-'위장'한 암세포 찾아서 공격<br/>이 요법은 폐암, 피부암 등 가장 치명적인 암 질병에 효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 치료가 극도로 어렵다고 알려진 신장암 방광암 두경부암 등에도 효과를 보였다.<br/>영국 피부암 환자 9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치료에서는 60%에 달하는 환자의 종양이 크게 축소되거나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되었다. “<span class='quot0'>사실상 정상적인 삶을 되찾은 것</span>”이라고 치료를 지켜본 의사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타 암 질환의 경우에도 적어도 절반 이상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이 치료법으로 목숨을 구한 전직 여교수의 사례도 알려졌다. 영국 여성 비키 브라운은 2006년 피부암을 진단받고 2013년에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임상치료에 참가해 불과 몇 주일 만에 완치되었다. 그녀는 “기적의 치료제 같았다”며 당시 소감을 밝혔다.<br/>연구진은 이 치료법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진이나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 정도는 화학요법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br/>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화학요법은 보편적인 항암 치료법이 아니었다. 극도의 피로, 구토와 탈모를 유발하며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까닭에 현재도 많은 환자들이 화학치료를 중도 포기하곤 한다.<br/>미국 예일 암센터 로이 허스트 교수는 “<span class='quot1'>향후 5년 이내에 면역요법이 화학요법을 대신해 표준 암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거대한 발견이다, 항암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찾아왔다</span>”고 전했다.<br/>사진=ⓒ포토리아<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5.txt

제목: 92년 세월지나 癌까지 넘어 세계 최고령 女마라톤 완주  
날짜: 20150602  
기자: 박기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1400947  
본문: 암을 극복한 92세 여성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여성 최고령 완주 기록을 세웠다. 해리에트 톰프슨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 42.195㎞ 구간을 7시간 24분 36초에 결승선을 끊었다고 AP가 보도했다. 톰프슨은 종전 여성 최고령 기록인 만 92세 19일보다 46일 많은 만 92세 65일의 나이로 마라톤을 완주했다. <br/><br/>톰프슨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마라톤에 참가했다.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지인이 톰프슨에게 백혈병과 림프종 퇴치 기금 모금을 위해 마라톤에 참가해 달라고 부탁했고, 가족을 암으로 잃은 아픔을 겪은 톰프슨은 흔쾌히 수락했다. 톰프슨은 올해까지 1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br/><br/>76세에 처음 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할 정도로 건강했던 톰프슨은 2013년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마라톤을 한 해 쉬었다. 지난 1월에는 67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잃어 마라톤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톰프슨은 함께 뛴 아들(56)과 마라톤 참가자의 응원에 힘입어 최고령 마라톤 완주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br/><br/>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6.txt

제목: ‘암세포 자살 유도’ 단백질 찾았다  
날짜: 20150602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1312019  
본문: 비정상적으로 발현된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는 달리 생명력이 강해 외과수술 후에도 다량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다한 항암제 투여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파괴한다. 탈모나 구토, 빈혈 같은 부작용이 그래서 나타난다. 국내 연구진이 적은 양의 항암제만으로도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단백질을 찾아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br/><br/><br/>아주대 의대 김유선 교수팀은 항암제 저항성을 가진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세포사멸 단백질 ‘RIP3’를 찾고, 이를 강화하는 방법까지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셀 리서치’ 온라인 최신호에 실렸다.<br/><br/><br/>김 교수팀은 유방암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서 RIP3 발현이 차이가 나고,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RIP3가 많이 발현되는 사람의 경우 치료 효과와 생존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RIP3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늘릴 경우 항암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br/><br/><br/>연구진은 생쥐에게 유방암이 생기게 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만 RIP3가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약물을 주입했다. 이어 두 그룹 모두에 항암제를 주입했는데 RIP3가 발현되도록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단백질을 이용해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RIP3 조절로 항암제 반응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7.txt

제목: 획기적 ‘면역요법 항암제’ 공개...”암치료 새 장 열렸다”  
날짜: 20150601  
기자: 방승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851152  
본문: -미국암학회 "화학요법 이후 최대 발견"<br/>항암치료의 새 장을 열어줄 치료제가 공개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미국암학회’(ASCO)는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ASCO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치료제는 '화학요법 이후 항암치료계의 최대 발견'이다.<br/>‘면역요법’ (Immunotherapy) 이라 일컫는 이 치료법은 인간 면역체계가 암 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래 인간 면역체계는 각종 종양에 맞서 싸우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위험하지 않은’ 조직으로 위장한 채 증식을 계속한다. 면역요법은 면역계가 이러한 위장에 속지 않고 암을 인식해 공격하게 해준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br/>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T세포는 센서 역할을 하는 단백질 PD-1과 경보기 역할을 하는 단백질 B7.1을 통해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고 공격한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연구했다. 그리고 최근 암 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PD-L1이 PD-1 및 B7.1에 융합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면역요법 치료제는 PD-L1의 융합 작용을 막아 T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해준다.<br/>치료제는 이필리무밥(ipilimumab)과 니볼류맙(nivolumab) 2종으로 동일한 작용을 하며, 병행하여 사용했을 때 치료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치료는 몇 주에 한 번 꼴로 치료제를 소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년 총 치료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다.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당국 승인을 받았고 유럽 각지에서는 사용 승인 대기 중이다.<br/>-'위장'한 암세포 찾아서 공격<br/>이 요법은 폐암, 피부암 등 가장 치명적인 암 질병에 효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 치료가 극도로 어렵다고 알려진 신장암 방광암 두경부암 등에도 효과를 보였다.<br/>영국 피부암 환자 9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치료에서는 60%에 달하는 환자의 종양이 크게 축소되거나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되었다. “<span class='quot0'>사실상 정상적인 삶을 되찾은 것</span>”이라고 치료를 지켜본 의사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타 암 질환의 경우에도 적어도 절반 이상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이 치료법으로 목숨을 구한 전직 여교수의 사례도 알려졌다. 영국 여성 비키 브라운은 2006년 피부암을 진단받고 2013년에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임상치료에 참가해 불과 몇 주일 만에 완치되었다. 그녀는 “기적의 치료제 같았다”며 당시 소감을 밝혔다.<br/>연구진은 이 치료법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진이나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 정도는 화학요법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br/>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화학요법은 보편적인 항암 치료법이 아니었다. 극도의 피로, 구토와 탈모를 유발하며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까닭에 현재도 많은 환자들이 화학치료를 중도 포기하곤 한다.<br/>미국 예일 암센터 로이 허스트 교수는 “<span class='quot1'>향후 5년 이내에 면역요법이 화학요법을 대신해 표준 암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거대한 발견이다, 항암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찾아왔다</span>”고 전했다.<br/>사진=ⓒ포토리아<b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8.txt

제목: 두차례 암 극복한 92세, 여성 최고령 마라톤 기록  
날짜: 20150601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849855  
본문: 여성 마라톤에서 불굴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신기록이 수립됐다. 주인공은 암을 극복하고 92세 고령에 42.195㎞ 풀코스를 완주한 미국 출신 해리에트 톰프슨(92)이다.<br/>톰프슨은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에서 7시간 24분 36초 만에 결승선을 주파했다.<br/>그는 92세 65일의 나이로 완주에 성공해 이 부문 최고령자로 기록됐다. 종전 기록은 92세 19일의 나이로 2010년 호놀룰루 마라톤을 완주한 글래디스 버릴이 보유하고 있었다. 톰프슨은 작년에 7시간 7분 42초로 풀코스를 완주해 90대 이상 여자부 세계기록을 1시간 30분 정도 앞당기기도 했다.<br/>AP통신은 톰프슨을 두 차례나 암을 이겨낸 철녀로 소개했다.<br/>이날 결승선 근처에는 톰프슨의 사연을 전해 들은 참가자와 시민 등이 몰려들어 최고령 기록의 수립을 축하했다.<br/>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톰프슨은 무려 16차례나 로큰롤 마라톤을 완주했다. 톰프슨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도전이 어느 때보다 힘겨웠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고 다리 한쪽이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모친을 응원하고자 56세 아들 브레니도 완주에 함께 했다.<br/>톰프슨은 "위독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리 치료를 받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완주를 했다는 사실에 그냥 기쁠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음악가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 차례나 공연한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육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br/>무려 76세가 돼서야 마라톤에 입문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이 백혈병, 림프종 환자를 위한 모금을 도와달라며 마라톤 동참을 권유한 게 계기였다. 톰프슨은 "그때 가족 여러 명을 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막연히 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그냥 걸을까 했는데 옆에서 다들 뛰니까 나도 엉겁결에 뛰기 시작했다"고 마라톤에 입문한 시절을 돌아봤다.<br/>그렇게 시작한 마라톤을 통해 지금까지 모은 백혈병, 림프종 환자 돕기 기금도 1억여 원에 달한다. 그는 내년에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으나 상황은 작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br/>연합뉴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199.txt

제목: [씨줄날줄] 유전자 가위/문소영 논설위원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0928425  
본문: 글래머 배우인 앤젤리나 졸리는 2013년 2월에 양쪽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 사실을 그해 5월 뉴욕 타임스에 밝혀 전 세계 여성에게 충격을 줬다. 졸리는 “내 어머니는 암과 싸우다가 56세에 사망했다”면서 “난 어머니의 유전자 중 암을 유발하는 BRCA1을 물려받아 의사는 내게 유방암 발병 위험이 87％, 난소암 발병 위험이 50％라고 전했다”고 수술의 이유를 밝혔다. 수술 이후 졸리 유방암의 발병 확률은 87％에서 5％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고 했다. BRCA1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유방암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 돌연변이 부분을 잘라내고 정상 DNA로 교체한다면 양쪽 유방은 무사하지 않았을까.<br/><br/><br/>그게 가능하냐고? 최첨단 유전공학인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다면 가능하다. 진짜 가위처럼 생기지 않고 가위처럼 잘라내는 기능을 하는 덕분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 즉 특정 DNA 부위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가 ‘유전자 가위’로, 잘못된 유전자를 잘라내고 정상 DNA를 붙이는 유전자 교정(Genome Editing) 기술이다. 요즘은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CRISPR-Cas9)’가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를 잘라내고 새로 바꾸는 데 최장 수년씩 걸리던 것이 며칠이면 되고, 여러 군데의 유전자를 동시에 손볼 수도 있다. 또 암과 에이즈, 혈우병 등 각종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고, 농작물이나 축산물의 품종개량도 용이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5일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 등 2건을 선정했는데, 유전체 편집기술이 바로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유전공학 기술이다. <br/><br/><br/>유전자 가위는 식물의 약한 유전자를 잘라내고 스스로 강한 유전자를 복원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인간에 해롭지 않겠느냐며 논란이 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을 대체할 수 있단다. 그러나 자연이 준 유전자 대신 인간이 마음대로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맥락은 같아서 똑같이 유해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윤리성 문제가 대두한다. 지난해 중국 과학자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원숭이의 배아에서 특정 유전자를 바꿨다.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정자·난자의 DNA를 바꿔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맞춤형 아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슈퍼맨 탄생도 시간문제가 아니겠나. <br/><br/><br/>1998년 개봉한 SF영화 ‘가타카’가 연상된다. 인공수정으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면 우성 DNA를 바탕으로 우주비행사 같은 선망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자연임신으로 우성과 열성 DNA가 뒤섞인 인간은 처음부터 그 직업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 출판한 SF 소설 ‘멋진 신세계’와 같은 과학결정론이 지배하는 사회도 떠오른다. 유전자 가위로 DNA 교체를 시도하는 인류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재앙일까, 축복일까. <br/><br/><br/>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0.txt

제목: [누명 벗은 과거사] ‘윤필용 사건’ 불법 고문 41년 만에 3억 6000만원 배상 판결  
날짜: 20150601  
기자: 박성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40818558  
본문: 1973년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낸 ‘윤필용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br/><br/><br/>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는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고 이정표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span class='quot1'>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span>”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윤 사령관의 측근 대령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 대위였던 이씨는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윗선에도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구금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조사관들은 이씨를 고문했고, 이씨는 결국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br/><br/><br/>강제로 전역당한 이씨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통증 등 영구 장애를 얻었다. 승무원이던 딸도 1983년 KAL기 피격사건 때 사망해 그는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다 200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br/><br/><br/>그러나 2011년 이 사건의 다른 연루자가 재심 청구를 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자 이씨의 유족도 이듬해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4월 서울고법은 보안사 요원들이 불법 수사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r/><br/><b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1.txt

제목: 암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날짜: 20150529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5913407  
본문: 우리나라의 성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세포의 성장과정을 무시하고 무제한 증식하는 비정상적 세포 때문에 발생한다. 세포의 성장과 사멸을 조절하는 것은 마이크로 RNA라는 물질이다. 유전질환도 20% 이상이 RNA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 핵심에 마이크로 RNA가 있다.<br/><br/>국내 연구진이 이처럼 질병 발병 여부를 좌우하는 물질인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암이나 유전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이다.<br/><br/>기초과학연구원(IBS) RNA연구단 김빛내리(서울대 생명과학부 중견석좌교수) 단장 팀은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 단백질 복합체인 ‘드로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이크로 RNA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김 단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생명과학분야 권위지 ‘셀’ 28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다.<br/><br/>1993년 처음 발견된 마이크로 RNA는 동식물 세포에 포함된 물질로, 사람의 몸에도 2000여 종류가 들어 있다. 특히 몸속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해 특정 유전자가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의 분화와 성장, 사멸을 조절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RN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당뇨나 암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br/><br/>2002년 마이크로 RNA 생성 과정을 밝혀내 주목받기 시작한 김 단장은 2003년에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 드로셔 단백질을 처음 발견했다.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드로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br/><br/>연구진은 드로셔 단백질이 1개의 드로셔와 2개의 DGCR8 분자로 구성돼 있음을 규명했다. 드로셔는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 재료물질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 DGCR8은 드로셔가 재료를 정확히 잘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라는 것도 입증했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0'>마이크로 RNA로 단백질 합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암이나 유전질환 등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2.txt

제목: 지중해식 식사, 자궁암 위험 크게 낮춰  
날짜: 20150528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638708  
본문: 지중해식 식사가 여성의 자궁암 발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이탈리아 약리학 연구소(IRCCS)의 크리스티나 보세티 박사팀이 자국 여성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사와 자궁암의 관련성을 분석했다.<br/>여기서 지중해식 식사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콩류, 곡물류, 감자류, 생선류, 올리브유(단일불포화지방)의 섭취는 높이고 육류와 우유, 유제품은 낮추고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 식습관으로, 예로부터 균형 잡힌 건강 식사로 주목받아왔다.<br/>연구팀은 우선 이런 식단을 서로 다른 9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조사했다.<br/>그 결과, 지중해식 식사에 들어가는 식품군 가운데 7~9개를 꾸준하게 섭취하고 있는 여성 그룹은 자궁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 이상(5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또 이런 식품군 가운데 6개를 유지한 그룹은 자궁암 위험이 46% 낮았고 5개만이라도 실천한 그룹은 3분의 1(34%) 정도 낮았다.<br/>반면 지중해식 식사를 5개도 유지하지 못한 그룹은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는 여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br/>이에 대해 보세티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건강에 좋은 균형 잡힌 식사가 여성의 자궁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할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암 위험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 27일 자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3.txt

제목: 서로를 꼭 껴안은 암투병 소녀들의 아름다운 사연  
날짜: 20150527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605401  
본문: 두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창 밖을 내다보는 사진 한장이 어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있다.<br/>최근 미국 ABC뉴스등 현지언론은 피츠버그 아동 병원에서 촬영된 사진 한장에 담긴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이제 5살 된 소녀 말리야 존스(사진 왼쪽)와 마델리나 델루카.<br/>두 아이는 안타깝게도 모두 암환자다. 말리야는 소아에게 발병하는 암 가운데 하나인 신경모세포종 4기이며 마델리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한참 부모 품에 안겨 어리광 부릴 나이에 두 아이는 말 그대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는 셈이다.<br/>그러나 부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다. 사진을 촬영한 말리야의 엄마 태즈는 "딸 아이가 마델리나를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가슴에 안았다" 면서 "두 아이는 마치 오랜 친구인양 함께 창밖을 보며 놀았다"고 밝혔다.<br/>엄마 태즈는 마델리나 부모의 허락을 얻어 이 사진을 이달 초 페이스북에 올렸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태즈는 "이 사진 속에는 아픔, 사랑, 우정, 편안함, 도움 등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다" 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진을 어떤 의미로 보던지 간에 긍정적인 기분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br/>이어 "아픈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 이라면서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4.txt

제목: “이한열 열사의 민주화 열망 52t 보령암에 담아낼 것”  
날짜: 20150527  
기자: 최훈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4918404  
본문: “새 기념비가 사람들에게 1987년 6월의 함성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자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한열은 28년 전 독재에 저항하던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요.”<br/><br/>26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석주조각원. 이경복(50) 작가는 이한열 열사의 새 기념비 제작의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5월 불볕더위도 잊은 듯했다. <br/><br/>전두환 독재정권을 향한 민주화 외침이 전국을 울리던 그해 6월 9일. 연세대 2학년 이한열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한열은 그로부터 27일 만에 숨을 거뒀지만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 역사의 지침을 돌려놓는 위대한 이정표가 됐다. 그의 피가 연세대 정문에 뿌려지고 난 이듬해, 넋을 기리기 위해 교내 한열동산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하지만 30년에 가까운 풍상 속에 추모비는 곳곳에 상처가 났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기념비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이 작가에게 제작을 의뢰했다.<br/><br/>이 작가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2011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안중근 외 11인의 단지동맹 기념비’가 그의 작품이다. 그는 이날 높이 1.3m의 원석 주위를 맴돌며 쉴 틈 없이 일했다. 올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작업에 석공예명장 김동철(53)씨 등 베테랑 석장 4명이 달라붙었다. 기념비는 다음달 9일 한열동산에서 처음 공개된다.<br/><br/>이 작가와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이 상징물의 명칭을 ‘추모비’에서 ‘기념비’로 바꿨다.“<span class='quot0'>이한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추모를 넘어서 그의 죽음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함께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으로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span>”<br/><br/>기념비의 원석은 52t 짜리 보령암이다. 보령암은 검은 빛을 내는 화강암 중에서도 입자가 곱고 단단해 보존성이 뛰어난 원석으로 알려져있다. “<span class='quot1'>한국 민주주의 격동기의 기억을 간직하는 기념비이기에 널찍한 모습에 강인한 기운을 지닌 원석을 골랐습니다.</span>”<br/><br/>기념비에는 최루탄을 맞은 이 열사가 7월 5일 숨지고, 7월 9일 국민장이 치러질 때 나이가 22살이었다는 것을 함축하는 ‘198769757922’이라는 숫자가 새겨진다. 기념비 앞에는 디지털 시계도 함께 설치된다. 이 작가는 “<span class='quot2'>기념비를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나와 기념비가 설명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과의 관계를 질문해볼 수 있도록 구상했다</span>”고 했다. <br/><br/>28년간 연세대 한열동산을 지킨 이한열열사추모비는 추후 보존작업을 거쳐 연세대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 추모비의 보존 작업 역시 이 작가가 맡았다. <br/><br/>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5.txt

제목: “인류의 두뇌 발달이 알츠하이머 불렀다”  
날짜: 20150527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4755414  
본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보다도 치매를 더 걱정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있다.<br/><br/><br/>이런 가운데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 병이 인류 지능 발달의 대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중국과학원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원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은 인류의 지능 발달과 함께 진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br/><br/><br/>알츠하이머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걸린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침팬지조차 알츠하이머를 앓지 않는다. 연구팀은 여기에 착안했다.<br/><br/><br/>연구팀은 지능이 진화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계 조상을 가진 현대인 90명의 게놈을 분석했다. 현대인의 DNA를 분석하면 진화에 의한 뇌 구조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br/><br/><br/>그 결과 연구진은 5만~20만년 전 뇌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와 인류를 똑똑하게 만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6개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 유전자들은 알츠하이머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겹친다는 것도 알아냈다.<br/><br/><br/>뇌의 성장은 뇌 신경의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뉴런의 연결망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와 처리할 정보도 늘어나 뇌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br/><br/><br/>연구를 총괄한 쿤탕 박사는 “<span class='quot0'>지능 향상에 따른 과부하로 뇌가 시달리게 되면서 언어능력, 기억력 같은 각종 인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6.txt

제목: 국내 의료진, 스트레스 회복 물질 및 조절기전 규명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4557511  
본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하고 적응하지만, 또다른 사람들은 이를 잘 이겨내지 못해 심하면 좌절감과 우울증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막연하게 개인의 성격차이로만 여겨졌던 개인별 ‘스트레스 회복력(Resilience)’이 뇌 속 스트레스 회복물질의 활성화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연세대 의대 김동구·김철훈(이상 약리학)·강지인(정신과학)’ 교수팀은 사람의 뇌 속에서 신호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중 하나인 ‘mGluR5’(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5)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회복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br/>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뇌과학 학술지인 네이쳐 뉴로사이언스지 2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연구팀은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mGluR5 수용체가 스트레스 회복력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mGluR5을 제거한 실험용 쥐와 일반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부여했다. <br/>　몸집이 큰 쥐가 작은 쥐에게 공격적인 적대 행위를 통해 서열을 정하는 이른바 ‘위계(Hierarchy)스트레스’는 물론 전기자극 스트레스, 행동구속 스트레스 등을 그룹 별로 부여했으며,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된 안정된 상황에서 각각 쥐들의 행동을 관찰했다.<br/>　그 결과, mGluR5가 제거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 쥐들에 비해 실험용 케이지 한쪽 구석에만 머무는 등 지속적으로 행동이 위축된 스트레스 상황을 보여주었다. <br/>　연구팀은 이와 함께 이 행동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험용 쥐의 뇌 속 물질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한 쥐의 mGluR5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에 비례해 ‘델타포스B(ΔFosB)’라는 스트레스 회복 물질이 발현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br/>　연구팀 강지인 교수는 “<span class='quot0'>mGluR5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스트레스 회복물질인 델타포스비의 발현을 촉진, 스트레스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것</span>”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스트레스가 어떻게 우울증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을 찾아낸 것은 물론 뇌 안에서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기전까지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김동구 교수는 “<span class='quot2'>스트레스 회복인자를 통해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span>”라면서 “<span class='quot2'>향후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과 암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등 각종 질병에 관여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과학적인 대처법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span>”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7.txt

제목: 질병 DNA ‘싹둑’… 유전병 막을 藥인가, 차별 낳을 毒인가  
날짜: 20150526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4418190  
본문: 지난 18일 미국 국립과학원(NAS)과 국립의학원(NAM)은 ‘인간 유전체 조작’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계 과학계를 주도하는 미국, 그중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과학자들이 모인 두 단체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사실상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는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알렸다.<br/><br/>미국 과학계가 인간 유전체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중국 과학자들 때문이었다. 지난달 말 중국 중산대 과학자들이 인간 수정란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정상 유전자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단백질과 세포’에 발표했던 것.<br/><br/>중국 연구진은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만 찾아 잘라내는 효소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불임 클리닉으로부터 얻은 수정란 86개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변이 유전자를 잘라내고 정상 유전자를 자라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전자를 바꾼 수정란을 착상시키면 태어나는 아이는 빈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br/><br/>중국 과학자들은 “치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학계에서 금기시해 왔던 ‘인간 유전자 조작’을 통해 원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게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이다.<br/><br/>그렇다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br/><br/>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인류는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다. 1950년대 이후 분자생물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질병의 대다수가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자체를 치료해 질병을 없애려고 시도하면서 ‘유전자 치료’가 시작됐다.<br/><br/>인체는 유전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생산된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 ‘건강한 상태’이고,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비정상적 단백질을 생산하면 ‘병든 상태’가 된다. 유전자 치료는 이상이 생긴 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비정상적 유전자를 제거해 정상 유전자로 교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br/><br/>1990년 미국에서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류 첫 유전자 치료가 시도된 이후 다양한 질환에 시도되고 있다. 현재는 암과 같은 악성 종양에 대한 치료가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다.<br/><br/>현재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 말 그대로 ‘가위’를 이용해 DNA를 자르고 붙이는 편집을 가능케 하는 유전체 교정기법이다.<br/><br/>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유전자는 1만개에 이르고, 신생아의 1% 정도가 유전적 질환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경우 배아 상태에서 유전자 가위로 치료해 유전질환을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다.<br/><br/>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병 치료뿐만 아니라 특정 병균에 강한 식물이나 동물 품종도 만들어 낼 수 있어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마법 지팡이’인 셈이다. 2003년 1세대 유전자 가위인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가 나온 이후 2011년 말에는 2세대 유전자 가위인 ‘탈렌’, 2013년 초에는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됐다. 3세대 가위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교정연구단장(서울대 화학과 교수)이 미국 연구진과 함께 개발해냈다.<br/><br/>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Cas9’이라는 단백질과 가이드 RNA로 구성돼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인간과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의 DNA 일부를 잘라 문제되는 유전체를 교정할 수 있는 효소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Cas9 단백질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DNA의 위치로 데려가는 가이드 RNA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은 물론 진정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br/><b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유전자 치료방법이지만,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br/><br/>이에 김진수 단장은 인간 유전체 중 한군데에서만 작용하는 정교한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정교한 가위로 인간 DNA를 처리한 다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잘리는 표적과 비표적 염기서열을 찾는 방법까지 개발해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켰다. 이 기술은 지난 2월 생명과학 및 화학분야 권위지인 ‘네이처 메소드’에 ‘2015년 기대되는 중요한 실험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br/><br/>원하는 유전자를 잘라 없애거나, 붙여 넣는 이 기술이 비정상적인 유전자만 쏙쏙 골라내 정상 유전자로 바꿔 인류를 ‘질병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아기’를 생산하는 등 유전자 조작으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도 기술의 중요성만큼 사회적·윤리적 논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매년 시행하는 기술영향평가의 올해 대상기술로 선정한 상태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8.txt

제목: 암세포 잡는 ‘킬러 T세포’…英 케임브리지大, 첫 촬영 성공  
날짜: 2015052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458170  
본문: 암세포를 사냥하는 ‘킬러 T세포’의 실제 모습이 처음으로 영상으로 공개됐다.<br/>영국 케임브리지대 길리안 그리피스 교수팀은 ‘킬러 T세포’로 불리는 세포독성 T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들을 죽이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했다.<br/>이는 T세포와 암세포의 현미경 슬라이스를 합치는 과정을 3D 저속 촬영 기법을 써 만든 것이다.<br/>킬러 T세포는 혈액의 백혈구를 구성하는 림프구 안에 있는 면역세포 중 하나로, 체내에 생긴 종양이나 침입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br/>이런 T세포는 한 숟가락 분량의 혈액 속에 500만 개 정도가 있으며, 크기는 머리카락 10분의 1밖에 안 된다.<br/>이런 수많은 T세포가 체내 곳곳을 감시해 암세포를 찾아내는데 막과 같은 촉수로 세포 표면을 직접 확인한다.<br/>국제 학술지 ‘면역력 저널’(journal Immunity) 19일 자에 실린 논문에 포함된 이 영상에는 주황색과 녹색으로 보이는 덩어리가 T세포이며, 푸른색 덩어리는 암세포이다.<br/>이후 이 T세포는 푸른색 암세포에 직접 구멍을 뚫어 그 속에 세포 독소로 알려진 빨간색으로 보이는 독성 단백질을 주입시켜 사멸시킨다.<br/>하지만 이런 T세포도 약점이 있었다. 바로 PD1이라는 일종의 ‘브레이크 버튼’인데 암세포는 지금까지 이 버튼을 눌러 T세포의 기능을 약화하는 전술을 사용해왔다.<br/>그래서 과학자들은 PD1에 보호막을 씌우는 방식으로 암세포가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한 ‘면역관문억제제’를 개발했다.<br/>그 결과, T세포는 다시 암세포를 활발하게 공격하고 피부암(악성 흑색종) 등에도 극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최근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이런 면역 항암제가 속속 개발되면서 암 치료는 기존 수술요법과 항암제 요법, 방사선 요법에 이어 면역요법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br/>사진=유튜브 캡처(https://youtu.be/ntk8XsxVDi0)<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09.txt

제목: 노인 ‘반값 임플란트’ 7월부터 앞니도 적용  
날짜: 20150522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2942339  
본문: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에 대해서도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반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br/><br/>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고 앞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생 한 사람당 어금니 2개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씹는 기능이 약한 앞니는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치과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앞니 임플란트에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이번에 아예 앞니까지 일괄적으로 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br/><br/><br/>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보험을 적용했는데 7월부터는 금속구조물이 들어가 레진상 틀니보다 강도가 높은 금속상(코발트, 크롬) 틀니를 할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등을 사용한 틀니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br/><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0.txt

제목: [新국토기행] 경남 남해군  
날짜: 20150521  
기자: 강원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2504029  
본문: 경남 남해군은 남해안의 중심에 있는 섬으로 이뤄졌다. 남해도와 창선도를 비롯해 크고 작은 올망졸망한 섬과 높고 낮은 산, 아름다운 해안선 등 한려수도의 비경과 어우러진 풍광이 보석처럼 아름다워 보물섬으로 불린다. 본섬인 남해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 주민 대부분이 남해도와 창선도에 산다. 두 섬에 딸린 작은 유·무인도는 모두 79개다. 1973년 6월 남해대교가 건설돼 육지인 하동군과 연결됐다. 고려~조선시대에는 남도의 유배 섬 가운데 한 곳이었다. 절해고도에 갇혀 유배생활을 했던 선비들은 귀양살이의 아픔과 외로움을 글을 쓰며 견뎠다. 자암 김구의 ‘화전(남해 옛 이름)별곡’,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유의양의 ‘남해견문록’ 등이 탄생했다. 김만중은 노도에서 1689년부터 3년간 유배생활을 하다 1692년 55세로 생을 마쳤다. 남해대교 양편에는 노량(梁)리라는 같은 지명이 있다. 귀양 온 선비들에게 남해와 하동 사이를 갈라 놓은 바다 물결은 이슬방울로 이뤄진 다리처럼 보여 더욱 향수에 젖게 했다. 그래서 노량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에 남해도와 창선도를 잇는 창선교가, 2003년 창선도와 삼천포를 잇는 창선·삼천포 대교가 건설되면서 남해안 관광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br/><br/>>>볼거리<br/><br/>●기암괴석 즐비한 금산… 원효대사가 꼭대기에 ‘보리암’ 창건<br/><br/>기암괴석이 곳곳에 솟아 있는 금산(해발 705m)의 절경을 직접 보면 소금강이나 남해의 금강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된다. 하나하나 전설을 간직한 천태만상의 기묘한 바위군과 남쪽으로 펼쳐진 바다가 어우러진 비경은 장관이다. 원래 이름은 보광산이었다. 원효대사가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산꼭대기 부근에 보광사(현 보리암)를 창건하면서 유래됐다. 금산이란 이름은 이성계가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 보광산을 찾아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하면서 뜻이 이뤄지면 산 전체를 비단으로 덮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왕이 된 이성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 이름을 비단 금(錦)자를 써 금산으로 지었다.<br/><br/>금산에는 제1경인 쌍홍문을 비롯해 38경이 있다. 꼭대기에서 보는 일출은 장엄하고 환상적이지만 변화무쌍한 날씨가 구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3년 동안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한다. 정상에 있는 보리암은 강화도 보문사, 낙산사 홍련암과 함께 3대 기도처로 꼽힌다.<br/><br/>● 육지 관광객들 발길이 절로~ 남해대교와 창선·삼천포대교<br/><br/>설천면 노량리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잇는 남해대교는 길이 660m로 1973년 6월 22일 개통됐다. 건설 당시 동양 최대 현수교로 1968년 착공해 5년여 만에 완공됐다. 남해군은 육지에서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관광지로 빠르게 발전했다. 개통된 뒤 한동안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줄을 이었다. 1983년에는 미스코리아 수영복 사진을 남해대교를 배경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당시 미스코리아 진에 뽑힌 임미숙씨는 “<span class='quot0'>남해대교에서 수영복을 입고 사진 찍다 감기에 걸렸다</span>”고 밝히기도 했다. 왕복 2차로인 남해대교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해 옆에 새로운 대교가 건설되고 있다.<br/><br/>남해 창선도와 삼천포 사이 바다에도 길이 3.4㎞의 창선·삼천포 대교가 건설돼 2003년 4월 28일 개통됐다. 단항교, 창선대교, 늑도대교, 초양대교, 삼천포대교 등 각기 다른 모양의 교량 5개가 늑도, 초량섬, 모개섬 등 3개의 섬을 이어주고 있다. 이 다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다.<br/><br/>●하얗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울창한 송림 품은 상주은모래비치<br/><br/>반달형으로 생긴 백사장 길이가 2㎞에 이른다. 수심이 얕고 완만한 데다 물이 깨끗하고 따듯해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모래가 하얗고 부드럽다. 뒤쪽으로 금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울창한 송림이 모래밭을 감싸고 있다. 앞쪽 먼바다에 있는 나무섬과 돌섬이 파도를 막아 주기 때문에 해수욕장 물결이 천연호수처럼 잔잔하다. 여름에는 100만명 이상이 찾는다. 겨울에는 전지훈련 온 선수들의 운동 장소로 이용된다.<br/><br/>●비탈진 급경사 100여층 계단을 보는 듯… 가천마을 다랑이 논<br/><br/>남면 홍현리 가천마을 앞 바닷가 비탈 급경사지에 계단처럼 층층이 조성된 논이다. 구불구불하게 생긴 논이 바다에 닿는 곳까지 100여층을 이룬다. 주민들이 한 뼘의 땅도 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 농사를 짓는지 보여 주는 농업 현장이다. 2005년 1월 명승 제15호로 지정됐다. 다랑이 논 뒤쪽으로 설흘산과 응봉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쪽으론 바다가 펼쳐진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바닷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것으로 꼽히는 암수 미륵바위(경남도 민속자료 제13호)가 있다.<br/><br/>●이순신 장군의 혼이 서린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지<br/><br/>고현면 차면리 관음포 앞바다는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곳이라고 해 이락파(李落波)라고 불린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왜군이 쏜 유탄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적의 기세가 오를 것을 걱정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유언했다.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최초로 육지에 오른 관음포에는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한 유적지(사적 제232호)가 조성됐다. 제사를 지내는 사당 이락사가 있고 충무공유허비와 충무공묘비각 등이 있다.<br/><br/>●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은퇴 후 안식처로 삼은 독일마을<br/><br/>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하다 은퇴한 교포들을 위해 군이 삼동면 물건리에 독일풍으로 조성한 마을이다. 교포들은 독일에서 건축자재를 들여와 독일건축 양식으로 빨간 지붕에 하얀 벽으로 된 주택을 지었다. 물건항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34채가 있다. 1960~70년대 가난했던 시절 돈을 벌기 위해 독일로 갔던 광부와 간호사 출신 60~80대 주민 18가구 20여명이 산다. 마을 뒤쪽에는 지난해 6월 문을 연 남해파독전시관이 있다.<br/><br/>●김만중 등 남해 유배객 6명의 작품을 소개한 유배문학관<br/><br/>유배와 유배문학에 관한 자료를 전시해 놓은 국내 최초의 전시관이다. 남해읍에 있다. 향토역사실, 유배문학실, 유배체험실, 남해유배문학실 등으로 꾸며졌다. 유배문학실에서는 세계 유배의 역사와 문학을 살펴볼 수 있고 남해유배문학실에는 김만중을 비롯한 남해 유배객 6명과 주요 작품 등을 소개해놨다.<br/><br/>>>먹거리<br/><br/>●단단한 육질에 비린내 없는 남해 죽방렴 멸치<br/><br/>바다물살이 센 삼동면과 창선면 사이 지족해협에서 원시어업 방식인 죽방렴을 이용해 잡는 멸치다. 우리나라 최고급 멸치로 생산량이 많지 않아 구하기 어렵다. 죽방렴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 참나무로 된 기둥을 ‘V’자 모양으로 박은 뒤 대나무를 그물처럼 엮어 놓은 고정 어로시설이다. 중간에 설치한 통발 속으로 밀물 때 고기가 들어가고 썰물 때는 입구가 막혀 들어간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한다. 지족해협에 수십개가 설치돼 있다. 명승 제71호다.<br/><br/>죽방렴 어장은 시설과 면허가 제한된다. 죽방으로 잡는 멸치는 그물로 잡는 멸치보다 비늘이나 몸체에 상처가 없어 신선하다. 물살이 센 곳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며 기름기가 적고 비린내가 없다.<br/><br/>삼동면과 미조면 주변에는 멸치회와 멸치쌈밥, 멸치구이 전문 음식점들이 많다. 청정바다 남해에서 갓 잡은 멸치로 요리한 회, 통멸치로 찌개를 끓여 쌈을 싸서 먹는 쌈밥 등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다.<br/><br/>●최적의 바닷바람과 햇살 속에서 자라 고품질 자랑하는 남해 마늘<br/><br/>남해군은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꼽히는 마늘의 주산지다.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一害百利) 식품으로도 부른다. 하루에 마늘 한 쪽을 꾸준히 먹으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늘을 구워도 영양가에는 변화가 없어 먹기에 좋고 소화와 흡수도 잘된다.<br/><br/>남해군 토질은 물이 잘 빠지는 사암이 많고 토양 무기질 가운데 칼슘과 칼륨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마늘을 재배하는 데 알맞다. 토양 산도도 적합해 바닷바람과 햇살 속에서 자란 남해 마늘은 전국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다. 남해 마늘은 칼륨과 칼슘, 당도가 높고 조직이 치밀하다. 씨알도 굵고 오래 저장할 수 있다. 남해 마늘로 만든 흑마늘과 흑마늘 엑기스도 인기가 있다.<br/><br/>●부드러운 육질에 지방산·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남해 한우<br/><br/>남해군은 오염원이 없는 섬 지역으로 산소량이 많고 오존층이 두껍다. 한우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다. 남해한우는 철저한 족보 관리로 태어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송아지를 사육한다. 남해축산업협동조합과 남해한우영농조합법인은 한우혈통번식우 단지를 운영해 송아지를 생산한다. 수송아지는 거세해 2년간 사육한 뒤 체중 600㎏이 넘으면 출하한다. 고기가 부드럽고 지방산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남해한우는 전국 각종 품평회에서 최고급 한우로 인정받고 있다.<br/><br/>●짙은 맛과 향기 품은 남해 유자, 입맛 돋우고 숙취 해소까지<br/><br/>남해군에선 최고 품질의 유자가 생산된다. 맛과 향기가 짙고 당도가 높다. 가격이 높지만 품질이 뛰어나 인기가 있다. 7300여 농가에서 600여㏊에 유자를 재배, 1년에 700여t을 생산한다.<br/><br/>유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 많다. 헤스페리딘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식욕을 돕고 숙취를 풀어주며 기침을 삭이는 효과가 있다. 몸의 노폐물도 내보낸다. 술과 차 원료로 널리 쓰인다. 남해 유자는 11월에 수확한다. 잘게 썰어 설탕에 재어 유자청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인기를 끌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유자가 남해 유자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다.<br/><br/>남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1.txt

제목: 마이클 패스벤더 주연 ‘스티브 잡스’ 티저 예고편  
날짜: 2015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1607817  
본문: 지난 2011년 암으로 사망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br/><br/>영화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공동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원작으로 했다. 이 작품은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를 그린 ‘소셜 네트워크’(2008년)로 제83회 아카데미시상식과 제6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거머쥔 아론 소킨이 각본을, 제81회 아카데미시상식과 제6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대니 보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br/><br/>대니 보일 감독은 아론 랠스톤의 실화 ‘127시간’(2010년)에서 인간의 처절한 생존 의지를 사실적이면서도 긴장감 넘치게 그려냈다. 소설 ‘Q&A’를 원작으로 한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2008년)에서는 빈민가 출신 소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속도감 있는 전개와 감각적인 영상으로 완성시켰다. <br/><br/><br/><br/><br/><br/>최근 공개된 ‘스티브 잡스’ 티저 예고편을 통해서는 화려한 출연진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br/><br/>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스티븐 잡스’ 역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와 ‘노예 12년’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해 연기력을 입증한 마이클 패스벤더가 맡았다. 또 애플의 마케팅 수장 ‘조안나 호프만’ 역은 매력적인 배우 케이트 윈슬렛이, 잡스의 동업자였던 ‘스티브 워즈니악’ 역은 세스 로건이 맡았다. <br/><br/><br/><br/>대니 보일 감독, 아론 소킨 각본, 마이클 패스벤더와 케이트 윈슬렛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스티브 잡스’는 오는 10월 북미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br/><br/>사진 영상=UPI코리아<br/><br/>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2.txt

제목: 이것이 ’분자’의 3차원 모습...초고성능 냉동 전자 현미경 사진  
날짜: 20150518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128166  
본문: 전자 현미경은 현대 과학에 큰 혁명을 불러일으킨 장비이다. 기존의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작은 바이러스나 미세구조라도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면 그 모습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 현미경 기술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며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결정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br/>최근 미 국립 암 연구소의 스리람 수브라마니암 박사(Sriram Subramaniam)와 그의 동료들은 냉동 전자 현미경(cryo-electron microscopy (cryo-EM))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단백질 분자 한 개의 사진을 생생하게 찍는 데 성공했다. 그 분해능은 2.2옹스토롬(Å, 100억분의 1m를 의미)에 불과하다. <br/>하지만 단순히 분해능만 높여서는 단백질의 구조를 100% 이해할 수 없다. 단백질은 3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은 단백질 분자 하나의 사진을 찍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연구팀은 이를 3차원적으로 생생하게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br/>이를 위해서 연구팀은 단백질이 든 시료를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영하 196도에서 210도 사이의 극저온 상태로 만든 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된 단백질 분자를 찍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확보해서 이를 다시 컴퓨터로 재구성했다.<br/>연구팀이 냉동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연구한 단백질은 박테리아에 있는 작은 단백질인 베타-갈락토시다아제(beta-galactosidase)이다. 이 단백질과 PETG란 약물이 결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다. <br/>과학자들은 단백질 분자의 구조를 이해해서 이 단백질에 작용하는 약물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더 효과가 좋은 약물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응용 영역은 매우 무궁무진하다. 앞으로도 미시 세계를 연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3.txt

제목: ‘분자’ 한 개도 생생하게...초고성능 냉동 전자 현미경 사진 공개  
날짜: 20150518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5109689  
본문: 전자 현미경은 현대 과학에 큰 혁명을 불러일으킨 장비이다. 기존의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작은 바이러스나 미세구조라도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면 그 모습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 현미경 기술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며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결정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br/>최근 미 국립 암 연구소의 스리람 수브라마니암 박사(Sriram Subramaniam)와 그의 동료들은 냉동 전자 현미경(cryo-electron microscopy (cryo-EM))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단백질 분자 한 개의 사진을 생생하게 찍는 데 성공했다. 그 분해능은 2.2옹스토롬(Å, 100억분의 1m를 의미)에 불과하다. <br/>하지만 단순히 분해능만 높여서는 단백질의 구조를 100% 이해할 수 없다. 단백질은 3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은 단백질 분자 하나의 사진을 찍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연구팀은 이를 3차원적으로 생생하게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br/>이를 위해서 연구팀은 단백질이 든 시료를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영하 196도에서 210도 사이의 극저온 상태로 만든 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된 단백질 분자를 찍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확보해서 이를 다시 컴퓨터로 재구성했다.<br/>연구팀이 냉동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연구한 단백질은 박테리아에 있는 작은 단백질인 베타-갈락토시다아제(beta-galactosidase)이다. 이 단백질과 PETG란 약물이 결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다. <br/>과학자들은 단백질 분자의 구조를 이해해서 이 단백질에 작용하는 약물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더 효과가 좋은 약물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응용 영역은 매우 무궁무진하다.<br/>앞으로도 미시 세계를 연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4.txt

제목: [제대로 알자! 의학 상식]  
날짜: 2015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0802168  
본문: ●중년 남성·폐경 여성 빈혈 땐 꼭 암 검진을<br/><br/><br/>사람의 몸에서는 약 5ℓ의 혈액이 순환하며 체내에 산소를 공급한다. 하지만 산소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면 세포 조직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가지 못해 어지럼증 등이 생긴다. 어지럼증은 빈혈 외에도 다른 많은 질병 때문에 생길 수 있으므로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빈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빈혈은 대개 철분이 소실돼 발생하기 때문에 월경을 하는 가임기 여성이 잘 걸린다. 치질, 위장관 종양, 위궤양이 있어 위장관에서 만성적인 출혈이 일어나는 사람도 철 결핍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중년 이상의 남자나 폐경 후의 여자가 철 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반드시 암 검사를 해야 한다. 철 결핍성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빈혈은 철분제제를 복용해도 낫지 않는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자가 진단을 하고 원인을 모른 채 소위 빈혈 종합 치료제라고 판매되는 약을 함부로 복용해선 안 된다.<br/><br/><br/>●난독증 극복하면 우측 뇌 더 발달하기도<br/><br/><br/>책을 읽으며 안절부절못하고 아예 책을 읽지 않으려 하거나 읽더라도 단어를 차근차근 하나씩 천천히 읽는 것이 난독증이다. 난독증은 또래 아이보다 읽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에도 장해가 되는 정도를 말한다. 주로 단기 기억 장애와 음운 인식 장애 때문에 생긴다. 단기 기억 용량이 작으면 읽기가 매우 어렵고, 음운 인식력이 약하면 단어를 해체하고 분리해 이해하기가 어렵다. 난독증이 있는 아이는 스스로 ‘난 다른 아이처럼 영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자존감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난독증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우측 뇌가 좌측 뇌의 부족한 언어 기능을 보상하고자 일반인보다 훨씬 정교하게 발달하는 경우도 있다. 우측 뇌는 사물을 입체적, 창조적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난독증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우측 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좌측 뇌의 언어적 기능을 잘 보상해 준 경우다. 난독증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전문 특수교사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주 2~3회 20분씩 나눠 하는 등 짧더라도 자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br/><br/><br/>■도움말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이제환 교수,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5.txt

제목: 검은 점 같은데… 색깔·크기 변하면 피부암 의심  
날짜: 20150518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30801042  
본문: 서양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피부암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야외 활동으로 자외선 노출량이 덩달아 늘었기 때문인데 환자 대부분이 피부암인지도 모르고 병을 묵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대한피부과학회가 지적했다.<br/><br/><br/><br/>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악성흑색종을 포함한 피부암 환자 수는 2009년 1만 980명에서 2013년 1만 5826명으로 44.1%나 늘었고, 한 해 평균 9.6%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악성흑색종 유병률은 10만명당 7.4명, 편평상피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 등 악성흑색종을 제외한 피부암 유병률은 10만명당 23.6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암 안전지대로 알려진 우리나라도 피부암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br/><br/>악성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세포로 인해 생기는 피부암이다. 악성흑색종 일부는 항암치료도 잘 듣지 않고 뇌와 척수로 전이될 수 있어 늦게 발견하면 생명도 위협하는 무서운 암이다.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고 평범한 검은 반점으로 보여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양인에게는 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어 환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br/><br/>김원석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암 환자 가운데는 ‘아프지 않아서’ ‘빨리 자라지 않아서’ ‘그냥 점인 줄 알고’ 1~2년씩 병을 방치하다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 모두가 매일 피부암을 보면서도 무시한 셈</span>”이라고 말했다.<br/><br/>피부암은 대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반드시 피부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부암의 특징만 제대로 알면 다른 암과 달리 발견하기도 쉬워 겉으로 나타난 피부 상태를 보고도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br/><br/>흑색종은 발바닥, 손바닥, 손발톱 밑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통 까만 점 형태를 띠는데 정상 피부에도 생기지만 원래 자신의 몸에 있던 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몸에 이상한 점이 새로 생기거나 원래 있던 점의 색깔이 달라지고 커지는 경우, 피부 속으로 혹이 만져지고 이유 없이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나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다.<br/><br/>점의 모양이 비대칭적이고(Asymmetry), 경계가 불규칙하며(Borderline irregularity), 색이 얼룩덜룩(Color variegation)하고, 비교적 크면(Diameter, 6㎜ 이상) 흑색종을 의심해야 한다. 자가진단법별 영문 명칭의 앞 글자를 따서 이를 악성흑색종의 ‘ABCD 감별법’이라고 부른다<br/><br/>일반 점은 중심점부터 균등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대부분 좌우 대칭적 형태를 보이고, 가장자리의 곡선 모양이 매끈하며 색깔도 균일하다. 또 대부분 크기가 6㎜를 넘지 않는다. 반면 악성흑색종은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며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조와 음영을 띤다. 특히 흑청색과 흰색, 적색을 보일 때는 악성흑색종일 가능성이 크다. 악성흑색종 환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다. 2013년에 악성흑색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40대는 5.1%, 50대는 13.9%, 60대는 24.8%, 70대 이상은 37.4%를 차지했다.<br/><br/>기저세포암은 강한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코 주위나 눈 밑에 발생해 눈에 더 잘 띈다. 대부분 수술로 완치되고 내부 장기로 전이가 잘되지 않는다. 편평세포암은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에서도 발생하며 햇볕에 손상된 피부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이 암은 치료 후 재발하거나 전이될 위험성이 높다. 피부암은 아니지만 햇볕에 손상된 피부에 분홍색이나 적색 반점이 나타나면 피부암 전 단계인 광선각화증일 가능성이 있다. 이석종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는 “<span class='quot1'>광선각화증은 습진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피부암의 원인은 햇볕이기 때문에 평소 자외선 차단에만 신경 써도 예방할 수 있다. 태양광선이 특히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더워도 소매가 있는 얇은 옷,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6.txt

제목: [씨줄날줄] 국어 실력/문소영 논설위원  
날짜: 20150515  
기자: 문소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5830737  
본문: 당나라에서 관리를 등용할 때 인물 평가의 기준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다. 이 신언서판의 기준은 21세기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특히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시대에는 말과 글이 중요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유머를 섞어 감각적으로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인기다. 몇 줄의 글들도 쌓이면 그럭저럭 한 인간의 총체적 실체에 접근하게 한다. <br/><br/><br/>‘보그 병신체’가 있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인 ‘보그’에 비속어인 ‘병신’을 붙인 신조어다. 한글로 썼지만, 사실은 영어랑 다를 바가 없는 국적 불명의 문장으로 문해력이 떨어진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사이드 쉐입을 고려해서 플랜을 플렉서블하게 레벨을 풍성하게~” 하는 식의 대사들이 그것이다. 한글로 고쳐 표현할 수가 없다. “<span class='quot0'>아티스틱한 감성을 바탕으로 꾸띄르적인 디테일을 넣어 페미닌함을 세력되고 아트적인 느낌으로 표현한다</span>”는 문구는 또 어떤가. 이를 “작가의 감성으로 맞춤복 같은 섬세한 장식으로 여성성을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우리말로 고쳐도 어색하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패션·미용 잡지들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 잡지를 모방했던 만큼 ‘보그 병신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언어 사대주의’가 아닌가 싶은데, 무분별한 영어 조기교육이나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 부재를 탓하기도 한다.<br/><br/><br/>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섬뜩하거나 살벌한 표현으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거나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한 번 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정신”과 같은 발언들이다. <br/><br/><br/>올 초부터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는 문장이 어색하거나 조리가 맞지 않는 대목들이 두드러진다. “<span class='quot0'>퉁퉁 불은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span>”를 시작으로, 최근 “<span class='quot0'>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을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span>”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다. 즉석 연설은 주어와 종결어미가 잘 맞지 않기는 한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잦다면 받아 적는 장관들은 어떻게 대통령의 뜻을 파악해 일을 할까 걱정이 됐다. 지난 남미 순방 중에 교포들과의 자리에서도 “도전을 극복하고”라고 표현해 당혹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말실수가 됐구나 싶었다.<br/><br/><br/>리콴유 장례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조문록에 영어로 ‘his loss’라 표현한 것을 두고 영어 문법 실력이 대단하다는 칭송들이 자자했다. 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외국어 연설 능력도 자랑이겠으나, 토론회 등에서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국어 실력도 훌륭해야 하지 않겠나. 말은 소통의 도구이자 의식의 집인데 말이다. <br/><br/><br/>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7.txt

제목: 악수할 때 ‘손 힘’ 약하면 조기사망 위험 - 연구  
날짜: 20150514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925637  
본문: 의사와 악수하는 것이 혈압 검사를 하는 것보다 조기 사망 위험을 평가하는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캐나다 연구진이 주장했다.<br/>캐나다 맥마스터대 공중보건연구소(PHRI) 연구진은 맥없는 악수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이 발병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인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br/>이처럼 악력이 부족한 것은 또 주요 질병은 물론 심지어 조기사망의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으며, 악력 손실이 클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고 연구진은 말하고 있다.<br/>연구를 이끈 데럴 령 박사는 “<span class='quot0'>악력은 한 개인의 사망과 심혈관계질환을 재는 쉽고 경제적인 테스트가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근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 개인의 사망과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약해진 근력은 악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조기사망, 장애, 질병과 심지어 질병의 명백한 징후가 없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연관돼 있다.<br/>하지만 이번 연구는 악력만으로 건강 악화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br/>연구진은 17개국에 사는 35~70세 성인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4년 동안 이들의 악력을 평가했다. 악력 측정은 손에 쥘 수 있는 장치를 사용했고 손과 팔뚝 근육의 점수로 매겼다.<br/>평가 결과는 (측정한) 악력이 5kg 감소할 때마다 심혈관계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혈압검사로 나타나는) 혈액순환 문제보다 17% 더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br/>이런 연관성은 심지어 나이와 신체활동 수준, 술·담배 유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한 뒤에도 지속했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1'>악력은 최대혈압 수치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심혈관계질환 사망률의 더 강한 예측인자였다</span>”고 말했다.<br/>악력이 약한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혹은 암을 가진 사람 중에서 더 높은 사망률과 연관돼 있으며, 이는 근력이 주요 질병이 생긴 사람들의 사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br/>이전 연구는 악력과 미래 기대수명 사이의 연관성이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과 젊은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br/>그 연구 논평에서 에반 아이하이에 세이어 영국 사우샘프턴대 교수와 토마스 커크우드 뉴캐슬대 교수는 “<span class='quot2'>악력은 가속화된 노화에 관한 조기 경고 시스템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그들은 “악력 손실은 노화의 부작용에 ​​관한 유일한 최종공통경로일 가능성은 적지만, 특히 근본적인 노화 과정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의학저널 ‘더 란셋’(The Lancet) 최신호(5월 13일자)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8.txt

제목: “시스플라틴이 원인인 급성신부전에 홍삼 효과 확인”  
날짜: 201505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5536362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1999년 10만명 당 219.9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319.5명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3.5%씩 증가한 규모다. <br/>　이들 암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항암제의 주요 성분 중의 하나가 바로 ‘시스플라틴(Cisplatin)’이다. 이 중에서도 시스플라틴은 난소, 방광, 머리, 목 등에 생긴 고형암에 주로 쓰인다. <br/>　이처럼 암 치료에 유용한 시스플라틴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구토, 오심, 무기력 등은 물론 신장독성을 가져 급성 신부전이 유발될 있다. 급성 신부전은 항암제 사용, 신장 혈류량 감소, 사구체신염 등에 의해 발병하며, 사구체 여과율의 저하, 질소 노폐물의 축적에 의한 고질소혈증, 체액과 전해질의 불균형 등을 수반, 급속한 신장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임상증후군이다. 특히 급성 신부전의 신장기능 장애는 초기 원인제거에 의한 치료에 실패할 경우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성 신부전으로 이행될 위험이 높다. <br/>　이처럼 시스플라틴의로 유발된 급성 신부전을 홍삼의 특정 성분이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br/>　 충남대 수의과대학 정주영(사진) 교수팀은 모두 42마리의 실험동물(Sprague-Dawely Rat)을 6마리씩 7개 그룹으로 나눠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치유 및 보호 효능을 평가했다.<br/>　실험군은 항암제의 일종인 시스플라틴만 투여한 그룹, 고혈압 치료제의 일종인 캡토프릴(Captopril)을 28일간 투여하고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그룹, 홍삼을 농도에 차이를 둬 28일간 투여하고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그룹, 시스플라틴 대신 식염수를 투여한 그룹, 시스플라틴과 식염수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 등으로 분류했으며, 급성 신부전 유발을 위해 실험동물의 최종 희생일 5일 전에 시스플라틴을 투여했다. <br/>　연구팀은 이 실험군을 대상으로 체중 및 소변량의 변화 양상, 혈장 내 신장기능 지표, 신장 내 생체활성 항산화 효소 및 과산화물 제거효소의 변화, 세포산화물 형성, 세포단백질(p53) 유도 정도, 세뇨관 괴사 정도, 전해질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br/>　그 결과, 홍삼 투여군이 시스플라틴만 투여한 그룹과 비교해 체중감소 정도가 경감되었으며, 신장 내 조직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세포산화물 형성, 세포단백질 유도 정도, 세뇨관 괴사 정도도 홍삼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r/>　또 홍삼 투여군에서 혈장 내 신장기능 지표 및 소변량의 급격한 증가가 개선되었고, 신장 내 산화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필수 요소인 생체활성 항산화 효소와 과산화물 제거효소도 증가하여, 급성 신장 손상에 있어 홍삼의 신장기능 보호효과가 확인되었다. <br/>　정주영 교수는 논문에서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천연 제제인 홍삼을 사용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 암 치료에 쓰이는 시스플라틴으로 인한 신장 기능 감퇴가 홍삼 투여로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급성 신부전 외 다른 종류의 신장병 치료에도 홍삼의 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급성 신부전의 치료에는 혈압강하제, 이뇨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 임상증상 완화를 위한 제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독일에서 발행되는 SCI급 국제 의학학술지인 ‘플란타 메디카(Planta Medica)’ 최근호에 게재되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br/>　[용어해설] <br/>　1.고형암(Solid Cancer)=혈액암을 제외한 덩어리로 이뤄진 모든 암.<br/>　2.급성 신부전(Acute Renal Failure)=급격한 콩팥의 배설기능 저하에 의하여 수분, 염분, 그리고 체내 질소대사산물인 요소와 크레아티닌의 급속한 상승을 초래한 병태를 말한다. 빈뇨와 무뇨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는 원인을 초기에 제거하면 신장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으나, 병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만성화하기 쉽다.<br/>　3.혈중요소질소(BUN)=혈액 속의 요소를 말한다. 이 요소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의 최종 산물로, 간에서 생산되어 신장으로 배출된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산물이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일정량이 생산되지만, 신장기능이 나쁠 경우 배설되지 못하고 몸속에 축적돼 신장기능 측정에 주로 이용된다.<br/>　4.크레아티닌(Creatinine)=근육, 뇌, 심장 등에 존재하여 에너지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 대개 혈액이나 근육에 존재하며, 신장을 통해 몸 밖으 로 배설됨. 혈중에 존재하는 크레아티닌의 농도는 특별한 병변이 없는 한 근육량에 비례하며, 다른 경로 없이 단지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이 되므로 신장기능을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된다.<br/>　5.생체항산화효소(Glutathione, GSH)=글리신, 글루타민, 시스테인 세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트리펩타이드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며, 체내에서 해독기능, 면역기능, 항산화 기능을 수행한다.<b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19.txt

제목: 영재발굴단 최정문, 카드52장 완벽하게 암기 ‘소름’ 알고보니 최연소 멘사회원  
날짜: 201505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5331917  
본문: 영재발굴단 최정문, 카드52장 순서‧모양 완벽 기억 ‘서울대 공대+최연소 멘사 회원’ 알고보니 걸그룹?<br/><br/>‘영재발굴단 최정문’ <br/><br/>가수 최정문이 카드 52장을 완벽하게 외워 눈길을 끈다. <br/><br/>13일 방송된 SBS ‘영재발굴단’에서는 무엇이든 외우는 12세 암기왕 임찬열 군이 등장했다<br/><br/>이날 최정문은 암기왕 찬열 군과 카드 52장 외우기 대결을 펼쳤다. 카드 52장 순서 외우기에 나선 최정문은 숫자와 모양까지 완벽하게 순서를 암기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br/><br/>암기왕 찬열군 역시 카드 52장의 순서와 모양을 완벽히 외우며 명석한 두뇌를 자랑했다.<br/><br/>한편 2012년 걸그룹 티너스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최정문은 서울대 공대 출신이자 최연소 멘사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br/><br/>사진=SBS 영재발굴단 방송캡처(영재발굴단 최정문)<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0.txt

제목: [세종로의 아침] 연금 개혁 악역이 필요하다/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날짜: 20150514  
기자: 김경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5306931  
본문: 10년 전쯤 한 대학병원 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 나이 여든을 앞둔 노 원장은 “50여년 의사 생활에서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세 가지 원인으로 죽는 것 같다. 하나는 세포의 문제, 또 다른 하나는 혈관계 질환, 나머지는 교통사고다. 허허…”라고 말했다.<br/><br/>세포 문제란 암, 뇌종양, 백혈병 등을 말하고 혈관계 질환이란 뇌출혈, 심근경색, 고혈압 등 혈류가 고장 난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둘은 유전을 통한 가족력의 영향이 매우 크고, 웬만해선 둘 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본인도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뇌출혈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 기자가 혈관계 질환으로 급사했다. 앞서 그의 친족 상당수도 같은 유형으로 사망했는데, 정작 후배는 암보험만 두 개나 들어 둔 사실을 알았다. “<span class='quot0'>보험금 탈 일도 없을 것을 … 내가 미리 그 말을 전하기만 했더라도….</span>” 후회가 밀려왔다.<br/><br/>현재 우리 정국은 세포와 혈관에 모두 문제가 생긴 듯하다. 중요한 어느 부위가 썩었고, 동시에 흐름도 막혔다는 말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현직 도지사에 이어 위세 당당했던 총리마저 검찰에 소환된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그들이 설령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마구 검은돈을 뿌린 한 기업인과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국민은 실망하고 불쾌하다. 야당도 똑같은 부류라 여기는 민심은 지난 4·29 재보선의 표심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치권 선거자금보다 금융권 뇌물이 더 구조적이고 대가성이 분명한 비리인 만큼 수사에서 빼놓지 말아야 한다.<br/><br/>그러는 사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직도 헛돌고 있다. 용케 여야가 논의 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뤘는데, 주무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뒤늦게 “안 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당·청 간의 간극을 메워야 할 청와대 정무수석은 “몰랐다”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또 공무원 노조의 향방을 잘 주시해야 하는 인사혁신처 장관은 법외 노조위원장보다 존재감이 없고, 복지부와 인사처를 관할하는 사회부총리는 중요한 시점에 아예 지역에 내려가 모임만 챙겼다. 잘못된 것이라면 합의 이전에 지적했어야 옳다. 어딘가 막혀도 한참 막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단히 중병에 걸려 대수술이 필요한 응급실 환자와 다름없다.<br/><br/>연금 등 복지 문제를 개혁하려면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 그동안 인심 쓰듯 퍼주다가 돌연 뺏는데, 누가 좋아하고 따르겠는가. 그러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어코 밀어붙였다. 요즘 우리는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span class='quot1'>한국인은 큰일(연금 개혁)은 하나도 못 하면서 오로지 반일(反日)밖에 모른다</span>”는 조롱을 받을 만한 꼴이 됐다.<br/><br/>옛 조선의 왕조 역사에서 미천한 태생의 그가, 제 자식마저 참혹하게 죽인 그가, 결국 강력한 개혁 군주로 기억되는 것은 제21대 영조다. 우리에겐 현실 타파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반세기의 노력과 발전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br/><br/>kkwoo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1.txt

제목: [열린세상] 응급실 폭력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날짜: 201505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5307656  
본문: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주 고령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사이 근처 경기도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고령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들어왔다. 이어 자정이 다 돼서는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진 40대 환자가 들어왔다. 심정지가 일어나 의료진이 급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뒤이어 락스를 삼킨 어린아이, 고열의 암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 어머니의 상태도 좋진 않았지만 뒤이어 들어온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기에 김씨는 급한 마음을 누르며 어머니를 달랬다. 그러나 몇 시간 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던 응급실 의사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느낀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언성은 높아졌고 의사의 가운을 잡아 끌며 어머니의 병상으로 끌고 왔다. 김씨는 몇 분이 되지 않아 도착한 청원경찰에게 이끌려 경찰서로 향했다. <br/><br/>응급실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나 보다. 지난달 영국 보건부는 응급실 폭력을 줄이는 디자인을 발표했다. 400시간이 넘는 조사가 이루어진 후 발표된 디자인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었다.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응급실의 상황을 전달하는 안내 패키지가 개발되고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는 즉시 응급실 안내 리플릿을 배부해 앞으로 진행될 진료 과정과 평균적인 대기 시간을 안내했다. 대기실에는 응급실 내 상황을 나타내는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에 띄워 응급실 혼잡도와 그에 따른 치료 지연 등을 바로 전달했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변 응급실 위치와 혼잡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특정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했다.<br/><br/>왜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공격적으로 변할까. 어떤 타입의 환자가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쉬울까. 영국 보건부가 찾은 답은 의외의 결과를 보여 줬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중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로 나눠 분석해 보니 평범한 환자군에서 더 많은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응급실의 폭력 발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정확한 정보와 효율적인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오랜 대기 시간을 보내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이 생기고, 이런 불만이 환자의 불안·고통과 합쳐지면 인내심을 잃게 되면서 쉽게 주변의 의료진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br/><br/>영국 보건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해법을 공모했고 선택된 것이 바로 디자인 사무소인 피어슨로이드의 ‘더 나은 응급실’ 프로젝트다. 보건부는 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 디자인 진흥기관인 디자인 카운슬에 응급실 의료 서비스 개선 작업을 의뢰했다. 디자인 카운슬은 응급실의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응급실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며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디자인을 연구했다.<br/><br/>우리는 미디어에 나타난 폭력과 정도에 분노한다. 어떻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저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지 혀를 찬다. 그러나 환자의 폭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했을까. 국가가 모든 비용을 해결하는 무상의료 체계인 영국에서는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 나는 것이 의료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도 응급실 폭력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결과는 놀라웠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의 75%가 불만이 줄었으며 응급실 폭력은 프로젝트 시작 전보다 50%나 줄어들었다고 한다.<br/><br/>이 프로젝트 시행 내용을 보면서 부러웠던 점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효율적인 대처 방안 도출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고와 고민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청문회 없이 응급실 폭력 줄이기에 성공한 영국. 결국 응급실 폭력을 줄이는 것은 폭력 제공자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원인 발생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도출이 그 첫걸음이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2.txt

제목: “내복 받은 첫 스승의 날… 이젠 제가 요리해 줘요”  
날짜: 20150514  
기자: 최선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5302629  
본문: “<span class='quot0'>스승의 날이란 것 자체가 없는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사제 간에 애틋한 정이 있어 정말로 부럽습니다.</span>”<br/><br/>그롯트 파스칼(50) 한국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 객원교수는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22년 전 한국에서 첫 인연을 쌓았던 소중한 제자들과의 추억이 떠오른다. <br/><br/>“숭실대에서 첫 스승의 날을 맞았는데 학생들이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저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더군요. 근데 그 학생이 남자였어요. 프랑스에선 남자가 남자한테는 꽃을 주지 않는데 생소하면서도 참 고맙더군요. 당시만 해도 외국인 교수가 많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내복, 포도주 등을 선물로 주며 살갑게 대해 줘서 매우 고마웠습니다.”<br/><br/>일본인 외숙모와 함께 자란 것을 계기로 파리7대학 일본어학과에 진학한 파스칼 교수는 한·일 관계 등 역사를 공부하며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국어를 복수전공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딴 그는 파리에서 만난 지금의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1993년 서울로 와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br/><br/>그에게도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었다. 한국어를 힘들게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자신의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답해 주던 한국인 교수였다. 파스칼 교수는 “<span class='quot1'>한국에 온 뒤 늘 그분의 소식이 궁금했는데 지난해 암으로 돌아가셨단 얘기를 들어 너무 안타까웠다</span>”고 말했다.<br/><br/>2013년부터 방송대에서 매주 한 번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영화로 배우는 프랑스어 회화’ 수업을 진행 중인 그는 이번 스승의 날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강생들과 술 한잔 기울일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불문과 엠티에서 학생들과 직접 홍합탕을 만들어 먹었을 정도로 한국 요리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span class='quot0'>스승과 제자 관계를 넘어서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span>”<br/><br/>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3.txt

제목: [포토] 英 해리왕자 아기 하품 따라 ‘하~암’  
날짜: 2015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5023329  
본문: 12일(현지시간) 뉴질랜드를 방문한 영국 해리 왕자가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군중들과의 만남에서 만난 한 아기의 하품을 따라하고 있다. 해리 왕자는 지난 9일 뉴질랜드를 방문해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br/>사진 ⓒAFPBBNews=News1<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4.txt

제목: 병원서 ‘절친’된 두 꼬마 암환자의 아름다운 사연  
날짜: 20150510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710465  
본문: 아픔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두 꼬마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최근 미 언론을 타고 전해졌다.<br/>미국의 유명 어린이 전문병원 텍사스 아동병원에는 '우정'을 나누는 두 소녀들이 입원 중이다. 이 소녀들의 이름은 아바 가르시아(4·맨 위 사진 왼쪽)와 페니 스미스(3). 병실에 나란히 입원 중인 이 어린이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 암을 앓고있다.<br/>지난해 5월 페니는 근육 관련 암을, 8월 아바는 신장암을 각각 진단받은 것. 한창 부모에게 어리광 부릴 나이에 이들 소녀들은 어른들도 받기 힘든 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도 치료지만 아이들을 또한 힘들게 하는 것은 병원 생활이었다.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세상과 단절된 생활이 아이들을 힘들게 한 것이다.<br/>그러나 두 아이가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생활하면서 이들은 서로 친구가 됐다. 치료 탓에 1주일에 2번 밖에 못 만나지만 아이들은 아픈 것도 잊고 건강한 아이들처럼 함께 놀았다. 아바의 엄마 크리스티나는 "아이가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줄었다" 면서 "동병상련을 느끼는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고 밝혔다.<br/>그러나 부모의 소원과는 달리 두 아이의 운명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증상이 호전되는 아바와 달리 페니는 병이 악화돼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사실상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br/>페이의 엄마 신디는 "페니가 지금은 숨을 쉬는 것도 어려워 하지만 아바가 큰 도움이 되주고 있다" 면서 "얼마 전에도 카드와 엘사 인형을 페니에게 주며 힘을 줬다" 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페니는 자신의 마음 속에 아바와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5.txt

제목: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초콜릿우유를 먹어라” 진짜?  
날짜: 2015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3554550  
본문: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초콜릿우유를 먹어라”<br/>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br/>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간식이다. 미국 남성지 디테일스(www.detail.com)의 리사 시바 기자가 전하는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5가지를 소개한다. <br/><br/>● 아보카도 <br/>아보카도는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을 재생하는 불포화지방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비타민 B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아보카도는 남성의 전립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운동을 하는 남성이라면 필히 섭취해야할 음식이다. <br/><br/>● 달걀 <br/>익히 알려져 있듯이 달걀은 대표적인 단백질 보충원이다. 달걀은 원기 회복과 근육 발달에 좋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달걀을 먹을 땐 삶은 달걀로 먹어줘도 좋고 프라이 형태로 만들어 빵과 함께 먹는 것도 방법이다. <br/><br/>● 고구마 <br/>다이어트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좋은 간식 고구마. 단백질만 섭취해서는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고구마에는 탄수화물이 다량 포함돼 있다. 이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한 식이섬유질을 제공한다. 운동 후 하루에 한 개 정도의 고구마만 먹어줘도 충분하다. <br/><br/>● 녹차 <br/>녹차는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동시에 지방 분해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또 녹차는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카페인은 피로 회복에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녹차를 마시면 피로감을 어느정도 없앨 수 있다. 녹차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근육통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br/><br/>● 초콜릿 우유 <br/>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진다. 이때 초콜릿우유는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된다. 또한 초콜릿우유는 재생력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후 지친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벼운 운동 후 수분 공급은 물로 충분하지만 격렬한 운동 뒤엔 수분과 3대 영양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초콜릿우유를 먹을 것을 추천한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6.txt

제목: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초콜릿우유를 먹어라” 이유는?  
날짜: 2015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3545928  
본문: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초콜릿우유를 먹어라”<br/>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br/>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간식이다. 미국 남성지 디테일스(www.detail.com)의 리사 시바 기자가 전하는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5가지를 소개한다. <br/><br/>● 아보카도 <br/>아보카도는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을 재생하는 불포화지방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비타민 B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아보카도는 남성의 전립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운동을 하는 남성이라면 필히 섭취해야할 음식이다. <br/><br/>● 달걀 <br/>익히 알려져 있듯이 달걀은 대표적인 단백질 보충원이다. 달걀은 원기 회복과 근육 발달에 좋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달걀을 먹을 땐 삶은 달걀로 먹어줘도 좋고 프라이 형태로 만들어 빵과 함께 먹는 것도 방법이다. <br/><br/>● 고구마 <br/>다이어트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좋은 간식 고구마. 단백질만 섭취해서는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고구마에는 탄수화물이 다량 포함돼 있다. 이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한 식이섬유질을 제공한다. 운동 후 하루에 한 개 정도의 고구마만 먹어줘도 충분하다. <br/><br/>● 녹차 <br/>녹차는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동시에 지방 분해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또 녹차는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카페인은 피로 회복에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녹차를 마시면 피로감을 어느정도 없앨 수 있다. 녹차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근육통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br/><br/>● 초콜릿 우유 <br/>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진다. 이때 초콜릿우유는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된다. 또한 초콜릿우유는 재생력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후 지친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벼운 운동 후 수분 공급은 물로 충분하지만 격렬한 운동 뒤엔 수분과 3대 영양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초콜릿우유를 먹을 것을 추천한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7.txt

제목: 지금은 요리男 전성시대… 강남구청 ‘아빠요리교실’  
날짜: 20150509  
기자: 최훈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3341106  
본문: “분식집에서 포장해온 튀김을 넣으면 튀김 김밥, 두릅이랑 초장을 넣으면 두릅 김밥이죠. 이만큼 응용이 다양한 요리도 없을 겁니다. 여름철에는 잘 상하니까 밥에 식초를 넣어주세요. 시금치 대신 오이나 부추도 좋고요. 밥은 김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고요. 너무 꽉꽉 눌러서 넣으면 가슴을 치면서 드셔야 하니까요. 하하하”<br/><br/><br/><br/><br/><br/><br/><br/>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도전기공고 교실. 탁탁탁 오이 채 써는 소리와 함께 강한 향이 코끝을 찌른다. <br/><br/>“<span class='quot0'>요즘 ○○마트에서 오이를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팔더라고요.</span>” <br/><br/>대화 내용부터 심상치 않다. 살림 좀 해 본 주부 못지않은데, 목소리는 중저음이다. “차렷, 경례! 사랑합니다.” 중년 남성들은 반장 홍현한(64)씨를 따라 이우현(40·여·요리연구가) 강사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강남구청에서 남성 대상으로 6년째 운영해온 2개월 과정 ‘아빠 요리교실’ 7회 차인 이날의 도전 과제는 김밥이다.<br/><br/>“냄비에 밥해 보신 분? 역시 안 계시네요.”<br/><br/>이우현 강사는 칠판에 ‘센 불 2분, 약불 10분, 뜸 2~3분’이라고 적어놓았다. 수강생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펜을 들고 받아적었다. <br/><br/>평생 제조, 건설, 금융, 정보·보안 등에서 실력을 쌓은 베테랑들이지만 요리는 문외한이다. 마트에서 팔리는 김밥용 단무지 색깔은 어떤 것이 건강에 좋은지, 김밥과 함께 먹는 된장국은 어느 정도 불 세기에 몇 분간 끓여야 맛있는지 등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br/><br/>40대 후반~50대 초반 회사원부터 은퇴한 60대 전직 중소기업 사장님까지 ‘요리하는 남자’의 출신은 다양했다. 한 수강생은 “맞벌이라 돈은 아내와 같이 버는데 살림은 혼자 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 왔다”고 했다. 김종수(55·건설업)씨는 “은퇴하면 아내와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적어도 ‘삼식이’(은퇴 후 집에서 세끼를 챙겨 먹는 남편)란 말은 듣지 않으려 한다”며 웃었다. 암 투병을 위해 지난해 휴직했다는 이명수(56)씨는 “<span class='quot1'>담도암 진단을 받았지만 거의 완치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1'>평소 해보고 싶던 요리를 배우러 왔다</span>”고 했다.<br/><br/>‘금남의 영역’이던 부엌의 빗장을 남성들이 열고 있다. ‘요리하는 남자’의 등장은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남녀 역할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명희 부경대 교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을 하찮은 일로 평가했고, 요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남녀 성 역할의 경계가 희미해졌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상 역시 말로만 평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남성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br/>미식가를 뜻하는 영어 단어 ‘개스트로놈’과 ‘섹슈얼’을 합성한 신조어 ‘개스트로섹슈얼’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2008년 영국 BBC 방송 요리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인기를 끈 제이미 올리버도 남성이었다. 최근 인기를 끈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수요미식회’, ‘마스터셰프 코리아’ 등 음식 프로그램에 등장한 셰프나 맛칼럼니스트 대부분이 남자다.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요리는 남자가 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상함의 극치</span>”라면서 “<span class='quot2'>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던 남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데, 여성 경제력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미식’(美食)이란 말이 일반화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더이상 생존 자체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요리를 하고 먹는 과정 자체가 문화인 동시에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과 맞물려 있다. <br/><br/>음식 컨설팅 업체 온고푸드 최지아 대표는 “<span class='quot3'>경제력이 높은 미국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 남성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계란 노른자를 뺀 화이트 오믈렛을 찾는다</span>”며 “<span class='quot3'>선진국에서는 경제력 있는 남성들이 음식에 대한 관심도 더 높다</span>”고 말했다. <br/><br/>김보선 푸드스타일리스트는 “<span class='quot4'>지난해까지 대기업 사내 동아리를 대상으로 요리 클래스를 운영했는데 남성들의 호응이 좋아 1월부터 남성 전용 요리교실을 열었다</span>”고 설명했다.<br/><br/>1인 가구의 증가 또한 무관치 않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5'>혼자 사는 20~30대는 음식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5'>요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고 직접 해서 먹는 음식이 몸에 좋다는 인식이 높다</span>”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1인 가구는 5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27.1%에 이른다.<br/><br/>물론 음식은 생존 수단이기도 하다. 이우현 강사는 “<span class='quot6'>요리는 퇴직 남성들에게는 스스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의 도구가 되는 것 같다</span>”고 했다. 노진철 교수는 “<span class='quot7'>남성들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활동이 확 줄어드는 반면, 전업주부들은 40~50대 때 친목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퇴 남성들에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했다는 김복용(69)씨는 “<span class='quot8'>지난해 3월 은퇴 후 집사람 건강이 좋지 않아 대신 식사를 준비해 보려고 요리를 배웠다</span>”면서 “<span class='quot8'>매번 새로운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신기하다</span>”고 했다. <br/><br/>건설업에 종사하다 6년 전 퇴직한 반장 홍씨는 “<span class='quot9'>요리교실에서 배운 굴 영양밥이 가족에게 엄청 인기를 끌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9'>며느리, 집사람과 대화 주제도 다양해졌다</span>”며 활짝 웃었다.<br/><br/>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8.txt

제목: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초콜릿우유를 먹어라” 대박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2950719  
본문: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초콜릿우유를 먹어라”<br/>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br/>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간식이다. 미국 남성지 디테일스(www.detail.com)의 리사 시바 기자가 전하는 다이어트할 때 좋은 간식 5가지를 소개한다. <br/><br/>● 아보카도 <br/>아보카도는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을 재생하는 불포화지방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비타민 B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아보카도는 남성의 전립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운동을 하는 남성이라면 필히 섭취해야할 음식이다. <br/><br/>● 달걀 <br/>익히 알려져 있듯이 달걀은 대표적인 단백질 보충원이다. 달걀은 원기 회복과 근육 발달에 좋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달걀을 먹을 땐 삶은 달걀로 먹어줘도 좋고 프라이 형태로 만들어 빵과 함께 먹는 것도 방법이다. <br/><br/>● 고구마 <br/>다이어트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좋은 간식 고구마. 단백질만 섭취해서는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고구마에는 탄수화물이 다량 포함돼 있다. 이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한 식이섬유질을 제공한다. 운동 후 하루에 한 개 정도의 고구마만 먹어줘도 충분하다. <br/><br/>● 녹차 <br/>녹차는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동시에 지방 분해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또 녹차는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카페인은 피로 회복에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녹차를 마시면 피로감을 어느정도 없앨 수 있다. 녹차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근육통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br/><br/>● 초콜릿 우유 <br/>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진다. 이때 초콜릿우유는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된다. 또한 초콜릿우유는 재생력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후 지친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벼운 운동 후 수분 공급은 물로 충분하지만 격렬한 운동 뒤엔 수분과 3대 영양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초콜릿우유를 먹을 것을 추천한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29.txt

제목: 항암제 부작용 줄일 단서 찾았다  
날짜: 20150508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2803202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암은 외과수술, 방사선 조사(照射), 항암제 투여로 치료한다. 이 가운데 항암제는 세포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주입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br/><br/>항암제는 치료 효과는 좋지만 암세포처럼 자라는 속도가 빠른 골수나 머리카락, 점막 등 정상세포까지 죽여 탈모, 구내염, 골수손상, 면역억제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항암제의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억제제 개발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 단서를 찾아냈다.<br/><br/>경북대 의대 배재성 교수와 수의과대 진희경 교수팀은 조혈줄기세포를 이용해 골수 손상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뉴로펩타이드Y’(NPY)를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권위지인 ‘엠보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br/><br/>연구진은 유전적으로 NPY가 없는 생쥐의 골수는 정상 생쥐의 골수보다 조혈줄기세포 수가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혈줄기세포의 감소는 세포의 생존과 유지에 필수적인 골수 내 신경세포와 내피세포가 사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br/><br/>연구팀은 NPY가 발현되지 않은 생쥐의 골수 손상은 항암제 투여로 인해 골수가 파괴된 암환자와 비슷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NPY 결핍 생쥐와 항암제를 투여해 골수가 손상된 실험쥐에게 NPY를 주입하면 감소됐던 신경세포와 내피세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혈줄기세포 수가 늘어나 골수 손상이 완화되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NPY가 생체면역기능을 유지하는 대식세포에 존재하는 물질과 반응해 신경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TGF-β라는 단백질 분비를 늘림으로써 골수 손상이 완화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배 교수는 “<span class='quot1'>골수 조혈줄기세포의 손상을 막아야 항암제로 인한 골수 파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치료기전을 밝혀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NPY를 이용할 경우 골수손상을 예방하면서 항암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이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0.txt

제목: 백수오 남용시 부작용 우려, 올바른 폐경 치료에 주목  
날짜: 20150507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532659  
본문: 폐경기 증상 때문에 늘 불편함을 호소하다가 주변에서 추천하는 백수오 제품을 먹게 되었다는 A씨(53·여). 하지만 백수오를 꾸준히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여전하고 수시로 얼굴이 빨개지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도 크게 나아진 것을 못 느꼈다. 게다가 최근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자궁근종이 의심된다는 진단까지 받으며 “<span class='quot0'>나 나름대로는 건강 관리를 한다고 백수오를 챙겨 먹었는데,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진작에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알아보지 않은 게 후회된다</span>”고 말했다.<br/>‘가짜’ 논란에 휩싸인 백수오는 중년 여성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의 유명 한약재이자 갱년기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짜 백수오라도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경우 여성호르몬에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발표도 있은 만큼,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제대로 된 폐경 치료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br/>-백수오 등 건강식품으로는 근본적인 폐경 치료 효과 볼 수 없어... <br/>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이 거세지면서, 폐경 관리를 위해 인기가 높았던 각종 건강식품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수오는 진위 여부를 떠나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br/>가짜 백수오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진짜’ 백수오 함유 제품을 오남용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백수오가 여성 호르몬에 관여하는 효과가 있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의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경우 오히려 자궁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유방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 질환에 있어서도 무조건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한약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함부로 복용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br/>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채희동교수는 “<span class='quot1'>폐경 증후군은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건강보조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폐경과 관련된 여성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의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span>”고 지적했다.<br/>게다가 폐경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벼운 열성홍조, 가슴 두근거림, 발한과 수면장애 등으로 시작되는 폐경이 에스트로겐 결핍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골다공증, 치매,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r/>-안전성과 효과 입증된 폐경기 치료는 ‘호르몬 요법’뿐 <br/>폐경 호르몬 치료 요법은 쉽게 말해 여성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폐경 호르몬 치료 요법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며 데이터가 축적되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호르몬제가 개발되어 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증상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가볍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br/>채희동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들이 호르몬 요법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에 대한 걱정이지만, 암과 관련한 위험성은 과장된 경향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호르몬 요법은 이미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된 치료법인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1.txt

제목: ‘줄기세포 치료제 암 유발’ 해법 찾았다  
날짜: 201505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2320439  
본문: 줄기세포는 간세포, 피부세포, 신경세포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난치병 치료나 환자 맞춤형 치료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br/><br/><br/>하지만 문제는 줄기세포로 치료제를 만들 경우 치료에 이용되고 남은 줄기세포가 몸 속에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br/><br/><br/>연세대 의대 김동욱 교수팀은 줄기세포로 만든 신경계 전구세포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물질을 조절해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물실험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br/><br/><br/>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줄기세포학회에서 펴내는 ‘스템 셀 리포트’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 교수팀은 줄기세포를 신경계 전구세포로 분화시킬 때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외에 신경능선세포가 소량 만들어진다는 데 주목했다. <br/><br/><br/>이 신경능선세포는 신경세포와 모든 면에서 유사해 완벽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치료제로 이용할 때 섞여 들어가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졌다.<br/><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성과는 특허로도 출원한 상태로, 척수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span>”이라고 말했다.<br/><br/><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2.txt

제목: [TV 하이라이트]  
날짜: 2015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20825922  
본문: ■인간극장(KBS1 오전 7시 50분) 사람은 물론이고 고층 건물까지도 콩알만큼 작아 보이는 산 정상에 백발의 머리로 여유롭게 인증사진을 찍고 있는 106세 문대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걷기대회의 역대 최고령 참가자로 10㎞ 코스를 거뜬하게 완주했을 정도로 놀라운 체력을 자랑하는 할머니는 대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사다. 그런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 첫째아들 정원복씨가 함께하는데….<br/><br/><br/>■단 하나의 약속(MBC 밤 11시 15분) 2014년 10월 27일. 마왕 신해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9살, 7살 두 아이의 아빠이자 결혼 전 두 번이나 암과 싸우던 아내 윤원희씨를 지켜주었던 운명 같은 사람이다. 제발 아프지만 말라던 그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전히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신해철 가족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 <br/><br/><br/>■식샤를 합시다 2(tvN 밤 11시) 수지의 술주정 고백에 마음의 문을 연 상우는 정식으로 사귀자는 고백을 한다. 드디어 수지는 상우와의 첫 데이트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기분을 가진 이가 또 있었으니, 바로 수지의 친구 구대영이다. 과연 대영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편 데이트 중 또 다른 반전 모습을 보여주는 상우에게 수지는 또 한번 놀라고 만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3.txt

제목: [아하! 우주] 우주 끝을 밝혀준 ‘표준 촛불’&#8203;  
날짜: 2015050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346239  
본문: -천문학자들의 줄자 '우주 거리 사다리' (3)<br/>'천문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문장'<br/>연주시차가 0.01초이면 326광년이고, 0.1초면 32.6광년, 1초면 3.26광년이 된다. 이처럼 광년의 단위도 별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숫자가 매우 커지므로 연주시차가 1초일 때 1파섹(pc)으로 정했다. 시차(parallax)와 초(second)의 두 낱말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별의 절대등급은 10pc, 곧 32.6광년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여 정한 별의 밝기이다.<br/>그러나 이 연주시차로 천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부분 별은 매우 멀리 있어 연주시차가 아주 작기 때문이다. 지구 대기의 산란 효과 등으로 인한 오차 때문에 미세한 연주시차는 계산할 수 없으므로, 100pc 이상 멀리 떨어진 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더 먼 별에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br/>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사실 시차만 하더라도 일종의 '상식'을 관측으로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먼 우주의 거리를 재는 잣대는 이런 상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주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발견에는 당시 천문학계의 기층민이었던 '여성 컴퓨터'의 땀과 희생이 서려 있었다.<br/>이 놀라운 우주의 잣대를 발견한 주역은 한 청각장애인 여성 천문학자였다. 그러나 청력과 그녀의 지능은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br/>1868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랭커스터에서 태어난 헨리에타 스완 리빗은 1892년 대학을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서 일하게 되었다. 업무는 주로 천체를 찍은 사진 건판을 비교·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이었다. 시간당 0.3불이라는 저임으로, 이런 직종을 당시 '컴퓨터'라고 불렀다. 그러나 단조롭기 한량없는 그 작업이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주었을지도 모른다.<br/>페루의 하버드 천문대 부속 관측소에서 찍은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변광성을 찾는 작업을 하던 리빗은 소마젤란은하에서 100개가 넘는 세페이드 형 변광성을 발견했다. 이 별들은 적색거성으로 발전하고 있는 늙은 별로서, 주기적으로 광도의 변화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br/>이 별들이 지구에서 볼 때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 그녀는 변광성들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한 쌍의 변광성에서 변광성의 주기와 겉보기 등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지한 것이다. 곧, 별이 밝을수록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이다. 리빗은 이 사실을 공책에다 "변광성 중 밝은 별이 더 긴 주기를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짤막하게 기록해 두었다. 이 한 문장은 후에 천문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꼽히게 되었다.<br/>​리빗은 수백 개에 이르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광도를 측정했고 여기서 독특한 주기-광도 관계를 발견했다. 3일 주기를 갖는 세페이드의 광도는 태양의 800배이다. 30일 주기를 갖는 세페이드의 광도는 태양의 1만 배이다.<br/>1908년, 리빗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 연구 결과를 에 발표했다. 리빗은 지구에서부터 마젤란 성운 속의 세페이드 변광성들 각각까지의 거리가 모두 대략적으로 같다고 보고, 변광성의 고유 밝기는 그 겉보기 밝기와 마젤란 성운까지의 거리에서 유도될 수 있으며, 변광성들의 주기는 실제 빛의 방출과 명백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br/>리빗이 발견한 이러한 관계가 보편적으로 성립한다면, 같은 주기를 가진 다른 영역의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로써 그 변광성의 절대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잣대를 확보한 것으로, 한 과학 저술가가 말했듯이 '천문학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대발견'이었다.<br/>리빗이 발견한 세페이드형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는 천문학사상 최초의 '표준 촛불'이 되었으며, 이로써 인류는 연주시차가 닿지 못하는 심우주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천문학자들은 표준 촛불이라는 우주의 자를 갖게 됨으로써, 시차를 재던 각도기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br/>리빗이 밝힌 표준 촛불은 그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2년 뒤에 위력을 발휘했다. 1923년 윌슨산 천문대의 에드윈 허블(1889~1953)이 표준 촛불을 이용해, 그때까지 우리은하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안드로메다 성운이 외부 은하임을 밝혀냈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은하는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려지고, 우리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인류는 은하 뒤에 또 무수한 은하들이 줄지어 있는 대우주에 직면하게 되었다.<br/>​밤하늘에서 빛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던 인류에게 이 발견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갑자기 우리 태양계는 작은 웅덩이로 축소되어버리고,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게 빛을 주는 태양은 우주라는 드넓은 바닷가의 모래 한 알갱이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되었다.<br/>허블은 표준 촛불을 발견한 리빗에 대해 그의 저서에서 “헨리에타 리빗이 우주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냈다면, 나는 그 열쇠를 자물쇠에 쑤셔넣고 뒤이어 그 열쇠가 돌아가게끔 하는 관측사실을 제공했다”라며 그녀의 업적을 기렸다.<br/>이처럼 허블 본인은 리비트의 업적을 인정하며 리빗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 그러나 스웨덴 한림원이 노벨상을 주려고 그녀를 찾았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지 3년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불우한 여성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빗의 이름은 천문학사에서 찬연히 빛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행성 5383 리빗과 월면 크레이터 리빗으로 저 우주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br/>우주 팽창을 가르쳐준 '적색편이'<br/>우주 거리 사다리에서 변광성 다음의 단은 적색편이다. 이것은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별 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이른바 도플러 효과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br/>도플러 효과를 설명할 때 주로 소방차 사일렌 소리가 예로 제시된다. 소방차가 관측자에게 다가올 때 소리가 높아지다가, 멀어져가면 급속이 소리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파원이 관측자에게 다가올 때 파장의 진폭이 압축되어 짧아지다가, 반대로 멀어질 때는 파장이 늘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바로 도플러 효과로, 1842년에 이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크리스티안 도플러의 이름을 딴 것이다.<br/>도플러 효과는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빛도 파동의 일종인만큼 도플러 효과를 탐지할 수 있다. 도플러가 제시한 이 원리를 이용한 장비가 실생활에서도 여러 방면에 쓰이고 있는데, 만약 당신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속력 위반 딱지가 날아왔다면, 그것은 바로 도플러 원리를 장착한 스피드건이 찍어서 보낸 것이다.<br/>현재 천문학에서 천체들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이 도플러 효과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주 팽창으로 인해 후퇴하는 천체가 내는 빛의 파장이 늘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가 작을수록) 붉게 보인다. 따라서 후퇴하는 천체가 내는 빛의 스펙트럼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를 적색편이라고 한다. 이 적색편이의 값을 알면 천체의 후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br/>적색편이가 천문학에 거대한 변혁을 몰고온 것은 미국의 천문학자 베스토 슬라이퍼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1912년 당시 '나선성운'이라고 불리던 은하들이 상당히 큰 적색편이 값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슬라이퍼는 이 논문에서 온 하늘에 고루 분포하는 나선은하들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그중 3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하가 우리은하로부터 초속 수백, 수천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br/>그 뒤를 이어 1924년 초 에드윈 허블은 은하들의 적색편이(속도)와 은하들까지의 거리가 비례한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다. 1929년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했던 것이다. 이는 인류의 우주관에 혁명을 일어킨 대사건이었다.<br/>따지고 보면, 이 같은 우주 팽창이라든가 빅뱅 이론 같은 것도 리빗의 표준 촛불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었다. 리빗이 변광성의 밝기와 주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냄으로써 빅뱅의 첫단추를 꿰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가 정적이지 않고 팽창하고 있다는 가설을 관측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우주의 팽창과 빅뱅 이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가장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r/>우주 거리 사다리의 마지막 단은 '초신성'<br/>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를 재는 우주 줄자는 초신성이다. 초신성이란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별이 폭발하면서 그 밝기가 평소의 수억 배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낮아지는 별을 가리키는데, 마치 새로운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사실은 늙은 별의 임종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머물렀다 사라진다는 의미로 객성(客星, 손님별)이라고 불렀다.<br/>그러면 어떤 별이 초신성이 되는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태양 질량의 9배 이상인 무거운 별이 마지막 순간에 중력 붕괴를 일으켜 폭발하는 것이 있다.<br/>다음으로는, 쌍을 이루는 백색왜성에서 물질을 끌어와 그 한계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는 순간 폭발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1a형 초신성이다. 이는 같은 한계질량에서 폭발하여 같은 밝기를 보이므로, 그 광도를 측정하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a형 초신성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초신성이 폭발할 때의 광도는 1000억 개의 별이 내는 광도와 맞먹을 정도이므로 우주 어느 곳에서 터지더라도 관측할 수 있다.<br/>1929년 허블이 적색편이를 이용해 우주의 팽창을 처음으로 알아낸 이후, 우주의 팽창속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 가운데, 1a형 초신성은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우주의 팽창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되었다.<br/>1990년대에 들어 과학자들은 멀리 있는 1a형 초신성 수십 개의 거리와 후퇴속도를 분석한 결과, 초신성들이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경우에 비해 밝기가 더 어둡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이 초신성들이 예상보다 멀리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곧 우주의 팽창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뜻한다. 말하자면 우주는 가속팽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한 두 팀의 천문학자들은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br/>이전까지는 우주에 있는 물질들의 인력 때문에 우주의 팽창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나타난 셈인데, 우주의 이같은 가속팽창에는 분명 어떤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금으로써는 이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힘에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다.<br/>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 우주는 앞으로 영원히 가속 팽창할 운명이다. 이런 놀라운 우주의 비밀을 밝혀준 것이 바로 우주의 가장 긴 줄자인 초신성이다. 우주의 가속팽창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신만이 알 것이다.<br/>표준 촛불 1a형 초신성 폭발 동영상( https://youtu.be/C24PicfBXIo )<br/>이광식 통신원 joand999@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4.txt

제목: 북한산 ‘만병통치약’ 알고 보니 마약 주사  
날짜: 20150501  
기자: 오성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5955952  
본문: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북한산 불법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br/><br/><br/>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북한산 마취제의 일종인 ‘금당2호’주사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몽골인 밀반입 총책 알탄(34·여)씨와 무면허 한의사 우모(7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알탄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당2호를 몰래 국내로 들여온 몽골인 4명과 한국인 7명,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침구사 2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br/><br/><br/>경찰에 따르면 알탄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당2호 주사약 6000개(시가 6100만원)를 몰래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씨는 금당2호(2㎖) 앰풀을 사들여 암환자 등 수백명에게 투약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br/>경찰 조사 결과 북한 부강제약이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을 넣어 나노공법으로 제조해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금당2호에선 인삼과 백금 성분 대신 국소마취제인 ‘프로카인’이 검출됐으며, 인체 투약 시 쇼크와 중추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br/><br/><br/>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5.txt

제목: 메리츠화재 ‘3대 질병 보장 1504’ 진단서 수술·통원·요양까지 보장  
날짜: 2015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5551552  
본문: 메리츠화재가 진단에서부터 수술, 통원, 요양까지 단계별로 종합 보장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3대 질병 보장보험 1504’로 3대 질병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이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1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술 단계에서는 회당 수술비를 추가 지급한다. 3대 질병 진단시에는 최대 5000만원, 사망시 최대 1억원을 준다. 입원비는 기존 4일부터 4개월가량 보장하던 것을 입원 첫날부터 6개월까지 보장 기간을 대폭 늘렸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6.txt

제목: 시차문제 해방?…체내시계 리셋 물질 발견  
날짜: 20150429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223875  
본문: 해외출장이나 야근을 자주 하거나 항공·여행 업계에 종사하느라 시차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생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다.<br/>캐나다 맥길대와 컨커디어대 공동 연구팀이 체내시계의 오차로 시차적응이 잘되지 않을 경우, 이를 ‘리셋’(재설정)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미국 사이언스데일리 등 과학매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이번 실험결과는 시차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수면장애나 우울증, 자폐증, 대사이상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연구에 따르면, 체내시계를 리셋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뇌에서 빛에 의해 자극되는 특정 단백질의 인산화 반응이다.<br/>인간의 세포 속에는 식욕이나 수면욕을 느끼게 하는 생체리듬이 대략 24시간 주기로 변화하므로, 이를 보통 '체내시계'라고 부른다. 이 체내시계는 지금까지 빛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연구로 알려졌다.<br/>연구팀은 우리 뇌 속에 있는 ‘eIF4E’라는 단백질의 인산화 작용에 주목했다.<br/>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이 단백질의 인산화 작용 여부에 따른 변화를 관찰했다.<br/>우선 ‘eIF4E’ 단백질을 변이시킨 그룹과 정상 그룹을 대상으로 빛과 어둠에 따른 생활 주기를 12시간에 10.5시간으로 줄이고, 챗바퀴에서의 활동 양상을 분석했다.<br/>그 결과, 단백질 변이로 인산화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룹에서는 체내시계에 차질을 보이고 운동능력에서도 쇠퇴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br/>연구팀은 “이 단백질이 빛에 의해 인산화 작용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추가 연구를 통해 시차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수면장애, 우울증, 자폐증, 대사이상 등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br/>단백질의 인산화 작용에 관한 구조를 살피는 것은 암세포의 사멸을 가져올 수 있는 암 억제 단백질 연구처럼 생화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br/>연구팀은 또 일반인들에 있어서도 생활 리듬에 영향을 미치고 기상 시에는 확실히 햇빛을 받는 생활이 건강과 장수에 매우 중요한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신경과학’(Nature Neuroscience) 온라인판 27일자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7.txt

제목: ‘팀 사이언스’로 암 전문병원 가능성 연 연세암병원  
날짜: 2015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5426817  
본문: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이 출범할 당시의 화두는 암 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팀 사이언스’였다. 연세암병원이 출범하면서 주창한 중증·고난이도 암 환자 치료를 위해 도입한 다학제 진료와 고난도 수술팀 운영이라는 두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런 암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 개원 1주년을 맞은 연세암병원의 실험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br/> ■성공의 시작은 변화에 있다<br/>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이런 실험이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데 있다.<br/>　병원 경영에 있어 중요한 지표인 환자수와 수술 실적을 보면, 개원 첫 달인 지난해 5월의 하루 평균 외래 환자수가 1500여명이던 것이 올 2월에는 1800여명으로 18%나 증가했다. 하루 수술실적도 같은 기간 37건에서 45건으로 22%가 늘었다. 이는 연세암병원이 지난해 개원하면서 제시한 ‘외래와 수술분야에서 각 20% 증가’ 목표를 상회하는 것이다.<br/>　 노성훈 병원장은“<span class='quot0'>개원 후 초반 6개월은 외래와 수술 실적 증가 추이가 예상보다 완만했지만 새로 적용한 진료 시스템이 정착하면서 협력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의뢰와 신뢰 덕분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span>”고 돌이켰다.<br/>　연세암병원은 이런 연착륙의 주요인으로 ‘환자 만족도’ 향상을 들었다. 이 병원은 응급상황만 아니라면 입원 환자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오전 6시 이전에는 채혈, 검사, 영상의학 촬영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금기창 부원장은 “<span class='quot1'>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를 위해 모든 진료 시스템을 기존 의료인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꾼 것이 결국 환자들의 신뢰 구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pan>”고 진단했다.<br/><br/> ■중증 고난이 암 치료를 위한 선택<br/>　그런가 하면, 암 치료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학제 진료제를 도입해 4개 임상과 이상의 교수들이 한 자리에서 개별 환자에 대한 병력을 면밀히 검토해 진단과 치료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일일이 관련 진료과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가장 이상적인 치료 트랙으로 평가 받고 있다. <br/>　이런 다학제 진료는 최소 2개 이상의 수술팀이 결합,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중증·고난도 암 환자 치료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예를 들어 위암이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중요한 큰 동맥까지 침범한 환자처럼 수술이 매우 까다로운 경우라면 외과의사와 흉부외과 의사 등 2개 이상의 팀이 수술에 함께 참여해 맡은 분야 수술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치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br/>　실제로, 고도진행성암, 재발암, 전이암의 경우, 다학제 진료를 실시하는 이른바 ‘베스트팀’의 진료 환자수가 개원 당시 월 30여명 수준에서 지금은 월평균 100여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br/>　다학제 진료에서 시작해 다학제 수술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진료 형태는 연세암병원의 중요한 실험이었다. 이런 팀 사이언스(team sciecnce) 개념이 진료과 중심의 관행이 고착화된 한국의 의료 풍토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병원의 경우 환자 한 사람을 주치의 한 사람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암병원 내 15개 센터, 넓게 전체 병원이 ‘공동으로 진단하고, 공동으로 치료한다’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암치료 문화를 정착시켰다.<br/>　<br/>　■임상시험 활성화...연간 100여건<br/>　암 치료에 있어 신약과 임상시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암치료의 미래라는 점에서 대학병원에 부여된 매우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br/>　연세암병원은 개원에 맞춰 다국적·다기관 임상시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시스템을 갖췄다. 이후 1년 동안 종양내과를 중심으로 많은 다국적·다기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암질환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br/>　특히 개원 이후 1년 동안 100여건에 이르는 의뢰자주도 임상시험(SIT)과 연구자주도 임상시험(IIT)이 새로 시작될 만큼 임상시험 분야에서도 활동이 왕성하다. 실제로, 이 병원은 암 환자 중 약 1400여명에 대한 스크리닝 작업을 거쳐 현재 670여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하는 등 암질환 치료의 가능성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br/>　 <br/>　■세계에 내 건 세브란스의 기치<br/>　이 병원에는 개원 후 1년 동안 외래 2522명, 입원 2315명 등 도합 4837명의 외국환자가 방문했다. 국적별로는 러시아와 옛 소련 연방 국가들로 구성된 CIS(독립국가연합) 나라들이 가장 많다. 그 뒤를 중동지역이 잇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의 환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 <br/>　이 중에서도 독립국가연합의 암환자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노성훈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는 지금까지 연세암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교육과 연수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현지 의사들의 맨파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pan>”고 분석했다. 이들은 연세암병원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자국 환자들 중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암환자들에게 연세암병원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노 병원장은 “<span class='quot0'>한 사례로,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두경부외과와 심장외과 의사 두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이들의 권고로 라트비아 대기업 간부가 조만간 암수술을 받으러 연세암병원을 찾을 계획</span>”이라고 소개했다.<br/>　<br/>　■예방 중심의 암치료 문화 정착<br/>　과거 국내 암병원은 환자의 진단과 수술, 입원까지는 적극적으로 관여했지만, 퇴원 이후의 추적 관찰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재발 여부에만 집중할 뿐, 적극적 암 재발 방지와 암 환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진료 시간에 몇 마디 이야기를 해주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r/>　물론 암은 재발 여부도 중요하지만, 진단 이후 완치 때까지 적어도 5년 동안은 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고, 암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는 것이 필수적이다. <br/>　연세암병원은 이를 위해 암지식정보센터와 암예방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 전이암 완치센터도 설치해 새로운 암치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기창 부원장은 “<span class='quot1'>연세암병원과 같은 큰 병원은 의료진의 팀워크, 환자 숫자, 최첨단 시설과 장비 등 여러 측면에서 작은 병원들이 수행하기 힘든 진단과 검사, 중증·고난이도 암치료, 연구와 임상시험,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을 더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초기 암 등 난이도가 높지 않은 암은 전국 각 병원에서 치료를 하되 중증·고난이도 암이나 중요한 의료인프라가 필요한 외국 암환자 치료 등은 대형 암병원들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암 치료에서도 일종의 새로운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강조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8.txt

제목: ‘암살’ 전지현, “건물 임대료만 월 6000만 원” 재테크 여왕..남편 부러워  
날짜: 2015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5233158  
본문: ’암살 전지현 재테크’<br/><br/>영화 ‘암살’로 돌아오는 배우 전지현의 빌딩 재테크가 화제다. <br/><br/>지난해 2월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전지현의 빌딩이 소개됐다. 전지현이 소유하고 있는 논현동 건물은 시세 150억 원으로 알려진다. <br/><br/>이에 대해 전문가는 “<span class='quot0'>전지현이 빌딩 매입 후 지역 상권이 활성화돼 2007년 건물 매입 당시보다 2배 정도 올랐다</span>”고 평가했다. 또한 전지현은 이촌동에 또 다른 빌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 건물은 시세 50억 원으로, 전지현은 두 건물 임대료만 월 60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br/><br/>한편 전지현이 출연하는 영화 ‘암살’ 은 1933년 상해와 경성을 배경으로 암살 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서로 다른 선택과 운명을 그린 작품.<br/><br/>공개된 티저 예고편 속 전지현은 결연한 눈빛으로 첫 총성을 울리며 자신의 임무를 묻는다. 전지현은 극중 굳은 신념을 지닌 독립군 저격수로 분했다.<br/><br/>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br/><br/>사진 = 서울신문DB (암살 전지현)<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39.txt

제목: 암살 전지현, 섹시함 벗고 저격수로 변신 ‘하정우는 청부살인업자?’ 기대감 폭발  
날짜: 2015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5232580  
본문: ’암살 전지현’<br/><br/>배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 영화 ‘암살’이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br/><br/>28일 영화 ‘암살’ 측은 오는 7월 개봉을 확정 소식과 함께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br/><br/>’암살’ 은 1933년 상해와 경성을 배경으로 암살 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서로 다른 선택과 운명을 그린 작품.<br/><br/>공개된 티저 예고편 속 전지현은 결연한 눈빛으로 첫 총성을 울리며 자신의 임무를 묻는다. 전지현은 극중 굳은 신념을 지닌 독립군 저격수로 분했다.<br/><br/>임시정부대원 이정재는 냉철함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긴장감을 자아낸다. 하정우는 거침없이 총을 겨누는 청부 살인업자로 특유의 카리스마를 과시한다. 여기에 하정우의 파트너 청부살인업자 오달수와 독립군 진영의 속사포 조진웅까지 더해져 화려한 출연진들의 라인업을 구성했다.<br/><br/>’타짜’, ‘도둑들’ 최동훈 감독과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등 이름만으로도 관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영화 ‘암살’ 은 오는 7월 개봉된다.<br/><br/>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 암살 전지현<br/><br/>사진 = 서울신문DB (’암살’ )<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0.txt

제목: [와우! 과학] ‘치카치카’ 하면서 암·알츠하이머 진단한다 -더 타임스 보도  
날짜: 20150428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202350  
본문: 조만간 가정에서 쓰는 칫솔로 암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병을 알 수 있는 기술이 나올 듯하다. 이는 ‘나노기공 시퀀서’라는 소형 마이크로칩을 칫솔과 같이 인간 DNA가 접촉하는 제품이나 장치에 내장해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는 것.<br/>나노기공은 나노미터(nm) 크기의 매우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유기분자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나노기공 시퀀서는 DNA가 인간 머리카락보다 8만 배 더 얇은 너비 1.5nm 크기의 구멍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해 분석하는 칩이다.<br/>이 칩은 앞으로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는 다른 유전자 표지들과 비교 평가될 것이며, 과학에 있어 중대한 성과로 여겨지고 건강 관리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br/>나노기공 시퀀서는 더욱 소형화되고 있으며 인간 DNA와 접촉 상태가 되는 모든 제품이나 장치에 내장될 수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br/>나노기공 검출기를 제작하는 영국 회사 ‘옥스퍼드 나노포어’의 클라이브 브라운 최고기술경영자(CTO)는 24일 런던에서 열린 와이어드 헬스 컨퍼런스에서 “<span class='quot0'>나노기공 시퀀서는 우리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어디에나 있는) 감지 장치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이런 장치는 이미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용도로도 사용됐다. 또한 앞으로는 농장이나 식품생산 라인에서 동물을 검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브라운 CTO는 말했다.<br/>옥스퍼드 나노포어가 개발한 나노기공 시퀀서는 너비 1.5nm 크기의 구멍을 통과하는 유기분자의 흐름을 측정해 전기 신호를 생성, 디지털 기록으로 바꿀 수 있다.<br/>이 밖에도 최근 많은 업체가 사람들에게 DNA 서열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1.txt

제목: 암살 전지현, 저격수로 변신 ‘소름돋는 눈빛’ 카리스마 폭발  
날짜: 2015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5036618  
본문: 암살 7월 개봉,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역대급 조합’ 세사람 무슨 관계? <br/><br/>‘암살 전지현 암살 7월 개봉’ <br/><br/>영화 ‘암살’이 7월 개봉을 확정짓고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br/><br/>공개된 예고편에는 1933년 상해의 화려한 밤거리와 조국이 사라진 경성을 배경으로, 강렬한 총성과 함께 그곳에서의 암살 작전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 <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하정우의 파트너 오달수와 독립군 진영의 조진웅까지 가세해 영화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 ‘타짜’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신작으로 올 여름 기대작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예고편 캡처(암살 전지현 암살 7월 개봉) <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2.txt

제목: 토마토가 정력에 좋다고? 이유를 살펴보니…  
날짜: 20150427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127456  
본문: 흔히 정력에 좋다고 생각되는 보양식으로는 보신탕, 장어, 추어탕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속설로 인해 굳어진 생각일 뿐, 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생활습관을 바로 잡고 적절한 음식으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br/><br/>토마토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력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설마 토마토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찍이 영국에서 정력에 좋다는 소문과 함께 '러브애플'로 불려온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리코펜(Lycopene)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br/><br/>실제로 최근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회 토마토소스 파스타를 3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혈중 임파구 및 전립선조직의 산화손상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어 리코펜은 단기보충에 의해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무엇보다도 리코펜의 강력한 항산화능은 LDL산화를 저하시켜 내피 세포의 과산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br/><br/>특히 미국 하버드대학의 연구 결과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이 발생할 확률이 45% 낮아져, 토마토가 남성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또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88도가 넘는 열을 가해 만들어진 토마토환을 먹게 되면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심혈관계 질환과 암 예방에 효능이 좋다.<br/><br/>구운 토마토환을 제조해 판매중인 엔존B&F 관계자에 따르면 "토마토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정력식품이다"면서 구운 토마토환은 토마토의 유효 성분인 라이코펜의 생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체내에 가장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깐깐한 가열과 건조공정을 거쳐 환(丸)으로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한편 엔존B&F는 쇼핑몰 노하우몰(nohowmall.com)과 함께 구운 토마토환을 한정수량 5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br/><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3.txt

제목: 칫솔로 DNA 검사해 암·알츠하이머 찾는다  
날짜: 2015042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118237  
본문: 조만간 가정에서 쓰는 칫솔로 암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병을 알 수 있는 기술이 나올 듯하다. 이는 ‘나노기공 시퀀서’라는 소형 마이크로칩을 칫솔과 같이 인간 DNA가 접촉하는 제품이나 장치에 내장해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는 것.<br/>나노기공은 나노미터(nm) 크기의 매우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유기분자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나노기공 시퀀서는 DNA가 인간 머리카락보다 8만 배 더 얇은 너비 1.5nm 크기의 구멍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해 분석하는 칩이다.<br/>이 칩은 앞으로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는 다른 유전자 표지들과 비교 평가될 것이며, 과학에 있어 중대한 성과로 여겨지고 건강 관리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br/>나노기공 시퀀서는 더욱 소형화되고 있으며 인간 DNA와 접촉 상태가 되는 모든 제품이나 장치에 내장될 수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br/>나노기공 검출기를 제작하는 영국 회사 ‘옥스퍼드 나노포어’의 클라이브 브라운 최고기술경영자(CTO)는 24일 런던에서 열린 와이어드 헬스 컨퍼런스에서 “<span class='quot0'>나노기공 시퀀서는 우리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어디에나 있는) 감지 장치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이런 장치는 이미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용도로도 사용됐다. 또한 앞으로는 농장이나 식품생산 라인에서 동물을 검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브라운 CTO는 말했다.<br/>옥스퍼드 나노포어가 개발한 나노기공 시퀀서는 너비 1.5nm 크기의 구멍을 통과하는 유기분자의 흐름을 측정해 전기 신호를 생성, 디지털 기록으로 바꿀 수 있다.<br/>이 밖에도 최근 많은 업체가 사람들에게 DNA 서열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4.txt

제목: 유방암 자가진단 키트 개발… “간편하고 저렴”  
날짜: 20150426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047565  
본문: 실리콘밸리 소재의 한 유전체학 전문 업체가 집에서도 손쉽고 저렴하게 유방암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21일 보도했다.<br/>전 구글 연구원이 대표를 맡고 이 업체는 최근 타액 만으로도 유방암 관련 유전자를 감지해낼 수 있는 키트를 249달러(약 27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유전자 검사 비용은 3000달러(약 325만원)에 이른다.<br/>이 키트는 유전적 유방암과 난소암의 원인유전자 중 하나인 BRCA1,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포함한 총 19종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감지할 수 있다.<br/>키트 개발자이자 MIT, 구글, 트위터에서 기술자로 활약해온 엘라드 길은 “<span class='quot0'>모든 사람들이 암과 관련한 유전자적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개발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기술은 전문의가 환자의 유병 유무를 확인하는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다만 이 키트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전문의와 상의 후 의사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환자에게 배달된다. 유방암 및 난소암 돌연변이 유전자 유무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지만, 병원 검사보다 간편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br/>한편 일각에서는 이 키트가 여성들에게 지나친 우려를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br/>미국 전국유방암연합(National Breast Cancer Coalition) 측은 “여성들이 이 키트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칫하면 미리 유방을 절제하려는 건강한 여성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br/>실제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 유전자 검사 이후 유방암 예방을 위해 양쪽 유방을 절제했으며, 2년 후인 지난 4월에는 같은 이유로 난소·나팔관 절제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유전자 검사 수요가 급증해 이른바 ‘안젤리나 졸리 효과’가 확산됐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5.txt

제목: 몸짱 ‘근육 보충제’ 남성생식기암 위험 65%나 ↑ -美 연구  
날짜: 2015042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037864  
본문: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보충제가 남성생식기암 즉 고환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크레아틴’이나 ‘안드로스테네디온’이 포함된 보충제(알약 혹은 파우더)가 고환암 발병 위험을 65%까지 높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br/>연구팀은 이런 보충제를 25세나 그 이전부터 먹기 시작했거나 두 가지 이상 먹고 있거나 3년 이상 먹은 남성들이 고환암으로 진단받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br/>연구를 이끈 통창 쳉 예일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결과는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span>”고 말했다. 이런 보충제를 어릴 때부터나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를 사용했다면 고환암 위험은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그는 설명했다.<br/>연구팀은 예전부터 일부 보충제 성분이 고환 손상의 증거를 보여준 것에 주목하고 연관성을 살피려고 했다. 쳉 교수는 “<span class='quot1'>고환암 사례가 1975년에 남성 10만 명당 3.7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 5.9건으로 증가했다</span>”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고환암 위험을 증가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br/>쳉 교수는 “<span class='quot1'>고환암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암</span>”이라고 설명하면서 “<span class='quot1'>고환암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의심할 만한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다</span>”고 말했다.<br/>연구에 참여한 러스 하우저 하버드공중보건대 교수도 “<span class='quot2'>이번 연구는 보충제 사용이 고환암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 있음을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이 결과는 고환암에 관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위험 인자를 조금이라도 식별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이 연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와 코네티컷주(州)에 사는 남성 약 9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자료도 사용됐다. 인터뷰 당시 참가자 가운데 356명은 이미 고환 생식세포종양을 진단받은 고환암 환자였고 나머지 513명은 그런 진단을 받은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br/>연구팀은 인터뷰를 통해 보충제 외에도 흡연, 음주, 운동습관, 가족력뿐만 아니라 고환이나 사타구니를 이전에 다친적 있는지 등 여러 위험 요인을 조사했다. 또 나이나 인종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도 고려했다.<br/>이를 통해 이런 보충제를 사용한 남성이 고환암에 걸릴 위험이 65% 더 높은 것을 산출해냈다. 이 수치는 4주 이상에 걸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한 종 이상의 보충제를 섭취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정의했다.<br/>이런 보충제를 두 종류 이상 사용한 남성은 고환암 위험이 177% 더 늘어났다고 한다. 또 보충제를 3년 이상 쓴 남성은 일반인보다 고환암 발병 위험이 2.56배 더 높았다. 25세나 그 이전부터 쓴 남성은 2.21배 더 높았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은 “보충제 사용은 고환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보충제와 고환암 사이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혀내려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이 연구결과는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6.txt

제목: [보면 이득] 곁들여 먹기 좋은 슈퍼푸드 6가지  
날짜: 20150424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032759  
본문: 우리는 항상 최신 ‘슈퍼푸드’가 건강과 웰빙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듣게 된다. 때로는 이런 슈퍼푸드라는 말이 너무 자유롭게 쓰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일이나 씨앗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영양적으로 가치가 높다.<br/>다음은 영국의 체중감량 전문가인 샐리 노턴 박사(브리스톨대 강사 겸 대학병원 컨설턴트)가 공개한 곁들여 먹기 좋은 슈퍼푸드 6가지로, 당신이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들이다.<br/>■ 호박씨<br/>Q. 어떤 이득?<br/>호박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는지는 잘 알려졌다. 그런데 영양소는 호박씨에도 많다. 이 씨앗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아연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과 분할, 수면, 기분 상태, 눈, 피부 건강에 좋은 망간, 마그네슘, 인 등이 풍부하다. 슈퍼씨드로도 불리는 호박씨는 스넥이나 씨리얼을 통해서 먹을 수 있고 포리지와 같은 영국식 죽으로 만들어 섭취할 수도 있다. 물론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식감 또한 훌륭하다.<br/>■ 아보카도<br/>Q. 어떤 이득?<br/>콰카몰리라는 멕시코 요리의 주재료로 쓰이는 아보카도는 최근 들어 건강상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보카도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단일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이 때문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병할 위험을 낮춰준다. 특히 하루 아보카도 한개를 적당한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아보카도 없이 지방이 거의 없거나 적당한 지방이 있는 식사를 할 때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 크랜베리<br/>Q. 어떤 이득?<br/>방광염 등 요로감염증에 좋다고 알려진 크랜베리는 여러 연구를 통해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을 지키고 감염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크랜베리 속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폴리페놀은 항산화물질을 갖고 있어 항염 작용과 향균 특성이 있다. 단 시중에 나온 크랜베리 주스는 설탕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br/>■ 블루베리<br/>Q. 어떤 이득?<br/>항산화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심장 건강과 암 예방, 뇌 기능 개선, 시야 개선 등 모든 건강 이득과 관련성이 있다. 또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 속 항산화물질은 노화를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한다.<br/>■ 타트체리<br/>Q. 어떤 이득?<br/>사워체리로도 불리는 타트체리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산화물질이 매우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항염 작용이 있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섭취량을 늘리면 근육통이나 염증, 힘빠짐과 같은 운동 후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br/>■ 치아씨<br/>Q. 어떤 이득?<br/>치아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지난 수년간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는 많은 영양소 대비 열량이 매우 적기 때문. 치아씨에는 항산화물질과 수용성 섬유소, 미네랄이 풍부하며 보통 생선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3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다. 또 이 씨앗은 같은 양의 우유보다 칼슘이 많다. 섭취 방법은 우유나 요구르트, 오트밀, 스무디 등에 그저 한 스푼 정도 타서 먹으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만일 유제품이 맞지 않는다면 대체품으로 비타민이 풍부한 현미유나 아몬드유, 두유 등에 첨가해 먹어도 좋다고 한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7.txt

제목: 안젤리나 졸리가 옳았다…난소 절제한 유방암환자 생존율↑  
날짜: 2015042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4008917  
본문: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 BRCA1으로 알려진 변이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뒤,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br/>약 2년 후인 최근에는 역시 난소암 예방을 위해 난소 제거수술을 잇따라 받아 일명 ‘안젤리나 졸리 효과’를 상기시킨 가운데, 최근 해외 연구진은 BRCA1 변이유전자로 유방암을 앓는 사람이 난소를 제거할 경우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일반적으로 유전적 유방암과 난소암의 원인유전자 중 하나인 BRCA1, BRCA2 변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0%까지 치솟으며, 난소암 위험에도 끊임없이 시달려야 한다.<br/>캐나다의 토론토대학 연구진이 위의 두 유전자 중 하나를 가진 676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345명은 난소암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소절제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20년 뒤, 조사대상 중 난소절제수술을 받은 그룹은 수술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망위험이 평균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BRCA1 변이유전자를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망위험이 62% 감소했다.<br/>평균적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6년 뒤에 난소절제수술을 시행하며, 그 이전에 이 수술을 받을 경우 사망률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유방암은 여성의 3대 질병 중 하나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5%에 이르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이미 유방암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4기 암의 경우 생존율이 10%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약 8만 8000명에서 2013년에는 약 12만3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1만 명 정도 환자가 증가했다.<br/>한편 BRCA1 변이유전자와 난소제거수술의 관계를 입증한 이번 연구는 ‘미국의사협회 저널 종양학‘(JAMA Oncology)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8.txt

제목: [꿈과 행복을 주는 기업] 아모레퍼시픽, 여성 암환자 ‘氣 살려주는 메이크업’ 강의  
날짜: 2015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3334563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나눔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br/><br/>2008년부터 시작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br/><br/>이 캠페인은 아모레 카운셀러와 교육 강사들이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노하우를 전수한다. <br/><br/>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아모레퍼시픽의 설명이다. <br/><br/>이 캠페인은 상반기(5~6월), 하반기(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병원에서 진행되며,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br/><br/>아모레퍼시픽은 참가자 전원에게 가방, 교재, 브로셔와 함께 자사 대표 브랜드인 헤라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 스킨케어 키트를 제공한다. <br/><br/>2014년 기준 여성 암환자 9221명과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 2904명이 이 캠페인에 참가했다. 아모레는 2011년부터는 활동 반경을 넓혀 중국에서도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49.txt

제목: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후 수술 줄었다  
날짜: 20150424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3256233  
본문: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늘었는데, 수술을 한 환자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불거진 갑상선암 과잉 진단·수술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최근 7년간 갑상선암 수술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15.8%씩 가파르게 증가하던 수술 환자 수가 2013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br/><br/>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한 사람은 줄었지만, 갑상선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갑상선암 외래·입원진료 환자는 34만 1175명으로, 7년 전인 2008년 13만 9704명보다 20만 1471명이 늘었다. 수술 환자가 줄기 시작한 2013년에도 외래·입원진료 환자는 전년 대비 11.7%가 늘었다. 갑상선암 확진을 받았지만 수술을 망설이는 환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br/><br/>이런 경향은 지난해 초 일부 의사가 병원의 과잉 진단으로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는 1㎝ 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두드러졌다. 의학계는 아직도 갑상선암 과잉 진단 및 과잉 진료 논란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중이다.<br/><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07~2011년에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에만 있는 경우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은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 암이 주위 장기와 인접한 조직을 침범한 경우도 90%를 넘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한국인에게 발견되는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대표적 ‘거북이암’인 갑상선유두암이며, 진행이 빠르고 악성인 갑상선역형성암은 발생빈도가 1% 미만으로 극히 낮다.<br/><br/>과잉 진단 문제를 제기한 서홍관 국립암센터 박사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꺼리면서 이제야 과다한 진단·진료가 정상화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갑상선암 검진을 하는 사례까지 더 줄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반면 소의영 대한갑상선학회장은 “<span class='quot1'>2000년대 들어 의료기기가 발달해 조기에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다 보니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률이 늘지 않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자신이 자각할 정도로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갑상선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수술 범위도 넓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 다만 “0.5㎝ 이하 크기의 미세유두암 가운데 위험요인이 없는 암은 환자가 원한다면 의사와 상담하며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0.txt

제목: 영양불균형·칼로리과잉의 현대인, 건강한 ‘생식’ 한 끼가 몸을 변화시킨다  
날짜: 20150423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939503  
본문: 오늘날 현대인들은 칼로리 과잉과 동시에 영양불균형을 겪고있다. 최근 유엔(UN)산하기구인 ‘영양강화를 위한 국제연합’(GAIN)이 세계 30여개국의 영양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성인 남성 중 10명 중 4명, 아동은 10명 중 1명꼴로 영양불균형에 해당됐다.<br/>특히 한국인은 과일, 잡곡류, 채소 및 견과류의 섭취가 부족하고 소금 섭취량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br/>반면 한국 성인의 과체중과 비만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 등의 과다섭취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일부 영양소만 과잉섭취하는 영양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삼시 세끼 중 하루 한끼만이라도 건강한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한다면 영양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span>”고 조언한다.<br/>또한 생물학권위지 '셀'(Cell)지에 소개된 연구에 의하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아주 조금 섭취하더라도 이것이 몸의 유전자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신체생리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반면에 해로운 음식, 라면이나 삼겹살 등을 먹을 때 몸에 이로운 생식을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br/>이에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생식’이다. 원래 생식은 암, 당뇨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먹던 식이요법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일반 대중들도 즐기는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다. 생식은 곡류, 야채, 과일, 해조류 등 음식을 익히지 않고 껍질 그대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리과정에서 생기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몸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해독효과가 있다.<br/>또 생식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내 독성물질 중 하나인 발열성물질의 체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에 염증이 발생하면 장벽이 느슨해져 장내의 세균이나 노폐물이 체내로 유입되게 되는데 이것이 ‘장 누수 증후근’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 노폐물을 분해하고 장벽의 기능을 회복시켜 독성물질의 체내유입을 막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br/>뿐만 아니라 생식을 통해 체질개선, 고른 영양공급,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질병으로 인한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환자들과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식사 대용,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들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두루 각광받고 있다.<br/>엽록소, 식이섬유, 천연 미네랄, 비타민, 식물영양소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생식 한 끼의 칼로리는 평균150kcal정도로 평상시 성인이 섭취하는 한끼 칼로리인 700kcal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면서 동시에 칼로리는 줄일 수 있는 식단인 셈이다.<br/>칼로리과잉, 영양불균형의 현대인들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건강한 식단을 통한 고른 영양소 섭취다. 삼시 세끼 중 하루 한끼 생식이야말로 몸 속 균형을 바로잡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인 셈이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1.txt

제목: [건강을 부탁해] 곁들여 먹기 좋은 슈퍼푸드 6가지  
날짜: 2015042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932576  
본문: 우린 항상 최신 ‘슈퍼푸드’가 건강과 웰빙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듣게 된다. 때로는 이런 슈퍼푸드라는 말이 너무 자유롭게 쓰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일이나 씨앗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영양적으로 가치가 높다.<br/>다음은 영국의 체중감량 전문가인 샐리 노턴 박사(브리스톨대 강사 겸 대학병원 컨설턴트)가 공개한 곁들여 먹기 좋은 슈퍼푸드 6가지로, 당신이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들이다.<br/>■ 호박씨<br/>Q. 어떤 이득?<br/>호박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는지는 잘 알려졌다. 그런데 영양소는 호박씨에도 많다. 이 씨앗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아연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과 분할, 수면, 기분 상태, 눈, 피부 건강에 좋은 망간, 마그네슘, 인 등이 풍부하다. 슈퍼씨드로도 불리는 호박씨는 스넥이나 씨리얼을 통해서 먹을 수 있고 포리지와 같은 영국식 죽으로 만들어 섭취할 수도 있다. 물론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식감 또한 훌륭하다.<br/>■ 아보카도<br/>Q. 어떤 이득?<br/>콰카몰리라는 멕시코 요리의 주재료로 쓰이는 아보카도는 최근 들어 건강상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보카도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단일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이 때문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병할 위험을 낮춰준다. 특히 하루 아보카도 한개를 적당한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아보카도 없이 지방이 거의 없거나 적당한 지방이 있는 식사를 할 때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 크랜베리<br/>Q. 어떤 이득?<br/>방광염 등 요로감염증에 좋다고 알려진 크랜베리는 여러 연구를 통해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을 지키고 감염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크랜베리 속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폴리페놀은 항산화물질을 갖고 있어 항염 작용과 향균 특성이 있다. 단 시중에 나온 크랜베리 주스는 설탕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br/>■ 블루베리<br/>Q. 어떤 이득?<br/>항산화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심장 건강과 암 예방, 뇌 기능 개선, 시야 개선 등 모든 건강 이득과 관련성이 있다. 또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 속 항산화물질은 노화를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한다.<br/>■ 타트체리<br/>Q. 어떤 이득?<br/>사워체리로도 불리는 타트체리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산화물질이 매우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항염 작용이 있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섭취량을 늘리면 근육통이나 염증, 힘빠짐과 같은 운동 후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br/>■ 치아씨<br/>Q. 어떤 이득?<br/>치아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지난 수년간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는 많은 영양소 대비 열량이 매우 적기 때문. 치아씨에는 항산화물질과 수용성 섬유소, 미네랄이 풍부하며 보통 생선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3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다. 또 이 씨앗은 같은 양의 우유보다 칼슘이 많다. 섭취 방법은 우유나 요구르트, 오트밀, 스무디 등에 그저 한 스푼 정도 타서 먹으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만일 유제품이 맞지 않는다면 대체품으로 비타민이 풍부한 현미유나 아몬드유, 두유 등에 첨가해 먹어도 좋다고 한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2.txt

제목: [건강을 부탁해] ‘커피 하루2잔’ 유방암 위험 절반으로 뚝  
날짜: 2015042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914398  
본문: 커피가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의존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스웨덴 룬드대와 영국 브리스톨대의 공동 연구팀이 커피를 하루에 2잔씩 마시면 유방암이 재발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br/>연구팀은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 유방암 치료 환자들 가운데 커피를 매일 최소 2잔씩 마신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재발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br/>타목시펜은 아직 폐경기가 오지 않은 여성에게 처방되는 주요 호르몬 치료 약물로, 일반적으로 유방암 치료 이후 5년 이상 복용하는 것이 권고된다.<br/>대부분의 유방암 종양은 성장하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받는다.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이 이런 암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유방암 성장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것.<br/>연구팀은 2년 전 시행된 유사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 1090명의 데이터를 추가 조사했다. 이들은 타목시펜을 처방받고 하루에 커피를 최소 2잔씩 마신 여성 500여명이 커피를 더 적게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신 여성들보다 유방암 재발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밝혀냈다.<br/>연구에 참여한 룬드대의 앤 로젠달 박사후연구원은 “<span class='quot0'>또 연구는 하루에 커피를 최소 2잔 마신 여성들은 유방암 종양이 적었고 다른 호르몬 의존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추는 것을 보여줬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결과는 진단 시기에 이미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br/>또 연구팀은 커피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물질인 카페인과 카페인산이 유방암 종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했고 유방암 세포가 이들 물질 특히 카페인과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다. 카페인은 특히 타목시펜과 함께 섭취됐을 때 유방암 세포의 분할 횟수를 더 줄이고 더 사멸하는 결과를 일으켰다.<br/>로젠달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이는 카페인과 같은 물질이 유방암 세포에 효과적이고 그런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에 커피가 타목시펜의 치료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수치를 밝혀냈지만,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로젠달 연구원은 “카페인과 카페인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당신이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데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를 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하루에 커피 2잔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임상암연구지’(journal Clinical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실렸다.<br/>한편 이 연구가 커피 섭취가 암 예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는 아니다. 세계암연구기금이 지원한 한 연구는 커피가 간암을 예방하고, 미국 하버드대가 참여한 연구는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밝혀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3.txt

제목: 빠르고 저렴…유방암 자가진단 키트 美서 개발  
날짜: 20150422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905783  
본문: 실리콘밸리 소재의 한 유전체학 전문 업체가 집에서도 손쉽고 저렴하게 유방암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21일 보도했다.<br/>전 구글 연구원이 대표를 맡고 이 업체는 최근 타액 만으로도 유방암 관련 유전자를 감지해낼 수 있는 키트를 249달러(약 27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유전자 검사 비용은 3000달러(약 325만원)에 이른다.<br/>이 키트는 유전적 유방암과 난소암의 원인유전자 중 하나인 BRCA1,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포함한 총 19종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감지할 수 있다.<br/>키트 개발자이자 MIT, 구글, 트위터에서 기술자로 활약해온 엘라드 길은 “<span class='quot0'>모든 사람들이 암과 관련한 유전자적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개발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기술은 전문의가 환자의 유병 유무를 확인하는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다만 이 키트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전문의와 상의 후 의사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환자에게 배달된다. 유방암 및 난소암 돌연변이 유전자 유무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지만, 병원 검사보다 간편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br/>한편 일각에서는 이 키트가 여성들에게 지나친 우려를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br/>미국 전국유방암연합(National Breast Cancer Coalition) 측은 “여성들이 이 키트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칫하면 미리 유방을 절제하려는 건강한 여성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br/>실제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 유전자 검사 이후 유방암 예방을 위해 양쪽 유방을 절제했으며, 2년 후인 지난 4월에는 같은 이유로 난소·나팔관 절제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유전자 검사 수요가 급증해 이른바 ‘안젤리나 졸리 효과’가 확산됐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4.txt

제목: 커피 하루2잔 유방암 막는다 - 암 연구  
날짜: 2015042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857344  
본문: 커피가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의존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스웨덴 룬드대와 영국 브리스톨대의 공동 연구팀이 커피를 하루에 2잔씩 마시면 유방암이 재발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br/>연구팀은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 유방암 치료 환자들 가운데 커피를 매일 최소 2잔씩 마신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재발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br/>타목시펜은 아직 폐경기가 오지 않은 여성에게 처방되는 주요 호르몬 치료 약물로, 일반적으로 유방암 치료 이후 5년 이상 복용하는 것이 권고된다.<br/>대부분의 유방암 종양은 성장하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받는다.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이 이런 암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유방암 성장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것.<br/>연구팀은 2년 전 시행된 유사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 1090명의 데이터를 추가 조사했다. 이들은 타목시펜을 처방받고 하루에 커피를 최소 2잔씩 마신 여성 500여명이 커피를 더 적게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신 여성들보다 유방암 재발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밝혀냈다.<br/>연구에 참여한 룬드대의 앤 로젠달 박사후연구원은 “<span class='quot0'>또 연구는 하루에 커피를 최소 2잔 마신 여성들은 유방암 종양이 적었고 다른 호르몬 의존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추는 것을 보여줬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결과는 진단 시기에 이미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br/>또 연구팀은 커피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물질인 카페인과 카페인산이 유방암 종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했고 유방암 세포가 이들 물질 특히 카페인과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다. 카페인은 특히 타목시펜과 함께 섭취됐을 때 유방암 세포의 분할 횟수를 더 줄이고 더 사멸하는 결과를 일으켰다.<br/>로젠달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이는 카페인과 같은 물질이 유방암 세포에 효과적이고 그런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에 커피가 타목시펜의 치료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수치를 밝혀냈지만,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로젠달 연구원은 “카페인과 카페인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당신이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데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를 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하루에 커피 2잔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임상암연구지’(journal Clinical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실렸다.<br/>한편 이 연구가 커피 섭취가 암 예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는 아니다. 세계암연구기금이 지원한 한 연구는 커피가 간암을 예방하고, 미국 하버드대가 참여한 연구는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밝혀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5.txt

제목: 대형병원, 동네 병원 MRI 필름 읽어주는 데만 28만원  
날짜: 20150422  
기자: 이슬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2150109  
본문: 지난 1월 무릎 통증에 시달리던 A(61)씨는 동네 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CD에 담아 서울대병원에 제출했다.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동네병원보다 비쌀 뿐 아니라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을 이용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 진료내역서를 받아 든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진단 판독료’ 항목으로 13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A씨는 “MRI에 ‘판독료’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다”면서 “미리 알려 주지도 않아 황당했는데 너무 비싸기까지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br/><br/>21일 의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종합병원 등에 따르면 하급병원에서 찍은 MRI를 갖고 상급병원을 찾았다가 비싼 판독료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필름을 판독만 해 주고 받는 대가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비싼 데다 금액 자체도 병원에 따라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28만원까지 제각각인 탓이다.<br/><br/>외부병원 필름 판독은 이중 촬영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됐다. 외부에서 촬영한 필름을 제출하면 주치의가 판단해 수술 등을 위한 자세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에 의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병원이 거의 없어 불만을 키우고 있다. 특히 MRI 촬영 및 판독료는 암, 뇌혈관·척추 질환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br/><br/>실제 대형 병원들은 8만~28만 5000원까지 MRI 판독료를 받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게 돼 있지만 주요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가격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간호조무사가 진료 일정을 안내하며 ‘영상의학과에 판독을 의뢰하게 될 경우 판독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게 돼 있다</span>”고 밝혔지만 관련 커뮤니티에는 고지를 듣지 못했다는 항의가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비급여 항목이 매우 많아서 모든 것을 구두로 알려 줘야 할 의무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책자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려 주면 된다</span>”고 말했다. <br/><br/>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에만 기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처럼 환자가 존재 유무를 잘 모르는 항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span class='quot2'>가격 차이는 곧 의료 품질의 차이로 이어져야 하는데 3배 격차가 날 만큼 MRI 판독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span>”이라고 밝혔다.<br/><br/>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span class='quot3'>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진료 행위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본다</span>”며 “<span class='quot3'>미리 비용을 알려 주고 판독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6.txt

제목: 항암치료 중 ‘지문 사라진’ 여성…희귀사례 보고  
날짜: 20150417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626794  
본문: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은 한 여성에게서 지문이 사라지는 희귀한 증상이 나타나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br/>미국 CBS뉴스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암세포가 폐로 전이돼 항암약물치료를 받던 65세의 멕시코 유방암 환자의 손에서 지문이 사라지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학계는 이것이 항암치료의 희귀한 부작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br/>이 환자는 항암치료 후 부작용으로 알려진 수족증후군(Hans-foot Syndrome) 증상을 보여왔다. 수족증후군이란 손과 발이 붓고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붉어지고 가려워지는 피부이상반응이다.<br/>그녀는 3개월간 항암치료 과정에서 카페시타빈과 베바시주맙이라는 약물을 혼합한 약을 투여받았다. 이 약물 치료로 종양이 50%로 줄어들고 수족증후군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는 봤으나 지문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br/>수족증후군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10명 중 1명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문까지 사라지는 증상은 흔치 않다고 의료진은 설명했다.<br/>멕시코 의과학·영양학연구소 측은 “해당 환자에게서 다른 독성약물반응은 보이지 않았고 종양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지만 지문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는 화학약물치료의 부작용이기도 하며 환자의 지문 자체가 흐릿했던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br/>환자 측은 지문이 사라진 탓에 은행 거래 등 신분확인과 관련한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br/>2009년 암 분야 권위지로 알려진 ‘종양학 연보(Annals of Oncology)에 실린 케이스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지문이 사라지는 증상을 보인 한 남성이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돼 4시간가량 억류된 바 있다.<br/>한편 이번 사례는 미국의 의학 전문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7.txt

제목: [열린세상]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날짜: 2015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0127135  
본문: 인슐린 주사로 치료받고 있던 당뇨병 환자가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급차의 응급구조사가 그 환자의 건강카드를 찾아 질병이력, 최근에 진료받던 주치의의 이름을 알아낸다. 구급차에서 주치의와 바로 통화해 인슐린 주사로 인한 저혈당 증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추가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응급 치료를 시작한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국민들에게 발부하는 전자건강카드에는 병명, 투약기록, 주치의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건강카드만 있으면 카드에 담긴 정보만으로도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강카드 사본을 자동차 사물함에 보관한다. <br/><br/>그러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질병 이력을 설명해야 하고 진단검사 중 상당 부분을 중복해서 시행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구매 내역은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지만 훨씬 중요한 진료 내역을 보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무기록 복사를 신청해야 한다.<br/><br/>손톱크기의 작은 반도체 칩에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빅데이터가 활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정보를 적절히 공유하면 과잉진료, 의료쇼핑, 건강보험증 도용 등으로 인한 의료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하려 할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반대의 벽에 부딪혀 왔다. 한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전자건강카드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가장 관심을 둔 것은 보안 문제였다. 카드 소지자가 자신이 필요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응급상황에서 공개하고 싶은 의료정보는 카드 소지자가 사전에 직접 선택할 수 있다. <br/><br/>‘개인의료정보 보호’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 이력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린이가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때 정신과 진료기록이 아이에게 낙인으로 남을 것을 우려한 부모가 삭제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심지어 발병 후에 가입한 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전에 암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과거 의무기록을 없애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br/><br/>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등 가입자의 문제가 2007~2013년 7920억원,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이 7년간 7조 2889억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증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누수의 주원인이다. 독일이나 대만 등의 국가는 본인의 사진이 포함된 전자건강카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br/><br/>지난 3월, 150명이 사망한 독일 여객기 추락 사건의 원인이 부기장의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개인의 진료기록도 공익을 위해서는 공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자살충동 성향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조종사의 의료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라고만 보기 힘들다. 내 아이를 돌보는 유아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질환이 없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모와 내 아이의 정신과 상담 이력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상충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보 보안 시스템과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어 어느 나라에서나 이용 가능한 전자건강카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응급 상황에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정보 관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8.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나트륨 맛소금 줄이고 미네랄 천일염 먹어야  
날짜: 2015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10110521  
본문: 최근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금이 몸에 해로워서 최대한 섭취량을 줄여야 건강에 좋다는 오해 때문이다.<br/><br/><br/>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지키려면 소금을 하루에 5g 미만으로 먹어야 한다고 권고한다.<br/><br/><br/>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 등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이 5g의 적정량을 지키기는 어렵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3g 정도다. WHO 권장량의 2.6배다.<br/><br/><br/>하지만 소금 자체가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다. 문제는 소금의 성분인 나트륨(Na)과 염소(Cl)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암과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WHO도 나트륨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금 과다 섭취를 경고하는 것이다. 염소도 심장, 혈관, 신장 조직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인다.<br/><br/><br/>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 준다. 소금은 몸속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세균 등 몸에 해로운 물질이 세포와 혈관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 주고 적혈구를 만드는 일도 도와준다. 소변량을 늘려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도 한다.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을 수축시킬 때도 소금이 필요하다.<br/><br/><br/>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 나쁘다. 몸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입맛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고, 무기력증까지 온다. 미국 의학저널에 따르면 소금을 적게 먹은 사람들이 적당히 먹은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7%가량 높았다. 적정량의 소금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피를 잘 통하게 해 줘서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때문이다.<br/><br/><br/>그래서 무조건 소금 섭취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소금을 골라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염화나트륨(NACl)이 많은 정제소금(맛소금)은 피해야 한다. <br/><br/><br/>대신 염화나트륨이 적고 칼륨,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먹어야 한다.<br/><br/><br/>WHO가 권고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 5g도 염화나트륨 함량이 98~99%에 이르는 정제소금이 기준이다. 천일염의 염화나트륨 함량은 80~85%로 훨씬 낮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43명에게 정제소금 대신 천일염을 먹이자 90.7%(39명)가 혈압이 낮아졌다는 국내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59.txt

제목: 비만 여성, 암 발병률 40%나 더 높아 -英 연구  
날짜: 20150416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602746  
본문: 여성은 비만이 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40%나 높아진다고 영국 암연구소(CRUK)가 발표했다. 연구소가 언급한 암은 유방암·대장암·신장암·췌장암·자궁암·식도암·간암 등 7가지다.<br/>암연구소에 따르면 체중 관련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비만 여성(1000명 중 274명)이 일반 여성(1000명 중 194명)보다 많았다.<br/>여성의 암 발병 중 8.2%는 지방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 데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과잉 분비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영국 암연구소의 줄리 샤프 박사는 “<span class='quot0'>매일 운동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몸무게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일 당신이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은 높아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어 “전보다 더 걷고 기름지고 설탕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등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br/>한편 영국에서는 매년 여성 1만 8000여 명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암이 발병하고 있다고 암연구소는 밝히고 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0.txt

제목: 암흑물질, 중력 외 ‘신비한 힘’에 영향 받아…증거 첫 발견  
날짜: 2015041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545795  
본문: 암흑물질이 중력 이외에 다른 어떤 힘과 상호작용한다는 증거를 처음 발견했다고 천문학자들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br/>암흑물질은 지금까지 오로지 중력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돼 왔는데 ‘암흑’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찾기 어려운 물질로 여겨졌다.<br/>그런데 영국 더럼대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네 은하의 동시다발 충돌 모습에서 암흑물질이 다른 어떤 힘에 의해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이들 학자는 칠레에 있는 유럽남방천문대(ESO)의 초거대망원경(VLT)과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해 지구로부터 약 14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단 ‘아벨 3827’에 있는 네 은하가 충돌하는 모습을 관측했다.<br/>여기서 연구팀은 충돌하는 은하 뒤편으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배경 은하로부터 나오는 빛의 경로가 심하게 왜곡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어떤 힘에 의해 상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br/>상쇄는 암흑물질이 중력 이외에 다른 어떤 힘을 통해 스스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중요하다고 한다.<br/>만일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입자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면 이때 발생하는 마찰이 암흑물질을 느리게 만들어 그런 왜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br/>하지만 연구팀은 이런 작용의 정확한 특징을 밝혀내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들은 이런 현상이 잘 알려진 효과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br/>연구팀은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힘이 중력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br/>연구를 이끈 리처드 메시 더럼대 박사는 “<span class='quot0'>암흑물질이 중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참견하지 않고 빈둥거린다고 생각됐지만, 은하 충돌 동안 나타난 현상이 실제로 암흑물질이 느려져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암흑물질에 관한 최초의 증거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영국왕립천문학회월간보고’(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리처드 메시/ESO<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1.txt

제목: 근육 보충제, 고환암 발병 위험 높여 -美 연구  
날짜: 2015041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534226  
본문: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보충제가 고환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크레아틴’이나 ‘안드로스테네디온’이 포함된 보충제(알약 혹은 파우더)가 고환암 발병 위험을 65%까지 높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br/>연구팀은 이런 보충제를 25세나 그 이전부터 먹기 시작했거나 두 가지 이상 먹고 있거나 3년 이상 먹은 남성들이 고환암으로 진단받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br/>연구를 이끈 통창 쳉 예일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결과는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span>”고 말했다. 이런 보충제를 어릴 때부터나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를 사용했다면 고환암 위험은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그는 설명했다.<br/>연구팀은 예전부터 일부 보충제 성분이 고환 손상의 증거를 보여준 것에 주목하고 연관성을 살피려고 했다. 쳉 교수는 “<span class='quot1'>고환암 사례가 1975년에 남성 10만 명당 3.7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 5.9건으로 증가했다</span>”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고환암 위험을 증가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br/>쳉 교수는 “<span class='quot1'>고환암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암</span>”이라고 설명하면서 “<span class='quot1'>고환암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의심할 만한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다</span>”고 말했다.<br/>연구에 참여한 러스 하우저 하버드공중보건대 교수도 “<span class='quot2'>이번 연구는 보충제 사용이 고환암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 있음을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이 결과는 고환암에 관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위험 인자를 조금이라도 식별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이 연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와 코네티컷주(州)에 사는 남성 약 9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자료도 사용됐다. 인터뷰 당시 참가자 가운데 356명은 이미 고환 생식세포종양을 진단받은 고환암 환자였고 나머지 513명은 그런 진단을 받은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br/>연구팀은 인터뷰를 통해 보충제 외에도 흡연, 음주, 운동습관, 가족력뿐만 아니라 고환이나 사타구니를 이전에 다친적 있는지 등 여러 위험 요인을 조사했다. 또 나이나 인종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도 고려했다.<br/>이를 통해 이런 보충제를 사용한 남성이 고환암에 걸릴 위험이 65% 더 높은 것을 산출해냈다. 이 수치는 4주 이상에 걸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한 종 이상의 보충제를 섭취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정의했다.<br/>이런 보충제를 두 종류 이상 사용한 남성은 고환암 위험이 177% 더 늘어났다고 한다. 또 보충제를 3년 이상 쓴 남성은 일반인보다 고환암 발병 위험이 2.56배 더 높았다. 25세나 그 이전부터 쓴 남성은 2.21배 더 높았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은 “보충제 사용은 고환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보충제와 고환암 사이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혀내려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이 연구결과는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2.txt

제목: [카드뉴스] 당신의 소변은 무슨 色인가요?  
날짜: 2015041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514924  
본문: 소변 색깔을 자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소변 색깔에 따라 신장기능 이상뿐만 아니라 초기 암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소변 색깔에 따른 건강상태 체크 방법을 보도했다.<br/>사진=포토리아<br/>기사·카드뉴스 제작=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3.txt

제목: 맑은색부터 보라색까지…소변색으로 체크하는 건강  
날짜: 2015041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502522  
본문: 소변 색깔을 자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소변 색깔에 따라 신장기능 이상뿐만 아니라 초기 암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소변 색깔에 따른 건강상태 체크 방법을 보도했다.<br/>▲옅은 노란색 <br/>소변이 옅은 노란색을 띠는 것은 우르크롬이라는 요색소 때문이다. 소변색이 노란색을 띨 경우 우르크롬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소변이 짙은 색을 띨수록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는 신체 신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br/>▲맑은색 <br/>맑은 색의 소변은 건강상에 큰 이상이 없는 징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만5000명 중 한명은 뇌하수체 이상으로 인한 요붕증(diabetes insipidus)의 증상으로 맑은 소변을 본다. 요붕증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되는 질환이며, 체내 활동량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운동선수, 여성 등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심할 경우 탈수 증상이 오거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br/>▲밝은 노란색 <br/>소변 색깔이 갑자기 밝은 노란색으로 변했다면 비타민 보충제의 영양일 가능성이 높다. 과일이나 채소로 비타민B·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보충제 한 알에 든 비타민 양이 많고 장에 닿기 전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신장을 통해 체내로 배출되는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이 때문에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한 직후에는 비타민이 섞인 밝은 노란색 소변을 볼 확률이 높다.<br/>▲짙은 노란색(오렌지색) <br/>종종 아침 첫 소변에서 볼 수 있는 짙은 노란색 소변은 지나친 나트륨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 또 당근 등에 함유된 색소 성분인 베타 카로틴을 과다 섭취할 때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이의 소변이 짙은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을 띤다면 다양한 식단을 골고루 섭취하게 할 필요가 있다.<br/>▲파란색, 녹색 <br/>색소가 든 단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파란색 소변을 볼 수 있다. 다양한 화학성 분자가 섞인 색소들은 소화기관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대신 소변으로 배출된다. 또 담즙이 과다 분비되거나 특정 세균에 감염됐을 때에도 파란색 소변을 볼 수 있다. <br/>▲선홍색, 붉은색 <br/>달리기나 테니스, 복싱 등 고강도 운동 후 선홍색 소변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나친 운동이 방광과 연결돼 있는 요도가 자극돼 급성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신장 이상이나 비뇨기과 종양, 감염, 전립선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선홍색 또는 붉은색의 소변이 나타난다.<br/>▲보라색 <br/>보라색 소변은 혈액 색소 성분인 포르피린이 혈액과 조직에 침적하는 선천성 대사이상증인 포르피린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포르피린증은 발작과 복통 및 보랏빛 또는 검붉은 소변 등이 주된 증상이다.<br/>▲뿌옇게 흐린색 <br/>소변이 희뿌연색을 띤다면 세균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대장균이 체내로 들어올 경우 몸은 백혈구를 다량 생성해 대장균에 맞서는데, 이때 희뿌옇게 흐린 소변을 볼 수 있다. 또 우유나 치즈 등 인(Phosphorus)이나 칼슘 성분을 많이 섭취해도 비슷한 색깔의 소변이 나올 수 있다.<br/>사진=포토리아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4.txt

제목: 조선족 출신 서울대 女연구원 美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날짜: 20150414  
기자: 이슬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4349867  
본문: 서울대에서 수학하는 조선족 출신 여성 연구원이 세계 최고 권위의 암 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는다.<br/><br/>서울대 약대는 종양 미세환경 연구센터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박연옥(32) 연구원이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 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연구원은 학회 초록집에 낸 자신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br/><br/>박 연구원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이라는 논문으로 상을 받게 됐다. 논문을 통해 박 연구원은 위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새로운 신호 전달 양식을 관찰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위암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br/><br/>조선족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옌볜(延邊)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박 연구원은 국가 초청 국비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로 왔다. <br/><br/>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단계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주요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다</span>”며 수상자 선정 소감을 밝혔다.<br/><br/>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5.txt

제목: 재개발 위기 실제 ‘업(Up) 하우스’ 풍선달고 하늘날까?  
날짜: 20150413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438416  
본문: 지난 200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업'(Up)은 칼 할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사별한 부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라는 부동산 업자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한 할아버지는 결국 수천개의 풍선을 집에 매달고 남아메리카로 모험을 떠난다.<br/>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공상같은 이야기지만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진 집이 실제로 존재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시애틀 발라드에 위치한 소위 '업' 하우스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br/>현재 매일같이 수백 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풍선을 달고 하늘로 날아가기를 바라는 이 집이 화제가 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당시 이 집의 주인은 이드스 메이스필드(86) 할머니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 개발붐이 불면서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집요하게 집을 팔 것을 할머니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영화처럼 60년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팔 수 없었던 할머니는 무려 100만 달러의 파격적인 매각금을 거절했다.<br/>그로부터 2년 후 할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집은 친구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이때부터 원주인을 잃은 '업 하우스'의 방황이 시작됐다. 고인의 친구는 한 회사에 이 집을 팔았고 다시 이 집은 부동산 회사에 매각됐다. 그리고 오는 20일 다시 이 집은 경매에 부쳐진다.<br/>문제는 주위가 온통 상업시설로 채워져 마치 '알박기' 처럼 존재하는 이 집이 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인들은 "개발이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니다" 면서 "추억과 전통이 있는 이 집이 원형으로 보존되기를 바란다" 면서 하나 둘 씩 찾아와 풍선을 달고 있다.<br/>이 집은 가장 높은 매입 금액을 써낸 입찰자에게 매각될 예정인 가운데 주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매각사 측은 한발 발을 빼는 분위기다.<br/>대리인 폴 토마스는 "입찰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다고 해서 반드시 낙찰되는 것은 아니다" 면서 "낙찰자가 할머니의 추억을 기념해 원형대로 남겨둘 수 있다" 고 밝혔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6.txt

제목: [포토 다큐] 3D 프린터 ‘희망’을 출력하다  
날짜: 20150413  
기자: 손형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3742166  
본문: 차세대 혁신 기술로 꼽히는 3D 프린터가 뜨고 있다. 3D 프린터는 잉크 대신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의 재료를 이용해 밑에서부터 층을 쌓아 올려 입체적인 제품을 출력하는 기기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모든 제조 방법에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3D 프린터를 언급한 바 있다. 시제품이나 피규어 등 주로 소품 제작에 사용되던 3D 프린터가 최근 의료 현장에 활용되면서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br/><br/>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3D 프린터 관련 1인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이상호(35) 만드로 대표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전자의수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초 3D 프린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로 양손을 잃은 동갑내기 남성이 올린 글을 읽고 3D 프린터로 전자의수 제작에 도전했다. 시판 중인 전자의수가 싸게는 1000만원부터 1억원을 호가할 만큼 고가인 탓에 장애인들이 쉽게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제작 단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에서 찾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첫 번째 전자의수를 만들었다. ABS플라스틱을 사용해 3D 프린터로 출력한 손틀과 손가락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자 감지기와 모터 등 구동을 위한 부품을 더해 5일 만에 첫 전자의수를 완성, 글을 올린 남성에게 선물했다. 이 대표가 전자의수 제작에 사용한 비용은 20여만원에 불과하다. 초기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가며 현재 세 번째 전자의수를 제작 중이다. 이 대표는 제작 관련 내용을 한 포털사이트 뉴스펀딩 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다. 그가 3D 프린터로 만든 전자의수가 절단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br/><br/>전문 의료 현장에서도 3D 프린터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br/><br/>백정환 에이치성형외과 원장은 3D 프린터를 성형수술 분야에 도입해 3D FIT 안면조소술(이하 3D FIT)이라는 새로운 재건 수술을 개발했다. 3D FIT은 3D CT로 스캔한 환자의 데이터를 3D 프린터에 입력해 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환자의 뼈 모델을 출력한 후 이를 토대로 손상 부위에 딱 들어맞는 보형물을 만들어 이식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재건 수술과 비교해 수술 시간이 짧고 보형물의 이격 탓에 생기던 환자의 통증이 사라진 것이 장점이다. 꼭 맞는 보형물을 사용한 덕에 수술 부위가 외관상으로도 자연스러워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사고로 두개골이나 안면부가 함몰됐거나 사각턱과절제 등 미용성형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기존 재건 수술로는 치료가 힘들거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3D FIT을 찾고 있다. <br/><br/>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3D 프린터를 암수술에 활용해 최근 6개월 동안 신장암 환자 15명의 신장 부분절제술을 성공시켰다. 의료진은 암 조직 형태까지 입체적으로 출력해 만든 환자의 신장 모형을 눈으로 보며 수술 전 절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암 덩어리는 모두 제거하고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해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br/><br/>이외에도 무릎 연골 수술이나 치과 치료 등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3D 프린터가 의학 기술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3D 프린터가 더 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을 출력하길 기대해 본다.<br/><b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7.txt

제목: 오진 피해 10건 중 6건 ‘암’  
날짜: 20150410  
기자: 김경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2802640  
본문: 의료기관의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은 암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한국소비자원은 2012∼2015년 2월 접수된 오진 피해의 구제건수(480건) 가운데 암 오진(296건)이 61.7%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사례 296건 가운데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오진이 218건(73.6%)으로 건강 검진을 포함한 검사 과정(78건·26.4%)보다 많았다.<br/><br/>유형별로는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유방암(48건·16.2%)과 소화기암인 상부위장관암(39건·13.2%), 간담도췌장암(36건·12.2%) 순이었다. 특히 폐암은 단순 방사선 검사(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확진을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이 필요한데 초기 방사선 판독이 잘못돼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br/><br/>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뒤이어 의원(110건·37.2%)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류한 상급종합병원(72건·24.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50대가 오진을 겪은 사례가 108건(36.5%)으로 제일 많았다. 40대(55건·18.6%)와 60대(39건·13.2%)가 뒤따랐다.<br/><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8.txt

제목: “너무 먹으면 안되지요~”...과다섭취땐 더 나쁜 ‘건강식품’ 6가지  
날짜: 2015040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3133385  
본문: 열량(칼로리)이 높거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알려진 식품 중에서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음은 미국 CNN 방송과 폭스 뉴스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소개됐던 것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br/>1. 시금치=영양학적으로 뛰어나며 잎이 많은 채소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해도 좋은 시금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실은 옥살산도 포함한다.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옥살산 칼슘되고 결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석이라고 하면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무서운 질병. 결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의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br/>2. 콩=한국인 대부분이 자주 먹는 콩과 이를 가공한 두부는 이제 세계적인 건강식품을 대표한다. 그 원료가 되는 콩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또한 대두 아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유사해 콩의 다량 섭취는 자궁암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콩 섭취에 관한 표준 권장 섭취량은 정해져 있지않지만 하루 2인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br/>3. 저지방 고기=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분​​이라면 건강하다고 알려졌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비계가 붙은 고기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지방이 없는 부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기는 역시 고기일 뿐인 듯하다. 세계적 학술지 셀(Cell)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동물 단백질은 인슐린과 같은 성장인자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암 세포를 증식시키거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br/>4. 참치통조림=고기보다 생선이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참치 샌드위치’, ‘참치 샐러드’ 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참치는 좋은 단백질원이지만, 몸에 해로운 수은을 포함한다. 참치로 불리는 다랑어뿐만 아니라 새치류도 마찬가지로, 미국 마운트시나이 병원 지나 샘 박사는 “<span class='quot0'>참치캔 소비는 많아도 주당 3~5캔 이내로 권장한다</span>”고 말했다.<br/>5. 견과류=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한 견과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등 장점이 있으며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열량가 높은 것.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하루에 한 줌 이내'가 이상적이다.<br/>6. 오렌지=새콤달콤함이 특징인 오렌지에 포함된 산은 식도를 자극하고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그것이 역류성 식도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위식도역류는 가슴이나 불편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오렌지뿐만 아니라 토마토 등의 산성 식품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69.txt

제목: [열린세상]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봐야/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날짜: 2015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0458622  
본문: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고려인 김모씨는 중국에 혈액암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그는 비교적 취업이 쉬운 간병인에 지원했고 이달 말이면 3개월 체류기간이 지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국내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미국에 이민을 간 언니가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에 급하게 귀국을 권유했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증을 기다리기에는 언니에게 3개월의 기간은 너무 길었다. 급한 심정에 자신의 보험증으로 언니의 진료를 받았고 언니는 채 1년이 못 되어 사망했다. 자신이 사망 처리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공단에 부당청구에 대한 사실을 알렸다. <br/><br/>얼마 전 한 대학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의 사례다. 그는 외국에서 간경화를 진단받고 생체 간 이식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 간 이식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면서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성공적인 이식 수술을 받았고 건강도 좋아졌다. 해당 병원은 2억원가량의 해외환자 진료비를 예상했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다 3개월 이후 환자와 보호자는 국민건강보험증을 들고 나타났다. 사석에서 ‘해당 병원 담당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진료비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흔히 ‘먹튀’를 하는 외국인 환자보다는 ‘안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을 좋아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 간 이식 환자도 전체 진료비의 20%만 내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결국 그의 진료비 80%는 우리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br/><br/>보건복지부는 2020년 외국인 환자 100만명을 유치하고 수입 3조 4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창대한’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그 시작을 알렸던 2009년 6만 201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21만 12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힘들여 ‘황금알’을 낳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황금알에 구멍을 내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줄줄 새게 하는 제도적 허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br/><br/>지난 3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따르면 2012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 41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이 최대 1조 19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2696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된 액수가 749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외국인 환자가 20만명, 다문화가족이 80만명 수준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료가 70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만약 2020년 외국인 환자와 다문화 가족이 각각 100만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전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념비적인 국가로 칭송받을지도 모르겠다.<br/><br/>2008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3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됐다. 정말 소액인 일부 금액만 지불하면 고액의 수술비나 심장질환 치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되면서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금, 우리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클릭 하나로, 스마트폰의 터치 하나로 모든 상품에 대한 전 지구적 가격 검색이 가능한 지금, 암 치료나 수술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br/><br/>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편법, 불법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에 숟가락을 얻는 국민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수익성 좋은 황금알이라도 지켜야 내 것이 된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향후 우리 국민을 위한 복지예산, 또 무상복지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전에 많은 국민이 낸 혈세가 우리 자국민에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0.txt

제목: HPV 80% 감염되지만…검진·백신으로 철벽수비  
날짜: 20150406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0442123  
본문: 자궁은 임신·출산과 매우 밀접한 소중한 장기지만, 각종 오염에 취약하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민감한 장기이기도 하다.<br/><br/><br/><br/>자궁 관련 질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자궁경부암은 국내 여성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15~34세 젊은 여성의 암 발생 순위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세계적으로는 2분마다 1명씩, 국내에서는 하루에 3명씩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이다.<br/><br/>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22만 4177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이 중 ‘0기 암’으로 불리는 자궁경부 상피 내암을 제외한 자궁경부암은 3584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6%를 차지했다. 여성 암 중에서는 7번째로 많다. 인구 10만명당 조(粗)발생은 7.1건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5%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가 22.2%, 30대가 15.9%로 집계됐다.<br/><br/>최근에는 35세 미만 자궁경부암 환자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국립암센터의 지난해 암 검진 수검행태조사에 따르면 35세 미만 자궁경부암 환자 발생률은 1990~19992년 평균 6%에서 2005~2006년 11.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령이 젊을수록 암 전이 속도는 빠르다. 전체 환자 수는 최근 수년째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를 미루고 있고, 국내 예방접종률은 10%대에 머무는 등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br/><br/>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다. 상피 내 종양의 90%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며,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1명이 감염되었을 정도로 매우 흔한 바이러스다. 대한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HPV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 번 정도 감염된다고 한다.<br/><br/>역학 연구에 따르면 16세 이전에 일찍 성관계를 가진 여성,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배우자를 둔 여성일수록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성관계가 많을수록 HPV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측한다.<br/><br/>HPV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반드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HPV의 70~80%는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인체 표피에 사마귀만 만들고 1~2년 이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소멸되는 경우가 많다.<br/><br/>그러나 일부 고위험군 바이러스(HPV 16, 18, 32, 33 등)는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일으키고, 이 중 일부는 자궁경부암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PV 16·18형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70%를 일으켜 가장 경계해야 할 고위험군 바이러스다.<br/><br/>예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HPV 백신을 18~26세까지 맞으면 자궁경부암을 80%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를 보면 19∼59세의 HPV 백신 접종률은 12.6%에 그치고 있다. HPV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이 비싸서다. 백신접종비용이 1회 접종에 18만원, 3회 접종에 54만원이나 된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r/><br/>현재 국내 승인된 HPV 백신인 ‘가다실’과 ‘서바릭스’는 모두 HPV 16·18형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여기에 가다실은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저위험 유전형 HPV 6·11형에 대한 항체도 생성한다. HPV 6형과 11형으로 발생하는 생식기 사마귀는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로는 예방이 어렵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40여 개국이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한 상태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 통제센터(CDC)도 11~12세 사이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인은 백신을 3차례 맞아야 항체가 형성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2차례 맞아도 효과가 있다.<br/><br/>2013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접종 권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권고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지만,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연관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지자체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조치는 백신을 맞은 여성 6명이 전신 통증을 보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보이자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잠정적 중단을 권고한 것이지,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접종 자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게 아니었다.<br/><br/>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연평균 4000여명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매년 1000여명, 하루 평균 3명의 환자가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보다 자궁경부암을 미리 예방하는 게 효용성이 더 크다고 조언한다.<br/><br/>담배 역시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높인다. 해외 연구자료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1.5~2.3배 쯤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및 사망 위험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클라미디어(성병의 하나) 감염,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적은 식이, 장기간 경구피임약의 사용, 낮은 사회경제 수준 등도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1.txt

제목: [서울대 지망생의 책장-읽어라, 청춘] (39)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날짜: 2015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0438556  
본문: 서기 2540년, 지금부터 525년이 지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세상의 질병이 극복되고, 노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피부와 장기는 항상 젊음을 유지한다. 길어진 수명으로 죽음도 축제처럼 인식된다. 잡다한 감정들은 알약 하나를 삼키는 순간 사라진다. 누구나 풍요롭고 주어진 능력에 따라 일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의무감도 없다. 고독과 절망도 없는 사회. 이것은 천재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1894~1963)가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서 제시한 미래의 모습이다.<br/><br/>우리는 흔히 미래사회에 대해 막연히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과학기술 문명의 양양한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생긴 이상향 즉 유토피아가 이룩된 사회를 꿈꾼다. 헉슬리가 1932년에 쓴 미래사회에 대한 이 소설은 20세기 소설 가운데 가장 현실감 있고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가 위에서 제시한 미래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모든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유토피아로 보인다.<br/><br/>그런데 그는 왜 작품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였을까.<br/><br/>“… 유토피아는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지식인과 교양인은 유토피아를 회피하며, 불완전하지만 자유로운 비유토피아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 -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br/><br/>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선 작품 제목의 의미부터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목은 세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철저히 반어적인 어법으로 쓴 제목은 템페스트에서 주인공 미란다가 외친 말인데, 미란다는 아버지와 함께 12년 동안 섬에 갇혀 살았다. 그녀는 조난당한 나폴리 왕자 퍼디난드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진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갈등을 풀고 밀라노로 떠나면서 미란다는 외친다. “이 멋진 새로운 세계여.” 이 말은 문명사회의 실상과 어두움을 모른 채 그저 환상과 호기심만으로 가득 찬 미란다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로 멋진 신세계의 주인공 존의 상황과 부합한다. 헉슬리는 작품의 제목에서 미래 문명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br/><br/>이제 헉슬리가 보여주는 미래 문명사회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1908년 포드사의 T모델 자동차가 세계 최초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생산되어 미국 소비사회가 개막된 지 63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사회는 더이상 모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험용 병에서 인공 수정되어 부화기로 옮겨지는데 이때 5가지 계급 중 알파와 베타를 제외하고 하위 계급인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은 ‘보카노프스키법’에 따라 처리된다. 성장 억제 조치를 받은 하위계급은 수백만의 일란성 쌍생아로 태어나 불평 없이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적화된다. 생후 8개월 된 아기들은 신파블로프식 조건반사와 수면교육을 통해 의식이 주입된다. ‘만인은 만인의 공유물’로 가족 간의 유대나 끈끈한 의무감은 없다. ‘소마’를 먹으면 감정처리까지 완벽하게 해결되는 행복한 세상이다. 하지만 그곳에도 버나드와 헬름홀츠같이 개인적 자각을 가지고 이런 문명에 회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br/><br/>한편 문명세계와 대조되는 뉴멕시코 야만인 보호구역에 사는 존 세비지는 문명사회에서 우연히 이탈한 린다에게서 태어나 셰익스피어와 종교와 신, 죽음이 가지는 자연적이고 은밀한 가치관을 체화하면서 자랐다. 존은 버나드에 의해 문명사회로 오게 된다. 문명인 레니나의 아름다움과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오오, 멋진 신세계여!”라고 외치며 기뻐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문명사회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경악한다. 극도로 안정되어 보이는 이 문명사회는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표어 아래 전제주의로 획일화된 사회였으며,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되어 대량 복제된 엡실론 하위 계급의 노예화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이미 상실된 곳이었다. 모든 신체의 감정과 영혼까지 제거된 사회를 보고 구토하는 존에게 총통은 문명사회에 대해 설명해 준다. 여기서는 더이상 예술과 과학, 종교는 필요 없다. 그것은 안정을 위해 지불해야 할 희생일 뿐이다. 대신 대중에게 촉감영화같이 말초적이고 단순한 유쾌함만을 주입한다. 한때 허용했던 무제한의 과학발전과 진리탐구는 비탈저폭탄으로 인한 9년 전쟁으로 사라지고 대량생산과 보편적 행복과 안정을 위해 대중들에게 통제되었다. 인간의 노령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종교에서도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심신의 안정과 위안은 의약품으로 가능하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독교 정신을 터득하는 것이 소마의 본질이다.<br/><br/>이러한 문명사회의 실체를 알게 된 존은 더이상 머물기를 거부하며 불편해질 권리를 요구한다. 신을 원하고,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하며 죄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존에게 총통은 “그렇다면 자네는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를 요구하겠지?”라고 되묻는다. 존은 더이상 문명사회의 조롱과 괄시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br/><br/>우리는 이 작품을 읽는 동안 ‘과연 나는 이런 편리한 문명사회를 거부할 수 있을까? 존이 선택한 불행해질 권리는 과연 합리적인 대안일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헉슬리가 보여준 미래문명 세계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헉슬리가 상상한 미래가 상당 부분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기계문명의 극한적인 발달과 과학적 성과 앞에 노예로 전락한 인간과 존엄성의 상실이라는 비극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헉슬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기계문명의 위협이 심각하고 전쟁과 과학을 결부시켰을 때 어떠한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직접 체험했으며 1920~30년대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이 근대과학의 성과를 마음대로 이용할 때 초래한 비극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br/><br/>하지만 헉슬리가 제안한 기계문명과 인간가치 보존에 대한 양자택일의 방법은 어딘지 모르게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헉슬리는 인간의 가치를 보존하려면 원시사회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결론과 함께 야만의 추악함과 불완전성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존이 문명세계와 야만세계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선택하는 결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br/><br/>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발표한 지 27년이 흐른 뒤 ‘다시 가본 멋진 신세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보완한다. 그는 자신의 예언보다 더 빨리 인구과잉과 과잉조직화, 독재체제의 선전, 화학적 약물로 인한 중독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유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개인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자유와 관용, 자비심을 강조했다. <br/><br/>또한 비유토피아의 미래를 우려했던 그는 말년에 ‘아일랜드’를 통해 현대 문명과 암울한 미래의 긍정적 대안으로 동서양의 조화로운 균형과 융합이 이루어진 유토피아를 제시하였다. 멋진 신세계에서 보여준 미완성의 유토피아를 이 책을 통해 실현한 것이다.<br/><br/>헉슬리는 서양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오만함으로 미래인류의 파멸을 예고하였지만 그 대안으로 인간성의 회복과 동양정신 등 포용의 철학을 제시하였다. 중용을 통해 조화와 질서로 나아가야 하며 동양적 가치관과 신비주의적 정신세계에 대해 일깨우고 있다.<br/><br/>문명의 질주를 통제하기 힘든 요즘, 물질만능주의와 무한경쟁 속에서 정의와 도덕이 근본적으로 와해되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 유토피아는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미래 문명사회처럼 안정을 위해 과학적 기계문명으로 재단된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 다양한 사유와 진리추구가 보장되는 사회,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정의와 공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br/><br/>●‘읽어라 청춘’은 격주로 게재됩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2.txt

제목: [뉴스 플러스]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날짜: 2015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000410814  
본문: 올 하반기부터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 56개의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이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경우 팀을 구성해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완화의료 서비스 자문·상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을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br/><br/><br/>아울러 간암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은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55~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년 CT를 통한 폐암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의료인용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3.txt

제목: 존 레논 조강지처 신시아, 75세 나이에 암으로 별세  
날짜: 2015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4925899  
본문: 비틀즈의 기타리스트 존 레논의 첫 부인인 신시아 레논이 암투병끝에 1일(현시시간) 스페인 마요르카 자택에서 75세 나이로 숨졌다고 가족이 밝혔다. <br/>텔래그래프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신시아의 임종을 지켜본 아들이며 음악가인 줄리안은 “<span class='quot0'>모친이 짧지만 용기있게 암과 싸우다 돌아가셨다</span>”면서 고인의 사진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br/>존 레넌의 두 번째 부인인 오노 요코는 성명을 통해 신시아의 타계 소식에 “매우 슬프다”며 “<span class='quot1'>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엄마였다</span>”고 추모했다.<br/>오노 요코는 이어 “<span class='quot1'>우리 두 여성이 ‘비틀즈 가족’을 굳건하게 지켜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br/>비틀즈 멤버인 폴 매카트니는 신시아가 “사랑스러운 여성”이라며 “<span class='quot2'>우리 모두는 그녀를 그리워할 것</span>”이라며 고인과의 인연을 회고했고 링고 스타도 트위터에 추모 글을 올렸다.<br/>신시아는 1957년 리버풀의 음악학교에서 존 레논을 만나 비틀즈가 명성을 얻기 직전 결혼했지만 당시 10대 우상이었던 비틀즈의 이미지를 지키고자 결혼 사실을 숨겼다.<br/>두사람은 신시아가 존 레논과 오노 요코와의 관계를 알게된 후 1968년 이혼했다.<br/>비틀즈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집필한 헌터 데이비스는 “<span class='quot3'>신시아가 존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조용하고 침착했다</span>”며 “<span class='quot3'>존이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나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했다</span>”고 말했다.<br/>신시아는 이혼 후 몇 차례 재혼했으며 레논과 지냈던 시절을 회고록으로 펴내기도 했다.<br/>비틀즈가 부른 ‘헤이 주드’(Hey Jude)는 부모의 이혼에 상처받았을 신시아의 아들 줄리안을 위해 매카트니가 줄리안의 이름을 주드로 바꿔 쓴 곡이다.<br/>신시아는 줄리안과 각별히 가깝게 지냈다.<br/>줄리안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아빠는 내가 세살이었을때 떠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엄마와 나는 세상의 관심 밖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4.txt

제목: ‘암을 예방하는 김치’가 식탁에 오른다  
날짜: 2015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4647592  
본문: 　머지 않아 암을 예방하는 기능성을 가진 김치가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진이 동물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br/>　서울대 암연구소(소장 송용상 산부인과 교수) 주최로 1일 전남 화순군 금호리조트에서 개막한 ‘국제 암심포지엄’에서 차의과대학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와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2일 관련 연구 내용을 공개했다.<br/>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캐나다·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세계 14개국에서 90여명의 암 연구 분야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4일까지 계속된다.<br/>　연구팀은 ‘암 예방 김치(cpKimchi)’로 명명한 이 김치와 기존 일반 김치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과 고농도의 소금 섭취로 인해 위 종양 형성되도록 유도된 실험쥐에 36주간에 걸쳐 물과 함께 투여한 뒤 김치를 먹이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다.<br/>　그 결과, 김치를 먹이지 않은 그룹에서는 36주 후 위에 궤양과 종양은 물론 표면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관찰됐지만 암 예방 김치를 먹인 그룹에서는 이런 증상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김치를 먹인 실험쥐들도 위에서 홍반과 결절성 변화, 점막 궤양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br/>　위 점막 내 세포 분석에서도 암 예방 김치를 먹이지 않은 쥐들은 종양 형성과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염증물질인 ‘COX-2’와 ‘IL-6’의 발현 등이 관찰된 반면 암 예방 김치를 먹인 그룹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br/>　연구팀은 이에 대해 “암 예방 김치 추출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할 뿐 아니라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 이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br/>　연구팀은 그러나 이 동물실험에 사용된 암 예방 김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특허권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br/>　함기백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예방 김치를 매일 먹으면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생긴 위축성 위염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항돌연변이 등의 반응으로 종양 형성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0'>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위암 발생 과정을 억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데 큰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　김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장수식품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김치가 가진 맵고 짠 맛 때문에 위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기 제기돼 왔다. 그런가 하면 다른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김치의 짜고 매운 맛이 위암을 유발하기보다 위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역학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등 김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br/>　연구팀은 이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한국인에게 생기는 위암의 가장 큰 원으로 꼽히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위암 모델을 통해 암 예방 김치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어 이 김치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암 발생 여건을 현저하게 개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함기백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김치가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 위염을 감소시킴으로서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성 위축성 위염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위암 발생에 관여하는 다양한 발암 과정을 효율적으로 차단한다는 점도 규명했다</span>”고 덧붙였다.<br/>　한편, 1일 오후에 열린 심포지엄 기념 만찬에서 구충곤 화순군수는 “<span class='quot1'>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암 예방에 중요한 섭생과 신체활동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화순군이 의생명과학 및 치유농업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를 통해 지역의 특징적인 생태환경과 정책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5.txt

제목: 방광질환 부끄럽다고 방치했다간 큰일 나요  
날짜: 20150401  
기자: 이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3805586  
본문: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방광질환. 수치심과 위생 문제 등으로 감추고 방치해 병을 더욱 키우게 된다. 하지만 방광질환을 방치할 경우 전신 감염, 콩팥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br/><br/>1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다양한 방광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본다.<br/><br/>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50%가 앓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 방광질환인 요실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흐르는 요실금은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중 가장 흔한 기침, 재채기, 웃음 등으로 복부에 압력이 가해져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과 미처 화장실을 가기도 전에 소변이 나오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다. 이 둘이 합쳐진 복합성 요실금도 있다.<br/><br/>여성에게 흔한 또 다른 방광질환은 방광염이다. 방광염은 장내세균이 역류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인인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항문과 요도가 가까워 장내세균이 역류하기 쉽다. 특히 방광염을 오래 앓아 재발성 방광염이 만성화되면 완치가 불가능한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을 떼어 내야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br/><br/>방광에 암이 생겼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혈뇨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뇨도 나타날 수 있어 정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소변 주머니를 차거나 인공방광을 만드는 수술로까지 이어지는데, 재발하기 쉬운 방광암은 수술 후에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br/><br/>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6.txt

제목: 굴 먹으면 암·심장질환 등 막을 수 있어 -美 연구  
날짜: 20150330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725666  
본문: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암이나 심장 질환은 물론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아연 부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인층에서 아연 결핍에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이런 질병이 발병하기 쉽다.<br/>미국 오리건주립대 에밀리 호 교수팀이 아연 부족할 경우 세포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지 확인한 결과, 비정상적인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세포의 염증과 관련한 단백질인 인터류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또 쥐 실험에서 아연 결핍 상태를 확인했는데 젊은 쥐보다 나이 든 쥐에서 아연 수치가 낮고 인터류킨 기능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결론적으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화 염증은 아연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충분한 아연을 섭취하고 있으면 이런 질병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br/>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굴 등의 조개류는 물론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육류가 있다.<br/>연구팀에 따르면, 아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성이 11mg, 여성이 8mg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않아 평소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당부하고 있다.<br/>에밀리 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아연은 체내에 축적하는 것이 어려워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노인층은 적극적으로 아연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분자영양학과 식품연구’(Molecular Nutrition & Food Research) 최신호(3월 17일)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7.txt

제목: “술 하루 3잔 이상, 간암 위험 급증” -세계암연구기금  
날짜: 20150330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708360  
본문: 세계암연구기금 WCRF(World Cancer Research Fund)가 애주가들은 귀에 새겨들어야할 연구결과를 내놨다. 술을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간암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다.<br/><br/>30일 UPI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WCRF가 '2015 간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간암 환자 2만4600명을 포함, 총 820만명을 대상으로 한 34편의 연구논문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WCRF는 밝혔다.<br/><br/>잦은 음주 외에도 과체중이나 비만도 간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br/><br/>이밖에 진균(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간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진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주로 양념, 땅콩,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고춧가루, 후추, 말린 과일 등에 잘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또한 커피가 간암 위험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커피가 염증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WCRF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관이 간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br/><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8.txt

제목: 암, 심장병 등 주요 질환, 아연 부족 영향 커 -美 연구  
날짜: 20150330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656099  
본문: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암이나 심장 질환은 물론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아연 부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인층에서 아연 결핍에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이런 질병이 발병하기 쉽다.<br/>미국 오리건주립대 에밀리 호 교수팀이 아연 부족할 경우 세포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지 확인한 결과, 비정상적인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세포의 염증과 관련한 단백질인 인터류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또 쥐 실험에서 아연 결핍 상태를 확인했는데 젊은 쥐보다 나이 든 쥐에서 아연 수치가 낮고 인터류킨 기능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결론적으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화 염증은 아연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충분한 아연을 섭취하고 있으면 이런 질병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br/>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굴 등의 조개류는 물론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육류가 있다.<br/>연구팀에 따르면, 아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성이 11mg, 여성이 8mg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않아 평소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당부하고 있다.<br/>에밀리 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아연은 체내에 축적하는 것이 어려워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노인층은 적극적으로 아연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분자영양학과 식품연구’(Molecular Nutrition & Food Research) 최신호(3월 17일)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79.txt

제목: [포토] 난소·나팔관 제거 수술 안젤리나 졸리, 두 딸과 시상식 참석… ‘행복한 세 모녀’  
날짜: 2015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2733634  
본문: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포럼에서 열린 어린이채널 니켈로데온의 ‘2015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 참석했다. 이날 우아한 검은색 홀터넥 드레스를 입은 졸리는 두 딸 자하라(왼쪽)와 샤일로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졸리는 이달 중순께 암 예방을 위해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이날 처음으로 건강한 근황을 알렸다. <br/>사진 ⓒAFPBBNews=News1<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0.txt

제목: “저분자억제제로 암줄기세포 사멸효과 확인”  
날짜: 2015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2729104  
본문: 　암에 의한 사망의 주요 원인은 전이와 재발에 있다. 이런 암 재발에는 암줄기세포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게 최근 연구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암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암 정복이나 퇴치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br/>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일명 ‘발암신호’라 불리는 ‘윈트(Wnt)’ 신호전달 체계가 종양세포보다 암줄기세포 증식에 긴밀하게 관여하며, 윈트 신호전달을 제어하는 저분자억제제를 이용하면 암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발암 항암치료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br/>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남정석(이길여암당뇨연구원. 사진) 교수팀은 이같은 윈트의 역할에 주목해 분자의학 차원에서 ‘베타-카테닌 저분자억제제(CWP232228)’가 유방암 줄기세포 성장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윈트 신호전달은 ‘윈트’라는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세포간 신호전달체계로,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신호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하면 암 또는 암줄기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연구팀은 동물 연구를 통해 유방암 종양세포와 줄기세포를 대상으로, 기존 항암치료제(독시탁셀)와 윈트/베타-카테닌 저분자억제제를 단독 또는 병용해 치료했을 때의 결과를 관찰했다. <br/>　그 결과, CWP232228로 치료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폐 전이상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CWP232228로 치료한 동물의 생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도 함께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는 윈트 신호전달 정도가 종양세포에서보다 암줄기세포의 생성과 억제에 보다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윈트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물질인 CWP232228이 유방암 줄기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이번 연구는 윈트 신호전달 저분자억제제를 이용하면 암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할 수 있으며, 이는 CWP232228이 암재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항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실제로, 많은 항암치료제들이 빠르게 분열·증식하는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암줄기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은 막지 못해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표준항암제와 암줄기세포 표적치료제를 같이 이용하는 복합치료를 통해 암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br/>　남정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일반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온 기존의 암치료보다는 암의 발병과 유지, 재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암줄기세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이번 연구는 가천대와 가천대 길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의 핵심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향후 대사질환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논문(Wnt/β-catenin small molecule inhibitor CWP232228 preferentially inhibits the growth of breast cancer stem-like cells)은 미국 암학회가 발간하는 권위있는 학술지인 ‘암연구(Cancer Research)’ 온라인판에 최근 실렸다.<br/>　길병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에서 분자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남정석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연구중심병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1.txt

제목: 적외선 안약?…어둠 속 시야 확보 돕는 용액 등장  
날짜: 2015032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629669  
본문: 안약 한 방울이면 ‘밤눈’(Night Vision)이 생긴다?<br/>컴컴한 밤, 적외선 망원경처럼 마치 불을 켠 듯 환하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약(용액)이 개발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br/>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바이오 해커 단체인 ‘사이언스 포 메시즈’(Science For Masses)는 광민감성 약물인 ‘클로린 e6’(Chlorin e6·Ce6)에 인슐린과 염분 등을 추가해 만든 이 안약을 한 명의 실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 한 결과, 수 시간 동안 빛 한 줌 없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50m 앞까지 내다보는 것이 가능했다.<br/>이때 시야는 한밤중에 적외선 망원경 또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한 화상을 보는 것과 비슷하며, 전반적으로 초록색 필터 느낌이 강하다.<br/>실험 참가자는 이 용액을 눈에 주입한 뒤 어둠 속에서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100% 인식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이 용액을 주입받지 않은 또 다른 실험 참가자는 같은 실험에서 성공률이 3분의 1에 불과했다.<br/>이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클로린 e6이라 부르는 물질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 체내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으며, 광(光)증폭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암 치료제로도 각광받고 있다.<br/>이 클로린 e6에 인슐린과 특정 량의 염분 또는 식염수를 추가하면 저감도 환경에서도 시각 확보가 가능해 진다.<br/>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용액의 안전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며 모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br/>영국 안과전문가인 러셀 피케 박사는 데일리메일과 한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안과전문의나 정부 또는 약사의 동의나 처방 없이는 이 용액을 눈에 넣어서는 안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잘못된 사용은 안구 표면이나 눈 전체에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br/>하지만 연구를 이끈 바이오 해커 단체는 “임상 실험 참가자는 실험이 끝난 뒤 2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br/>한편 바이오 해커는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지닌 마니아로, 연구소에 속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실험을 하는 집단을 뜻하며, 미국 내에는 비 전문가로 이뤄진 다수의 바이오 해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2.txt

제목: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희소성 있는 중대형! 34평형 완전판매, 39평형까지 마감임박!  
날짜: 20150327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600418  
본문: 강동구 고덕동과 상일동 일대에 위치한 고덕지구는 고덕시영단지와 고덕주공1~7단지 등 총 8개 단지, 1만8000여 가구로 구성됐다.<br/>6단지 3.3㎡당 평균 예정 일반분양가는 2000만원대, 7단지는 2100만원대다. 고덕시영을 재건축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1950만원대였다.<br/>실제로 분양마감에 임박해 있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의 경우 지방 투자자의 수요가 급증했다. 또한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는 전용 84㎡ 경우 이달 초 5억3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작년 말보다 8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이는 고덕주공4단지가 이주를 시작한 가운데 2단지까지 다음달부터 이주에 들어가면서 이웃한 암사동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br/>'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새롭게 조성되는 27,000여 가구의 신도시급 재건축 지구이다. 고덕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3,658세대의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고덕 주공2단지(4,103가구), 주공3단지(4,066가구), 주공4단지(684가구)등이 재건축하면서 고덕지구는 향후 약2만7천여 가구의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br/>고덕동래미안힐스테이트는 고덕동의 초입에 있어 교통이 편리해 서울 도심권 및 수도권 각지로 접근성이 탁월하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잠실, 종로, 여의도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지난해 말 개통한 암사대교를 이용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로의 접근도 수월하게 되었다.<br/>서울시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지하철9호선 4단계 연장을 포함한 서울 도시철도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은 강동보훈병원에서 강일지구까지 연장된다. 또한 고덕역을 환승역으로 만들 계획까지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br/>교육환경은 강동구 내에서 전통적인 학군 선호지역에 속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도 또한 높다. 단지 가까이에 명덕초교, 묘곡초교, 명일중, 광문고 등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배재고, 명일여고, 한영외고 등 명문고교도 가깝다. 또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고 사설 학원가도 잘 형성 되어있는 등의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 되어있다. 여기에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해주고, 1,000만원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br/>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준비 되어있고.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방문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므로 방문 전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다. <br/>분양문의 02-6416-0244<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3.txt

제목: 쿠바 공무원 부패 심각...달걀까지 빼돌려 ‘무더기 중형’  
날짜: 20150326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551760  
본문: 달걀을 훔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내려졌다.<br/>쿠바 아바나의 민중법원이 달걀을 빼돌려 주머니를 채운 공사 직원들에게 최고 17년 징역을 선고했다.<br/>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정에 선 공사 직원은 모두 18명. 피고들은 아바나 상업공사와 아바나 달걀저장분배공사에 재임하면서 조직적으로 달걀을 빼돌렸다.<br/>은행거래 서류와 영수증까지 조작하면서 18명이 몰래 빼돌린 달걀은 약 800만 개에 이른다.<br/>돈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890만7562 쿠바 페소, 우리돈으로 약 4억원에 달한다.<br/>아바나 법원은 경중에 따라 피고들에게 최저 3년, 최고 1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현지 법원은 "피고 대부분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br/>법원은 "주민에게 공급해야 할 먹을거리를 빼돌려 재산을 불린 건 매우 엄중한 범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달걀사건은 최근 쿠바 관영지 그란마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br/>신문은 "2012년부터 조직적으로 달걀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몰래 빼낸 달걀을 팔아 공사 직원들이 재산을 늘렸다."고 보도했다.<br/>직원들은 착복한 달걀을 암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알려졌다.<br/>쿠바 정부는 2009년 부정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br/>라울 카스트로 평의회의장은 부정부패를 "사회적 암"이라고 규정하고 엄벌을 경고했다. <br/>그란마는 "2009년부터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외국인 기업인 수십 명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br/>신문은 "강력히 처벌만 한다고 (부정부패나 비리의)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범죄자는 법의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사진=아바나타임즈<br/>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4.txt

제목: 이정재, 하정우, 전지현 출연작 ‘암살’ 해외용 포스터 공개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609811  
본문: 이정재, 하정우, 전지현 출연으로 일찌감치 화제작 반열에 이름을 올린 ‘암살’의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br/><br/>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비밀 암살 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br/><br/>이번에 공개된 해외용 포스터는 비밀 암살 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이정재, 하정우, 전지현의 모습을 담고 있다. <br/><br/>암살 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인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 있는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잡고, 3000달러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 역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br/><br/>특히 암살 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인 ‘안옥윤’ 역을 맡은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굳은 신념을 가진 캐릭터로 분해 연기 변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br/><br/><br/><br/>각기 다른 운명으로 얽힌 세 인물의 이미지를 담아낸 ‘암살’의 해외용 포스터에는 각 인물들의 관계와 이야기 전개에 대해 궁금증을 높인다. <br/><br/>흥행보증수표 최동훈 감독의 다섯 번째 영화 ‘암살’은 이정재, 하정우, 전지현을 비롯해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 등 충무로 대표 배우들의 출연으로 풍성함을 더한다. 2015년 여름 개봉 예정. <br/><br/>사진=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br/><br/>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5.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최강조합+강렬한 포스… 어떤 내용?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18743  
본문: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명품배우들의 만남… 어떤 내용?<br/><br/>’전지현 이정재 하정우’<br/><br/>영화 ‘암살’ 해외 포스터가 공개됐다.<br/><br/>영화 ‘암살’ 해외포스터에는 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린 세 주인공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br/><br/>최동훈 감독과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 등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호흡을 맞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비밀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br/><br/>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은 전지현은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표현했다.<br/><br/>또 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변신했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 또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br/><br/>한편 영화 ‘암살’은 후반작업을 거쳐 올 여름 개봉될 예정이다.<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전지현 이정재 하정우)<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6.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역대급 조합… 세사람 관계보니 ‘기대감 폭발’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19744  
본문: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서늘한 긴장감… ‘영화 암살’ 세사람 관계보니 ‘기대감폭발’<br/><br/>‘전지현 이정재 하정우’<br/><br/>영화 ‘암살’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돼 화제다. <br/><br/>지난 23일 개막한 제39회 홍콩국제영화제 마켓에서는 최동훈 감독과 대한민국 톱스타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의 조합으로 2015년 여름 최고 기대작이라 평가받고 있는 ‘암살’의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됐다. 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는 공개된 포스터 속 새로운 변신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br/><br/>조국이 사라진 시대, 독립군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각기 다른 운명으로 얽힌 세 인물의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낸 해외용 포스터는 이들이 보여줄 숨막히는 긴장감과 극적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전지현 하정우 이정재)<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7.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최강조합… 세사람 표정보니 ‘긴장감 폭발’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25911  
본문: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역대급 만남… 세사람 표정보니 ‘긴장감 폭발’<br/><br/>‘전지현 이정재 하정우’<br/><br/>영화 ‘암살’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돼 영화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br/><br/>지난 23일 개막한 제39회 홍콩국제영화제 마켓에서는 최동훈 감독과 대한민국 톱스타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의 조합으로 2015년 여름 최고 기대작이라 평가받고 있는 ‘암살’의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됐다. 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는 공개된 포스터 속 새로운 변신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br/><br/>조국이 사라진 시대, 독립군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각기 다른 운명으로 얽힌 세 인물의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낸 해외용 포스터는 이들이 보여줄 숨막히는 긴장감과 극적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전지현 하정우 이정재)<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8.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역대급 조합… 세사람 비주얼보니 ‘대박’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26883  
본문: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역대급 조합… 세사람 비주얼보니 ‘대박’<br/><br/>‘전지현 이정재 하정우’<br/><br/>영화 ‘암살’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br/>지난 23일 개막한 제39회 홍콩국제영화제 마켓에서는 최동훈 감독과 대한민국 톱스타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의 조합으로 2015년 여름 최고 기대작이라 평가받고 있는 ‘암살’의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됐다. 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는 공개된 포스터 속 새로운 변신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br/><br/>조국이 사라진 시대, 독립군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각기 다른 운명으로 얽힌 세 인물의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낸 해외용 포스터는 이들이 보여줄 숨막히는 긴장감과 극적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전지현 하정우 이정재)<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89.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놀라운 만남 ‘줄거리는?’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09808  
본문: 영화 ‘암살’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돼 화제다. <br/><br/>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는 공개된 포스터 속 새로운 변신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 <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0.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강렬한 존재감 ‘대박’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11149  
본문: 영화 ‘암살’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돼 화제다. <br/><br/>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는 공개된 포스터 속 새로운 변신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 <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1.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눈길’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07809  
본문: 영화 ‘암살’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돼 화제다. <br/><br/>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는 공개된 포스터 속 새로운 변신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br/><br/><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2.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톱배우 다 모였다 ‘대박’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02887  
본문: 영화 ‘암살’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됐다. <br/><br/>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는 공개된 포스터 속 새로운 변신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br/><br/><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3.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명품 배우들의 만남… 줄거리는?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505150  
본문: 영화 ‘암살’ 해외포스터에는 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린 세 주인공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br/><br/>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비밀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br/><br/>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은 전지현은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표현했다.<br/><br/>또 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변신했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 또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4.txt

제목: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만남만으로도 기대감 up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459600  
본문: 영화 ‘암살’ 해외용 포스터가 공개돼 화제다. <br/><br/>비밀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리는 세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는 공개된 포스터 속 새로운 변신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br/><br/>전지현은 암살작전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전작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흔들림 없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을 통해 굳은 신념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br/><br/>암살작전을 지시하는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 역의 이정재는 강렬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3000불이면 누구든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한 하정우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br/><br/><br/><br/>한편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다. <br/><br/>사진=영화 암살 포스터<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5.txt

제목: 안젤리나 졸리, 난소 제거수술 후 모습 최초 포착  
날짜: 20150325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456087  
본문: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24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가운데, 수술 공개 이후 모습이 최초로 포착됐다.<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안젤리나 졸리는 뉴요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공개된 직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다.<br/>화장기가 전혀 없는 얼굴에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수술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은 몸 상태를 고려한 듯 손에서 물병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었다.<br/>안젤리나 졸리는 조수석에 앉아있었으며, 운전석에는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직접 차를 몰았다.<br/>난소 제거 수술 전인 지난 15일, 그녀는 남편 브래드 피트와 딸 샤일로, 자하라 등과 함께 축구경기를 관람했으며, 브래드 피트와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해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산 바 있다.<br/>현지 언론은 그녀가 가족과 나들이를 떠났을 당시 난소 제거 수술에 대해 심사숙고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젤리나 졸리는 수술 전 프랑스에 있던 브래드 피트를 미국으로 불러 함께 병원을 찾았으며, 5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받았다. <br/>한편 안젤리나 졸리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난소 하나에 작은 악성 종양이 있었지만 조직에 암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혈액검사 결과 초기 난소암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br/>안젤리나 졸리는 BRCA1으로 알려진 유전가를 가지고 있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 였으며, 그녀의 어머니를 포함해 집안에서 3명의 여성이 암으로 사망했다.<br/>그녀의 이번 수술은 유방절제수술이 있은 지 2년 만이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뒤 일명 ‘안젤리나 졸리 효과’가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유방암을 우려한 여성들의 수술 문의가 빗발친 바 있다.<br/>사진=TOPIC / SPLASH NEWS(www.topicimages.com) <br/>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6.txt

제목: 안젤리나 졸리, 유방절제 이어 난소와 나팔관까지,”왜 이렇게까지...”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136674  
본문: 할리우드 톱배우 겸 감독이자 UN 난민고등판무관인 안젤리나 졸리(40)가 최근 난소암을 우려해 난소절제술을 받았다. 졸리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아내이기도 하다. <br/><br/>의학계는 암에 걸리지 않은 졸리의 선택에 대해 다른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br/><br/>졸리는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가운데 여성 3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졸리는 최근 혈액검사 결과 난소암 가능성을 진단을 받았다. <br/><br/>정밀검사 결과에서는 암이 아닌 종양이었지만 암 발생 가능성 때문에 난소와 나팔관의 완전 절제를 선택했다. 지난 2013년 2월 유방암 예방을 위해 양쪽 유방도 절제했다. <br/><br/>난소는 난자를 내보내는 기능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생리주기와 임신을 조절하는데다 유방의 발달 등 여성의 인체활동에 관여하는 기관이다.<br/><br/> <br/><br/>ⓒ AFPBBNews=News1/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7.txt

제목: [포토+5] ‘같은반 학생 16명 사망’… 추모 마음 담은 양초들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30047133  
본문: 24일(현지시간) 독일 한테른 암 제의 한 중고등학교 앞에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의 희생자들을 위한 꽃과 양초로 만들어진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으로 이 학교의 같은 반 학생 16명이 사망했다.<br/>사진 ⓒAFPBBNews=News1<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8.txt

제목: 달걀까지 훔쳐 팔아...공무원들에 징역 17년  
날짜: 20150323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408540  
본문: 달걀을 훔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내려졌다.<br/>쿠바 아바나의 민중법원이 달걀을 빼돌려 주머니를 채운 공사 직원들에게 최고 17년 징역을 선고했다.<br/>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정에 선 공사 직원은 모두 18명. 피고들은 아바나 상업공사와 아바나 달걀저장분배공사에 재임하면서 조직적으로 달걀을 빼돌렸다.<br/>은행거래 서류와 영수증까지 조작하면서 18명이 몰래 빼돌린 달걀은 약 800만 개에 이른다.<br/>돈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890만7562 쿠바 페소, 우리돈으로 약 4억원에 달한다.<br/>아바나 법원은 경중에 따라 피고들에게 최저 3년, 최고 1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현지 법원은 "피고 대부분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br/>법원은 "주민에게 공급해야 할 먹을거리를 빼돌려 재산을 불린 건 매우 엄중한 범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달걀사건은 최근 쿠바 관영지 그란마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br/>신문은 "2012년부터 조직적으로 달걀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몰래 빼낸 달걀을 팔아 공사 직원들이 재산을 늘렸다."고 보도했다.<br/>직원들은 착복한 달걀을 암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알려졌다.<br/>쿠바 정부는 2009년 부정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br/>라울 카스트로 평의회의장은 부정부패를 "사회적 암"이라고 규정하고 엄벌을 경고했다. <br/>그란마는 "2009년부터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외국인 기업인 수십 명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br/>신문은 "강력히 처벌만 한다고 (부정부패나 비리의)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범죄자는 법의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사진=아바나타임즈<br/>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299.txt

제목: 선종성 용종, 대장암 위험 키운다  
날짜: 20150323  
기자: 홍인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4551971  
본문: 대장암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선종성 용종’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성 용종의 약 10%는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하며, 선종이 자라 암이 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br/>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종성 용종 진료인원은 2008년 6만 7000명에서 2013년 13만명으로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특히 50~60대 남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39.8%를 차지했다. 50~60대 남성은 인구 10만명당 1836명이 선종성 용종 진단을 받은 셈이다. 2008년 이후 선종성 용종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70대 이상이었다. 선종성 용종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전체 인원이 12.9% 정도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70대는 연평균 16.0%, 80세 이상은 14.8%씩 늘었다.<br/><br/><br/>조용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선종성 용종 진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육류 섭취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인구의 증가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선종성 용종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양식 때문이다. 지방 섭취와 과음, 과체중, 흡연은 선종성 용종 발생률을 높인다. 반면 식이섬유, 채소, 탄수화물, 칼슘, 엽산, 비타민D의 섭취는 유병률을 감소시킨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40대 이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대부분의 선종성 용종은 내시경 검사 중에 제거할 수 있으며,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br/><br/><br/>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0.txt

제목: 사운드오브뮤직 배우 ‘과거와 현재’ 비교해보니  
날짜: 2015031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207340  
본문: 1965년에 개봉된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개봉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출연 배우들의 현재와 과거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br/>이 영화는 수녀가 되려 했던 젊은 여성 마리아 아우구스타 쿠체라가 자녀 7명을 홀로 키우는 아버지인 게오르크 폰 트랍 퇴역 해군대령의 집에 가정교사로 파견된 뒤 아이들과 나누는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br/>발랄하고 현명하며 어여쁜 외모를 자랑했던 가정교사 마리아 역의 줄리 앤드류스는 올해 79세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그녀가 부른 노래는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있다. 하지만 1997년 성대 수술을 받아 현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br/>당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일곱 아이들은 50~70대에 이르는 ‘어른’이 됐다. 첫째 ‘리즐’ 역의 차미언 카(72)는 현재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둘째 ‘프리드릭’ 역의 니콜라스 해몬드(64)는 70년대에 ‘스파이더 맨’ 주연을 맡는 등 인기가도를 달렸다.<br/>셋째 ‘루이사’ 역의 히터 멘지스(65)는 암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넷째 ‘커트’ 역의 두웨인 체이스(64)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전향했다. <br/>다섯째 딸인 ‘브리지타’역의 안젤라 카트위트(62)는 이후 배우이자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여섯째 ‘마타’ 역의 데비 터너(58)는 플로리스트로, 막내 킴 캐러스(56)도 히터 멘지스와 마찬가지로 재단을 만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br/>준수한 외모 또는 갈래머리의 귀여운 이미지를 자랑했던 이들은 모두 나잇살이 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다.<br/>이 영화가 1965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처음 상영됐을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미국에서만 4년이 넘게 연속 상영됐으며 이후 드라마 등으로 속편이 제작되기도 했다.<br/>제작사인 20세기 폭스는 50주년 기념판 DVD를 발매하고 다음달 에는 미국의 500여 극장에서 재개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부터는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미국 저녁에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도 열린다. <br/>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1.txt

제목: “폐암 전이 유발하는 유전자 찾아냈다”  
날짜: 2015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2304892  
본문: 　국내 의학자가 주도한 다국적 연구팀이 폐암 전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폐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표적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br/>　 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문용화(종양내과. 사진)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조지타운대학병원, 존슨홉킨슨대 연구진과 고동 연구를 통해 폐암의 전이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저명 국제 학술지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폐암은 2012년 기준 국내 암 발생 4위의 높은 발병률과 함께 암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악성도가 높다. 암세포의 모양에 따라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非)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의 80~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비소세포 폐암은 다시 선암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를 해야 하는 까다로운 질병 특성을 갖고 있다. <br/>　특히 폐암은 암세포가 주변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퍼지는 전이성이 다른 암에 비해 강하다. 이 때문에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55~80%가 진단 당시 암이 크게 자라있거나 전이가 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20~25%의 환자만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또 수술을 받더라도 20~50% 환자가 암이 발생한 반대쪽 폐나 간 및 뇌, 뼈 등으로 전이, 재발되기 때문에 폐암의 전이를 막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의료계의 중요한 과제였다. <br/>　이런 사실에 근거해 연구팀은 비소세포 폐암 중 높은 발생률을 차지하는 폐 선암에 대한 전이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른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비소세포 폐암 역시 전이과정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br/>　연구팀은 수년에 걸쳐 실험용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과 첨단 유전자 분석기법을 통해 찾아낸 ‘LAMC2’ 유전자가 폐 선암의 전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　이어 후속연구를 통해 폐 선암세포에서 LAMC2 유전자가 발현되어 ‘상피세포 간엽성 이행’이라는 복잡한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암세포의 ‘이동’과 장기 내부로 파고드는 ‘침윤’ 및 원격 장기로 암세포를 퍼뜨리는 ‘전이’를 촉진한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br/>　실제로, 연구팀이 연세암병원을 비롯한 국내외 4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폐선암 환자 479명의 암 조직에서 LAMC2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LAMC2의 발현도가 높은 환자군에서 암 재발과 전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냈다.<br/>　문용화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비소세포 폐암의 재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중요한 성과</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아울러 비소세포폐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표적치료제 개발의 계기를 제공해 대표적으로 난치성 암인 폐암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있는 성과</span>”라고 말했다. 문용화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비소세포 폐암의 전이와 재발에 관여하는 다른 유전자 요인의 규명 연구와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할 계획</span>”이라고 덧붙였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2.txt

제목: 대장암 치료 방해하는 새로운 유전자 찾아내  
날짜: 2015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2245132  
본문: 　대장암의 치료를 방해하고, 표적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아냈다.<br/>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혈액종양내과) 이근욱 교수팀은 미국 MD앤더슨 이주석 교수(사진)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YAP1’라는 유전자가 활성화하면 대장암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할 뿐 아니라 표적항암제의 치료효과도 떨어뜨린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 암 학술지인 ‘Clinical Cancer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br/>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호주·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 축적된 암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YAP1 유전자의 신호가 대장암 환자의 약 15 ~ 39%에서 발견됐다.<br/>　또 YAP1 유전자의 활성화가 완치적 수술을 받은 대장암 환자의 재발률을 높일 뿐 아니라, 암의 진행 정도가 비슷한 환자군에서도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YAP1 유전자는 ‘히포 시그널링 경로(Hippo Signaling Pathway)’라고 불리는 세포 증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세포의 증식과 사멸을 제어해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포 시그널링은 암세포와 종양의 증식에도 관여할 수 있어 암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전으로 평가받는다.<br/>　이 히포 시그널이 작동하면 YAP1 유전자가 활동할 수 없고, 반대로 히포 시그널이 작동하지 않으면 YAP1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활성화된 YAP1 유전자는 세포 내로 진입해 세포의 복제를 촉진한다.(그림 참조)<br/>　연구팀은 암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히포 시그널링 경로에 주목, 대장암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같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금까지는 대장암의 예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종양의 침투 정도(T), 림프절 침범 여부(N), 원격 전이 여부(M)를 평가하는 ‘TNM 병기’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YAP1 유전자의 활성 여부도 TNM 병기 판단에 함께 적용돼 대장암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　연구팀은 이와 함께 전이성 대장암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인 ‘세툭시맙(Cetuximab)’의 효능을 환자의 YAP1 유전자 활성화 여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규명했다.<br/>　실제로, 세툭시맙 단독요법을 시행할 경우 YAP1 유전자가 활성화된 환자의 대장암 종양은 축소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YAP1 유전자가 활성화된 경우 세툭시맙 요법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br/>　또 세툭시맙은 KRAS라는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KRAS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YAP1 유전자가 활성화된 경우 세툭시맙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새로운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br/>　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제1 저자) 교수는 “<span class='quot0'>종양 세포의 YAP1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대장암 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의 예후와 표적항암제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연구 성과</span>”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3.txt

제목: 여성, 비만이 되면 암 발병률 40% 높아져 -英 연구  
날짜: 2015031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2128431  
본문: 여성은 비만이 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40%나 높아진다고 영국 암연구소(CRUK)가 발표했다. 연구소가 언급한 암은 유방암·대장암·신장암·췌장암·자궁암·식도암·간암 등 7가지다.<br/>암연구소에 따르면 체중 관련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비만 여성(1000명 중 274명)이 일반 여성(1000명 중 194명)보다 많았다.<br/>여성의 암 발병 중 8.2%는 지방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 데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과잉 분비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영국 암연구소의 줄리 샤프 박사는 “<span class='quot0'>매일 운동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몸무게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일 당신이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은 높아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전보다 더 걷고 기름지고 설탕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등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br/>한편 영국에서는 매년 여성 1만 8000여 명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암이 발병하고 있다고 암연구소는 밝히고 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4.txt

제목: 떠돌이 된 여의사  
날짜: 20150317  
기자: 김민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1312388  
본문: 지난 15일 밤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학병원. 한 중년 여성이 각층을 돌아다니며 게시판이나 벽에 붙은 안내문과 공지사항 등 게시물을 닥치는 대로 떼어내 핸드백에 넣고 있었다. 가방에 다 넣지 못하자 손에 한 움큼 들고 다녔다. 병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여성을 일단 붙잡았다. 깔끔한 옷차림의 여성은 병원에서 챙겨온 전문의학용어가 포함된 영어 서류도 술술 읽었다. 하지만 경찰은 잠시 대화를 나눠 보고는 그의 심리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br/><br/>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경기 안산의 한 중형병원에서 건강검진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치과의사 이모(56)씨였다. 한때 개인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나름 ‘명의’로 입소문이 났던 이씨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7년 전. 지병을 앓던 남편을 떠나보낸 뒤 홀로 아들을 키우던 그는 유방암에 걸렸다. 절제 수술을 받고 암을 이겨냈지만 우울증이 찾아왔다. 점점 증세가 심해졌다. 급기야 도청을 당한다고도 하고,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시나브로 병원 운영에 소홀해졌고, 파산했다. 생계를 위해 ‘월급의사’로 중형병원에 취직했지만 오래 버텨내지는 못했다. 병원을 그만둔 뒤 이리저리 떠돌던 그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산의 언니집에 들렀다가 종적을 감췄다.<br/><br/>이씨가 서울대병원을 돌아다니며 모은 인쇄물은 100장이 넘었다. A4 용지부터 전지 크기까지 다양했다. ‘왜 그랬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이씨는 “<span class='quot0'>그냥 모든 것을 읽어 보고 싶었다</span>”고 답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1시쯤 서산에 있는 이씨의 언니와 동생에게 연락했지만 당장은 데려가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혜화경찰서 관내 파출소에서 밤을 보낸 뒤 오전 8시쯤 여동생과 함께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남편이 살아 있거나 병원이 멀쩡했다면 가족들이 저렇게 대하겠느냐</span>”며 안타까워했다.<br/><br/>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br/><br/>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5.txt

제목: [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해고 걱정 없이 일하고 싶은데… 하청 준 서울시 관리책임 없나”  
날짜: 20150317  
기자: 이성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1301052  
본문: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청소노동자 9명이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도 36일이 지났다. 농성 현장을 오가는 김영일(44)씨는 지금도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투쟁’, ‘농성’, ‘파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안전한 곳에서 해고 걱정 없이 일하고 싶다는 소망뿐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상고를 졸업한 김씨는 22세 때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김씨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다. 공장에도 취업해보고, 막노동도 해봤지만, 돈을 모으기는 어려웠다. <br/><br/>그래서 운전을 시작했다.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을 1.5t 트럭에 실어 공사 현장에 배달하는 일부터 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면서 2주에 한 번 쉬었다. 그렇게 한 달에 120만원씩 벌었다.<br/><br/>그럭저럭 생계를 이을 순 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다.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2010년 대한통운에 취직했다. 도봉구의 물류창고에서 짐을 부려 대전까지 배송하는 일을 맡았다. 오후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에 퇴근했고, 월 280만~30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대한통운이 CJ GLS와 통합되면서 김씨는 정리해고 대상이 됐다.<br/><br/>새 직장을 구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을 청소하는 용역업체(에버가드)에 취직했다. 실질적인 원청에 해당하는 서울시가 버스정류장 시설물 설치·관리(하청)를 맡긴 JC데코라는 업체의 재하청 업체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 일하면 되기 때문에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입사 때 관리자를 제안받았지만,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청소부터 시작했다. 3개월만 체험해 보겠다고 시작한 일이 그에게는 ‘늪’이 됐다.<br/><br/>정류장 청소는 오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7시에 끝난다. 2인 1조로 하루 12곳의 정류장을 청소했다. 이동시간(10~15분)까지 포함하면 빠듯했다. 업무량은 너무 많았고, 김씨와 동료들은 크고 작은 부상과 감기몸살에 시달렸다. 정류장 지붕을 청소할 때는 안전장비 하나 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음주 및 과속차량의 위협에도 무방비로 노출됐다.<br/><br/>육체적 고통보다 힘든 건 ‘훈련소 조교’ 뺨치는 관리자들의 행태였다. 김씨는 아직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했다. 동료들이 정류장 청소를 마치고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하면 관리자들이 뒤따라와 청소 상태를 점검했다. 하얀 면장갑을 끼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정류장 틈새마다 손을 집어넣어 문질렀고, 먼지가 나오면 어김없이 다시 청소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씨와 동료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만 했다.<br/><br/>참다못한 김씨와 동료들은 지난해 4월 사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지나친 감시를 자제해달라는 것. 돌아온 건 보복뿐이었다. 5월부터 하루 청소량이 정류장 15곳으로 늘었고, 앞장서 민원을 제기한 동료 세 명은 집중 감시에 시달렸다. 결국 청소노동자들은 7월 말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버스중앙차로분회를 결성했다.<br/><br/>노사의 대립은 이어졌다. 노조는 7월말 과중한 작업량 등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10월에는 23명을 해고했다. 서울시의회의 도움으로 잠시 복직했다. JC데코의 위임을 받은 에버가드는 고용 승계와 임금 인상, 과도한 업무량 조정 등을 포함한 협약을 노조 측과 맺었다. 하지만 JC데코는 12월 말 에버가드와 도급계약이 끝나자 전격적으로 D사 등 세 곳과 계약을 맺었다. 김씨 등은 D사 소속으로 고용승계가 됐지만, 거기까지였다.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에버가드와 맺었던 협약은 무효라고 통보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요구하기도 했다.<br/><br/>이 과정에서 동료 최모씨가 지난해 12월 마포구의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와 신병비관 탓에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동료는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졌다. 노조 측은 백혈병 발병이 청소과정에서 사용하는 ‘세정액’과 무관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겨울에 세제가 얼지 않도록 넣는 첨가물에 메탄올 성분이 포함돼 암을 유발했다는 것. 노조 측은 세정제의 위험성을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지만, 올 1월에야 세정액은 전량 회수됐다.<br/><br/>김씨를 비롯한 동료들의 요구는 JC데코에서 직접고용을 하고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 서울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는 것뿐이다. 근본적으로는 버스중앙차로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2003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JC데코가 맺은 일련의 협약서가 작성된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을 규명하라는 것이다. 협약서에서 서울시는 JC데코 측의 재하청을 용인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버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리성보다는 JC데코 측의 광고독점권을 보장하는 데 급급했던 계약이라고 비판했다.<br/><br/>“현재 서울시는 당시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은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김씨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br/><b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6.txt

제목: 암세포만 공격…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란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1240351  
본문: 일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박사가 ‘다가(多價)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을 발표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br/><br/>국내 기업으로 아베종양내과와 공동으로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에 따르면, 아베 박사는 일본 국제개별화의료학회를 통해 수 차례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수지상세포학회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면역치료 백신학회에서도 발표하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br/><br/>아베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표준치료와 병행한 환자 74.4%에서 치료 효과가 있었다. 또한 표준치료를 할 수 없는 전이·재발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한 결과는, 진행성 폐암환자 22명 중 15명에서 효과가 나타났으며 진행성 대장암환자 32명 중 19명, 진행성 췌장암 환자 42명 중 18명에게서 암 치료 효과를 얻었다.<br/><br/>인체 내 암세포가 발생하면 이를 발견하고 살상하는 항암기능이 작용하는데, 이때 암세포 살상은 킬러T세포가 담당한다. 그런데 킬러T세포는 면역세포의 사령관인 수지상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수지상세포는 암의 표시인 항원을 기억해 림프절로 이동함으로써 킬러T세포에게 항원의 정보를 전달하여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이다. <br/><br/>인체의 면역 체계는 가장 뛰어난 암 치료제이며, 아베 박사가 말하는 암 면역치료의 핵심은 수지상세포에 있다. 수지상세포는 림프계와 코, 폐, 장기 등에 소량 존재하는데, 전체 면역세포의 1% 이하, 정맥혈액의 0.1% 미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소량채혈로 수지상세포 치료를 할 수 없어 2~3시간에 걸친 긴 채혈과정을 거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베 박사는 지적했다. <br/><br/>아베 박사는 “<span class='quot0'>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수지상세포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지만, 기존 치료는 1~2종류 펩타이드만 사용됐고 WT-1도 단쇄 펩타이드 일부만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결합된 항원이 떨어지고 세포를 동결보관 후 사용하거나 정맥으로 투여해 치료효과가 낮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아베 박사는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한 것이 아베종양내과의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라고 발표했다. 의료법인 박심후생회의 아베종양내과는 2002년부터 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암을 치료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수지상세포 백신제조법에 대한 특허권(특허제5577472호)을 취득한 바 있다.<br/><br/>아베 박사는 “<span class='quot0'>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약 25ml의 소량채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후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암항원)를 4~5개 추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span>”고 전했다. <br/><br/>이때 사용하는 펩타이드는 장쇄(長鎖)라 항암 작용기간이 6개월 정도로 길고, 써바이빈을 비롯해 MAGE-A3, NY-ESO-1, GV1001, NEW WT-1, MUC1, CEA, CA125 등 다양하다. 치료는 2주에 1번씩 총 6회(1싸이클)로 진행됐으며, 효과판정은 혈액검사와 영상진단으로 판단했으며 킬러T세포와 헬퍼T세포 활성도는 인터페론-감마와 IL-4활성도로 확인했다. <br/><br/>암세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환자의 암세포라 해도 표면에 제시되는 항원이 다르다. 암세포의 이런 다양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원에 일치되는 킬러T세포와 이를 지원하는 헬퍼T세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박사의 설명이다. <br/><br/>그는 또,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span class='quot0'>킬러T세포와 헬러T세포가 활성화되고 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메모리T세포도 활성화되어 치료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선진바이오텍 양동근 대표에 따르면 아베 박사는 오는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제20회 국제개별화 의료학회를 통해 임상치료결과를 추가 발표하게 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7.txt

제목: [명인·명물을 찾아서] 한라산 아름다움 거울처럼 담았네  
날짜: 20150316  
기자: 황경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20704551  
본문: 큰 한라산, 작은 한라산, 제주에는 한라산이 두 개 있다.<br/><br/>하나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과 생물권 보존지역에 빛나는 큰 한라산이고 또 하나는 10년에 걸쳐 끈질기게 복원한 작은 한라산 한라생태숲이다. 1950m 한라산에 오르지 않아도 한라산를 느낄 수 있는 곳.<br/><br/>한라산 중산간 제주시 용강동 일대에 조성된 한라생태숲은 과거 소, 말 등 가축 방목 목장으로 이용되면서 훼손돼 가시덤불만 무성하던 황무지 국유림을 10년(2000~2009)에 걸쳐 원래의 숲으로 복원했다. 거짓말처럼 한라산 북쪽사면 해발 500~900m에 196㏊ 규모의 거대한 생태숲이 옛 모습대로 복원됐다. 저지대의 난대성 식물에서부터 한라산 고지대의 한대성 식물까지 한곳에서 볼 수 있어 제주 생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br/><br/>한라생태숲은 구상나무 숲 등 13개 테마숲에 300여종 28만 80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생태숲 내 자생하는 수종은 780여종에 이른다.<br/><br/>생태숲을 한 바퀴 돌아보는 숫모르 숲길은 한라생태숲의 백미다. 숫모르란 ‘숯을 굽는 동산’이란 한라생태숲 일대의 옛 지명이다. 지금은 과거의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숲길을 걷다 보면 숯을 굽던 옛 숲 속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br/><br/>봄이면 겨우내 쌓인 눈을 녹이며 피어나는 세복수초를 시작으로 현호색, 새끼노루귀 등 작고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난다. 여름에는 푸른 나무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시원스럽고 가을이면 울창했던 숲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겨울에는 그림 같은 멋진 설경이 펼쳐진다. 한라생태숲을 휘돌아가는 숫모르 숲길코스(4.2㎞)와 숲길 2.4㎞ 지점에 절물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지는 숫모르 편백 숲길(8㎞)이 있다. 숫모르 숲길에서는 사계절 오름(기생화산) 트레킹과 산림욕에 흠뻑 젖어볼 수 있다.<br/><br/>테마숲인 참꽃나무 숲은 제주 특산식물인 참꽃나무를 비롯한 29종 4600여 그루의 목본류와 좀비, 비추 등 4종 3700여 포기의 초본류가 자라고 있다. 참꽃나무는 계곡바위 틈, 돌밭 그늘진 곳에서도 꽃은 피워내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척박한 화산섬 자갈밭을 일구며 살아왔던 제주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다.<br/><br/>구상나무 숲에는 구상나무를 비롯해 주목, 눈향나무 등 12종 3300여 그루의 목본류와 쑥부쟁이, 한라구절초 등 5종 4000여 포기의 초본류가 자라고 있다. ‘살아 100년, 죽어 100년’이란 구상나무는 죽은 후에도 또 다른 장관을 보여준다. 한라산을 비롯해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일부 고산지대에 자생하고 있는 한국 특산식물로 현재 국제 보호종이다.<br/><br/>단풍나무 숲에는 곰솔을 배경으로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키가 큰 나무와 붉나무, 사람주나무, 작살나무 등 키 작은 나무가 공생하고 있다.<br/><br/>매년 가을이면 이들은 형형색색 각각의 매력을 발산, 작은 한라산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벚나무 숲에는 왕벚나무, 산벚나무, 올벚나무 등 제주도에 자생하는 여러 종류의 벚나무들이 모여 있다. 봄이면 시기를 달리해 연이어 피는 벚꽃들이 꽃비를 흩날리는 모습을 즐길 수 있다.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은 생태숲 주변은 제주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 중인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가 있다. 왕벚나무는 세계적으로 제주에만 자생한다.<br/><br/>산열매나무 숲은 꾸지뽕나무, 산딸나무, 보리수나무의 열매와 이를 찾아오는 조류, 곤충 등을 관찰할 수 있고 양치식물원에는 개톱날 고사리, 검정 개관중, 밤일엽 등 70여종의 양치식물류가 전시돼 있다. 제주는 국내 350여종의 양치식물 중 70％인 250여종이 자생해 양치식물 천국으로 불린다.<br/><br/>야생난원에는 새우난초, 약난초, 보춘화, 자란 등 3만여 포기의 야생난이 자라고 있다. 국내 야생난 80여종 가운데 70여종이 제주에 자생하고 있다. 지피식물원에는 좀비비추, 한라돌쩌귀, 노루오줌 등이, 유전자보존림에는 사라지고 있는 구상나무, 왕벚나무, 황칠나무 등이 자란다. 수생식물원은 옛 연못을 재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물장군, 순채, 삼백초, 전주물꼬리풀 등 190여종의 수생식물을 만날 수 있다.<br/><br/>꽃나무 숲에는 제주의 향토수종 가운데 꽃이 아름다운 산딸나무, 이팝나무, 때죽나무 등을 심어 놓았다. 산딸나무는 봄에 흰 눈이 내린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이팝나무는 하얀 종이를 잘라 놓은 듯하다. 때죽나무는 수백개의 종을 달아 놓은 것 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한다.<br/><br/>암석원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천연 원시림인 곶자왈을 연출해 놓아 고산식물 및 희귀, 특산식물을 만날 수 있다. 1전시원은 한라산의 건조한 능선에 자생하는 식물, 2전시원은 한라산 해발 1100m 습지식물, 3전시원은 한라산 해발 1700m의 선작지왓에 자라는 식물, 4전시원은 저지대의 곶자왈 식물을 심어 놨다. 목렴총림에는 목련, 백목련, 자목련, 별목련, 함박꽃나무 등이 봄이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목련과 함박꽃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한다. 제주에서 목련은 목남, 산목련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한라산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 희귀 식물이다.<br/><br/>천연림을 활용한 생태숲 산림욕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숲이 주는 선물, 피톤치드에 몸을 맡길 수 있다. 사랑나무인 연리목도 있다. 원형광장에서 혼효림을 지나 숫모르 숲길 입구 쪽으로 가다 보면 고로쇠나무와 때죽나무가 서로 한몸이 돼 있는 연리목을 볼 수 있다. 수령 100년의 고로쇠나무와 때죽나무가 지상에서 1.5m 이상 살을 맞대고 자라고 있다.<br/><br/>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 전문 숲 해설가가 동행하는 일반인 대상 숲체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절기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에는 오전 9시~오후 5시 개장한다. 숯모르 편백숲길은 오전 9시~오후 3시다.<br/><br/>한라생태숲 김권수 녹지연구사는 “숲이 복원되면서 멸종위기인 애기뿔소똥구리와 팔색조 등 희귀 곤충과 새들이 찾아왔고 한라산 상징인 노루도 서식하고 있다”며 “바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와 여유로움이 가득한 숲의 매력에 푹 빠져 볼 수 있다”고 말했다.<br/><br/>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8.txt

제목: ‘과다섭취’하면 오히려 나쁜 건강식품 6가지  
날짜: 2015031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943227  
본문: 열량(칼로리)이 높거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알려진 식품 중에서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음은 미국 CNN 방송과 폭스 뉴스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소개됐던 것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br/>1. 시금치=영양학적으로 뛰어나며 잎이 많은 채소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해도 좋은 시금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실은 옥살산도 포함한다.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옥살산 칼슘되고 결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석이라고 하면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무서운 질병. 결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의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br/>2. 콩=한국인 대부분이 자주 먹는 콩과 이를 가공한 두부는 이제 세계적인 건강식품을 대표한다. 그 원료가 되는 콩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또한 대두 아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유사해 콩의 다량 섭취는 자궁암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콩 섭취에 관한 표준 권장 섭취량은 정해져 있지않지만 하루 2인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br/>3. 저지방 고기=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분​​이라면 건강하다고 알려졌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비계가 붙은 고기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지방이 없는 부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기는 역시 고기일 뿐인 듯하다. 세계적 학술지 셀(Cell)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동물 단백질은 인슐린과 같은 성장인자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암 세포를 증식시키거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br/>4. 참치통조림=고기보다 생선이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참치 샌드위치’, ‘참치 샐러드’ 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참치는 좋은 단백질원이지만, 몸에 해로운 수은을 포함한다. 참치로 불리는 다랑어뿐만 아니라 새치류도 마찬가지로, 미국 마운트시나이 병원 지나 샘 박사는 “<span class='quot0'>참치캔 소비는 많아도 주당 3~5캔 이내로 권장한다</span>”고 말했다.<br/>5. 견과류=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한 견과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등 장점이 있으며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열량가 높은 것.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하루에 한 줌 이내'가 이상적이다.<br/>6. 오렌지=새콤달콤함이 특징인 오렌지에 포함된 산은 식도를 자극하고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한다. 그것이 역류성 식도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위식도역류는 가슴이나 불편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오렌지뿐만 아니라 토마토 등의 산성 식품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09.txt

제목: 호스피스 병원 5곳 중 1곳 법적기준 미달  
날짜: 20150313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5625297  
본문: 말기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21.4%가 법에 명시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2곳이 전용병상이나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등 필수 시설·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하는 대신 통증 완화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의료활동을 말한다.<br/><br/><br/>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필수 시설을 호스피스 병동 외부에 두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거나 남녀 병실을 구분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호스피스 병동은 조용히 임종을 준비하려는 환자가 입원하는 만큼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다.<br/><br/><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남녀 병실을 구분하면 간호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감소할까봐 시설을 잘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span>”고 말했다.<br/><br/><br/>이 의료기관들에는 2200만원 이상의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 미달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br/><br/><br/>복지부는 호스피스 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br/><br/><br/>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20%로 높이기 위해 2013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일반 병동의 말기암 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팀제 도입,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법제화 등 핵심 대책은 아직 준비 단계다.<br/><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0.txt

제목: “유방암 생존율 높이려면 치료 후 정기검진 필수”  
날짜: 2015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5230756  
본문: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연희 교수팀(이지윤 임상강사)은 2000~2008년 사이에 1~3기 유방암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은 환자 3770명의 10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br/>　조사 결과, 10년 누적 사망률은 유방암 치료 후 5년간 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그룹(470명)이 25.4%였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정기검진을 받은 환자그룹(3300명)은 이 비율이 8.8%로 낮았다.<br/>　검진그룹은 수술 등 1차 치료가 끝난 뒤 첫 5년간 3~6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각종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 및 치료순응도 등을 체크했다.<br/>　연구팀은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상태를 체크한 환자(검진그룹)의 경우 사망위험을 70%나 낮출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비검진그룹)는 10년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높았다”고 분석했다.<br/>　단, 연구팀은 병원을 자주 찾는다고 해서 유방암의 재발률 자체가 줄어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검진그룹의 재발률이 10.6%, 비검진그룹이 16.4%로 집계됐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br/>　박연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치료 후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 본인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챙기기 어려운 환자들이 더러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같은 암이라도 정기검진을 하면 재발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장기 생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모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암학회지 최근호에 발표됐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1.txt

제목: ‘개 코’로 병 진단...소변으로 갑상선암 88% 판별  
날짜: 20150310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828209  
본문: 특수하게 훈련된 개가 환자의 오줌 냄새만으로 갑상선암을 88%까지 판별하는 능력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미국 아칸소대학 의과대 연구팀은 최근 독일산 셰퍼드 개를 특수하게 훈련시킨 결과, 환자의 오줌 냄새만으로 갑상선암을 88%까지 판별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br/>'프랭키'라는 이름의 이 셰퍼드는 34명의 갑상선암 환자 가운데 30명의 환자를 정확하게 판별해 냈다. 프랭키는 환자의 오줌 샘플 냄새를 맡은 다음 갑상선암 환자인 경우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고 환자가 아닌 경우는 그냥 돌아서는 방식으로 판별했다.<br/>이번 실험을 이끈 아칸소대 내분비 종양학과 도널드 보드너 책임자는 "개의 후각 능력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발달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더욱 이러한 진단 기법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br/>일반적으로 사람의 코에는 500만 개의 후각 수용체(olfactory receptors)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개의 코에는 약 2억2000만 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가 있어 탁월한 냄새 탐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갑상선암은 목에 위치한 갑상선에서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생기는 암으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6만2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대부분이 거의 여성이다.<br/>사진=갑상선암 판별 훈련을 받은 특수견과 같은 종류의 독일산 셰퍼드 (자료 사진)<br/>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2.txt

제목: 인간은 엄마보다 아빠를 유전적으로 더 닮아  
날짜: 20150310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820696  
본문: 부모의 유전자를 ‘공평하게’ 물려받은 자녀를 보거나 자신 스스로를 부모님과 비교해봤을 때, 유독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해외 연구진은 인간에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많이 닮을 수밖에 없는 유전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r/>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은 부모에게서 동일한 양의 유전적 돌연변이 형태를 물려받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유전적 돌연변이는 개개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더 많이 사용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에는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도 포함돼 있다.<br/>연구진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3종(種)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br/>이들 쥐 3마리와 또 다른 다양한 대륙에서 진화한 변종 쥐를 교배한 결과, 이들은 각기 다른 유전적 특성 9가지를 가진 새끼를 낳았다. 이 새끼 쥐가 성체가 된 뒤 DNA검사를 실시했고, 어미쥐와 생물학적 부(父)에 해당하는 수컷 쥐가 가진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를 구분해 수량화 했다.<br/>그 결과 수컷 쥐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어미 쥐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어미 쥐로부터 질병 등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을 경우, 아버지 쥐로부터 같은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보다 덜 심각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예컨대 어머니로부터 당뇨 유전자를 물려받은 A와 아버지로부터 당뇨 유전자를 물려받은 B를 비교한다면, B가 A보다 더욱 심각한 당뇨를 앓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br/>연구를 이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페르난도 파도-마누엘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이 유전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닮는다는 것을 최초로 입증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자연유전학저널‘(Journal Nature Genetics) 최신호에 실렸다. <br/>　<br/>사진=포토리아<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3.txt

제목: 완전 채식보다 생선 곁들이면 대장암 위험 더 줄어  
날짜: 20150310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812355  
본문: 완전 채식만 하는 것보다 생선을 곁들여 먹는 것이 ‘대장암’ 위험을 20% 더 줄인 총 43%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장암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일반적인 암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발병률이 높다.<br/>미국 로마린다대 마이클 오클리치 박사팀이 성인 남녀 7만 7659명을 대상으로 평균 7.3년에 걸쳐 식습관과 대장암 사이의 관계를 조사·분석해 위와 같은 연관성을 밝혀냈다.<br/>조사대상자 절반은 최소 매주 한 번 이상 육식을 즐기는 비채식자이고 나머지는 부분이나 완전 채식주의자들이다.<br/>연구팀은 부분이나 완전 채식주의자들을 육류 섭취가 일주일에 한 번 이하인 준채식 그룹과 생선과 해산물을 먹되 기타 모든 육류를 피하는 페스코 채식, 육류는 피하되 달걀이나 유제품을 먹는 락토-오보 채식 그룹, 모든 육류와 달걀, 유제품을 먹지 않는 완전 채식 그룹으로 나눴다.<br/>우선, 모든 형태의 채식 그룹은 비채식 그룹보다 대장암(결장암과 직장암) 발생률이 평균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하면, 결장암 발생률은 19%, 직장암 발생률은 29% 낮았다.<br/>채식 그룹 중에서는 페스코 채식 그룹이 대장암 위험이 가장 낮았다. 즉 채식에 생선을 곁들여 먹는 경우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 이들은 일반적인 비채식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무려 43%나 적었다.<br/>락토-오보 채식 그룹과 완전 채식 그룹은 비채식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각각 18%, 16% 낮았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는 준채식 그룹도 8% 낮았다.<br/>조사 기간에는 380명이 결장암, 110명이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br/>오클리치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결과는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붉은고기 특히 가공육 소비와 종종 연관짓는 기존 증거와 같은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붉은고기 섭취를 줄여 채식을 늘리는 것이 암 위험 감소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다양한 채식 방법이 이런 감소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학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최신호(3월9일자)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4.txt

제목: 박종완·이명식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3834992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9일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박종완(왼쪽·54)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임상의학부문에 이명식(오른쪽·59)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혔고, 이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40) 연세의대 교수와 박정열(41)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5.txt

제목: “환자 오줌 냄새만으로 갑상선암 판별 ‘특수견’” 화제  
날짜: 20150309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734759  
본문: 특수하게 훈련된 개가 환자의 오줌 냄새만으로 갑상선암을 88%까지 판별하는 능력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미국 아칸소대학 의과대 연구팀은 최근 독일산 셰퍼드 개를 특수하게 훈련시킨 결과, 환자의 오줌 냄새만으로 갑상선암을 88%까지 판별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br/>'프랭키'라는 이름의 이 셰퍼드는 34명의 갑상선암 환자 가운데 30명의 환자를 정확하게 판별해 냈다. 프랭키는 환자의 오줌 샘플 냄새를 맡은 다음 갑상선암 환자인 경우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고 환자가 아닌 경우는 그냥 돌아서는 방식으로 판별했다.<br/>이번 실험을 이끈 아칸소대 내분비 종양학과 도널드 보드너 책임자는 "개의 후각 능력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발달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더욱 이러한 진단 기법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br/>일반적으로 사람의 코에는 500만 개의 후각 수용체(olfactory receptors)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개의 코에는 약 2억2000만 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가 있어 탁월한 냄새 탐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갑상선암은 목에 위치한 갑상선에서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생기는 암으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6만2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대부분이 거의 여성이다.<br/>사진=갑상선암 판별 훈련을 받은 특수견과 같은 종류의 독일산 셰퍼드 (자료 사진)<br/>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6.txt

제목: 제8회 아산의학상 박종완·이명식 교수 등 선정  
날짜: 2015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3403343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제정한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 서울대의대 교수(기초의학 부문)와 이명식 성균관의대 교수(임상의학 부문)가 선정됐다.<br/>　또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김형범 연세대의대 교수와 복강경 수술의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 구축에 기여한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젊은 의학자상 수상자로 뽑혔다.(사진 참조)<br/>　아산사회복지 재단은 “<span class='quot0'>기초의학 부문 수상자인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업적을 높이 평가했고,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인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를 통해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span>”고 배경을 설명했다. <br/>　기초·임상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 3억원의 상금이,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 5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br/>　아산의학상은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2007년 제정,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br/>　　<br/><br/>심재억 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7.txt

제목: [식품첨가물 알고 먹자] (9)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  
날짜: 20150309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3142499  
본문: 식품을 살 때 원재료명을 꼼꼼하게 확인해 몸에 이롭지 않은 첨가물 섭취를 피한다 해도 조리를 잘못하면 첨가물보다 더 나쁜 발암물질을 먹게 될 수 있다.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벤조피렌도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르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식품 속 벤조피렌은 주로 육류 등의 식품이 불꽃에 직접 닿아 타거나 검게 그을린 부위에 생기는데 잔류 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다. <br/><br/><br/><br/>직화구이 외에도 굽기, 튀기기, 볶기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에서 잘 생긴다. 또 식용유가 들어간 식품을 건조하려고 열처리하는 과정이나 식품 중 기름 성분을 짜내려고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생길 수 있다. <br/><br/>그래서 식용유·정제 올리브유·해바라기유·참기름·들기름 등의 식용 유지류, 땅콩·아몬드 등의 볶음 견과류, 훈제 치킨, 훈제 소시지, 훈제 햄 등의 훈제 식품, 돼지고기나 소고기 숯불구이를 먹을 때는 벤조피렌이 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br/><br/>조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식품도 예외는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콜타르, 자동차 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 연기 등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 토양 등이 벤조피렌에 오염돼 농산물이나 어패류로 옮겨 갈 수 있다.<br/><br/>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그만큼 전 세계가 벤조피렌의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벤조피렌에 단기간 다량으로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장기간 노출되면 생식 기능이 저하되며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br/><br/>가공식품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벤조피렌에 노출되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고기를 구울 때 불판을 충분히 가열한 후 고기를 올려 굽고, 숯불 가까이에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탄 부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br/><br/>육류나 생선을 구울 때는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라는 발암가능물질도 생성된다. 10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조리 온도를 200도에서 250도로 올리면 3배나 많이 생긴다. <br/><br/>헤테로사이클릭아민을 최소화하려면 센 불보다는 150~160도의 중불로 조리하고, 고온에서 조리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게 좋다. 조리 전 전자레인지에서 1~2분 정도 데워 육즙을 제거하고 가열하면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양파, 마늘 등 황화합물이 들어 있는 향신료와 연잎, 올리브잎, 복분자 과육 등 항산화물이 든 소스를 첨가하면 헤테로사이클릭아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br/><br/>감자나 시리얼 같은 전분이 많은 음식에는 IARC가 ‘발암우려물질’로 규정한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 식품에 든 아스파라긴과 당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생긴다. <br/><br/>주로 감자나 곡류를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할 때 급속도로 생성되며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이 더 늘어난다. 프렌치프라이, 포테이토칩, 감자스낵류, 시리얼, 빵, 건빵, 비스킷 등에 많이 들어 있다.<br/><br/>아크릴아마이드를 피하려면 튀김 온도는 160도, 오븐 온도는 200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 조리해야 한다. 감자는 될수록 장기간 냉장 보관하지 말고 8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둔다. 튀김 요리를 할 때 감자를 식초물에 15분간 담갔다 빼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일 수 있다. 식초물은 물과 식초를 1대1의 비율로 배합해 만든다. <br/><br/>어떤 조리법이든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을 12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끓이면 일반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지 않는다.<br/><br/>발암 가능성이 있는 퓨란 역시 식품을 가열할 때 생성된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조리 과정에서 식품이 갈색으로 변할 때 생기는 중간반응물이다. 휘발성이 강해 가열하면 대부분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만 캔이나 병 포장 식품 속 퓨란은 밀폐용기 내에 남아 있기도 한다. 그래서 주로 밀봉된 채로 가열하는 수프, 소스, 유아용 이유식, 콩 등의 포장 식품에서 발견된다.<br/><br/>퓨란을 줄이려면 조리 전 캔 뚜껑을 수 분간 열어둔다. 퓨란은 휘발성이 강해 뚜껑이 열리면 쉽게 증발한다. 또 될 수 있으면 캔이나 병 포장 식품 섭취를 삼가고 식이섬유가 많이 든 곡류, 과일, 채소 등 신선한 식품을 먹는 게 좋다.<br/><br/>단백질 속 아민이 주로 햄에 들어가는 발색제 아질산나트륨과 결합해 생성되는 발암물질 니트로사민도 위험하다. 니트로사민 섭취를 줄이려면 햄이나 명란젓 등은 가급적 피하고 니트로사민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C나 비타민E가 많이 함유된 채소, 과일, 각종 식물성 기름, 콩류, 소나 돼지의 간 등을 먹는다.<br/><br/>단백질 식품을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제닉아민도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바이오제닉아민은 단백질이나 유리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발효될 때 생긴다. 특히 치즈와 낙농 제품, 된장·간장 등의 대두 발효식품, 발효 육류 제품, 포도주와 맥주, 멸치젓갈 등 발효 어류 생산품은 제조 과정에 많은 미생물이 관여해 바이오제닉아민이 들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br/><br/>바이오제닉아민은 다른 발암물질처럼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는 바이오제닉아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먹어도 괜찮다. <br/><br/>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소량 섭취했더라도 분해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해로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호흡 곤란, 발열, 홍조, 발한, 심장 두근거림, 두통, 구강작열통, 설사, 경련, 홍반, 혈압 상승 및 강하, 두드러기 등이 생길 수 있다.<br/><br/>식약처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시판되고 있는 젓갈, 액젓, 식혜, 김치, 장류, 전통주의 경우 대부분의 발효 식품에서 바이오제닉아민이 미량 검출됐으나 대체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8.txt

제목: 불황과 같이 컸나… 사기 범죄 5년새 17% 늘었다  
날짜: 20150309  
기자: 이성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3101255  
본문: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홍보관’에 할머니들이 모여들었다. 무료로 생활용품을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혹시나”하며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들을 기다린 건 사기범의 현란한 상술이었다. 유통업자 장모(37)씨는 ㎏당 1만원에 불과한 말굽버섯을 암과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6배 이상 ‘뻥튀기’하고, 원가 50만원짜리 정수기를 150만원에 팔았다. 지난해 10월까지 장씨의 사기극에 농락당한 노인이 300여명에 이른다.<br/><br/><br/>벌써 몇년째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최근 5년동안 사기 범죄가 1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23만 8643건으로 2010년의 20만 3799건에 비해 17.1% 증가했다. 총 범죄 발생 건수가 같은 기간 소폭 감소했기 때문에 총 범죄 대비 사기 범죄 비율도 2010년 11.4%에서 지난해 13.4%로 2%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br/><br/><br/>특히 노인 대상 사기는 지난해 2만 2700건으로 2010년 1만 7622건보다 28.8%(5078건)나 뛰었다. 보이스피싱도 지난해 7635건으로 전년(4765건)보다 60.2% 급증했다.<br/><br/><br/>경찰은 사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화금융 사기는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고, 중소상공인 및 노인 대상 사기는 각 경찰서 경제팀·지능팀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도주한 사기범이나 즉시 체포할 필요가 있는 악성 사기범을 붙잡기 위해 별도 추적팀을 꾸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히 사건 접수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 방안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b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19.txt

제목: 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시한부 환자의 꿈, 현실로…  
날짜: 20150307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708854  
본문: “<span class='quot0'>당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립니다.</span>”<br/>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떤 소원을 빌겠는가. 네덜란드의 소원성취재단 앰뷸런스 위스 파운데이션(Ambulance Wish Foundation)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체다.<br/>이 단체가 유명해 진 것은 동물원에서 평생을 보낸 사육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사연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오랫동안 동물원 청소를 담당했던 이 남성은 말기 암 투병 중 더 이상 호전이 어렵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들은 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기린들이 모여있는 동물원 우리 앞을 찾았다. 그때 기린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하듯 가까이 다가섰고, 당시 사진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뭉클한 감동을 줬다.<br/>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앰뷸런스 위스 파운데이션이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됐다.<br/>한 할머니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 라이오넬 리치를 만나고 싶어했고, 재단 측은 암스테르담에서 공연을 마친 리치를 그녀의 구급차로 데려와 만남을 성사시켰다.<br/>또 다른 시한부 여성의 마지막 소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손녀딸을 보는 것이었다. 재단 측은 그녀를 딸이 다니는 병원으로 직접 모셨고, 현장에서 초음파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br/>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모두 거창한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아할 정도로 평범한 소원을 기도한 사람도 있다. 역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남성이 마지막으로 원한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 가는 것이었다.<br/>유명한 식당의 생선요리를 원한 사람도 있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멋지고 럭셔리한 스포츠카를 보고 싶어한 사람도 있다. 축구 광팬이었던 한 남성은 침대에 누운 채 편안하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보기도 했다.<br/>자신처럼 병으로 누워있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 암 말기 노인, 자신에게 남지 않은 마지막 며칠을 고향 폴란드로 돌아가 남편, 갓난아기와 보내겠다고 한 27세 여성, 먼 바다를 항해하고 싶다고 말한 암 환자 등의 얼굴에는 세상 어디에도 보기 힘든 행복이 깃들어 있다. <br/>시한부 환자들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뜻 깊고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0.txt

제목: [인사]  
날짜: 2015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2435924  
본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산업실장 유의동△산업기획팀장 이상철<br/><br/><br/>■한전원자력연료 ◇상임이사△생산본부장 김선두<br/><br/><br/>■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동훈<br/><br/><br/>■차의과학대 ◇부총장△교학 문창진△의무 지훈상△행정대외(교양교육원장 겸임) 서재원◇대학원장△일반 김세종△의학전문 신동은△통합의학 최중언△보건복지 문병우△미술치료 김선현△임상약학 최경업◇대학장△간호 임지영△건강과학 정우식△생명과학 백광현△융합과학 김주헌◇처장△기획 정광회△교무 김진경△학생 강형곤△입학 김재환△연구(산학협력단장 겸임) 강상진△사무 김효승◇실·관·원장△전산정보실 윤호△도서관 김은혜△생활관 이성기△글로벌경영연구원 신은경<br/><br/><br/>■연세대의료원 ◇의료원△용인세브란스병원장 박진오△재활병원장 신지철△심혈관계질환유전체연구센터소장 장양수◇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이상규△보건정책학과 정우진△국제보건학과 전병율△역학건강증진학과(역학전공지도교수 겸임) 지선하△보건통계학과(보건정보관리전공지도교수 겸임) 남정모△산업환경보건학과 노재훈△병원경영전공 김태현△국제보건 김소윤△보건정책관리 박은철△보건의료법윤리 이일학△건강증진교육 김희진△보건통계 박소희△산업보건 원종욱△환경보건 신동천◇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박종철△내과학교실 한광협△신경과학교실 허경△피부과학교실 정기양△외과학교실 김남규△흉부외과학교실 백효채△정형외과학교실 강호정△성형외과학교실(인체조직복원연구소장 겸임) 유대현△산부인과학교실 배상욱△영상의학교실 김명준△방사선종양학교실 금기창△진단검사의학교실 김정호△응급의학교실 정성필△의사학(동은의학박물관장 겸임) 여인석△의학교육학 전우택△법의학 신경진△연세의생명연구원장 백순명△송당암연구센터장 정현철△연구지원 김승일△실험동물 남기택△환경공해 신동천△보건정책및관리 박은철△열대의학 용태순△소화기병 송시영△알레르기 박중원△세균내성 정석훈△피부생물학 정기양△척추신경 조용은△관절경.관절 최종혁△연의-생공연메디컬융합 허용민△뇌전증 김흥동◇치과대학△구강병리학교실 주임교수 육종인△구강악안면방사선과학교실 주임교수 박창서△치주조직재생연구소장 조규성◇세브란스병원△창의센터장 김진영△내과부장 한광협△외과부장 김남규△내시경검사실장 이용찬△유전자은행장 김호근△국제진료소장 인요한△세브란스산업보건의원소장 원종욱△소화기내과 송시영△호흡기내과 김영삼△내분비내과(당뇨병센터소장 겸임) 차봉수△신장내과 강신욱△알레르기내과 박중원△감염내과 최준용△류마티스내과 박용범△신경과 허경△정신과 남궁기△유방외과 박세호△갑상선내분비외과 정웅윤△중환자외상외과(외상전문의수련센터소장 겸임) 이재길△이식외과 김명수△흉부외과 백효채△정형외과 문성환△성형외과 유대현△피부과 정기양△산부인과 배상욱△영상의학과 김명준△진단검사의학과 김정호△응급의학과(응급진료센터소장 겸임) 박인철△임상약리학과 박민수△건강의학과 김승민△소화기병 김원호△신장병 최규헌△장기이식 김순일△로봇내시경수술 이강영△VIP건강증진 정재복△뇌종양 장종희△골연부조직암 신규호△세포치료 김현옥△임상연구보호 라선영◇강남세브란스병원△척추병원 진료부장 진동규△적정진료관리실 감염관리실장 정석훈△치과병원 원장 문익상△치과병원 진료부장 허종기△암병원 원장 최승호△암병원 진료부장 이세준△위식도암클리닉팀장 정희철△유전자은행장(병리과장 겸임) 홍순원△척추신경외과 김근수△척추정형외과 석경수△척추재활의학과 강성웅△호흡기내과 변민광△감염내과 송영구△소아청소년과 김지홍△피부과 김수찬△흉부외과 이성수△신경외과 김용배△성형외과 노태석△안과 한승한△방사선종양학과 이익재△응급의학과(응급진료센터소장 겸임) 정성필△유방외과 정준△갑상선내분비외과 장항석△이식중환자외상외과 주만기△소아외과 최승훈△심장혈관 임세중△내분비·당뇨병 안철우◇치과병원△구강악안면방사선과장 박창서◇용인세브란스병원△진료부장(정형외과장 겸임) 김형식△교육수련부장(영상의학과장 겸임) 정수윤△적정진료관리실장(내과장 겸임) 이정은△신경과 홍지만△소아청소년과 오승환△외과 임진홍△산부인과 김혜연△가정의학과 정동혁△마취통증의학과 박원선△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치과 전국진◇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금기창△종양내과(대장암센터장 겸임) 안중배△위암 형우진△간암 최진섭△췌장담도암 박승우△식도암 이용찬△폐암 김대준△갑상선암 정웅윤△혈액암 정준원△부인암 김영태△비뇨기암 최영득△두경부암 김세헌△소아청소년암 유철주△개인맞춤치료 백순명◇재활병원△진료부장 김덕용△재활의학과장 김용욱◇심장혈관병원△심장내과 최동훈△소아심장과 최재영◇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김흥동△소아정형외과 김현우△소아영상의학과 김명준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1.txt

제목: [사설] ‘나이롱환자’ 핑계로 장기 입원료 올리려는 정부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1824258  
본문: 보건복지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올려 환자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8월 시행 전에 여론 수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서러운 서민들에게 ‘입원료 폭탄’을 안길 수도 있다. <br/><br/><br/>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료를 할인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이 최대 8배까지 껑충 뛰어오른다. 특히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암, 심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도 예외 없이 본인 부담률을 올리겠다고 한다. 암환자의 5인실 하루 입원료는 현재 2300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원 16일부터는 1만 4000원, 입원 31일부터는 1만 9000원이 된다. 한 달에 수십만원을 더 내야 한다. 서민으로서는 부담이 여간 커지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 100% 국가 부담’을 공약했고 우선 내년까지 치료비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 놓고 도리어 입원료를 올리려 하니 어르고 뺨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br/><br/><br/>정부는 시행령을 바꾸는 이유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나이롱환자’를 걸러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나이롱환자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에서는 허리디스크 등을 핑계로 장기 입원한 뒤 지역 테니스대회에 출전해 준우승한 나이롱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허위·과다 입원 사기 금액은 2년 전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br/><br/><br/>그렇다고 해서 전체 환자의 입원료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2013년 국민 5명 중 1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진료를 포기할 정도로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은 크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진짜 환자를 잡을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요 반서민 정책이다. 나이롱환자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이 힘을 합쳐 단속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다. 정부의 본래 의도는 장기 입원 환자를 줄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호전시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현재 누적 흑자가 13조원에 이른다. 환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게 맞다. 공약 역행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2.txt

제목: 조선대 암치료 학술세미나 개최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1818503  
본문: 조선대 의학연구원(원장 소금영 박사)은 6일 오후 3시 30분 조선대병원 의성관 소세미나실에서 ‘암치료의 새로운 전기:암세포를 정상세포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는 새로운 암 치료의 개념을 소개한다. 제주의대 정동기 박사, BMR연구소 박양호 실장, 조선의대 김성환 박사 등이 발표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3.txt

제목: 코뿔소는 정말 새끼 얼룩말을 구하려 한 것일까?  
날짜: 20150304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548173  
본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사진이 공개됐다.<br/>이는 진흙 늪에 빠진 새끼 얼룩말 한 마리를 커다란 코뿔소가 건져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이는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작가는 밝히고 있다.<br/>이런 광경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매디퀘 동물보호구역에서 가이드 겸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로엘 반 무디엔이 포착했다.<br/>공개된 사진을 보면, 코뿔소가 마치 늪에 빠진 새끼 얼룩말을 구조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반 무디엔은 말한다.<br/>그의 목격에 따르면 새끼 얼룩말은 이 늪에 빠진 채 꽤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br/>암컷들을 쫓던 수컷 코뿔소 한 마리가 접근을 포기하고 우연히 물가에 이르렀다가 새끼 얼룩말을 발견했다는 것.<br/>호기심이 생긴 코뿔소는 자기 뿔로 새끼 얼룩말을 몇 차례 툭툭 건드렸다. 잠시 뒤 갑자기 짜증이 난 듯 코뿔소는 진흙 속에 코를 더 깊숙이 집어넣어 힘껏 새끼 얼룩말을 들어 올렸다.<br/>이는 코뿔소가 새끼 얼룩말이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운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단지 새끼 얼룩말을 꺼내서 떨어뜨리고 내버려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br/>이후 코뿔소는 다시 새끼 얼룩말 옆으로 다가와 뿔을 사용해 이리저리 굴렸다.<br/>코뿔소는 뿔을 사용해 다시 얼룩말을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얼룩말은 결국 다쳐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br/>이에 대해 작가는 “<span class='quot0'>새끼 얼룩말은 이미 어미는 물론 무리로부터 버려진 상황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일 늪에 계속 빠져 있었다면 굶주림 끝에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또 그는 “<span class='quot0'>코뿔소가 단순히 새끼 얼룩말을 장난감 다루듯 하다가 죽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새끼 얼룩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지도 모른다</span>”고 말했다.<br/>사진=로엘 반 무디엔<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4.txt

제목: 당신이 엄마보다 아빠를 더 닮은 과학적 이유  
날짜: 2015030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534638  
본문: 부모의 유전자를 ‘공평하게’ 물려받은 자녀를 보거나 자신 스스로를 부모님과 비교해봤을 때, 유독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해외 연구진은 인간에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많이 닮을 수밖에 없는 유전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r/>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은 부모에게서 동일한 양의 유전적 돌연변이 형태를 물려받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유전적 돌연변이는 개개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더 많이 사용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에는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도 포함돼 있다.<br/>연구진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3종(種)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br/>이들 쥐 3마리와 또 다른 다양한 대륙에서 진화한 변종 쥐를 교배한 결과, 이들은 각기 다른 유전적 특성 9가지를 가진 새끼를 낳았다. 이 새끼 쥐가 성체가 된 뒤 DNA검사를 실시했고, 어미쥐와 생물학적 부(父)에 해당하는 수컷 쥐가 가진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를 구분해 수량화 했다.<br/>그 결과 수컷 쥐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어미 쥐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어미 쥐로부터 질병 등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을 경우, 아버지 쥐로부터 같은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보다 덜 심각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예컨대 어머니로부터 당뇨 유전자를 물려받은 A와 아버지로부터 당뇨 유전자를 물려받은 B를 비교한다면, B가 A보다 더욱 심각한 당뇨를 앓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br/>연구를 이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페르난도 파도-마누엘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이 유전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닮는다는 것을 최초로 입증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자연유전학저널‘(Journal Nature Genetics) 최신호에 실렸다. <br/>　<br/>사진=포토리아<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5.txt

제목: 대법 “불임은 혼인취소 사유 안 된다”  
날짜: 20150304  
기자: 박성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4251790  
본문: 불임이 부부간 갈등의 증폭제가 되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불임을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br/><br/>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33·여)가 남편 B씨(39)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br/><br/>교사 A씨는 의사 B씨를 중매로 만나 201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고, B씨에게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의 선천성 이상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여겼고, 두 사람 간 갈등이 커졌다. 결국 별거에 들어간 A씨는 혼인취소 및 이혼 소송을 냈다. B씨 역시 “아내가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했고 장모도 병원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혼 소송으로 맞섰다. 민법상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는 결혼 생활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제기되는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이 일반적이다.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소송은 혼인취소 소송이다. 또 혼인 성립 자체를 무효화하는 혼인무효 소송도 있다.<br/><br/>1심 재판부는 “<span class='quot0'>생식불능 증세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span>”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부부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원인은 관계회복에 적극 나서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r/><br/>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 중 하나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악질’은 보통의 질병을 넘어서는 불치의 정신병, 성병, 중증의 암 등을 뜻한다. 2심은 “남편에게 혼인 당시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아내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결혼한 것이 인정된다”며 1심과 달리 A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br/><br/>하지만 대법원은 “<span class='quot1'>임신 가능 여부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span>”라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span>”고 판시했다.<br/><b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6.txt

제목: 임권택 감독 102번째 이야기 ‘화장’ 메인 예고편  
날짜: 2015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5458332  
본문: 4월 개봉을 확정한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됐다. <br/><br/>‘화장’은 제28회 이상문학상(2004년)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br/><br/>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오상무의 고뇌와 번민을 담아내고 있다. 오상무(안성기)는 아내(김호정)의 암이 재발됐다는 의사의 말보다 오히려 젊은 여직원 추은주(김규리)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br/><br/>상무의 갈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아내와 추은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인다. <br/><br/><br/><br/>이번 작품 속 주인공 오상무 역은 1964년 ‘십자매선생’을 시작으로 ‘만다라’, ‘안개마을’, ‘태백산맥’, ‘취화선’ 등의 임 감독과 작품을 함께한 배우 안성기가 맡았다. 안성기는 그만의 부드럽고 깊이 있는 연기로 인생의 서글픔과 끓어오르는 갈망이 혼재된 내면의 중년 남성 캐릭터를 선보인다. <br/><br/>또한 김호정과 김규리는 각각 죽음으로 스러져가는 아내와 생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연인으로 연기한다. <br/><br/><br/><br/>김훈 작가 특유의 문장을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에 특히 공을 들였다는 임 감독은 “배우들의 감정신을 통해 현실감을 농도 깊게 다루려했다”며 “겉핥기가 아닌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것을 절제하려고 싸우는 것이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영화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br/><br/>영화 ‘화장’은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제3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을 마쳤고 이달 열리는 제39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국내에서는 4월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 <br/><br/>사진·영상=리틀빅픽쳐스<br/><br/>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7.txt

제목: 담양 명문요양병원, 중국 동덕병원과 암 치료 학술교류  
날짜: 2015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5050789  
본문: ‘담양 명문요양병원과 중국 동덕병원 의료진의 통합의학적 암치료 및 한·중 학술교류와 현판식이 오는 4월 명문요양병원 원내에서 진행된다.<br/>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지만 암 환자는 날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평생 동안 암과 씨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투병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큰 고통을 주므로 암의 예방과 통합의학적 치료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br/>이에 담양 명문 요양병원은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병 치료와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병원과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br/>지난 11월에는 중국 저장성 항조우시의 동덕의원(원장 차이커쿤)을 방문, 전문 인력교류와 공동치료연구에 대한 한·중 최초 통합의학발전 협약을 맺었다. 동덕의원은 서양의학과 중국 전통의학을 융합하여 암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병상수 1600석 규모의 대형 병원이다. <br/>명문요양병원은 오는 4월 원내에서 열릴 암치료 학술교류에서 동덕의원과 현판식을 갖고 암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은 “<span class='quot0'>동덕의원의 연구개발 시스템과 그들의 효과적 치료법은 세계 최고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양자간 친목도모는 물론 학생 및 의료진의 꾸준한 상호교류를 통해 환자들의 실질적 암치료에 도움을 줄 것</span>”이라고 전했다.<br/>한편, 담양 명문요양병원은 편백나무 풍욕, 뷔폐식 암식단, 명상, 웃음치료, 고주파온열암치료, 한방치료, 미슬토, 비파뜸 등 독자적인 노하우를 이용해 인간의 자연치유능력과 면역력을 토대로 암의 치료를 돕고 있다. 또한 암 환자는 무료로 참여가 가능한 1박2일 캠프 ‘암 희망나눔 스테이’를 매월 셋째 주에 진행,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암 건강 정보를 전하고 있다.<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8.txt

제목: 새끼 얼룩말 구한 코뿔소, 알고보니 ‘비극’  
날짜: 2015030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520312  
본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사진이 공개됐다.<br/><br/>이는 진흙 늪에 빠진 새끼 얼룩말 한 마리를 커다란 코뿔소가 건져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이는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작가는 밝히고 있다.<br/><br/>이런 광경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매디퀘 동물보호구역에서 가이드 겸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로엘 반 무디엔이 포착했다.<br/><br/>공개된 사진을 보면, 코뿔소가 마치 늪에 빠진 새끼 얼룩말을 구조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반 무디엔은 말한다.<br/><br/>그의 목격에 따르면 새끼 얼룩말은 이 늪에 빠진 채 꽤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br/><br/>암컷들을 쫓던 수컷 코뿔소 한 마리가 접근을 포기하고 우연히 물가에 이르렀다가 새끼 얼룩말을 발견했다는 것.<br/><br/>호기심이 생긴 코뿔소는 자기 뿔로 새끼 얼룩말을 몇 차례 툭툭 건드렸다. 잠시 뒤 갑자기 짜증이 난 듯 코뿔소는 진흙 속에 코를 더 깊숙이 집어넣어 힘껏 새끼 얼룩말을 들어 올렸다.<br/><br/>이는 코뿔소가 새끼 얼룩말이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운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단지 새끼 얼룩말을 꺼내서 떨어뜨리고 내버려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br/><br/>이후 코뿔소는 다시 새끼 얼룩말 옆으로 다가와 뿔을 사용해 이리저리 굴렸다.<br/><br/>코뿔소는 뿔을 사용해 다시 얼룩말을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얼룩말은 결국 다쳐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br/><br/>이에 대해 작가는 “<span class='quot0'>새끼 얼룩말은 이미 어미는 물론 무리로부터 버려진 상황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일 늪에 계속 빠져 있었다면 굶주림 끝에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또 그는 “<span class='quot0'>코뿔소가 단순히 새끼 얼룩말을 장난감 다루듯 하다가 죽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새끼 얼룩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지도 모른다</span>”고 말했다.<br/><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29.txt

제목: [TV 하이라이트]  
날짜: 2015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3315353  
본문: ■하늘의 황금마차(KBS1 밤 12시 50분) 네 남자들이 펼치는 뮤직밴드 여행 이야기. 뽕똘은 그룹사운드를 만들어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고 있다. 그는 낡은 주황색 수레를 주워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고는 밴드의 이름을 ‘황금마차’라고 짓는다. 그렇게 수레에 악기도 싣고, 배추도 싣고 다니면서 음악을 하자고 제안하는 뽕똘과 흔쾌히 동의하는 동네 후배들은 현실과 다른 거창한 꿈을 꾸게 된다.<br/><br/><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시 30분) 생후 12개월 된 서준이는 ‘T-세포 림프모구성 림프종’을 앓고 있다. 생후 7개월 예방접종을 하던 중 발견된 암은 어린 가슴을 다 뒤덮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성인에게도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꿋꿋이 이겨 내고 있지만 종양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서준이의 병원비는 노력과 희망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다.<br/><br/><br/>■코드제로(XTM 밤 11시 10분) 차량 납치, 화재, 추락사 등 각종 위험의 순간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다. 출퇴근길의 전철에서 ‘지옥철’의 고통을 겪는 것은 기본. 직장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된 열차 사고.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0.txt

제목: 평생 품을 가슴 위해… 미리 검진하고 운동해요  
날짜: 20150302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1919849  
본문: 동아시아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흔한데도 평소 예방은 소홀히 하기 쉬운 암이 유방암이다. 2008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38.9명꼴로 발생하던 유방암은 2012년 10만명당 52.1명꼴로 많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식습관이 서구화된 일본(51.5명)마저 제쳤다.<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를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한다. 유방암 발생 인구 수만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 등 구미 지역의 3분의1 정도지만,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br/><br/>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2009년 8만 8155명에서 2013년 12만 3197명으로 5년 새 약 1.4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식습관이 급격히 서구화되면서 유방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 섭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유방암은 암세포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꾸준히 반응해 성장하는 게 특징이다. <br/><br/>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유방암·갑상선암 클리닉 김성용 교수는 “<span class='quot0'>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은 지방조직인데, 비만 여성일수록 지방조직이 많고, 따라서 에스트로겐 수치도 높아 유방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가운데 지방 섭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8.4%에서 2013년 21.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의 1일 섭취량도 1998년 53.7g에서 2012년 85.1g으로 상승했다.<br/><br/>식습관 변화 외에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만혼(晩婚) 현상도 유방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30세 이후 고령에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문가들은 유방암 고위험인자로 꼽는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은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병 위험성을 5% 정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br/><br/>유방암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방암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최저 수준이다. 한국유방암학회의 ‘2014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유방암 사망률은 10만명당 6.1명으로, 일본(9.8명)이나 미국(14.9명)보다도 현저히 낮다.<br/><br/>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사망률이 낮은 원인을 의학 기술의 발달 외에도 조기 검진 증가에서 찾는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자주 하다 보니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암 0기나 1기에 암을 진단받는 비율이 2000년 32.6%에서 2012년 56.2%로 상승했다고 한다. 전체 유방암 수술에서 자기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 절제술이 67.2%를 차지했다.<br/><br/>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아주 좋은 암이 유방암이지만 정기적으로 유방암을 자가 검진하는 여성은 1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를 넘기면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실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다.<br/><br/>유방암학회가 지난달 24일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여성 221명을 상대로 유방암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규칙적으로 자가 검진을 한다고 답한 여성은 12.2%에 불과했고 29.0%는 가끔 생각날 때, 58.8%는 거의 하지 않거나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크다. 40세 미만 발병률은 10만명당 38.9명으로, 일본·미국(25.2명)보다 높다. <br/><br/>유방암 자가검진은 간단하다. 먼저 양팔을 편하게 내려놓은 후 양쪽 유방을 관찰하고서 양손을 머리 뒤로 넘겨 깍지를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 이어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에 힘을 주고 숙인다. 이때 유두나 유방의 피부가 함몰돼 모양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피부 표면의 변화를 관찰한다.<br/><br/>샤워나 목욕을 할 때는 겨드랑이에서부터 원을 그려가며 쇄골 위와 아래를 지나 유방 바깥쪽부터 안쪽 순으로 촉진한다. 또 유두 주변까지 작은 원을 그리며 만져본 후 유두를 짜보아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편한 상태로 누워 검진하려면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어깨 밑에 수건을 접어 받친 후 같은 방법으로 검진해도 된다. 자가검진법은 유방암의 주요 증상인 멍울, 유두의 분비물, 피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br/><br/>멍울은 유방암의 증상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유방 조직에 비정상적인 혹이 자라 만들어진다. 만약 멍울이 만져지더라도 유방암이 아닌 지방종, 유두종 등 일반적인 염증성 멍울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겁을 내기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유두 분비물 역시 5~10% 정도만 유방암과 연관이 있어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br/><br/>운동을 하고 술을 줄이는 것도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이 체내 호르몬과 에너지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유방암, 특히 폐경 후 유방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술은 어떤 주종이든 하루 알코올 10g(소주 한잔)을 섭취하면 폐경 여부와 관계없이 유방암 발생 위험이 7~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1.txt

제목: 암벽 오르고 달걀 집고...사람 의지대로 움직이는 ‘로봇 팔’ 화제  
날짜: 20150227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349031  
본문: 이제는 고전이 된 ‘600만 불의 사나이’에는 기계로 신체의 일부를 대체해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식의 설정은 영화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로봇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눈부시다고 하지만, 인간의 팔다리처럼 다양하고 정교한 동작을 따라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로봇 공학자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로봇 의수의 발달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지 모른다.<br/>2014년, 미 FDA는 로봇 의수인 데카 암 시스템(DEKA Arm System)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로봇 의수는 실제 사람 팔만큼 정교한 동작을 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방울 토마토를 손가락으로 잡는 것부터,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시는 일까지 가능한 뛰어난 로봇 의수이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래에는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질 수 있다.<br/>최근 데카 암 시스템은 데카 어드밴스드 로보틱 암(DEKA Advanced Robotic Arm)의 공개 영상에서 이 로봇 의수를 이용해서 암벽을 등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용자는 로봇 의수를 마치 진짜 팔처럼 움직이면서 암벽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br/>이 로봇 의수의 개발을 지원한 것은 미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으로 본래 목적은 전쟁 중 팔을 잃은 상이용사들의 재활을 돕는 것이다. 이 노력은 결실을 보아 작년에 의료용 의수로 승인될 수 있었다. 이 로봇 팔은 일상생활을 도울 힘과 사용자의 의지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상이용사는 물론 여러 가지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br/>사실 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로봇 팔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로봇 의수는 EMG(electromyogram) 전극을 이용해 착용자의 남은 근육의 신호를 받아들여 사용자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정교한 센서 시스템이 있어 달걀같이 깨지기 쉬운 물체도 안전하고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현재의 성능도 놀랍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 빠르고 강하며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의수가 개발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다.<br/>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 의수로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한 일상생활을 넘어 암벽 등반 같은 극한 스포츠나 정교한 손동작을 해야 하는 직업으로 영역을 넓힐 수도 있다.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고성능 로봇 의수가 적당한 가격에 대중화될 수 있다면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할지 모른다.<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2.txt

제목: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로 치료 받아야”  
날짜: 20150227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337411  
본문: 올 봄 결혼을 앞둔 K씨(32)는 결혼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 산부인과에서 여성건강검진을 하게 됐다.<br/>당연히 건강할 것이라 생각했던 K씨는 의외의 검진 결과에 놀랐다. 자궁암 검진과 초음파 검진을 받던 중 3cm 가량의 자궁근종이 발견됐기 때문이다.<br/>수술 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K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궁근종에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의료진은 복강경 수술로 근종을 떼어내면 괜찮다고 했고, K씨는 수술을 받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br/>30대 이상 여성이라면 K씨와 같은 경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자궁근종 환자 수는 지난 2009년 23만6372명에서 2013년 29만3440명으로 5년 사이 24% 늘었다.<br/>이 중 40대 환자가 약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20~30대 환자도 6만6000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젊은 연령층 환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br/>이른바 물혹이라고 불리는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식해 생기는 양성종양이다. 여성들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심할 경우 임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요구된다.<br/>자궁근종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예방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자궁근종 크기와 성장패턴을 진단하는데, 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통해 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는 근종에 대해서만 절제술을 하게 된다.<br/>절제술의 경우 과거에는 개복수술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배에 작은 구멍 3~4개만 뚫고 가는 관을 삽입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근종 환부만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로 진행한다.<br/>복강경 수술은 수술 후 흉터를 남기지 않아 심미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른 편이다.<br/>울산 맘스여성병원 신규식 원장은 “<span class='quot0'>복강경 수술은 개복수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종 제거 시 봉합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상담 후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한편 맘스여성병원은 최신 복강경 수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0회 이상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을 집도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3.txt

제목: 英케임브리지大 개발 ‘노화 막는 초콜릿’ 마침내 공개  
날짜: 2015022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318299  
본문: 노화 과정을 늦추는 초콜릿이 마침내 대중에 공개된다. 이 초콜릿은 거의 3년 전 처음 개발돼 주목된 바 있다.<br/>영국 케임브리지대 생물공학 전문 연구소 라이코텍(Lycotec) 연구팀이 노화를 막는 초콜릿의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를 앞두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에스테초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초콜릿 1장(7.5g)에는 보통의 다크 초콜릿 100g에 상당하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돼 있다.<br/>초콜릿 연구 개발을 이끈 라이코텍 설립자인 이반 페타예프 박사는 “<span class='quot0'>이 초콜릿을 먹으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피부도 되찾을 수 있다</span>”며 자신있게 말했다.<br/>연구팀은 개발 완료된 이 초콜릿의 임상 시험도 이미 마쳤다. 이들은 50~60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카카오 70% 함량의 이 초콜릿을 매일 1장(7.5g)씩 섭취하도록 했다.<br/>이후 지원자들의 몸 상태를 검사한 결과, 혈관 염증이 가라앉았고 피부조직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피부 나이가 20~30세는 젊어진 듯한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br/>이반 페타예프 박사는 “<span class='quot0'>10년에 걸친 연구와 임상 시험 끝에 카카오 폴리페놀(플라바놀)이 혈관이나 염증, 대사 장애, 특정 암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린 금붕어와 홍학의 색소와 같은 항산화 물질(카로티노이드)을 주입해 피부 회춘 효과를 더욱 높였다</span>”고 말했다.<br/>게다가 이 초콜릿은 당분도 매우 적어 1장당 38칼로리(kcal), 즉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라이코텍은 다음 달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혁신회의(Global Food Innovation Summit)에서 이 초콜릿을 널리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영국에 있는 살롱과 스파 등 미용 관련 시설에서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br/>사진=라이코텍<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4.txt

제목: 자작나무의 암(癌)으로 불리는 차가버섯 효능, 관심집중!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0342218  
본문: ‘차가버섯’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정 질환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차가버섯’이 지난 2005년 차가버섯 추출분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체식품으로써 열풍을 몰고 온 것이다.<br/><br/>차가버섯이란 살아 있는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러시아에서는 자작나무의 암(癌)으로도 불린다. 이는 차가버섯이 자작나무의 수액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영양분을 빼앗아 성장하면서 결국 숙주인 자작나무는 그 수명이 다하기 때문이다.<br/><br/>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차가버섯은 Inonotus Obliquus(이노노투스 오블리쿠스)라는 학명으로 불리며, 러시아에서는 16세기경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비약으로 전해져 왔다. 항암효과 외에도 면역력을 높여주어 신체 보호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체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면역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그러나 이와 같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차가버섯이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다. 이는 차가버섯이 산화가 빠르고 열에 약한 특성 때문에 보관이 어렵고 장시간 우려내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우려내는 과정에서의 유효성분 손실이 많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 했다.<br/><br/>이에 차가버섯 전문업체에서는 차가버섯에서 유효성분만을 뽑아낸 추출분말 제품 개발을 시작, 그 결과 여러 추출 공법을 이용한 추출분말 제품들이 출시됐다.<br/><br/>올해로 러시아산 차가버섯 국내 공급 14년째를 맞이한 고려인삼공사는 “차가버섯이 수입될 당시에는 원물 덩어리를 우려내어 먹는 수준에 그쳤었다. 하지만 최근 추출분말이 개발됨으로써 차가버섯을 찾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차가버섯의 인기를 실감한다고 말했다.<br/><br/>한편 대체식품을 주력으로 현재 10만여 환우와 함께하는 고려인삼공사는 국내산 미역귀와 다시마에서 뽑아낸 후코이단 100% ‘후코이단-100’의 가격 할인 행사를 금일(27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실시한다.<br/><br/>고려인삼공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특정한 질환을 가진 환우들 사이에서 보통은 차가버섯만 드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후코이단을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려는 분들이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제로도 후코이단과 함께 병행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측면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5.txt

제목: [데스크 시각] 폐쇄회로 TV가 만병통치 ‘약’인가/한준규 사회2부 차장  
날짜: 20150227  
기자: 한준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537058  
본문: “<span class='quot0'>여기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가 어디예요.</span>”<br/><br/>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상담을 마치고 꼭 묻고 가는 이야기란다. 지금 보육 현장에는 ‘불신’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부모도, 교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이 옷에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내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현장 교사도 아이를 안아 주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br/><br/>현장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달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된 뒤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 CCTV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br/><br/>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을 빼고 모든 국민이 한숨만 쉬었다. 몸에 퍼진 암으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저 반창고를 붙이는 격이다.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필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면적당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세부 방안도 추후 논의로 미뤘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br/><br/>‘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사라졌다. 마치 어렸을 때 동네에 가끔씩 찾아와 ‘이 약 한번 먹어봐~ 치통, 위통, 방통 모든 병이 한 방에 나아~’라고 떠들던 약장사 아저씨처럼 상습적인 폭행과 상한 급식, 비싼 보육료 등 모든 문제를 CCTV로 해결할 듯한 기세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도 CCTV가 달려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CCTV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br/><br/>두루뭉술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턱없이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양질의 보육 교사 육성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980년대부터 보육 문제를 ‘민간’에 떠넘겼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 3000여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489곳으로 5.4% 수준에 그쳤다. 선진국의 50%가 넘는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br/><br/>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78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올해 모든 것을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br/><br/>보육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그들의 고충을 덜어 주지 않는다면 양질의 보육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교사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보조교사 지원과 근무시간 개선 등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숙제다.<br/><br/>하지만 정부는 모든 문제를 3~4월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br/><br/>늦더라도 박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다.<br/><br/>hih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6.txt

제목: 허리띠 조이는 삼성전자… 6년 만에 임금동결  
날짜: 20150227  
기자: 명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458907  
본문: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직원 임금을 동결한다. 삼성전자가 임직원 임금을 모두 동결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br/><br/><br/>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26일 올해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그대로 유지해 실제 직원들 임금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연봉제 직원은 고과에 따라 임금이 0∼7%(평균 2.3%), 비연봉제 직원은 2.2% 인상된다.<br/><br/><br/>삼성전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부 경쟁력부터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는 점에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임금은 동결했지만 복리 후생은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유치원비 지원연령을 기존 6∼7세에서 5∼7세로 늘리고, 휴직자에게도 전신 암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휴가도 활성화한다. 삼성전자는 10년, 20년, 30년차에 나오는 열흘치 장기근속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차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br/><br/><br/>또 자율출퇴근제도를 제조 직군을 제외한 모든 직군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이 제도는 연구·개발(R&D)과 디자인 직군에만 적용돼 왔다. <br/><br/><br/>앞서 삼성그룹은 2000여명에 달하는 전 계열사 임원의 급여를 동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인센티브(OPI)는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해인 2009년 초 전 직원의 임금을 동결한 적이 있다.<br/><br/><br/>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7.txt

제목: [김준의 바다 맛 기행] 봄의 전령사 ‘삼치’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4247078  
본문: 폭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뒤끝 작렬’이다. 전남 여수 손죽도에서 거문도로 가는 배가 춤을 춘다. 이런 바다를 한 시간 이상 달려야 한다.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승객 모두 얼굴이 하얗다 못해 누렇다. 겨우 도내해에 들어서고 춤도 멈췄다. 점심으로 나온 서대회와 갈치구이를 보고도 모두들 데면데면이다. 바람이 심해 삼치 주문이 밀려 있다며 울상을 짓는 식당 주인에게 부탁 반 협박 반 저녁은 삼치로 부탁했다. 며칠 만의 첫 출어라 잡힐지 모르겠다는 주인의 엄살을 뒤로하고 나왔지만 일행이 뱃멀미의 고통에서 벗어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지 걱정이다.<br/><br/>삼치는 농어목 고등엇과에 속하는 바다 어류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부 등 북서태평양에 분포한다. <br/><br/>우리나라 모든 바다에서 잡히는 삼치는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자산어보’ 등에 ‘망어’, ‘마어’라고 기록됐다. ‘우해이어보’는 ‘삼치’라 적고, “초여름에 물가에 와서 뱀과 구렁이와 교미를 하여 알을 낳아 얕은 곳의 기름진 모래에 묻어 두는데 이듬해 봄에 부화한다”고 했다. ‘난호어목지’는 “등은 청흑색이며, 기름을 바른 것처럼 윤이 난다. 등 아래 좌우로 검은 반문이 있고 배는 순백색이다”라고 했다. 등이 청흑색이라 수면의 물비늘과 어울려 눈이 좋은 맹금류도 속일 수 있다.<br/><br/>삼치는 10월에 잡기 시작해 2월 말까지 먹는다. 도톰한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 이가 부실한 노인들에게도 좋다. 삼치에 함유된 DHA(불포화지방산의 일종)는 태아의 두뇌 발달에 좋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 기억력 증진,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수험생이나 노인들이 꼭 챙기는 오메가3도 듬뿍 포함돼 있다.<br/><br/>겨울에 삼치가 맛있는 것은 늦가을부터 겨우내 산란을 위해 몸에 영양분과 에너지를 축적하기 때문이다. 봄부터 여름까지 연안으로 와서 알을 낳고 가을과 겨울에 외해로 회유해 겨울을 난다. 여수, 고흥, 완도, 해남의 어시장이나 횟집에 나오는 삼치들은 청산도, 거문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잡힌 것이다.<br/><br/>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삼치에 대한 평은 극과 극이다. ‘자산어보’는 “맛은 시고 텁텁하여 별로 좋지 않다”고 혹평을 했지만, ‘난호어목지’는 “달고 좋다”고 했고, ‘우해이어보’도 “말려서 먹어도 맛이 있다”고 평했다. 그런데 ‘망어’라는 이름 때문인지 삼치를 꺼리고 ‘우어’라는 별호를 얻기도 했다.<br/><br/>민담에 이런 내용도 전해 온다.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가 동해에서 잡은 삼치 맛에 빠졌다. 자신을 강원도로 보내 준 정승에게 큼지막한 삼치를 골라 보냈다. 수레에 실어 보낸 삼치는 여러 날이 지난 후 정승 집에 도착했다. 밥상에 오른 삼치 맛을 본 정승은 썩은 냄새에 비위가 상해 며칠 동안 입맛을 잃었다. 그 뒤 볼 것도 없이 관찰사는 좌천을 면치 못했다. <br/><br/>삼치는 성질이 급해 잡히자마자 죽기 때문에 곧바로 얼음에 보관해야 한다. 지금도 삼치회를 제대로 맛보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조선시대에 삼치 맛을 볼 수나 있었겠는가.<br/><br/>글 사진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joonkim@jeri.re.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8.txt

제목: 겨우내 물올랐네 입안에 봄이 왔네  
날짜: 20150226  
기자: 손원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4238541  
본문: 봄이 성큼 다가섰다. 절기는 벌써 우수를 지나 경칩(3월 6일)을 향해 줄달음친다. 동해 바다에도 시나브로 봄물이 오르는 중이다. 마냥 시렸던 바람결에선 어느새 촉촉한 봄내음이 묻어난다. 바다와 접한 포구들은 갯것들의 싱싱한 향기로 가득 찼다. 분홍빛 외투에 봄맛 숨긴 대게가 여물어 가고, 꼼치와 장치도 한껏 제 몸맛을 자랑하는 중이다. 7번 국도 따라 봄 마중 가는 길. 동해는 넓고 먹을 것도 많다.<br/><br/>[장치] 회보다는 찜이나 구이가 더 어울리는 어종이 있다. 장치가 그렇다. 불퉁스런 몸매에 아랫입술 툭 삐져나온 꼬락서니가 영 볼품없지만 맛은 둘째가라면 서럽다. 장치를 꾸덕꾸덕하게 말리면 바다 향은 더욱 은근해지고, 특유의 감칠맛이 더해진다. 그렇게 말린 장치를 조리거나 구우면 맛이 한층 깊어진다. 미식가들에게조차 다소 생소한 장치의 본명은 벌레문치다. 동해안 중북부 이북의 수심 300~500m 바다 밑에 산다. 보통 50~60㎝ 정도 자라는데, 큰 놈은 1m에 이르기도 한다.<br/><br/>장치 요리의 핵심은 건조다. ‘바다의 돼지’라 불릴 만큼 기름기가 많아 건조 과정에서 어떻게 이 기름을 빼느냐가 맛을 좌우한다. 몇몇 장치 전문집에서조차 요리에서 쩐내가 나곤 하는데, 기름기를 제대로 빼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내장을 제거하고 물에 10시간 넘게 담가 둔다. 그리고 3~4일 정도 옥상에 널어 말린다. 날이 궂으면 5일 정도 걸린다. 이때 온도나 통풍 등 여건이 맞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나 육질이 부드럽지 못하다. 특히 너무 추울 때 말리면 푸석해진다. 잘 말린 장치는 살색이 노르스름하면서 육질에 기름기가 촉촉하다. 장치 조림은 매콤한 양념에 적셔 가며 먹어야 제맛이다. 지방이 적당히 밴 노르스름한 육질은 쫄깃하면서도 고소하다. 삼척의료원 옆에 장치찜으로 소문난 맛집이 있다. 울릉도 호박집(033-574-3920)이다. 메뉴판엔 장치찜으로 적혔지만 사실 조림에 가깝다. 장치찜에 호박술을 곁들여 내는데, 달달한 호박술과 매콤하면서도 기름진 장치찜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삼척해수욕장 인근 부림해물(033-576-0789)도 소문난 맛집이다.<br/><br/>[꼼치] 쓸모없어 버려지다 요즘 들어 ‘귀족 생선’으로 환골탈태하는 물고기들이 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곰치다. 곰치의 정확한 명칭은 ‘꼼치’다. 쏨뱅이목 꼼치과의 물고기로 뱀장어목의 곰치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본명’보다는 곰치(강원), 물곰(경북) 등의 ‘예명’으로 더 자주 불린다.<br/><br/>꼼치를 끓이는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데 묵은 김치를 곁들인다는 점에서는 같다. 칼칼한 김치 송송 썰어 넣고 꼼치를 텀벙텀벙 잘라 끓여 내는데, 뜨끈한 국물과 부드럽고 뽀얀 속살이 쓰린 속을 살며시 어루만져 주는 기분이다. 동해안 어부들이 곰칫국, 혹은 물곰국을 ‘해장의 왕’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꼼치는 얼리면 살이 풀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 또 너무 오래 익히면 살점이 부서지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짝 데친다는 기분으로 5분여 정도 호로록 끓인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주문과 동시에 끓여 내는데, 짧은 순간에 맛을 내는 게 관건이다.<br/><br/>꼼치는 암수 빛깔이 다르다. 붉거나 노란 기운 감도는 것은 암놈, 검은 녀석은 수놈이다. 곰칫국엔 대부분 ‘흑곰’이라 불리는 수놈을 쓴다. 암·수컷을 섞어 끓여 내는 경우도 있다. 잘 조리된 꼼치 살은 부드럽다. 입에서 살살 녹는다. 한 번 훑으면 뼈만 남고 죄다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br/><br/>삼척에선 정라항 쪽에 맛집들이 많다. 삼정식당(033-573-3233), 바다횟집(033-574-3543), 일출횟집(033-574-2479), 만남의식당(033-574-1645) 등 곰칫국 전문식당이 나란히 있다. 동해 어달리 횟집들에서도 곰칫국을 낸다. 최근 곰치 어획량이 줄어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가는 게 좋다. 다양한 해산물로 장바구니까지 채우고 싶다면 삼척의 번개시장을 찾는 게 좋다. 아침 5~8시 사이 잠깐 열린다. 값이 싸 삼척 주민들도 즐겨 찾는다. 이웃한 경북 울진 쪽에선 죽변시장 일대에 곰칫국집들이 많다. 성진식당(054-782-8921), 돌섬식당(054-782-3898), 금성식당(054-781-5737), 파도식당(054-783-8123) 등이 알려졌다.<br/><br/>[대게&홍게] 대게를 빼고 동해의 봄맛을 이야기하랴. 울진 하면 떠오르는 대게는 찬바람이 불면서 여물기 시작해 2~3월께부터는 다리마다 살이 포실하게 들어찬다. 해마다 대게 관련 축제가 이맘때 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향도 더욱 짙어진다. ‘소는 한 마리를 다 먹어도 흔적이 안 남지만, 대게는 작은 놈 한 마리만 먹어도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 전해 오듯 멀리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향기가 짙고 오래 간다.<br/><br/>울진 최남단의 후포항은 국내 최대 대게잡이 항구 중 하나다. 대게철이면 울진대게를 경매하느라 아침마다 부산스럽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큼직한 대게들이 어판장 바닥에 깔리는 모습은 장관이다. 항구 주변 횟집촌에선 싱싱한 회와 울진대게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홍게도 할 말이 많다. 홍게도 대게처럼 북풍에 맛이 들고 살점도 포실해진다. 이맘때 홍게 다리를 보면 대게 못잖게 ‘꿀벅지’다. 실팍한 살은 달고 짭조름하다. 대게에 견줘 짭조름한 건 훨씬 깊은 수심층에 서식하기 때문일 터다. 홍게 맛을 아는 현지인들은 깊은 바다향이 묻어난다며 비싼 대게 대신 푸짐한 홍게를 곧잘 택한다. 대게처럼 7~8월 금어기도 있다.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잡는 천박한 녀석은 아니다. 그런데도 값은 대게에 견줘 절반쯤 된다. 현 시세가 유지됐으면 좋으련만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면 몸값부터 뛰는 게 다반사니 그게 걱정이다.<br/><br/>울진군은 올해 대게 축제 명칭을 ‘201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crab.uljin.go.kr)로 정했다.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후포항 일대에서 열린다. 대게와 붉은대게 무료 시식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향토음식 및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도 상설 운영되고, 관광객 특별 경매와 현장 대게체험 등의 특별행사도 마련된다. 후포항 쪽에서는 왕돌회수산(054-788-4959)과 후계자울진대게센타(054-783-8918) 등이 대게찜으로 알려졌다. 죽변항에도 대게집들이 몰려 있다. 수협 어판장 옆 7호횟집(054-783-9713), 신흥상회(054-782-5145), 어판장 옆 골목 우리어민사랑(054-782-6278) 등이 알려졌다.<br/><br/>[문어] 초봄 맞은 울진의 또 다른 별미로 꼽히는 게 문어다. 문어를 만나려면 구산항으로 가야 한다. 그리 크지 않은 포구지만 문어를 취급하는 울진 관내의 위판장 중에선 가장 크고 이름도 널리 알려졌다.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문어 경매가 열린다. 흔히 ‘돌문어’라고 불리는 녀석은 값이 눅다. 살이 다소 단단해서다. 인기 상종가는 대체로 5㎏ 미만의 작은 녀석들이다. 맛도 좋고, 운반하거나 요리하기가 수월해서다.<br/><br/>문어는 사철 나온다. 특별한 금어기도 없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 맛은 좋아지고 값은 내려가기 때문이다. 요즘은 깊은 수심에 있던 문어가 얕은 곳으로 나오는 시기다. 수압 때문에 높아졌던 체내 염분이 줄고 살도 쫀득해진다. 설을 앞두고는 문어의 몸값이 상종가를 친다. 너나없이 제상에 문어를 올리는 영남 지방의 습속 때문이다. 그러다 명절이 지나면서 값이 떨어진다. 그게 이맘때다. 흔히 초고추장에 문어를 찍어 먹는 외지와 달리 현지에선 고추냉이 푼 간장을 으뜸으로 여긴다. 두 번째가 소금 넣은 기름장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문어의 담백한 맛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br/><br/>■여행수첩<br/><br/>→가는 길: 수도권에서 승용차로 갈 경우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를 거쳐 7번 국도를 타고 가는 게 알기 쉽다. 정라항은 동해나들목으로 나와 7번 국도를 타고 직진하다 정라동주민센터에서 좌회전해 들어간다. 묵호항은 동해고속도로 망상 나들목→묵호 방향→묵호항 순으로 간다. 울진 후포항은 삼척에서 7번 국도 따라 남하하다 평해읍 지나 삼율교차로에서 좌회전해 들어간다. 울진대게축제위원회 (054)787-1340.<br/><br/>→잘 곳: 묵호항 인근 동해관광호텔(533-6035)과 꿈의궁전모텔(532-9996)은 바닷가에 붙어 있다. 침대에 누워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묵호등대 바로 아래에도 펜션이 있다. 울진에선 백암한화리조트(054-787-7001)가 깔끔하다. 온천과 휴식을 겸할 수 있다.<br/><br/>글 사진 삼척·울진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39.txt

제목: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건보 적용… 하루 1만 5000원에 가능  
날짜: 20150226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4127866  
본문: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호스피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초안을 마련했으며 5월까지 마무리해 7월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br/><br/><br/>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평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통증 완화와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료 활동을 말한다. 병원에서 무의미한 항암치료를 반복하며 고통을 받는 대신 전문적인 보살핌 속에 존엄한 임종을 선택하려는 환자가 최근 들어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의 부담이 컸다.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 보니 병원도 호스피스 의료행위를 꺼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국에 56곳뿐이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br/><br/><br/>복지부는 환자의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해 병원에 지급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당 정액제와 의료서비스 개별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를 복합적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는 모두 일당 정액에 포함하고, 고가의 통증 관리와 상담 치료에는 개별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만 제외하고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하기로 했다.<br/><br/><br/>현재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에 머물며 진료를 받으면 하루 평균 15만원 안팎을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 5000원만 내면 된다. 가정에서 전문 간호사의 돌봄을 받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7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br/><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0.txt

제목: 고약한 암 덩어리도 막지 못한 엄마의 학구열  
날짜: 2015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3120605  
본문: “<span class='quot0'>암(癌) 따위가 배움의 열망을 꺾을 순 없죠.</span>”<br/><br/>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30여년간 꾸려온 이지연(57·여)씨는 24일 꿈을 이뤘다. 한국방송통신대 교육학과를 4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학사모를 쓰게 됐다.<br/><br/>초등학교 교사인 딸은 평생 배움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던 엄마에게 2011년 학비를 내밀며 방송대 진학을 권했다. <br/><br/>이씨는 “<span class='quot1'>늘 대학을 나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곤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딸을 비롯한 가족의 도움이 있었기에 배움의 뜻을 이어 갈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방송대 합격 후 이씨는 ‘무섭게’ 공부했다. 슈퍼 운영은 물론 통장으로 일하면서도 항상 학기 시작 전 교재를 구입하고, 모든 과목을 미리 공부한뒤 학기를 시작했다. 평점 3.4점(4.3점 만점)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평생교육사(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을 진행하는 국가자격증) 2급도 취득했다.<br/><br/>고비도 있었다. 2013년 1월과 3월 각각 유방암과 위암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span class='quot1'>유방암은 다행히 초기였지만, 위암은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워낙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서 ‘나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독였다</span>”고 회상했다.<br/><br/>네 차례에 걸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은 탓에 머리가 모두 빠지고, 위의 3분의2를 잘라 내는 큰 수술을 받으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씨는 “<span class='quot1'>휴학을 하게 되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 포기할 수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제때 졸업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 투병 중 나약해지기 쉬운 정신을 다잡을 수 있었다</span>”고 밝혔다.<br/><br/>이씨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다. 그는 “<span class='quot1'>두 차례 암도 이겨 낸 만큼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교육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span>”며 웃었다.<br/><br/>글 사진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1.txt

제목: “PET검사로 유방암 재발 여부 확인한다”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2413405  
본문: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재발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재발 가능성을 파악한다면 암 관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의료진이 PET(양전자 단층촬영)를 이용해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br/>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안성귀·박종태 교수팀은 2004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기 전에 ‘FDG-PET ’검사를 받은 49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섭취계수(SUV)에 따른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종양이 섭취하는 포도당 표준섭취계수가 증가할수록 악성종양의 재발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통 금식한 환자에게 포도당이 포함된 방사성 조영제를 투여하면, 종양이 포도당을 섭취하는데, 얼마만큼의 포도당을 종양이 섭취하는지를 표준화계수로 평가한 것이 SUV이다. <br/>　연구팀에 따르면, 표준섭취계수는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그리고 질환 진행상태(병기)와는 별도로 종양의 재발에 관여하는 인자였으며, 종양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등의 조건들과 연계시키면 더욱 정확하게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br/>　연구팀은 이에 따라 496명의 환자를 SUV 4를 기준으로 분류(4이상=197명, 4미만=299명)한 뒤 6년 동안 재발 여부를 관찰한 결과, SUV가 4 미만인 환자군은 95.6%가 재발되지 않은데 비해 4 이상인 환자군은 86.8%가 재발해 SUV가 재발 확률 예측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입증했다.<br/>　또 SUV는 환자의 나이, 종양 크기, 림프절 전이, 에스트로겐 수용 여부, HER2 같은 다른 예후인자와 함께 다변량 생존분석을 시행했을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r/>　이런 SUV가 유방암 재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이 328명의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를 SUV 4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SUV가 높을 경우 재발 확률 역시 높게 나타나 SUV가 종양의 크기나 병기보다 더욱 중요한 임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유방암 관련 국제 학술지 ‘유방암 연구(Breast Cancer Research)’ 1월호에 게재됐다.<br/>　정준 유방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 시행 전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FDG-PET 검사가 유방암의 특성과 재발 가능성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생물학적 정보를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질환 진행 단계를 살피는데만 사용했던 FDG-PET 검사가 유방암의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특징을 가늠케 해주는 기반(플랫폼) 검사로써 유방암의 포도당 대사증가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2.txt

제목: [와우! 과학] ‘로봇 의수’로 암벽 등반도…상상이 현실되다  
날짜: 20150223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1122018  
본문: 이제는 고전이 된 ‘600만 불의 사나이’에는 기계로 신체의 일부를 대체해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식의 설정은 영화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로봇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눈부시다고 하지만, 인간의 팔다리처럼 다양하고 정교한 동작을 따라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로봇 공학자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로봇 의수의 발달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지 모른다.<br/>2014년, 미 FDA는 로봇 의수인 데카 암 시스템(DEKA Arm System)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로봇 의수는 실제 사람 팔만큼 정교한 동작을 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방울 토마토를 손가락으로 잡는 것부터,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시는 일까지 가능한 뛰어난 로봇 의수이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래에는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질 수 있다.<br/>최근 데카 암 시스템은 데카 어드밴스드 로보틱 암(DEKA Advanced Robotic Arm)의 공개 영상에서 이 로봇 의수를 이용해서 암벽을 등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용자는 로봇 의수를 마치 진짜 팔처럼 움직이면서 암벽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br/>이 로봇 의수의 개발을 지원한 것은 미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으로 본래 목적은 전쟁 중 팔을 잃은 상이용사들의 재활을 돕는 것이다. 이 노력은 결실을 보아 작년에 의료용 의수로 승인될 수 있었다. 이 로봇 팔은 일상생활을 도울 힘과 사용자의 의지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상이용사는 물론 여러 가지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br/>사실 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로봇 팔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로봇 의수는 EMG(electromyogram) 전극을 이용해 착용자의 남은 근육의 신호를 받아들여 사용자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정교한 센서 시스템이 있어 달걀같이 깨지기 쉬운 물체도 안전하고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현재의 성능도 놀랍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 빠르고 강하며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의수가 개발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다.<br/>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 의수로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한 일상생활을 넘어 암벽 등반 같은 극한 스포츠나 정교한 손동작을 해야 하는 직업으로 영역을 넓힐 수도 있다.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고성능 로봇 의수가 적당한 가격에 대중화될 수 있다면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할지 모른다.<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3.txt

제목: “생각하는 존재로 아름다운 행성에 사는 모험 누렸다”  
날짜: 20150223  
기자: 오상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0533761  
본문: “<span class='quot0'>솔직히 두렵지만 어느 때보다 살아 있다고 느낀다.</span>”<br/><br/><br/>미국의 존경받는 의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올리버 색스(82)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뒤 신문에 기고한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br/><br/><br/>컬럼비아대 의대 임상심리학 석좌 교수인 색스는 지난 19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나의 삶’이란 글에서 9년 전 수술받았던 안암(眼癌)이 간으로 전이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br/><br/><br/>그는 불과 몇 주 전 이 같은 선고를 받았다며 안암이 전이될 확률은 2%로 매우 희박했는데 불행하게도 자신이 그렇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편지를 쓴 동기는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쓴 단편 자서전. 색스는 자신이 존경하는 흄이 생전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글로 인생을 정리한 데 착안해 편지를 썼다고 적었다. <br/><br/><br/>이어 “(내가) 흄보다 훨씬 오래 살며 많은 것을 이뤘지만, 흄과 결정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난다”고 고백했다. <br/><br/><br/>색스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우정을 깊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글을 더 많이 쓰고, 힘이 남아 있으면 여행하고, 새로운 깊이의 사고와 통찰력을 기르려 한다”며 “이제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일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결국 나는 인식이 있는 존재, 생각을 하는 동물로 이 아름다운 행성에 살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특혜와 모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br/><br/><br/><br/><br/>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4.txt

제목: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심하면 사망 ‘매년 200만명이 앓는 흔한 질환’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632046  
본문: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br/><br/>17일 온라인상에는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이란 키워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코노미 증후군은 장시간 항공 여행 후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흔히 비행기의 좁은 좌석인 이코노미석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때 생긴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br/><br/>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증상으로는 요통과 발의 통증, 호흡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발과 종아리가 부어오르고 하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정맥에 혈전이 형성된다. 최악의 경우 발에 발생한 혈전이 폐로 흘러들어가 폐혈관을 막아 폐색전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럴 경우 호흡 곤란과 혈담, 흉통 등을 호소하며 수 시간내에 쇼크사에 이르기도 한다.<br/><br/>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은 매년 약 200만명이 앓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그 중 60만명이 폐색전증으로 발전되며 약 10만명 가량이 합병증으로 사망한다.<br/><br/>한편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은 비행기 좌석에서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 등으로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br/><br/>한 혈관외과 의사는 “<span class='quot0'>실제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생 위험이 2.8배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계절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span>”고 말했다. 비만인 사람과 암 환자는 특히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에 주의해야 한다.<br/><br/>한편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2시간에 한 번씩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br/><br/>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br/><br/>사진 = 서울신문DB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5.txt

제목: 이름 모를 질병 잠비아 소녀 한국서 ‘빛’  
날짜: 20150217  
기자: 최선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018920  
본문: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잠비아에서 태어난 찬사 멜리사(14)는 두 살 무렵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을 앓았다. 왼쪽 눈 주변 피부가 흘러내려 12세 무렵에는 왼쪽 눈에 백내장이 진행됐다. 왼쪽 발도 함께 부어올라 신발도 신을 수 없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픈 몸보다 더 서러운 것은 친구들이 멜리사를 괴롭히고 따돌린다는 사실이었다. 잠비아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멜리사는 절망 속에서 살았다. 그러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진행하는 희귀질환 치료 프로그램 대상으로 뽑히면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다.<br/><br/><br/>16일 기아대책에 따르면 멜리사의 치료를 맡은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김정태 교수는 ‘신경섬유종증’ 진단을 내렸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종양이 눈 주변을 감싸고 있어 가만히 두면 안구 적출을 해야 하고 암으로 변형될 수 있던 상황</span>”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멜리사는 10시간 넘는 대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안구 적출은 피했고, 종양도 제거됐다. 허리 피부를 떼 제거된 부위를 덮는 피부 이식수술도 성공적이었다.<br/><br/><br/>의식을 찾은 멜리사는 할머니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어 고맙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 퇴원을 앞둔 멜리사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며 집에 갈 생각에 들떠 있다. <br/><br/><br/>수술비 중 50%는 병원에서 부담했지만, 남은 치료비와 항공료 2000여만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모자란 비용은 기아대책 긴급의료지원기금으로 충당하고, 다시 모금을 통해 기금이 쌓이면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을 지원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6.txt

제목: 에이즈, 아픔보다 더 아픈 편견  
날짜: 20150216  
기자: 강국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1758116  
본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이른바 에이즈는 곧 ‘동성애’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죽음과 죄악이라는 단어가 공식처럼 뒤따르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에이즈는 거부감과 터부를 상징하는 낙인이라는 의미 말고도 21세기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의학 ‘미신’이 횡행하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다. 사실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에이즈는 간염이나 고혈압과 다를 게 없다. 모두 질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항바이러스 치료만 잘 받으면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본다.<br/><br/>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신체 면역체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손상돼 생기는 질환을 가리킨다. HIV 감염은 성(性) 정체성에 관계없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혈액, 모유 수유 등을 통해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명확한 범주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평생 동안 금욕하기, 둘째, 이성애든 동성애든 평생 동안 상호 유일한 성적 배우자와의 성행위, 셋째, 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 넷째, 콘돔이나 페미돔을 사용하는 모든 성행위 등이다. 이성애나 동성애는 적어도 ‘안전한 성생활’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br/><br/>HIV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1년 6월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치명적인 폐렴 환자 다섯명을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남성 동성애자들이었다. 초기 발표된 사례가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보니 에이즈가 동성애로 인한 성병이라는 뿌리 깊은 선입견을 얻게 됐다. 하지만 사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 환자다. 원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아프리카 원주민 사냥꾼들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를 사냥한 후 해체 작업을 하다 노출됐다는 것이다.<br/><br/>에이즈는 악수나 포옹, 키스 등으로는 감염될 수 없다. 물론 구강에 상처가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 초기에는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 때문에 전염된다는 식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로 최초에는 수혈 등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후 수혈용 혈액에 대해 HIV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일회용으로만 쓰다 보니 혈액을 통한 감염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이 다시 오해를 키운다.<br/><br/>에이즈 증상은 무증상부터 기회감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회감염이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이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HIV 감염 초기에는 체중 감소, 발열, 전신 피로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해 말기가 되면 면역 체계가 손상돼 정상인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감염과 악성 종양이 발생한다. 대체로 1단계는 급성 HIV 증후군, 2단계는 무증상기, 3단계는 증상기로 구분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기가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개 8~10년이나 된다는 점이다. 물론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에이즈 치료제가 아직 완치제는 아니며 HIV의 증식을 억제해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이다. 약물에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HIV 치료 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칵테일 요법을 쓴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는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평생 동안 먹어야 하는 약으로 복용법을 95% 이상 정확히 지켜 복용하기만 한다면 HIV 감염인의 수명을 30년 이상 연장시켜 에이즈를 만성질환으로 변화시킨다. 예전에는 먹어야 하는 약도 많고 부작용도 심했지만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 한 알 투약이 가능한 복합제도 있다.<br/><br/>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크다는 것은 보건당국도 고민스러워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잘못된 상식이 질병 예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WHO는 해마다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지정해 에이즈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문답으로 알아보는 에이즈 상식’은 특히 HIV와 에이즈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HIV 감염인이란 HIV에 걸린 모든 사람을 말하며 이 중에서 질병 진행으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는 것이다.<br/><br/>HIV 감염인과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걸리지 않는다.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HIV 감염인과 손을 잡거나 함께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HIV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에 걸리지 않는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도 아니다.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에 불과하다. <br/><br/>HIV 감염 여부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감염을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이를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에이즈에 대해 홍보 및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을 위해 익명인 검사를 활성화하고 있다. 감염인이 발생했을 경우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과 상담 사업 등도 하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에이즈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질환 그 자체보다도 ‘편견과 비난’이 아닐까 싶다. 2012년 기준 국내 HIV, AIDS 감염자는 모두 7788명이었다.<br/><br/>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7.txt

제목: [식품첨가물 알고 먹자] 식용유  
날짜: 20150216  
기자: 이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1803871  
본문: 명절이면 음식 준비로 집집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메밀전, 산적, 빈대떡에 이르기까지 식용유가 들어가지 않은 명절 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유독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기름 사랑은 유별나다. 하지만 식용유 역시 식품첨가물을 이용한 가공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br/><br/>우리가 흔히 먹는 식용유, 즉 대두유는 참기름을 짜내듯 압착 방식으로 생산한 기름이 아니다. 압착 방식으로는 콩에서 많은 양의 기름을 뽑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헥산이라는 유기용매를 사용해 기름 성분만 뽑아내고 다시 여러 화학공정을 거쳐 정제해 식용유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콩에 든 필수영양소는 대부분 사라지고 순수 기름만 남는다. 화학 처리에 사용하는 헥산은 석유에서 얻는 휘발성 액체다. 대부분 기화돼 사라지므로 설령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유에 헥산이 들었더라도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한 수준이다. 다만 산패가 잘되는 기름의 특성상 산화방지제가 들어가 ‘건강한’ 기름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br/><br/>대두유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팜유는 보존성이 우수하고 맛이 담백한 데다 공급이 쉽고 비용이 저렴해 감자칩, 비스킷, 시리얼, 조리 식품, 빵류, 치킨, 라면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래 팜유에는 비타민E와 카로틴 성분이 풍부하지만 공장에서의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이런 비타민 성분이 파괴된다. 게다가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버터를 대신해 바삭한 식감을 낼 때 사용하는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었다. 몸에 나쁜 대표적인 지방이다.<br/><br/>가공식품에 많이 든 트랜스 지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가공유지에 들어 있어 간식 섭취만 조절해도 쉽게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br/><br/>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으로 생기는 트랜스 지방의 양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은 양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트랜스 지방의 하루 섭취량은 밥숟가락으로 1큰술 정도인 2.2g이다. 볶음밥이나 오므라이스를 만들 때는 마가린을 사용하지 않거나 1큰술 반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게 좋다. 또 기름 재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할수록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br/><br/>좀 더 건강한 기름을 먹고 싶다면 재래식으로 짜낸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적당하다. 재래식으로 짜낸 기름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 있고 참깨에만 존재하는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어 다른 유지류에 비해 산패가 천천히 일어난다. 이 두 가지 성분 덕에 저장성이 좋으니 굳이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방지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 다만 참깨나 들깨를 볶아 압축해 만드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볶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다.<br/><br/>벤조피렌은 내분비계장애 추정 물질이면서 발암 가능 물질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 발암 물질’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벤조피렌에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br/><br/>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유기물질이 불안정하게 연소할 때 나온다. 참깨나 들깨를 가열하는 시간이 길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벤조피렌이 잘 생성된다.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면 벤조피렌을 줄일 수 있지만 참기름과 들기름이 고소할수록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판매량도 생각해야 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고민이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색이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일수록 오래 볶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벤조피렌의 양은 워낙 미량이어서 소비자가 기름의 색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벤조피렌 함량이 2.0ppd를 넘으면 유통을 중지하고 거둬들이고 있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참기름 제조 공장에서 생성되는 벤조피렌을 반으로 줄이는 저감화 장치를 개발했다.<br/><br/>유지류는 산소를 만나 산패하는 과정에서 몸에 나쁜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하다. 기름통은 잘 밀봉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고온과 고열은 산패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 둬야 한다. 또 물이나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 비율로 섞어 흔들어 놓고 쓰면 더 오랫동안 산패 없이 보관할 수 있다.<br/><br/>가정에서 기름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가급적 한번 사용 후 폐기하는 게 좋다. 재보관할 때는 망으로 찌꺼기를 걸러내고, 다시 사용하려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기름의 색깔이 짙어지고 점도가 높아지거나 튀김 시 백색 거품이 일어 튀김 솥 면적의 반을 넘으면 기름의 질이 떨어진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새 기름과 재활용 기름을 섞어 사용해도 안 된다.<br/><br/>다양한 기름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도 기름을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튀김에 사용하면 연기가 나면서 맛도 변하고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된다. 따라서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비빔밥, 비빔국수 등에 사용하는 게 좋다. 들기름 역시 발연점이 낮아 전 등을 부치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 무침 요리에 참기름 대신 소량을 넣는다. 볶음 등의 조리를 할 때는 대두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을 쓰는 게 좋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8.txt

제목: [금융특집] 동양생명 꿈나무 자녀사랑 보험  
날짜: 20150216  
기자: 신융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1729246  
본문: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 자녀사랑 보험’은 생명보험사들 가운데 최초로 100세 보장형을 추가한 대표적인 어린이보험이다. 암과 2대 질환, 어린이 중대질병(CI)뿐 아니라 일반 질병과 재해를 폭넓게 보장한다.<br/><br/>이 상품은 연령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30세 이전에는 디스크 수술, 입원비를 포함한 어린이·청소년 질환, 컴퓨터 관련 질환을 집중 보장하고, 30세 이후부터는 성인 주요 질환과 남녀 생활질환을 보장한다. 경제활동기에 질병이 발생하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0~2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뿐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도 갱신 없이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으로 쓸 수 있다.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할 경우 종신보장서비스를 활용하면 만기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br/><br/>꿈나무납입면제 특약도 신설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50% 이상 장해 시 해당 주보험과 특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자녀 추가 가입 시 기본보험료를 0.5~2.0% 할인해 준다.<br/><b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49.txt

제목: [금융특집] 한화생명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  
날짜: 20150216  
기자: 백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1733575  
본문: 한화생명은 은퇴(60세)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장해 시 유가족에게 월급처럼 매달 급여금을 지급하는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보장액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br/><br/>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들면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에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br/><br/>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0.txt

제목: 암 투병 주인 찾으러 4km 떨어진 병원 찾아간 견공  
날짜: 2015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1511810  
본문: 병원에 있는 주인을 찾아 나선 견공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br/><br/>13일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의 미니어처 슈나우저 ‘시시’(Sissy)란 이름의 견공이 암 수술로 입원 중인 주인 낸시 프랭크(64)을 보기 위해 20블록(약 4km) 떨어진 머시 메디컬센터를 찾은 사연을 보도했다.<br/><br/><br/><br/><br/><br/>2주 전 시시의 반려인 낸시 프랭크가 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주인이 정말 보고 싶은 나머지 집 뒤뜰에서 도망쳐 그녀를 찾아 나섰던 것. 낸시의 집과 머시 메디컬센터와의 거리는 무려 20블록으로 4km에 해당하는 먼 거리다.<br/><br/>CCTV에 포착된 영상에는 병원에 도착한 시시가 자동문 두 개를 지나 병원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과 냄새를 맡으며 낸시를 찾아 헤매는 놀라운 모습이 담겨 있다.<br/><br/>같은 시각 집에 있던 남편 데일 프랭크(66)는 낸시를 찾으러 시시가 가출(?)한 사실도 모른 채 시시가 집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인근 동물보호소와 경찰에 신고한다.<br/><br/>시시가 집을 나온 지 4시간 후, 머시 메디컨센터 경비담당 사만다 콘래드는 병원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시시를 발견하고 목줄에 쓰여 있는 데일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다. 사연을 전해 들은 병원 측은 암 투병 중인 주인이 보고 싶어 무려 4km를 찾아온 시시에게 낸시의 병문안(?)을 허락한다. 시시는 낸시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다.<br/><br/>한편 남편 데일 프랭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pan class='quot0'>시시는 자신의 엄마(낸시)를 찾아 병원을 찾는 임무는 성공했지만 그녀가 있는 층수의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다</span>”고 전했다. 병원에서 투병 중인 낸시 프랭크는 “<span class='quot0'>제 충직한 강아지와 잠깐 시간을 보냈던 게 큰 힘이 됐어요</span>”라고 소감을 밝혔다.<br/><br/>사진·영상= TrendingNow10 youtube<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1.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고구마의 재발견  
날짜: 2015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5140642  
본문: 뿌리와 줄기, 잎 등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고구마는 영양이 탁월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곡물이 자라기 힘든 토양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재해에도 강하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높은 편이다. 고구마는 전 세계 117개국에서 1억 700만t이 생산되지만 0.2%만 수출될 정도로 국제 무역시장에서 낯선 식품이다. 그만큼 생산국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쌀이나 보리와 같이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이 골고루 들어 있는 준(準)완전식품이다. <br/><br/>고구마의 원산지는 중미의 유카탄 반도와 남미 베네수엘라 오리노코강 지역이다. 15세기 말 콜럼버스에 의해 유럽과 스페인으로, 다시 희망봉과 인도양을 거쳐 동양으로 전파됐다. 우리나라에는 1763년 일본에 조선통신정사로 갔던 조엄이 쓰시마에서 들여온 것이 최초다. 이처럼 ‘구황 작물’로 잘 알려진 고구마가 최근에 ‘슈퍼 푸드’로 진화하고 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순 먹거리가 아니라 건강과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식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다. 소비량이 1990년까지 급감하다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이미지가 바뀌면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고구마의 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0년 4.9㎏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10가구 중 4가구는 고구마를 식사 대용으로 먹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경향은 중소 도시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br/><br/>요즘 나오는 고구마는 화려하다. 칙칙한 색깔의 고구마는 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농촌진흥청은 수년 전부터 일반 고구마에 주황색 색소를 입히는 작업을 해 왔다. 그 결과 주목할 만한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다. 주황색 색소는 항암 식품을 의미한다. 주황빛을 띠는 당근이 항암 식품으로 평가받는 것은 베타카로틴이라는?색소 때문이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유해한 활성 산소를 억제해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속 색깔이 주황색인 고구마도 이런 효능을 갖고 있다.<br/><br/>고구마 색깔 입히기에는 자색을 빼놓을 수 없다. 자색 고구마는 시각적 매력뿐 아니라 가공 식품으로 활용도가 높다. 기능성도 뛰어나다. 고구마에 함유된 자색 색소 성분은 안토시아닌으로 활성산소 제거와 생체 조절 기능에 도움을 준다. 안토시아닌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흡연율이 높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낮다. 이를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부른다. 이런 역설이 통할 수 있는 이유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레드 와인의 안토시아닌 효과를 꼽는다. 자색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적포도의 색소 성분과 비슷했다.<br/><br/>고구마는 당뇨와 비만 예방에도 좋다. ‘낮은 혈당지수’ 식품의 대표 주자다. 혈당지수란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한 후 체내 혈당이 증가되는 정도를 1~100으로 분류한 것이다.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해 인슐린이 다량 분비된다. 반면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서서히 분해되고 섭취돼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 또 위에는 포만감을 줘 비만 억제 효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55 이하면 저저수 식품으로 분류된다. 고구마는 44다.<br/><br/>고구마는 잎이나 잎자루, 줄기 끝 새순도 채소로 이용한다. 고구마 잎에는 각종 비타민과 철, 칼슘과 같은 무기성분 외에 클로로젠닉산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많다.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기후와 생태계 변화, 환경 오염 등으로 지구가 위험해지거나 미래에 우주 시대가 새롭게 열릴 때 가장 유용한 식량 작물로 고구마를 선정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 각종 비타민, 무기질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로 버릴 것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br/><br/>고구마의 식물성 섬유는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또 고구마의 아마이드 성분은 장내 세균의 발효를 돕기 때문에 가스 방출이 많아지게 한다. 한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염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때 나트륨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칼륨 함량이 높은 고구마다. 염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혈액 중에 늘어난 염화나트륨이 세포 내에 침입해 칼륨을 쫓아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세포가 약해져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 신장 세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장 활동이 지장을 받아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혈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동시에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br/><br/>최근 소비자들은 ‘호박 고구마’와 ‘꿀 고구마’ 등 당도가 높은 고구마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영양학자와 의학자들은 당도가 높은 식품에 위험 경고를 내리고 있다. 고구마를 찌면 단맛이 나는 것은 생고구마에 들어 있던 전분 상태의 맛이 아니라 전분이 당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맛이다. 지나치게 높은 단맛을 가진 고구마는 우선 먹기에는 좋으나 많이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당도가 보장된다면 색깔이 주황색에서 자색을 띠는 것이 건강에 좋다. 시중에 인기가 많은 호박 고구마와 꿀 고구마는 황색이나 엷은 황색을 띠고 있는 반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다호미’와 ‘풍원미’는 주황색으로 베타카로틴을 높게 함유하고 있다. <br/><br/>이준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연구관<br/><br/>■ 문의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2.txt

제목: 흡연의 해악  
날짜: 20150213  
기자: 주현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5057003  
본문: 폐암 등 흡연이 유발하는 질병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미국 암협회 등 5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는 기존에 알려진 폐암 등 21종의 질병 외에도 감염, 신부전, 호흡기질환, 간경화, 혈액순환 부진으로 인한 위장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이 21종에서 5종이 추가된 26종으로 늘어난 것이다.<br/><br/><br/>연구는 2000~2011년 사이 55세 이상 미국인 약 100만명의 건강 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해 이뤄졌다. 실험 대상 중 사망자를 상대로 분석한 결과 흡연자들이 감염, 신부전,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해 죽을 확률은 비흡연자들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br/><br/><br/>간경화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3배가량, 혈액순환 부진으로 인한 희귀병 중 하나인 장허혈(腸虛血)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병들은 이전에는 흡연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br/><br/><br/>연구는 또 흡연이 유방암 및 전립선암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여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 남성 흡연자는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 위험이 40% 각각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br/><br/><br/>지금까지 흡연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은 폐암, 식도암, 위장암, 결장암, 간암, 췌장암, 후두암, 방광암, 신장암, 자궁경부암, 구순암, 구강암 등 12종류의 암과 당뇨병, 심장병, 중풍, 폐색성 동맥경화증, 대동맥류, 만성폐질환, 폐렴, 독감, 폐결핵 등 모두 21가지였다.<br/><br/><br/>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3.txt

제목: [포토] “이렇게 잘생긴 프로골퍼가 있었나?”…조쉬 더하멜, 그린 위 빛나는 외모  
날짜: 2015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4422677  
본문: 할리우드 배우 조쉬 더하멜(43)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3M 연예인 자선 이벤트 행사에 참가, 17번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공을 쳐다보고 있다. 이 행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 전 열린 행사다. <br/>사진 ⓒAFPBBNews=News1<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4.txt

제목: 한국어 포함 언어가 증명하다…인간은 여전히 ‘낙천적’  
날짜: 20150210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0707671  
본문: 세상에는 아직도 어두운 면 보다 밝은 면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br/>최근 미국과 호주 공동연구팀이 세계에서 쓰이는 주요 언어들의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아직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브라질·포르투갈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을 조사대상에 올린 이번 연구결과는 각 언어당 1만개 씩의 단어들을 추려내 그 뜻에 따라 1점-9점까지 긍정적, 부정적 점수를 산정해 이루어졌다.<br/>예를들면 이렇다. 죽음, 암, 전쟁, 우울증 같은 부정적 단어는 낮은 점수를, 행복, 웃음, 사랑 등의 긍정적 단어에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연구팀은 이를 신문, 책, 영화, 방송 자막, 노래 가사, 인터넷 검색, SNS등에 쓰인 언어에서 추출한 빅데이터로 분석했다.<br/>그 결과 연구팀이 논문의 가설로 세운 소위 '폴리아나 원리'가 사실 임이 입증됐다. 영어 사전에도 등재돼 있던 폴리아나(Pollyanna)는 미국 아동 문학 작가인 엘리너 호지만 포터의 작품(폴리아나)에서 유래한 말로 사전적 뜻은 낙천주의자를 의미한다. 폴리아나 원리는 곧 일반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나쁜 환경에 처해있어도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행복을 느끼려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다.<br/>연구에 참여한 호주 아들레이드 대학 루이스 미첼 박사는 "사람들은 '결혼'(긍정) 이 '이혼'(부정) 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 묶이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br/>이어 "연구 대상에 오른 단어들의 70-88%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면서 "사람들이 부정보다 긍정을 보려는 행동이 언어에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br/>이번 연구 결과는 미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최신호에 실렸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5.txt

제목: 암흑물질, 우리 은하에도 존재…증거 발견  
날짜: 20150210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0657962  
본문: 우리 은하 중심에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br/>이 연구는 암흑물질이 우리 주변은 물론 우리와 은하 중심 사이까지 존재하고 있을 보여준다고 미국 과학매체 사이언스데일리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과는 암흑물질의 본질에 관한 탐구에 있어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br/>우리 은하 밖에서는 이미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태양계가 존재하는 우리 은하에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는 우리 은하에 속하는 지구의 위치에서는 정밀성이 있어야 하는 가스와 별의 회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br/>연구를 이끈 스웨덴 스톡홀름대의 미구엘 파토 박사(물리학과)는 “<span class='quot0'>새 연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직접 관측한 증거를 얻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우리 은하에 있는 가스와 별의 움직임에 관한 측정으로 가장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를 우리 은하에 발광물질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예상 측정한 회전속도와 비교했다</span>”고 말했다.<br/>또 “관측된 회전속도는 우리 주변은 물론 우리와 은하 중심 사이까지 많은 양의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암흑물질은 원자로 구성된 우주의 모든 물질(눈에 보이는 물질)을 합한 것보다 5배 더 많다. 암흑물질의 존재는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가스와 별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총 질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1970년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br/>파토 박사는 “<span class='quot0'>우리의 관측 방법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우리 은하의 암흑물질 분포를 측정할 향후 천문학적인 관측을 가능하게 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이는 우리 은하의 구조와 진화에 관한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암흑물질 입자를 찾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에 더 강한 예측을 촉발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어 “따라서 이 연구는 암흑물질의 본질에 관한 탐구에 있어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갈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 온라인판 9일 자에 게재됐다.<br/>사진=NASA(연구팀이 개발한 측정법으로 우리 은하 원반을 분석한 이미지. 가스와 별의 회전속도를 우리 태양과 비교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6.txt

제목: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손실 年120조  
날짜: 2015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0958773  
본문: 자살을 비롯해 각종 손상과 중독 등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 해 1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비용은 2008년 97조 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 6532억원으로 4년 만에 24.2% 증가했다. 이는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등 간접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8%에 달하는 규모다.<br/><br/>전체 질병을 20개 항목으로 나눠 분류한 가운데 ‘손상 및 중독’이 16.2%(19조 540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상 및 중독에는 자살을 비롯해 외상 사고, 약물·생물학적 물질·비의학용 물질에 의한 중독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6조 4769억원로 집계됐다.<br/><br/>암 등 신생물(종양)로 인한 비용은 15조 3382억원으로 전체의 12.7%로 조사됐다. 이 외에 사회적 비용이 큰 질병은 순환기계 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0%), 정신 및 행동장애(6.9%) 등으로 나타났다.<br/><br/>남성의 질병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전체의 60.5%를 차지하면서 여성(39.5%)보다 1.5배 정도 높았다. 다만 여성에 의한 비용은 2008년 전체의 37.1%에서 2009년 38.3%, 2010년 39.2%, 2011년 39.0%, 2012년 39.5%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6.8%, 50대 23.5%, 40대 20.6%, 30대 13.1%, 20대 6.9%, 10대 이하 9.1%로 집계됐다.<br/><br/>연구 책임자인 현경래 박사는 “<span class='quot0'>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질병은 물론 자살 및 노인성질환 등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7.txt

제목: 암 진단과 동시에 치료 가능한 입자 개발  
날짜: 2015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0638727  
본문: 　경희대는 이 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악안면생체공학교실 이상천 교수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익찬 박사팀과 함께 암을 진단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나노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br/>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입자는 암 조직 근처에서 기체 거품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항암제를 방출하는 탄산칼슘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기체 거품은 초음파 조영제 역할을 해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항암제는 암 조직을 제거하는 약물이다.<br/>　현재 상용화된 기체 거품은 크기가 커 암 조직 속으로 침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초음파 조영이 필요한 다양한 암 진단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br/>　이상천 교수는 “<span class='quot0'>다양한 암과 염증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기술</span>”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나노 분야 국제 학술지(ACS Nano) 1월 온라인판에 실렸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8.txt

제목: 요르단 IS 공습 “미국인 여성 인질 사망” IS 주장..사진 공개 보니 건물만?  
날짜: 2015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439996  
본문: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요르단 군은 ‘순교자 마즈’라는 작전명 하에 전투기 30대를 동원, 시리아 내 IS 군사 훈련 시설과 무기고를 공습했다. IS에 대한 공습은 시리아 동부 락까와 유전지대 데이르에조르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요르단 군은 “<span class='quot0'>악랄한 행동을 저지른 IS를 처단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공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span>”고 설명했다. 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이번 공습으로 알카사스베 중위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며 IS를 괴멸시키겠다</span>”고 강조했다.<br/><br/>요르단 국영 방송은 IS 공습에 나선 전투기가 발진하는 장면과 함께 사람들이 공습에 사용할 포탄에 이슬람 경전 꾸란의 경구와 반(反)IS 구호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실제 공습 장면과 함께 전투기들이 알카사스베 중위의 고향 마을 상공을 지나면서 경의를 표한 뒤 수도 암만으로 무사 귀환하는 장면도 내보냈다.<br/><br/>한편 IS는 6일 미국인 여자 인질이 요르단의 시리아 북부 도시 라카 외곽 공습에 나섰을 때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IS는 공습 지역의 3층 건물이 부서진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인 20대 여성 인질이 해당 건물 안에 있어 사망했다고 밝혔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59.txt

제목: 쏟아지는 ‘핫이슈’ 나도 논쟁해 볼까  
날짜: 20150207  
기자: 함혜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4817420  
본문: 당신의 선택은? 기업윤리·과학기술·글로벌 이슈/리사 뉴턴·일레인 잉글하트 등 엮음/양철북/1,2,3권 각각 696~824쪽/각 권 3만원<br/><br/>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난해한 문제들이 주변에 산적해 있다.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한다는데 과연 과학적 증거는 충분한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부터 선진국의 노령화 추세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세계의 도시화는 바람직한 건지, 우리는 새로운 냉전기에 들어섰는지 등의 글로벌 이슈까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고설켰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 않는 한은 시대가 당면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관점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하다. <br/><br/>최근 번역 출간된 ‘당신의 선택은?’ 시리즈는 당면한 과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글을 비교해 보여 줌으로써 각자의 관점을 세우는 데 길라잡이로 삼을 만하다. ‘편(side)을 정하라’는 의미의 ‘Taking Sides’ 시리즈는 각 분야의 최신 이슈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글을 비교해 읽으면서 각자의 의견을 정립하도록 도와준다. ‘맥그로힐 에듀케이션즈’가 기획한 이 연작물들은 세심하게 선별한 주요 이슈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견해를 가진 두 저자의 입장을 소개하고 논점을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 이슈에 대한 배경지식과 추가 읽을거리도 덧붙였다. 미국 내에선 이미 50여종이 연작물로 출간돼 인기 있는 토론용 교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출판사 측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기업윤리, 과학기술, 글로벌 이슈 등의 주제를 다룬 세 권을 우선 번역해 출간했다. ‘기업윤리’는 2012년 발간한 열두 번째 판본을, ‘과학기술’은 2010년 발간한 아홉 번째 판본, ‘글로벌 이슈’는 2010년 발간한 여섯 번째 판본을 번역한 것이다. <br/><br/>책은 고전적 쟁점은 물론 첨예한 최신 이슈에 대해 당대 전문가들이 내놓는 논거와 상반된 결론을 따라 사유하고 토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고안됐다. 기업윤리에서는 경영윤리 분야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가지의 주제를 선별해 상반된 논거를 펴는 글 40편을 수록했다. 예컨대 ‘자본주의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애덤 스미스의 ‘국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2월 발표한 ‘공산당 선언’으로 맞불을 놓는다. 애덤 스미스는 “<span class='quot0'>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생긴다</span>”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span class='quot1'>운이 좋거나 상속 덕분에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노예 수준으로 전락시킬 것</span>”이라고 받아친다. 2008년 경제 붕괴의 책임은 금융산업에 있는가. 존 보글과 로이드 블랭크파인은 각각 금융인들의 탐욕과 금융 분야의 위험 관리에 주요한 경제 위기 책임을 지우며 상반된 입장을 펼친다. <br/><br/>과학기술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자극하고 배양하기 위해 많은 논쟁을 야기한 20가지 이슈를 고찰한다. 과학과 연구의 본질, 과학과 사회의 관계, 기술의 이용, 기술 진보의 잠재적 위협과 관련한 질문들을 컴퓨터, 우주과학, 생물학, 환경보호주의, 법 집행, 공중보건을 중심으로 다룬다. 인간의 세포 복제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호주 멜버른 소재 왕립아동병원부설 머독연구소의 줄리언 사불레스쿠는 이식용 조직의 원료로서 배아를 만들기 위한 인간 복제는 용인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밴 젠드는 배아줄기세포의 복제는 윤리적으로도 옹호할 수 없으며 성체줄기세포 분야에서 일어난 최근의 발전 때문에라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r/><br/>글로벌 이슈 편에서는 세계화라는 현상을 맞은 새 시대, 9·11테러, 최근의 경제 위기 등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고 나서 인구 문제, 자원과 환경 문제, 세계적인 경제 문제와 전염병, 새로운 냉전 환경, 중국의 비상에 대해 살핀다. <br/><br/>하나의 쟁점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는 방법은 고대의 학문 방법인 문답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려낸 주제들이어서 우리와는 동떨어진 문제들도 있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넓고 낮게 접근한다는 방식은 아쉽다. 하지만 관점 선택의 논거와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 데는 유용할 듯하다. <br/><br/>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0.txt

제목: ‘인간의 오랜 친구’ 고양이 유전자로 인간질병 치료 열쇠 찾는다  
날짜: 2015020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0443379  
본문: 개와 함께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인 고양이가 이번에는 우리에게 의학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다.<br/>미국 미주리대 연구팀은 고양이 유전자가 인간이 걸리는 당뇨나 천식 등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단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양이는 개보다 인간에 가까운 질병이 발병하고 거기에는 어떤 상호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br/>지금까지 진행된 애완동물 DNA 분석은 개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2005년까지는 오로지 개 DNA 분석만 이뤄졌다.<br/>하지만 이제 연구팀은 고양이의 유전자야말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 고양이의 DNA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당뇨나 천식 등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br/>연구를 위해 이들은 ‘99 라이브스’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다수의 집 고양이의 혈액을 수집해 DNA를 분석했다. 서로 다른 종의 고양이로부터 채취한 2만 개의 게놈에서 털과 눈동자 색상,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br/>현재 러시아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 센터에 머물고 있는 연구팀 유전학자 스티븐 오브라이언 박사는 가디언 일요판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진행한 애완동물 유전자 연구는 특히 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 결과 특정 견종이 암에 걸리기 쉽다는 것도 밝힐 수 있었지만,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유전 연구는 가볍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었다</span>”고 말했다.<br/>또한 그는 “<span class='quot0'>고양이가 걸리는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 인간도 발병하는 경우가 상당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 예로 당뇨나 천식 같은 질병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데 고양이는 앞으로 개 이상으로 우리 건강을 좌우할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span>”고 밝혔다.<br/>예를 들면 연구팀이 시행하는 연구 중 신부전을 일으키는 다낭신이라는 병의 경우 고양이와 인간의 발병률이 비슷하다고 한다.<br/>연구팀은 고양이 유전자를 분석함으로써 이 병의 확산 속도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br/>또 이들은 2014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세 고양이에 관한 고양이 전체 게놈 분석결과를 게재했다.<br/>이 중 한마리는 아비시니안이라는 묘종으로 2007년 게놈 분석이 이뤄졌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유전자의 60% 정도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br/>연구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고양이와 유럽 출신 고양이의 유전자 분석도 진행했다. 고양이 유전자는 진화상 변화가 거의 없어 유전학적으로 관심이 높다.<br/>현재 연구팀은 이런 고양이와 인간의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이종 간에 비슷한 질병에 걸리는 이유와 이를 치료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사진=ⓒ포토리아(아비시니안 고양이)<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1.txt

제목: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효과 발표… ‘암세포만 공격’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443729  
본문: 일본의 전이·재발암 치료병원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지난달 24일 게이오 프라자호텔에서 ‘모든 암에 적용할 수 있는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결과’를 발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r/><br/>아베종양내과 측에 따르면,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면역요법의 일종으로, 기존의 단순한 수지상세포 치료에서 항암작용을 더욱 강화시킨 형태이다. 면역세포의 사령관인 수지상세포는 암세포를 발견하고 살상하는 킬러T세포에게 암의 표시인 항원을 전달해,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암치료에 있어 수지상세포의 역할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이 같은 수지상세포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 바로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인데, 기존에는 수지상세포를 활용해 암치료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수지상세포가 림프계와 피부, 코, 폐, 장기 등에 소량 존재하고, 전체 면역세포의 1% 이하, 정맥혈액의 0.1% 미만이 있기 때문에 소량채혈로는 치료 자체가 힘들었던 것. <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를 활용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분채혈에 약 5,000ml가 필요했고 2~3시간에 걸친 채혈과정이 필요한 만큼 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또한 1~2 종류의 펩타이드(암항원)만을 사용하고 WT-1도 단쇄(單鎖) 펩타이드 일부만 사용해 치료효과가 떨어졌다</span>”고 지적했다. <br/><br/>아베종양내과의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이 같은 기존 치료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한 모습이다. 아베 이사장에 의하면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약 25ml 소량채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후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를 4~5개 추가 사용했다. <br/><br/>이때 사용한 펩타이드는 장쇄(長鎖)라 항암 작용기간이 6개월 정도로 길고, 써바이빈을 비롯 MAGE-A3, NY-ESO-1, GV1001, NEW WT-1, MUC1, CEA, CA125 등 다양하다. 이 병원은 이외에도 암세포 인지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항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암세포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같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같은 암세포라 해도 표면에 제시되는 항원이 다르므로 이 같은 다양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원에 일치되는 킬러T세포가 필요하고, 킬러T세포를 지원하는 헬퍼T세포도 활성화시켜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br/>다가 신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치료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치료 등 표준치료와 병행한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진행한 결과 74.4%의 성과를 거뒀다. <br/><br/>또한, 표준치료가 불가능한 전이·재발암 환자의 경우 진행성 폐암환자 22명 중 15명(68.2%), 진행성 대장암환자 32명 중 19명(59.4%), 진행성 췌장암환자 42명 중 18명(42.9%)에게 치료효과를 얻었다.<br/><br/>치료는 2주에 1번씩 총 6회 진행됐으며, 효과판정은 혈액검사와 영상진단으로, 킬러T세포와 헬퍼T세포 활성도는 인터페론-감마와 IL-4활성도로 확인했다. <br/><br/>현재 아베종양내과와 공동으로 암백신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기업 ㈜선진바이오텍 양동근 대표는 “<span class='quot2'>수지상세포 백신제조방법은 이미 특허(특허제5577472호)를 획득해놓은 상태</span>”이며 “<span class='quot2'>오는 5월 24일 제20회 국제개별화 의료학회에서 임상치료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2.txt

제목: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캠프 비용 120만원 받고 암환자 상대로…” 충격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139099  
본문: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br/><br/><br/>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span class='quot0'>캠프 비용 120만원 받고 암환자 상대로…</span>” 충격<br/><br/><br/>불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br/><br/><br/>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 목사 조모(56)씨 부부와 교회 관계자 2명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br/><br/><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6년간 말기암 등 주로 불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9박 10일 캠프를 연 뒤 소금물 관장 등 무허가 의료 행위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9박 10일 캠프 비용은 한 차례 120만원 수준이었고, 현장에서 각종 건강식품과 보조제, 의료기기 등도 판매됐다</span>”고 말했다.<br/><br/><br/>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명이나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피해자들은 지난 6년간 해당 캠프에 수천명이 참가했으며, 캠프에서 약을 먹지 못하게 한 까닭에 일부 중증 환자는 퇴소 후 곧 숨졌다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br/>경찰은 조씨 부부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조만간 캠프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준 한의사를 불러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3.txt

제목: “당뇨약 ‘메포민’ 위암 치료 가능성 확인”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948549  
본문: 　기존의 당뇨 치료제가 위암 항암치료에도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br/>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노성훈·형우진(이상 위장관외과)·정현철·라선영·정민규(이상 종양내과) 교수팀은 당뇨를 가진 위암수술 환자들에게 당뇨 치료제인 ‘메포민(Metformin)’을 투여한 결과,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 재발률은 낮은 반면 생존율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임상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과학술지(Annals of Surgery) 최근호에 게재됐다.<br/>　현재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된 2형 당뇨병의 1차 선택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메포민은 암 진행과정에 작용하는 ‘mTOR’을 억제해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진행을 늦춘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잠재적인 항암 약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메포민이 위암에도 유사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보고가 없었다.<br/>　이런 가운데 연구팀(교신저자 정민규. 사진)은 연세암병원에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1974명의 환자를 당뇨병을 가진 그룹(326명)과 당뇨병을 갖지 않은 그룹(1648명)으로 나누어 암 재발율과 생존기간을 추적 조사(평균 6.2년)했다. <br/>　연구팀은 특히 당뇨를 가진 326명의 환자 중 메포민을 복용한 132명과 메포민 계열이 아닌 다른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를 당뇨치료제로 쓰는 194명을 구분해 중점적으로 추적, 분석했다.<br/>　그 결과, 당뇨병을 가진 326명의 조사 대상 위암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위암환자에 비해 암 재발률이 1.6배 높게 나타났고, 5년 생존율도 평균 77%로, 당뇨가 없는 환자의 84%에 비해 낮은 치료 예후를 보였다. <br/>　하지만 당뇨를 가진 위암수술 환자들 중 메포민을 복용한 환자들은 다른 당뇨약을 사용한 환자들에 비해 암 재발률이 37%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정민규 교수는 “<span class='quot0'>당뇨병을 가진 위암 환자가 암 수술을 받았더라도 메포민을 꾸준히 복용하면 당뇨가 없는 위암환자와 비슷한 생존율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얻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성과</span>”라면서 “<span class='quot0'>당뇨병이 암 발병을 높이고, 치료 성과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정민규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국내에서 당뇨병과 함께 위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번 연구를 토대로 메포민이 위암의 새로운 항암 병용치료제로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향후 더 확대된 계획 연구를 통해 메포민의 항암효과를 더 심층적으로 규명하겠다</span>”고 덧붙였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4.txt

제목: 성체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914065  
본문: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은 심한 퇴행성관절염 탓에 그라운드를 떠날 위기에 놓였다. 유럽의 의료진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으나, 히딩크 감독은 수술 대신 한국에서의 줄기세포 치료를 선택했다.<br/>　지난해 1월 방한한 그는 줄기세포 치료를 마친 뒤 “3개월 후에 걸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했고, 치료 10개월 만인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히딩크 감독의 무릎관절염 치료에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인 메디포스트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동종 성체줄기세포 ‘카티스템’이 사용됐다.<br/>　현재 상용화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급성 심근경색에 쓰이는 ‘하티셀그램-AMI’, 무릎연골 치료에 쓰이는 ‘카티스템’, 크론병에 사용하는 ‘큐피스템’, 이식편대숙주병에 쓰이는 ‘프로키말’ 등 4가지. 이 가운데 프로키말(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제품들이다. 임상연구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 건수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만큼 우리나라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br/>　<br/>　■성체줄기세포란<br/>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장기에 있는 미분화 세포로, 자신이 위치한 조직이나 장기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조직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br/>　이런 성체줄기세포가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치료에 사용한지 50년이 넘는다.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메뉴인 백혈병 치료를 위한 골수이식 때 사용하는 조혈모세포가 바로 대표적인 성체줄기세포이다.<br/>　이런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생긴 상처가 아물고 질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대체하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성체줄기세포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의사들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병원 역할을 맡아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몸 속의 세포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　■분화 제한적이지만 윤리적 문제 없어<br/>　성체줄기세포는 지방이나 골수, 뇌세포 등 이미 성장을 끝낸 신체조직에서 얻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제한적인 분화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br/>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바이오융합원장 황기철 교수는 “<span class='quot0'>실제로는 분화 능력의 제한이라기보다 세포 재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세포를 전문적으로 만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게다가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성체줄기세포가 다양한 장기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흔히 비교되는 배아줄기세포의 탁월한 분화 능력을 성체줄기세포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br/>　뿐만 아니라 성체줄기세포는 돌연변이를 유발해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세포치료제 연구 분야에서 큰 장점으로 꼽힌다.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함께 특정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환자 자신의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해 이를 다시 환자 자신에게 주입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반응이 없다는 점도 의학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br/>　<br/>　■난치 질환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br/>　문제는 최근 들어 신경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뼈와 관절, 내분비 질환,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신약 개발이 더디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존 치료의 경우 환자별로 효능 차이가 뚜렷하고, 다양한 부작용 발생으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br/>　이런 가운데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후 성체줄기세포의 효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br/>　물론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성과 측면에서 아직 미완성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줄기세포 치료 외에는 기댈 곳이 없었던 난치성 질환자들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 치료가 실효성 있는 치료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학적 연구와 안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가이드라인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br/>　황기철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성체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런 가능성을 극대화에 치료 효용과 영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5.txt

제목: 영국 하원 ‘세 부모 체외수정법’ 세계 첫 통과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249485  
본문: 유전적 질병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다른 여자 난자에 부인 난자의 핵을 옮겨 심은 뒤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한다면 어떨까. 의료계는 기술로 이룩한 휴머니즘적 축복으로 묘사한 반면, 두 성인 간 결합을 결혼이라 부르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다는 반론에서부터 사실상 ‘맞춤형 아기’(designer baby)를 허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br/><br/>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유전적 질병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대체시술에 의한 체외인공수정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안을 찬성 382표, 반대 128표로 가결시켰다. 오랜 논란을 감안한 듯 이번 표결은 90분에 걸친 치열한 논쟁 뒤 각 의원 양심에 따른 자유 투표로 진행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원 역시 오래전부터 하원 결정을 존중하겠다 밝혀온 만큼 연내에 법이 발효되면 내년 중 세계 첫 3부모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br/><br/>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이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변이되면 심각한 대사질환, 당뇨병, 암, 알츠하이머, 근육위축증, 뇌장애 등이 나타난다. 영국 보건 당국은 법안이 발효되면 자국 내에서 연간 150쌍이 시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br/><br/>가톨릭교회와 영국성공회 등 종교계는 즉각 반대성명을 냈다. ‘인간유전학경고운동협회’의 데이비드 킹 박사는 “<span class='quot0'>생명윤리의 금기를 넘는 행위로 ‘맞춤형 아이’로 가는 길을 터놓을 것</span>”라고 비판했다. 찬성측은 반박했다. 조지 프리먼 생명과학부장관은 “<span class='quot1'>미토콘드리아 DNA는 개별 인간의 고유성을 결정짓는 DNA가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눈동자나 머리 색깔, 아이큐 등을 조작하는 게 아닌데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과도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 유전체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핵을 제거한 난자를 단지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취급하는 게 안전한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br/><br/>미토콘드리아 대체시술은 유전자 연구를 후원하는 웰컴트러스트가 3년 전 9000만 파운드(약 1480억원)의 돈을 뉴캐슬대의 더그 턴불 교수 연구팀에 제공해 개발했다. 뉴캐슬대는 핵 이식 기법으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던 기관이다. 더그 턴불 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span class='quot2'>미토콘드리아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소식</span>”이라고만 밝혔다.향후 구체적 치료 대상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br/><br/>법안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에 선천적 결함이 있는 여성 환자가 대체 시술을 받으려면 보건부 산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미토콘드리아를 기증하는 여성은 태어날 아기와 연관이 없어야 하며, 태어난 아기는 나중에 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br/><br/>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6.txt

제목: 진짜 사람피부’로 암 찾는 알약 실험  
날짜: 2015020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0436681  
본문: 구글 플렉스 소속 연구팀인 ‘구글X’가 센서를 부착한 ‘암 탐지기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br/>영국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의 지난 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구글X랩은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중대한 질병인 암의 빠른 발견을 위해, 암 세포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br/>‘손목밴드’(Wristband)라 불리는 이 웨어러블 장비는 특수 제작된 알약과 연동 반응한다. 이 알약을 삼키면 알약에 들어있던 나노입자가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몸의 이상 신호 및 암 세포를 감지한다.<br/>이 나노입자가 특정 암세포를 발견하면 이와 연결된 손목밴드에 데이터가 기록되고 이를 통해 복잡한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br/>구글랩은 이를 실험하기 위해 인공피부를 이용한 실험 장비를 함께 개발했다. 진짜 사람 피부로 만든 ‘팔’이 그것이다.<br/>실제 사람의 손과 팔을 본 딴 이 장비는 알약의 나노 입자가 암세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노입자가 암 세포를 발견한 뒤 이들 세포가 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구글이 만든 ‘사람 피부 실험장비’는 암 탐지기기의 알약 성분과 웨어러블 손목밴드의 기능을 테스트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비로 평가받는다.<br/>이 실험도구는 사람들이 기부한 진짜 피부’를 통해 제작됐다.<br/>구글랩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민족의 특성에 따라 피부 색소와 피부 두께 등이 모두 다르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실험도구는 다양한 피부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암 탐지알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해 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이어 “우리는 간헐적으로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현재의 과정을 미리 발견하고 선조치하거나 예방하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고 덧붙였다.<br/>전문가들은 구글랩의 암 탐지알약 및 웨어러블 기술이 10년 이내에 사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7.txt

제목: 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그래도 보는 사람은 본다?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149279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br/><br/>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그래도 보는 사람은 본다?<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 서은하(이보희 분)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그러나 극중 내용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맹장 수술로 입원해 있던 조나단의 엄마 서은하는 남편 조장훈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서은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오열했다. 마음 속으로는 백야가 자신을 타박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하늘의 뜻인 것이다. 우리 집 못들어오게’라는 생각도 했다. 이때 서은하는 그동안 원했던 방귀를 뀌었다. 서은하가 민망스러워하는 가운데, 간병인은 “어머 가스 나왔네”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아들의 죽음에도 기뻐하는 모습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5.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4.7%보다 0.7%p 상승한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8.txt

제목: 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시청률 도대체 어디까지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114119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br/><br/>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시청률 도대체 어디까지<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 서은하(이보희 분)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그러나 극중 내용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맹장 수술로 입원해 있던 조나단의 엄마 서은하는 남편 조장훈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서은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오열했다. 마음 속으로는 백야가 자신을 타박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하늘의 뜻인 것이다. 우리 집 못들어오게’라는 생각도 했다. 이때 서은하는 그동안 원했던 방귀를 뀌었다. 서은하가 민망스러워하는 가운데, 간병인은 “어머 가스 나왔네”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아들의 죽음에도 기뻐하는 모습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5.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4.7%보다 0.7%p 상승한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69.txt

제목: 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황당해도 ‘최고 시청률’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103608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br/><br/>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황당해도 ‘최고 시청률’ <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 서은하(이보희 분)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그러나 극중 내용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맹장 수술로 입원해 있던 조나단의 엄마 서은하는 남편 조장훈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서은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오열했다. 마음 속으로는 백야가 자신을 타박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하늘의 뜻인 것이다. 우리 집 못들어오게’라는 생각도 했다. 이때 서은하는 그동안 원했던 방귀를 뀌었다. 서은하가 민망스러워하는 가운데, 간병인은 “어머 가스 나왔네”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아들의 죽음에도 기뻐하는 모습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5.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4.7%보다 0.7%p 상승한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0.txt

제목: 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황당함을 넘어선 극한 설정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046395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br/><br/>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황당함을 넘어선 극한 설정<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 서은하(이보희 분)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그러나 극중 내용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맹장 수술로 입원해 있던 조나단의 엄마 서은하는 남편 조장훈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서은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오열했다. 마음 속으로는 백야가 자신을 타박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하늘의 뜻인 것이다. 우리 집 못들어오게’라는 생각도 했다. 이때 서은하는 그동안 원했던 방귀를 뀌었다. 서은하가 민망스러워하는 가운데, 간병인은 “어머 가스 나왔네”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아들의 죽음에도 기뻐하는 모습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5.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4.7%보다 0.7%p 상승한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1.txt

제목: 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제대로 막장드라마 가나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028777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br/><br/>압구정백야, 아들 죽음에도 “방귀 나왔네”…제대로 막장드라마 가나 <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 서은하(이보희 분)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그러나 극중 내용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맹장 수술로 입원해 있던 조나단의 엄마 서은하는 남편 조장훈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서은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오열했다. 마음 속으로는 백야가 자신을 타박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하늘의 뜻인 것이다. 우리 집 못들어오게’라는 생각도 했다. 이때 서은하는 그동안 원했던 방귀를 뀌었다. 서은하가 민망스러워하는 가운데, 간병인은 “어머 가스 나왔네”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아들의 죽음에도 기뻐하는 모습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5.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4.7%보다 0.7%p 상승한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2.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30회 연장 논의까지 “데스노트 어디까지 가나”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620519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30회 연장 논의까지 “데스노트 어디까지 가나”<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3.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30회 연장 논의까지 “이제 암세포도 나올 판?”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612159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30회 연장 논의까지 “이제 암세포도 나올 판?”<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4.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30회 연장 논의까지 “데스노트 본격화?”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550459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30회 연장 논의까지 “데스노트 본격화?”<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5.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결국 ‘데스노트’ 펼쳤다…실어증도 등장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540949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결국 ‘데스노트’ 펼쳤다…실어증도 등장<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김민수 분)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방송을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한편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6.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결국 조나단의 죽음 그렸다 “30회 연장 논의까지?”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543607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결국 조나단의 죽음 그렸다 “30회 연장 논의까지?”<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김민수 분)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방송을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한편 MBC는 ‘압구정 백야’ 30회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백야’의 연장이 확정되면, 기존 120부에서 150부로 편성이 늘어난다. 임성한 작가는 앞서 방송된 ‘오로라공주’도 120부작에서 150부로 연장한 바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7.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결국 ‘데스노트’ 펼쳤다 “조나단 죽음 왜?”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529013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결국 ‘데스노트’ 펼쳤다 “조나단 죽음 왜?”<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김민수 분)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 <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방송을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 <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한편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8.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데스노트’ 예고에도 시청률 급상승?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506184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데스노트’ 예고에도 시청률 급상승?<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김민수가 사망 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지난 2일 방송된 ‘압구정백야’에서는 주인공 백야(박하나 분)와 연인 조나단(김민수 분)의 행복한 결혼식이 방송을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임성한 작사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한편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79.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결국 ‘데스노트’ 펼쳤다 ‘조나단 죽음’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507310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결국 ‘데스노트’ 펼쳤다 ‘조나단 죽음’<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조나단(김민수 분)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3일 방송한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박하나 분)와 결혼식을 마친 조나단(김민수 분)은 결국 죽음으로 방송에서 퇴장하게 됐다.<br/><br/>전날 방송에서 주인공 백야와 연인 조나단의 행복한 결혼식이 방송을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br/><br/>3일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와 조나단의 동공 상태를 확인했고 백야에게 “사망하셨다”라고 전했다. 충격을 받은 백야는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나단의 사망 소식은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 조장훈(한진희 분)과 여동생 조지아(황정서 분)에게 알려졌고, 믿기 힘든 비보에 온 가족이 오열했다.<br/><br/>임성한 작가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한편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0.txt

제목: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이번에도 “암세포도 생명” 나오나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450860  
본문: 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br/><br/>압구정백야 임성한 작가, 이번에도 “암세포도 생명” 나오나<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김민수가 사망 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지난 2일 방송된 ‘압구정백야’에서는 주인공 백야(박하나 분)와 연인 조나단(김민수 분)의 행복한 결혼식이 방송을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임성한 작사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한편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1.txt

제목: 임성한 작가 압구정백야 데스노트, “암세포도 생명” 황당전개 또 재연되나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448126  
본문: 임성한 작가 압구정백야 데스노트 <br/><br/>임성한 작가 압구정백야 데스노트, “암세포도 생명” 황당전개 또 재연되나 <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김민수가 사망 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지난 2일 방송된 ‘압구정백야’에서는 주인공 백야(박하나 분)와 연인 조나단(김민수 분)의 행복한 결혼식이 방송을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임성한 작사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br/><br/>한편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2.txt

제목: 임성한 작가 압구정백야 데스노트, “암세포도 생명” 논란 또 불거지나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438205  
본문: 임성한 작가 압구정백야 데스노트 <br/><br/>임성한 작가 압구정백야 데스노트, “암세포도 생명” 논란 또 불거지나<br/><br/>MBC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새신랑 김민수가 사망 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임성한표 데스노트’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br/><br/>지난 2일 방송된 ‘압구정백야’에서는 주인공 백야(박하나 분)와 연인 조나단(김민수 분)의 행복한 결혼식이 방송을 탔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조나단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 <br/><br/>이날 방송에서 조나단은 결혼식 뒤 어머니(이보희 분)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가 잔뜩 흥분한 채 응급실에서 나오던 두 명의 조폭과 마주쳤다. <br/><br/>조폭들은 “니들 집 안방이여?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서”라고 시비를 걸었다. 조나단은 백야의 만류에도 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그러다 조폭의 주먹에 맞은 조나단은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백야는 의식을 잃은 조나단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br/><br/>임성한 작사는 전작 ‘오로라공주’에서도 등장인물을 줄줄이 사망하게 해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극 전개 상 조나단이 이대로 죽음을 맞으면 백야의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는 설설희(서하준 분)가 암선고를 받고 “치료 안 받을 거다. 인명은 재천이다. 죽을 운명은 치료해도 죽는다”라면서 “암 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 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텐데.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 한다.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 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하고 싶다”고 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br/><br/>한편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전국기준 1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3.3%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3.txt

제목: 2배 뛴 췌장암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1039647  
본문: 최근 10년 새 갑상선암과 췌장암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암과 견줬을 때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라 검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기 발견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남녀 합쳐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부동의 1위’ 갑상선암에 이어 유방암, 위암 순으로 조사됐다.<br/><br/>이는 삼성생명이 ‘세계 암의 날’(4일)을 맞아 지난 10년간(2005~2014년) 암진단 보험금을 내준 27만 2000여건을 분석한 결과다. 2005년 대비 지난해 전체 암 진단 건수는 약 1.7배로 뛰었다.<br/><br/>특히 갑상선암과 췌장암이 각각 143.6%, 133.8%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폐암(90%)·유방암(67.6%)·대장암(58.5%) 등의 발병도 각각 50% 이상 늘었다. 김송철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중복 입원·수술 등 재발 건수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감안해야 하지만 일단 췌장암의 수치가 급격히 는 것은 서구화와 건강검진 활성화가 큰 원인</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서 배가 조금만 아파도 복부 초음파와 CT 검사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많이 병변을 발견하게 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또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보통 증상이 심해져서야 드러나곤 했는데 이제는 ‘전암병변’(정상조직에서 암이 발생하기까지의 중간단계)이 검진 단계에서 포착되며 암의 범주로 잡히다 보니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br/><br/>보험금 지급 건수로 본 발병 비중은 갑상선암(30.4%)이 가장 높았다. 유방암(13.4%)과 위암(12.3%)이 뒤를 이었다. 국립암센터 측은 “<span class='quot1'>갑상선암 급증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span>”며 “<span class='quot1'>부쩍 늘어난 갑상선 초음파 검진 탓으로 보는 시각과, 음주·흡연·육류 위주의 식습관 등 서구화된 생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 있다</span>”고 전했다. <br/><br/>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위암(21.2%), 대장암(14.2%), 갑상선암(13.1%) 순서로 많이 걸렸다. 여성은 거의 두 명 중 한 명이 갑상선암(40%)이었다. 이어 유방암(20.7%)과 위암(7.4%) 순서다.<br/><br/>삼성생명이 지난 10년간 암 진단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총 5조 3672억원이다.<br/><br/>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4.txt

제목: “죽기 전 여친과 무도회 참석” 소원 이룬 15세 소년, 하늘로…  
날짜: 2015020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0326016  
본문: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난치병 10대 소년이 죽기 전에 '자신의 여자 친구와 무도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떠났다.<br/><br/>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 등에 따르면,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는 스코틀랜드 중학생 작 트루먼(15)이 최근 자신을 위해 특별히 열린 무도회에 여자 친구와 참석한 뒤 세상을 떠났다.<br/><br/>웨스트로디언주(州) 웨스트칼더고 중등부 학생인 트루먼은 이날 학교 측이 사연을 듣고 급하게 축구클럽 회장을 빌려 마련한 무도회장에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2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은 트루먼의 용기에 박수갈채를 보냈다.<br/><br/>축구를 좋아해 학교 클럽에서 골키퍼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한 10대였던 트루먼은 지난해 8월 악성 림프종(말단 T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6개월간에 걸쳐 투병생활을 했다. 하지만 병이 나아지기는 커녕 온몸에 암이 퍼져 더는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에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자신이 설립한 재단 ‘팀 작’을 통해 모금한 3만 3000파운드(약 5400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두를 ‘백혈병과 림프종 연구’라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br/><br/>트루먼은 힘겨운 투병과정 내내 자신의 곁을 지켜준 여자 친구 한나 보이드(14)와 함께 자신의 졸업 무도회에 나가지 못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이 두사람을 위한 무도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이날 트루먼은 보이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며칠 뒤 트루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br/><br/>트루먼의 모친 앨리스는 아들의 마지막 꿈을 이뤄준 학교와 교사, 학생들, 그리고 여자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br/><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5.txt

제목: 구글, ‘진짜 사람 피부’로 만든 실험도구 공개  
날짜: 20150201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0246251  
본문: 구글 플렉스 소속 연구팀인 ‘구글X’가 센서를 부착한 ‘암 탐지기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br/>영국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의 지난 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구글X랩은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중대한 질병인 암의 빠른 발견을 위해, 암 세포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br/>‘손목밴드’(Wristband)라 불리는 이 웨어러블 장비는 특수 제작된 알약과 연동 반응한다. 이 알약을 삼키면 알약에 들어있던 나노입자가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몸의 이상 신호 및 암 세포를 감지한다.<br/>이 나노입자가 특정 암세포를 발견하면 이와 연결된 손목밴드에 데이터가 기록되고 이를 통해 복잡한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br/>구글랩은 이를 실험하기 위해 인공피부를 이용한 실험 장비를 함께 개발했다. 진짜 사람 피부로 만든 ‘팔’이 그것이다.<br/>실제 사람의 손과 팔을 본 딴 이 장비는 알약의 나노 입자가 암세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노입자가 암 세포를 발견한 뒤 이들 세포가 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구글이 만든 ‘사람 피부 실험장비’는 암 탐지기기의 알약 성분과 웨어러블 손목밴드의 기능을 테스트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비로 평가받는다.<br/>이 실험도구는 사람들이 기부한 진짜 피부’를 통해 제작됐다.<br/>구글랩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민족의 특성에 따라 피부 색소와 피부 두께 등이 모두 다르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실험도구는 다양한 피부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암 탐지알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해 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이어 “우리는 간헐적으로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현재의 과정을 미리 발견하고 선조치하거나 예방하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고 덧붙였다.<br/>전문가들은 구글랩의 암 탐지알약 및 웨어러블 기술이 10년 이내에 사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6.txt

제목: [인사]  
날짜: 2015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3054915  
본문: ■헌법재판소 ◇승진 임용△헌법연구관 승이도 정치언◇신규 임용△헌법연구관보 이은선 유경민<br/><br/><br/>■교육부 ◇고위공무원△국방대 파견 한상신△안동대 사무국장 원기선△통일부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장 이계영◇부이사관△통일교육원 파견 오순문◇서기관△학교강사대책팀장 김태현△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파견 신미경<br/><br/><br/>■법무부 ◇고위공무원△인천구치소장 최강주△국방대 파견 김명철<br/><br/><br/>■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국방대 교육파견 오영우<br/><br/><br/>■보건복지부 △국방대 안보과정 훈련파견 전병왕 손호준<br/><br/><br/>■해양수산부 ◇국장급△국방대 교육파견 최완현<br/><br/><br/>■금융위원회 ◇과장△구조개선지원 전요섭△전자금융 김동환<br/><br/><br/>■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교육원 파견 이재성△안전정책과장 김은환<br/><br/><br/>■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유무영△농축수산물안전국장 손문기△의약품안전국장 김관성△의료기기안전국장 강봉한△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조기원△국방대 교육파견 김영균△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한순영<br/><br/><br/>■문화재청 ◇과장급△법무감사담당관 권석주△정보화담당관실 강흔모△운영지원과장 이정훈△정책총괄과장 김병기△국제협력과장 김연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박희웅△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장 김동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도중필△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이상걸△경복궁관리소장 전기선△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고기석<br/><br/><br/>■산림청 ◇고위공무원△산림자원국장 이창재△산림이용국장 박종호△산림보호국장 이규태△북부지방산림청장 김현수△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차장 최준석△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최병암<br/><br/><br/>■대전시 ◇3급 승진△자치행정국장 김우연△도시주택국장 정무호◇4급 승진△법무통계담당관 신상래△도시재생정책과장 문용훈△토지정책과장 이종철△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 류택열△송촌정수사업소장 김병익△대전상공회의소 파견 손병거△총무과 박성룡 김광수 최태수 이경성<br/><br/><br/>■신용보증기금 ◇승진 △부산경남영업본부 홍성호△호남영업본부 윤헌기△경영관리부 심현구△업무지원부 송동석△보증심사부 류재현△비서실 차재성◇전보 △특화사업영업본부 박국근△서울서부영업본부 노용훈△인천영업본부 한동안△대구경북영업본부 성의경△충청영업본부 박학양△신용보험부 한기정△연구개발부 박용평△IT전략부 전명호△SOC보증부 한영찬△기업지원부 오재택△감사실 신황운△홍보실 이태용<br/><br/><br/>■기초과학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심시보<br/><br/><br/>■한국감정원 △상임감사위원 김한수<br/><br/><br/>■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김영호<br/><br/><br/>■KBS ◇편성본부△영상제작국 총감독 장용석△콘텐츠창의센터 CP 장성주◇TV본부△교양문화국 CP 이낙선△기획제작국 CP 임세형◇시청자본부△시청자국 시청자사업부장 조성용◇정책기획본부△정책기획국 미디어정책부장 정철웅△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부장 이건협◇보도본부△보도국 경인방송센터장 이동채<br/><br/><br/>■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성구△규제개혁센터장 이흥권△정책기획실장 오현환△성장동력사업실장 손석호△전략연구팀장 진영현<br/><br/><br/>■전력거래소 ◇승진 △전력계획처 장기수급분석팀장 김홍근△시장개발처 시장개발팀장 문경섭△중앙전력관제센터 수급운영팀 김태선△시장개발처 시장개발팀 박만근△정보기술처 차세대시스템팀 심병철△전력계획처 전원계획팀 옥기열<br/><br/><br/>■숭실대 ◇부총장△학사 장범식△자원 김재철◇실장△교목 조은식△대외협력 이태식△기획조정 류희욱◇처장△교무 정달영△학생 장경남△총무 김비호△관리 이철우△지식정보 이수원△연구·산학협력 신요안△국제 강기두△입학 이상은◇대학장△법과 최정식△경제통상 이윤재△경영 전규안△IT 서철헌△베어드학부 이제우◇대학원장△윤철홍△중소기업 윤현덕△정보과학 양승민△교육 이경화△경영 안승호<br/><br/><br/>■한국건강관리협회 ◇승진 △본부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 변성식△본부 건강증진본부 부본부장 신미경△서울강남지부 부본부장 나서경△경북지부 부본부장 육정일<br/><br/><br/>■S&T모티브 ◇승진△이사 김진영 김택성 김철호△이사대우 곽명진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7.txt

제목: 애완 고양이 덕분에 ‘암’ 발견한 50대 여성 화제  
날짜: 20150130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90212904  
본문: 한 50대 여성이 고양이 덕분에 암을 발견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br/>영국 미러 등 현지 언론의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태포드셔에 사는 스테파니 두비(55)라는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의 배를 쿡쿡 찌르는 애완 고양이 3마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br/>각각 레니, 딘키, 재피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들이 주인의 배를 발로 콕콕 찌르고 냄새를 맡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것. 뿐만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자신의 주위를 맴돌거나 복부 주변을 핥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br/>당시 스테파니는 건강상 이상증상이나 불편함, 컨디션 저조 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배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고양이들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결과 복막종양의 하나인 복막위점액종이라는 종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br/>충수 및 난소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이것은 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방치되었을 때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br/>곧장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고양이들이 암의 냄새를 맡고 나에게 알려줘서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고양이들이 내 목숨을 구한 것”이라며 “고양이들이 이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br/>이어 “암이 생기면 세포 변형이 일어나면서 사람은 맡기 어려운 독특한 냄새를 뿜어내는데, 고양이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나를 일깨워 준 것”이라면서 “만약 그때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절대 암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동물이 사람의 암을 미리 인지해 주인의 목숨을 살렸다고 알려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br/>지난 해 미국 뉴욕에 살던 한 50대 여성은 생후 4개월 된 애완견이 가슴을 파고들며 냄새를 맡고 코를 비비려 하는 이상행동을 보여 병원을 찾은 결과, 가슴 부분에서 악성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뒤 완치했으며, 이 개는 영웅 견공 콘테스트에서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된 바 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8.txt

제목: 가천대 길병원 여성암센터 개원, 본격 진료 나서  
날짜: 2015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838177  
본문: 　가천대 길병원(원장 이근)이 여성암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여성암센터를 개원,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센터장에는 박흥규 교수를 선임했다.<br/>　길병원은 28일 병원 내 가천홀과 여성암센터에서 이길여 회장을 비롯해 여성암 환우,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br/>　 이길여 회장은 개원식에서 “<span class='quot0'>최고의 의료진과 시설, 실력은 물론이고 여성암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성암센터로 만들겠다</span>”고 말했다. <br/>　병원 측은 “여성암센터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암 등 모든 여성암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검진·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서 “기존 유방암센터, 갑상선클리닉, 부인종양클리닉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클리닉,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협진을 시스템화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　병원 측은 “길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2013~2014년 연속 1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갑상선클리닉도 경인지역에서 가장 많은 갑상선암 치료 실적을 갖고 있고, 부인종양클리닉은 4000여 건의 비침습 내시경 수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 암 판정 후 일주일 이내에 수술과 항암 및 방사선치료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이를 위해 병원 측은 암센터 2층에 별도로 여성암센터를 확보했으며, 14층에 여성암 환자 병동도 마련했다.<br/>　이근 병원장은 “<span class='quot1'>가족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최상의 진료라는 마음가짐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적절한 치료 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89.txt

제목: [길섶에서] 이외수의 암 투병/문소영 논설위원  
날짜: 2015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618123  
본문: ‘존버’ 정신의 저작권이 소설가 이외수에게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는 관련한 책을 몇 권 썼다. 그는 지난해인가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으로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했다. 존버 정신을 그는 “매우 열심히 버티는 정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그는 강원도 춘천에서 투병 중이다. 공개 투병을 선언한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독자의 열렬한 응원에 힘을 얻으며 최근 3차 항암 치료를 마쳤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와 상반된 발언은 만화 ‘슬램덩크’에서 농구 코치가 초보 농구 선수이지만 열정만은 태산같이 높은 ‘빨간 원숭이’ 백호에게 해 준 “포기하면 편해”이다. 순간순간 버티고자 하는 정신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충돌하면서 시간을 쌓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 달을 지나 1년을 채우면서 나이를 먹어 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br/><br/><br/>영화 ‘헝거게임’ 시리즈가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지만, 한국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10대는 ‘하루하루가 헝거게임이라 영화가 새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20대 여성이 장애인 언니를 돌보다가 자살한 뉴스가 참혹하다. “그래서 ‘존버’ 정신이다”라고 외치고 싶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br/><br/><br/>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0.txt

제목: “원전 지역 주민 갑상선암 발병, 원전과 무관”  
날짜: 2015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50108483  
본문: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대한방사선과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 유관 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br/>　대한방사선과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13개 유관단체는 28일 성명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전과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이들 4개 단체 외에 방사선생명과학회, 원자력의학진흥협의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방사선폐기물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등이 참여했다.<br/>　그러나 이들 유관 단체의 주장이 ‘원전과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span class='quot0'>원고가 원전 10km 이내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 방사선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이 없다</span>”는 점 등을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은 박모(48)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br/>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원전 주변 방사선 평가자료와 원전 역학조사 결과, 해외 연구사례, 그리고 갑상선암의 의학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전과 주변 주민 갑상선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br/>　이들은 “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일반인의 법적 연간 선량한도인 1mSv(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개는 0.01mSv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어디에 살든 자연으로부터 연간 평균 3mSv 정도의 방사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br/>　또 “원전과 갑상선암 관련 주장의 근거가 된 서울대 원전역학조사에서도 원전과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2002년 발표한 핸포드 갑상선질환 연구 등 여러 해외 역학조사와도 같은 결과”라고 덧붙였다.<br/>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span class='quot1'>국민적 관심사안이어서 유관 단체가 공동으로 관련 연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내린 결론</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해당 지역의 경우 지자체 지원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갑상선암 검진 횟수가 많았고, 이런 검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갑상선암 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span>”는 입장을 밝혔다.<br/>　그러나 갑상선암 주요 원인인 유전자(BRAF) 변이와 방사선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데다 성장기의 고용량 방사선 피폭은 갑상선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여서 이들 학회의 주장이 확실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br/>　실제로 서울대 원전 역학조사에서는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발병 위험도 간에 인과적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을 제시했음에도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갑상선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인근 5km 이내에서는 61.4명으로 5~30km의 43.6명, 30km 밖의 26.6명보다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br/>　이에 대해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span class='quot1'>우리나라에서 빚어지고 있는 갑상선암 과잉진료는 의학단체에서도 우려하는 수준</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번 성명은 근거없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사실과 다르게 형성될 경우 이후에 의료방사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취지</span>”라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1.txt

제목: 암 두 번, 치료는 호사…참는다, 앓을 권리 없는 가난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貧’]  
날짜: 2015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4615811  
본문: “<span class='quot0'>없는 살림에 병까지 얻으니 살길이 막막하네요.</span>”<br/><br/>홀로 손자 2명을 키우는 극빈층 장모(66·경기 구리시)씨는 벌써 두번째 암투병 중이다. 2010년 자궁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뒤 인정 많은 병원 원장의 도움으로 겨우 무료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갑상선암 진단까지 받았다. 다행히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 방사선 치료만 받고 있지만 병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걱정이다. “<span class='quot0'>몸을 가급적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쉬라</span>”는 의사의 말을 따르지 못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가난한 살림 탓에 가만히 누워 요양할 여유가 없다. <br/><br/>장씨는 이혼한 둘째 아들이 떠맡긴 초등학생인 손자 2명을 홀로 키워야 한다. 손자들을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등 나름대로는 교육에도 신경 쓴다. 하지만 5학년인 큰손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여 손이 더 많이 간다. 세 식구 먹을 밑반찬이라도 얻으려면 복지관에 가야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도 버스 승차비는 내야 해 30분 넘게 걸어 다닌다. 장씨는 “<span class='quot1'>걷다 보면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 길바닥에 쓰러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span>”라면서 “<span class='quot1'>남편과 함께 손자를 키울 때는 아등바등 버텼지만 5년 전 사별한 뒤로는 정말 힘들다</span>”고 했다.<br/><br/>장씨의 삶은 ‘질병의 늪’에 빠지면 무기력하게 버티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는 절대빈곤층의 자화상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빈곤층은 중병에 걸려도 가정의 생계를 꾸려야 하기에 노동을 멈출 수 없다. <br/><br/>싱글맘인 박모(40·경기 화성시)씨는 2년 전부터 하혈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증상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매일 3시간씩 녹즙 배달을 해 먹고사는 형편이어서 시간을 내 병원에 갈 여유가 없기도 했다. 건강보험료를 오래 체납해 보험 혜택도 받기 어려웠다. 그런데 몸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고 교회 지인의 권유로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자궁내막증식증’(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박씨를 향해 한숨을 내쉬며 “<span class='quot2'>어떻게 이런 몸으로 1년을 버텼느냐</span>”고 혀를 찼다. 하지만 병을 알고도 박씨는 새벽 배달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14살과 7살인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엄마로서는 잠시 쉬는 것조차 감당 못할 사치로 느껴졌다. 일을 멈추면 두 딸의 학습문제지 값조차 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span class='quot3'>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씻을 때 하수구가 막힐 만큼 머리카락이 빠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으면 온몸이 후들거릴 정도로 독해서 먹지 않고 있다</span>”고 했다.<br/><br/>서울 도봉구에 사는 싱글맘 정모(30)씨는 4년 전 딸을 낳은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했고 출산 3개월 뒤부터 돈을 벌기 위해 곧장 일을 시작했다. 2년 전 어느 날 머리가 핑 돌더니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후송됐는데 병원에서는 부정맥 진단을 내렸다. 정씨는 “<span class='quot4'>몸 상태 때문에 종일 일하기는 어렵고 웨딩홀 뷔페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span>”고 했다. 하지만 들어가는 생활비에 비해 벌이가 적어 카드빚을 2000만원가량 졌다.<br/><br/>돈이 없는데 장애가 있다면 삶은 더욱 퍽퍽해진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이모(42·여·서울 동대문구)씨는 4~5가지 병을 늘 몸에 달고 사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그는 휠체어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생겨 2년 전 허리 수술을 받았다. 전동휠체어에 의지하는 탓에 운동은 전혀 할 수 없다. 몸이 아파 배변까지 불편해졌고 이 때문에 식사도 잘 안 한다. 하루하루가 즐거울 리 없다. 벌써 20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이씨는 “<span class='quot5'>많은 빈곤층 장애인이 고단한 삶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 뇌병변 장애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 배변을 참다 보니 비뇨기관에도 문제가 종종 있다</span>”고 했다.<br/><br/>아동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영양부족 탓에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흔하다.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류모(5·대구 달서구)군은 알레르기성 비염 탓에 콧물과 기침을 1년 내내 달고 산다. 특히 겨울에는 감기에 수시로 걸려 비염 증세가 심해진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류군의 어머니(35)는 집안이 불결해 병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지만 돈이 없으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일반 주택 2층의 두 칸짜리 셋방은 습기 탓에 곰팡이가 번져 천장까지 얼룩덜룩하다. 욕실은 외풍이 심해 겨울에는 목욕할 엄두를 못 내고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 실내 공기도 나쁘다.<br/><br/>싱글맘인 서모(42·서울 영등포구)씨는 초교 4학년인 막내아들의 짓무른 피부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 아들은 심한 아토피 피부염 탓에 쉴 새 없이 살을 긁는다. 근원 치료를 하려면 일반 식자재보다 1.5배가량 비싼 유기농 채소 등을 사 먹여야 하지만 형편상 마음껏 사기 어렵다. 서씨의 수입은 한 달에 약 50만원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운전 아르바이트로 버는 50만원 등 100만원가량이 전부다. 그녀는 “친환경 음식을 먹이고 좋은 로션을 발라 주면 호전될 것 같은데 못해 주니까 미안하다”면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성적을 두고 고민하는 엄마를 보면 부러울 지경”이라고 했다.<br/><br/>저소득층 아이들 중에는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경우도 보인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박모(47)씨의 14살, 7살배기 두 딸은 간혹 TV를 보다가 발작을 해 엄마를 놀라게 한다. 6년 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자 빚쟁이들이 수시로 집을 찾아와 독촉했는데 이 장면이 자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것이다. 박씨는 “<span class='quot3'>딸들이 TV에서 싸우거나 사람을 죽이는 등 폭력적 장면이 나오면 발작을 하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span>”고 했다. 하루빨리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 심리치료를 시키고 싶지만 매달 50만원가량의 수입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있어 엄두를 내지 못한다. 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6'>저소득층 중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비염 등 면역력 약화와 관련된 질병에 걸리는 아이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6'>집에 홀로 방치돼 TV만 보다가 ADHD 증상을 보이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도 많은 편</span>”이라고 했다.<br/><br/>먹고살기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절대빈곤층은 따로 운동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저 생활 속에서 짬을 내 걷는 게 운동이라면 운동이다.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인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의 주민 한모(73)씨는 “<span class='quot7'>근처에 불암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길 한 바퀴씩 도는 게 운동의 전부</span>”라고 했다. 경기 부천에 사는 독거 노인 양모(80)씨도 “<span class='quot8'>집에서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를 오가면서 최대한 걸으려고 한다</span>”고 했다. 절대빈곤층은 인스턴트 음식 등 칼로리가 높은 식품을 많이 먹는데 운동량이 적다 보니 살이 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도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편이다. <br/><br/>기초생활수급권이 있는 빈곤층은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 지원을 비교적 폭넓게 지원받는다.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과목을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자부담금 1000~2000원을 내면 되고 약을 살 때는 500원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의료비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수급 빈곤층이 많은 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9'>수급 빈곤층 1명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한 해 평균(2013년 기준) 의료비는 357만원으로 전체 가정의 3~4배 수준</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9'>가난할수록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은 데다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span>”라고 했다. <br/><br/>반면 얼마 되지 않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참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1년간 의료비를 쓰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만 2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해 주는 규정을 노리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33)씨는 5살배기 딸을 돌보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수급권자인 그는 병원에 가도 1000~2000원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씨는 “<span class='quot5'>1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으면 매년 2월 건강보험공단이 몇만원을 환급해 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5'>큰 병이 아니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span>”고 했다. <br/><br/>건강보험 혜택을 수급권자처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돈 걱정 탓에 무료 진료소를 가거나 아파도 참는 게 일상이다. 독거 빈곤층 김모(44)씨는 공사장에서 매달 70만~80만원 버는 게 수입의 전부이고 건강보험료도 200만원이나 밀렸다. 아플 때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마냥 참거나 서울시 등에서 개설한 무료 진료소를 찾는 것 정도다. 그는 “<span class='quot5'>더 늙어서 아플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라서 자꾸 미루게 된다</span>”고 했다.<br/><br/>▲ 줄기세포 주사 30회…5억원 돈으로 젊음을 사다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富’] 상위 1%의 건강관리<br/><br/>유대근 이두걸 송수연 기자 dynamic@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2.txt

제목: 줄기세포 주사 30회…5억원 돈으로 젊음을 사다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富’]  
날짜: 2015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4617071  
본문: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중견기업 사장 A(72)씨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남들에게 ‘혈색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지금까지 감기 등 잔병 치레도 거의 안 했다. 체력 역시 웬만한 40대에 뒤지지 않는다. 헬스 등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만의 건강 관리 비법은 따로 있다. 줄기세포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는 것이다. <br/><br/>그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부인과 함께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를 탄다. 입국장에 도착하자마자 줄기세포 클리닉 관계자가 미리 잡아 놓은 택시를 탄다. 10분 정도 이동해 클리닉에 도착한 뒤 병실 침대에 누워 배양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다. 1억~2억개 정도의 세포를 투여하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 해외로 이동해야 하지만 시간 부담은 크지 않다. 오전 9시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가 오후 4~5시 비행기로 귀국하는 당일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br/><br/>그가 줄기세포 주사를 처음 맞은 것은 4년 전. 친구를 통해 줄기세포 주사 알선 업체를 소개받았다. 한 차례 맞을 때마다 드는 비용은 비행기 요금을 포함해 500만~1000만원 정도다. 배양줄기세포의 개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A씨 부부는 지금까지 30번 정도 주사를 맞았다. 최근 4년간 부부는 줄기세포 주사 맞는 데만 5억원 가까이 썼다. 하지만 돈이 아깝지 않다. 관절염이 심했던 부인은 주사를 몇 번 맞더니 통증이 싹 사라졌다.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효과는 분명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래서 주변 자산가들에게도 종종 권한다. <br/><br/>A씨는 “내가 가는 오사카의 병원에 가면 암 환자도 일부 있지만, 나처럼 아픈 데가 없어도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돈이 있으면 (생존의) 시간까지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줄기세포 주사 알선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많게는 하루에 30명 가까운 국내 부자들이 외국 병원에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기도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요즘은 부유층 사이에서 줄기세포 주사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해외 병원과 자산가들을 연결해 주는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는 분위기</span>”라고 전했다.<br/><br/>이들이 맞는 줄기세포 주사는 혈액이나 골수 등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이를 배양한 것이다. 태아의 탯줄에서 추출하는 제대혈과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제대혈을 그냥 주입받는 건 합법이다. 하지만 자기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라도 이를 배양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상시험에는 일반적으로 4~5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약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기가 훨씬 간편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배양 줄기세포 주사가 ‘불로초’로 알려지면서 위험성과 높은 단가, 불투명한 효과 등에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다만 일본 등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음성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span>”고 했다.<br/><br/>상위 1%는 정기 건강검진도 일반인들의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는 VVIP 검진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웬만한 대학병원들이 모두 내놓고 있다. <br/><br/>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사장 부인 C(60)씨는 모 대학병원의 프리미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건강검진뿐 아니라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 관리를 받는다. 먼저 1년 중 하루를 잡아 집중 건강검진을 받는다. 개인이 직접 검사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달리 20평 크기의 VIP 병실(독방) 안에서 대부분의 검진이 이뤄지는 ‘황제검진’이다. 침대에 누워 쉬고 있으면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이나 혈액 등의 검진을 진행한다. MRI나 CT 등 특수의료 장비가 필요한 검사를 받을 때만 해당 검사실을 찾는다. <br/><br/>건강검진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1년간 C씨를 담당할 전담 주치의와 간호사를 배정받는다. 이들로부터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은 물론 직통 전화번호도 따로 받아 365일 항상 문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영양사와 운동 코디네이터 등으로부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해외 여행 때 현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헬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쓰는 비용은 1년에 1900만원이다. 매달 150만원씩 내고 전담 건강관리팀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한 대학병원 VVIP 검진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110명의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원래 바빠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자산가들도 부부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span>”고 했다.<br/><br/>의료와 휴양을 결합한 ‘메디컬 리조트’ 형태의 호텔도 제주도 서귀포에 등장했다. W호텔에서는 오전에는 제주 천연수를 이용해 ‘수(水)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다. 한라산이 보이는 힐링센터에서는 요가로 몸을 단련할 수도 있다. 미용성형과 항노화 클리닉, 맞춤식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도 갖추고 있어 국내 부자뿐 아니라 외국 부자들에게도 인기다. 이 리조트의 회원 가입 보증금은 1억~2억원대다. <br/><br/>상위 1% 부유층은 운동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서울 논현동에 사는 자산가 D(42)씨는 신사동에 위치한 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기존 헬스 시설에 종합격투기(MMA), 복싱, 스턴트 액션 등을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유명 무술감독과 방송인이 함께 세운 곳이어서 여기서는 치이는 게 연예인이다. 그는 이곳에서 연예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강사로부터 1대1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는다. 비용은 시간당 10만원이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용한다. 그가 이곳에서 ‘몸짱’이 되기 위해 쓰는 비용은 한 달에 150만원 정도다. D씨는 “똑같이 한 시간을 운동하더라도 별다른 지도 없이 할 때와 PT를 받을 때의 몸 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면서 “운동으로 1년에 차 한 대 값을 쓰지만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br/><br/>C씨도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에서 1대1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는다. 역시 한 시간에 10만원, 주 5회를 한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쓰지만 만족도가 높다. C씨는 “한때 골프도 배웠지만 체질에 맞지 않아 그만뒀다”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덕분에 허리와 부인병이 좋아진 것은 물론 취미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체력도 생겼다”고 했다.<br/><br/>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피트니스 클럽도 상위 1% 부유층이 많이 찾는 운동 장소다.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6성급 리조트형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 보증금은 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 500만원의 회원비가 추가된다. 이 클럽은 강남의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다. 엄마가 운동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키, 승마 등 강습도 무료로 시켜주기 때문이다. 인근의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역시 1인당 보증금 7000만원에 연 회원비가 400만원이다. 이곳은 돈만 있다고 회원이 될 수는 없다. 기존 회원 2명이 추천을 해 줘야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회원들이 친구 등을 불러 가벼운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뷔페식 음식도 제공한다.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중소기업 사장 E(53)씨는 “<span class='quot3'>단순히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이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사교 클럽의 성격이 더 강하다</span>”고 했다. <br/><br/>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남산 인근 특급호텔 피트니스 클럽도 부유층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 클럽은 조지 소로스, 잭 웰치 등 억만장자들이 애용하는 미국 뉴욕의 ‘시타라스 피트니스’와 제휴해 화제를 불렀다. 여기서 제공하는 ‘시타라스 프로그램’은 먼저 고객이 개인 트레이너와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을 정한다. 이후 체형과 신체 특성 등을 상세히 측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개인 트레이너가 설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어 운동 효과와 향후 건강관리 계획 등을 조언받게 된다. 청담동에 거주하는 변호사 F(47)씨도 이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이다. F씨는 “4000만원 정도인 보증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수영장 수질이나 운동기구의 질이 다른 헬스클럽보다 월등하다”면서 “사람들과 부딪치지도 않고 조용한 편이라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운동한다”고 했다.<br/><br/>목동에 사는 자산 50억원대의 교수 G(57)씨는 사이클 마니아다. 그는 완성품 사이클을 사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의뢰해 고가의 외제 부품을 수입한 뒤 스스로 조립한다. 부품값은 프레임 500만원, 크랭크 200만원, 휠세트 500만원 등 총 1200만원이 넘는다. 스위스(스캇)와 프랑스(마빅) 브랜드들이다. G씨는 “자칫 내리막길에서 체인이라도 끊어지면 큰 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자전거의 질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했다.<br/><br/>▲ 암 두 번, 치료는 호사…참는다, 앓을 권리 없는 가난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貧’] 절대빈곤층의 건강관리<br/><br/>이두걸 유대근 송수연 기자 douzir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3.txt

제목: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철분 보충제는 금기” 도대체 왜?  
날짜: 2015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2946582  
본문: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br/>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철분 보충제는 금기” 도대체 왜?<br/>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화제다.<br/>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br/>하지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3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br/>커피의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데 열에 쉽게 손상되기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낫다.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br/>아울러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가급적 2주 이내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br/>커피 원두의 쓴맛은 시럽의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해 설탕 등 첨가물 과잉 섭취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커피를 종이 필터에 내리면 원두의 지방 성분 중 95%를 걸러낼 수 있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4.txt

제목: [기고] 지자체, 규제개혁 더 머뭇거려서는/김철 변호사  
날짜: 2015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2504416  
본문: 요즘 드라마 ‘전설의 마녀’에 푹 빠져 산다. 제과그룹에서 버림받거나 배신당한 사람들이 그룹을 상대로 유쾌·상쾌·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가족 드라마다. 몇 주 전에는 주인공이 트럭을 빌려 이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뒤 그곳에서 아침저녁으로 직장인들에게 토스트를 파는 장면이 방영됐다. 부푼 마음으로 푸드트럭을 빌렸지만 못된 시누이와 행정관청의 단속 때문에 영업은 쉽지 않고 결국은 시누이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트럭을 훔쳐 가 트럭 주인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br/><br/>푸드트럭이 본격적으로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한 것은 ‘전설의 마녀’가 처음일 것이다. 드라마도 결국 사회 현상을 담아내는 도구일 터인데 푸드트럭도 규제개혁이 없었더라면 드라마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규제개혁의 아이콘이 돼 버린 푸드트럭. 드라마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인 푸드트럭이 현실에서는 과연 좋은 대접을 받고 있을까.<br/><br/>아직은 아니라고 한다. 애초 정부는 푸드트럭에 관한 규제가 사라지면 최소 6000명의 일자리와 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22대뿐이다. 나머지 푸드트럭들은 여전히 단속의 위험을 안고 오늘도 불법 아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br/><br/>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트럭에 관한 정부 발표 매뉴얼을 보면 푸드트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지역에 한해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입찰공고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이다. 지자체가 입찰공고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상인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나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입찰 공고를 낼 리 만무하다. 선거가 있는 한 지자체의 장은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실제 매뉴얼 발표 후 입찰공고를 한 지자체는 몇 개 되지 않았다.<br/><br/>대다수 국민들에게 지자체는 가깝지만 중앙정부는 멀다. 시행규칙, 고시만 개정된다고 당장의 규제가 개혁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실제 시행규칙, 고시 중 상당 부분은 다시 지자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도 한다. 물론 규제개혁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거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를 개혁하는 중앙정부와 규제를 집행·관리하는 지자체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 혼자서 그 많은 규제를 관리할 수는 없다. 지자체도 정치적 입장이나 당장의 표를 의식하기 이전에 규제개혁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br/><br/>규제라는 암 덩어리가 바로 앞에 있고 수술 매뉴얼까지 마련돼 있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의료진은 어디론가 가고 없다. 의료진은 마땅히 매뉴얼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 신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더이상 규제개혁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5.txt

제목: [아하! 우주] ‘숨겨진 우주’ 처음으로 힐끗 보다 - 암흑 물질을 찾아서  
날짜: 20150125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915139  
본문: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5년 1월 호에 저명한 과학 저술가인 티모시 페리스의 암흑물질-암흑 에너지 특집기사가 실려 우주 마니아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br/>복잡한 것을 쉽게 설명하는 재능과 아름다운 문체로 ‘동시대 최고의 과학 저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전직 신문기자-잡지 편집자 출신인 티모시 페리스는 1956년 부터 천체 관측을 시작했고, 1960년부터 천문학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 중 ‘우주의 모든 것'(The Whole Shebang)과 ‘은하 시대의 도래'(Coming of Age in the Milky Way) 두 권은 뉴욕 타임스의 ‘20세기에 출판된 중요한 책들’에 선정되었고 1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br/>또한 그는 ‘라이프’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이처’ ‘뉴스위크’ ‘타임’ 등의 정기 간행물에 200편 이상의 기사와 에세이를 썼으며,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 1, 2호에 실어보낸 인류 문명 소개 유물인 음반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미국물리학협회의 과학 저술상, 미국과학진흥회상, 구겐하임 펠로십을 받았다.<br/>페리스의 특집기사 ‘숨겨진 우주를 처음으로 힐끗 보다'(A First Glimpse of the Hidden Cosmos)와 연계하여 스페이스닷컴은 직접 페리스와 대담한 기사를 20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페리스 특유의 해석과 견해가 잘 드러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라 다음에 소개한다.<br/>-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란 존재가 그처럼 상상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br/>페리스=인간의 마음은 가까운 미래에 그럴싸한 설명이 나올 법한 중요한 문제나 질문에 끌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10년이나 한 세대쯤 뒤에 말입니다.<br/>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확실히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우주는 약 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5%는 이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계산서를 뽑아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 해답이 아마 적정 시간이 흐른 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br/>그래서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 문제는 ‘시간이란 무엇인가?’라거나,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하는 등의 문제보다 대중에게 훨씬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문제로 인식되는 거지요.<br/>- 실체는 그처럼 모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영향에 대해 꽤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실체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br/>페리스=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행사하고 있는 영향 외에는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암흑물질은 가시적인 물체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은하와 은하단의 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과 성단들이 행사하는 중력보다 훨씬 강한 중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의 존재를 ‘물질’이라 불렀고, 어떤 빛도 방출하지 않아 ‘암흑’이라고 붙인 겁니다.<br/>이 암흑물질은 중력작용 외에는 우주의 어떤 물질과도 거의 또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요상한 존재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는 전혀 다른 하나 또는 두 개의 원소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대칭과 다른 첨단 물리학 이론으로 상상하고 있는 정도죠. 그러한 가설이 현실에서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 셈인데, 만약 현실적으로 확인된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br/>암흑 에너지는 더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용어는 그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에너지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공간 자체의 특성이라면, 과학자들이 그 존재를 알아내기 전에 진공에 관한 양자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중력 양자론이라 하죠. 중력이 공간을 어떻게 휘게 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 대응하는 개념인 셈이죠.<br/>-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 중 어떤 연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까?<br/>페리스=지금 지구상에는 열 남짓의 암흑물질 검출 장비들이 곳곳에서 작동 중입니다. 암흑물질을 검출하는 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암흑물질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자주 했었죠. ‘참으로 가치있는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법이다.’<br/>암흑 에너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관측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빨리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팽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입니다. 숲속에 맹수가 있다면 우선 그 맹수의 발자국부터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br/>-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진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br/>페리스=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우주라는 거대 구조와 은하들을 만드는 데 암흑물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우주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하는 우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br/>암흑 에너지는 공간의 한 특성으로 보입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그에 따라 암흑 에너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우주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이 암흑 에너지야말로 우리 우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최대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br/>만약 암흑 에너지가 최초로 우주 팽창을 일으킨 존재라면 우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우주는 거의 텅 빈 공간입니다. 별이나 행성들, 우리 몸도 사실 거의 텅 빈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체를 이루는 원자와 분자 내부의 모든 공간을 제거해버린다면 우리는 거의 이 문장 끝의 마침표 하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br/>따라서 암흑 에너지가 정말 공간의 특성이라면, 그것의 정체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을 모르고는 비나 눈, 수증기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br/>-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인 이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관한 연구의 미래는 과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br/>페리스=암흑물질의 후보 입자는 가까운 장래에 발견될 거라고 봅니다. 일부 실험 물리학자들은 이미 암흑물질의 증거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들이 아직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br/>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잡는 일은 더 어렵고 고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끈 이론’과 같은 것에 ‘표준 모델’에 근거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주를 넘어서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라는 강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br/>암흑 에너지에 대한 탐구가 깊어가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 성질을 가진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볼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br/>이광식 통신원 joand999@naver.com <b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6.txt

제목: “내가 크로포드다” 부당 재산압류 막은 ‘인간 바리케이트’  
날짜: 2015012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850285  
본문: 부당하게 집을 빼앗길 당할 처지에 놓인 60대 암 환자를 위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자청하고 그를 돕는 모습이 공개됐다.<br/>영국 텔레그래프, 야휴 뉴스 등 현지 언론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톰 크로퍼드(63)와 그의 아내 수잔(54)은 1988년 은행으로부터 저축성 보험 담보 대출을 받아 4만 1800파운드(약 6780만원) 상당의 집을 샀다.<br/>이후 두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맞벌이를 하며 매달 300~400파운드 가량씩 대출금을 상환했으며, 예정대로라면 2년 전인 2013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br/>하지만 2007년 부부는 은행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대출 할부금을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다는 것. 저축성 보험담보 대출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br/>두 사람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은행 측은 결국 지난 6개월 전부터 빚을 집으로 대신 갚으라는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크로퍼드는 “죽는 한이 있어도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강하게 저항했고, 동시에 은행 측에 “대출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말했지만 은행 측은 이를 거부했다.<br/>은행이 고용한 사람들이 크로퍼드 부부를 집에서 부당하게 끌어내려 한다는 소식이 유투브를 통해 알려지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br/>강제 퇴거 및 철거를 위해 몰려든 건장한 남성들에 대항해 ‘인간 바리케이트’에 동참한 사람들은 무려 500명.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크로퍼드의 집을 찾아 집 주위를 에워쌌다.<br/>은행의 부당한 처사와 불투명한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그를 돕기 위해 모인 ‘인간 바리케이트’는 강제퇴거를 집행하러 온 담당자들을 거세게 몰아세웠고, 일부는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br/>일부는 “내가 톰 크로퍼드다”(I Am Tom Crawford)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대치하기도 했다.<br/>전립선암 탓에 2년 전부터 일자리도 없이 지내온 크로퍼드는 ‘인간 바리케이트’ 500명에게 무한한 감동과 감사를 느낀다며, 죽는 한이 있어도 27년간 살아온 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br/>한편 크로퍼드 자산 압류를 담당하는 배드 뱅킹 ‘UARL’(UK Asset Resolution)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r/>사진=맨 아래는 집 주인 톰 크로퍼드<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7.txt

제목: [당신의 책]  
날짜: 2015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41142280  
본문: 20세기 아리랑(이태영 지음, 한울 펴냄) 흔히 역사는 굵직굵직한 사건과 일들의 기록쯤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작은 일들과 소시민의 일상을 빼놓고 역사를 말할 수는 없다. 책은 바로 그 거대 기록이 아닌 일상의 궤적에 방점을 찍고 역사를 따졌다.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아리랑 고개로 여겨 그 고난의 고개를 넘었던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촘촘하게 들여다봤다. 개항기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과 6·25전쟁, 남북 분단, 군부독재 시절을 관통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정작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념과 진영논리보다 상식과 통념에 충실해 역사를 보자는 측면의 글쓰기가 신선하다. “인간 삶의 본질은 큰 사건보다 자잘한 일상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일상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만은 않다.” 보수·진보라는 이념과 사상의 이분법적 가르기를 벗어나 양보와 소통의 역사 보기를 강조한 점이 도드라지는 책이다. 320쪽. 2만 9000원.<br/><br/>의사, 인간다운 죽음을 말하다(브렌던 라일리 지음, 이선혜 옮김, 시공사 펴냄) ‘현대의학은 만인에게 혜택과 구원을 주는 공공의 은자인가.’ 의학이 인간생명 유지, 연장에 도움이 됨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계 언저리에선 좋지 않고 옳지 않은 일들이 다반사이다. 책은 현대의학과 환자의 인권에 천착해 ‘무엇이 올바른 치료인가’를 묻는다. 저자는 미국 최고의 종합병원이라는 뉴욕-프레즈버티어리언 병원 내과 의사. 직접 치료하고 만난 환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다큐멘터리처럼 풀어갔다. 완치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병원을 떠도는 말기암환자, 의료진을 속인 정신질환 환자, 갑자기 자살한 환자…. 치매로 고생하는 노모를 포함해 죽음 직전의 환자들을 통해 말기 혹은 고령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무의미한 치료가 필요한지를 따져 묻는다.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의료자원과 불공평한 분배, 그로 인한 불필요한 치료와 비극적인 상황 고백을 통해 현대의학의 불편한 속사정이 낱낱이 드러난다. 504쪽. 1만 7000원.<br/><br/>나는 시민인가(송호근 지음, 문학동네 펴냄)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사회 현안의 날카로운 진단으로 유명한 저자가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여전히 ‘국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건 ‘시민의식’임을 짜릿한 필치로 강조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사회적 공공성의 부재가 사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술회한다. 저자는 우선 구한말의 혼란과 국권 상실, 분단과 전쟁, 군부독재로 이어진 소용돌이 속에서 정상적인 근대 시민사회 구축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한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윤리가 실종되고 계층상승을 향한 무한경쟁이 판치면서 개인주의와 권리의식만이 머릿속을 채운 게 한국의 현주소라고 말한다. 긴장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민윤리를 지닌 한국인으로 거듭나자는 반성문이자 염원기로 읽힌다. 그리고 그 핵심의 메시지는 ‘위기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 발동되는 행동규범과 윤리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400쪽. 1만 5000원.<br/><br/>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토마스 휠란 에릭센 지음, 손화수 옮김, 책읽는 수요일 펴냄) ‘머지않아 현재의 물질 풍요 사회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가 남긴 가장 기분 좋은 막다른 길로 받아들일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대표 인문학자라는 오슬로 국립대 교수가 제시한 행복의 길. 여러 나라들이 복지국가 모델로 삼은 노르웨이에서 ‘세계는 고장 났고, 우리들의 행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일갈한 성찰과 경고가 눈길을 끈다. 연간 개인 평균소득이 1만2000달러 선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와 삶의 만족도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자는 그처럼 인스턴트 만족감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허무와 불안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낸다. 영화, 고전문학, 심리학, 종교를 넘나들며 건져 올린 처방들이 흥미롭다. 더 큰 차원의 다원주의는 많은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급진적인 추락을 줄이기 위해 삶을 모자이크처럼 꾸며 가라고 권하기도 한다. 384쪽. 1만5000원.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8.txt

제목: 그냥 지켜볼 수도, 무작정 수술받을 수도 없는 ‘갑상선암’, 어떻게 해야 할까  
날짜: 20150123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817444  
본문: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갑상선암은 남녀를 통틀어 국내 암 발생 비율 1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눈에 띄게 높아진 증가율과 달리 갑상선암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br/>이에 대해 최근 학계에서는 건강검진 이용자 수의 증가와 갑상선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조기 갑상선암 진단율이 높아진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침흡인검사가 흔히 사용되면서 1cm 미만의 미세 유두암 발견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br/>흔히 갑상선암의 원인은 단순한 결절이 아닌 악성종양을 말한다. 통계적으로는 전체 갑상선혹이나 결절 중 악성종양은 5%의 비중을 차지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br/>갑상선암의 종류는 기원이나 형태, 위험도에 따라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착한암’이라 불릴 만큼 전이가 적은 유두암이 80% 이상이며, 나머지 20%도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여포암이나 수질암이다. 예후가 불량한 역형성암은 전체 갑상선암 종류 중 1%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br/>갑상선암 검사는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이뤄지며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면 양성결절인지 악성인 갑상선암인지 갑상선암의 종류를 진단하기 위해 조직 검사의 일종인 세침흡인검사를 실시하게 된다.<br/>문제는 세침흡인검사로도 암과 결절을 100%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고,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되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갑상선 조직 기능이 완전히 멈추게 돼 평생에 걸쳐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하다는 것이다.<br/>더욱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갑상선 혹이 1cm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수술을 권유하며 최근에는 1cm 이상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경향인데, 국내 갑상선 환자들은 병원에서 90%이상이 1cm미만인데도 대부분 수술을 받는 실정이다.<br/>갑상선수술의 부작용으로는 수술 후 흉터와 성대신경의 손상에 따른 목소리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부갑상선의 손상에 의한 골다공증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2010년 대한 갑상선전문의학회에서는 5mm이하의 갑상선혹에 대해서는 세침흡인검사를 하지 말고 6~12개월 주기로 초음파 검사만으로 혹의 크기나 숫자를 관찰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br/>예방의학을 중시하는 한의학에서는 갑상선암 치료에 중요한 NK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한방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NK(자연살해,Natural Killer)세포란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 중에 특히 암세포를 발견하고 죽이는 능력이 탁월한 백혈구의 일종을 말한다.<br/>행복찾기한의원 차용석 원장은 “갑상선암과 같이 성장속도가 느린 암의 경우에는 암세포 발견과 동시에 수술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것이다."라며 “한약재에는 다양한 성분의 뛰어난 함암효과와 면역력 증강 효력을 가진 유효성분이 많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br/>실제로도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의 경우에는 크기가 적어도 1cm이상이면서 동시에 통증이나 연하곤란 등의 증상이 동반하지 않는 한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갑상선을 필요이상으로 절제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 후 증상관리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br/>이에 대해 차 원장은 “한방의 갑상선암 치료는 불필요한 수술 및 방사능치료를 피하고 자연요법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저하된 면역기능을 회복시키는 보존치료로써 저하된 면역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면 갑상선암 증상 외에도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br/>한편 행복찾기한의원은 국제 갑상선암 컨퍼런스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제 84회 미국갑상선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국제 학회 활동 통해 갑상선질환의 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399.txt

제목: [국민행복 업무보고] ‘안전성 논란’ 원격진료, 이르면 7월 전방 군장병 확대 적용  
날짜: 2015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5847017  
본문: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격·오지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오는 7~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선택권이 없는 장병에게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br/><br/><br/>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원양선박 5척, 8곳 이상의 전방부대,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병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원격 모니터링이 아니라 원격 진료다. <br/><br/><br/>진단과 처방이 화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해왔다. 현재 본 사업에 앞선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9개 동네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격진료는 교정시설 27곳과 비무장지대내 감시소초(GP) 2곳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덜 된 상태다.<br/><br/><br/>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span class='quot0'>초기 암은 무증상일 때가 많아 대면진료를 해도 잡아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화상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리다 보면 자칫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키울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데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span>”이라고 비판했다.<br/><br/><br/>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원격진료에 사용하는 기기 또한 의료기기다. 의료 윤리에 대한 국제지침인 ‘벨몬트 보고서’는 임상시험을 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원칙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성이 결핍된 인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r/><br/><br/>벨몬트 보고서의 윤리지침을 유형별로 정리한 미국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임상시험을 해선 안 될 대상자로 정확히 ‘수감자’와 ‘군인’을 지목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span class='quot1'>의료계가 반발하니 군인과 수감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분명 인권침해</span>”라고 주장했다.<br/><br/><br/>물론 군의관조차 없는 격·오지 부대나 GP 등에서 원격진료는 경증질환 치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span class='quot2'>응급환자 후송 시스템을 갖추고 거점병원을 확보해 응급의료체계를 다지는 게 원격진료보다 우선</span>”이라고 지적했다. <br/><br/><br/>국방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응급후송체계도 마련하고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span>”는 반응을 보였고,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을 염두에 둔 듯 “<span class='quot3'>군부대 대상 원격진료는 본 시범사업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span>”고 밝혔다.<br/><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br/><br/><br/>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0.txt

제목: “전자담배, 일반 담배보다 특정 유해물질 15배↑” (美 연구)  
날짜: 2015012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752038  
본문: 전자담배가 사용조건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최대 15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연구팀이 전자담배의 가열온도에 따라 발생하는 각각의 증기를 검사한 결과, 온도가 높을 경우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경우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암 발병률은 일반 담배보다 최대 15배 급등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br/>연구팀은 전자담배를 고전압 혹은 저전압으로 사용했을 때 각각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장치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발생된 증기 속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와 그 양을 조사했다.<br/>가열된 액체는 합성향료와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이 포함돼 있다. 실험은 5분간 10회에 걸쳐 흡입하고 1회 흡입 시 지속 시간은 3~4초였다.<br/>그 결과, 3.3V(볼트)에서 액체를 가열할 때 검출되지 않았던 포름알데히드가 5V로 가열했을 때에는 검출됐다. 검출된 수치는 일반 담배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br/>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일간 추정 3mg(밀리그램)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전자담배를 높은 전압으로 설정한 경우 흡연자는 하루 3mL(밀리리터)의 비율로 나오는 증기 속 포름알데히드를 흡입하게 되는 데 이를 환산하면 하루 약 14mg의 포름알데히드를 흡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br/>또 이런 추정치는 “기화한 모든 액체를 파악한 것이 아니며 기체 상으로 빠져나간 포름알데히드는 전혀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더 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br/>보고서는 담배 속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2건의 기존 연구를 인용해 이번에 밝혀진 값에 노출된 경우 암 발병률은 장기간에 걸쳐 일반 담배를 피워온 흡연자들보다 5~15배 급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물질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1등급으로 분류한 발암물질이라고 한다.<br/>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 피터 하제크 영국 바트 및 런던 의치대 담배의존성연구소장은 이의를 제기했다.<br/>그는 “일반적인 전자담배의 사용은 액체를 지나치게 가열하면 자극이 강해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천천히 흡입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연구결과는 실제 사용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담배의 이용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흡연보다 안전하다”며 “이 결과로 전자담배가 더 해롭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의학회지’(NEJM) 21일 자에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1.txt

제목: “시간여행 가능한 웜홀, 우리 은하계에 실존”  
날짜: 20150122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731489  
본문: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전혀 다른 우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웜홀’이 등장한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의 이론물리학자 킵 손 교수는 1988년 “<span class='quot0'>웜홀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통로로, 자유자재로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span>”고 설명한 바 있다. 웜홀에서는 강한 중력이 작용해 멀리 떨어진 두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어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br/>영화 ‘인터스텔라’와 달리 현실에서는 웜홀의 존재를 아직까지 증명해내지 못했지만 최근 해외 연구팀은 우리 은하계 내에 웜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 웜홀의 크기는 거대한 우주선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만큼 거대하다고 설명했다.<br/>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파울로 살루찌 교수는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에는 엄청난 중력의 힘이 작용하면서 우주의 시간을 왜곡한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웜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br/>살루찌 교수 연구진은 수학적 모델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다른 시간(또는 우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웜홀의 입구는 우주의 암흑물질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br/>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총 물질의 23 %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과 같은 전자기파로도 관측되지 않고 오로지 중력을 통해서만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이다.<br/>연구진은 우리 은하계의 암흑물질 분포를 표시한 지도와 최근 우주의 기원을 찾기 위해 실시한 빅뱅 실험의 자료를 결합한 뒤 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 은하는 여러개의 터널 중 하나이며 은하계 자체가 하나의 터널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br/>살루찌 교수는 “아마도 우주에는 이 같이 시간여행이 가능한 터널이 더 많을 것이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웜홀과 같은 형태”라면서 “우리는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부터 웜홀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방정식을 계산해 왔다”고 설명했다.<br/>이어 “우주의 암흑물질은 아마도 웜홀이 오래동안 우주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것”이라면서 “우리 연구는 은하 헤일로 구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 웜홀의 실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의학·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최대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의 ‘물리학 연대기 저널’(Journal Annals of Physics) 최신호에 실렸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2.txt

제목: 무려 7년 간 크루즈 타고 세계여행하는 86세 할머니  
날짜: 20150121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719805  
본문: 무려 7년 동안이나 초호화 크루즈를 타고 나홀로 세계여행을 다니는 한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br/>1년 요금만 16만 4000달러(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내고 세계를 누비는 화제의 할머니는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리 왁스테터.<br/>올해 나이 86세인 할머니는 7년 전부터 이 크루즈호에 승선해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할머니가 특별한 노후를 보내는 이유는 작고한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다. 지난 1997년 남편은 많은 유산을 남기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할머니에게 한마디를 남겼다.<br/>"항해를 멈추지 마라"<br/>결혼 50주년을 기념해 함께 떠났던 크루즈 여행이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다. 결국 할머니는 플로리다에 있는 저택 등 재산을 모두 팔아 초호화 크루즈인 크리스탈 세레니티의 장기 승객이 됐다.<br/>이렇게 보낸 세월이 무려 7년. 그동안 할머니는 세계를 15번 돌며 100개국 이상을 여행했다. 할머니는 "미망인이 된 지금 마치 동화와 같은 삶을 살고있다" 면서 "매일밤 파티를 열고 춤을 추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br/>물론 한번 출항하면 오랜시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 얼굴 한번 보기 쉽지않다. 3명의 아들과 7명의 손주를 두고있는 할머니는 마이애미에 배가 한번 정박했을때야 가족들을 만난다. 그러나 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포기할 뜻이 없다.<br/>할머니는 "이제 승무원들이 내 가족과도 같다" 면서 "이번 87번째 생일은 배에서 맞게될 것 같지만 문제될 것 없다. 다음번 생일도 있기 때문" 이라며 웃었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3.txt

제목: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면 심장병·암 확률 ↑”  
날짜: 20150120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651623  
본문: 매일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우울한 소식이다.<br/>너무 오랜시간 앉아서 일하면 병에 걸려 일찍 죽을 확률이 높다는 무시무시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토론토 재활연구소 측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게 되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심장마비, 당뇨, 암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br/>전세계에서 발표된 총 47개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이 연구결과는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앉아만 있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더욱 놀라운 점은 매일 30분 이상 운동한다고 해도 앉아서만 일하면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점.<br/>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이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의 기준은 하루 8시간 이상이다.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과 암에 걸릴 확률이 18%, 당뇨의 경우 무려 9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구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과 직장인이 이 기준에 해당될 것 같다.<br/>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비법'은 30분에 한번 씩 일어나서 1-3분 정도 움직이라는 것. 연구를 이끈 애비럽 비스워스 박사는 "사람이 장시간 앉아만 있으며 우리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면서 "이에반해 일어서기만 해도 우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똑바로 서있게 만들어 나름의 운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r/>이어 "TV 시청 중 광고가 나오면 서서 보는 등의 습관을 길러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 8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4.txt

제목: 당뇨·암 등 생활습관병 탓 연간 1600만명 조기사망  
날짜: 20150120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637066  
본문: 생활습관 탓에 발생하는 당뇨병과 특정 암 등의 질병이 연간 1600만 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br/>WHO는 이런 생활습관병이 “<span class='quot0'>서서히 진행되면서 공중보건을 악화시킨다</span>”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br/>WHO가 발표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보고서는 흡연이나 과음은 물론 지방·염분·당분 과다 섭취 등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는 다양한 질병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폐 질환, 특정 암 등 비전염성질환(NCD)으로 전 세계에서 3800만 명이 사망했다. 그중 1600만 명은 70세 미만이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연간 1600만 명이 NCD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그중 82%는 가난하거나 중간소득인 국가의 환자가 차지하고 있었다.<br/>연간 조기 사망자 중 약 600만 명이 ‘흡연’, 330만 명은 ‘과음’, 320만 명은 ‘운동 부족’, 170만 명은 염분 과다 섭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r/>이 보고서의 수석저자인 WHO의 샨티 멘디스 박사는 “<span class='quot1'>5세 미만 어린이 4200만 명이 비만이며 청소년 84%는 운동 부족</span>”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br/>국제 사회는 이미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9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2011~2025년 NCD로 인한 조기 사망을 25%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이중 담배나 주류 광고 금지와 염분이나 카페인을 다량 함유한 식품과 음료에 대한 과세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터키는 담배 광고 금지와 대폭적 인상, 위험성 인지 등을 통해 흡연자 비율이 2008년 이후 13.4% 감소했다. 헝가리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해 정크푸드의 매출이 27%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노력과 달리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br/>WHO는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조기 사망으로 앞으로 10년간 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br/>사진=WHO 보고서 캡처<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5.txt

제목: 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사이트가 있다? 무슨 사이트인 지 보니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2711004  
본문: 연말정산 폭탄 <br/><br/>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사이트가 있다? 무슨 사이트인 지 보니<br/><br/>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에서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br/><br/>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관련 논의가 여야 정치권까지 번졌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br/><br/>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월급쟁이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검색 코너를 공개했다. <br/><br/>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통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br/><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span>”고 밝혔다. <br/><br/>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 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에 달했다. <br/><br/>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근로 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br/><br/>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놓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누구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br/><br/>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br/><br/>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1'>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6.txt

제목: 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사이트 화제 “도대체 어디?”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2652556  
본문: 연말정산 폭탄 <br/><br/>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사이트 화제 “도대체 어디?”<br/><br/>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에서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br/><br/>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관련 논의가 여야 정치권까지 번졌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br/><br/>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월급쟁이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검색 코너를 공개했다.<br/><br/>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통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br/><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span>”고 밝혔다.<br/><br/>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 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에 달했다.<br/><br/>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근로 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br/>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놓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누구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br/><br/>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br/><br/>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1'>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7.txt

제목: 연말정산 폭탄…놓치는 항목 피하는 검색사이트 등장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2335782  
본문: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연말정산 논란’ ‘연말정산 세금폭탄’<br/><br/>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br/>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관련 논의가 여야 정치권까지 번졌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br/>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월급쟁이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검색 코너를 공개했다.<br/>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통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span>”고 밝혔다.<br/>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 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에 달했다.<br/>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근로 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놓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누구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br/>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br/>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1'>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8.txt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검색사이트 등장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2210480  
본문: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세금폭탄’<br/><br/>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에서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br/>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관련 논의가 여야 정치권까지 번졌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br/>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월급쟁이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검색 코너를 공개했다.<br/>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통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span>”고 밝혔다.<br/>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 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에 달했다.<br/>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근로 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놓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누구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br/>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br/>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1'>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09.txt

제목: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검색사이트 등장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2103677  
본문: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연말정산 논란’ ‘연말정산 세금폭탄’<br/><br/>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br/>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관련 논의가 여야 정치권까지 번졌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br/>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월급쟁이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검색 코너를 공개했다.<br/>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통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span>”고 밝혔다.<br/>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 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에 달했다.<br/>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근로 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놓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누구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br/>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br/>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1'>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0.txt

제목: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13월의 세금 폭탄’ 피하는 검색사이트 등장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2046089  
본문: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연말정산 논란’ ‘13월의 세금폭탄’<br/><br/>연말정산 논란으로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br/>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관련 논의가 여야 정치권까지 번졌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br/>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월급쟁이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검색 코너를 공개했다.<br/>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통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span>”고 밝혔다.<br/>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 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에 달했다.<br/>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근로 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놓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누구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br/>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br/>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1'>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1.txt

제목: 연말정산 논란에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13월의 세금 폭탄’ 피하는 검색사이트 등장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2033700  
본문: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연말정산 논란’ ‘13월의 세금폭탄’<br/><br/>연말정산 논란으로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br/>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관련 논의가 여야 정치권까지 번졌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br/>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월급쟁이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검색 코너를 공개했다.<br/>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통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span>”고 밝혔다.<br/>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 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에 달했다.<br/>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근로 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놓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누구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br/>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br/>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1'>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2.txt

제목: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은?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는 법 도와주는 서비스 등장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2022292  
본문: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13월의 세금폭탄’<br/><br/>연말정산 놓치는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br/>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관련 논의가 여야 정치권까지 번졌고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br/>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월급쟁이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검색 코너를 공개했다.<br/>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통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span>”고 밝혔다.<br/>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 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에 달했다.<br/>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근로 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놓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누구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br/>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br/>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span class='quot1'>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3.txt

제목: 부모·조부모와 따로 살아도 공제 챙기세요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1839454  
본문: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가 부모 관련 공제와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조부모는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되고, 암이나 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았을 경우는 장애인 공제를 할 수 있다.<br/><br/><br/>한국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도움을 받아 환급받은 1500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br/><br/><br/>●암·중증질환자 장애인공제 가능<br/><br/><br/>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부모나 조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의 부양가족 공제다.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조부모도 소득이 없을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다.<br/><br/><br/>부모의 소득 금액을 지레짐작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 총급여가 연 333만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516만 6000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 부양가족이 되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br/><br/>●가족 부양 미혼자 부녀자공제 체크를<br/><br/><br/>암 수술을 받았거나 중풍이나 신장투석 등의 중증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다. 암 환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여야 한다.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해당된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인적 공제(소득공제 200만원)가 추가되고 의료비 등에 있어서도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하다.<br/><br/><br/>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잦았다. 결혼한 해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전에는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이지만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라면 부녀자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은 역시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br/><br/><br/>연맹은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도록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개설했다.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접속하면 해당 코너(오른쪽 하단)로 바로 연결된다.<br/><br/><br/>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4.txt

제목: 말기암 딸 위해 ‘대마초 오일’ 투약한 아빠 구속 논란  
날짜: 20150119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616233  
본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딸을 위해 '대마초 오일'을 투약한 아빠가 구속돼 논란이 일고있다. <br/>마치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 '로렌조 오일'이라는 치료약을 만든 부부의 실화를 연상케 하는 이번 사건은 최근 호주 퀸즐랜드주(州) 케언스에서 일어났다.<br/>안타까운 사건의 주인공은 아빠 아담 쾨슬러와 그의 딸 루머 로즈. 아직 2살에 불과한 어린 로즈는 안타깝게도 소아에게 발병하는 암 가운데 하나인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으로 투병 중이다.<br/>이미 말기 상태로 생존 확률이 50%에 불과한 소녀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아빠의 간호를 받으며 살아왔다. 사건은 아빠가 딸에게 코코넛을 섞은 대마초 오일을 먹이면서 시작됐다. 대마초 오일은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것으로 암 등으로 고통받은 어린이들의 증상을 완화해주고 발작 횟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r/>딸이 겪는 지독한 고통을 보다못한 아빠가 불법으로 이를 구해 먹인 것으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료 목적으로는 합법이다. 아빠는 "딸이 대마초 오일을 먹은 후 음식을 잘 먹기 시작해 몸무게가 늘었다" 면서 "혈색도 돌아오고 밖에 나가서 놀기 원할만큼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br/>그러나 이 사실은 의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됐고 결국 아빠는 이달 초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죄목은 16세 이하에게 위험 약물을 제공한 것과 소지죄. 오는 20일(현지시간)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의 보석 조건도 논란 거리였다. 보석 조건에 딸과 접촉을 금지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br/>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현지여론은 달아올랐다. 특히 네티즌들은 청원사이트 서명을 통해 딸에게 아빠를 돌려줄 것과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br/>네티즌들은 "아빠가 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면서 "치료 목적의 대마초 오일은 이미 의료적으로도 인정받은 만큼 당국이 선처를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5.txt

제목: 영국 동물원서 태어난 희귀 ‘피그미 하마’ 새끼 인기  
날짜: 2015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30242123  
본문: 야생에 2000여 마리 밖에 없는 세계 희귀 동물인 피그미 하마 새끼가 태어나 화제다.<br/><br/>지난해 12월 26일 영국 런던 북서쪽에 위치한 자연친화적인 동물원인 ‘ZSL 윕스네이드’(Zoological Society of London Whipsnade Zoo)에서 희귀종인 피그미 하마가 태어나 이목을 끌고있다.<br/><br/><br/><br/><br/><br/>피그미 하마(pygmy hippo calf)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니 하마로 보통 하마보다 4분의 1 크기다. 이번에 태어난 피그미 하마는 암에 걸린 어미 ‘플로라’에게서 태어난 수컷으로 6시간 만에 7kg의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br/><br/>멸종위기 동물인 피그미 하마는 겉모습은 하마와 비슷하지만 다 자란 성체의 몸길이가 1.5∼1.8m, 몸무게 180∼250kg밖에 안 나가며 네 다리는 가늘고 길다. 물갈퀴가 없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한편 동물원 선임 사육사 스티브 화이트는 “<span class='quot0'>어려운 해를 겪으면서 희귀종 피그미 새끼 하마를 순산한 ‘플로라’에게 감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럽 멸종 위기종 번식 계획을 위해 세 마리의 피그미 하마를 낳은 플로라에게 이제 더 이상 새끼를 낳게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사진·영상= ZSL - Zoological Society of London youtube<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6.txt

제목: [길섶에서] 상가(喪家) 단상/정기홍 논설위원  
날짜: 2015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5820786  
본문: 50대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여성분의 상가(喪家)를 찾았다. 생전에 엄청 밝게 살았던 분이다. 늘 얼굴엔 함박꽃이 피었고 좌중에서는 활달했다. 고인을 앗아간 병은 이름도 생소한 부신암이다. 부신은 신장 위쪽에 있고, 아직 희귀암으로 분류된다. 무정한 종양의 공격에 척추를 내주고 말았다. 생활과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다양화하면서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불치병 환자가 많아졌다. 나중엔 이들도 치료가 쉬운 ‘친숙한 병’이 되겠지만….<br/><br/><br/>웃는 것은 심신을 윤활하고, 생명 연장줄로도 대접받는다. 삶의 가운데 우울증이 자리한 요즘엔 뻑뻑함을 푸는 단방약 정도로 모두가 치켜세운다. 수치화한 웃음은 건강학에서 필수과에도 속한다. 그래서 천진하게 웃어야 젊게 산다고 한다. 젊다는 건 병에도 강하다. ‘일소일소’(一笑一少)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문상을 하던 지방분이 “서울의 공기가 많이 탁하다”고 했다. 뜬금없다는 듯 들었지만 생활 미세먼지가 많기는 많다. 이곳 사람만 인지하지 못하고 지낼 뿐이다. 크든 작든 난()한 게 많은 지금이고 난치(難治)의 시절이다. 고인이 병원이 아닌 자연 치유력에 몸을 맡겼으면 병의 차도가 어땠을까. <br/><br/><br/>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7.txt

제목: 수르수르만수르 송준근 선행 도와…“말기암 아버지 결혼기념일”  
날짜: 2015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4802585  
본문: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br/><br/>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의 선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선행을 연결해 준 ‘수르수르만수르’도 화제가 되고 있다. <br/>지난해 말 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은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을 접하고 학생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br/>송준근은 쌍둥이 개그맨인 이상호·이상민과 함께 해당 학생의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br/>이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현재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br/>한편 안타깝게도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1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송준근 이상호 이상민 측에 따르면 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 ‘수르수르만수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이벤트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지난해 수르수르만수르와 함께 두 가지 소원을 이뤄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관계자는 “그게 지난해 11월 일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영상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면 만수르가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콘셉트로,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이다.<br/>앞서 지난해 개그우먼 오나미는 해당 앱에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 립스틱 100개를 선물받았다. 오나미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수르수르만수르에 예뻐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립스틱 100개가 택배로 왔다. 언제 다 바르나. 나 이쁘나”라는 글과 함께 립스틱을 선물 받은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8.txt

제목: ‘수르수르 만수르’ 송준근 선행, 암환자 가족 사연보니 ‘감동물결’  
날짜: 20150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4753385  
본문: ’수르수르 만수르’ 송준근 선행, 암환자 가족 사연보니 ‘감동물결’<br/>‘송준근 선행, 수르수르 만수르’<br/>개그맨 송준근 이상호 이상민의 선행이 알려진 가운데 수르수르 만수르 앱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br/>최근 유튜브에는 KBS2 ‘개그콘서트’의 코너 ‘닭치고’ 출연팀인 송준근, 이상호, 이상민이 한 환자의 가족을 방문해 선행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재됐다.<br/>송준근은 지난해 말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에 동료 개그맨 이상민, 이상호와 함께 학생의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결혼기념일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br/>이들은 함께 마지막 가족사진을 찍을 카메라를 가족에게 선물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위한 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제작해 병실에서 상영했다. 이를 본 투병중인 아버지와 병실 안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br/>하지만 송준근 선행 일주일 뒤 이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br/>한편 송준근 선행은 소원을 들어주는 앱 ‘수르수르 만수르:소원을 이루는 주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르수르 만수르’ 앱에는 만수라는 꼬마 마법사가 자신의 방식대로 소원을 이뤄준다고 적혀있다.<br/>이에 송준근 소속사 관계자는 “소원을 들어주는 어플 수르수르 만수르에서 ‘닭치고’ 팀에 연락이 왔었다”며 “접수된 많은 소원들 중 두 개의 소원을 추렸다. 당시 11월이어서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에게는 스쿨 어택의 형식으로 피자를 배달했었고 췌장암 환자 가족 방문은 11월 21일이었다”고 전했다.<br/>네티즌들은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 만수르 앱 감동이다”, “송준근 선행 좋은 사람이었구나. 수르수르 만수르 나도 이용해볼까”, “송준근 선행, 훈남이다 수르수르 만수르 앱 이용해봐야지”, “송준근 선행, 감동적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19.txt

제목: 수르수르만수르 송준근 선행 도와…“말기암 아버지 결혼기념일” 감동  
날짜: 2015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4637452  
본문: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br/><br/>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의 선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선행을 연결해 준 ‘수르수르만수르’도 화제가 되고 있다. <br/>지난해 말 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은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을 접하고 학생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br/>송준근은 쌍둥이 개그맨인 이상호·이상민과 함께 해당 학생의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br/>이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현재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br/>한편 안타깝게도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1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송준근 이상호 이상민 측에 따르면 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 ‘수르수르만수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이벤트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지난해 수르수르만수르와 함께 두 가지 소원을 이뤄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관계자는 “그게 지난해 11월 일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영상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면 만수르가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콘셉트로,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이다.<br/>앞서 지난해 개그우먼 오나미는 해당 앱에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 립스틱 100개를 선물받았다. 오나미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수르수르만수르에 예뻐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립스틱 100개가 택배로 왔다. 언제 다 바르나. 나 이쁘나”라는 글과 함께 립스틱을 선물 받은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0.txt

제목: 수르수르만수르가 송준근 선행 도왔다…“말기암 아버지 마지막 결혼기념일” 진한 감동  
날짜: 2015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4609332  
본문: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br/><br/>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의 선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선행을 연결해 준 ‘수르수르만수르’도 화제가 되고 있다. <br/>지난해 말 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은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을 접하고 학생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br/>송준근은 쌍둥이 개그맨인 이상호·이상민과 함께 해당 학생의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br/>이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현재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br/>한편 안타깝게도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1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송준근 이상호 이상민 측에 따르면 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 ‘수르수르만수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이벤트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지난해 수르수르만수르와 함께 두 가지 소원을 이뤄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관계자는 “그게 지난해 11월 일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영상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면 만수르가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콘셉트로,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이다.<br/>앞서 지난해 개그우먼 오나미는 해당 앱에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 립스틱 100개를 선물받았다. 오나미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수르수르만수르에 예뻐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립스틱 100개가 택배로 왔다. 언제 다 바르나. 나 이쁘나”라는 글과 함께 립스틱을 선물 받은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1.txt

제목: 수르수르만수르가 송준근 선행 도왔다…“말기암 아버지 마지막 결혼기념일” 감동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3808002  
본문: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br/><br/>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의 선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선행을 연결해 준 ‘수르수르만수르’도 화제가 되고 있다. <br/>지난해 말 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은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을 접하고 학생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br/>송준근은 쌍둥이 개그맨인 이상호·이상민과 함께 해당 학생의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br/>이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현재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br/>한편 안타깝게도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1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송준근 이상호 이상민 측에 따르면 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 ‘수르수르만수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이벤트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지난해 수르수르만수르와 함께 두 가지 소원을 이뤄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관계자는 “그게 지난해 11월 일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영상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면 만수르가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콘셉트로,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이다.<br/>앞서 지난해 개그우먼 오나미는 해당 앱에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 립스틱 100개를 선물받았다. 오나미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수르수르만수르에 예뻐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립스틱 100개가 택배로 왔다. 언제 다 바르나. 나 이쁘나”라는 글과 함께 립스틱을 선물 받은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2.txt

제목: 송준근 선행, 암환자 가족 위한 따뜻한 마음  
날짜: 20150115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3441147  
본문: 최근 개그맨 송준근은 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둔 한 학생의 사연을 듣고, 아버지의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특별하게 꾸며줬다. <br/><br/>송준근은 이상민, 이상호와 함께 마지막 가족사진을 담을 카메라를 가족에게 선물했으며 아버지를 위한 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준비해 병실에서 상영했다. 투병중인 아버지와 가족들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br/><br/>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학생의 아버지는 일주일 뒤 가족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송준근 선행이 알려지게 됐다. <br/><br/><br/><br/>사진=서울신문DB<br/><br/><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3.txt

제목: 수르수르만수르 송준근 선행 도왔다…“말기암 아버지 마지막 결혼기념일” 학생 소원 들어줘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3403211  
본문: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br/><br/>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의 선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선행을 연결해 준 ‘수르수르만수르’도 화제가 되고 있다. <br/>지난해 말 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은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을 접하고 학생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br/>송준근은 쌍둥이 개그맨인 이상호·이상민과 함께 해당 학생의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br/>이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현재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br/>한편 안타깝게도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1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송준근 이상호 이상민 측에 따르면 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 ‘수르수르만수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이벤트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지난해 수르수르만수르와 함께 두 가지 소원을 이뤄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관계자는 “그게 지난해 11월 일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영상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면 만수르가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콘셉트로,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이다.<br/>앞서 지난해 개그우먼 오나미는 해당 앱에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 립스틱 100개를 선물받았다. 오나미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수르수르만수르에 예뻐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립스틱 100개가 택배로 왔다. 언제 다 바르나. 나 이쁘나”라는 글과 함께 립스틱을 선물 받은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4.txt

제목: 수르수르만수르가 송준근 선행 도왔다…“말기암 아버지 마지막 결혼기념일” 학생 소원 들어줘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3235092  
본문: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br/><br/>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의 선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선행을 연결해 준 ‘수르수르만수르’도 화제가 되고 있다. <br/>지난해 말 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은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을 접하고 학생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br/>송준근은 쌍둥이 개그맨인 이상호·이상민과 함께 해당 학생의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br/>이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현재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br/>한편 안타깝게도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1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송준근 이상호 이상민 측에 따르면 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 ‘수르수르만수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이벤트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지난해 수르수르만수르와 함께 두 가지 소원을 이뤄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관계자는 “그게 지난해 11월 일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영상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면 만수르가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는 콘셉트로,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이다.<br/>앞서 지난해 개그우먼 오나미는 해당 앱에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 립스틱 100개를 선물받았다. 오나미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수르수르만수르에 예뻐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립스틱 100개가 택배로 왔다. 언제 다 바르나. 나 이쁘나”라는 글과 함께 립스틱을 선물 받은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5.txt

제목: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 뭐길래?…“말기암 아버지 마지막 결혼기념일” 학생 소원 들어줘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3216250  
본문: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br/><br/>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의 선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선행을 연결해 준 ‘수르수르만수르’도 화제가 되고 있다. <br/>지난해 말 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은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을 접하고 학생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br/>송준근은 쌍둥이 개그맨인 이상호·이상민과 함께 해당 학생의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br/>이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현재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br/>한편 안타깝게도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1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송준근 이상호 이상민 측에 따르면 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 ‘수르수르만수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이벤트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지난해 수르수르만수르와 함께 두 가지 소원을 이뤄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관계자는 “그게 지난해 11월 일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영상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6.txt

제목: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 앱 덕분?…“말기암 아버지 마지막 결혼기념일” 학생 소원 들어줘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3210332  
본문: ‘송준근 선행’ ‘수르수르만수르’<br/><br/>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의 선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br/>지난해 말 개그맨 송준근·이상호·이상민은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을 접하고 학생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 <br/>송준근은 쌍둥이 개그맨인 이상호·이상민과 함께 해당 학생의 가족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br/>이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현재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br/>한편 안타깝게도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1주일 뒤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송준근 이상호 이상민 측에 따르면 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 ‘수르수르만수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이벤트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지난해 수르수르만수르와 함께 두 가지 소원을 이뤄줬다</span>”고 전했다.<br/>이어 관계자는 “그게 지난해 11월 일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영상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7.txt

제목: 송준근 선행, 이상호-이상민과 암 말기 사연의 주인공 찾아가..  
날짜: 20150115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3106774  
본문: 최근 유튜브에는 KBS2 ‘개그콘서트’의 코너 ‘닭치고’ 출연팀인 송준근, 이상호, 이상민이 한 환자의 가족을 방문해 선행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재됐다.<br/>송준근은 지난해 말 “<span class='quot0'>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위해 잊지 못할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만들고 싶다</span>”는 한 학생의 사연에 동료 개그맨 이상민, 이상호와 함께 학생의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결혼기념일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br/>이들은 함께 마지막 가족사진을 찍을 카메라를 가족에게 선물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위한 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제작해 병실에서 상영했다. 이를 본 투병중인 아버지와 병실 안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br/>특히 송준근 선행 일주일 뒤 이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들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8.txt

제목: 담배처럼 수명 줄이는 최악의 생활습관 3가지  
날짜: 20150114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347210  
본문: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당신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거나 처지게 만드는 등 노화 현상을 촉진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게다가 고혈압이나 암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오죽하면 예전에 영어권에서는 ‘캔서 스틱’(Cancer stick)이라고 불렀겠는가.<br/>이런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최근 확산하면서 물담배나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종담배 역시 덜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습관 중에서 흡연만큼 혹은 그 이상 몸에 해로운 것이 있다면 믿겠는가.<br/>최근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 셰이프(SHAPE)는 ‘수명을 단축하는 놀라운 유해 습관 3가지’를 소개했다. 모두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이니 비록 비흡연자이더라도 이런 습관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자.<br/>1. TV를 너무 오래 본다<br/>TV 시청이 왜 흡연만큼 몸에 해로우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물론 TV 자체는 해롭지 않다. 문제는 TV를 너무 오랫동안 계속 보는 습관이라는 것이다. 호주 퀸즐랜드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로는, 담배 1개비는 약 11분 정도의 수명을 단축한다. 그러나 비흡연자라도 25세 이후에는 TV를 보는 시간이 1시간이 지날 때마다 무려 21.8분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계속 앉아 있는 생활을 하면 암이나 심장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br/>2. 고기를 자주 먹는다<br/>대부분이 고기를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기 역시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수명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초 국제 학술지 ‘셀 대사’(Cell Metabolism)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단백질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수명이 짧아졌다. 사망률이 74% 더 높았고 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무려 4배나 높았다. 이는 흡연자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연구 저자들은 말한다. 따라서 동물 단백질 대신 일부를 식물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br/>3.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다<br/>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공공보건저널(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약 1컵(237mL)의 탄산음료를 마시면 면역세포를 2년간 노화시킨다. 또 하루에 약 2컵 반(592mL)을 마시면 텔로미어(말단소립)라는 DNA 일부가 무려 5년에 해당하는 길이가 짧아지는 데 이는 담배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 대신 설탕이 들어 있지 않은 차 등을 마시는 것이 수명을 줄이지 않는 방안이 될 것이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29.txt

제목: 송준근 선행, 아름다운 발걸음에 말기암 환자 가족도 울었다  
날짜: 2015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22340893  
본문: 송준근 선행 <br/><br/>송준근 선행, 아름다운 발걸음에 말기암 환자 가족도 울었다<br/><br/>송준근 선행 영상이 화제다. <br/><br/>최근 개그맨 송준근은 췌장암 말기 아버지를 둔 한 학생의 사연을 듣고, 아버지의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특별하게 꾸며줬다. 송준근은 동료 개그맨 이상민, 이상호와 학생의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결혼 기념일 이벤트를 계획했다. <br/><br/>송준근은 이상민, 이상호와 함께 마지막 가족사진을 담을 카메라를 가족에게 선물했으며 아버지를 위한 가족들의 영상편지를 준비해 병실에서 상영했다. 투병중인 아버지와 가족들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br/><br/>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학생의 아버지는 일주일 뒤 가족의 품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송준근 선행이 알려지게 됐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0.txt

제목: “주야 교대근무 여성, 사망확률 최대 25%나 높아” (하버드대)  
날짜: 20150113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329383  
본문: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는 여성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다.<br/>정기적으로 밤샘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의 경우 주간 근무만 하는 여성보다 심장병, 암 등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주야 교대 근무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미국 예방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최신호에 발표했다.<br/>이번에 연구 대상에 오른 근로자는 주야 근무를 밥먹듯 하는 것으로 유명한 간호사다. 지난 1972년 부터 30-55세 사이의 미국 간호사 총 12만 17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이들의 근무 형태와 건강 상태를 비교해 실시됐다.<br/>먼저 연구팀은 주야 교대 근무의 기준을 1달에 3일 이상 밤새는 근무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주야 근무를 해온 여성은 주간 근무만 한 여성보다 11%나 사망 확률이 높았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은 19%나 더 높았으며 15년 이상 주야 근무를 한 여성의 경우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나 더 높게 나타났다.<br/>결과적으로 주야 교대 근무 여성의 경우 주간 근무자보다 심혈관계 질환 혹은 암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된 셈이다.　 　 　<br/>연구를 이끈 에바 션해머 박사는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가 이같은 결과를 만드는 주요 원인" 이라면서 "근무 패턴이 개인의 건강과 장수에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야 근무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1.txt

제목: “人生, 고통 덕에 눈물겹게 아름다울 수 있다”  
날짜: 2015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14326246  
본문: “<span class='quot0'>위암 발병과 수술 그리고 투병이라는 문제를 푸실 답을 찾으셨습니까?</span>”(하창수)<br/><br/>“<span class='quot0'>먼 산머리 조각구름에 거처가 있습니까?</span>”(이외수)<br/><br/>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으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소설가 이외수(69)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생겼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또 생기는 ‘조각구름’처럼 죽음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 삶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각구름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불행이나 불안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소설가 하창수가 묻고 이외수가 답한 ‘이외수의 존버 실천법 뚝,’(김영사)은 이처럼 이외수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다. 2013년 10월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논한 첫 대담집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나왔다.<br/><br/>제목부터 눈에 띈다. 하창수는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버텨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뚝’은 슬픔, 회한, 절망 등 부정적인 것들을 그치게 하는 의미로 한마디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목에 굳세게 버틴다는 뜻의 ‘존버’와 엄마가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울음을 그치라는 의미로 말하는 ‘뚝’을 붙인 이유다.<br/><br/>질문은 모두 125개다. 죽음, 행복, 깨달음, 고통, 성공, 사랑, 분노, 욕심, 용서, 결혼…. 살면서 풀어야 할 것들이지만 답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들이다. 첫 질문부터 간단치 않다. 사람들이 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 얻은 답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지를 짚어보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한다. 하창수는 “<span class='quot1'>질문이 까다로워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나왔다</span>”고 소개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고행을 하는 동안 악마로부터 받은 세 가지 유혹을 거부했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등 종교적인 물음을 꼽았다. 가장 괴로운 질문으론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뇌물과 청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들었다.<br/><br/>둘은 첫 대담집 출간 이후 세상을 살면서 부닥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대담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해 10월 이외수의 위암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간이 2개월 정도 늦춰졌다. 원고를 정리하던 하창수는 발병 소식을 듣고 위암 수술 질문을 추가했다.<br/><br/>이외수는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지난해 10월 수술했다. 지난 5일부터 강원도 춘천 성심병원에서 3차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으면서 몸무게가 14㎏이나 줄어 뼈만 앙상하다. 항암치료는 8차까지 이어진다. 이외수는 말한다. “고통은 필요하다. 아프지 않으면 썩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의 무게도 줄어든다. 고통 때문에 인생이 ‘눈물겹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277쪽)<br/><br/>하창수의 바람도 이와 무관치 않다. “죽음과 가까이 있는 이외수의 ‘존버’ 정신이 암 환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뚝’이 이외수의 아픔, 절망을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의 고통, 슬픔, 회한, 절망을 끊어내게 하는 희망이 됐으면 한다.”<br/><br/>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2.txt

제목: “매일 귀리 먹으면 장수한다”  
날짜: 20150110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5054908  
본문: 매일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하버드대학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이 매일 통곡물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질환(CVD)와 같은 주요 만성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감소한다고 ‘미국의사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 5일 자에 발표했다.<br/>이번 연구는 간호사와 의사, 약사 등 의료관계자 총 11만 8085명의 추적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미국의 대표적 코호트 연구인 간호사건강연구(NHS, 1984~2010년)와 보건전문요원후속연구(HPFS, 1986~2010년)의 자료가 쓰였다.<br/>연구팀은 조사 기간 전 이미 심혈관계질환(CVD) 등 주요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했다. 이 밖에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흡연, 체질량지수(BMI) 등과 같은 요인을 조정하자, 여성 7만 4341명(NHS), 남성 4만 3744명(HPFS)으로 추려졌다. 조사 기간 사망자는 총 2만 6920명이다.<br/>이들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매일 통곡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곡물 28g을 먹으면 총사망률이 5% 더 감소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9%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암에 의한 사망률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br/>연구를 이끈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홍유 우 박사는 “<span class='quot0'>이 결과는 통곡물 소비를 늘려 만성병을 1, 2차적으로 예방하고 통곡물이 풍부한 식사가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현재의 식사지침을 뒷받침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통곡물은 도정하지 않고 겉껍질만 벗긴 것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배아가 남아 있는 것이다. 통곡물에는 현미, 귀리, 통밀 등이 있으며 빵이나 죽, 시리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br/>영국 심장재단(BHF) 수석영영사 빅토리아 테일러는 “흥미로운 연구”라고 평가하면서도 “<span class='quot1'>이번 결과가 통곡물이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감소와의 관계에 미치는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통곡물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생활방식이 더 건강하고 조사 기간 통곡물만 섭취하지는 않았으니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3.txt

제목: “사랑하는 이·소중한 것 뺏긴 고통 이겨 내는 주인공에 공감”  
날짜: 2015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12757961  
본문: “<span class='quot0'>영화 속에서 존 윅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그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 내는 부분에 공감했습니다.</span>”<br/><br/>키아누 리브스(51)가 7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그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에 액션영화로 복귀한 느낌과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 등을 소개했다. 오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존 윅’은 키아누 리브스가 모처럼 정통 액션배우로 돌아왔다는 점과 함께 영화가 의도치 않게 그의 삶의 궤적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스피드’(1994)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키아누 리브스 신드롬에 빠지게 만든 ‘매트릭스’ 시리즈를 통해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05년 ‘콘스탄틴’ 이후 액션배우로서 별다른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br/><br/>이날 기자회견장에 30분 정도 늦게 도착한 키아누 리브스는 “미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서툰 한국말 인사를 건넸다. 전날 입국 때 덥수룩했던 수염은 깔끔히 깎았다.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한결같은 젊음을 유지한다고 해 인터넷상에서 우스갯소리로 떠돌던 ‘뱀파이어설’이 떠오르는 얼굴이었다. <br/><br/>그는 “<span class='quot1'>존 윅은 복수를 위해 먼 여정을 떠나지만 복수뿐 아니라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내면적인 평화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싸워 가는 과정이 있다</span>”고 말했다. 또한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는지, 존 윅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관객에게 고민할 만한 화두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r/><br/>특히 영화 개봉에 즈음해 키아누 리브스의 가슴 아픈 개인사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극 중 전설적인 킬러 존 윅은 아내와 결혼하며 범죄 세계에서 손을 씻는다. 그러나 아내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상심해 있던 그의 앞으로 생전에 아내가 보낸 강아지 한 마리가 뒤늦게 배달된다. 그런데 러시아 범죄 조직에서 아내의 마지막 선물마저 앗아 가고 만다.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며 한 조각의 자비심도 없는 존 윅의 무서운 복수가 펼쳐진다. 실제로 그는 2001년 아이를 유산한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깊은 방황에 빠졌다. 그는 “내가 평생 사랑한 여자는 단 세 명이었다. 암으로 죽은 누이동생, 옛 약혼자, 미처 세상에 나오지 못한 딸아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배우의 활동이 아닌 노숙 생활을 하는 모습 등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br/><br/>키아누 리브스는 이날 저녁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마친 뒤 9일 출국한다.<br/><br/>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4.txt

제목: “비타민 보충제, 먹어도 효과 없다”  
날짜: 2015010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4918157  
본문: 웰빙 열풍이 불면서 세포의 산화를 방지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산화방지 기능이 든 영양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br/>대표적으로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산화방지 작용이 강하며 채소나 과일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산화방지 성분은 세포가 노화되거나 DNA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더 나아가 심장질환이나 암을 예방하는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br/>하지만 최근 해외 전문가들은 값비싼 산화방지 식품이나 보충제가 기대한 것 이하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br/>연구를 이끈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노화연구클리닉은 1982년부터 무작위로 선발한 한 지역의 퇴직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 및 영양보충제 등의 식습관을 추적•관찰했다. 당시 조사대상의 3분의2가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었으며, 그중 대다수는 비타민C 보충제였다.<br/>조사를 시작한지 32년이 지난 현재, 1만 4000명 중 1만 3104명이 사망했으며, 연구진이 이들의 흡연,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량, 운동량, 체지방량을 기록하고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마비, 심장발작, 류마티스, 암 등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다.<br/>그 결과 비타민A나 비타민C, 비타민E의 섭취량과 사망률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br/>연구를 이끈 앤리아 파가니니-힐 박사는 “<span class='quot0'>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질병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고 흡연하지 않았으며 비만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span>”고 설명했다.<br/>이어 “반면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보충제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평소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타민C 섭취량이 2배 더 많았다”면서 “산화방지 작용이 강한 비타민 보충제를 많이 섭취해도 생활습관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무병장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br/>취리히대학교 사회예방의학연구소의 사비네 로르만(Sabine Rohrmann) 역시 과거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가 도리어 건강에 유해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으며, 로이터와 한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비타민 등 영양보충제는 불필요하며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5.txt

제목: [정진곤의 살며 생각하며] 나쁜 사람은 없었다  
날짜: 2015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12219752  
본문: ‘목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아가고, 그 곳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앞 둔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잠시 머물며 이별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창재 감독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 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도 병들어 죽어가는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은 죽음을 앞 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환자와 가족들을 간곡하게 설득하였습니다.<br/>호스피스 병동 이야기<br/>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배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암에 걸린 박수명은 아내와 아들과 딸을 둔 40대의 가장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곁에만 있어 달라’고 애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계속합니다. 두 아들의 엄마인 김정자씨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었던 박진우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서도 수학을 강의하고, 눈이 오는 날에도 밖에 나가 짜장면을 먹고 막걸리를 사와서 함께 마십니다. <br/>신학교 3학년생인 스테파노 예비신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사람들을 돌보며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절망하여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보니 모두가 착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동을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br/>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호스피스 병동과는 달리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 강도, 살인 등 온갖 범죄와 흉악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세상 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개인과 개인들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에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의 파괴로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재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자연뿐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br/>왜 호스피스 병동에는 나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그토록 많고 온갖 죄악이 넘쳐날까요?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은 항상 “나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데 비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음이 항상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일일뿐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독한 환자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좋아합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의사가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죽음은 삶의 끝일뿐만 아니라 파멸이고 패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br/>삶을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앞 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그 때 내가 돈을 더 벌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라든가 “내가 더 출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돈만 안 것 같다. 네가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주었어야 했는데” 혹은 “아무 것도 아닌 자리인데, 왜 그렇게 안달을 하면서 욕심을 부렸을까”라고 후회합니다. 죽음이 이렇게 나의 가까이에 있는 줄 알았다면 나의 소중한 시간과 삶을 그런 일에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br/>죽음을 앞 둔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참되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가족, 친지와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거나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유언’은 누구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말이 매우 진실하고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은 그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것,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또한 “삶의 마지막에 가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묻습니다.<br/>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br/>누구에게나 죽음은 항상 삶의 곁에 있습니다. 어린애도,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나 병에 걸려 죽습니다. 며칠 전에는 함께 테니스를 치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야만 죽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사람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br/>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얼마 전 전립선암 3기로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span class='quot0'>왜 내가 암에 걸리게 되었는가 혹은 진즉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만 했는데</span>”라고 하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이시지만, 집도 없고 4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아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신도들로부터 넥타이 한 장도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는 목사님을 본받아 션이나 정혜영과 같이 헌신적으로 이웃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br/>우리도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탐욕을 절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생물학 교수인 내 친구는 살기 위한 ‘욕망’은 모든 생물의 본능이며, 동물인 인간도 보다 잘 살기위해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능적인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요?<br/>이 감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한다고 말합니다. 옳고 바른 말인데,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탐욕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처럼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br/>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tiger@hanyang.ac.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6.txt

제목: “매일 통곡물 섭취, 사망률 ↓ 심혈관질환 ↓” (국제 연구)  
날짜: 2015010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4742227  
본문: 매일 통곡물을 먹는 것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비결임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br/>미국과 싱가포르 공동 연구팀이 매일 통곡물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질환(CVD)와 같은 주요 만성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감소한다고 ‘미국의사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 5일 자에 발표했다.<br/>이번 연구는 간호사와 의사, 약사 등 의료관계자 총 11만 8085명의 추적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미국의 대표적 코호트 연구인 간호사건강연구(NHS, 1984~2010년)와 보건전문요원후속연구(HPFS, 1986~2010년)의 자료가 쓰였다.<br/>연구팀은 조사 기간 전 이미 심혈관계질환(CVD) 등 주요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했다. 이 밖에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흡연, 체질량지수(BMI) 등과 같은 요인을 조정하자, 여성 7만 4341명(NHS), 남성 4만 3744명(HPFS)으로 추려졌다. 조사 기간 사망자는 총 2만 6920명이다.<br/>이들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매일 통곡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곡물 28g을 먹으면 총사망률이 5% 더 감소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9%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암에 의한 사망률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br/>연구를 이끈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홍유 우 박사는 “<span class='quot0'>이 결과는 통곡물 소비를 늘려 만성병을 1, 2차적으로 예방하고 통곡물이 풍부한 식사가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현재의 식사지침을 뒷받침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통곡물은 도정하지 않고 겉껍질만 벗긴 것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배아가 남아 있는 것이다. 통곡물에는 현미, 귀리, 통밀 등이 있으며 빵이나 죽, 시리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br/>영국 심장재단(BHF) 수석영영사 빅토리아 테일러는 “흥미로운 연구”라고 평가하면서도 “<span class='quot1'>이번 결과가 통곡물이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감소와의 관계에 미치는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통곡물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생활방식이 더 건강하고 조사 기간 통곡물만 섭취하지는 않았으니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7.txt

제목: “주야 교대 근무여성, 주간근무보다 사망확률 높다” (하버드대)  
날짜: 20150106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4730012  
본문: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는 여성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다.<br/>정기적으로 밤샘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의 경우 주간 근무만 하는 여성보다 심장병, 암 등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주야 교대 근무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미국 예방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최신호에 발표했다.<br/>이번에 연구 대상에 오른 근로자는 주야 근무를 밥먹듯 하는 것으로 유명한 간호사다. 지난 1972년 부터 30-55세 사이의 미국 간호사 총 12만 17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이들의 근무 형태와 건강 상태를 비교해 실시됐다.<br/>먼저 연구팀은 주야 교대 근무의 기준을 1달에 3일 이상 밤새는 근무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주야 근무를 해온 여성은 주간 근무만 한 여성보다 11%나 사망 확률이 높았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은 19%나 더 높았으며 15년 이상 주야 근무를 한 여성의 경우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나 더 높게 나타났다.<br/>결과적으로 주야 교대 근무 여성의 경우 주간 근무자보다 심혈관계 질환 혹은 암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된 셈이다.　 　 　<br/>연구를 이끈 에바 션해머 박사는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가 이같은 결과를 만드는 주요 원인" 이라면서 "근무 패턴이 개인의 건강과 장수에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야 근무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8.txt

제목: “매일 통곡물 먹으면 장수…심혈관질환 ↓” (국제 연구)  
날짜: 2015010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4725406  
본문: 매일 통곡물을 먹는 것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비결임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br/>미국과 싱가포르 공동 연구팀이 매일 통곡물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질환(CVD)와 같은 주요 만성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감소한다고 ‘미국의사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 5일 자에 발표했다.<br/>이번 연구는 간호사와 의사, 약사 등 의료관계자 총 11만 8085명의 추적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미국의 대표적 코호트 연구인 간호사건강연구(NHS, 1984~2010년)와 보건전문요원후속연구(HPFS, 1986~2010년)의 자료가 쓰였다.<br/>연구팀은 조사 기간 전 이미 심혈관계질환(CVD) 등 주요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했다. 이 밖에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흡연, 체질량지수(BMI) 등과 같은 요인을 조정하자, 여성 7만 4341명(NHS), 남성 4만 3744명(HPFS)으로 추려졌다. 조사 기간 사망자는 총 2만 6920명이다.<br/>이들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매일 통곡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곡물 28g을 먹으면 총사망률이 5% 더 감소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9%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암에 의한 사망률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br/>연구를 이끈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홍유 우 박사는 “<span class='quot0'>이 결과는 통곡물 소비를 늘려 만성병을 1, 2차적으로 예방하고 통곡물이 풍부한 식사가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현재의 식사지침을 뒷받침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통곡물은 도정하지 않고 겉껍질만 벗긴 것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배아가 남아 있는 것이다. 통곡물에는 현미, 귀리, 통밀 등이 있으며 빵이나 죽, 시리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br/>영국 심장재단(BHF) 수석영영사 빅토리아 테일러는 “흥미로운 연구”라고 평가하면서도 “<span class='quot1'>이번 결과가 통곡물이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감소와의 관계에 미치는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통곡물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생활방식이 더 건강하고 조사 기간 통곡물만 섭취하지는 않았으니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39.txt

제목: 피죤 이주연 대표, 전라도 남원 고향인 직원 부모님께 깜짝 이벤트 ‘주목’  
날짜: 20150105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4639743  
본문: 한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따스한 편지가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편지의 주인공은 2년 전 간이식 수술을 한 피죤 전산팀의 박남신 과장.<br/>박 과장은 2년 전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70%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오래 전부터 후천성 B형 간염을 앓은 박 과장의 아버지는 2009년 간경화 이후 혈관 쪽 암 전이로 색전술과 고주파,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복수가 차서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혈관 쪽에 암이 발견되어서 간이식도 못 받는 처지에 있었지만 2012년 다행히 호전 되어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자 집안의 장남인 피죤 박 과장이 직접 간이식을 하겠다고 나섰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br/>최근 박 과장은 병원에서 간이식 관련해 정상인처럼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회사에서 주었던 도움을 잊지 않고 피죤 이주연 대표에게 박 과장의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편지를 쓴 것.<br/>박 과장은 편지에서 “<span class='quot0'>당시 수술비에 보태라며 주신 금일봉은 저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소중했고, 수술로 인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다 양해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span>”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당시 수술 때 피죤 이주연 대표는 박남신 과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사비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회사에서는 수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휴가는 물론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주었다.<br/>피죤 이주연 대표는 “<span class='quot1'>박남신 과장은 8년 동안 보아오면서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서울에 있으면서 전라도 남원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지도 못했을 텐데 이번 연말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줄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아울러 피죤 이주연 대표는 “박 과장의 편지에 감사의 뜻으로 전라도 남원에 있는 박 과장의 부모님께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또 완쾌된 기념으로 부모님 두 분이서 해외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을 보내드렸다.”고 말했다.<br/>피죤 박남신 과장은 “<span class='quot2'>당시 도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쓴 편지로 인해 이렇게 깜짝 선물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2'>회사의 배려로 고향인 전라도 남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비즈니스 티켓을 보내주신 이주연 대표님 덕분에 한 번도 해외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부모님께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이 될 것</span>”이라고 회사와 이주연 대표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br/>한편 박남신 과장의 아버지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예전처럼 아내와 함께 전라도 남원에서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0.txt

제목: 시한부 1개월 女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날짜: 20150102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4541422  
본문: 시한부 1개월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br/>미국 NBC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25살인 리자 휴튼은 2011년 활막육종(synovial sarcoma) 진단 뒤 수술을 받았다. 활막육종은 관절에서 주로 발생하는 종양으로 악성도가 높으며, 10만 명 중 2명에게서 발병하는 만큼 희귀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br/>휴튼은 당시 완치 선고를 받았지만 얼마 전 암이 재발했으며 그녀에게 남은 날이 불과 1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br/>소식을 접한 남자친구 와트는 그녀를 위해 진심을 담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결혼식이다.<br/>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휴튼과 와트는 100여명에 달하는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 모아 이틀간의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휴튼은 아름다운 드레스와 면사포를 썼고, 세상 어떤 신부보다도 예쁜 미소로 자신의 결혼식을 즐겼다.<br/>시한부 1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하객들 역시 감동을 숨기지 못했다.<br/>결혼식 도중, 휴튼은 하객들에게 “이틀간의 파티가 끝나면 나는 존스홉킨스대학 의학임상센터에 갈 예정이다. 그곳에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치료제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br/>이어 “지난 3년간 어떤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암이 완치됐다고 생각했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는 날이 올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암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며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br/>휴튼과 와트 부부는 질병과 고통이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으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 사진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br/>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1.txt

제목: “암은 복불복…운 나쁘면 걸린다”  
날짜: 20150102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4533284  
본문: 일반적으로 암은 불규칙하고 불량한 식습관과 오염된 환경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미국 존스홉킨스의과대학 연구진이 “<span class='quot0'>암은 그저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것</span>”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br/>존스홉킨스대학 연구진은 총 31가지 암 세포의 줄기세포와 암 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세포의 분화율이 높을수록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 대상인 31가지 암세포 중 9개만이 유전자 또는 생활습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2가지 암세포는 과학자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운’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br/>실제로 학계에서는 암 환자의 3분의 2가 통제하기 어려운 세포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며, 세포가 더 많이 분열할수록 암이 더욱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br/>일반적으로 세포는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세포를 보충하기 위해 기존의 세포에서 분열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통해 암 세포가 탄생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총 22종의 암 중 65%가 세포분열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다시 말해 세포 분열과정 중 ‘운이 좋으면’ 암세포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운이 나쁘면’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 암으로 발전한다는 것.<br/>연구를 이끈 크리스찬 토마세티 박사는 “생활습관을 바꾸고 유전검사를 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고 즉시 치료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br/>연구에 참여한 버트 보겔스타인 교수는 “폐암이나 피부암처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암이 유발한다고 밝혀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담배가 좋은 예다. 오랜 시간 담배의 유해 성분에 노출되고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유전자를 가져서가 아니라 운이 좋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br/>이미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암 및 희귀 질병의 유전적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진은 “<span class='quot1'>대부분의 암은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것이며, 나쁜 생활습관이나 DNA의 영향이라고 하기 어렵다</span>”고 주장해 학계를 혼란에 빠뜨렸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 전문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2.txt

제목: 한림대 성심병원 김이수 센터장 임상종양학회지 편집위원 선출  
날짜: 2015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05201490  
본문: 김이수 한림대 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이 임상 암연구 권위지인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의 편집위원으로 선출됐다고 한림대의료원이 2일 밝혔다. 임기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br/><br/>한림대 의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이기도 한 김 센터장은 유방암 및 갑상선암 권위자다. 매년 유방암과 갑상선암 수술을 800례 이상 시행하고, 미국 앰디앤더슨 암센터에서 교환교수로 2년간 연수한 바 있다.<br/><br/>김 센터장은 편집위원으로 다른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투고논문 심사, 채택여부 추천, 편집방향 설정 자문도 담당한다.<br/><br/>김 센터장은 매년 미국암연구학회(AACR) 행사에 정회원 자격으로 참석해 진료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영국 암학회지, 미국 유방암학회지 등 국내외 유수의 의학학술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3년에는 한국유방암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고,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br/><br/>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3.txt

제목: 백혈구 세포로 ‘털’ 재생…대머리 치료 新기술 발견  
날짜: 20150101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184445638  
본문: 한 과학자의 우연한 발견이 대머리 치료를 위한 길을 열게 됐다.<br/>스페인 국립암연구소 미르나 페레즈-모레노 박사팀이 쥐를 대상으로 한 항염제 실험 중 발모 증상을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식세포에 있음을 밝혀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br/>대식세포는 단핵구 혹은 단핵백혈구로 불리는 백혈구 세포에서 나오는 것으로, 감염을 막고 죽은 세포를 없애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br/>페레즈-모레노 박사는 이 대식세포가 모낭에서 털이 자라는 원인인 줄기세포처럼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액의 돈이 드는 모발 이식 대신 모낭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br/>연구팀은 논문에 “줄기세포 분야에서 현재 도전과제 중 하나는 이식의 필요 없이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라면서 “이 연구 덕분에 이제 대식세포가 줄기세포 영역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br/>또한 “우리 연구는 대식세포가 면역세포의 주기능을 넘어 ‘피부’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조절제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고 적었다.<br/>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이 ‘피부’로부터의 신호가 발모 촉진을 돕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히 어떤 다른 형태의 세포가 이런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했었다.<br/>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또한 세포조직의 재생과 노화, 암을 연구하는 접근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br/>이번 연구는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팀은 항염제를 투여한 쥐에서 털이 다시 자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관찰했다.<br/>이런 발모 원인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사이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피기 위해 연구팀은 면역세포의 영향을 확인하는 몇 가지 실험을 시행했다.<br/>연구팀은 일부 대식세포가 거의 줄기세포처럼 활동하고 털을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대식세포가 보이는 주요 신호를 억제하면 발모가 지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자 그 결과는 예상대로 나타났다.<br/>비록 이번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했지만,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인간의 발모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br/>연구팀은 항염제를 특정 세포까지 운반하기 위해 리포솜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작은 물방울을 사용했고 이 방법은 반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br/>사진=쥐의 발모 과정을 나타낸 것(플로스 바이올로지)<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4.txt

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들] 담뱃값 4500원…A형 간염 접종 무료…법정 내 녹음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02657016  
본문: 1월 1일부터 담뱃세 2000원 인상과 함께 담배가격도 4500원으로 오른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냄새가 안 난다며 전자담배를 피웠다가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오른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A형 간염 접종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료로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법정 내 녹음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공무원시험 체력검정에서도 도핑테스트(약물검사)가 시행되며,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하반기부터 평가 항목을 강화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16년까지 연장돼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주택 가구주였던 주택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된다.<br/><br/>편집국 종합<br/><br/><br/><br/>[세제·금융]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 대출 금지 <br/><br/><br/><br/>●자녀장려세제 도입 <br/><br/>부부의 연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 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br/><br/><br/><br/>●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공제 대상 확대 <br/><br/>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500만원 한도)가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로 바뀐다.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공제 대상은 종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br/><br/><br/><br/>●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 부담 완화 <br/><br/>수입금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br/><br/><br/><br/>●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br/><br/>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10% 포인트 인상된다. <br/><br/><br/><br/>●난임 시술비 세제 지원 강화 <br/><br/>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br/><br/><br/><br/>●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br/><br/>퇴직연금 납입 때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br/><br/><br/><br/>●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대 <br/><br/>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 사업자 등록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다. <br/><br/><br/><br/>●연락중지 청구전화 ‘두낫콜’ 운영 <br/><br/>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과 영업 목적의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전화 ‘두낫콜’(Do-not-call)이 올해부터 정식 운영된다. <br/><br/><br/><br/>●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br/><br/>카드의 위·변조 사고를 막기 위해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IC(집적회로)칩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br/><br/><br/><br/>●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br/><br/>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빨라져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 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대출 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br/><br/><br/><br/>●해외여행자 통관제도 및 초과물품 자진신고 때 세액 경감 <br/><br/>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바뀐다. 또 여행자가 면세 범위(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 준다.<br/><br/>[복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br/><br/><br/><br/>●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br/><br/>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진료비를 경감받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도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br/><br/><br/><br/>●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개편 <br/><br/>6월에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활비를 한꺼번에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개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br/><br/><br/><br/>●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br/><br/>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기준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새해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지원단가도 2.3% 인상(4인 가구 생계지원 월 108만원→110만원)된다. <br/><br/><br/><br/>●부모지원보육료 인상 <br/><br/>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대상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된다.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는 3% 인상된다. 7월부터는 실직해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를 시행한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은 월 소득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된다.<br/><br/>[법무·행정] 채무자와 이해관계자면 회생 계획 인가 불허 <br/><br/><br/><br/>●옛 사주 회생 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br/><br/>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을 넘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br/><br/><br/><br/>●법정 녹음 본격 시행 <br/><br/>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한다. 그 밖의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br/><br/><br/><br/>●민사 판결문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 <br/><br/>작년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적는다. <br/><br/><br/><br/>●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br/><br/>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재등록 혹은 신규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br/><br/><br/><br/>●서울시, 2월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 신설 <br/><br/>재난 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br/><br/><br/><br/>●서울에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3월 도입 <br/><br/>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1만원(5~10% 감축)에서 최대 3만 5000원(50% 이상)을 지급한다. 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br/><br/>[부동산·교통] 저소득층에 저금리 혜택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br/><br/><br/><br/>●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br/><br/>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전셋집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금리는 2.7∼3.3%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 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 준다. <br/><br/><br/><br/>●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br/><br/>국민주택기금에서 월세도 대출해 주는 상품이 도입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br/><br/><br/><br/>●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br/><br/>3월부터 가구주가 아니어도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자면 청약할 수 있다. 1·2순위로 나뉘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br/><br/><br/><br/>●주택 바우처제도 시행 <br/><br/>7월부터 지원액이 더 커진 주거급여(주택 바우처)제도가 실시된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을 받는다. 대상자 가운데 임차가구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br/><br/><br/><br/>●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br/><br/>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 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br/><br/>[고용·노동·환경] 여성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금 월 40만 ~ 80만원↑ <br/><br/><br/><br/>●최저임금 8시간 4만 4640원 <br/><br/>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br/><br/><br/><br/>●고령자 고용지원금 연장 <br/><br/>지난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근로자에게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관리비 상승 부담으로 오히려 해고하려 들 가능성이 커 연장 조치를 내렸다. <br/><br/><br/><br/>●여성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금 증가 <br/><br/>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월 40만원(최초 6개월), 월 80만원(이후 6개월)으로 오른다. <br/><br/><br/><br/>●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br/><br/>12월부터 3개월에 걸쳐 노인·이동·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98만여가구에 16만 5000~5만 4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br/><br/><br/><br/>●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br/><br/>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자는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에 대한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br/><br/><br/><br/>●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br/><br/>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에 판매 또는 매입할 수 있다. <br/><br/><br/><br/>●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br/><br/>소비자가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br/><br/>[교육·여성·가족]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0만원으로 인상 <br/><br/><br/><br/>●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br/><br/>보육료(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된다. 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br/><br/><br/><br/>●청소년증 대리인도 발급 <br/><br/>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을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다. <br/><br/><br/><br/>●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br/><br/>모든 국공립 중·고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며 학생들은 구입 대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br/><br/><br/><br/>●양성평등기본법 시행 <br/><br/>7월부터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된다. 모성권뿐 아니라 부성권까지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 추진체계가 강화된다. <br/><br/><br/><br/>●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br/><br/>1월부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대상 인원도 19만 1000명으로 늘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3월 설립해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5.txt

제목: 새해엔 ‘붉은색 고기’ 섭취 줄여야 할 이유... 암 유발 과정 규명  
날짜: 20141231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2223896  
본문: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게 좋다. 고기도 마찬가지이다. 고기에 포함된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과도한 육류, 특히 많은 양의 붉은 고기(red meat) 섭취는 암 발생률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왜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br/>최근 미 국립과학원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에서는 과거부터 붉은 고기 속 암 유발 물질로 알려진 Neu5Gc(N-Glycolylneuraminic acid)가 어떤 경로를 통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br/>Neu5Gc는 시알산(Sialic acid)의 하나로 일종의 당 성분이다. 이 물질은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인간의 경우 이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CMAH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 물질을 생성하지 못한다. 대신 이와 유사한 물질인 Neu5Ac(N-acetylneuraminic acid)를 더 많이 생산한다. 이는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Neu5Gc에 결합하는 병원성 박테리아가 인체에 침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br/>본래 인류의 선조는 이 물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300만 년 전쯤 잃어버렸다. 하지만 인간이 섭취하는 포유류의 고기 속에는 이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이 붉은 고기를 섭취할 때 체내로 흡수된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 암, 동맥경화, 2형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br/>캘리포니아 대학의 아지트 바르키(Ajit Varki)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이 물질이 인체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물 모델을 사용했다. 이들은 Neu5Gc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파괴한 쥐를 인위적으로 만든 후, 이 쥐에게 Neu5Gc가 포함된 육류를 섭취하게 했다.<br/>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면역 체계는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 물질을 이물질로 판단해 여기에 대한 항체를 형성한다. 이 항체들은 목표 물질을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보통의 쥐는 Neu5Gc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항체가 없지만, 실험용 쥐들은 여기에 대한 항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쥐들이 붉은 고기를 먹어서 Neu5Gc를 흡수하면, 이 항체들은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br/>만성적인 염증은 악성 종양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 이번 실험에서 이 실험용 쥐들은 정상 쥐보다 암이 생기는 가능성이 5배 높았다. 이 실험 결과는 Neu5Gc이 인체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데 면역 반응이 관여함을 보여준다. 또 이런 만성 염증은 아마도 동맥 경화나 당뇨의 발생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r/>다만 이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인체 실험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실험을 위해서 Neu5Gc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삽입한 실험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 물질을 인체에서 합성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지 현재로썬 예측하기도 매우 힘들다.<br/>그러나 이 물질이 실제로 인체에서 암이나 다른 질환 발생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를 알아내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도 같이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 단, 현재로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며 편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적당한 양의 육류를 섭취한다면 암의 위험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br/>여기에 Neu5Gc를 포함한 육류(즉 붉은 고기라 불리는 포유류의 고기) 외에 다양한 동물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험도는 더 떨어진다. 즉 닭고기나 어패류를 통해 동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 더 건강한 식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을 포함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과도한 열량과 나트륨을 섭취하지 않게 주의한다면 가장 건강한 식단이 될 것이다.<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6.txt

제목: 붉은 고기속 ‘이것’, 암 유발과정 밝혔다  
날짜: 20141231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2204328  
본문: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게 좋다. 고기도 마찬가지이다. 고기에 포함된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과도한 육류, 특히 많은 양의 붉은 고기(red meat) 섭취는 암 발생률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왜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br/>최근 미 국립과학원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에서는 과거부터 붉은 고기 속 암 유발 물질로 알려진 Neu5Gc(N-Glycolylneuraminic acid)가 어떤 경로를 통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br/>Neu5Gc는 시알산(Sialic acid)의 하나로 일종의 당 성분이다. 이 물질은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인간의 경우 이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CMAH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 물질을 생성하지 못한다. 대신 이와 유사한 물질인 Neu5Ac(N-acetylneuraminic acid)를 더 많이 생산한다. 이는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Neu5Gc에 결합하는 병원성 박테리아가 인체에 침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br/>본래 인류의 선조는 이 물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300만 년 전쯤 잃어버렸다. 하지만 인간이 섭취하는 포유류의 고기 속에는 이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이 붉은 고기를 섭취할 때 체내로 흡수된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 암, 동맥경화, 2형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br/>캘리포니아 대학의 아지트 바르키(Ajit Varki)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이 물질이 인체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물 모델을 사용했다. 이들은 Neu5Gc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파괴한 쥐를 인위적으로 만든 후, 이 쥐에게 Neu5Gc가 포함된 육류를 섭취하게 했다.<br/>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면역 체계는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 물질을 이물질로 판단해 여기에 대한 항체를 형성한다. 이 항체들은 목표 물질을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보통의 쥐는 Neu5Gc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항체가 없지만, 실험용 쥐들은 여기에 대한 항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쥐들이 붉은 고기를 먹어서 Neu5Gc를 흡수하면, 이 항체들은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br/>만성적인 염증은 악성 종양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 이번 실험에서 이 실험용 쥐들은 정상 쥐보다 암이 생기는 가능성이 5배 높았다. 이 실험 결과는 Neu5Gc이 인체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데 면역 반응이 관여함을 보여준다. 또 이런 만성 염증은 아마도 동맥 경화나 당뇨의 발생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r/>다만 이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인체 실험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실험을 위해서 Neu5Gc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삽입한 실험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 물질을 인체에서 합성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지 현재로썬 예측하기도 매우 힘들다.<br/>그러나 이 물질이 실제로 인체에서 암이나 다른 질환 발생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를 알아내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도 같이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 단, 현재로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며 편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적당한 양의 육류를 섭취한다면 암의 위험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br/>여기에 Neu5Gc를 포함한 육류(즉 붉은 고기라 불리는 포유류의 고기) 외에 다양한 동물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험도는 더 떨어진다. 즉 닭고기나 어패류를 통해 동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 더 건강한 식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을 포함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과도한 열량과 나트륨을 섭취하지 않게 주의한다면 가장 건강한 식단이 될 것이다.<br/>고든 정 통신원 jjy0501@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7.txt

제목: 올해 세상을 떠난 세계 주요인사들 - AFP 선정  
날짜: 20141231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2200089  
본문: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부터 미국 할리우드 배우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로빈 윌리엄스까지, 올 한해 사망한 주요 유명인사를 AFP통신이 소개했다. ‘2014년 주목할 만한 사망’(Notable death in 2014)이라는 타이틀로 공개된 이 목록을 살펴보고 한해를 돌이켜보는 것은 어떨까.<br/>■ 1월<br/>아리엘 샤론=이스라엘 총리로 2005년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철수라는 역사적 정책을 주도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8년간 혼수상태로 투병 끝에 텔 아비브 근교 병원에서 11일, 8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클라우디오 아바도=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밀라노 스칼라극장 음악감독,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하고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축제로 격상시켰다. 긴 투병 생활 끝에 볼로냐에서 20일,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피트 시거=미국인 포크 가수. 우디 거스리와 함께 미국의 저항적인 프로테스트 포크를 발전시킨 중요 인물로 꼽힌다. 뉴욕 시내의 병원에서 27일, 9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맥시밀리안 쉘=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오스카 수상 배우. 영어권에서 독일어를 쓰며 성공한 몇 안되는 배우로 영화 ‘젊은 사자들’로 데뷔, ‘뉘른베르크의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을 맡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병에 의해 28일,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2월<br/>필립 세이모어 호프만=미국의 오스카 배우. 2005년 영화 ‘카포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2012년 ‘마스터’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유작으로는 ‘헝거게임’ 시리즈 등이 있다. 뉴욕의 집에서 2일 약물과다 복용에 의해 46세 나이로 사망했다.<br/>셜리 템플=미 할리우드의 영원한 아역 스타로 결혼 이후 정치에 입문해 외교관으로 활약했다. 1935년 아역 부문 오스카상을 수상해 역대 아카데미 최연소 수상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자택에서 10일, 8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파코 데 루치아=스페인의 기타리스트로 플라멩코 기타의 전설로 불렸다. 플라멩코에 재즈, 록, 보사노바, 탱고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뉴 플라멩코’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 전 세계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심장마비로 25일,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3월<br/>제라르 모르티에=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오페라 감독. 10년간 브뤼셀의 라 모네 왕립극장을 이끌며 유럽 변방이던 이 극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전설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08~1989) 사망 이후 잘츠부르크 축제의 총감독을 맡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암으로 투병생활 끝에 8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아메드 테잔 카바=10년 넘게 이어온 시에라리온의 내전 종식을 이끈 대통령. 빈민 구제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도 프리타운의 집에서 13일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4월<br/>미키 루니=미 할리우드의 전설적 배우이자 아역스타. 17세 때였던 1937년부터 1958년까지 출연한 ‘하디 보이스’ 시리즈에서 앤디 하디를 연기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8번이나 결혼했으며 말년에 자식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긴 투병생활 끝에 7일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피치스 겔도프=영국의 패션 아이콘이자 탤런트로, 음악을 통한 자선활동 단체 ‘밴드 에이드’를 결성한 영국 가수 밥 겔도프의 딸이다. 영국 자택에서 7 일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br/>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 작가. 중남미 문학의 거장으로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 이래 가장 인기 있는 스페인어권 작가로, 스페인어로 출간된 책 가운데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 있는 집에서 17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윈 틴=미얀마 군부독재에 항거한 최장기수이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 함께 제1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창설한 언론인. 수감 뒤 여러 국제 언론자유상을 받았고, 석방 뒤 2011년 민정 이양 때까지 NLD를 통해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 양곤 종합병원에서 21일,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밥 호스킨스=영국의 연기파 배우. 1980년 영국 갱스터 영화의 클래식으로 불리는 ‘롱 굿 프라이데이’를 통해 데뷔한 뒤 차가운 악당과 런던 토박이 캐릭터로 많은 영화팬의 사랑을 받았다.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등을 받았다. 폐렴에 의해 29일, 7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5월<br/>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공산주의 정권 시절 폴란드의 마지막 대통령. 공산당 제1서기로 있던 1981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옛소련권 국가의 첫 자유 노동조합인 연대노조(솔리대리티)를 탄압하는 등 민주화 염원을 억압했다. 수도 바르샤바의 병원에서 25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마야 안젤루=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여류시인이자 배우이며 민권 운동가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69년 소설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로 흑인 여성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끊임없는 작품활동과 더불어 작곡과 영화 출연 등 왕성한 문화 활동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자택에서 28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6월<br/>토미 라몬=미국 펑크 밴드 ‘라몬즈’에서 생존하고 있던 마지막 오리지널 멤버.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으로 출생 이름은 토마스 어델리. 미국 뉴욕에서 11일 암으로 65세의 나이에 사망했다.<br/>■ 7월<br/>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 선수. 5일,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냉전 종결의 일익을 담당한 옛소련 마지막 외상으로 전 그루지아 대통령이다. 긴 투병 생활 끝에 7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로린 마젤=미국의 지휘자 겸 작곡가. 타계 직전까지 활동하며 약 7000회 무대에 섰고 음반 300장 이상을 발매했다. 미국·유럽의 오케스트라 10여 곳을 상임 지휘자로서 이끌었다. 버지니아 자택에서 13일 폐렴 합병증으로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나딘 고디머=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겸 반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 반대운동) 활동가. 요하네스버그 자택에서 1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조니 윈터=미국의 전설적인 블루스 가수. 2003년 ‘블루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미국의 음악잡지 ‘롤링스톤’에서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100′에서 63위에 오르기도 했다. 스위스 취리히 근교의 호텔에서 16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8월<br/>로빈 윌리엄스=미국의 오스카 수상 배우이자 코미디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역으로 열연,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있다. 또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미세스 다웃파이어’, ‘어거스트 러쉬’ 등 장기인 코믹 연기를 비롯한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기를 끌었다.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11일, 63세의 나이로 사망한 채 발견됐고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구글 검색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br/>로렌 바콜=미국의 전설적인 여배우. 명배우 험프리 보가트의 파트너로 많은 영화에서 공연했고, 결혼까지 한 ‘가장 행복한 여배우’로 유명세를 탔다. 바콜은 보가트와 최고화제작 ‘키 라르고’를 비롯, ‘소유와 무소유’, ’다크 패시지’, ‘명탐정 필립’ 등 많은 영화에서 같이 출연했다. 12일 뉴욕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뇌졸증으로, 8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제임스 폴리=미국 언론인. 20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수니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참수되면서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IS가 살해한 최초의 서양인으로 기록됐다.<br/>리차드 아텐보로=영국 배우이자 프로듀서이며 영화감독이다.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쥬라기 공원 개발자로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34번가의 기적’에서는 산타 클로스 역을 열연한 바 있다. 감독으로서도 맹활약해 영화 ‘간디’를 통해 아카데미 작품상 등 8개 부문을 수상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24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9월<br/>이언 페이즐리=영국의 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총리로, 북아일랜드의 독립에 반대했던 개신교계 민주통합당의 설립자이다. 2007년 신페인당과의 북아일랜드 공동자치정부 출범에 동의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12일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10월<br/>장클로드 뒤발리에=아이티의 전 독재자. 1971년 19살 나이에 ‘파파 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버지 프랑수와 뒤발리에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뒤발리에는 ‘베이비 독’으로 불리며 1986년까지 15년간 아이티를 철권 통치했다. 4일 심장마비로,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유럽의 3대 석유기업에 드는 프랑스 기업 ‘토탈’의 최고경영자(CEO). 1974년 토탈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2007년 CEO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사고로 20일,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마이클 사타=잠비아 대통령. 삼수 끝에 2011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동가적인 기질에 독설로 유명해 ‘킹 코브라’란 별명을 갖고 있다. 빈민옹호 정책을 써왔으며 자국 탄광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건강 이상으로 영국 런던에서 치료 중이던 28일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11월<br/>마니타스 드 플라타=프랑스 로마 출신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생전 녹음한 80여장의 음반들은 9300만장이나 판매되면서 플라멩코 음악을 대중화했다는 평을 얻었다. 남프랑스의 노인 시설에서 4일,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마이크 니콜스=영화 ‘졸업’으로 미국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감독. 위트 넘치고 사회풍자적인 작품을 영화와 TV,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였다. 19일 심장마비에 의해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스페인 알바 공작부인, 마리아 델 로사리오 카예타나 피츠-제임스 스튜어트=세계에서 가장 많은 칭호를 가진 귀족. 폐렴을 앓은 뒤 남부 세비야의 자택에서 20일, 88 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사바=레바논 출신으로 아랍권에서 가장 유명한 여가수이자 여배우. 1927년 ‘쟌넷 페갈리’란 이름으로 태어났으나 나중에 영화계에 데뷔하면서 아랍어로 아침을 뜻하는 ‘사바’로 불리기 시작했다. 수도 베이루트 교외의 호텔에서 26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필립 휴즈=호주 크리켓 선수. 25일 시드니에서 열린 경기 도중 공에 머리를 맞아 혼절하고 이틀 뒤인 27일 불과 2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P.D. 제임스=‘추리소설계(界)의 여왕’으로 불리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추리소설 작가. 예리한 직관을 가진 수사반장 애덤 달글리시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리즈 소설은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드라마로 방영됐고, 세계적으로 수 백만부가 팔렸다. 옥스퍼드 자택에서 27일, 9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12월<br/>벨기에 파비올라 왕비=고(故) 보두앵 1세의 아내. 후손이 없어 보두앵 국왕의 동생인 알베르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2012년 재단을 설립해 조카들과 가톨릭 자선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으며 연금 삭감으로 논란을 해결했다. 가톨릭과 아동복지 문제에 헌신해 존경을 받았다. 긴 투병 생활 끝에 5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비르나 리지=이탈리아 출신 여배우. 1960년대 할리우드에 진출해 영화 ‘25시’등의 작품에서 열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1994년 ‘여왕 마고’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2004년 이탈리아 골든 글로브 공로상을 수상했다. 수도 로마의 집에서 17일, 7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조 코커=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록가수. 1968년 비틀즈의 노래 ‘위드 어 리틀 헬프 프럼 마이 프렌즈’와 ‘유 아 소 뷰티풀’을 커버해 스타덤에 올랐다. 말년에 폐암을 앓았으며 21일 미국 콜로라도 자택에서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사진=ⓒAFPBBNEWS=NEWS1(위), TOPIC/SPLASH NEWS(www.topicimages.com)<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8.txt

제목: 올해 사망한 세계 주요인사 살펴보니…  
날짜: 20141230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2156613  
본문: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부터 미국 할리우드 배우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로빈 윌리엄스까지, 올 한해 사망한 주요 유명인사를 AFP통신이 소개했다. ‘2014년 주목할 만한 사망’(Notable death in 2014)이라는 타이틀로 공개된 이 목록을 살펴보고 한해를 돌이켜보는 것은 어떨까.<br/>■ 1월<br/>아리엘 샤론=이스라엘 총리로 2005년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철수라는 역사적 정책을 주도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8년간 혼수상태로 투병 끝에 텔 아비브 근교 병원에서 11일, 8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클라우디오 아바도=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밀라노 스칼라극장 음악감독,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하고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축제로 격상시켰다. 긴 투병 생활 끝에 볼로냐에서 20일,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피트 시거=미국인 포크 가수. 우디 거스리와 함께 미국의 저항적인 프로테스트 포크를 발전시킨 중요 인물로 꼽힌다. 뉴욕 시내의 병원에서 27일, 9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맥시밀리안 쉘=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오스카 수상 배우. 영어권에서 독일어를 쓰며 성공한 몇 안되는 배우로 영화 ‘젊은 사자들’로 데뷔, ‘뉘른베르크의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을 맡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병에 의해 28일,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2월<br/>필립 세이모어 호프만=미국의 오스카 배우. 2005년 영화 ‘카포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2012년 ‘마스터’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유작으로는 ‘헝거게임’ 시리즈 등이 있다. 뉴욕의 집에서 2일 약물과다 복용에 의해 46세 나이로 사망했다.<br/>셜리 템플=미 할리우드의 영원한 아역 스타로 결혼 이후 정치에 입문해 외교관으로 활약했다. 1935년 아역 부문 오스카상을 수상해 역대 아카데미 최연소 수상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자택에서 10일, 8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파코 데 루치아=스페인의 기타리스트로 플라멩코 기타의 전설로 불렸다. 플라멩코에 재즈, 록, 보사노바, 탱고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뉴 플라멩코’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 전 세계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심장마비로 25일,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3월<br/>제라르 모르티에=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오페라 감독. 10년간 브뤼셀의 라 모네 왕립극장을 이끌며 유럽 변방이던 이 극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전설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08~1989) 사망 이후 잘츠부르크 축제의 총감독을 맡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암으로 투병생활 끝에 8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아메드 테잔 카바=10년 넘게 이어온 시에라리온의 내전 종식을 이끈 대통령. 빈민 구제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도 프리타운의 집에서 13일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4월<br/>미키 루니=미 할리우드의 전설적 배우이자 아역스타. 17세 때였던 1937년부터 1958년까지 출연한 ‘하디 보이스’ 시리즈에서 앤디 하디를 연기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8번이나 결혼했으며 말년에 자식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긴 투병생활 끝에 7일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피치스 겔도프=영국의 패션 아이콘이자 탤런트로, 음악을 통한 자선활동 단체 ‘밴드 에이드’를 결성한 영국 가수 밥 겔도프의 딸이다. 영국 자택에서 7 일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br/>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 작가. 중남미 문학의 거장으로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 이래 가장 인기 있는 스페인어권 작가로, 스페인어로 출간된 책 가운데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 있는 집에서 17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윈 틴=미얀마 군부독재에 항거한 최장기수이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 함께 제1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창설한 언론인. 수감 뒤 여러 국제 언론자유상을 받았고, 석방 뒤 2011년 민정 이양 때까지 NLD를 통해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 양곤 종합병원에서 21일,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밥 호스킨스=영국의 연기파 배우. 1980년 영국 갱스터 영화의 클래식으로 불리는 ‘롱 굿 프라이데이’를 통해 데뷔한 뒤 차가운 악당과 런던 토박이 캐릭터로 많은 영화팬의 사랑을 받았다.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등을 받았다. 폐렴에 의해 29일, 7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5월<br/>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공산주의 정권 시절 폴란드의 마지막 대통령. 공산당 제1서기로 있던 1981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옛소련권 국가의 첫 자유 노동조합인 연대노조(솔리대리티)를 탄압하는 등 민주화 염원을 억압했다. 수도 바르샤바의 병원에서 25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마야 안젤루=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여류시인이자 배우이며 민권 운동가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69년 소설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로 흑인 여성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끊임없는 작품활동과 더불어 작곡과 영화 출연 등 왕성한 문화 활동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자택에서 28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6월<br/>토미 라몬=미국 펑크 밴드 ‘라몬즈’에서 생존하고 있던 마지막 오리지널 멤버.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으로 출생 이름은 토마스 어델리. 미국 뉴욕에서 11일 암으로 65세의 나이에 사망했다.<br/>■ 7월<br/>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 선수. 5일,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냉전 종결의 일익을 담당한 옛소련 마지막 외상으로 전 그루지아 대통령이다. 긴 투병 생활 끝에 7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로린 마젤=미국의 지휘자 겸 작곡가. 타계 직전까지 활동하며 약 7000회 무대에 섰고 음반 300장 이상을 발매했다. 미국·유럽의 오케스트라 10여 곳을 상임 지휘자로서 이끌었다. 버지니아 자택에서 13일 폐렴 합병증으로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나딘 고디머=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겸 반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 반대운동) 활동가. 요하네스버그 자택에서 1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조니 윈터=미국의 전설적인 블루스 가수. 2003년 ‘블루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미국의 음악잡지 ‘롤링스톤’에서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100′에서 63위에 오르기도 했다. 스위스 취리히 근교의 호텔에서 16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8월<br/>로빈 윌리엄스=미국의 오스카 수상 배우이자 코미디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역으로 열연,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있다. 또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미세스 다웃파이어’, ‘어거스트 러쉬’ 등 장기인 코믹 연기를 비롯한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기를 끌었다.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11일, 63세의 나이로 사망한 채 발견됐고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구글 검색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br/>로렌 바콜=미국의 전설적인 여배우. 명배우 험프리 보가트의 파트너로 많은 영화에서 공연했고, 결혼까지 한 ‘가장 행복한 여배우’로 유명세를 탔다. 바콜은 보가트와 최고화제작 ‘키 라르고’를 비롯, ‘소유와 무소유’, ’다크 패시지’, ‘명탐정 필립’ 등 많은 영화에서 같이 출연했다. 12일 뉴욕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뇌졸증으로, 8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제임스 폴리=미국 언론인. 20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수니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참수되면서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IS가 살해한 최초의 서양인으로 기록됐다.<br/>리차드 아텐보로=영국 배우이자 프로듀서이며 영화감독이다.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쥬라기 공원 개발자로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34번가의 기적’에서는 산타 클로스 역을 열연한 바 있다. 감독으로서도 맹활약해 영화 ‘간디’를 통해 아카데미 작품상 등 8개 부문을 수상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24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9월<br/>이언 페이즐리=영국의 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총리로, 북아일랜드의 독립에 반대했던 개신교계 민주통합당의 설립자이다. 2007년 신페인당과의 북아일랜드 공동자치정부 출범에 동의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12일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10월<br/>장클로드 뒤발리에=아이티의 전 독재자. 1971년 19살 나이에 ‘파파 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버지 프랑수와 뒤발리에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뒤발리에는 ‘베이비 독’으로 불리며 1986년까지 15년간 아이티를 철권 통치했다. 4일 심장마비로,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유럽의 3대 석유기업에 드는 프랑스 기업 ‘토탈’의 최고경영자(CEO). 1974년 토탈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2007년 CEO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사고로 20일,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마이클 사타=잠비아 대통령. 삼수 끝에 2011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동가적인 기질에 독설로 유명해 ‘킹 코브라’란 별명을 갖고 있다. 빈민옹호 정책을 써왔으며 자국 탄광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건강 이상으로 영국 런던에서 치료 중이던 28일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11월<br/>마니타스 드 플라타=프랑스 로마 출신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생전 녹음한 80여장의 음반들은 9300만장이나 판매되면서 플라멩코 음악을 대중화했다는 평을 얻었다. 남프랑스의 노인 시설에서 4일,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마이크 니콜스=영화 ‘졸업’으로 미국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감독. 위트 넘치고 사회풍자적인 작품을 영화와 TV,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였다. 19일 심장마비에 의해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스페인 알바 공작부인, 마리아 델 로사리오 카예타나 피츠-제임스 스튜어트=세계에서 가장 많은 칭호를 가진 귀족. 폐렴을 앓은 뒤 남부 세비야의 자택에서 20일, 88 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사바=레바논 출신으로 아랍권에서 가장 유명한 여가수이자 여배우. 1927년 ‘쟌넷 페갈리’란 이름으로 태어났으나 나중에 영화계에 데뷔하면서 아랍어로 아침을 뜻하는 ‘사바’로 불리기 시작했다. 수도 베이루트 교외의 호텔에서 26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필립 휴즈=호주 크리켓 선수. 25일 시드니에서 열린 경기 도중 공에 머리를 맞아 혼절하고 이틀 뒤인 27일 불과 2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P.D. 제임스=‘추리소설계(界)의 여왕’으로 불리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추리소설 작가. 예리한 직관을 가진 수사반장 애덤 달글리시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리즈 소설은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드라마로 방영됐고, 세계적으로 수 백만부가 팔렸다. 옥스퍼드 자택에서 27일, 9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 12월<br/>벨기에 파비올라 왕비=고(故) 보두앵 1세의 아내. 후손이 없어 보두앵 국왕의 동생인 알베르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2012년 재단을 설립해 조카들과 가톨릭 자선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으며 연금 삭감으로 논란을 해결했다. 가톨릭과 아동복지 문제에 헌신해 존경을 받았다. 긴 투병 생활 끝에 5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비르나 리지=이탈리아 출신 여배우. 1960년대 할리우드에 진출해 영화 ‘25시’등의 작품에서 열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1994년 ‘여왕 마고’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2004년 이탈리아 골든 글로브 공로상을 수상했다. 수도 로마의 집에서 17일, 7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조 코커=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록가수. 1968년 비틀즈의 노래 ‘위드 어 리틀 헬프 프럼 마이 프렌즈’와 ‘유 아 소 뷰티풀’을 커버해 스타덤에 올랐다. 말년에 폐암을 앓았으며 21일 미국 콜로라도 자택에서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br/>사진=ⓒAFPBBNEWS=NEWS1(위), TOPIC/SPLASH NEWS(www.topicimages.com)<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49.txt

제목: 건국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다시 지정  
날짜: 2014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64118847  
본문: 　건국대병원(의료원장 양정현, 병원장 한설희)이 정부 심사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이란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력과 시설, 장비는 물론 질환 중증도에 따른 환자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br/>　30일 건국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국 병원 등급조정 심사에서 이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번에 심의, 확정한 상급종합병원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병원 등 전국 43개 주요 병원이 대부분 포함됐다. <br/>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개 권역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최종 확정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2015년부터 3년간이다.<br/>　이에 대해 병원 측은 “2012년에 이어 암, 심혈관질환, 녹내장이나 관상동맥질환 등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br/>　건국대병원은 2005년 8월 신축 개원 후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저명한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영입, 진료의 질을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정현(유방암)·한설희(치매)·강순범(부인암)·서동만(선천성 심장병)·심찬섭(내시경 및 췌담도)·황대용(대장암)·방호윤(위암)·김호연(류마티스질환) 교수 등이 이 시기에 건국대병원에 새로 합류했다.<br/>　한설희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런 노력 끝에 2012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신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장암·유방암과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 치환술, 혈액투석 등 12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아 앞선 의료 수준을 입증했다</span>”고 설명했다.<br/>　양정현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이번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건국대병원이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 고난도 질환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젊은 의료진 양성에도 힘써 환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0.txt

제목: 대머리, 백혈구 세포로 치료…新기술 등장  
날짜: 20141229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1845991  
본문: 한 과학자의 우연한 발견이 대머리 치료를 위한 길을 열게 됐다.<br/>스페인 국립암연구소 미르나 페레즈-모레노 박사팀이 쥐를 대상으로 한 항염제 실험 중 발모 증상을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식세포에 있음을 밝혀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br/>대식세포는 단핵구 혹은 단핵백혈구로 불리는 백혈구 세포에서 나오는 것으로, 감염을 막고 죽은 세포를 없애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br/>페레즈-모레노 박사는 이 대식세포가 모낭에서 털이 자라는 원인인 줄기세포처럼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액의 돈이 드는 모발 이식 대신 모낭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br/>연구팀은 논문에 “줄기세포 분야에서 현재 도전과제 중 하나는 이식의 필요 없이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라면서 “이 연구 덕분에 이제 대식세포가 줄기세포 영역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br/>또한 “우리 연구는 대식세포가 면역세포의 주기능을 넘어 ‘피부’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조절제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고 적었다.<br/>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이 ‘피부’로부터의 신호가 발모 촉진을 돕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히 어떤 다른 형태의 세포가 이런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했었다.<br/>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또한 세포조직의 재생과 노화, 암을 연구하는 접근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br/>이번 연구는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팀은 항염제를 투여한 쥐에서 털이 다시 자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관찰했다.<br/>이런 발모 원인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사이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피기 위해 연구팀은 면역세포의 영향을 확인하는 몇 가지 실험을 시행했다.<br/>연구팀은 일부 대식세포가 거의 줄기세포처럼 활동하고 털을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대식세포가 보이는 주요 신호를 억제하면 발모가 지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자 그 결과는 예상대로 나타났다.<br/>비록 이번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했지만,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인간의 발모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br/>연구팀은 항염제를 특정 세포까지 운반하기 위해 리포솜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작은 물방울을 사용했고 이 방법은 반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br/>사진=쥐의 발모 과정을 나타낸 것(플로스 바이올로지)<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1.txt

제목: 갑상선암 요오드 치료 1주일이면 충분해  
날짜: 2014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62923995  
본문: 　갑상선암은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암 중에서 가장 높아 치료가 쉬운 암으로 인식되지만 여타 암과는 다른 방사성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갑상선 분화암으로 수술을 통해 양쪽 갑상선을 제거하거나, 향후 갑상선암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받는 ‘방사성 동위원소 요오드 치료’가 그것이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요오드를 이용해 수술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다.<br/>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치료용 요오드가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에 요오드를 많이 함유한 식품을 일정기간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식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br/>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치료 가이드라인은 하루 요오드 섭취량을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는 ‘저요오드 식이’를 1~2주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에 비해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는 체내 요오드 수치를 충분히 낮추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저요오드 식이’를 2주간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br/>　이런 가운데 국내 의료진이 이처럼 불편한 저요오드 식이기간을 1주일만 지속해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br/>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 유영훈 교수팀은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준비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이라도 1주일간의 저요오드 식이만으로 체내 요오드 양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체내 요오드의 양은 소변 내 옥소 배출량으로 측정한다.<br/>　연구팀은 또 체내 요오드 양이 목표치(소변 내 옥소 배출량<br/>　유영훈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엄격하게 1주일 동안 저요오드 식이를 진행한다면 체내 잔존 요오드의 양이 치료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따라서 지금까지 통상 2주간 시행하도록 권장해 온 저요오드 식이 기간을 1주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　유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이 연구 결과는 평소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을 기반으로 얻어진 것이어서 평소 요오드 섭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환자들은 1주일보다 짧은 기간 동안 엄격한 저요오드 식이를 시행해도 원하는 만큼의 체내 요오드량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저요오드 식이 기간이 줄면 환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 훨씬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span>”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 공식 저널로 세계 최고 권위의 갑상선 관련 학술지 ‘Thyroid ’(임팩트 지수 3.843)에 게재됐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2.txt

제목: 올해 한국을 울린 3대 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날짜: 2014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62335516  
본문: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이었다. 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는 한국인의 대표 사망원인인 암에 대해 최근 보고된 암 관련 각종 데이터와 사회적 파장도를 종합해 2014년의 3대 이슈 암종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　■관리 사각지대에서 젊은 층 위협하는 위암 <br/>　가수 유채영씨가 지난 7월 말기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2013년과 2009년 임윤택씨와 장진영씨가 역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위암으로 유명인이 속속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진행성 혹은 전이성 위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위암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종으로, 지금까지 고령층에 흔한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 한국의 위암발생률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진단 비율과 5년 생존율이 높아 예후가 좋은 대표적인 암으로 알려졌다.<br/>　그러나 진행성 위암 중 ‘미만성 위암’으로 불리는 암은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진단이 늦은 데다 다각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치료 성적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최근 20대 환자 대상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되는 비율이 2006년 25%에서 2011년 37.5%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주요 6대 암종(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 위암의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위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br/>　 <br/>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 아시아 1위 <br/>　지난 11월, 김자옥씨가 대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명을 달리 했다. 고인은 2008년 대장암 발병 후 임파선과 폐로 암세포가 전이됐으며, 2012년 재차 항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암은 갑상선암, 위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며, 특히 70세 이후의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종이다. <br/>　대한대장항문학회는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대장암 발병현황’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아시아 1위, 세계 4위라고 밝혔다. 발병 증가세도 매우 높아, 1999년 10만 명당 27.0명이던 한국 남성 대장암 발병률은 2008년 47.0명으로 연 평균 6.9%나 상승했다.<br/>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8%로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 국가의 수준과 비슷하다. 그러나, 위암과 마찬가지로 원격 전이 단계에서의 5년 상대 생존율은 남성 18.6%, 여성 17.6%의 생존율에 그쳐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br/>　■담뱃값 논란 속 다시 관심 끄는 폐암<br/>　정부가 2015년부터 큰 폭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폐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인 동시에, 2000~2012년 65세 이상 암 환자들의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br/>　남성의 경우 전체 암사망자의 26.6%인 1만 251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간암 위암 대장암이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체 암사망자의 16.5%인 4658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역시 대장암 위암 간암 등이 뒤를 이었다. <br/>　이런 폐암은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더 심각하다. 2011년 성별 10대 암의 조발생률을 보면,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순이었다. 그러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3년에 발표한 ‘글로보캔 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세계적으로 총 1410만 명이 새롭게 암 진단받았으며, 신규 진단 암 종류를 보면 폐암이 180만명(13%)으로 가장 많았다.<br/>　<br/>　■국가 암 정책에 암 환자가 담겨있을까<br/>　대한암협회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를 통해 암 환자를 위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 김열홍 암협회 학술위원장(고려대 의대)는 “<span class='quot0'>지속적인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암 치료의 경우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이 필수적</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구범환 암협회장은 “<span class='quot1'>최근 치료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위암 등 말기 암환자들이 자살이나 절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말기 암환자들의 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span>”고 밝혔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3.txt

제목: [제대로 알자! 의학 상식]  
날짜: 2014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62045387  
본문: ●‘남성’ 해치는 흡연… 금연하면 젊을수록 회복 빨라<br/><br/><br/>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젊은 남자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다. 건강하지만 요즘 들어 부부관계가 어렵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남성은 발기부전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진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다른 이상이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 1갑 이상 피워온 담배가 문제였다. 이 남성은 담배를 끊고 나서 6개월 만에 회복됐다.<br/><br/><br/>흡연은 음경에 혈류를 공급하는 내음부동맥과 음경동맥에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발기조직인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을 중단하더라도 혈관 손상은 금세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담배를 피우면 아예 호전되지 않는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끊은 사람 가운데 25%가 1년 후 발기력이 개선됐다고 한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금연 후 회복이 빠르다.<br/><br/><br/>남성 암 발생순위 중 5번째를 차지하는 방광암도 흡연자의 발생빈도가 4배 이상 높다. 흡연양이 많을수록, 담배를 오래 피울수록 방광암에 걸릴 가능성은 더 커진다. 담배를 끊더라도 정상인과 비슷한 발생 빈도로 회복하기까지는 20년 정도가 걸린다. 흡연자는 신우암 발생 빈도도 일반인의 3배, 신장암 발생 빈도는 2배가 더 높다.<br/><br/><br/>●호흡재활 필요한 만성폐질환자는 운동 꼭 필요<br/><br/><br/>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질환자들은 조금만 걸어도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운동은 꿈도 못 꾼다는 이야기를 한다. <br/><br/><br/>하지만 호흡기 환자들이야말로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다. 만성 폐질환 환자들의 체계적인 운동을 호흡재활이라고 하는데, 호흡재활을 하면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운동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br/><br/><br/>호흡재활 치료는 만성 폐질환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건강증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공하는 통합 치료 프로그램이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운동요법, 교육, 행동치료, 영양 치료 등 개별 맞춤형 치료를 한다.<br/><br/><br/>폐렴, 무기폐와 같은 급성 호흡기질환자, 호흡기질환 또는 수술 전후의 환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하면 도움이 된다. 간단한 양치질을 해도, 옷을 갈아입어도 숨이 찬 환자들이 호흡재활 치료를 받으면 호흡 곤란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다. 호흡재활치료를 받은 결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감소하고 우울증 및 인지기능이 호전됐으며 만성폐쇄성질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r/><br/><br/>■도움말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홍준혁 교수,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4.txt

제목: [식품첨가물 알고 먹자] 아질산나트륨·L- 글루탐산나트륨  
날짜: 2014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62048465  
본문: 선홍색 고운 빛깔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고,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깊으면서도 짭조름한 맛에 반해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는 뚝딱이다. 고소하고 담백하기는 하지만 감칠맛과는 거리가 먼 돼지고기를 ‘밥 도둑’ 햄으로 만든 비법은 뭘까.<br/><br/>색과 맛의 비밀은 아질산나트륨과 L-글루탐산나트륨에 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첨가물들이다.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br/><br/>아질산나트륨은 햄이나 비엔나 소시지, 베이컨, 육포 등 육가공품은 물론 명란젓에도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다. 먹음직스러운 선홍색을 내고 식중독균 등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아주 유용한 첨가물이다. 반면 단백질 속 ‘아민’과 결합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위험이 있고, 그 자체로도 독성이 강해 단독으로 과다 섭취 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시금치·쑥갓·그린아스파라거스·청고추(1~15)에도 들어 있으며, 로마시대부터 식육의 보존제로 써 온 익숙한 첨가물이다. 이런 이유로 아질산나트륨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2004년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br/><br/>전문가들은 아질산나트륨양을 엄격하게 제한해도 단백질 속 ‘아민’과 결합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생성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니트로사민은 산성 조건에서 가열할 때 잘 생긴다. 구워 먹는 햄 모두가 니트로사민 생성 조건을 갖춘 것이다. 다만 햄에 산화방지제(비타민C)를 첨가하면 니트로사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조 업체들은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한 햄에 꼭 산화방지제를 넣는다. 아질산이 든 배추로 만든 김치에서 니트로사민이 생성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치 역시 단백질이 든 젓갈을 넣어 만들지만 과거 몇 차례 실험 결과 니트로사민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비타민C가 니트로사민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햄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은 워낙 소량이어서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게 보건 당국과 식품업계의 주장이다.<br/><br/>아질산나트륨의 또 다른 문제점은 헤모글로빈 기능을 억제해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질산나트륨은 고기에 함유돼 있는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육가공품의 빛깔을 복숭아빛으로 만든다.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화돼 거무죽죽하게 변하는데, 이때 아질산나트륨은 산소와의 결합을 막아 산화를 방지한다. 문제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아질산나트륨이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가면 이런 작용이 체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아질산에 오염된 우물물을 마신 어린이가 혈액 속 산소가 줄어 청색증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br/><br/>그러나 단국대 백형희 식품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소시지나 햄 속의 아질산나트륨은 돼지고기에 든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과 이미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과 또 결합할 가능성은 낮다</span>”고 말했다.<br/><br/>육가공품에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는 농도는 아질산 이온 기준으로 70이다. 햄과 소시지의 안전섭취량만 지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양이다. 하지만 아주 극소량이라도 아질산나트륨 때문에 세포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br/><br/>이래 저래 말 많은 아질산나트륨을 식품업계는 왜 고집하는 걸까. 한국육가공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아직까지 아질산나트륨을 대체할 물질을 찾지 못해서</span>”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간 육가공품의 유통기한은 30일 정도지만, 아질산나트륨을 빼면 길어야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2'>재고가 많이 생기는 데다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 안 넣을 수가 없다</span>”고 말했다.<br/><br/>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리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한 경우 마비 및 호흡 곤란 증세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식품에 소량이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을 섭취해 암에 걸릴 확률보다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식품업계의 설명이다.<br/><br/>시중에 유통되는 햄이나 비엔나 소시지 가운데 ‘아질산나트륨 무첨가’를 표방한 제품들은 아질산나트륨 대신 샐러리 분말을 넣은 것이다. 샐러리 분말은 식물에서 추출한 아질산나트륨이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고자 아질산나트륨을 빼고 아질산나트륨을 다시 넣은 셈이다.<br/><br/>햄에는 아질산나트륨 외에도 ‘MSG’로 불리는 L-글루탐산나트륨이 들었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MSG가 뇌신경전달 체계를 교란해 두통과 매스꺼움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MSG의 주원료는 사탕수수로,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만든 글루타민산에 나트륨을 섞어 만든다.<br/><br/>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르빈산칼륨, 에르소르빈산나트륨을 넣은 제품도 많다.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넣는 산화방지제인데 독성은 약해도 예민한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햄에 많이 들어가는 코치닐추출색소도 마찬가지다. 코치닐 색소는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 암컷을 건조해 얻은 천연 색소로 안전한 첨가물이지만, 2009년 코치닐 색소로 인한 원인불명의 쇼크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br/><br/>햄에 들어가는 대두단백, 난백 등은 단백질의 질량을 높이려고 넣는다. 원료육은 돼지고기지만, 돼지고기만으로 질량을 맞추려니 단가가 올라가 대두단백을 넣는 것이다. 대두단백은 대개 중국산을 사용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일 가능성이 높다. 듣도 보도 못한 첨가물이 잔뜩 든 햄, 질량에 비해 가격이 매우 싼 햄은 첨가물 표시를 꼼꼼히 보고 살 필요가 있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5.txt

제목: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 ‘항산화+피부 재생’ 동안미인 비결..미란다커도?  
날짜: 2014122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61208783  
본문: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br/>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이 있다?<br/>최근 미국의 여성 매거진 ‘위민스 헬스(Women‘s Health)’가 외모를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를 소개했다.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는 위민스 헬스의 편집장 출신인 건강 전문가 미셸(Michele Promaulayko)이 선정한 것으로 메이플 시럽, 오이, 코코넛 오일, 꽃잎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식품도 있으나 모두 구할 수 있는 식품이다.<br/>1.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은 캐나다 퀘벡주에 주로 분포하는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농축한 것인데 그 속에는 항산화물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이 들어 있고 소염 기능도 있다. 하지만 메이플 시럽 역시 설탕 성분을 갖고 있으므로 하루 한 티스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br/>2. 오이. 소크생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오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기억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기억 장애의 촉진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오이의 딱딱한 껍질에 들어 있는 실리카 성분은 신체를 연결하는 조직 형성에 기여한다. 근육과 관절은 물론 연골 등에도 좋으며 비타민C와 카페인산이 풍부해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br/>3. 코코넛 오일. SCI저널인 국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을 7주간 매일 사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4. 꽃 또는 잎채소. 식품과학저널(Journal of Food Science)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식용 꽃은 페놀산은 물론 갈릭산과 클로로겐산, 루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또 장미 꽃잎과 같은 식용 꽃은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미란다커의 동안 비결?</span>”, “<span class='quot0'>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당장 구입한다</span>”, “<span class='quot0'>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오이 못 먹는데</span>”, “<span class='quot0'>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동안 스타들 이미 챙겨먹고 있을 듯</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서울신문DB(대표적인 동안 미녀 미란다 커)<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6.txt

제목: 시한부 1개월 여성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날짜: 20141226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1703002  
본문: 시한부 1개월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br/>미국 NBC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25살인 리자 휴튼은 2011년 활막육종(synovial sarcoma) 진단 뒤 수술을 받았다. 활막육종은 관절에서 주로 발생하는 종양으로 악성도가 높으며, 10만 명 중 2명에게서 발병하는 만큼 희귀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br/>휴튼은 당시 완치 선고를 받았지만 얼마 전 암이 재발했으며 그녀에게 남은 날이 불과 1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br/>소식을 접한 남자친구 와트는 그녀를 위해 진심을 담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결혼식이다.<br/>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휴튼과 와트는 100여명에 달하는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 모아 이틀간의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휴튼은 아름다운 드레스와 면사포를 썼고, 세상 어떤 신부보다도 예쁜 미소로 자신의 결혼식을 즐겼다.<br/>시한부 1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하객들 역시 감동을 숨기지 못했다.<br/>결혼식 도중, 휴튼은 하객들에게 “이틀간의 파티가 끝나면 나는 존스홉킨스대학 의학임상센터에 갈 예정이다. 그곳에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치료제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br/>이어 “지난 3년간 어떤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암이 완치됐다고 생각했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는 날이 올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암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며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br/>휴튼과 와트 부부는 질병과 고통이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으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 사진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br/>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7.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24)호박  
날짜: 2014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55630409  
본문: 예로부터 가을에 수확한 잘 익은 호박은 겨우내 다락방 시렁에 놓고 호박범벅이나 떡에 넣어 먹는 등 부족한 식량을 대신해 왔다. 다른 채소보다 기후에 잘 적응하고 가뭄과 병에도 강해 우리 선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다. 넝쿨째 굴러 들어온 고마운 식물이 바로 호박이다.<br/><br/><br/><br/>●산모 부기 빼는 데 최고… 노폐물 배출도 탁월<br/><br/>호박은 박과에 속하는 작물로 중앙·남아메리카가 원산지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의 주인공으로, 중국에서는 다산(多産)과 풍작, 건강, 그리고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유럽에는 15세기 이후, 일본에는 16세기 중반쯤 건너갔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후인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일본과 중국을 통해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남만(南蠻)에서 전래됐다는 의미로 남과(南瓜), 오랑캐로부터 전래된 박과 유사하다고 해서 호박이라고 부르게 됐다.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호박은 열다섯 종류인데 지역에 따라 관상용으로 쓰이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호박은 크게 세 종류다. 동양계 호박으로 불리는 ‘모샤타’종 가운데 가장 친숙한 것은 누렇고 커다란 늙은 호박이다. 청둥호박이나 맷돌호박으로 불린다. 서양계 호박이라고 구분하는 ‘막시마’종은 주로 쪄서 먹는다. ‘페포계’ 호박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주키니’ 호박인데 덩굴이 뻗지 않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br/><br/>호박은 대개 여름에 많이 나는데, 늙은 호박은 여름 내내 따지 않고 밭에서 그대로 익힌 것이다. 쨍쨍한 가을볕으로 호박의 영양분이 더 농익도록 기다렸다가 늦가을에서야 수확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동짓날 늙은 호박을 삶아 먹으면 1년 내내 무병한다고 할 정도로 늙은 호박을 훌륭한 영양식으로 평가했다. 늙은 호박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죽이나 김치, 범벅을 해 먹고 씨는 잘 말려 뒀다가 겨울철 간식으로 먹는다. 잎으로는 쌈을 싸 먹는다. 꼭지는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벌꿀과 함께 섞어 먹으면 감기 예방과 고질적인 기침에도 효과가 있다. <br/><br/>동의보감에서는 부기가 있을 때 호박을 먹으라고 했는데 특히 산모의 부기에 좋다. 이뇨제여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부기가 심한 사람이 달여 먹으면 효험이 있다. 호박은 또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열량이 쌀의 10분의1에 불과하지만 노폐물 배출과 지방의 축적을 막아 준다. 잘게 썬 호박을 햇볕에 바짝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하루에 20g씩 꾸준히 복용하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작용도 한다. 호박씨에는 질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머리를 좋게 하는 레시틴이 많다.<br/><br/>●베타-카로틴 풍부… 폐 걱정되는 애연가라면 꼭!<br/><br/>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돼 아이부터 소화력이 떨어지는 환자나 노인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비타민B와 펙틴, 칼슘, 철분, 인 등 식물성 섬유와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영양 덩어리다. 호박을 먹으면 소화기능 향상과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항산화 영양소로 잘 알려진 비타민E도 호박에 넉넉히 들어 있다. 단호박을 한 조각 먹으면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운다. 한국인에게 부족하다고 알려진 비타민A도 호박에 많다. 호박의 노란 색깔은 베타카로틴이 있다는 의미다. 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사람이 먹고 난 후 몸 안에서 비타민A로 바뀐다. 비타민A는 심장병, 뇌졸중, 시력 감퇴, 노화 방지, 폐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호박을 자주 먹는 게 좋다. 호박은 당근과 나란히 황금색 야채의 대표 선수다. 암을 예방하는 성분도 풍부하다.<br/><br/>호박은 열매 채소류에 속하지만 조리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요리에 이용됐다. 지중해에서는 올리브 오일에 볶아 향신 채소를 얹어 먹고, 아랍에서는 호박 속을 비운 뒤 양념한 고기와 여러 재료를 넣고 익혀 먹는다.<br/><br/>멕시코에서는 호박꽃으로 요리를 해 왔다. 호박의 여러 품종 가운데 ‘주키니’의 꽃을 주로 쓰는데 호박꽃의 부드러운 맛이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 일본에서는 200여년 전부터 단호박을 즐겨 먹는 조리법이 발달했으며 애호박은 거의 먹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애호박과 늙은 호박, 잎과 순, 꽃을 두루 즐겨 먹는다.<br/><br/>●상처 없는 늙은 호박, 윤기 도는 단호박이 신선<br/><br/>애호박과 풋호박은 여름에 가장 맛있지만 늙은 호박과 단호박은 가을에 맛있고 영양분도 풍부하다. 늙은 호박은 얼룩진 색깔 없이 표면이 진한 황갈색이면서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는 게 좋다. 상처가 있는 호박은 오래 저장할 수 없고 쉽게 썩는다. 늙은 호박 표면에 하얀 분가루가 생긴 것은 잘 익었다는 표시로 맛이 좋다. 단호박은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면서 표면이 고르고 윤기 있는 게 좋다. 반을 잘라 파는 호박을 살 때는 속이 진한 황색을 띠면서 촉촉한 것을 고른다. 애호박은 너무 크지 않고 곧은 것이 좋다. <br/><br/>황록색으로 윤기가 돌고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신선한 호박이다.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호박은 서양 호박인데 일반 호박에 비해 단맛이 강하고 비타민도 많다. 서양 호박은 단단하고 짙은 초록색에 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꼭지 주변에 주름이 있고 균일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맛있는 단호박이다. 늙은 호박을 고를 때는 껍질에 윤기가 있고 속이 꽉 차 묵직한 것을 고른다. 특히 누렇게 잘 익은 것을 골라야 한다.<br/><br/>박동금 농촌진흥청 도시농업팀 박사<br/><br/>■문의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8.txt

제목: 어려보이고 싶으세요? 그럼 ‘이것’ 드세요  
날짜: 20141225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1609548  
본문: 먹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더 어려 보이게 하는 식품이 있다.<br/>미국의 여성 매거진 ‘위민스 헬스’(Women‘s Health)는 최근 당신의 외모를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를 공개했다.<br/>이는 이 잡지의 편집장 출신인 유명 작가인 건강 전문가 미셸(Michele Promaulayko)이 공개한 것으로 모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로 미셸은 현재 야후 건강의 편집장으로 ‘20 파운즈 영거’(20 Pounds Younger)라는 여성 건강 저서를 출간하고 있다.<br/>1. 메이플시럽<br/>‘진짜’ 메이플시럽은 매우 효과적인 항노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메이플시럽은 캐나다 퀘벡주에 주로 분포하는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농축한 것인데 그 속에는 항산화물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이 들어 있고 소염 기능도 있다. 하지만 메이플시럽 역시 설탕 성분을 갖고 있으므로 하루 한 찻숟가락(티스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br/>2. 오이<br/>소크생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오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기억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기억 장애의 촉진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오이의 딱딱한 껍질에 주로 들어 있는 실리카 성분은 신체를 연결하는 조직 형성에 기여한다. 근육과 관절은 물론 연골 등에도 좋다. 비타민C와 카페인산이 풍부해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얇게 썰어 팩으로 활용하면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이다.<br/>3. 코코넛유<br/>SCI저널인 국제피부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유(코코넛오일)을 7주간 매일 사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32%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4. 꽃 또는 잎채소<br/>꽃은 장식을 해도 좋고 먹어도 좋다. 식품과학저널(Journal of Food Science)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식용 꽃은 페놀산은 물론 갈릭산과 클로로겐산, 루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또 장미 꽃잎과 같은 식용 꽃은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한다. 식용 꽃을 구하기 어렵다면, 케일, 시금치, 민들레, 근대와 같은 잎채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채소는 꽃잎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59.txt

제목: 시인 김명원이 묻고 시인 40명이 답하다… 시인에게 시란 무엇인가?  
날짜: 2014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54057810  
본문: “시나 작품 세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시인들의 숨은 뒷얘기나 삶의 역정은 쉽게 찾아낼 수 없습니다. 시를 연구할 후학들에게 사료로 남기고 싶습니다.”<br/><br/>김명원(55) 시인이 국내 시인들의 삶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5년째 묵묵히 해 오고 있다. 2009년 2월 나희덕 시인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 이후 지금껏 40여명의 시인을 직접 만나 그들의 알려지지 않은 삶과 작품 세계를 촘촘하게 그려 내고 있다. 그 첫 성과물로 대담집 ‘시인을 훔치다’(지혜)를 펴냈다.<br/><br/>김 시인은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한미약품에서 근무했다. 1995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5년간 혹독한 항암치료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생을 되찾았다. 암 투병 중이던 1996년 ‘시문학’으로 늦깎이 등단했다. 지금은 대학교수가 돼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주위 시선에 의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었다. 늘 갈망해 왔던 문학을 하고 싶었고 시인이 되고 싶었다.” <br/><br/>김 시인은 새 인생을 시작했을 때 시적 영감을 주고 시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었던 시인들을 우선적으로 인터뷰했다. 이번 대담집엔 고은 유안진 오세영 이가림 나태주 윤상운 김백겸 정희성 이은봉 도종환 장석주 양애경 공광규 나희덕 송재학 이성렬 신현림 김요일 김경주 박진성 손미 등 21명의 시인이 수록돼 있다. “시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닿아 있는 분들을 먼저 인터뷰하다 보니 초반에는 원로·중진 시인들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2000년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신진 시인들도 만나며 균형을 갖췄다.”<br/><br/>김 시인은 송재학 시인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송 시인은 시를 지망하는 문학도로서 문학적인 삶을 어떻게 견지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준다. 시 정신이 확고하다. 정말 치열하게 시를 쓴다. 문장 하나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자신의 사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길어 올려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던 모습도 감동적이었다.”<br/><br/>그의 눈에 비친 시인들의 삶은 어떨까. “정말 행복해했고 정말 고통스러워했다. 가난하지만 시를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숙명적인 아픔들이 있었다. 시는 자본주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시를 쓴다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비자본적인 시에 매달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관통한 이후 느껴지는 최후의 행복도 갖고 있었다.”<br/><br/>그는 대담 끝머리에 시란 무엇인가를 꼭 물었다. 시인들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그에게 시란 무엇일까. “절대로 무게를 줄일 수 없고 짊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십자가인 것 같다. 끝끝내 짊어지고 가게 되면 삶의 극지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십자가인 듯하다.”<br/><br/>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0.txt

제목: 시한부 1개월 20대女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날짜: 2014122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1514178  
본문: 시한부 1개월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br/>미국 NBC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25살인 리자 휴튼은 2011년 활막육종(synovial sarcoma) 진단 뒤 수술을 받았다. 활막육종은 관절에서 주로 발생하는 종양으로 악성도가 높으며, 10만 명 중 2명에게서 발병하는 만큼 희귀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br/>휴튼은 당시 완치 선고를 받았지만 얼마 전 암이 재발했으며 그녀에게 남은 날이 불과 1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br/>소식을 접한 남자친구 와트는 그녀를 위해 진심을 담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결혼식이다.<br/>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휴튼과 와트는 100여명에 달하는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 모아 이틀간의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휴튼은 아름다운 드레스와 면사포를 썼고, 세상 어떤 신부보다도 예쁜 미소로 자신의 결혼식을 즐겼다.<br/>시한부 1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하객들 역시 감동을 숨기지 못했다.<br/>결혼식 도중, 휴튼은 하객들에게 “이틀간의 파티가 끝나면 나는 존스홉킨스대학 의학임상센터에 갈 예정이다. 그곳에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치료제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br/>이어 “지난 3년간 어떤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암이 완치됐다고 생각했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는 날이 올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암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며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br/>휴튼과 와트 부부는 질병과 고통이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으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 사진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br/>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1.txt

제목: [사회공헌 특집] 아모레퍼시픽 - 녹입니다, 여성 암환자들의 우울증·마음 고통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52346922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UP YOUR LIFE)’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br/><br/>특히 2007년 11월 29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가입하기도 했다. 이는 UNGC가 표명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기업 활동의 전 부분에 단계적으로 적용,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약속과 의지의 표명이다.<br/><br/>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가 있다. <br/><br/>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br/><br/>이로써 이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br/><br/>올해 상반기까지 8654명의 여성 암 환자와 2872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br/><br/>또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 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 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2001년에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다.<br/><br/>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2.txt

제목: 교황 “큐리아는 지금 정신적 치매 앓고 있다”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52244678  
본문: “큐리아(바티칸 행정기구)는 지금 ‘정신적 치매’를 앓고 있다. 권력에 굶주린 사제들이 낮은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동료와 형제들의 명예를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br/><br/>프란치스코 교황의 올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통렬했다. 교황의 연설이 끝나자 바티칸 클레멘타인홀은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고 22일(현지시간) BBC 등이 전했다.<br/><br/>교황은 이날 큐리아를 구성하는 추기경, 주교, 사제 등을 모아 놓고 큐리아 관리들의 위선적인 이중생활과 탐욕, 복지부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교황청을 ‘정신 분열증’, ‘장례식에 간 듯한 얼굴’ 등 15개 병에 시달리는 몸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교황은 특히 “<span class='quot0'>‘험담 테러’가 교황청 관리의 명성을 해치고,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암적 존재가 되기도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내년에는 속죄하고 병이 낫기를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br/><br/>교황은 또 “<span class='quot0'>일부 관리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자신이 머무는 방문자 숙소 옆에 대형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물러난 교황청 국무장관을 지낸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을 겨냥해 “<span class='quot0'>젊은 예수회 소속 신부가 간단한 짐과 책을 모아 이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것이 예수회 신부가 보여줬어야 할 교회의 모범이 아니냐</span>”고 반문했다. 아울러 교황은 “<span class='quot0'>로마 교황청에 집중된 권력을 전 세계 가톨릭 주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br/>올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는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span class='quot0'>큐리아의 사제들이 봉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지금의 큐리아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비대한 관료주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span>”며 소명의식을 강조했다. AFP는 “<span class='quot1'>지난 1년간 관료들이 스스로 변하길 기다렸으나 변화가 없자 교황이 직접 메스를 들겠다고 선언한 것</span>”이라고 분석했다. 교황은 취임 이후 온갖 추문에 시달리던 바티칸 은행(IOR·종교사업기구)의 비밀 금고를 만천하에 공개했고, 은행장뿐만 아니라 이사회 전원을 교체하는 등 교회 역사상 초유의 개혁을 단행했다. BBC는 “<span class='quot2'>교황청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던 마피아를 파문시킨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이 300여명의 보수적인 이탈리아 사제들이 쌓아올린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span>”고 전했다.<br/><br/>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3.txt

제목: 한국인 평균수명 81세까지 암에 걸릴 가능성 37%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52208021  
본문: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보건복지부는 23일 우리나라 국민의 2012년 암 발생률과 암 생존율 및 암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명까지 살면 남자(77세)는 5명 중 2명(37.5%), 여자(84세)는 3명 중 1명(34.9%)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암에 한 번 이상 걸렸던 경험자는 전국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3만 4879명으로 집계됐다. 41명당 1명은 암 경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12명당 1명(남자 9명당 1명, 여자 16명당 1명)이 암 경험자로 나타났다. 다행히 최근 5년간(2008~2012년) 발생한 암 환자의 생존율은 68.1%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며 생존율이 매우 높은 갑상선암을 제외하더라도 60.9%에 달했다. <br/><br/>2012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2000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이 2011년 10만명당 323.1명에서 2012년 319.5명으로 3.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령표준화발생률은 고령화에 따른 암 환자 증가 변수를 배제하고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해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것이다. 인구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하면 2011년(10만명당 439.5명)과 비교해 2012년(10만명당 445.3명) 암 환자가 10만명당 5.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span class='quot0'>흡연율 감소, B형 간염 예방접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br/>이 밖에 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은 갑상선암(22.6%)이 가장 높고 전립선암(12.7%), 유방암(5.8%), 대장암(5.2%) 순으로 나타났다. 간암(-1.9%)은 1999년 이후 줄곧 감소했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4.txt

제목: 당신을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  
날짜: 2014122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1329264  
본문: 여기 당신에게 조금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다. 이는 바로 먹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더 어려 보이게 하는 식품이다.<br/>미국의 여성 매거진 ‘위민스 헬스’(Women‘s Health)는 최근 당신의 외모를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를 공개했다.<br/>이는 이 잡지의 편집장 출신인 유명 작가인 건강 전문가 미셸(Michele Promaulayko)이 공개한 것으로 모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로 미셸은 현재 야후 건강의 편집장으로 ‘20 파운즈 영거’(20 Pounds Younger)라는 여성 건강 저서를 출간하고 있다.<br/>1. 메이플시럽<br/>‘진짜’ 메이플시럽은 매우 효과적인 항노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메이플시럽은 캐나다 퀘벡주에 주로 분포하는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농축한 것인데 그 속에는 항산화물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이 들어 있고 소염 기능도 있다. 하지만 메이플시럽 역시 설탕 성분을 갖고 있으므로 하루 한 찻숟가락(티스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br/>2. 오이<br/>소크생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오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기억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기억 장애의 촉진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오이의 딱딱한 껍질에 주로 들어 있는 실리카 성분은 신체를 연결하는 조직 형성에 기여한다. 근육과 관절은 물론 연골 등에도 좋다. 비타민C와 카페인산이 풍부해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얇게 썰어 팩으로 활용하면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이다.<br/>3. 코코넛유<br/>SCI저널인 국제피부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유(코코넛오일)을 7주간 매일 사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32%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4. 꽃 또는 잎채소<br/>꽃은 장식을 해도 좋고 먹어도 좋다. 식품과학저널(Journal of Food Science)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식용 꽃은 페놀산은 물론 갈릭산과 클로로겐산, 루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또 장미 꽃잎과 같은 식용 꽃은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한다. 식용 꽃을 구하기 어렵다면, 케일, 시금치, 민들레, 근대와 같은 잎채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채소는 꽃잎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5.txt

제목: [탈북 한의사 김지은의 고려의학 이야기] 겨울철 통증  
날짜: 2014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44826591  
본문: 겨울 초입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기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다. 수족냉증, 무릎 통증, 설사, 한랭 알레르기 등이 모두 한기에서 오는 질병들이다. 여성의 생리통과 난임도 한기(냉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기는 왜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걸까.<br/><br/><br/>한의학에서는 풍(風·바람), 한(寒·찬 기운), 서(暑·무더운 기운), 습(濕·습한 기운), 조(燥·마른 기운), 화(火·뜨거운 기운) 등 6가지 기운이 질병을 유발한다고 본다. 여기서 한기는 우리 몸을 움츠러들게 하고, 기의 흐름을 느리게 한다. 따라서 한기가 몸을 침범하면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곳곳에 통증이 생기고 특히 어깨와 허리의 근육이 수축해 근육통을 일으킨다.<br/><br/><br/>한의학에는 ‘불통즉통’(不通則痛), 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한기가 바로 통하지 않게 하는 기운이다. 따라서 추운 날 유달리 허리나 어깨, 무릎 등이 많이 아플 때 찜질 등을 해서 몸을 따듯하게 하면 기의 흐름도 원활해져 통증이 한결 가라앉는다. 온몸이 찌뿌듯할 때 반신욕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몸의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커지고 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r/><br/><br/>몸을 따듯하게 하는 데는 생강이나 계피차가 제격이다. 생강은 몸을 따듯하게 하여 수축한 혈관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또 비위의 기능을 높여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면역력도 키워준다. 계피차는 몸 안에 고인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 통증을 감소시킨다. 몸 안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부추도 한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6.txt

제목: [식품첨가물 알고 먹자] 화학물질로 만드는 껌  
날짜: 2014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44828909  
본문: ‘아질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내 가족에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 가공식품 포장지의 원재료명을 몇 번씩 읽어봐도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식품첨가물인지 알 수가 없다. 식품 전공자가 아니면 읽는 것조차 힘든 알쏭달쏭한 표기 앞에 소비자는 무력해진다.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지만, 모르고 먹는 것과 알고 먹는 것은 분명 다르다. 사탕, 과자, 껌, 아이스크림, 햄 등 모양도 좋고 맛도 좋은 가공식품에 숨겨진 식품첨가물의 비밀을 풀어보는 시리즈를 시작한다.<br/><br/>‘점심 먹고 껌, 간식 먹고 껌, 저녁 먹고 껌’ 최근 담배를 끊은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껌을 씹는다.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살이 찌지 않아 심심한 입을 달래기에는 제격이다. 여기에 초조함까지 없애주니 금상첨화다. 가격도 내년 4500원으로 오를 담배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이다. 그런데 이 껌, 이렇게 많이 씹어도 괜찮을 걸까.<br/><br/>‘정제당 70%, 첨가물 30%.’ 16년간 국내 유명 과자회사에서 근무했던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 후델식품건강연구소 소장은 껌의 정체를 이렇게 두 마디로 표현한다. 껌을 씹는 것은 곧 이 두 종류의 혐오물질을 씹는 것이란 얘기다.<br/><br/>껌은 주재료인 껌베이스에 각종 감미료와 착향료를 섞어 만든다. 1860년대 처음 껌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사포딜라나무의 수액인 천연 치클을 껌베이스로 활용했으나 가격이 비싸 지금은 몇 개 제품에만 쓰이고 있다. 보통 우리가 씹는 껌은 아세틸렌과 초산을 융합한 초산비닐수지로 만든다. 껌 외에도 접착제, 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말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해로운 물질일 것 같지만 초산비닐수지 자체는 독성이 없고 몸에 해가 되지도 않는다. 문제는 화학적 변형을 거치는 과정에서 초산비닐수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초산비닐에 있다.<br/><br/>안병수 소장은 “<span class='quot0'>초산비닐수지 합성 과정에서 초산비닐분자가 분리돼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초산비닐은 독성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국대 백형희 식품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초산비닐수지는 식품첨가물에 엄격한 유럽에서도 쓰는 물질로 해마다 안전성 재평가를 하며, 만약 문제가 됐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당연히 사용을 금지시켰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초산비닐수지만으로는 점성과 탄력성 있는 껌베이스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적당한 탄력성이 생기도록 가소제(아세틸리놀레산메틸)와 기초제의 피막을 강화하는 에스테르검, 껌이 침에 녹아 너무 물컹거리지 않도록 폴리부텐, 폴리이소부틸렌 등을 첨가한다. 모두 화학물질이다.<br/><br/>껌의 단맛은 합성감미료로 낸다. 천연감미료인 자일리톨이 들어간 껌도 원재료명을 잘 살피면 깨알 같은 글씨로 아세설팜칼륨이나 수크랄로스가 함유돼 있다고 표시돼 있다. 설탕보다 무려 200~600배 단맛을 내는 인공합성감미료다. <br/><br/>이들 합성감미료는 소화·분해되지 않는다. 그 결과 에너지도 되지 않아 ‘제로(Zero)칼로리’다. 단맛이 빠르게 발현되고 단맛 지속시간이 설탕과 비슷한 데다 칼로리가 없어 저칼로리 식품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인공감미료가 설탕보다 당뇨병 등의 위험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br/><br/>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의 에란 엘리나브 박사팀이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생쥐에게 11주간 사카린·수크랄로스·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를 넣은 물을 먹인 결과 물만 먹이거나 설탕물을 먹인 다른 쥐보다 혈당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분포를 변화시켜 포도당 흡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br/>수크랄로스가 5% 들어간 먹이를 쥐에게 4주 동안 먹였더니 비장과 가슴샘의 림프조직에서 위축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크랄로스를 섭취했을 때 면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세설팜칼륨 0.3%가 들어간 먹이를 개에게 2년간 먹인 실험에서도 림프구 감소가 확인됐고, 3%가 들어간 먹이를 2년간 먹인 실험에서는 간 효소 수치(GPT)가 증가했다. 그렇다고 인공감미료를 무조건 독성물질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식품첨가물 하루 섭취 허용량은 사람보다 몸집이 작은 동물에게 먹였을 때 안전한 양의 100분의1로 정한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이보다도 적다. 평균 체중 38㎏의 10세 어린이가 이런 인공감미료를 하루 허용량만큼 섭취하려면 아세설팜칼륨의 경우 껌 34통(25g)을 하루 만에 다 씹고, 수크랄로스는 하루에 음료 13병(1병 290㎖)을 마셔야 한다. <br/><br/>그러나 일본의 과학저널리스트인 와타나베 유지는 저서 ‘먹으면 안 되는 10대 식품첨가물’에서 “<span class='quot2'>자연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화학합성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분해되지 않고 이물질이 되어 몸속을 떠돌다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입히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새콤달콤 과일 맛이나 시원한 박하향을 느끼게 하는 합성착향료도 껌에 들어가는 주성분이다. 안 소장은 “<span class='quot0'>껌에 사용하는 향료의 양은 보통 1%이고, 이는 다른 식품의 10배 정도</span>”라고 말했다. 하루 종일 껌을 씹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씹어도 섭취하는 향료는 물 한 방울만큼도 안 되지만 당연히 몸에 좋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껌은 씹고 버리는 식품이란 인식이 강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br/><br/>껌에는 이 밖에도 계면활성제의 일종인 유화제, 표면 마감제인 피막제가 들어간다. 각각의 첨가물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식품에 든 여러 첨가물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br/><br/>그러나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식품첨가물은 서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껌을 삼켜 체내에 들어갈 경우도 모두 고려해 첨가물 기준을 정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7.txt

제목: “수면부족, 근심·걱정 키운다”  
날짜: 20141221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1029124  
본문: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이런저런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br/>최근 미국 빙엄턴 대학 연구팀은 "늦게 잠드는 사람과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충분한 잠을 자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학부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연구결과는 적절한 수면이 인간의 '마인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다소 흥미롭다.<br/>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늦게 침대로 향하는 '저녁형 인간' 이나 잠이 적은 사람들이 충분한 잠을 자는 사람(하루 7-8시간)들 보다 비관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 자체를 통제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r/>또한 이들 중 일부는 지나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의 집착 때문에 심각한 근심과 우울증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연구를 이끈 자콥 노타 박사는 "충분한 잠은 우리의 육체와 생체리듬을 회복해주고 조절해 준다" 면서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비만, 우울증, 심각한 경우에는 암이나 심장병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br/>이어 "충분한 잠은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라면서 "개인에 따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다르지만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8.txt

제목: 세계 평균수명 20년새 男 5.8년 女 6.6년 늘어 (란셋)  
날짜: 20141219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0848534  
본문: 최근 20여년간 전 세계 평균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8년과 6.6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br/>미국 워싱턴대 크리스토퍼 머레이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188개국에서 240가지 요인으로 사망한 데이터를 분석한 ‘세계 질병부담 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에서 위와 같이 추정됐다고 세계적 의학전문지 영국의 ‘란셋’(Lancet) 최신호에 발표했다.<br/>이런 추세라면 2030년생 남성은 평균 78.1세, 여성은 85.3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은 연구 기간인 1990년 65.3세에서 2013년 71.5세로 6.2세 늘어났는데 남녀 각각 5.8년과 6.6년이 길어졌다. 평균수명 증가 원인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암과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각각 15%, 22% 감소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소아 설사질환 및 낮은 호흡기감염, 신생아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 <br/>　 <br/>하지만 사하라 이남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와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로 이 지역의 평균 수명은 5.1년 줄었다.<br/>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일부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어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1990년부터 125% 증가), 약물 사용 장애 (63% 증가), 만성신장질환(37% 증가), 당뇨병 (9% 증가), 췌장암(7% 증가) 등이 포함돼있다.<br/>연구는 인도에서 자살 증가가 공중 보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세계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인도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br/>연구에 따르면, 5세 미만의 사망은 1990년 760만명에서 2013년 370만명으로 격감했지만, 낮은 호흡기감염, 말라리아, 설사병이 지금도 세계 어린이의 5대 사망 원인에 포함돼 그 때문에 매년 약 200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69.txt

제목: [TV 하이라이트]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41333113  
본문: ■나 혼자 산다(MBC 밤 11시 15분) 프랑스 청년 파비앙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사진으로 장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크리스마스 포토 트리를 만든다. 그는 2014년 영화, CF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한 해를 보냈던 만큼 1년 동안 찍은 사진들로 트리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가수 강남은 방송인 전현무와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인 일본 야마나시로 여행을 떠난다.<br/><br/><br/>■쿡킹 코리아(SBS 오후 6시 20분) 2라운드 탈락을 앞두고 이현우·토니오, 황혜영·맹기용, 페이·김호윤 등 셰프 3개 팀이 더욱더 치열해진 대결을 펼친다. 이번 미션은 ‘중국에 다녀온 한식’으로 한국인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제2의 자장면’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현우·토니오 셰프 팀은 대결을 앞두고 취지에 맞게 홍콩 가정을 방문해 특별한 중국요리들을 맛본다.<br/><br/><br/>■명의(EBS 밤 9시 50분) 아름다워지기 위해 서슴없이 몸에 칼을 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가 아닌,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선천성 얼굴 기형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암 이후의 재건까지. 마음의 상처로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주는 명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0.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견과류의 왕 땅콩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41328104  
본문: 요즘처럼 땅콩이 화제였던 적이 있던가. 대형 마트마다 특별한 땅콩 코너를 만들 정도이니 시쳇말로 ‘내가 가장 잘나간다’고 자랑할 정도다. 그러나 ‘땅콩 회항’ 사건 전까지 땅콩은 국내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맥주 안주, 혹은 단순히 주전부리 정도로 인식됐다. ‘심심풀이 땅콩’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하지 않은 식품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견과류의 왕’인 땅콩은 최근 세계적으로 대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땅콩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이다.<br/><br/>재배종 땅콩의 학명은 그리스어 ‘잡초’(arachos)와 ‘지하결실’(hypogaea)에서 유래했다. 식물학적 의미로는 ‘땅속에 열매를 가진 잡초’로 해석된다.<br/><br/>땅콩에는 사과와 당근보다 항산화물질이 더 많이 들어 있고, 블랙베리와 딸기 등에 맞먹는다. 심장과 항암, 담석,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으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땅콩에는 포도와 오디, 적포도주 등에 다량 함유된 항산화물질 ‘레스베라트롤’(폴리페놀의 일종)이 많다. 레스베라트롤은 항암과 항산화, 세포 수명연장, 심혈관계 질환 예방, 혈액응고 방지에 좋다.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는 프랑스인들이 많은 지방 섭취에도 불구하고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은 현상인데 이는 와인에 많은 레스베라트롤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br/><br/>레스베라트롤은 땅콩 종자와 뿌리, 새싹에 많다. 또 땅콩껍질에는 식물 중 가장 많은 ‘루테올린’을 함유하고 있다. 루테올린은 식물의 과일, 채소, 약초 등에서 병균, 곤충, 자외선으로부터 식물 세포를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다. 땅콩껍질은 중국 한의약에서 예로부터 고혈압과 염증질환, 암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천식·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과 백내장·황반변성 등 시신경 질환, 기억력감퇴·뇌염증 등 신경계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br/><br/>땅콩 지방은 비만 관련 포화지방산이 적고, 살이 찌지 않는 불포화지방산(84%)이 많다. 혈관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땅콩은 다른 견과류에 견줘 인체에 필요한 주요 영양분이 풍부해 견과류의 왕으로 불린다. 최근 몸짱 열풍으로 아몬드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땅콩 100g에 들어 있는 단백질의 양이 아몬드보다 더 많다. 태아의 신경발달에 도움을 주고 기형아의 출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엽산도 풍부해 100g당 150㎍(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다. 이는 아몬드의 2배, 호두의 4배 더 많은 양이다. 땅콩의 칼륨 함량은 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바나나(100g당 358㎎)에 비해 2.5배가 더 높고 견과류 중 가장 많다. 칼륨은 인체 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탁월해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에게 특히 좋다.<br/><br/>땅콩은 영양가가 풍부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물성 기름과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량의 56%가 땅콩버터 제조에 이용된다. 나머지는 볶아서 간식용(24%)으로, 제과용(19%)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주로 착유용으로 땅콩기름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우주비행사와 탐험가, 산악인들이 땅콩버터를 먹으며 열량을 공급하고 그 덕분에 혹독한 날씨에서도 버티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세계 1위 생산국인 중국은 국내 기름용 소비가 56%, 일반 식용, 버터, 음료수 등으로 32%, 수출 5% 이하 등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볶아서 먹는 볶음 땅콩 형태로 가공돼 간식거리로 많이 소비된다. 제과와 제빵용으로도 이용되며 반찬거리와 기호식품, 환자 건강식 등으로 가공되기도 한다.<br/><br/>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견과류 사랑은 유명하다. 왕실 담당의 한 기자는 “<span class='quot0'>왕실 직원은 여왕을 위해 땅콩, 아몬드, 캐슈넛, 봄베이 믹스 등 견과류를 궁전 복도에 항상 놓아두는데 순찰 중인 경찰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여왕이 너무 화가 나서 견과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려고 그릇 측면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span>”고 기록하기로 했다.<br/><br/>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면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삶아 먹는 풋땅콩이 인기다. 국내산 땅콩의 50% 이상이 소비될 정도다. 풋땅콩은 꽃이 핀 후 80일이 지나서 수확한다. 소비는 8월에서 10월에 집중된다. 과거에는 풋땅콩의 생산과 소비가 한정된 곳에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전국 대규모의 농가 물량이 영남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일찍 수확하므로 단맛과 섬유소가 많고 떫은맛이 적다. 삶았을 때 달고 더 고소하며 기능성 성분도 증가한다. 삶은 땅콩은 각종 암 질환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껍질에 있던 항산화 물질이 알땅콩 내부로 잘 흡수돼 높아진다. 땅콩을 볶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백질의 변성도 줄일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도 적고, 수입산으로 대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농촌진흥청은 단맛이 높고 단위면적당 수량이 많은 풋땅콩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겨울(양파·보리) 작물 재배 이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모작 재배 기술도 개발했다. 주요 풋땅콩 품종으로는 ▲백중 ▲조평 ▲참원 ▲선안 ▲보름1호 ▲자선 ▲아미 등이 보급되고 있다.<br/><br/>배석복 농촌진흥청 두류유지작물과 농학박사<br/><br/>■ 문의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1.txt

제목: “늦게 잠들고 잠 부족하면, 근심·걱정 많아진다”  
날짜: 20141218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0712879  
본문: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이런저런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br/>최근 미국 빙엄턴 대학 연구팀은 "늦게 잠드는 사람과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충분한 잠을 자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학부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연구결과는 적절한 수면이 인간의 '마인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다소 흥미롭다.<br/>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늦게 침대로 향하는 '저녁형 인간' 이나 잠이 적은 사람들이 충분한 잠을 자는 사람(하루 7-8시간)들 보다 비관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 자체를 통제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r/>또한 이들 중 일부는 지나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의 집착 때문에 심각한 근심과 우울증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연구를 이끈 자콥 노타 박사는 "충분한 잠은 우리의 육체와 생체리듬을 회복해주고 조절해 준다" 면서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비만, 우울증, 심각한 경우에는 암이나 심장병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br/>이어 "충분한 잠은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라면서 "개인에 따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다르지만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2.txt

제목: 노화·암 막는 ‘나노 수소水 스파’ 아시나요  
날짜: 2014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34642762  
본문: 산소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때로는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바로 ‘질병의 원인’, ‘노화의 주범’이라 불리는 ‘활성산소’때문이다.<br/><br/>활성산소의 본래 역할은 병원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되면 정상세포를 공격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 <br/><br/>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의대는 치매,당뇨,암,심근경색,고혈압,동맥경화,결막염,신장결석,아토피 같은 질병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에 발병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br/><br/>이 때문에 체내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무척 중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수소’다. 특히 피부를 통해 체내로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나노수소수 스파를 받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br/><br/># 전세계 142개국 특허 등록<br/><br/>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서는 맞춤식 헬스케어 테마파크인 ‘케이유웰링’데이스파에선 국내 최초로 나노수소수 스파를 체험할 수 있다. <br/><br/>나노수소수 스파는 세계 최초로 천연식물소재를 이용한 나노버블수소 산소초고농축액적화 친환경기술(Nanobubbles Hydrogen/Oxygen Echogreen Technology)을 통해 탄생했다. 이는 전세계 142개국에서 특허등록을 마친 기술이다. <br/><br/>이 스파 프로그램은 얼굴,바디,헤어 관리로 나뉜다. 회원은 월 4회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 2회는 ‘글램 파티’ 프로그램을, 나머지는 2회 ‘바디스크럽 & 나노수소수스파’를 받게 된다. 유료서비스는 회원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br/><br/>케이유웰링 세실권 스파팀장은 “<span class='quot0'>개별상담,체질분석 등을 통해 개인의 체질과 성향에 어울리는 스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케이유웰링만의 스포츠클리닉,영양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파의 효능과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 스포츠,영양 프로그램 연계 효과 극대화<br/><br/>케이유웰링 회원은 스파 서비스 외에 개인별 맞춤의료서비스(PMS-Personalized Medical System), 개인별 맞춤운동관리서비스(PTS- Personalized Training System), 개인별 맞춤영양관리서비스(PNS- Personalized Nutrition System)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br/><br/>케이유웰링은 상담부터 계약·예약에 이르기까지 일대일 회원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1인 회원의 입회가격은 연회비를 포함해 4500만원이며 가족회원에게는 특별혜택이 적용돼 가족 수에 상관없이 6000만원이다. <br/><br/>계약금은 가입금액의 10%로 상품에 따라 400만원에서 800만원이며 입금과 동시에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자료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고객의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r/><br/>케이유웰링은 고려대학교기술지주회사인 KU융합의과학연구소(KUMSI)가 투자한 회사다. 고려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고대와 고대의료원이 주주로 구성돼 있으며 KUMSI는 줄기세포전문연구소로 줄기세포보관 및 국내검진센터병원과 항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br/><br/>문의 02-555-2318.<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3.txt

제목: “강황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한다” (美 연구)  
날짜: 2014121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0325155  
본문: 카레의 향식료 등에 쓰이는 강황. 예로부터 관절염이나 속쓰림, 위장 문제, 설사 등에 좋다고 알려져 왔으며 최근 연구로는 암을 예방하고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강황에 또 하나의 새로운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미국 헌터대학 글렌 샤페 교수팀은 강황(학명: Curcuma longa)의 주성분 중 하나인 커큐민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br/>샤페 교수는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커큐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먹이를 섭취한 쥐는 사전에 체험한 공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br/>샤페 교수는 “<span class='quot0'>커큐민은 뇌에 남겨진 트라우마적인 경험에 의한 공포의 기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PTSD를 비롯한 정신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br/>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커큐민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확인돼 다시 공포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커큐민은 이미 기존 여러 연구를 통해 다발성 골수종, 췌장암, 골수이형성증후군, 대장암, 건선,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br/>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폐를 둘러싼 흉막이나 위·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의 심막 등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세포에서 발생하는 중피종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뉴로사이코파마콜로지’(Neuropsychopharmacology) 최근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4.txt

제목: [열린세상] 노인 자살과 공공의료/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날짜: 2014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32309227  
본문: 말기 암 환자의 10% 이상이 적절한 통증 조절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임종하고 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조기 위암 환자 중 7.2%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있으나, 이 환자들이 어떤 경과를 거치는지 추적 조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은 대형병원 이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돼 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복지도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만 이루어진다. 의료급여 1종 환자는 의료비가 무료이지만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br/><br/>이러한 시설 위주의 공공의료정책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가입한 후 2014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자살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지키는 주된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노인 자살률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노인복지와 공공의료 문제가 있다. <br/><br/>국민의료 복지를 향상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와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영국이나 독일을 모델로 삼아 지은 공공 의료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블랙홀이 됐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이용하는 건강 보험의 무분별한 급여 확대는 의료복지재정의 대표적인 적자 요인이 됐다.<br/><br/>2013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환자가 진료비 총액의 35.9%를 사용했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 입원 환자의 경우 17.5%가 전체 입원비의 64.6%를 소비하고 있다. 병원 접근성이 높은 계층일수록 고가 약과 검사, 시술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건강보험급여 수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공공의료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br/><br/>무상급식과 반값 대학 등록금을 논의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아보육 경비 때문에 아기들은 태어나지조차 못하고 있고, 복지 선진국의 대명사인 북유럽 국가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고가 신약의 급여화를 논의하는 나라에서 기본적인 간병을 받지 못해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한정된 복지예산을 ‘모든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부터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라는 원칙은 애초부터 없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서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살을 해야만 보이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다. <br/><br/>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 때는 영국의 공공의료를 내세우면서 지역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와 독거 노인들을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왜 공공의료 정책의 모델로 삼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영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최저다. 현재 도시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과 중복된다.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노인 1000만명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br/><br/>독거 노인이 죽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고, 간병 문제로 자살하거나 가족을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책임 부서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br/><br/>고가 장비로 가득 채운 공공병원을 지을 예산, 그 병원들의 경영적자를 메우는 예산, 그리고 한 달 약가가 1000만원이 넘는 신약들을 급여화할 예산은 있어도 독거 노인과 집에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파악하고 방문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10년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br/><br/>어느새 다시 12월이다. 추운 겨울 어딘가 혼자 누워 있을 병들고 외로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어야 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5.txt

제목: ‘2015 서울신문 신춘문예’ 응모작 4371편 살펴보니…시국·미래의 고민보다 ‘일상의 그늘’ 다뤄  
날짜: 2014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32129628  
본문: ‘2015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실력파 신인들의 작품이 대거 몰렸다. 국내외에서 문학에 대한 열망을 품은 문청(文靑)들이 등단의 문을 두드렸다. 심사위원들은 “<span class='quot0'>예전에 비해 미숙한 작품이 줄어든 반면 완성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심사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span>”고 평했다.<br/><br/><br/><br/> <br/><br/><br/><br/> <br/><br/><br/><br/> <br/><br/> <br/><br/>지난 8일 마감된 2015년 신춘문예 응모작은 모두 4371편. 분야별로는 시 2905편, 소설 445편, 시조 547편, 동화 257편, 희곡 206편, 평론 11편이다. 지난해보다 시(3357편), 소설(487편)은 소폭 줄었지만 시조(446편), 동화(157), 희곡(160) 등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br/><br/>한창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span class='quot0'>올해 세월호 참사, 노인 요양원 화재, 환풍구 추락사고 등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았음에도, 예상 밖으로 이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 거의 없었다</span>”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건은 충격은 컸지만 정작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문학작품의 소재로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br/><br/>시 부문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예심에 참여한 김경주 시인은 “사회 주변부의 사람들, 낮은 곳에 머무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국내에 이주해 사는 현실을 반영하듯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지는 작품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내용은 예년에 비해 어두워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동호 평론가는 “<span class='quot1'>예전엔 시를 통해 위안을 주고받는 등 긍정적인 성찰을 하는 게 많았는데, 이번엔 시의 주제나 소재도 어두워졌고 시의 화자도 어두워진 작품들이 늘었다</span>”고 짚었다. “시에 대한 생각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시는 이래야 된다는 틀에 갇혀 익숙한 형식이나 주제, 소재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br/><br/>소설은 암, 요양원, 재산 문제 등 노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 유난히 많았다. 대리모, 탈북자를 소재로 한 작품도 있었다. 예심을 맡은 전성태 작가는 “<span class='quot2'>몇 년 전에는 판타지, 재난이나 가상현실을 다룬 소설이 많았는데 올해는 현저하게 줄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반면 일상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들이 많아졌다</span>”고 말했다. 이경재 평론가는 “예전 같았으면 세월호 같은 대형사건을 작품소재로 적극 활용했을 법한데 그런 경향이 사라졌다. 현실을 소박하게 자기 식대로 풀어나간 작품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연정 평론가도 “<span class='quot3'>국경을 넘거나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작품이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3'>일상만 다루다 보니 가족, 직장, 구직 등으로 소재와 배경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span>”고 꼬집었다. 심사위원들은 “<span class='quot0'>일상이 문학으로 들어와 특별해진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일상 그대로 밋밋하게 소설로 끌어들인 접근이 많았다</span>”고 덧붙였다.<br/><br/>동화 부문에서는 판타지가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정리해고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투쟁 일선에 서거나 가사에 전념하는 아버지 등 이 시대 아버지상을 소재로 내세운 작품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개, 고양이 등을 가족의 일원으로 이해한 작품도 많아졌다. 심사위원인 고정욱 작가는 “<span class='quot4'>동화라고 해서 작품 속 갈등이 가벼운 게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4'>갈등이 치유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너무 쉽게 갈등을 해결해버리는 안이한 접근방식이 아쉬웠다</span>”고 말했다. 채인선 작가는 “공상과학(SF)도 판타지도 아닌 경계가 모호한 미래소설이 많았다.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서인지 현실도피적 내용의 작품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br/><br/><br/><br/>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6.txt

제목: 음악 들으면 면역력 ‘쑥쑥’…건강효과 4가지  
날짜: 2014121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10212484  
본문: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했던 기분이 풀리는 등 음악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음악은 심신은 물론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br/>다음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음악이 주는 다양한 건강 효과이다. 평소 음악을 듣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음악이 주는 효능을 경험해보자.<br/>1. 면역력이 올라간다<br/>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 음악을 듣는 것으로 극복해보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 것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로니 엔크 박사팀이 시행한 연구로는 기분을 고양해주는 음악을 50분간 듣게 되면 체내에서 항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포인트라고 한다.<br/>2. 우울증과 불안감을 낮춘다<br/>음악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날려버리는 효과도 있다. 미국 드렉셀대학의 조크 브랏 박사팀이 암환자 18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악 감상이나 음악 치료의 힘을 빌린 환자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줄고 혈압도 안정돼 기분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r/>3. 심장에 좋다<br/>음악은 심장의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실제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탈리아 파비아대학의 루시아노 베르나르디 교수팀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은 환자는 단지 쉬고만 있던 환자보다 수술 뒤 불안감이나 통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한다.<br/>4. 뇌를 건강하게 한다<br/>나이를 불문하고 음악을 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미국 캔자스대학 의료센터의 브렌다 한나-플래디 박사팀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은 뇌가 더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기억력과 두뇌의 선명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음악을 듣는 것으로부터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7.txt

제목: “술이 석면 같은 1급 발암물질인 건 아시나요?”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31200144  
본문: 　“<span class='quot0'>술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span>”는 사람들이 많다. 여성 음주자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연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모임 때문에 술통에 빠져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풍속도이다.<br/>　그러나 술은 1급 발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술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술은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과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다.<br/>　1급 발암 물질이란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암 발생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시멘트에서 나오는 방사선 물질인 라돈과 오래된 건물 먼지에 포함된 석면가루처럼 술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는 뜻이다.<br/>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무형 원장은 “<span class='quot1'>술은 흡연, 자외선과 함께 가장 확실한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술은 발암 물질의 흡수를 높이거나 우리 몸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암을 일으킨다</span>”고 말했다.<br/>　<br/>　■술이 어떻게 암을<br/>　알코올의 경우 인체가 흡수한 발암 물질을 녹여 점막이나 인체 조직 등에 쉽게 침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알코올이 몸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역시 DNA의 복제를 방해하거나 직접 파괴하는데, 이 때 만들어진 돌연변이 세포의 일부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해 암세포로 변한다.<br/>　또 술을 마실 때 간은 물론, 구강 점막, 침 등에서도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된다.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장기에 접촉할 경우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몸을 따라 이동하면서 구강에 남으면 구강암, 간에 남으면 간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br/>　이무형 원장은 “<span class='quot1'>아세트알데히드는 여러 암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 정도로 사소하게 알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음주로 인해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암으로는 식도암, 구강암, 인후두암 등과 같은 호흡기 관련 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있다</span>”고 말했다.<br/>　<br/>　■세포를 파괴하는 알코올?<br/>　술과 암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실제 하루에 50g(주종별로 보통 5잔 정도) 정도의 알코올 섭취를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암 발생의 위험이 2~3배까지 증가한다.<br/>　술은 간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 알코올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에너지 대사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간이 쌓이게 된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염증이 발생하거나 간세포가 파괴되고 더 심하면 알코올성 간경변증,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br/>　또 알코올은 대장 세포를 손상시켜 대장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에 따르면 맥주를 한 달에 15ℓ 이상(하루에 알코올 30g 이상, 대략 주종별 보통 잔으로 3잔) 계속 마시는 사람은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등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술로 인한 대장암 발병 위험도가 6배나 높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br/>　알코올은 유방암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다. 음주가 유방암의 위험인자인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매일 맥주 한 잔을 마실 경우, 유방암의 위험률이 3~4% 정도 높아지므로 매일 가볍게 술을 마시는 여성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br/>　술을 마실 때 술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인 식도와 구강, 인후두는 더욱 위험하다. 이들 암은 상대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 실제 하루 한 잔 정도의 가벼운 술(알코올 12.5g)만으로도 식도암은 30%, 구강암과 인후두암은 17% 가량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r/>　<br/>　■암 발병률은 알코올 총량에 비례해<br/>　술을 먹었다고 해서 모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술을 오랫동안, 많이 마실수록 암에 걸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무형 원장은 “<span class='quot1'>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술을 끊는 순간 몸이 깨끗해지고 아무 문제없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하지만 암의 발병 위험은 최근 먹고 있는 알코올의 양이 아니라 그동안 먹어왔던 알코올의 총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그렇다면 이미 술을 많이 마셔왔던 사람은 정말 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술을 많이 마셔 왔더라도 술을 끊으면 알코올로 인한 암 발병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술을 끊은 후 암 발병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된다.<br/>　물론 술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오히려 음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하루 한두 잔의 음주는 암 예방에 좋다는 생각도 많다. 하지만 술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암 예방과는 무관하다. 현재까지의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암 발생에는 적정 음주량이란 없으며 한 잔의 술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br/>　<br/>　■끊을 수 없다면 음주 습관이라도 바꿔야<br/>　이무형 원장은 “<span class='quot1'>술을 줄이는 것만으로 암을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잘못된 음주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암 발병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일예로, 음주를 한 후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 알코올 속의 각종 발암 물질로부터 구강 점막과 식도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바른 음주 습관을 통해 알코올 분해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술자리를 갖기 전에 식사를 해서 배를 채우고, 술을 마실 때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작은 습관이 술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무형 원장은 “<span class='quot1'>술자리가 많은 연말이야말로 술이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span>”라고 강조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8.txt

제목: ‘한국 의료계에서 여성 의사는 어떤 존재일까’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30852390  
본문: 　‘한국의 현재 의료계에서 여성 의사는 어떤 존재일까’ 이 뜬금없는 질문이 유효한 것은, 일반적인 성비로 따져봐도 전체 인구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일반론이 시대의 인식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사회분야에서 여성의 파워가 증대되고 있는 사실도 세상이 다 알고 체감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br/>　또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길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마초적 기질과는 대비되는 성향을 갖도록 훈육되어 구심력적으로 섬세함을 체득하게 됐고, 이런 소양이 의료 분야에서 남성들과는 다른 특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남성이 크고, 무겁고, 중후한 질병을 잘 다루는 기질을 가졌다면, 반대로 여성은 작고, 가볍고(가볍다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님), 단소한 분야를 잘 다루는 기질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br/>　물론 모든 질병은 크고, 무겁고, 중후한 특성과 작고, 가볍고, 단소한 특성을 모두 가져 어느 한 쪽의 특성만으로는 전모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 여성 의료인의 위상이 결정적으로 자리매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바꿔 말하자면, 적어도 한국 의료나 의학 부문에서 여성은 수가 적어 잘 드러나지 않아도 절반의 몫은 감당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조감하고 조명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br/>　이 지점은 박효순 경향신문 의학전문기자가 주목한 지점이기도 하고, 그가 여의열전(女醫列傳·경향신문 발간, 336쪽·1만 8000원)을 통해 여성 의학자 46인의 이야기를 풀어낸 실마리이기도 하다. 그는 이 저서로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선정한 2014년 ‘GSK의학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　우선, 그 책에 등장하는 여성 의료인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흔히 ‘남성 중심적인 세계’로 바라보는 의료인식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소아 수술의 박귀원, 항암전선 협진 분야의 서창옥, 이종장기 이식 분야의 안규리, 심장초음파의 고감도 센서 분야 심완주, 시각재활 분야의 문남주, 완성형의 리더상을 보여준 김윤덕, 이명·난청 분야의 박시내, 소아 간이식 분야의 이남준, 난치성 근육병의 박영은, 소아알레르기 분야의 편복양, 맞춤 암치료 분야의 최은경, 항암 연구 분야의 라선영, 간경화 줄기세포 치료 분야의 박정화, 비뇨기 분야의 윤하나 등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라성 같은 인맥에 놀라게 된다.<br/>　필자는 시덥잖은 말들로 지면을 매축하지 않았다. 여성 의료인 개개인의 진료 및 연구 동향과 비전은 물론 한 의료인의 존재감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여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br/>　소아 선천성 기형 수술 분야의 박귀원 교수. 엄친딸이었던 그는 법대에 가고 싶었지만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법대에 가면 등록금을 안 대주겠다”고 으르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의대에 진학했다. 또 소아알레르기 분야의 편복양 교수는 언론인 아버지와 소녀시절부터 청진동으로 해장국을 먹으러 다닐 정도로 부녀간의 정이 남달랐다. 이종이식 분야의 권위자인 안규리 교수가 가진 ‘규리’라는 이름의 내력도 재밌다. 노벨상을 탄 퀴리부인의 이름과 영문이 같다. 과학자였던 아버지가 딸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건양대 김안과병원의 김용란 원장은 전공의 시절, 아버지가 설립한 김안과에서 야간 당직을 서며 의사로서의 자질과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키웠다고 술회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식으로 한국 의료를 이끄는 46인의 여의학자들을 낱낱이 검진하고 있다.<br/>　한국 의료계는 최근 들어 여의사들의 숫자가 늘고, 역할이 커지면서 바야흐로 여풍(女風)의 시대를 맞고 있다. <br/>　박효순 기자는 이들 여의사 46인을 錦上添花(금상첨화), 囊中之錐(낭중지추), 愚公移山(우공이산), 漸入佳境(점입가경), 靑出於藍(청출어람) 등으로 나눠 새롭게 의미를 부여했다. 여전히 남성들과 경쟁하고 있고, 아직도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의 끈기와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필자는 “<span class='quot0'>개인의 업적 알리기나 의학 정보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가슴에 숨겨진 뜨거운 휴머니즘과 여의사로서의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제 여의사들은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의료의 또다른 중심</span>”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여성 의료인들이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한국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span>”고 분석했다.<br/>　책은 질환 지침서로도 마춤하다. 일반인들이 진료 선택 시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이다. 또 의사국시 합격자,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들이 자신의 세부 전공분야를 정하는 데는 물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br/>　이길여 가천대 총장과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장 등은 추천사를 통해 “<span class='quot1'>우리나라의 여의학자들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음을 확인시켜준 드문 저술</span>”이라거나 “<span class='quot1'>글로벌 시대를 맞는 여의사들의 역할과 비전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책</span>”이라고 평가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79.txt

제목: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30411686  
본문: Q)중증질환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br/><br/><br/>A)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희귀난치질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9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0.txt

제목: 함시현 교수 등 3인 女 과학자상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30238509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4일 ‘2014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이학 부문에 함시현(왼쪽·45) 숙명여대 교수, 공학 부문에 임혜숙(가운데·52) 이화여대 교수, 진흥 부문에 유향숙(오른쪽·6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을 선정했다. <br/><br/>함 교수는 치매·암·광우병 등의 원인인 단백질 응집현상 메커니즘을 규명해 이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임 교수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망 장비의 핵심부품인 패킷 전달 엔진의 고속화를 위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구조를 개발했다. <br/><br/>유 명예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의장으로 활동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상호 협력 체계 마련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1.txt

제목: [新국토기행] 강원 원주시  
날짜: 2014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25328698  
본문: ■ 볼거리<br/><br/>치악산 아래 역사와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강원 원주는 현대와 고대가 공존하고 문학이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시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강원감영에서부터 문학의 향이 듬뿍 묻어 있는 박경리문학공원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남아 있는 곳이다. 한지 등을 테마로 한 체험관도 있어 교육의 고장임을 실감 나게 한다.<br/><br/><br/><br/>[강원감영]<br/><br/>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머물며 직무를 보던 관청으로 오늘날의 도청에 해당된다. 1395년 조선 건국과 함께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영서권을 합해 강원도가 만들어졌고 이곳 강원도의 행정, 군사, 경제 등을 맡아 보는 관청으로 원주에 감영이 세워졌다. 이후 1895년 춘천으로 도청 소재지가 옮겨 갈 때까지 500년 동안 강원도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강원감영의 정문이라 할 수 있는 포정루와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 등 주요 건물들이 잘 보존돼 있어 국내 관아 건물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br/><br/><br/><br/>[구룡사]<br/><br/>치악산 기슭에 자리한 구룡사는 688년 의상대사가 아홉 마리 용을 물리치고 창건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천년 고찰이다. 도선국사, 무학대사, 사명대사 등 여러 고승이 수도하며 명성을 날렸다. 사찰 안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보광루와 대웅전 등 대부분의 건물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매표소에서 구룡사로 오르는 1㎞ 길은 명품 소나무 숲길로 유명한 산책로다. 길 양쪽으로 아름드리 금강송과 투명한 계곡물이 어우러져 숲의 그윽한 정취를 즐길 수 있다.<br/><br/>[박경리문학공원]<br/><br/>박경리 선생은 ‘토지’ 3부를 마친 뒤 1980년 원주 단구동으로 거취를 옮겼다. 이후 1997년 토지문학관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며 4부와 5부를 집필했다. 선생의 옛집에는 실제로 사용하던 주방과 집필 공간 등이 원형대로 남아 있고 손수 가꾸던 텃밭과 나무 등도 있어 생전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주변 공원은 소설에 등장하는 평사리마당, 홍이동산, 용두레벌 등으로 꾸몄고 공원 내에 북카페를 둬 각종 서적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배치했다. 2층에는 토지의 주요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는 특별 전시장이 마련돼 있다.<br/><br/><br/><br/>[한지테마파크]<br/><br/>지금도 원주 호저면과 부론면 일대에서는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원주 한지는 700년 동안 보관이 가능할 만큼 품질이 뛰어나 ‘직지심경’과 ‘왕오천축국전’ 같은 중요 책자에 사용돼 왔다. 강원도를 500년 동안 관할하던 강원감영 관청에 한지를 공급하면서 한지문화와 한지인쇄문화도 자연스레 발전했다. 이렇듯 높은 원주 한지의 명성을 지키면서 전통 한지의 우수성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주한지테마파크가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듣고 한지로 만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1000원이다.<br/><br/>[한솔뮤지엄]<br/><br/>자연 속에 조성된 오솔길을 걸으며 여유롭게 문화,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뮤지엄이다. 외부에는 강원도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잘 살리면서 특별한 주제로 장식한 세계의 정원이 있다. 이름도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스톤가든으로 붙여 놓았다. 그 속에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아름다운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전시관에는 국보, 보물급의 문화재를 포함한 페이퍼 갤러리와 판화공방이 있고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이쾌대, 백남준을 비롯한 국내 근현대 작가의 회화와 조각품이 다수 전시돼 있다.<br/><br/><br/><br/>[고판화 박물관]<br/><br/>신림면 황둔리에 있는, 국내 하나밖에 없는 옛 판화를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중국, 일본, 몽골, 티베트, 인도, 네팔 등의 세계 고판화와 함께 한국의 궁중판화, 사찰판화, 문중판화 등 희귀 판화들을 직접 볼 수 있다. 총 25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뿐 아니라 뮤지엄 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목판화를 직접 새겨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br/><br/>[간현관광지]<br/><br/>원주천과 삼산천이 합류하는 간현협곡에 자리 잡은 원주 대표 유원지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소개될 만큼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조선 선조 때 이조판서를 지낸 이희수가 주변 산세의 아름다움에 반해 잠시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장관이고 수심이 얕은 맑은 강을 따라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가족 단위로 편안한 휴가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인근에 소금강과 함께 간현봉, 구룡산 같은 명산이 있어 산행도 즐길 수 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야영장, 화장실, 급수대, 샤워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br/><br/>원주에는 이 밖에 1000여종의 식물들이 자라는 허브팜, 일제강점기 벌목 운송을 위해 만들었다 지금은 갤러리로 탈바꿈한 반곡역, 근현대에 이르는 희귀 책자 1500여권을 전시하는 옛책고을박물관, 옻칠기와 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옻칠기·한지공예관이 있으며 숲 체험, 황둔찐빵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치악산관광농원(황둔자연휴양림) 등이 있다.<br/><br/>이만희 부시장은 “<span class='quot0'>빠르게 변모하는 현대의 질주 속에서도 손때 묻은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고장이 원주</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예부터 배타적이지 않은 원주 특유의 포용력 덕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원주를 찾으면 고금을 넘나들며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br/><br/>■ 먹거리<br/><br/>청정 자연에서 나는 뽕잎을 따 만든 ‘뽕잎황태밥’과 비타민이 풍부한 복숭아즙으로 재운 ‘치악산 복숭아불고기’ 등이 원주 지역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원주가 깊숙한 내륙 지역이다 보니 요리 재료가 귀했던 탓에 그동안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울 음식문화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웰빙 바람을 타고 이런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자연스레 지역 특산 먹을거리로 뜨고 있다.<br/><br/><br/><br/>[뽕잎 황태밥]<br/><br/>자연 속에서 자란 뽕잎과 강원 지역 특산품인 황태로 지은 뽕잎황태밥은 미네랄과 아미노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구수한 감칠맛이 일품인 건강 나물밥이다. 2200여년 전 중국 후한 시대부터 약재로 쓰기 시작한 뽕잎은 각기병과 몸이 붓는 증세, 식은땀, 풍 등에 좋다고 알려졌다. 해열, 진해, 이뇨 등의 효능은 물론 변비와 중금속 배출에도 좋다고 전해진다. 여기에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동의보감 등에 암과 난치병에 좋다고 기록된 황태까지 더해 만든 웰빙식품으로,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운채와 청정고을명가, 미향, 장수숯불갈비, 섬강한우촌, 우리소 등이 유명하다. 김은주 우리소 종업원은 “<span class='quot1'>양념간장과 된장을 곁들여 먹는 뽕잎황태밥은 은은한 뽕잎 향과 부드러운 황태살이 밥과 어우러져 입맛을 돋운다</span>”고 말했다.<br/><br/><br/><br/>[치악산 복숭아 불고기]<br/><br/>우리나라 전통 고기구이는 중국 동북부 지방에 살던 맥족(고구려)이 먹던 숯불구이 고기 맥적에서 유래됐다. 맥적은 소고기를 썬 뒤 두드려 연하게 하고 대꼬챙이에 끼워 소금과 양념해 직화로 숯불에 구웠다. 석쇠가 나온 뒤에는 꼬챙이에 끼울 필요가 없어져 지금의 불고기가 됐다고 한다. 치악산 복숭아불고기는 치악산에서 나는 복숭아즙으로 한우를 재우고 참숯에 구워 기존 불고기와는 차별화된 색다른 맛으로 인기를 끈다. 복숭아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로해소, 피부 미백,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장군화로구이, 장수숯불갈비, 돈벌수다, 섬강한우촌 등에서 맛볼 수 있다.<br/><br/>[원주 추어탕]<br/><br/>쌀쌀해진 겨울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추어탕이다. 사계절 보양식으로도 인기지만 겨울로 접어들 때 추어탕 한 그릇 뚝딱 비우면 추위는 저만치 물러난다. 추어탕은 장어 못지않게 영양가가 높은 반면 가격은 저렴해 서민 보양식으로 인기 있다. 강장,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빈혈, 당뇨병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조는 개운동 골목 원주의료원 뒤에서 2대째 운영 중인 ‘추어탕’을 꼽는다. 20대 중반부터 추어탕을 끊인 주인 이복순(75) 할머니는 재료 선별부터 상차림에까지 각별한 정성을 쏟는다. 지금도 자연산이 나는 시기에는 양식을 들여놓지 않는다. 고유한 맛을 내기 위해 된장을 직접 담가 4년을 묵혔다 쓴다. 그래야 비린내가 없다고 한다. 원주 지역 추어탕은 된장을 풀어서 쓰는 경상도, 전라도와 달리 고추장을 사용한다.<br/><br/>지금도 음식을 직접 끓이는 이 할머니는 10년 먹을 고추장을 확보해 놨다. 치악산 자락의 집 옥상에는 고추장독이 150여개에 이른다. 장맛 때문에 추어탕에 마늘, 고추 외에 다른 조미료나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제맛이 난다. ‘음식 맛은 장맛’이란 옛말대로다.<br/><br/>인원수에 맞게 얇은 쇠솥뚝배기에다 추어탕을 바글바글 끓인 뒤 손님상에 낸다. 먹는 동안 식지 않아 좋고, 훈훈하면서도 개운한 뒷맛이 일품이다. 미꾸라지숙회와 미꾸라지튀김도 있다. 이 할머니는 “집에서 해 먹던 맛 그대로 40년 넘게 추어탕을 끓여 내니 서울 손님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br/><br/>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2.txt

제목: 해외여행 | 아프리카의 꽃 에티오피아②Axum 악숨, Lalibela 랄리벨라  
날짜: 2014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22656874  
본문: ●Axum 악숨<br/>고대 왕국의 수수께끼<br/>먼 옛날, 시바의 왕국에 한 여왕이 있었다. 그녀는 이스라엘 솔로몬왕의 명성을 전해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상인들과 함께 향료와 금, 보석을 가득 싣고서. 여왕은 왕에게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질문했고 솔로몬왕은 지혜로운 답변을 주었다. 시바의 여왕은 왕의 지혜에 감탄해 가져간 보물을 선물하고 왕과의 하룻밤으로 아들 메넬리크를 낳아 에티오피아로 돌아왔다. 22세가 된 메넬리크는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3년간 예루살렘에 머문 메넬리크에게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지만 메넬리크는 고향으로 돌아와 악숨에 수도를 정하고 악숨 제국을 세웠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 받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보관한 언약궤Ark of the Covenant와 함께였다. <br/>에티오피아 건국의 역사적 토대가 된 이 전설은 구약성서로 알려진 히브리 경전의 열왕기 상上, 그리고 역대 하下에 나오는 솔로몬왕과 시바의 여왕 이야기에서 나왔다. 물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성서에 없다.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기록된 것처럼 13~14세기에 작성된 에티오피아의 대서사시 ‘케브라 네가스트Kebra Negast’에는 시바의 여왕이 마케다Makeda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솔로몬과 메넬리크로부터 비롯된 에티오피아 왕조의 내력이 담겨 있다. 종교의 역사에 기록된 사실과 이야기는 숨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왕의 지혜와 시바 여왕의 미모를 물려받은 민족임을 의심치 않는다. <br/>더 놀라운 것은 악숨의 ‘시온 성 메리 교회St. Mary of Zion Church’의 지성소(하느님이 임재한다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궤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수도사 한 사람만이 관리하고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으니, 거기에 정말 언약궤가 있는지 누구도 확인할 길은 없다. 에티오피아 곳곳에서는 ‘타보트Tobot’라 불리는 언약궤의 모형을 만들어 각 교회마다 상징적으로 보관하고 주요한 종교적 행사 때만 일반에게 공개한다고.<br/>4세기에서 6세기경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사이 종교적 갈등의 역사 속에 세워졌던 시온 성 메리 교회는 1965년 셀라시에 1세에 의해 옛 교회 근처에 새롭게 건축됐다. <br/>악숨 제국은 한때 로마, 한나라, 페르시아와 함께 4대 제국으로 불릴 만큼 강대국이었다. 금과 상아, 철광석을 생산해 아프리카 전역과 로마, 터키와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4세기에는 기독교를 국교화 했고 5세기에는 수도원 제도를 마련했다. 10세기 이후 대가뭄으로 쇠망하기까지 화폐, 건축물, 문자 등 악숨 제국은 그들만의 위대하고 고유한 문화를 탄생시켰다. <br/>기원전 1,000년부터 10세기까지 만들어진 악숨의 오벨리스크군은 악숨 제국의 대표적인 창조물이다. 오벨리스크는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기념비로, 그 크기로 왕의 힘을 나타낸다. 오벨리스크의 지하에는 왕의 무덤이 있다는데 무게 533톤, 높이 33m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무너진 상태다. 중간에 자리한 무게 180톤, 높이 27m의 오벨리스크는 1,7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1937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해 강탈돼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 세워져 있다가, 2005년 4월19일 문화재 반환운동에 의해 67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돌아왔다. 지지대를 받치고 있는 가장 오른쪽의 오벨리스크는 2,000년간 한자리를 지켜 왔다. <br/>“오벨리스크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언젠가 복원될 거예요.” 동행했던 가이드 시세이는 오벨리스크가 아프리카 자주성의 상징이라고 했다. 악숨이 시바 여왕의 영토였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발길을 옮긴 곳은 둔구르Dungur 유적이다.<br/>여왕이 거했다는 왕궁터는 오랜 세월 보수를 거듭했다. 터만 남은 토대 위에 높이 2~3m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형태를 복원시켜 놓았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시바의 여왕이 목욕을 하고 아궁이에서 밥을 짓던 이곳을 신성하게 여긴다. 사실 고고학적으로 둔구르 유적은 8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바의 여왕 시기와는 1,700년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역사적인 신빙성이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에티오피아인들에게는 전설이 곧 진실이다. 그들의 믿음은 종교적 신앙이자 역사적 자긍심이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픈 놓지 못할 희망이다. 전설은 힘이 세다.<br/><br/>●Lalibela 랄리벨라<br/>아프리카의 예루살렘 <br/>7세기 악숨 제국과 함께 기독교가 쇠퇴의 길을 걷는 동안 이슬람은 아라비아반도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수단 등으로 세력을 팽창시켜 나갔다. 악숨 제국이 붕괴되고 긴 암흑기가 이어졌던 에티오피아는 13세기에 이르러서야 기독교 왕조인 자그웨Zagwe 왕조로 다시 부활한다. 300년간 수도이기도 했던 랄리벨라의 전성기는 에티오피아 7대 국왕인 랄리벨라1181~1221년가 통치하던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다. <br/>랄리벨라는 에티오피아인들이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곳이다. 이유는 에티오피아 기독교 유적의 걸작품인 암굴교회군群 때문이다.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이곳은 관광객은 물론 예복인 흰 셰마를 두른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br/>암굴교회로 가기 위해 해발 3,000m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났다. 풍광에 눈을 뺏기고 정겨운 마을을 지나 정상의 뷰포인트에서 잠시 멈추면 랄리벨라의 아름다운 풍광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br/>랄리벨라의 원래 이름은 로하Roha였다. 정설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 예루살렘으로의 순례가 어려워지자 제2의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굴로 이루어진 교회를 만들었다지만 전설은 랄리벨라왕이 꿈에서 로하에 제2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만든 것이라 전한다. 신앙심이 깊었던 랄리벨라왕은 직접 교회 건설을 감독하며 팔레스티나와 이집트의 기술자 등 4만명을 동원해 교회를 만들었다. 실제 교회는 120년에 걸쳐 완성된 것인데, 전설은 천사들이 밤낮으로 도와 23년 만에 완공됐다고 전한다. <br/>암굴교회군은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거대한 암반을 통째로 위로부터 수직으로 깎아내 만들었다. 예루살렘을 본떠 요르다노스강요단강 Yordannos이라 이름 지은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 각 5개, 언덕에 1개가 세워졌다. 화산재가 굳어 만들어진 부드러운 적갈색의 응회암 암반을 깎아내 만든 11개의 교회는 모두 미로 같은 지하 통로로 연결된다.<br/>가장 규모가 큰 교회는 ‘구세주의 집’이라는 뜻의 ‘메드하네 알렘 교회Bet Medhane Alem’다. 세로 33m, 가로 22m, 높이 11m로 암반을 통째로 깎아 72개의 4각 기둥으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곳을 포함한 모든 교회는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현재 철제 지붕과 보호 기둥을 세워 보수 중이다. 교회 옆 바위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빈 무덤이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 있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리암 교회Bet Maryam’는 랄리벨라왕이 가장 좋아했다고도 전해지는 곳인데, 벽에는 악숨 왕조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br/>모든 교회를 둘러보는 입장료는 50달러, 제대로 보려면 1박2일은 걸린다니 선택은 ‘기오르기스 교회Bet Giyorgis’일 수밖에 없었다.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2m의 정 십자가 모양으로 암반을 파 내려가며 지었다는 이 교회는 그 우아한 건축미가 단연 최고라 인정받는다. 특히 땅 표면에서 보이는 세 겹의 십자가 모양이 압권이다. 조심스럽게 다다른 입구에는 죽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어느 사제의 유해가 암굴 속에 자연 상태 그대로 미이라가 된 채 안치되어 있었다. 순례객들로 들어찬 내부에는 백마를 탄 채 창을 들고 용을 무찌르는 기오르기스 성인이 성화 속에서 교회를 수호하고, 랄리벨라왕이 사용한 도구들이 들어 있다는 올리브나무 상자도 있다.<br/>매년 에티오피아의 성탄절인 1월7일이 되면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이곳 암굴교회에 모여 미사를 드리고 사제가 축복한 빵을 나눠 먹으며 기원후 33년부터 이어져 오는 축제를 즐긴다고. <br/><br/>1520년부터 6년간 에티오피아에 머물며 견문을 정리한 포르투갈의 수도사 프란시스코 알바레스Francisco Alvares는 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불가사의한 암굴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br/>“이 교회들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 테니까.” 랄리벨라는 지금도 그렇게 순례자들을 기다린다. <br/><br/>☞여행매거진 ‘트래비’ 본문기사 보기 <br/><br/>에디터 트래비 글·사진 Travie writer 이세미 취재협조 에티오피아항공 02-733-0325 www.ethiopianairlines.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3.txt

제목: “낙찰받은 노벨상 메달 왓슨에게 돌려줄 것”  
날짜: 2014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22314408  
본문: “<span class='quot0'>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왓슨을 돕고 싶었습니다.</span>”<br/><br/>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 구단주이자 러시아 최고의 갑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왼쪽·61)가 지난 5일 미국 크리스티 옥션하우스에 경매로 나온 미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오른쪽·86)의 노벨상 메달을 사들인 이유를 10일 털어놓았다.<br/><br/>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스마노프는 성명서에서 “출중한 과학자가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은 메달을 팔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이 메달에 지불한 돈이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메달을 왓슨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br/><br/>왓슨은 1962년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공로로 프랜시스 크릭 등과 함께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러나 2007년 인종과 지능을 연결시키는 발언으로 흑인을 비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수입이 끊겨 어려움을 겪어 왔다. <br/><br/>그의 노벨상 메달은 예상가 250만~36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 이상 높은 475만 달러(약 53억원)에 전화로 응찰한 우스마노프에게 낙찰됐다. 또 왓슨이 시상식 연회에 준비한 다섯 쪽의 연설 메모와 노벨상 수상자 콘퍼런스를 위한 강연 수정본(46쪽)도 각각 36만 5000 달러(약 4억원)와 24만 5000 달러(약 2억 7000만원)에 팔렸다.<br/><br/>임병선 전문기자 bsn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4.txt

제목: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관심 갖는 이유는?  
날짜: 2014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21610511  
본문: 수지상세포는 인체 내 발병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종양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식하여 킬러T세포에게 공격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br/><br/>최근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백신치료 및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수술 및 항암제, 방사선치료 등 표준치료를 할 수 없는 전이·재발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가(多價)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한 결과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일본의 아베종양내과 측은 밝혔다. <br/><br/>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는 2주에 한 차례씩 총 6회(1사이클) 진행됐으며, 효과판정은 혈액검사와 영상진단으로 했다. 그 결과 진행성 폐암환자 22명 가운데 15명(68.2%)에게서 효과가 나타났으며, 진행성 대장암환자 32명 중 19명(59.4%), 진행성 췌장암환자 42명 중 18명(42.9%)에게서 치료효과를 얻었다. <br/><br/>앞서 제17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종양내과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표준치료를 병행한 전이·재발 암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한 결과, 74.4%의 치료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br/>아베종양내과 측에 따르면, 해당 치료는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 종합검사 후 환자의 수지상세포에 평균 5개의 펩타이드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이때 사용된 펩타이드는 GV1001을 비롯해 NY-ESO-1, WT1, MUC1, CEA, CA125, 써바이빈, MAGE-A3 등이다. 이외에도 암세포 인지능력을 갖춘 다양한 항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병원은 전했다. <br/><br/>이 치료법은 지난 2014년 7월 특허(특허 제5577472호)를 받았으며, 기존의 수지상세포 치료가 지닌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아베종양내과 측은 설명했다. <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는 인체에 1% 미만, 정맥혈에는 0.1% 미만이기 때문에 소량 채혈로는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이런 이유로 임파구만 배양하여 정맥으로 치료하는 수준이었다</span>”고 지적했다. <br/><br/>실제 기존 치료는 성분채혈에 약 5,000㎖가 필요했고, 2~3시간에 걸쳐 채혈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또한, 사용 가능한 펩타이드(항원)도 1~2종류로 단쇄(單鎖) 펩타이드라 치료효과도 떨어졌다. <br/><br/>이 같은 한계를 아베종양내과는 정맥혈에 있는 8~11%의 단구를 분리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암표지자 검사 후 다양한 종류의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를 추가 사용함으로써 해결했다. 그 결과 약 25㎖의 소량채혈만으로도 신 수지상사포 암백신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같은 사람의 같은 암세포라고 해도 표면에 제시된 항원(암표시)가 다르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런 암세포의 다양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펩타이드(항원)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이어 그는 “<span class='quot1'>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암세포만을 공격하여 제거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다</span>”고 덧붙였다. <br/><br/>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국내 기업인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과 공동임상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에 대한 추가발표가 2015년 1월 ‘암치료의 미래와 후회없는 암치료’라는 주제로 이뤄질 것으로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5.txt

제목: 만병의 근원 ‘활성 산소’ 잡아야 ‘건강 100세’ 간다  
날짜: 2014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20310993  
본문: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누구나 질병 없는 편안한 여생을 희망한다. 하지만 3명 중 2명은 뇌혈관 질환,심장 질환,당뇨병 같은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질병의 원인을 찾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병장수로 가는 지름길</span>”이라고 설명한다.<br/><br/>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의대는 치매,당뇨,암,심근경색,고혈압,동맥경화,결막염,신장결석,아토피 같은 질병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에 발병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라 몸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br/><br/>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소’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성된 수소(H2)분자는 수분 이내에 모두 대기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몸 속 흡수가 거의 불가능하다.<br/><br/>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나노버블수소다. 이 입자는 머리카락의 1만분의 1 크기로 나노버블수소를 이용한 스파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피부를 통해 체내로 침투된다.<br/><br/>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여는 ‘케이유 웰링’에선 국내최초로 나노버블수소수를 이용한 스파를 체험할 수 있다. <br/><br/>나노수소수 스파는 세계 최초로 천연식물소재를 이용한 나노버블수소 산소초고농축액적화 친환경기술(Nanobubbles Hydrogen/Oxygen Echogreen Technology)를 통해 탄생했다. 이 기술은 전세계 142개국에서 특허등록을 마쳤다. <br/><br/>[[노화방지,피로회복,질병예방에 효과]]<br/><br/>이 스파를 받으면 노화방지,피로회복,질병예방,근육피로감회복,숙취해소,배변이뇨작용,혈행개선,피부미용,피부혈행개선,피부보습,피부세정 등의 효과가 있다. <br/><br/>또 항염, 항균, 항암, 면역체계강화(아토피,비염,천식예방 등), 체취제거, 손상된 DNA복구, 각종 성인병 예방, 갱년기장애 예방, Detox 등의 효능도 기대할 수 있다. <br/><br/>케이유웰링 세실권 스파팀장은 “<span class='quot1'>케이유웰링에서는 차별화된 맞춤식 스파 서비스를 즐기면서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케이유웰링만의 스포츠클리닉,영양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노하이드로비타 스파의 효능과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케이유웰링 회원은 스파 서비스 외에 개인별 맞춤의료서비스(PMS-Personalized Medical System), 개인별 맞춤운동관리서비스(PTS- Personalized Training System), 개인별 맞춤영양관리서비스(PNS- Personalized Nutrition System)를 받을 수 있다.<br/><br/>케이유웰링은 상담부터 계약, 예약 등에 이르기까지 일대일 회원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1인 회원의 입회가격은 연회비를 포함해 4500만원이며 가족회원에게는 특별혜택이 적용돼 가족 수에 상관없이 6000만원이다. <br/><br/>계약금은 가입금액의 10%로 상품에 따라 400만원에서 800만원이며 입금과 동시에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자료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고객의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555-2318.<br/><br/> <br/><br/> <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6.txt

제목: “마음으로 낳은 아이 58명 모두 내 천사죠”  
날짜: 2014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15258431  
본문: “20년 동안 58명의 아이를 마음으로 낳았어요. 위탁모 활동을 시작한 뒤 두 번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아기들이 준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죠. 잠시나마 가족이 돼 준 천사들 덕에 참 행복했습니다.”<br/><br/>위탁모 이순임(57)씨가 1994년 7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모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20년 동안 입양을 보낸 아기는 무려 58명. 위탁모는 입양 대상 아동들을 양부모가 정해질 때까지 길러 주는 역할을 한다. 이씨는 신생아부터 생후 두 달의 아이들을 짧게는 반 년, 길게는 30개월까지 키워 보냈다. <br/><br/>이씨는 암 수술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우연히 위탁모를 알게 됐다. 남편은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돌보느냐”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씨도 굽히지 않았고, 첫 인연으로 도현이를 품에 안았다. 남편도 막상 도현이를 만나자 누구보다 아끼고 든든한 지원군으로 변했다.<br/><br/>몸이 불편했던 아기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선천성 장폐쇄증을 앓던 준성이는 대장을 20㎝ 이상 잘라 내는 수술을 하느라 입·퇴원을 반복하고, 특수 분유를 먹어야 했다. 30개월 동안 키운 수혁이는 발육이 늦어 언어·놀이치료를 했다.<br/><br/>이씨는 “<span class='quot0'>말을 못하는 게 꼭 내 잘못 같아 열심히 가르쳤고, 누가 수혁이에게 모자란다는 말을 하면 속이 상해 아이를 안고 울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입양 갈 때 떨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치던 수혁이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span>”며 눈시울을 붉혔다.<br/><br/>5년 전 그는 15년 근속상을 받아 프랑스·노르웨이·덴마크에서 자신이 길러 보낸 아이 7명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 이씨는 8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20년 근속상을 받았다.<br/><br/>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7.txt

제목: 감기도 예방? 음악이 주는 건강효과 4가지  
날짜: 20141208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5159140  
본문: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했던 기분이 풀리는 등 음악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음악은 심신은 물론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br/>다음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음악이 주는 다양한 건강 효과이다. 평소 음악을 듣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음악이 주는 효능을 경험해보자.<br/>1. 면역력이 올라간다<br/>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 음악을 듣는 것으로 극복해보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 것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로니 엔크 박사팀이 시행한 연구로는 기분을 고양해주는 음악을 50분간 듣게 되면 체내에서 항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포인트라고 한다.<br/>2. 우울증과 불안감을 낮춘다<br/>음악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날려버리는 효과도 있다. 미국 드렉셀대학의 조크 브랏 박사팀이 암환자 18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악 감상이나 음악 치료의 힘을 빌린 환자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줄고 혈압도 안정돼 기분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r/>3. 심장에 좋다<br/>음악은 심장의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실제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탈리아 파비아대학의 루시아노 베르나르디 교수팀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은 환자는 단지 쉬고만 있던 환자보다 수술 뒤 불안감이나 통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한다.<br/>4. 뇌를 건강하게 한다<br/>나이를 불문하고 음악을 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미국 캔자스대학 의료센터의 브렌다 한나-플래디 박사팀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은 뇌가 더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기억력과 두뇌의 선명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음악을 듣는 것으로부터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8.txt

제목: [아는 게 약] 소송 않고 의약품 피해 보상받으려면  
날짜: 2014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13836629  
본문: 정확한 처방전에 따라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했는데도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를 당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적인 보호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오히려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복잡한 소송절차에 질려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죠. 오는 19일부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돼 이런 소송절차 없이 보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이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br/><br/><br/>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피해 유형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결정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급여를 지급받기까지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이,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이,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가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됩니다.<br/><br/><br/>■도움말 식품의약품안전처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89.txt

제목: “늦게 잠들고 잠 부족하면, 근심·걱정 많아진다” (美 연구)  
날짜: 20141206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5019672  
본문: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이런저런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br/>최근 미국 빙엄턴 대학 연구팀은 "늦게 잠드는 사람과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충분한 잠을 자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학부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연구결과는 적절한 수면이 인간의 '마인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다소 흥미롭다.<br/>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늦게 침대로 향하는 '저녁형 인간' 이나 잠이 적은 사람들이 충분한 잠을 자는 사람(하루 7-8시간)들 보다 비관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 자체를 통제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r/>또한 이들 중 일부는 지나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의 집착 때문에 심각한 근심과 우울증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연구를 이끈 자콥 노타 박사는 "충분한 잠은 우리의 육체와 생체리듬을 회복해주고 조절해 준다" 면서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비만, 우울증, 심각한 경우에는 암이나 심장병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br/>이어 "충분한 잠은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라면서 "개인에 따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다르지만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0.txt

제목: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정신 건강에도 나빠” (호주 연구)  
날짜: 2014120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4840867  
본문: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은 채로 지내는 사람은 적지 않다. 앉아있는 것은 언뜻 보면 쉽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장시간에 이르면 신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최근 연구에서는 일할 때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br/>국제 학술지 ‘정신건강과 신체활동’(Mental Health and Physical Activity)에 게재된 이 연구는 2010년 호주 태즈메이니아주(州)에 사는 공무원 3367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br/>그 결과, “장시간(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일을 하고 중간에 정기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즉, 이런 사람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짧아(하루 3시간),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다닐 기회가 많았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일상 업무를 해내는 데 있어서, 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br/>장시간 앉아 있는 상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앉아 있는 상태가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의 모든 것과 관련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중간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를 늘려, 조금 배회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좋을 듯하다고 연구진은 말하고 있다.<br/>한편 최근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암 발병률이 66%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Journal of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실렸다. <br/>　 <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1.txt

제목: “최씨 아저씨, 같이 살길 좀 찾아봅시다”  
날짜: 2014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10027128  
본문: “청년이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끊으면 달릴 힘이 어디서 날까요?”<br/><br/>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제목의 세 장짜리 대자보가 잇따라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철도 민영화와 대선 불법 개입, 밀양 송전탑 주민 자살 등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청년들을 향한 ‘안녕들 하십니까’란 대자보가 대학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1년 만이다.<br/><br/>‘최씨 아저씨’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일컫는다. 대자보는 최근 최 부총리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span>”이라며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br/><br/>대자보를 게재한 ‘미스핏츠’는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재학생 9명이 만든 대안 미디어로, 지난 3일 고려대 정경대와 연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처음 대자보를 붙였다. 고려대에서는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란 이유로 하루 만에 뜯겼다. 한 연세대 학생이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를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자 게시물은 하루 만에 2만 7000여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미스핏츠는 4일 성균관대 인근 혜화역과 신림동 고시촌, 강남역 학원가에도 대자보를 붙였다.<br/><br/>학생들은 “<span class='quot1'>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span>”라며 “<span class='quot1'>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를 못 받아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span>”라고 비웃었다. 이어 “아저씨,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건 권유나 애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 ‘같이’ 좀 살길을 찾아봅시다”라고 덧붙였다.<br/><br/>미스핏츠 대표인 연세대 박진영(23·여·국문과)씨는 “<span class='quot2'>(취업 준비로) 먹고살기 바쁜 청년 사이에서 일상화된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span>”고 밝혔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span class='quot3'>청년들의 취업, 주거 불안 등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3'>평소 문제의식을 느끼던 학생들이 대자보 형태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반향이 클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br/><br/>다음은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 대자보 전문.<br/><br/>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br/>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신 말 때문에요. 총리 대 찌질이 대학생을 말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우리가 그냥 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상상해봅시다. 요즘 욕 많이 드시느라 힘들다고 소주 한 잔 따르신다면, 저는 그거, 냅다 뺏어 제 잔부터 채우렵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삶은 아저씨 생각이랑 많이도 다릅니다.<br/>작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은 암으로 죽고, 20대는 자살로 죽었답니다. 장년층이 속 곪아 암으로 죽는다면, 청년층은 애쓰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1300만원어치 빚을 지고 대학을 나갑니다.<br/>요즘엔 취업도 힘들어서 1년 정도 ‘취준’ 하는 건 찡찡댈 축에도 못 끼고요. 기업들은 ‘스펙초월’이다 뭐다 하는데, 주변에 토익점수 하나 없이 이력서 쓰는 애들, 본 적 없습니다.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 두 명이 야근하는 분량을 합치면 일자리 하나는 거뜬히 나오는데 왜 채용 인원은 그렇게 적습니까.<br/>고생 대결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잘 좀 해보자고요. 우리도 부모한테 빚 안 지고 독립해서 멀쩡히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이 고생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 데 가고 싶어 한다고요. 이 빚, 본인이 못 갚으면 부모 빚 되고 형제 빚 돼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못 만들면 청년만 손해가 아니라고요.<br/>안 그래요, 또 하나의 부모, 최경환씨? 우리가 취업 못하고, 창업 망하고, 집 못 사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고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가진 부동산들 안 사주면 집은 누가 사고, 부모님 받으실 연금은 누가 내요. 청년이 이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끊으면 달릴 힘이 어디서 날까요?<br/>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 낸다고 저희 미래 책임져 주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60살 되면 남는 연금이 없을 테니까요. 예? 그러면서 20만원 지원하고 다자녀 낳으라고 하고요. 택도 없네요.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시면 우리는 순순히 애를 낳아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청년을 ‘봉’으로 알고 선거 때만 빛 좋은 개살구를 던지면 우리는 순순히 연금을 내주지도, 집을 사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br/>맞습니다. 협박입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이유는 아저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br/>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안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니, 트렌드 따라 ‘창조적’이라고 해드릴게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br/>아저씨,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내복 한 번 못 사드릴 거라고요.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설마, 애 기를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을 저에게 뭔가 막 기대하고, 그러실 거 아니죠?<br/>정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래를 갉아먹고 지금 당장 얼마나 배부를 수 있습니까?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세대에게 짐을 미뤄두고, 장년 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br/>아저씨,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건 권유나 애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 ‘같이’ 좀 살길을 찾아봅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2.txt

제목: [영상] 뱀 삼키던 독수리, 결국…  
날짜: 2014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04335943  
본문: 수컷 독수리가 뱀을 단숨에 삼켜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다.<br/>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에 올라온 7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에서 나무 위에서 먹잇감을 찾던 독수리는 뱀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을 보자 쏜살같이 날아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1차 공격을 한다. <br/>뱀은 살아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꼬리를 이용해 독수리의 날개를 휘감아 보지만 독수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뱀의 머리통을 부리로 물고 뜯어 숨통을 끊는데 성공한다.<br/>독수리는 1.5m 길이의 뱀을 자신의 입으로 조금씩 밀어넣더니 1분도 되지 않아 뱀 한 마리를 통채로 꿀꺽 삼겨버린다.<br/>씹지 않고 통채로 삼키는 것이 조금씩 힘들었는지 독수리는 고개를 뒤로 젖혀 꾸역꾸역 뱀을 자신의 몸에 집어넣는다.<br/><br/><br/>뱀을 단숨에 삼켜버린 독수리는 잠시 주춤하더니 암컷이 기다리는 둥지로 날아간다.<br/>둥지에 도착한 독수리는 바로 자신이 삼켜서 보관해 온 뱀을 토해내기 시작한다.<br/>암컷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뱀을 토해내는 데 성공한 수컷은 또 어디론가 날아가고 암컷 독수리는 배가 고팠는지 단숨에 뱀을 삼킨다.<br/>사진·영상=유튜브(EaglePower87)<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3.txt

제목: 건강증진기금 3조 2762억… 흡연자 예산은 달랑 2060억  
날짜: 2014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01049918  
본문: “<span class='quot0'>내는 세금은 많지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span>”<br/><br/>담뱃값 2000원 인상이 현실화되자 흡연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담뱃값에서 나오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를 위한 사업에 미미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선 ‘금연 유도’라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목표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br/><br/>건강증진기금은 1997년 조성된 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지원(54~73%)에 대부분 쓰였다. 2002~2004년 기금의 95%가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낮아졌지만 그만큼 올라야 할 기금 본연의 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째 정체된 상태다.<br/><br/>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규모는 올해 2조 3314억원 대비 9447억원(40.5%)이 증가한 3조 2762억원이며 이 중 예치금과 이자상환비 등을 빼고 2조 718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금연 관련 사업에 오롯이 들어가는 기금은 2060억원, 전체 7.6%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보다는 4.2% 포인트 증액됐다.<br/><br/>기금의 금연 관련 사업 비중은 2009년 4.5%, 2010년 4.1%, 2011년 3.8%, 2012년 3.8%, 2013년 3.6%, 2014년 3.4%로 계속 감소한 반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운영비는 확대돼 왔다. 내년도 예산안만 봐도 복지부는 올해보다 779억원이 증액된 일반사업비 9944억원(36.5%)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화 사업에 39억 6900만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사업에 106억 6500만원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사업이 상당수다.<br/><br/>기금이 여기저기에 쓰일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기금 사용처의 기준이 불분명해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건강증진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포함할 여지를 둔 것이다.<br/><br/>담뱃값 인상 후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증세 목적이라는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의원 입법으로 담배를 통해 걷는 건강증진기금의 30%를 금연정책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br/><b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4.txt

제목: [씨줄날줄] 제임스 왓슨/서동철 논설위원  
날짜: 2014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101355845  
본문: 세계 과학 교과서에 빠짐없이 이름이 올라 있는 미국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1928~)은 젊은 과학자의 이미지가 여전하다. 영국 캐번디시 연구소 연구원이던 1953년 25세의 나이로 유전정보의 본체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왓슨은 공동연구자 프랜시스 크릭, DNA의 결정 패턴을 엑스선 사진으로 촬영한 모리스 윌킨스와 196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그는 이때까지도 미혼이어서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동반했다.<br/><br/><br/>‘나는 발표 전날에 잠자리에 들 때, 이른 아침에 스웨덴에서 온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는 상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나 꼭두새벽에 나를 깨운 것은 지독한 감기였다. 나는 스톡홀름에서 아무런 기별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우울해졌다. 일어나기 싫어서 미적대는데, 오전 8시 15분에 전화벨이 울렸다. 옆방으로 득달같이 달려가 받아 보니 어느 스웨덴 신문기자가 수상 소식을 알려주었다. 나는 행복했다. 기자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나는 “끝내주는군요!”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br/><br/><br/>왓슨의 자서전인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에 나오는 이야기다. 후배 과학자들에 대한 왓슨의 충고에는 이런 것도 있다. ‘노벨상 발표가 난 해를 최대한 즐기라’는 것인데 ‘과거의 노벨상 수상자로 살 시간은 평생이 남았지만, 그 순간 가장 각광받는 과학자로 살 시간은 1년뿐’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노벨상이 아니라면 알 길이 없었을 과학자에게 다가와 사인을 부탁하지만, 다음해 수상자가 발표되는 순간 치세는 끝나 버리고 마니 미인대회 입상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거칠 것 없는 입담에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다.<br/><br/><br/>왓슨은 1968년 이후 뉴욕의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를 암 연구의 메카로 키워 내는 데 전념했다. ‘오직 자신만이 차마 말하지 못할 것들도 모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평을 들을 만큼의 카리스마가 넘쳤다고 한다. 애착을 가졌던 연구소를 떠난 것은 2007년 10월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 때문이다. ‘진화 역사가 서로 다른 인종들이 동일한 지능을 가지리라 믿는 것은 희망일 뿐이다. 흑인을 고용해 본 사람들은 내 말 뜻을 알 것’이라고 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왓슨은 무조건적으로 사과한다고 했지만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br/><br/><br/>왓슨이 노벨상 메달을 생전에 경매에 부치는 최초의 수상자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선데이타임스 발언 이후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하여 궁핍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인종차별적인 자신의 발언이 옳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br/><br/><br/>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5.txt

제목: “불면증으로 잠 못자는 사람, 사망확률 58% 더 높다”  
날짜: 20141201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4134373  
본문: 불면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 보통사람 보다 사망확률이 58%나 더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최근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은 지난 1972년 부터 조사된 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논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불면증이 생각보다 치사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br/>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앓고있는 불면증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으로 주당 3일 이상, 3달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진단한다. 이번 연구에서 58%나 치사율이 높게 집계된 대상은 6년 이상이나 불면 증상을 가진 중증 환자였다.<br/>과거 연구에서도 불면증과 치사율이 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나온 바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이번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은 그 이유가 피염증수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염증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병, 당뇨, 비만, 암, 우울증 등으로 연결되는데 불면증 환자의 경우 이 수치가 높았던 것.<br/>연구를 이끈 사이람 파사사라시 박사는 "중증 불면증 환자의 치사율 원인을 밝히는 것은 이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의 정확한 치료방법을 알기 위한 것" 이라면서 "간혹 불면증을 겪거나 없는 사람에 비해 이들 중중 환자들은 피염증수치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br/>이어 "중증 환자들은 심장과 폐의 문제로 사망하는 위험이 높은데 나이와 성별, 수면제 등의 사용과는 큰 관계가 없었다" 고 덧붙였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6.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그냥 영원히 활동 중단 하세요” 악플 경악  
날짜: 20141201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807357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가 드라마 촬영은 제외한 시간의 대부분을 암투병 중인 부친과 보내는 등, 극진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br/><br/>민아는 출연중인 SBS 드라마 ‘모던파머’의 촬영을 제외한 시간에는 부친 곁에서 간호를 해왔다.<br/><br/>소속사 측은 “민아가 모던파머 촬영은 물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장례를 마친 뒤 추후 활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날 민아가 부친상을 당해 활동을 중단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기사의 댓글에 “활동 중단하면 아버지가 살아나냐? 그런 정신력이면 그냥 영원히 활동 중단 하세요”, “걸스데이 민아인 줄…AOA 같은 그룹은 상관없음” 등의 악플을 남기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br/><br/>‘AOA 민아 부친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AOA 민아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OA 민아 부친상, 아직 어린 나이에 힘들겠다” “AOA 민아 부친상, 다시 밝게 웃는 모습 기다릴게요” “AOA 민아 부친상, 민아 없는 무대 허전” “AOA 민아 부친상, 악플 남기는 사람들은 너무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편 부친상을 당한 민아는 29일 MBC ‘쇼! 음악중심’의 무대에 서지 못했다. AOA는 30일 SBS ‘인기가요’ 등의 무대에도 민아 없이 나머지 멤버들만 오를 예정이다. <br/><br/>사진 = 서울신문DB (AOA 민아 부친상)<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7.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안타까워  
날짜: 20141201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746869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가 드라마 촬영은 제외한 시간의 대부분을 암투병 중인 부친과 보내는 등, 극진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br/><br/><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8.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충격  
날짜: 201411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400709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가 드라마 촬영은 제외한 시간의 대부분을 암투병 중인 부친과 보내는 등, 극진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br/><br/><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499.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암으로 별세..충격  
날짜: 201411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341467  
본문: 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가 드라마 촬영은 제외한 시간의 대부분을 암투병 중인 부친과 보내는 등, 극진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0.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충격 악플보니..  
날짜: 201411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348207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가 드라마 촬영은 제외한 시간의 대부분을 암투병 중인 부친과 보내는 등, 극진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br/><br/>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날 민아가 부친상을 당해 활동을 중단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기사의 댓글에 “활동 중단하면 아버지가 살아나냐? 그런 정신력이면 그냥 영원히 활동 중단 하세요”, “걸스데이 민아인 줄…AOA 같은 그룹은 상관없음” 등의 악플을 남기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1.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현재 민아는?  
날짜: 201411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325995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는 출연중인 SBS 드라마 ‘모던파머’의 촬영을 제외한 시간에는 부친 곁에서 간호를 해왔다.<br/><br/>소속사 측은 “민아가 모던파머 촬영은 물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장례를 마친 뒤 추후 활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2.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사인은?  
날짜: 201411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316970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가 드라마 촬영은 제외한 시간의 대부분을 암투병 중인 부친과 보내는 등, 극진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3.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충격  
날짜: 201411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301292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가 드라마 촬영은 제외한 시간의 대부분을 암투병 중인 부친과 보내는 등, 극진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4.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안타까운 소식  
날짜: 201411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245012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AOA 민아의 부친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민아가 드라마 촬영은 제외한 시간의 대부분을 암투병 중인 부친과 보내는 등, 극진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5.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음악중심 민아 빠진 채 6인 체제로  
날짜: 2014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227085  
본문: 걸그룹 AOA 민아 부친상 후 ‘음악중심’ 무대에 불참한 것에 네티즌들도 안타까움을 표했다.<br/>AOA는 29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해 신곡 ‘사뿐사뿐’을 열창했다.<br/>이날 AOA는 블랙 벨벳 의상을 입고 도발적인 성숙미를 발산했다. 특히 AOA는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안무로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했다.<br/>또 AOA는 이날 부친상을 당한 민아를 제외한 6인 체제로 무대에 올랐다.<br/>한편 이날 민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민아의 부친 권모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1일이다.<br/>AOA 민아 부친상 후 ‘음악중심’ 무대 불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힘 내길</span>”,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안타깝네요</span>”,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얼마나 슬플까</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6.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음악중심 민아 빠진 채 6인 체제로 무대 올라  
날짜: 2014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228581  
본문: 걸그룹 AOA 민아 부친상 후 ‘음악중심’ 무대에 불참한 것에 네티즌들도 안타까움을 표했다.<br/>AOA는 29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해 신곡 ‘사뿐사뿐’을 열창했다.<br/>이날 AOA는 블랙 벨벳 의상을 입고 도발적인 성숙미를 발산했다. 특히 AOA는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안무로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했다.<br/>또 AOA는 이날 부친상을 당한 민아를 제외한 6인 체제로 무대에 올랐다.<br/>한편 이날 민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민아의 부친 권모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1일이다.<br/>AOA 민아 부친상 후 ‘음악중심’ 무대 불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잘 보내드리고 오시길 바랍니다</span>”,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많이 힘드시겠어요</span>”,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위로 드리겠습니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7.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음악중심 AOA 민아 빠진 채 6인 체제로 무대 올라  
날짜: 2014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229922  
본문: 걸그룹 AOA 민아 부친상 후 ‘음악중심’ 무대에 불참한 것에 네티즌들도 안타까움을 표했다.<br/>AOA는 29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해 신곡 ‘사뿐사뿐’을 열창했다.<br/>이날 AOA는 블랙 벨벳 의상을 입고 도발적인 성숙미를 발산했다. 특히 AOA는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안무로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했다.<br/>또 AOA는 이날 부친상을 당한 민아를 제외한 6인 체제로 무대에 올랐다.<br/>한편 이날 민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민아의 부친 권모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1일이다.<br/>AOA 민아 부친상 후 ‘음악중심’ 무대 불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그런 줄도 모르고 밝은 모습만 봤네</span>”,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슬픕니다</span>”, “<span class='quot0'>AOA 민아 부친상, 힘내세요</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8.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아버지 암투병 간호한 민아’ 현재 상태보니 “깊은 슬픔에 빠져..”  
날짜: 20141129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211286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걸그룹 AOA 멤버 민아(21)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br/><br/>29일 민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민아의 아버지가 이날 오전 8시경 암으로 별세했다. <br/><br/>소속사에 따르면, 고인은 3개월 전부터 암투병을 해왔으며, 현재 SBS 드라마 ‘모던파머’에 출연 중인 민아는 드라마 촬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극진하게 간호를 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br/><br/>아버지의 암투병을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민아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후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고 알려져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br/><br/>소속사 측은 “민아가 ‘모던파머’ 촬영은 물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추후 활동은 장례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민아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br/><br/>AOA 민아 부친상 소식에 팬들은 “AOA 민아 부친상, 안타깝네요”, “AOA 민아 부친상, 힘내세요”, “AOA 민아 부친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OA 민아 부친상, 효녀였네”, “AOA 민아 부친상, 민아야 힘내”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br/><br/>사진=서울신문DB<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09.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모던파머’ 촬영 중단 뒤 빈소 지켜  
날짜: 2014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151761  
본문: 걸그룹 AOA 멤버 민아가 부친상을 당했다.<br/>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AOA 멤버 민아가 오늘 오전 부친상을 당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 씨는 29일 오전 8시쯤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소속사에 따르면 민아 부친의 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1일이다. <br/>고인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SBS 드라마 ‘모던파머’에 출연 중인 민아는 드라마 촬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내며 간호해왔고 이날 임종을 지킨 뒤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민아는 ‘모던파머’ 촬영은 물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추후 활동은 장례 후 결정할 예정이다.<br/>AOA 민아 부친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고인의 명복을 빈다</span>”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1'>AOA 민아 부친상, 빨리 힘내길 바란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0.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아버지 극진하게 간호해..  
날짜: 20141129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156468  
본문: 29일 부친상을 당한 걸그룹 AOA 멤버 민아가 당분간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br/><br/>이날 민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민아의 아버지가 오전 8시경 암으로 별세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고인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투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br/><br/>한편 민아는 아버지 암투병진단 이후 드라마 촬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내며 간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br/><br/>사진=민아sns<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1.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촬영없는날엔 늘 아버지와 함께’ 현재 민아 상태보니 “안타까워”  
날짜: 20141129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203709  
본문: ‘AOA 민아 부친상’<br/><br/>AOA 멤버 민아(21·본명 권민아)가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br/><br/>29일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 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소식을 알렸다.<br/><br/>고인은 지난 8월께 췌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병원으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은 인천의 요양원에서 머물며 암투병을 해왔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민아는 SBS 드라마 촬영과 AOA 활동을 병행하면서 스케줄이 빌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 극진히 병간호를 해왔다</span>”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br/><br/>현재 민아는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뒤 깊은 슬픔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다.<br/><br/>AOA 민아 부친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AOA 민아 부친상, 얼마나 슬플까</span>”, “<span class='quot2'>AOA 민아 부친상, 힘내라 민아야</span>”, “<span class='quot2'>AOA 민아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2'>AOA 민아 부친상, 효녀였구나</span>”, “<span class='quot2'>AOA 민아 부친상,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한편 걸그룹 AOA는 당분간 민아 없이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29일 MBC , 30일 SBS 등의 무대도 민아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드라마 드라마 촬영 일정 역시 민아의 부친상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br/><br/>사진=민아 SNS(AOA 민아 부친상)<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2.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3개월 전부터 암투병 ‘안타까워’  
날짜: 20141129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154701  
본문: AOA 민아 부친상, 3개월 전부터 암투병 ‘안타까워’<br/><br/>걸그룹 AOA 멤버 민아(21)가 부친상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br/><br/>29일 민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민아의 아버지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 <br/><br/>고인은 3개월 전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암투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br/><br/>소속사 측은 “민아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추후 활동은 장례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r/><br/>사진=민아 SNS<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3.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안타까운 소식에 팬들 애도 전해..  
날짜: 20141129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128980  
본문: AOA 멤버 민아가 부친상을 당했다.<br/><br/>소속사에 따르면 고인은 29일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 AOA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 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br/><br/>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1일이다. <br/><br/>사진=민아 트위터<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4.txt

제목: AOA 민아 부친상, 모든 활동 중단 ‘안타까워’  
날짜: 20141129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5118454  
본문: 걸그룹 AOA 멤버 민아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br/><br/>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9일 “<span class='quot0'>AOA 멤버 민아가 오늘 오전 부친상을 당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민아의 부친 권모 씨는 29일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br/><br/>소속사에 따르면 민아 부친의 빈소는 경북 칠곡의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1일이다. <br/><br/><br/>사진=민아 트위터<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5.txt

제목: 부산터미널 건달 ‘철마늑대’ 찜찜한 구속  
날짜: 2014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4335464  
본문: “조용히 밥만 먹으면 우리도 밥 한 그릇은 공짜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손님한테 욕설을 퍼부어 놀란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br/><br/><br/>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10년째 온갖 행패를 부리다 28일 구속된 서모(57)씨의 사연이 회자되고 있다. 이곳에서 일명 ‘철마늑대’로 불리는 서씨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건달이었다. 배가 고프거나 술이 생각나면 눈에 보이는 식당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먹고 돈은 한번도 내지 않았다.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내 식당과 제과점, 분식점 등 영세상인을 상대로 무전취식하며 상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 왔다. 터미널 경비원 윤두수(66)씨는 “<span class='quot0'>서씨가 날마다 술을 마시고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비원들과도 자주 싸웠다</span>”며 “<span class='quot0'>서씨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span>”고 말했다. <br/><br/><br/>하지만 상인들은 황제처럼(?) 군림하던 서씨의 구속 소식을 반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보복도 두렵지만 그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다. 부산의 명문 고교를 중퇴한 서씨는 10여년 전 암에 걸린 부인의 치료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간호했으나 퇴직금을 병원비로 모두 써 버리자 투병 중인 부인과 이혼하고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다. 현재 부인은 두 딸이 번갈아 가며 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 정모(45)씨는 “<span class='quot1'>행패를 부리던 서씨가 구속돼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하지만 몇 달 뒤 풀려나면 다시 찾아와 보복하지 않을까 두렵다</span>”고 밝혔다.<br/><br/><br/>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6.txt

제목: “친절한 의사, 환자 건강에는 ‘악영향’”  
날짜: 2014112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3830243  
본문: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마치 가족이 아픈 것처럼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의 이런 친절한 태도는 환자를 호전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영국 브라이튼 앤 서섹스 의과대학(Brighton and Sussex Medical School) 연구팀은 종양 및 암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대하는 종양학 전문가 3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59%가 자신과 긴밀하게 연결된 환자들에게는 ‘병의 진실’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br/>또 60%는 만약 의사가 환자와 지나치게 친밀할 경우 환자를 위한 치료 방법이나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결정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느끼기도 한다고 답했다.<br/>이 같은 현상은 의사로서의 객관적 입장과 환자의 친밀함으로 이뤄진 사회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는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서 환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부작용과 같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br/>연구를 이끈 레슬리 펠로우필드 박사는 “의사들이 환자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소통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 환자를 가볍게 포옹하거나 환자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행위 역시 오히려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이어 “특히 젊은 종양학 의사들은 자신의 증상에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이 환자들에게 치료의 부작용이나 일부 약물 치료의 어려움, 치료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펠로우필드 박사는 의사가 환자를 가볍게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것 또는 이름을 부르며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프로페셔널함과 사회적 관계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br/>실제로 이번 연구 결과 영국 의사의 절반이 환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으며, 25%는 환자의 초대에 응한 적이 있고, 14%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영국의 공인된 의료업계 평가기관인 국가의료평의회(General Medical Council·GMC)의 한 관계자는 “SNS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의사들은 환자와의 관계 정의를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의사들이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기존의 진료방식 보다는 SNS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기존의 진료 방식을 바꾸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최신호에 실렸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7.txt

제목: [의정 포커스] 집행부와 상생, 구민 우선 생각  
날짜: 2014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3115524  
본문: “공무원들을 채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의원들이 먼저 법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br/><br/>27일 서울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난 신희근(52) 의원은 “<span class='quot0'>집행부(구청)와 의회는 구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span>”며 이렇게 말했다.<br/><br/>신 의원은 특히 밀어줘야 할 집행부의 사업으로 장승배기에 건립 추진 중인 ‘종합행정타운’을 예로 들었다. 구의 지리적 중심지인 장승배기 일대에 구청과 구의회,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공서를 이전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구청장의 발상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한곳에서 다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그가 최근 집행부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올해 집행부의 재정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span class='quot1'>국가 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의 사업들이 지방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들이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span>”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신 의원은 오는 12월 구의회 지방재정연구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다. 모임을 통해 지방세 확충 및 재정자립도 상승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또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br/><br/>신 의원은 또한 최근 구정 질문을 통해 ‘구의회 회의 진행 상황 중계 확대 실시’를 주장했고, 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는 “구의원들이 하는 일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동사무소나 스포츠센터 등에 모니터를 설치해 구의원들의 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의원들이 스스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br/><br/>5대에 이어 7대에 재선으로 선출된 신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한 주민의 암 치료를 도왔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초선 때 사당5동에 살던 한 여성 주민이 돈이 없어 암 수술을 못 받는다고 연락이 와 구청에 긴급보호자금 300만원을 요청해 지원했다. 그분이 수술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더라”고 돌아봤다. 그는 “<span class='quot1'>항상 발품을 팔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는 친구가 되겠다</span>”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br/><br/>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8.txt

제목: 나만 위해 우는 팍팍한 세상… 아픈 이 치유하는 ‘작은 선물’  
날짜: 2014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3021331  
본문: “하루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죽음을 묵상하는 게 삶을 아름답고 간절하고 뜨겁게 하는 계기가 된다.” 2008년 대장암을 이겨 내고 새 삶을 얻은 이해인(70) 수녀는 매일 ‘작은 죽음’을 연습한다. 이해받지 못하거나 오해로 마음이 아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려놓는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내려놓는 삶’이 역설적으로 사랑과 위안으로 가득한 시를 낳는 힘이 되는 듯하다. 항암 투병기를 담은 2010년 ‘희망은 깨어 있네’ 이후 4년 만에 나온 신작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마음산책)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감싸 준다. 이 수녀도 “<span class='quot0'>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아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span>”고 소원했다.<br/><br/>시집엔 시 100편과 시에 덧붙이는 메모 성격의 일기 100편이 실렸다. 곳곳에 아픔과 치유가 녹아 있다. ‘마음이 아플 땐 누구를 원망하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가만히 가만히 내가 나를 다독이며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 치유가 되고’(마음이 아플 때),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슬퍼도 슬프다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견디는 그만큼 내가 서 있는 세월이 행복했다.’(나무가 나에게)<br/><br/>이 수녀는 ‘젊어서는 나를 위해 많이 울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남을 위해 더 많이 우는 나를 본다’(눈물 예찬)고 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얘기를 많이 듣고 도와주려 하다 보니 나를 위해 울 시간이 없었다. 교황께서도 이 시대는 무자비해서 남을 위해 우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공감이 간다. 다들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를 위해 울지 남을 위해 울지 않아 세상이 메마르고 팍팍해진 것 같다.”<br/><br/>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에 그가 말하는 사랑과 용서는 심금을 울린다. ‘사랑과 용서는/어쩌다 마음 내키면 하는/그런 것이 아니야//아침에 눈을 뜨고/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하루의 모든 순간에//사랑이 필요하고/용서가 필요하고/화해가 필요하다.’(매일의 다짐)<br/><br/>사선을 넘나들어서였을까. 한 줌의 햇볕도 고맙기만 하다. ‘해 뜨기 전 하늘이 먼저 붉게 물들면 벌써부터 가슴이 마구 뛰고’(해 뜰 무렵·해를 보는 기쁨), ‘오늘도 한 줄기 햇빛이 고맙고 고마운 위로가 된다.’(햇빛 일기) 그는 “<span class='quot1'>암환자라 추위를 많이 타는 것도 있지만 한 줄기 햇빛이 주는 따뜻한 고마움을 전에 없이 많이 느낀다</span>”고 했다.<br/><br/>이 수녀는 ‘한 송이 꽃이 돼 하느님의 나라에 도착하고 싶다’(마지막 편지)는 편지도 썼고, 지난해 12월엔 ‘엄숙하게 친필로 꾹꾹 눌러’(유언장을 쓰며) 유언장도 썼다. “수녀들 중에 갑자기 쓰러져 아무 준비도 없이 가는 분이 있다. 나도 언제 예측불허의 상황이 닥칠지 몰라 의식이 있을 때 정리해 놓는 게 좋겠다 싶어 법원 공증을 받아 썼다.” 유언장엔 지금껏 나온 출판물이나 사후 나올 미발표 작품들, 재출간 작품들 등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귀속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처럼 수도원 관습대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br/><br/>이 수녀는 요즘 미열도 자주 나고 아프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의 끝에서 동백꽃을 만났다. ‘반세기를 동고동락하며 이젠 한 송이 동백꽃이 돼 행복하고’(동백꽃과 함께), ‘새해에는 동백꽃처럼 더 밝게 더 싱싱하게 더 새롭게 환한 웃음을 꽃피우겠다’(새해에는 동백꽃처럼)고 다짐도 한다. “필 때도 질 때도 아름답고 고운 동백꽃처럼 살다 가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워 동백꽃과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련 없이 깨끗하게 선종하고 싶다. 한결같은 평상심으로 살면서 그 평범함 속에 하늘빛의 평화와 기쁨이 피어나는 날들을 보내다 여생을 마치고 싶다.”<br/><br/>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19.txt

제목: “불면증 심한 사람, 사망확률 58% 더 높다” (美 연구)  
날짜: 20141127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3630262  
본문: 불면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 보통사람 보다 사망확률이 58%나 더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최근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은 지난 1972년 부터 조사된 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논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불면증이 생각보다 치사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br/>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앓고있는 불면증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으로 주당 3일 이상, 3달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진단한다. 이번 연구에서 58%나 치사율이 높게 집계된 대상은 6년 이상이나 불면 증상을 가진 중증 환자였다.<br/>과거 연구에서도 불면증과 치사율이 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나온 바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이번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은 그 이유가 피염증수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염증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병, 당뇨, 비만, 암, 우울증 등으로 연결되는데 불면증 환자의 경우 이 수치가 높았던 것.<br/>연구를 이끈 사이람 파사사라시 박사는 "중증 불면증 환자의 치사율 원인을 밝히는 것은 이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의 정확한 치료방법을 알기 위한 것" 이라면서 "간혹 불면증을 겪거나 없는 사람에 비해 이들 중중 환자들은 피염증수치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br/>이어 "중증 환자들은 심장과 폐의 문제로 사망하는 위험이 높은데 나이와 성별, 수면제 등의 사용과는 큰 관계가 없었다" 고 덧붙였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0.txt

제목: “유방암과 파라벤 연관성, 연구 더 필요하다”  
날짜: 2014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2301038  
본문: 　최근 들어 국내 유방암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활습관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2014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유방암 발생률은 10만명 당 52명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러 동아시아 국가 중 최다 발생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 발병 증가원인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의학계 일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치약과 샴푸·크림·로션 등 생활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발암물질 파라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br/>　 물론, 유방암 발생에는 환경·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이외에도 여성 호르몬 노출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즉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으며, 임신기간이 짧을수록 유방암의 발생확률은 높아진다. 이때 작용하는 에스트로겐과 발암물질인 파라벤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되었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br/>　하지만 파라벤(parabens)은 에스트로겐에 비해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이 1만 배에서 많게는 1백만 배 가량 약하기 때문에 유방 조직에서 파라벤이 암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파라벤이 존재해야 한다. 또 파라벤이 어느 정도의 양이, 얼마동안 체내로 흡수되어야 유방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br/>　이처럼 파라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논란이 되자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미국 등에서는 단일 파라벤의 경우 0.4%,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8%까지만 첨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제한규정을 준수한 제품이라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양이 매우 소량이어서 이를 유방암과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br/>　193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된 파라벤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화장품이나 식품, 의약품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파라벤 등 4종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메틸파라벤은 블루베리, 당근, 올리브 등의 천연성분에서도 발생한다. 80여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물질을 새삼스럽게 유방암과 연결시켜 위험물질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br/>　또 유방암 발생에는 파라벤이라는 단일요소 외에도 수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비만, 생활습관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며, 이 중 어느 한가지만을 단일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br/>　고려대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는 “<span class='quot0'>아직까지 파라벤의 장기간 사용이 유방암 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 완전히 무해한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따라서 의사 뿐 아니라 과학자, 정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더 심층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런 불확실한 문제를 악용하려는 상술도 경계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정승필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유방암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 정기검진임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pan>”고 덧붙였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1.txt

제목: [기업 가치경영 특집] 아모레퍼시픽-14년째 ‘핑크리본 마라톤’ 24만여명 참가  
날짜: 2014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91559754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다양한 나눔경영 활동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br/><br/>2008년 시작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투병 중의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한편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8674명의 여성 암 환우와 2872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암 수술 뒤 2년 이내의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br/><br/>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핑크리본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에는 지난해까지 24만여명이 참가해 26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를 통해 760여명의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의 수술치료비를 지원했고, 700회의 대국민 유방건강강좌가 진행됐다. 이 밖에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과 ‘희망가게’와 화장품 공병의 재활용을 위한 ‘그린사이클 캠페인’ 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2.txt

제목: “요구르트 먹으면 당뇨병 막을 수 있다” (하버드大 연구)  
날짜: 2014112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3403545  
본문: 요구르트가 당뇨병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학과 프랭크 후 교수팀이 요구르트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미국심장학회(AHA)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 최신호에 발표했다.<br/>연구팀은 간호사와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총 405만 4783명의 추적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대표적 코호트 연구인 간호사건강연구(NHS, 1980~2010년)와 간호사건강연구Ⅱ(NHSⅡ, 1991~2009년), 그리고 보건전문요원후속연구(HPFS, 1986~2010년)의 자료가 쓰였다.<br/>연구팀은 4년마다 식품섭취빈도조사지(FFQ)와 보충 설문을 통해 이들 대상자의 생활방식과 지병 등에 관해 확인했다. 또한 처음부터 당뇨병이나 심장병, 암을 앓고 있었거나 유제품 섭취 빈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했다.<br/>그러자 조사 대상자는 약 20만 명(NHS 여성 6만 7812명, NHSⅡ 여성 8만 6158명, HPFS 남성 4만 1705명)으로 추려졌다. 이들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조사 기간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한 사람은 1만 43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전체 유제품의 섭취량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무지방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마다 그 섭취량과 제2형 당뇨병 발병의 인과 관계를 살폈다.<br/>그 결과, 요구르트에 한해서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병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요구르트 섭취량이 28g, 즉 두 스푼 정도 먹는 것으로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은 18%, 즉 5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br/>아쉽게도 조사 대상자들이 어떤 유형의 요구르트를 섭취하고 있었으며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 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당뇨병이 당분에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가 그런 효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r/>연구팀은 요구르트 섭취가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한다.<br/>또 당뇨병은 주로 비만에서 비롯하며 보통 중년이 지남에 따라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br/>이에 대해 후 교수는 “<span class='quot0'>평소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소금과 설탕, 지방을 줄인 균형 잡힌 건강식을 먹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3.txt

제목: 말기암 엄마위해 병원에서 결혼식 올린 딸 감동  
날짜: 20141125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3347104  
본문: 말기암 환자인 엄마를 위해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딸의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있다. <br/>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MD 앤더슨 암 센터 정원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의 주인공은 신랑 코너 우드와 신부 캐서린 코프랜드.<br/>한쌍의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병원 앞마당이라는 이색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유는 신부 캐서린의 모친 때문이었다. 그녀의 엄마는 현재 말기암으로 병원 밖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태.<br/>이에 캐서린은 신랑과 협의 끝에 결혼식을 앞당겨 친지와 친구들을 불러모아 이같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축하하듯 화창한 날씨 아래 열린 이날의 결혼식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특히 모친 자넷은 이날 만큼은 환자복을 벗고 빨간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딸의 결혼식을 축하했다.<br/>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지만 얼마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주 후 모친이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br/>이같은 사연은 당시 결혼식 사진을 촬영했던 제스 바필드가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전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바필드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진실된 이야기" 라면서 "내 평생 잊지못할 아름답고 순수한 기억" 이었다고 말했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4.txt

제목: “친절한 의사, 당신의 건강에는 ‘악영향’”  
날짜: 20141125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3221789  
본문: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마치 가족이 아픈 것처럼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의 이런 친절한 태도는 환자를 호전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영국 브라이튼 앤 서섹스 의과대학(Brighton and Sussex Medical School) 연구팀은 종양 및 암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대하는 종양학 전문가 3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59%가 자신과 긴밀하게 연결된 환자들에게는 ‘병의 진실’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br/>또 60%는 만약 의사가 환자와 지나치게 친밀할 경우 환자를 위한 치료 방법이나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결정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느끼기도 한다고 답했다.<br/>이 같은 현상은 의사로서의 객관적 입장과 환자의 친밀함으로 이뤄진 사회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는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서 환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부작용과 같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br/>연구를 이끈 레슬리 펠로우필드 박사는 “의사들이 환자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소통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 환자를 가볍게 포옹하거나 환자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행위 역시 오히려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이어 “특히 젊은 종양학 의사들은 자신의 증상에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이 환자들에게 치료의 부작용이나 일부 약물 치료의 어려움, 치료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펠로우필드 박사는 의사가 환자를 가볍게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것 또는 이름을 부르며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프로페셔널함과 사회적 관계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br/>실제로 이번 연구 결과 영국 의사의 절반이 환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으며, 25%는 환자의 초대에 응한 적이 있고, 14%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영국의 공인된 의료업계 평가기관인 국가의료평의회(General Medical Council·GMC)의 한 관계자는 “SNS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의사들은 환자와의 관계 정의를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의사들이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기존의 진료방식 보다는 SNS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기존의 진료 방식을 바꾸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최신호에 실렸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5.txt

제목: 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암 가려낼 확률 93%” 종양에 코 대고 예민한 반응 ‘깜짝’  
날짜: 2014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83048015  
본문: 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암 가려낼 확률 93%” 종양에 코 대고 예민한 반응 ‘깜짝’<br/><br/>주인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개의 사연이 화제다. <br/><br/>영국 미러 등 외신은 최근 후각 능력을 이용해 주인의 생명을 구한 개 ‘데이지’ 사연을 보도했다. <br/><br/>데이지는 새끼 시절부터 주인 클레어 게스트로부터 소변 샘플로 암환자를 가려내는 후각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 정확도는 93% 정도라고. <br/><br/>그러던 어느 날 데이지는 주인 게스트의 가슴에 코를 댄 채 예민하게 반응했다. 심지어 게스트의 가슴을 발로 밀거나 넘어뜨려 멍들게 하기도 했다. <br/><br/>평소와 다른 데이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게스트는 데이지가 코를 댄 부위를 검사했고 그 결과 작은 종양이 발견됐다. <br/><br/>게스트는 다행히 종양의 크기가 작아 완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데이지는 주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메달을 받을 예정이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이렇게 영특한 개가 있다니</span>”, “<span class='quot0'>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병원 검사기기가 필요가 없겠네</span>”, “<span class='quot0'>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우리도 이런 개 키워 보아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6.txt

제목: 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소변 샘플로 93% 가려내” 주인 가슴 보고 한 행동은?  
날짜: 2014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83037803  
본문: 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소변 샘플로 93% 가려내” 주인 가슴 보고 한 행동은?<br/><br/><br/>주인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개의 사연이 화제다. <br/><br/><br/>영국 미러 등 외신은 최근 후각 능력을 이용해 주인의 생명을 구한 개 ‘데이지’ 사연을 보도했다. <br/><br/><br/>데이지는 새끼 시절부터 주인 클레어 게스트로부터 소변 샘플로 암환자를 가려내는 후각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 정확도는 93% 정도라고. <br/><br/><br/>그러던 어느 날 데이지는 주인 게스트의 가슴에 코를 댄 채 예민하게 반응했다. 심지어 게스트의 가슴을 발로 밀거나 넘어뜨려 멍들게 하기도 했다. <br/><br/><br/>평소와 다른 데이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게스트는 데이지가 코를 댄 부위를 검사했고 그 결과 작은 종양이 발견됐다. <br/><br/><br/>게스트는 다행히 종양의 크기가 작아 완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데이지는 주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메달을 받을 예정이다. <br/><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이런 놀라운 능력은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span>”, “<span class='quot0'>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합시다</span>”, “<span class='quot0'>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개 능력보다 주인이 가르친 정성이 더 대단하다</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7.txt

제목: ‘찔끔찔끔’ 힘들고 꽉 막혀서 괴로워  
날짜: 2014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82900027  
본문: “<span class='quot0'>남자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span>”<br/><br/>휴일을 맞아 북한산에 오른 박모(48·경기 광명시 소하동)씨는 짐짓 수줍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동행한 친구가 점심밥을 먹을 때 콜라비를 꺼내 놓으며 “전립선(질환)에 그만이라더라”고 말한 터였다. 그러자 8명이 서로 손을 내밀어 금세 동나고 말았다.<br/><br/>하늘 아래 남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비켜가기 어렵다는 게 전립선 질환이다. 사극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궁궐 내 벼슬아치에 빗대 ‘내시에겐 없는 질병’으로도 일컬어진다. 가뜩이나 그런 마당에 기온마저 곤두박질한 요즈음 전립선 질환,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심각해지기에 눈길을 끈다. 전립선(prostate)은 그리스어로 보호자(protector)에서 유래했다. 고환 앞에 있으면서 고환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고환이 바로 정액을 생산하는 공장이라 전립선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성인 대열에 들어서는 20대의 경우 전립선은 방광 밑에 밤톨 만하게 자리한다.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정액을 생성, 분비하고 정자의 생존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또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세균 감염을 막는다. 성욕 감퇴, 발기력 약화 등 성기능 위축과 맞닿아 이른바 ‘고개 숙인 남자’를 양산하기도 한다.<br/><br/>먼저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견줘 수술 후 3년 무재발 생존율이 92%로 높은 편이다. 다만 혈뇨, 배뇨 곤란 등 증상을 동반하지만 뚜렷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해서 40~50대라면 정기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 묘하게도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 ‘황제의 암’으로 불린다. 중국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전 주석, 프랑수아 미테랑(1916~1996) 전 프랑스 대통령, 넬슨 만델라(1918~2013)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 아키히토(1933~현재) 일왕은 모두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등졌거나 투병 중 수술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50대 이후 중년 남성에서 많아 ‘아버지의 암’으로도 일컬어진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남성암 가운데 5위를 달린다. 강동경희대병원 이형래(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통계상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2010년 7848명으로 2009년 7404명보다 444명 증가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남성 전체 암환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데 1999년 이후 연평균 12.6%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span>”고 밝혔다. 전립선암은 고령과 기름기 많은 음식 섭취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천의대 길병원 오진규(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예방하기 위해선 적절한 운동과 수면, 금연, 금주 등 일반적인 수칙과 더불어 콩, 토마토, 녹차, 커리 등 식이요법을 추천한다</span>”고 말했다.<br/><br/>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전립선비대증이다. 비뇨기과 전체 질환의 25%를 웃돈다. 50대 가운데 50%, 60대의 60%, 70대의 70%, 80대의 90%가 앓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질환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증상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환자 대부분은 불편한 배뇨 증상을 그저 나이 탓이거니 하면서 가볍게 넘기곤 한다. 결국 뒤늦게, 심지어 전립선이 꽉 막히고서야 병원 문을 노크하기도 한다. 전립선이 너무 커져 여기에 둘러싸인 요도를 압박할 정도에 이르면 심각해진다. 전립선은 막 출생했을 때 완두콩 크기인데 성인 땐 가로 4㎝, 세로 3㎝, 높이 3㎝, 무게 20g으로 훌쩍 자란다. 30대 이후로 갈수록 성장 속도는 차차 낮아지지만 해마다 0.4g씩 꾸준히 커진다. 60대에 들어서면 평균 30g이나 된다. 정상이라 할 20대에 비해 50%나 불어나는 것이다.<br/><br/>전립선비대증에 걸리면 오줌이 잘 나오지 않고 오래 걸린다. 따라서 자주 화장실을 찾기 마련이다. 한밤에 일어나는 등 하루 소변 보는 횟수가 8회를 웃돌면 의심할 만하다. 뜸을 들이거나 힘을 잔뜩 줘야 해 따끔한 느낌도 잦아진다. 정상인의 경우 400㎖쯤 오줌을 누고 나면 시원한 느낌을 갖는다. 반면 전립선비대증을 앓으면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채 인체에 남기게 된다. 이후 방광 기능저하,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앓는다. 배뇨가 불편해지면 어떤 일이라도 집중하기 힘들고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이만큼 끔찍한 일도 드물다.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우울증을 호소하기 쉬워진다. 중장년층 남성에게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를 빚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찍 발견만 한다면 환자의 80%는 약물로 증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거꾸로 요로 감염, 혈뇨 등 만성으로 번지거나 결석이 생긴 경우, 약물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전립선비대증 환자가 2006년 45만 8955명에서 2011년 84만 2069명으로 83.5%나 늘었다</span>”고 설명했다.<br/><br/>마지막으로 전립선염을 들여다보자. 몸 상태가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이 전립선에 침입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먼저 세균이 요도를 거쳐 올라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면역 결핍이나 요도의 기능 이상, 골반 긴장근육통, 스트레스 등 요인들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병할 수도 있다. 만성질환으로 도질 가능성도 37%로 아주 높아 적극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균성이라면 항생제 처방을 통해 비교적 잘 치유될 수 있다. <br/><br/>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8.txt

제목: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  
날짜: 2014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82857116  
본문: ①전립선이 크면 배뇨증상이 심하다?<br/><br/><br/>→배뇨증상은 주관적이어서 환자에 따라 호소하는 정도가 다르다. 전립선이 크더라도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지내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전체 전립선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요도를 둘러싼 부분의 전립선이 특히 많이 커지거나 방광출구 부위의 전립선이 특이한 형태로 커짐으로써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매우 심해지는 환자들도 많다.<br/><br/><br/>②증상 호전 땐 치료제를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br/><br/><br/>→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진행하기 때문에 혈압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처럼 평생 먹어야 한다. 약을 중단하면 발병 기간에 차이는 나겠지만 대부분 재발하거나 급성요폐 같은 합병증을 일으켜 다시 병원을 찾게 된다. 약을 먹기 어려운 경우나 약물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br/><br/><br/>③수술을 받으면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br/><br/><br/>→정상적인 생식괄약근은 사정할 때 정액이 방광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도로 배출되도록 방광 쪽 통로를 세게 조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전립선절제술을 하면 괄약근에 손상을 줘 역행성 사정이 생긴다. 이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수술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면 수술의 가장 큰 목적인 소변을 잘 보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역사정으로 정액이 방광에 들어가면 건강에 나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소변을 볼 때 함께 배출되므로 문제될 게 없다.<br/><br/><br/>④수술치료를 받으면 발기력이 떨어진다?<br/><br/><br/>→최소침습적 치료에선 발기부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 모든 수술 치료에서 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10명 중 1명 이하로 적고, 특히 레이저 치료에서 거의 없다.<br/><br/><br/>⑤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암으로 진행한다?<br/><br/><br/>→전립선비대증은 나이 들어 전립선 조직이 과다 증식하는 것으로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생기는 암과는 별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29.txt

제목: 흡연자車 옆자리에 1시간만 타도 발암물질 급상승  
날짜: 20141123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3020947  
본문: 흡연자의 차량에 1시간만 탑승해도 체내 발암물질 농도가 급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연구진이 흡연자의 차량에 비흡연자가 탔을 경우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br/>연구진은 차량의 창문을 약 10cm 연 상태의 차량(SUV)을 준비하고 비흡연자(총 14명)에 각각 1시간 동안 탑승하도록 했다. 운전석에는 흡연자가 20분 간격으로 담배 3개비를 피우도록 했다.<br/>실험 이전과 실험이 끝난 지 8시간이 지난 후에 채취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흡연 관련 질환(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9가지 유해 화학물질 중 뷰타다이엔, 아크릴로나이트릴, 벤젠, 산화에틸렌 등 7종의 물질 농도가 심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이에 대해 연구진은 특히 어린이와 지병이 있는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으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br/>이번 실험에서는 멈춰있는 차량을 사용했으므로 주행 중의 차량과 비교하면 환기 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교통 상황을 보면 정체가 심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번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br/>연구를 이끈 기드온 세인트 헬렌 박사는 “<span class='quot0'>천식이나 심장 질환 등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는 특히 차 안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연구학회 학술지 ‘암·역학·생물표지·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0.txt

제목: 흡연자 車 1시간만 타도 체내 발암물질 급상승  
날짜: 20141122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2940259  
본문: 흡연자의 차량에 1시간만 탑승해도 체내 발암물질 농도가 급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연구진이 흡연자의 차량에 비흡연자가 탔을 경우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br/>연구진은 차량의 창문을 약 10cm 연 상태의 차량(SUV)을 준비하고 비흡연자(총 14명)에 각각 1시간 동안 탑승하도록 했다. 운전석에는 흡연자가 20분 간격으로 담배 3개비를 피우도록 했다.<br/>실험 이전과 실험이 끝난 지 8시간이 지난 후에 채취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흡연 관련 질환(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9가지 유해 화학물질 중 뷰타다이엔, 아크릴로나이트릴, 벤젠, 산화에틸렌 등 7종의 물질 농도가 심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이에 대해 연구진은 특히 어린이와 지병이 있는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으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br/>이번 실험에서는 멈춰있는 차량을 사용했으므로 주행 중의 차량과 비교하면 환기 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교통 상황을 보면 정체가 심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번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br/>연구를 이끈 기드온 세인트 헬렌 박사는 “<span class='quot0'>천식이나 심장 질환 등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는 특히 차 안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연구학회 학술지 ‘암·역학·생물표지·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1.txt

제목: ‘모벰버 캠페인’ 고환 검사하면서 100달러 기부하세요  
날짜: 2014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81916074  
본문: 고환 검사에 응하고 100달러 기부하세요!<br/><br/>18일 유튜브에 게재된 ‘자선 위해 거리에서 고환 테스트받기’(Giving Testicular Exams in Public for Charity)란 영상이 하루 만에 31만 13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br/><br/><br/><br/>영상에는 모벰버(Movember)를 맞아 자선 모금을 위해 거리에서 고환 테스트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간호사 복장을 한 미녀 도우미의 무료 고환 테스트 권유에 남성들이 부끄러워한다. 일부 남성은 자선 모금이란 좋은 뜻을 이해하고 선뜻 자신의 고환을 내준다. 이날 무료 고환 테스트에 응한 남성은 총 6명으로 1인당 100달러씩, 600달러의 자선기금이 모였다.<br/><br/>모벰버는 콧수염의 뜻을 가진 머스타쉬(MOustache)와 11월을 의미하는 노벰버(noVEMBER)가 합쳐진 합성어다. 모벰버는 11월 한 달 동안 수염을 기름으로써 남성들은 전립선암과 같은 남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암에 걸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 모금을 함께 하는 캠페인이다.<br/><br/>이 영상을 직접 제작한 ‘심플 픽업’(Simple Pickup)이란 유튜브 계정을 가진 이들은 “모벰버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고환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거리로 나가 무료 테스트를 제공했다”면서 “테스트에 동의한 남성 한 명 마다 100달러씩 기부했다. 하지만 이것으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 비디오의 시청수가 10만 명씩 늘 때마다 추가로 모벰버 캠페인 측에 100달러씩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br/><br/>한편 모벰버는 1999년 호주 에틀레이드(Adelaide)에 사는 한 남성에 의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매년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190만 명 이상의 성인 남녀가 참여하는 지구촌 행사다. 모벰버의 규칙은 11월 첫날, 깨끗하게 면도를 한 후, 11월 마지막 날까지 콧수염을 기르며 모양을 손질하면 된다. 턱수염이나 구레나룻수염은 제외된다.<br/><br/>사진·영상= Simple Pickup youtube<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2.txt

제목: 신장 나쁜가요? 해산물 ‘지중해식 식사’ 하세요 (연구)  
날짜: 20141121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2836912  
본문: 아름답고 넓은 바다 덕분에 해산물이 풍부한 지중해.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요리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줘 이 지역에서는 질병 발생률이 낮다. 그런 식생활을 도입한 지중해식 식사는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올리브유가 주로 쓰이는 데 생선 속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하는 것을 막아준다. 또 치즈 등 저지방 유제품을 소량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 곡물을 되도록 많이 섭취하고 레드 와인 한두 잔을 곁들이기도 한다. 레드 와인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함유돼 있어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br/>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사가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심장 질환이나 혈전, 알츠하이머, 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런 지중해식 식사가 신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미국 컬럼비아대 의료센터의 미네쉬카트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참가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사를 하게 하고 이들을 7년간 추적 조사했다.<br/>참가자들에게는 지중해 식단의 주요 음식인 과일과 채소, 생선, 콩류, 심장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 많이 섭취하도록 했지만, 붉은 고기와 가공 제품, 당분은 제한하도록 했다.<br/>그 결과, 모든 참가자에게서 신장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17% 낮아졌다. 특히 이 식단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은 50%까지 위험이 줄었으며 이와 동시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확률은 42%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의 줄리 린 박사는 “<span class='quot0'>지중해식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런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평소 운동하는 습관이 동반돼야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신장학회(ASN)가 발행하는 학술지 ‘미국신장학회임상저널’(CJASN·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에 지난 30일 자로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3.txt

제목: “파주 명품 콩 20~30% 싸게 사세요”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80117048  
본문: 경기 파주시는 21~23일 임진각에서 제18회 파주장단콩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br/><br/>파주장단콩은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백목’으로 전국적 명성이 높다. 주요 재배지인 임진강 북쪽(민간인출입통제선) 장단반도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과 일교차가 큰 기후 등 콩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이곳에서 재배된 콩은 맛이 뛰어나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과 단백질 함량도 높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br/><br/>파주시는 장단콩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매년 봄철 파종 때부터 가을 수확 뒤 선별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가짜 장단콩 유입을 막기 위해 봉인 작업을 하는 등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 왔다.<br/><br/>행사장에서는 장단콩 9000여 가마(1가마 70㎏)를 시중보다 20~30%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품종도 다양하다. 7㎏ 기준으로 백태 3만 5000원, 쥐눈이콩 5만원, 밤콩·청태·선비콩·올서리태(청자) 5만 5000원, 늦서리태 7만 5000원(전년 9만 5000원)이다. <br/><br/>또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세상’이란 주제로 된장학교가 운영되며 유명 가수 초청 공연도 펼쳐진다. 전통장 담그기, 꼬마메주 만들기, 콩떡 나누기, 어린이 맷돌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다.<br/><br/>파주장단콩축제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콩 수확 시기에 맞춰 매년 11월에 열린다. 개성인삼축제와 함께 파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다. <br/><br/>이재홍 시장은 “<span class='quot0'>올해는 콩 작황이 좋아 축제장에서 판매할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철저한 품질관리를 마친 만큼 믿고 구입해 달라</span>”고 당부했다.<br/><br/>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4.txt

제목: [오일만의 시시콜콜] 스트레스 사용법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80131238  
본문: 스트레스는 원래 그리 나쁜 놈은 아니다. 생명체가 외부의 환경이나 내부의 변화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놈이다. 원시시대 위험한 동물과 마주치면 신속하게 도망가게 하는 생존 시스템이기도 했다. 스트레스의 실체는 사실 아드레날린이란 호로몬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심박수가 늘어나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보다 빨리 근육을 움직이도록 준비 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찰나의 순간에 생명이 오가는 살벌한 원시시대를 거쳐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남게 한 일등공신이 바로 스트레스였다. 현대와 와서 스트레스는 이제 만병의 근원이 됐다. 사소한 감기부터 암이나 심혈관계의 병 등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다. 과거나 현재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결과는 사뭇 다르다.<br/><br/>이유는 간단하다. 인류의 먼 조상(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 대략 500만년 전에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후 499만년 동안 원시적인 수렵 생활을 해 왔다. 1만년 전에야 비로소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일을 시작했다. 그 1만년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현대인에게 관심을 받는 것은 겨우 50년도 안 된다. 인류 역사의 99.99% 시간을 근육활동 위주의 수렵 생활에 길들여진 인간들에게 현대의 문명생활은 매우 이질적이다. 적응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봐야 한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br/><br/>스트레스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스 셀리의 말을 들어 보자. 그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인간의 몸 상태를 ‘일반적응 증후군’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1단계는 우리 몸의 자원을 총동원해 방어를 위해 노력한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큰 나무에 불이 잘 붙지 않을 때 석유를 부으면 세차게 불길이 올라오는 상태다.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 몸 안의 교감신경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일의 능률을 극대화시킨다. 2단계는 몸이 전과 같이 민감하고 활달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보통 신경은 곤두서는데 잠은 안 오고 집중도 안 되거나 소화장애나 불면증 등이 일어나는 시기다. 마지막 단계는 캠프파이어 종료 직전 석유를 붓는 시기다. 다시 불이 붙기는커녕 그나마 남아 있는 불씨까지 꺼 버린다. 몸 안의 자원이 모두 동이 나 버린 소진기로 이때 병에 걸린다.<br/><br/>우리는 싫건 좋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트레스와 마주친다. 피할 수 없다면 사용법이라도 제대로 배워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현대판 생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br/><br/>논설위원 oilma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5.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이승기 윤여정 이미연 김희애 조문 ‘꽃누나’ 보내며 눈시울 붉혀  
날짜: 20141120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609931  
본문: ‘故 김자옥 발인’<br/><br/>故 김자옥의 발인이 엄수됐다.<br/><br/>故 김자옥 발인식이 19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br/><br/>이날 故 김자옥 발인식에는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그리고 방송인 이성미, 박미선, 이경실 등 수많은 동료연예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br/><br/>특히 남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운구 행렬을 따라 걸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br/><br/>발인에 앞서 故 김자옥 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이경실, 박원숙, 전도연,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박지성 김민지 부부, 유재석, 이영자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이 조문했다.<br/><br/>가수 겸 배우 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br/><br/>故 김자옥은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지난해 11월 tvN ‘꽃보다 누나’에서 동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바 있다.<br/><br/>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한바 있다.<br/><br/>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김자옥은 16일 오후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별세했다. 지난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은 뒤 항암치료로 병마를 이겨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끝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팬들을 두고 눈을 감았다. 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제 보내드려야 할 때</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좋은 곳으로 가시길</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가는 길 외롭진 않겠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정말 슬펐을 듯</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애틋하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 = 더팩트(故 김자옥 발인)<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6.txt

제목: 日 학회,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율 공개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347170  
본문: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신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백신 치료율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br/>지난 15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는 랄프 슈타인만 박사가 주축이 된 연구회 소속으로 슈타인만 박사의 독자적인 지식을 전수 받은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가 발표에 나섰다. <br/><br/>캐나다의 랄프 슈타인만 박사는 획득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와 그 역할을 발견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r/><br/>이날 아베 박사는 표준치료(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전이 및 재발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가(多價)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한 결과를 학술 발표했는데, 진행성 폐암환자 22명 중 15명(68.2%)에서, 진행성 대장암환자 32명 중 19명(59.4%), 진행성 췌장암환자 42명 중 18명(42.9%)에서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br/><br/>아베 박사는 “<span class='quot0'>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 종합검사 후 환자의 수지상세포에 평균 5개의 펩타이드를 추가 사용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펩타이드는 써바이빈, MAGE-A3, NY-ESO-1, GV1001, WT1, MUC1, CEA, CA125 등이며 아베종양내과는 암세포 인지능력을 가진 다양한 항원을 보유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특히 GV1001은 2014년 9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 허가한 췌장암 치료제다. 아베 박사는 췌장암 이외에서도 GV1001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본의 임상시험계획(IND)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임상실험 중이라고 설명을 이어 나갔다. <br/><br/>임상실험은 아베종양내과가 맡고 있으며, 폐암과 위암, 췌장암, 유방암 등 암종별 환자 4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주)선진바이오텍이 공동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br/><br/>수지상세포는 면역세포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 수지상세포가 암세포의 정보를 전달하면 킬러T세포가 암세포만 공격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부작용 없는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베 박사의 설명이다. <br/>하지만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1% 미만, 정맥혈액에는 0.1% 미만으로 존재해, 소량 채혈로는 수지상세포 치료가 불가능했다. 임파구만 배양하여 치료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동결보관 후 해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물리적으로 결합된 항원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br/><br/>이를 보완하여, 아베 박사는 약 25ml의 소량 채혈만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정맥혈에 있는 8~11%의 단구를 분리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했다는 내용이다. <br/><br/>아베 박사에 따르면, 같은 사람의 암세포라 해도 표면에 제시된 항원(암표시)이 다르므로, 그 다양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펩타이드와 일치되는 킬러T세포가 필요하다. 이를 찾아내기 위해,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후 개인별로 여러 종류의 맞춤형 펩타이드가 추가로 사용됐으며, 펩타이드는 장쇄(長鎖)라 항암 작용기간이 길며 암세포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림프절에 피하주사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치료법으로 아베종양내과는 2014년 7월 특허등록(특허 제5577472호)을 마쳤다. <br/><br/>아베 박사는 “<span class='quot0'>암세포의 재발 또는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킬러T세포를 계속 지원하는 헬퍼T세포와 메모리T세포도 활성화시켜야만 백신의 효과가 지속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결국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특징은 치료기술과 개인 맞춤형 항원의 추가사용에 있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7.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빈소 찾은 이승기 슬픈 표정…오승근 “이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110529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 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11월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tvN ‘꽃보다 누나’로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 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었다.<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고인 가는 길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슬프네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8.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이승기·윤여정·이미연·김희애 표정 슬픔 가득…오승근 “이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112030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 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11월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tvN ‘꽃보다 누나’로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 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었다.<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고인 가는 길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슬프네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39.txt

제목: 김자옥 아들 오영환 “불임 판정 받고 38살에 가진 기적” 故김자옥 발인 눈물바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052564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자옥 아들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에 대해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br/><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0.txt

제목: 김자옥 아들 오영환 “불임 판정 받고 38살에 가진 기적같은 아들” 故김자옥 발인 눈물바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045376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자옥 아들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에 대해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br/><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1.txt

제목: 이승기·윤여정·김희애·이미연 故 김자옥 빈소 찾아 눈물 ‘꽃누나’의 마지막 가는 길…오늘 발인식 엄수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024933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 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11월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tvN ‘꽃보다 누나’로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 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었다.<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고인 가는 길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슬프네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2.txt

제목: 이승기·윤여정·김희애·이미연 ‘꽃누나’팀 故 김자옥 빈소 찾아…오늘 발인식 엄수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026495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 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11월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tvN ‘꽃보다 누나’로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 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었다.<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고인 가는 길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슬프네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3.txt

제목: 김자옥 아들 오영환 “불임 판정 받고 가진 기적 같은 아들, 한참 아팠을 때 챙겨주지 못해” 故김자옥 발인 눈물바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016254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자옥 아들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에 대해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br/><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4.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빈소 찾은 이승기 눈물…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 함께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958553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 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11월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tvN ‘꽃보다 누나’로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 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었다.<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고인 가는 길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슬프네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5.txt

제목: 김자옥 아들 오영환 “불임 판정 받고 38살에 가진 기적” 故김자옥 발인 눈물바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5000467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자옥 아들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에 대해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br/><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6.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빈소 찾은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꽃누나’에 작별인사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944781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 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11월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tvN ‘꽃보다 누나’로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 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었다.<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고인 가는 길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슬프네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7.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빈소 찾은 이승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오승근 “이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933848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 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11월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tvN ‘꽃보다 누나’로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 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했었다.<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고인 가는 길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슬프네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8.txt

제목: 김자옥 아들 오영환 “불임 판정 받고 38살에 가진 기적 같은 아들” 故김자옥 발인 눈물바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918086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자옥 아들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에 대해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br/><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49.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의 마지막 한 마디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네티즌도 울었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912810  
본문: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네티즌도 울었다<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발인, 고인의 아픔 눈물이 나네요.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0.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꽃보다누나들+이승기 조문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날짜: 2014112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840986  
본문: ‘故 김자옥 발인’<br/><br/>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김자옥의 발인이 엄수됐다.<br/><br/>앞서 생전 고인과 tvN ‘꽃보다 누나’에서 여행을 함께 떠난 동료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br/><br/>가수 이승기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된 고 김자옥의 빈소를 찾아 눈시울을 붉혔다. 검정 정장 차림에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선 그는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br/><br/>이보다 먼저 윤여정과 나영석 PD도 고 김자옥의 빈소에 와 고개를 떨구었다. 김희애와 이미연도 고 김자옥과 같이 여행을 떠났던 동생들. 이들 역시 고 김자옥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보였다. <br/><br/>고 김자옥은 지난 1월 종영한 ‘꽃보다 누나’에서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과 함께 터키 여행을 즐겼다. 당시 그는 “암 투병 때문에 공황 장애를 겪었다”면서도 밝고 유쾌한 매력으로 안방에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br/><br/>고 김자옥은 16일 오후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지난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은 뒤 항암치료로 병마를 이겨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끝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팬들을 두고 눈을 감았다. 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br/><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눈물이 흐른다</span>”, “故 김자옥 발인..안타깝다”,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좋은 곳으로 가세요</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등 반응을 보였다. <br/><br/>사진 = 서울신문DB (故 김자옥 발인)<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1.txt

제목: 김자옥 아들 오영환 “불임 판정 받고 가진 기적 같은 아들”…故김자옥 발인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850554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자옥 아들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에 대해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br/><br/>‘故 김자옥 발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2.txt

제목: 모벰버를 아시나요? 고환 검사 응하면 100달러 기부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835202  
본문: 고환 검사에 응하고 100달러 기부하세요!<br/><br/>18일 유튜브에 게재된 ‘자선 위해 거리에서 고환 테스트받기’(Giving Testicular Exams in Public for Charity)란 영상이 하루 만에 31만 13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br/><br/><br/><br/>영상에는 모벰버(Movember)를 맞아 자선 모금을 위해 거리에서 고환 테스트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간호사 복장을 한 미녀 도우미의 무료 고환 테스트 권유에 남성들이 부끄러워한다. 일부 남성은 자선 모금이란 좋은 뜻을 이해하고 선뜻 자신의 고환을 내준다. 이날 무료 고환 테스트에 응한 남성은 총 6명으로 1인당 100달러씩, 600달러의 자선기금이 모였다.<br/><br/>모벰버는 콧수염의 뜻을 가진 머스타쉬(MOustache)와 11월을 의미하는 노벰버(noVEMBER)가 합쳐진 합성어다. 모벰버는 11월 한 달 동안 수염을 기름으로써 남성들은 전립선암과 같은 남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암에 걸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 모금을 함께 하는 캠페인이다.<br/><br/>이 영상을 직접 제작한 ‘심플 픽업’(Simple Pickup)이란 유튜브 계정을 가진 이들은 “모벰버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고환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거리로 나가 무료 테스트를 제공했다”면서 “테스트에 동의한 남성 한 명 마다 100달러씩 기부했다. 하지만 이것으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 비디오의 시청수가 10만 명씩 늘 때마다 추가로 모벰버 캠페인 측에 100달러씩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br/><br/>한편 모벰버는 1999년 호주 에틀레이드(Adelaide)에 사는 한 남성에 의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매년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190만 명 이상의 성인 남녀가 참여하는 지구촌 행사다. 모벰버의 규칙은 11월 첫날, 깨끗하게 면도를 한 후, 11월 마지막 날까지 콧수염을 기르며 모양을 손질하면 된다. 턱수염이나 구레나룻수염은 제외된다.<br/><br/>사진·영상= Simple Pickup youtube<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3.txt

제목: ‘자옥 공주’ 마지막 길, 외롭지 않았다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530601  
본문: ‘영원한 공주’가 세상과 영영 이별을 고했다. 수많은 팬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영정 속의 마지막 미소는 눈부시게 환했다.<br/><br/>지난 16일 별세한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발인에 앞서 기독교식으로 진행된 발인 예배에는 남편 오승근씨와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 등 유족과 박미선, 이성미, 이경실, 송은이 등 연예계 선후배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족은 애써 울음을 참고 장례식장을 찾은 이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전했다. 예배 마지막 순서로 단상에 오른 오승근씨는 “만약 (김자옥이) 못 본 사람이 있었다면 매우 섭섭해했을 텐데 모두 모였다”면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겠다”며 눈물을 훔쳤다.<br/><br/>성가대의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고인의 유해가 영구차로 옮겨지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유족은 고인을 차마 보내지 못해 관을 붙들고 오열했고, 동료 연예인들은 관에 손을 대고 한참을 떠나지 못했다. 이경실은 “언니, 언니”를 외치며 오열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고인은 암이 폐 등으로 전이돼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 투병 중에도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음악극에 출연하며 연기 혼을 불태웠던 고인은 지난 14일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6일 끝내 눈을 감았다. 고인은 경기도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에 들었다.<br/><b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4.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319245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고인 가는 길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정말 슬프네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5.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할 텐데 다 보고 간다”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244009  
본문: 故 김자옥 발인, 김태욱 아나운서 마지막 가는 길 눈물로 배웅…남편 오승근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할 텐데 다 보고 간다</span>”<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1'>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이제 아픔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네요. 암 치료가 쉽지 않은 듯”,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좋은 일만 계속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슬프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6.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등 가족 눈물로 떠나 보내 “이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206071  
본문: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등 가족 눈물로 떠나 보내 “<span class='quot0'>이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span>”<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1'>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지내시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너무 열심히 일하셨네요”, “故 김자옥 발인 화장, 남편 오승근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게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7.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화장 “1년여간 항암치료…병세 급격히 악화돼” 눈물의 발인식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146445  
본문: 故 김자옥 발인 화장 “1년여간 항암치료…병세 급격히 악화돼” 눈물의 발인식<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발인 화장,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발인 화장, 몸이 아픈데도 열심히 일하셨다는데</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발인 화장,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는데 이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시길 바랍니다</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8.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대장암 수술…암세포 임파선과 폐로 전이돼” 운구차 떠날 때 참석자들 서로 부둥켜 안으며 통곡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100824  
본문: 故 김자옥 발인 “대장암 수술…암세포 임파선과 폐로 전이돼” 운구차 떠날 때 참석자들 서로 부둥켜 안으며 통곡<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故 김자옥 발인, 드라마에서도 잘 보이고 해서 몰랐는데 이런 아픔이”, “故 김자옥 발인,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못 다 이룬 꿈 펼치세요. 명복을 빕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59.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암세포 임파선과 폐로 전이돼”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발인식 눈물 바다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4043210  
본문: 故 김자옥 발인 “암세포 임파선과 폐로 전이돼”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발인식 눈물 바다<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발인, 너무 슬프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발인, 이렇게 고인이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발인,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내야 할 지 모르겠네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0.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눈물 바다…네티즌 “아픔 없는 곳으로 가시길”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947779  
본문: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 눈물 바다…네티즌 “아픔 없는 곳으로 가시길” <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못다한 일들 하늘나라에서 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故 김자옥 발인, 앞으로 많은 날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참 슬프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1.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네티즌도 울었다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845042  
본문: 故 김자옥 발인, 남편 오승근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네티즌도 울었다<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김자옥의 남편 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내 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했는데 거의 다 와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내가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섭섭했을텐데 다 보고 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화장을 마치고 분당에서 집사람과 헤어지려 한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한편 김자옥이 생전 막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각별하게 아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MC 강호동이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발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발인, 고인의 아픔 눈물이 나네요.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시길”, “故 김자옥 발인,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2.txt

제목: 故 김자옥 발인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네티즌도 울었다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644106  
본문: 故 김자옥 발인 “<span class='quot0'>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세요</span>” 네티즌도 울었다<br/><br/>’영원한 공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동료 연예인과 유족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br/><br/>지난 16일 세상을 뜬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br/><br/>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해온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이경실·이성미·조형기·송은이·강부자·서우림·정재순·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는 참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오열했다. <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김자옥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63세로 눈을 감았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발인, 너무 슬프다</span>”, “故 김자옥 발인, <span class='quot0'>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세요</span>”, “故 김자옥 발인,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3.txt

제목: 김태욱아나운서 “내 눈엔 어린아이” 故김자옥 애틋했던 동생사랑…눈물바다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613187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과거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향한 애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며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어 MC 강호동은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나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4.txt

제목: 김태욱아나운서 “하얀 머리 때문에 오빠 같지만 내 눈엔 어린아이” 故김자옥 애틋했던 동생사랑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323000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과거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향한 애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며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어 MC 강호동은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나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5.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찾은 이승기, 눈시울 붉혀.. ‘허망한 눈빛’ 김희애 이미연 윤여정 ‘꽃누나’팀 조문  
날짜: 20141119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305395  
본문: ‘김자옥 별세, 故 김자옥 빈소 이승기 김희애 이미연 윤여정’<br/>故 김자옥 빈소에 동료 배우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별세했다.<br/>故 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br/>故 김자옥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은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오승근은 침통한 표정으로 오열하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故 김자옥의 동생인 김태욱 아나운서도 급히 빈소를 찾아 누나의 별세에 애통해 했다.<br/>故 김자옥 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이경실, 박원숙, 전도연,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박지성 김민지 부부, 유재석, 이영자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br/>가수 겸 배우 이승기도 17일 오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애통한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 이승기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빈소를 떠났다.<br/><br/>앞서 故 김자옥은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함께 지난해 11월 tvN ‘꽃보다 누나’에서 동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바 있다.<br/><br/>당시 김자옥은 이승기에게 “너는 내 아들 같다. 이승기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한바 있다.<br/><br/>이승기를 비롯해 꽃보다 누나 멤버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br/><br/>故 김자옥 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김자옥 별세에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별세, 안타깝다.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다 조문 갔구나”, “故 김자옥 빈소, 밝은 미소가 아른거린다.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얼마나 슬플까”, “故 김자옥 빈소.. 조문 온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김자옥이 하늘에서 보고있을 듯”, “故 김자옥 빈소,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꽃보다누나 팀 다 조문왔네”, “故 김자옥 별세, 나영석 PD도 조문 갔던데”, “故 김자옥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 = 사진공동취재단(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이승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6.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친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빈소 지켜..윤소정 “아들 결혼 4개월 남았는데..”  
날짜: 20141119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211029  
본문: ‘김자옥 별세,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 윤소정’<br/>故 김자옥 빈소에 동료 배우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별세했다.<br/>故 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br/>故 김자옥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은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오승근은 침통한 표정으로 오열하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故 김자옥의 동생인 김태욱 아나운서도 급히 빈소를 찾아 누나의 별세에 애통해 했다.<br/>故 김자옥 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이경실, 박원숙, 전도연,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박지성 김민지 부부, 유재석, 이영자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1951년생인 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KBS 드라마 ‘심청전’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김자옥은 1990년대에는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공주는 외로워’란 곡으로 가수 활동도 하며 숨겨왔던 예능감을 마음껏 발휘, 팬층을 더욱 넓혔다. 최근까지도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해 젊은 나이대의 시청자들에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다.<br/>故 김자옥 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김자옥 별세에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별세, 안타깝다. 김태욱 아나운서 윤소정 슬프겠다”, “故 김자옥 빈소, 밝은 미소가 아른거린다. 윤소정과 친했구나”,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 누나 잘 보내드리길. 김자옥, 김태욱 아나운서를 아들같이 생각했던데”,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가 동생이었구나”, “故 김자옥 별세, 윤소정 각별했구나”, “故 김자옥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 = 사진공동취재단(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윤소정, 김태욱 아나운서)<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7.txt

제목: 김자옥 별세, 연예계 동료 선후배 조문 이어져..  
날짜: 20141119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134890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유재석, 박지성 김민지 부부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8.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남편 오영환 불임판정 후 생긴 ‘훈남 유학생 아들’ 결혼 앞두고..  
날짜: 20141119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151936  
본문: ‘故 김자옥 빈소’<br/><br/>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고 김자옥 남편은 가수 오승근이며 오승근 나이는 김자옥과 동갑인 63세다. 슬하에 딸 오지연 씨와 아들 오영환 군을 뒀다. 김자옥 동생은 SBS 김태욱 아나운서다.<br/><br/>故 김자옥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은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오승근은 침통한 표정으로 오열하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故 김자옥의 동생인 김태욱 아나운서도 급히 빈소를 찾아 누나의 죽음에 애통해 했다.<br/>故 김자옥 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故 김자옥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1951년생인 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KBS 드라마 ‘심청전’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김자옥은 1990년대에는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공주는 외로워’란 곡으로 가수 활동도 하며 숨겨왔던 예능감을 마음껏 발휘, 팬층을 더욱 넓혔다. 최근까지도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해 젊은 나이대의 시청자들에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다.<br/><br/>한편 고 김자옥은 가족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애틋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다. <br/><br/>과거 방송에서 오승근은 오지연 씨를 소개하면서 “김자옥이 딸을(친딸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예뻐했다. 김자옥과 유난히 사이가 더 좋았다”라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김자옥은 “(오지연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오승근과 교제하지 않을 때였는데 많은 여자들 중 ‘누가 엄마였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나를 찍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이 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 씨는 대해서는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오영환 씨는 김자옥의 동생 SBS 김태욱 아나운서와 닮은꼴 외모로도 관심을 모은 바 있다. <br/><br/>특히 김자옥의 아들과 딸 모두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은 듯 각자의 영역에서 끼를 발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자옥 딸 오지연 씨는 연세대 종교음악과에서 전자오르간을 전공해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해외연수를 다녀온 재원이다. 김자옥 아들 오영환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가서 음악전문대학교를 졸업해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가족 사연을 저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너무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김자옥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좋은 곳으로 가세요</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나도 눈물이 나</span>”등 반응을 보였다. <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69.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남편 오영환 불임판정 후 생긴 아들.. 가족사진 보니  
날짜: 20141119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050084  
본문: ‘故 김자옥 빈소’<br/><br/><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br/>한편 고 김자옥은 가족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애틋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다. 과거 방송에서 오승근은 오지연 씨를 소개하면서 “김자옥이 딸을(친딸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예뻐했다. 김자옥과 유난히 사이가 더 좋았다”라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김자옥은 “(오지연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오승근과 교제하지 않을 때였는데 많은 여자들 중 ‘누가 엄마였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나를 찍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이 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 씨는 대해서는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오영환 씨는 김자옥의 동생 SBS 김태욱 아나운서와 닮은꼴 외모로도 관심을 모은 바 있다. <br/><br/>특히 김자옥의 아들과 딸 모두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은 듯 각자의 영역에서 끼를 발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자옥 딸 오지연 씨는 연세대 종교음악과에서 전자오르간을 전공해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해외연수를 다녀온 재원이다. 김자옥 아들 오영환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가서 음악전문대학교를 졸업해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네티즌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너무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좋은 곳으로 가세요</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나도 눈물이 나</span>”등 반응을 보였다. <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0.txt

제목: 김자옥 빈소, 남편 오열.. 동료 연예인 조문 잇달아..  
날짜: 20141119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3034210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유재석, 박지성 김민지 부부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1.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남편 오영환 불임판정 후 생긴 아들보니..‘훈남 유학생 아들’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417066  
본문: ‘故 김자옥 빈소’<br/><br/>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고 김자옥 남편은 가수 오승근이며 오승근 나이는 김자옥과 동갑인 63세다. 슬하에 딸 오지연 씨와 아들 오영환 군을 뒀다. 김자옥 동생은 SBS 김태욱 아나운서다.<br/><br/>고 김자옥 남편 오승근은 평소 소문난 애처가였던만큼 먼저 떠난 아내의 빈소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으로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br/>한편 고 김자옥은 가족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애틋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다. <br/><br/>과거 방송에서 오승근은 오지연 씨를 소개하면서 “김자옥이 딸을(친딸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예뻐했다. 김자옥과 유난히 사이가 더 좋았다”라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김자옥은 “(오지연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오승근과 교제하지 않을 때였는데 많은 여자들 중 ‘누가 엄마였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나를 찍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이 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br/><br/>김자옥은 아들 오영환 씨는 대해서는 “불임판정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곧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탁 터놓은 후 딱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38살에 얻은 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오영환 씨는 김자옥의 동생 SBS 김태욱 아나운서와 닮은꼴 외모로도 관심을 모은 바 있다. <br/><br/>특히 김자옥의 아들과 딸 모두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은 듯 각자의 영역에서 끼를 발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자옥 딸 오지연 씨는 연세대 종교음악과에서 전자오르간을 전공해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해외연수를 다녀온 재원이다. 김자옥 아들 오영환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가서 음악전문대학교를 졸업해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가족 사연을 저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너무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김자옥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좋은 곳으로 가세요</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나도 눈물이 나</span>”등 반응을 보였다. <br/><br/>사진 = 서울신문DB (故 김자옥 빈소)<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2.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몇 년 동안 주사 맞고 항암 치료” 꽃보다 누나 당시는..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335186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태욱아나운서’<br/><br/>배우 김자옥이 폐암으로 별세한 가운데, 과거 tvN ‘꽃보다 누나’ 속 김자옥의 투병고백들이 눈길을 끈다.<br/><br/>지난해 방송된 tvN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 출연한 김자옥은 크로아티아 관광지를 멤버들과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r/><br/>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span class='quot0'>솔직히 여행 전날까지도 두려움이 컸다</span>”고 입을 열었다. <br/><br/>김자옥은 “<span class='quot0'>몇 년 동안 주사 맞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았다</span>”며 암 진단 이후부터 계속된 항암치료에 지쳐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자옥은 “몸이 아픈 것 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 늘 움츠려 들어있었고, 자신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걱정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자옥은 “<span class='quot0'>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나를 바꿀 계기가 된 것 같다</span>”고 언급하며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윤여정에게 고마움을 드러낸 바 있다. <br/><br/>김자옥이 향년 63세로 16일 세상을 떠났다.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입원했다.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전했다.<br/><br/>이에 16 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故 김자옥의 빈소가 마련됐으며, 배우 윤소정을 포함해 배우 유호정, 정경순, 이혜숙, 나영희, 이광기, 한지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아나운서 윤현진 등 수많은 연예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br/><br/>고인의 빈소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을 비롯해 아들 오영환씨와 예비며느리, 딸 오지연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故 김자옥의 동생인 김태욱 아나운서도 빈소를 지키며 누나의 죽음에 비통해 했다.<br/><br/>김자옥 별세, 故 김자옥 빈소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 별세라니..암 다 나으신 줄 알았는데..김태욱아나운서 동생이네..</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 꽃보다 나에서 밝았던 모습만 떠오르네요</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 꽃보다누나에서 그렇게 밝았는데..동생이 김태욱 아나운서였구나..</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1'>故 김자옥 빈소, 꽃보다누나 불과 얼마전인데...김태욱 아나운서도 슬프겠다..</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 = 방송캡처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3.txt

제목: 김자옥 빈소, 친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빈소 지켜..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328564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유재석, 박지성 김민지 부부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4.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모습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314842  
본문: 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5.txt

제목: 김자옥, 암 재발로 별세..빈소 ‘눈물바다’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155026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유재석, 박지성 김민지 부부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6.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지인들 눈물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203606  
본문: ‘故 김자옥 빈소’ <br/><br/>김자옥이 향년 63세로 16일 세상을 떠났다.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입원했다.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전했다.<br/><br/>이에 16 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故 김자옥의 빈소가 마련됐으며, 배우 윤소정을 포함해 배우 유호정, 정경순, 이혜숙, 나영희, 이광기, 한지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아나운서 윤현진 등 수많은 연예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7.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생전 행복했던 모습 보니..뭉클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140092  
본문: 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고 김자옥 남편은 가수 오승근이며 오승근 나이는 김자옥과 동갑인 63세다. 슬하에 딸 오지연 씨와 아들 오영환 군을 뒀다. 김자옥 동생은 SBS 김태욱 아나운서다.<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8.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과거 방송에서 한 말 충격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105057  
본문: 배우 김자옥이 폐암으로 별세한 가운데, 과거 tvN ‘꽃보다 누나’ 속 김자옥의 투병고백들이 눈길을 끈다.<br/><br/>지난해 방송된 tvN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 출연한 김자옥은 크로아티아 관광지를 멤버들과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r/><br/>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span class='quot0'>솔직히 여행 전날까지도 두려움이 컸다</span>”고 입을 열었다. <br/><br/>김자옥은 “<span class='quot0'>몇 년 동안 주사 맞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았다</span>”며 암 진단 이후부터 계속된 항암치료에 지쳐있다고 밝혔다.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79.txt

제목: 김자옥, 폐암 합병증으로 별세.. 연예계 조문 행렬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058027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유재석, 박지성 김민지 부부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0.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가족사진 화제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042070  
본문: 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고 김자옥 남편은 가수 오승근이며 오승근 나이는 김자옥과 동갑인 63세다. 슬하에 딸 오지연 씨와 아들 오영환 군을 뒀다. 김자옥 동생은 SBS 김태욱 아나운서다.<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1.txt

제목: 김자옥 별세, 김태욱 아나운서 빈소 지켜..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028800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유재석, 박지성 김민지 부부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2.txt

제목: 김자옥 별세에 연예계 애도 물결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2011285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유재석, 박지성 김민지 부부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3.txt

제목: 김자옥 아들 오영환 “한참 아팠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뭉클, 故김자옥 빈소 애도행렬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952807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4.txt

제목: 홍은희 눈물 “아버지, 암 치료 거부한 이유가..” 힐링캠프서 처음 털어놓은 가정사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922104  
본문: ‘힐링캠프 홍은희 눈물’<br/>배우 홍은희가 ‘힐링캠프’에서 아버지를 회상하며 눈물을 쏟았다.<br/>홍은희는 17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결혼식 때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다. 내가 한 불효 중 가장 큰 불효가 아니었나 싶다. 남편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br/>홍은희는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서 “MBC 공채 탤런트 데뷔 후 연기 공부를 위해 서울예대에 합격했는데 어머니가 힘이 들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아버지가 날 도와주지 않아 정말 화가 났고, 그 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br/>힐링캠프 MC 이경규는 “아버지를 결혼식에 왜 안 불렀느냐”고 물었고 홍은희는 “결혼을 너무 빨리해서 그렇다. 등록금 사건 이후 결혼까지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결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었다. 미루고 미루다가 임박해서 전화를 걸었다. 그때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누구도 오시란 말도 가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때의 전화 공기가 좀 특별했다”고 설명했다. <br/>이어 홍은희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홍은희는 “암이었는데 아빠가 치료를 거부하셨다. ‘등록금 달라고 했을 때도 아빠가 못해줬는데 너에게 그런 짐을 어떻게 지우겠니’라고 하시더라”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얼마 후 홍은희의 아버지는 임종을 맞았다. 홍은희는 자신이 연락을 받고 도착한 10분 후에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쏟아냈다.<br/>홍은희는 “<span class='quot0'>부모님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부모님에게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span>”라고 말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힐링캠프 홍은희 밝아보였는데 그런 아픈 가정사가 있었구나</span>”, “<span class='quot1'>힐링캠프 홍은희 눈물 나도 같이 울었다</span>”, “힐링캠프 홍은희 힘들었겠다”, “<span class='quot1'>힐링캠프 홍은희 지금은 행복한 가정 꾸려서 보기 좋다</span>”, “<span class='quot1'>힐링캠프 홍은희 눈물,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 = SBS(힐링캠프 홍은희 눈물)<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5.txt

제목: 김자옥 별세, 동료 연예인 조문 이어져..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918796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최수종 하희라 부부, 유재석, 박지성 김민지 부부 등 선·후배 동료 스타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6.txt

제목: 김자옥 아들 결혼 4개월 앞두고 별세 ‘안타까워’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847964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7.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친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빈소 지켜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825031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8.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가족사진보니..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814138  
본문: ‘故 김자옥 빈소’<br/><br/>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89.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지인들 “믿을 수 없어” 생전 가족사진보니..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828152  
본문: ‘故 김자옥 빈소’<br/><br/>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0.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남편은 빈소에서 눈물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822447  
본문: ‘故 김자옥 빈소’<br/><br/>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1.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가족사진보니..눈물이  
날짜: 2014111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803279  
본문: ‘故 김자옥 빈소’<br/><br/>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2.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남동생 ‘애통’  
날짜: 20141118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719874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 윤소정’<br/>故 김자옥 빈소에 동료 배우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故 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3.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항암치료 지쳐 두려움 생겼다”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251224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태욱아나운서’<br/><br/>배우 김자옥이 폐암으로 별세한 가운데, 과거 tvN ‘꽃보다 누나’ 속 김자옥의 투병고백들이 눈길을 끈다.<br/><br/>지난해 방송된 tvN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 출연한 김자옥은 크로아티아 관광지를 멤버들과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r/><br/>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span class='quot0'>솔직히 여행 전날까지도 두려움이 컸다</span>”고 입을 열었다. <br/><br/>김자옥은 “<span class='quot0'>몇 년 동안 주사 맞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았다</span>”며 암 진단 이후부터 계속된 항암치료에 지쳐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자옥은 “몸이 아픈 것 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 늘 움츠려 들어있었고, 자신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걱정했다”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4.txt

제목: 김자옥 빈소, 가족-동료 조문 잇달아.. ‘애통 분위기’  
날짜: 2014111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153864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5.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아들 오영환 “한참 아팠을 때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가슴 아팠다” 故김자옥 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128177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6.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몸이 아픈 것보다..”과거 방송 투병일화보니..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111171  
본문: 故 김자옥 빈소, “몸이 아픈 것보다..”과거 방송 투병일화보니..<br/><br/>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의 과거 방송속 투병일화가 눈길을 끈다.<br/><br/>지난해 방송된 tvN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 출연한 김자옥은 힘들었던 투병시절을 고백했다.<br/><br/>김자옥은“<span class='quot0'>몇 년 동안 주사 맞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았다</span>”고 암 진단이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자옥은 “몸이 아픈 것 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 늘 움츠려 들어있었고, 자신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걱정했다”고 솔직하게 전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br/><br/>한편 16 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자옥의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을 비롯해 아들 오영환씨와 예비며느리, 딸 오지연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7.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가족사진 뭉클  
날짜: 20141117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040983  
본문: ‘故 김자옥 빈소’<br/><br/>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br/><br/><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8.txt

제목: 김자옥 별세, 선후배 동료 연예인 조문 잇달아..  
날짜: 2014111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1033793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599.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과거 방송서 힘들었던 투병일화 고백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938403  
본문: .<br/><br/><br/><br/>지난해 방송된 tvN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 출연한 고 김자옥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br/><br/>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span class='quot0'>몇 년 동안 주사 맞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았다</span>”며 암 진단 이후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br/><br/>이어 “몸이 아픈 것 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 늘 움츠려 들어있었고, 자신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걱정했다”고 솔직하게 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br/><br/><br/><br/>한편 김자옥이 향년 63세로 16일 세상을 떠났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을 비롯해 아들 오영환씨와 예비며느리, 딸 오지연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0.txt

제목: 김태욱아나운서 “내 눈엔 어린아이” 故김자옥 애틋했던 동생사랑…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928633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과거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향한 애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며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어 MC 강호동은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나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1.txt

제목: 김태욱아나운서 “하얀 머리 때문에 오빠 같지만 내 눈엔 어린아이” 故김자옥 애틋했던 동생사랑…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924067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과거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향한 애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며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어 MC 강호동은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나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2.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가족사진보니 눈물이..  
날짜: 20141117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903723  
본문: 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3.txt

제목: 김자옥 동생 김태욱아나운서에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내 눈엔 어린아이”…故김자옥 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842894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br/><br/>한편 김자옥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과거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를 향한 애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김태욱은 7형제 중 막내다. 하얀 머리 때문에 나보다 오빠 같지만 9살 차이가 난다”며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다. <br/><br/>또한 “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다”고 말해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어 MC 강호동은 “아들 같은 막내가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 하셨는냐”고 묻자 김자옥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나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김태욱아나운서’,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4.txt

제목: 김자옥 빈소, 동료 연예인 애도 물결  
날짜: 2014111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841348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5.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아들 오영환 “한참 아팠을 때 챙겨주지 못해 가슴 아팠다” 故김자옥 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834969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6.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아들 오영환 과거 “챙겨주지 못해 가슴 아팠다” 故김자옥 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838166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7.txt

제목: 故 김자옥, 과거 방송서 투병고백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753634  
본문: 배우 김자옥이 16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이 출연한 tvN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r/><br/><br/><br/>당시 윤여정의 여행제안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자옥은 “<span class='quot0'>솔직히 여행 전날까지도 두려움이 컸다</span>”며 투병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br/><br/>김자옥은 “<span class='quot0'>몇 년 동안 주사 맞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나를 바꿀 계기가 된 것 같다</span>”고 전했다.<br/><br/><br/><br/>한편 고 김자옥 소속사는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입원했다”며 고 김자옥의 별세소식을 알렸다.<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8.txt

제목: 김자옥 별세에 가족-동료 조문 이어져..  
날짜: 2014111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757636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강부자, 전도연,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09.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남편 오열 안타까워..  
날짜: 20141117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803187  
본문: 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0.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아나운서 애통 “암은 이별 준비할 시간을 준다” 과거 방송보니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747089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br/><br/>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로 안타깝게 별세한 가운데, 과거 방송에 출연해 고백한 투병일화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과거 대장암 투병 도중 임파선과 폐로 암이 전이된 사실을 고백했다.<br/><br/>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지난해에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던 사람도 있었다. 그 때 대장암 재발해 드라마 하차했다는 기사가 났었다. 다 죽어간다는 말도 있었다더라”고 운을 뗐다. <br/><br/>김자옥은 “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 다행히 수술하기 좋은 부위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암투병 사실을 전했다. 이어 김자옥은 “다시 종합검진을 받는데 지난해 4월에 임파선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 대장에서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이었다. 또 폐에도 전이됐다”며 “오장육부 중에서 장이 약한 사람은 폐도 약하다더라. 그래서 떼어내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도 받았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김자옥은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이며 김자옥 특유의 밝은 모습을 보였다.<br/><br/>한편, 故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오는 19일 발인이다. 고인의 빈소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을 비롯해 아들 오영환씨와 예비며느리, 딸 오지연씨 그리고 김태욱 아나운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br/><br/>현재 故 김자옥 빈소에는 동료 배우를 비롯해 수많은 연예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우 윤소정은 “가장 예뻐했던 후배다”며 “<span class='quot0'>지난 번에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니</span>”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br/><br/>김자옥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큰 별이 또 하나 졌네요..”,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태욱아나운서 동생이였구나..전혀 몰랐다”,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얼마전 방송에서 건강했던 것 같은데..동생이 김태욱아나운서 몰랐네.. ”,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너무 안타깝다..김태욱아나운서도 힘들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방송캡쳐(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1.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안타까움에 눈물만  
날짜: 20141117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743598  
본문: 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2.txt

제목: 김자옥 빈소 찾은 가족, 동료.. ‘애통’  
날짜: 2014111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736943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3.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조문행렬에 가족들 자리지켜..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653434  
본문: 故 김자옥 빈소, 조문행렬에 가족들 자리지켜..<br/><br/>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로 16일 별세했다. <br/><br/>고 김자옥의 소속사 에 따르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했다.<br/><br/>고 김자옥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남편인 가수 오승근을 비롯해 아들 오영환씨,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br/><br/>현재 빈소에는 배우 유호정, 정경순, 이혜숙, 나영희, 이광기, 한지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아나운서 윤현진 등 수많은 연예관계자들이 방문해 슬픔을 나눴다.<br/><br/>사진=방송캡쳐<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4.txt

제목: 김자옥, 갑작스러운 별세에 동료 연예인 조문 잇달아..  
날짜: 2014111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622126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5.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조문행렬 이어져..생전 가족사진보니  
날짜: 20141117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636861  
본문: 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6.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가족 사진보니..  
날짜: 20141117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548177  
본문: 故(고) 김자옥 별세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br/><br/>16일 오전 7시 40분,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김자옥 사망원인에 대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 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7.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암은 힘든 것 아니라..” 과거 방송 발언보니..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539292  
본문: 향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의 과거 방송이 눈길을 끈다.<br/><br/> 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김자옥은 “<span class='quot0'>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span>”며 암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br/><br/>특히 김자옥은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전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br/><br/><br/><br/>한편, 故 김자옥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오는 19일 발인이다.<br/><br/><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8.txt

제목: 김자옥 별세에 동료 배우들 조문 행렬 ‘애통’  
날짜: 2014111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540699  
본문: 배우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63세에 사망했다.<br/>김자옥 소속사 소울재커 측에 따르면 김자옥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뒀다.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 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빈소에는 나문희, 이성미, 박원숙, 한지혜, 유호정 등 선·후배 동료 배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br/>배우 윤소정도 빈소를 찾아 “<span class='quot0'>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 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번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span>”라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자옥의 아들 오영환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19.txt

제목: 김태욱 아나운서, 누나 故 김자옥 빈소 지켜..생전 “내 아들 같다” 누구?  
날짜: 20141117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531493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br/><br/>김태욱 아나운서가 누나 故(고) 김자옥의 빈소를 지켰다.<br/><br/>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김자옥은 최근 암이 재발해 폐로 전이됐고, 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 40분 폐암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br/><br/>이날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자옥의 빈소에는 많은 동료배우들과 지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현재 고 김자옥의 빈소에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 씨와 함께 동생인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br/><br/>한편 고 김자옥은 지난 2005년 한 방송에 출연해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김자옥은 “동생은 아버지랑 똑같다. 공부 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결국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br/><br/>이어 김자옥은 “<span class='quot0'>부모가 안계시니까 누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생은 아버지, 나는 엄마와 비슷해진다</span>”고 말했다.<br/><br/>또 김자옥은 지난해 8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span class='quot0'>(동생 김태욱은)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동생</span>”이라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가 동생이구나”,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김자옥 누님 좋은 곳으로 가세요”,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김태욱 아나운서도 엄청 슬프겠다”,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 믿을 수 없다”등 반응을 보였다. <br/><br/>한편 고인의 발인은 19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경기 분당 메모리얼 파크다.<br/><br/>사진 = 서울신문DB (故 김자옥 빈소, 김태욱 아나운서)<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0.txt

제목: 故 김자옥 빈소, 조문행렬 이어져..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500582  
본문: 배우 김자옥이 향년 63세로 16일 안타깝게 별세했다.<br/><br/>김자옥의 소속사는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입원했다”며 김자옥의 별세소식을 전했다.<br/><br/>고 김자옥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다. 이에 배우 윤소정을 포함해 배우 유호정, 정경순, 이혜숙, 나영희, 이광기, 한지혜,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아나운서 윤현진 등 수많은 연예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br/><br/><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1.txt

제목: 김자옥 별세, 과거 ‘무릎팍도사’ 서 전한 말 보니..  
날짜: 2014111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434779  
본문: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의 과거 방송이 화제다.<br/><br/> 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김자옥은 투병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br/><br/><br/><br/>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 다행히 수술하기 좋은 부위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전했다.<br/><br/>이어 그녀는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br/><br/>김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2.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아들 오영환 “한참 아팠을 때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가슴 아팠다”…故김자옥 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446010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3.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아들 오영환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 뭉클…故김자옥 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444176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4.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아들 오영환 “한참 아팠을 때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故김자옥 빈소는 성모병원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449557  
본문: ‘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김자옥의 동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소속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해왔으나, 11월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br/><br/>김자옥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등 40여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김자옥 가족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3년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는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 오영환 군이 출연했다. 당시 아들이 제일 무섭다는 김자옥의 말에 영환 군은 “저녁에 라면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몸에 안 좋다”라며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영환 군은 “한참 아팠을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었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었기에 챙겨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엄마(김자옥)가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br/><br/>‘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가슴 아프다</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이렇게 가실 줄 몰랐는데</span>”, “<span class='quot0'>‘故 김자옥 빈소’ ‘김자옥 별세’ ‘김자옥 오영환’, 믿기지 않아요</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5.txt

제목: 하늘로 떠난 공주, 그리고 꽃누나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058498  
본문: ‘외로운 공주’이자 ‘국민 꽃누나’로 40여년 동안 사랑받았던 배우 김자옥씨가 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했다. 63세.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에도 활발히 활동해왔던 그는 최근 암이 폐로 전이돼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그의 소속사는 16일 “지난 14일 병세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면서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밝혔다.<br/><br/>이날 오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오후부터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개그우먼 박미선씨 등은 접객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애도했다. 배우 허진(65)씨는 “<span class='quot0'>자옥이는 크고 작은 선물을 주는 등 늘 살갑게 잘해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는데 이렇게 떠나다니 믿기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고인과 함께 30여년간 사랑의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신도들도 빈소를 찾았다. 김씨는 남편 오씨에게 “<span class='quot1'>내가 만약 저세상으로 가면 (사랑의교회)호산나찬양단 사람들에게 알려달라</span>”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각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남순(63)씨는 “<span class='quot2'>김씨는 생전에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사소한 것에도 감동을 느끼고 울음도 많았던 사람</span>”이라며 고개를 떨궜다.<br/><br/>시인 김상화의 2남 5녀 중 3녀인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성우로 활동하다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영화 ‘보통여자’, ‘O양의 아파트’, ‘영아의 고백’ 등과 드라마 ‘모래 위의 욕망’, ‘사랑과 진실’, ‘유혹’ 등에서 열연하며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연기상, 아시아영화제 우수배우상 등을 수상했고, 성우 부문에서도 한국방송대상 성우상을 받았다. 청순가련한 여인의 대명사로 떠오른 그는 김영애, 한혜숙과 함께 1970년대를 풍미한 대표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br/><br/>‘화무십일홍’의 깨달음은 그에게서만은 비켜 갔다. 그는 1996년 MBC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공주병에 걸린 여고생을 연기하면서 “너 나한테 홀딱 반했지?”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마흔다섯 살에 ‘공주병 소녀’로 파격적인 변신에 성공,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여세를 몰아 ‘공주는 외로워’라는 노래로 가수로 데뷔했다. 사회적으로 ‘공주병’ 신드롬이 불었고 그의 음반은 60만장이나 팔렸다.<br/><br/>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외모와 목소리, 소녀 같은 성격을 그대로 간직한 그는 ‘만년 소녀’로 불렸다. 올해 초 종영한 tvN ‘꽃보다 누나’에서는 여전히 소녀 같은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크로아티아의 디오클레티아누스궁전 지하를 걷다 흥에 겨워 춤을 추는가 하면, 빨간 구두를 찾아 시내 상점가를 헤매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인기와 맞물려 ‘국민 꽃누나’로 사랑받았다.<br/><br/>화려해 보이는 그의 인생은 기실 시련 뒤 더욱 단단해진 것이었다. 1980년 가수 최백호씨와 결혼한 뒤 3년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 그는 1년 뒤 가수 오승근씨와 재혼, 최근까지도 토크쇼에 함께 출연하는 등 잉꼬부부의 오손도손한 모습을 뽐냈다. 또 대장암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수술을 받자마자 드라마 ‘워킹맘’을 시작으로 ‘그들이 사는 세상’, ‘지붕뚫고 하이킥’, ‘오작교 형제들’에 이어 ‘세 번 결혼하는 여자’까지 출연하며 연기 혼을 불태웠다. 그는 ‘꽃보다 누나’에서 계속되는 항암치료와 공황장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span class='quot2'>이번 여행을 계기로 나를 바꾸겠다</span>”고 자신해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 유족으로는 남편 오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br/><b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br/><b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6.txt

제목: “흡연자 차량 타면 체내 발암물질 ↑” (美연구)  
날짜: 2014111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2009855  
본문: 흡연자의 차량에 1시간만 탑승해도 체내 발암물질 농도가 급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연구진이 흡연자의 차량에 비흡연자가 탔을 경우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br/>연구진은 차량의 창문을 약 10cm 연 상태의 차량(SUV)을 준비하고 비흡연자(총 14명)에 각각 1시간 동안 탑승하도록 했다. 운전석에는 흡연자가 20분 간격으로 담배 3개비를 피우도록 했다.<br/>실험 이전과 실험이 끝난 지 8시간이 지난 후에 채취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흡연 관련 질환(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9가지 유해 화학물질 중 뷰타다이엔, 아크릴로나이트릴, 벤젠, 산화에틸렌 등 7종의 물질 농도가 심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이에 대해 연구진은 특히 어린이와 지병이 있는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으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br/>이번 실험에서는 멈춰있는 차량을 사용했으므로 주행 중의 차량과 비교하면 환기 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교통 상황을 보면 정체가 심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번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br/>연구를 이끈 기드온 세인트 헬렌 박사는 “<span class='quot0'>천식이나 심장 질환 등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는 특히 차 안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연구학회 학술지 ‘암·역학·생물표지·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7.txt

제목: 흡연자 차량 1시간만 타도 체내 발암물질 급상승 (美연구)  
날짜: 2014111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1949208  
본문: 흡연자의 차량에 1시간만 탑승해도 체내 발암물질 농도가 급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연구진이 흡연자의 차량에 비흡연자가 탔을 경우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br/>연구진은 차량의 창문을 약 10cm 연 상태의 차량(SUV)을 준비하고 비흡연자(총 14명)에 각각 1시간 동안 탑승하도록 했다. 운전석에는 흡연자가 20분 간격으로 담배 3개비를 피우도록 했다.<br/>실험 이전과 실험이 끝난 지 8시간이 지난 후에 채취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흡연 관련 질환(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9가지 유해 화학물질 중 뷰타다이엔, 아크릴로나이트릴, 벤젠, 산화에틸렌 등 7종의 물질 농도가 심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이에 대해 연구진은 특히 어린이와 지병이 있는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으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br/>이번 실험에서는 멈춰있는 차량을 사용했으므로 주행 중의 차량과 비교하면 환기 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교통 상황을 보면 정체가 심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번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br/>연구를 이끈 기드온 세인트 헬렌 박사는 “<span class='quot0'>천식이나 심장 질환 등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는 특히 차 안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연구학회 학술지 ‘암·역학·생물표지·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8.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암은 힘든 게 아니라..” 과거 발언보니..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036466  
본문: 김자옥 별세, “암은 힘든 게 아니라..” 과거 발언보니..<br/><br/>16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의 과거 방송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r/><br/>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마지막 게스트로 출연한 김자옥은 암투병일화를 솔직하게 전했다.<br/><br/>김자옥은 종합 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하게 된 상황을 전하며 “<span class='quot0'>다행히 수술하기 좋은 부위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span>”고 말했다.<br/><br/>이어 김자옥은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br/><br/>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오는 19일 발인이다.<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29.txt

제목: 김자옥 별세, “대장에서 폐로..”과거 암투병 사실 밝혀..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004097  
본문: 배우 김자옥이 폐암 투병 끝에 별세한 가운데 과거 고인이 출연한 방송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br/><br/>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고 김자옥은 과거 대장암 투병 도중 임파선과 폐로 암이 전이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br/><br/>당시 김자옥은 “수술 이후 종합검진을 받는데 지난해 4월에 대장에서 임파선으로 암이 전이됐다. 또 폐에도 전이됐다”고 전하며 항암 치료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br/><br/>이어 김자옥은“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0.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암은 힘든 것 아니다” 과거 방송 속 긍정적인 모습 ‘눈길’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70020425  
본문: 배우 김자옥이 별세한 가운데, 과거 고인이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투병일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br/><br/><br/>고 김자옥은 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하게 된 상황을 솔직하게 전했다.<br/><br/><br/><br/>특히 김자옥은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많은 화제가 됐다.<br/><br/>한편 고 김자옥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오는 19일 발인이다.<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1.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암은 힘든 것 아냐” 과거 긍정적인 태도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5947685  
본문: 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이에 과거 고인이 출연한 방송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br/>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고 김자옥은 “<span class='quot0'>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span>”며 암투병 사실을 고백했다.<br/><br/>특히 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br/><br/><br/><br/>한편 김자옥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2.txt

제목: 김자옥 별세, 무릎팍도사 방송 ‘눈길’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5921995  
본문: 과거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고 김자옥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암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span class='quot0'>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span>”고 암을 발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br/><br/>이어 김자옥은 “다시 종합검진을 받는데 지난해 4월에 임파선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 대장에서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이었다. 또 폐에도 전이됐다”고 솔직하게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한편, 김자옥은 폐암 투병 끝에 16일 별세했다. 오는 19일 발인.<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3.txt

제목: 김자옥 별세, “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과거 방송서 투병사실 전해..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5903470  
본문: 배우 김자옥이 별세한 가운데, 고인의 과거 방송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r/><br/>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게스트로 출연한 고 김자옥은 암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br/><br/><br/><br/>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span class='quot0'>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span>”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녀는 “다행히 수술하기 좋은 부위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전했다.<br/><br/>이날 김자옥은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br/><br/><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4.txt

제목: 김자옥 별세, 과거 방송서 “암은 힘든게 아니라...” 발언 눈길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5847795  
본문: 배우 김자옥이 별세한 가운데, 그녀의 과거 방송이 눈길을 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투병사실을 고백했다.<br/><br/><br/><br/>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 다행히 수술하기 좋은 부위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자옥은 “다시 종합검진을 받는데 지난해 4월에 임파선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 대장에서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이었다. 또 폐에도 전이됐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이날 김자옥은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br/><br/><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5.txt

제목: 김자옥 별세, “암은 힘든 것 아니다” 과거 방송 눈길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5831671  
본문: 63세의 나이로 별세한 김자옥의 과거 방송이 눈길을 끈다. <br/><br/><br/><br/>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김자옥은 암투병을 고백한 바 있다.<br/><br/>당시 방송에서 김자옥은 “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 다행히 수술하기 좋은 부위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며 투병사실을 밝혔다. 이어 김자옥은 “다시 종합검진을 받는데 지난해 4월에 임파선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 대장에서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이었다. 또 폐에도 전이됐다”고 전했다.<br/><br/><br/><br/>또한 김자옥은 “<span class='quot0'>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span>”고 덧붙여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6.txt

제목: 김자옥 별세, 과거 투병사실 언급 ‘눈길’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5821628  
본문: 배우 김자옥이 별세한 가운데, 과거 그녀가 출연한 예능프로가 화제다.<br/><br/>지난해 8월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게스트로 출연한 김자옥은 투병사실을 솔직하게 전했다. 김자옥은 “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 다행히 수술하기 좋은 부위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밝혔다.<br/><br/>이어 김자옥은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br/><br/><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7.txt

제목: 김자옥 폐암으로 별세, ‘향년 63세’ 과거 대장암 투병까지..  
날짜: 2014111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5759549  
본문: ‘김자옥 폐암으로 별세’<br/><br/>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다.<br/><br/>고 김자옥은 과거 대장암으로 투병했으며 얼마전 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br/><br/>고인은 지난해 SBS TV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 출연해 열연을 펼쳤으며, 지난 1월에도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됐다.<br/><br/>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 <br/><br/>김자옥 폐암으로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김자옥 폐암으로 별세,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0'>김자옥 폐암으로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0'>김자옥 폐암으로 별세, 건강해지신 줄 알았는데..</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편 1970년에 데뷔한 김자옥은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br/><br/>사진=서울신문DB(김자옥)<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8.txt

제목: [생명의 窓] 유전정보와 맞춤형 치료/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날짜: 2014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4809629  
본문: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이후 인간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 분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1990년에 시작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2003년 4월에 완성됐고, 그 후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 당시 한 사람의 게놈 서열을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난 고가였으나 최근에는 저렴해진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br/><br/>특정 유전자 분석을 상품화한 회사들도 있다. 건강 관련 정보를 비롯한 유전자 정보를 알려 주는 상품을 99달러에 시판하기도 했으나, 2013년 11월 미국식품의약처(FDA)는 안전성을 이유로 의료정보를 포함한 상품의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동일인의 유전자 정보가 유전정보회사에 따라 분석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해당 유전자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할 당시 인류가 느꼈던 희열의 크기에 비해 현재의 유전자 과학은 답보 상태에 빠진 듯 보인다. <br/><br/>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야도 있다. 암치료의 경우다. 암이란 자신의 유전자 중 일부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 암세포로 변화한 것이므로 유전자에 의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유전자 중 특정 암과 관련성이 있는 유전자들이 발견되면서 이 유전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맞춤형 치료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 주는 맞춤형 치료들은 많지 않다. 말기 암환자의 수명을 몇 개월 연장시키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획기적인 개발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HER2 유전자에 양성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방암 치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HER2 양성 환자는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환자군에 속했으나 최근 허셉틴의 후속 약물들로 페르투주맙과 같은 약들이 개발되면서 말기 유방암 환자도 약 복용을 지속하면 평균 수명을 5~7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br/><br/>평균 수명이 길지 않은 전이성 폐암 환자의 경우도 맞춤형 치료로 기존보다 여명이 연장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이성 폐암 환자에 대해 EGFR과 ALK의 유전자 검사 시행을 강력히 권고했다.<br/><br/>췌장암으로 사망한 스티브 잡스의 경우도 맞춤형 치료제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생전에 두 번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했다고 한다. 그는 암치료 표적 유전자는 찾았으나 당시 이 유전자에 대한 맞춤형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 외에도 해결될 문제들이 더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맞춤형 약들의 경우 유전적 변이와 후생유전학적 요인에 의해 약물 내성이 생긴다. 게다가 맞춤형 약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 비용은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에 대한 로열티로 상당 부분 지불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맞춤형 약을 개발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의료 시대는 남의 나라 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br/><br/>암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 비용도 현재까지는 비싼 편이다. 기술이 개발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원천 기술이 우리에게 없다면 또 동일한 수준의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맞춤형 치료를 위한 약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도 수명이 연장된다면 새로운 맞춤형 약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39.txt

제목: 생식, 독성물질 유입 차단해 대장암과 대장염 예방에 효과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2919341  
본문: 흔히 말하는 ‘생식’은 원료 종류, 건조 방법, 생식 원료의 비중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시중에 나와있는 생식제품도 생식함유제품과 생식제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생식함유제품은 생식함량이 50% 이상인 제품을 의미하고 생식제품은 생식의 함량이 8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br/><br/>최근 부산대학교 의료식품네트워크센터와 ㈜이롬은 생식과 소식이 대장염 및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센터 박건영 교수팀은 대장염과 암을 유발한 쥐에서 생식과 소식이 대장염과 발암성 그리고 이로 인한 장 누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생식제품과 생식함유제품을 동일한 동물모델에서 비교 평가하여 생식함량의 차이가 염증과 발암성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br/><br/>대장은 염증이 발생하면 대장의 장벽이 느슨해져 장내의 세균이나 독성물질이 체내로 유입되어 대사를 교란하거나 면역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호를 왜곡시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증가시키므로 비만 당뇨를 포함한 대사성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고지방식, 인스턴트식품, 스트레스, 장내균총의 불균형 및 염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장 누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장벽의 기능을 회복시켜 독성물질의 체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br/><br/>부산대학교 연구팀과 이롬은 이번 실험에서 생식은 일반식과 소식에 비하여 대장염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 장내 독성물질 중의 하나인 발열성물질의 체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열성 물질의 체내 유입 차단기능은 밀착연접(tight junction)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r/><br/>이 실험을 총괄한 박건영 교수는 “생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준에서 유전자적 변화를 유도하여 우리 몸의 반건강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준다. 대장암 및 대장염 연구를 통해 생식이 장내 환경 최적의 식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br/><br/>이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생식은 50여 가지의 자연 원료, 특히 통곡류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열을 가하지 않은 풍부한 통곡류는 다른 어떤 식품보다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 소화흡수가 천천히 되어 혈당조절이 원활하게 하고 장에서 SCFA(short chain fatty acid)가 다량으로 생성되어 장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킨다</span>”고 전했다.<br/><br/>이외에도 폴리페놀 및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한 미량의 생리활성물질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지금까지 생식을 적용한 효능평가실험의 결과를 보면 비만, 당뇨, 고혈압, 운동능력향상, 지구력, 뇌질환보호, 지방간, 항산화능력, 항암효과, 항암제부작용 완화효과, 염증성장질환(IBD)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또한 생식은 가장 건강한 소식이다. 1회 섭취량 40g이고 열량은 150~160kcal이다. 생식을 한 끼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실제적으로 섭취 흡수된 칼로리는 65kcal정도이다. 일반식 한 끼의 칼로리가 700~800kcal인 것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열량이다. 이 정도의 칼로리는 30%정도의 칼로리 제한식인 소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식에 의한 소식은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온전한 식사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최적의 새로운 형태의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소식 혹은 칼로리 제한식은 영양의 균형은 유지하되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을 30~40%로 제한하는 식이요법으로, 비만 당뇨 및 퇴행성질환 그리고 수명연장 등 다양한 질환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0.txt

제목: 한국인에 가장 많은 ‘폐선암’ 재발유전자 찾았다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2621783  
본문: 　국내 의료진이 폐선암 절제수술 후 재발 예측인자인 ‘RB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새로운 유전자마커를 찾아냄으로써 한국인의 폐암 재발 예측과 맞춤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br/>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병리과)・김형렬(흉부외과) 교수(사진), 한양대 의대 공구 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 백대현 교수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치적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RB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조기 폐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br/>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재발률도 높아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암 중 비소세포폐암 특히 폐의 선(腺)세포에 생기는 선암의 발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폐선암은 국내 폐암 환자 중 40% 가량을 차지해 가장 흔한 폐암으로 알려져 있다.<br/>　조기 폐선암의 경우 수술이 최상의 치료이지만 1기에 발견해도 10∼20%는 수술 후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폐선암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특히 유전자마커가 밝혀지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br/>　연구팀은 폐선암 1기 157명, 2기 44명, 3기 40명, 4기 6명 등 모두 247명의 환자에게서 얻은 폐암 조직과 정상 폐조직을 대상으로 차세대 유전체 검사법인 ‘전체 엑솜 염기서열 분석법(WES)’을 이용해 유전체 모두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br/>　그 결과, 폐선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 중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정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유전자 변이 22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16개는 새로 찾아낸 변이였다.<br/>　특히 조기 폐선암 환자군(1 · 2기)에서 5년 재발률을 비교한 결과, RB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군(전체 환자군의 5.9%)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재발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RB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가 재발 없이 지낼 확률은 20%로, RB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RB유전자 변이가 조기 폐선암 수술 후 환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이다.<br/>　RB유전자의 변이는 망막아세포종, 난소상피암, 신경내분비암종 등 다른 암종에서도 중요한 유전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재발률과 생존률 등 환자의 임상 정보와 연관성을 보이거나 유전체 분석법을 이용해 폐암의 유전자 돌연변이 후보군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 교수는 “<span class='quot0'>모두 247개의 폐선암종 유전체와 정상 유전체를 함께 분석한 이번 연구는 폐암 유전체 단일연구로는 최대 규모여서 유전체 연구 결과의 임상적 응용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RB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함으로써 조기 폐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재발 고위험군의 분류 및 선별이 가능해져 적극적 치료 및 재발 예방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span>”고 밝혔다.<br/>　그런가 하면 이번 연구는 폐선암에서 한국인 고유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규명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연구팀은 “한국인의 유전자 변이가 그동안 알려진 다른 인종의 유전자 변이와 다른 점을 파악해 서양인의 폐선암종 유전체 분석 결과를 한국인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br/>　암세포 분화 및 성장 촉진과 관련 있는 ‘EGFR유전자’ 변이는 폐암 표적치료제의 대표적 표지로 꼽힌다. EGFR유전자 변이는 서양인에게는 15% 이하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서의 발현은 42%인 것으로 확인돼 인종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br/>　연구팀은 이와 함께 ‘COL11A1’, ‘CENPF’, ‘SLIT2’ 등 새로 발견한 암 관련 유전자 16개도 새롭게 보고해 한국인 폐암 치료의 전기를 마련할 후속연구의 단초를 제공했다.<br/>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김형렬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에서는 RB유전자군의 변이검사를 통해 폐암 수술 후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조기 폐암환자의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특히 폐암 관련 16개 유전자 발견과 EGFR 유전자 변이 확인 등 한국인 특유의 유전체 규명은 한국인 폐암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개인 맞춤치료제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암연구학회(AACR)가 발간하는 ‘임상암연구(Clinical Cancer Research)’지 최신호에 실렸다.<br/>　<br/>　■폐선암이란.<br/>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서 크게 소세포성과 비소세포성, 즉 소세포 폐암이거나 그렇지 않은 폐암으로 구분한다. 비소세포성 폐암으로는 폐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이 대표적이다.<br/>　이 중 선암종은 폐의 말초 부위에서 잘 생기고, 여성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하며, 크기가 작아도 전이된 경우가 많다.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원인으로는 담배의 타르 양 변화, 흡연 습관의 변화, 흡연 양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환경 및 작업적 요인 등이 꼽히고 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1.txt

제목: [열린세상] 어떻게 임종할 것인가/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날짜: 2014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0706781  
본문: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남자 환자가 폐렴이 악화돼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다. 인공호흡을 시작한 뒤 폐렴이 호전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화를 전혀 할 수 없으니 가족들이 환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다 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술을 하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 아내는 반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남편에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울먹이며 했다. 환자는 숨이 차서 제대로 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환자가 임종한 후 유가족들을 만나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내와 자녀 모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했던 긴 기간보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짧은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br/><br/>최근 악성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미국의 29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유튜브에 예고하고 세상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다.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로 자살하는 안락사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span class='quot0'>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span>”는 그녀의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br/><br/>우리나라에서도 ‘웰다잉’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웰빙’과 달리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웰다잉’이라는 신조어를 한국에서만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는 선진국에 비해 임종기 환자에게 연명의료장치를 사용하는 빈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도 관계가 있다. 어떤 모습으로 임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없겠으나, 본인의 임종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면 ‘웰다잉’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다.<br/><br/>집을 떠나 외지에서 사망하는 ‘객사’(客死)를 불행으로 여기고,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큰 불효로 생각하는 우리 문화를 곰곰이 되새겨 보면 외롭게 세상을 하직하는 것은 좋은 임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독신자들은 혼자 집에서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한다. 객사의 의미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웰다잉’을 단순히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임종하는 것, 혹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만 의미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가족을 떠나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좋은 임종은 편안하게 죽은 모습을 보는 것이다.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로 아내를 잃은 57세 남성은 잠수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아내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채로 있는 건 너무 불쌍하다. 내 손으로 아내를 찾아 반드시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며 아직도 실종된 아내의 시신을 찾고 있다. 천안함 사태나 세월호 참사에서도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식의 시신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었다.<br/><br/>환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질병으로 인한 통증과 별개로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들로 고통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주로 가족 간의 문제다. 그러나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지막까지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 더이상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말기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환자와 가족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잔여 생명의 기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임종을 준비해야 좋을지에 대해 의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종 장소,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의 약속,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것들의 정리 등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연명의료에 매달리다가 환자가 사망한 후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가족들이 대부분이다.<br/><br/>연명의료장치를 제거하고도 장기간 생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죽을 것인지는 의료진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2.txt

제목: [TV 하이라이트]  
날짜: 2014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60607853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KBS1 밤 10시) 심장은 하루 평균 10만회 이상을 뛰며 전신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심장의 이상은 죽음의 신호나 다름없다. 지난 10년 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7％ 증가했다. 문제는 다수의 심장질환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부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과연 암보다 무서운 심부전의 증상과 원인은 무엇일까.<br/><br/><br/>■미스터 백(MBC 밤 10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재벌 회장 70대 노인 최고봉(신하균)이 우연한 사고로 30대로 돌아가면서 펼쳐지는 드라마. 대한(이준)은 폐쇄회로(CC)TV 실과 리조트에서 본 신형(신하균)이 자신의 아버지 고봉의 실종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한편 신형은 우연히 동생 영달(전국환)과 인자(황영희)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다.<br/><br/><br/>■극한직업(EBS 밤 10시 45분)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전원주택의 삶을 꿈꾼다. 그러나 전원주택 건축은 고가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과정도 복잡하다. 이런 도시인들을 위해 규격화된 소형 주택을 지은 다음 어디든 옮겨 주는 사람들이 있다. 최대 무게 6000㎏ 달하는 이동식 목조 주택 시공 현장. 자연 속 나만의 작은 공간을 위해 노력과 땀으로 탄생하는 이동식 목조 주택의 제작 과정을 소개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3.txt

제목: ‘좀비’ 물리치고 세상 구한 꼬마 아이언맨의 사연  
날짜: 20141111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1228290  
본문: 아마 이날 하루가 소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br/>최근 호주 오클랜드 아오테아 광장이 많은 좀비들과 배트맨에 등장하는 악당들로 점령됐다. 오클랜드 경찰도 속수무책 당하는 사이 한 소년이 등장해 멋지게 악당들을 물리친다.<br/>한편의 영화 촬영같지만 이는 현지 자선단체가 진행한 이벤트다. 이날 도시를 구한 영웅은 올해 9살의 조니 잭슨. 평소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조니는 '착한' 어른들 덕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br/>한 자선단체가 소년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준 이유는 조니가 암환자이기 때문이다. 불과 4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은 조니는 무려 3년 간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부터 기적적으로 차도를 보이고 있다. 조니는 이날 악당들을 모두 물리친 공로를 인정받아 현지경찰로 부터 '열쇠'를 선물로 받는 기쁨도 누렸다.　<br/>조니의 아빠는 "병 때문에 아이가 오랜시간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했다" 면서 "최근들어 건강의 차도를 보여 오클랜드에 함께 관광을 올 수 있었고 이번에 아들을 위한 이같은 이벤트의 주인공이 됐다"며 기뻐했다.<br/>현지 자선단체 측은 "힘든 고비를 겪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같은 이벤트를 마련해주고 있다" 면서 "시와 자선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매년 200건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4.txt

제목: 미국 통합종양학회, 한약의 암치료 효과 주목  
날짜: 20141111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1147469  
본문: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세계적 암센터 엠디 앤더슨(MD ANDERSON)이 자리한 텍사스 휴스턴에서 SIO(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 통합종양학회)의 11번째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br/>이번 학회는 통합종양학의 개별화(Personalized integrative oncology)라는 주제와 최적의 결과를 위한 표적화된 접근이라는 부제아래 유럽, 북미, 인도, 중동, 중국 등 전세계의 통합종양학자들이 참여했다.<br/>한국에서는 둔산한방병원, 경희한방병원, 소람한방병원, 대구한의대, 아주대 의과대학 등에서 참석했다.<br/>이번 SIO 국제학회에서는 근거중심의학을 기반해 발전된 통합의학적 치료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됐다. 특히 중국에서 발표한 한약의 암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br/>해당 연구는 근치 수술을 받은 Stage II,III의 대장,직장암환자들의 전이 및 재발에 있어 한약(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효과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 결과다.<br/>5년 동안 진행된 이 연구를 통해 한약 치료가 전이재발률을 감소시키고, 전이 및 재발에서 자유로운 상태 및 전체 생존기간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br/>또한 서양의학의 통상적 치료와 함께 증상의 차이에 따른 맞춤 한약치료가 병행됐을 때 근치 수술을 받은 Stage II,III의 대장,직장암환자들의 재발 및 전이 속도가 1년이나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br/>뿐만 아니라 국내 한방 의료진이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발전된 통합의학적 치료모델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해외 학회에서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br/>이번 학회에 참석한 소람한방병원 김성수 원장은 “<span class='quot0'>전 세계통합의학자들 참석해 통합의학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시간 같이 논할 수 있는 개별 간담회, 전체강연, 포스터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통합종양학의 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5.txt

제목: ‘좀비’ 물리치고 세상 구한 백혈병 소년의 사연  
날짜: 20141109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0856852  
본문: 아마 이날 하루가 소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br/>최근 호주 오클랜드 아오테아 광장이 많은 좀비들과 배트맨에 등장하는 악당들로 점령됐다. 오클랜드 경찰도 속수무책 당하는 사이 한 소년이 등장해 멋지게 악당들을 물리친다.<br/>한편의 영화 촬영같지만 이는 현지 자선단체가 진행한 이벤트다. 이날 도시를 구한 영웅은 올해 9살의 조니 잭슨. 평소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조니는 '착한' 어른들 덕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br/>한 자선단체가 소년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준 이유는 조니가 암환자이기 때문이다. 불과 4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은 조니는 무려 3년 간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부터 기적적으로 차도를 보이고 있다. 조니는 이날 악당들을 모두 물리친 공로를 인정받아 현지경찰로 부터 '열쇠'를 선물로 받는 기쁨도 누렸다.　<br/>조니의 아빠는 "병 때문에 아이가 오랜시간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했다" 면서 "최근들어 건강의 차도를 보여 오클랜드에 함께 관광을 올 수 있었고 이번에 아들을 위한 이같은 이벤트의 주인공이 됐다"며 기뻐했다. <br/>　 <br/>현지 자선단체 측은 "힘든 고비를 겪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같은 이벤트를 마련해주고 있다" 면서 "시와 자선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매년 200건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6.txt

제목: “젊은층 대장암 환자, 90%까지 증가할 것”  
날짜: 2014110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0801360  
본문: 2030년까지 대장암에 걸리는 젊은층 환자가 무려 90%나 증가할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햄버거 등 정크푸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br/>미국 텍사스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센터의 SEER프로그램의 분석결과를 통해 나이 별 암의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대장암 발병률은 줄어든 반면 20~49세 사이의 발병률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br/>1975~2010년 사이 대장암에 걸린 중장년층은 감소했지만 20~49세 젊은층, 특히 20~34세의 청년층의 발병 비율은 1.99% 높아졌다.<br/>연구팀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 20~34세의 대장암 환자는 37.8%, 2030년까지 9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r/>반면 50세 이상의 대장암 환자는 2020년까지 23.2%, 2030년까지 4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br/>연구를 이끈 텍사스대학의 크리스티나 베일리 박사는 “<span class='quot0'>젊은층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올랐으며, 초콜릿이나 비스킷, 케이크, 탄산음료나 햄버거 등 정크푸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span>”고 설명했다.<br/>대장암은 50대 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건강검진을 자주 받기 때문에 암을 초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젊은 층의 경우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짙고 정크푸드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학협회(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7.txt

제목: 얼룩말 사냥에 실패하고 뻘쭘해진 사자  
날짜: 2014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52746945  
본문: 얼룩말 사냥에 실패한 사자의 허탈해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웃음을 주고 있다. <br/><br/>지난달 29일 유튜브에 공개된 해당 장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벌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백수(百獸)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얼룩말 사냥에 실패하는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br/><br/>영상을 보면 얼룩말 무리가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고 있다. 잠시 후 뭔가 천적의 낌새를 느낀 얼룩말들은 하나 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이내 얼룩말들이 놀라며 일제히 달아난다. <br/><br/>암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얼룩말 무리 앞에 등장한 암사자는 한 마리를 타깃으로 정한 채 전광석화 같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목표물이 된 얼룩말 역시 달아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br/><br/><br/><br/>결국 사자는 앞서가는 얼룩말을 따라잡지 못한 채 이내 포기하고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얼룩말의 꽁무니만 바라볼 뿐이다. <br/><br/>잠시 후 사막 한 구석에서 위엄 있는 자태로 앉아 있는 이 암사자는 또 다시 새로운 사냥감을 찾고 있다. 새로운 목표물을 물색하는 사자가 입맛을 다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낸다.<br/><br/>사진·영상=유튜브, Bernhard Bekker<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8.txt

제목: 걱정된다, 한류… ‘별그대’만 베끼는 한국드라마  
날짜: 2014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50443306  
본문: 한류스타인 비와 크리스탈(에프엑스)을 주연으로 내세워 6일 종영한 SBS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는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 유쿠·투더우에 회당 20만 달러, 총 32억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로 판매됐다. 동영상 조회수는 2억 6000만뷰(유쿠, 6일 오전 기준)를 기록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span class='quot0'>교통사고(車禍)와 암(癌症), 치료 불가(治不好)라는 한국 드라마의 3대 클리셰(韓劇三寶)가 다 있다</span>”는 평이 회자되는가 하면 중국 최대의 책·영화·음악 리뷰사이트인 ‘더우반닷컴’에서의 평점은 6.4점에 그쳤다. 한국에서는 상투적인 이야기와 아이돌 가수들의 ‘발연기’가 도마에 오르며 5회부터 시청률이 7% 이하로 떨어졌다.<br/><br/>‘별에서 온 그대’가 일으킨 중국에서의 드라마 한류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별그대’의 화제성과 인기를 이어가는 드라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별그대’의 성공이 이례적인 것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한류스타와 연애 이야기 등 중국 시장을 겨냥한 드라마들이 한국 시청자들에게서 외면받음은 물론 중국에서도 점차 식상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업계가 ‘별그대’만 쫓다 집토끼(한국 시청자)와 바깥토끼(중국 시청자)를 다 놓칠 우려마저 나온다.<br/><br/>‘별그대’ 이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판권 가격은 5배까지 껑충 뛰었지만 ‘별그대’가 거둔 성적에는 한참 못 미친다. ‘별그대’ 이후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동영상 누적 조회수는 6일 오전 기준으로 ‘쓰리데이즈’(1억 6500만뷰, 유쿠), ‘닥터 이방인’(5억 7200만뷰, 유쿠), ‘운명처럼 널 사랑해’(2억 8900만뷰, 소후), ‘괜찮아 사랑이야’(2억 6400만뷰, 유쿠) 정도다. 올해 유쿠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조회수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는 ‘닥터 이방인’(8위) 외에는 3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1위인 ‘고검기담’(중국)은 19억뷰, 2위인 ‘사도행자’(홍콩)는 16억뷰를 넘었다.<br/><br/>‘별그대’의 27억 5600만뷰(아이치이)가 워낙 이례적인 기록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1억뷰 돌파’ ‘중국을 휩쓸었다’라는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머쓱해진다. 업계에서도 중국에서의 한국 드라마 붐이 식어가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한·중 마케팅 전문회사 엠플러스아시아의 이철호 대표는 “<span class='quot1'>올해 ‘닥터 이방인’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드라마의 화제성이 한풀 꺾였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간접광고의 제약도 많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간접광고도 주춤한 상태</span>”라고 말했다.<br/><br/>중국 선양의 언론사 시대상보(時代商報)는 지난 9월 “‘별그대’는 참신한 내용으로 드라마 한류를 일으켰지만 이후의 드라마는 상투적인 길을 걷고 있다”면서 “패턴화된 내용이 막 달아오른 드라마 한류 붐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3대 클리셰(韓劇新三寶)’라는 용어도 나왔다. ‘상속자들’과 ‘별그대’가 인기를 끌자 롱다리(長腿) 남자배우와 눈의 호강(養眼), 부자 스타일(土豪style)이 ‘새로운 3대 클리셰’로 불렸다. 최근에는 롱다리 남자배우와 함께 남녀 주인공이 서로 미워하다 마음을 여는(冤家) 줄거리, 둘 중 최소 한쪽의 심리적인 문제(心理問題)가 클리셰로 꼽힌다. <br/><br/>한국 시청자들은 한류 스타, ‘기승전연애(무조건 연애로 끝맺는 드라마 전개를 뜻하는 인터넷 조어)’식 줄거리 등 중국 시장을 겨냥한 듯한 드라마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주중 미니시리즈의 시청률이 10%도 넘기 힘든 ‘전에 없는 흉작’의 원인 중 하나다. <br/><br/>‘한류 드라마’로 홍보된 드라마들 중 정작 한국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드라마는 손에 꼽을 정도다.<br/><br/>그럼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연이은 부진을 타개할 방법을 여전히 ‘별그대’ 공식에서 찾고 있다. 내년 방영을 앞두거나 편성을 조율 중인 이른바 ‘대작’ 드라마들은 비현실적인 남자 주인공(다중인격자, 뱀파이어 등)을 내세워 김수현, 김우빈, 박해진 등 몇몇 한류스타들을 놓고 캐스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span class='quot2'>‘별그대’ 이후 현실과 동떨어진 소재와 캐릭터들이 난무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한국에서 통하는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통하는 법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에서의 드라마 한류도 장담할 수 없다</span>”며 우려했다.<br/><b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br/><br/>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49.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감귤  
날짜: 2014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50450420  
본문: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은 과거엔 대중적 과일이 아니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금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진상품이었을 정도로 비싼 과일이었다. <br/><br/>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생활 속 과일로 자리 잡았다. 감귤은 우리나라 제1의 과수인 동시에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등의 함량이 많아 감기나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 여기에 여러 기능성 식품과 가공품의 재료로 쓰이면서 미래 바이오산업에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br/><br/>감귤은 인도 아삼 지방과 중국 남부가 원산지다. 귤과 같은 말이다. 감귤류는 밀감(Mandarin), 오렌지(Orange), 레몬(Lemon), 문단(Pummelo), 시트론(Citron), 금감과 탱자나무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서로 간의 교잡을 통해 다양한 품종이 탄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한라봉이나 천혜향은 밀감과 오렌지를 교배해서 탄생시킨 품종들이다. 밀감류는 기원전 4000년쯤 중국으로 전파돼 다양한 품종으로 발달한 뒤 19세기 유럽과 북미로 퍼졌다. 오렌지는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거쳐 유럽과 미국으로 전해졌다.<br/><br/>감귤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 현재의 주요 종교의식에서 빠지지 않고 쓰인다. 유대교에서 시트론은 초막절(이스라엘의 명절 중 하나로 임시 초막을 지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행사)에 백성들을 향한 하느님의 은혜와 선의를 상징한다. 기독교에서는 오렌지나무를 크리스마스트리로 사용했다. 네덜란드는 오렌지의 나라로 유명하다. 16세기 말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렌지공 윌리엄(William of Orange)에서 기원한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축구팀의 별칭도 ‘오렌지 군단’이다. <br/><br/>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감귤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서 ‘탐라국왕세기’에 따르면 155년부터 탐라와 중국, 일본과의 토산물 교역에 귤이 포함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br/><br/>고문헌에 따르면 35종 정도가 재래귤로 기록돼 있으나 현재는 당유자, 진귤(산귤), 병귤, 동정귤, 사두감, 감자, 홍귤, 청귤, 빈귤, 지각, 유자, 편귤 등 12종만 전해진다. 현재 제주도에는 100년 이상 된 재래귤나무가 185그루 남아 있다.<br/><br/>감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바나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과일로 미국인들은 1년에 20.7㎏을 먹는다. 국내에서는 2012년 기준 67만t이 생산되고, 1인당 소비량도 15.4㎏으로 과일 중 소비량 1위다. <br/><br/>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온주밀감이 재배된다. 감귤 중에서도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는 종이다. 다른 감귤에는 없는 베타크립토키산틴이 들어 있어 항암 효과도 높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온주밀감 외에 맛과 향, 모양이 독특한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등 만감류도 많이 재배되고 있다.<br/><br/>감귤은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다. 예부터 서양에서 괴혈병이나 유행병 등이 발생하면 감귤이나 감귤 주스를 먹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귤의 비타민C 함량은 사과의 8배, 파인애플의 4배 이상이다. 감귤 100g에는 비타민C가 36㎎이나 들어 있어 감귤 두 개만 먹어도 성인의 하루 비타민C 요구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하늘이 내린 종합감기약’으로 불리는 까닭이다.<br/><br/>비타민P는 과일 중에 감귤에만 들어 있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졸중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다. 귤 안쪽 껍질의 흰 부분과 알맹이를 싸고 있는 속껍질에는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변비 해소와 설사 억제에 탁월하다. 또한 항암, 성인병 발생 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카로티노이드와 지방대사 개선 등에 효과적인 나린진 등이 함유돼 있다.<br/><br/>한의학에서도 감귤은 중요한 약재다. 감초 다음으로 한방에서 많이 사용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감귤의 껍질(진피 등), 씨, 청귤 껍질 등이 약용으로 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위장 장애, 천식, 가래, 식욕부진,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감귤의 청피나 진피는 한약방에서 비싸게 팔린다.<br/><br/>전통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오장육부로 분류하고, 그것을 5가지 색으로 구분한다. 노란색 감귤은 베타카로틴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암이나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베타카로틴은 체내로 흡수되면 비타민A로 변해 성 기능 향상과 면역 기능 강화, 상피세포 재생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감귤은 최근엔 웰빙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귤은 한 해 6만t 정도가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주로 주스 원액이나 농축액으로 활용된다. <br/><br/>농축액은 초콜릿 등 다른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된다. 감귤 주스는 과립과즙음료로 출시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감귤 초콜릿, 감귤 아이스크림, 감귤 잼 등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특히 감귤 초콜릿은 기존 초콜릿의 강한 코코넛 맛을 줄이고 천연 감귤 농축액을 사용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감귤 아이스크림은 감귤 함량이 60%로, 아이스크림 1개에 감귤 2개가 들어 있어 건강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br/><br/>이 밖에도 비만 억제와 고혈압 예방에 좋은 감귤 쌀, 2010년 한·중·일 정상회담 때 건배주로 사용됐던 감귤 농축액과 한라산 암반수로 만든 감귤 와인, 미성숙 과실의 과즙으로 만들어진 기능성 음료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br/><br/>현재욱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 연구관<br/><br/>■문의 douzir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0.txt

제목: ‘삶의 목표’ 분명할수록 건강한 노년 맞는다 (연구)  
날짜: 2014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0443610  
본문: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보다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최근 미국 미시건 대학 심리·인지과학 연구진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삶을 꾸려나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연구진은 50세 이상 미국 중·노년층 716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가 얼마만큼 분명한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항목은 ‘나는 삶의 목표와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는 ‘최근 내 일상은 무척 사소하고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등으로 구성돼 삶의 목표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점수로 체계화되도록 설정됐다.<br/>해당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서 삶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척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심장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등 특히 노년층에게 자주 발병되는 질환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r/>해당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사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삶의 목표가 분명한 노년층들은 6년에 걸쳐 콜레스테롤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유방 X선 검사, 자궁 경부 암 검사, 전립선 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br/>또한 이들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 외에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극도로 적었다. 물론 재정상황, 우울증 등의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가변적 요인이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얼마만큼 평소 건강검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부였다.<br/>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삶의 목표와 건강 유지에 강한 상관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본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이 분명할수록 이를 이루기 위해 수반되어야할 조건, 예를 들어 건강과 같은 분야에 강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다. 이런 성향이 강할수록 건강검진을 자주 받고 운동을 열심히 하며 식단조절도 무척 신경 쓰기 마련이고 몸 상태 역시 자연스럽게 건강히 유지되는 것이다.<br/>흔히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는 50대 중후반은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하루하루를 맥없이 보낼 위험에 빠지기 쉬운 나이 대다. 연구진은 해당 시기에 사회봉사활동, 운동, 명상, 취미를 찾을 수 있는 평생교육 수업 등에 참여해주면 잃어버린 삶의 목표를 다시 찾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게재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1.txt

제목: “암흑에너지에 암흑물질 증발... 우주, 결국엔 텅빌 것”  
날짜: 20141105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200311161  
본문: 수수께끼 같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집어삼켜 결국엔 텅 비고 지루한 우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과학자들은 우주라는 구조물의 비계(scaffold·시공 단계에서 설치하는 가설물)인 암흑물질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br/>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최신 천문 데이터가 암흑 에너지가 암흑물질과 상호작용해서 우주 구조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br/>포츠머스 우주론중력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원즈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시공간의 기본 특성에 관한 것으로, 우주적인 규모에서 볼 때 우리 우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주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br/>그는 “<span class='quot0'>만약 암흑 에너지가 이대로 계속 커지는 가운데 암흑물질이 증발돼 버린다면, 우리 우주는 결국 텅 빈 공간이 되고 말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동공이 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암흑물질은 우주 구조에 틀을 제공하는 존재로 알려졌지만,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정체 모를 힘이다.<br/>또 그는 “<span class='quot0'>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들은 암흑물질이라는 비계 속에 지어진 것이며,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 암흑물질이 서서히 증발돼 우주 구조의 성장을 감속시키고 있다는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br/>“<span class='quot1'>1998년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span>”고 말하는 원즈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span class='quot1'>시공간에 두루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의 양, 곧 우주 상수라는 아이디어는 우주론의 표준 모델이 됐다</span>”<br/>하지만, 포츠머스와 로마의 대학 연구자들은 이보다 진전된 패러다임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다. 바로 암흑 에너지와 암흑물질 간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이다.<br/>연구팀은 “1990년대 말 이래로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무엇인가가 분명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가장 단순환 설명은 우주 공간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라는 가설”이라면서 “이른바 우주 상수로 불리는 진공 에너지다”고 설명했다.<br/>이어 “어쨌든 이런 단순한 모델로는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데이터들을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은하단과 은하들의 성장, 즉 우주 구조의 성장이 예상보다 느리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br/>이에 대해 미시건 대학의 드래건 헌터러 교수는 “이 논문은 대단히 흥미롭다. 암흑물질에 관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아무리 생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이어 “상호작용이 없는 가장 단순한 모델에 비해 다른 결론이 나왔지만, 어쨌든 나는 이 논문의 결론에 놀랐다고 말하진 않겠다. 표준 모델의 모든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것이 몇 달 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br/>이번 연구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 같은 놀라움을 나타내며, “우주는 정말 불가사의다” “<span class='quot2'>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을 잡아먹는다니 정말 충격적</span>”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br/>이광식 통신원 joand999@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2.txt

제목: “자궁경부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날짜: 2014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44215917  
본문: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매 2분마다 1명씩, 국내에서는 매일 3명 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여성암이다. 국가 암검진사업 등으로 인해 전체 자궁경부암 발생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35세 미만의 젊은 층 자궁경부암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br/>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15~34세 젊은 여성 연령군의 암 발생순위 중 3위를, 35~64세 여성 연령군에서는 5위를 차지해 젊은 여성 및 사춘기 소녀들의 예방인식 고취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1기에 발견해 적절하게치료하면 완치율이 90%에 이른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br/>　이런 자궁경부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이 실시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하는 공익캠페인이다.<br/>　캠페인에는 배우 박수진씨가 함께 한다. 박수진씨는 TV 공익광고와 캠페인 화보를 통해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실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공익광고는 10월 중순부터 방송되며, 캠페인 화보는 패션 월간지 및 전국의 각급 병원과 보건소 등을 통해 제공된다. <br/>　이와 함께 오는 9일에는 ‘엄마와 딸이 함께 하는 여성건강 이야기-헬로 우먼’ 강좌콘서트가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다. 본 행사에서는 인디밴드 ‘바닐라어쿠스틱’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함께 나서 초경 무렵부터 챙겨야할 건강관리법과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궁금증 등을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웹사이트(www.ccptalk.co.kr) 및 전화(02-3210-972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b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비해 여성들의 경각심이나 예방실천 의지는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는 인식을 갖기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3.txt

제목: [생각나눔] 소비자 골탕 먹이는 보험사 기준  
날짜: 2014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43213420  
본문: 제주에 사는 강명순(여·가명)씨는 지난 7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혹이 발견돼 조직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점막내암(주치의 질병코드는 ‘C코드-일반암’) 진단을 받았다. 며칠 후 강씨는 수년 전에 가입한 메트라이프와 메리츠화재에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황당했다. 메리츠화재는 일반암 진단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메트라이프는 ‘소액암’(보험사가 일반암보다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약관에 명시한 암)으로 판정해 일반암 진단 보험금의 20%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강씨는 즉각 항의했지만 메트라이프는 자체 실사와 의료 자문에서 대장 상피내암(질병코드는 ‘D코드-소액암’)으로 나온 만큼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씨를 진료한 담당 주치의는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 소견서 발급을 거부했다. 강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br/><br/>대장점막내암과 상피내암의 진단 차이로 발생하는 ‘암보험금 지급 민원’은 보험업계의 관행적 민원 중 하나다. 대장점막내암과 상피내암의 판정 경계가 애매한 데다 보험금이 최고 10배의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상피내암은 내부 장기를 둘러싼 조직(점막)의 표면에서 암이 발생한 것인 반면 대장점막내암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점막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대법원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판결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2012년부터 아예 ‘대장점막내암=소액암’이라는 약관을 내걸고 암 상품을 팔고 있다.<br/><br/>문제는 약관 소급이 불가능한 2012년 이전에 일반암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고객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일단 지급 거부로 고객을 ‘떠보려는’ 보험사의 태도와 보험사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자문의 제도, 허술한 손해사정인제도 등이 얽혀 있어서다. 금융 당국은 사적 분쟁으로 보고 보험사 행정 지도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꺼린다. 민원이 제기되면 조정하면 된다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span class='quot0'>대장점막내암과 상피내암은 의사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진단을 해서 민원을 부를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의가 있는 소비자는) 객관적인 제3 진료기관의 판단을 구하면 된다</span>”고 말했다.<br/><br/>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합리한 금융 관행으로 지목된 ‘보험사 자문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에 맡겨둔 채 여태 뒷짐만 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종사자는 “보험사 자문의와 현장에 파견돼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인, 보조인 등은 일거리를 주는 보험사의 뜻과 다르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br/><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4.txt

제목: 오토바이 타고 세계일주 중인 로맨틱 커플 화제  
날짜: 20141104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919590  
본문: 이보다 더 로맨틱한 여행이 또 있을까?<br/>오토바이만 타고 무려 16개국을 여행한 네덜란드 커플의 일기가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br/>암스테르담에 살던 피에터 그리미닉(33)과 맨디 브랜더(37) 커플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때려 치우고’ 집까지 판 뒤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나섰다. 그들이 선택한 ‘여행 도구’는 다름 아닌 오토바이.<br/>두 사람은 지난 3월 암스테르담을 떠나 동유럽으로 향했고 이후 아시아와 몽골 등지를 오토바이 두 대로 모두 순회했다.<br/>이들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등 생소한 국가까지 빠뜨리지 않고 여행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각지를 밟은 이들의 모습은 사진작가인 맨디가 직접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br/>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으며 곧 인도로 넘어갈 예정인 이들은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과 한 인터뷰를 통해 “일주일간 샤워도 한 번 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엄청난 모래 폭풍이나 영하의 추운 날씨와도 싸워야 했다”면서 “아르메니아에서는 엄청난 폭설 때문에 한동안 이동이 불가능했지만 우릴 며칠씩이나 재워 준 친절한 가족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br/>이어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가장 힘든 지역은 타지키스탄 이었다. 도로 상태가 매우 험했고 화장실도, 샤워실도 찾을 수 없었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더욱 힘들었지만 역시 친절한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아침식사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br/>카자흐스탄에서 지는 해를 등지고 모래 들판을 달리거나 몽골에서 쏟아지는 별 아래 펼친 작은 등불같은 텐트, 흰 눈으로 뒤덮인 타지키스탄에 외롭게 서 있는 오토바이 한 대, 흙탕물을 헤치는 두 사람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다.<br/>두 사람은 “당분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당연히 일자리도 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새로운 탐험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5.txt

제목: 얼룩말 사냥에 실패하고 입맛만 다시는 사자 ‘뻘쭘’  
날짜: 2014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42249191  
본문: 얼룩말 사냥에 실패한 사자의 허탈해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웃음을 주고 있다. <br/><br/>지난달 29일 유튜브에 공개된 해당 장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벌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백수(百獸)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얼룩말 사냥에 실패하는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br/><br/>영상을 보면 얼룩말 무리가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고 있다. 잠시 후 뭔가 천적의 낌새를 느낀 얼룩말들은 하나 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이내 얼룩말들이 놀라며 일제히 달아난다. <br/><br/>암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얼룩말 무리 앞에 등장한 암사자는 한 마리를 타깃으로 정한 채 전광석화 같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목표물이 된 얼룩말 역시 달아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br/><br/><br/><br/><br/><br/>결국 사자는 앞서가는 얼룩말을 따라잡지 못한 채 이내 포기하고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얼룩말의 꽁무니만 바라볼 뿐이다. <br/><br/>잠시 후 사막 한 구석에서 위엄 있는 자태로 앉아 있는 이 암사자는 또 다시 새로운 사냥감을 찾고 있다. 새로운 목표물을 물색하는 사자가 입맛을 다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낸다.<br/><br/>사진·영상=유튜브, Bernhard Bekker<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6.txt

제목: 중년女 하루 30분 운동, 유방암 위험 절반↓ (연구)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900450  
본문: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해주는 중년여성들은 유방암 발생위험이 절반으로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암 역학(cancer epidemiology) 전문 연구진들은 하루 최소 30분 간 에어로빅 등의 운동 활동을 꾸준히 해준 중년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50% 가량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연구진은 영국 내 폐경기 중년여성 1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장·체중, 하루 운동량, 식이습관, 흡연여부, 음주습관 데이터를 수집해 유방암 발병률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 지난 3년에 걸쳐 비교·분석했다.<br/>이후 산출된 통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에어로빅, 줌바 댄스(피트니스 댄스의 한 종류), 스쿼시 등의 운동을 격렬하게 소화한 중년여성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21%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br/>뿐만 아니라, 고도비만 이상인 여성들은 운동을 통해 평균 혹은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 발병위험이 55%가량 높았다. 해당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하루에 최소 30분 간 격렬히 운동시간을 가져주면 전체적으로 유방암을 비롯한 악성질환 발병 위험을 50% 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이와 관련해 옥스퍼드 대학 암 역학 전문가 팀 키 교수는 “<span class='quot0'>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유방암 발병위험을 낮춰주는지는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만 활발한 신체활동이 체내 여성호르몬 분비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 유방암세포 발생 확률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추정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br/>운동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있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의과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지구력·근력 향상 운동에 참여한 중년여성들은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r/>참고로 에스트로겐은 난소 안에 있는 여포와 황체에서 주로 분비돼 생식주기에 영향을 주는 여성호르몬으로 이것이 과다분비 될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번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의 추정과 매우 흡사하다.<br/>팀 키 교수는 “<span class='quot0'>중년기에 들어서도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식이습관을 조절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악성질병 방지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연구결과</span>”라고 덧붙였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7.txt

제목: 오토바이 한대로 16개국 여행한 커플 화제  
날짜: 20141103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851749  
본문: 이보다 더 로맨틱한 여행이 또 있을까?<br/>오토바이 한 대만 가지고 무려 16개국을 여행한 네덜란드 커플의 일기가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br/>암스테르담에 살던 피에터 그리미닉(33)과 맨디 브랜더(37) 커플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때려 치우고’ 집까지 판 뒤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나섰다. 그들이 선택한 ‘여행 도구’는 다름 아닌 오토바이.<br/>두 사람은 지난 3월 암스테르담을 떠나 동유럽으로 향했고 이후 아시아와 몽골 등지를 오토바이 두 대로 모두 순회했다.<br/>이들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등 생소한 국가까지 빠뜨리지 않고 여행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각지를 밟은 이들의 모습은 사진작가인 맨디가 직접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br/>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으며 곧 인도로 넘어갈 예정인 이들은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과 한 인터뷰를 통해 “일주일간 샤워도 한 번 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엄청난 모래 폭풍이나 영하의 추운 날씨와도 싸워야 했다”면서 “아르메니아에서는 엄청난 폭설 때문에 한동안 이동이 불가능했지만 우릴 며칠씩이나 재워 준 친절한 가족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br/>이어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가장 힘든 지역은 타지키스탄 이었다. 도로 상태가 매우 험했고 화장실도, 샤워실도 찾을 수 없었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더욱 힘들었지만 역시 친절한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아침식사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br/>카자흐스탄에서 지는 해를 등지고 모래 들판을 달리거나 몽골에서 쏟아지는 별 아래 펼친 작은 등불같은 텐트, 흰 눈으로 뒤덮인 타지키스탄에 외롭게 서 있는 오토바이 한 대, 흙탕물을 헤치는 두 사람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다.<br/>두 사람은 “당분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당연히 일자리도 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새로운 탐험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8.txt

제목: “지중해식 식사, 신장질환에도 효과” (美 연구)  
날짜: 2014110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750933  
본문: 아름답고 넓은 바다 덕분에 해산물이 풍부한 지중해.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요리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줘 이 지역에서는 질병 발생률이 낮다. 그런 식생활을 도입한 지중해식 식사는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올리브유가 주로 쓰이는 데 생선 속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하는 것을 막아준다. 또 치즈 등 저지방 유제품을 소량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 곡물을 되도록 많이 섭취하고 레드 와인 한두 잔을 곁들이기도 한다. 레드 와인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함유돼 있어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br/>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사가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심장 질환이나 혈전, 알츠하이머, 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런 지중해식 식사가 신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미국 컬럼비아대 의료센터의 미네쉬카트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참가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사를 하게 하고 이들을 7년간 추적 조사했다.<br/>참가자들에게는 지중해 식단의 주요 음식인 과일과 채소, 생선, 콩류, 심장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 많이 섭취하도록 했지만, 붉은 고기와 가공 제품, 당분은 제한하도록 했다.<br/>그 결과, 모든 참가자에게서 신장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17% 낮아졌다. 특히 이 식단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은 50%까지 위험이 줄었으며 이와 동시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확률은 42%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br/>이에 대해 연구팀의 줄리 린 박사는 “<span class='quot0'>지중해식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런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평소 운동하는 습관이 동반돼야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신장학회(ASN)가 발행하는 학술지 ‘미국신장학회임상저널’(CJASN·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에 지난 30일 자로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59.txt

제목: [아하! 우주] 암흑물질이 증발되고 있다고?  
날짜: 2014110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652123  
본문: 우주는 결국 텅 빈 공간이 될 것인가<br/>수수께끼 같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집어삼켜 결국엔 텅 비고 지루한 우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과학자들은 우주라는 구조물의 비계(scaffold·시공 단계에서 설치하는 가설물)인 암흑물질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br/>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최신 천문 데이터가 암흑 에너지가 암흑물질과 상호작용해서 우주 구조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br/>포츠머스 우주론중력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원즈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시공간의 기본 특성에 관한 것으로, 우주적인 규모에서 볼 때 우리 우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주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br/>그는 “<span class='quot0'>만약 암흑 에너지가 이대로 계속 커지는 가운데 암흑물질이 증발돼 버린다면, 우리 우주는 결국 텅 빈 공간이 되고 말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동공이 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암흑물질은 우주 구조에 틀을 제공하는 존재로 알려졌지만,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정체 모를 힘이다.<br/>또 그는 “<span class='quot0'>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들은 암흑물질이라는 비계 속에 지어진 것이며,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 암흑물질이 서서히 증발돼 우주 구조의 성장을 감속시키고 있다는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br/>“<span class='quot1'>1998년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span>”고 말하는 원즈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span class='quot1'>시공간에 두루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의 양, 곧 우주 상수라는 아이디어는 우주론의 표준 모델이 됐다</span>”<br/>하지만, 포츠머스와 로마의 대학 연구자들은 이보다 진전된 패러다임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다. 바로 암흑 에너지와 암흑물질 간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이다.<br/>연구팀은 “1990년대 말 이래로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무엇인가가 분명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가장 단순환 설명은 우주 공간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라는 가설”이라면서 “이른바 우주 상수로 불리는 진공 에너지다”고 설명했다.<br/>이어 “어쨌든 이런 단순한 모델로는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데이터들을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은하단과 은하들의 성장, 즉 우주 구조의 성장이 예상보다 느리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br/>이에 대해 미시건 대학의 드래건 헌터러 교수는 “이 논문은 대단히 흥미롭다. 암흑물질에 관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아무리 생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이어 “상호작용이 없는 가장 단순한 모델에 비해 다른 결론이 나왔지만, 어쨌든 나는 이 논문의 결론에 놀랐다고 말하진 않겠다. 표준 모델의 모든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것이 몇 달 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br/>이번 연구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 같은 놀라움을 나타내며, “우주는 정말 불가사의다” “<span class='quot2'>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을 잡아먹는다니 정말 충격적</span>”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br/>이광식 통신원 joand999@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0.txt

제목: 조기 발견 어려운 췌장암, 혈액 검사로 진단 가능 -美연구  
날짜: 2014110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632942  
본문: 췌장암이라고 하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초기 단계에 딱히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br/>따라서 증상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어서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한다.<br/>그런 췌장암을 혈액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미국 인디애나대학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세계적 학술지 미국소화기학회 공식저널(AJG·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발표했다.<br/>▶혈장의 RNA 분자에 주목<br/>이 새로운 방법은 혈장에 포함된 RNA단편(microRNA)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RNA 분자 10b, 155, 106b가 많이 포함돼 있으면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연구팀은 실제 췌장암 환자 215명의 혈장과 간즙, 췌액을 분석해 위의 RNA 분자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br/>▶혈청 마커와 병용도<br/>연구팀의 교신저자인 머레이 콕 교수는 “<span class='quot0'>췌장암 진단 검사로서 실용화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미래에는 이 기술이 진단 검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span>”고 말했다.<br/>이어 “검사에 RNA단편 뿐만 아니라 다른 혈청 마커와도 결합해 사용하면 매우 이른 초기 단계에서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한편 미국 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으로 진단 뒤 5년 이상 생존자는 5%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신기술이 실용화되길 기대해본다.<br/>출처=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http://www.nature.com/ajg/journal/vaop/ncurrent/full/ajg2014331a.html)<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1.txt

제목: [아하! 우주] 암흑물질이 증발되고 있다고?  
날짜: 2014110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630184  
본문: 우주는 결국 텅 빈 공간이 될 것인가<br/>수수께끼 같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집어삼켜 결국엔 텅 비고 지루한 우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과학자들은 우주라는 구조물의 비계(scaffold·시공 단계에서 설치하는 가설물)인 암흑물질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br/>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최신 천문 데이터가 암흑 에너지가 암흑물질과 상호작용해서 우주 구조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br/>포츠머스 우주론중력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원즈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시공간의 기본 특성에 관한 것으로, 우주적인 규모에서 볼 때 우리 우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주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br/>그는 “<span class='quot0'>만약 암흑 에너지가 이대로 계속 커지는 가운데 암흑물질이 증발돼 버린다면, 우리 우주는 결국 텅 빈 공간이 되고 말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동공이 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암흑물질은 우주 구조에 틀을 제공하는 존재로 알려졌지만,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정체 모를 힘이다.<br/>또 그는 “<span class='quot0'>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들은 암흑물질이라는 비계 속에 지어진 것이며,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 암흑물질이 서서히 증발돼 우주 구조의 성장을 감속시키고 있다는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br/>“<span class='quot1'>1998년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span>”고 말하는 원즈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span class='quot1'>시공간에 두루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의 양, 곧 우주 상수라는 아이디어는 우주론의 표준 모델이 됐다</span>”<br/>하지만, 포츠머스와 로마의 대학 연구자들은 이보다 진전된 패러다임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다. 바로 암흑 에너지와 암흑물질 간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이다.<br/>연구팀은 “1990년대 말 이래로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무엇인가가 분명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가장 단순환 설명은 우주 공간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라는 가설”이라면서 “이른바 우주 상수로 불리는 진공 에너지다”고 설명했다.<br/>이어 “어쨌든 이런 단순한 모델로는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데이터들을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은하단과 은하들의 성장, 즉 우주 구조의 성장이 예상보다 느리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br/>이에 대해 미시건 대학의 드래건 헌터러 교수는 “이 논문은 대단히 흥미롭다. 암흑물질에 관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아무리 생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이어 “상호작용이 없는 가장 단순한 모델에 비해 다른 결론이 나왔지만, 어쨌든 나는 이 논문의 결론에 놀랐다고 말하진 않겠다. 표준 모델의 모든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것이 몇 달 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br/>이번 연구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 같은 놀라움을 나타내며, “우주는 정말 불가사의다” “<span class='quot2'>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을 잡아먹는다니 정말 충격적</span>”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br/>이광식 통신원 joand999@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2.txt

제목: 프랑켄슈타인서 미인으로…18세 소녀 사연  
날짜: 2014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546244  
본문: 지난 1818년, 영국 여성작가 M.W.셸 리가 발표한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은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죽은 이들의 뼈로 신장 244㎝에 달하는 괴물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의 괴기소설로 현대 공포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br/>특히 해당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는데 1931년 개봉된 버전에서 영국 배우 보리스 카를로프가 분장한 목에 나사가 박혀 제대로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괴물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형태다. 참고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이 피조물을 창조한 스위스 출신 물리학자의 이름이지만 대부분 괴물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자주 쓰인다.<br/>그런데 최근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형태에서 미인으로 되돌아간 극적인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20개의 종양이 목에 발생해 마치 스스로를 프랑켄슈타인처럼 여겼지만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뒤 미인대회에 출전해 결승까지 오른 18세 소녀 클레멘타인 허커비의 사연을 31일(현지시간) 소개했다.<br/>예쁜 외모에 활발한 성격을 지녔던 클레멘타인은 승마선수로 활동하며 언제나 침실에서 일찍 일어나 훈련에 나가는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 6월, 그녀는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찍 일어나지 못했고 몸 속 에너지가 어디론가 방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무엇을 삼키거나 목소리를 낼 때도 고통이 찾아왔다.<br/>심상치 않은 느낌에 병원을 찾은 클레멘타인에게 의사가 내린 진단은 ‘갑상선 암’이었다. 컴퓨터 단층검사 결과, 20개의 종양이 그녀에 목에서 발견됐으며 그중 가장 큰 것은 귤 정도의 크기였다. 남은 것은 방사성 요오드 처리요법과 수술뿐이었다.<br/>다행히도 수술경과는 좋았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지만 클레멘타인의 몸에는 왼쪽 목부터 귀까지 길게 이어진 수술흉터가 남게 됐다. 그녀는 “마치 내가 프랑켄슈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br/>평소 외모에 자신감이 많았던 클레멘타인은 영화 속 괴물 같은 흉터가 평생 갈 것이라는 생각에 큰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소중하게 되찾은 건강에 감사하며 그녀가 살고 있는 잉글랜드 남서부 우스터셔 미인대회에 참가한 것이다.<br/>놀랍게도 그녀는 오는 2일 개최되는 ‘미스 우스터셔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병마와 흉터에 자신감 있게 맞선 용기가 준 선물인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대회에 참가한 다른 소녀들처럼 나 역시 최종우승을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해당대회에 출전한 가장 큰 이유는 갑상선 암의 위험성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대중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3.txt

제목: 유방암 발병 높은 대한민국, 한국인에 맞는 암치료 소개  
날짜: 20141031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333607  
본문: 한국 유방암 발생률이 일본을 앞서며 동아시아 국가 중 최고 자리에 올랐다.<br/>한국유방암학회가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발표한 '한국인 유방암의 국내외 최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지난 2008년 10만명당 38.9명에서 지난 2012년 10만명당 52.1명꼴로 크게 증가했다.<br/>한국인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예방과 치료법이 관심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체 부담을 줄이고 재발과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한방암치료법을 소개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br/>최근 발간된 ‘유방암, 당신의 방심을 노린다’는 한방면역요법으로 수많은 암환자를 치료해 온 김성수 한의학박사의 저서로, 유방암을 물리치는 12주 한방면역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실제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들의 유방암 극복 스토리를 담고 있다.<br/>김성수 한의학박사는 “유방암은 ‘착하고 느린 암’이라는 인식 때문에 치료에 방심하기 쉽다. 하지만 재발과 전이가 빈번한데다 정신적 고통까지 크기 때문에 종양뿐만 아니라 재발과 전이 예방, 나아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br/>한편 소람한방병원 여성암센터 대표원장으로 재직중인 김성수 한의학박사는 KBS 아침마당 등 각종 방송출연은 물론 ‘12주한방면역요법’, ‘위암, 먹어야 산다’ 등을 집필한 바 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4.txt

제목: 포장이사 서비스의 ‘명’과 ‘암’…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날짜: 20141031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33900643  
본문: 포장이사 서비스의 대중화로 이사문화에 편리성이 더해졌지만 실상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br/><br/>오늘날 포장이사는 전문적인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서비스 영영 또한 사무실이사, 가정이사, 원룸이사, 용달이사, 포장이사 등으로 다양화됐다. 하지만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량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br/><br/>특히 최근 이사성수기로 불리는 가을철을 맞아 반짝 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들의 횡포와 폭리 문제를 비롯해 계약불이행, 화물 분실·파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br/><br/>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삿짐센터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가격이나 비용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나 소비지 만족도, 업체 신뢰도 등의 면에서 꼼꼼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작정 저렴한 견적서를 제시하는 업체라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br/><br/>편리한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이사업체에 대한 사업자의 주소, 인적 사항, 평판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또 포장이사 계약 시에는 서비스 내역과 특이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br/><br/>특히 소비자들의 주요 피해가 화물파손 및 분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분쟁 우려가 있는 이사화물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업체에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br/><br/>또한 만에 하나 화물이 파손 훼손됐을 경우, 배상과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의 처리 규정과 피해 보험 가입 여부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br/><br/>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토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사후처리로 신뢰성을 높여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가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br/><br/>이에 국내 이사문화를 선도해온 ‘YES24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절차의 체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포장작업 시 베테랑 전문 포장이사팀이 규정된 포장박스와 도구를 이용해 물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포장을 진행하고 있다.<br/><br/>또한 운반작업 과정에서 물품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패드, 비닐, 수레 등을 이용하며 도착지 정리작업은 가구 및 가전, 욕실, 부억 등을 포함해 업체 측이 포장한 물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사전 통보 받아 특별 관리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br/><br/>각종 생활서비스도 세분화했다. 미세 먼지와 각종 세균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클리닝서비스, 에어컨 이전 및 설치, 인테리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br/><br/>예스24서비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120여개 전국지점 네트워크 구축해 소비자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어디든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투명한 온라인견적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이면서 안전과 위생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span>”고 말했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5.txt

제목: 소리없이 다가오는 폐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날짜: 2014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33755258  
본문: 탄생과 함께 시작된 ‘숨’은 죽음과 함께 멈춘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폐’(허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폐는 위태롭다. 폐에 생기는 암 탓이다. 폐암은 암의 사망률 가운데 수위를 지키고 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다른 암들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폐암은 그렇지 않다.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다 발견되면 이미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용히 소리 없이 아무 증상도 없이 오지만 가장 치명적이기에 고약하고 무서운 병이 바로 폐암이다. <br/><br/>31일 밤 9시 50분 방영되는 EBS ‘명의’의 ‘암, 희망을 이야기하다-폐암’편은 병기에 맞는 치료와 환자별 맞춤 수술로 완치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질까지 고민하는 의료현장을 다룬다.<br/><br/>흡연하는 남성만 폐암에 걸린다는 건 옛말이다. 남성 암 사망률 1위는 폐암(49.5%)이다. 현재 국내 전체 폐암 환자 중에는 편평상피세포암보다 선암 환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폐암은 남성 흡연자들의 병이라는 생각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 암 사망률 1위 역시 폐암(18.9%)이다. 평소 기침 한 번 없이 건강을 자부했던 환자가 폐암 진단을 받기도 한다. 수술 가능한 병기의 환자는 단 25%뿐이다. 수술로 폐를 절제한 환자는 전과 다른 폐활량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재발을 걱정해야 한다. <br/><br/>폐암 수술 분야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심영목 교수는 그간 2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은 단순히 병 치료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가 의도하는 것은 환자가 살아가면서 최대한 숨이 가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프로그램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한다.<br/><br/>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6.txt

제목: 국내 연구팀 자궁경부전암 세계 첫 백신 치료 성공  
날짜: 2014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33622750  
본문: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 치료 백신을 개발해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전암’ 환자 치료에 성공했다. 수술이 아닌 백신 형태로 자궁경부전암을 치료한 것은 세계 최초다. <br/><br/>성영철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김태진 제일병원 교수팀과 함께 자궁경부전암 후기 환자 9명에게 유전자(DNA) 치료 백신 ‘GX-188E’를 투여하는 임상 1상 시험을 실시한 결과 7명(78%)이 완치됐다</span>”고 3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다. <br/><br/>유방암에 이어 전 세계 여성암 발병 2위인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전암 단계를 거친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원인이며 HP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이미 개발돼 있다. 하지만 이 백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자궁경부전암에 걸릴 경우 자궁경부 병소를 제거하는 원추절제수술로만 완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조산, 유산, 불임,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높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못하면 재발할 우려도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HPV에 감염된 여성은 약 3억명, 전암 상태로 진행된 환자는 3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자궁경부전암 관련 의료시장도 연간 5조원 수준이다. <br/><br/>연구팀은 HPV에만 작용하는 킬러 T세포를 만들어내는 백신을 개발했다. 이 T세포는 정상 세포와 감염된 세포를 가려내 감염된 세포만을 죽이게 된다. 이 백신은 어깨의 근육 부위에 주사하도록 만들어졌다. <br/><br/>성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자궁경부전암 환자들은 20~35세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임신율 및 출산율을 높일 수 있어 백신을 하루빨리 상용화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현재 박종섭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교수팀이 72명의 자궁경부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럽 및 미국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br/><br/>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7.txt

제목: 미용학원 아름다운 사람들, 2015 S/S 서울패션위크 협찬  
날짜: 20141030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5125382  
본문: 뷰티스쿨 아름다운 사람들(대표 박정구)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5 S/S 서울 패션위크에 메이크업 후원사로 참여했다. 2000년 처음 시작된 서울 패션위크는 대한민국 최고 디자이너들의 비즈니스 행사이자 정상급 디자이너 패션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패션 컬렉션 무대이다.<br/>아름다운 사람들은 17일 열린 디자이너 서병문&엄지나(BYUNGMUN SEO), 한현민(MUNN), 최무열(VLADES), 김무홍(MOOHONG), 김태근(YOHANIX)의 무대에 서는 모델들의 메이크업을 협찬했으며 의상 및 무대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뛰어난 메이크업 실력을 선보이며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br/>암스테르담을 여행하는 청춘들에게 헌사 하는 의상을 선보인 디자이너 한현민의 무대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에 집중했고, 블랙과 화이트의 모노톤의 색상과 직선적인 실루엣이 어울린 의상을 선보인 최무열 디자이너의 무대에는 의상과 어우러지도록 창백하면서도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선택했다.<br/>또한 동양적인 스타일에 모노톤의 색상을 더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듯한 디자이너 서병문&엄지나의 무대에서는 파운데이션과 페이스 오일을 활용해 글로시한 컨셉의 메이크업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br/>아름다운 사람들 미용학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국내 최대 패션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 메이크업 협찬을 할 수 있어 뜻깊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수강생들이 패션위크처럼 유명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유능하고 개성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br/>한편, 아름다운 사람들은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 피부미용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토탈 미용학원으로 지난 17년 동안 우수한 미용인을 배출해낸 미용 전문 교육기관이다. 국내 35개 캠퍼스를 운영 중으로 미용학원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미용학원으로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인증 ISO-9001을 획득했다.<br/>또한 오는 11월 16일 열리는 제1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미용사(네일) 검정 필기시험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일아트 국가자격증반을 개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아름다운 사람들의 프렌차이즈 네일샵 ‘네일닥터’를 오픈함으로써 아름다운 사람들 수강생들의 국가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네일닥터는 11월, 1호점인 신사동 가로수길점을 시작으로 오는 12월에는 2호점 압구정 로데오거리점을 오픈할 예정이다.<br/>현재 아름다운 사람들 미용학원은 강남, 노원, 영등포, 종로, 천호, 구리, 부천, 분당,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이천, 일산, 파주, 인천(동인천, 부평), 강릉, 대전, 서산, 천안, 부산 남포, 울산, 경주, 구미(원평, 인동), 김해, 대구, 진주, 창원, 광주, 순천, 익산, 평택, 전주 등 전국 35여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신림, 목포, 포항, 청주, 부산서면에 새로운 지점을 열 예정이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8.txt

제목: 동명의 베스트셀러 영화 ‘꾸뻬씨의 행복여행’ 티저 예고편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33214121  
본문: “<span class='quot0'>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span>”<br/><br/>영화 ‘꾸뻬씨의 행복여행’이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br/><br/>영화는 주인공인 정신과 의사 ‘헥터’(사이먼 페그)가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가 궁금해진 그는 모든 걸 제쳐두고 훌쩍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br/><br/>그는 여행 중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상하이의 사업가’와 ‘가족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아프리카 마약 밀매상’,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난 말기암 환자’, 그리고 ‘가슴 속에 간직해둔 첫사랑’ 등 다양한 인연들의 만남을 통해 행복 리스트를 완성해 나간다.<br/><br/>이처럼 영화는 매일 자신의 불행을 외치는 환자들을 상대하는 정신과 의사 ‘핵터’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br/><br/><br/><br/><br/><br/>최근 ‘꾸뻬씨의 행복여행’의 배급을 책임진 그린나래미디어측이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한 편의 뮤직비디오와 같은 예고편은 영화의 줄거리를 잔잔히 담아내 그 자체로 힐링 무비 역할을 하고 있다.<br/><br/>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 ‘꾸뻬씨의 행복여행’은 영화 ‘세런디피티’와 ‘쉘 위 댄스’를 연출한 피터 첼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br/><br/>사진·영상=그린나래미디어<br/><br/>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69.txt

제목: 병마와 사투, 세상과 화해… 시인의 마지막 인사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32117930  
본문: ‘이것저것 끌어모아 시집을 낼까 두렵다. 그래서 작은딸의 힘을 빌려 눈에 뜨이는 원고부터 힘겹게 정리했다. 부끄러운 수준이다. 혹시 시간 지나 책이 되어 나오면 용서 바란다. 그리고 잊어 주길 바란다.’<br/><br/><br/><br/><br/><br/>지난 7월 작고한 김종철 시인이 임종 전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쓴 유고시집 ‘절두산 부활의 집’(문학세계사)의 서문이다. 1968년 등단 이후 46년간 천착해온 시도, 사람들도, 삶도 모두 내려놓고 떠나려는 심정이 묻어난다. 시인은 떠났지만 그의 시는 남았다. 유고시집엔 시인의 마지막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br/><br/>시인은 지난해 7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 3월엔 한국시인협회장에 취임하기까지 했다. 시의 달 제정, 시인의 마을 조성, 시문학 전문지 부활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러다 지난 5월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됐다. 시인은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조만간 의식조차 사라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임종 한 달 전쯤부터 둘째딸 시내씨와 함께 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간의 시도 다시 다듬고, 투병 중의 심정도 한자 한자 시로 옮겼다.<br/><br/>‘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주사실에 들렀다/칸칸이 놓인 빈 침대의/허연 슬픔이 나를 맞았다’(암 병동에서) <br/><br/>‘매일 아침/기도가 머리에서 한 움큼씩 빠졌다/마른 장작처럼 서서히 굳어 가는 몸/한 방울씩 스며든 항암 주사액에/생의 마지막 잎새까지 말라 버렸다.’(나는 기도한다)<br/><br/>‘몸과 마음을 버려야만 비로소 머물 수 있는 곳/아내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와 시안에도 들렀다/(중략) 부활의 집 지하3층에서/망자와 함께 이제사 천상의 집 지으리라’(절두산 부활의 집)<br/><br/>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도 정리했다. ‘커브 볼 세 개로/집사람 노후 대책/어린 손자 미래 보기/그리고 지인과 작별 준비하고/위협구인 빈볼 하나쯤으로/세상과 화해하고/일곱 번째는 직구로/꼭 가고 싶은 곳을 찾고/(중략) 일생의 마운드에서/결코 교체되지 말아야 할 나는 패전투수/열 개의 버킷리스트로 기록된 자책점들!’(버킷리스트)<br/><br/>시인 곁에서 시집을 정리하며 마지막을 함께 했던 시내씨의 회고담이다. “아버님은 예전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셨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없다는 걸 알게 된 뒤 이승의 삶을 떠나 영적 세상에 모든 걸 맡기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하신 것 같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다.”<br/><br/>시인은 ‘병을 얻자 멀쩡한데도 따라서 투병하고 길면 6개월에서 1년 주치의 암 선고 들었던 날 밤 애써 웃었던’(언제 울어야 하나) 아내를 눈을 감는 순간에도 잊지 못했다. “혼자 남은 아내가 마음에 걸린다. 잘 부탁한다.”<br/><br/>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0.txt

제목: 산삼배양기 ‘심마니’로 집에서 길러 먹는 110년 산삼!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30641493  
본문: 산삼은 예로부터 최고의 보양식으로 알려져왔다. 산삼은 원기를 보호하고 혈액생성을 왕성하게 해줘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한다. 또한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체액을 충당시켜 갈증을 해소해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된다. 이 외에도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관, 체내 독소 제거 등 다양한 효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산삼이다.<br/><br/>산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항암 및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진세노사이드는 항염증작용 및 종양 증식 억제 작용, 암 전이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삼은 암환자들이 자주 찾는 식품이다. 또한 기억력 증진작용 및 피로회복 촉진작용, 스트레스성 행동장애 개선 작용 효과가 있어 수험생에게도 좋은 것이 산삼이다.<br/><br/>산삼은 인삼의 원종으로 사람에 의해 밭에서 길러진 것을 인삼, 태생적으로 산에서 자라난 삼을 산삼이라고 부른다. 산삼은 야생에서 자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 순수종인 100년 이상 된 산삼은 전문 심마니도 발견하기 어렵다. 100년 이상 된 산삼은 1~2년에 한 두 뿌리 정도 밖에 나오질 않아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 때문에 시중에서는 산삼 조직을 떼어내 배양근을 만들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재배 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없어 유전자 조작이나 농약 투여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식회사 ACT는 산삼배양근을 집에서 직접 기를 수 있는 산삼배양기 ‘심마니(SIMMANI)’를 출시했다. <br/><br/>심마니(SIMMANI)의 산삼배양근은 한국산삼감정평가 협회에서 3억원 가치로 인증 받은 110년된 산삼을 원형으로 한다. 즉, 소비자들은 110년된 산삼의 효능을 그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이 배양근은 국내외 공익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독성, 유전자조작이 없다는 것을 검증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사용가능허가를 받았다. 이 산삼배양근은 70g씩 팩에 담아 판매된다.<br/><br/>가정용 산삼 배양기 심마니(SIMMANI)는 산삼을 기르는 데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 및 빛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세균을 걸러내는 무균 시스템과 청정 제균 에어 공급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은 센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계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작동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배지성장 영양액도 최적의 성분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산삼을 키우는데에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br/><br/>한편,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ACT는 11월 17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홀 208홀에서 산삼배양기 ‘심마니(SIMMANI)’의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br/>문의: 1800-1103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1.txt

제목: [TV 하이라이트]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30503873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KBS1 밤 10시)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햇빛은 현대에 들어 피부노화 유발 등을 이유로 어느새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 그러나 산모와 태아의 건강, 어린이 성장에 도움이 되고 대사성 질환과 암 예방까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평소 햇볕을 쬐지 않는 40,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햇볕쬐기 실험을 통해 이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관찰한다.<br/><br/><br/>■황금어장 라디오 스타(MBC 밤 11시 15분) 싱어송라이터 고(故) 유재하 27주기를 맞아 ‘유재하이기 때문에’ 특집으로 꾸며진다. 1987년 11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싱어송라이터 유재하와 생전 친분이 두터웠던 피아니스트 김광민이 함께한다. 또한 ‘빛과 소금’의 멤버인 장기호,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의 수상자 조규찬, ‘원모어찬스’ 박원이 출연해 유재하와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공개한다.<br/><br/><br/>■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SBS 밤 10시) 재영(김진우)은 프리랜서로 지내는 세나(크리스탈)에게 정식 계약을 제안한다. 하지만 세나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그녀의 친언니 소은(이시아)과 친했던 사이라며 예전에 소은이 일했던 곳으로 세나를 부른다. 한편 재영과 세나의 만남이 잦아지자 불안해진 현욱(정지훈)은 세나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는데….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2.txt

제목: 신해철 부인에 남긴 유언장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 마왕 신해철 별세 눈물바다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656858  
본문: 신해철 유언장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네티즌·팬 눈물 바다<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br/><br/>신해철은 2011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br/><br/>이어 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br/>그는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한편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br/><br/>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신해철 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br/><br/>당시 소속사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br/><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잊지 않을게요</span>”,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화가 난다</span>”,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기적을 바랐는데</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3.txt

제목: 신해철 부인에게 남긴 유언장, 암투병 이겨냈던 결혼사진…마왕 신해철 별세 눈물바다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558654  
본문: 신해철 유언장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네티즌·팬 눈물 바다<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br/><br/>신해철은 2011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br/><br/>이어 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br/>그는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한편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br/><br/>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신해철 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br/><br/>당시 소속사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br/><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잊지 않을게요</span>”,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화가 난다</span>”,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기적을 바랐는데</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4.txt

제목: 신해철 부인에게 남긴 유언장, 암투병 이겨낸 결혼사진…마왕 신해철 별세 눈물바다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606706  
본문: 신해철 유언장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네티즌·팬 눈물 바다<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br/><br/>신해철은 2011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br/><br/>이어 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br/>그는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한편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br/><br/>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신해철 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br/><br/>당시 소속사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br/><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잊지 않을게요</span>”,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화가 난다</span>”,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기적을 바랐는데</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5.txt

제목: 신해철 부인에게 남긴 유언장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마왕 신해철 별세 눈물바다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501518  
본문: 신해철 유언장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네티즌·팬 눈물 바다<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br/><br/>신해철은 2011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br/><br/>이어 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br/>그는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한편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br/><br/>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신해철 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br/><br/>당시 소속사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br/><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br/><br/><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잊지 않을게요</span>”,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화가 난다</span>”, “<span class='quot2'>마왕 신해철 별세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기적을 바랐는데</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6.txt

제목: 신해철 사망 “아이들 생기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자살충동도 치유” 눈물의 유언장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118274  
본문: 신해철 사망 “아이들 생기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자살충동도 치유” 눈물의 유언장<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br/><br/>신해철은 2011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 <br/><br/>이어 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br/>그는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한편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 <br/><br/>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신해철 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 <br/><br/>당시 소속사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 <br/><br/><br/><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신해철 사망, 유언장 너무 슬프다</span>”, “<span class='quot2'>신해철 사망, 유언장 미리 작성해뒀다니</span>”, “<span class='quot2'>신해철 사망, 유언장 내용 가슴이 아려서 못 보겠어</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7.txt

제목: 신해철 유언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너무 행복해서 자살충동도 치유”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100635  
본문: 신해철 유언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너무 행복해서 자살충동도 치유”<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br/><br/>신해철은 2011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 <br/><br/>이어 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br/>그는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한편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 <br/><br/>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신해철 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 <br/><br/>당시 소속사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 <br/><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8.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하늘도 울고 팬도 울었다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037086  
본문: 신해철 유언장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하늘도 울고 팬도 울었다<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안타깝게 사망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네티즌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br/><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육성을 담은 영상을 남겼다. <br/><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한편 신해철은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다. <br/><br/>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 <br/><br/>당시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79.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네티즌·팬 눈물 바다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035163  
본문: 신해철 유언장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네티즌·팬 눈물 바다<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br/><br/>신해철은 2011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br/><br/>이어 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br/>그는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한편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br/><br/>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신해철 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br/><br/>당시 소속사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br/><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0.txt

제목: 신해철 사망 뒤 ‘영상 유언장’ 화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눈물 바다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5047203  
본문: 신해철 사망 뒤 영상 유언장 화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남편” 눈물 바다<br/><br/>‘마왕’ 신해철이 27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공개돼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br/><br/>신해철은 2011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영상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내 유언장이다</span>”라고 말했다. <br/><br/>이어 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br/><br/>그는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고 말했다. <br/><br/>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r/><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 당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 씨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br/><br/><br/><br/>한편 신해철은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8시 19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br/><br/>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입원 중이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의료진이 사인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신해철 씨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한 뒤 응급 수술을 포함해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신해철 씨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신해철이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다.<br/><br/>당시 소속사는 “의료진이 부어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장 상태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후 신해철은 동공 반사가 없는 의식 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br/><br/>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br/><br/>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1.txt

제목: 대한소화기학회장에 장영운 교수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4603606  
본문: ‘헬리코박터 감염 관련 위장관질환 분야 권위자인 경희대병원(병원장 임영진) 소화기내과 장영운 교수가 27일 대한소화기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년. 신임 장 회장은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제2차 평의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추대받은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학회 측이 밝혔다. 장 회장은 암 발생에 관여하는 한국인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논문 등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위암환자 직계가족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암 발생의 중요 원인인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목받기도 했다. <br/><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2.txt

제목: 얼마나 그리웠으면… 태범이 만나러 하늘나라 간 말기암 아빠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4539036  
본문: 27일 경기 안산 한도병원 장례식장. 흰 국화로 뒤덮인 영정사진 속에 중년 사내가 활짝 웃고 있었다. 검정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아내는 부축을 받아가며 향을 피우고 술을 올렸다. 입관식을 갓 끝낸 뒤라 슬픔으로 거동조차 힘들어 보였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두덩이 부어오른 두 딸은 영전에 마지막 절을 올렸고, 친척 20여명이 뒤따랐다.<br/><br/><br/>고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단원고 2학년 5반 인태범군의 아버지 인병선씨. 아들을 잃은 지 3개월 만인 지난 7월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안산 사랑의병원에서 투병하던 인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아들 곁으로 떠났다.<br/><br/><br/>고인의 막내 남동생은 “형이 태범이를 잃고 언젠가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었으나 낫질 않았다”고 말했다. “형님이 장남이고 태범이가 장손이에요. ‘장손인 태범이가 (이제) 없어서 명절에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고 형이 말했었는데….” 멍하니 영정을 바라보던 인씨는 끝내 말끝을 흐렸다.<br/><br/><br/>고인의 큰딸(22)은 평생 딱 한 번, ‘동생 입관하던 날’ 눈물을 보인 아버지를 떠올렸다. 큰딸은 “동생이 가고서 우리는 펑펑 울었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속으로만 삭이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간 뒤 어렴풋이 ‘아빠나 엄마가 잘못 되면 어떡하지’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악몽도 많이 꿨는데…”라며 고개를 떨궜다. 딸들에게 유난히 자상했던 아버지와, 멀리 기숙사 있는 학교에 가는 누나를 위해 A4 용지 가득 편지를 써 주던 다정한 동생을 떠올리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br/><br/><br/>빈소에는 단원고 2학년 학부모 10여명이 찾아와 고인을 떠올렸다. 고 정이삭군의 아버지는 “3주 전쯤 5반 학부모들이 함께 병문안을 갔었는데, 담당 의사가 ‘한 달’을 얘기하더라”며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는데, 아들을 잃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고 김성현군의 어머니 한경숙씨는 “<span class='quot0'>어젯밤 소식을 듣고서 우리끼리 충격에 휩싸여 ‘건강 조심하자’는 얘기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식) 한 명 잃은 걸로도 슬픈데 나까지 잘못되면 남은 사람이 더 힘들어지니까</span>”라고 말했다. 다른 유가족은 “태범이 엄마도 지금 산송장이나 다름없다”며 함께 슬퍼했다.<br/><br/><br/>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인씨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트위터 아이디 ‘woody\*\*\*’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드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라며 고인을 추모했다.<br/><br/><br/>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3.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갑자기 죽으면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하니까…” 가슴 아픈 현재 상태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4139557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4.txt

제목: 위장관 감염질환 권위자 장영운 교수 대한소화기학회장 선임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4026906  
본문: 　‘헬리코박터 감염 관련 위장관질환 분야 권위자인 경희대병원(병원장 임영진) 소화기내과 장영운 교수가 27일 대한소화기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년.<br/><br/>신임 장 회장은 최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제2차 평의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추대받은 회장직을 수락했다.<br/>　장영운 회장은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된 위장관질환 분야 권위자’로 명망이 높다. 암 발생에 관여하는 한국인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논문 등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위암환자 직계가족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암 발생의 중요 원인인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br/>　장 회장은 제20차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우수구연상을 수상했으며, 제19차 유럽소화학회에서 톱 포스터에 선정돼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2011~2012년판’에 등재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5.txt

제목: 신해철 부인 윤원희, 암 투병 중 결혼한 이유보니 ‘감동’..신해철 상태는?  
날짜: 20141027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3909231  
본문: ‘신해철 부인, 신해철 상태’가수 신해철이 6일째 의식불명인 가운데, 신해철 부부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재조명되고 있다.신해철은 지난 2011년 KBS2 ‘승승장구’에서 부인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신해철은 지난 1997년 넥스트 해체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현지에서 부인 윤원희 씨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회사원으로 뉴욕 스미스대학교를 졸업,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일본지사에서 일했다. 신해철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2년간 열애를 했고 지난 2002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신해철은 “미국에서 처음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장장 3개월간 뉴욕과 일본을 오가는 초장거리 연애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아내와 미국에서 연애를 하던 중,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저쪽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테니 수술 경과보고 결혼하지 말고 먼저 결혼하고 다 같이 힘을 합치자’하시며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셨다”고 말해 감동을 준 바 있다.한편 신해철은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장협작증 수술 부위를 개복,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혈압은 안정됐지만 아직 의식이 없고, 동공반사도 없는 위중한 상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6.txt

제목: 은퇴자 88.4%·준비자 77.8% “경제적 여유 없다”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3041750  
본문: ‘은퇴자의 현실과 은퇴준비자의 희망사항, 그 격차는 얼마나 될까.’ <br/><br/>은퇴부부의 월 생활비 기대치는 은퇴 준비자가 은퇴자보다 20만원가량 더 많았다. 건강도 은퇴 준비자가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의 희망 수명(은퇴자 85.3세, 은퇴 준비자 84.5세)은 되레 은퇴자가 높았다. 향후 질병 발병 가능성에서는 은퇴자가 뇌졸중(20.0%)을, 은퇴준비자는 암(19.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수년째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순위는 암이다. 거동을 불편하게 하는 뇌졸중에 대한 은퇴자의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는 은퇴자 48.9%, 은퇴 준비자 39.9%가 ‘그렇다’고 답했다. 질병 치료비는 은퇴 준비자(3001만원)가 은퇴자(2604만원)보다 400만원가량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br/><br/>보험개발원이 최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은퇴자 60~75세, 은퇴준비자 39~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은퇴자의 한 달 최소 생활비는 174만원(평균), 적정 생활비는 2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자는 20만원가량 더 많은 194만원(최소 생활비), 261만원(적정 생활비)으로 조사됐다.<br/><br/>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자와 은퇴준비자 모두 ‘독립된 경제력’(은퇴자 41.3%, 은퇴준비자 46.5%)을 꼽았다. 그러나 알면서도 준비는 부실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은퇴자 88.4%, 은퇴 준비자 77.8%)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렇다 보니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대답(은퇴자 50.7%, 은퇴 준비자 52.1%)은 양측 모두 절반을 넘었다.<br/><br/>은퇴자의 실제 은퇴시점 연령은 61.3세였다. 은퇴 전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375만원, 은퇴 후 희망 월소득은 285만원이었다. 실제로 매월 지출하는 가족 생활비는 187만원(평균)으로 조사됐다.<br/><br/>은퇴자의 삶의 질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경제적으로 ‘기본적 생활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56.4%, 은퇴 후 실제 생활비가 은퇴 전에 예상한 생활비와 비교할 때 ‘많이 든다’는 의견도 48.4%였다. 보유한 자산을 모두 써서 별다른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4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은퇴자들은 노후 준비를 다시 한다면 40대에 준비하겠다는 응답(44.4%)이 가장 많았다.<br/><br/>은퇴준비자의 은퇴 예상 시기는 은퇴자보다 3.5세 많은 64.6세로 나타났다. 은퇴 후 삶의 예측에서 은퇴 준비자 4명 중 1명(25.0%)은 ‘불안하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20.8%)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br/><br/>안정 의견은 40대(21.7%), 연평균 수입 5000만원(25.1%) 초과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불안 의견은 50대(25.5%), 연평균 수입 3000만원 이하(34.8%)에서 많이 나왔다. 예상보다 오래 살아서 노후 소득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70.8%)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은퇴 후 자녀 부양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63.0%나 됐다. 특히 40대(65.2%)와 공무원·교사·군인 직업군(76.3%)에서 부담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은퇴 후 자녀 교육비가 6930만원, 자녀 결혼비는 1억 2438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 생활의 최대 복병이 길어진 수명과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인 것으로 분석된다.<br/><br/>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은퇴 준비의 황금기인 40, 50대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로 본인의 노후 준비에 소홀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통계적으로 자녀 사교육비와 노후 준비는 반비례여서 이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7.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긴 이야기” 울컥  
날짜: 2014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2254424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8.txt

제목: 신해철 상태 ‘위중’ 과거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던 모습 ‘울컥’ 깨어나라 마왕  
날짜: 2014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2159406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89.txt

제목: 신해철 부인에 남긴 유언장 “다시 태어나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울컥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916544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0.txt

제목: 신해철 윤원희에 남긴 유언장 공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울컥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858720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1.txt

제목: 신해철 부인에게 남긴 유언장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긴 이야기” 내용 울컥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828837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2.txt

제목: 신해철 아이와 아내에 유언장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긴 이야기” 울컥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806384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3.txt

제목: 신해철 상태 ‘위중’ 과거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던 모습보니…‘울컥’ 깨어나라 마왕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625195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4.txt

제목: 신해철 중환자실 마왕이 남긴 유언장 “그 무엇으로도 인연 이어가고 싶어” 울컥…안타까운 신해철 상태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556948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5.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작성해놓은 내용보니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긴 이야기” 신해철 상태 위중…깨어나라 마왕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604696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6.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공개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신해철 상태 위중…깨어나라 마왕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517321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7.txt

제목: 마왕이 남긴 유언장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그 무엇으로도 인연 이어가고 싶어” 신해철 상태 위중…울컥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504474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8.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작성해놓은 이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하니까…” 신해철 상태 위중, 깨어나라 마왕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442771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699.txt

제목: 신해철 유언장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긴 이야기” 신해철 상태 위중…깨어나라 마왕  
날짜: 2014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21435058  
본문: ‘마왕’ 신해철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긴 유언장 내용이 감동을 주고 있다.<br/>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던 바 있다. 당시 신해철은 “<span class='quot0'>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span>”라는 영상을 남겼다.<br/>신해철은 “<span class='quot0'>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span>”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그는 비디오 유언장에 “<span class='quot0'>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span>”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 <br/>이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윤원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제작진은 신해철 유언장 작성시 “엄숙한 유언장 촬영을 위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윤원희는 유언장 작성 중 예전에 암 선고와 함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에도 자신을 선택해준 신해철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br/><br/>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24일 “<span class='quot1'>신해철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없는 낭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 감량에 쓰이는 수술법으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부를 묶어 식사량을 제한하는 시술이다. <br/><br/>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장협착이 발견되면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협착이 발견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밴드도 제거했다”면서 “위밴드와 장협착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br/><br/>신해철이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수술 후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동공 반사도 여전히 없는 위중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2'>향후 뇌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과의 협진을 받아 노력하고 있으며 회복 정도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의료진은 또 “<span class='quot3'>(심정지)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심장을 싼 심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로 인한 심장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22일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3'>복강 내 유착 및 장 손상이 있어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심막을 열어준 뒤 개방 복부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어 “수일 내에 추가적인 손상 부위 확인 및 열어놓은 복강을 폐복하기 위한 추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제발 마왕 깨어나요</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span>”, “<span class='quot4'>중환자실 신해철 상태, 위밴드 수술, 좋은 노래 더 들려주셔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0.txt

제목: [사설] 무용지물 軍 방탄복, 군납비리 발본하라  
날짜: 2014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15507731  
본문: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을 전투요원에게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조작과 특혜 계약에 따른 전형적인 군납 비리다. 군(軍)피아의 추악한 공생관계가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 군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 기강을 다잡겠다는 국방부의 선언이 무색하게 현역 장교의 성폭행 사건이 재발했다. 이래서는 강군(强軍)도, 병영문화 혁신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br/><br/><br/>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지난 2월 감사원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전사가 2011~12년 일선에 내려보낸 다기능 방탄복 2000여벌이 북한군의 AK74 소총의 탄환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특전사가 사전 기능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의적으로 시험 평가서를 작성해 문제의 방탄복을 13억여원어치 구입했다고 밝혔다. 제 자식이 근무하는 군 부대라도 불량 방탄복을 보급했겠는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앞서 해당 납품업체는 2010년 방위사업청의 다기능 방탄복 입찰 적격 심사 때 서류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방사청이 85억여원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과 방사청, 군납업체가 한통속으로 연루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br/><br/><br/>군피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재발방지와 구조 개혁을 공언했지만 부패의 사슬 구조는 이를 비웃듯 활개치고 있다. 방사청이 문재인 새정연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현재 방산업체 96곳 가운데 45곳에 중령 이상 전직 군 간부 2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관 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한다. 군피아의 폐해는 군 전력의 차질과 안보 불안,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하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할 사안이다. 이미 드러난 비리만 해도 충격적이고 심각하다.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구입한 통영함 비리 사건은 방사청 간부와 업체가 결탁한 전형적인 군납비리로 드러났다. K11 복합소총을 비롯해 K2 전차, 120㎜ 자주박격포 등 국산화 무기의 상당수는 부실 평가 등의 문제점으로 정상적인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br/><br/><br/>군납 비리가 우리 군의 작전과 무기 체계에 손상을 입히는 중대 범죄라면 군내 성폭력은 병영의 사기와 기강을 좀 먹는 암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군단 예하 사단 소속 문모(48)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위반 사건은 2010년 13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방부는 전군 특별 진단과 기강 확립을 지시하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br/><br/><br/>군의 총체적 난국이다. 자성과 자정에 맡기기에는 환부가 깊고 치명적이다. 군피아의 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군 간부의 도덕성과 인식을 개조하지 않는다면 투명성과 신뢰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수사 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제2창군의 의지로 개혁과 혁신에 나서라. 부정과 비리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리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우리 군의 활로를 모색해야 마땅하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1.txt

제목: [정기홍의 시시콜콜] 법원의 ‘원전 갑상선암 판결’ 되짚기  
날짜: 2014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15506426  
본문: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암 발생 간의 인과 관계가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 17일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 인근(10㎞ 내외)에서 20년을 살았던 박모(48·여)씨가 원전의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전과 일부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한수원은 “<span class='quot0'>판결한 인과 관계가 모호하다</span>”며 항소한 상태다.<br/><br/>이 판결은 서울대 의학연구원이 2007~11년 실시한 전남 영광원전 주변의 암 발생 위험도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원전 주변 지역인 반경 3km 이내와 근거리인 5km 이내, 원거리인 3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양평 주민을 대상으로 삼았다. 원전 현장 직원들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원거리에 사는 주민보다 1.8배 높았다. 당시 조사팀은 “60대 이상과 여성의 암 발생률은 주변 지역이 원거리 지역보다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방사선의 영향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13년 말 고리원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기장군이 실시한 조사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었다.<br/><br/>한수원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씨가 살던 곳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방사선량 기준치에 못 미치고, 원전 주변과 원거리 지역의 방사선량 준위 차도 없다고 밝혔다. 원전 옆의 방사선량은 0.05mSv(밀리시버트) 이하로, 땅과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2.4mSv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의 주변 지역 거주 기간과 비례하지 않다는 게 서울대 역학조사 내용”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되받아쳤다.<br/><br/>박씨도 1심 결과에 불복한 상태여서 상급심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원전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돼 파장이 커질 게 뻔하다. 대체로 암은 오랜 기간을 추적 조사해야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특성은 있다. 최근에 갑상선암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판부가 “<span class='quot1'>대기·수질오염 소송에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이라면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span>”는 견해를 밝혀 상급심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주목된다. 하지만 1심에서 둘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만큼 원전 당국은 앞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자료를 더 내놓아야 한다. 민관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br/><br/>논설위원 hong@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2.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배  
날짜: 2014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15334771  
본문: 우리 배는 꽃으로는 처연한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과일로서는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과일이다. 산성화된 현대인의 몸을 중화시켜 주는 대표적 알칼리 식품으로 가치가 높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유기산,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한방에서는 기관지 질환의 예방과 치료, 해열, 소화촉진 등의 효과로 배의 기능성을 꼽고 있다. <br/><br/>●애절한 사랑·충절의 아이콘<br/><br/>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과 신성의 상징으로 이용되는 고귀한 과일이었다. 중국에서는 정의, 장수, 순결, 지혜의 상징으로, 서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의미했다. 우리 역사에서는 충절의 아이콘이나 ‘이화에 월백하고’ 등의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읊는 시조의 소재로도 사용됐다.<br/><br/>우리나라 배 생산량은 2011년 기준 22만t, 재배면적 1만 5000㏊, 생산액 237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배는 과거 제사용에서 대중 과일로 거듭나고 있다. 배꽃이 피는 4월에는 전남 나주, 울산 등에서 배꽃 축제가 열린다. 가을에는 배 축제를 개최하여 배의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등을 위한 행사도 개최된다. <br/><br/>배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의 코카서스 산맥 인근으로 추정된다. 사과와 자두, 산수유 등과 같은 고향이다. 코카서스를 중심으로 동서양으로 따로 전달되면서 동양배, 서양배 등으로 구분됐다.<br/><br/>서양배는 지중해 연안과 서남아시아 등으로 전파된 뒤 중세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현재 세계 생산량의 35%를 차지한다. 중국배는 재배 역사가 2500여년에 달한다. ‘사기’, ‘삼진기’ 등 고서에도 언급됐다. <br/><br/>서양배는 우리 배보다 씹히는 부드러운 알갱이인 석세포가 적고 향기와 단맛이 강한 편이다. 일정 기간 저온 상태에 두면 단단하던 과육이 부드러워지고 과즙과 향기가 풍부해진다. <br/><br/>서양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과일로 배를 꼽았다. 형상은 여신의 유방에 비유되고, 과즙은 비너스의 눈물로 불렸다.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서양배를 너무 좋아해 궁전 정원에 심고 직접 배를 따먹기도 했다고 전해진다.<br/><br/>우리 배는 학술적으로 일본배라고 칭해진다. 우리나라의 식물 체계를 처음 분류한 사람이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 전해진 배들은 크게 산돌배와 콩배로 나뉜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농업서인 ‘제민요술’ 등에 삼한(三韓)과 발해의 배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3~4세기 즈음의 배 씨앗 유물이나 7세기경의 역사서 ‘일본서기’를 볼 때 일본으로 전래된 시기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br/><br/>●배 껍질에 항산화 성분 다량 함유… 암 억제 효과<br/><br/>배는 산성화된 현대인의 혈액을 중화시켜 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자 기호식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배의 무기성분 중에 나트륨과 칼륨, 칼슘 등의 함량이 75% 이상이다. 이 성분들은 몸 안에서 혈액을 중성으로 유지시켜 준다. 배의 당분은 과육의 10~13% 정도 들어 있다. 석세포는 이 사이에 낀 플라크 제거 효과가 있다. 최근 국내 한 병원의 실험에서 배 반개를 먹으면 플라크가 20%, 3분의1을 먹으면 10%가 감소하는 효과를 증명했다. 배의 식이섬유는 대장암·후두암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치 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br/><br/>배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의 함량이 많아 항산화 능력과 면역 기능에 좋다. 암 발생 억제 기능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배의 과육 중 함유된 사과산과 구연산은 몸 안의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C도 비교적 많이 들어 있어 피로 회복과 면역기능 강화에 효과적이다. <br/><br/>●디저트로 애용… 전통주·화과자 개발 한창<br/><br/>한방에서는 배가 겨울철에 심해지는 기침·가래 등 기관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해열과 소화촉진, 숙취 해소 등에도 좋은 과실로 손꼽힌다. 민간요법에서 배를 생강과 무, 꿀, 도라지 등과 함께 요리해 감기, 천식 등 기관지 질환이나 소화를 돕는 식품으로 사용했다. 돌배는 특히 ‘약배’라 불릴 만큼 일반 배보다 효능이 두세 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펙틴과 폴리페놀 화합물은 고혈압과 뇌혈류를 조절해 뇌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 각종 알레르기 질환 치료나 비만 억제 등에도 효과가 있다.<br/><br/>배는 주로 주식보다는 디저트 등의 후식으로 많이 애용된다. 말린 배를 이용한 떡, 배 조청을 활용한 한과, 분말을 이용한 화과자의 개발이 한창이다. 전통주에도 빠지지 않는다. 조선의 3대 명주 중 하나로 알려진 ‘이강주’ 전통 소주에는 배와 생강이 들어갔다. 혈압과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중국에서는 배가 기침, 감기에 효능이 좋다고 여겨 사과, 당근, 설이버섯 등의 부재료를 함께 넣은 탕요리가 발달했다. 서양에서는 즙이 많고 단맛이 강한 배의 장점을 이용한 타르트 등의 디저트가 많다.<br/><br/>김윤경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연구사<br/><br/>■문의 douzir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3.txt

제목: 안종성박사 세계인명사전 등재  
날짜: 2014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15236557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종성(46) 박사가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오른다. 음식에서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 안 박사가 미국 인명기관인 ‘마르퀴스 후즈 후’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 ‘후즈 후 인 더 월드’의 2015년 판에 등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후즈 후 인 더 월드는 미국 인명연구소의 ‘올해의 인물’, 영국 국제인명센터의 ‘국제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4.txt

제목: 콜레스테롤 감소 베스트 푸드 9가지  
날짜: 2014102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4053540  
본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우리는 몸에 나쁜 엘디엘(LDL) 콜레스테롤을 떠올린다. 여기서 엘디엘은 저밀도지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로 이 엘디엘 물질이 결합된 콜레스테롤이 바로 혈관 벽에 쌓여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반면 에이치디엘(HDL) 콜레스테롤은 고밀도지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이 결합된 것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 간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br/>미국심장협회(AHA)에 따르면 당신은 몸에 좋은 자연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다.<br/>다음은 이런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식품 10가지 목록이다.<br/>콩류=심장병 예방에 탁월하다. 식사할 때 콩을 1/2컵 가량 넣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8%까지 낮출 수 있다. 하루에 먹어야할 식이섬유의 3분의 1을 검은콩이나 강낭콩 등 콩류로 대체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br/>초콜릿(카카오 함량 70% 이상)=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단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초콜릿을 섭취할 때 말이다. 2010년 간장학 저널(Journal of Hepatology)에 실린 스페인 연구에 따르면 다크초콜릿 속 항산화물질은 혈관 문제를 개선해 간경변 환자의 건강을 크게 개선했다. 이는 간의 혈관 파열을 막기 때문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매일 초콜릿 100g 정도를 섭취하면 심혈관 문제를 2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br/>올리브유=이 오일은 많은 건강 혜택을 가져다 준다. 올리브오일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지 않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하는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한다. 올리브오일은 제조과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데 한 번의 압착과정을 통해 추출하는 버진 올리브오일 종류 중 맛과 향이 완벽하고 산도가 1% 이하인 엑스트라버진오일, 압착과 또 한 번의 정체를 거치는 퓨어 올리브오일 등이 있다.<br/>귀리(오트)=아침에 시리얼을 먹거나 빵을 먹는다면 귀리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자. 음식 섭취 시 귀리 비율을 높이면 반대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는 데 6주 안에 5.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제거에 도움을 주는 베타 클루칸 때문. 따라서 귀리 외에도 베타 클루칸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br/>적포도주(레드와인)=술을 마셔야 한다면 레드와인을 마시도록 하자. 단 한 주에 레드와인 2잔 정도 섭취하는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br/>고지방 생선류(연어 등)=불포화지방산 일종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질환과 노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연어나 정어리, 청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좋은(HDL) 콜레스톨 수치를 4%가량 높일 수도 있다.<br/>견과류=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꺼리낌 없이 우리 몸에 좋은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은 물론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영양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br/>차(茶, 녹차 등)=항산화물질이 풍부하며 커피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적다. 8온스(약 227㎖)짜리 커피 한 컵에 든 카페인이 약 135mg인 반면, 같은 컵 차에 든 카페인은 30~40mg으로 매우 적다. 또한 차에는 식물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이 들어 있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어 건강 음료라고 할 수 있다.<br/>시금치=뽀빠이 힘의 원천인 시금치에는 약 13가지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들어 있어 암과 심장 질환,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매일 시금치 1/2컵을 섭취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5.txt

제목: “오염 공기 노출되면 자폐증 위험 2배 증가”  
날짜: 20141023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4041147  
본문: 오염된 공기가 영유아들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br/>미국 피츠버그대학교의 공공건강연구센터가 펜실베이니아주 남서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 장애(Aus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를 앓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태아 시절 또는 생후 24개월 이내에 독성이 포함된 대기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ASD는 미국에서 68명 당 1명꼴로, 남자아이의 경우 42명당 1명꼴로 발생하며, 신경발달 장애, 언어 장애, 사회 부적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연구를 이끈 에블린 탈봇 박사가 2005~2009년 태어난 ASD 아이 환자의 가족 217 가구와 같은 기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족을 인터뷰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 했다.<br/>그 결과 임산부가 임신 당시 크로뮴과 스티렌 수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했거나 신생아가 생후 24개월 이내에 위의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ASD에 걸릴 확률이 1.4~2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br/>크로뮴 화합물은 다량 흡입할 경우 독성을 나타내며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스티렌은 플라스틱이나 페인트에 주로 함유돼 있어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과 함께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하나다.<br/>탈봇 박사는 “<span class='quot0'>지난 20년 간 미국 내 ASD 환자는 8배나 증가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크로뮴과 스티렌이 포함된 대기 오염이 자폐증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이어 “자폐증의 급속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환경오염과 자폐증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매우 희박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오염된 공기와 ASD의 발병원인을 연구하는데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br/>이번 연구는 쥐 등을 이용한 기존 실험과 달리 ASD 환자수, 특정 오염물질 데이터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br/>한번 이번 연구결과는 공해 등 환경과학과 나노과학, 바이오과학 등을 연계해 연구하는 학회인 미국 에어로졸 학회(AAAR) 연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6.txt

제목: 콜레스테롤 줄여주는 최고 식품 10가지  
날짜: 20141023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3929475  
본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우리는 몸에 나쁜 엘디엘(LDL) 콜레스테롤을 떠올린다. 여기서 엘디엘은 저밀도지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로 이 엘디엘 물질이 결합된 콜레스테롤이 바로 혈관 벽에 쌓여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반면 에이치디엘(HDL) 콜레스테롤은 고밀도지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이 결합된 것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 간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미국심장협회(AHA)에 따르면 당신은 몸에 좋은 자연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다.<br/><br/>다음은 이런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식품 10가지 목록이다.<br/><br/>콩류=심장병 예방에 탁월하다. 식사할 때 콩을 1/2컵 가량 넣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8%까지 낮출 수 있다. 하루에 먹어야할 식이섬유의 3분의 1을 검은콩이나 강낭콩 등 콩류로 대체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br/><br/>초콜릿(카카오 함량 70% 이상)=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단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초콜릿을 섭취할 때 말이다. 2010년 간장학 저널(Journal of Hepatology)에 실린 스페인 연구에 따르면 다크초콜릿 속 항산화물질은 혈관 문제를 개선해 간경변 환자의 건강을 크게 개선했다. 이는 간의 혈관 파열을 막기 때문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매일 초콜릿 100g 정도를 섭취하면 심혈관 문제를 2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br/><br/>올리브유=이 오일은 많은 건강 혜택을 가져다 준다. 올리브오일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지 않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하는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한다. 올리브오일은 제조과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데 한 번의 압착과정을 통해 추출하는 버진 올리브오일 종류 중 맛과 향이 완벽하고 산도가 1% 이하인 엑스트라버진오일, 압착과 또 한 번의 정체를 거치는 퓨어 올리브오일 등이 있다.<br/><br/>귀리(오트)=아침에 시리얼을 먹거나 빵을 먹는다면 귀리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자. 음식 섭취 시 귀리 비율을 높이면 반대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는 데 6주 안에 5.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제거에 도움을 주는 베타 클루칸 때문. 따라서 귀리 외에도 베타 클루칸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br/><br/>적포도주(레드와인)=술을 마셔야 한다면 레드와인을 마시도록 하자. 단 한 주에 레드와인 2잔 정도 섭취하는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br/><br/>고지방 생선류(연어 등)=불포화지방산 일종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질환과 노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연어나 정어리, 청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좋은(HDL) 콜레스톨 수치를 4%가량 높일 수도 있다.<br/><br/>견과류=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꺼리낌 없이 우리 몸에 좋은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은 물론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영양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br/><br/>차(茶, 녹차 등)=항산화물질이 풍부하며 커피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적다. 8온스(약 227㎖)짜리 커피 한 컵에 든 카페인이 약 135mg인 반면, 같은 컵 차에 든 카페인은 30~40mg으로 매우 적다. 또한 차에는 식물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이 들어 있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어 건강 음료라고 할 수 있다.<br/><br/>시금치=뽀빠이 힘의 원천인 시금치에는 약 13가지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들어 있어 암과 심장 질환,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매일 시금치 1/2컵을 섭취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br/><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7.txt

제목: 태양서 암흑물질 방출?…英연구팀, 이상신호 감지 성공  
날짜: 20141021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3504781  
본문: 태양과 같은 항성에서 암흑물질이 방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아직 가설 수준이지만 앞으로 확인만 된다면 우주라는 거대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br/>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의 물질이지만, 우주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 우주에 관한 수수께끼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 같은 요소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이런 암흑물질은 지금까지의 물리학을 이용해도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없었다.<br/>그런 가운데 영국 레스터대학 연구팀이 유럽우주기구(ESA)의 엑스엠엠-뉴턴(XMM-Newton) 관측위성이 15년간 수집해온 데이터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해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두고 관련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 입자를 최초로 감지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br/>레스터대 연구팀이 발견한 이 신호는 엑스선을 관측하는 이 우주 망원경이 상승할 때 엑스선 강도가 약 10% 증가한 것으로, 이들은 이 신호가 관측될 때마다 항상 지구 자기장의 경계선이 태양을 향해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br/>이에 대해 연구를 이끈 앤디 리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우주에서 엑스선 강도는 언제 관측해도 같을 것</span>”이라면서 기존의 우주에 관한 인식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br/>현재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엑스선 강도의 증가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기존의 물리학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암흑물질에 눈을 돌리고 있다.<br/>암흑물질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천체물리학적으로나 양자이론적으로 존재 여부를 가정해야 하는 것까지 다양하다.<br/>그런 암흑물질 속에서 엑스선 강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양자색역학(소립자의 강한 상호작용을 쿼크의 색으로 불리는 양자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다루는 이론)에서 존재가 기대되고 있는 소립자 ‘액시온’(axion)이 있다.<br/>액시온은 강한 자기장과 부딪칠 때 엑스선이 변화하는 물질로 간주되고 있으며, 태양 핵에서 방출된 액시온이 지구의 자기장과 부딪치면서 엑스선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관측위성에서는 엑스선 강도가 증가한 곳을 찾을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예상하고 있다.<br/>또 연구팀은 논문에서도 “암흑물질의 하나인 액시온은 태양 핵에서 생성된 것으로 지구의 자기장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엑스선이 변화한다”고 기술하고 있다.<br/>이번 연구결과는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간보고’(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MNRAS)에 게재됐다.<br/>사진=NASA<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8.txt

제목: 한국인 사망원인 1위, 폐암’제4의 치료법’ 한방암치료 병행사례 급증  
날짜: 20141020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3337042  
본문: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로 알려진 암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남녀 모두 폐암인 것으로 나타났다.<br/>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암 사망 환자의 22.2%가 폐암환자며, 그 수는 무려 1만5000명이 넘었다. 남성은 폐암, 간암, 위암 순이었으며 여성은 폐암, 위암, 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br/>이렇게 폐암은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환자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폐암 환자들은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이 늦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br/>따라서 폐암이 발견되면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요법, 표적치료제, 수술 등 암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전반적인 체력이나 기력 등을 반영해 다양한 방면으로 치료를 실시한다. 폐암의 특성상 주변 장기로 전이가 잘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br/>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4의 암치료법'으로 불리는 한방암치료 역시 폐암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인체의 면역력과 독성 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항암 및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환자나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력이 저하된 폐암 환자들에게 한방암치료가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br/>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한방암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항암 화학요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의료진의 병행치료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br/>이미 중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온열치료나 침, 약 등을 이용한 한방암치료를 항암치료와 병행하고 있다. 미국 엠디앤더슨, 하버드 다나파버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서 통합의학 센터를 구축해 녹용, 산삼약침 등 한방암치료를 실시 중이다.<br/>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암 발병 요인을 살펴보면 모두 면역력과 관련이 깊다. 흡연이나 음주는 면역세포를 노화시켜 면역력을 저하시키며,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편향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비만 등 다른 암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반적인 면역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성 원장은 이어 "한의학에서는 암 치료와 관련해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항암치료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한방암치료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 시키며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항암?방사선의 부작용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내성?전이?재발을 막는 한방암치료가 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한편 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폐암, 속도전이 답이다' 등의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을 발표하며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임상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한의학계의 폐암전문가다.<br/>SBS '생활경제-암을 극복하는 면역요법', MBC '프라임-인류 최후의 백신 면역', KBS '특집다큐 의학, 제3의 물결' 등에도 출연하며 한방암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09.txt

제목: [탈북 한의사 김지은의 고려의학 이야기] 고구마의 항암 효능  
날짜: 2014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05844880  
본문: 갖가지 색깔을 뽐내는 가을의 열매와 곡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중 붉은색의 가을 고구마는 항노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란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암 치료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br/><br/><br/>북한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생 고구마즙을 많이 마시도록 권장한다. 암 환자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면역력이 약하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 덩어리가 더 빨리 증식한다. 이럴 때 깨끗이 씻은 고구마를 갈아 즙을 내어 한 컵씩 하루 3번 마시게 하는데, 일주일 정도 마시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고 환자의 얼굴색이 조금씩 되돌아온다. 통증이 약해지면 환자는 적은 양이지만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점차 기력을 회복해 다른 항암치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고구마는 4~5개월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야 잘 영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비교적 귀한 음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암 환자의 식이요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찾는 사람이 많다. <br/><br/><br/>고구마는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생고구마를 자를 때 나오는 흰색의 진액, 고구마 속 풍부한 섬유질이 바로 ‘만성변비 해결사’라고 할 수 있다. 또 고구마에는 탄수화물이 많아 먹으면 살이 찌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고구마 속 탄수화물은 느리게 흡수되고 천천히 배설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줘 오히려 다이어트를 돕는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고구마만 먹으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유를 곁들이는 게 좋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0.txt

제목: 법원 “한수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배상해야”  
날짜: 2014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04332165  
본문: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br/><br/><br/>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 최호식)는 17일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씨와 부인 박모(48)씨, 아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pan class='quot0'>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span>”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br/><br/><br/>재판부는 “<span class='quot1'>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고리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선이 기준치(연간 0.25∼1mSv) 이하이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정한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span>”고 밝혔다. 원전에서 반경 5∼30㎞ 이내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의 1.8배라는 역학조사 결과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유가 됐다.<br/><br/><br/>재판부는 그러나 갑상선암 발병 후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한수원이 방사선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려고 애쓴 점 등을 고려해 청구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1500만원만 인정했다. 반면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자폐증으로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 균도(22)씨의 손배소를 모두 기각했다. 직장암은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br/><br/><br/>한수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 진단을 많이 받는 것은 한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2'>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span>”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해졌다.<br/><br/><br/>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1.txt

제목: 세포 수준에서 암 제거하는 ‘현미경 내시경 암절제술’  
날짜: 2014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03755342  
본문: 국내에서도 현미경 내시경을 이용해 암을 세포 차원에서 제거하는 정밀 암절제술이 실용화되고 있다. 이른바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 위암절제술’이다.<br/>　연세암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조기 위암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과 일반현미경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의 비교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br/>　이 병원 위암센터 박준철·이용찬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암 경계부와의 평균 거리는 공초점 내시경이 1.99mm, 일반 내시경이 2.11mm로 나타났다. 즉, 공초점 내시경이 정상조직과 1.99mm의 간격을 두고 암조직을 절제할 수 있는데 비해 일반 내시경은 2.11mm로 조금 더 많은 정상조직을 절제하는 것이다.<br/>　1mm 미만의 정확도를 보인 경우를 살펴보면, 공초점 내시경이 44.7%, 일반 내시경이 24.5%로 공초점 내시경이 훨씬 더 정밀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위암의 경우 공초점 내시경이 평균 거리 1.80mm로 일반 내시경의 3.46mm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br/>　이용찬 교수는 “<span class='quot0'>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1000배까지 상세 확대가 가능하고, 점막으로부터 250µm(백만분의 1m) 깊이까지 관찰이 가능해 세포 수준에서도 암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평균치에서는 일반 내시경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만 육안으로 경계부위를 식별하기 어렵거나 1mm 미만의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내시경이 매우 효과적</span>”이라고 말했다.<br/>　박준철 교수도 “<span class='quot1'>환자를 위해 최대한 암 부위만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경계부에 근접해 절제할 경우 암 조직이 남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일반내시경은 시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틀 수밖에 없지만 공초점 내시경은 의사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br/>　공초점 내시경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세포 단위에서 정밀하게 살필 수 있어 특히 궤양과 구분이 어려운 암의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준철 교수는 “<span class='quot1'>암과 구분이 어려운 병변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조직을 모두 떼어내 검사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최종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공초점 내시경을 통해 암과 비암병변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조직 채취와 검사를 줄일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br/>　최근 국가암검진 사업 등 위내시경 검진이 확대되면서 위암의 조기발견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위암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 조기발견의 이점은 생존율을 높이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조기 위암은 수술없이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내시경 시술은 수술보다 회복기간이 짧고, 후유증도 적기 때문에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 내시경 시술로 치료하면 환자의 편익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br/>　이런 조기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은 내시경을 통해 육안으로 암 조직을 확인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암 조직을 볼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암 조직을 더 정확하기 보기 위해 초고확대 내시경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Confocal Endomicroscopy;CEM)이다. <br/>　연세암병원은 이 연구를 통해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의 장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조기위암의 진단, 치료 및 추적검사에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2.txt

제목: 한국 유방암 발병률, 일본 넘어 동아시아 1위 올라  
날짜: 2014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03728087  
본문: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이 급증세를 보여 일본을 제끼고 동아시아권 중 1위에 올랐다.<br/>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송병주)는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내놓은 ‘한국인 유방암의 국내외 최근 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2008년 10만 명당 38.9명 꼴이던 유방암 발생률이 2012년에는 52.1명 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서구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장기간 동아시아 유방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해 왔던 일본의 10만 명당 51.5명(2012년 기준)을 뛰어넘는 추이다. 이처럼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유방암 발병률을 보인 것은 국제 암 등록 통계 집계 이후 최초다. 학회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 유방암 현황을 살펴본다. <br/>　<br/>■한국인 유방암은 젊은층 환자 많은 ‘서구형’<br/>　한국인 유방암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이 잦은 서구형이라는 점이다.<br/>　유방암 환자를 나이별로 보면 만15~54세 연령대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일본을 앞섰는데, 특히 15~44세 연령대의 유방암 발생률은 미국마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연간 유방암 환자수도 1996년 3801명이던 것이 2011년 1만 6967명으로, 15년 사이에 약 4.5배나 늘었다.<br/>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생활습관의 급격한 서구화가 유방암 발병률과 양상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됐다. 서구화한 한국인의 생활습관이 유방암 양상까지 바꾼 것.지방섭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strogen Receptor Positive, ER+)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 유방암은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반응해 성장이 촉진되는 것이 특징으로, 발병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이 있어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유방암이다. <br/>　이 유형이 2002년에는 전체 환자의 58.2%였으나 2012년에는 73%까지 상승했다. <br/>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포화지방 섭취와 관계가 밀접하다. 최근 발표된 외국 연구를 보면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30% 정도 높았다.<br/>　우리나라의 경우 식습관이 서구화하면서 지방 섭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의 1일 섭취량이 1998년 53.7g에서 2012년 85.1g으로, 15년 동안 약 60%나 상승했다. 지방을 기준 이상 섭취하는 사람도 5명 중 1명(22.1%)꼴이었다.<br/>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경 후 여성 유방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폐경 이전보다 이후에 발병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폐경 후 생기는 유방암은 특히 지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이 지방 조직이기 때문에 비만할수록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br/>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폐경 후 유방암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는 전체 유방암의 53.4%를 차지했고, 중간 나이도 51세로 2000년보다 5살이 많아졌다.<br/>　식습관 변화나 비만도 외에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늦은 첫 출산과 수유 무경험 등변화한 생활 유형도 유방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유방암 발병이 급증하고, 패턴이 변화하는 우리나라를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뉴질랜드, 호주, 일본처럼 유방암 호발 고소득국가로 분류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br/>　<br/>■OECD 국가 중 사망률 최저, 0~2기 발견하면 생존율 90% 이상<br/>　희망적인 대목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 발달로 유방암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사망률은 일본(9.8명)이나 미국(14.9명)보다 현저히 낮은 10만 명당 6.1명에 불과했다. 의료 선진국으로 꼽는 북미나 유럽 등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치다. <br/>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0기나 1기에 암을 진단받는 비율이 2000년 32.6%에서 2012년에는 56.24%에 높아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조기 진단이 늘면서 치료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자기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절제술이 67.2%를 차지해 2000년에는 한 해 99건이었던 유방재건수술이 2012년에는 910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신의 유방을 지키고,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 시술의 보편화로 많은 환자가 여성의 상징성을 지키게 된 셈이다.<br/>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아주 좋다. 한국유방암학회가 최초로 발표한 병기별 5년 생존율 자료를 보면, 유방암을 0기에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8.8%에 달했다. 1기(97.2%), 2기(92.8%)도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 반면 4기 환자의 생존율은 44.1%에 그쳤다.<br/>　한국유방암학회 송병주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유방센터장)은 “<span class='quot0'>한국의 유방암은 발병 양상이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유방암 극복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아주 좋은 만큼 개인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을 평소에 관리하고, 나이에 맞는 검진을 받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3.txt

제목: 전문의 없다고 응급 진료 거부한 국책병원  
날짜: 2014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01625765  
본문: 결혼 3년차인 주부 장모(30)씨는 지난 8월 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장씨는 “<span class='quot0'>젖병을 삶다가 아기 눈 주위를 데어서 급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화상전문병원으로 가보라’고 할 뿐 치료를 받지 못했다</span>”며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br/><br/><br/>부산과 울산 등 동남권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방사선 비상진료를 위해 2010년 문을 연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응급실을 부실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br/><br/><br/>이 의학원은 정부가 267억원을 출연했으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런 대형 공공기관이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전문의가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실장인 의사 한 명에 임상 실습하는 인턴 2명 등 3명만 근무한다. 일반 병원 응급실은 전문의만 5명 이상 있다. 무늬만 응급실이다. 최세영 응급실장은 “<span class='quot1'>현재의 인력으론 감기 환자를 제외한 심장질환이나 장염과 같은 급성환자 등을 진료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119구급대에도 공문을 보냈고 환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다른 병원을 안내한다</span>”고 털어놨다.<br/><br/><br/>이 때문에 기장 지역 응급환자들은 눈앞의 대형병원을 놔두고 30㎞ 이상 떨어진 해운대백병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 등으로 가야 한다.<br/><br/><br/>이에 대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span class='quot2'>방사선 연구와 암 진료에 특화된 병원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하고 변두리에 있는 지역특성상 의료진 확충에 애를 먹는다</span>”며 “<span class='quot2'>내년에는 기장군과 부산시 등 관련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의료진도 확충하고 응급실도 확대 운영하겠다</span>”고 해명했다.<br/><br/><br/>그러나 주민들은 응급실 부실 운영이 병원의 방만 경영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사는 강모(50)씨는 “<span class='quot3'>정부 지원만 믿고 안이하게 병원을 경영하는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슈퍼 갑질</span>”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총 4327명이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4063명으로 하루 평균 10~15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원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운영엔 문제가 없다.<br/><br/><br/>제형건 해운대백병원 홍보팀장은 “<span class='quot4'>암 진료 전문병원이란 특성이 있지만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민간병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span>”이라고 말했다.<br/><br/><br/>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5'>미래부 홈페이지의 신문고에 응급실 이용 불만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만 병원 운영에 간여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span>”고 말했다. 김기천 부산시 식의약품안전과장도 “<span class='quot6'>의학원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강제할 규정이 없다</span>”고 밝혔다.<br/><br/><br/>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4.txt

제목: 버섯이 가진 과학적인 건강 효과 4가지  
날짜: 2014101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2447560  
본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은 맛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풍부하다.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종 학술지를 통해 소개됐던 버섯의 다양한 건강 효과다. 평소 버섯을 꺼렸던 이들도 앞으로는 건강 효과를 기대하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어떨까.<br/>1. 체중 감소=열량은 낮고 영양은 풍부한 버섯은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br/>국제학술지 ‘에피타이트’(Appetite)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 카비타 포다르 박사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1년간 식단을 살코기에서 버섯으로 대체하는 실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체중 감소 속도가 전보다 증가했으며 체질량지수(BMI)도 떨어졌다. 이들은 별다른 건강 개선 없이 식단만 바꾼 것만으로 평균 3kg을 감량한 것으로 전해졌다.<br/>2. 암 예방=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은 암을 예방하는 데 한 몫하고 있다.<br/>미국 애리조나주립대 키이스 마틴 박사 등이 시행한 조직 배양 연구에서 잎새버섯(Grifola frondosa)인 마이다케(MT)와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인 크라이미니(CRIM), 같은 양송이인 포타벨라(PORT),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인 오이스터(OYS), 양송이인 화이트버튼(WT) 총 5종의 버섯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과다 분비를 억제해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3. 콜레스테롤 감소=섬유질과 키틴,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을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해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br/>국내 인천대 윤기남 박사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분홍느타리버섯(Pleurotus salmoneostramineus L.Vass)을 먹으면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등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동맥 플라크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4. 면역력 상승=버섯을 먹으면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br/>일본 간사이의대 카오리병원 히지카타 야스요 박사 등이 헤르페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지버섯(Ganoderma lucidum)을 달인 허브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자 회복 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지버섯이 가진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매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중국 우한대 리 주빙 등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br/>이는 표고버섯이나 포트벨로버섯(양송이), 느타리버섯, 영지버섯에 포함된 항암성분인 레티난이 면역 기능을 자극하는 바이러스 억제 인자인 인터페론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5.txt

제목: 일상 속 알루미늄이 ‘치매’ 위험 높인다 (연구)  
날짜: 2014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2356962  
본문: 일상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각종 알루미늄 성분들이 뇌에 악영향을 미쳐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br/>의학전문매체 메디컬 엑스프레스는 영국 스태퍼드셔 킬 대학교 생물무기화학 연구진이 생활 속에 존재하는 알루미늄의 독성분이 뇌에 침투해 지속적으로 축적, 이후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br/>은백색의 부드럽고 가벼우며 지구 지각에 가장 풍부한 금속 중 하나인 알루미늄은 가공이 쉽고 인체에 큰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건축, 화학, 가정용 제품 제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br/>특히 우리 일상생활 구석구석 대부분에서 알루미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차, 케이크, 빵, 와인과 같은 식품부터 선크림 등의 화장품, 치약 그리고 의약품인 아스피린까지 알루미늄 화합물이 첨가돼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식과 달리 킬 대학교 연구진이 볼 때, 알루미늄 속에는 몸 치명적 영향을 주는 독소적 요소 또한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br/>일반적으로 우리 인체는 자체적으로 흡수된 알루미늄을 필요량 외에 밖으로 배출하는 자정 작용을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만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알루미늄이 몸에 들어와 배출량보다 축적량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잉여 알루미늄들은 우리 몸 속 간, 심장, 림프관, 뼈, 근육, 뇌 등에 퍼져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br/>킬 대학교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것은 알루미늄이 뇌에 주는 악영향이다. 연구진의 주장에 따르면, 뇌의 알루미늄 축적량이 일정 임계값을 넘어가면 이것이 독이 돼 기억력 저하와 같은 초기 치매의 증상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br/>알루미늄에 독성이 있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물 중 개는 알루미늄이 함유된 이물질에 무기력, 기립불능, 발작, 실신, 사지마비 등의 신경증상을 보인다는 실험결과가 존재한다. 이 알루미늄이 치매 유발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 또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의학계 일부에서 주장돼왔다. 하지만 아직 해당 주장은 추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br/>연구를 주도한 킬 대학교 크리스토퍼 엑슬리 교수에 따르면, 이 이론은 과거 그가 진행했던 알루미늄과 암 유발 사이의 연관성 분석 연구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알루미늄에 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몸에 축적된 잉여 알루미늄을 빼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임상 테스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신경학 부문 국제 학술지 ‘Journal Frontiers in Neurology’에 게재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6.txt

제목: “위암 수술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 주의해야”  
날짜: 2014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2000824411  
본문: 　위암 수술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송교영·박조현 교수와 혈관이식외과 김지일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위암 수술 환자와 정맥혈전색전증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는 구체적 발생빈도 통계 및 예방 권고안이 없는 국내에서 처음 제시된 보고사례여서 주목된다.<br/>　정맥혈전색전증은 흔히 비행기 여행 중 좁은 좌석에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혈전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심부정맥혈전증과 폐동맥색전증을 합쳐서 일컫는 질환이다. <br/>　연구팀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게는 심한 혈액응고가 발생하며, 일반인에 비해 색전증 발생률이 무려 6배나 높은데, 여기에다 색전증 위험인자인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호르몬 치료가 실시되고, 운동까지 제한되면 환자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br/>　이에 따라 미국 암학회에서는 수술이나 화학요법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어야하는 암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br/>　연구팀은 국내에서 색전증 빈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데다 환자에게 어떤 방법이 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 한국인에게 정맥혈전색전증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서양인과 다르게 한국인의 예방법과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임상연구를 실시했다. <br/>　이를 위해 총 682명의 위암환자를 간헐적 공기 압박법만 사용한 환자군과 헤파린을 같이 사용한 환자군으로 나눠 혈전증 발생빈도 및 합병증을 조사하고 있는 연구팀은 최근 위암 수술을 받은 2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간분석을 시행했다. <br/>　그 결과, 220명 중 3명의 환자에서 색전증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간헐적 공기 압박기를 사용한 환자였으며, 다른 증상 없이 하지정맥초음파에서만 징후가 발견되었다. 또 12명은 수술 도중과 수술 후에 출혈소견이 있었는데 이중 11명이 헤파린을 복용한 환자로 밝혀졌다.<br/>　송교영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의 정맥혈전색전증 빈도는 서양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만 알려졌으나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수술을 받는 상당수의 암 환자에서도 비록 증상은 없으나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암 수술 환자는 정맥혈전색전증의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기압박기나 탄력 스타킹과 같은 물리적 방법을 채택하고, 출혈의 문제가 없는 경우 헤파린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span>”고 밝혔다.<br/>　미국에서는 연간 25만명 이상이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입원하고 있으며, 특히 폐동맥색전증으로만 매년 약 20만명이 사망하는데 이중 병원 내 사망률이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국내에서는 색전증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서양의 지침을 주로 적용해 헤파린과 같은 항혈전제와 물리적 방법인 간헐적 공기 압박법을 사용했다. 항혈전제와 달리 물리적 방법들은 중증도가 중간단계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했으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혈전제와 함께 적용해왔다. 이번 연구 중간보고는 최근 외과수술종양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인터넷 판에 게재됐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7.txt

제목: “무료 주례까지 더하면 5000여회…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날짜: 2014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32508780  
본문: “2~3년 전부터는 아예 무료 주례만 서지요. 신랑·신부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신혼여행 다녀와서 건네는 안부전화가 보람입니다. 주례대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료 주례 봉사를 계속하려고요.”<br/><br/>‘주례 달인’ 최대열(73·광희동)씨는 12일 “<span class='quot0'>오늘도 강동구 천호동에서 예식을 올린 신랑·신부의 주례를 봐주고 오는 길</span>”이라며 껄껄 웃었다. 최씨는 1999~2012년 주례 3147회로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세계 기네스북에도 주례 최다 기록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5000회를 훌쩍 넘겼다. 지난달 30일에는 이색 기록을 가진 인물로 뽑혀 ‘2014 중구 기네스’ 상패를 받았다. 그는 “<span class='quot0'>한창 많이 할 때는 하루 8회의 주례를 선 적도 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만큼은 아니다</span>”라며 웃었다.<br/><br/>주류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정년퇴직 후 전문 주례인인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 16년째 해오는 만큼 잊지못할 일도 많다. 최근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외국인 가족들을 위해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주례를 하기도 한다. 최씨는 “<span class='quot1'>외국인 신부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등 주례사를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말로 두 줄 읽고 번역한 것을 다시 읽는데, 발음이 좋지 않지만 외국인 신부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박수를 치는 걸 보면 뜻이 전달됐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span>”며 또 웃었다. 이어 “암으로 투병 중인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 도중 병원으로 실려 간 일이나, 남산에서 진행된 야외 결혼식 땐 2000여명 앞에서 주례를 본 적도 있다”고 되돌아봤다. <br/><br/>때문에 주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주례를 보기 위해서 한자의 뜻을 찾아 공부하는 것은 물론 예절 교육, 옷차림이나 외모, 꼼꼼한 현장 실습도 필수”라며 “전문인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예비 부부를 위한 무료 주례를 계속할 테니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연락(011-709-9343)하면 된다”고 끝맺었다.<br/><br/>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8.txt

제목: ‘말기 암’ 아빠와 세 딸의 마지막 춤 감동 사연  
날짜: 20141012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1924842  
본문: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빠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한 세 딸의 노력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br/>미국 NBC 계열 지역 방송매체 KTVB-TV는 켈빈 피터스(46)와 그의 사랑스런 세 딸 케이틀린(21), 켄들(15), 이사벨라(13)의 슬픔과 행복이 공존하는 사연을 최근 소개했다.<br/>미국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피터스가 ‘담낭 및 담관암(cholangiocarcinoma)’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해 말. 당시 의사는 그에게 수명이 수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br/>평소 매우 단란했던 피터스의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피터스의 첫째 딸 케이틀린은 아빠가 자신이 결혼하는 모습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br/>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인 케이틀린은 남은 시간을 최대한 뜻 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아빠를 위한 가상 결혼식과 댄스파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여동생들인 켄들, 이사벨라도 함께 참가하기로 결정했다.<br/>아이다호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케이틀린의 준비는 수월하게 이뤄졌다. 결혼식 장소는 물론 하객 20명, 웨딩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웨딩촬영 전문 사진사까지 모두 섭외됐다.<br/>그리고 최근 피터스 가족은 친구와 친척 그리고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이틀린의 가상 결혼식을 성대하게 진행했다. 비록 신랑도 없고 언약식도 생략됐지만 피터스는 세 딸과 웨딩 댄스 타임을 가지며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br/>KTVB-TV와의 인터뷰에서 피터스는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지만 곧 남은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생각했다"며 "이 결혼식은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 세 딸들이 실제 결혼할 때도 내 영혼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19.txt

제목: [사설] 장관직 걸고 군내 성폭력 예방책 세우라  
날짜: 2014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31445910  
본문: 송모 육군 17사단장이 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됐다. 사단 내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봐 지난 6월 사단 사령부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지난 8~9월 집무실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게 군 당국이 밝힌 송 사단장의 혐의다. 본인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정도였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나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철저히 진상을 가려 엄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br/><br/><br/>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피해자로선 한 차례의 성추행도 모자라 근무부서를 바꾸자마자 사단 내 최고지휘관으로부터 다시 성추행을 당했으니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더욱이 송 사단장의 경우 그동안 능력이나 주변관리 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었다니 더욱 말문이 막힌다. 대체 우리 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너진 군의 기강 앞에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걱정을 넘어 불안이 앞선다.<br/><br/><br/>군내 성폭력 문제만 해도 그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별별 처방이 다 제시됐다. 지난해만 해도 국방부는 ‘성군기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책을 7월에 내놓은 바 있다. 전 장병 성폭력 예방교육, 야전부대 성폭력 관련 전담교관 임명, 부대별 성희롱 고충상담관 배치, 여군 전용숙소 CCTV 설치, 성군기 위반자 처벌 강화 등 군이 짜낼 수 있는 대책을 망라했다. 여성가족부와 성폭력 예방교육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나 성추행 피해 부하를 사단장이 다시 성추행하는 패륜적 상황까지 벌어진 지금 대체 이들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br/><br/><br/>우리 군은 중환자실에 놓인 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대대적인 병영문화 쇄신 논의가 진행 중인 터에 1군 사령관의 음주 추태와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온 지금 상황은 최전방 초소에서부터 중앙의 핵심 수뇌부까지 군 전체가 심각한 기강해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br/><br/><br/>제아무리 첨단무기로 전력을 강화한들 군 기강이 이래선 나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군 성폭력은 그 자체의 죄상을 넘어 ‘암적 존재’라고 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말처럼 군을 통째로 붕괴시킬 안보 위협이다. 군이 어제 재탕 삼탕의 대책을 내놨으나 국민뿐 아니라 군 자신도 이런 대책으로 성폭력을 추방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병영 개선책과 더불어 시대 흐름을 반영한 장기적 안목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병사가 아니라 수뇌부의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0.txt

제목: [커버스토리] 찬바람 맞고 살 통통·기름기 철철… 지방성분이 봄·겨울의 3배  
날짜: 2014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31234145  
본문: 전어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이 봄·겨울보다 많게는 3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br/><br/><br/><br/>전어는 가을철 별미 중 최고로 손꼽힌다. ‘가을 전어에는 참깨가 서말’,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특히 찬바람과 함께 살이 찌고 기름기가 졸졸 흐르는 9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에 가장 맛있다. 전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DHA와 EPA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동맥경화, 뇌졸중, 혈전 등 순환기 계통의 성인병 예방에 좋다. 당뇨병, 치매, 암 발생 억제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아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효과를 본다. 다른 생선에 비해 잔뼈가 많아 칼슘 공급원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 촉진 효과와 두뇌 기능 발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전어는 자연산이라 고소함이나 담백함에서 양식 전어나 냉동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한층 앞선다. 어민 김종수(69·전남 고흥군)씨는 “전어는 급한 성질 탓에 그물에 걸리면 제 풀에 못 이겨 죽기 일쑤”라며 “양식장에서 기르는 것은 바다에서 펄떡펄떡 뛰는 자연산 맛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br/><br/>코끝을 자극하는 전어 구이와 초고추장을 버무린 전어회 무침, 얇게 썰어 놓은 전어회, 전어 세코시 등 요리법도 다양하다. 물고기 머리가 가장 맛있다는 어두일미(魚頭一味)라는 말처럼 전어도 마찬가지다. 고소한 맛을 즐기려면 구이가 제격이다. 전어 구이는 머리부터 먹기 시작해 꼬리만 남기고 통째로 먹어야 한맛 더한다. 소금을 뿌리고 숯불 위 석쇠에 굽는 전어 구이는 특히 구수한 맛을 더한다. 전어를 통째로 먹어야 하는 구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는 내장을 깨끗이 비운 전어회나 무침이 인기를 끈다. 전어회를 된장에 찍어 먹는 것도 별미다. 비릿한 생선 특유의 냄새도 싹 사라진다.<br/><br/>고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1.txt

제목: 살 빼려면 난방 금지? 추울수록 체중감소 효과↑ (예일大)  
날짜: 2014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1707642  
본문: 만일 체중감량 때문에 고민이라면 춥더라도 집안 난방을 최소로 작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최근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몸 속 나쁜 지방이 연소되기에 체중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연구진은 식욕과 허기를 관장하는 뇌 신경세포가 일반 백색지방조직((white adipose tissue)을 갈색지방조직(brown adipose tissue)으로 전환시키도록 제어한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br/>갈색지방조직은 말 그대로 일반 백색지방과 달리 갈색을 띠고 있어 구별되는데 백색지방이 열량을 저장하는 역할만 수행해 살을 찌우는 반면, 갈색지방은 열량을 태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br/>연구진에 따르면, 백색지방조직을 갈색지방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구체적 작용은 해당 뇌 신경세포로부터 시작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용이 온도가 낮을수록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br/>갈색지방은 현대인들의 큰 숙제 중 하나인 비만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진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진은 체내 면역체계 형성에 관여하는 생물활성인자 인터루킨4, 인터루킨13이 갈색지방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아냈는데 이 역시 온도가 낮을수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br/>올해 초 호주 시드니 가반의학연구소(Garvan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에서 진행된 실험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약 30일 간 집 난방을 끄고 추운 환경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체중감소 효과를 봤는데 가반의학연구소 측에 따르면, 추운 달일수록 체내 갈색지방 비율이 최대 30~40%가량 늘어났다고 한다.<br/>갈색지방조직은 지방분해와 지방산 산화능력이 크며 토끼, 쥐 등에서 많이 관찰된다. 특히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는 가을부터 양이 늘어나 겨울동안 최대치에 이르며 기온이 올라가는 봄이 되면 다시 양이 감소한다. 사람의 경우는 신생아 때 양이 많다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사라진다.<br/>이번 연구결과는 백색지방의 갈색지방전환을 제어하는 요인이 온도 뿐 아니라 뇌 신경세포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제2형 당뇨병, 심장 질환, 고혈압, 신경 질환, 암 등 비만과 연관된 각종 질병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는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국제학술지 ‘세포 저널(Journal Cell)’에 게재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2.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콜레스테롤 주범? NO 암 치료용 식품? YES  
날짜: 2014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30108417  
본문: 달걀이 콜레스테롤 높은 식품으로 오해를 받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이다. 1913년 러시아의 한 병리학자가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달걀을 초식동물인 토끼에게 먹여 실험을 진행했다.<br/><br/><br/>그 결과 동맥 경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다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초식동물인 토끼에게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달걀을 먹이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br/><br/><br/>최근에는 달걀을 많이 먹는 노년층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섭취량과 혈액 콜레스테롤 농도는 관련성이 없다고 입증됐다. 2005년 미국 예일대 예방의학센터에서도 하루 2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됐다. <br/><br/><br/>달걀은 크게 노른자(난황), 흰자(난백), 알 껍질(난각), 얇은 막(난각막) 등으로 이뤄져 있다. 껍데기는 대부분 탄산칼슘 등의 성분으로 돼 있고 얇은 막은 외부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r/><br/><br/>흰자(난백)는 병아리가 되며, 노른자(난황)는 이를 위한 영양을 모아 뒀다가 병아리 발생 과정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 <br/><br/><br/>닭은 작은 몸집이지만 알을 낳는 기관은 75㎝ 정도로 길다. 계란을 만드는 데는 24~27시간 정도가 걸린다. 알은 난소에서 약 24시간마다 노른자를 배출한 뒤 여러 기관을 거쳐 자궁에서 20시간 정도 머물면서 흰자와 알 껍질을 형성한다. <br/><br/><br/>달걀은 포유동물로 따지면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다. 21일 정도 지나면 병아리가 탄생한다. 21일이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적당한 온도, 습도만 유지되면 병아리가 탄생하므로 생명 체험 교재로도 충분하다.<br/><br/><br/>달걀에서 유용한 물질을 분리하고 달걀 껍데기와 난각막까지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른자에 많은 레시틴과 비타민B12가 주목받고 있다. 노른자로부터 레시틴과 오일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고,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가능성도 발견됐다.<br/><br/><br/>흰자에서는 라이소자임과 아비딘 등 항박테리아 물질을 분리해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라이소자임을 이용해 기존보다 더 위생적이고 투명한 포장 필름을 만들 수 있다. 달걀 껍데기와 난각막은 가축 사료나 토양의 비료로 활용되거나 콜라겐을 추출하는 재료로 사용된다.<br/><br/><br/>특히 달걀을 이용해 암 치료용 제재나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영국에서는 암 치료용 달걀을 낳는 닭을 개발했다. 이 닭은 5세대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치료에 관여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암의 치료뿐 아니라 파킨슨씨병이나 당뇨병 등 거의 모든 난치병 치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3.txt

제목: 패스트푸드 먹어도 ‘살 안찌는 방법’ 있다 (연구)  
날짜: 2014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1652823  
본문: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키, 햄버거 등 각종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알약 하나만 추가로 복용해주면 별도의 운동, 식이요법 없이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 <br/>최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는 해당 교 의과대학·노인학 공동 연구진이 유전자 물질을 통해 고열량 식사를 지속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최근 밝혔다.<br/>연구진은 세포 분화과정 연구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선형동물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을 세균배양용기 상에서 심층 조사한 결과, 체내 열량을 흡수해내는 유전자 변종을 발견했다. 해당 유전자는 본래 SKN-1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변종은 활동상태가 지나치게 과잉돼 각종 열량을 평균보다 과하게 흡수해내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주목할 만한 것은 변종 SKN-1과 같은 성질의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바로 ‘Nrf2’ 단백질 유전자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고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일부 제약업체는 Nrf2 단백질을 정제해 항산화, 노화방지약품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br/>만일 Nrf2 단백질을 몸 속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체내 열량을 획기적으로 흡수해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꿈같은 일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감자튀김·탄산음료 등의 고열량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했더라도 알약으로 정제된 Nrf2 단백질을 복용해주면 체내 열량이 그대로 흡수돼 비만이 예방된다는 것이다. 만일 인체 내 특정 조직에서 Nrf2 단백질이 활성화된다면 원하는 부위별로 살이 빠지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br/>하지만 이는 아직 연구단계로 실용화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변수와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Nrf2 유전자는 인체 내에서 공격적인 암 세포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여부가 숙제로 남아있다.<br/>다만 이미 제약업계 노화방지용으로 Nrf2를 제품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꿈의 다이어트 약이 실현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숀 커렌 박사는 “문제는 Nrf2를 몸 속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시점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제어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만일 방법만 찾아낸다면 Nrf2는 무수히 많은 잠재성을 지닌 약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쥐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한편 이 연구는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4.txt

제목: 말기 암 아빠와 세 딸의 마지막 춤…감동 사연  
날짜: 2014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1645651  
본문: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빠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한 세 딸의 노력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br/>미국 NBC 계열 지역 방송매체 KTVB-TV는 켈빈 피터스(46)와 그의 사랑스런 세 딸 케이틀린(21), 켄들(15), 이사벨라(13)의 슬픔과 행복이 공존하는 사연을 최근 소개했다.<br/>미국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피터스가 ‘담낭 및 담관암(cholangiocarcinoma)’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해 말. 당시 의사는 그에게 수명이 수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br/>평소 매우 단란했던 피터스의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피터스의 첫째 딸 케이틀린은 아빠가 자신이 결혼하는 모습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br/>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인 케이틀린은 남은 시간을 최대한 뜻 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아빠를 위한 가상 결혼식과 댄스파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여동생들인 켄들, 이사벨라도 함께 참가하기로 결정했다.<br/>아이다호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케이틀린의 준비는 수월하게 이뤄졌다. 결혼식 장소는 물론 하객 20명, 웨딩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웨딩촬영 전문 사진사까지 모두 섭외됐다.<br/>그리고 최근 피터스 가족은 친구와 친척 그리고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이틀린의 가상 결혼식을 성대하게 진행했다. 비록 신랑도 없고 언약식도 생략됐지만 피터스는 세 딸과 웨딩 댄스 타임을 가지며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br/>KTVB-TV와의 인터뷰에서 피터스는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지만 곧 남은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생각했다”며 “이 결혼식은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 세 딸들이 실제 결혼할 때도 내 영혼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5.txt

제목: [정진곤의 살며 생각하며] 복 받은 사람  
날짜: 2014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5624530  
본문: 누구든지 복을 많이 받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어른들은 자손들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산신령님, 용왕님, 삼신할머니와 무당을 찾아가 복을 빌었습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도록 조상님들을 명당자리에 모시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즈음에는 교회나 절에 가서 복 받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br/><br/><br/>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이 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바라고, 아들과 딸들이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자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아들과 딸들도 모두 잘 된 사람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고, 자식들도 어렵게 사람들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br/>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신사나 절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절을 하면서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도록 복을 빕니다. 얼마 전 교토의 신사에 가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복을 원하는지 궁금하여 나무에 매달아 놓은 쪽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건강, 대학입시 합격, 회사입사, 승진, 재물’ 등 우리나라 사람들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br/><br/><br/>부자로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가난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느님이나 부처님께 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스님이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니 잘못을 회개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때문인가‘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작가 최인호도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은 그 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br/>그러나 불교경전에서는 병에 걸린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삶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왕삼매론에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病苦)로써 양약(良藥)을 삼으라’고 합니다.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br/>인간은 수많은 조직과 헤아릴 수 없는 세포들로 구성된 유기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조직이 노쇠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좋은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br/>애플(Apple)을 창립한 스티브 잡스(1955∼2011년)는 2005년 췌장암에 걸린 이후 항상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몇 년 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br/>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br/>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며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암에 걸리게 되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일에 매달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평소 구상해오던 신형 IT기기들을 잇따라 출시하였습니다. <br/><br/><br/>보왕삼매론에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하셨느니라. 법정 스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습니다.<br/>우리가 어려운 세상, 고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쌓여있는 것이죠...어떤 집안을 놓고 보더라도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br/>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넘치게 돼요. 잘난 체 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게 됩니다...근심과 걱정을 밖에서 오는 귀찮은 것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우리 집안에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회피해선 안 됩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액난이 닥치는가, 이것을 안으로 살피고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br/>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나쁘게만 생각지 마세요...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창의력을, 의지력을 계발하라는 우주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됩니다. <br/>독수리는 태어난 지 30년쯤 되면 무뎌진 부리가 목을 찌르게 되고, 날개 깃털이 무거워져 날지 못하게 됩니다. 날카롭게 자란 발톱이 살 속을 파고듭니다. 그대로 가만있으면 독수리는 죽고 맙니다. 독수리는 높은 산정에 둥지를 틀고 극심한 아픔을 이겨내면서 암벽에다 수없이 자신의 부리를 부딪쳐서 깨뜨립니다. 새로운 부리가 나면 자신의 발톱과 날개의 깃털을 뽑아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독수리의 몸은 피범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독수리만이 30여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br/>며칠 전 친구들과 함께 경주를 여행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이동우 경주엑스포사무총장의 주선으로 소산 박대성 화백의 화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6·25 때 어떤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왼팔도 잃었습니다. 3살 때부터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려서 학교도 그만 두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붓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날 그는 독창적인 화풍으로 겸재에서 소정과 청전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잇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목화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불행은 사람을 단련시켜 좀 더 큰 인간으로 만든다. 누구나 불행을 만날 수 있지만, 큰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러한 불행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사람들은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br/><br/>tiger@hanyang.ac.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6.txt

제목: [열린세상] 의료는 ‘환자 돌봄’에서 시작한다/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날짜: 2014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5245430  
본문: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은 전염병 환자들을 관청에 모아 정성으로 보살펴 많은 환자를 살린 수나라 문신 신공의를 고을 수령들이 본받을 것을 권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염병이 발생하면 가족들이 환자를 버리고 도망가서 환자가 굶어 죽는 일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br/><br/>1854년, 크림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절반이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은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야전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수개월 후 부상병의 사망률은 2%로 줄어들었다.<br/><br/>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공의나 나이팅게일은 제대로 된 의약품도, 의료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환자들을 먹여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곁에 머무르며 돌봐준 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br/><br/>동서양의 역사에서 의료행위의 본질은 항상 ‘돌봄’ (care)이었고, 첨단과학이 지배하는 현대 의학에서도 ‘돌봄’은 여전히 의료의 필수요소다. <br/><br/>대가족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책임이었고, 공중위생 문제를 유발하는 전염병, 전쟁터의 부상자,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환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국한해 국가나 사회가 돌봄의 문제에 개입했다. 30여년 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환자의 간병은 당연히 가족이 맡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br/><br/>그러나 2010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1~2인 가구가 48.2%이고, 2012년에는 전체가구의 25.3%가 1인 가구다. 3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도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성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 미혼, 이혼으로 인한 중장년 1인 가구, 부부가 함께 일해 가계를 꾸려나가는 가족구조에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간병이 큰 문제가 된다.<br/><br/>하지만 건강보험수가에는 간병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간병 서비스를 한국의 의료정책 당국은 외면하고 있다.<br/><br/>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을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런 조건이 돼도 간병비 지원은 요양시설이나 집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병이 악화돼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조차도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br/><br/>중증질환으로 진단되면 검사와 약가는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본인은 5%만 지불하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개인 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중의 누군가 직장을 그만두는 희생까지 감수해야 한다. 2014년 오늘도 병원의 모든 시스템은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간병할 가족이 있는 것을 전제로 돌아가고 있어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오는 환자는 입원이 두렵다. <br/><br/>매년 7만여명의 암환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적극적인 간병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보험급여가 안 되는 고가 검사나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에 한국은 보험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br/><br/>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 지원은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선거 공약인 비급여 개선 정책에서도 간병 문제만은 아무런 예산 지원도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br/><br/>장기 간병에 지쳐 동반자살을 하는 노인 부부, 부모나 자식인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성질환을 대부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 문제를, 의료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br/><br/>의료는 첨단 의료기술과 신약이 아니라 환자를 ‘돌봄’에서 시작한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건강보험 재원과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게 옳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도, 원격진료도 아닌 ‘간병’이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7.txt

제목: 배추 항암 효과의 4배…상추 대신 항암 쌈채  
날짜: 2014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5211017  
본문: 종자명장인 박동복(60) 제일종묘농산 대표가 항암 쌈채를 개발했다.<br/><br/>박 대표는 8일 충북 괴산군 청안면 제일종묘농산 육묘장에서 가진 육종 발표회에서 “<span class='quot0'>15년간의 연구 끝에 일반 배추보다 암세포 성장 저지 효과가 뛰어난 항암 쌈채를 개발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간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등 다양한 암세포에 항암 쌈채를 동결건조해 넣고 24시간 후 관찰해 보니 암세포가 성장이 더디고 죽어 갔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간암세포에서는 일반 배추보다 항암 효과가 4배 이상 탁월했다</span>”고 했다.<br/><br/>박 대표는 “<span class='quot0'>1997년 육종 연구차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암에 좋다며 순무를 즐겨 먹는 것을 보고 이를 한국 쌈 문화에 접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개발을 시작했다</span>”면서“<span class='quot0'>배추와 순무를 종간교잡한 후 첨단 육종 기법인 소포자배양을 통해 항암 쌈채가 탄생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종간교잡이란 종이 다른 암수를 교배해 각 종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박 대표는 “<span class='quot0'>항암 쌈채는 잎 모양이 둥근 배추 모양에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 고기와 같이 먹으면 아삭한 식감과 영양 흡수가 좋아 일반 상추를 대신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생육이 빠르고 토양 적응성이 우수해 농장에서는 물론 가정이나 텃밭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어 “충북 진천과 전남 여수 지역 농가에서 항암 쌈채가 재배되고 있다”면서 “항암 쌈채가 전 세계로 확산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고, 우리 농민들은 고소득을 창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br/><br/>1991년 충북 증평군에 제일종묘농산을 설립한 박 대표는 앞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물질인 베타카로틴 등이 일반배추보다 30배 많은 항암 배추를 개발했고 혈당을 낮추거나 조절하는 물질을 다량 함유한 당조 고추도 개발했다. 그동안 박 대표가 개발한 신품종은 300여종에 달한다. 그는 이런 연구 노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2009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대한민국 종자명장으로 선정됐다. 명장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br/><br/>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8.txt

제목: ‘조기 위암 절제 최소화 수술법’ 국제학술지에 소개  
날짜: 2014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4622588  
본문: 　조기 위암 환자의 암 전이 상태와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장기 절제를 최소화한 국내 의료진의 수술법이 국제학술지에 소개됐다.<br/>　아주대병원 위암센터 소화기내과 임선교 교수와 위장관외과 허훈 교수는 조기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있는 환자 9명을 대상으로 내시경 절제와 복강경 수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조기위암 수술법’을 시행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br/>　의료진에 따르면 수술은 암이 퍼지는 길목의 림프절을 복강경으로 절제, 조직검사 등의 방법으로 암이 림프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전이가 없으면 내시경으로 곧장 병변 부위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br/>　그 결과, 환자 9명 모두 합병증 없이 회복됐다. 추가적인 절제수술도 따로 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서는 이후 1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　지금까지는 조기 위암 환자라도 수술 중 림프절로의 암 전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실제로는 전이되지 않았다 해도 선제적·포괄적으로 장기를 절제하거나, 실제로는 암이 전이됐는데도 병변 부위를 모두 절제해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br/>　이 때문에 지나치게 넓게 장기를 절제해 치료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병변 부위를 말끔하게 제거하지 못해 추후 재수술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br/>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이 전이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 수술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수술 후의 예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외과의사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29.txt

제목: 화장 김호정 투병고백, 성기노출 감행이유…김규리 “처음 알았다” 눈물  
날짜: 2014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3946590  
본문: 배우 김규리가 영화 ‘화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김호정의 투병생활 이야기에 눈물을 쏟았다.<br/>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작 ‘화장’ 기자회견에는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이 참석했다.<br/>극 중에서 뇌종양을 앓다가 쓰러져 점점 피폐해지는 아내 역을 맡은 김호정은 삭발은 물론 구토 등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모두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점점 쇠약해지며 배변도 조절 할 수 없어 옷에 변을 보고, 이를 남편이 닦아주는 장면에서 김호정은 음부 노출까지 감행했다.<br/>이에 김호정은 “이 역할을 준비하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고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연기하지 않았나 싶다”며 투병사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 <br/>이어 김호정은 “<span class='quot0'>화장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찍은 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성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어렵게 한 것보다도 사실 그 장면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다</span>”고 소감을 전했다.<br/>김호정의 깜짝 투병고백에 김규리는 “좋아하는 배우와 함께 작업하게 돼 행복했다. 김호정이 연기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많이 배웠다”며 “그런데 김호정이 투병 생활했던 걸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돼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br/>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흘렸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가슴 아팠나보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진짜 친한가보다</span>”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br/>영화 ‘화장’은 김훈 작가의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대상 수상작 ‘화장’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암에 걸린 아내(김호정)가 죽음가 가까워질수록 회사의 후배 직원(김규리)을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 오상무(안성기)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영화다.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신작이며, 올해 베니스, 토론토, 벤쿠버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올 하반기 국내 개봉한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0.txt

제목: 배우 김호정 투병 고백, 성기노출 감행이유…김규리 “처음 알았다” 눈물  
날짜: 2014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3851156  
본문: 배우 김규리가 영화 ‘화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김호정의 투병생활 이야기에 눈물을 쏟았다.<br/>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작 ‘화장’ 기자회견에는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이 참석했다.<br/>극 중에서 뇌종양을 앓다가 쓰러져 점점 피폐해지는 아내 역을 맡은 김호정은 삭발은 물론 구토 등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모두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점점 쇠약해지며 배변도 조절 할 수 없어 옷에 변을 보고, 이를 남편이 닦아주는 장면에서 김호정은 음부 노출까지 감행했다.<br/>이에 김호정은 “이 역할을 준비하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고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연기하지 않았나 싶다”며 투병사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 <br/>이어 김호정은 “<span class='quot0'>화장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찍은 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성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어렵게 한 것보다도 사실 그 장면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다</span>”고 소감을 전했다.<br/>김호정의 깜짝 투병고백에 김규리는 “좋아하는 배우와 함께 작업하게 돼 행복했다. 김호정이 연기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많이 배웠다”며 “그런데 김호정이 투병 생활했던 걸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돼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br/>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흘렸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가슴 아팠나보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진짜 친한가보다</span>”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br/>영화 ‘화장’은 김훈 작가의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대상 수상작 ‘화장’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암에 걸린 아내(김호정)가 죽음가 가까워질수록 회사의 후배 직원(김규리)을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 오상무(안성기)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영화다.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신작이며, 올해 베니스, 토론토, 벤쿠버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올 하반기 국내 개봉한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1.txt

제목: 고열량식 먹어도 ‘살 안찌는 방법’ 발견 (美연구)  
날짜: 2014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1312566  
본문: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키, 햄버거 등 각종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알약 하나만 추가로 복용해주면 별도의 운동, 식이요법 없이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 <br/>최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는 해당 교 의과대학·노인학 공동 연구진이 유전자 물질을 통해 고열량 식사를 지속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br/>연구진은 세포 분화과정 연구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선형동물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을 세균배양용기 상에서 심층 조사한 결과, 체내 열량을 흡수해내는 유전자 변종을 발견했다. 해당 유전자는 본래 SKN-1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변종은 활동상태가 지나치게 과잉돼 각종 열량을 평균보다 과하게 흡수해내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주목할 만한 것은 변종 SKN-1과 같은 성질의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바로 ‘Nrf2’ 단백질 유전자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고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일부 제약업체는 Nrf2 단백질을 정제해 항산화, 노화방지약품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br/>만일 Nrf2 단백질을 몸 속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체내 열량을 획기적으로 흡수해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꿈같은 일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감자튀김·탄산음료 등의 고열량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했더라도 알약으로 정제된 Nrf2 단백질을 복용해주면 체내 열량이 그대로 흡수돼 비만이 예방된다는 것이다. 만일 인체 내 특정 조직에서 Nrf2 단백질이 활성화된다면 원하는 부위별로 살이 빠지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br/>하지만 이는 아직 연구단계로 실용화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변수와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Nrf2 유전자는 인체 내에서 공격적인 암 세포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여부가 숙제로 남아있다.<br/>다만 이미 제약업계 노화방지용으로 Nrf2를 제품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꿈의 다이어트 약이 실현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숀 커렌 박사는 “문제는 Nrf2를 몸 속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시점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제어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만일 방법만 찾아낸다면 Nrf2는 무수히 많은 잠재성을 지닌 약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쥐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한편 이 연구는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6일자에 게재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2.txt

제목: 김호정 투병 눈물고백, 성기노출 감행이유…김규리 “처음 알았다” 눈물  
날짜: 2014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2602451  
본문: 배우 김규리가 영화 ‘화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김호정의 투병생활 이야기에 눈물을 쏟았다.<br/>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작 ‘화장’ 기자회견에는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이 참석했다.<br/>극 중에서 뇌종양을 앓다가 쓰러져 점점 피폐해지는 아내 역을 맡은 김호정은 삭발은 물론 구토 등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모두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점점 쇠약해지며 배변도 조절 할 수 없어 옷에 변을 보고, 이를 남편이 닦아주는 장면에서 김호정은 음부 노출까지 감행했다.<br/>이에 김호정은 “이 역할을 준비하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고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연기하지 않았나 싶다”며 투병사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 <br/>이어 김호정은 “<span class='quot0'>화장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찍은 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성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어렵게 한 것보다도 사실 그 장면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다</span>”고 소감을 전했다.<br/>김호정의 깜짝 투병고백에 김규리는 “좋아하는 배우와 함께 작업하게 돼 행복했다. 김호정이 연기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많이 배웠다”며 “그런데 김호정이 투병 생활했던 걸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돼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br/>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흘렸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가슴 아팠나보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진짜 친한가보다</span>”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br/>영화 ‘화장’은 김훈 작가의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대상 수상작 ‘화장’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암에 걸린 아내(김호정)가 죽음가 가까워질수록 회사의 후배 직원(김규리)을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 오상무(안성기)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영화다.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신작이며, 올해 베니스, 토론토, 벤쿠버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올 하반기 국내 개봉한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3.txt

제목: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김규리 눈물 “김호정 투병 생활 처음 알았다”  
날짜: 2014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2207713  
본문: 배우 김규리가 영화 ‘화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김호정의 투병생활 이야기에 눈물을 쏟았다.<br/>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작 ‘화장’ 기자회견에는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이 참석했다.<br/>극 중에서 뇌종양을 앓다가 쓰러져 점점 피폐해지는 아내 역을 맡은 김호정은 삭발은 물론 구토 등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모두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점점 쇠약해지며 배변도 조절 할 수 없어 옷에 변을 보고, 이를 남편이 닦아주는 장면에서 김호정은 음부 노출까지 감행했다.<br/>이에 김호정은 “이 역할을 준비하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고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연기하지 않았나 싶다”며 투병사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다. <br/>이어 김호정은 “<span class='quot0'>화장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찍은 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성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어렵게 한 것보다도 사실 그 장면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다</span>”고 소감을 전했다.<br/>김호정의 깜짝 투병고백에 김규리는 “좋아하는 배우와 함께 작업하게 돼 행복했다. 김호정이 연기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많이 배웠다”며 “그런데 김호정이 투병 생활했던 걸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돼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br/>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흘렸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가슴 아팠나보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진짜 친한가보다</span>”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br/>영화 ‘화장’은 김훈 작가의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대상 수상작 ‘화장’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암에 걸린 아내(김호정)가 죽음가 가까워질수록 회사의 후배 직원(김규리)을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 오상무(안성기)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영화다.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신작이며, 올해 베니스, 토론토, 벤쿠버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올 하반기 국내 개봉한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4.txt

제목: 빅토리아 애도, 이수만 부인 별세에 제시카 “마음 편치않다” 내용보니..  
날짜: 20141007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2124753  
본문: ‘빅토리아 애도’ ‘이수만 부인 김은진’<br/><br/>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의 부인 김은진씨가 암투병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걸그룹 에프엑스 빅토리아와 소녀시대 전멤버 제시카가 애도를 전했다.<br/><br/>지난 5일 빅토리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span class='quot0'>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빅토리아는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전하며 이수만 대표를 위로했다.<br/><br/>걸그룹 소녀시대 전멤버 제시카도 애도를 표했다. 제시카는 6일 오후 자신의 웨이보에 “<span class='quot1'>갑작스런 소식을 접하고 놀랐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span>”는 글을 게재했다.<br/><br/>제시카와 빅토리아 애도 메시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빅토리아 애도, 이수만 부인 별세.. 안타깝네요”, “빅토리아 애도 힘이 되시길..”, “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메시지보니 마음이 참 예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편 지난 5일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2'>지난달 30일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 이어 SM은 “<span class='quot3'>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다</span>”며 “<span class='quot3'>그러나 암이 다시 재발하게 돼 2년 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9월 30일 별세했다</span>”고 덧붙였다. <br/><br/>사진=서울신문DB( ‘빅토리아 애도’ ‘이수만 부인 김은진’)<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5.txt

제목: “임신 중 잦은 레드와인, 태아 소화기 기형 불러” (연구)  
날짜: 20141006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1207863  
본문: 임신 중 레드 와인을 자주 마시게 되면 태아의 소화기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br/>최근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연구진은 임신 중 레드와인을 자주 마실 경우, 태아 췌장이 기형적으로 변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레드 와인 속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드와인 뿐 아니라 다크 초콜릿, 땅콩, 포도를 비롯한 베리류에서도 발견되는 해당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는 역할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그러나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이 임신 중 태아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연구진은 임신 후 비만이 된 짧은 꼬리 원숭이(macaque monkey)들과 마른 몸매의 짧은 꼬리 원숭이를 대상으로 임신 원숭이 그룹에게는 식단 외에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추가로 보충하고 마른 원숭이 그룹에게는 일반 건강 식단을 제공한 뒤 이후 나타나는 경과를 관찰했다.<br/>연구진은 초음파 관찰로 태반을 통해 원숭이 태아에게로 전해지는 혈액흐름과 건강상태를 집중 모니터링 했고, 결과적으로 소화기관 중 췌장에 기형적 이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아냈다.<br/>연구진은 “우리는 지금까지 레스베라트롤 의학적 효력에 집중해왔지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부작용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동물 실험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 과한 음주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해 다른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보조식품 속 성분들에 과연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미국 실험생물학연합회 저널(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Journal)’에 게재됐다.<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6.txt

제목: 왜 나는 동생보다 ‘키’가 작을까? 원인은 ‘저신장 유전자’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1028815  
본문: 가족 중 유독 자신만 신장이 작아 고민인 경우가 있다. 특히 형제, 자매는 훤칠한데 이상하게 본인만 평균보다 작은 신장을 갖게 됐을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br/>이와 관련해 최근 형제, 자매 간 신장차이가 나는 가장 큰 요인은 키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BBC 뉴스는 엑서터 의과대학 연구진이 형제, 자매 간 신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정 ‘저신장 유전자’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유럽인 25만 명의 유전정보(genome) 데이터에서 찾아낸 유전적 소인(genetic factor) 200만 가지를 분석하는 조사를 수행했다. 해당과정에서 선택된 424가지 유전정보 안에서 연구진은 유전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유전자변이주(genetic variant) 697가지를 새롭게 찾아냈는데, 이것이 저신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br/>일반적으로 저신장의 원인은 70~80%가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인 요인, 나머지 20~30%는 출생 직후 영양상태·질병·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모가 신장이 작으면 자녀의 신장 역시 작을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br/>하지만, 과거에 비해 의학·영양학적 조건이 많이 개선되어 환경적 요인이 많이 극복된 현 상황에서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간에 뚜렷한 신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저신장 유발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엑서터 의과대학 연구진은 가져왔다. 따라서 수십 만 유럽인구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해낸 끝에 연구진이 발견해낸 700여 가지 유전자변이주(genetic variant)가 바로 저신장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다.<br/>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저신장과 관련된 질병인 골연골 이형성증, 골다공증, 신장질환부터 일부 심혈관계 질환, 암 질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br/>엑서터 의과대학 앤드류 우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연구에서 발견된 700여 가지 변종 유전자는 자녀의 신장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부터 저신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까지 의학적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7.txt

제목: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모자이크 없이 성기 노출 ‘김규리 눈물까지..경악’  
날짜: 20141006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1304656  
본문: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br/><br/>배우 김호정이 영화 속 성기 노출 사실에 대해 밝혔다.<br/><br/>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작 ‘화장’ 기자회견에서는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 김호정, 김규리가 참석했다.<br/><br/>이날 김호정은 “화장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찍은 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감독님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풀샷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아름답게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br/><br/>김호정은 성기노출에 대해 “<span class='quot0'>감독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난 수월하게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장면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했다</span>”고 덧붙였다.<br/><br/>김호정은 뇌종양을 앓다가 쓰러져 점점 피폐해지는 아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는 후문이다.<br/><br/>이날 김규리는 “예전에 영화 ‘나비’에서 김호정을 보고 눈빛과 모든 것이 참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며 김호정의 투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을 보여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br/><br/>한편 ‘화장’은 김훈 작가의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대상 수상작 ‘화장’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암에 걸린 아내(김호정)가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회사의 후배 직원(김규리)을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 오상무(안성기)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영화다.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이며, 올해 베니스, 토론토, 벤쿠버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올 하반기 국내 개봉한다.<br/><br/>‘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가슴 아프다”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좋은 활약 기대할게요”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건강하세요”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까지.. 저도 눈물이 나네요”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 = 영화 스틸 (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김규리 눈물)<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8.txt

제목: 파라벤 치약 유해성 논란 식약처 해명 “국내 유통 치약 안전” 근거는?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1112936  
본문: 파라벤 치약 유해성 논란 식약처 해명 “국내 유통 치약 안전” 근거는? <br/><br/>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라벤’ 함유 치약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br/><br/>6일 식약처는 “<span class='quot0'>논란이 된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은 유럽이나 일본, 미국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span>”면서 “국내 유통 치약은 안전하다”고 밝혔다.<br/><br/>식약처는 “<span class='quot1'>김재원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span>”고 해명했다.<br/><br/>앞서 지난 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br/><br/>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br/><br/>김 의원은 “<span class='quot2'>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span>”고 주장했다.<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3'>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뭔가 찜찜한데</span>”, “<span class='quot3'>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그럼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잘못했다는 건가</span>”, “<span class='quot3'>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무슨 일이지</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39.txt

제목: 빅토리아, 이수만 대표에게 애도의 뜻 전해 눈길...  
날짜: 2014100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1040246  
본문: 이수만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걸그룹 에프엑스 빅토리아가 위로의 뜻을 밝혔다.<br/><br/>지난 5일 빅토리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며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힘내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수만 대표를 위로했다.<br/><br/>한편 지난 5일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9월 30일 이수만 대표 아내의 별세소식을 전했다. 이어 SM은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암이 다시 재발하게 돼 2년 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9월 30일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br/>사진=빅토리아 SNS<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0.txt

제목: 파라벤 함유 치약(유해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함량 잘못 기재”…해명 불구 불안감 확산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1043531  
본문: ‘유해 치약’ ‘파라벤 함유 치약’<br/><br/>‘파라벤 함유 치약(유해 치약)’ 논란이 뜨거워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해명했다.<br/>5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br/>식약처는 “<span class='quot0'>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span>”고 말했다.<br/>식약처는 이어 “<span class='quot0'>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span>”고 말했다.<br/>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br/>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span>”고 말했다.<br/>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br/>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br/>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br/>파라벤 치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파라벤 치약, 외국에선 안 쓴다며</span>” “<span class='quot1'>파라벤 치약, 이 닦는 것도 불안해졌어</span>” “<span class='quot1'>파라벤 치약, 해명도 믿을 수가 없어</span>” “파라벤 치약, 어떡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1.txt

제목: 빅토리아, 이수만 아내 암투병 중 별세 소식에 SNS글 게재...  
날짜: 2014100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958839  
본문: 걸그룹 에프엑스 빅토리아가 이수만 아내 별세 소식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br/><br/>지난 5일 빅토리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span class='quot0'>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고 입을 열었다. 빅토리아는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힘내세요”라며 애도를 표했다.한편 지난 5일 SM은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다”며 “그러나 암이 다시 재발하게 돼 2년 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9월 30일 별세했다”고 전했다.<br/><br/>사진=빅토리아 SNS<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2.txt

제목: 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함량 잘못 기재”…암 발병률 높일 수 있다?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1009002  
본문: ‘유해 치약’ ‘파라벤 치약’<br/><br/>‘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이 뜨거워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해명했다.<br/>5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br/>식약처는 “<span class='quot0'>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span>”고 말했다.<br/>식약처는 이어 “<span class='quot0'>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span>”고 말했다.<br/>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br/>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span>”고 말했다.<br/>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br/>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br/>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br/>경희대 치과대학 박용덕 교수는 6일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span class='quot1'>(파라벤은) 국내에서는 0.2%인지 몰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는 물질로 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라벤이 무해하다는 걸 증명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엄격한 잣대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3.txt

제목: 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함량 잘못 기재…문제 제품 유통 없다”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940288  
본문: ‘유해 치약’ ‘파라벤 치약’<br/><br/>‘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이 뜨거워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해명했다.<br/>5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br/>식약처는 “<span class='quot0'>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span>”고 말했다.<br/>식약처는 이어 “<span class='quot0'>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span>”고 말했다.<br/>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br/>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span>”고 말했다.<br/>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br/>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br/>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4.txt

제목: 빅토리아, 이수만 대표 부인 별세 소식에 위로글 올려..  
날짜: 2014100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727329  
본문: 걸그룹 에프엑스 빅토리아가 이수만 대표의 부인 별세소식에 애도를 표했다.<br/><br/><br/><br/>지난 5일 빅토리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span class='quot0'>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는 글을 올렸다. 빅토리아는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저희가 공연 잘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덧붙였다.<br/><br/><br/><br/>한편 지난 5일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만 대표 부인의 별세소식을 발표했다. SM은 “<span class='quot1'>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암이 다시 재발하게 돼 2년 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9월 30일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br/><br/>사진=빅토리아 SNS<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5.txt

제목: 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함량 잘못 기재한 자료 제출돼…문제 제품 유통 없다”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659960  
본문: ‘유해 치약’ ‘파라벤 치약’<br/><br/>‘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br/>5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br/>식약처는 “<span class='quot0'>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span>”고 말했다.<br/>식약처는 이어 “<span class='quot0'>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span>”고 말했다.<br/>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br/>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span>”고 말했다.<br/>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br/>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br/>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6.txt

제목: 김호정 암 투병고백에 눈물…부산국제영화제 임권택 ‘화장’ 제작 뒷이야기 화제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638035  
본문: 김호정 암투병 눈물이 화제다.<br/>지난 5일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작 ‘화장‘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br/>이날 행사에는 임권택 감독을 비롯해 출연 배우인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이 참석했다.<br/>영화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김호정)와 젊은 여성(김규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중년 남성(안성기)의 이야기를 다룬 임권택 감독의 작품으로 극 중 김호정은 뇌종양을 앓다가 쓰러져 점점 피폐해지는 아내 역을 맡았다. <br/>이날 김호정은 “<span class='quot0'>개인적으로 아파봤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주위에도 아픈 사람이 있어서 조금은 수월하게 자신감 갖고 연기한 것 같다</span>”고 밝혔다.<br/>이어 김호정은 “이 영화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투병하다 죽는 역할이어서 처음엔 못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해야 될 거고, 배우의 운명이란 이런 건가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찍었다”고 말했다.<br/>한편 이 이야기를 듣던 김규리는 “좋아하는 배우와 함께 작업하게 돼 행복했다. 김호정이 연기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많이 배웠다. 그런데 김호정이 투병 생활했던 걸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돼 깜짝 놀랐다. 언니 사랑한다”고 덧붙였다.<br/>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그런 사연이</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대단하다</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영화 기대돼</span>” “<span class='quot1'>김호정 투병고백에 눈물, 힘내라</span>”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7.txt

제목: 유해 치약(파라벤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함량 잘못 기재한 자료 제출돼…문제 제품 유통 없다”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646225  
본문: ‘유해 치약’ ‘파라벤 치약’<br/><br/>‘유해 치약(파라벤 치약)’ 논란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br/>5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br/>식약처는 “<span class='quot0'>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span>”고 말했다.<br/>식약처는 이어 “<span class='quot0'>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span>”고 말했다.<br/>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br/>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span>”고 말했다.<br/>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br/>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8.txt

제목: 이수만 부인, 소장암 투병 중 별세.. 과거 280만달러 대저택 구입 이유보니..  
날짜: 2014100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608311  
본문: ’이수만 부인’<br/><br/>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의 부인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br/><br/>5일 SM은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달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SM은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김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br/><br/>이수만 부인의 별세 소식에 지난 9월 방송된 채널A ‘라이벌 매치-압도적 7’ 이수만 vs 양현석 편이 뒤늦게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이수만 아내의 병에 대해 언급됐기 때문이다. 당시 방송에서 방송인 김태균은 “이수만 내외는 두 아들을 낳고 LA에서 살게 됐다. 그런데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일 때 두 학교를 오가며 등하교를 해주던 이수만씨의 아내가 햇빛 알러지 증상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수만 씨가 학교 근처에 280만 달러 상당의 대저택을 구입했다</span>”라고 설명했다. <br/><br/>한편 이수만 부인 사망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만 부인, 안타깝네요..”, “이수만 부인 사망설 진짜였구나.. 이수만 요즘 정말 힘들겠다”, “이수만 부인 아직 젊을 텐데...너무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방송캡쳐(’이수만 부인’)<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49.txt

제목: 빅토리아 애도 “이수만 선생님 아버지 같은 분” 부인 사망 원인은?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56853  
본문: 빅토리아 애도 “이수만 선생님 아버지 같은 분” 부인 사망 원인은?<br/><br/><br/>지난달 30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씨가 소장암으로 별세한 가운데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빅토리아가 애도를 표했다.<br/><br/><br/>빅토리아는 5일 자신의 SNS에 “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라는 글을 남겼다.<br/><br/><br/>이어 빅토리아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남겼다.<br/><br/><br/>SM은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왔다”면서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다. 하지만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돼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했다”라고 밝혔다.<br/><br/><br/>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며 지난 2일 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빅토리아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0'>빅토리아 애도, 소속사 사장이니까 슬프겠다</span>”, “빅토리아 애도, 멋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0.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작년 1월 소장암 수술했지만 결국 재발…빅토리아 애도 “선생님의 저희의 기둥이자…”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38517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 작년 1월 소장암 수술했지만 결국 재발…빅토리아 애도 “선생님의 저희의 기둥이자…”<br/><br/><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암 투병 끝에 지난달 말 별세했다. 2년간 소장암으로 투병해왔다. 이수만 회장은 부인 별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토리아는 SNS에서 엄숙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SM엔터테인먼트는 5일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공식 발표했다.<br/>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고 설명했다.<br/>이수만 회장은 아내의 발병 직후부터 임종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재발하면서 결국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됐다. 아내 사랑이 대단했던 이수만 회장은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부인을 위해 대저택을 구입하기도 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빅토리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1'>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라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빅토리아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썼다.<br/><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속깊은 연예인</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고인의 명복을</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속 편히 쉬시길</span>” 등 반응을 보였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1.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2년간의 소장암 투병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빅토리아 애도 메시지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41010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 2년간의 소장암 투병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빅토리아 애도 메시지<br/><br/><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암 투병 끝에 지난달 말 별세했다. 2년간 소장암으로 투병해왔다. 이수만 회장은 부인 별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토리아는 SNS에서 엄숙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SM엔터테인먼트는 5일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공식 발표했다.<br/>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고 설명했다.<br/>이수만 회장은 아내의 발병 직후부터 임종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재발하면서 결국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됐다. 아내 사랑이 대단했던 이수만 회장은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부인을 위해 대저택을 구입하기도 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f(x)의 빅토리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1'>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라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빅토리아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썼다.<br/><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숙연해진다</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에 이수만 회장 힘내세요</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착한 연예인</span>” 등 반응을 보였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2.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f(x) 빅토리아 애도…2년간의 소장암 투병 끝에 결국 지난달 말 임종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39836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f(x) 빅토리아 애도…2년간의 소장암 투병 끝에 결국 지난달 말 임종<br/><br/><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암 투병 끝에 지난달 말 별세했다. 2년간 소장암으로 투병해왔다. 이수만 회장은 부인 별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토리아는 SNS에서 엄숙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SM엔터테인먼트는 5일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공식 발표했다.<br/>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고 설명했다.<br/>이수만 회장은 아내의 발병 직후부터 임종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재발하면서 결국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됐다. 아내 사랑이 대단했던 이수만 회장은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부인을 위해 대저택을 구입하기도 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빅토리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1'>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라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빅토리아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썼다.<br/><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훌륭하다</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속 영면하세요</span>” 등 반응을 보였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3.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2년간의 소장암 투병 노력도 헛되이… 빅토리아 애도 메시지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47513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 2년간의 소장암 투병 노력도 헛되이… 빅토리아 애도 메시지<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암 투병 끝에 지난달 말 별세했다. 2년간 소장암으로 투병해왔다. 이수만 회장은 부인 별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토리아는 SNS에서 엄숙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SM엔터테인먼트는 5일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공식 발표했다.<br/>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고 설명했다.<br/>이수만 회장은 아내의 발병 직후부터 임종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재발하면서 결국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됐다. 아내 사랑이 대단했던 이수만 회장은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부인을 위해 대저택을 구입하기도 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f(x)의 빅토리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1'>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라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빅토리아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썼다.<br/><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숙연해진다</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에 이수만 회장 힘내세요</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착한 연예인</span>” 등 반응을 보였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4.txt

제목: 유해 치약 논란 ‘파라벤’ 함유 치약 얼마나 있나 봤더니 ‘충격’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53956  
본문: 국내에서 허가 받은 치약의 3분의 2에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br/>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천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주장했다.<br/><br/>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br/><br/>이에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br/><br/>우리나라는 치약 제품에서 파라벤을 0.2%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br/><br/>더구나 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br/><br/>김 의원은 “<span class='quot0'>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5.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2년 투병 소장암 어떤 병이길래…빅토리아 애도 “저희의 기둥이자…”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23612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 지난해 1월 소장암 수술 받았지만…빅토리아 애도 “저희의 기둥이자…”<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수만 회장은 부인 별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토리아는 SNS에서 엄숙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SM엔터테인먼트는 5일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공식 발표했다.<br/>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고 설명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이수만 회장 부인 별세 소식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빅토리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1'>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라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빅토리아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썼다.<br/><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슬픔을 나누다</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착한 마음씨</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편한 곳으로 가시길</span>” 등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6.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지난해 1월 소장암 수술 받았지만…빅토리아 애도 “저희의 기둥이자…”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14394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 지난해 1월 소장암 수술 받았지만…빅토리아 애도 “저희의 기둥이자…”<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수만 회장은 부인 별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토리아는 SNS에서 엄숙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SM엔터테인먼트는 5일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공식 발표했다.<br/>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고 설명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이수만 회장 부인 별세 소식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빅토리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1'>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라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빅토리아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썼다.<br/><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슬픔을 나누다</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착한 마음씨</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편한 곳으로 가시길</span>” 등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7.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소장암 2년 투병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빅토리아 애도 “저희의 기둥이자…”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25496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 지난해 1월 소장암 수술 받았지만…빅토리아 애도 “저희의 기둥이자…”<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수만 회장은 부인 별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토리아는 SNS에서 엄숙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SM엔터테인먼트는 5일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공식 발표했다.<br/>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고 설명했다.<br/>이수만 회장은 아내의 발병 직후부터 임종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됐다. 평소 아내 사랑이 대단했던 이수만 회장은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부인을 위해 대저택을 구입하기도 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빅토리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1'>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라고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빅토리아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썼다.<br/><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기특하다</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남편의 정성도 헛되이</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속 편히 영면하시길</span>” 등 반응을 보였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8.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극진한 간호 속 2년 투병도 헛되이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03843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극진한 간호 속 2년 투병도 헛되이<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br/>5일 SM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SM은 “<span class='quot1'>2012년 12월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고 설명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별세, 외부에 소식을 안알린 이유가 궁금</span>” “<span class='quot2'>이수만 부인, 소장암에 걸리다니</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59.txt

제목: 이수만 부인, 소장암으로 별세.. 뒤늦게 알려진 이유는?[전문포함]  
날짜: 2014100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456285  
본문: ‘이수만 부인’<br/><br/>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의 부인이 암 투병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br/><br/>5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SM은 “<span class='quot1'>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했다</span>”고 덧붙였다.<br/><br/>SM에 따르면 이수만 부인의 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으며, 지난 2일 발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수만 부인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만 부인 사망설 진짜였구나..”, “이수만 부인 안타깝다..힘내세요”, “이수만 부인 돌아가시다니..요즘 계속 힘든 일 겹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br/><br/>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관련해 말씀 드립니다.<br/><br/>당사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br/><br/>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br/><br/>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며 2014년 10월 2일 발인을 마쳤습니다.<br/><br/>고인의 가시는 길에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br/><br/>사진=서울신문DB(이수만 부인)<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0.txt

제목: 이수만 부인 별세, 소장암 2년 투병 끝내 극복 못하고…빅토리아 애도 “아버지 같은 분이…”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506329  
본문: 이수만 부인 별세, 소장암 2년 투병 끝내 극복 못하고…빅토리아 애도 “아버지 같은 분이…”<br/><br/><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빅토리아는 SNS에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5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1'>2012년 12월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고 설명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이수만 회장 부인 별세 소식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빅토리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pan class='quot2'>이수만 선생님의 부인이 떠나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span>”라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br/>빅토리아는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은 저희의 기둥이자 아버지같은 분이세요. 저희가 공연 잘 하고 갈게요. 힘내세요”라고 썼다.<br/><br/>이수만 부인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3'>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3'>이수만 부인 별세, 빅토리아 애도 슬프다</span>” “<span class='quot3'>이수만 부인, 빅토리아 애도 속깊은 행동</span>” 등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1.txt

제목: 이수만 아내 별세 소식에 과거 LA집 산 이유 눈길..  
날짜: 2014100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452630  
본문: 이수만 대표의 아내가 별세했다.<br/><br/><br/><br/>5일 SM은 이수만 대표의 부인 김여사의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고 밝혔다.<br/><br/>이에 과거 이수만 가정사가 담겨진 방송이 새삼 화제다. 당시 방송에서 방송인 김태균은 이수만 부인의 햇빛 알러지 증상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수만 씨가 학교 근처에 280만 달러 상당의 대저택을 구입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br/><br/><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2.txt

제목: 이수만 아내, 9월 30일 소장암 투병 중 별세....SM공식입장은?  
날짜: 2014100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440072  
본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의 아내가 별세했다.<br/><br/>5일 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수만의 부인은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왔다고 한다. SM은 “<span class='quot1'>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br/><br/><br/><br/><br/><br/><br/><br/>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관련해 말씀 드립니다.당사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br/><br/>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며 2014년 10월 2일 발인을 마쳤습니다. 고인의 가시는 길에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br/><br/>사진=서울신문DB<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3.txt

제목: “뜨거운 욕망과 차가운 절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인생”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200815  
본문: “오래 살았다고 꼭 명작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는 감독이 살아 온 세월만큼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상과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br/><br/>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된 ‘화장’을 연출한 임권택(80) 감독은 5일 해운대구 우동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화장’은 그에게 102번째 작품. 암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김호정)를 최선을 다해 간호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부하 직원 추은주(김규리)에 대한 사랑과 욕망이 깊어지는 중년 남성 오상무(안성기)의 갈등을 그렸다. 소설가 김훈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에서 임 감독은 끝까지 차가운 절제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뜨거운 삶의 욕망을 세련된 방식으로 연출했다.<br/><br/>“욕망은 끊임없이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끝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것이 절제의 힘이고 이성이자 인격이지요. 성적 욕구에 대한 갈망이나 환상은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시류나 유행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안으로 싸워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br/><br/>거장의 102번째 작업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예전에는 아예 회차를 정해 놓고 영화제 출품 기한에 맞춰 강행군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1년에 걸친 작업 기간 동안 한 달이나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br/><br/>“오상무의 생각을 잘 따라가면서 명료하게 찍어내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지난봄 칸국제영화제에 너무 졸속으로 출품하는 바람에 영화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상당히 난처했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원작 소설가인 김훈 선생의 엄청난 문장력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취화선’ 이후 12년 만에 임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안성기는 “원초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야 했는데, 새로운 연정이 생기는 감정이나 노골적인 눈빛을 드러낼 때는 무척 쑥스러웠다”고 말했다.<br/><br/>100편 넘는 영화를 찍은 임 감독이지만 새로운 작품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누구보다 크다. “영화를 찍을 때마다 늘 비슷한 작품을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장’ 역시 이 소재라면 기존의 내 영화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한 작품입니다. 흥행 감독이 아닌 내게 103번째 영화를 찍을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쉬엄쉬엄 새로운 영화를 모색할 작정입니다.”<br/><br/>부산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4.txt

제목: 이수만 아내, 지난달 30일 암투병으로 별세소식 뒤늦게 전해져....  
날짜: 20141005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026964  
본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의 아내가 암 투병 중 별세했다는 소식이다.<br/><br/>5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br/><br/>이수만 부인의 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br/><br/>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관련해 말씀 드립니다.<br/><br/>당사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br/><br/>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br/><br/>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며 2014년 10월 2일 발인을 마쳤습니다.<br/><br/>고인의 가시는 길에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br/><br/><br/><br/>사진=서울신문DB<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5.txt

제목: 이수만, 과거 LA에 집 산 이유는?  
날짜: 20141005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016833  
본문: 이수만 SM대표의 아내가 암투병 중 사망했다.<br/><br/><br/><br/>5일 SM은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며 이수만 아내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br/><br/>이에 과거 이수만 아내의 병이 언급된 방송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방송인 김태균은 “이수만 내외는 두 아들을 낳고 LA에서 살게 됐다. 그런데 이수만씨의 아내가 햇빛 알러지 증상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이수만 씨가 학교 근처에 280만 달러 상당의 대저택을 구입했다</span>”고 덧붙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br/><br/>사진=방송캡쳐<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6.txt

제목: 이수만 아내, 소장암 투병으로 지난달 별세...  
날짜: 20141005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15958842  
본문: SM 이수만 대표의 아내가 암투병으로 별세한 소식이 전해졌다.<br/><br/>5일 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발표했다. <br/><br/>SM은 “<span class='quot1'>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br/><br/><br/><br/><br/>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관련해 말씀 드립니다.<br/><br/>당사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br/><br/>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br/><br/>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며 2014년 10월 2일 발인을 마쳤습니다.<br/><br/>고인의 가시는 길에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br/><br/><br/><br/>사진=서울신문DB<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7.txt

제목: 이수만 SM 회장 부인상…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 알고보니  
날짜: 2014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20003354  
본문: 이수만 SM 회장 부인상…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 알고보니<br/><br/>이수만(62)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부인이 최근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br/>SM은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 여사가 지난달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고 5일 밝혔다.<br/>SM은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고 설명했다.<br/>장례는 고인과 이수만 회장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난 2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8.txt

제목: 이수만 아내, 9월 30일 별세 뒤늦게 전해져...  
날짜: 20141005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15940115  
본문: 이수만 대표의 아내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br/><br/><br/><br/>5일 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수만 프로듀서는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아내를 극진히 간호해 왔으나 암이 다시 재발해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했다.<br/><br/><br/><br/>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관련해 말씀 드립니다.<br/><br/>당사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br/><br/>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br/><br/>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며 2014년 10월 2일 발인을 마쳤습니다.<br/><br/>고인의 가시는 길에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br/><br/>사진=서울신문DB<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69.txt

제목: 이수만 아내 별세, 과거 방송에서 햇빛알레르기 고백 화제..  
날짜: 20141005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15929680  
본문: 이수만 SM대표의 부인이 별세했다는 소식이다.<br/><br/><br/><br/>5일 SM은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김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가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극진히 간호해왔으나 결국 암이 재발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span>”고 밝혔다.<br/><br/>이에 지난 9월 방송된 채널A ‘라이벌 매치-압도적 7’ 이수만 vs 양현석 편이 뒤늦게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방송인 김태균은 “이수만 내외는 두 아들을 낳고 LA에서 살게 됐다. 그런데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일 때 두 학교를 오가며 등하교를 해주던 이수만씨의 아내가 햇빛 알러지 증상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다”라고 전했다. <br/><br/>사진=방송캡쳐(’이수만 부인’)<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0.txt

제목: 이수만 아내, 지난달 별세.....  
날짜: 20141005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15920726  
본문: 이수만 SM대표의 아내가 투병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br/><br/>5일 SM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span>”고 전했다. <br/><br/><br/><br/>보도에 따르면 이수만 부인의 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으며, 지난 2일 발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br/><br/><br/><br/>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관련해 말씀 드립니다.당사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께서 지난 9월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 김은진 여사의 소장암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이었으며, 2013년 1월에 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항암치료 등을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2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br/><br/>장례는 고인 및 가족들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으며 2014년 10월 2일 발인을 마쳤습니다.고인의 가시는 길에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br/><br/>사진=서울신문DB<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1.txt

제목: 女 허리 5㎝ 늘 때, 사망위험 9% 는다  
날짜: 2014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0913927  
본문: 평소 꾸준한 운동과 음식조절로 체형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영국 BBC뉴스는 영국 심장재단(British Heart Foundation)이 제시한 관상심장병(coronary heart disease) 악화 원인과 예방법을 최근 소개했다.<br/>국제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영국 성인 남성 1010명, 성인 여성 10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 대상자의 20%가 남자 허리 사이즈 40인치, 여자 허리 사이즈가 35인치까지는 건강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br/>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영국 심장재단(British Heart Foundation)은 허리사이즈가 남성은 37인치, 여성은 32인치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이를 넘기지 않도록 무척 주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치명적인 관상심장병(coronary heart disease)이 찾아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br/>허리사이즈가 심장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나왔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의 환자 60만 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넓은 사람일수록 심장질환, 폐질환, 암 질환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리둘레가 5㎝ 증가할 때마다 남성은 7%, 여성은 9%씩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관상심장병은 과다 섭취된 지방이 혈관을 막아 유발되는 심장병으로 허리사이즈 증가로 대변되는 비만과 상당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br/>특히 영국인들은 한해 7만 3000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영국 심장재단은 밝혔다. 최근 재단 조사결과를 보면, 영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 33%, 암 29%, 뇌졸중 6% 순이었으며 심장질환 단 2%에 불과했다.<br/>하지만 심장재단은 사람들 대부분이 앉아있는 생활 습관, 영양 결핍, 고혈압, 비만과 같은 심장 질환 위험 인자를 안고 있기에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심장병 예방에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br/>영국 심장재단 마이크 냅튼 박사는 “<span class='quot0'>심장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심장을 관리해줘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다음은 영국 심장재단이 제시한 심장건강 유지 팁 10가지다.<br/>1. 금연 <br/>2. 평균 체중 유지 <br/>3. 활동적인 생활 습관 구축 <br/>4. 염분 섭취 줄이기 <br/>5. 하루 5회 이상 과일, 채소류 섭취 <br/>6. 포화지방 섭취 금지 <br/>7. 식품 구입 전 뒷면에 새겨진 영양성분 꼼꼼히 확인 <br/>8. 알코올 섭취 줄이기 <br/>9. 항상 한 끼 식사량 체크 <br/>10. 40세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병원 찾아 건강검진 받을 것<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2.txt

제목: 美, 어린이 암환자와 함께 춤추는 경찰관 화제  
날짜: 2014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15617664  
본문: 어린이 암환자와 함께 춤추는 경찰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br/><br/>3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큐어 4 어린이 재단(the Cure 4 the Kids Foundation)을 방문한 경찰관 팀 플레처(Tim Fletcher)가 어린이 암환자와 춤을 추는 장면을 기사와 함께 소개했다.<br/><br/>큐어 4 어린이 재단(the Cure 4 the Kids Foundation)은 네바다주와 주변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과 자선, 교육, 과학 등의 목적을 위해 2007년 4월에 만들어진 자선재단.<br/><br/><br/><br/><br/><br/>영상을 보면, 경찰관 플레처가 센터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파리얼(Phareall)이란 소년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아픈 소년을 위해 우스꽝스러운 춤을 선보이는 모습이 훈훈한 감동을 준다.<br/><br/>지난 1일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관의 모습이 훈훈하네요”, “멋진 경관님!”, “감동적인 영상이네요” 등 칭찬일색의 댓글을 달았다.<br/><br/>사진·영상= LasVegasPolice youtube<br/><br/>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3.txt

제목: 전문가 16인의 방문 서비스 관악구민 건강관리 든든  
날짜: 2014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13953929  
본문: 관악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홀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고 2일 밝혔다. <br/><br/><br/>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이 같은 사업을 벌이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구가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셈</span>”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전담 인력 16명이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br/><br/><br/>방문 결과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 않을 땐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돕는다. 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취약가구 비율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 9월까지 방문건강관리의 혜택을 받은 가구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7000가구에 이른다</span>”고 설명했다.<br/><br/><br/>방문건강관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동 불편 환자나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의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 환자 관리 ▲휠체어, 목발 등 무료 대여 ▲북한이탈주민 중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건강위험군 발굴 ▲국가 무료 건강검진 미수혜자에 대한 방문보건 건강검진 ▲저소득층 노인 개안수술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br/><br/><br/>구는 이 밖에도 경로당과 노인대학에서 어르신 건강 회복 프로그램 ‘재활 해피투게더’와 치매 조기 선별검진,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포함한 ‘건강 짱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게 방문건강관리의 목표</span>”라고 말했다.<br/><br/><br/>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4.txt

제목: ‘보디빌딩’으로 암 극복한 69세 ‘몸짱 할머니’  
날짜: 2014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0628092  
본문: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하고 ‘보디빌딩’과 ‘식이요법’을 통해 암을 극복한 60대 할머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영국 내 최고령 여성 파워리프팅(power lifting) 챔피언이자 화학요법 대신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암을 이겨낸 팻 리브스(69)의 놀라운 사연을 1일(현지시간) 소개했다.<br/>리브스에게 처음 불행이 닥친 것은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83년, 당시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권했지만 탈모, 식욕부진, 섬유증과 같은 부작용으로 병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리브스는 과감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병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었다.<br/>이후 그녀가 택한 운동종목은 무려 ‘보디빌딩’으로 당시 38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뇌종양까지 앓고 있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150㎝ 남짓한 작은 체구임에도 철저히 트레이닝에 돌입한 그녀는 생식을 비롯한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뇌종양을 훌륭히 극복해냈다.<br/>하지만 11년이 지난 1994년, 또 하나의 시련이 그녀를 찾아온다. 몸의 뼈 부분에 14가지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골육종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화학요법을 거부하고 오직 운동을 통해 암세포와의 치열한 전투를 지속했다. 심지어 이후 그녀는 4번의 심장마비 상황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모든 악조건을 이겨냈다.<br/>리브스가 보디빌딩을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이 그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달리기를 비롯한 유산소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려했지만 이는 단지 허리 살을 줄여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절대 쉽지 않았지만 보디빌딩을 시작하면서 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br/>운동으로 시작된 보디빌딩은 그녀에게 ‘파워리프팅 선수’라는 제2의 삶까지 열어줬다. 파워리프팅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겨루는 근력 시합으로 바벨을 들어올리는 경기라는 점에서 역도와 유사하나, 바벨을 드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 리브스는 체중 50㎏급 여성 최고령 유럽-영국 파워리프팅 챔피언이라는 놀라운 경력을 갖고 있다.<br/>두 손자·손녀의 자상한 할머니이자 70세 생일을 코앞에 둔 그녀지만 여전히 데드리프트 90~100㎏을 해내는 모습은 꾸준한 자기관리가 얼마만큼 사람 건강을 바뀌게 만들 수 있는지 여실히 느껴지게 해준다.<br/>리브스는 “31년 전 내가 보디빌딩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운동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우려했다”며 “하지만 지금 내가 운동을 하면 모두들 넋을 잃고 쳐다보기만 한다. 중요한 것은 주위의 시선이 아니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자신감과 의지며 성과를 통해 이를 증명해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br/>사진=Top photo/Barcroft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5.txt

제목: “냄새 잘 못 맡으면, 5년 내 사망확률 6배↑” (시카고大)  
날짜: 2014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0621284  
본문: 어느 순간, 냄새를 못 맡게 되는 후각상실 증세가 나타나면 사망확률이 높아질 징조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br/>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진은 갑작스러운 후각상실 증세는 건강이 크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심각한 징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을 통해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br/>연구진은 57~85세 사이 중·노년층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펜 형태로 박하, 생선, 오렌지, 장미꽃, 가죽 순서로 5가지 냄새가 내는 후각측정 기기로 3분간 냄새를 맡게 한 뒤, 순서대로 얼마만큼 냄새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테스트해본 것.<br/>측정결과를 살펴보면, 70% 이상에 달하는 인원은 4~5가지의 냄새를 정확히 구분해 후각상태가 가장 양호했고 그 외 20% 인원은 2~3가지의 냄새까지만 구분해내 약간의 후각상실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3.5%에 해당하는 인원은 1가지 또는 전혀 냄새를 구분하기 못하는 무(無)후각 상태였는데 5년 후, 이들 중 430명이 사망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br/>이를 산술적으로 환산해보면, 후각이 상실된 사람은 정상 후각인 사람보다 5년 내 사망확률이 거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br/>물론 이는 통계적인 수치로 후각상실이 구체적으로 암, 심장질환과 같은 특이 질환의 징조라고 볼 수 없고 죽음을 직접적으로 예고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다만, 후각은 특정 물질에서 확산된 분자가 코 안 후각세포(厚角細胞)를 자극해 뇌로 이어져 냄새를 감지시키는 작용을 수행하기에 여기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몸 속 신경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br/>시카고 대학 이비인후학 전문의 자얀트 핀토 박사는 “만일 후각상실과 연관되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공기 중 오염물질, 독성물질. 감염물질이 코를 통해 심장, 폐, 뇌 등에 침투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며 “인간 수명을 예상함에 있어서 후각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br/>후각이 신체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있었다.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구진은 지난 2014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노년층 뇌의 내후각 피질(entorhinal cortex)과 해마(hippocampus) 크기가 작아질수록 후각 능력도 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후각 능력이 약해지면 뇌 기억력도 함께 감소된다는 것으로 후각상실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준다.<br/>하지만 영국 이비인후과 협회 측은 시카고 대학 연구진의 주장이 상당히 흥미롭긴 하지만 후각테스트 방식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5가지 냄새 테스트만으로는 공정성을 갖기 힘들며 적어도 40가지에 달하는 서로 다른 냄새를 통해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br/>한편, 이 연구는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 노화 연구소, 여성건강 연구소, 에이즈 연구소, 행동 및 사회과학 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6.txt

제목: 서울대 정진성·백성희교수 등 7명 삼성행복대상 수상  
날짜: 2014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12014672  
본문: 정진성(왼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백성희(오른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 7명과 ‘e세대 가정봉사단’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공식 후원하는 ‘2014년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로 1일 선정됐다. <br/><br/>여성선도상 수상자인 정진성 교수는 여성 권익 전도사로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결혼 이주여성, 불가촉천민(인도 최하층 신분)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창조상을 받는 백성희 교수는 생명과학자로서 암 발생·전이 유전자와 이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규명해 암 조절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해왔다.<br/><br/>가족화목상은 ‘e세대 가정봉사단’이 받는다. 21세기형 가족봉사단으로 2002년부터 270여명의 봉사 단원이 130여명의 홀로 사는 노인과 일대일 결연을 하고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밖에 폐암 투병 중인 부친을 간호하며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를 도맡아 하면서도 활발한 교내활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김솔비(18·제주여상고 3)양 등 5명이 청소년상을 받는다.<br/><br/>시상식은 다음달 6일 삼성생명 콘퍼런스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 5000만원의 상금(청소년상 500만원)이 지급된다.<br/><br/>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7.txt

제목: “허리 32인치 넘는 女, 심장병 사망위험↑” (연구)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90315316  
본문: 평소 꾸준한 운동과 음식조절로 체형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영국 BBC뉴스는 영국 심장재단(British Heart Foundation)이 제시한 관상심장병(coronary heart disease) 악화 원인과 예방법을 28일(현지시간) 소개했다.<br/>국제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영국 성인 남성 1010명, 성인 여성 10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 대상자의 20%가 남자 허리 사이즈 40인치, 여자 허리 사이즈가 35인치까지는 건강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br/>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영국 심장재단(British Heart Foundation)은 허리사이즈가 남성은 37인치, 여성은 32인치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이를 넘기지 않도록 무척 주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치명적인 관상심장병(coronary heart disease)이 찾아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br/>허리사이즈가 심장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나왔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의 환자 60만 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넓은 사람일수록 심장질환, 폐질환, 암 질환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리둘레가 5㎝ 증가할 때마다 남성은 7%, 여성은 9%씩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관상심장병은 과다 섭취된 지방이 혈관을 막아 유발되는 심장병으로 허리사이즈 증가로 대변되는 비만과 상당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br/>특히 영국인들은 한해 7만 3000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영국 심장재단은 밝혔다. 최근 재단 조사결과를 보면, 영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 33%, 암 29%, 뇌졸중 6% 순이었으며 심장질환 단 2%에 불과했다.<br/>하지만 심장재단은 사람들 대부분이 앉아있는 생활 습관, 영양 결핍, 고혈압, 비만과 같은 심장 질환 위험 인자를 안고 있기에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심장병 예방에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br/>영국 심장재단 마이크 냅튼 박사는 “<span class='quot0'>심장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심장을 관리해줘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다음은 영국 심장재단이 제시한 심장건강 유지 팁이다. <br/>1. 금연 <br/>2. 평균 체중 유지 <br/>3. 활동적인 생활 습관 구축 <br/>4. 염분 섭취 줄이기 <br/>5. 하루 5회 이상 과일, 채소류 섭취 <br/>6. 포화지방 섭취 금지 <br/>7. 식품 구입 전 뒷면에 새겨진 영양성분 꼼꼼히 확인 <br/>8. 알코올 섭취 줄이기 <br/>9. 항상 한 끼 식사량 체크 <br/>10. 40세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병원 찾아 건강검진 받을 것<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8.txt

제목: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폐쇄 방침 철회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4618180  
본문: 대구의료원이 운영을 갈팡질팡하고 있다. 간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5일 만에 철회했다.<br/><br/><br/>대구의료원은 대구시와 협의 끝에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호스피스 병동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br/><br/><br/>이에 앞서 대구의료원은 지난 24일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다음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개설한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은 14개 병상으로 간호사 7명이 3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했다. 지난달 간호사 2명이 사직함에 따라 5명의 간호사로 병동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대구의료원은 “<span class='quot0'>수시로 임종을 지켜보는 호스피스 병동의 특성상 간호사들이 심리적 고통 탓에 근무를 기피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암 환자 7명을 일반 병동으로 옮길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br/>대구에는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가톨릭대병원 등 7개 병원에서 97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은 2008년 16개 병상을 운영하다 올해 19개 병상으로 늘렸다.<br/><br/><br/>대구의료원이 호스피스 병동 운영 중단을 발표하자 지역 의료계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지역 의료계와 시민들은 대구의료원이 기본적인 노력조차 없이 호스피스 병동을 폐쇄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간호사 모집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r/><br/><br/>대구의료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낮은 임금과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는 등 호스피스 병동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해 나가겠다</span>”며 “<span class='quot1'>부족한 간호인력은 일반 병동 근무자를 이동 배치해 정상 운영해 나갈 방침</span>”이라고 밝혔다.<br/><br/><br/>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79.txt

제목: 선홍색 피가 똑똑… 당신의 항문에 무슨 일이?  
날짜: 2014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3011323  
본문: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을 혹사한 직장인 이모(35·여)씨는 지난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변기에 고인 핏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한 변비를 앓을 때 화장지에 조금씩 핏방울이 묻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변기 한가득 새빨간 핏물이 고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장암, 직장암 등 무시무시한 질병의 이름이 머리를 스쳐 갔다. 이씨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 <br/><br/>이씨처럼 용변을 볼 때 출혈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가 ‘치질’이라고 부르는 ‘치핵’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의 징후일 수도 있다. 대변을 볼 때만 피가 나고 금방 멈춘다며 항문 출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장과 직접 연결된 항문은 장 건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평소 항문 건강만 잘 체크해도 대장 질환을 방치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br/><br/>항문에서의 출혈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증이 없고 선홍색을 띠며 용변 후 화장지에 약간 묻어 나오거나 2~3방울 똑똑 떨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물총처럼 쭉쭉 피가 나오기도 한다. 또 용변을 볼 때마다 매번 출혈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과음을 하거나 피곤할 때만 집중적으로 피가 나오다 그치는 사람도 있다. <br/><br/>선홍색의 피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치핵이다. 항문 내에는 평상시 가스나 변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막아 주고 배변 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치핵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치핵 조직을 연결하고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느슨해져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치질, 즉 ‘치핵’이라고 한다. 치핵은 보통 노화가 시작되는 40~50대에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많다. 다만 20대는 만성변비와 임신 탓에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7%가량 많다. <br/><br/>치핵은 초기에만 치료하면 수술 없이 간단하게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다. 대장·항문 전문 양병원 양형규 원장은 “<span class='quot0'>일반인은 치질(치핵)이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존요법과 약물요법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70% 이상이며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30% 미만</span>”이라고 말했다. <br/><br/>하지만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검붉은 피가 점액과 함께 대변에 섞여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항문에는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된 동정맥루가 많아 항문에서 나오는 피가 정맥피라고 할지라도 검붉은 색이 아닌 동맥피의 선홍색을 띤다. 즉 선홍색 피는 항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검붉은 피는 대장 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br/><br/>직장에서의 출혈은 약간 검붉은 색을 띠며 더 윗부분인 결장에서의 출혈은 좀 더 진한 검붉은 색을 띤다. 위나 십이지장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마치 자장 같은 색의 변이 나오는데 이를 아스팔트를 깔 때 쓰는 콜타르 같다고 해 ‘타르변’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대변 속에 검붉은 피가 섞여 나오면 직장이나 결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조이며 대장암·궤양성 대장염·직장암 등을 의심해야 한다. 암은 자각증세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더라도 검붉은 혈변을 보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br/><br/>검붉은 혈변에 더해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하거나 소화불량과 구토,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면 대장암일 가능성이 크다. 변비도 문제지만 배변을 하루 3회 이상 하거나 배변 후 계속 변을 보고 싶은 잔변감이 있어도 직장암이나 과민성 대장염, 항문폴립, 직장폴립(용종), 궤양성 대장염일 수 있어 대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br/><br/>용변을 볼 때 항문에 통증이 느껴지면 3대 항문질환이라고 불리는 치핵·치열·치루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치핵·치열·치루는 항문질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흔한 질병이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치루를, 나폴레옹과 소설가 김유정도 치핵을 앓았다는 얘기가 전해진다.<br/><br/>선홍색 출혈이 있으면서 용변 중 통증이 느껴지면 단단한 변 때문에 항문이 찢겨 생기는 ‘급성치열’, 용변을 다 본 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급성치열이 반복돼 만성이 된 ‘만성치열’, 항문 끝에 콩알만 한 알갱이가 생겨 부어오르며 통증이 느껴지면 ‘혈전(핏덩어리)성 외치핵’, 뚜렷한 질환이 없는데도 항문이 아프면 ‘항문거근증후군’, 항문 주위에 딱딱한 응어리가 생겨 붓고 아프면서 몸살 기운이 있고 머리까지 지끈거리면 ‘치루’나 ‘항문주위농양’이다. <br/><br/>특히 치루는 초기 증상이 감기와 매우 비슷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문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곪기 시작하고 증세가 심하면 걸을 수조차 없다. 치열은 변비가 많은 20~30대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치루는 남성 환자가 더 많다. <br/><br/>항문샘에 대변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으로 항문에 고름이 터져 생기는데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남성호르몬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치루는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률이 높은 난치성 질환이며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드물긴 하지만 치루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치루 수술을 여러 번 받게 되면 괄약근이 손상돼 변이 새는 ‘변실금’이 생길 수 있어 처음에 제대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br/><br/>만성치열도 고통이 극심하다. 용변을 본 후에도 20~30분간 통증이 이어지다 보니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지고 결국 변비가 생긴다. 심한 변비는 치열을 더욱 악화시켜 악순환을 불러온다. 치열이 있으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참지 말고 빠른 시간에 대변을 보고 나와야 한다. 급성치열은 항문연고만 발라도 2~3주면 완치되지만 만성치열은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br/><br/>양병원 대장항문외과 박찬호 전문의는 “<span class='quot1'>항문질환은 무관심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항문 출혈이 있거나 배변 습관에 변화가 느껴지면 1% 정도는 대장암 증상일 수 있어 조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0.txt

제목: 여성 치매 사망률 10년 새 3배 급증… 여성암보다 높아  
날짜: 2014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2642902  
본문: 지난해 여성 10만명 중 12명은 치매(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사망했다. 여성의 치매 사망자 수와 사망률 모두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된다.<br/><br/>28일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치매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은 11.9명으로 10년 새 8.3명(3.3배)이나 급증했다. 치매로 죽은 여성은 지난해에만 총 3012명으로 10년 전보다 31배 늘었다.<br/><br/>치매는 2011년 여성 사망률 9위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만성하기도질환(10.6명)을 제치고 8위에 올랐다. 지난해 여성 사망률 1위는 암(111.8명)이지만 치매는 유방암(8.8명), 자궁암(4.9명) 등 대표적인 여성 암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치매 사망률은 2008년 5.3명으로 자궁암(5.1명)을, 2012년 9.5명으로 유방암(7.9명)을 제쳤다.<br/><br/>남성의 치매 사망률은 지난해 5.2명으로 여성의 절반도 안 됐다. 치매는 주로 60세 이상 노인에게서 나타나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여성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에스트로겐이 폐경 이후 줄어들어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br/><br/>현재 치매 환자는 총 5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 100만명으로 2배가 될 전망이다. <br/><br/>정지향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span class='quot0'>60대 이상 여성은 치매 예방을 위해 남성보다 사회적 활동, 두뇌 활동, 운동 등을 열심히 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매로 인한 폐렴, 욕창, 요도감염 등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1.txt

제목: 공동묘지 무덤 안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에 생매장 소동  
날짜: 2014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2505474  
본문: 그리스의 한 공동묘지를 방문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매장된 지 얼마 안 된 무덤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 들었다는 증언을 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br/><br/><br/><br/>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25일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 인근 페라이어 공동묘지를 방문한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은 한 시간 전 장례식을 마치고 유족들이 떠나간 한 여성의 무덤 안에서 쾅쾅 거리며 관을 두드리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희미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이제 주민들은 경찰을 불러 땅을 파헤친 뒤 관을 열어봤지만 관 속의 여성은 역시나 사망 상태였다.<br/><br/>주민들은 이 여성이 ‘질식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호출을 받고 여성의 시신을 검사한 의사는 “시신에 여러 검사를 해봤다”면서 “<span class='quot0'>경직 상태의 사람이 소리를 치고 관을 두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span>”며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br/><br/>한편, 무덤 속 여성은 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4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자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 후 장례식을 치른 상태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관에서 비명을 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사망 선고를 내린 의료진에 항의를 제기했다.<br/><br/>여성의 시신은 결국 검시관을 통해 다시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br/><br/>사진=ekathimerini.com, 영상=Jerry Maguire/유튜브<br/><br/>김형우 인턴기자 hw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2.txt

제목: [길섶에서] 노후의 공적(公敵)/손성진 수석논설위원  
날짜: 2014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1753046  
본문: 장모님은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끔 말씀하신다. 장수는 인간 본연의 욕망인데도 진담처럼 말하는 이유는 병에 대한 걱정과 자식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한다.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30년 동안 돌봐온 70대 노인이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건을 봤다면 더욱 그런 생각을 했을 듯하다. <br/><br/><br/>질병 없이 살다 죽는 건 인간의 소망이다. 건강하게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문제다. 고통스럽고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다가 힘겨운 여생을 마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중에서도 암은 평안한 노후를 해치는 공적(公敵)이다. 발병률이 37%라고 하니 나이가 들수록 누구라도 암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 <br/><br/><br/>기자 생활을 같이한 대학 동기생이 암에 걸려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야 들었다. 지인의 암 발병 소식은 최근에만 벌써 몇 번째다. 수년 전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일에 손대더니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동기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자고 했지만 그것으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br/><br/><br/>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3.txt

제목: 암 전이 막는 ‘단백질 요법’ 개발…화학요법 부작용無  
날짜: 2014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5915666  
본문: 암이 진행되면서 악성종양이 처음 발생한 장기로부터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전이(metastasis)를 방지해주는 ‘단백질 요법’이 등장했다. <br/>세계적 기초종합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네이처 화학 생물학 저널(Nature Chemical Biology)’은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생명공학과·암 센터 방사선 방사선 생물학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놀라운 암 전이 방지 단백질 요법을 소개했다.<br/>보통 의료진들은 암 치료 시 전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강한 독성으로 암 세포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다른 멀쩡한 장기까지 공격해 탈모, 구토, 설사, 심장기능 저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 중에는 화학치료를 견디다 못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br/>이와 관련해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단백질 요법은 암 전이를 막는 강력한 효능을 품고 있으면서 화학요법이 갖는 부작용은 거의 없기에 주목된다. 해당 치료에 활용되는 단백질은 ‘Axl’과 ‘Gas6’으로 각각 성체줄기세포로부터 자연 살해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Axl 단백질은 세포 외벽에서 외부 신호를 받아 증식, 분화, 소멸, 암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br/>연구진은 Axl과 Gas6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낸 실험 치료제를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을 앓고 있는 실험용 쥐 그룹에 투여한 뒤 경과를 살폈다. 결과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던 쥐 그룹은 악성종양 전이가 78%, 난소암을 앓고 있던 그룹은 90%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br/>스탠포드 연구진은 모든 생물학적 대사 과정이 단백질의 상호 작용에 의해 구동된다는 사실에 기반, 이를 암 세포 전이확산 방지 기술 개발에 응용했고 결과는 고무적이다. 스탠퍼드 대학 암 센터 아마토 지아씨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는 기존 항암화학요법의 독성을 줄이고 암 치료 효과는 높이는 획기적 치료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미래 암 치료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열 수도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하지만 이 단백질 요법이 항암치료법으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 먼저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물 실험이 선행돼 안정성은 물론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백질 요법이 안고 있을 위험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 글렌 드레노프 교수는 “<span class='quot0'>분명 인상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 Axl 단백질은 Mer와 Tyro3라는 유사 단백질과 함께 존재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들은 Axl와 매우 흡사하지만 역으로 암 전이를 증가시키며 Gas6에 의해서도 쉽게 활성화되기에 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사진=Stanford Engineering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4.txt

제목: 실내에서 일하면 암 확률 높아 ’비타민D’ 때문  
날짜: 2014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5813844  
본문: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은 1997~2012년 까지 42~82세 남녀 1만 46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9%, 여성 13%가 심각한 비타민D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장 질환 및 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br/>비타민D는 인체가 햇빛에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특정 음식을 통해 흡수된다. 뼈 성장 및 건강에 필요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다양한 화학적 반응을 주도한다. <br/>뿐만 아니라 암이나 심장 질환, 고혈압, 생식능력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햇빛 노출이 부족함으로서 비타민D가 결여되고 이것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이다. <br/>지난 8월 중국 과학아카데미 상하이생물학연구소가 임상내분비학물리대사 저널에서 비타민D 수치가 높은 암 환자들은 비타민D가 결핍인 환자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았으며,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 림프종 환자들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다. <br/>전문가들은 혈액 내 비타민D의 이상적인 수치가 혈액 1ℓ 당 50~905nmol이며 305nmol/L 이하일 경우 비타민D 결핍으로 진단한다. <br/>연구를 이끈 케임브리지대학의 카이-티 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현대인 상당수의 비타민D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이러한 사람들은 비타민D 보충제나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거나 하루 최소 20분 정도 실외에서 햇빛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이어 “햇빛이 충분하지 않은 겨울 뿐만 아니라 햇빛이 지나치게 강한 여름에는 피부암 등의 발병을 고려해 적절한 외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사진=포토리아<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5.txt

제목: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오히려 스타일리시하다? ‘삭발 머리 이유는..반전’  
날짜: 20140926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0640472  
본문: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br/><br/>방송인 홍진경이 삭발 머리를 과감하게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br/><br/>홍진경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조성아의 뷰티업력 25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했다.<br/><br/>이날 홍진경은 삭발 머리로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삭발 머리에 짧은 비니를 썼으며 검은 색 라이딩 재킷에 진청바지를 매치해 눈길을 끌었다. <br/><br/>홍진경은 슈퍼모델 출신답게 뛰어난 각선미와 옷맵시로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했으며, 그의 당당한 미소는 보는 이들을 유쾌하게 만들었다.<br/><br/>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0'>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멋지다</span>”, “<span class='quot0'>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하나도 안 어색해요</span>”, “<span class='quot0'>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가발 안써도 되겠네</span>”, “<span class='quot0'>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홍진경에게 박수를</span>”, “<span class='quot0'>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패션으로 승화하다니</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편 홍진경은 지난달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의 암 투병 소식을 털어놔 화제가 된 바 있다. <br/><br/>사진 = SNS 캡처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6.txt

제목: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암 투병 흔적도 패션으로.. 당당한 미소 “역시 톱 모델”  
날짜: 20140926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0544681  
본문: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br/>모델 홍진경이 삭발 머리를 공개했다.<br/>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성아 뷰티 업력 25주년 기념 파티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열렸다.<br/>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진경은 가발을 벗고 삭발한 머리를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홍진경은 삭발한 머리에 모자를 착용해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완성했으며 당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br/>앞서 홍진경은 “치료를 하느라 머리가 빠졌다. 눈썹도 빠지고 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졌다. 가발을 쓰고 생활을 하니 항상 다들 너무나 궁금해 하셨는데 매번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다”며 “병명을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치료는 잘 끝났고 낫는 일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br/>네티즌들은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존경스럽다”,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그래도 스타일리시 해”,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당당한 미소 멋지다”, “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 어떤 스타일도 기죽지 않아. 역시 톱모델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 = 더팩트(홍진경 삭발 머리 공개)<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7.txt

제목: 홍진경, 당당한 패션스타일 선보여 눈길...  
날짜: 2014092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0540206  
본문: 배우 홍진경이 삭발 머리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홍진경은 조성아 뷰티 2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홍진경은 가발 대신 모자를 쓰고 나타나 주변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br/><br/>앞서 홍진경은 SBS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br/><br/>암투병 흔적에도 홍진경은 멋진 패션스타일을 선보이며 당당한 미소를 보여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br/><br/>사진=더팩트<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8.txt

제목: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26일 개막  
날짜: 2014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0501563  
본문: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흐름과 성과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26일 개막한다.<br/><br/><br/>충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다음달 12일까지 17일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LG생명과학, 독일 지멘스 등 국내외 바이오기업 303곳과 700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한다.<br/><br/><br/>행사장은 바이오미래관, 주제영상관, 바이오건강체험관, 뷰티체험관, 에듀체험관, 인체탐험관, 산업관 등 7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진다. 바이오건강체험관에서는 소량의 혈액으로 암, 심장질환, 갑상선 등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와 우울증, 치매 등을 검사하는 생체신호분석기, 개인별 맞춤형 비타민 조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뷰티체험관에서는 피부 진단 뒤 맞춤 화장품 샘플을 받아 갈 수 있다.<br/><br/><br/>학생들은 에듀체험관에서 해부학실습과 DNA 추출 등 다양한 바이오실험을 해 볼 수 있다. 산업관에서는 국내외 바이오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엑스포 기간 동안 바이오 석학들이 참가하는 2개의 국제학술대회와 5개의 국내학술회의도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입장료는 일반 1만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br/><br/><br/>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89.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13)팥  
날짜: 2014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200342268  
본문: 팥은 한자로 소두(小豆) 혹은 적두(赤豆)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콩’이라고 할 때는 콩나물의 재료로 쓰이는 대두를 말하지만 팥은 일반적인 콩과 대비해 ‘작은 콩’이나 ‘붉은 콩’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팥은 콩과는 사촌 뻘 되는 잡곡으로 우리 조상들과 수천년 동안 숨결을 함께 해왔다.<br/><br/><br/><br/>특히 팥은 일상적인 식탁에서보다는 세시풍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해 왔다. 동지팥죽이나 시루떡, 기타 떡고물 등 명절 때나 제사 때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이 바로 그것이다. 팥을 ‘민속작물’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br/><br/>팥은 선명한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예로부터 붉은 색은 양의 색깔로 귀신을 쫓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팥 역시 잡귀를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받아들여졌다.<br/><br/>팥의 주술적 역할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는 세시풍속으로 나타난다. 동지 팥죽의 유래는 고대 중국의 고사에서 찾을 수 있다. <br/><br/>아주 오랜 옛날 중국에 공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재주도 갖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 아들은 마침내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날이 마침 동짓날이었다. <br/><br/>죽은 아들은 역귀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이 아들은 생전에 팥을 싫어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죽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귀신을 쫓는 풍습이 생겨난 것이라 한다.<br/><br/><br/><br/><br/><br/><br/><br/><br/><br/><br/><br/>동지 팥죽은 먼저 사당에 떠다놓고 차례를 지낸 뒤 집안 곳곳에 한 그릇씩 떠다놓고 대문, 벽, 문설주 등에 팥죽물을 수저로 떠서 뿌렸다. 이렇게 하면 액을 막고 잡귀를 쫓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br/><br/>팥죽은 비단 동짓날에만 쑤어 먹은 것은 아니다. 우리 전래 풍습에는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상가에 팥죽을 쑤어서 가지고 갔고, 이사할 때도 팥죽을 만들었다. 특히 명절 때나 고사를 지낼 때 반드시 상에 올리는 시루떡은 팥고물을 사용한다. 백일과 돌 생일상에 수수팥떡이 올라가는 것도 주술적 이유 때문이다.<br/><br/>팥은 건강만점 식품이기도 하다. 특히 음기가 많은 겨울철에 영양을 보충하는 식재료로 많이 사용됐다. 팥을 삶아 으깬 뒤 앙금을 내려 떡, 빵, 국수, 죽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됐다. <br/><br/>임금의 수라상에도 올라갔다. 옛 문헌에 따르면 흰쌀밥으로 지은 ‘백반’과 팥 삶은 물로 지은 찹쌀밥인 ‘홍반’을 함께 진상하였다고 한다. <br/><br/>팥은 단백질과 당질을 주 성분으로 지방과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이 곡류중에 가장 많이 함유돼 있다. 팥은 우유보다 단백질이 6배, 철분이 117배, 니아신(비타민 B3)은 23배 많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와 다이어트에 고심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다.<br/><br/>팥에 많이 들어 있는 항산화산물인 폴리페놀은 노화, 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콜린은 간장의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또한 췌장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다른 곡물에 비해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다.<br/><br/>여기에 팥은 이뇨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준다. 체내에 수분이 과다하게 쌓이면 지방이 쉽게 축적돼 살이 찐다. 팥이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꼽히는 이유다.<br/><br/>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피부의 때와 모공의 오염물질을 없애 아토피 피부염과 기미, 주근깨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조선시대에는 팥이나 녹두를 갈아 물에 섞거나 얼굴에 문질러 사용하는 천연비누 겸 스크럽제로 사용했다.<br/><br/>최근에 들어와서는 팥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설탕이 갖지 못한 풍부한 단맛을 지니고 있는 덕분이다. 안흥 찐빵, 경주 황남빵·찰보리빵, 천안 호두과자, 제주 오메기떡, 통영 꿀방 등 제빵의 속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팥빙수는 더운 여름날 한입 베어 물면 더위가 어느새 도망가고, 팥죽은 달콤함으로 추위를 잊게 하는 국민 간식이다. <br/><br/>팥은 쌀, 밀 등 다른 곡물과 같은 두드러진 존재감은 없지만 계절이나 풍속과 강하게 연관되고 문화와 정서가 깃든 곡물로 일종의 문화상품의 성격이 강하다. 고정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다 국산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이라 원료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면 지역상품으로 부상할 만한 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br/><br/>송석보 농촌진흥청 신소재개발과 연구사<br/><br/>■문의 douzir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0.txt

제목: “임신 중 와인섭취, 태아 췌장 기형 위험↑” (美연구)  
날짜: 2014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5629385  
본문: 임신 중 레드 와인을 자주 마시게 되면 태아의 소화기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br/>최근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연구진은 임신 중 레드와인을 자주 마실 경우, 태아 췌장이 기형적으로 변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레드 와인 속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드와인 뿐 아니라 다크 초콜릿, 땅콩, 포도를 비롯한 베리류에서도 발견되는 해당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는 역할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그러나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이 임신 중 태아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연구진은 임신 후 비만이 된 짧은 꼬리 원숭이(macaque monkey)들과 마른 몸매의 짧은 꼬리 원숭이를 대상으로 임신 원숭이 그룹에게는 식단 외에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추가로 보충하고 마른 원숭이 그룹에게는 일반 건강 식단을 제공한 뒤 이후 나타나는 경과를 관찰했다.<br/>연구진은 초음파 관찰로 태반을 통해 원숭이 태아에게로 전해지는 혈액흐름과 건강상태를 집중 모니터링 했고, 결과적으로 소화기관 중 췌장에 기형적 이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아냈다.<br/>연구진은 “우리는 지금까지 레스베라트롤 의학적 효력에 집중해왔지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부작용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동물 실험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 과한 음주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해 다른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보조식품 속 성분들에 과연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미국 실험생물학연합회 저널(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Journal)’에 게재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1.txt

제목: 홍진경, 삭발도 스타일리시  
날짜: 20140925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5630986  
본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성아 뷰티 업력 25주년 기념 파티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열렸다.<br/>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진경은 가발을 벗고 삭발한 머리를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홍진경은 삭발한 머리에 모자를 착용해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완성했으며 당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br/>앞서 홍진경은 “치료를 하느라 머리가 빠졌다. 눈썹도 빠지고 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졌다. 가발을 쓰고 생활을 하니 항상 다들 너무나 궁금해 하셨는데 매번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2.txt

제목: [정진곤의 살며 생각하며] 가을 여행  
날짜: 2014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5120389  
본문: 사람들과 자동차로 가득찬 도시, 시끄러운 소음과 목이 칼칼한 매연으로 뒤덥힌 서울이 새삼스레 답답해집니다. 동네 뒷산의 참나무, 오리나무, 단풍나무들이 울긋 불긋아름답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단풍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가을에 햇볕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덕분이라고 합니다. 높고 파아란 가을 하늘과 빠알갛고 노아란 단풍잎들이 함께 어우러진 가을 산길이 아름답습니다. 회색빛 도시 속에 갇혀서 아름다운 가을을 그냥 떠나보내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br/>아들에게 함께 여행을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 날 인터넷을 뒤지던 아들은 “경주가 볼거리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으니 경주로 갑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주보다는 통영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쪽 빛 바다를 보고, 싱싱한 생선도 먹고, 아름다운 가을풍경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놓고, 이제 와서 경주가 아닌 통영에 가자고 말할 수도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며칠 전 아들은 소매물도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때야 저도 “그래, 소매물도로 가자. 아빠도 실은 통영에 가보고 싶었다”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br/>저녁때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미리 예약을 해두었지만 어디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에 고향이 통영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해서 “회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중앙시장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알려주었던 시장 구석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통영 앞 바다에서 그 날 잡은 생선으로 회를 떠주는 데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회가 저절로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이제까지 먹던 회와는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를 좋아하는 아들은 연신 최고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아들과 단 둘이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와 소주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낙천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들은 아빠와 여행을 오니, 너무 즐겁고,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br/>친한 친구들 가운데 의외로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의사인 가섭(가명)이는 집에서 아빠와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학교를 마친 후에도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야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단만 치고, 대학에 다닐 때까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영섭(가명)이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고,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들 친구들은 아빠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아빠와 단 둘이 여행을 가니? 네가 정말 가고 싶어가는 거야?”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친구들이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난 아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아주고, 아들의 행동을 이해해주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다면, 커서도 어떻게 아빠를 싫어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에게 아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윽박지르니까 그렇지” <br/>이튿날 우리는 통영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배를 타고 소매물도에 도착했습니다. 등대섬과 소매물도를 연결하는 바닷길이 5시쯤이면 닫히게 된다는 팬션주인의 말을 듣고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넘고 산을 올라 그 곳에 도착했지만, 어느 곳이 바닷길인지를 분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실망이 되었지만 내일 다시 오자고 다짐하면서 돌아서는 데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위에 앉아 바다에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해가 하늘을 물들이면서 저 멀리 보이는 섬 사이로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파아란 바다가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형형색색으로 꽃단장을 하였습니다. 아들과 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에 해가 떨어진 뒤에도 한참이나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아들은 넓은 바다를 보니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고, 멋진 저녁노을도 구경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아빠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하니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br/>소매물도와 등대섬은 바다로 막혀있지만, 썰물때에는 두 섬 사이에 길이 생깁니다. 등대섬은 통영 8경 가운데 경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기암절벽이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절벽에는 바다갈매기들이 떼 지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참매도 그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매는 하늘 높은 곳에서 370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강을 하여 먹이를 낚아챈다고 합니다. 매는 눈이 좋아 아주 멀리서도 작은 새나 물고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물을 자세히 보는 것을 응시(鷹視)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매가 사냥하는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 한참이나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볼 수 없었습니다. <br/>등대섬을 떠나 소매물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대매물도가 보였습니다. 매물도에서 메밀이 많이 생산되어 매물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매물도에서 수확되는 메밀은 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합니다. 소매물에서 매물도를 이쪽에서 보면 커다란 소가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보면 코끼리가 풀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매물도에서 바라보는 대매물도의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소매물도의 둘레길에는 대매물도와 함께 작은 섬들이 많이 보입니다. 망망한 바다보다는 바다와 섬들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포근하고 아늑한 아름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통영 앞바다가 아름다운 것은 바다위에 떠있는 수많은 섬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br/>후박나무 민박집에 돌아오니 우리가 찜해놓은 평상에 어떤 나이든 남자와 젊은 여자가 앉아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망이 되었지만 할 수 없어 우리는 나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주꾸미와 회를 먹어보라고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br/>나이든 남자가 이리 와서 소주나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얘가 우리 딸입니다.” 아들과 둘이서만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흔하지 않은 데 다 큰 딸과 함께 오는 아버지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span class='quot0'>이 얘가 암에 걸려 3차례나 수술을 하였는데 완쾌되지 않네요.</span>” 아버지는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였지만 열심히 산 덕분에 그럭저럭 남매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고 똑똑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건강했던 딸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했습니다. <br/>아버지는 이제 딸을 보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딸과 이야기도 많이하고, 함께 여행도 다녔어야 했는데, 뭐가 그리 바빴는지 모르겠네요. 친구들하고 화투치고, 놀러 다니고 술 먹을 시간은 많았는데 정작 딸과는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네요. 통영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만사제껴놓고 왔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눈에 이슬이 고였습니다. <br/>방으로 돌아와 잠자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방이 더웠는지 불을 걷어차고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춥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밖에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너무 많았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집 냄새가 나는 민박집에서 아들과 함께 보내는 이 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3.txt

제목: “대장암, 단일공 복강경 수술도 안전”  
날짜: 2014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4129650  
본문: 　복부에 하나의 작은 구멍을 뚫어 암 조직을 떼어내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복강경 수술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준기 교수팀은 2009~2012년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단일공 복강경으로 대장암 수술을 받은 2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 중 합병증과 수술 후 합병증이 각각 1.9%, 13.2%로 기존 복강경 수술의 7.4%,16.2%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br/>　조사 대상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62.5세, 성별은 남성 146명, 여성 111명이었다. 병기별로는 0기 14명, 1기 57명, 2기 80명, 3기 102명, 4기 4명 등으로 다양했다.<br/>　일반적으로 대장암 복강경 수술은 배를 열지 않고 배꼽과 복벽 부위에 모두 5개의 구멍을 뚫어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넣은 뒤 모니터를 보면서 암 병변을 제거한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수술보다 상처가 작아 수술 부위의 감염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이 낮고, 통증이 적을 뿐 아니라 회복도 빠른 편이다.<br/>　이에 비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절개 부위가 1.5~2㎝ 정도에 불과한 하나의 구멍만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의 난도는 높은 편이지만, 기존 복강경 수술보다 흉터가 작고 미용상으로도 우수하다.<br/>　김준기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의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기존 복강경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아 상처 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수술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 적용이 확대될 것</span>”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복강 내시경 수술학술지(Journal of Laparoendoscopic &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최근호에 실렸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4.txt

제목: “우리 사회의 고통·절망 직시하는 시인협회 될 것”  
날짜: 2014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3359916  
본문: “우리 사회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직시하고 외면하지 않는 시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과 세계를 통찰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로 돌려주는 비둘기 역할을 하겠습니다.”<br/><br/>제40대 한국시인협회(이하 시협) 회장으로 취임한 문정희(67) 시인의 일성이다. 지난 7월 암으로 별세한 김종철 전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이 된 문 시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span class='quot0'>김 전 회장의 열정적인 계획들을 잇고 다듬어 실천해 나가겠다</span>”고 밝혔다.<br/><br/>일반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시협은 다음달 말 한국작가회의 등 5개 문학단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전시된 시들을 새로 교체할 계획이다. 문 회장은 “<span class='quot1'>공모, 무기명 심사를 통해 우수한 시 1500여편을 선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현재는 함량 미달의 가화(假花)들이 많은데 싱싱한 생화를 보여 주겠다</span>”고 밝혔다.<br/><br/>우리 문학의 세계화에도 앞장선다. 문 회장은 “<span class='quot1'>지금까지처럼 세계 문학에 전전긍긍해 다가가려는 시도가 아니고, 양이나 질 모두 대담한 한국 시로 세계 문학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첫 계획으로 다음달 중순 우리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 홈페이지를 선보인다. 한 해 200여편의 한국 시를 세계 독자들에게 알린다는 목표다. 다음달 25일에는 이란에서 지난해 시협에서 펴낸 한식 시집 ‘시로 맛을 낸 행복한 우리 한식’의 출판기념회 등을 열며 우리 시를 홍보한다. 11월 말에는 난징대학살의 비극을 돌아보는 한·중시인대회를 연다.<br/><br/>젊은 시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기회도 확대한다. 시협 창립 57년 만에 최초로 펴내는 시 전문지(시인 불멸)가 그 일환이다. “젊은 편집위원들이 선정한 참신한 작품을 실어 젊은 시인들이 문학에 골몰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1500여명 회원이 시를 발표할 지면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인선 출간, 자기 출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br/><br/>글 사진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5.txt

제목: 日 아베 박사,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세미나 개최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2946133  
본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박사의 ‘신(新)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세미나가 오는 26일 반포동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다.<br/><br/>수지상세포는 면역세포의 한 종류로 나뭇가지모양으로 사방팔방 뻗쳐있는 것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암세포를 공격할 때 왜 면역의 사령탑인 수지상세포가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T세포라는 면역세포와 깊은 관계가 있다. T세포는 수지상세포로부터 항원제시가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 공격대상인 상대의 정보를 받지 못하면 바로 옆에 암세포가 있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br/><br/>수지상세포는 이물질을 발견하면 항원을 세포표면에 가까운 림프절로 이동한다. 그 곳에서 수지상세포는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하며 “이런 표시를 가진 적이 있으니 빨리 없애버려!”라고 명령을 내린다. 수지상세포의 정보를 받은 T세포는 킬러T세포로 변하여 정밀하게 암세포만 공격한다.<br/><br/>예전에는 T세포만을 활성화시키면 암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T세포를 증식시켜도 암세포의 표시를 인식시키지 않는 한 암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내에 존재하는 수지상세포의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T세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지상세포를 늘려 T세포에 암 정보를 전달해 킬러T세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br/><br/>우리 몸에 훌륭한 면역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암에 걸리는 이유는 수지상세포가 체내에 아주 적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장이나 폐세포 주변, 간, 비장, 피부의 밑부분 등에 적은 수가 존재하고 정맥혈액에는 극히 소량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수는 백혈구의 0.1%미만이다. <br/><br/>수지상세포는 체내 계속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시 역할도 해야 하고 증식이 빠른 암세포를 없애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적은 수로는 이 같은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지상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체내로 주입하는 방법이 고안됐다.<br/><br/>그러나 수지상세포는 백혈구의 0.1%미만 밖에 없으므로 채혈해 채집하는 것은 어렵고 소량밖에 존재하지 않는 수지상세포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소량채혈 방식으로선 한계가 있기 마련. 약 5,000㎖의 혈액을 순환시켜 성분채혈과정이 필요한 힘든 치료이기 때문이다.<br/> <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암항원이 필요하다. 암세포는 각자의 암표시인 암항원이 나타나 있다. 수지상세포는 그 항원을 T세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환자는 자신의 암조직을 암항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암조직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인공항원(펩타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br/><br/>현재 많은 종류의 안전한 고품질의 펩타이드가 개발되어 백신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펩타이드 중 MUC1, CA125, PSA같은 인공항원 이외에는 각자의 HLA유전자형(백혈구항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HLA형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유전자 검사와 항원 검사가 필요하다.<br/><br/>아베종양내과에서는 암별로 다가(多價)백신 치료를 위해 신WT-1, MUC-1, Her2, NY-ES01, GV1001, Survivin, MAGE-A3, CEA, CA125, PSA 등을 사용하고 있다. <br/><br/>한국 식약처는 GV1001에 대해 2014년 9월 췌장암치료제로 신약허가 했으며 아베종양내과는 임상시험계획(ND)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폐암, 췌장암, 위암, 유방암 등 암 군별로 40명씩 3년간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br/><br/>선진바이오텍은 일본 아베종양내과와 신 수지상세포 암벡신치료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6.txt

제목: 암 전이 방지해 주는 ‘단백질 요법’ 개발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4838549  
본문: 암이 진행되면서 악성종양이 처음 발생한 장기로부터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전이(metastasis)를 방지해주는 ‘단백질 요법’이 등장했다. <br/>세계적 기초종합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네이처 화학 생물학 저널(Nature Chemical Biology)’은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생명공학과·암 센터 방사선 방사선 생물학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놀라운 암 전이 방지 단백질 요법을 소개했다.<br/>보통 의료진들은 암 치료 시 전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강한 독성으로 암 세포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다른 멀쩡한 장기까지 공격해 탈모, 구토, 설사, 심장기능 저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 중에는 화학치료를 견디다 못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br/>이와 관련해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단백질 요법은 암 전이를 막는 강력한 효능을 품고 있으면서 화학요법이 갖는 부작용은 거의 없기에 주목된다. 해당 치료에 활용되는 단백질은 ‘Axl’과 ‘Gas6’으로 각각 성체줄기세포로부터 자연 살해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Axl 단백질은 세포 외벽에서 외부 신호를 받아 증식, 분화, 소멸, 암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br/>연구진은 Axl과 Gas6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낸 실험 치료제를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을 앓고 있는 실험용 쥐 그룹에 투여한 뒤 경과를 살폈다. 결과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던 쥐 그룹은 악성종양 전이가 78%, 난소암을 앓고 있던 그룹은 90%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br/>스탠포드 연구진은 모든 생물학적 대사 과정이 단백질의 상호 작용에 의해 구동된다는 사실에 기반, 이를 암 세포 전이확산 방지 기술 개발에 응용했고 결과는 고무적이다. 스탠퍼드 대학 암 센터 아마토 지아씨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는 기존 항암화학요법의 독성을 줄이고 암 치료 효과는 높이는 획기적 치료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미래 암 치료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열 수도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하지만 이 단백질 요법이 항암치료법으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 먼저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물 실험이 선행돼 안정성은 물론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백질 요법이 안고 있을 위험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 글렌 드레노프 교수는 “<span class='quot0'>분명 인상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 Axl 단백질은 Mer와 Tyro3라는 유사 단백질과 함께 존재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들은 Axl와 매우 흡사하지만 역으로 암 전이를 증가시키며 Gas6에 의해서도 쉽게 활성화되기에 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사진=Stanford Engineering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7.txt

제목: 피부, 건강 모두 지키자…슈퍼 푸드 6가지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4808243  
본문: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음식으로 우리 몸의 건강은 물론 피부까지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br/>다음은 헬스닷컴 등 건강전문 매체들이 소개했던 피부와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건강과 피부를 함께 지키고 싶다면 확인하고 식품 선택에 주의하자.<br/>올리브유<br/>[피부]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필수 지방산을 포함한다. 또한 이 필수 지방산은 보습 역할로 세포막 일부가 된다. 하루 한 숟가락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br/>[건강] 오일에 포함된 세로토닌 대사 산물의 일종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또한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br/>호두<br/>[피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과 오메가3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수분과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호두에 포함된 미네랄은 피부에 필수적인 성분인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한다.<br/>[건강]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일종이 포함돼 있어 숙면을 유도한다.<br/>딸기<br/>[피부] 고운 피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C가 풍부하다.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해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양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br/>[건강] 암, 특히 악성일 확률이 높은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콩<br/>[피부] 콩에 포함된 미네랄과 단백질이 색소침착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 세포을 손상하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므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br/>[건강] 자궁 및 난소암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콩 속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은 중성 지방을 줄이는 작용도 있다.<br/>녹차<br/>[피부]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하루 한 잔 마시면 피부의 붉은빛이 줄어든다.<br/>[건강]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면역력이 향상하는 것 외에 심장 질환과 암,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br/>석류<br/>[피부] 폴리페놀이 내피세포를 활성화해 혈관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피부의 칙칙함을 해소한다. 직접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br/>[건강]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폐경 증상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8.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하버드대 새로운 항암치료 기술 개발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1326283  
본문: 　국내 의료진과 미국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이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인체의 특정 부위에 생긴 암에 항암제를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분당서울대병원 이학종·차의과대학 윤태종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메사추세츠병원 이학호 교수팀은 초음파 영상으로 암 환자의 병소에 항암제를 유도해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학종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기술은 초음파 조영제로 사용되는 미세기포에 유전자 치료제 및 항암제를 포함하는 리포좀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진단 겸용 복합체를 만들고, 그 복합체에 특정 암세포를 찾을 수 있는 물질을 붙여서 선택적으로 특정 암세포를 찾아 치료제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기술</span>”이라고 설명했다.<br/>　연구팀이 새로 만든 미세기포-리포좀 복합체는 크기가 약 1㎛(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체내에 주입하면 혈관 내에 머물게 된다. 이후 외부에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암 병소에 초음파 에너지를 쏘아주면 이 복합체의 미세기포가 풍선처럼 터지면서 치료제를 포함한 리포좀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 특정 암세포를 찾아 세포막에 붙은 뒤 세포내로 치료제를 전달하는 원리다. <br/>　장기간 반복되는 항암치료는 환자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특정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기전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최소화 하고 치료 효율은 높여 많은 연구기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br/>　이학종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러한 기전을 이용하면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병변이 있는 곳에서만 미세기포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암제의 투여량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더 높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항암제의 전신적인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러한 치료법은 초음파 영상으로 병변을 볼 수 있는 전립선암 유방암 간암과 간전이암 췌장암 등에서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특히, 이 복합체를 이용해 전달할 수 있는 치료제는 항암제 뿐이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 특정 효소 등 다양한 치료제의 특정 암세포로의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후속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의 항암 치료법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Theranostics’ 저널의 9월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799.txt

제목: 남친이 흡연 싫어해… 금연일기 쓰며 ‘담배 뚝’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0819679  
본문: 식사 후에 피우는 이른바 ‘식후땡’ 담배는 흡연자에게 떨칠 수 없는 유혹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유독 ‘식후땡’ 담배가 맛있기 때문이다. 들이마시는 담배 연기에 들어 있는 ‘페릴라르틴’이란 성분이 식후 다량 분비된 침에 녹아 단맛을 내고, 입안의 기름기가 이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식사 후 피우는 담배가 단 것이다. 담배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성분이 담배에 배합돼 있다 보니 웬만한 금연 결심으로는 담배 끊기가 어렵다.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의 힘으로 담배를 끊은 사람들도 있다. 하루 1갑 이상 피우는 ‘골초’에서 비흡연자로 거듭난 3명의 금연 체험담을 소개한다. <br/><br/><br/><br/><br/><br/><br/><br/><br/><br/>■정대영(가명·46·17년 흡연) 20살에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7살까지 17년간 하루에 1갑씩 담배를 피웠다. 술을 마시면 앉은 자리에서 2~3갑을 핀 적도 있었다. 술과 담배를 함께한 다음날에는 항상 머리가 아팠다. 체중도 키 180㎝에 85㎏까지 나갔다. 안 되겠다 싶어 금연을 결심하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하루 1시간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담배를 바로 끊지는 못했다. 술자리를 가면 어김없이 담배가 생각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피우고 끊기를 1~2년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도 담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이겨냈다. 금년 9년째다. 담배 대신 술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담배를 또 피우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 같다.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는 고지혈증, 지방간이 없어지고 체중도 10㎏이 줄었다. <br/><br/>■배정혜(가명·35·6년 흡연)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배워 6년간 피웠다. 이틀에 1갑 정도로 피운 양은 얼마 안 됐지만 담배를 오래 피우다 보니 목과 머리가 자주 아팠다. 심한 목감기에 걸린 어느 날 담배를 하루 참아보기로 했다. 뜻밖에 담배 생각이 나지 않아 그 다음날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때마침 사귄 남자친구도 담배 피우는 것을 싫어해 금연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금연 석 달 만에 피부트러블이 사라지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자 자신감이 붙었다. 담배를 끊은 뒤 일어난 긍정적 변화를 정리해가며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를 하나둘씩 늘려 갔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담배 생각이 싹 사라졌고, 이후 6년 동안 담배에 손을 대지 않았다.<br/><br/>■김영환(가명·54·30년 흡연) 군대에서 처음 담배를 배워 30년을 피웠다. 때 되면 끊겠지 하며 금연을 계속 미뤘는데, 친구가 암에 걸리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혀가 아릴 정도로 은단을 먹었고 니코틴 보조제인 금연 껌도 석 달 이상을 씹어봤다. 하지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회식 자리에서 담배는 정말 참기 어려웠다. 그래서 회식을 할 때는 자주 나가 찬 바람을 쐴 수 있게 문가 자리에 앉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다. 스트레스는 금연 구역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고 혼자 중얼중얼 욕도 하며 그때그때 풀었다. 입이 심심할 때는 집에서 싸온 당근·오이를 먹었다. 또 금연일기도 써가며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몸 상태는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정말 1년 뒤 시도때도없이 날 괴롭히던 담배 생각이 없어졌다. 4년째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담배 냄새가 난다며 싫어하던 딸도 담배를 대체할 사탕 등을 사다주며 금연을 응원했다. 담배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 가족이 들어왔다.<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0.txt

제목: 담배 ‘심리적 안정감’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0813088  
본문: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 반응은 정확히 두 부류로 엇갈렸다. 이참에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습관적으로 피우는 불필요한 흡연은 줄이고 나름 ‘합리적’인 흡연을 해 담뱃값을 아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그래 봤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값이니 커피 한 잔 덜 마신다고 생각하고 4500원짜리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br/><br/><br/><br/>또 현재 니코틴 0.1㎎짜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담뱃값이 오르면 7㎎짜리 독한 담배로 바꿔 ‘가격 대비 효과’를 보겠다는 사람부터 이틀에 한 갑 사던 것을 사흘에 한 갑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가격이 싼 잎담배를 말아 피우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br/><br/>담배를 끊지 않겠다는 사람 가운데는 ‘국민은 정부가 강압적인 금연정책으로 계몽할 대상이 아니다’는 소위 ‘투사형’도 있었고, 그래도 담배와는 못 헤어지겠다는 ‘애연가’, 담배를 끊었다가는 암에 걸리기 전에 스트레스로 먼저 죽을 것 같다는 지친 현대인의 자화상도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본인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냐고 묻자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담배를 끊겠다는 지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름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날벌레들이 모두 담배 연기를 피해서 가더라. 벌레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br/><br/>담뱃값을 평균 4500원까지 인상해도 흡연율을 눈에 띄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은 정부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span class='quot0'>흡연율이 가장 높고, 담배를 사서 피울 금전적 여유가 있는 30~40대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큰 폭으로 내리지는 못해도 저소득층과 청소년 금연 효과는 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평균 담배가격이 9000원은 돼야 계층을 막론하고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갑자기 이 정도로 담뱃값을 올릴 ‘배짱’ 좋은 정부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 결국 금연은 본인의 자유 의지에 달린 것이다. <br/><br/>담배의 유해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담배를 끊으려면 먼저 내가 피우는 담배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담배에는 알려진 것만 최소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1급 발암물질만 11종이 들었다. <br/><br/>담배 속 1급 발암물질 비소는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며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옷을 드라이크리닝할 때 쓰는 벤젠도 담배에 들어 있는데, 흉통·기침·쉰 소리·호흡부전·폐부종을 일으킨다고 한다. 또 도금·세라믹·영구자석 등에 쓰이며 신장암과 호흡기계 종양을 일으키는 니켈, 도금할 때 쓰며 호흡곤란·폐기종·기관지염을 일으키는 카드뮴, 살균제·제초제·방부제의 원료이자 기관지염·폐부종·폐렴·기관지 수축·천식 등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담배에 든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br/><br/>인체 발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는 나프탈렌, 납, 코발트가 있다. 나프탈렌은 옷장 속 방충제·살충제·양변기 속 탈취제로 쓰이며 인체에 들어가면 빈혈·간 및 신경손상·백내장·망막손상·호흡곤란·폐부종 등을 일으킨다. 건전지·포탄·땜납에 쓰이는 납은 혈액 신장 및 심혈관계에 이상을 일으키고 영·유아가 납에 노출될 경우 인지발달 및 학습장애, 심하면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가 손상될 수 있다. 건축용으로 쓰이는 코발트는 부종·폐출혈·천식·폐렴·말초신경염·후각상실·청신경 장애를 유발하고 자연 유산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이 밖에도 폐암과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떨림·기분 변화·감각 및 운동신경 저하·객혈·청색증·폐렴·괴사성 기관지염·폐부종을 유발하는 수은, 호흡중추 마비·두통·경련을 일으키는 시안화수소, 두통을 유발하는 아세톤, 기관지와 위장을 손상하는 암모니아, 심근염과 폐부종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하는 페놀 등이 담배에 들었다. <br/><br/>하지만 금연 상담가가 아무리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해봤자 흡연자 대다수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 흡연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이미 체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에 흡연습관에서 더더욱 벗어나기 힘들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보다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게 좋다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비흡연자들은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담배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br/><br/>사실 담배의 스트레스 해소 효능은 흡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니코틴 금단증세(불안, 긴장, 짜증)를 없애주는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중독의 악순환에 불과하다. 만약 니코틴에 진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br/><br/>흡연습관 유형은 스트레스 해소형, 육체·심리적 중독형, 습관형, 손장난형, 자극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스 해소형이 압도적이다. 화가 나고 울적할 때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운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울적한 기분을 달랠 방도가 내 몸을 해치는 담배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울적한 일이다. 피우는 것도 끊는 것도 스트레스다. 그래서 금연상담가들은 휴가철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골라 담배를 대신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놓고 담배를 끊으면 훨씬 수월하다고 조언한다. <br/><br/>흡연욕구를 자극하는 술과 기름진 음식, 카페인 등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또 책상 위에 담배 모양과 흡사하게 길게 썰은 당근, 건과류 등을 비치하고 흡연욕구가 들 때마다 먹어도 도움이 된다. 금연은 나 홀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꼭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고 금연저금통을 만들어 담배를 사고 싶을 때마다 2500원씩 모아 나에게 주는 선물을 사는 데 활용하면 보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1.txt

제목: [금융특집] 삼성화재, 고령자 위해 치료비 많이 드는 암 집중 보장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0724619  
본문: 삼성화재는 암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고령자를 위한 암 전용 보험 ‘시니어암’을 판매하고 있다.<br/><br/>가입 연령은 61~75세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 10년간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받고 만기 때 재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로, 암 진단 때 최대 4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br/><br/>유방암과 전립선암, 방광암처럼 치료비가 적게 드는 5대 소액암과 일반 암, 3대 특정암과 고액 치료비 암에 따라 보험금 규모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선택 특약 가입 때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위암, 폐암, 간암 또는 백혈병 등을 진단받으면 해당 특약의 암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도 장점이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한다. 암 전문 의료진의 전화 상담과 진료 예약이 포함된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과 배우자 사망 때 장례용품 등도 지원한다.<br/><br/>정병록 장기상품개발팀 상무는 21일 “<span class='quot0'>고령층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은 만큼 누구나 암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발했다</span>”고 말했다.<br/><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2.txt

제목: [금융특집] 메리츠화재, 암·뇌·심장·희귀 난치성 질환 집중 보장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0705444  
본문: 메리츠화재가 무배당 보험 상품인 ‘메리츠 건강보험 백년해로 1407’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암과 뇌, 심장, 희귀 난치성 질환 등 특정 4대 중증 질환을 집중 보장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적절한 치료법이나 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br/><br/>메리츠화재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7대 질환(재생불량성빈혈, 파킨슨병, 모야모야병, 전신성 홍반루푸스, 만성신장질환, 심근질환, 운동뉴런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준다. <br/><br/>또 말기 암 진단비 담보를 신설해 4기 암 진단 때 가입 금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간암과 폐암, 뇌암, 백혈병 등의 특정암 진단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br/><br/>납입 면제도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 장해가 발생하면 적립보험료까지 납입을 면제받는다.<br/><br/>더불어 고도 후유 장해 생활자금 특약에 가입하면 납입 면제 때 월납 기준의 영업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초음파, 내시경, CT 촬영 등을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아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br/><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3.txt

제목: [금융특집] 한화생명, 류머티즘·유방절제술 등 여성 질환 보장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0708964  
본문: 한화생명이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치명적 질병(CI) 보험인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을 출시했다. <br/><br/>중대한 암 및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 보장과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특정 류머티즘성관절염, 중증 루푸스신염, 다발성경화증처럼 여성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도 특약으로 평생 보장한다. 특히 여성의 상속자금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사망 보장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CI보험은 CI진단 자금으로 가입 금액의 80%를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인 20%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40%까지 사망 보장을 확대했다.<br/><br/>합리적인 보험료도 장점이다. 최저 보험료가 월 5만원이며 비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는다. 치매 보장에 대한 고객 요구도 반영했다. 특약 가입 때 중증 치매 상태나 일상생활 장해 상태로 진단받으면 가입 금액만큼의 간병 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실손의료, 성인병, 재해·입원·수술 보장 등 다양한 특약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21일 “<span class='quot0'>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보장하는 최적의 상품</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4.txt

제목: 자궁경부암 조기진단 위한 HPV 검사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91556412  
본문: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위한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br/><br/>건강한 여성재단과 한국여성암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위한 HPV 검사의 최신 지견’ 심포지엄이 18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개최됐다. <br/><br/>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궁경부암 진단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국내외 HPV 검사 현황 및 미래에 대해 네덜란드의 병리학자인 Chris Meijer 박사와 고대의대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br/><br/>이재관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 세포검사에 기초한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사업은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HPV DNA 검사는 일차선별검사법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span>”고 말했다.<br/><br/>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 일차선별검사로서 HPV DNA 검사의 도입에는 HPV 검사 정도 관리 및 의료 수가체계의 왜곡이 해결돼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향후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조기검진 및 HPV 예방접종사업을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br/>연자 발표에 이어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위한 HPV 검사요건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해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허수영 교수, 관동의대 병리과 홍성란 교수, 연세의대 병리과 조남훈 교수,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조현찬 교수의 패널토의도 진행됐다.<br/>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1위인 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만 연 4000명에게 발생하고 하루 평균 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분명한데 99.7%가 HPV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특히 자궁경부암 발병까지 최대 20년이 걸리고, 암 중에서 유일하게 암전(前) 단계를 긴 시간 동안 거치기 때문에 HPV 감염 상태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궁경부암은 HPV 검사를 통한 추적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br/><br/>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씨젠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동 후원했으며 씨젠은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br/><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5.txt

제목: “화학요법+운동병행, 암치료효과↑ 부작용↓” (美연구)  
날짜: 2014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4628178  
본문: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때, 약간의 운동을 병행해주면 암 치료효과가 놀랍도록 향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전문매체 네이처 월드 뉴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간호학과 연구진이 항암화학요법 1가지만 받는 것보다 운동을 함께 병행해주면 암 세포가 더욱 많이 축소된다는 것을 쥐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실험용 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 목 부분에 악성 흑색 종 세포를 동일하게 주입한 뒤, 2주간에 걸쳐 두 그룹에는 항암제로 쓰이는 항(抗)종양 성 항생 화학물질 ‘독소루비신’을, 그리고 나머지 두 그룹에는 약효가 없는 위약을 다시 주입했다. 그리고 다시 독소루비신을 투입한 두 그룹 중 한 그룹의 쥐들은 동물용 미니사이즈 러닝머신을 이용해 하루 45분씩, 일주일의 5일간 정기적으로 운동시켰다.<br/>이후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소루비신’ 화학요법을 받은 쥐들은 위약을 투여 받은 쥐들에 비해 흑색 종 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심장기능이 저하되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섬유증이 증가되는 부작용도 함께 발견됐다. 그런데 화학요법을 받으면서 하루 45분간 정기적으로 운동해준 쥐들은 이런 화학요법 부작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흑색 종 세포 역시 획기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확인됐다.<br/>이는 운동이 심장기능 저하, 탈모, 설사, 구토 유발 등의 화학 항암제 부작용은 줄여주면서 암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조셉 리보나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연구결과는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 항암제가 더욱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면서 부작용은 낮춰준다는 것을 알려 준다</span>”고 설명했다. 또한 리보나티 교수는 “<span class='quot0'>운동이 독소루비신 약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덧붙였다. <br/>한편,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생리학 저널: 규제적 통합과 비교 생리학(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Regulatory, Integrative and Comparative Physiology)에 게재됐다.<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6.txt

제목: [지금&여기] 소동/이민영 국제부 기자  
날짜: 2014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85735941  
본문: 언젠가부터 소화가 안 됐다. 가끔 속이 쓰리기도 했다. 소화제를 먹는 날이 잦았다.<br/><br/>지난주부터는 배가 쿡쿡 찌르듯 아팠다. 갑자기 내장이 꼬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현대인의 친구,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br/><br/>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이번주 들어서다. 설사가 끊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검은 변을 보게 된 것이다.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끼고 노트북을 두드려 검색을 해봤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혈변이나 흑변은 소화관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이란다. 관련 질병으로 넘어갔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식도 궤양, 식도와 위 접합부 열상…. “뭐 다 별 거 아니네”라며 창을 닫으려는 순간 덜 흔한 원인으로 ‘위암’이 적혀 있었다.<br/><br/>위암이 어떤 병인가. 암은 사망원인 1위를 놓치지 않는 질병이다. 게다가 한국인 위암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의사가 답변해 준다는 지식검색 창에서도, 각종 병원과 건강식품 광고가 난무하는 글에서도 흑변은 위암과 관련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br/><br/>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위암’이라는 두 글자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가족들이 떠올랐다. 방정맞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암 보험금 액수까지 확인했다.<br/><br/>드디어 결전의 날. 점심 때를 틈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있다는 근처 병원을 찾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날 9시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 상태였다. 의사는 증상을 꼼꼼히 묻고 배도 이곳저곳 눌러보더니 내시경을 제안했다.<br/><br/>목에 마취제를 뿌리고 수액처럼 생긴 약이 들어가니 금세 잠들었다. 잠깐 잔 것 같은데 간호사가 날 깨워 진료실로 안내했다. 붉은 반점 하나 없는 위 사진을 보니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한데요. 십이지장도 그렇고. 저기 붉은 기 보여요? 약한 위염 정도예요. 약 드릴 테니 조금만 드세요.”<br/><br/>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그것 때문에 긴장했을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주일간의 소동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허탈과 안도가 적당히 버무려진 채 병원을 나오자 조바심이 난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점심 먹었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된다’는 상투적 문구가 생각났다. 다행히 소중한 것은 아직 옆에 있었다.<br/><br/>m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7.txt

제목: 위암 3기, 전절제술 앞둔 40대 남성 “전이 두려워 한방암치료 선택”  
날짜: 2014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4421493  
본문: 4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7월 내시경검사 중 이상 징후가 발견돼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 PET 검사를 거쳐 결국 위암 3기 Signet Ring Cell Type을 진단 받았다.<br/><br/>이 씨는 식도 접하부에서 근위부 약 1.5cm 침범, 분문부 주위를 4~50% 가량 둘러 싸는 궤양 침윤, 전정부와 체부에 위축성 점막변화를 보여 전절제술을 권유 받았다. 하지만 후유증과 전이에 대한 부담으로 결정을 미뤄왔다.<br/><br/>이 씨는 “<span class='quot0'>위암이 3기에다 인환세포라 전이가 잘된다고 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전이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span>”고 밝혔다.<br/><br/>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이 씨는 가족과 상의 끝에 결국 수술을 보류했다. 대신 암치료 한방병원을 찾아 한방암치료를 시작했다.<br/><br/>한방암치료는 한의학의 기전을 바탕으로 질병 부위 뿐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체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한다. 전이·재방 예방을 원하는 환자,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후유증을 겪는 환자나 병기가 상당히 진행돼 서양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주로 찾고 있다.<br/><br/>이 씨도 국소적 치료는 전이·재발의 가능성을 남기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방암치료를 선택했다고 전해졌다. 치료 경과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 씨는 한방암치료 시행 12주 후 내시경 결과에서 위 내시경상 보이던 종양이 소실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br/><br/>이 씨의 치료를 담당한 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대표원장은 “한방암치료는 환자의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 치료할 수 있다. 환자의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극대화하면 암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br/><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8.txt

제목: “산딸기, 췌장암 치료에 효과적”  
날짜: 2014091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4305930  
본문: 북아메리카 동북부 토양에서 자라나는 산딸기 종류인 초크베리(Chokeberry)가 암세포 박멸에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의학전문매체 메디컬 엑스프레스는 영국 킹스칼리지 병원, 사우샘프턴 대학 공동 연구진이 초크베리(Chokeberry) 추출물에 췌장암세포를 억제하는 특수 성분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현재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췌장암 세포(ASPC-1)에 초크베리 추출물을 주입한 뒤, 이후 나타나는 변화과정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나타난 실험결과는 놀라웠다. 약 48시간이 지나는 동안, 초크베리 추출물은 췌장암세포 1ug/ml이 사멸되도록 유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초크베리 추출물은 췌장암 표준 치료제인 젬시타빈(Gemcitabine)의 항암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추가 확인됐다.<br/>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5% 이하일 정도로 특히 치료가 어려운 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초기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인데, 환자 대부분은 암 전이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암세포에 비해 췌장암세포는 방사능 치료,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도 매우 낮다.<br/>이런 측면에서 이번 발견은 췌장암 치료와 예방법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우샘프턴 대학 바쉬르 르왈리드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초크베리 추출물이 젬시타빈과 만났을 때 항암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0'>이는 미래 암 치료법의 노선을 변경시킬 수도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아로니아 베리(Aronia berry)로도 불리는 초크베리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화합물 등 우리 몸의 활성산소 생성을 방지하는 항산화물질이 어떤 식물보다 많이 함유(블루베리의 5배)되어 있다. 이 항산화물질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도 수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br/>연구진은 과거 연구 중 초크베리 추출물이 뇌종양 치료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입증결과가 있는 만큼, 초크베리의 높은 항암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의학 학술지 ‘임상병리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Pathology)’에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09.txt

제목: “산딸기 섭취하면 췌장암 치료효과↑”  
날짜: 2014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4236897  
본문: 북아메리카 동북부 토양에서 자라나는 산딸기 종류인 초크베리(Chokeberry)가 암세포 박멸에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의학전문매체 메디컬 엑스프레스는 영국 킹스칼리지 병원, 사우샘프턴 대학 공동 연구진이 초크베리(Chokeberry) 추출물에 췌장암세포를 억제하는 특수 성분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현재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췌장암 세포(ASPC-1)에 초크베리 추출물을 주입한 뒤, 이후 나타나는 변화과정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나타난 실험결과는 놀라웠다. 약 48시간이 지나는 동안, 초크베리 추출물은 췌장암세포 1ug/ml이 사멸되도록 유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초크베리 추출물은 췌장암 표준 치료제인 젬시타빈(Gemcitabine)의 항암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추가 확인됐다.<br/>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5% 이하일 정도로 특히 치료가 어려운 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초기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인데, 환자 대부분은 암 전이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암세포에 비해 췌장암세포는 방사능 치료,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도 매우 낮다.<br/>이런 측면에서 이번 발견은 췌장암 치료와 예방법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우샘프턴 대학 바쉬르 르왈리드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초크베리 추출물이 젬시타빈과 만났을 때 항암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0'>이는 미래 암 치료법의 노선을 변경시킬 수도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아로니아 베리(Aronia berry)로도 불리는 초크베리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화합물 등 우리 몸의 활성산소 생성을 방지하는 항산화물질이 어떤 식물보다 많이 함유(블루베리의 5배)되어 있다. 이 항산화물질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도 수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br/>연구진은 과거 연구 중 초크베리 추출물이 뇌종양 치료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입증결과가 있는 만큼, 초크베리의 높은 항암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의학 학술지 ‘임상병리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Pathology)’에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0.txt

제목: “임신 중 암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까”  
날짜: 2014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83057071  
본문: 최근 결혼시기가 늦어져 고령임신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암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br/>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석주 교수팀은 1994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병원을 찾은 4만 7545명의 임산부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암으로 진단된 환자는 모두 9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1만명 당 19.1명 꼴로 암을 진단 받은 셈이다.<br/>　이는 여성 1만명 당 29.7명꼴로 암에 걸린다는 국가암정보센터 2010년 암환자 등록현황에 비춰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특히 연도별로 봤을 때 임신 중 암이 발생하는 환자 수는 최근의 고령임신 경향과 맞물려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r/>　1994~1999년의 경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1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2005년 사이에는 33명, 2006~2012년 사이에는 46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 10년 전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br/>　암 종별로는 자궁경부암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16명, 소화기암 14명, 혈액암 13명, 갑상선암 11명, 두경부종양 7명, 난소암 6명, 폐암 3명, 기타 암 3명 순이었다. <br/>　최석주 교수는 “<span class='quot0'>3차 의료기관에 고위험 임산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인구 중 임신 중 암 발생률 0.1%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2000년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를 감안하면 임신 중 암의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물론 임신 중 암이 발생한다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암도 치료하고 태아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은 종류와 발생 부위, 병기,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임신 중 암이 발견됐다고 모든 임산부가 유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신 중 암으로 인해 임신 종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는 임신 전반기에 진행성 말기암 진단을 받았거나, 임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편</span>”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임신 중 암 발병 환자 91명 중 암으로 임신 종결을 한 경우는 21명(23.1%)에 그쳤다. 평균 임신 주수는 13.6주로 태아의 생존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국한됐다. <br/>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은 임신을 유지해 성공적으로 출산을 마쳤다. 70명 중 44명은 출산 후 치료를 받았고, 26명은 임신 중에 수술, 항암화학치료 또는 복합 치료까지 받았다. <br/>　임신 중 암의 치료 결과 및 예후도 암의 종류, 병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신 중 암 발병 환자 91명 중 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25명으로, 대부분 발견 당시 이미 3~4기 이상의 진행성 암이었다. <br/>　암종별로 보면, 갑상선암은 사망이 없었고 자궁경부암 88%, 난소암 80%, 혈액암 75%, 유방암 67% 순으로 환자 생존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생존율은 50%에 못미쳤다. <br/>　의료진은 “<span class='quot1'>같은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 적극적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예후가 좋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최석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신 중 암을 진단받더라도 아이와 산모 모두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히 임산부라고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무조건 참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암이 의심되면 미루지 말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1.txt

제목: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억대 주식 서울대병원 기부  
날짜: 2014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82127992  
본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1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기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1일 서 회장이 서울대병원에 우선주 1824주를 증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 주당 54만 8000원으로, 총 9억 9950만원에 달한다. 서 회장의 지분은 기존 51.38%에서 0.03% 포인트 줄어든 51.35%가 됐다.<br/><br/>기부금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새로운 연구소인 의학연구혁신센터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룹 측은 “회사 차원이 아닌 (서 회장의) 개인적 기부로 주식 증여를 통한 기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br/><br/>1954년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한 아모레퍼시픽은 피부 건강 연구와 관련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서울대와는 1982년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피부 및 모발의 노화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서 회장은 이번 기부와 관련해 “<span class='quot0'>연구개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서울대병원 신규 연구소 건립을 후원함으로써 서울대병원과 우리나라 의학연구 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span>”고 밝혔다. 서 회장은 2011년에도 서울대 암 병원에 5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br/><br/>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2.txt

제목: 인체 유용한 단백질 분비 ‘형질전환 소’ 세계 첫 생산  
날짜: 2014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82044829  
본문: 국내 연구진이 인체에 유용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형질전환 소’를 세계 최초로 생산했다.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는 17일 서울대 수의대와 공동연구로 유전자 삽입에 따른 소의 형질전환 여부를 형광물질로 확인할 수 있는 ‘형질전환 형광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br/><br/><br/>형질전환이란 외부 유전자 주입을 통해 생명체의 형질이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형질전환에 성공하면 소의 주둥이, 코, 혀, 발굽이 형광색을 띤다. <br/><br/><br/>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중 암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인터루킨 등 유용한 단백질을 분비하는 형질전환 소의 지속 생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형질전환 소에서 분비되는 우유를 활용해 다양한 바이오 신약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br/><br/><br/>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3.txt

제목: “45세 정수리 탈모 남성, 전립선암 확률 40%↑” (美 연구)  
날짜: 20140917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4117895  
본문: 40대 중반에 이미 정수리 탈모(왕관 형 탈모)가 많이 진행된 중년남성들은 같은 나이 때 머리숱이 풍성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가 “<span class='quot0'>45세에 정수리(왕관 형) 탈모가 가속화된 중년남성은 정상 모발을 가진 남성들에 비해 침략적 전립선암(Aggressive prostate cancer)에 걸릴 확률이 40% 더 높다</span>”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미국 내 55~74세 사이 중·노년 남성 3만 907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대규모 암 검진 임상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립선암과 탈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조사를 수행했다. 참고로 연구진이 1138개의 전립선암(prostate cancer) 사례를 수집한 결과, 51%는 침략적 전립선암(Aggressive prostate cancer)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br/>연구진은 45세 때 가르마-정수리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가 빠지는 정수리 탈모(왕관 형 탈모)가 이미 진행된 중년 남성의 경우,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같은 또래 남성들에 비해 암 발병 확률이 40% 가량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M자 탈모, 원형 탈모 같은 다른 탈모 패턴에서는 전립선암 발병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독 왕관 탈모 패턴에서만 연관성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br/>탈모가 진행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androgen)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호주 빅토리아 암 협회는 대표적 남성 안드로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과다분비가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안드로겐 과다분비가 남성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전립선암 발병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br/>특히 미 국립 암 연구소의 연구는 탈모 형태 중에서도 유독 왕관 형 탈모가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암 발병 전조 증상을 알 수 있는 특정 탈모 패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을 담고 있다.<br/>미 국립 암 연구소 마이클 쿡 박사는 “<span class='quot1'>왕관 형 탈모 외에 다른 탈모 형태에서는 전립선암 발병과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특정 남성 탈모 패턴과 전립선암 발병관계를 추적하는 추가연구를 진행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종양학 저널(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됐다.<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4.txt

제목: “45세 왕관탈모 남성들, 전립선암 확률 40%↑”  
날짜: 2014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950937  
본문: 40대 중반에 이미 정수리 탈모(왕관 형 탈모)가 많이 진행된 중년남성들은 같은 나이 때 머리숱이 풍성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가 “<span class='quot0'>45세에 정수리(왕관 형) 탈모가 가속화된 중년남성은 정상 모발을 가진 남성들에 비해 침략적 전립선암(Aggressive prostate cancer)에 걸릴 확률이 40% 더 높다</span>”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미국 내 55~74세 사이 중·노년 남성 3만 907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대규모 암 검진 임상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립선암과 탈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조사를 수행했다. 참고로 연구진이 1138개의 전립선암(prostate cancer) 사례를 수집한 결과, 51%는 침략적 전립선암(Aggressive prostate cancer)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br/>연구진은 45세 때 가르마-정수리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가 빠지는 정수리 탈모(왕관 형 탈모)가 이미 진행된 중년 남성의 경우,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같은 또래 남성들에 비해 암 발병 확률이 40% 가량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M자 탈모, 원형 탈모 같은 다른 탈모 패턴에서는 전립선암 발병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독 왕관 탈모 패턴에서만 연관성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br/>탈모가 진행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androgen)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호주 빅토리아 암 협회는 대표적 남성 안드로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과다분비가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안드로겐 과다분비가 남성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전립선암 발병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br/>특히 미 국립 암 연구소의 연구는 탈모 형태 중에서도 유독 왕관 형 탈모가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암 발병 전조 증상을 알 수 있는 특정 탈모 패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을 담고 있다.<br/>미 국립 암 연구소 마이클 쿡 박사는 “<span class='quot1'>왕관 형 탈모 외에 다른 탈모 형태에서는 전립선암 발병과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특정 남성 탈모 패턴과 전립선암 발병관계를 추적하는 추가연구를 진행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종양학 저널(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5.txt

제목: 올해 화이자의학상에 남석우·고원중 교수  
날짜: 2014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81538947  
본문: 　의학한림원(회장 남궁성은)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이 후원하는 ‘화이자의학상’ 제12회 수상자로 가톨릭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기초의학상)와 성균관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고원중 교수(임상의학상)가 각각 선정됐다.<br/>　남석우 교수는 ‘새로운 간암 원인유전자 ‘SIRT7’의 기능 및 이를 조절하는 마이크로RNA ‘125a-5p’ 및 ‘125b’의 간암억제 기전 규명’ 연구를 통해 암발생 기전에서 후성 유전 영향인자와 마이크로 RNA의 조절 기작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고원중 교수는 ‘비결핵항산균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와 마이코박테리움 마실리엔스 감염의 매크로라이드 항생제 치료 및 유도내성’ 연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이 50~60%에 불과한 다제내성결핵의 진단과 치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연 공로를 인정받았다.<br/>　수상자에게는 각 30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오후 6시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br/>　의학한림원 남궁성은 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수상 연구들은 국내 의료계가 당면한 중요한 치료 과제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을 받은 우수한 성과들</span>”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1'>한국화이자제약은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제약업계 본연의 역할에서 나아가 한국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6.txt

제목: [이슈&논쟁] 담뱃값 인상  
날짜: 2014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81015106  
본문: 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게 담뱃값 인상의 취지지만, 우회증세·서민증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에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물가 인상에 따라 또 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10년 뒤에는 담뱃값이 60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흡연자가 서민층인 점을 고려할 때 서민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운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서민 부담이 염려된다고 서민들을 흡연과 건강악화라는 악순환에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담뱃값이 오를수록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도 한다. 양측 전문가의 주장을 들어봤다.<br/><br/>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br/><br/><br/><br/> 암 등 사망 원인 1~3위 흡연 탓… 가격인상은 일석이조 금연 정책 <br/><br/>서홍 관금연운동협의회 회장 <br/><br/>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자 흡연자들은 만만한 흡연자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렸지만, 비흡연자 중에는 제발 담뱃값을 선진국처럼 1만원으로 올려서 흡연율을 낮춰 달라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br/><br/>그런데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세수가 최대치가 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현 정부가 금연에는 관심이 없고 세수만 노린다는 흡연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 <br/><br/>더구나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잇달아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세를 발표하고, 상속세 감면안까지 발표하자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 논란으로 번지면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는 실종되고 배는 산으로 간 격이 됐다. <br/><br/>이제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건강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br/><br/>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 중에 흡연자는 무려 1000만명이 넘는다. 우리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혈관질환인데 모두 흡연이 주된 위험인자다. <br/><br/>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금연 정책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br/><br/>그럼 금연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담뱃값이 지난 10년간 동결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과 가장 높은 성인 남성 흡연율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게 되었다. 이제 담뱃값 인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br/><br/>담뱃세 6조 8000억원 중 약 2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br/><br/>그러나 그 기금의 1.2%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 <br/><br/>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의 금연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약 2조 8000억원의 세수가 새로 걷힌다.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증가하는 담뱃세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br/><br/>흡연은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이 심한 흡연자는 금연보조제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보조제에 대해 보험 혜택이 없어서 흡연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br/><br/>하루빨리 금연보조제에 대해 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br/><br/>일부에서는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만 커진다’는 논리를 편다. 원래 저소득층은 중·상류층에 비해 질병도 많고 평균수명도 낮다. 사회의 금연 분위기가 높아지면 중·상류층은 담배를 끊는데 저소득층은 담배를 끊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흡연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건강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br/><br/>‘서민들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말라’는 주장은 ‘서민들은 담배 피우면서 건강을 해치도록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물론 담배를 못 끊는 서민들은 피해만 본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먹는 금연약을 포함한 금연보조제를 공급해야 하고, 보건소마다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br/><br/>다행히도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경고사진 도입, 금연진료 보험급여,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밝힌 정책들은 항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발표가 없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때 증세가 목적이라는 의혹이 사라질 것이다. <br/><br/>결론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이며, 새로 증가한 세수를 흡연자의 금연 지원,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캠페인,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간접흡연 예방사업 등 금연 사업에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연정책의 후진국이다. 이제 금연정책에서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담뱃값 인상에 얽힌 비판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진지하게 금연정책에 임해야 할 것이다.<br/><br/> 서민주머니 털어 세수 충당 ‘꼼수’… 국민 건강 위한 가격 인상은 허구 <br/><br/>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r/><br/>정부는 지난 11일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가격 인상안을 발표했다. <br/><br/>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과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 전면금지도 함께 발표했다. <br/><br/>1958년 필터 담배 아리랑이 시판된 이후 담배는 하나의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성인들이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 속에 포함된 각종 위해물질과 흡연에 따른 건강문제, 간접흡연 등이 부각되면서 금연장소 확대, 담배광고 규제 등이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식당에서든, 직장에서든, 거리에서든 흡연자들이 설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br/><br/>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과연 담배를 끊게 유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 <br/><br/>정부는 최소한 4500원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려야 흡연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최소한 8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 보고서를 보면 연령, 소득수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금연에 나서겠다는 담배의 가격은 906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즉 담뱃값이 9000원 정도 올라가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4500원을 제시했다. 왜 정부는 절반 수준인 담뱃값 4500원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가 있다. <br/><br/>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제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담배 소비가 줄고 흡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학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부합한다. <br/><br/>문제는 담배가 다른 제품과 달리 중독성이 강해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즉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가격이 올라도 상대적으로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담배의 특성을 고려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추계해 보니, 담배가격이 4500원일 경우 담배세수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뱃값이 4500원이어야만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담뱃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담뱃값이 5000원 이상이면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 목적은 세수 극대화임이 분명한 것이다. <br/><br/>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분의1에 불과한 최하위권이다. 또한 담배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간접세 방식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의와 역행하는 것이며,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구멍난 정부의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br/><br/>특히 정부는 기존 담배소비세에 더해 개별소비세를 추가해 담배를 마치 보석, 귀금속, 고급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br/><br/>현재 정부 재정의 위기는 이명박(MB) 정부 때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부터 기인한다. 잘못된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 없이 거꾸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증세로 해결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지금은 담뱃값을 얼마 올릴 것인가 얘기할 때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쟁해야 한다. <br/><br/>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강행을 반대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다. <br/><br/>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앞세운 세수확보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고착화’를 획책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 논란을 조세논쟁으로 전환시켜 조세정의와 재정건전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에 다가가는 대토론을 벌여갈 것이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7.txt

제목: 해외여행 | 치앙라이Chiang Rai- 메콩의 물결은 유유히 흐른다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80307249  
본문: 메콩은 깊고 넓었다.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흙빛의 물결은 치앙라이를 여행하는 내내 훅훅 끼치는 흙냄새를 남겼다. 태국의 북쪽 꼭대기, 라오스와 미얀마를 마주보고 있는 치앙라이에서 갓 꺼진 아편의 불씨와 오래도록 남을 란나왕조의 흔적을 돌아봤다.<br/><br/>야수를 잠재운 시간<br/>뒤뚱뒤뚱, 차는 꼬불거리는 산길을 한참 올라갔다. 언덕을 넘을 때마다 반대편으로 가지런히 열을 이룬 차밭이 펼쳐졌다가 끊기고 다시 펼쳐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작은 집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깊은 산골에는 원주민들의 마을이 있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이곳은 차이니즈 빌리지Chinese Village로 중국인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도이 매 사롱Doi Mae Salong이다. <br/>하교하는 아이들이 재잘대는 중국어가 아니더라도 집집에, 가로등 사이에 걸린 붉은 등에서 충분히 이곳이 중국인 마을임을 알 수 있었다. 과거 공산당에 밀려 장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타이완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중 일부가 공산당들을 피하기 위해 접근이 쉽지 않은 이곳까지 내려왔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싸우다 사망한 두안 장군의 묘The Tomb of Gcn Duan가 옹기종기 내려앉은 마을을 보살피듯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br/>그들은 주로 기념품이나 약재 등을 팔거나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나가길 꿈꾼다.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마을에는 나이가 지긋한 어른과 아주 어린 아이들만이 남아 있다. <br/>차이니즈 빌리지를 둘러싼 산에서는 대부분 차를 경작한다. 이곳에는 근방에서 가장 큰 차 공장이 있는데 101티플랜테이션101 Tea Plantation이 바로 그곳이다. 크기만 무려 200에이커에 달한다. 아침 일찍 차밭에 들어서면 싱긋싱긋한 이파리들 사이로 차 냄새가 자욱하다. 숲의 대부분이 차밭으로 경작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골짜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매력 포인트다. <br/>사실 치앙라이 하면 아편의 이미지가 끈질기게 따라다닌 것이 사실이다. 아편이 생산되고, 그 아편이 금으로 바뀌는 곳이어서 악명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이 붙었었다. 암적인 거래가 횡행하던 이곳을 바꿔 놓은 것은 태국 국왕의 어머니, 스리나가린드라Srinagarindra 여사. 1983년 도이퉁 디벨롭먼트 프로젝트Doi Tung Development Project를 통해 아편 생산을 전면 금지하고 양귀비를 기르던 지역에 농작물들을 재배하게 했다. <br/>그녀가 이곳을 사랑한 흔적을 보고 싶다면 1996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약 7년 동안 머물렀던 도이 퉁 로열 빌라Doi Tung Royal Villa를 찾아가야 한다. 1년 내내 꽃이 가득한 스위스식 정원, 매 패 루앙 가든Mae Fah Luang Garden은 사랑의 결정체다. 아편의 주요 통로였던 지역에 만들어진 이 정원은 아편 재배가 금지되고 할 일이 없어진 마을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는 공간이 됐고, 스리나가린드라 여사가 사망한 뒤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됐다<br/><br/>그녀가 없음에도 이곳은 여전히 정성스러운 손길로 꾸며지고 있었다. 분주한 정원사들은 강물을 언덕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더운 열기에 식물이 죽지 않도록 보살피고, 3개월마다 정원의 꽃을 새로 심는다. 여행자들은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정갈하고 소박하게 살았던 그녀의 성을 둘러본다. <br/><br/>역사의 풍랑을 온몸에 새기다<br/><br/>아편에 얽힌 이곳의 역사를 몰랐더라면 메콩강을 마주했을 때, 그 감흥이 덜 했을지도 모른다. 멀리서 흘러와 멀리로 흘러가고 있는 흙빛 물결은 그 역사만큼 혼탁했다. 관광객들을 태운 작은 보트들이 물길을 따라 미얀마와 라오스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곳에는 국경이 있어서 검사를 거치고 주변 나라로 넘어간다. 여행자들에게는 3~4시간 정도 라오스 땅을 밟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도 있다.<br/>보트가 메콩강의 흙탕물을 밀어내며 달린다. “왼쪽 빨간 지붕 카지노가 있는 곳은 미얀마, 오른쪽 노란 지붕이 있는 곳은 라오스입니다. 국경을 오가면서 아편을 사고 팔고, 그리고 카지노에서 ‘돈세탁’을 해서 돌아갔지요.” 가이드의 설명이 시뮬레이션처럼 펼쳐졌다. 겨우 40년 전의 역사,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였다. <br/>아편에 취한 사람들이나 그로 인해 일어난 전쟁을 생각하면 아편의 주 생산지였던 이곳에 역사 깊은 120여 개의 불교 사원이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향로에 빽빽하게 침향을 꽂는 불심 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의 위쪽에 있는 왓 프라 탓 푸 카오Wat Phra That Phu Khao 사원에는 점을 쳐주는 불상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다. 소원을 빈 뒤 불상을 들어올렸을 때 가볍게 들리면 일이 잘 풀리고, 무겁게 들리면 일이 힘들게 풀린단다. 무겁게 들린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막대통을 흔들어 나오는 숫자에 적힌 점괘를 보다가 무너지고 말았다. ‘앞으로 악재가 계속 겹치며,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나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엉터리’ 불자로서 절이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비참한 마음에 그냥 나오고 말았다. <br/>태국어를 할 줄 모르니 여행하는 내내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실 태국 북부는 사투리가 심하단다. 서울과 부산의 차이와 비슷하다. 치앙라이가 방콕에서 북쪽으로 780km 거리에 자리해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 치앙라이를 주축으로 독립적인 란나왕조Lanna Kingdom가 번성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래서 이곳에는 ‘란나스타일’이 있다. 건축물 꼭대기에 마치 칼이 꽂힌 것처럼 깃이 달린 것이 대표적인 란나스타일. <br/>치앙라이에 속해 있는 치앙센Chiang Saen에서는 뒤섞인 이 지역의 역사를 훔쳐볼 수 있다. 13세기경 왕 센후King Sean Phu에 의해 란나왕국이 발생한 지역인 치앙센은 긴 벽돌담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부처의 유골 일부가 있다는 왓 파삭Wat Pa Sak 사원은 수백년 된 티크나무 숲 가운데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붉은 벽돌 바닥만 남은 사원은 수세기를 거치며 부식되고 손실된 흔적이 절절하게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에 끝없이 상상력을 펼치게 되는 곳이었다. 수코타이, 란나, 미얀마의 건축양식이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탑은 돌아보는 동안 수많은 표정을 보여 줬다. 허물어진 벽을 등지고 앉은 부처상은 어떠랴. 이곳저곳 상처가 많은 얼굴에서 고단함이 느껴졌지만 제단 앞, 갓 마른 촛농이 떨어진 것을 보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부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다. <br/><br/><br/>다시, 새로운 물결<br/><br/>그 무엇보다 치앙라이에서 유명한 것은 왓 롱쿤Wat Rong Khun이다. 흰색 건물로 화이트 템플Whith Temple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원은 태국의 건축가인 찰럼차이Chalermchai가 1998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곳.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서 구해 달라’고 말하는 꿈을 꾼 뒤로 만들기 시작했단다. 지옥을 표현한 조형물들 사이로 찬란하게 빛을 받고 있는 왓 롱쿤은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다. 흰색과 함께, 유리를 사용한 덕에 말 그대로 ‘환하고 빛나는’ 모습이다. <br/>사원 건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쪽에 마련된 기념품가게의 수익으로 사원을 계속 증축해 나가는 중으로 언제 끝날지는 오로지 찰럼차이의 마음에 달렸다. 메인이 되는 사원은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주변 건물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지금은 완공보다는 보수가 중요한 시점이다. 작년 치앙라이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탑의 꼭대기가 부러지고 건물에도 부분부분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br/>고전적인 방식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 찰럼차이가 있다면, 동물의 뼈와 가죽을 모으며 과거를 수집하는 타완 두체니Thawan Duchanee도 있다. 블랙 하우스Black House라 불리는 반 담Baan Dam을 만든 예술가다. 이름처럼 검은색의 건물에 온갖 동물들의 뼈와 가죽을 수집해 전시하고 있다. 수집품들과 검은색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형언하기 힘들다. 죽음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으니 시간이 멈출 것처럼 으스스하다. 하지만 호기심이 동하는 건 더욱 어쩔 수 없었다. 수십 미터의 뱀가죽을 따라서 입구가 되는 건물을 지나가자 각각의 테마를 가진 건물 몇 채가 나타났다. 버팔로의 뿔과 가죽으로 만든 의자, 동물의 털이 살아있는 가죽으로 장식한 테이블 등등. 원시와 야만의 흔적들은 가끔 경악스러운 단말마로 이어졌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흔적이었다. <br/><br/>글·사진 차민경 기자 취재협조 태국관광청 www.visitthailand.or.kr<br/><br/><br/>▶travel info<br/>AIRLINE <br/>치앙라이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서 방콕이나 치앙마이를 경유해 가야 한다. 타이항공은 인천에서 방콕까지 매일 2~4편의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고, 방콕에서 치앙라이까지는 하루 3편의 직항이 뜬다. 인천에서 방콕까지는 약 6시간이, 방콕에서 치앙라이까지는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br/>HOTEL<br/>메콩강의 진수를 느끼다<br/>더 임페리얼 골든 트라이앵글 리조트The Imperial Golden Triangle Resort<br/>최고급 리조트를 상상한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리조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치앙라이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을 조망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왼쪽으로는 미얀마가, 오른쪽으로는 라오스가 보일 뿐더러 록강Ruak River이 메콩강과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정면에 위치한다. 테라스에 서서 좌우로 펼쳐지는 메콩강을 보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풍경이 마음속에 새겨질 것. 특히 레스토랑 테라스를 놓치지 말길. 가격도 합리적이다. 조식 포함 1,600바트(약 5만원)부터. <br/>222 Golden Triangle, Chiang Saen, Chiang Rai 57150 Thailand<br/>+66 (0) 5378-4001 www.imperialhotels.com<br/><br/>차밭 위의 신선처럼<br/>매 사롱 플라워 힐즈 리조트Mae Salong Flower Hills Resort<br/>깊은 차밭 한가운데, 산등성이에서 피어 오르는 안개가 내려다보이는 리조트가 있다. 높은 산을 깎아 만든 사롱 플라워 힐즈 리조트는 도이 매 사롱 지역에 자리해 있다. 정면으로 여러 겹 굽이진 산허리가 펼쳐져 있고, 가까운 언덕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재배한다. 숲 속에서 평안한 휴식을 갖길 원한다면 이곳이 마음에 들 것이다. 950바트(약 3만원)부터. <br/>779 Moo 1 Doi Mae Salong,Mae Fah Luang,Chiang Rai<br/>053-765-495-7 www.maesalongflowerhills.com <br/><br/><br/>TEMPLE<br/><br/>매혹될 수밖에 없는 영롱함 에메랄드부처Emerald Buddha<br/>1434년, 치앙라이에 있는 왓 프라 깨오Wat Phra Kaew 사원의 파고다에 번개가 쳤다. 그 자리에 있던 불상이 번개를 맞고 일부분이 깨졌는데 안쪽에서 초록빛이 나더란다. 살살 겉을 둘러싼 것을 깨 보니 부처상이 옥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보통 에메랄드부처라고 부르지만 에메랄드색이 나는 옥 부처가 발견된 것. 당시 발견된 불상은 라오스 루앙프라방, 치앙마이, 비엔티안 등을 순회하고 있으며 현재는 방콕에 있다. 왓 프라 깨오 사원에서는 이 불상이 발견된 것을 기념해 그와 비슷하게 만든 옥 불상을 따로 전시하고 있다. <br/>19 Moo 1, Tambol Wiang, Ampur Muang, Chiang Rai 57000 Thailand<br/>+66 (0) 5371-1385 www.watphrakaew-chiangrai.com<br/><br/>MUSEUM<br/>오감으로 체험하는 공포 아편박물관Hall of Opium<br/>골든 트라이앵글이 아편의 생산지로 악명을 떨쳤고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전세계 곳곳에서 마약 카르텔이 활동하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아편은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에 불과하다. 아편과의 한판 승부를 벌였던 이곳 치앙라이에는 일반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아편의 무서움을 알려주기 위한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편 중독을 표현한 긴 동굴을 지나게 된다. 전시관은 각종 시각, 음향 효과로 아편의 공포를 실감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박물관을 다 돌고 나오면 ‘정말 마약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이 절로 나오게 된다고. <br/>Golden Triangle Park, Chiang Saen, Chiang Rai, Thailand<br/>053 784 444-6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8.txt

제목: [시론] 세월호가 보내는 징후를 읽어라/정우영 시인·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75441244  
본문: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균열의 징후다. 우리의 현재적 삶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된 이 균열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은 안전한가’라는 불안은 우릴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더욱이 ‘국가’라는 조직의 무능과 무기력이 백일하에 드러난 터라 균열의 틈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심저에 똬리 튼 천박한 탐욕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br/><br/>일상화된 위기의 한 징후를 나는 최근 곳곳에서 꺼져 내리는 싱크홀에서 본다. 섬뜩하지 않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쑥 가라앉아 사라져 버린다면. 갑자기 늘어난 싱크홀 현상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망상인가. 사람들은 큰 위험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지만 내게는 다르게 다가온다. 막개발을 삼가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칠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연이 보내는 한 경고로 비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탐욕은 접고 사람과 자연이 두루 함께 어울려 살길을 도모하라는. <br/><br/>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청도 바로 이 관점이다.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권을 망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가 경고하는 우리 사회의 온갖 암 덩어리들을 이참에 깨끗이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벌어진 균열의 간극도 메울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우리는 더 심대한 타격과 재앙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br/><br/>그러니 적당하게 타협하고 덮을 일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수많은 재난을 겪고도 왜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는가. 냉철한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같은 공정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하고 책임질 자는 처벌해야 한다. 물론, 정권의 입장에서 이는 참 난감한 노릇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피해가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벌어졌고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다. <br/><br/>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정권은 이제 그만두라고 윽박지른다. 명확해진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그만두라는 말인가. 팽목항을 바라보며 흘리던 그때 그 눈물은 다 어디로 갔나.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탐욕으로 눈 붉히면 우리 모두는 공멸한다. <br/><br/>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는 징후를 제대로 깨우쳐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한 패거리 정치의식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어루만질 수 있어야 이른바 적폐니 관피아니 하는 곪은 종기들을 제거하는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다. <br/><br/>그러나 오해는 마시라. 나는 이 정권에 청원하는 게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실은 오늘이 아니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다만 지치지 않고 느긋이 기다리면 된다. <br/><br/>세월호 참사 이후 내가 두려워하는 건 정권에 호도된 이들의 적대감정이다.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하고 싶은 행태가 노골적으로 전면화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조롱거리로 삼거나 심지어는 매도한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야차로 보인다. 나는 이 감정이 공포스럽다. <br/><br/>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참사도 뼈아프다. 상식으로 쓰이던 말들이 저들의 입을 통과하는 순간, 기괴하게 뒤틀려버린다. 궤변이다.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궤변 치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말들을 구할 것인가. 말의 수호단이라도 조직해야 할 것인가. <br/><br/>그러자 내 속에 잠긴 세월호가 속삭인다. 균열을 조장하는 저 패악부터 먼저 일소시키라고.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19.txt

제목: 최초의 췌장암 치료백신 ‘리아백스주’ 국내 허가 획득  
날짜: 2014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74010249  
본문: 　세계 최초의 췌장암 치료 백신의 국내 공급이 확정됐다. 국제적인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 카엘젬벡스는 자사가 개발한 신약인 췌장암 백신 ‘리아백스주’(코드명 GV1001)가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br/>　리아백스주는 세계 최초의 췌장암 치료 백신으로, 펩타이드가 주성분이며, 카엘젬백스가 유럽 임상을 마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약 허가를 받았다.<br/>　리아백스주는 췌장암 환자의 자가면역을 극대화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기전을 가진 치료제로, 기존 화학치료제인 ‘젬시타빈’ ‘카페시타빈’과 병용 투약할 경우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신개념 항암 치료제이다.<br/>　특히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eotaxin) 이 높은 환자에게서는 기존 생존기간을 50%에서 최고 100%까지 늘릴 수 있는 효능이 확인돼 기대 여명이 짧은 췌장암 환자에게서도 부작용 없이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리아백스주는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안전한 범용 항암 백신이라고 카엘젬벡스 측은 설명했다. <br/>　최근 들어 암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0%는 암으로 사망한다. 특히 췌장암은 가장 발견하기가 어렵고, 고치기도 어려워 생존율이 8%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두드러진 진전이 없었다.<br/>　이런 가운데 개발된 리아백스주는 암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는 인간 텔로머라제 (hTERT) 에서 유래된 펩타이드를 활용해 다양한 암 질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암 백신이다.<br/>　영국에서 리아백스주의 췌장암 임상3상을 주도한 영국 암연구센터(Cancer Research UK/LCTU) 제이피 네옵톨레모스 박사는 “<span class='quot0'>리아백스주의 췌장암 3상 임상에서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을 규명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면역치료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회사측은 “<span class='quot1'>2000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2개국에서 10건 이상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 및 효능이 입증됐고, 2006년에는 미국FDA(식품의약국)와 유럽 EMA(유럽의약품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최근에는 지속적인 R&D를 통해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알츠하이머 등으로의 적응증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85년 전통의 국내 삼성제약을 인수함으로써 유력한 국내 바이오 제약회사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카엘젬백스 김상재 대표는 “<span class='quot2'>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약 허가를 얻음으로써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질환인 췌장암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항암 면역치료제 시장을 주도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0.txt

제목: 美앵커 뉴스 도중 시한부 6개월 고백…“끝까지 방송” 감동  
날짜: 2014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600992  
본문: 미국 일리노이주(州)의 한 지역 TV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던 한 앵커가 자신이 뇌종양 판정을 받아 몇 달 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는 한 끝까지 뉴스를 전하겠다고 밝혀 이를 시청하던 수많은 시청자들을 감동에 젖게 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br/><br/>일리노이주의 지역 방송(WCIA-TV)에서 9년째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베테랑 앵커인 데이브 벤턴(51)은 생방송 진행 도중 동료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몇 주전 의사로부터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며 이미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 4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br/><br/>데이브는 “<span class='quot0'>하지만 비록 며칠을 살더라도 삶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0'>내가 할 수 있는 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격려해주는 많은 시청자들의 힘이 나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span>”고 말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젖게 만들었다. <br/><br/>특히, 데이브는 이날 생방송에서 매우 담담한 어조로 자신은 종양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span class='quot0'>나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나의 삶은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나를 데려갈 것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매우 평안하다</span>”고 마치 뉴스를 진행하듯 말해 시청자들은 더욱 감동하게 했다. <br/><br/>이에 동료 여성 앵커는 “<span class='quot1'>당신의 긍정적인 태도는 암을 극복하는 데도 강력한 힘이 될 것</span>”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데이브는 다시 한 번 “<span class='quot0'>뉴스를 진행한 지난 9년 동안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며 어느 날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날이 온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었다</span>”고 말해 시청자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다. <br/><br/>데이브는 시카고 태생으로 아내와 함께 장성한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브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몇 주 전 자신이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그가 몇 달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은 이날 처음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 방송을 통해 밝혔다. <br/><br/>사진=뇌종양으로 인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앵커 (해당 방송, WCIA 켑처) <br/><br/>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1.txt

제목: 규칙적인 생선 섭취, 난청 예방에 효과적  
날짜: 201409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543191  
본문: 규칙적인 생선 섭취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특히 노인들의 난청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br/>미국 보스톤의 하버드 의대 부속 브리검앤드우먼스 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1991~2009년 동안 간호사 6만5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두 번 기름기가 많은 생선을 섭취한 사람은 난청 위험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연어, 고등어와 같은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며, 오메가3가 심장질환이나 치매,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br/>연구기간동안 6만 5215명 중 1만 1606명에게서 난청 또는 청력상실 증상이 나타났는데, 드물게 생선을 섭취한 사람에 비해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한 여성은 난청 발생 확률이 20% 감소했다. <br/>연구를 이끈 샤론 추한 박사는 “<span class='quot0'>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증상이지만, 난청의 시기를 늦추거나 위험성을 낮출 방법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종류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생선이 난청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 <br/>전문가들은 생선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 장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2008년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2차례 생선을 섭취할 경우 노화로 인한 시력감퇴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br/>2004년 연구에서는 기름기가 풍부한 생선이 심장질환을 예방하며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br/>영국 영양학회의 대변인인 앨리슨 호른비는 영국무상의료서비스(NHS) 홈페이지에 “<span class='quot1'>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것은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임상영양학저널(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렸다. <br/>사진=포토리아<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2.txt

제목: 피부암 유발 매커니즘 입증…원인은 특정 유전자 변이  
날짜: 2014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454319  
본문: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피부암. 자외선을 받은 피부가 손상되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로운 연구에서 자외선이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br/>미국 스탠퍼드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이번 연구논문에 따르면 세포 분열 시 DNA를 동등하게 나누도록 돕는 기능과 연관된 특정 유전자(KNSTRN)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변이를 일으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이미 그 존재가 알려진 ‘발암 유전자’(oncogene)와 달리, KNSTRN 유전자는 원래 암을 유발하지 않지만 자외선을 받아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피부 편평세포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하고 있다.<br/>피부 편평세포암은 인체에서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는 매년 1만 건 이상이 진단되고 있다.<br/>연구에 참여한 폴 카바리 피부과 교수에 따르면 이 특정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DNA를 지닌 세포가 발생한다. 이런 세포가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br/>또한 이 유전자의 특정 부분은 피부 편평세포암에서 약 20%, 흑색종에서 약 5%의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규명한 이번 연구는 앞으로 피부암의 예방과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다.<br/>아울러 이번 연구는 피부암 발병률을 낮추려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이론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한다.<br/>이번 연구결과는 유전자 연구 분야 권위지인 ‘네이처 지네틱스’(Nature Genetics) 온라인판 9월 7일 자로 게재됐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3.txt

제목: 도심에서 내려온 산림치유  
날짜: 2014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71254213  
본문: 　그동안 치유의 숲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산림치유’를 도심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다.<br/>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도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산림치유사는 지정된 치유의 숲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br/>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지만 산음과 장성 등 치유의 숲이 산속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상대적으로 최근 지자체들이 숲길과 산림욕장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산림치유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는 확대됐다.<br/>　산림청은 서울시와 체결한 업무협약 일환으로 도심 속 숲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성 질환자와 재가 암환자 등이 대상이다. 중랑보건소와 북부병원 등이 참여해 서울 중랑구 봉화산과 중랑캠핑숲에서 ‘도심으로 떠나는 건강여행’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현재 보건소 등에 등록된 환자 등 32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br/>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span class='quot0'>숲을 활용해 도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시범 운영을 통해 치유효과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4.txt

제목: ‘셀카’ 덕분에 암 발견…구사일생 30대女 사연  
날짜: 2014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254192  
본문: 화장을 지운 노메이크업 셀카 덕분에 몸에 숨겨져 있던 암세포를 발견, 완치에 성공한 한 30대 여성의 구사일생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영국 지역 일간지 더비 텔레그래프는 우연히 찍은 셀카 덕분에 몰랐던 유방암 세포를 발견해내고 건강까지 되찾은 35세 여성 재키 니콜라스의 놀라운 이야기를 9일(현지시간) 소개했다.<br/>최근 영국에서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노메이크업 셀카 사진’을 페이스북 등의 SNS에 올리는 것이 큰 유행이다.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여름 세계적으로 유행된 아이스버킷챌린지(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방식)처럼 해당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 다음에 할 사람을 SNS에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국립 암 연구소(Cancer Research UK)의 암 연구 기부금 조성과 연관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r/>더비에 거주 중인 니콜라스 역시 앞서 해당 과제를 수행했던 친구 니콜라 알드레드로부터 다음 과제 수행자로 지명 받았고, 최근 노메이크업 셀카 사진을 보인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해당 과제 수행을 완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제수행은 그녀의 목숨을 구하는 계기가 됐다.<br/>셀카를 올린 뒤, 함께 링크되어있는 암 연구 캠페인 사이트를 방문했던 니콜라스는 우연히 유방암 자가진단과 관련된 설명글을 보게 됐다. 유방 통증, 주위 피부 궤양, 유방 함몰 및 염증, 겨드랑이 종기, 혈액성 유두 분비와 같은 각 전조증상을 살펴보던 니콜라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 유방암 검사를 맡았고 실제 유방암으로 발전될 악성 종양을 발견하게 됐다.<br/>그녀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뒤, 몇 달간의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고 완치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암 세포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니콜라스를 위협할 악성 종양은 몸 속에서 사라진 상태다.<br/>니콜라스는 “노메이크업 셀카 캠페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 됐든 해당 캠페인 아이디어를 처음 기획한 사람은 분명 천재며 한 생명을 구해냈다”고 전했다.<br/>한편, 영국 국립 암 연구소(Cancer Research UK)에 따르면, 불과 일주일간 이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800만 파운드(약 134억)에 달한다. 연구소는 해당 금액으로 암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주요 임상실험 10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5.txt

제목: “매일 ‘30분’만 산책하면 사망위험 23%↓”  
날짜: 2014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205627  
본문: 매일 ‘30분’간 걷는 것이 그 어떤 보양식, 약품보다 비만·당뇨병은 물론 암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애스턴 대학교 고령화 연구소·생명보건과학 연구진이 “<span class='quot0'>매일 30분 간 산책해주는 습관은 비만·당뇨·우울증·치매는 물론 암까지 예방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span>”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에 따르면, 매일 30분간 무리하지 않게 걸어주는 습관을 유지할 경우, 비만·당뇨·우울증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특히 암 발병위험도 급격히 감소되며 고관절 골절 위험은 40%나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관절염 예방율도 50% 가까이 상승되며 노년에 될수록 심각해지는 치매위험도 30% 이상 감소됐다.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활동량·이동성이 개선되며 궁극적으로 사망확률이 23% 가까이 감소된다.<br/>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한 가지 실험 사례를 소개했다.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이뤄진 두 그룹을 대상으로 다리에 석고깁스를 씌운 채 2주간 생활하게 한 뒤 근육 손실 정도와 회복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2주 후 석고깁스를 해체한 청년층과 노년층은 대부분 전보다 2배에 가까운 다리 근육량을 잃었다. 하지만 약 4주간 꾸준히 운동을 해준 후 근육량을 재 측정했을 때, 청년층은 대부분 전과 같은 근육량을 회복한 반면 노년층은 8주가 지나도 손실된 근육이 회복되지 못했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1'>신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며 근육량을 유지시키는 것이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효과적인 마법의 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특히 젊을 때 운동량을 꾸준히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노년에는 이를 회복하기 힘들다</span>”고 강조했다.<br/>또한 연구진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은 마라톤도, 체육관에서 수 시간 동안 반복되는 러닝머신-근육운동도 아닌 그저 ‘30분간의 걷기’를 매일 꾸준히 반복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최근 버밍엄대학에서 개최된 ‘영국 과학 페스티벌(British Science Festival)’에서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6.txt

제목: 볼리비아서 암투병 9살 경찰경위 탄생  
날짜: 2014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149640  
본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꿈에 그리던 경찰제복을 입고 꿈을 이뤘다. <br/>볼리비아 경찰이 9살 어린이 릴베르 아라마요 키로가를 경위로 임용했다. <br/>키로가를 찾아간 경찰은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제복과 경찰임용을 기념하는 메달을 전달했다. <br/>여기까진 그저 화제성 스토리 같지만 속사정을 보면 슬픈 사연이 숨어 있다. <br/>어린이는 뼈종양을 앓고 있다. 수도 라파스의 어린이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에게 병원은 이미 시한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br/>어린이에겐 커서 경찰이 되어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br/>하지만 뼈종양이 발견되면서 꿈은 산산조각 났다. 어린이는 도전도 하기 전에 꿈을 접어야 할 판이었다. <br/>그런 사연이 병원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을 통해 볼리비아 경찰에 전해졌다. <br/>볼리비아 경찰은 암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의 꿈을 이뤄주기로 했다. <br/>볼리비아 경찰은 키로가를 명예경위로 임용했다. 제대로 꿈을 이뤄주기 위해 어린이 몸에 맞는 간부제복까지 제작해 전달했다. <br/>깔끔한 경찰제복을 입고 기념메달을 받은 어린이는 어린 나이지만 경찰간부로 손색이 없었다.<br/>키로가는 “<span class='quot0'>볼리비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경찰이 계속 순찰을 돌았으면 좋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민도 시민의식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어린 나이에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희망을 접지 않는 키로가 경위가 존경스럽다.</span>”고 말했다. <br/>사진=패트<br/>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7.txt

제목: 결혼 전 피부관리보다 중요한 건 몸 속 건강 챙기는 자궁경부암 검사  
날짜: 2014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65833075  
본문: 올 여름 가장 설레는 사람들은 바로 이번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들일 것이다.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복잡한 결혼 준비는 마치고, 기분 좋게 피부관리를 받으며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br/><br/>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 시에 피부관리는 당연한 듯 여기지만, 몸 속 건강은 챙기는 일에는 소홀한 편이다. ‘아직 젊으니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결혼준비하느라 바빠서, 병원갈 시간이 없어서’ 등 다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엄마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에 무엇보다 건강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br/><br/>얼마 전 씨젠에서 제작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DNA 검사 광고 캠페인을 보고 누군가의 딸로 살아왔고, 곧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장차 엄마가 될 수 도 있는 예비 신부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br/><br/>엄마의 건강은 한 가정의 행복과도 바로 연결되기에, 결혼 전 산전검사 및 정기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감염을 확인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br/><br/>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 하루 3명 사망, 전세계적으로는 2분마다 1명씩 사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임신, 출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많은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암 1위이다. <br/><br/>하지만,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되고,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이 기간 동안 정확한 HPV DNA 검사를 받는다면 자궁경부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br/><br/>인류의 반은 여성이고, 그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해 가족들을 포함한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궁경부암. 씨젠은 이러한 자궁경부암 예방을 필두로 정확한 HPV DNA검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인류의 건강한 사회구현에 공헌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br/><br/>가정에서 엄마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씨젠의 광고 영상은 씨젠우먼 홈페이지(www.씨젠우먼.com)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8.txt

제목: 김진아 사망원인, 동생 김진근 “경피증 앓다 암 전이” 눈물  
날짜: 2014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65658197  
본문: 김진아 사망원인<br/><br/>배우 김진근이 누나인 배우 고(故) 김진아의 사망 원인을 밝혔다.<br/>11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는 고 김진아의 동생 김진근의 인터뷰가 방영됐다.<br/>이날 김진근은 “(김진아의) 병명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한테는 병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돌아가셨다는 그 상황 자체가 중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br/>김진근은 “<span class='quot0'>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니 창피한 것이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0'>누나는 사실 오랫동안 면역체계 질환 중 하나인 희소병 경피증을 앓았다</span>”고 말했다.<br/>이어 김진근은 “그것 때문에 피부에 이상이 오고 혈액순환도 안 됐다. 그게 지속적으로 가다보니 몸에 이상이 생겨 종양이 생겼고 그게 암이 됐다”고 덧붙였다.<br/>김진근은 “종양 제거 수술을 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종양이 다시 생겼다더라. 이후 무서울 정도로 급격하게 종양이 커지면서 위급한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br/>고 김진아가 앓은 경피증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병으로, 현재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없으며 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할 수 있다. 5년 생존율 또한 40~5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29.txt

제목: 김진근, “누나 故김진아 경피증 숨긴 이유는..” 진실 들어보니 …  
날짜: 20140911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65210536  
본문: ‘김진아’ ‘김진근’ ‘경피증’<br/><br/>배우 김진근이 누나인 배우 고 김진아의 사망원인을 숨긴 이유를 뒤늦게 밝혔다. <br/><br/>11일 방송된 SBS ‘좋은아침’에 등장한 김진근은 “우리한테는 병명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누나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했다”고 운을 뗐다. 김진근은 “사람이 떠났는데.. 물론 그렇다고 병이 창피한 건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병을 얻을 수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근은 “<span class='quot0'>누나는 면역체계 질환 경피증이라는 희소병을 오래전에 앓았다</span>”며 “<span class='quot0'>피부에 이상이 오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병이다</span>”고 밝혔다. 김진근은 “<span class='quot0'>지속적으로 앓다보니 몸에 이상이 생겨서 종양이 생겼고 나중에는 암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종양 제거 수술을 했지만 미국에 돌아가니 다시 종양이 생기면서 위급한 상태가 됐다</span>”고 말했다.<br/><br/>전문의에 따르면 경피증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닥해지는 병을 뜻한다. 현재 경피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없으며 진행을 늦추는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r/><br/>김진아 병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진아, 경피증 희소병이었구나”, “김진아, 경피증이라는 병 처음 들어본다”, “김진아, 그러게 경피증 병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 “김진아, 경피증 굳이 안밝혀도 되니까 안 밝혔겠지”, “김진아, 김진근씨도 힘내세요”, “김진아, 경피증 치료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무섭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한편 고 김진아는 향년 50세로 지난 20일 힘겨운 투병 끝에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br/><br/>사진=방송캡쳐(‘김진아’ ‘김진근’ ‘경피증’)<br/><br/>연예팀 mingk@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0.txt

제목: ‘왔다 장보리’ 오창석 “이유리 암 유발녀, 나는 호구”  
날짜: 2014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65017955  
본문: 왔다 장보리 오창석, 이유리<br/>‘왔다 장보리’ 오창석이 이유리에 대해 언급했다.<br/>1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 스타’는 ‘어머님들의 엑소’ 특집으로 진행됐다. 배우 오창석, 이규한, 원기준, 고세원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br/>이날 오창석은 “<span class='quot0'>‘왔다 장보리’ 이유리 씨를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 암 유발녀’라고 부르더라</span>”면서 입을 뗐다.<br/>오창석은 “<span class='quot0'>저는 그 옆에서 괜히 호구같아 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span>”고 털어놔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다.<br/>오창석은 이외에도 ‘오로라 공주’의 결말에 대해 언급하며 시선을 끌기도 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1.txt

제목: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차베스 ‘여자’로 환생?  
날짜: 201409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3117412  
본문: 암으로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여자로 환생한 것일까? 신기할 정도로 차베스와 닮은 한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br/><br/>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뜨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화제의 사진에는 50~60대로 보이는 3명의 여자가 등장한다. <br/><br/>3명 여자는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차베스와 쌍둥이 같은 여자는 파란색 수영복을 입고 있다.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긴 여자는 얼굴만 본다면 차베스가 살아 돌아온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닮았다. <br/><br/>사진에는 2014년 8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다. 그러나 사진의 주인공과 촬영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br/><br/>SNS에 사진이 뜨자 로스안데스(아르헨티나), 라파히나(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언론은 앞다퉈 ‘여자 차베스’의 등장 사실을 보도했다. <br/><br/>하지만 일각에선 조작된 사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차베스와 너무 닮아 합성사진일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1999년 권좌에 오른 차베스는 암에 걸려 투병하다 2013년 사망했다. <br/><br/>사진=SNS<br/><br/>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2.txt

제목: 블루라이트, 밤에 스마트폰 사용하면 유방암 걸린다? 연구결과보니…  
날짜: 2014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61221194  
본문: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br/>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의 조명, 일명 블루라이트가 비만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br/>일본 언론은 29일 밤중에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경우 방출되는 블루라이트가 눈의 피로 뿐만 아니라 체내시스템에 영향을 줘 비만과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br/>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중 피부노화를 진행시키는 자외선에 인접한 단파장의 빛을 말하며,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br/>특히 밤에는 블루라이트를 주의해야 한다.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양질의 수면을 권장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약화시켜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날짜 리듬과 같은 체내 시계를 교란시킨다.<br/>실제로 20세 전후 젊은층을 대상으로 심야에 블루라이트에 노출시킨 결과, 멜라토닌 분비량이 실험 시작 1시간만에 약 50%, 2시간 경과시 65% 줄었다. 체내 시계 혼란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험을 높이고, 에너지 대사에까지 악영향을 줘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br/>프랑스 연구진은 블루라이트와 암 발병률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여성의 심야노동(PC사용)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1.35배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3.txt

제목: 고향길 막힐 때 펼쳐봐요  
날짜: 2014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55130010  
본문: 흥청거리며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다. 그게 아니라도 옛 동무, 친척들의 반가운 얼굴을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즐겁다. 꽉 막힌 고속도로의 체증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다. 여기에 책 한 권을 집어들면 어느새 고향인가 싶고, 또 어느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br/><br/>요즘 서점 매대의 ‘짱’은 단연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요나스 요나손 지음, 열린책들 펴냄)이다. 100살 먹은 노인이 요양원을 탈출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스페인 내전의 프랑코 장군을 만나고, 마오쩌둥의 부인을 위기에서 구해주는가 하면, 스탈린을 만나 시베리아에서 노역하다가 북한으로 탈출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만나는 등 현대사 곳곳의 주요 장면마다 황당하게 등장하고, 유쾌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요절복통의 내용들이 이어지지만,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늙은 부모의 삶에 슬며시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보내게 만든다. <br/><br/>젊은 작가 김애란이 2011년 내놓아 당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창비 펴냄)은 영화 개봉에 힘입어 3년 만에 다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조로증에 걸린 열여섯 살 아름이의 눈에 비친 어린 부모의 삶은 고단하지만 측은하고 또 아름답다. 소설을 다 읽은 뒤 김애란의 애잔한 문장 속에 드러나는 엄마, 아빠가 영화 속 송혜교, 강동원의 모습과 어떻게 만나고 엇갈리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영화 ‘안녕, 헤이즐’의 원작인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존 그린 지음, 김지원 옮김, 북폴리오 펴냄) 역시 열여섯 살의 말기암환자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서 만난 친구와 빛나는 사랑을 나눈다. <br/><br/>좀 더 진지하게 사회, 경제,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장하준, 김진명 등의 책을 읽을 만하다. 펴내는 족족 베스트셀러 윗자리를 차지해 온 김진명 작가의 ‘싸드’(새움 펴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외교 갈등을 그렸다. 작가 특유의 흥미진진한 문체로 풀었다. 한반도가 분단 상황임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대단히 곤란한 처지임을 어떤 논문, 보고서보다 은밀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매끈하게 다듬어냈다.<br/><br/>‘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부키 펴냄)는 이미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베스트셀러 책을 펴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역작. 이번에는 경제학이 박제화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더욱 쉬운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또 돌아온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김우중과의 대화’(신장섭 지음, 북스코프 펴냄)도 눈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br/><br/>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4.txt

제목: 시인협회장에 문정희 시인  
날짜: 2014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55005984  
본문: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는 제40대 협회장으로 문정희(67·동국대 석좌교수) 시인을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시인은 지난 7월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김종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김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16년 3월까지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5.txt

제목: “뚱뚱하면 정말 대장암이 잘 생길까”  
날짜: 2014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53856254  
본문: 　비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리기 쉽다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대장암 환자의 체질량지수가 일반인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　대한대장항문학회(회장 김진천, 이사장 김광호)는 최근 전국 3만 6740명의 대장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가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비만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진 것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br/>　학회는 이들의 체질량지수를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과 각종 암 등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 3879명과 비교했다.<br/>　그 결과, 대장암 환자의 평균 체질량지수가 23.47로, 일반인의 체질량지수 평균인 23.94보다 낮게 나타났다. <br/>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 서구권에서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대장암 발병 확률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지난 7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장암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2%는 ‘대장암이 체질량지수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일반인 10명 중 8명 가량은 비만이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br/>　학회 김진천 회장은 “<span class='quot0'>비만의 정도가 서구에 비해 심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단순히 체질량지수 만으로는 대장암 발병 위험성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span>”라면서 “<span class='quot0'>과체중이 아니더라도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대장 건강을 지키고 정기검진을 통해 대장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김 회장은 이어 “<span class='quot0'>건강한 대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즐기고, 동물성 지방을 포함한 고칼로리 식사습관을 피하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하는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6.txt

제목: 보험협회 ‘개인 질병정보 수집’ 중단되나  
날짜: 2014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53146035  
본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또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10여년간 ‘뜨거운 감자’인 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과 관련, 이를 신용정보로 판단해 허용한 금융위의 행정 행위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이 중단될 수도 있다. 또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으로 설립되는 통합 신용정보집적(集積)기관에 질병정보 수집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br/><br/>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생보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을 허용한 금융위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예비조사에 이어 본감사로 이어진 만큼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조치에 위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감사원은 신용정보와 보험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br/><br/>보험협회는 한때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해 총 196종(생보협회 125종, 손보협회 71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span class='quot0'>개인 질병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000여명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감사 후폭풍도 예상된다.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2012년 25종의 질병정보 범위를 승인했고, 보험협회는 이를 질병명과 사인명, 수술명 등 84종(생보협회 57종, 손보협회 27종)으로 확대해 수집하고 있다. 조 대표는 “<span class='quot1'>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험협회의 정보수집 항목에서 질병정보가 빠진 진짜 신용정보로 제한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은행연합회의 독립기관으로 신설되는 신용정보집적기관 설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는 고객 신용정보뿐 아니라 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까지 통합해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신용정보법상 개인 질병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제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오면 법 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위법이라는 감사원 조치가 나오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개인 질병정보 수집과 집적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암 발생 기록과 산부인과 질병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span>”라면서 “<span class='quot3'>신용정보와 개인 질병정보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한편 감사원의 금융위 감사는 올해 세 번째다. 감사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 업무 태만을 지적했고,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신제윤 위원장에 주의 요구를 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주사의 계열사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해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br/><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7.txt

제목: “막걸리 적당히 마시면 암 예방·노화 방지”  
날짜: 2014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53059661  
본문: “<span class='quot0'>막걸리를 조금씩 마시면 오히려 암을 예방하고 노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span>”<br/><br/>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에서 일하는 하재호(57) 박사와 연구팀은 막걸리에 항암 효과가 있는 ‘스쿠알렌’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스쿠알렌은 주로 깊은 바다에 사는 상어의 간에서 발견되는 기능성 물질로 전 세계에서 건강식품으로 팔리고 있어 스쿠알렌 함량을 높인 막걸리와 막걸리를 이용한 식품을 개발하면 수출 증가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연구팀에 따르면 막걸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효모에서 스쿠알렌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모를 넣는 맥주, 포도주 등에도 스쿠알렌이 들어 있지만 효모를 많이 쓰는 막걸리는 맥주와 와인보다 스쿠알렌이 최대 200배나 많다. 하 박사는 “<span class='quot1'>막걸리 병을 보면 밑에 가라앉은 걸쭉한 부분에 스쿠알렌이 많아서 잘 흔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br/>1988년 한국식품연구원에 입사해 식품 분석 업무를 맡은 하 박사는 지난 6년간 막걸리에 들어 있는 기능성 물질을 찾는 등 막걸리 연구에 전념해 왔다. 2011년에는 막걸리에 또 다른 항암물질인 ‘파네졸’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br/><br/>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8.txt

제목: 전이가 무서운 유방암, 제어 효소 발견 (美 연구팀)  
날짜: 2014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2447361  
본문: 유방암의 전이를 제어하는 특정 효소가 발견돼 유방암 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열렸다.<br/>2일(현지시간) 미국 의료전문 메디컬 엑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 UC샌디에이고 의대 연구팀이 유방암 전이를 제어하는 효소를 식별해냈다고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최신호에 발표했다.<br/>연구팀이 식별한 효소는 UBC13이란 단백질. 이 효소는 건강한 정상 세포보다 유방암 세포에 2~3배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이 효소는 정상 세포의 성장과 건강한 면역체계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유방암 전이와의 상관성이 밝혀졌다.<br/>연구를 이끈 UC센디에이고 무어스 암센터의 쉐펑 우 박사와 동료들은 이 효소가 전이를 막는 면역체계가 붕괴됐을 때 p38이란 단백질을 제어함으로써 세포 성장과 생존을 자극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로 암세포를 제어하는 것을 발견했다.<br/>임상 기록에서 연구팀은 p38 단백질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화합물이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한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br/>연구팀은 동물 실험에서 인간의 유방암 세포선(무한 증식 가능)을 사용했다. UBC13과 p39 단백질을 억제하기 위해 렌티바이러스를 사용했다. 이후 이런 대체 암세포를 쥐의 유방 조직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종양(원발성 종양)은 쥐의 몸에서 성장했지만, 암은 전이되지 않았다.<br/>우 박사는 “1차 종양은 보통 치명적이지 않다. 실제로 위험한 것은 새로운 기관으로 전이된 암세포”라면서 “전이된 세포는 조금이지만 매우 공격적인데 이번 연구는 이런 세포를 막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br/><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39.txt

제목: 아베 히로유키 박사, ‘암으로 죽지 않는 치료의 선택’ 펴내  
날짜: 2014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52853298  
본문: 우리 몸이 감기에 걸렸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면 자연히 낫게 되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여러 세포가 서로 연계해 이상세포를 제거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br/><br/>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자신의 세포이므로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면역세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면역치료를 이용한 암치료 방법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배경이기도 하다.<br/><br/>최근에는 수지상세포라는 새로운 세포가 발견되면서부터 수지상세포의 역할과 암세포에 대한 면역력의 역할과 움직임을 알게 돼 암 치료법 개발에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면역치료에 의한 암세포의 소멸은 아포토시스(세포 자멸사)에 의한 것으로 염증반응도 없고 우리 몸에 부작용도 적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br/><br/>아베 히로유키 아베종양내과 이사장은 이 병원만의 특화된 신(新)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소개한 ‘암으로 죽지 않는 치료의 선택’이라는 책을 최근 국내에 펴냈다.<br/><br/>이 책은 표준치료법과 기존 면역세포치료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간의 몸에 갖춰져 있는 면역시스템을 토대로 한 최신 암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다.<br/><br/>저자는 암과 싸우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메커니즘과 암세포를 죽이는 수지상세포와 NK세포, NKT세포, 감마델타셀포, 킬러T세포, B세포 등 면역 세포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br/><br/>저자는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한다면 암세포를 자멸로 이끌 수 있고 이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외부에서 암을 죽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몸 내부에서 적과 싸울 면역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br/><br/>기존 암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제4의 새로운 암치료법 ‘면역세포치료’의 핵심은 체내에서 암세포를 찾아내는 최고사령관인 수지상세포인데, 수지상세포는 백혈구에 0.01% 정도로 숫자가 너무 적어 소량 채혈로는 수지상세포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게 흠이다. <br/><br/>수지상세포치료를 위해서는 약 5,000ml 정도의 혈액을 순환시켜 단구를 분리하는 성분채혈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환자에게 너무나 힘든 과정으로 2∼3시간 누워 있어야 하고 다시 주입하는 과정은 너무 차가워 암 환자의 가장 큰 적인 냉병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br/><br/>아베종양내과는 성분채혈을 하지 않고 25ml 채혈만으로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를 하여 개인에 맞는 암항원을 3∼5개 추가하여 특허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특허 제5577472)를 한다. <br/><br/>저자는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결과를 관련학회에 수년간 보고해 치료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표준치료와 달리 최근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 환자 개인의 연령, 생활환경, 인생계획, 유전자 등을 모두 고려한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br/><br/>이 책은 암치료와 관련된 선진 치료법으로 대체의학이나 식이요법 등이 아닌 세계 의학계의 최신 흐름의 한 단면을 전달해 주고 있다. 암환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 왔을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주위에 암환자가 있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할만하다.<br/><br/>아베 박사는 오는 9월 26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신(新)수지상세포 암백신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전 신청한 참석자는 저자와 암치료법에 대해 상담하고 신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br/><br/>아베 박사는 현재 아베종양내과 이사장, 국제개별화의료학회이사장, 세계수지상세포 소수정예 영구회원, 미국 토머스제퍼슨대 의대와 일본 메지로대 의대 객원교수, 미국 암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br/><br/>역자인 전문의 이선호 박사는 고려대의대 의학박사로서 현재 고려대와 중앙대, 이화여대 의대 외래교수와 대한외과학회, 대한 내시경학회 정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로서 현재 구원항문외과 원장이다. 큰곰 발행, 아베 히로유키 지음, 190쪽, 10,000원<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0.txt

제목: 동대문, 중풍 예방 건강교실 운영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45357282  
본문: 중풍(뇌졸중)은 완치가 어렵고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사망자 중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암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한다. 서울 동대문구가 오는 11월까지 보건소 4층에서 중풍과 고혈압, 당뇨 등을 앓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쌩쌩 교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br/><br/><br/>건강 쌩쌩 교실에선 ▲비만을 잡아라! 만성질환관리 비만치료 특강 ▲뇌가 행복해지도록 걸어라! 올바르게 걷는 법 ▲미리 아는 중풍, 한방 닥터스 건강강좌 ▲중풍 예방 약선 식이요법과 음식 명상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br/><br/><br/>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1.txt

제목: 장덕한방병원, 면역치료로 유방암 항암치료 고통 이겨내  
날짜: 20140901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2005494  
본문: 국립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한 여성의 암발생률 1위이다. 여성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이 1996년에 16.7명에서 2010년 67.2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을 받으면서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6~2000년도 83.2%에서 2007~2010년 91.3%로 높아졌다. 그러나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재발률이 20~30%로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격 전이된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34.4%로 낮을 뿐 아니라 중앙생존기간이 2~3년에 불과하여 항암치료의 효과는 제한적이다.<br/>정상 세포와 달리 암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인자를 표적으로 한 항암치료제를 표적치료제라고 부른다. 유방암은 전체 환자의 20~30%에서 허투(HER2) 수용체가 양성이며, 표적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을 처방할 경우 재발률을 50%, 사망률을 30%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림프절 전이가 있는 조기 유방암의 경우 1년간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제 48차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행하여 투여한 허셉틴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11.4개월로 보고되었다. 무진행 생존기간이란 종양 크기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생존한 기간을 말한다.<br/>그러므로 유방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는 표적치료제를 포함하여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이런 항암치료에 더 힘을 실어 주는 치료가 있는데 그것이 면역치료이다. 면역치료 법에는 온열암치료나, 면역 증강을 목적으로 미슬토(겨우살이제제)요법, 고농도 비타민요법, 셀레늄요법 등이 있다.<br/>장덕한방병원의 진용재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치료를 위해 이뤄지는 항암치료, 표적치료와 같은 암 치료는 면역치료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줄 때 고통은 줄어들고 치료 효과는 더 크다</span>”고 말했다.<br/>실제로 유방암과 12년간 싸워왔던 임혜신(실명, 57세)씨는 유방암이 간에 전이가 되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면역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장덕한방병원에 따르면 이 후 6개월간 장덕한방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고 간에 전이된 종양이 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2.txt

제목: 눈 보호하는 니콘안경렌즈 3종  
날짜: 2014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43939395  
본문: 13세기 무렵 발명된 안경은 6백여 년 동안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기 위한 시력 교정용으로만 사용되었다. 애초에 원시와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안경렌즈는 교정렌즈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력 교정 기능뿐만 아니라 눈 보호 기능을 더한 안경렌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br/><br/>시력 교정용 렌즈 외에 다양한 기능성 렌즈를 제공하고 있는 니콘안경렌즈의 브랜드 매니저는 “눈은 우리가 쉽게 바꾸거나 수리할 수 있는 단순한 기기가 아닌, 우리 몸의 살아있는 장기”라며 “지난 몇 년간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평생 건강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눈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퍼졌다. 이에 시력교정이 아닌 눈 보호를 위해 안경을 착용하는 트렌드도 생겼다”고 말했다. <br/><br/>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눈 건강을 위협할 조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위협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성 안경렌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br/><br/>▲ 눈 보호의 첫 단계, 눈 피로 감소<br/>시력 교정 기능을 넘어 눈 건강 보호 기능을 더한 안경렌즈가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바로 눈 피로다. 우리의 눈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눈 근육을 조절하는데 이 근육은 마치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과 같아서 하루에 100,000번 이상 움직인다. 눈 근육이 피로해지면 간단하게는 충혈이 되고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하게는 시력저하나 조기 노안을 부를 수 있다.<br/><br/>이렇게 눈의 피로를 일으키는 눈의 조절력을 도움으로써 피로감을 완화하는 최초의 안경렌즈가 ‘니콘 릴랙씨’이다. 시력 교정을 넘어 눈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처음 일본에서 출시됐을 당시 시력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기능성 렌즈를 사용했다. <br/><br/>▲ 자외선 차단, 피부보다 눈 먼저<br/>빛은 그 자체로 눈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며, 그에 포함된 자외선은 누적되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햇빛이 없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기 때문에 늘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눈과 눈 주변의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자외선에 약한 부분으로 실제 피부암의 약 10%는 눈 주변 피부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br/><br/>이렇듯 자외선이 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최근 아이웨어 시장의 화두는 바로 ‘자외선 차단’이 됐다. 안경원 또한 안경 착용자에게 선글라스 및 안경렌즈는 물론 콘택트렌즈까지도 자외선 차단되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br/><br/>만약 소비자들이 아이웨어를 인터넷으로 구매한다든지 정품이 아닌 것을 택할 경우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자외선 차단 100%’라고 강조하는 안경렌즈 제품 중에도 실은 전면만 차단하고 후면은 아무런 장치가 돼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br/><br/>많은 이들이 ‘직사광선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빌딩, 대기, 표면 등에 반사되는 자외선도 무시할 수 없다. 상당량의 자외선은 안경렌즈 측면이나 후면으로 우리 눈에 침투하기 때문에 렌즈 전면부의 자외선 필터만으로는 자외선을 모두 차단할 수 없다. 이에 최근에는 후면까지 차단하는 니콘 안경렌즈 SEE+ UV가 나와 소비자들의 눈 건강을 돕고 있다.<br/><br/>▲ 눈 건강의 새로운 위협 요소, 전자기기의 청색광 <br/>많은 현대인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디지털 디바이스와 함께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대비 감도를 낮추고 눈을 피로하게 하는 청색광을 방출한다. 청색광은 망막에 광화학적 손상을 일으켜 시야를 흐리게 하고 시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주된 원인이다. 장시간 이 청색광에 노출되면 안구 건조는 물론 두통과 불면증 등을 겪을 수 있다. <br/><br/>그동안의 안경렌즈 제조업체들은 렌즈에 색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색광을 차단했지만, 렌즈의 투과율이 낮아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니콘안경렌즈는 렌즈에 색상 추가 없이 코팅만으로 청색광을 차단하는 방식을 개발했는데, 특히 컴퓨터 사용자들의 눈 피로를 완화해주는데 효과적인 니콘 NCC BLUE 제품이 대표적이다.<br/><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3.txt

제목: 故 김진아 빈소, 미국에서 시신은 화장 ‘부의금 받지 않는 이유는?’  
날짜: 201408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42257142  
본문: ‘故 김진아 빈소’<br/><br/>암 투병 끝에 사망한 배우 故 김진아의 빈소가 국내에 차려졌다.<br/><br/>지난 20일 새벽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 김진아의 빈소는 29일 오전 10시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31일 오전 10시.<br/><br/>고인은 오랜 기간 암 투병생활을 해오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br/><br/>앞서 미국에서 치러진 김진아의 장례식에서 고인의 시신은 화장됐다. 지난 28일 동생인 배우 김진근이 유골함을 들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김진근의 아내인 정애연은 자신의 트위터에 “부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화환은 받습니다. 화려했던 진아언니 예쁘고 아름답게 보내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br/><br/>故 김진아 빈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0'>故김진아 빈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0'>故김진아 빈소, 눈물 나네요</span>” “故김진아 빈소, 안타깝다” “<span class='quot0'>故 김진아 빈소..좋은 곳으로 가세요</span>” “故 김진아 빈소..어쩌다가”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 사진공동취재단 (故 김진아 빈소)<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4.txt

제목: 故 김진아 빈소, 두 번째 장례식  
날짜: 20140830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42246868  
본문: ‘故 김진아 빈소’<br/><br/>암 투병 끝에 사망한 배우 故 김진아의 빈소가 국내에 차려졌다.<br/><br/>지난 20일 새벽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 김진아의 빈소는 29일 오전 10시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31일 오전 10시.<br/><br/>고인은 오랜 기간 암 투병생활을 해오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br/><br/><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5.txt

제목: [뉴스 플러스] 롯데손보 ‘무배당 내마음속 건강보험’  
날짜: 2014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41921636  
본문: 롯데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인 ‘무배당 롯데 내마음속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최대 20년 갱신형 특약을 통해 기존 종합건강상품 대비 낮은 초기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암 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종류별로 실제 치료비에 맞게 입원과 수술, 항암치료 보험금을 각각 지급한다. 두 번째 암(원발암, 전이암)에 대해서도 100세까지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또 주요 14대 질병(당뇨병, 심장질환, 위궤양 등)에 4대 질병(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까지 추가해 수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때를 대비해 보험금 일시 지급도 가능하다. 고객 취향에 따라 월납과 2, 3, 6개월납, 연납 등 납입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6.txt

제목: 해외 유수 암센터 통합의학센터 구축…한방암치료 산삼약침 관심 집중  
날짜: 20140829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1809428  
본문: 녹용, 산삼약침 등 한방암치료가 암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폐암, 위암, 간암 등 암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기 마련. 특히 강도 높은 항암치료로 인해 기력은 물론 인체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br/>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항암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은 물론, 치료를 통해 관해 또는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할 여지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면역력을 강화하는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br/>한방치료 중 하나인 약침은 ‘일정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각종 약물 또는 물질을 유관한 혈위, 압통점 혹은 체표의 촉진으로 얻어진 양성반응점에 주입하여 생체기능을 조정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시술행위’(출처:대한약침학회)이다.<br/>이는 경혈의 자극과 산삼, 녹용 등 한약재의 효능을 활용하는 치료법으로 유효성분의 체내 도달이 빠르고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정신분열증 등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br/>이러한 약침과 같은 한방암치료는 서양의학적 치료와의 병행을 통해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중인 환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 엠디앤더슨,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서도 통합의학 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7.txt

제목: 자궁경부암 위험성 음주로 크게 증가, HPV DNA 검사로 HPV감염 상태 추적관리 중요!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40617944  
본문: 국립암센터 임상역학연구과 김미경 박사팀은 2002~2011년 국립암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 1만1,140명 중 고위험군 HPV 감염으로 진단된 922명을 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소주 한 잔 이상의 알코올을 매일 섭취하는 여성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는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의 핵심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HPV)에 지속적으로 감염돼 있을 위험이 최대 8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 <br/>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ONE)’ 최근호에 발표된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보면, 평소 술을 마시는 여성들 가운데 HPV 양이 많은 여성은 HPV 양이 적은 여성보다 HPV 지속감염 위험이 1년 관찰에서 3배, 2년 관찰에서 8배 가량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br/><br/>또 술을 마시면서 HPV 양이 많은 여성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양이 많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1년, 2년 지속감염위험이 각각 4배, 6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br/><br/>김미경 박사는 “<span class='quot0'>술이 HPV 감염을 지속시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활성산소를 없애 HPV 감염에 대한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다</span>”고 말했다. <br/><br/>결론적으로, 술 마시는 것과 HPV 감염 그리고 HPV감염량과의 상관관계는 자궁경부암 발병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술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br/><br/>현재,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검사법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 중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씨젠의 HPV DNA 검사는 다른 검사와는 달리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여러 종류의 HPV (HPV 16, 18, 21, 31, 33, 35, 39, 45, 52, 56, 58, 59, 66, 68 등)에 대해 각각의 유형별로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한 종류의 HPV에 감염이 되었는지 두 종류 이상의 HPV에 중복감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br/><br/>그리고HPV에 감염이 되었다면 그것의 감염량 (많음 ‘+++’, 중간 ‘++’, 적음 ‘+’)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 정기 검진에서HPV 감염 상태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추적관리에 유용하다. <br/><br/>산부인과 기피현상으로 특히 미혼 여성들이 병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 자궁경부암은 HPV 라는 원인이 분명한 만큼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음주와 회식 문화에 노출되어 술을 자주 마시는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HPV DNA 검사로 자궁경부의 HPV 감염 상태를 추적관리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8.txt

제목: 자궁경부암 위험성 음주로 크게 증가, HPV DNA 검사로 HPV감염 상태 추적관리 중요!  
날짜: 2014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5911786  
본문: 국립암센터 임상역학연구과 김미경 박사팀은 2002~2011년 국립암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 1만1,140명 중 고위험군 HPV 감염으로 진단된 922명을 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소주 한 잔 이상의 알코올을 매일 섭취하는 여성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는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의 핵심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HPV)에 지속적으로 감염돼 있을 위험이 최대 8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 <br/>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ONE)’ 최근호에 발표된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보면, 평소 술을 마시는 여성들 가운데 HPV 양이 많은 여성은 HPV 양이 적은 여성보다 HPV 지속감염 위험이 1년 관찰에서 3배, 2년 관찰에서 8배 가량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br/><br/>또 술을 마시면서 HPV 양이 많은 여성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양이 많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1년, 2년 지속감염위험이 각각 4배, 6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br/><br/>김미경 박사는 “<span class='quot0'>술이 HPV 감염을 지속시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활성산소를 없애 HPV 감염에 대한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다</span>”고 말했다. <br/><br/>결론적으로, 술 마시는 것과 HPV 감염 그리고 HPV감염량과의 상관관계는 자궁경부암 발병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술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br/><br/>현재,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검사법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 중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씨젠의 HPV DNA 검사는 다른 검사와는 달리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여러 종류의 HPV (HPV 16, 18, 21, 31, 33, 35, 39, 45, 52, 56, 58, 59, 66, 68 등)에 대해 각각의 유형별로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한 종류의 HPV에 감염이 되었는지 두 종류 이상의 HPV에 중복감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br/><br/>그리고HPV에 감염이 되었다면 그것의 감염량 (많음 ‘+++’, 중간 ‘++’, 적음 ‘+’)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 정기 검진에서HPV 감염 상태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추적관리에 유용하다. <br/><br/>산부인과 기피현상으로 특히 미혼 여성들이 병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 자궁경부암은 HPV 라는 원인이 분명한 만큼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음주와 회식 문화에 노출되어 술을 자주 마시는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HPV DNA 검사로 자궁경부의 HPV 감염 상태를 추적관리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49.txt

제목: 기적의 손길 심폐소생… 노원의 심장 뛰게 하다  
날짜: 2014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4654285  
본문: “남편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배웠더라면 아마도 막을 수 있었겠죠.”<br/><br/><br/><br/><br/><br/>김은아(46·노원구 상계동)씨는 27일 “그런 불행을 계기로 심폐소생술 지도자 세계를 알게 됐고, 마침내 꿈을 이뤘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146.5명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52.5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br/><br/>질병관리본부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 현황’을 분석해 이날 발표한 노원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6%였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지난해 12.7%로 2.3배나 뛰어올랐다. 특히 2010년 심정지 환자 수는 248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br/><br/>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후에는 뇌 손상 가능성도 높고 10분 이후에는 사망(뇌사)에까지 이른다고 말한다. 심폐소생술을 ‘내 손 안의 4분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까닭이다.<br/><br/>이에 구는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그해 5월에는 구청 별관 1층에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136㎡ 규모)을 설치했다. 이어 6월엔 지역의 종합병원, 교육청,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br/><br/>이런 노력 끝에 2010년 심정지 환자 248명 가운데 생존 건수는 13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87건 발생에 생존 건수 35건으로 상승하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3.3%에서 4.9%(1.48배)로, 서울시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6.3%에서 8.9%(1.41배)로 완만하게 오른 데 견줘 한층 눈에 띄는 실적이다.<br/><br/>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심폐소생술 교육장을 개장한 이래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결과</span>”라고 분석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결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건수는 2010년 7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26건, 지난해엔 34건으로 늘었다. 생존율 또한 자연스레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2018년까지 16.7%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br/><br/>김성환 구청장은 “<span class='quot1'>행정망을 잘 갖춘 자치구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0.txt

제목: [뉴스 플러스] 흥국화재 ‘행복한 파워키즈보험’  
날짜: 2014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4422684  
본문: 흥국화재가 환경성 질환을 보장하는 ‘행복한 파워키즈보험’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폐렴 등 환경성 질환 입원비를 보장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입원비와 수술비, 재생불량성빈혈과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의 진단비도 보장한다. 일반암 진단비는 5000만원,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는 최고 8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유괴와 납치, 인질과 같은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를 책임진다. 특히 태아부터 30세까지 치과 치료를 보장하는 만큼 별도의 치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1.txt

제목: 술 마시는 여성 HPV DNA 검사로 자궁경부암 예방위한 관리 필수  
날짜: 2014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4212264  
본문: 소주 한 잔 이상의 알코올을 매일 섭취하는 여성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는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의 핵심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HPV)에 지속적으로 감염돼 있을 위험이 최대 8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국립암센터 임상역학연구과 김미경 박사팀은 2002~2011년 국립암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 1만1,140명 중 고위험군 HPV 감염으로 진단된 922명을 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26일 밝혔다.<br/><br/>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ONE)’ 최근호에 발표된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보면, 평소 술을 마시는 여성들 가운데 HPV 양이 많은 여성은 HPV 양이 적은 여성보다 HPV 지속감염 위험이 1년 관찰에서 3배, 2년 관찰에서 8배 가량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br/><br/>또 술을 마시면서 HPV 양이 많은 여성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양이 많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1년, 2년 지속감염위험이 각각 4배, 6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br/><br/>김미경 박사는 “<span class='quot0'>술이 HPV 감염을 지속시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활성산소를 없애 HPV 감염에 대한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다</span>”고 말했다. <br/><br/>결론적으로, 술 마시는 것과 HPV 감염 그리고 HPV감염량과의 상관관계는 자궁경부암 발병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술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br/><br/>현재,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검사법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 중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씨젠의 HPV DNA 검사는 다른 검사와는 달리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여러 종류의 HPV (HPV 16, 18, 21, 31, 33, 35, 39, 45, 52, 56, 58, 59, 66, 68 등)에 대해 각각의 유형별로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한 종류의 HPV에 감염이 되었는지 두 종류 이상의 HPV에 중복감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br/><br/>그리고HPV에 감염이 되었다면 그것의 감염량 (많음 ‘+++’, 중간 ‘++’, 적음 ‘+’)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 정기 검진에서HPV 감염 상태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추적관리에 유용하다. <br/><br/>산부인과 기피현상으로 특히 미혼 여성들이 병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 자궁경부암은 HPV 라는 원인이 분명한 만큼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음주와 회식 문화에 노출되어 술을 자주 마시는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HPV DNA 검사로 자궁경부의 HPV 감염 상태를 추적관리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2.txt

제목: 유방암 수술 중 방사선치료 국내에서 처음 시도  
날짜: 2014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3549394  
본문: 　유방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 효과가 확인될 경우 유방암 환자들의 수술 후 방사선 치료 기간을 줄이는 등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형중) 유방암센터 정준 교수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1일 오른쪽 유방에 2.3㎝ 크기의 침윤성 유방암을 가진 48세 환자를 대상으로 유방보존술을 시행 한 후 수술실 내부에서 IORT 장비를 이용해 약 26분 동안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마친 뒤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이송됐다가 퇴원했다.<br/>　의료진은 “<span class='quot0'>이 환자처럼 전(全)절제가 아닌 유방보존술 이후 수술실에서 IORT를 받은 유방암 환자는 기존의 33회 가량인 방서선 치료에 걸리는 6~7주보다 1~2주 짧은 기간만 방사선치료를 하게 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저위험군의 일부 조기 유방암 환자의 경우 IORT가 기존 방사선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 수술 중 한번의 치료만으로 모든 방사선치료를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이어 “<span class='quot0'>IORT를 활용하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며, 이에 따른 국소재발률과 부작용은 기존 방사선 치료와 비슷한 수준</span>”이라고 덧붙였다.<br/>　유방암 환자에게 종양과 일부 정상 유방을 제거하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할 경우, 유방암이 국소재발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시행한다. 방사선 치료는 남아있는 전체 유방조직을 치료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일정 수준의 방사선을 환자에게 조사하는데, 한번에 고용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정상조직 손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량을 나눠 약 6~7주 간 매일 치료하게 된다.<br/>　그러나 장기간 반복되는 방사선 치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횟수를 줄이면서도 기존 방사선 치료법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져 왔으며, 수술과 IORT를 병행하는 치료도 이런 차원에서 시도됐다.<br/>　정준 교수는 “<span class='quot1'>IORT는 수술 중 고용량의 방사선을 직접 쬐어 줌으로써 추가 방사선 치료 기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환자의 부담과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단, 유방보존술을 받는 모든 환자가 IORT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종양이 너무 크지 않고, 수술 전 종양이 하나만 발견된 경우 등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　정준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IORT는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기존 방사선 치료를 대체한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재발 및 사망률에 대한 학술적 검증자료가 계속 발표돼 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따라서 국내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큰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는 견해를 밝혔다.<br/>　그는 “<span class='quot1'>앞으로 종양이 작고, 성질이 양호한 일부 조기유방암 환자의 경우 IORT 단독치료가 방사선치료를 대신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지속적인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IORT 효과를 객관화함으로써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3.txt

제목: 홍진경 암 투병, “온 몸에 털 다 빠져. 지금도 가발” 사진봤더니..  
날짜: 20140827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3203455  
본문: ’홍진경 암 투병’<br/><br/>지난 25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는 홍진경이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 <br/><br/>홍진경은 지난달에 열린 SBS ‘매직아이’ 제작발표회에서 처음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하며 가발을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br/><br/>이날 홍진경은 “<span class='quot0'>웃음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밝히지 않으려 했다</span>”고 입을 열었다. 이어 홍진경은 “<span class='quot0'>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도 없고, 몸의 털이란 털은 다 빠졌다</span>”고 투병 사실을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 <br/><br/>홍진경은 “가발을 쓰고 아이 유치원에 가고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하더라. 프로그램마다 가발을 쓰고 나오면 시청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뻔했다”며 “매번 설명하기도 힘들고 한 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암 투병 사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br/><br/>또한 “병명에 대해 자세히 말해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 지금은 치료가 잘 끝났고 낫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진경은 “<span class='quot0'>지금도 가발인데, 한 번 벗어보라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span>”고 전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br/><br/>홍진경 암 투병 사실에 네티즌들은 “홍진경 암 투병했구나..”, “홍진경 암 이제 다 나았으니 다행이네요”, “홍진경 암 투병하느라 힘들었겠다”, “홍진경 암 투병 사실도 말 못하다니.. 연예인이란 이래서 힘든 것 같다”, “홍진경 암 투병 정말 놀랐네요”, “홍진경 암 투병..홍진경 화이팅”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사진 = SBS ’힐링캠프’ (홍진경 암 투병)<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4.txt

제목: [뉴스 플러스] 한화생명 ‘스마트변액 CI통합보험’  
날짜: 2014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2754336  
본문: 한화생명은 26일 사망 보장은 종신까지, 치명적 질병(CI) 보장은 보험료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하는 ‘스마트변액 CI통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보장형을 선택하면 60세 이전 사망 또는 80% 이상 장해 때 가입금액의 1~2%를 60세까지 매월 수령해 유가족의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월지급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플러스 CI보장특약’으로 암과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루게릭병과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도 보장한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등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저가입 기준은 소득보장형의 경우 가입 금액 2000만원과 보험료 7만원이다. 기본형은 가입 금액 1000만원과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한화생명 측은 “<span class='quot0'>월지급형 종신보험에 CI보장까지 꼭 필요한 보장을 갖춘 상품</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5.txt

제목: ‘닥터의 승부’ 암을 예방하는 습관 ‘비타민C’  
날짜: 20140826  
기자: 권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1339228  
본문: 지난 24일 JTBC ‘닥터의 승부’ 에서는 변정수의 24시간을 담은 ‘건강카메라’를 11명의 의사들이 관찰해 각 과별로 수명을 늘리는 습관과 줄이는 습관에 대해 평가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br/>이날 의사들은 수명을 늘리는 습관으로 ‘아몬드 먹기’ ‘TV가 없는 거실 만들기’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하기’ 그리고 ‘꾸준히 비타민 섭취하기’를 선택했다.<br/>특히 갑상선 암을 극복한 후 비타민 등 영양제를 꼼꼼히 고르는 모습이 공개되며 변정수가 선택한 비타민 ‘에스터-C’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br/>에스터-C는 일반적인 산성이 아닌 중성비타민으로 위장장애나 공복에도 체내에 편안하게 흡수되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됐다. 변정수가 선택한 ‘에스터-C’는 ‘솔가’에서 한국 식약청 기준에 맞춰 별도 생산해 수입한 제품으로 알려졌다.<br/>한편, 외과 강세훈 원장은 “<span class='quot0'>암 예방에는 비타민C가 효과적이지만 고함량이라고 무조건 체내에 많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span>”라고 조언했다.<br/>“산도가 강한 비타민C는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자극이 될 수 있어 공복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므로 비타민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고함량이 아닌 체내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중성비타민인 에스터-C는 체내흡수율이 높을 뿐더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양이 현저히 적어 옥살산결석 위험을 감소시킨다.”<br/>또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은희 원장은 “<span class='quot1'>비타민 연구 중에 산화가 덜 되고, 안정적이고, 조금만 섭취해도 체내에 오래 잔존해서 흡수율이나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에스터-C</span>”라며 “<span class='quot1'>논문에 따르면 에스터-C 섭취 그룹이 감기에 덜 걸리고, 감기를 겪는 기간이 1.3일 더 빨리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pan>”고 밝혔다.<br/>‘닥터의 승부’ 변정수편은 8월27일(수) 09:45분, 8월30일(토) 20:30분에 전파를 통해 재방송될 예정이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6.txt

제목: 홍진경 암 투병, 현재 상태는?  
날짜: 20140826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2206993  
본문: 모델 겸 배우 홍진경이 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br/><br/>지난 25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는 홍진경이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 앞서 홍진경은 지난달에 열린 SBS ‘매직아이’ 제작발표회에서 처음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하며 가발을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br/><br/><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7.txt

제목: 임권택 감독만이 가능한 영화 ‘화장’ 해외판 예고편 공개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2151895  
본문: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의 해외판 예고편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br/><br/>영화 ‘화장’은 암에 걸린 아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그녀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서글픈 사랑을 그린 이야기로,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br/><br/>공개된 예고편에는 스러져가는 아내의 육신과 추은주(김규리 분)의 싱싱한 젊음 사이에서 번민하게 되는 인물 오상무 역을 맡은 안성기와 아내 역의 김호정을 볼 수 있다. <br/><br/>특히 극중 오상무의 마음을 사로잡는 젊고 아름다운 직원 추은주 역의 김규리를 비중 있게 담아내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준다. <br/><br/>천재화가 장승업의 삶과 열정을 담은 ‘취화선’,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남자의 삶과 사랑을 담은 ‘하류인생’, 판소리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인생을 담은 ‘천년학’ 그리고 전통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달빛 길어올리기’까지 임권택 감독은 최근까지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혼을 ‘사람이야기’ 안에 넣어 한국적 미를 영화화하는데 천착해왔다.<br/><br/><br/><br/>그러나 이번 작품 ‘화장’에서 임 감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주제의식을 제시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br/><br/>죽어가는 아내와 젊고 아름다운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영화계에서는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던 육체의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이라는 깊이 있는 소재를 임 감독의 무르익은 성찰의 시선으로 조명할 예정이다.<br/><br/>한편 ‘화장’은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중 마스터 감독들을 소개하는 갈라 상영작에 초청되어 첫 선을 보인다.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br/><br/>사진·영상=명필름, 리틀빅픽쳐스<br/><br/>문성호 기자 sungho@seou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8.txt

제목: 홍진경 16살 슈퍼모델 데뷔영상 비키니 입고 사랑의 총알?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1902301  
본문: 홍진경 슈퍼모델, 홍진경 암<br/>홍진경이 암투병 사실을 털어놨다.<br/>25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는 방송인 홍진경이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br/>이날 홍진경은 한 방송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가발을 썼다</span>”는 발언을 한 과 관련 “<span class='quot0'>예능하는 사람이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다</span>”고 말문을 열었다.<br/>이어 홍진경은 “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눈썹도 없고 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졌다”라며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털어놨다.<br/>홍진경은 “매번 가발을 쓰고 다니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했다. 또 프로그램마다 가발을 쓰고 나오니 시청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게 뻔했다”라며 “매번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었다”고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계기를 밝혔다.<br/>그러면서 홍진경은 “<span class='quot0'>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중요한건 치료가 잘 끝났고 낫는 일만 남았다</span>”고 덧붙였다.<br/>아울러 홍진경은 “올 3월에 처음 병을 알았다. 수술하고 치료하기까지 올 여름이 참 힘들었다”며 “아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고 힘들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홍진경은 “수술 사실을 어머니께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수술 1시간 전 이런 큰 수술을 받을 때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평생 자책할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수술 바로 직전 동생한테 전화해 어머니 병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br/>영상을 통해 등장한 홍진경 남편은 “(아내의 병이) 지금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며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성격이 밝았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힘을 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br/>그런가하면 홍진경의 16살 모델 데뷔 시절 모습도 공개됐다. 16살 어린 나이에 모델로 데뷔하게 된 사연과 관련해 홍진경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유학비가 꽤 나갈 텐데 부모님께 너무 짐이 될 것 같아서 마침 열린 슈퍼모델 대회가 있어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br/>한편 홍진경의 과거 모습과 관련해 김제동은 “<span class='quot1'>아주 절박하지 않으면 그런 포즈 취할 수 없다</span>”고 당시 홍진경이 취한 포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자 홍진경은 깜짝 놀라며 “제발 영상 보여주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화면에는 홍진경의 과거 모델 데뷔 모습이 공개됐고, 홍진경은 “이 영상 내가 다 훔쳐버리고 싶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59.txt

제목: 홍진경 남편 김정우 “재벌가 외아들” 시댁 집안 봤더니…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1906344  
본문: 홍진경 남편 김정우, 홍진경 암<br/>홍진경이 암투병 사실을 털어놨다.<br/>지난 25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한 홍진경은 암투병 고백부터, 절친이었던 故최진실과의 일화, 딸 김라엘 양과 남편 김정구 씨에 관한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눈길을 끌었다.<br/>특히 이날 홍진경은 13년 전 최진실 사촌오빠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현재 남편 김정구 씨를 처음 만났고, 처음부터 눈빛이 선량하고 인위적이지 않아 첫눈에 반해 키스를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일부러 남편을 살 찌워 70kg에서 100kg 거구로 만들었다고 밝혔다.<br/>이에 홍진경 남편 김정구 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됐다. 앞서 과거방송에선 홍진경 절친 개그우먼 이영자가 홍진경 남편 김정우에 대해 “국내 굴지의 재벌가 외아들”이라고 밝혀 재벌 2세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br/>그러나 홍진경 남편 김정구 씨는 압구정동에서 스키숍을 경영한 사업청년가이고, 그의 어머니가 안양에 있는 모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있다. 김정우 씨의 조부가 설립한 학교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0.txt

제목: 홍진경 남편 “홍진경 암투병하면서도 밝아…” 영상편지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1821987  
본문: 홍진경 암<br/>홍진경이 암투병 사실을 털어놨다.<br/>25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는 방송인 홍진경이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br/>이날 홍진경은 한 방송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가발을 썼다</span>”는 발언을 한 과 관련 “<span class='quot0'>예능하는 사람이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다</span>”고 말문을 열었다.<br/>이어 홍진경은 “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눈썹도 없고 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졌다”라며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털어놨다.<br/>홍진경은 “매번 가발을 쓰고 다니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했다. 또 프로그램마다 가발을 쓰고 나오니 시청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게 뻔했다”라며 “매번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었다”고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계기를 밝혔다.<br/>그러면서 홍진경은 “<span class='quot0'>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중요한건 치료가 잘 끝났고 낫는 일만 남았다</span>”고 덧붙였다.<br/>아울러 홍진경은 “올 3월에 처음 병을 알았다. 수술하고 치료하기까지 올 여름이 참 힘들었다”며 “아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고 힘들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홍진경은 “수술 사실을 어머니께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수술 1시간 전 이런 큰 수술을 받을 때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평생 자책할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수술 바로 직전 동생한테 전화해 어머니 병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br/>영상을 통해 등장한 홍진경 남편은 “(아내의 병이) 지금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며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성격이 밝았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힘을 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1.txt

제목: 홍진경 암 “몸에 털 다 빠져…수술 1시간전 母에 알려”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1803543  
본문: 홍진경 암<br/>홍진경이 암투병 사실을 털어놨다.<br/>25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는 방송인 홍진경이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br/>이날 홍진경은 한 방송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가발을 썼다</span>”는 발언을 한 과 관련 “<span class='quot0'>예능하는 사람이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다</span>”고 말문을 열었다.<br/>이어 홍진경은 “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눈썹도 없고 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졌다”라며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털어놨다.<br/>홍진경은 “매번 가발을 쓰고 다니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했다. 또 프로그램마다 가발을 쓰고 나오니 시청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게 뻔했다”라며 “매번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었다”고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계기를 밝혔다.<br/>그러면서 홍진경은 “<span class='quot0'>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중요한건 치료가 잘 끝났고 낫는 일만 남았다</span>”고 덧붙였다.<br/>아울러 홍진경은 “올 3월에 처음 병을 알았다. 수술하고 치료하기까지 올 여름이 참 힘들었다”며 “아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고 힘들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홍진경은 “수술 사실을 어머니께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수술 1시간 전 이런 큰 수술을 받을 때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평생 자책할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수술 바로 직전 동생한테 전화해 어머니 병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br/>영상을 통해 등장한 홍진경 남편은 “(아내의 병이) 지금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며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성격이 밝았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힘을 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2.txt

제목: 홍진경 암 투병 고백 “몸에 털 다 빠져…눈썹도 없다”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1749692  
본문: 홍진경 암<br/><br/>홍진경이 암투병 사실을 털어놨다.<br/><br/>25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는 방송인 홍진경이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뽐냈다.<br/>이날 홍진경은 한 방송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가발을 썼다</span>”는 발언을 한 과 관련 “<span class='quot0'>예능하는 사람이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다</span>”고 말문을 열었다.<br/>이어 홍진경은 “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눈썹도 없고 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빠졌다”라며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털어놨다.<br/>홍진경은 “매번 가발을 쓰고 다니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했다. 또 프로그램마다 가발을 쓰고 나오니 시청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게 뻔했다”라며 “매번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었다”고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계기를 밝혔다.<br/>그러면서 홍진경은 “<span class='quot0'>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중요한건 치료가 잘 끝났고 낫는 일만 남았다</span>”고 덧붙였다.<br/>아울러 홍진경은 “올 3월에 처음 병을 알았다. 수술하고 치료하기까지 올 여름이 참 힘들었다”며 “아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고 힘들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3.txt

제목: “암세포 없는 ‘착한 종양’도 1cm 넘으면 떼내야”  
날짜: 2014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0414577  
본문: 　암세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낮아 ‘착한 종양’으로 불리는 ‘과증식성 위 용종’도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적극적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증식성 위 용종은 위 용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지만 암일 가능성이 낮은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지금까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절제하지 않고 관찰해 왔다. <br/>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안지용 교수와 병리과 박영수 교수팀은 1995~2011년 사이에 1cm가 넘는 과증식성 위 용종을 거져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 784명의 용종 809개를 분석한 결과, 3.7%가 암 혹은 암 전단계인 선종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br/>　지금까지 과증식성 위 용종은 암세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2cm 이상 커진 경우에만 암세포를 동반할 가능성이 1~2% 정도로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과증식성 위 용종이 암이나 선종을 동반할 가능성이 지금까지의 인식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br/>　특히 암 또는 선종으로 분석된 30개의 용종 중 5개의 경우 크기가 1.0〜1.9cm인 것으로 나타나 2cm 미만의 용종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br/>　이와 함께 암이나 선종으로 밝혀진 과증식성 용종의 96.7%가 올록볼록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어, 검사 때 용종의 모양이 매끄럽지 않다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위에서 발견되는 용종은 크게 선종성·염증성·과증식성으로 나뉜다. 선종성 위 용종은 암으로 진행되는게 확실하며, 염증성 용종은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위 용종이다. 이와 달리 과증식성 용종은 위용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지만 암일 확률은 낮은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의사 재량에 따라 치료 여부가 달랐다.<br/>　안지용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암 혹은 선종을 동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려진 과증식성 위용종도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적극적인 절제할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최근에는 의술의 발달로 내시경을 통해 대부분의 용종 절제가 가능하며,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 확률도 낮다</span>”고 말했다. <br/>　안지용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용종은 특별한 신체적 증상이 없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따라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용종은 한번 생기면 이를 제거해도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용종 진단을 받으면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박영수 교수는 “<span class='quot1'>내시경 검사를 할 때 조직검사를 위해 떼어낸 과증식성 용종의 일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체에 남아있는 용종에서는 암세포나 선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크기가 큰 용종은 일단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 권위있는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4.txt

제목: 내 목소리 변한 지 2주일 됐는데… 혹시 후두암?  
날짜: 2014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30117946  
본문: 과음과 흡연, 노래방에서의 고성방가, 인위적으로 저음의 목소리를 내거나 남들보다 크게 말하려는 잘못된 발성 습관으로 성대가 혹사당하고 있다. 음성 혹사로 인한 각종 성대질환은 과거 교사나 상담원, 영업사원, 가수 등 전문적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직업군의 단골 질환이었지만 최근엔 일반인에게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대결절로 진료를 받은 환자만 10만여명에 달했다. 여기에 후두염, 성대마비, 후두암을 앓은 환자를 더하면 성대질환을 앓는 환자가 해마다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 건강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목소리 이상 증세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크다.<br/><br/>목소리를 별로 안 쓰던 사람이 말이나 노래를 장시간 했을 때 목소리가 가라앉고 변하는 것은 성대 점막이 충혈되고 부어 정상적으로 진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대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목소리가 변한다. 일반적인 목소리 이상은 한동안 발성을 자제하는 침묵요법만으로도 자연 치유된다. 하지만 목소리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고 성대를 지속적으로 혹사하면 후두염, 성대결절(폴립), 성대마비, 악성종양 등의 병을 불러올 수 있다. <br/><br/>일반적으로 감기를 앓거나 성대를 지나치게 많이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은 후두염이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비교적 괜찮다가도 다시 사용하면 음성이 변하고 통증이 온다. 성대 마찰이 지나쳐 성대가 부어올랐다가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굳어지면 군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성대결절이라고 한다. 성대마비는 말 그대로 성대에 마비가 오는 질환이다. 성대마비가 오면 성대 사이에 틈이 생겨 목소리를 낼 때 바람 새는 소리가 나고, 틈이 넓으면 음식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 사레 걸린 듯 기침이 난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목소리 이상이 실은 질병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목소리 내는 것을 쉬거나 약물치료로 2주 내에 완쾌되는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 후두암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br/><br/>강남 세브란스병원 음성클리닉 최홍식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음성이 변한 후 두 주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의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1·2기 초기 후두암이야 방사선 및 레이저치료도 가능하지만 3·4기 후기로 가면 후두 전부를 적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대가 만들어 내는 목소리를 잃게 돼 인공후두 삽입수술을 받아야 한다. <br/><br/>생활 속에서 성대 건강을 지키려면 우선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를 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반대로 속삭이는 소리 역시 성대에 좋지 않다. 습관성 헛기침은 성대 점막에 만성적으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미리 기침을 막는 게 좋다. 커피는 탈수를 불러 오히려 성대를 메마르게 한다. 전문가들은 말을 과다하게 하는 습관을 피하기 위해 하루에 2~3번씩 20분간 침묵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충분한 휴식은 목소리 건강에 필수적이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5.txt

제목: 36년 만에…태아 유골, 엄마 뱃속서 발견  
날짜: 2014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1022088  
본문: 인도의 한 여성이 죽은 지 36년이 지난 태아의 시신을 꺼내는 수술을 받아 놀라움을 주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 사는 쿠마르라는 여성은 36년 전인 1978년, 24세의 나이로 임신을 했다. <br/>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쿠마르가 자궁 외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며 임신을 중단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수술을 두려워했던 쿠마르는 집 인근의 작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고, 수 일간 지속되던 복통이 사라지자 아이도 함께 사산됐다고 믿었다. <br/>그로부터 36년이 흐른 최근, 60세가 된 쿠마르는 두달 전부터 다시 복통을 느꼈고, 검사 결과 그녀의 배 안에는 태어나지 못한 태아의 뼛조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br/>치료를 맡은 의료진은 “<span class='quot0'>뱃속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당시 암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CT촬영 결과 그 ‘무언가’는 고체처럼 딱딱하고 석회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후 MRI를 통해 그것이 어린 아기의 유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span>”고 덧붙였다. <br/>쿠마르는 곧장 수술을 받았고, 그녀의 배 안에서는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태아의 흔적을 꺼낼 수 있었다. 화석 태아는 사망한 태아가 몸에 흡수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자궁 안에 머물며 칼슘에 뒤덮여 딱딱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br/>이 흔적은 자궁 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 방광 등 대부분의 장기 등에서 모두 발견됐다. <br/>의료진은 “<span class='quot0'>화석 태아의 흔적 때문에 비뇨기과 및 신장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죽은 태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뱃속에 남아있는 일은 흔하지 않다</span>”고 설명했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6.txt

제목: 김진아 사망 원인 “올해 초까지 말기암으로 투병” 과거 방송 발언 관심 집중  
날짜: 2014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5547456  
본문: 김진아 사망 원인 “올해 초까지 말기암으로 투병” 과거 방송 발언 관심 집중<br/><br/>김진아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진아는 지난 20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지병을 앓던 김진아의 병명은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올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br/>김진아의 동생인 배우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span class='quot0'>김진근과 가족들이 김진아의 임종을 지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br/><br/>지난 2010년 김진아는 한 방송에 출연해 “몸이 부어 성형수술 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부었고 7호였던 결혼반지가 13호까지 늘어났다”고 밝혀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br/><br/>원로배우 김진규와 김보애의 딸인 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창 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드라마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80년대 청춘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br/><br/>2000년 당시 김진아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남편 케빈 오제이와 국제결혼 한 후 아들 매튜를 입양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아침방송을 통해 고급 풀빌라를 연상케 하는 하와이 자택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br/><br/>김진아는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1980년대 섹시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하다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한때는 자살을 꿈 꿀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인생의 고비에서 그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생활을 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았고 “<span class='quot0'>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잘 한 일</span>”이라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br/><br/>김진아의 가족은 연예인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이모부는 이덕화, 제부는 개그맨 최병서다. 동생 김진근 역시 배우로 활동 중이며, 올케 정애연도 배우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7.txt

제목: 김진아 사망 원인 “올해 초부터 말기암으로 투병” 과거 방송 출연 발언 ‘깜짝’  
날짜: 2014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5430380  
본문: 김진아 사망 원인 “올해 초부터 말기암으로 투병” 과거 방송 출연 발언 ‘깜짝’<br/><br/>김진아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진아는 지난 20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지병을 앓던 김진아의 병명은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올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br/>김진아의 동생인 배우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span class='quot0'>김진근과 가족들이 김진아의 임종을 지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br/><br/>지난 2010년 김진아는 한 방송에 출연해 “몸이 부어 성형수술 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부었고 7호였던 결혼반지가 13호까지 늘어났다”고 밝혀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br/><br/>원로배우 김진규와 김보애의 딸인 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창 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드라마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80년대 청춘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br/><br/>2000년 당시 김진아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남편 케빈 오제이와 국제결혼 한 후 아들 매튜를 입양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아침방송을 통해 고급 풀빌라를 연상케 하는 하와이 자택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br/><br/>김진아는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1980년대 섹시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하다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한때는 자살을 꿈 꿀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인생의 고비에서 그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생활을 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았고 “<span class='quot0'>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잘 한 일</span>”이라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br/><br/>김진아의 가족은 연예인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이모부는 이덕화, 제부는 개그맨 최병서다. 동생 김진근 역시 배우로 활동 중이며, 올케 정애연도 배우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8.txt

제목: 김진아 사망 “말기암 투병” 구체적인 병명은?  
날짜: 2014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5410542  
본문: 김진아 사망, 김진아 사망원인, 김진아 지병, 김진아 병명 <br/><br/>김진아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진아는 지난 20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지병을 앓던 김진아의 병명은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올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br/>김진아의 동생인 배우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span class='quot0'>김진근과 가족들이 김진아의 임종을 지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br/><br/>지난 2010년 김진아는 한 방송에 출연해 “몸이 부어 성형수술 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부었고 7호였던 결혼반지가 13호까지 늘어났다”고 밝혀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br/><br/>원로배우 김진규와 김보애의 딸인 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창 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드라마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80년대 청춘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br/><br/>2000년 당시 김진아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남편 케빈 오제이와 국제결혼 한 후 아들 매튜를 입양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아침방송을 통해 고급 풀빌라를 연상케 하는 하와이 자택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br/><br/>김진아는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1980년대 섹시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하다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한때는 자살을 꿈 꿀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인생의 고비에서 그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생활을 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았고 “<span class='quot0'>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잘 한 일</span>”이라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br/><br/>김진아의 가족은 연예인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이모부는 이덕화, 제부는 개그맨 최병서다. 동생 김진근 역시 배우로 활동 중이며, 올케 정애연도 배우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69.txt

제목: 절대적 군사권력의 시대 지고… 은밀한 경제권력이 일상 통제  
날짜: 2014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5055569  
본문: 사라진 권력 살아날 권력/마이클 만·존 홀 지음/김희숙 옮김/생각의길/264쪽/1만 5000원<br/><br/>프리랜서 사진 기자인 미국인 제임스 라이트 폴리(40)의 죽음은 최근 재개된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가속을 붙였다. 2년 전 시리아에서 실종된 폴리의 공개 처형 모습이 이라크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span class='quot0'>IS라는 ‘암’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span>”며 전의를 불태웠다. 같은 날 미군은 이라크 북부 모술댐 인근 IS의 군사장비를 초토화시켰다.<br/><br/>‘우리 세대의 막스 베버’로 불리는 마이클 만 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사회학부 교수는 그간 유난히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해 왔다. ‘최후의 제국’ ‘분별 없는 제국’으로 낮춰 부르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특징을 낱낱이 파고들었다. 때론 제국주의를 자처하는 현대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반론까지 폈다. 그리고 미국이 (통치자 주변의) ‘잘못된 조언들’ 탓에 결국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br/><br/>이런 마이클 만의 연구는 역사적 기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1972년의 첫 시도에서 비롯됐다. 당시에는 이 원대한 시도를 그저 목차가 짧은 책 한 권에 거뜬히 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역설적으로 그의 실패는 세계의 사회과학도들에게 축복이 됐다. ‘사회 권력의 원천들1’은 4권의 연작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남다른 시각이 세상에 드러났다. <br/><br/>마이클 만은 그간의 저서를 망라해 저널리스트인 존 홀 캐나다 맥길대 사회학부 교수와 ‘21세기의 권력’을 주제로 2010년부터 대담을 이어 왔다. 이를 정리해 낸 책이 ‘사라진 권력 살아날 권력’이다.<br/><br/>책에선 과거 권력의 원천을 이념, 경제, 군사, 정치로 구분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잡했던 권력의 흐름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권력을 만든 요인을 살펴보고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어떻게 세계적 권력을 손에 넣었는지 보여준다.<br/><br/>그는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절대권력이 생겨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보다 은밀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권력은 여전히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큰 전쟁이 일어나 세상을 초토화시키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어느 쪽이든 군사 권력의 관계 때문에 중요한 도전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세상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는 더 어려워졌지만 적어도 기존 권력 엘리트들을 몰아내는 것도 어려워진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br/><br/>또 “세계화된 생산·무역 네트워크가 점점 더 광범위한 경제적 권력관계를 만들면 생산관계는 우리 일상생활을 집약적으로 통제한다. 둘의 조합을 통해 경제적 권력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은밀하면서도 끈질기게 일상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된다”고 지적했다.<br/><br/>마이클 만은 이를 통해 권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과 필연이 만든 인과관계를 통해 부여되고 변해 왔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류 최대의 위기에 대해 신랄하게 경고한다. “<span class='quot1'>문명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고 경제 성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려는 이 시기에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산업화가 가져온 기후변화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모순</span>”이라고 꼬집는다.<br/><br/>비단 국제사회라는 큰 틀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에선 여전히 누군가 정치·경제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르고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br/><br/>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0.txt

제목: 김진아 사망원인, 정애연 김진아 애도 ‘결혼반지 안 맞을정도..어떤 병?’  
날짜: 20140822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4611969  
본문: ‘김진아 사망원인, 정애연 김진아 애도’<br/><br/>배우 김진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별세한 가운데 시누이인 배우 정애연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 <br/><br/>김진아 동생인 배우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span class='quot0'>김진근 씨와 가족들이 김진아 씨의 임종을 지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br/><br/>김진아는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올 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br/><br/>김진아의 사망 소식에 김진근의 아내인 배우 정애연은 트위터에 “기도해주세요”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시누이 김진아의 사망소식에 애도를 표했다.<br/><br/>앞서 정애연은 김진아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17일과 20일에도 트위터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부탁드려요”라고 시누이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심경 글을 연이어 남기기도 했다. <br/><br/>고인은 영화배우 故김진규·김보애 부부의 둘째 딸이며, 정애연은 고인의 친동생 김진근와 부부사이다. 갑작스런 고인의 사망소식에 정애연의 비통한 심경이 담긴 글까지 전해지며 고인에 대한 애도물결이 끊이질 않고 있다.<br/><br/>고인은 지난 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하고, 아들 매튜 오제이와 함께 하와이에서 거주해왔다. <br/><br/>한편 고인의 장례 절차는 미국에서 가족과 진행한 뒤 한국에서 친지 및 지인들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br/><br/>김진아 사망원인, 정애연 김진아 애도 소식에 네티즌은 “<span class='quot1'>정애연 김진아 애도..저도 기도할게요</span>”, “<span class='quot1'>김진아 사망원인, 정애연 김진아 애도..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span class='quot1'>정애연 김진아 애도..정말 힘들어할 것 같네요</span>”, “<span class='quot1'>정애연 김진아 애도..안타깝다</span>”등 반응을 보였다. <br/><br/>사진 = 서울신문DB (김진아 사망원인, 정애연 김진아 애도)<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1.txt

제목: 김진아 사망원인, 지병앓다 말기암 병명은? “성형수술했냐고 오해”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4457713  
본문: 김진아 사망, 김진아 사망원인, 김진아 지병, 김진아 병명 <br/><br/>김진아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진아는 지난 20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지병을 앓던 김진아의 병명은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올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br/>김진아의 동생인 배우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span class='quot0'>김진근과 가족들이 김진아의 임종을 지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br/><br/>지난 2010년 김진아는 한 방송에 출연해 “몸이 부어 성형수술 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부었고 7호였던 결혼반지가 13호까지 늘어났다”고 밝혀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br/><br/>원로배우 김진규와 김보애의 딸인 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창 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드라마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80년대 청춘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br/><br/>2000년 당시 김진아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남편 케빈 오제이와 국제결혼 한 후 아들 매튜를 입양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아침방송을 통해 고급 풀빌라를 연상케 하는 하와이 자택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br/><br/>김진아는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1980년대 섹시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하다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한때는 자살을 꿈 꿀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인생의 고비에서 그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생활을 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았고 “<span class='quot0'>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잘 한 일</span>”이라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br/><br/>김진아의 가족은 연예인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이모부는 이덕화, 제부는 개그맨 최병서다. 동생 김진근 역시 배우로 활동 중이며, 올케 정애연도 배우다. <br/><br/>많은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배우 김진아 사망, 마음이 아프네</span>”, “<span class='quot1'>배우 김진아 사망, 지병을 앓더니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1'>배우 김진아 사망, 병명이 뭐지</span>” “<span class='quot1'>배우 김진아 사망 이유, 안타깝다</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2.txt

제목: 나트륨 섭취율 높은 한국인, 우유 많이 마셔야 좋다!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4251374  
본문: 우리나라의 전통식단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것들이 많다. 콩을 발표시켜서 만든 청국장과 된장, 식이섬유와 섬유질이 풍부한 다양한 나물 반찬,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젖산균이 들어 있는 김치 등은 이미 그 효능이 입증되어 있는 바이다.<br/>그러나 세계적으로 건강식이라고 소문난 한국 전통식단에도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 바로 맵고 짠 음식이 많다는 것. 우리나라 음식에는 젓갈 같은 염장식품이나 찌개류 등이 많아 의도한 것보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기 쉽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는 4.9g으로 권장 기준인 2g의 2배 이상이었다. <br/>짜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위암과 고혈압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칼슘과 철분의 섭취에 방해되기 때문에 장년층 이상의 경우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한다. 완벽에 가까운 한국 전통 식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염분을 낮추고 칼슘 섭취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염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으로 손 쉽게 마실 수 있는 우유를 추천하고 있다.<br/>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음식을 짜게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돼 칼슘이 부족해지기 쉽다</span>”며 “<span class='quot0'>짠 음식은 역학적으로 위암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이어 “우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킴으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준다”며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등을 보충하기에 적합한 식품이다”고 강조했다.<br/>이 외에도 우유는 식도암, 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국제진료센터 유병욱 교수는 “<span class='quot1'>우유는 질병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정기적으로 마시면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식도와 위벽의 점막을 보호해 식도암이나 위암 등 소화기계 암 발생률이 낮아진다</span>”고 설명했다. <br/>또한 통풍, 심장질환, 비만 발생률도 낮아지는데 이는 세계적인 장수국가 사람들이 우유를 즐겨 마시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약 700㎎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지만 실제 섭취량은 약 70％(4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칼슘 섭취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r/>우유는 영양소의 비율, 양, 종류, 소화율 등을 보았을 때 완전식품에 가까워 ‘하얀 보약’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약 114개의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으며 탄수화물 위주인 한국의 전통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칼슘, 비타민A, 비타민B 등을 보충해줘 완전식품으로도 불린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3.txt

제목: 희귀 혈액암 다발성 캐슬만병에 ‘실툭시맙’ 효과 확인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4241029  
본문: 　희귀한 혈액암인 다발성 캐슬만병(MCD) 치료에 주사제인 실툭시맙이 효과적이라는 임상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br/>　조석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미국 아칸소주립대 반리 교수를 비롯해 미국 중국과 유럽 등 19개국 38개 병원에서 실시된 MCD의 치료에 대한 국제 3상 임상연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교수는 이 임상연구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암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인용지수 25)’ 7월호에 실렸다. <br/>　림프종 전단계 질환인 MCD는 진단 후 30%의 환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임에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뚜렷한 표준치료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치료방법과 관련해 시도된 임상 연구도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치료제의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한 이번 연구결과가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r/>　연구팀은 2010~2012년 사이에 18세 이상의 HIV음성인 MCD 환자 79명을 선정, 시험군(53)과 대조군(26)으로 나눈 뒤, 시험군에만 주사제형인 실툭시맙(siltuximab) 11mg/kg을 3주간격으로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br/>　그 결과, 시험군 환자 가운데 34%가 종양의 증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증상 조절도 되는 등 임상적으로 뚜렷한 호전 양상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은 호전되는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피로감·야간발한·빈혈 등 정도가 심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은 시험군의 47%, 대조군의 54%에서 나타났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중증 부작용은 시험군 23%, 대조군 19%로, 실툭시맙으로 치료한 환자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br/>　 MCD는 림프절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질환으로, 체내 임파선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은 임파선 비대와 함께 전신권태감·체중감소·발열·야간발한증·전신부종과 간·비장 등 장기 비대·피부변화·신경병증 등이 꼽히며, 빈혈·혈소판감소증·단백뇨·신증후군을 동반하기도 한다. 일부에만 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가 가능하며, 전신으로 퍼진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하기도 한다. <br/>　조석구 교수는 “<span class='quot0'>MCD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는 병으로, 생존기간 중앙값이 14~30개월에 불과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실툭시맙의 치료효과를 증명한 이번 국제 임상연구가 그 동안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었던 다발성 캐슬만병 환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4.txt

제목: 김진아 사망원인 지병, 병명 정확히 뭐였나 “걸을 수도 없었다”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4140514  
본문: 김진아 사망, 김진아 사망원인, 김진아 지병, 김진아 병명<br/><br/>김진아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진아는 지난 20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지병을 앓던 김진아의 병명은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올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br/><br/>김진아의 동생인 배우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span class='quot0'>김진근과 가족들이 김진아의 임종을 지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br/><br/>지난 2010년 김진아는 한 방송에 출연해 “몸이 부어 성형수술 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부었고 7호였던 결혼반지가 13호까지 늘어났다”고 밝혀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br/><br/>원로배우 김진규와 김보애의 딸인 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창 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드라마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80년대 청춘스타로 인기를 누렸다.<br/><br/>2000년 당시 김진아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남편 케빈 오제이와 국제결혼 한 후 아들 매튜를 입양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아침방송을 통해 고급 풀빌라를 연상케 하는 하와이 자택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br/><br/>김진아는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1980년대 섹시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하다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한때는 자살을 꿈 꿀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인생의 고비에서 그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생활을 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았고 “<span class='quot0'>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잘 한 일</span>”이라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br/><br/>김진아의 가족은 연예인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이모부는 이덕화, 제부는 개그맨 최병서다. 동생 김진근 역시 배우로 활동 중이며, 올케 정애연도 배우다.<br/><br/>많은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배우 김진아 사망, 마음이 아프네</span>”, “<span class='quot1'>배우 김진아 사망, 지병을 앓더니 안타깝다</span>”, “<span class='quot1'>배우 김진아 사망, 병명이 뭐지</span>” “<span class='quot1'>배우 김진아 사망 이유, 안타깝다</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5.txt

제목: 김진아 사망원인 “올해 초 말기암 진단·투병” 정애연 “기도해주세요” 간절한 마음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4105108  
본문: 김진아 사망원인 “올해 초 말기암 진단·투병” 정애연 “기도해주세요” 간절한 마음<br/><br/>1980년대를 풍미한 배우 김진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51세. <br/><br/>김진아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이같이 전하며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br/><br/>배우 김진규-김보애의 딸이기도 한 김진아는 올초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br/>태원아트미디어는 “정확한 병명은 확인이 안된다. 말기 암이었다는 사실만 안다”면서 “김진근 씨와 가족들이 김진아 씨의 임종을 지켰다. 김진근 씨는 장례를 치르고 내달 중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br/><br/>김진아는 2000년 미국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며 하와이에서 거주해왔다. <br/><br/>한편 배우 정애연은 시누이 김진아 사망에 기도해달라며 비통한 심경을 표했다.<br/><br/>정애연은 2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기도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정애연은 지난 17일과 20일에도 트위터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부탁드려요”라고 고 김진아의 회복을 바라는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더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6.txt

제목: 김진아 사망 원인 “말기암이라는 것만 알아” 정확한 병명은?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4058306  
본문: 김진아 사망 원인 “말기암이라는 것만 알아” 정확한 병명은?<br/><br/>1980년대를 풍미한 배우 김진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51세. <br/><br/>김진아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이같이 전하며 “<span class='quot0'>김진근 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br/><br/>배우 김진규-김보애의 딸이기도 한 김진아는 올초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br/>태원아트미디어는 “정확한 병명은 확인이 안된다. 말기 암이었다는 사실만 안다”면서 “김진근 씨와 가족들이 김진아 씨의 임종을 지켰다. 김진근 씨는 장례를 치르고 내달 중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김진아는 2000년 미국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며 하와이에서 거주해왔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7.txt

제목: 배우 김진아 사망원인, 동생 김진근 “누나 암 말기, 시한부 판정 받았다”  
날짜: 20140822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4044702  
본문: ‘배우 김진아 사망원인, 배우 김진근’<br/>배우 김진아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0세.<br/>21일 한 매체는 김진아 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span class='quot0'>20일 새벽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병으로 소천했다</span>”고 보도했다.<br/>김진아의 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절차를 마친 뒤 이달 중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 후 아들 매튜와 함께 하와이에서 거주 중이었다.<br/>이와 관련해 김진아의 친동생인 배우 김진근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지난 6월 말 김진근 정애연 부부가 누나 김진아가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검토 중인 차기작도 고사하고 하와이로 건너갔다</span>”며 “<span class='quot1'>암 말기 판정을 받은 김진아는 병원에서 올해 말까지라고 했지만, 합병증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됐다</span>”고 설명했다.<br/>앞서 김진아는 2010년 한 방송에 출연해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을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김진아는 “어느 날부터 몸이 붓기 시작했다. 심지어 성형수술을 했다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여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았다. 여러 검사 결과 몸의 면역력이 거의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br/>특히 김진아는 “<span class='quot0'>건강한 몸으로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다</span>”고 털어놔 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됐음을 전했다. 이어 “겉모습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부었고 7호였던 결혼반지가 13호 까지 늘어 있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br/>1980년대 섹시 스타로 활약한 김진아는 2001년 드라마 ‘명성황후’, 2007년 영화 ‘못된 사랑’, 2010년 영화 ‘하녀’에 출연했으며 2011년 SBS ‘스타 부부쇼-자기야’ 등 방송에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며 근황을 알렸다. 지난 4월에는 방송을 통해 연예계 복귀에 대한 바람을 내비친 바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br/>네티즌들은 “배우 김진아 사망 안타깝다. 김진근이 동생이었구나”, “배우 김진아 사망, 건강해보였는데..”, “배우 김진아 사망 원인, 암이었구나. 안타깝다”, “배우 김진아 사망, 명복을 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사진 = 방송 캡처(배우 김진아 사망원인, 배우 김진근)<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8.txt

제목: [부고]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주연 김진아씨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3625652  
본문: 1980년대 영화계 스타 김진아씨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숨졌다. 50세.<br/><br/>김씨는 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한 뒤 아들을 낳고 하와이에서 거주 중이었으나 최근 말기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br/><br/>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대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유학생 신분의 김씨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깜짝 캐스팅돼 혜성처럼 등장했다. 순종적인 동양형 미인이 대세이던 시절 까무잡잡한 피부에 살짝 치솟은 눈꼬리를 앞세운 그는 당돌하면서도 섹시한 아름다움으로 국내 극장가와 TV, 광고계에서 주목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1998년 작고한 배우 김진규씨로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연예인 2세’로도 유명했다. <br/><br/>김씨는 데뷔 1년 만에 화장품 광고 전속 모델이 되는 등 불과 5년 남짓의 짧은 시간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야훼의 딸’ ‘서울 흐림 한때 비’ ‘연산일기’ 등 18편의 영화에서 주연했다. 드라마 ‘개성시대’ ‘욕망의 바다’ ‘명성황후’ ‘못된 사랑’ ‘순결한 당신’ 등에서도 주연을 도맡다시피 했다. 이후 1988년 ‘연산일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2010년 임상수 감독의 영화 ‘하녀’에 산부인과 의사로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br/><br/>김씨의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이달 중 한국에서 지인들과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br/><br/>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79.txt

제목: 태아 죽은 지 36년만에 엄마 뱃속에서 유골 발견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0726106  
본문: 인도의 한 여성이 죽은 지 36년이 지난 태아의 시신을 꺼내는 수술을 받아 놀라움을 주고 있다.<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 사는 쿠마르라는 여성은 36년 전인 1978년, 24세의 나이로 임신을 했다. <br/>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쿠마르가 자궁 외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며 임신을 중단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수술을 두려워했던 쿠마르는 집 인근의 작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고, 수 일간 지속되던 복통이 사라지자 아이도 함께 사산됐다고 믿었다. <br/>그로부터 36년이 흐른 최근, 60세가 된 쿠마르는 두달 전부터 다시 복통을 느꼈고, 검사 결과 그녀의 배 안에는 태어나지 못한 태아의 뼛조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br/>치료를 맡은 의료진은 “<span class='quot0'>뱃속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당시 암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CT촬영 결과 그 ‘무언가’는 고체처럼 딱딱하고 석회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후 MRI를 통해 그것이 어린 아기의 유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span>”고 덧붙였다. <br/>쿠마르는 곧장 수술을 받았고, 그녀의 배 안에서는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태아의 흔적을 꺼낼 수 있었다. 화석 태아는 사망한 태아가 몸에 흡수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자궁 안에 머물며 칼슘에 뒤덮여 딱딱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br/>이 흔적은 자궁 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 방광 등 대부분의 장기 등에서 모두 발견됐다. <br/>의료진은 “<span class='quot0'>화석 태아의 흔적 때문에 비뇨기과 및 신장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죽은 태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뱃속에 남아있는 일은 흔하지 않다</span>”고 설명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0.txt

제목: 전문가들에게 듣는 간암의 한방암치료, ‘닥터플러스 간암편’ 방영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0720537  
본문: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바라보는 암, 그리고 이를 융합한 통합의학적 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쿠키건강TV ‘닥터플러스 간암편’이 오는 22일 방영된다.<br/>만성 B형/C형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 아플라톡신 B1, 대사성 만성 간진환, 당뇨병 등이 원인으로 알려진 간암은 간절제술, 항암화학요법, 국소치료술 등이 주로 시행된다. 일부 환자의 경우 오심, 구토, 구내염, 두통, 탈모, 기력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br/>부작용이 계속 이어지거나 심해질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해지면서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은 물론, 면역력 약화로 인해 치료가 끝난 후라도 전이,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부작용을 완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한방암치료와의 병행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br/>양한방협진을 통해 암환자를 진료하는 소람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성수 한의학 박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간암의 증상과 원인, 서양의학적 치료법과 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방암치료법과 실제 사례를 상세히 전할 예정이다.<br/>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암치료의 장점은 부작용들을 개선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점과 양방의 치료법들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방암치료는 면역력 강화를 통해 암이 발생한 인체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span>”며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br/>한편 닥터플러스 간암 편은 오는 22일 오전 6시/9시와 오후 2시/10시 국민일보 케이블 채널 쿠키건강TV에서 방송 예정이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1.txt

제목: ‘보톡스(Botox)’, 혁신적 암 치료제?…종양 억제 탁월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0645660  
본문: 주로 얼굴 미용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톡스(Botox), 보툴리눔 독소 시술법 (botulinum toxin therapy)이 위암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의료전문매체 메디컬 엑스프레스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암 연구소 공동 연구진이 보툴리눔 독소가 종양 성장을 늦춰 위암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br/>보툴리눔 독소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 botulinum)이라 불리는 박테리아에서 분비되는 독소로 모두 7개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툴리눔 독소 A형과 B형이다. 이 두 가지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톡스 시술에 쓰이는 것이다. <br/>보툴리눔 독소는 운동 신경 말단 부위의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필요부위의 근육을 마비시킨다. 이를 통해 얼굴 떨림, 눈꺼풀 경련, 근강직 치료는 물론 주름 제거, 사각턱 교정과 같은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br/>연구진은 이런 보툴리눔 독소의 아세틸콜린 억제 효과가 암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 이유는 아세틸콜린이 암 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이기 때문이다.<br/>최근 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연구진은 보툴리눔 독소가 아세틸콜린을 억제시키는 것처럼 미주 신경 신호를 차단해 종양 성장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쥐에게 신호 화학 물질의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주입한 후에도 보툴리눔 독소는 종양 성장을 억제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br/>연구진에 따르면, 미주신경 신호가 위장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툴리눔 독소가 위암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보톡스는 대부분의 표준 암 치료제보다 독성이 덜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저렴하기까지 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향후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테스트에서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보툴리눔 독소는 기존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또 한 가지 혁신적인 암 치료법으로 발전될 수 있다. <br/>특히 미주신경과 종양성장 관계를 이용해 접근하는 해당 치료법은 위암 뿐 아니라 다른 암에도 보툴리눔 독소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연구진은 전립선 암 치료에도 보툴리눔 독소가 효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 의학저널’(Journal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20일자에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2.txt

제목: 자궁경부암 검사 등 독창적 기술 보유한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3445641  
본문: ‘분자진단’이라 하면 다소 낯선 용어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경험한 진단법이다. <br/><br/>지난 2009년 대 유행한 신종플루확진검사, 겨울철마다 유행하는 계절독감과 일반 감기, 폐렴균을 구분하는 검사,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바로 분자진단 검사이다.<br/><br/>㈜씨젠은 독창적 기술인 동시다중 분자진단 검사 기술을 보유한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호흡기 질환, 결핵, 간염,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검사뿐 아니라 약제 내성, 암 유발 돌연변이, 유전질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자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br/><br/>분자진단은 DNA, RNA 등 유전물질을 대상으로 분자생물학, 분자유전학적 기술을 이용한 검사 분야를 통칭하는 말이지만 좁게는 PCR 방법으로 유전자 (DNA, RNA)를 이용, 질병을 검사하는 것을 뜻한다.<br/><br/>PCR은 쉽게 얘기하면 일명 성능 좋은 ‘DNA 복사기’로 아주 적은 양의 DNA도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배로 증폭시켜준다. 머리카락, 타액 등을 분석하여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거나 친자 분석 등에 이용되는 방법이다.<br/><br/>의료계에서는 PCR을 이용한 분자진단 검사를 통해 세균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배양이 잘 안되거나 위험해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와 기존 검사법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br/><br/>또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유전 정보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처방이 가능하며,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br/><br/>한편, 씨젠은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정기 검진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씨젠우먼( www.씨젠우먼.com )이라는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 중이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3.txt

제목: 김진아 남편 단란했던 한때 “말기암으로 세상 떠나”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3256020  
본문: 김진아 남편 단란했던 한때 “말기암으로 세상 떠나”<br/><br/>배우 김진아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50세의 나이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r/><br/>2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진아는 20일 새벽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김진아의 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절차를 마친 뒤 이달 중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br/><br/>이와 관련해 김진아의 친동생인 배우 김진근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지난 6월 말 김진근 정애연 부부가 누나 김진아가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검토 중인 차기작도 고사하고 하와이로 건너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암 말기 판정을 받은 김진아는 병원에서 올해 말까지라고 했지만, 합병증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됐다</span>”고 설명했다.<br/><br/>고인은 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한 뒤 하와이에서 아들 매튜와 함께 생활해왔다. <br/><br/>지난해 4월에는 KBS2 ‘여유만만’에서 남편 케빈과 아들 매튜와의 행복한 하와이 생활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br/><br/>배우 김진아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야훼의 딸’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드라마 ‘개성시대’ ‘욕망의 바다’ ‘명성황후’ ‘순결한 당신’ 등 안방극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br/><br/>김진아는 원로배우 김진규와 김보애의 딸이다. <br/><br/>네티즌들은 “김진아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진아 사망, 갑자기 말기암이라니.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김진아 사망, 정말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4.txt

제목: 이제 ‘암’ 예측도 슈퍼컴퓨터 ‘마하’로…ETRI, 국제공동연구 참여  
날짜: 2014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1802266  
본문: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암 등의 질병을 예측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한다. <br/><br/><br/>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2011년 개발한 슈퍼컴퓨터 ‘마하’(MAHA)로 지난해 11월 암 유전체 연구 컨소시엄인 ‘국제암유전체컨소시엄’(ICGC)에서 유전체 분석 데이터센터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br/>이에 따라 ETRI를 포함해 미국 시카고대학 슈퍼컴센터, 일본 도쿄대 의료과학연구소,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컴센터 등 6개 기관이 유전체 분석 데이터센터로 선정돼 전세계 2천여명의 암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 <br/>슈퍼컴의 ‘시퀀스’라는 기계에 혈액 한 방울을 넣고 돌리면 1인당 30억개의 염기쌍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슈퍼컴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암 질환이나 유전적 희귀질환을 알아내는 원리이다. <br/>이를 통해 암 등의 질병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개인별 맞춤형 항암제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br/>ETRI는 지난해 ‘마하’를 이용해 DNA 분석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5시간 내외로 절반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다. <br/>이를 통해 인간유전체 38명, 질병표적유전체 6000개,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에 각각 480개, 588개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 <br/>특히 마하는 슈퍼컴의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소비전력과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외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ETRI는 설명했다. <br/>이번 연구가 마무리되는 2016년이 되면 개인별 DNA를 표준군과 대조해 차이 나는 변이형질을 추출, 개인별로 특별히 취약한 암이나 만성질환을 가졌는지를 1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ETRI는 지난해 유전체 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기술을 이전해 연구소기업 ㈜신테카바이오를 설립했으며, 2020년까지 관련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br/>사업책임자인 최완 ETRI 클라우드컴퓨팅연구부장은 “<span class='quot0'>마하는 컴퓨팅시스템 개발과제로는 유일하게 미래부가 선정한 ‘201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포함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슈퍼컴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면 약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지원도 가능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5.txt

제목: 로빈 윌리엄스, 암 투병 팬에게 전하는 영상편지 ‘감동’  
날짜: 2014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21720307  
본문: 지난 11일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br/><br/>미국 언론과 뉴질랜드 ‘스터프’ 등을 통해 공개된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윌리엄스가 지난 1월 말기암 판정을 받은 뉴질랜드의 여성 비비안 윌러(21)에게 보낸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br/><br/>윌러는 암 진단을 받은 후 5개의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를 작성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윌리엄스를 만나는 것.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윌리엄스가 그녀에게 영상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br/><br/>공개된 영상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로빈 윌리엄스입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뉴질랜드에 있는 소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잭 그리고 소피, 저의 모든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라며 윌러는 물론 그의 남편과 1살 된 딸에게 안부의 인사를 건넸다.<br/><br/>이어 윌리엄스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사랑해요”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손 키스를 보내며 영상이 마무리 된다.<br/><br/><br/><br/>이 영상은 윌러의 남편 잭이 공개한 것으로, 그는 “아내는 윌리엄스의 영상 메시지에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며 “윌리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리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br/><br/>한편 윌리엄스는 ‘죽은 시인의 사회’(1989년)와 굿 윌 헌티‘1997년), 천국보다 아름다운(1998년) 등 7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br/><br/>사진·영상=스터프, 유튜브<br/><br/>영상팀 seoultv@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6.txt

제목: 새똥 마사지, 소변 가글…기상천외 뷰티 비법 모아보니  
날짜: 2014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80224334  
본문: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어느 시대에든 존재해 왔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여성들이 미(美)를 위해 동원했던, 또는 현재도 애용하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br/>일부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건강과 미용에 해가 되는 방법이니 섣불리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br/>▲새 배설물 마사지<br/>마치 일본의 게이샤처럼 곱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싶은 일부 여성들은 새 배설물을 이용한 페이셜 마사지에 과감하게 도전한다. 미국 뉴욕의 한 고급 스킨케어점은 이미 6년 전부터 새 배설물이 들어간 일본 전통 마사지 요법인 ‘게이샤 페이셜’을 시술하고 있다. <br/>이 마사지는 일명 ‘천사의 새’로 불리는 나이팅게일 새의 배설물에 쌀겨 등을 섞어 바르는 것으로, 새 배설물에 든 효소가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피부가 매끄러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br/>▲소변 가글<br/>고대 로마인들은 소변에 든 암모니아가 입 안을 깨끗하게 헹구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특히 암모니아가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세균을 소독하는 효과가 있으며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더 하얗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박테리아에 감염되거나 입에서 소변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현재는 이 ‘비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br/>▲비소 다이어트<br/>19세기에도 다이어트 약은 존재했다. 당시 다이어트 약에는 현재라면 상상할 수 없는 독성분이 포함돼 있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소와 스트리키닌이라 부르는 중추신경흥분제다. 당시에는 다이어트 약에 대한 주의 또는 제한이 미비했고, 이를 먹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효과 대신 비소 중독과 더불어 암이나 당뇨를 얻어야 했다. 일부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br/>▲비소와 생석회를 이용한 제모비소는 여성들의 매끈한 피부를 위한 제모에도 활용됐었다. 제모약이나 시술이 전무했던 과거, 일부 남성과 여성은 비소와 생석회를 물에 녹여 제모를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생석회는 탄산칼슘이 열분해할 때 발생하며 이산화황의 제거나 석회비료, 건조제, 시멘트, 표백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br/>매끈한 피부를 원했던 사람들은 비소와 생석회를 섞은 제모제를 사용했다가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비소에 중독되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br/>▲뱀파이어 페이셜<br/>사람의 혈액을 이용한 미용법으로, 자신의 팔에서 혈액을 뽑은 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혈소판을 분리한다. 이를 얼굴에 바르거나 주사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알려진 시술이다. 최근에는 킴 카다시안이 이 시술을 받는 동영상을 공개해 더욱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r/>이밖에도 자극을 통해 피부 주름을 없애고 모공을 줄여준다는 ‘뺨 때리는 마사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내려져 왔다는 ‘거머리 테라피’, 1900년대 초반 멕시코에서 시작된 ‘촌충 다이어트’ 등이 기상천외한 뷰티 테라피 방법으로 소개됐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7.txt

제목: 정남식 연세의료원장 “중증질환에 주력, 제중원도 복원”  
날짜: 2014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15522058  
본문: 연세의료원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경증질환 치료를 줄이는 대신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난치성 질환 치료에 치중하겠다는 진료방침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 현대 의학의 효시인 제중원을 복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br/>정남식(62) 신임 연세대의료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span class='quot0'>가벼운 질환으로 3차 의료기관을 찾는 현재의 모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경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는 대신 증증 환자 진료에 주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정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대학병원들이 적지않은 경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세브란스는 3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의미</span>”라며 “<span class='quot1'>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성 희귀 질환 치료와 연구에 주력하겠다</span>”고 덧붙였다.<br/>　그는 대학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굳이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필요가 없는 경증 환자를 설득해 협력병원으로 보내게 될 때는 환자와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의료분야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연세의료원이 앞장서겠다</span>”고 강조했다.<br/>　정 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의 새로운 가치로 ‘병원을 넘어선 병원(Beyond Hospital)’과 ‘재난 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br/>　‘병원을 넘어선 병원’은 병원이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없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나 지구촌 전체와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 의료원장은 설명했다.<br/>　그는 “<span class='quot1'>질병 치료라는 병원의 본령에 충실하면서도 환자와 가족들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span>”라고 소개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를 위해 ‘제중원 힐링 캠프’(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br/>　제중원 힐링캠프에서는 대학·종교·문화단체 등의 재능 기부로 암 환자와 중증·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와 가족 등을 위한 모임마당, 미술·음악치료, 식사 및 영양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환자와 보호자의 휴식공간인 아트리움(patient atrium)이나 병원의 녹지공간을 대폭 늘리는 에코존(Eco zone) 등도 힐링캠프 차원에서 추진된다.<br/>　연세의료원은 또 대학병원이 사회의 요청에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안전의식 교육 및 확산, 의료산업화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br/>　제중원 복원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제중원은 우리 나라에 근대적 의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시발점</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우리나라 의학사를 정립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제중(濟衆:모든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한다는 뜻)의 가치에 보다 충실한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제중원 복원을 계획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br/>　그는 “<span class='quot1'>현재 남은 3동의 건물을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부지 규모가 500평 정도여서 원형을 복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인 제중원은 1885년 고종이 알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설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자 1886년에는 당시 한성 남부 동현의 왕실 소유 부지(지금의 을지로 입구와 2가 중간의 한국외환은행 본점 자리)로 이전했다. 1904년에는 미국인 실업가 세브란스(Severance)의 재정 지원으로 남대문 밖 복숭아골(桃洞)에 현대식 병원을 지어 이전한 뒤 세브란스병원이라 명명하면서 제중원이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br/>　정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이제는 용의주도하면서도 과감하게 병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span>”라면서 “<span class='quot1'>연세의료원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8.txt

제목: 계속 음식 생각나면 맛 중독 의심… 미각 훈련 필요해  
날짜: 2014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15016514  
본문: 직장인 이모(27·여)씨는 지독한 탄수화물 중독이다. 일주일에 딱 두 번, 주말에만 라면을 먹기로 한 후부터 휴일 아침이면 라면 생각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 사실 라면만 주말에 먹을 뿐 이씨의 ‘면’사랑은 주중에도 계속된다. 칼국수, 냉면, 비빔국수….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 면 요리가 있으면 대개 면을 주문한다. 커피전문점에서는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대신 달콤한 조각케이크를 산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녁에는 밀려오는 허기에 과자를 집어든다. <br/><br/>이씨의 하루가 남 일 같지 않다면 당신도 미각과 두뇌가 만들어낸 ‘맛의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탄수화물 중독은 가장 보편화된 미각 중독이다. 탄수화물 자체가 당이기 때문에 ‘단맛 중독’이라고도 한다. 단맛이 나는 음식은 어떤 음식보다도 강렬하고 심지어 심리적 허기까지 자극한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했을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당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 외에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두뇌로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두뇌로 전달된 트립토판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 의욕 상실, 초조함 등의 금단현상이 오기 때문에 뇌는 더 많은 탄수화물을 요구하게 된다. 신체의존도도 상당하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나 탄수화물 음식을 단기간에 과량 섭취하면 이를 에너지원으로 분해하려고 인슐린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이로 인해 신체는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에 빠진다. 저혈당은 다시 혈당을 올리고자 탄수화물 폭식을 부추긴다. 저혈당과 고혈당을 오르내리며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단맛에 길들게 된다. 당연히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합병증이 온다. <br/><br/>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1.4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섭취량인 50g을 훌쩍 넘는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이보다 13% 많은 69.6g이다. 소금만큼 설탕 중독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다. 하지만 설탕과 밀가루에 든 탄수화물은 대부분 정제된 단순탄수화물이어서 소화 속도가 빨라 인슐린 분비와 지방 축적을 촉진한다. 금세 허기지기 때문에 밥을 먹고 돌아서서 또 과자를 찾게 된다. 반면 현미 등 가공하지 않은 곡식, 과일, 채소에 들어 있는 복합탄수화물은 당분 분자의 구조가 복잡해 소화 속도가 느려 지방으로 바뀌는 양도 적다. <br/><br/>단맛뿐만 아니라 매운맛·짠맛 중독도 위험수위다. 우리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4583㎎으로 최근 섭취량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WHO의 하루 최대 권장량 2000㎎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짠맛에 길들어 있으면 고혈압이 생겨 저염식 식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맛이 없는 것은 물론 간이 거의 안 된 병원 밥을 먹을 때 메스꺼운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한다.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짠맛에 중독된 미각과 몸이 건강식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br/><br/>매운맛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다 보면 미각 세포의 반응도가 감소해 싫증이 나지만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 혀가 얼얼해져도 젓가락을 들게 된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통의 쾌락’이다. 사실 매운맛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매운맛을 내는 고추 속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량을 늘리고 지방분해를 촉진해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추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기 때문에 원기 회복과 감기예방 효과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하면 좋지 않듯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관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다. <br/><br/>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전문의는 “<span class='quot0'>고추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궤양이 발생하기 쉽고 간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span>”고 말했다. <br/><br/>캡사이신이 암세포에 맞서 싸우는 인체의 아군 격인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위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아산병원 의학과 김헌식 교수팀)도 나왔다. 캡사이신 자체가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살해세포를 위축시켜 간접적으로 암 발생을 돕는 셈이다. 자연살해세포는 암 세포막에 구멍을 낸 후 세포질과립을 분비해 암 세포를 괴사시키는 항암면역세포다. <br/><br/>잘못된 미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미각교정다이어트’의 저자 박민수 서울ND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1'>중독은 자극적인 맛이 입안에 머문 시간과 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미각 훈련을 할 때는 입안을 중립 상태로 유지하는 미각소독, 즉 입에서 자극 맛의 잔해와 기억을 지워야 한다</span>”고 말했다. 가장 유용한 도구가 물과 채소다. 물은 혀의 미뢰 사이에 낀 자극 맛을 제거하고 단맛이 없는 채소는 칫솔처럼 이와 혀 사이사이에 낀 자극적인 맛을 씻어낸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89.txt

제목: [제대로 알자! 의학 상식]  
날짜: 2014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15005783  
본문: ●나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br/><br/><br/>해마다 몸 상태가 바뀌듯 건강검진 항목도 연령별로 달라져야 한다. 건강검진은 워낙 항목이 많아 모든 것을 다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본인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적절한 검진을 해야 한다. <br/><br/><br/>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신체계측(체지방측정), 안과검사, 청력검사, 폐 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소변과 대변검사, 흉부 엑스선, 유방 엑스선, 복부 초음파 검사, 위내시경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이 있다.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기본 검진 프로그램들이다. 여기에 연령별로 다른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 30대는 혈액검사, 흉부 엑스선, 복부 초음파 검사,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40~50대는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암 검사를 해야 한다. 위·대장·간·폐를 중심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다. 50대부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60대 이상이 되면 암과 뇌,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져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인의 질병 발생 위험 인자를 고려해 정밀 진단을 받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흡연 경력이 있다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뇌동맥류 등 가족력이 있다면 혈관촬영(MRA)이 필요하다. <br/><br/><br/>●간염도 유형별로 다르게 감염된다. <br/><br/><br/>‘간염 보균자와는 함께 국을 떠먹지 마라.’<br/><br/><br/>‘기침이나 입맞춤으로 전염될 수 있다.’ <br/><br/><br/>간염과 관련해 한 번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간염의 전파 경로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br/><br/><br/>A형 간염은 주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또는 감염자와의 신체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일단 감염되면 약 4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세와 함께 황달이 찾아온다. 어릴 때 걸리면 자신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어른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하게 앓는다. 하지만 A형 간염은 다른 간염과 달리 대부분 6개월 내에 완전히 회복된다.<br/><br/><br/>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B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혈액을 통해 전염된다. 따라서 손톱깎이, 면도기, 칫솔 등 혈액이 묻을 수 있는 생활용품을 환자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술이나 식사를 함께 하거나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통해서는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 C형 간염의 가장 큰 특징은 만성화율이 높다는 것이다. 걸린 사람의 80%가 만성간염이 된다. 주로 혈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침 시술, 문신, 피어싱은 피하는 게 좋다. <br/><br/><br/>■도움말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배성진 전문의<br/><br/><br/>소화기내과 임영석 전문의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0.txt

제목: “과체중, 자궁암 등 10대 암 위험 증가요인”…BMI 5 증가하면 자궁암 위험 62% 상승  
날짜: 2014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13506556  
본문: 과체중이 자궁암과 담낭암, 신장암 등 10대 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영국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은 14일 영국 성인 524만명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과체중으로 인해 10대 암에 걸리는 사례가 연간 1만2000건에 달하며 현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3500건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br/>보고서는 체질량지수(BMI)가 5 늘어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자궁암은 62%, 담낭암 31%, 신장암 25%, 자궁경부암 10%, 갑상선암 10%, 백혈병 9% 증가한다고 밝혔다. <br/>또 간암, 결장암, 난소암, 유방암도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BMI 5 증가하면 발암 위험이 각각 19%, 10%, 9%, 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25∼29.9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된다.<br/>연구팀은 키와 몸무게 비율이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BMI가 높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많다고 밝혔다.<br/>이들은 16세 이상인 조사 대상자에 대해 평균 7년 6개월간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했으며, 이 기간에 약 16만7000명이 각종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br/>보고서 작성자인 런던 보건대학원 크리슈산 바스카란 박사는 “<span class='quot0'>BMI가 미치는 영향은 암 종류에 따라 편차가 컸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암은 BMI가 높아지면 발병 위험이 급증한 반면 위험성이 적거나 아예 없는 암도 있다</span>”고 말했다.<br/>그는 “<span class='quot0'>폐경 전 젊은 여성이 걸리는 유방암과 같은 일부 암은 BMI가 증가해도 발암 위험이 낮았다</span>”고 덧붙였다. <br/>연구팀은 영국인 암환자 가운데 유방암은 41%, 담낭암, 신장암, 간암, 결장암은 10%가 비만이나 과체중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br/>애틀랜타 소재 미국 암학회의 피터 켐벨 박사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세계적으로 심각성이 커지는 과체중과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br/>그는 그 방안으로 열량은 높지만 영양소가 적은 설탕 함유 드링크류에 대한 세금 부과와 건강에 좋은 대체 식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걷기를 비롯한 운동을 권장하는 도시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1.txt

제목: 어리다는 이유로 암 검사 거부…英 의료제도의 맹점  
날짜: 2014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5837545  
본문: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 검사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거부당하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치고 신혼 4개월 만에 암으로 사망한 20대 영국 여성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br/>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자궁경부암 검사에 연령제한을 둔 영국 보건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던 웨스턴의 사연을 13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던 웨스턴이 극심한 요통으로 병원을 처음 찾았던 시기는 지난 2012년 겨울,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세였다. 보통 해당 나이 때 여성들이 참기 힘들 정도의 요통, 골반 통증 증세를 호소한다면 자궁경부암(uterine cervical cancer) 전조증상으로 의심해야 하지만 의사는 웨스턴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사(cervical cancer screening test)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녀가 아직 24세로 보건의료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사 적합 최소연령인 2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br/>헤어드레서로 일하고 있던 웨스턴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극심한 고통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당시 증세는 심각했다. 누가 봐도 자궁경부암에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의사는 이후 2번이나 그녀의 자궁경부암 검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단지, ‘검사 받기에는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br/>결국 세 번째 찾아갔을 때도 의사가 검사를 허락하지 않자 이번에는 웨스턴도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웨스턴은 끈질기게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웨스턴이 암 검사 요구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달이었다. <br/>검사 결과, 웨스턴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2013년 3월부터 강도 높은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시작했다. 6개월간의 긴 투병생활을 거친 웨스턴은 마침내 9월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녀의 곁을 헌신적으로 지켰던 약혼자 다니엘과 결혼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br/>그러나 2014년 5월에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은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11월, 웨스턴의 암세포가 복부로 전이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웨스턴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5월로 예정되어있던 결혼식을 1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화학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사라지기 전, 아직 아름다움이 남아있을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기 때문이다. 약혼자 다니엘 역시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br/>2014년 1월, 결혼식을 올린 뒤 다니엘과 웨스턴은 정식부부가 됐다. 하지만 불과 3일 후, 웨스턴은 2차 항암화학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br/>남편 다니엘의 헌신적인 간호로 웨스턴은 끝까지 암세포와 맞서 싸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 결국 2014년 5월 22일, 26세 나이로 웨스턴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와 남편이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했던 달에 다니엘은 사랑했던 부인을 영원히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br/>자궁경부암 검사는 여성 자궁경부, 질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비정상 세포나 암세포 전이 여부를 사전에 관찰해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검사방식은 작은 솔로 자궁경부 세포를 추출해 이를 유리 슬라이드에 바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검사 1~2일 전부터 대상자는 질 세척을 금지해야하며 생리 기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br/>현재 영국 보건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여성들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 제한연령을 25~60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25세 미만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경우 신체적으로 입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br/>하지만 남편인 다니엘은 영국 보건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 규정의 부당함이 아내의 사망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금 더 빨리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면 웨스턴의 항암치료효과가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궁경부암은 빨리 치료할수록 완치율이 높은데 1기초에 발견되면 100%, 1기 말은 80~90% 적어도 2기 초에 발견되면 70~80%의 생존율이 보장된다.<br/>다니엘은 “<span class='quot0'>아내가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서 검사를 부탁했을 때도 담당의사는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거부했다</span>”며 현재 이와 같은 비극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궁경부암 검사(cervical cancer screening test) 제한연령 완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2.txt

제목: 항암치료 3일전에 결혼을…어느 신혼부부 사연  
날짜: 2014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5739671  
본문: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 검사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거부당하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치고 신혼 4개월 만에 암으로 사망한 20대 영국 여성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br/>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자궁경부암 검사에 연령제한을 둔 영국 보건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던 웨스턴의 사연을 13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던 웨스턴이 극심한 요통으로 병원을 처음 찾았던 시기는 지난 2012년 겨울,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세였다. 보통 해당 나이 때 여성들이 참기 힘들 정도의 요통, 골반 통증 증세를 호소한다면 자궁경부암(uterine cervical cancer) 전조증상으로 의심해야 하지만 의사는 웨스턴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사(cervical cancer screening test)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녀가 아직 24세로 보건의료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사 적합 최소연령인 2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br/>헤어드레서로 일하고 있던 웨스턴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극심한 고통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당시 증세는 심각했다. 누가 봐도 자궁경부암에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의사는 이후 2번이나 그녀의 자궁경부암 검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단지, ‘검사 받기에는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br/>결국 세 번째 찾아갔을 때도 의사가 검사를 허락하지 않자 이번에는 웨스턴도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웨스턴은 끈질기게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웨스턴이 암 검사 요구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달이었다. <br/>검사 결과, 웨스턴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2013년 3월부터 강도 높은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시작했다. 6개월간의 긴 투병생활을 거친 웨스턴은 마침내 9월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녀의 곁을 헌신적으로 지켰던 약혼자 다니엘과 결혼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br/>그러나 2014년 5월에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은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11월, 웨스턴의 암세포가 복부로 전이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웨스턴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5월로 예정되어있던 결혼식을 1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화학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사라지기 전, 아직 아름다움이 남아있을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기 때문이다. 약혼자 다니엘 역시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br/>2014년 1월, 결혼식을 올린 뒤 다니엘과 웨스턴은 정식부부가 됐다. 하지만 불과 3일 후, 웨스턴은 2차 항암화학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br/>남편 다니엘의 헌신적인 간호로 웨스턴은 끝까지 암세포와 맞서 싸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 결국 2014년 5월 22일, 26세 나이로 웨스턴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와 남편이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했던 달에 다니엘은 사랑했던 부인을 영원히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br/>자궁경부암 검사는 여성 자궁경부, 질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비정상 세포나 암세포 전이 여부를 사전에 관찰해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검사방식은 작은 솔로 자궁경부 세포를 추출해 이를 유리 슬라이드에 바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검사 1~2일 전부터 대상자는 질 세척을 금지해야하며 생리 기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br/>현재 영국 보건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여성들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 제한연령을 25~60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25세 미만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경우 신체적으로 입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br/>하지만 남편인 다니엘은 영국 보건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 규정의 부당함이 아내의 사망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금 더 빨리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면 웨스턴의 항암치료효과가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궁경부암은 빨리 치료할수록 완치율이 높은데 1기초에 발견되면 100%, 1기 말은 80~90% 적어도 2기 초에 발견되면 70~80%의 생존율이 보장된다.<br/>다니엘은 “<span class='quot0'>아내가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서 검사를 부탁했을 때도 담당의사는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거부했다</span>”며 현재 이와 같은 비극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궁경부암 검사(cervical cancer screening test) 제한연령 완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3.txt

제목: ‘말기암’ 해석 제각각&#57747;명확한 정의 필요  
날짜: 2014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12900351  
본문: 　‘말기암’ 이라는 용어가 분명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준구 전문의)은 2008~2009년까지 국내 17개 병원의 암환자 1242명과 암환자 가족 1289명, 암전문의 303명, 일반인 1006명 등 총 3840명을 대상으로 ‘말기암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를 물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br/>　 조사 결과, 말기암을 시한부 선고(6개월 이내에 사망)로 본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난치암(항암치료에도 암이 진행) 21.2%, 재발·전이암 19.4%, 임종기(수일 또는 수주 내 사망) 11.4%, 국소암(초기는 지났으나 완치 가능) 2.5% 등의 순이었다.<br/>　의학적으로 말기암은 환자가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수술·방사선 치료·항암화학요법 등 완치나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보다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말한다.<br/>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이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말기암을 해석하는 대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을 치료나 생명연장이 가능한 재발암이나 전이암·국소암으로 이해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말기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br/>　특히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단순 용어에 대한 해석을 넘어 차후 환자와 관련된 응답자들 간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환자에게 말기암 사실을 알리는 문제와 관련, 말기암을 ‘수일·수주 내 사망’ 으로 이해한 가족의 78.1%, ‘국소암’ 으로 이해한 가족의 92.6%가 괜찮다고 답했다. 또 말기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말기암을 ‘난치암’이라고 응답한 가족은 91.9%, ‘국소암’이라고 응답한 가족은 69.2%가 괜찮다고 답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가족 뿐 아니라 다른 응답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br/>　이번 연구는 최근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기암’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차후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말기암에 대한 해석 차이는 말기 통보나 연명의료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은 물론 심각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보건복지부와 전문가 집단은 말기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에게 말기암에 대한 보다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Medical Decision Making) 8월호에 게재됐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4.txt

제목: 험프리 보가트의 영원한 연인, 원조 섹시 배우 로렌 바콜 사망, “보가트 곁으로 가다”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11339754  
본문: 1940∼50년대 은막을 주름잡았던 할리우드 여배우 로렌 바콜(90)이 12일(현지시간) 별세했다.<br/>　AFP 통신은 바콜이 이날 아침 집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br/>　바콜의 남편이었던 영화배우 험프리 보가트의 재단도 트위터를 통해 바콜의 사망 소식과 함께 “<span class='quot0'>그녀의 놀라운 삶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span>”고 밝혔다.<br/>　바콜은 1942년 잡지 표지모델을 계기로 영화계에 발을 내디딘 뒤 영화 ‘소유와 무소유’로 데뷔했다. 함께 출연했던 25세 연상의 보가트와 1945년 결혼했다.<br/>　1957년 보가트가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 두 자녀가 있다.<br/>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한동안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브로드웨이 연극무대에 등장해 토니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br/>　프랭크 시내트라와 잠시 염문을 뿌렸던 바콜은 1961년 배우 제이슨 로바즈와 재혼했다. 1970년대 할리우드로 다시 돌아와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을 비롯해 ‘더 팬’, ‘미저리’ 등의 영화에 잇따라 출연했다.<br/>　1996년 영화 ‘로즈 앤 그레고리’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처음 올랐으나 상은 ‘잉글리쉬 페이션트’ 주연을 맡은 여배우 줄리엣 비노쉬에게 돌아갔다.<br/>　2000년대 들어서도 ‘도그빌’,‘만델레이’ 등의 영화에 조연으로 잇따라 나왔다. 올해초 개봉한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에서는 목소리 연기를 했다.<br/>　바콜은 섹시한 미모와 174㎝의 큰 키는 물론 허스키한 목소리와 직설적 화법으로도 유명했다. 2004년에는 영화 ‘탄생’에 함께 출연했던 니콜 키드먼을 ‘초보자’라고 혹평하기도 했다.<br/>　바콜은 당대를 주름답던 배우답게 내노라하는 배우들과 공연했다. 영맨 위드 어 혼(1950)에서는 커크 더글라스와,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1953)에서는 마릴린 몬로와, 바람에 쓴 편지(1956)에서는 룩 허드슨과, ‘블러드 앨리(1955)에서는 존 웨인과 연기했다. 특히 데뷔작인 소유와 무소유(1944), 명탐정 필립(1946), 다크 패시지(1947), 키 라르고(1948) 등에서는 험프리 보가트와 함께 했다.<br/>사진:ⓒ AFPBBNews=News1<br/>연예팀 seoulen@seoul.co.kr<b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5.txt

제목: 고추 매운맛 ‘캡사이신’ 과다 섭취하면 암 발생 우려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11300917  
본문: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즐기면 위암에 걸린다’는 세간의 속설이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암세포에 맞서 싸우는 인체의 아군 격인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위암 등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울산대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의학과) 교수팀은 캡사이신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캡사이신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인체 자연살해세포의 세포질 과립 방출 기능에 장애를 초래,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자연살해세포란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암세포를 만나면 암 세포막에 구멍을 낸 뒤 세포질 과립을 분비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항암면역세포이다.<br/>　연구팀은 다양한 암세포를 대상으로 캡사이신을 10μM, 20μM, 50μM, 100μM(마이크로몰․백만분의 1몰) 등 각각 양을 달리 해 투여한 뒤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비교 분석했다.<br/>　그 결과, 위암세포 ‘AGS’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뜻하는 세포질 과립 방출 정도가 캡사이신 투여 전 15%에서 고용량인 50μM을 투여한 뒤에는 10%로 활성도가 무려 33%나 떨어졌다.<br/>　또 자연살해세포 기능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혈액암세포 221’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캡사이신 투여 전 32%에서 50μM 투여 후 16%, 100μM 투여 후에는 4%로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됐다.<br/>　반면, 저용량에 해당하는 10μM, 20μM을 투여했을 때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28%, 27%로 투여 전의 32%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캡사이신에 의한 자연살해세포 활성억제에서 사람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br/>　즉, 캡사이신 자체가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캡사이신을 섭취할 경우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살해세포를 위축시켜 간접적으로 암 발생을 돕는 셈이다. 김헌식 교수는 “<span class='quot0'>자연살해세포 활성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용량 캡사이신에 대한 활성억제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캡사이신을 고용량으로 섭취할 개연성이 큰만큼 주의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　그런가 하면 캡사이신은 체내 수용체인 ‘TRPV1’ 단백질과 결합해 항암활성을 나타내는데, 고용량의 캡사이신은 TRPV1과 결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장애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TRPV1이 부족하거나 민감성이 떨어지는 30~40대 이후 성인이 캡사이신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암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br/>　그동안 캡사이신은 암 억제나 진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항암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으로, 암세포에만 국한됐던 캡사이신에 대한 연구를 항암면역세포로까지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김헌식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캡사이신 연구가 암에만 국한됐던 반면 이번 연구는 항암면역세포 활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캡사이신에는 항암, 통증완화 등 유용한 생리 활성성분도 많은 만큼 적당하게 먹으면 나쁠 게 없지만 지나치게 매운 고추는 피하는 것이 좋다</span>”고 권고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권위있는 국제 SCI 학술지 ‘칼시노제네시스(발암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6.txt

제목: 브라질 교육청, 여교사에 ‘처녀성 검사’ 논란  
날짜: 2014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5347137  
본문: 삼바의 나라 브라질이 성(性)적으로 매우 개방적일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인 것 같다.<br/><br/>브라질 상파울루시 교육청이 교사를 지망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처녀성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교사 지망생인 27세 여성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으며 그녀는 다른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의사에게 처녀라고 고백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br/>상파울루 교육청이 논란이 예상되는 처녀성 검사를 하며 내건 명목상의 이유는 건강 검진이다. 자궁경부암등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의 유무와 더불어 교사 지망생들의 품행을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br/>교육청 측은 “<span class='quot0'>교사가 되면 평균적으로 25년 이상은 교단에 서게된다</span>” 면서 “<span class='quot0'>지원자들의 물리적, 정신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같은 건강 검진을 하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건강 검진은 지난 2012년 부터 시작됐으며 40세 이상 남성 교사는 전립선암 검사를, 여성 교사는 유방암 검사도 의무화 하고 있다.<br/>문제는 주법에 따라 상파울루 교육청의 이같은 건강 검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이다.　<br/>그러나 현지 여성단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상파울루 여성단체 올리베리아 카스트로는 “<span class='quot1'>처녀성과 같은 정보는 여성으로서 간직할 권리가 있는 매우 사적인 영역</span>” 이라면서 “<span class='quot1'>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존엄성을 침범하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7.txt

제목: “밤에 불 켜고 자면 암세포 성장속도 2배↑”  
날짜: 2014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5154884  
본문: 수면을 취하는 한밤중에 쬐는 불빛이 암세포 성장 속도를 높여 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 의학과 연구진이 “<span class='quot0'>야간 불빛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켜 향후 항암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span>”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br/>연구진은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실험용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야간 조명을, 나머지 한 그룹은 불빛하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각각 12시간 씩 보내게 한 뒤 암세포 성장 속도 차이를 관찰했다. 단, 실험에 사용된 야간조명 조도(Lux)는 0.2로 모두 일정했다.<br/>결과는 놀라웠다. 야간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밤을 보낸 쥐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밤을 보낸 쥐들에 비해 암세포 성장 속도가 2.6배나 빠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br/>야간 조명은 항암치료제의 효력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어둠속에서 밤을 보낸 쥐와 야간 조명 속에서 밤을 보낸 쥐 모두에게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을 투여하고 경과를 살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타목시펜은 야간 조명에 켜진 상황에서는 쥐 몸속에서 별 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어둠 속에서 밤을 보낸 쥐 몸속에서는 적절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br/>주목할 만한 것은 야간조명을 켠 상태에서 밤을 보낸 쥐의 몸속에 멜라토닌 호르몬을 주입했을 때, 다시 타목시펜이 체내에서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간뇌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생체리듬 관여 호르몬으로 대표적인 수면유도 물질이면서 동시에 암세포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해당 연구결과는 밤중 불빛이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암세포 성장과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br/>툴레인 의과대학 스티븐 힐 연구원은 “<span class='quot1'>밤에 불 켜고 자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져 생체리듬을 엉키게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는 자연히 유방암은 물론 다른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연구진은 인간은 쥐에 비해 빛에 덜 민감하기에 해당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다만 야간 불빛과 암 세포 성장과의 관계는 충분히 의심해볼 여지가 있기에 “<span class='quot2'>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암 연구 저널(journal Cancer Research)’ 8월 이슈로 소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8.txt

제목: 양ㆍ한방 협진, 장덕한방병원 면역 클리닉‘황토와 편백나무’ 오픈  
날짜: 2014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5128946  
본문: 지난 7월 서울 서초동에 장덕한방병원의 면역 클리닉‘황토와 편백나무’가 문을 열었다. 어깨치료로 유명한 장덕한방병원과 면역 암 치료를 해온 에이엠한의원이 힘을 모아 새롭게 암 환우를 위한 면역 클리닉‘황토와 편백나무’를 확장 오픈했다.<br/>면역 클리닉 황토와 편백나무는 도심 속 대자연에서 한의사와 전문의가 폐암, 위암, 간암, 유방암, 뇌종양 등 암 환우를 위하여 양·한방 협진 통합 면역 암 치료를 시작했다. 황성주박사와 함께 사랑의 클리닉에서 진료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한동 센터장과 한방병리학 교수로 한방 암치료를 연구해 온 하지용 박사와 면역약침을 연구해온 이아람 박사, 진용재 박사, 곽병훈 박사 등이 암(癌)치료를 위해 힘을 모았다.<br/>통합 면역 암 치료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고주파 온열암치료, 전신 온열암치료, 고농도 비타민요법, 셀레늄요법, 미슬토요법, 거슨요법, 바이오포톤요법, 면역약침, 면역발효한약, 면역비훈요법, 면역온열요법 등을 사용한다. 통합 면역 암 치료는 항암제의 효과는 높여주고 부작용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암성 통증과 항암제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증상을 줄여주며 기력과 식욕을 키워준다.<br/>면역 클리닉 황토와 편백나무는 암 환우를 위해 걸어서 10분 거리의 우면산 산책로에 위치했다. 또한 입원실을 황토와 편백나무로 꾸며서 도심 속에서 자연치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약선 요리사가 환자 맞춤 약선 식단을 제공하고, 음악치료사가 매일 음악치료를 통해 암 환우의 마음치료도 하고 있다. 유한동 면역 클리닉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암 환우가 황토와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장덕한방병원에서 통합 면역 암 치료로 새 희망을 찾도록 하겠다.</span>”고 전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899.txt

제목: 암 치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합식이치료로 출발하라  
날짜: 2014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104751300  
본문: 암 환자의 치료는 ‘무엇을 먹는가’로부터 출발한다. 암 환자는 암 치료에 좋은 음식이나 항암치료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음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는 음식 등 수 많은 음식 중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주치의에게 음식 하나하나 섭취 여부를 물어볼 수도 없고, 아예 먹지 않자니 주변 환자들 중 나만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br/><br/>그래서 암 환자는 항상 ‘무엇’을 먹어야 할 지가 고민이다. 암 환자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Rowan T. Chlebowski 박사가 Journal of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식이관리를 통해 재발율을 낮출 수 있다. 2437명의 유방암환자를 7년간 연구한 결과 저지방 식이를 유지한 환자 군의 재발율은 9.8%였던 반면, 지방을 많이 섭취한 환자 군의 재발율은 12.4%에 이르렀다. <br/><br/>또한 메사츄세츠 대학병원의 James R. Herbert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식이조절을 통해 암환자의 치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의 활성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문 발표들을 종합해 볼 때 암환자의 식이조절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통합식이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재발율을 줄이는 적극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br/><br/>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상황과 건강상태에 맞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암치료 중 호중구 수치가 많이 떨어질 경우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질 수 있고, 철분 섭취가 중요해지는 시기, 총 에너지량이 중요해지는 시기도 있다. <br/><br/>암 환자를 위한 통합식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큐어람한의원 임창락 원장은 “<span class='quot0'>본인의 소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현재 본인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span>” 라고 말했다<br/><br/>통합식이치료의 시작은 현재 환자가 먹고 있는 식단에 대한 분석이다. 환자를 위한 식단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하기 쉽지 않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환자의 입맛에 맞지 않아 균형 있는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로 환자가 먹고 있는 식단을 분석해 모자라거나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식이치료의 시작이어야 한다. <br/><br/>식단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흡수율이 다르고, 시행 중에 있는 치료방법 및 치료약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체내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단과 현재 환자의 치료과정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뒤따라야 체계적인 식단관리가 가능해진다.<br/><br/>암 치료의 시작은 식이관리이다. 또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통합식이치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먹는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0.txt

제목: 나와라! 가제트 만능팔…MIT ‘생체공학 로봇시스템’ 화제  
날짜: 2014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4925377  
본문: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미국·프랑스·캐나다·일본 4개국 합작 애니메이션 ‘형사 가제트’를 보며 주인공 가제트 형사(Inspector Gadget)가 “나와라 만능 팔”이라 외치면 나타나는 모자가 열리면서 돋보기, 망치, 선풍기(?) 같은 각종 도구를 든 로봇 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유심히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또는 지난 2004년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2의 악역인 닥터 옥토퍼스가 촉수를 연상시키는 금속 팔로 고층빌딩을 오르내리는 장면에서 감탄했던 기억도 함께 있을 것이다.<br/>그런데 만화나 영화 속 에서나 봤던 생체공학 인공 팔은 사실 지금 현실에서 조금씩 실용화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연구진이 개발한 ‘어깨고정 인공 팔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공학의 세계를 5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MIT 로봇공학 연구진이 개발한 이 인공 로봇 팔은 어깨와 엉덩이 부분에 이르는 등 부위에 장착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여분의 팔이 사용자를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들기 어려운 무게의 물건을 대신 들어주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천장을 받쳐줘 그 밑에서 나사를 조이는 등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층 공사현장에서 이동 시 작업자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철근을 대신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물건을 들고 문을 열 때, 따로 물건을 내려놓을 필요 없이 문을 대신 열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br/>공개된 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이 로봇 팔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첨단센서가 내장돼 있기 때문인데, 손목에 장착하는 2개의 센서와 어깨에 장착되는 또 하나의 센서가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해 그대로 따라하도록 설계됐다.<br/>MIT 연구진 외에도 로봇 팔을 연구 중인 기관은 또 있다. 국내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에서 개발한 로봇 팔이 옥포조선소 현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탄소,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이 로봇 팔은 패딩 끈을 허벅지, 허리, 가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장착되는데 움직임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도 타이탄 암(Titan arm)이라는 명칭의 인공 로봇 팔을 개발했다.<br/>이 연구들은 미래 인간 삶에 로봇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다. MIT 연구진은 “<span class='quot0'>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인체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동영상·사진=MIT d’Arbeloff Laboratory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1.txt

제목: 가제트 만능팔 현실화…MIT ‘어깨고정 로봇시스템’ 화제  
날짜: 2014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4427009  
본문: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미국·프랑스·캐나다·일본 4개국 합작 애니메이션 ‘형사 가제트’를 보며 주인공 가제트 형사(Inspector Gadget)가 “나와라 만능 팔”이라 외치면 나타나는 모자가 열리면서 돋보기, 망치, 선풍기(?) 같은 각종 도구를 든 로봇 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유심히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또는 지난 2004년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2의 악역인 닥터 옥토퍼스가 촉수를 연상시키는 금속 팔로 고층빌딩을 오르내리는 장면에서 감탄했던 기억도 함께 있을 것이다. <br/>그런데 만화나 영화 속 에서나 봤던 생체공학 인공 팔은 사실 지금 현실에서 조금씩 실용화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연구진이 개발한 ‘어깨고정 인공 팔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공학의 세계를 5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MIT 로봇공학 연구진이 개발한 이 인공 로봇 팔은 어깨와 엉덩이 부분에 이르는 등 부위에 장착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여분의 팔이 사용자를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들기 어려운 무게의 물건을 대신 들어주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천장을 받쳐줘 그 밑에서 나사를 조이는 등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층 공사현장에서 이동 시 작업자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철근을 대신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물건을 들고 문을 열 때, 따로 물건을 내려놓을 필요 없이 문을 대신 열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br/>공개된 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이 로봇 팔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첨단센서가 내장돼 있기 때문인데, 손목에 장착하는 2개의 센서와 어깨에 장착되는 또 하나의 센서가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해 그대로 따라하도록 설계됐다.<br/>MIT 연구진 외에도 로봇 팔을 연구 중인 기관은 또 있다. 국내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에서 개발한 로봇 팔이 옥포조선소 현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탄소,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이 로봇 팔은 패딩 끈을 허벅지, 허리, 가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장착되는데 움직임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도 타이탄 암(Titan arm)이라는 명칭의 인공 로봇 팔을 개발했다.<br/>이 연구들은 미래 인간 삶에 로봇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다. MIT 연구진은 “<span class='quot0'>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인체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동영상·사진=MIT d’Arbeloff Laboratory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2.txt

제목: “대장암도 이제는 복강경 수술이 대세”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5643972  
본문: 　흔히 외과적 수술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장암 치료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개복수술 비율은 2009년 50%이던 것이 지난해 현재 22%로 줄었다. 흉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암수술 분야에서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br/>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김희철·윤성현·박윤아 교수팀은 최근 4년간 대장암과 직장암 수술을 분석한 결과, 복강경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br/>　연구팀에 따르면 대장암 수술 중에서도 복강경 수술은 2009년까지 50%를 밑돌았지만 2013년에는 전체 수술 10건 중 8건에 이를 정도가 됐다. 반면에 전통적 수술방식인 개복술은 2009년 50.5%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3년에는 22.3%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아졌다.<br/>　특히 복강경 수술 중에서도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싱글포트 수술이 비약적 성장세를 이뤘다. 2009년만 하더라도 전체 수술 건수 대비 0.7%에 불과했던 싱글포트 수술이 2013년에는 29.5%에 이르렀으며, 2012년부터는 개복수술 건수를 앞질렀다. <br/>　싱글포트 수술은 복부에 작은 구멍을 한 개만 뚫어 큰 수술을 진행하는 만큼 술기가 까다롭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아 보급이 더뎠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제는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br/>　이처럼 싱글포트를 포함한 복강경 수술이 확산되는 것은 기존의 개복수술에 비해 효과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 개복수술의 경우 15~20cm 정도의 큰 흉터를 남기지만 복강경은 보통 3~4곳에 1cm 내외의 절개창만 내면 된다. 특히 싱글포트 수술은 배꼽 부위 한 곳만 약 1.5~2.5cm 정도 절개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입원 기간도 개복술에 비해 2~3일이나 짧다. <br/>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김희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진단부터 치료 전 과정을 환자 중심의 협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 프로세스를 확립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바탕으로 싱글포트 등 무흉터 수술을 발전시켜 환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3.txt

제목: ‘과잉검진 논란’ 갑상선암 건보비 4년 새 2배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5142966  
본문: 갑상선암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의료비가 4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갑상선암 초음파 선별검사 등을 남발한 탓에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br/><br/><br/>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 2009년 1224억원에서 지난해 2211억원으로 4년 사이 배 가까이 증가했다. <br/><br/><br/>갑상선암 요양급여비 청구 건수도 2009년 67만 1771건에서 지난해 149만 822건으로 역시 4년 새 배 이상 급증했다. 환자 부담 의료비도 2009년 163억원에서 지난해 22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br/><br/><br/>갑상선암은 수술하지 않아도 일반인과 생존율이 비슷하고 일상생활에도 거의 지장이 없다. 발견 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생사가 결정되는 다른 암들에 비해 공격성이 현저히 낮고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착한 암’ 또는 ‘거북이암’으로 불린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07~2011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암이 주위 장기와 인접한 조직을 침범한 예도 90%가 넘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정부는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에게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br/><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4.txt

제목: 천국까지 함께할 두 손…어느 노부부의 마지막 순간  
날짜: 2014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4128401  
본문: 부부(夫婦)가 서로 금슬 좋게 평생 함께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인 백년해로(百年偕老)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부부가 있을까?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마주잡은 두 손을 놓지 않은 어느 노부부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br/>미국 ABC뉴스는 62년간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뒤로한 채, 불과 4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난 돈-막시안 심슨 부부의 사연을 3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노스다코타에서 토목 기사로 근무하던 돈 심슨이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 평생 머무르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우연히 방문한 이 지역 볼링장에서 첫 눈에 반한 막시안과 결혼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62년간, 돈-막시안 심슨 부부는 함께 세계를 여행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만끽했다.<br/>그러나 두 사람 모두 80대라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피할 수 없는 육체의 노쇠화를 겪어나갔다. 특히 부인인 막시안은 최근 암 선고를 받고 힘겨운 삶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나가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서로를 아꼈고 몸이 아픈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 노력했다.<br/>그러던 2주 전, 돈에게도 불행이 찾아왔다. 집에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크게 다친 돈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노쇠한 육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세는 계속 악화돼 돈 역시 언제 숨을 거둘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br/>각자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감한 부부는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다. 마지막 순간을 서로 함께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가족들은 부부의 의사를 존중해 집 방 한칸을 비워 두 개의 침대를 설치했고 암 투병중인 막시안 부인과 돈을 함께 누워있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로 옆에 위치한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수시로 손을 꼭 잡으며 용기와 격려가 담긴 말들을 주고받았다.<br/>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부인 막시안 심슨이었다. 가족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슨 부인은 암세포와 힘겨운 싸움을 마지막 숨결에 날려 보낸 뒤,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부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남편 돈도 4시간 후 조용히 눈을 감으며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br/>마지막 순간까지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은 가족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손녀인 멜리사 슬로안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한 두 분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다.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이곳에 존재했다”고 전했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5.txt

제목: 차병원, 유전자 검사로 암 발병확률 예측한다  
날짜: 2014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4604749  
본문: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은 이 병원 첨단연구암센터에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을 개설,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br/>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은 암환자 및 암 발병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이거나 숨겨진 암의 발병확률을 예측해준다. 만약 종양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조기검진·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규칙적인 운동 등 세심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br/>　모든 종양은 최고 15%가 유전성으로, 유전성 암은 여러 유전자들 중에서 특정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진 유전자 돌연변이가 원인이다. 이런 유전성 암은 다른 암에 비해 조기에 발병하고 다른 장기에서 암을 함께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난소암의 경우 자궁내막암·갑상선암·유방암·대장암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br/>　첨단연구암센터 이제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가족 중 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해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　한편, 분당차병원은 최근 첨단의학을 적용한 맞춤형 암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전자 치료 전문가인 이제호 교수를 첨단연구암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이제호 교수는 국내 최초로 부인암에 대해 분자유전학적 연구와 치료를 시도하는 등 국내 부인암 연구 및 치료 수준을 조직세포 차원에서 분자의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유전자요법연구회를 창설, 국내에 유전자요법 개념을 전파하는데도 기여했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6.txt

제목: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날짜: 2014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4315520  
본문: Q)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br/><br/><br/>A)공단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위암·유방암·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자궁경부암은 검진비용이 무료이고 나머지 암 검진은 본인이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7.txt

제목: “매운 고추, 대장암 등 암 치료에 효과적” (美 연구)  
날짜: 2014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4036781  
본문: 고추나 매운 커리(카레)에 든 캡사이신 성분이 대장암 등 내장과 관련한 암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실험용 쥐에게 캡사이신을 포함한 고추를 먹게 한 결과 대장암의 위험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 수명이 30% 가량 길어진 것을 확인했다. <br/>특히 캡사이신은 전 세계에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유명 관절염 치료용 소염 진통제보다 더 높은 효과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연구팀은 “캡사이신은 세표 내벽의 수용기에 자극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대장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 반응과 같다”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들이 식단에 캡사이신이 포함된 음식을 추가할 경우 암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br/>캡사이신은 입 안 피부의 매운맛 또는 열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 단백질인 TRPV1에 의해 감지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TPRV1이 상피세포 내부의 외벽에도 작용, 암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br/>원래 캡사이신은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캡사이신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TRPV1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결핍되는 부작용이 있다.<br/>캡사이신이 EGFR 단백질을 활성화해 많이 먹으면 피부암 등의 발병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도 있다.<br/>하지만 연구팀은 “TRPV1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캡사이신이 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봤을 때, 대장암 환자에게서 변형된 TRPV1 유전자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TRPV1의 결핍이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br/>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8.txt

제목: “매운 고추 속 캡사이신, 암 치료에 효과”  
날짜: 2014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4003584  
본문: 고추나 매운 커리(카레)에 든 캡사이신 성분이 대장암 등 내장과 관련한 암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실험용 쥐에게 캡사이신을 포함한 고추를 먹게 한 결과 대장암의 위험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 수명이 30% 가량 길어진 것을 확인했다. <br/>특히 캡사이신은 전 세계에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유명 관절염 치료용 소염 진통제보다 더 높은 효과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연구팀은 “캡사이신은 세표 내벽의 수용기에 자극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대장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 반응과 같다”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들이 식단에 캡사이신이 포함된 음식을 추가할 경우 암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br/>캡사이신은 입 안 피부의 매운맛 또는 열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 단백질인 TRPV1에 의해 감지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TPRV1이 상피세포 내부의 외벽에도 작용, 암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br/>원래 캡사이신은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캡사이신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TRPV1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결핍되는 부작용이 있다.<br/>캡사이신이 EGFR 단백질을 활성화해 많이 먹으면 피부암 등의 발병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도 있다.<br/>하지만 연구팀은 “TRPV1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캡사이신이 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봤을 때, 대장암 환자에게서 변형된 TRPV1 유전자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TRPV1의 결핍이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br/>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09.txt

제목: 공공장소에서 성관계 하다 걸린 68세女 감옥행  
날짜: 2014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3937585  
본문: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다 적발된 68세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br/>미국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녀 4명, 손자를 14명이나 둔 68세 여성 페기 클렘은 49세의 데이비드 바빌야 라는 남성과 지난 6월 2일 플로리다에서 ‘공공 성관계’를 맺다 경찰에 붙잡혔다.<br/>두 사람은 플로리다의 한 타운 광장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클렘은 상의까지도 모두 탈의한 상태였다. <br/>특히 클렘에게는 5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남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br/>암으로 다리 한 쪽을 절단한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끝까지 아내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r/>법정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그녀 역시 남편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br/>또 법정을 나설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br/>그녀와 ‘공공 성관계’를 나눈 남성 역시 6개월 징역형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 공중도덕에 피해를 입힌 대가로 벌금형을 함께 선고 받았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0.txt

제목: 전수경-에릭 스완슨 결혼, 힐튼호텔 총지배인과..‘월요일 결혼식 이유?’  
날짜: 20140801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2455409  
본문: ‘전수경-에릭 스완슨 결혼’<br/><br/>배우 전수경(48)이 오는 9월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다. 31일 한 매체는 한 뮤지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수경이 9월 22일 서울 힐튼호텔서 4년여간 만난 남자친구와 재혼한다”고 밝혔다. <br/><br/>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전수경이 뮤지컬에 출연 중이라서 공연이 없는 월요일에 식을 올린다</span>”며 “<span class='quot0'>예식장은 누구나 당연히 남편이 일하고 있는 힐튼호텔로 잡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전수경의 예비신랑은 에릭 스완슨 씨는 현재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총지배인이며,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44년간 큐레이터로 일했던 한국인 고(故) 조창수 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조씨는 93점의 국보급 문화재를 한국으로 환수하는데 힘썼던 민속학자다.<br/><br/>두 사람은 2010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에릭 스완슨 씨는 전수경이 갑상선 암 투병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많은 힘을 줬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br/><br/>앞서 전수경은 지난 2012년 4월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span class='quot1'>미국인 남자친구와 1년 째 열애 중이다</span>”라고 당당히 밝혔다. <br/><br/>당시 전수경은 “한번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서 관리비를 내기 위해 지갑을 여는데 5만 원 권이 가득했다”며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너 지갑 봤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에게 용돈을 줘 애정을 표시했다’라는 문자가 오더라”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게’라고 전했다”고 남자친구와의 애정을 과시한 바 있다.<br/><br/>전수경-에릭 스완슨 결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2'>전수경-에릭 스완슨 결혼..너무너무 축하드려요</span>”, “<span class='quot2'>전수경-에릭 스완슨 결혼..잘 어울린다</span>”, “<span class='quot2'>전수경-에릭 스완슨 결혼..예비신랑의 배려심이 상당한 듯</span>”, “<span class='quot2'>전수경-에릭 스완슨 결혼..오래오래 행복하세요</span>”등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 = 방송캡처 (전수경-에릭 스완슨 결혼)<br/><br/>연예팀 c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1.txt

제목: 전수경·에릭 스완슨 9월 22일 결혼 “갑상선암 투병 때 위로와 용기 줬다”  
날짜: 2014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1833524  
본문: 전수경·에릭 스완슨 9월 22일 결혼 “<span class='quot0'>갑상선암 투병 때 위로와 용기 줬다</span>” <br/><br/>뮤지컬 배우 전수경(48)이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총지배인 에릭 스완슨(55)과 결혼식을 올린다. <br/><br/>전수경의 소속사 메이딘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span class='quot1'>전수경이 4년 여 간 교제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총지배인 에릭 스완슨(55) 씨와 오는 9월 22일 결혼을 한다</span>”고 밝혔다. <br/><br/>이어 “뮤지컬에 출연 중인 전수경은 뮤지컬계에 몸담고 있는 하객들을 위해 월요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릭 스완슨은 스미스소니언박물관 한국인 큐레이터로 유명한 故 조창수 여사의 아들이기도 한다. <br/><br/><br/><br/>또 “전수경과 예비 신랑은 워낙 오랫동안 교제해온 사이라 두 사람의 사이가 깊고 주변 사람들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전수경은 지난 2012년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에서 “<span class='quot2'>갑상선 암 투병 당시 에릭 스완슨이 위로와 용기를 줬다</span>”라며 러브스토리를 밝힌 바 있다.<br/><br/>전수경과 에릭 스완슨은 2010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사랑을 키워왔으며 오는 9월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3'>전수경 에릭 스완슨 결혼, 정말 부럽다</span>”, “<span class='quot3'>전수경 에릭 스완슨 결혼, 앞으로 햄 볶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span>”, “<span class='quot3'>전수경 에릭 스완슨 결혼, 호텔 지배인이라니 정말 대단하네</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2.txt

제목: 전수경 오는 9월 웨딩마치, “방송에서 밝힌 ‘미국친구’가 바로...”  
날짜: 2014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1623471  
본문: 만능 엔터테이너 전수경(48)이 오는 9월 에릭 스완슨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총지배인과 결혼한다. 재혼이다. 전수경은 탤런트, 배우, 뮤지컬 등에 출연할 만큼 다재다능하다.<br/><br/>31일 한 매체는 뮤지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수경이 9월 22일 서울 힐튼호텔서 4년 여간 만난 남자친구와 재혼한다”고 밝혔다. <br/><br/>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전수경이 뮤지컬에 출연 중이라서 공연이 없는 월요일에 식을 올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예식장은 누구나 당연히 남편이 일하고 있는 힐튼호텔로 잡았다</span>”고 말했다. <br/><br/>에릭 스완슨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44년간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한국인 고(故) 조창수씨의 아들이다. <br/><br/>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에릭 스완슨은 전수경이 갑상선 암으로 힘들 때 많은 힘이 돼 준 것으로 알려졌다.<br/><br/>전수경은 2012년 4월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미국인 남자친구와 열애 중이라고 밝혔었다.<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3.txt

제목: 아침마당 KBS 목요특강, 한방암치료 전문가 김성수 한의사 출연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3549079  
본문: 31일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에 김성수 한의학 박사가 출연한다. <br/>암 발생률이 늘면서 다양한 치료법 연구와 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소적 수술이나 국소적 치료를 통해 암을 없애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후유증, 면역력 저하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br/>최근 의학계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양한방통합치료가 주목 받는 것도 같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br/>김성수 한의사는 “<span class='quot0'>암은 종양을 치료했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 무너졌던 삶을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전했다.<br/>김성수 한의사는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을 통해 삶의 질을 고려하는 암치료, 서양의학과 한방암치료를 결합해 치료율을 높인 사례, 기본적인 암 예방과 극복 방법을 전할 예정이다. <br/>한편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은 31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4.txt

제목: “임신 중 흡연, 태아 DNA에 ‘암’ 넣는 것”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3543829  
본문: 임신 중인 여성이 흡연할 경우 태아 유전자 형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의학전문매체 메디컬 엑스프레스는 미국 국립 환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연구진이 “<span class='quot0'>임신 중 흡연은 자녀 유전자에 좋지 않은 변화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다</span>”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br/>담배 연기 속에는 니코틴 등 7,000가지가 넘는 염기성 유기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며 이중 적어도 100가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특히 그중 69가지는 발암물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 DNA 형성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br/>지난 2001년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임신 중 체내로 유입된 담배연기는 태아 DNA 메틸화(DNA methylation)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등 생물 유전 발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화학적 프로세스로 거의 모든 종류의 암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br/>당시 연구진은 아동 173명과 그들 모친의 뺨 세포(cheek cell)를 추출해 해당 데이터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임신 중 흡연 여성이 낳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발암위험이 2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br/>이와 관련해 미국 국립 환경보건원 연구진은 최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총 889명의 신생아와 그들 모친의 혈액샘플을 비교해 흡연이 DNA 메틸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실험 결과, 889명의 신생아 중 287명의 모친이 임신 첫 주기에 흡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유전자에서는 110 개에 달하는 DNA 메틸화 반응이 확인됐다.<br/>연구진은 임신 중 흡연한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발암 위험은 물론 향후 저체중,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에 시달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span class='quot0'>DNA메틸화가 태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지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덧붙였다. <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환경건강전망 연구’(Journal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게재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5.txt

제목: 2030 여성 자궁 건강 적신호…자궁경부암 정기검진 미루면 안돼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0322377  
본문: 첫 성경험 나이가 어려지고 결혼 연령 또한 늦어지면서, 최근 젊은 여성층에서 자궁경부암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0’기 암으로 알려진 상피내암의 경우 2006년 약 1만8천 명에서 2010년 약2만8천 명으로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그 추세가 가파르다. 지난 28일 새누리당에서 자궁경부암 국가 암검진 실시 대상을 현행 만 30세 이상에서 2015년부터는 20대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br/><br/>아직까지는 결혼이나 임신 전의 2030 여성들이 산부인과 문턱을 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성층에서 HPV 감염률 및 상피내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혼 여성들도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기적인 검사을 받아야만 자궁경부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br/><br/>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이와 관련, 씨젠 HPV 검사는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HPV DNA를 직접 검사,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HPV (HPV 16, 18, 58, 52, 33, 31, 45 등)의 감염 여부를 개별 타입별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br/><br/>HPV는 각각의 타입에 따라 병이 진행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감염된 HPV 타입을 알면 다음 검사에서 같은 HPV 타입에 계속 감염된 상태인지, 아니면 새로운 HPV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개인별 자궁경부암 예방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br/><br/>㈜씨젠은 유전자 수준에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독창적인 동시다중 분자진단 검사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중에 있다. <br/><br/>또한, 씨젠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정기 검진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씨젠우먼.com/kr/)도 운영하고 있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6.txt

제목: [문소영의 시시콜콜] 보상할 수 없는 한 사람 목숨의 가격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90129787  
본문: “내가 뇌종양이래.” 한 달 전 친구가 이런 글을 보내 왔다. 순간적으로 그가 지난 1월 3년짜리 비정규직에 재계약 사인을 했다는 기억을 떠올렸고 조금 안도했다. 월급의 60%를 받으며 최장 1년의 병가 동안 투병할 수 있는 것이다. 코에서 발병한 희귀암으로 완치가 어렵다는 ‘선양낭포암’이었다. 이미 왼쪽 얼굴 전체를 암이 뒤덮어 안면마비가 왔고, 뇌와 목등뼈까지 번졌다. 불행 중 다행은 폐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것. 치료비가 걱정됐다. 암진단으로 보험금이 나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무엇보다 암·심장병·뇌졸중·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들의 고액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5%에 불과하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9월 암을 시작으로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가 시행돼 그 혜택을 보고 있단다. “<span class='quot0'>누가 너보고 암에 걸리라고 했느냐</span>”고 방관하는 대신, 국가가 환자와 그의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었다. <br/><br/>그를 보고 “왜 이리 늦게 왔느냐”고 의사들이 타박하지만 7년간 오진한 의사들 탓이다. 7년째 극심한 두통을 앓고 있던 그는 지난 연말 S병원에서 MRI를 찍은 뒤 ‘3차 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아 약을 먹어왔다. 두통이 더 심해져 A병원을 찾았을 때서야 선양낭포암 진단을 받았다. 그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모순되게도’ 7개월 전 오진을 받은 S병원에서 암 치료를 한다. 그는 “유능한 특진의사에게 진료를 못 받은 것이 7개월 전 오진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가 심화하면 빈부의 격차가 의료의 질에 반영될까 걱정한다. 돈벌이에 혈안인 병원이 유능한 의사를 부자가 독차지하도록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심으로 갈치조림을 먹으며 “내년 1월 복귀”라고 격려했으나 사실 그를 잃을까 두렵다. 그의 부재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부인, 딸, 며느리, 동생, 언니, 동료 그리고 나의 친구가 속절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실은 2000만~1억원의 암보험으로 위로될 수 없다. <br/><br/>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보상금과 보험금 등을 겨냥해 “가난한 집 애들이 죽어서 효도했다”거나 “시체장사 하느냐”와 같은 비인간적인 발언들이 횡행한다. 그들은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없는 것일까. 상실 후 지급된 보험금에 환호했을까. 적폐를 척결하자더니 참사 100일 만에 “누가 죽으라고 했느냐”라는 막말도 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지 마라. 오작동하던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니.<br/><br/>symu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7.txt

제목: [이성모의 어시스트] 사망한 뉴캐슬 팬 가족 “선더랜드 팬 성금, 암 단체 기부”  
날짜: 2014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3144843  
본문: “<span class='quot0'>피격된 여객기에서 두 명의 뉴캐슬 팬들이 사망한 것은 분명한 비극이지만, 이번에 선더랜드 팬들이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 잉글랜드의 동북부(North East) 사람들은 하나가 됐다</span>”(선더랜드 에코)<br/>지난주, 뉴캐슬의 프리시즌 투어를 보기 위해 피격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망한 뉴캐슬의 두 팬에 대한 선더랜드 팬들의 모금운동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지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격렬하기로 유명한 ‘타인위어더비’의 두 주인공인 뉴캐슬과 선더랜드의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br/>그리고, 두 구단의 팬들 사이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br/>선더랜드 지역지 ‘선더랜드 에코’를 비롯한 영국 매체들에서 최근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 이번에 사망한 뉴캐슬 팬의 가족들은, 선더랜드 팬들이 모은 성금을 2개의 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r/>인터넷에서 진행된 모금의 최초 목표액은 단 100파운드(약 17만 원)였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3만 파운드(약 5100만 원)가 넘습니다. 모금 시작 당시에는 ‘과연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던 모금운동이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암 자선단체에 도움을 줄 정도의 큰 모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br/>인터넷상에서의 모금이 아닌 또 다른 모금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br/><br/>선더랜드 지역의 음악 축제인 ‘선더랜드스플릿페스티벌(SUNDERLAND’S Split Festival)’ 주최측은, 8월 초에 열릴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지불한 티켓요금에서 5파운드(약 8500원)씩을 이번에 사망한 뉴캐슬 팬의 가족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해당 축제의 입장료는 나이에 따라 30~50파운드로 입장료의 10% 이상을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축제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뉴캐슬 팬들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br/>‘선더랜드 에코’ 지에서는 이번 뉴캐슬 팬들의 사망에 따른 선더랜드 팬들의 모금 운동과 그 모금액을 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나선 뉴캐슬 팬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 축제 티켓요금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공연단체 등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span class='quot1'>피격된 여객기에서 두 명의 뉴캐슬 팬들이 사망한 것은 분명한 비극이지만, 이번에 선더랜드 팬들이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 잉글랜드의 동북부(North East)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span>”고 평가했습니다.<br/>사진=말레이시아 여객기에서 사망한 뉴캐슬 팬들을 추모하고 있는 뉴캐슬 구단측(출처 선더랜드 에코)<br/>이성모 객원기자 London\_2015@naver.com<br/>트위터 https://twitter.com/inlondon2015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8.txt

제목: 영양 덩어리 ‘블루베리’…얼리면 의학적 효능↑  
날짜: 2014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2953548  
본문: 보랏빛 외형에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신맛이 섞인 특유의 풍미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블루베리를 얼리면 의학적 효능이 더욱 높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br/>의학전문매체 메디컬 엑스프레스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식품학과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얼릴 경우, 함유된 항산화물질 농도가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연구진은 수확 즉시 냉동된 신선한 블루베리를 1개월, 3개월, 5개월에 걸쳐 장기간 냉동보관하며 블루베리에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다.<br/>결과는 흥미로웠다. 냉동된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의 양과 농도는 전혀 줄어들거나 퇴색되지 않았다. 심지어 냉동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욱 짙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br/>안토시아닌(anthocyanin)은 꽃, 과일에 포함되어있는 색소이자 항산화물질로 말 그대로 체내 세포의 산화를 막아 신경계, 뇌, 심혈관 계통, 요로, 뼈, 시력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통상적으로 안토시아닌은 여러 항산화물질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블루베리에는 이 물질이 포도의 30배 이상 함유되어있다. 게다가 블루베리를 얼려주면 이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br/>본래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다른 식물조직의 방해로 일정부분 농도가 짙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냉동으로 인해 다른 식물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안토시아닌이 다른 방해 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농도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br/>연구를 주도한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식품학과 바실 다랄리 교수와 학부 졸업생 연구원 마린 플럼은 “<span class='quot0'>냉동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농도의 증가는 마치 도미노 효과와 같다</span>”고 밝혔다.<br/>자료사진=포토리아/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19.txt

제목: “‘협력진료’로 암환자 생존율 2배 높일 수 있어”  
날짜: 2014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82135228  
본문: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들이 모여 다학제적으로 협력진료를 하면 암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협력진료는 미국의 메이요클리닉 등에서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지만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br/>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폐암센터는 1997~2011년 사이 병원을 찾은 폐암환자 4246명을 협력진료 이전(2000~2004)과 협력진료 이후(2005~2011년)로 나눠 치료 예후를 비교한 결과, 5년 상대생존율이 17%에서 35%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기록된 우리나라 폐암환자의 5년 생존율 20.7%보다 높은 수치다.<br/>　5년 관찰생존율을 병기별로 보면, 협력진료 이후가 1기 80%,2기 55%,3기 22%,4기 10%로 협력진료 이전의 1기 54%, 2기 32%, 3기 9%, 4기 3%보다 골고루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관찰생존율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을 뜻한다.<br/>　또 협력진료 이후 5년 상대생존율도 1기 87%, 2기 60%, 3기 24%, 4기 11%로, 협력진료 이후의 1기 61%, 2기 35%, 3기 10%, 4기 4%보다 높았다. 상대생존율은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같은 연도의 동일한 성(性)과 연령을 가진 일반인구의 기대생존율로 나눈 값이다.<br/>　조사대상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2898명(68.3%), 여성 1348명(31.7%)이었다. 또 환자의 나이 중앙값은 66세, 주요 연령대별 비율은 40대 7.65%(325명), 50대 19.74%(838명), 60대 34.31%(1457명), 70대 27.32%(1160명), 80대 8.53%(362명) 등이었다.폐암의 병기별로는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폐암 3~4기 환자 비율이 71.4%였다.<br/>　폐암은 진단 후 5년 내에 85%가 사망하지만, 증상이 감기나 만성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환과 비슷해 조기에 알아내기 어렵다. 특히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별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간과 함께 ‘침묵의 장기’로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폐암은 조기진단과 함께 폐암진단 이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의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br/>　특히 폐암은 병기별 치료방법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지만,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2005년부터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에 소속된 20여명의 전문의와 전문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다학제적 협진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br/>　병원 측은 “예를 들어 폐암 2기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이 병원에 오면 의료진은 협진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진형 폐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폐암을 조기 발견하려면 여러 전문의간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히 병기가 2기나 3기까지 진행된 환자는 수술은 물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 암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환자중심의 협진시스템으로 신속하고 빠른 진료계획을 세우는 게 필수</span>”라고 강조했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0.txt

제목: 포스텍, 파킨슨 병·암 근본적 치료제 개발  
날짜: 2014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81449345  
본문: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킨슨병이나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다.<br/><br/><br/>포스텍(포항공과대)은 화학과 임현석 교수, 오미숙 연구교수팀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팀과 함께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한 파킨슨병·암 치료용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최근호를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은 암이나 파킨슨병이 단백질 상호작용의 문제로 발병한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백질 구조 속 나선구조(α-helix)의 모양을 모방해 유사한 물질을 만들면 단백질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몸에 이롭지 않은 상호작용의 경우는 이를 막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br/><br/><br/>연구팀은 이에 수천개의 나선구조 유사체 화합물을 이용해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MCL-1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화합물과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알파-시뉴클린(α-synuclein)단백질의 응집체 형성을 억제하는 화합물을 개발했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파킨슨병과 관련된 화합물은 새로운 개념의 파킨슨병 치료제로 앞으로 개발을 계속 진행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br/>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1.txt

제목: 유채영 위암 사망, 유채영 누구? ‘쿨 출신 만능엔터테이너’ [전문]  
날짜: 20140724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81214614  
본문: ’유채영 사망’<br/><br/>암 투병중이던 가수 유채영(41·본명 김수진)이 끝내 사망했다. 24일 유채영 소속사는 “이날 오전 8시 유채영이 위암 투병 끝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br/><br/>소속사는 “남편과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아쉽게도 유언은 없었다” 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녀의 생전 밝았던 모습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br/><br/>유채영은 지난 1989년 안양예술고등학교 재학 당시였던 17세에 그룹 ‘푼수들’ 멤버로 데뷔했고, 1994년 혼성그룹 쿨 1집 앨범 ‘너 이길 원했던 이유’로 활동하다 1995년 탈퇴했다.<br/><br/>이후 유채영은 1999년 솔로 가수로 다시 무대에 올라 ‘이모션(Emotion)’, ‘이별유애’를 발표했으며 가수뿐 아니라 연기와 예능을 넘나들며 활약했다.<br/><br/>생전에 유채영은 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 ‘색즉시공’, ‘패션왕’, ‘천명:조선판 도망자 이야기’등에 출연했다. 또 투병 중이던 지난 6월까지도 MBC 라디오 ‘좋은 주말’ DJ로 활동하며 밝은 웃음을 선사했다.<br/><br/>한편 2008년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 유채영은 지난 해 10월 말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암 세포 제거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되면서 결국 생을 마감했다. 유채영(본명 김수진)의 빈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다.<br/><br/>유채영 사망 소식에 네티즌은 “<span class='quot0'>유채영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pan>”, “유채영 사망, 안타깝다”, “<span class='quot0'>유채영 사망, 밝은 모습 오래도록 기억할게요</span>”, “<span class='quot0'>유채영 사망..기적을 바랬는데</span>”, “유채영 사망..눈물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 <br/><br/>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br/><br/>안녕하세요. 150엔터테인먼트 입니다.<br/><br/>가수 겸 배우 유채영(본명 김수진)이 향년 41세(만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br/><br/>지난 해 10월 위암 말기 판정을 선고 받아 투병 중이던 유채영이 24일 오전 8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br/><br/>남편과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아쉽게도 유언은 없었습니다.<br/><br/>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유족으로는 남편 김주환 씨가 있습니다.<br/><br/>위암 투병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녀의 생전 밝았던 모습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故 유채영 님의 명복을 빕니다.<br/><br/>사진 = 서울신문DB (유채영 사망)<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2.txt

제목: 유채영 사망 “눈 한번씩 뜨고 가족·김현주 씨와 눈 마주쳐…애끓는 심정”  
날짜: 2014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81131704  
본문: 유채영 사망 “눈 한번씩 뜨고 가족·김현주 씨와 눈 마주쳐…애끓는 심정” <br/><br/>연기자 겸 가수 유채영(본명 김수진)이 24일 오전 8시 위암으로 별세했다. 41세. <br/><br/>유채영 측은 이날 “유채영 씨가 지난해 10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같은 달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서 투병했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br/><br/>이어 “지난 20일 상태가 갑자기 악화했다”며 “남편과 가족, 배우 김현주·방송인 박미선과 송은이 씨가 임종 때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아쉽게도 유언은 없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생전 밝았던 모습을 오래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유채영의 투병 소식은 지난 21일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이후 연예계 안팎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사흘 만에 그는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br/><br/>그동안 유채영의 병실은 남편과 어머니, 시어머니 등의 가족과 배우 김현주가 지켰다. <br/><br/>이 측근은 “유채영 씨가 눈을 한 번씩 뜨고서 가족, 김현주 씨와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며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로 체력이 너무 약해져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br/><br/>유채영은 지난해 9월 1990년대 가수들의 합동 공연인 ‘리바이벌(Revival) 1990’s 나이트 콘서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밝은 모습을 보였다. <br/><br/>그러나 한달 후 속이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았고 위암 판정으로 바로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여서 항암 치료에만 전념해왔다. <br/><br/>그는 투병 중에도 MBC 라디오 ‘좋은 주말’을 진행하면서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1주일에 한번씩 녹음을 했지만 지난달 하차할 때까지 청취자들은 투병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br/><br/>1994년 혼성그룹 쿨로 데뷔해 혼성듀오 ‘어스’로도 활동한 유채영은 1999년 솔로 가수로 나서 대표곡 ‘이모션’(Emotion), ‘이별유애’ 등으로 사랑받았다. 2009년 싱글 ‘어나더 디케이드’(Another Decade)가 마지막 음반이다. <br/><br/>연기로도 영역을 넓힌 그는 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2006), ‘색즉시공 2’(2007)를 비롯해 드라마 ‘패션왕’(2012), ‘천명:조선판 도망자 이야기’(2013) 등에서 코믹 연기를 선보이며 개성파 조연으로 주목받았다. <br/><br/>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재치있는 입담과 코믹한 캐릭터로 사랑받았으며 라디오 DJ로도 활약해 지난해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남편 김주환 씨가 있다. <br/><br/>네티즌들은 “유채영 사망, 임종 지킨 김현주, 이렇게 훌륭한 배우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다니 안타깝다”, “유채영 사망, 임종 지킨 김현주, 너무 슬프고 안타깝네요. 명복을 빕니다”, “유채영 사망, 임종 지킨 김현주, 암 투병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고통 잊고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3.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사망..유채영 누구?  
날짜: 20140724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80923743  
본문: ’유채영 사망’<br/><br/>암 투병중이던 가수 유채영(41·본명 김수진)이 끝내 사망했다. 24일 유채영 소속사는 “이날 오전 8시 유채영이 위암 투병 끝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br/><br/>유채영은 생전에 유채영은 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 ‘색즉시공’, ‘패션왕’, ‘천명:조선판 도망자 이야기’등에 출연했다. 또 투병 중이던 지난 6월까지도 MBC 라디오 ‘좋은 주말’ DJ로 활동하며 밝은 웃음을 선사했다.<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4.txt

제목: 유채영 사망, 위암 말기 사망 [전문]  
날짜: 20140724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80738576  
본문: ’유채영 사망’<br/><br/>암 투병중이던 가수 유채영(41·본명 김수진)이 끝내 사망했다. 24일 유채영 소속사는 “이날 오전 8시 유채영이 위암 투병 끝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br/><br/>소속사는 “남편과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아쉽게도 유언은 없었다” 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녀의 생전 밝았던 모습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2008년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 유채영은 지난 해 10월 말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암 세포 제거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되면서 결국 생을 마감했다.<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5.txt

제목: “엄마는 널 놓지 않아” 암투병 아들 품은 모정(母情)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2526568  
본문: 아무리 치명적인 질병이 몸을 괴롭혀도 따뜻한 모정(母情)이 스며들면 완치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다. <br/>미국 CBS 방송계열 지역매체 WBTV는 전 세계 수많은 투병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아름다운 모자(母子)의 사진을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br/>해질 무렵, 붉은 석양이 물들고 있는 플로리다 보카 그란데 해변에서 한 여성이 아들을 꼭 품고 서있다. 다소 지쳐 보이는 것 같은 아들은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고 있고 이런 아들의 귓가에 엄마는 조용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뭉클한 모정(母情)이 느껴지는 이 사진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br/>이 사연의 주인공은 현재 버지니아에 거주 중인 자크 그라빌 가족이다. 그라빌의 아들인 에이든은 4살 때인 작년 3월, 신장 암 종류인 빌름스 종양(Wilms tumor) 진단을 받았다. 3세 미만 갓난아기에게서 많이 발병되는 이 질환은 소아 복부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으로 에이든은 어린 나이에 오른쪽 신장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했다.<br/>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대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치료를 어린 몸으로 받아낸 에이든의 심신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진 역시 신장을 제거한 직후 지쳐있던 에이든을 위로하던 자크의 아내 아리엔의 모습을 렌즈에 담은 것이었다.<br/>하지만 기적은 이뤄졌다. 그해 10월 에이든의 몸 속 종양들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다. 최근 5살이 된 에이든의 모습에서 예전의 병약했던 기운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까지 추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에이든의 건강은 몰라보게 호전됐다.<br/>최근 플로리다 보카 그란데 해변을 다시 찾은 자크 그라빌 가족은 바로 작년에 포즈를 취했던 해당 장소를 다시 방문했다. 변호사로 재직 중인 그라빌은 “<span class='quot0'>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느껴진다</span>”고 설명했다. <br/>한편, 에이든과 아리엔의 사진은 글로벌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 페이스북에 게시돼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특히 에이든과 같은 악성질병과 싸우고 있는 전 세계 투병인들은 이들의 사진에게서 큰 용기를 얻었고 수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6.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위독, 남편 김주환 “제발 기도해주세요” 팬들과 함께 간절한 기도 “어제 위기 넘긴 원동력”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5352726  
본문: 유채영 위암 말기 위독, 남편 김주환 “제발 기도해주세요” 팬들과 함께 간절한 기도 “어제 위기 넘긴 원동력”<br/><br/>가수 겸 배우 유채영이 위암 말기로 위독한 상태라는 소식이 22일 전해졌다. <br/><br/>이날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채영의 한 측근은 “유채영은 21일 오후 한때 무척 힘든 상황을 맞았다. 그 순간들을 본인이 잘 이겨냈고 지금은 어제보다 안정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채영의 곁을 남편과 가족이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영은 같은 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채영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다. <br/><br/>유채영의 남편 김주환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채영이의 병세가 위중하다”면서 “채영이는 활동하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줬다. 채영이를 아는 분들은 기사를 본 뒤 꼭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br/>이같은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에 연예인 동료들이 직접 나서 유채영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br/><br/>22일 정준하는 자신의 트위터에 “저를 위해 항상 마음써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밤은 우리 유채영씨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br/><br/>김미연 역시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기도해 주세요…우리 채영 언니 버텨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br/><br/>네티즌들은 “유채영 위암 말기, 힘든 시기 겪고 나면 다시 희망이 찾아올거에요”, “유채영 위암 말기, 병원에서 힘들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유채영 위암 말기, 말기암 정말 고통스러울텐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견디고 이겨왔네요. 고통 없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7.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어제 위기 상황 이겨내” 남편 김주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티즌 “우리도 응원할게요” 뭉클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5347896  
본문: 유채영 위암 말기 “어제 위기 상황 이겨내” 남편 김주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티즌 “우리도 응원할게요” 뭉클<br/><br/>가수 겸 배우 유채영이 위암 말기로 위독한 상태라는 소식이 22일 전해졌다. <br/><br/>이날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채영의 한 측근은 “유채영은 21일 오후 한때 무척 힘든 상황을 맞았다. 그 순간들을 본인이 잘 이겨냈고 지금은 어제보다 안정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채영의 곁을 남편과 가족이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영은 같은 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채영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다. <br/><br/>유채영의 남편 김주환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채영이의 병세가 위중하다”면서 “채영이는 활동하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줬다. 채영이를 아는 분들은 기사를 본 뒤 꼭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br/>이같은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에 연예인 동료들이 직접 나서 유채영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br/><br/>22일 정준하는 자신의 트위터에 “저를 위해 항상 마음써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밤은 우리 유채영씨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br/><br/>김미연 역시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기도해 주세요…우리 채영 언니 버텨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br/><br/>네티즌들은 “유채영 위암 말기, 말기암 환자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완쾌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힘내시고 기운내세요”, “유채영 위암 말기, 병마를 이기고 스크린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유채영 위암 말기, 정말 우리에게 웃음을 많이 준 분인데 이런 고통을 주시다니.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8.txt

제목: 뇌졸중 예방까지…사과의 놀라운 효능 4가지  
날짜: 2014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2440983  
본문: 탐스러운 붉은 색 껍질에 아삭하고 달콤한 과육이 풍미를 자극하는 과일 ‘사과’는 날로 먹는 경우도 많지만 유럽에서는 이를 튀기거나 즙을 내 젤리, 스튜, 고기요리에 곁들이는 등 폭 넓은 활용성을 자랑한다. <br/>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C가 풍부해 동맥경화 예방, 폐질환 예방 등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사과는 ‘기적의 과일’이라는 보기 드문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br/>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생각보다 깊숙이 알고 있지 못한 ‘사과’의 영양학적 장점 4가지를 최근 소개했다.<br/><br/>1. 피부미용+피로회복<br/>사과 속에는 다량의 비타민C 성분이 함유되어있다. 그중 절반이상이 사과껍질에 있기에 이를 적절히 섭취해주면 피부미용과 피로회복 그리고 노화방지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칼륨도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br/>2. 심장보호<br/>사과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몸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압상승을 막아줘 죽상 동맥 경화증과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2011년 플로리다 주립 대학 영양 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매일 말린 사과 75g을 먹은 여성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3% 감소됐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4%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br/>3. 뇌졸중 예방<br/>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물질인 페놀산은 체내 유해산소를 억제해 뇌졸중 발병을 예방한다. 또한 함께 들어있는 황색 플라보노이드인 퀘세틴은 담배연기 등으로 폐가 망가지는 것을 보호해준다. <br/>4. 항암 작용<br/>최근 미국 암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과 속 항산화물질 함량은 과일 중에서도 특히 높은 편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해줄 경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하와이의 한 의학연구 통계를 보면 사과를 정기적으로 먹어준 사람은 폐암 발병 위험이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29.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젊은 여성 암 주의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날짜: 20140722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4938440  
본문: ‘유채영 위암 말기’<br/><br/>연기자 겸 가수 유채영(41)의 위암 말기 소식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br/><br/>유채영 측은 21일 “유채영이 위암 말기로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채영의 남편 김주환씨는 “채영이의 병세가 위중하다. 채영이가 활동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다. 채영이를 아는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본 뒤 기도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몸에 이상을 느껴 건강검진을 받던 중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곧바로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암세포가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돼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br/><br/>젊은 여성 환자의 위암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필수다. 이는 나이, 성별을 떠나 모두에게 해당한다. 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소화불량, 체중감소, 속 쓰림 등이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위장약만 먹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br/><br/>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과 노성훈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은 적절하게만 치료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span>”이라고 강조한다. 너무 늦게 발견하지만 않는다면 위암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40세 이상은 1, 2년에 한 번은 내시경검사를 받고 40세 이하라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린 증세가 1~2주 이상 지속되면 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br/>노성훈 교수는 위암을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유전성이 10% 미만이므로 생활습관만 관리해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금연과 절주를 하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짠 음식, 불에 탄 음식, 매운 음식은 위암 발병률을 높인다. <br/><br/>채소와 우유, 된장, 인삼도 위암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를 떨치고 낙관적으로 지내고 헬리코박터는 일부 위암의 원인이므로 약을 복용해 없애도록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강화된다. <br/><br/>유채영 위암 말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채영 위암 말기..너무 안타깝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유채영 위암 말기..꼭 기도 할게요”, “유채영 위암 말기..밝은 모습 너무 보기 좋았는데”, “유채영 위암 말기..어떻게 이런 일이”, “유채영 위암 말기..눈물난다”등 반응을 보였다.<br/><br/>사진 = 방송 캡처 (유채영 위암 말기)<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0.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스스로 어려운 상황 이겨내” 네티즌·동료 연예인 응원 물결 “힘내세요!”  
날짜: 2014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4806341  
본문: 유채영 위암 말기 “스스로 어려운 상황 이겨내” 네티즌·동료 연예인 응원 물결 “힘내세요!”<br/><br/>이날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채영의 한 측근은 “유채영은 21일 오후 한때 무척 힘든 상황을 맞았다. 그 순간들을 본인이 잘 이겨냈고 지금은 어제보다 안정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채영의 곁을 남편과 가족이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영은 같은 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채영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다. <br/><br/>유채영의 남편 김주환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채영이의 병세가 위중하다”면서 “채영이는 활동하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줬다. 채영이를 아는 분들은 기사를 본 뒤 꼭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br/>이같은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에 연예인 동료들이 직접 나서 유채영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br/><br/>22일 정준하는 자신의 트위터에 “저를 위해 항상 마음써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밤은 우리 유채영씨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br/><br/>김미연 역시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기도해 주세요…우리 채영 언니 버텨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br/><br/>네티즌들은 “유채영 위암 말기, 말기암이라도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유채영 위암 말기, 영화 본 지가 얼마 전인데 정말 안타깝네요. 앞으로 쾌차하시길 빕니다”, “유채영 위암 말기, 저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꼭 일어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1.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21일 한때 무척 힘든 상황에 이르러” 현재 상태는?  
날짜: 2014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4717398  
본문: 유채영 위암 말기 “21일 한때 무척 힘든 상황에 이르러” 현재 상태는?<br/><br/>이날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채영의 한 측근은 “유채영은 21일 오후 한때 무척 힘든 상황을 맞았다. 그 순간들을 본인이 잘 이겨냈고 지금은 어제보다 안정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채영의 곁을 남편과 가족이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영은 같은 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채영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다. <br/><br/>유채영의 남편 김주환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채영이의 병세가 위중하다”면서 “채영이는 활동하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줬다. 채영이를 아는 분들은 기사를 본 뒤 꼭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br/>이같은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에 연예인 동료들이 직접 나서 유채영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br/><br/>22일 정준하는 자신의 트위터에 “저를 위해 항상 마음써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밤은 우리 유채영씨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br/><br/>김미연 역시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기도해 주세요…우리 채영 언니 버텨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br/><br/>네티즌들은 “유채영 위암 말기, 말기암도 의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유채영 위암 말기, 너무 슬픈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내세요”, “유채영 위암 말기, 저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유채영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2.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남편과 결혼 사진보니..’밝은 성격이라 눈물 나’  
날짜: 20140722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4440627  
본문: ’유채영 위암 말기’<br/><br/>가수 겸 배우 유채영(41)이 위암 말기 판정으로 위독한 상태다. 21일 한 매체는 위암 말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았던 유채영이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돼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악화됐다고 보도했다.<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말 찾은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개복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도중 기타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사실을 알고 암 세포 일부만 제거한 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br/><br/>그러나 최근 병세가 위중해져 진행해 오던 MBC 표준FM라디오 ‘좋은 주말 김경식, 유채영입니다’에서도 하차했다.<br/><br/>현재 유채영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2008년 결혼한 남편 김주환 씨와 가족들이 유채영의 곁을 지키고 있다.<br/><br/>김주환 씨는 “유채영의 병세가 위중하다”며 “유채영이 활동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다. 유채영을 아는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본 뒤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br/><br/>유채영 위암 소식에 네티즌은 “<span class='quot0'>유채영 위암, 생명 위독하다니</span>”, “<span class='quot0'>유채영 위암, 완쾌해서 다시 밝은 모습 보여주길</span>”, “유채영 위암, 안타깝다”, “유채영 위암, 기도할게요”, “<span class='quot0'>유채영 위암..너무 안타깝다</span>”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편 유채영은 2008년 한 살 연하 사업가와 웨딩마치를 올렸다. 과거 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신랑이 될 김주환 씨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해 만천하에 결혼소식을 알렸던 바 있다.<br/><br/>사진 = 서울신문DB (유채영 위암)<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3.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결혼 사진보니..‘안타까워’  
날짜: 20140722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4415181  
본문: ‘유채영 위암’<br/><br/>가수 겸 배우 유채영(41)이 위암 말기 판정으로 위독한 상태다. 21일 한 매체는 위암 말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았던 유채영이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돼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악화됐다고 보도했다.<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말 찾은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개복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도중 기타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사실을 알고 암 세포 일부만 제거한 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br/><br/><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4.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현재 상태는? ‘너무 안타까워’  
날짜: 20140722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4428206  
본문: ’유채영 위암 말기’<br/><br/> 21일 한 매체는 위암 말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았던 유채영이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돼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악화됐다고 보도했다.<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말 찾은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개복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도중 기타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사실을 알고 암 세포 일부만 제거한 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br/><br/><br/><br/>현재 유채영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2008년 결혼한 남편 김주환 씨와 가족들이 유채영의 곁을 지키고 있다.<br/><br/><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5.txt

제목: 유채영 위암 말기,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  
날짜: 20140722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4423745  
본문: ’유채영 위암 말기’<br/><br/>가수 겸 배우 유채영(41)이 위암 말기 판정으로 위독한 상태다. 21일 한 매체는 위암 말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았던 유채영이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돼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악화됐다고 보도했다.<br/><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말 찾은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개복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도중 기타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사실을 알고 암 세포 일부만 제거한 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br/><br/>그러나 최근 병세가 위중해져 진행해 오던 MBC 표준FM라디오 ‘좋은 주말 김경식, 유채영입니다’에서도 하차했다.<br/><br/><br/><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6.txt

제목: 사망 직전 찍은 웨딩사진…한 부부의 감동 결혼식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2216137  
본문: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임에도 최선을 다해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남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br/>영국 지역매체 랭커셔 이브닝 포스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수시간 전 결혼식을 올린 한 부부의 감동적인 사연을 19일(현지시간) 소개했다.<br/>창백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한 남자와 하얀 셔츠를 입고 꽃다발을 든 여성이 다정하게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다. 의료장비가 가득한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인 남성은 중한 질환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에는 고통보다 기쁨의 미소가 가득하다.<br/>지난 4월 28일 오전 3시 30분에 촬영된 해당 사진은 이안 통(31), 젬마 통(28) 부부의 웨딩사진으로 오랜 약혼관계였던 두 사람은 사진촬영 후 정식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웨딩촬영을 마치고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이안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병명은 악성 림프종(임파선 암)이었다.<br/>이안 통, 젬마 통 부부가 약혼식을 치른 것은 지난 해 3월이었다. 이미 두 아이를 가진 어엿한 네 가족을 꾸리고 있던 이안과 젬마는 멋진 프러포즈와 정식 결혼식을 앞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온 것은 당해 11월로 이안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병원을 찾게 된다.<br/>처음에는 단순 바이러스 감염진단을 받았지만 이안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고 5개월 간 4개의 병원을 옮긴 끝에, 림프종 조직검사를 받고 악성 임파선 암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안이 입원한 블랙 풀 빅토리아 병원에서 이안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암과의 싸움을 지속해났다. <br/>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이안의 림프종은 고등급 악성으로 급성백혈병과 유사해 병세는 눈에 띠게 악화되어 갔다. 이안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부터는 항암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다.<br/>의사는 최후 방법으로 마지막 남은 항암 약물 투여를 결정했지만 이안은 이미 본인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젬마와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가족과 의료진이 모인 가운데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했다. <br/>병실에서 진행된 만큼 제대로 된 결혼식이 될 수는 없었지만 간호사들은 웨딩 케이크와 카드는 물론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장식품까지 준비해 젬마를 감동시켰다. 비록 화사한 웨딩드레스는 아니지만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음을 젬마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암세포 때문에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남편의 얼굴은 놀랍도록 맑았다. 그는 무척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치렀다”고 회상했다.<br/>안타깝게도 이안은 결혼식을 마친 직후, 몇 시간 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28일은 새로운 항암제 투여가 예정된 날이었다.<br/>현재 젬마는 남은 두 아이와 열심히 삶을 살고 있다. 무엇보다 아빠의 부재를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지금은 아이들에게 왜 아빠가 집에 오시지 않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아이에게 초점을 둔 삶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망원인인 악성 림프종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캠페인 역시 함께 준비 중이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7.txt

제목: 광주 교장 직위해제 교직원들 “교장 막말 도 넘어”…교장 “학교 개혁 시도에 모함하는 것”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73633798  
본문: ‘광주 교장 직위해체’<br/><br/>광주 교장 직위해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교직원들이 교장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고 진정했기 때문이다.<br/>광주시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광주 모 초등학교 A교장을 직무 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br/>시교육청은 “<span class='quot0'>A교장이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들에게 인격비하 발언과 폭언 등을 해 교육능력을 떨어뜨리고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span>”는 학교 내 일부 교직원의 주장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br/>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A교장은 공식석상이나 개인적인 자리 등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삼류대 출신’, ‘능력없이 시집 못 간 노처녀’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언어폭력을 가했다. <br/>A교장은 직원 모임에서 도서 관리 소홀로 사서교사를 문책하면서 “<span class='quot1'>일을 쓰레기처럼 하니 쓰레기병인 암에 걸린 것</span>”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교사의 결혼식장에서는 “우리 학교에는 협객은 없고 양아치만 있다”고 말했다고 교직원들은 전했다.<br/>이에 대해 A교장은 나태한 학교운영 실태를 바꾸고자 했는데 일부 교직원들이 여기에 반발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br/>A교장은 “<span class='quot1'>지난 3월 부임한 학교가 엉망이었고 일부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더니 나를 모함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교육부와 감사원에 학교 운영과 시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span>”고 밝혔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8.txt

제목: 英여대생들 자선 누드사진 페이스북 삭제 논란  
날짜: 2014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2035669  
본문: 과연 이 사진들을 포르노그래피로 볼 수 있을까?<br/>최근 페이스북이 영국 여대생들이 만든 단체 누드 사진 페이지를 유해 컨텐츠로 지정해 삭제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있다. 적나라 하지는 않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체를 드러낸 사진의 주인공들은 워릭대학교 조정부 소속의 17명 여대생 들이다.<br/>수려한 외모와 육감적인 몸매를 뽐내는 이들은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누드사진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사진들은 2014 누드 캘린더에 들어간 것으로 조정부 여대생들은 여기서 발생한 판매 수익금을 맥밀란 암 지원센터에 기부해왔다.<br/>논란이 인 것은 홍보를 위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를 최근 회사 측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 캠페인을 주관한 학생 소피 벨(20)은 “<span class='quot0'>더 많은 모금을 위해 만든 페이지가 졸지에 유해 콘텐츠가 됐다</span>” 면서 “<span class='quot0'>누드 사진이라는 이유로 삭제가 됐는데 이 사진들은 페이스북이 제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span>”고 주장했다.<br/>이어 “페이스북에는 우리보다 더 야한 페이지가 많다” 면서 “어떻게 자선 캘린더가 포르노가 될 수 있느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br/>여대생들의 항의와 언론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 측은 곧 진화에 나섰다. 페이스북 측은 “<span class='quot1'>이 사진들은 담당자의 실수로 삭제됐다</span>” 고 해명하며 곧 복구할 뜻을 밝혔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39.txt

제목: 암환자 회복 돕는 한방병원 웃음치료  
날짜: 2014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2016354  
본문: 최근 암환자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암센터, 암한방병원 등이 늘고 있다.<br/>이런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웃음치료다. 웃음치료는 웃음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웃음의 효과를 암환자의 치료에 활용한다. 실제로 웃음이 장 운동을 촉진시키거나, 염증수치가 내려간다는 등의 연구 논문도 나와있다. <br/>그만큼 암환자의 심리 상태가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는 요가나 명상 등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환자와 관련 요법을 받지 않고 암치료만 받았던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요가와 명상을 병행한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길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br/>이에 따라 대형병원 암센터, 암한방병원 등에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환자의 심신을 이완시켜주고 있다. 이런 한방병원의 웃음치료는 웃음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치료의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환자 대상의 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도 한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0.txt

제목: 약침 등 한방암치료, 말기암 환자 사이 입소문  
날짜: 2014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1859243  
본문: 일부 말기암, 전이•재발암 환자는 암이 전체로 퍼져있는 상태로, 수술 등의 서양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 반복적인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생존율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br/>말기암 환자,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나 항암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에게 면역력은 신체 기력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따라 최근 면역력 강화를 돕는 한방암치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br/>한방암치료는 한약과 침, 쑥뜸 등의 한의학적 요법을 통해 구토, 오심과 같은 제반 증상을 완화시키고 인체 면역력을 강화시켜 말기암, 전이암, 재발암 환자는 물론 약을 먹을 수 없거나 복잡한 증상을 겪는 암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br/>특히 치료법 중 하나인 약침은 산삼, 녹용 등 한약재를 달여 추출한 약액을 고도로 정제해 혈자리에 주사하는 한방의료행위로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생체 기능 조정과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br/>최근 이런 항암치료와 한방암치료는 병행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의료진의 대장암 환자 병행치료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1.txt

제목: “구글이 날 살렸어요” 인터넷 검색이 구한 40대女 목숨  
날짜: 2014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1820101  
본문: 인터넷 검색기능 덕분에 목숨을 구한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br/>영국 지역매체 노팅엄 포스트는 의사가 아닌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의 암 질환 여부를 확인, 수술에 성공한 46세 헤어드레서 캐롤라인 그레이브스의 사연을 16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잉글랜드 중부 노팅엄셔카운티에서 헤어드레서로 일하고 있는 그레이브스가 몸의 이상 징후를 느낀 것은 지난 3월 이었다. 당시 지속적으로 귀가 붓고,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며,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구강 통증이 심했던 그레이브스는 동네 주치의(General Practitioner)를 찾아 진단을 받았다.<br/>당시 주치의는 그레이브스가 단순한 감염 증세라며 수술 없이 항생제 치료만 6주를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그레이브스는 주치의에게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여전히 의사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며 약물치료만 계속 진행했다.<br/>그레이브스는 점점 의사의 말이 못미더워졌고 스스로 직접 본인의 질환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단순 감염 증세라고하기에는 구강에 전해지는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br/>그녀는 컴퓨터를 켠 뒤, 구글에 접속해 ‘구강암(oral cancer)’이라고 타이핑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구강암 관련 정보를 꼼꼼히 정독했다. 그중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는데 구강암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볼 점막에 흰색 궤양이 나타난다는 정보문구였다. 그녀는 즉시 거울을 들고 볼 점막을 확인했는데, 그 곳에는 궤양으로 보이는 흰색 선이 뚜렷이 나타나있었다.<br/>그녀는 세 번째로 다시 주치의를 찾아 본인의 궤양흔적을 보여준 뒤 정밀 진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결국 다시 시작된 검사에서 그레이브스는 드문 형태의 ‘편도암’을 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br/>이미 림프절 일부까지 암 세포가 퍼진 상태였던 그레이브스는 8주간의 강도 높은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받았고 아직까지 치료 중이다. 본래는 튜브로 액체형태의 음식물만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혀 근육이 회복되는 등 상태가 좋아져 조금씩 단단한 음식물도 도전하고 있다.<br/>그레이브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는 순간까지 스스로 침착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혼란과 공포보다는 의연히 본인의 질병을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의사 진단을 맹신하는 것도 곤란하다. 본인 질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연구해야한다”며 “만일 인터넷 검색이 없었다면 이곳에 내가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2.txt

제목: 6분이면 우울증 검사 완료…곧 온다, 최첨단 미래 의료  
날짜: 2014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64554692  
본문: “<span class='quot0'>최첨단 바이오 기술로 인간수명 120세에 도전하세요.</span>”<br/><br/>무병장수의 꿈을 미리 엿볼 수 있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펼쳐진다. 충북도가 2002년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뒤 12년 만에 마련한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 국내 163개, 해외 60개 등 총 223개 기업과 70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바이오 의료분야의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관람객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br/><br/>행사장은 바이오미래관, 주제영상관, 바이오건강체험관, 뷰티체험관, 에듀체험관, 바이오마켓, 바이오산업관, 화장품뷰티산업관 등 8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진다. <br/><br/>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관은 바이오 신기술을 체험하며 건강검진을 공짜로 할 수 있는 바이오건강체험관이다. 이 전시관에 들어서면 관람객은 사진 한 장을 찍게 된다. 이 사진은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얼굴 사진과 비교돼 자신의 건강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소량의 혈액으로 질병검사가 가능한 바이오센서 체험도 할 수 있다. 행사장에 배치된 임상병리사들이 관람객들의 혈액을 채취해 정맥혈 세 방울을 바이오센서에 투입하면 10분 뒤 심장질환,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질환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하루에 200명 정도가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br/><br/>김종숙 조직위 전시부장은 “<span class='quot1'>국내 기업이 개발한 이 검사기는 혈액을 통한 암 검사기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병원에 도입되면 5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생체신호복합검출기를 통해 우울증과 치매검사도 받을 수 있다. 이 장비는 검사문항에 응답하면서 변화되는 관람객의 뇌파, 심전도, 맥파 등을 분석해 우울증과 치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치매는 8분, 우울증은 6분이면 검사결과가 나온다. 치매검사는 하루 67명, 우울증검사는 하루 90명이 체험할 수 있다. 비타그레인 제조기를 이용해 관람객 개개인의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비타민 3일분을 제공하는 코너도 운영된다.<br/><br/>뷰티체험관도 눈에 띈다. 이곳에선 피부 속 탄력개선 효과가 있는 씹어먹는 콜라겐, 피부의 수분저장능력을 강화시키는 알약, 체내의 독소 배출 효과가 있는 자일로 올리고당과 콜라겐이 함유된 젤리 등이 전시된다. 입고만 있으면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의류 형태의 화장품도 만나볼 수 있다. 최첨단 의료로봇과 세계 최초 복제견인 스피너, 인공장기를 만드는 3D프린터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br/><br/>도가 올해 엑스포를 마련한 것은 국가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는 충북을 세계 3대 바이오밸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충북에는 6대 보건 의료국책기관과 678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엑스포를 통해 충북을 알려 세계적인 바이오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br/><br/>이시종 지사는 “<span class='quot2'>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충북은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2030년이면 충북이 세계 3대 바이오밸리에 진입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엑스포 입장료는 일반 1만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br/><br/>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3.txt

제목: [인사]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63137568  
본문: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정책기획관 고창헌<br/><br/><br/>■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김선민<br/><br/><br/>■국토교통부 ◇국장급 △기술안전정책관 정경훈△지역발전위원회(파견) 황성규△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손종철△부산지방항공청장 이종국△항공정책관 이문기△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안충환<br/><br/><br/>■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서세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한순영△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관성△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강기후◇과장급 전보△식품기준과장 김동술△첨가물기준과장 허송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황인균<br/><br/><b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 임주빈<br/><br/><br/>■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인천유나이티드FC 파견근무 김광석△안전행정국장 조동암<br/><br/><br/>■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하대성<br/><br/><br/>■대한지적공사 △기획조정실장 손승국△감사실장 신을식△비상대책단장 유해석△경영관리부장 이종환△고객지원부장 여원찬△노사협력부장 유은상<br/><br/><br/>■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연구센터장 박순경<br/><br/><br/>■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 이학래<br/><br/><br/>■동국대 ◇경주캠퍼스△인문과학계열학장 백승석△자연과학계열학장(공학교육혁신센터장 겸임) 박상신△사회과학계열학장 박병식△파라미타칼리지학장 강문호△기획처장 정윤길△경영관리실장 전병길△교무처장 이태경△인재개발처장 김의창△입학처장 구본철△산학협력단장 김규태△도서관장 류완하△평생교육원장 이수경△박물관장 강현숙△동국미디어센터장 오창린<br/><br/><br/>■우리투자증권 △시너지추진단장 박대영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4.txt

제목: 당신이 몰랐던 ‘블루베리’의 진실 5가지  
날짜: 2014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1424356  
본문: 달콤함과 신맛이 섞여있는 특유의 풍미로 샐러드, 요구르트 등에 곁들여지는 것은 물론 잼, 주스용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블루베리는 눈에 좋은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도 유명하다. <br/>하지만 북아메리카 원산의 포도와 비슷한 모습 형태를 지닌 이 블루베리는 어떤 과일보다 숨겨진 정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평소가 우리가 잘 몰랐던 블루베리에 대한 재밌는 정보들을 12일(현지시각) 소개했다. <br/>1. 기억력 저하 방지<br/>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사실은 유명하지만 기억력 저하를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2012년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이 상 블루베리를 섭취해주면 기억력 저하를 막아준다고 한다. 해당 사항은 1년 후 발표된 쥐 실험에서 명확해졌는데 블루베리가 뇌에 악영향을 주는 독성 단백질의 체내 축적을 막아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br/>2. 블루베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br/>미국 북동부 메인 주(州) 1곳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 양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 양보다 더 많다(메인 주립 대학 발표). 특히 항산화물질 함량이 높은 ‘야생 블루베리’는 메인 주 남동부 연안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블루베리로 만든 ‘와일드 메인 블루베리 잼’이 유명하다. <br/>3. 블루베리는 천연 페인트로 쓸 수 있다<br/>초기 북미 식민지 시절 기록을 살펴보면, 우유와 블루베리를 함께 삶아 회색 페인트를 만들었다고 적혀있다.<br/>4. 가장 완벽한 블루베리의 색깔은 ‘탁하다’<br/>먼지가 덮인 것처럼 탁한 블루베리가 가장 영양함량이 높다. 미국 텍사스 대학 앤더슨 암 센터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먹기 전 빡빡 씻으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고 한다.<br/>5.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블루베리는 대부분 ‘가짜’다<br/>2011년 미국 LA타임스는 소비자 건강 조사 기관 리포트를 인용, 시중에 유통 중인 시리얼, 베이글, 머핀 등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대부분이 설탕, 옥수수 시럽, 전분, 인공 감미료로 만들어진 가짜가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부분이 개선됐을 것이고 이 가짜 블루베리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특별한 보고도 없지만 적어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기 전 성분함량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5.txt

제목: 방귀 냄새 맡으면 암 등 질병 예방된다 -英 연구  
날짜: 2014071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1317442  
본문: 썩은 달걀처럼 지독한 악취로 본인은 물론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방귀. 그 누구의 것도 맡고 싶지 않지만, 실은 그 냄새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영국 엑세터의과대학 매트 화이트맨 교수팀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방귀 냄새는 암과 뇌졸중, 심장질환, 치매 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br/>방귀는 장내에서 음식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항문을 통해 배출되는 것. 그 냄새의 근원 중 하나가 되는 화학물질 황화수소는 대량을 흡입하게 되면 유독하지만 소량일 경우 체내의 세포를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고 연구팀은 말한다.<br/>이는 황화수소가 혈액세포의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br/>우리 인간의 세포는 질병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효소를 흡입해 스스로 황화수소를 생성하려고 하지만, 그 양은 극히 적다. 따라서 연구팀은 황화수소의 생성을 도와주는 새로운 화합물 AP39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당뇨병, 관절염,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의 관건인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br/>AP39에 관한 임상 시험은 아직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초기 실험에서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생존율은 80%까지 상승했다.<br/>연구에 참여한 마크 우드 박사는 “<span class='quot0'>방귀나 썩은 달걀 냄새로 알려진 황화수소는 인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건강에 좋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미래에는 각종 질병의 치료에 사용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6.txt

제목: 사과가 ‘기적의 과일’로 불리는 이유 4가지  
날짜: 2014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1230696  
본문: 탐스러운 붉은 색 껍질에 아삭하고 달콤한 과육이 풍미를 자극하는 과일 ‘사과’는 날로 먹는 경우도 많지만 유럽에서는 이를 튀기거나 즙을 내 젤리, 스튜, 고기요리에 곁들이는 등 폭 넓은 활용성을 자랑한다. <br/>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C가 풍부해 동맥경화 예방, 폐질환 예방 등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사과는 ‘기적의 과일’이라는 보기 드문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br/>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생각보다 깊숙이 알고 있지 못한 ‘사과’의 영양학적 장점 4가지를 최근 소개했다.<br/><br/>1. 피부미용+피로회복<br/>사과 속에는 다량의 비타민C 성분이 함유되어있다. 그중 절반이상이 사과껍질에 있기에 이를 적절히 섭취해주면 피부미용과 피로회복 그리고 노화방지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칼륨도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br/>2. 심장보호<br/>사과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몸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압상승을 막아줘 죽상 동맥 경화증과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2011년 플로리다 주립 대학 영양 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매일 말린 사과 75g을 먹은 여성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3% 감소됐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4%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br/>3. 뇌졸중 예방<br/>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물질인 페놀산은 체내 유해산소를 억제해 뇌졸중 발병을 예방한다. 또한 함께 들어있는 황색 플라보노이드인 퀘세틴은 담배연기 등으로 폐가 망가지는 것을 보호해준다. <br/>4. 항암 작용<br/>최근 미국 암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과 속 항산화물질 함량은 과일 중에서도 특히 높은 편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해줄 경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하와이의 한 의학연구 통계를 보면 사과를 정기적으로 먹어준 사람은 폐암 발병 위험이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7.txt

제목: 日 아베종양내과, 학회서 암백신 치료결과 발표  
날짜: 20140711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60523889  
본문: 日 아베종양내과, 학회서 암백신 치료결과 발표<br/><br/>신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암백신 치료에 다시금 관련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최근 일본 삿포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된 제18회 국제개별화 의료학회에서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의 발표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br/><br/>이날 학술대회에서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인체의 8% 정도인 단구를 분리해 유전자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검사를 거친 뒤 개인 맞춤형 암 항원을 추가하는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r/><br/>이 치료방식을 통해 아베종양내과는 지난해 1~9월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복합 면역세포 치료를 실시한 결과, 74.4%의 효과를 거뒀다고 제17회 국제개별화 의료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종양 마커검사와 영상진단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br/><br/>치료는 2주에 1회, 암 정보의 교환이 이뤄지는 해당 림프절에 피하주사로 치료하며, WT1 펩타이드(원발암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를 강화), MUC1 펩타이드(T세포를 지원하고 항암작용을 6~9개월 지속하며 암세포를 기억)가 모두 사용된다. 이외에도 개인별 특이적 암 항원, NY-ES01 펩타이드(고형암과 소화기암), 서바이빈 펩타이드, GV1001 펩타이드 등도 활용해 치료 효과를 높였다고 아베종양내과 측은 설명했다. <br/><br/>특히 GV1001 펩타이드는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췌장암 3상 임상시험 결과, 우수한 생존효과를 보였다고 공식 발표된 바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췌장암 치료제로 품목허가 신청과 전립선암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한 상태다. <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CTC 검사법은 현재 임상 단계에 있지만, 암의 예후와 치료 유효 예측이 가능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베종양내과에서는 암환자의 혈액에 있는 미량의 암세포, 말초혈순환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 CTC) 검사법의 문제점과 유리RNA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돼, 향후 암 진단과 암치료 유효판정에 혈액검사와 영상진단, 암별 유전자분석, CTC 검사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br/>이 밖에도 이 병원은 25ml의 소량의 혈액만으로도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아베종양내과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국내 기업인 선진바이오텍과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br/><br/>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8.txt

제목: 국내 연구진,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항암물질 개발  
날짜: 2014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55512016  
본문: 　국내 연구진이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　건국대는 생명특성화대학 신순영·임융호·이영한(이상 생명과학특성학부) 교수팀이 세포 내의 기관인 소포체에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이 과잉 축적된 이른바 ‘소포체 스트레스’를 암세포에서 유발시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폴리페놀 구조의 ‘DPP-23’ 화합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소포체는 합성된 단백질 가공 및 세포 내 고분자 물질이 이동할 때 통로 역할을 하는 단일막 그물구조의 세포소기관이다.<br/>　연구팀은 과일과 채소, 약용식물 등에 널리 존재하는 다양한 폴리페놀 구조체를 분석해 항암 효과가 우수한 새로운 형태의 폴리페놀 구조인 ‘DPP-23’ 화합물을 처음으로 분자설계하는데 성공했으며, 이의 대량 생산법도 확립했다. <br/>　이어서 연구팀은 이렇게 분자설계한 DPP-23 화합물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췌장암과 대장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세포를 대상으로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도한 뒤 결과를 관찰했다.<br/>　그 결과, DPP-23이 정상세포에는 거의 독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특이적으로 암 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특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DPP-23은 암세포에서만 활성산소를 생성해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단백질 열림반응’(UPR·:Unfolded Protein Response)을 과다하게 활성화시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br/>　연구팀은 이와 함께 DPP-23이 정상세포의 항산화 기능은 활성화하지만, 암세포의 항산화 시스템은 무력화시켜 암세포가 활성산소에 더 취약한 세포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암학회가 발간하는 임상 암연구 전문학술지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br/>　신순영 교수는 “<span class='quot0'>DPP-23 화합물은 천연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 구조를 기반으로 연구팀이 독창적으로 설계하여 합성한 유도체로, 정상세포와 암세포에 처리하면 암세포에서만 활성산소가 과잉 축적되어 소포체스트레스 반응이 유도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때문에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게 된다</span>”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실제로 췌장암세포를 이식한 생쥐에 DPP-23을 주사한 결과에서 보듯 정상조직에서는 독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암조직만 효율적으로 파괴한다</span>”고 덧붙였다.<br/>　분자 설계를 주도한 임융호 교수는 “<span class='quot2'>연구 결과를 실용화하려면 생체 약물전달 효능 실험과 임상실험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DPP-23 화합물은 정상세포에서도 독성효과를 보이는 대다수 항암제들의 부작용 반응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 후보물질</span>”이라고 말했다.<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49.txt

제목: 의료급여자도 임플란트비 최대 80% 지원  
날짜: 2014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53726944  
본문: 정부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가 큰 부담 없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br/><br/><br/>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실시된다.<br/><br/><br/>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 시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 폭을 늘렸다. <br/><br/><br/>개정령안에 따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권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연간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 <br/><br/><br/>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br/><br/><br/>정부는 또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산모와 아이가 함께 쓰는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을 50% 인상하기로 했다.<br/><br/><br/>그동안 수가 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 암환자를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에 대한 수가와 영양불량 환자에 대한 집중영양치료 수가가 이번에 신설됐다.<br/><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0.txt

제목: 이것만 알면 당신도 벤자민 버튼…회춘하는법 14가지  
날짜: 2014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0831035  
본문: 주의를 보면 제나이보다 젊거나 늙어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것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나이보다 젊어보이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은 최근 헬스닷컴에 실린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 14가지다. 유명 전문가들의 조언이니 읽어보고 지금 당장 시도하자. 혹시 아나. 벤자민 버튼 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위 친구들보다 젊어질지….<br/>1.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미국비만학회(TOS) 학술지 ‘비만’(Obesity)에 실렸던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되면 당뇨병과 암,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명을 최대 12년까지 단축한다. 그렇다고 체중을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면역기능도 떨어지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br/>2. 술을 자제하라=적당량보다 매일 한 잔의 술을 더 마시거나 한 자리에서 세 잔의 알코올을 한번에 들이키게 되면 간과 같은 장기를 손상시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일부 암의 발병 위험도 높인다.<br/>3. 스트레스를 줄여라=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늙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데 이는 실제로 나이를 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2012년 호주 출신 생화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미국 UCSF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세포 속 DNA에 손상을 주고 텔로미어(telomere·말단소립)의 길이를 단축시킨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 부분에 있는 구조로 염색체를 보호한다. 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며 모두 닳아 없어지게 되면 그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죽거나 기능을 잃게 된다. 사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토마스 펄스 미국 보스턴의대 부교수는 “<span class='quot0'>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요가나 기도, 명상 등 자신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좋다</span>”고 말한다.<br/>4. 계속 배워라=국제학술지 ‘헬스 어페어’(Health Affairs)에 따르면 계속 배우는 것이 여러 이유 덕분에 수명을 늘려준다. 이는 교육을 받을수록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은 수입도 많으므로 건강 관리와 보험 등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br/>5. 교류하라=점점 더 많은 연구가 친구의 가치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상의 친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들이 혼자 사는 이들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다. 즉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배우자의 독촉으로 병원을 더 일찍 찾기 때문. 이는 친구를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호주 연구팀에 따르면 평소 친한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은 교류가 적은 이들보다 수명이 22%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공공보건대학원 학생처장인 린다 프라이드 박사는 “<span class='quot1'>장수하는 사람일수록 평소 긍정적 마음을 갖고 의미 있고 친밀한 교류를 갖고 있다</span>”고 말했다.<br/>6. 타인을 도와라=자원봉사는 사망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테네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굳이 이런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가까운 이웃에게 뭔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줄 때 혈압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카의 숙제를 도와주는 등 사소한 도움을 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br/>7. 자주 운동하라=캐나다 의학 박사들은 한 주에 3일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2일은 근력운동을 하면 노화 과정을 늦추는 것을 도와준다고 말한다. 프라이드 박사 역시 육체적인 활동은 자동차 엔진을 튜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록 운동의 강도가 낮더라도 노화를 늦출 수 있으니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br/>8. 가공육은 되도록 먹지마라=핫도그나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등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심장질환은 물론 당뇨, 대장암 등의 질환이 높아진다. 가능한 한 이런 가공육을 먹지 않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br/>9. 담배는 끊어라=흡연이 폐암은 물론 심장병을 비롯한 거의 모든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펄스 교수는 “<span class='quot2'>하루에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수명을 15년 줄일 수 있다</span>”고 말한다. 만일 지금 당장 금연하면 1년 후에 심장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15년 후에는 발병 가능성이 비흡연자처럼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10. 커피를 즐겨라=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커피가 당뇨 수치를 낮추고 간암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에 3잔 반 정도의 커피는 심장병도 예방한다는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도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설탕 등을 넣지 않은 것을 말한다.<br/>11. 더 자라=2013년 영국 서리대학 연구에 따르면 1주일간 하루 6시간 이하 자는 사람들은 평균 8시간 반 정도 자는 이들보다 데이터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 이들은 면역체계를 중심으로 염증과 신진대사 등을 관장하는 수백 개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 심장병과 비만과 같은 질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12. 부부관계를 가져라=부부관계(잠자리)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감소하고 혈압을 낮추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br/>13. 지중해식으로 먹어라=2003년 미국 내과학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주요 질환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파스타와 설탕을 구성하는 단당류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통곡류 등의 건강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 펄스 교수는 단당류를 ‘에이지 엑셀러레이터’(나이 가속기)라고 부르며 나이를 되돌리려면 꼭 피해야 할 것들이라고 설명했다.<br/>14. 가족력을 파악하라=만일 부모나 조부모 등 가까운 친척 중에서 90세 이상을 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유전적으로 축복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운동을 게을리 하고 기름진 음식을 달고 살아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펄스 교수는 “<span class='quot2'>나이가 들기 전의 생활 습관이 타고난 유전자보다 크게 영향을 준다</span>”면서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1.txt

제목: 김동명 차가버섯, 암의 예방과 재발을 위한 식이요법 생활수칙  
날짜: 2014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53455271  
본문: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차가버섯 대표 브랜드 ‘김동명차가버섯’(http://amcare.co.kr) 이 생활 속에서 암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식이요법과 생활수칙 등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br/><br/>김동명차가버섯은 항산화능과 총페놀 함량이 증진된 차가버섯 발효물과 효소식품의 제조공법 등으로 2건의 특허를 취득한 차가버섯 전문업체다. 특히 특허공법을 적용한 ‘발효차가버섯’은 추출분말 위주의 차가버섯 시장 판도를 바꾼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br/><br/>암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과 생활수칙 홍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동명차가버섯 관계자는 “차가버섯 특성상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주로 찾는데 이 가운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지 못해 건강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며 “평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식이요법과 올바른 생활수칙을 지켜나가면 질병 예방은 물론 병후 회복과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 차가버섯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점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br/><br/>또한 암을 예방하는 항암식품들을 이리저리 찾아 다니면서도 정작 몸에 해로운 음식은 계속 섭취하는 경우에 대한 주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항암식품과 올바른 식이요법 & 건강수칙을 제시했다.<br/> <br/>첫째, 십자화과 채소류와 색깔 먹거리 등 항암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십자화과 채소류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설포라판, 글루코시톨레이트, 디인돌릴메탄 등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배추, 순무, 콜리플라워, 겨자 등이 대표적이다. <br/> <br/>색깔먹거리(컬러푸드)란 빨강, 주황, 노랑 초록색, 보라, 하얀, 검정의 식품을 말한다. 이들 식품에는 식물 영양소 피토케미컬(phytochemical)이 풍부한데 특히 라이코펜, 카로티노이드, 클로로필, 안토시아닌, 베탈레인 등의 색소는 항암, 항산화 효과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토마토, 홍고추, 석류, 체리, 당근(이상 빨간색), 오렌지, 망고, 바나나, 고구마, 호박, 옥수수, 카레(이상 주황색), 브로콜리, 상추, 오이, 완두콩, 키위(이상 초록색), 블루베리, 가지, 적양배추, 콜라비, 팥, 강낭콩(이상 보라색), 양파, 마늘, 인삼, 도라지, 더덕, 배, 무(이상 하얀색), 검은콩, 올리브, 다시마, 목이버섯(이상 검은색) 등이 대표적인 색깔 먹거리로 꼽히고 있다. <br/><br/>둘째는 해독기능이 있는 식품을 식단에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권장식품에는 청국장, 현미찹곡밥, 잎녹차, 미나리, 생강, 우엉, 감식초, 연근, 해조류(톳, 다시마, 미역, 파래 등)가 있다. <br/><br/>셋째, 몸에 해로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식재료 선택 시에도 피한다. 오백식품(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흰소금, 흰조미료), 소금에 절인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훈제한 식품, 자극적 양념, 인스턴트 음식, 청량음료, 알콜, 카페인, 통조림, 쇼트닝유로 조리한 식품, 태운 음식, 동물성 지방 육류, 산패한 음식, 곰팡이가 핀 음식 등이 그 예다. <br/><br/>넷째, 식재료 만큼 중요한 것은 조리법이다.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식감, 미감은 물론 영양분이 더 풍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영양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 가급적 몸에 좋은 조리방법을 이용하는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br/><br/>이를 위해서는 ▲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생성되므로 튀김이나, 직화구이 보다 끓이기, 찌기 등의 저온 조리법을 이용한다. ▲ 볶음 요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재료를 그냥 또는 물을 살짝 넣어 볶다가 마지막에 불을 끄고 신선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등을 둘러 버무려준다. ▲ 화학조미료의 사용을 줄이고 가급적 다시국물이나, 천연재료를 갈아 만든 조미료를 이용한다. <br/><br/>다섯째, 과식은 위험, 꼭꼭 씹어 천천히 먹으면 과식도 피할 수 있다. 과식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주범이다. 음식을 빨리 섭취하는 습관은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 습관적인 과식의 지름길이다.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음식을 잘게 분해하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침도 함께 분비되어 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천천히 먹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 <br/><br/>한편 김동명차가버섯은 올바른 식이요법 홍보의 일환으로 차가버섯 제품 구매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식단신청을 하면 식이요법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김동명차가버섯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2.txt

제목: 공룡 DNA로 ‘암’ 완치 가능?…특수 면역체계 발견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0630720  
본문: 고대공룡 화석 속에 잠들어있는 DNA가 악성 질병 완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최근 영국 맨체스터 대학 자연사 연구진은 7200만 년 전 백악기 때 생존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육식공룡 화석에서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는 특수 DNA면역체계를 발견했다고 전했다.<br/>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이 공룡화석의 주인공은 높이 약 8m에 달하는 몸무게 2.5톤에 달하는 백악기 육식공룡 고르고 사우루스다. 연구진은 티라노사우루스와 생김새와 습성이 유사했던 이 공룡이 복합골절과 감염 등으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다 화석화된 것으로 추정했다.<br/>조사에 따르면, 공룡의 오른쪽 다리는 복합골절에 뼈 감염 증세가 있었고 왼쪽 다리는 아예 부셔진 상황이었다. 앞다리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해당 뼈 속 DNA가 여전히 자가 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어 꼬리 부분에서는 특정 암 세포에 감염됐다 회복된 흔적도 발견되기도 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앓고 있던 이 공룡의 최종 사망원인은 뇌종양인 것으로 연구진들은 추측했다.<br/>연구를 주도한 맨체스터 대학 자연사학과 필 매닝 교수는 “<span class='quot0'>고르고 사우루스의 DNA 속에는 뼈 감염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질병을 자연 치유해내는 놀라운 특수면역체계가 숨겨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DNA는 앞으로 인간 면역 시스템 개선과 암 치료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매닝 교수는 악어와 같은 파충류들이 박테리아로 가득한 늪지대에 살며 불가피한 사고로 다리나 다른 몸 부위를 잃더라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는 까닭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이번 연구는 파충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공룡DNA 속에 감염을 방지하는 특수면역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기에 차기 동물생태학, 수의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지난 주 진행된 영국왕립학회 연례 과학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br/>사진=wikipedia<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3.txt

제목: 국내 의학자, 췌장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표준수술법 제시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51840004  
본문: 국내 의학자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연구를 통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표준수술법을 제시했다.<br/><br/>서울대병원 외과 김선회·장진영·강미주 교수팀은 2006~2010년까지 국내 7개 병원에서 췌·십이지장절제술이 예정된 췌장암 환자 169명을 표준 림프절·신경절제술 그룹(비교군·83명)과 확대 림프절·신경절제술 그룹(대조군·86명)으로 나눈 뒤 각 그룹의 수술 후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 <br/>　<br/><br/><br/><br/>췌·십이지장절제술은 복부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로, 췌장과 십이지장·담도를 함께 절제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표준 림프절 절제술은 췌장 주위의 림프절 중 암 전이 가능성이 높은 특정 림프절만 제거하는데 비해 확대 림프절 절제술은 표준 림프절 절제술 보다 림프절 절제 범위가 넓고, 주변의 신경 조직까지 제거한다. 　<br/>분석 결과, 췌장암 수술 후 2년 생존율이 비교군은 44.5%인데 비해 대조군은 35.7%로 나타났다. 암의 무(無)진행 2년 생존율도 비교군은 25.2%, 대조군은 19%로 나타났다. 또 확대 림프절 절제술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확대 절제 시에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약간 증가했다. <br/>연구팀은 이와 함께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생존율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중앙값)은 20.8개월인데 비해 그렇지 않은 환자는 14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군 중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2년 생존율은 50.7%인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는 25%로 절반에 불과했다. 　<br/>췌장암은 한국인 암 발생 9위, 암 사망 5위, 5년 생존율이 7.8%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무척 나쁜 대표적인 암으로 꼽힌다.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적 절제가 필수적이지만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란이 적지 않았다. 　<br/>췌장암의 암세포는 췌장 주변의 림프절과 신경을 통해 퍼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췌장 주위 림프절과 신경을 폭넓게 절제해 왔으나, 난치성 설사와 영양실조 등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은 수술 절제 범위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수술의 치료 성적이나 합병증에 큰 차이가 있었다. 　<br/>연구팀은 “표준 림프절 절제만으로도 확대 림프절 절제와 동등한 수준의 췌장암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 밝혀짐으로써 이후 난치성 설사, 영양실조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확대 림프절 절제술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술 후 적극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췌장암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표준 림프절 절제술 후 적극적인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r/>이 연구 결과는 세계췌장학회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학회에 발표돼 췌장암 수술 범위에 대한 학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외과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Annals of Surgery) 최근호에 게재됐다.<br/>한편, 서울대병원 외과는 1961년 국내 최초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3000례가 넘는 수술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술 후 장기 생존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술 직후 사망률은 0.3%로 존스홉킨스 대학의 1.6%보다 오히려 낮으며, 비슷한 수술법을 적용하는 담도암 등의 완치율은 오히려 1.5~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4.txt

제목: 서울대 연구팀 ‘대변 제공자’ 공개모집 왜?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51235350  
본문: 서울대의 한 연구팀이 최근 ‘대변’ 제공자를 공개 모집해 눈길을 끌고 있다.<br/><br/><br/>6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보건대학원 환경보건미생물연구실은 지난 1일 대변 시료를 제공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단 하루 만에 연구에 필요한 30명을 확보했다. 연구팀은 애초 7일까지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었다. 참여 자격은 최근 6개월 안에 항생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20~40세의 건강한 성인이다.<br/><br/><br/>연구팀은 최근 사람 몸 안의 장내 미생물이 비만, 당뇨, 암, 우울증 등의 질환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체에 유용한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이러한 질병들을 고칠 치료제를 개발할 목적으로 대변 시료를 공개 모집했다. <br/><br/><br/>장내 미생물 관련 연구가 그동안 사람 또는 동물 실험군과 대조군 간 장내 미생물을 비교하는 식으로 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서울대 연구팀은 인공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br/><br/><br/>연구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변 시료에서 사람의 대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채취한 다음 이를 배양, 분리해 인체에 유용한 장내 미생물을 확보하고 미생물의 질환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할 예정</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건강검진과 달리 장내 미생물 실험은 배변이 이뤄진 지 1시간 안에 실험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다음 주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br/><br/>실험을 이끄는 고광표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비만, 당뇨병 등을 치료할 방법을 찾는 게 목표</span>”라고 말했다.<br/><br/><b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5.txt

제목: [책꽂이]  
날짜: 2014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50447728  
본문: 책들의 숲이여 음향이여(김언호 지음, 한길사 펴냄) 39년째 책을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출판인의 일기. 2013년 한 해를 담은 글은 위기의 출판계, 새로운 도전 ‘지혜의 숲’ 등 그의 생각과 열정, 고뇌가 녹아 있다. 파주출판도시 사람들의 기록이자 책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발자취로도 다가온다. 692쪽. 1만 9000원.<br/><br/><br/><br/>사회를 말하는 사회(정수복 외 지음, 북바이북 펴냄) 한국 사회를 정의한 ‘○○사회’의 종합판. 사회학자 정수복,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진혁 EBS 프로듀서, 문화평론가 문강형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저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현상을 분석했다. 30개 키워드로 이 사회가 갖춰야 할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 296쪽. 1만 5000원.<br/><br/><br/><br/>식물성 기름, 뜻밖의 살인자(데이비드 길레스피 지음, 이주만 옮김, 북로그컴퍼니 펴냄) 비만, 암, 당뇨를 부른다는 동물성 기름을 대체하는 식물성 기름. 그런데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등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통념이 생긴 배경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핀다. 240쪽. 1만 3800원.<br/><br/><br/><br/>위험한 동거(이상헌·이보아·이정필·박배균 지음, 알트 펴냄) 밀양 할머니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고리·월성 주민들은 왜 이토록 불안한지 생생하게 담았다. 안전하다는 핵 발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200쪽. 1만 7000원.<br/><br/><br/><br/>휴전회담과 이승만(정일화 지음, 선한약속 펴냄)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책 결정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이 전쟁 위기를 극복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한국이 휴전 후 지금껏 이룬 안정과 번영의 배경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참전 16개국의 재파병선언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718쪽. 2만 5000원.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6.txt

제목: 먹으면 젊어진다? ‘아스파라거스’의 장점 6가지  
날짜: 2014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0432158  
본문: 멸대, 열대라고 불리기도 하는 백합과 다년초인 ‘아스파라거스’는 길쭉한 모양과 아삭아삭 씹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여러 요리에 폭넓게 활용되는 식재료로 인기가 높다. <br/>미국, 유럽에서 샐러드용으로 많이 쓰이는 아스파라거스는 비타민, 칼슘, 칼륨은 물론 숙취해소에 효과가 높은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 특히 노화예방, 심장질환예방, 암 예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아스파라거스의 영양학적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최근 소개했다.<br/><br/>1. 심장 건강 보호<br/>아스파라거스에 풍부한 비타민B와 K 그리고 아미노산 성분인 아스파라긴은 심장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비타민B는 심장질환에 높은 영향을 끼치는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을 알맞게 조절해준다. 비타민K는 혈액 응고를 방지해 건강한 피가 심장으로 공급되도록 도와주며 아스파라긴은 체내 유해 나트륨을 배출시킨다.<br/>2. 혈당 조절<br/>아스파라거스에 풍부한 비타민B는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 혈당이 알맞게 조절되도록 도와준다.<br/>3. 2형 당뇨병 예방<br/>아스파라거스에 풍부한 항산화물질은 제2형 당뇨병의 유발 가능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킨다. 2011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에 함유된 항산화물질은 체내 인슐린 분비를 알맞게 조절하고 β-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 당뇨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다. <br/>4. 노화방지<br/>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이자 결정성 폴리펩티드인 글루타티온은 신체 노화 과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또한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 속 엽산과 비타민B12 성분이 인지기능저하를 방지해 노년에도 또렷한 기억력과 판단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br/>5. 신장결석 예방<br/>아스파라거스에 풍부한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은 천연 이뇨제로 신장결석을 예방해준다. 이 성분은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br/>6. 소화기 건강 개선과 암 예방<br/>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다당류인 이눌린은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 물질이다. 이는 장내 건강을 청결하게 유지시키고 이로운 미생물이 증식되도록 도와줘 소화기능 개선은 물론 대장암 예방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7.txt

제목: 전문의가 말하는 ‘연령대별 유방암 살피기’  
날짜: 2014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45646382  
본문: 헐리웃의 유명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최근 유방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슴을 절제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까지”라고 말했지만 “가능성을 따지자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유방암 위험이 우리나라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OECD 2012년도 건강 자료(Health Data)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환자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국내 환자 증가율은 90.7%로, 2위인 일본(30.6%)보다 무려 세 배나 높다. 선진국형 질병으로 알려진 유방암은 발생 위험인자로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폐경 후 비만, 고지방 고단백식 등이 꼽힌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를 넘는다. 연령대에 따른 관심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br/>　<br/>■10~20대= 덩어리 만져지는 섬유선종 주의해야<br/>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섬유선종 발병률이 높은 시기다. 섬유선종은 가장 흔한 유방 양성종양으로,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병할 수 있지만 주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난다. 유방에 구슬 같은 혹이 만져진다면 섬유선종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이 혹은 경계가 분명하고, 움직임이 잦으며,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둥글거나 몇 개의 작은 덩어리들이 뭉쳐진 듯하며, 고무지우개와 비슷한 단단함이 느껴진다. 암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크기가 크거나 추적관찰시 크기나 모양이 변한다면 조직검사를 거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30~40대= 섬유낭종성 병변 및 유방암 검진이 필요한 시기<br/>이 연령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양성종양은 섬유낭종성 병변이 대표적이다. 섬유낭종성 병변은 질병이라기보다 유방의 퇴화 과정에 나타나는 변화로 알려져 있다. 30대 환자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 20대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주기적인 유방통을 일으키는 특성을 보인다. <br/><br/><br/>또 30대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30대가 되면 유방조직이 치밀해져 초음파 등의 검사가 어려워지므로 자가진단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자가진단 방법은 간단하다. 매월 생리 후 3~4일 이내에 양팔을 들어 올려 양쪽 유방이 똑같이 따라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양팔을 겨드랑이에 고정시킨 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유방의 출렁거림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한다. 30대 후반이라면 2년 간격, 40대라면 1년 간격으로 의사 진찰 및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br/>　<br/>■40~50대= 유방암에 가장 취약한 시기<br/>국내에서 유방암은 4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멍울이 만져지는 것인데, 통증이 없어 초기에는 자가진단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멍울 외에 유두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겨드랑이에서 혹이 만져지기도 한다.<br/><br/><br/>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족력이 중요하며,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구피임약의 장기 복용도 중요한 발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br/>　<br/>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임우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만약 멍울 등의 증상이 느껴지는 암이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span>”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유방암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span>”라면서 “<span class='quot0'>따라서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자가진단이 중요한데, 폐경 전이라면 매월 생리 직후에 자가진단을 통해 이상 징후를 파악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8.txt

제목: 서울 유명 사립대 로스쿨서 ‘성희롱 강의’ 물의  
날짜: 2014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44157891  
본문: 서울 시내 모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br/>2일 학교 측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는 지난달 30일 첫 수업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남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이튿날 수업에선 “암○가 발정이 나면(중략)”이라고 말하는 등 잇따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br/>A교수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간에도 친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희망자에 대해 수강 철회를 허용했으며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대로 해당 교수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br/>학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부적절한 발언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폐강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span>”이라고 밝혔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59.txt

제목: 60만원에 7개월 된 딸 팔아넘긴 대학생 아빠  
날짜: 2014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43708782  
본문: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매매한 대학생 A(20)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의 한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입양 블로그에 아이를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을 거래하는 데는 단 일주일이 걸렸다.<br/><br/><br/>A씨는 동거하던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여관 등에서 몰래 키우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다가 동거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해 B씨로부터 60만원을 받아냈다.<br/><br/><br/>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4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우연하게 블로그 글을 보고 입양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br/><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B씨의 입양 과정을 전해 들은 B씨의 지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꼬리가 잡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B씨가 다른 의도로 입양을 했는지 조사를 했지만 아직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현재 A씨의 딸은 아동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A씨가 다시 키울 것으로 전해졌다. <br/><br/><br/>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0.txt

제목: 2025년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혁신 10가지  
날짜: 2014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70055649  
본문: 최근 개봉한 영화 ‘그녀’(Her)의 배경인 2025년 로스앤젤레스(LA)의 시민들은 키보드가 아닌 ‘구두(口頭)’로 문서를 작성하고 인공지능 운영체제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첨단 생활을 한다. <br/>그렇다면 우리가 영화 속 배경의 연도를 맞이하기까지 불과 11년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2025년의 생활상은 실제 어떻게 변할까?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전문매체 톰슨로이터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혁신될 10가지 생활형태 보고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br/>톰슨로이터 지적재산·과학비즈니스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 특허현황과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11년 후 미래 생활상에서 혁신적으로 변화될 10가지를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중 괄목할만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생명유전공학, 물리학, 의학, 에너지 공학 등이다. 이에 2025년에는 1형 당뇨병 예방, 치매 환자 감소, 양자 순간이동이 현실화되고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보편화 된다. <br/>유전공학의 발달로 식량 공급이 원활해지고 항공우주공학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경량화 비행이동수단이 등장해 현 운전면허처럼 파일럿 면허가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석유 포장지 대신 100% 자연분해가 가능한 셀룰로오스 포장지가 등장할 것이고 독성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암 치료제가 보급될 것이다. <br/>DNA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 출생 직후 질병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모든 대륙이 디지털로 연결될 것이다. 영화처럼 사람이 직접 순간 이동하는 기술은 2025년에도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양자 입자를 통한 순간이동 실험은 성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br/><br/>1. 치매 감소<br/>2. 태양광 발전 보편화<br/>3. 1형 당뇨병 예방<br/>4. 식량부족 종결<br/>5. 비행면허 취득 일상화<br/>6. 전 세계 대륙의 디지털 화<br/>7. 석유 원료 포장지가 사라지고 100% 분해 가능한 셀룰로오스 기반 포장지 등장<br/>8. 효과↑ 부작용↓ 암 치료제 등장<br/>9. 인간 DNA 해독기술 발달<br/>10. 양자 순간 이동 현실화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1.txt

제목: 이렇게 하면 항암효과↑…힐링 식사법 ‘6가지’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921914  
본문: 평소 일상생활에서 암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매일 3끼 먹는 식단구성을 건강과 체내 항암면역력 증진에 알맞도록 조절해주는 것이 순서상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일 것이다. <br/>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워싱턴DC 기반 비영리의학단체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위한 의사회’(Physicians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 PCRM)가 추천한 항암용 힐링 식사법 6가지를 30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PCRM의 힐링 식사 가이드라인은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의 실제 항암치료에 쓰이는 식단 구성에 기준을 둔다. 간단히 설명하면 과일과 야채의 섭취를 늘리고 육류, 유제품, 알코올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br/>1. 과일과 야채를 듬뿍 먹는다. 특히 브로콜리, 채소 잎사귀가 좋다<br/>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채식은 암과 심장질환 위험성을 낮춰주는 대표적 식단이다. 특히 브로콜리 같은 쌍떡잎식물과 채소 잎사귀에는 암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br/>2. 간장, 두부 등 콩으로 만든 요리는 유방암을 예방한다 <br/>완두콩, 간장, 두부 등 각종 콩이 첨가된 요리는 탁월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효소 저해제(Bowman-Birk Inhibitor)가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3. 유제품 섭취는 줄이는 게 좋다<br/>우유 등의 유제품은 풍부한 영양분으로 인체에 긍정적 작용을 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암 유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발에 유제품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그 이유는 유제품 속에 풍부한 칼슘 숫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제품을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가족력에 전립선암이 많이 나타났다면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br/>4. 알코올을 멀리하라<br/>술은 후두암, 식도암, 직장암, 결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 발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PCRM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술자리를 한 번 가질 경우 후두암, 식도암 발병률이 24%, 하루에 2~3번 술자리를 가질 경우 대장암 발생률이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암 협회는 남자의 경우 하루 두잔, 여자의 경우는 하루 한잔 정도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br/>5. 붉은 고기, 가공육류는 덜 먹는 게 좋다<br/>하버드 메디컬 센터 연구에 따르면,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류 섭취를 제한하면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뇌졸중, 당뇨병까지 예방된다. 또한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붉은 색 소고기, 돼지고기 섭취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6. 튀김·구이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br/>각종 튀김이나 구이 음식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다. 해당 방식처럼 고온에서 식품을 조리할 경우, 헤테로사이클릭아민(Heterocyclic Amine)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될 수 있는데 이는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br/>한편 이 연구결과는 미국 영양학회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30일자에 주요 이슈로 소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2.txt

제목: 2025년 생활상 어떻게 바뀔까? 혁신될 ‘10가지’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839655  
본문: 최근 개봉한 영화 ‘그녀’(Her)의 배경인 2025년 로스앤젤레스(LA)의 시민들은 키보드가 아닌 ‘구두(口頭)’로 문서를 작성하고 인공지능 운영체제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첨단 생활을 한다. <br/>그렇다면 우리가 영화 속 배경의 연도를 맞이하기까지 불과 11년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2025년의 생활상은 실제 어떻게 변할까?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전문매체 톰슨로이터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혁신될 10가지 생활형태 보고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br/>톰슨로이터 지적재산·과학비즈니스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 특허현황과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11년 후 미래 생활상에서 혁신적으로 변화될 10가지를 예측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중 괄목할만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생명유전공학, 물리학, 의학, 에너지 공학 등이다. 이에 2025년에는 1형 당뇨병 예방, 치매 환자 감소, 양자 순간이동이 현실화되고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보편화 된다. <br/>유전공학의 발달로 식량 공급이 원활해지고 항공우주공학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경량화 비행이동수단이 등장해 현 운전면허처럼 파일럿 면허가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석유 포장지 대신 100% 자연분해가 가능한 셀룰로오스 포장지가 등장할 것이고 독성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암 치료제가 보급될 것이다. <br/>DNA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 출생 직후 질병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모든 대륙이 디지털로 연결될 것이다. 영화처럼 사람이 직접 순간 이동하는 기술은 2025년에도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양자 입자를 통한 순간이동 실험은 성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br/><br/>1. 치매 감소<br/>2. 태양광 발전 보편화<br/>3. 1형 당뇨병 예방<br/>4. 식량부족 종결<br/>5. 비행면허 취득 일상화<br/>6. 전 세계 대륙의 디지털 화<br/>7. 석유 원료 포장지가 사라지고 100% 분해 가능한 셀룰로오스 기반 포장지 등장<br/>8. 효과↑ 부작용↓ 암 치료제 등장<br/>9. 인간 DNA 해독기술 발달<br/>10. 양자 순간 이동 현실화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3.txt

제목: ‘암세포 27개’ 한순간 사라져…2세 유아 기적 생존기  
날짜: 2014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747912  
본문: 머리부터 발목까지 악성종양으로 뒤덮여 목숨이 위태로웠던 유아가 수주일 만에 회복되는 놀라운 사례가 발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암세포가 몸을 괴롭히는 힘겨운 상황을 이겨낸 2살 유아 키안 머스그로브의 기적 같은 사연을 29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머스그로브의 몸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건 작년 여름, 터키로 가족여행을 떠난 직후였다. 현지에서 몸 균형을 잡지 못해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고온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증세가 발견되자 엄마 캣 머스그로브(26)는 황급히 여행지 인근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서 바이러스감염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br/>재빨리 영국으로 돌아온 머스그로브 가족은 동네 병원을 찾아 X-레이 촬영 등 정밀 검진을 받았다. 이때도 담당 의사는 단순바이러스감염이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그렇게 믿기에는 키안의 상태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다른 병원을 6군데씩 찾아가며 철저한 재검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의사들은 바이러스감염 판정을 내릴 뿐, 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br/>마지막으로 머스그로브 가족이 찾은 곳은 규모가 큰 뉴캐슬 빅토리아 병원이었다. 빅토리아 병원 의료진 역시 처음에는 키안의 증상을 바이러스감염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혈액검사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 키안이 희귀질환인 신경모세포종(neuroblastoma)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br/>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5세 미만 소아에게 주로 나타난다. 초기 증세가 분명하지 않아 이미 악성종양이 많이 전이된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암세포가 림프절, 뼈, 골, 간까지 전이된 4기일 때의 생존율은 1세 미만일 때 50~80%, 1세 이상일 때는 10~30%에 불과하다. <br/>X-레이에 나타난 키안의 상태는 특히 심각했다. 두개골, 척추, 림프절은 물론 다리까지 검은 색 악성종양 27개가 꽉 차있었기에 의료진은 키안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키안의 엄마 캣은 “아이의 전신 스캔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기절할 뻔 했다. 키안의 몸은 내장부터 뼈까지 암세포로 가득 했다. 유일하게 암이 침범하지 못한 부분은 손과 발이었다”고 회상했다. <br/>하지만 가족은 절망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의젓했던 키안의 굳은 인내심과 생존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다. 의료진 역시 최선을 다해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r/>먼저 의료진은 키안의 림프절에 발생한 특히 심각했던 악성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한 뒤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집중적인 화학치료를 받는 만큼 어린 키안이 받는 고통이 상당했지만 그는 삶에 대한 굳은 의지로 모든 역경을 참아냈다.<br/>그리고 집중치료가 진행되던 10주차에 기적이 찾아왔다. 키안의 몸을 스캔한 결과, 27개 암세포가 남김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높은 회복속도를 보인 경우는 드물기에 키안의 사례는 남다르게 느껴진다. <br/>현재 키안은 암세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다. 가족들은 키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암 치료 연구에서 선두에 서있는 미국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치료비 조달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병행 중이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4.txt

제목: 죽음 앞두고 결혼서약…어느 노부부의 감동사연  
날짜: 2014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648675  
본문: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던 어느 노부부의 사연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br/>영국 울버햄튼 지역 일간지 익스프레스앤스타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부인 자넷 존스(79)와 남편 게딘 존스(85)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결혼서약 소식을 27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지난 26일(현지시각), 영국 울버햄튼 콤트 호스피스 병동 한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노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까닭은 조금 있으면 시작될 노부부만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br/>병원 침대위에 누워있던 부인 자넷은 남편 게딘이 다가오자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고통이 느껴지는 듯, 자넷의 얼굴이 다소 불편해보이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 남편은 아내의 몸 옆에 함께 기울인 채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한다. 내용은 서로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결혼서약문이다.<br/>당일은 자넷과 게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1954년 6월 26일에서 정확히 60주년이 된 날이었다. 현재 말기 암으로 시한부 생을 살고 있는 자넷은 더 늦기 전에 남편과 다시 한 번 사랑을 확인하고자 60주년 결혼기념식을 병동에서 치르기로 마음먹었고 병동 사람들과 친지들이 참석해 노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축복해줬다.<br/>자넷과 게딘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 대한 느낌이 범상치 않았다. 댄스파티에서 처음 만난 둘 중 먼저 반한 것은 부인 자넷이었는데 그녀는 게딘에게 추파를 던졌던 다른 여성의 얼굴에 커스터드 파이를 던지며 “내 남자한테서 떠나”라고 일갈했던 터프한 과거가 있었다.<br/>이후 60년 간 자넷과 게딘은 서로를 아끼며 잉꼬부부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불행히도 말기 암을 앓게 된 자넷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다시 결혼서약서를 읽으며 두 부부의 사랑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다. <br/>자넷은 “나는 남편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며 “이제 내가 떠나면 게딘이 무척 상심하고 그리워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br/>한편, 자넷은 그녀의 조카인 랄프에게 본인의 유골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관한 뒤, 후에 두 유골을 함께 바닷가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녀는 “아무도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5.txt

제목: 덫이 목 조여도 새끼 위해 굴 파…하이에나의 모정(母情)  
날짜: 2014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641154  
본문: 사냥용 덫에 걸려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갓 낳은 새끼를 보살핀 어미 하이에나의 모습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br/>영국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덫에 걸려 가슴부분에 출혈이 계속되는 악조건에서도 갓 태어난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엄마 하이에나의 사연을 27일(현지시각) 소개했다.<br/>최근 아프리카 세이브 벨리 자연보호구역을 순찰하던 짐바브웨 불법밀렵감시정찰대는 작은 웅덩이 옆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한 암컷 하이에나를 발견했다. 밀렵꾼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올무(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설치된 올가미)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암컷 하이에나는 수 시간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였다. 이를 심각하게 인지한 정찰대는 아프리카 야생 동물 보호 기금(African Wildlife Conservation Fund)에 긴급 구조요청을 보냈다.<br/>현장에 도착한 보호 기금 관계자들은 암컷 하이에나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올무 인근에 작은 굴이 파져있었고 그 곳에는 갓 태어난 새끼 하이에나 2마리가 몸을 숨기고 있던 것이다. 암컷 하이에나는 만삭 상태에서 덫에 걸린 채, 새끼를 출산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굴을 팠던 것이다. <br/>암컷 하이에나의 상태는 심각했다. 다행히 올무 자체가 살을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하이에나의 가슴부분은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충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는 정신적으로 민감한 임신상태에서 덫에 걸렸고 그 즉시 새끼들을 출산하고 보호해야했던 환경적 스트레스가 출산외상(birth trauma)을 일으켰기 때문이다.<br/>기금 관계자들은 하이에나의 올무를 모두 제거한 뒤 상처부위를 소독해 추가감염이 오지 않도록 주의했다.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뒤, 다음 날 같은 장소를 기금 관계자들이 찾았을 때 어미 하이에나와 새끼들은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아프리카 야생 동물 보호 기금 프로젝트 디렉터 로즈마리 그룸 박사는 “<span class='quot0'>어미 하이에나가 몸을 회복한 뒤 안전한 장소를 찾아 새끼들을 데리고 피신한 것 같다</span>”고 설명했다.<br/>한편, 아프리카 야생 동물 보호 기금(African Wildlife Conservation Fund)는 아프리카 들개(리카온, African wild dog), 하이에나와 같은 야생 육식동물 보존과 구조를 위해 조직됐으며 현재 짐바브웨 남부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6.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김성수 원장, MBC 뉴스 보도  
날짜: 2014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544403  
본문: 최근 암치료에 대한 시각이 종양의 제거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면역’이라는 키워드가 주목 받고 있다. <br/>암이 발생한 몸은 이미 면역체계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이를 통해 종양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재발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무너진 면역체계를 개선해 스스로 암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br/>MBC 이브닝뉴스는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바이러스 잡는 면역력’을 통해 면역의 개념과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을 보도했다. <br/>이날 방송에는 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대표원장이 출연해 한의학이 바라보는 면역의 개념, 암치료와 면역의 관계, 면역을 높이는 음식과 생활습관을 소개했다.<br/>한편 소람한방병원은 양한방협진을 통해 암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약침, 뜸과 같은 한방치료와 함께 미슬토, 비훈요법,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암치료는 암세포 감소와 함께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부작용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이날 방송은 소람한방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7.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히포크라테스도 암 등 치료제로 활용  
날짜: 2014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33103280  
본문: 백합과의 채소인 마늘은 원산지가 확실치 않다. 중앙아시아 인근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고대부터 요리 재료보다는 약재로 널리 이용됐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악마를 쫓아내는 용도로 이용됐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암 치료 식단으로 마늘을 이용했다. 이런 약효는 1928년 독일의 막스 거슨 박사에 의해 재발견됐는데 감자(400g), 양파(중간크기 2개), 샐러리(중간크기 1뿌리), 토마토 200~400g, 마늘 한 줌을 스테인리스나 유리냄비에 앉혀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 익혀 죽처럼 만드는 것이다.<br/><br/><br/>마늘의 고향은 중앙아시아 인근일 것이라는 추정만 있다. 식물학적 학명의 창시자 칼 폰 린네는 마늘의 원산지를 이탈리아의 시실리섬이라고 기록했지만 독일의 식물학자 쿤트는 역사 기록에 의거해 이집트 설을 주장했다. 서부 아시아와 인도 설이 제기되기도 했고, 이에 반대해 러시아의 바빌로브는 종의 다양성을 근거로 중앙아시아 설을 제시하기도 했다.<br/><br/><br/>태어난 곳은 불분명하지만 마늘은 고대부터 이집트와 그리스 등에서 널리 이용됐다. 기원전 2500년 전 축조된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면에는 건설에 동원된 노무자에게 준 마늘과 양파를 기록한 벽화가 있다. 비슷한 시기 고대 바빌로니아 유물 중 점토판에서 40부셀의 마늘을 주문했다는 문구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br/><br/><br/>기원전 550년경에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충치로 인한 통증 제거, 동물에게 물린 상처나 기생충 구제, 심장병 회복에 마늘을 처방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선수들이나 검투사들도 기력 증진을 위해 마늘을 씹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할때 병사들에게 영양식으로 지급된 기록도 남아있다.<br/><br/><br/>동양에도 자생적인 마늘(蒜)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마늘은 한나라(기원전 126년) 때 장건에 의해 서역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br/>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기원전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국사기에 ‘입추후 해일 산원제후농’(立秋後 亥日 蒜園祭後農)이란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재배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통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서기(720년), 본초화명(918) 등의 문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8.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마늘  
날짜: 2014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33058647  
본문: 외국인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면 그 출신국에 따라 특이한 체취를 맡게 된다. 미국인, 인도인, 몽골인 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특유의 체취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체취는 무엇일까? 바로 마늘 등의 양념이 하나로 어우러져 소화된 후, 우리의 땀샘으로부터 분비되는 향이다. 이런 향은 우리 민족의 음식 정체성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 한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음식은 무엇일까? 쌀밥, 김치, 갈비, 불고기, 된장, 고추장 이 정도면 충분할까? 각종 찌개와 전골 그리고 국(탕) 등의 음식과 다 셀 수조차 없는 절임류의 밑반찬은 또 어떨까? 하지만 대부분의 한식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양념이고, 그 대표적 존재가 바로 마늘이다. 두말해 무엇 하겠는가? 우리의 건국신화로부터 이어온 마늘의 존재감을.<br/><br/><br/><br/><br/><br/><br/><br/><br/><br/><br/><br/><br/><br/>마늘은 양파, 파, 부추 등과 함께 백합과에 속하며, 세부 분류에서는 알리움(Allium) 속(屬)으로 분류되는 채소다. 백합과 식물 중 다른 속의 식물들은 대부분 뿌리에 독성이 있는 반면, 마늘은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사랑받아왔다. 흔히 불가에서 말하는 오신채(五辛菜)에서도 첫 머리에 꼽히는 작물이다. <br/><br/>불가에서는 마늘, 파, 생강, 부추, 달래 등 다섯 가지 매운맛이 나는 채소를 오신채라고 부르는데, 능엄경에는 오신채를 날로 먹으면 분노하기 쉽고, 익혀 먹으면 욕망이 일어나 수행자가 피할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br/><br/>마늘의 영양 성분은 400여종으로 다양하다. 주요 구성 성분을 보면 수분이 약 60%, 단백질은 3% 정도다. 또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 곡류보다 몸에 좋은 시스틴, 히스티딘, 리신의 비율이 높다. 당도는 바나나의 2배, 수박의 3배에 이를 정도지만, 매운맛과 향 때문에 잘 느낄 수는 없다. 칼륨, 칼슘, 셀레늄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1, B2, C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다량 함유된 황화합물은 매운맛과 독특한 냄새의 원인이자 기능성 핵심 물질로, 대표 성분인 알린(Alliin)은 갈거나 다지면 분해가 되면서 알리신(Allicin)으로 바뀌어 강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br/><br/>강한 향을 제외하면 100가지의 이로움이 있다고 알려진 마늘의 효능은 현대 과학의 힘으로 밝혀지고 있다. 항암, 항균, 혈관질환 치료, 항산화, 면역 증강, 중금속 해독, 항피로작용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성분인 알리신, 유기성 게르마늄, 셀레늄 등은 암 억제와 예방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미국 국립암센터는 마늘을 항암 식품 최상위 1군에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늘이 간암·위암·폐암·유방암 등에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항균 작용의 핵심은 알리신으로, 주요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보다 살균력이 강력하며 복용과 외용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마늘이 가진 황화합물, 페놀성 물질, 비타민C 등은 항산화제로 작용해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고, 혈관 내 지방합성을 감소시키고 혈전을 녹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또 칼륨이 나트륨을 제거해 고혈압 등 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항산화 물질 중 알리신의 2차 물질인 설펜산의 활성산소 제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고돼 있다.<br/><br/><br/><br/><br/><br/>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마늘장아찌, 마늘 초절임 등 다양한 형태로 마늘의 냄새와 자극성을 없애고 기능성은 보존하는 형태로 섭취해 왔다. 마늘장아찌와 마늘 초절임은 효능 면에서 생마늘과 유사한 한편 암과 혈관 질환 등에 효과가 좋은 설파이드 성분 함량이 많은 특징이 있다. <br/><br/>마늘을 발효시켜 만든 흑마늘도 감마글루타민 등의 새로운 단백질 성분이 생성되면서 항암, 항산화력이 매우 높다고 보고돼 있다. 숙성된 마늘의 추출물은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숙성마늘 추출액, 알리신 등은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신경세포 생존과 재생 촉진 작용에 효과적이다. 마늘에서 추출한 기름도 다이설파이드류가 풍부해 혈전 용해, 혈소판응집 저해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또 생마늘에 비해 자극성도 적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발라 항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천연항생제의 역할도 기대된다. <br/><br/>마늘뿐 아니라 마늘종도 성인병과 복부 비만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대사증후군에 효과가 있다. 마늘의 효능이 과학으로 입증되자 다양한 가공품이 개발되고 있다. 다진 마늘, 분말, 기름 등의 형태로 가공하거나 숙성시킨 것이 일반적이고, 마늘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발효 숙성시킨 흑마늘 제품이 환·엑기스 등의 형태로 나왔다. 마늘의 기능성에 주목해 상품화된 건강보조제, 약리작용이 있는 기능성 물질만을 추출한 건강보조식품도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기농을 기반으로 많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출시하고 있다. 피로회복 기능으로 유명해진 마늘주사는 비타민 B1이 몸에 잘 흡수되게 인공적으로 만든 ‘염산 푸르설티아민’ 주사제다. 입안에서 마늘 냄새가 남아 붙여진 별명이며, 최근에는 진짜 마늘추출물이 함유된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br/><br/>곽정호 농촌진흥청 채소과 이학박사<br/><br/>문의 kdlrudw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69.txt

제목: 2억 광년 밖에서 포착된 이상신호…‘암흑물질’ 유력  
날짜: 2014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318146  
본문: 아득히 먼 2억 광년 밖 은하에서 전해진 이상신호가 우주물리학의 미지영역으로 남아있는 ‘암흑물질’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전문매체 네이처 월드 뉴스는 하버드-스미소니언 천문센터(Harvard-Smithsonian Center for Astrophysics) 연구진이 ‘암흑물질’이라 유력하게 추정되는 이상신호를 발견했다고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br/>미 항공 우주국(NASA) 찬드라(Chandra) X선 망원경과 유럽 우주국(ESA) XMM-뉴턴 망원경에 포착된 해당 신호의 발원지는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자리 은하단(Perseus cluster of galaxies)으로 확인됐다.<br/>연구진에 따르면, 이 이상신호는 기존 페르세우스 은하단에서 나온 X-선 강도와 다른 보기 드문 형태의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이 이상신호를 분석해보면 중성미자가 붕괴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br/>흥미로운 것은 이 중성미자 붕괴 형태가 ‘단종 중성미자(sterile neutrino)’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단종 중성미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에 질량이 0에 수렴하는 소립자’라는 기본 특성은 같지만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중성미자들과 구별된다. 또한 오랫동안 천문학계에서는 이 단종 중성미자가 암흑물질의 진짜 정체라는 가설이 유력한 설득력을 얻어오고 있었다.<br/>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총 물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육안은 물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감마선에도 잡히지 않는다.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질량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br/>하버드-스미소니언 천문센터 측은 “다른 우주관측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호가 포착되었는지 확인한 후, 추가적 파장 분석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 우주과학 학술지인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ophysical Journal)’ 20일자에 게재됐다. <br/>사진=NASA/CXC/SAO<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0.txt

제목: 유방절제 앞둔 여성 위해 ‘강남스타일’ 춤 춘 의료진 가슴 뭉클  
날짜: 2014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31819425  
본문: 한 여성이 유방절제 수술을 받기 전, 의사·간호사들이 그녀를 위해 함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이 감동을 주고 있다.<br/><br/>24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조지아주 스톡브리지에 위치한 피드몬트 앙리 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앞 둔 도리타 노리스(52)라는 여성을 위해 병원식구들이 이 같은 퍼포먼스에 동참한 것이다.<br/><br/>노리스는 지난해 11월 유방X-선 촬영에서 종양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받고 오른쪽 유방을 제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br/><br/>최근 수술을 앞둔 노리스에게 병원측은 수술에 들어가기 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춤추는 것을 원한다’고 답한 것.<br/><br/>수술실에 들어가기전 병원 복도에서 핸드폰 스피커로 K-POP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자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과 직원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가운데 노리스도 웃으며 즐겁게 춤을 추었다. <br/><br/><br/><br/>뉴욕데일리메일은 이런 노리스의 모습은 암이 그녀의 가슴을 가져갔을지 몰라도 그녀의 밝고 경쾌한 정신까지 가져가지는 못한 것 같다고 설명하고, 노리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br/><br/>사진·영상=Piedmont Healthcare<br/><br/>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1.txt

제목: 심리학자로 두번째 인생사는 한 살인자의 인생역전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5128643  
본문: 어린시절 살인을 저질러 11년이나 수형 생활을 한 남자가 심리학 박사가 돼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br/>최근 살인자라는 낙인을 훌훌 털어버리고 강연과 코칭, 상담 등으로 바쁜 나날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기막힌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있다. 화제의 남자는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올해 37세의 폴 우드 박사.<br/>그의 사연은 지난 1995년 크리스마스 이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약에 찌들어 살던 18세의 그는 40대 마약상 한 명을 야구 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했다.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이틀 전의 일로 방황하는 아들을 보던 엄마의 병세도 날로 악화된 탓이었다. 이웃집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폴은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이 감옥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다” 면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절망에 빠졌으며 나 역시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고 털어놨다.<br/>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폴이 수형 생활을 제대로 할 리 없었다. 감옥에서도 금지된 마약에 여전히 손을 떼지 못했고 이런저런 사고를 치며 결국 내부의 최고 엄격한 수형시설로 옮기기도 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의 삶이 바뀐 것은 20살 때 였다. 인생의 멘토를 만난 덕분이다.<br/>폴은 “어느날 한 금고털이범을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전혀 다른 길을 인도해줬다” 면서 “배움이 얼마나 중요하며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를 가르쳐줬다”고 회상했다. 이때부터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많은 수감자들을 보며 그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br/>그러나 고등학교 중퇴자로 감옥에 갇혀서 하는 공부가 쉬울리 없었지만 폴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 둘씩 과정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버지는 매주 찾아와 그에게 학업 과제를 건넸으며 메시대학교 측은 강사를 보내 수업을 도왔다. <br/>결국 지난 2006년 수감된지 11년 만에 폴은 모범수로 석방됐다. 감옥 밖을 나왔을 때 그는 2개의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였으며 박사과정도 밟고 있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지난 2012년 심리학 박사가 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br/>폴은 “그간 갱생의 문을 나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다” 면서 “그렇지만 그들 모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움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2.txt

제목: 국제개별화의료학회 발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란?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25830230  
본문: 암치료 병원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지난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 참석,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을 통한 그간의 치료 결과를 발표했다. <br/><br/>아베 이사장은 이날 학회 발표에서 아베종양내과는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기존 치료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인체 내 1% 미만인 수지상세포로 암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5mLl의 소량 혈액만으로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가능한 최신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아베 이사장은 전했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정상 혈액 중 8%의 단구에 유전자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검사를 한 후 개인별 암 항원을 추가해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로써 본 병원의 암 백신치료에 사용하는 펩타이드는 WT1 펩타이드, MUC1 펩타이드, 개인별 특이적 암항원, NY-ES01 펩타이드, 서바이빈 펩타이드, GV1001 펩타이드 등이며 이 모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span>”고 설명했다. <br/><br/>특히 GV1001 펩타이드는 췌장암 3상 임상시험 결과와 탁월한 생존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췌장암 치료제로 GV1001 펩타이드를 품목허가 신청, 전립선암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하기도 했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아베종양내과에서는 암환자의 혈액에 있는 미량의 암세포 및 말초혈순환종양세포 검사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리RNA검사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암 진단과 치료 유효판정에 영상진단, 혈액검사, 암별 유전자 분석과 CTC검사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발표했다. <br/><br/>한편 아베종양내과와 공동으로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연구 진행은 한국기업 선진바이오텍(양동근)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항암면역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특히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도 부담이 적다”고 덧붙였다. <br/><br/>뉴스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3.txt

제목: 암살자는 식사 중…B-2 스텔스기 공중급유 순간포착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4935709  
본문: 제 아무리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베일 속 고공 암살자’라도 연료가 없으면 비행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 <br/>영국 웨스턴 모닝 뉴스(Western Morning News)는 좀처럼 목격하기 어려운 B-2 스텔스기의 공중급유 장면을 22일(현지시각) 공개했다.<br/>영국 남서부의 아름다운 콘월 북부 해안선 상공에 총 날개폭 52m에 이르는 거대 비행기체가 나타났다. 납작한 가오리 모양으로 일반 전투기보다는 외계인의 UFO를 연상시키는 이 괴 비행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인 B-2 스텔스기다.<br/>미국 공군에 의해 공개된 해당 사진은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KC-135 스트래토탱커(Stratotanker)에 의해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B-2 스텔스기의 자세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 기종은 영국 글로스터셔 주(州)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2개의 B-2 스텔스기 중 하나다.<br/>B-2 스텔스기는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로 미 본토를 벗어나는 일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바다 건너 영국 공군기지에 B-2 스텔스기가 배치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 전략 사령부 세실 해니 사령관의 성명에 따르면, B-2 전략 폭격기의 유럽 배치는 미-영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파트너 간 상호 운용 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는 “전략 폭격기를 통한 비행 훈련 교류는 우리의 잠재적인 위협과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키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br/>B-2 스텔스기의 동체는 전파를 흡수하는 외면 도장(塗裝)이 되어있어 전파 반사율이 일반 폭격기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즉, 레이더에는 중간 크기의 새 정도로 파악돼 사실상 포착이 불가능하며 이에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세계 모든 분쟁지역을 수 시간 내 이동 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최대 8,000~1만 2,000㎞다. 재급유 없이 최대 40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고도 5만 피트에서 은밀히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B-2 스텔스기의 대당 가격은 21억 달러(약 2조 1,300억 원)에 달한다.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4.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글로벌 암치료 협력체 ‘WIN’ 가입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23955134  
본문: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이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윈(WIN·Worldwide Innovative Network) 컨소시엄 총회 가입했다. 윈 컨소시엄은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센터와 연구소, 제약회사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맞춤형 암 치료’ 협력체다. <br/><br/>이와 함꼐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유창식 소장(사진)이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디렉터로 위촉돼 향후 2년 동안 전 세계 ‘맞춤형 암 치료’ 관련 최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유창식 소장은 “<span class='quot0'>암 치료의 미래는 맞춤형 암 치료에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WIN컨소시엄 가입은 서울아산병원은 물론 국내 의료계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span>”라고 말했다.<br/><br/>WIN은 “세계 5개 대륙에 걸친 대규모 임상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3년 안에 전 세계 암환자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라면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에 기대가 크다”고 가입 배경을 밝혔다. <br/><br/>서울아산병원은 미국 하버드의대와 공동으로 맞춤형 암 치료 시스템인 ‘한국형 온코맵’과 차세대 유전체 해독기술을 이용한 ‘온코패널’을 구축해 아시아권에서 맞춤형 암 치료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2011년 아산-다나파버 암유전체연구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2012년에는 국내 첫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5.txt

제목: 약주고 병도 주는 감기약 너무 믿지 마세요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23504854  
본문: ‘감기 왔다하면 OO’, ‘감기에는 OOOO’<br/><br/>약도 먹지 않고 온종일 두통과 몸살을 꾹꾹 참다가 귀가한 어느 날, 힘겹게 죽을 떠먹다가 본 TV속 감기약 광고가 가슴을 방망이질 해댄다. 약 없이 감기를 이겨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당장 달려가서(아니 기어가서) 약국 문을 두드리고 싶다. <br/><br/><br/><br/><br/><br/>잘 먹고 일주일 푹 쉬면 낫는 질병이 감기지만 빨리 낫고 싶어서, 혹은 아프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는 몰이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부터 찾는다. ‘한해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 2000만명, 총진료비 1000억원’ 감기 환자가 없으면 동네 병원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br/><br/>침 삼키기가 괴로울 정도로 목이 아프고 두통 때문에 머리가 천근만근인데 감기약의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span class='quot0'>미련하게 약도 안 먹고 골골대느냐</span>”는 주변의 핀잔만 듣기 일쑤다. ‘자기관리 못하는 직원’으로 찍혀 상사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한다. 바빠서 쉴 수가 없는 사람들, 종합감기약이면 모든 증상이 한 번에 싹 해결된다고 홍보하는 제약회사, 주사 한 방 맞으면 다 낫는다는 병원. 대한민국이 감기 환자 진료비가 암 환자 진료비를 상회하는 ‘감기 공화국’이 된 이유다. <br/><br/>외국에서는 감기 환자에게 주사와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주일 푹 쉬면 나을 겁니다. 비타민 많은 과일을 드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세요” 이게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처방의 전부다. <br/><br/>감기의 원인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이며,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죽이는 약은 없다. 엄격히 말해 감기약은 없는 셈이다. <br/><br/>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은 감기 증상인 발열과 콧물,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사들은 이를 ‘대증 요법’이라고 부른다. 질병의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 표면에 나타난 증상만을 갖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대증요법을 쓰면 당장 고통은 해결되지만 우리 몸은 자체 치유를 게을리 하게 된다. 바이러스에 대항해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감기약이 들어오면 전력이 꺾여버린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지만 바이러스까지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으면 증세가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치유 반응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br/><br/>감기약이 오히려 감기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콧물은 콧속으로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몸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씻어내는 ‘물 청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면역력이 떨어져 아픈 몸을 지키기 위해 콧물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밸브를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몸이 약해진 틈을 타 감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올 것이다. <br/><br/>기침과 가래도 마찬가지다. 기침은 이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강한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가래는 점액을 이용해 목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발열은 인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신호다. 몸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목의 통증은 목을 쉬라는 신호, 두통은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으라는 신호, 으슬으슬 오한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쉬라는 신호다. <br/><br/>사춘기 반항기가 넘치는 청소년에게 매를 든다고 갑자기 순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몸에도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br/><br/>약물 오·남용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콧물을 마르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졸음,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약효가 떨어지면 그동안 억눌린 콧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코막힘 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진해거담제로 가래를 뱉어내려는 기침을 막으면, 가래 증상이 더 오래 남기도 한다. <br/><br/>물론 기침과 가래가 너무 심하거나 체온이 38.5도를 넘어서면 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무조건 약을 먹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br/><br/>항생제는 정말 피해야 할 약이다. 항생제는 세균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약으로, 감기는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감기 자체에는 원래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 <br/><br/>감기에 항생제를 쓰는 경우는 급만성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이 2차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겼을 때다. <br/><br/>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세균이 약에 적응해 내성이 생기기도 하며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나쁜 세균만 죽이는게 아니라 몸 속의 좋은 세균까지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다. 몸에 좋은 균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나쁜 균이 차지할 수도 있다. 급성 질환인 감기가 만성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선 항생제를 쓰는 병원이 절반 이상 줄었다. <br/><br/>종합감기약이라고 안전하지만은 않다. 감기 증상이 모두 개선될 듯한 인상을 주지만 함정이 있다. 종합감기약에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돼 뜻밖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현기증과 두통, 메스꺼움·구토·식욕부진, 발진·발적·가려움이다. 두통이 있어 감기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두통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br/><br/>‘감기는 약 먹으면 1주일, 안 먹으면 7일’이라고 한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일주일이면 낫는다는 얘기다. <br/><br/>일본의 자연건강의학자 노구치 하루치카는 감기를 잘 다스리면 큰 질병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감기에 걸렸다면 몸 어딘가가 좋지 않아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등이 나쁜 균을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청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감기는 애써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다. <br/><br/>굳이 부작용이 따르는 감기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의사도, 약사도, 환자도 알고 있다.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아픈 게 죄’가 되는 사회에 순응하기 위해 너도나도 감기약을 권하고, 또 복용한다. 감기에 정말 치료제가 있다면 그건 ‘쉼’을 용납해주는 사회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6.txt

제목: 갑상선암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아  
날짜: 2014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22511399  
본문: 앞으로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할 때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는 명칭을 쓸 수 없다.<br/><br/><br/>금융감독원은 20일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br/><br/>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 암은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소액 암에 대해 일반 암의 10~20% 정도로 보장하면서 일반 암처럼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br/><br/><br/>부부가 이혼하면 부부연금형 보험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사망 보험금 선지급을 ‘호스피스 선지급’으로 불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명칭도 쓸 수 없다. <br/><br/><br/>아울러 은행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율 금액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했다.<br/><br/><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7.txt

제목: “자외선도 마약처럼 중독된다”  
날짜: 2014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4709856  
본문: 햇볕에 ‘중독’될 수 있을까?<br/>최근 해외 연구팀이 햇볕도 마약처럼 중독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br/>미국 하버드의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은 엔도르핀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명 ‘행복 호르몬’으로도 유명한 엔도르핀은 뜨거운 태양볕을 20분만 받아도 분비된다. <br/>연구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험용 쥐의 털을 모두 깎은 후 6주간 규칙적으로 자외선을 쪼였다. 이는 태양이 내리쬐는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 한낮에 20~30분 정도 노출되는 자외선의 양과 비슷하다. <br/>이후 쥐의 엔도르핀의 일종인 베타엔도르핀 수치가 상승했으며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은 쥐보다 베타엔도르핀의 수치가 1.5배 많았다. <br/>베타엔도르핀은 우미 몸에서 생성되는 신경물질로, 마약과 화학구조가 유사하다. 일명 ‘자연마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특히 운동을 할 때 쾌감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br/>하지만 자외선 노출을 중단시키자 꼬리가 딱딱해지고 온 몸을 떨며 민감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마약 금단증상과 거의 동일한 ‘자외선 중독 증상’이다. <br/>연구팀은 자외선 날록손(Naloxone)이라는 엔도르핀, 모르핀 길항제(다른 약물의 작용을 감소시키는 역할)를 투여했고 그 결과 금단 현상이 잦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br/>연구팀은 “많은 사람들이 암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광욕이나 해변에서의 선탠 등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신체는 자외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햇볕에 중독되어 있다”고 밝혔다. <br/>이어 “자외선은 비타민D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피부암 등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면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하루에 20~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따. <br/>한편 일각에서는 실험쥐를 이용한 이번 실험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영국 런던칼리지대학의 클레어 스탠포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자외선이 포함된 빛과 자외선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빛을 쪼인 뒤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이 추가되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8.txt

제목: “말기암 환자의 생존기간 예측엔 주관적 삶의 질이 중요”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20551900  
본문: 말기암 환자가 스스로 느끼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이 향후 생존기간(기대여명)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br/><br/>최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치료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양하는 대신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도록 준비하려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남은 여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br/><br/><br/>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이용주·동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팀은 2006~2007년 서울·경기지역 6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입원한 말기암환자 중에서 현실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해 기대여명이 수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을 점수화해 환자의 생존기간과 비교한 결과, 신체기능 상태와 삶의 질 평가가 생존기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br/><br/><br/>연구팀에 따르면 삶의 질 평가 항목 중 특히 건강상태와 감정기능의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의 생존위험도가 낮았으며, 피로·구토·식욕부진·변비 등은 점수가 높을수록 생존위험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환자가 느끼는 건강과 감정 상태가 양호하면 생존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기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신체증상이 심하면 그만큼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br/><br/><br/>기존에도 다양한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암환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질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연구는 많았으나, 여기에는 ‘EORTC QLQ-C30’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에 비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EORTC QLQ-C30의 축약판인 ‘EORTC QLQ-C15-PAL’를 이용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br/><br/><br/>EORTC QLQ-C15-PAL은 유럽 암연구 및 치료기구 위원회(EORTC)에서 개발한 암환자 삶의 질 평가도구로, 기존의 설문조사보다 설문 내용이 간결해 환자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br/><br/>이용주 교수는 “<span class='quot0'>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나 보호자는 이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무척 궁금해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의료진은 환자가 살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가로부터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호스피스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기간은 18일로 매우 짧은 편</span>”이라고 말했다.<br/><br/><br/>이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 삶의 질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신체상태도 환자의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임이 확인 되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말기암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완화의학 관련 학술지(Support Care in Cancer) 3월호에 게재됐다.<br/>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79.txt

제목: 맛있는데 몸에도 좋아? ‘바나나’의 장점 5가지  
날짜: 2014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4440415  
본문: 지구에서 가장 널리 소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파초 과 식물인 바나나는 노랗게 물든 껍질을 벗겨내면 드러나는 하얀색 과육의 달콤함이 인상적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과, 오렌지보다 더 많이 섭취될 정도로 바나나의 인기가 독보적인데 이는 국내에서 마찬가지다. <br/>특히 바나나는 훌륭한 맛뿐 아니라 칼륨, 섬유질,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영양분이 풍부해 몸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바나나의 영양학적 장점 5가지를 최근 소개했다.<br/><br/>1. 심장 보호<br/>바나나에 풍부한 칼륨 성분은 혈관 흐름을 원활히 만들어 심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고혈압, 동맥 경화, 뇌졸중,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 질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br/>2. 우울증 완화<br/>몸에 섭취된 바나나는 뇌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아미노산 성분인 트립토판의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증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한 비타민B6와 마그네슘은 각각 숙면 유도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 <br/>3. 소화 및 체중 감소<br/>바나나 속에 섬유질 성분은 소화 작용을 촉진시키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바나나 1개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일일권장섭취량의 10%에 달해 소화기관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한 비타민 B6는 식욕억제에 도움을 줘 체중감소에 영향을 주며 혈당 수준을 유지시켜 2형 당뇨병에도 효과적이다.<br/>4. 시력 향상<br/>바나나에는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A가 상당하게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A에는 눈 주위의 세포막과 각막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요소 화합물이 다량 포함되어있으며 황반변성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br/>5. 신장암 예방<br/>지난 2005년,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자주 섭취한 여성들은 신장 암 발생률이 40% 가까이 감소했는데, 특히 일주일에 바나나 4~6개를 섭취한 여성은 신장 암 발생 위험이 50% 밑으로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바나나 속 항산화 페놀 화합물이 신장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0.txt

제목: [부고] MLB 통산 타율 .338 그윈  
날짜: 2014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14541729  
본문: 테드 윌리엄스 이후 최고의 교타자로 통하며 2007년 미프로야구(MLB) 명예의전당에 입회한 토니 그윈(미국)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떴다. 54세.<br/><br/>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com)는 그윈이 17일 캘리포니아주 포웨이에 있는 포메라도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고인은 몇 년 전 침샘에 암세포가 발견돼 투병 생활을 해 왔다. 현역 시절 즐겨 씹던 입담배가 암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2010년 양쪽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그윈은 2년 뒤에는 뺨에 생긴 종양을 제거했다. 최근에는 투병에 전념하기 위해 샌디에이고 주립대 감독직을 휴직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br/><br/>고인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1시즌 동안 오직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만 뛰며 ‘미스터 파드레’란 별명으로 불렸다. 통산 2440경기에 출장, 3141안타 135홈런 1138타점 1383득점 타율 .338 출루율＋장타율(OPS) .847을 기록했다. 파워 스윙은 아니지만 정확도만큼은 최고란 평가를 들었다. 아들 토니 그윈 주니어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뛰고 있다.<br/><br/>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1.txt

제목: “美 최고 의료진, 이건희 회장 진료”  
날짜: 2014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14455459  
본문: 이건희(72) 회장의 폐암 수술을 집도했던 미국 MD앤더슨 병원 의료진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과 함께 이 회장을 진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br/><br/><br/>삼성그룹 관계자는 17일 “<span class='quot0'>(이 회장) 입원 이후 미국 MD(앤더슨) 의료진이 여러 차례 방한해 삼성병원 의료진과 함께 진료를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MD앤더슨은 텍사스대 부속 병원으로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 등이 뽑은 암치료 분야 미국 최고 병원이다. 이 회장은 MD앤더슨 암센터에서 2000년 폐암의 일종인 림프절암 수술을 받았으며, 해마다 이곳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한 심장내과 의사는 “<span class='quot1'>이 회장에 대한 MD앤더슨의 진료 기록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br/>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8일째인 이 회장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등 용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완전한 의식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이 회장의) 의식이 회복돼 사람을 알아보는 등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려면 적어도 1~2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의료진이 보고 있다</span>”고 전했다. 김경환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쓰러지기 전처럼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진의들이 다방면의 치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br/>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br/><br/><br/>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2.txt

제목: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 “오래 앉아있으면 암 발병률 증가”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4235100  
본문: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과 미국 워싱턴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앉아있을 경우 암 발병률이 66%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많아질수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8%씩 높아지며, 여성의 경우 자궁내막암에 걸릴 위험이 10%나 높아졌다. <br/>예컨대 여성이 하루 중 총 10시간을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중 8시간을 앉아있는 여성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8%, 자궁내막암에 걸릴 확률은 10% 높아진다는 뜻이다. <br/>연구팀은 대장암을 포함한 각종 암에 걸린 환자 7만 명의 데이터와 기존 연구 43건을 분석한 결과, 암에 걸린 사람 중 지나치게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을 가진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br/>연구팀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습관은 몸무게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에너지를 지나치게 덜 소비하는 체질로 변하게 한다”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암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br/>실제로 운동량이 낮을 경우 복부지방 증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당 증가 등의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증상들은 심장질환이나 난소암, 대장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br/>이번 연구는 하루에 평균 6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텔레비전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수명이 5년 짧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운동과 앉아있는 생활습관, 암의 연관관계에 힘을 더하고 있다. <br/>세계보건기구(WHO)는 18~64세 성인의 경우 1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중간 강도로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 이상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성인은 전 세계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영국과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움직이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br/>연구팀은 “지나치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고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워싱턴대학교의 그라함 콜디즈 박사 역시 “<span class='quot0'>현대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을 더욱 오래 앉아있도록 만들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학교나 직장, 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Journal of National Cancer Institute) 최신호에 실렸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3.txt

제목: 건보료, 내년에 얼마나 오르나…올해는 1.7%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13550062  
본문: 건보료, 내년에 얼마나 오르나…올해는 1.7%<br/><br/>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 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br/><br/>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br/><br/>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br/><br/>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 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br/><br/>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br/><br/>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br/><br/>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br/><br/>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br/><br/>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br/><br/>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br/><br/>이 관계자는 다만 “<span class='quot1'>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4.txt

제목: 발암물질 나온 전자담배, 금연 도움 된다고?  
날짜: 2014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11833165  
본문: 냄새 걱정 없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유사한 만족감을 주면서도 금단 현상을 완화해주는 전자담배. 금연을 위한 첫 방법으로, 또는 담배 대용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많아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자담배에도 ‘원조 담배’ 못지않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br/><br/>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알코올에 녹여 담배의 필터에 해당하는 카트리지를 빨 때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신종담배다. 담배제조사들은 전자담배가 냄새가 없고 연기가 나지 않으며 타르가 없어 안전하게 흡연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시장에 통했고, 외국은 물론 한국에도 급속히 퍼져 조사결과 흡연자의 30~40%가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br/><br/>전자담배가 금연 초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인체 유해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액상 121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에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담배제조사들의 주장과 달리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다. <br/><br/>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일명 환경호르몬이 8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모든 액상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왔으며, 103개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는 등 10여 종류의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암, 내분비계장애,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다. <br/><br/>가장 큰 문제는 니코틴 남용 가능성이다. 제품별 니코틴 함량이 균일하지 못해 어떤 제품은 니코틴 농도가 36.15㎎, 즉 담배 723개비(1개비당 니코틴 0.05㎎ 함유 기준)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성인기준으로 니코틴 치사량이 40~60㎎임을 감안할 때 니코틴 함량 표기만 믿고 소비자가 전자담배를 다량 흡입할 경우 호흡장애, 의식상실 등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호흡장애가 올 때까지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품질 관리가 엉성하다 보니 나오는 니코틴 양이 동일하지 않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이마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br/>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의 수증기에도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브라질, 노르웨이, 싱가포르는 전자담배의 이러한 유해성을 인정해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를 보통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의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 <br/><br/>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담배제조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논문을 쓴 전문가들은 효과성을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은 전문가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다. 일각에선 전자담배가 해로움을 줄인 담배로서 기존 담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한다. <br/><br/>그러나 명승권 국립암센터 박사는 “<span class='quot0'>금연을 계획하고 있던 흡연자가 금연 대신 지속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는 일종의 관문이 될 수 있는데다 덜 해롭다는 근거도 부족하다</span>”고 지적했다. <br/><b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5.txt

제목: 온몸에 털 없는 15세 소녀가 전하는 ‘긍정의 메시지’  
날짜: 2014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924801  
본문: “머리카락은 여자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일 당신이 여성이라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br/>최근 영국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은 물론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빠지는 심각한 탈모 증상을 앓아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15세 소녀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br/>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이 소녀는 현재 런던에 사는 조엘 아멜리(15). 그녀는 8살 때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단 몇 개월 만에 모든 머리카락이 빠져 민머리가 되고 말았다.<br/>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전부 빠지는 희귀 증상까지 나타났다.<br/>이는 심각한 탈모 증상 때문. 일반적으로 탈모증은 면역체계가 모낭을 공격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머리카락의 생성을 방해해 나타나는 일종의 면역 질환이다.<br/>따라서 그녀는 학교에서 암 치료로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 ‘암 소녀’라는 별명까지 붙고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한다.<br/>그런 그녀가 탈모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알로페시아 유케이’(Alopecia UK)의 모델로 발탁, 평상시 착용하던 가발을 벗어 던지고 이런 질환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br/>대중 앞에 당당히 나선 그녀는 “머리카락을 잃은 것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와 연구 기관들이 탈모증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br/>이런 활동 외에도 조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일기나 뮤직비디오,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인기도 높다. <br/>자신의 질병을 공개한 이후 그녀는 전보다 “삶 일부로 탈모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br/>사진=알로페시아 유케이<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6.txt

제목: 털 없는 15세 소녀가 전하는 ‘긍정의 메시지’  
날짜: 2014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853346  
본문: “머리카락은 여자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일 당신이 여성이라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br/>최근 영국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은 물론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빠지는 심각한 탈모 증상을 앓아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15세 소녀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br/>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이 소녀는 현재 런던에 사는 조엘 아멜리(15). 그녀는 8살 때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단 몇 개월 만에 모든 머리카락이 빠져 민머리가 되고 말았다.<br/>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전부 빠지는 희귀 증상까지 나타났다.<br/>이는 심각한 탈모 증상 때문. 일반적으로 탈모증은 면역체계가 모낭을 공격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머리카락의 생성을 방해해 나타나는 일종의 면역 질환이다.<br/>따라서 그녀는 학교에서 암 치료로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 ‘암 소녀’라는 별명까지 붙고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한다.<br/>그런 그녀가 탈모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알로페시아 유케이’(Alopecia UK)의 모델로 발탁, 평상시 착용하던 가발을 벗어 던지고 이런 질환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br/>대중 앞에 당당히 나선 그녀는 “머리카락을 잃은 것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와 연구 기관들이 탈모증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br/>이런 활동 외에도 조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일기나 뮤직비디오,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인기도 높다. <br/>자신의 질병을 공개한 이후 그녀는 전보다 “삶 일부로 탈모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br/>사진=알로페시아 유케이<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7.txt

제목: 새콤달콤 ‘오렌지’에 숨겨진 의학적 비밀  
날짜: 2014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836269  
본문: 주황빛 껍질을 벗겨내면 드러나는 매혹적인 풍미의 과육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인 오렌지는 상쾌한 맛뿐 아니라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로도 명성이 높다. <br/>생으로도 많이 먹지만 주스로도 인기가 높은 오렌지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제로이기에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오렌지가 품고 있는 의학적 장점은 생각보다 많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 효과와 일부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최근 소개했다.<br/><br/>1. 체내 면역 체계 구성<br/>감귤류 과일 대부분은 비타민 성분이 풍부한데 그 중 오렌지는 과육 100g 당 비타민 C양이 40∼60㎎일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 비타민C의 의학적 효능 중 하나는 체내 면역력을 증강시켜 감기 바이러스 등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해 암, 심장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br/>2. 피부 주름 개선<br/>오렌지에 풍부한 비타민C는 태양 자외선과 각종 오염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얼굴 주름을 감소시키고 피부의 전반적인 질감을 개선해준다.<br/>3. 콜레스테롤<br/>오렌지에 풍부한 섬유질은 체내에 과잉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br/>4. 심장 보호<br/>오렌지에 풍부히 함유되어있는 비타민C, 섬유질, 칼륨 성분은 심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 특히 체내에 칼륨이 부족해지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을 앓게 되기 쉬운데 오렌지를 섭취해주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칼륨 4,069㎎을 섭취하는 사람은 1,000㎎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49%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br/>5. 당뇨병<br/>오렌지에 풍부한 섬유질은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준을 낮추고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수준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br/>6. 소화 및 체중 감소<br/>오렌지의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기관을 이롭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수분을 흡수해 체중감량에도 도움을 준다.<br/>7. 시력 향상<br/>오렌지에 풍부한 비타민A는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인 황반이 변성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루테인, 베타카로틴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화합물도 많은데 이는 야간 시력을 향상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br/>8. 암 예방<br/>오렌지를 비롯한 감귤류 과일 속 비타민C 성분은 발암원인 중 하나인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4년에는 오렌지 주스가 소아 백혈병 위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온 적이 있다. 또한 오렌지 속 섬유질과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은 각각 대장암과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오렌지가 영양분 덩어리인 것은 사실이나 감귤류 과일이 산성을 띤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과한 오렌지 섭취는 역류 성 식도염, 가슴 통증을 야기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한다.<br/>또한 비타민C도 문제다. 해당 영양소의 체내 축적량이 과해지면 설사, 구역질, 구토, 복부 팽만감, 두통, 불면증, 신장 결석 생성 원인이 될 수 있다. <br/>특히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오렌지를 주의해서 섭취해야한다. 그 이유는 베타 차단제 자체로 상당한 칼륨이 체내에 쌓이는데 여기에 오렌지 속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8.txt

제목: “SPF 50 선크림, 자외선 완벽차단 못한다”  
날짜: 2014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646557  
본문: 뜨거운 태양빛이 작렬하는 여름이 가까워올수록 성인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외선차단제(선크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br/>자외선이 다양한 피부암과 피부노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익히 알려진 만큼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선크림을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br/>영국 맨체스터대학과 런던 암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분자 연구를 실시했다. <br/>그 결과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암세포를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항암유전자이자 ‘보호 유전자’인 ‘P53’이 파괴되며, 자외선을 가장 오랫동안 차단해준다는 SPF50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에도 자외선이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해 결국 세포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br/>이러한 세포 손상은 결국 악성흑생종 등 피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부암의 일종인 악석흑색종은 영국에서 5번째로 흔한 암으로, 매년 1만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br/>연구를 이끈 영국암센터의 줄리 샤프 박사는 “<span class='quot0'>사람들은 선크림을 바르면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괜찮다고 맹신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SPF50의 선크림 역시 피부암을 유발할 정도의 자외선 통과를 ‘허용’한다는 걸 발견했다</span>”고 설명했다. <br/>맨체스터대학의 리차드 마레이즈 박사는 “자외선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많은 유전자들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다. 이번 연구는 선크림이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br/>연구팀은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고, 자외선을 차단하는데에 있어서 선크림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고했다. <br/>선크림으로 ‘계절 특수’를 누리는 화장품 업계 역시 이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화장품향료협회(Colipa: European Cosmetic, Toiletry and Perfumery Association) 측은 “화장품 판매자들은 절대 선크림이 피부암 등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 말(광고)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자외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선크림만 바르면 된다고 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br/>이어 “가장 최선은 태양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부를 가려주는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게재됐다. <br/>사진=포토리아<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89.txt

제목: 간암 재발 방지길 열렸다  
날짜: 2014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03940437  
본문: 국내 연구진이 간암 재발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냈다. 간암 재발을 막는 치료 방법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구 한양대 의대 교수팀과 유은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병리과·이한주 소화기내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간암의 발생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의 재발과 유전자 증폭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br/><br/>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환자 231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RB1’이라는 이름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간암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간암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로 수술로 제거해도 5년 내 재발률이 무려 70%에 이른다. 간암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표식인자(유전자마커)를 밝혀내면서 간암 재발 예측과 표적 약물치료 등 간암의 맞춤형 치료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br/><br/>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0.txt

제목: 생존율5% 불치병 이겨낸 8살 소녀…세계최초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457010  
본문: 생존확률이 불과 5%에 불과한 희귀 암 질환과 3년간 사투 끝에 세계 최초로 완치 판정을 받은 8살 소녀가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br/>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잉글랜드 중동부 링컨셔 카운티에 거주 중인 8세 소녀 클라우디아 버킬의 기적 같은 사연을 10일(현지시간) 소개했다. <br/>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순진무구한 미소가 인상적인 클라우디아의 삶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지난 2011년 6월, 그녀의 나이 불과 5세 때였다. 당시 계속 구토 증세를 보이던 클라우디아를 데리고 인근 링컨 카운티 병원을 찾은 부모는 최초 진단에서 단순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지만 이어진 두 번째 진단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중 계속 눈 한쪽을 찡긋거리는 클라우디아의 모습을 의사가 발견했던 것.<br/>곧 클라우디아의 뇌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의료진은 더 큰 의료기관인 노팅엄 퀸즈 병원으로 클라우디아를 옮겼고 그곳에서 ‘전이성 송과체아세포종(pineoblastoma)’ 진단을 받았다. 제대로 발음하기도 힘든 이 질환은 대뇌와 중뇌 사이에 위치한 신경 복합체인 사이 뇌 부분에 악성 종양이 자리 잡은 것으로 생존율이 5%에 불과해 사실상 불치병에 가까웠다.<br/>당시 의료진은 클라우디아의 부모에게 아이의 수명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니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다소 충격적인 조언을 전했다. 영국에서 1년에 불과 3~4건만 보고될 정도로 희귀한 이 질환은 치료법이 전무했기에 의료진으로서도 별다른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br/>하지만 암세포보다 강한 것은 클라우디아의 생존의지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클라우디아와 부모는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치료를 진행했다. <br/>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가 44가지에 달하는 지독한 방사선 화학요법을 견뎌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불과했던 클라우디아의 수명은 하루씩 늘어났고 694일이 지난 후,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다. 클라우디아의 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말기 종양이 사라진 것이다.<br/>비록 아직까지 화학치료를 더 받아야하고 일부 뇌 손상이 찾아와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다시 밝은 미소와 희망찬 미래를 되찾게 됐다.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발위험은 보이지 않는 완치 수준이다.<br/>누구보다 감격에 가득 찬 것은 3년 간 곁에서 고통을 분담해온 클라우디아의 엄마 안드레아 버킬이다. 그녀는 “오늘은 나와 딸이 삶의 자유를 되찾은 최초의 날이다. 꼭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앞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br/>사진=데일리메일<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1.txt

제목: “안아주세요!” 포옹의 위력 알게 해주는 광고영상 화제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03613790  
본문: “사랑한다면 안아주세요!”<br/><br/>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그리고 친구와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힐링을 줄 수 있는 지 알려주는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br/><br/>한 섬유유연제 브랜드가 만든 이 광고는 제품을 전면에 노출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알게 한다. 이를 통해 감동 뿐만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있다.<br/><br/><br/><br/>영상을 보면 예비 부부, 이란성 쌍둥이, 친구 등이 나와 실험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두 명씩 나와 둘의 관계에 얽힌 사연을 들려준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서로를 안아주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느끼게 하는 지 말하는 것이 이 실험의 과정이다.<br/><br/>한 예비 부부는 그들이 어린시절부터 뉴욕 할렘가의 변두리에서 살았으며, 오랜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는 서로를 안으며 “마음이 안정되고 털옷처럼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고백한다.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안는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해야할지 알게 한다”라고 덧붙인다.<br/><br/>쌍둥이 형제 중 암에 걸린 동생은 형이 자신보다 더 잘 생기고 키도 크다는 것에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고백한다. 또 앞으로 형제의 우애를 해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리고는 서로를 꼭 껴안는다. 형제는 서로에게 “가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포옹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고 고백한다.<br/><br/>이밖에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서로 경쟁해 온 자매의 사연과 50년을 함께 해온 친구의 이야기도 소개된다. 그들도 역시 서로 포옹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br/><br/>이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과 함께 상대방을 진심으로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치유를 느끼게 하는 지 설명해준다.<br/><br/>한편 유튜브에 지난 5일 게시된 이 영상은 “아름답다.”, “감동적이다.”라는 누리꾼들의 호평 속에 83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br/><br/>사진·영상=Downy/유튜브<br/><br/>김형우 인턴기자 hwk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2.txt

제목: “점인줄 알았는데 암이라니&#57747;” 피부암 환자 계속 늘어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1003324097  
본문: #환자 사례1=김성중(72)씨는 2년 전 왼쪽 뺨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뾰루지 정도로 여겨 집에 있던 상처치료 연고를 바른 후 잊어버렸다. 하지만 상처는 계속돼 진물이 나고, 부풀어 2.5cm 정도나 되는 혹처럼 변했다. 통증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자꾸 혹을 쳐다봐 신경이 쓰여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됐다. 재발을 막기 위해 비교적 넓은 안면부위를 절제한 뒤 다른 부위의 피부를 이식해야 했다. 다행히 수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고, 재발 징후도 없지만,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관리하고 있다.<br/><br/>#환자 사례2=이명례(여·74)씨는 오른쪽 뺨에 생긴 조그만 점이 점차 진해지고, 크기도 1.5cm까지 커졌다. 또 점 부위에 생긴 상처가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흑생종이었다. 다행히 수술로 종양을 말끔히 제거했으며, 향후 5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br/>　<br/>올해는 한층 일찍 더위가 시작됐다. 적당한 햇볕은 혈액순환과 비타민-D의 합성을 돕고, 살균작용도 하지만, 지나치면 피부 노화, 시력 손상, 백내장, 피부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피부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통증 등 자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백인들에게 많은 질환으로만 생각하는 등 피부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br/>　<br/>■야외활동 증가와 맞물린 현상=피부암은 기저세포암·편평세포암·흑색종·카포시육종·파젯병·균상식육종 등 여러 가지 악성 피부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하얗고 얇은 피부는 상처가 빨리 낫고 흉터가 잘 생기지 않지만, 피부암에는 취약하다. 그래서 피부암은 백인 등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하다. <br/><br/>이런 피부암은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만성적 피부 자극이나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및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원인은 자외선 노출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축적량이 많아지는 데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한 환자 수는 2009년 11만명에서 2013년 16만명으로 무려 45% 증가했다. <br/>　<br/>■생명 위협하는 피부암도 있어=피부암은 크게 흑색종과 비흑색종으로 나눈다. 흑생종은 멜라닌세포나 모반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으로, 전이가 잘 되고, 항암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반면, 편평세포암·기저세포암 등 비흑색종은 조기에 발견하면 레이저로도 치료도 가능하며,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전이가 잘되지 않아 설령 늦게 발견하더라도 수술만 잘하면 거의 완치된다.<br/>　<br/>■피부에 이상 징후 보이면 바로 병원 찾아야=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점의 색깔이나 형태가 변하면 피부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피부 속에 손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까닭없이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날 때, 상처에서 피가 나고 멈추지 않을 때는 병원을 찾아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br/><br/>특히 점이 6㎜ 이상으로 비교적 크고, 모양이 비대칭이며, 경계가 불규칙하고, 색깔이 얼룩덜룩하면 흑색종을 의심해 봐야 한다. 또 얼굴 등 노출부위에 가렵지 않으나 빨갛거나 갈색의 상처가 생겨 진물이 나는 경우라면 비흑색종일 가능성이 있다.<br/><br/>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암클리닉(성형외과) 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환자가 단순한 점이나 검버섯 혹은 만성적인 종기나 상처 등으로 여겨 방치하다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피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　<br/>■수술할 때는 기능 보존하고 흉터 줄이는 게 중요=피부암 수술은 암 병변을 완전히 절제해 재발을 막고, 수술 후 눈·코·입 등 안면 기관들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흉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은 재발을 막기 위해 기저세포암의 경우 0.5~1cm, 편평세포암은 1~3cm, 악성흑색종은 2~3cm 이상의 정상조직을 함께 제거한다. 이 때문에 피부이식이 필요한데, 이 때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흉터가 남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증이 생겨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br/><br/>서인석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암 주위 조직의 변형 및 흉터를 최소화하려면 아무래도 미적 감각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히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과·성형외과·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진료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span>”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피부암은 피부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일주일 이상 낫지 않는 피부병변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하며,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등 지나친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자외선 차단은 어떻게=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옷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일광 접촉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계절에는 몸에 딱 맞는 옷보다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은데, 몸에 딱 맞는 옷은 햇빛이 옷감 사이로 투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에 젖은 옷이 자외선을 더 잘 막아줄 것 같지만, 물에 젖은 옷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br/><br/>자외선 차단 효과는 옷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흰 티셔츠는 SPF 5∼9 정도의 효과가 낮지만, 짙은 색 청바지는 SPF 1000 정도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br/><br/>모자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구모자는 자외선 차단효과가 별로 크지 않아 목과 등, 얼굴 옆면 등이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다. <br/><br/>선글라스는 패션도 중요하지만, 자외선 차단 및 눈부심 방지 기능 등을 꼼꼼히 살펴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질이 나쁜 렌즈는 안과 질환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br/><br/>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3.txt

제목: “꾸준한 운동이 ‘유방암’ 위험 감소시켜”  
날짜: 2014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339328  
본문: 꾸준히 운동을 해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의과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span class='quot0'>평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준 여성은 유방암 위험에 덜 노출된다</span>”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br/>연구진은 50~69세 사이 폐경기 과체중 여성 240명을 대상으로 16주 안에 5~6㎏을 감량하는 특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한 여성의 3분의 1은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지구력·근력 향상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그 외 3분의 1은 운동 대신 식이습관을 조절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지 못했다.<br/>이후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서 확인된 결과,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과 식이습관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모두 체중감량에 성공했다. 이채로운 것은 운동 프로그램 그룹의 경우 체지방량은 감소했지만 체중 자체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br/>중요한 것은 이후 진행된 혈액검사 결과다.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그룹은 식이요법 프로그램 그룹 여성들에 비해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에스트로겐은 난소 안에 있는 여포와 황체에서 주로 분비돼 생식주기에 영향을 주는 여성호르몬으로 이것이 과다할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물론 식이요법 여성그룹도 아예 다이어트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게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1가지 유형의 에스트로겐 수치만 낮아진데 비해 운동프로그램 여성그룹은 모든 유형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골고루 낮아진 것으로 나와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려준다.<br/>연구진은 꾸준한 운동이 호르몬 인슐린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트레흐트 의과대학 메디컬 센터 앤 마리아 매이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신체 활동 부족이 유방암 발병의 위험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자는 기존 가설을 증명하는 연구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1'>폐경기를 지난 여성에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4.txt

제목: “레드와인 마셔주면 기억력·집중력↑”  
날짜: 2014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3241931  
본문: 풍부하고 깊은 향에 매혹적인 붉은 빛깔이 인상적인 ‘레드 와인’이 두뇌 기억력·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병원 연구진이 레드 와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화합물이 두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연구진은 과체중이지만 다른 부분은 건강한 실험 참가자 43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룹을 반으로 나눠 두 개 그룹으로 세분화 한 후 첫 번째 그룹에 속한 23명에게는 레스베라트롤 200㎎을, 두 번째 그룹에 속한 23명에게는 위약(僞藥-환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 주는 가짜 약) 200㎎을 6개월 간 복용하도록 한 뒤 경과를 관찰한 것.<br/>이후 나타난 결과는 흥미로웠다. 두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억력 테스트에서 레스베라트롤을 복용한 실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단어 기억력, 문제 집중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공명 영상(MRI) 장체를 통해 이들의 뇌 혈류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두뇌 신진대사가 상당부분 활성화된 것으로도 조사됐다.<br/>레드와인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적포도주 뿐 아니라 다크 초콜릿, 땅콩, 포도를 비롯한 베리류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이와 관련해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병원 신경과학자 베로니카 위트 박사는 “레드 와인 속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 화합물이 두뇌 기억력·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 결과”라며 “임상적 관점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는 레스베라트롤의 정기적인 섭취가 두뇌 노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규모 임상 실험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br/>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신경과학 저널(Journal of Neuroscience)’에 4일(현지시간) 발표됐다. <br/>자료사진=포토리아　<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5.txt

제목: 이문세 갑상선암 재발 “토론토에서는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날짜: 2014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35415884  
본문: 이문세 갑상선암 재발 “토론토에서는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br/><br/>가수 이문세가 갑상선암 재발 소식에 이어 트위터로 근황을 전했다.<br/><br/>지난 4일 이문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 이제 정들었던 뉴욕을 떠나며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 컷. 토론토에서는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하며 여전히 밝아보이는 모습으로 근황을 전했다.<br/><br/>이문세는 전날 트위터에 “7월에 갑상선 재수술을 받게 됐다. 지난 3월에 종합검진결과 갑상선에 또 작은 게 발견됐다고 수술하자는 의료진의 제안에 급하지 않으면 공연 일정 다 끝낸 후 받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다”라며 “좋은 일도 아니고 많이 걱정 할 일도 아닌데 수선 떨 일도 아니고 많은 분들 괜한 걱정 끼치지 않게 알리지 말아 달라 신신당부했건만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고 밝혔다.<br/><br/>또 이문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공연 최선을 다해 하는 일 그리고 깔끔하게 수술 받고 건강하게 또 노래하는 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말아라”라고 전했다.<br/><br/>이문세는 이달부터 캐나다(토론토), 미국(로스앤젤레스·뉴저지), 호주(시드니)에서 3개국 4개 도시 해외 순회공연을 펼칠 예정이다.<br/><br/>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이문제 갑상선암 재발,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span>”, “<span class='quot0'>이문세 갑상선암 재발, 그래도 진행이 늦은 암이라는데 힘내세요</span>”, “<span class='quot0'>이문세 갑상선암 재발, 걱정된다</span>”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6.txt

제목: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식품보감] 버섯  
날짜: 2014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20234845342  
본문: 버섯은 동물성과 식물성 영양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물성 영양분인 단백질, 식물성 영양분인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 1999년 미국의 유명한 약용버섯 학술지에 버섯 15종류의 약효가 보고됐다. 항균, 항염증, 항종양(항암), 항에이즈 바이러스, 항세균, 혈압조절, 심장혈관 장애 방지, 콜레스테롤 과소혈증(콜레스테롤의 과잉 섭취로 인해 혈청 중 콜레스테롤이 최고치가 된 경우)과 지방과다혈증 방지, 면역조절, 신장강화, 간장독성 보호, 신경섬유 활성화(치매예방), 생식력 증진, 항만성 기관지염, 혈당 조절 등이다. <br/><br/>버섯은 종류마다 다른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즐겨 먹는 느타리버섯에는 혈압조절, 심장혈관 장애 방지, 콜레스테롤 과소혈증 및 지방과다혈증 방지, 치매예방, 항종양, 항에이즈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br/><br/>알츠하이머(치매)에는 노루궁뎅이버섯, 느타리버섯, 동충하초, 버들송이, 뽕나무버섯, 연잎낙엽버섯, 영지 등이 효능을 보였다. 노루궁뎅이버섯과 노랑느타리, 새송이를 혼합해 복용하면 치매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br/><br/>버섯의 항암 효과는 베타 글루칸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77년 구름버섯으로 소화기암, 유방암, 폐암 등에 효과를 보이는 먹는 항암제 크레스틴을 시판했다. 1985년에는 표고버섯으로 항암제인 렌티난(위암)을, 1986년에는 치마버섯으로 역시 항암제인 시조필란(자궁·방광암)을 개발해 판매했다.<br/><br/>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상황버섯(목질진흙버섯)으로 먹는 항암제 ‘메시마엑스 산’(소화기·간암)을 개발해 팔고 있다.<br/><br/>버섯 항암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실험한 결과 상황버섯, 신령버섯, 저령, 꽃송이, 영지 등 약용 버섯뿐만 아니라 표고, 팽이, 느타리, 잎새, 느티만가닥, 송이 등 식용 버섯 모두 항암 작용을 나타냈다. 매일 다양한 버섯을 먹으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미다.<br/><br/>일본 나가노현은 팽이버섯 생산지로 유명한데 이곳 팽이버섯 재배 농가의 암 사망률은 10만명당 97.1명으로 전국 평균(160.1명)보다 월등히 낮았다. 또 팽이버섯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100일 때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66으로 낮았다.<br/><br/>또 모든 버섯은 열량과 지방 성분이 아주 낮고 식이섬유는 많다. 특히 느타리는 식욕 억제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우연히 실험 쥐가 살이 빠져도 느타리가 첨가된 사료를 먹지 않는 것을 발견해 느타리를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었는데, 이 물질을 ‘POL’이라고 이름 지었다.<br/><br/>희귀 버섯은 비싼 가격으로도 유명하다. 유럽에서 캐비어(철갑상어알), 푸아그라(거위간)와 더불어 세계 3대 진미로 알려져 있는 덩이버섯(서양송로)은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린다. 돼지나 사냥개를 이용해 냄새로 땅속에서 자라는 곳을 발견한 후 채취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호두에서 감자만 한 크기에 덩이 모양으로 표면은 흑살색이고, 내부는 백색이나 적갈색을 띤다. ‘검은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는 이유다.<br/><br/>덩이버섯은 참나무, 헤이즐넛, 올리브 등 활엽수의 뿌리와 공생하기 때문에 재배가 매우 어렵다. 특유의 향과 훌륭한 질감, 신장·장·위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 때문에 매년 1, 2월이면 프랑스 시장은 덩이버섯을 사기 위해 모여드는 전 세계의 미식가들로 붐빈다. 검은색 버섯은 1㎏에 300만원 정도, 흰 버섯은 1㎏에 600만원을 호가한다.<br/><br/>덩이버섯은 송로버섯으로 잘못 불려지기도 하는데, 송로는 소나무와 공생하는 알버섯을 말하며 덩이버섯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br/><br/>동양에는 동충하초(冬蟲夏草)가 있다. 말 그대로 겨울 동안에 곤충의 몸 안에 있다가 여름이 되면 풀이 되는 버섯이다. 중국 동충하초는 박쥐나방과의 유충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것은 충초(蟲草)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400여종 이상의 곤충기생 버섯 모두를 동충하초라고 부른다.<br/><br/>중국에서는 불로장생 및 강장의 비약으로 알려져 있어 3000년 전부터 이용했다. 중국 북서부 칭하이(靑海)성의 고산지대에서 나온 중국 동충하초가 최고품이며 1kg에 20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우리나라의 동충하초인 번데기동충하초는 분홍색을 띤 오렌지색으로 아름다우며 항암 효과가 있는 코디세핀이 함유돼 있다.<br/><br/>우리나라 문헌에 버섯이 처음 기록된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성덕왕 3년(704년) 정월에 웅천주(공주)에서 금지(金芝·영지버섯)를 왕에게 진상물로 올렸다는 것이 시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19종류 이상의 버섯이 기록돼 있다.<br/><br/>버섯의 인공재배는 일본에서 표고버섯 재배기술이 도입돼 1930년대에 시작됐다. 양송이의 인공재배 기술은 1950년대 일본·미국 등에서 도입됐다. 양송이는 1970년대 말 수출효자 종목이었다. 하지만 중국산 양송이의 덤핑 수출로 인해 느타리가 내수용으로 재배됐다.<br/><br/>병에 넣어 재배하는 느타리·새송이·팽이버섯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생산해 1년에 300번 정도 수확한다. 버섯은 무균 상태에서 배양돼 생육실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수확돼 시장에 나간다. 무농약·무비료로 재배되는 유기농 식품이다.<br/><br/>최근에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학습기자재, 관상용, 생물복원, 환경정화 등에 버섯을 이용하기도 한다. 버섯을 재배한 후 부산물은 가축·곤충사료, 유기질 비료, 퇴비 등으로 이용돼 순환 농업이 이뤄진다. 버섯 재배에는 물·빛도 다른 식물에 비해 적게 소요된다. 따라서 미래에 인간이 다른 별에서 살게 될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해야 식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유영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br/><br/>■문의 kdlrudwn@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7.txt

제목: 정말 건강식일까? ‘고구마’의 영양학적 장·단점  
날짜: 2014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843285  
본문: 30도를 웃도는 덥고 습한 초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보통 ‘고구마’하면 한 겨울 추위를 따뜻이 감싸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의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사실 계절과 상관없이 사랑받는 채소다.<br/>길쭉하고 동그란 담홍색 껍질을 벗겨내면 드러나는 하얀 속살은 굽거나 찜을 해주면 먹음직스러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특유의 달콤함과 담백함이 공존하는 그 맛은 전 세계에 어디에서나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고구마의 인지도는 특히 높은데 삶든 튀기든 굽든 어떻게 요리해도 맛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자보다 칼로리가 낮으면서 당질과 비타민C는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br/>이런 고구마가 건강에 좋은 영양분 덩어리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몸에 좋은 것만 있을까? 혹시 우리가 몰랐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고구마’ 속에 숨겨져 있는 영양학적 장점과 단점을 정밀 분석한 칼럼을 지난 31일(현지시간) 소개했다. <br/><br/>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공인된 고구마의 영양성분과 의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br/>1. 심장 보호<br/>고구마 속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B6는 동맥경화를 유발해 심장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박동을 알맞게 조절해준다.<br/>2. 혈당 제어<br/>고구마의 달콤함은 높은 당질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달콤함의 원천인 고구마 속 당분은 흔히 우리가 같은 고칼로리의 설탕과는 다른 ‘자연 설탕’성분이다. 이 자연 설탕은 혈류에 무리를 안주면서 천천히 몸에서 자연스럽게 감소되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꾸준히 축적되도록 도와준다. 의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는 혈당조절에 민감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고구마에는 뼈 형성을 돕는 ‘망간’도 풍부한데 이 성분 역시 혈당 수준을 건강히 유지시켜주면서 식욕조절에도 도움이 된다.<br/>3. 스트레스 감소<br/>고구마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뇌를 진정시켜 휴식에 이르게 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며 동맥, 혈액, 뼈, 근육, 신경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다. <br/>4. 면역력 증강과 항염증 작용<br/>고구마에 가장 풍부한 3가지 영양소를 꼽으라면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E다. 이들은 체내 면역 시스템을 강력히 지원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 이들 영양분은 항염증 작용도 해 관절염 같은 염증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br/>5. 피부와 머릿결 보호<br/>고구마 속 비타민A는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준다. 이 성분은 콜라겐 성분 생성에도 영향을 미쳐 피부와 머릿결이 촉촉이 유지되도록 도와준다.<br/>6. 소화기관 <br/>고구마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음식물 소화에 배출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줘 건강한 소화기관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br/>7. 암 예방<br/>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를 비롯한 녹황색 채소, 과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색소군인 ‘베타카로틴’은 여성 난소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 성분은 체내 항산화 작용, 유해산소 예방, 피부 건강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고구마는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몸에 전혀 해가되지 않고 도움이 더 되는 건강식품이지만 맛을 잊지 못해 먹는 양이 늘어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br/>고구마에 충분한 비타민A는 분명 많은 장점이 있는 영양소이지만 매일 풍부하게 섭취할 경우, 피부를 황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 이는 고구마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주변인들에게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인데 고구마 섭취를 줄이면 곧 정상으로 회복된다.<br/>마지막으로 고구마 과다 섭취는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 신장 결석은 소변 안에 들어 있는 물질들이 돌과 같은 형태로 굳어져 콩팥 안에 침투해 여러 가지 합병증과 고통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주원인은 칼슘과 옥살산나트륨이다. 고구마에는 옥살산 성분이 풍부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섭취하도록 조심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신장결석을 예방하려면 적어도 하루 10잔 이상, 2∼3ℓ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br/>사진=wikipedia<br/>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8.txt

제목: 12살 암투병 소녀가 남긴 ‘비밀편지’…“내리막길이 없다면 오르막도 의미 없다”  
날짜: 2014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836077  
본문: 12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한 소녀가 가족들에게 남긴 ‘비밀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br/>영국 일간지 메트로,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테나 오차드라는 이름의 소녀는 골육종(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고통 받다 지난 달 28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br/>오차드는 수 개월간 암과 싸우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br/>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오차드의 부모는 또 한 번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려야 했다. 딸이 쓰던 거울 뒷면에서 오랫동안 써내려간 듯한 장문의 ‘비밀편지’를 발견한 것. <br/>총 3000자로 쓴 이 편지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에게 남긴 진심이 담겨져 있다. <br/>그녀는 항암치료로 고통 속을 헤맬 때 “행복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중략) 평범한 것과 특별한 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12살의 나이에 맞지 않는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br/>이밖에도 “행복은 (나아가는) 방향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존재하는 것에 감사한다. 행복하고, 자유롭다”, “사랑은 거울과 같아서 깨지기 쉽다”, “사랑은 희귀하고, 삶은 기이하다. 영원한 것은 없고, 사람들은 변한다” 등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담은 글귀도 눈에 띈다. <br/>자신을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있다. 오차드는 “하루하루가 특별하다. 그러니 최대한 즐기며 보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그를 떠나가게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인생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리막길이 없다면,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남겼다. <br/>12살 된 딸이 남긴 장문의 메시지를 본 오차드의 아빠는 “딸은 투병 기간 동안 이 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 편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 것”이라면서 “딸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이 편지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서울신문-2-1999.txt

제목: 2차대전 승리주역 ‘나바호족 암호병’ 최후 생존자 별세  
날짜: 2014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60419162831198  
본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암호통신병으로 참전한 ‘나바호 코드토커’였던 체스터 네즈가 뉴멕시코 앨버커키 자택에서 향년 93세로 별세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br/>체스터 네즈는 미 해병대가 1942년에 처음 암호화 개발을 목적으로 채용한 나바호족 29명 중 ‘마지막 생존자’였다.<br/>암호용 언어로 나바호어가 선택된 이유는 구문이나 발음이 나바호족 이외의 사람들은 거의 습득할 수 없는 문자였기 때문. 따라서 종전 시에는 나바호 코드토커의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br/>체스터 네즈는 생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암호를 개발할 때 평상시에도 나바호어를 쓰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 면이 기억하고 유지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다.<br/>그는 2차 대전 당시 과달카날과 괌, 페리류 섬에서 벌어진 전투에 파견돼 암호통신병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와 같은 나바호 코드토커들의 숨은 활약으로 미국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종전 뒤 패전국이 된 일본은 이 암호를 전혀 해독할 수 없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br/>체스터 네즈는 1945년 전역했지만 이후 자원해 한국전에도 참전했다.<br/>코드토커는 암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병대 동료는 물론 가족에게조차 말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기밀이 풀린 것은 1968년. 그를 포함한 29명은 2001년이 돼서야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br/>코드토커의 공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들은 책이나 영화의 주제로도 다뤄지게 됐다. 2002년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윈드토커’도 그중 한 예다.<br/>체스터 네즈는 “시간이 걸렸지만 코드토커의 공적은 인정받게 됐다. 나바호족에게는 좋은 일이었다”면서 “해병대는 나바호 군의 암호 방법을 배우지 않았는 데 이 자체가 우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고 생전에 말했다.<br/>사진=CNN 캡처<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